

기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제1집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광 주 군

발간사



경기문화재단이 1997년 경기도 출연기구로 발족 된지 만 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으로는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만 그 동안 도내에서 재정적 이유로 활동에 제약받고 음지의 꽃을 맺지 못한 여러 문화예술무대에 단비를 내려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재단부설로 기전문화재연구원이 신설된 이래, 도내의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조사는 물론 낙후된 지역의 개발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를 선행함으로써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기록 보존하는 한편, 유적이 없는 곳에는 개발사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20건이란 많은 조사를 행하여 큰 성과를 이룬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광주군은 주지하다시피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질 좋은 도자기 생산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였음은 지금도 옛 도요지가 296개가 밝혀져 이를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년에 광주, 이천, 여주를 중심으로 세계의 도자기축제를 열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광주군은 한강을 끼고 백제, 고구려, 신라가 각축을 이루었던 땅으로, 이들 삼국의 발자취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의 아픔을 안고 있지만 위치로 보아 요새를 이루므로 백제와 신라의 자취도 남기고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써 그 보존정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를 자료로 활용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앞으로 광주군의 개발과 발전을 이룩하는데 지표가 되길 바라며, 끝으로 이 조사와 보고서를 간행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학계의 전문가와 경기문화재단 및 광주군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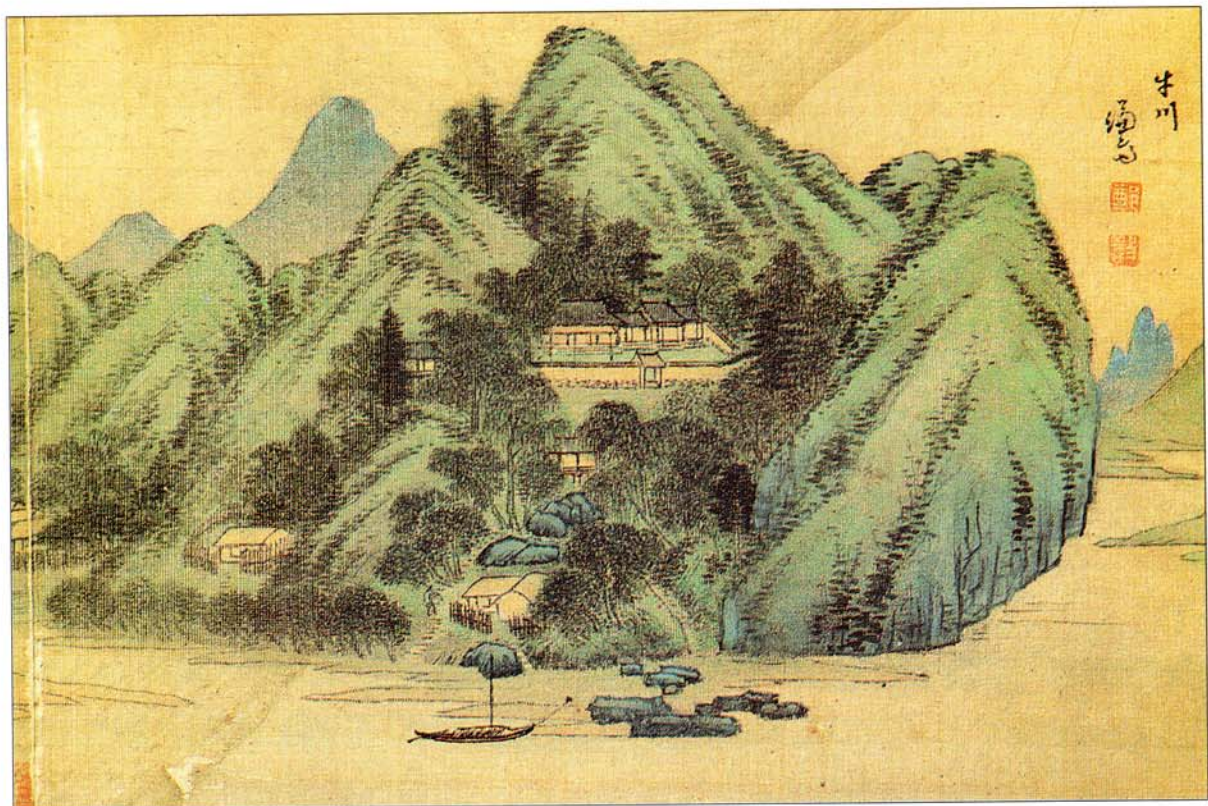
경 기 도 지 사

경기문화재단이사장 임 창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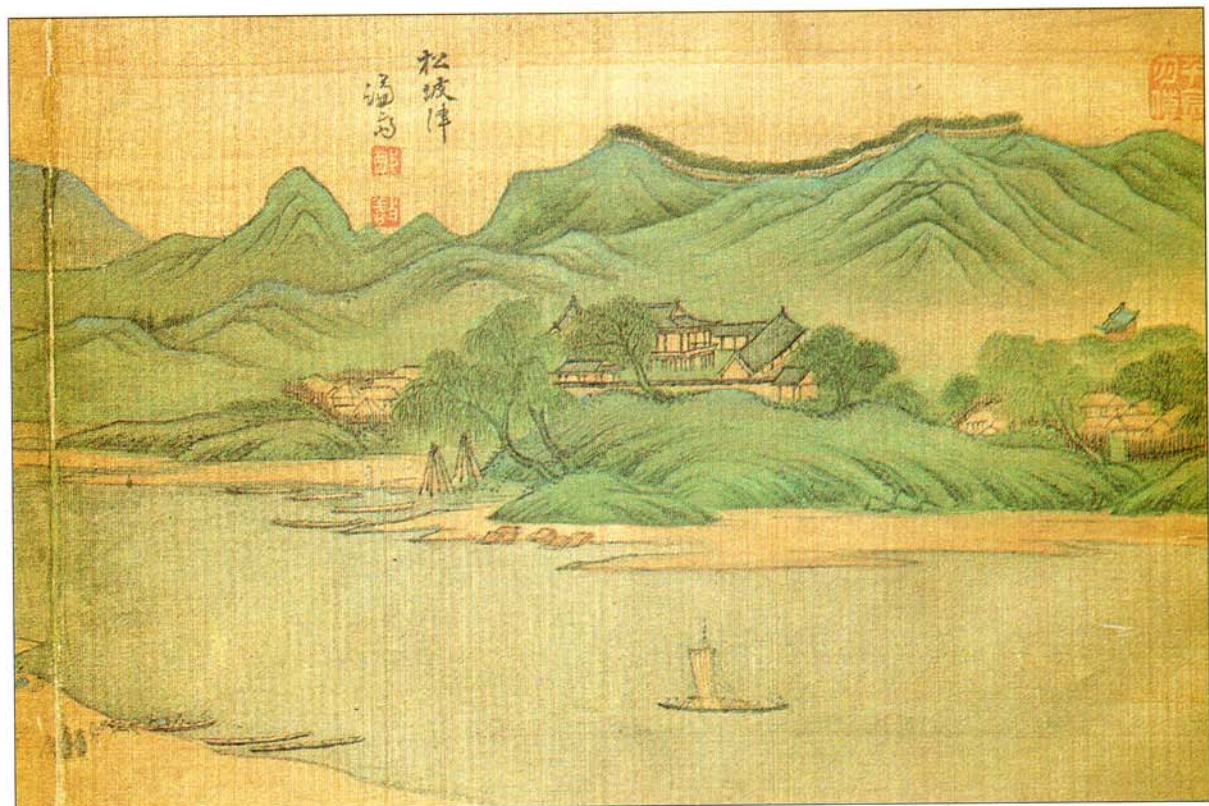
距京都五十里
 而距果川界三十里
 南距陽智界七十里
 北距楊州界三十里
 東距利川界七十里
 東南距州界六十里
 東北距振容三十里
 西南距水界八十里
 西北距楊州界三十里
 慶安面初境十里終境四十里
 五浦面初境三十里終境五十里
 都尺面初境四十里終境七十里
 寶村面初境五十里終境七十里
 草月面初境十里終境四十里
 近村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里
 草草面初境三十里終境六十里
 東部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西部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麗川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中基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細利面初境五里終境六里
 安馬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康生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里
 大旺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彦州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里
 儀公面初境四十里終境六十里
 取倫面初境五十里終境七十里
 月谷面初境七十里終境八十里
 北方面初境七十里終境九十里
 聲車面初境八十里終境一百里
 慶安站三十里
 康生站三十里
 松坡站二十里
 奉安站三十里
 時觀站七十里



廣州全圖, 1872年(고종9),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鄭散, 牛川(京郊名勝帖), 潤松美術館 所藏
司驤院 分院의 1741년(영조17) 모습, 지금의 분원초등학교와 그 주변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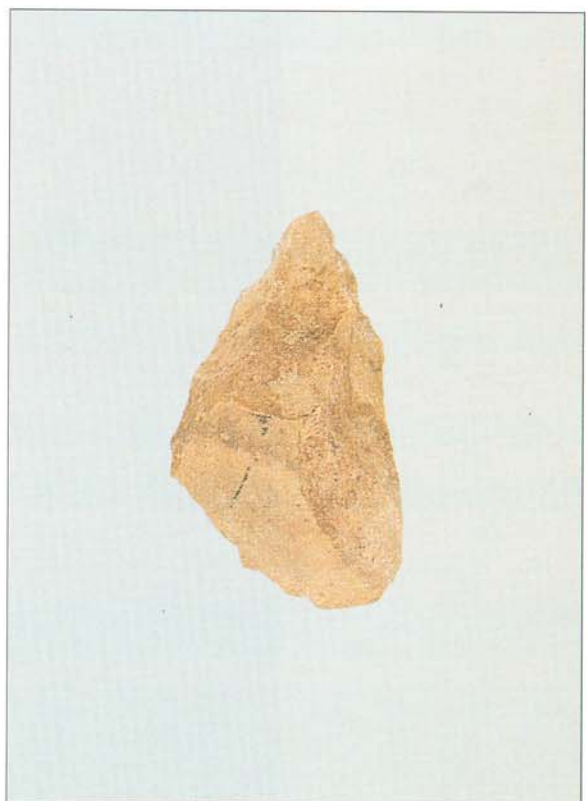
鄭散, 松坡津(京郊名勝帖), 潤松美術館 所藏
송파나무와 남한산성의 1741년(영조17)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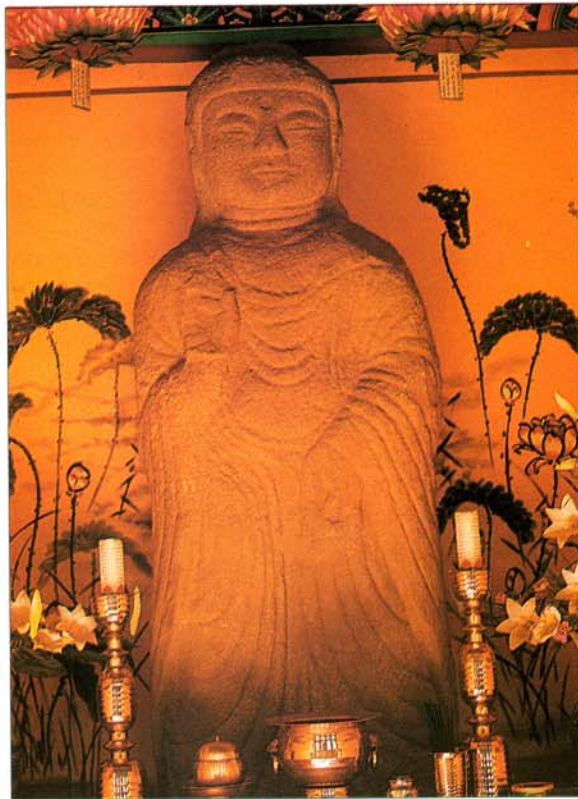
장지리 지석묘



도마리 채집 주먹도끼



장지리 채집 주먹도끼



개원사 석불



유정리 석불좌상(경기도유형문화재 제88호)



백련암 부도



신수경(1501~1584) 묘 무인석



이한 묘 문인석(태조-태종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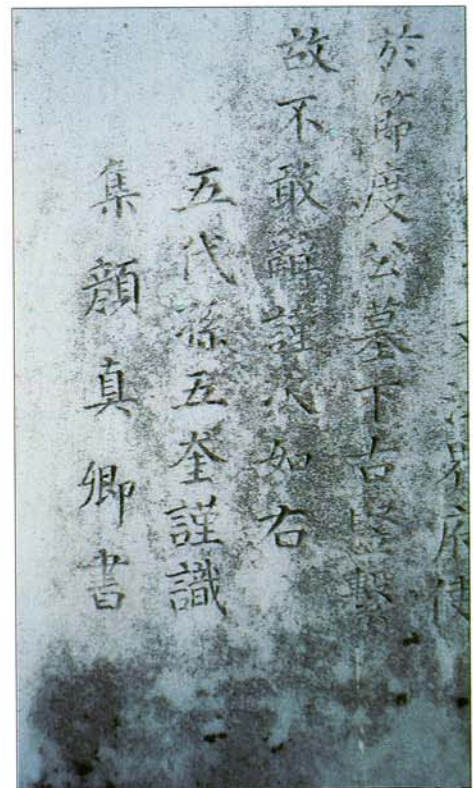
안운덕 신도비, 1535년(중종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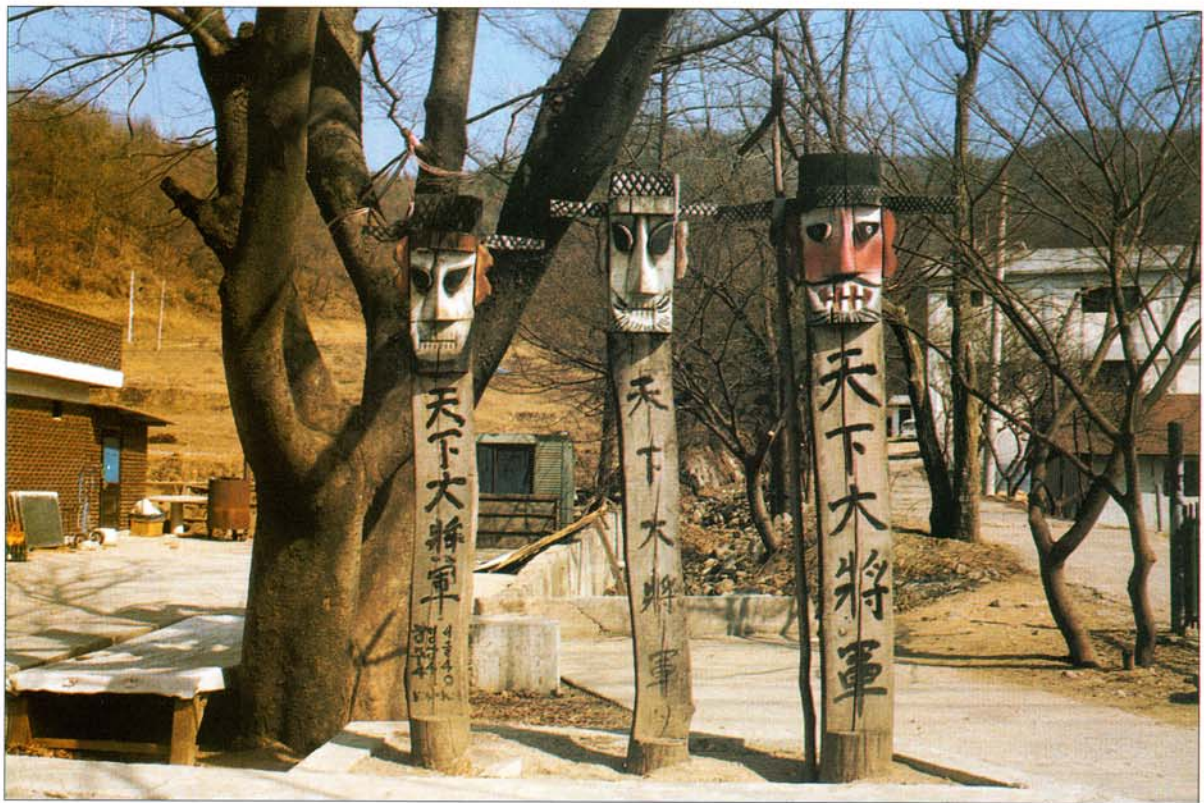
서명형 신도비, 1791년(정조15)



신성하 묘갈 이수 앞면, 1796년(정조20)



정연 묘표음기의 '集 顏真卿 書' 기사 부분
1741년(영조17)



무현리 천하대장군



육산 장승



신익희선생 생가(경기도기념물 제134호)



만선리 느티나무(경기광주 60)

일 러 두 기

1. 조사대상 및 시기

- 대상지역 : 현 광주군 전역
- 시기 : 선사시대~근·현대
- 대상유적 : 지정문화재와 비지정 부동산문화재, 미발견 매장문화재

2. 명칭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유적의 명칭은 고유명칭이 있거나 지정명칭이 있는 경우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그외는 리명+유적 종류를 원칙으로 명칭을 사용했다. 단 선천포역의 경우는 준칭을 생략하고 성명+묘,신도비로 명칭을 사용했다.

3. 유적번호

- 각 유적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일련번호의 순서는 행정구역에 따라 부여하였다.

4. 지도

- 유적분포지도는 국립지리원 발행 축척 1/25,000 지도를 사용하였으며, 수록된 지도는 이를 판형에 맞게 축소한 것이다.
- 본문에 삽입된 유적 위치도는 국립지리원 발행 1/5,000 지도를 판형에 맞게 축소하여 수록하였다.
- 광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광주군 전체유적의 분포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 장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하였다.

5. 부록

본 보고서의 부록편에는 조사유적에 대한 통계와 지역별, 시기별, 종류별, 지정문화재별 목록을 수록하였다.

6. 유적분류 및 시기구분

- 유적분류는 『문화유적총람』의 40개분류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에 유물산포지를 추가하여 총 41개의 분류항목을 설정하였다.
- 시기구분은 일반적인 한국사의 구분에 따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원삼국,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현대 등 9개로 나누었다.

7. 도면

본문의 유물실측도면은 1/3축소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편집상의 이유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각 도면에는 Scale을 붙여서 크기에 대한 비교를 용이하게 했다.

8. 기타

- 남한산성과 그 주변유적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시행되어 조사보고서가(『남한산성 문화유적』, 2000, 토지박물관)간행되었으므로 본 보고서에는 유적의 목록만을 수록하고 간단한 개관만을 다루었다.
- 도요지에 대한 조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 박물관의 조사보고서(『경기도 광주 중앙관요(지도편)』, 1999,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를 기본자료로 이용하였다.
- 본 보고서에 표시된 유적의 분포범위는 지표상에 노출된 유물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 본 조사는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이 광주군의 용역을 받아 실시하였으며, 조사와 보고서 간행에 필요한 비용은 광주군에서 부담하였다(조사비용 : ₩55,700,000원).

발간사
회보
일러두기

I. 조사 개요.....	25
1. 조사 경위	27
2. 조사 방법	28
II. 역 사	33
1. 선사시대	35
2. 고대	39
3. 고려시대	41
4. 조선시대	44
5. 근·현대	46
III. 민속과 전통	49
1. 주거	51
2. 일생 의례	62
3. 세시 풍속과 민속 놀이	91
4. 마을 신앙과 가정 신앙	106
5. 무속 신앙	130
6. 구비 전승	142
IV. 문화유적	157
1. 읍·면별 문화유적	159
광주읍	159
남종면	192
도척면	222
실촌면	253
오포면	290
중부면	330
초월면	342
퇴촌면	377
2. 조사 성과	419

Ⅶ. 유적분포지도	441
양수	444
국수	446
성남	448
광주	459
양평	468
능평	470
노곡	473
이천	479
부 록	481
1. 통계표	483
2. 유적 목록	485

사진목록

●민속과 전통

- 사진 1. 광주 안씨 세계보
- 사진 2. 5칸짜리 폐가옥
- 사진 3. 4칸짜리 폐가옥
- 사진 4. 청탄마을의 전통적인 생활가옥 일례
- 사진 5. 간업리의 전통가옥 생활가옥 일례
- 사진 6. 산월1리의 전형적인 기지형 서민농가(廢家)의 일례
- 사진 7. 산월1리의 변해가고 있는 가옥의 일례
- 사진 8. 정지2리의 전통적인 생활가옥 일례
- 사진 9. 중대리 텃골 윗놀이
- 사진 10. 초월면 신월1리 정월대보름 윗놀이 안내문
- 사진 11. 남종면 수청리 인근마을 정월대보름 동물놀이
- 사진 12. 초월면 신월1리 인근마을 윗놀이
- 사진 13. 독현1리 천하대장군
- 사진 14. 독현1리 지하여장군
- 사진 15. 유정2리 머죽당
- 사진 16. 방도1리 석장승
- 사진 17. 상열미리 고사우물
- 사진 18. 삼1리 마을 입구 돌탑
- 사진 19. 매산1리 산신제단
- 사진 20. 양벌3리 부군당 내부
- 사진 21. 산신제터
- 사진 22. 박창규씨택 터주
- 사진 23. 육산 장승
- 사진 24. 소산 장승
- 사진 25. 김춘자씨택 터주자리
- 사진 26. 선동1리 당집과 당나무
- 사진 27. 당집안에 있는 삼신단지
- 사진 28. 자월 3리 산제당
- 사진 29. 정지2리 산치성터
- 사진 30. 삼합리 국정포의 국정(國井)
- 사진 31. 관음리 구룡소
- 사진 32. 관음리 할미소

●읍·면별 문화유적

- 사진 1. 서명원 묘와 묘갈 전경
- 사진 2. 서매수 묘 전경
- 사진 3. 신수경 묘 전경
- 사진 4. 신수경 묘 무인석

- 사진 5. 신의 묘 전경
- 사진 6. 목현리 도요지 1호 전경
- 사진 7. 삼리 유물산포지 전경
- 사진 8. 삼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 사진 9. 송정리 도요지 2호 전경
- 사진 10. 송정리 느티나무1 전경
- 사진 11. 송정리 느티나무2 전경
- 사진 12. 박문간 묘 전경
- 사진 13. 정광세 묘 전경
- 사진 14. 정충량 묘와 묘갈 전경
- 사진 15. 정충량 묘갈 및 문인석
(左: 有刻 묘갈, 中: 原 묘갈, 右: 문인석)
- 사진 16. 정뇌경 묘 전경
- 사진 17. 장지리 지석묘 전경
- 사진 18. 장지리 구석기유적 석기 노출 모습
- 사진 19. 장지리 구석기유적 채집 석기
- 사진 20. 장지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 사진 21. 안윤덕 묘 전경
- 사진 22. 안윤덕 신도비
- 사진 23. 이계룡 묘 전경
- 사진 24. 이세웅 묘 전경
- 사진 25. 이진 묘와 묘갈 전경
- 사진 26. 안한준 묘 전경
- 사진 27. 안한연 묘 전경
- 사진 28. 안황 묘 전경
- 사진 29. 광주안씨 비석군
(左: 안황신도비, 中: 안황묘표, 右: 안여경묘표)
- 사진 30. 안응형 묘 전경
- 사진 31. 안정복 묘 전경
- 사진 32. 이석형 묘 전경
- 사진 33. 이석 묘 전경
- 사진 34. 이석 묘갈
- 사진 35. 여택재 전경
- 사진 36. 충양사 전경
- 사진 37. 함안이씨 정려문 전경
- 사진 38. 직리 음나무 전경
- 사진 39. 남세건 묘 전경
- 사진 40. 남세건 묘비
- 사진 41. 남호 묘 전경
- 사진 42. 남이신 묘 전경
- 사진 43. 左: 남두첨 신도비, 右: 남이신 신도비
- 사진 44. 남두첨 묘 전경
- 사진 45. 남선 묘 전경

사진 46. 남선 신도비
 사진 47. 맹사성 묘 전경
 사진 48. 성제 전경
 사진 49. 남택수 가옥 전경
 사진 50. 탄벌리 도요지 5호 전경
 사진 51. 태전리 무문토기산포지 전경
 사진 52. 태전리 채집 무문토기편
 사진 53. 탄벌리 참나무 전경
 사진 54. 삼구령 묘 전경
 사진 55. 여광주 묘 전경
 사진 56. 청주환씨 묘와 묘갈 전경
 사진 57. 문창문 효자비 전경
 사진 58. 김응학 가옥 전경
 사진 59. 이윤호 가옥 전경
 사진 60. 검천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 61. 감천리 은행나무 전경
 사진 62. 김석주 묘 전경
 사진 63. 김석주 신도비
 사진 64. 명성암 전경
 사진 65. 최지숙 가옥 전경
 사진 66. 한경우 가옥 전경
 사진 67. 귀여리 도요지 3호 전경
 사진 68. 금사리 도요지 3호 전경
 사진 69. 분원리 선정비군 전경
 사진 70. 분원리 도요지 2호 전경
 사진 71. 분원리 석기채집지 전경
 사진 72. 분원리 채집 석기
 사진 73. 권진 묘 전경
 사진 74. 노를재 묘 전경
 사진 75. 안망지 묘 전경
 사진 76. 김종옥 가옥 전경
 사진 77. 이춘열 가옥 전경
 사진 78. 삼성리 지석묘 전경
 사진 79. 삼성리 유물산포지1 전경
 사진 80. 삼성리 유물산포지1 채집 유물
 사진 81. 삼성리 유물산포지2 전경
 사진 82. 삼성리 유물산포지2 채집 유물
 사진 83. 삼성리 측백나무1(左), 2(右) 전경
 사진 84. 여성제 묘 전경
 사진 85. 여성제 신도비
 사진 86. 여유길 묘와 묘비 전경
 사진 87. 여유길 묘비
 사진 88. 여이징 묘 전경

사진 89. 여이징 신도비
 사진 90. 여성제선생 생가
 사진 91. 아하악 묘갈
 사진 92. 이해창 가옥 전경
 사진 93. 이석리 은행나무1
 사진 94. 이석리 은행나무2
 사진 95. 이석리 은행나무3
 사진 96. 궁평리 도요지 5호 전경
 사진 97. 노곡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 98. 도동리 유물산포지 전경
 사진 99. 도동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사진 100. 봉일사 전경
 사진 101. 봉일사 대웅전 삼존불상
 사진 102. 수도사 전경
 사진 103. 수도사 불상
 사진 104. 방도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 105. 상림리 도요지 7호 전경
 사진 106. 상림리 구석기유적 전경
 사진 107. 상림리 유물산포지1 전경
 사진 108. 상림리 유물산포지1 채집 유물
 사진 109. 상림리 유물산포지2 전경
 사진 110. 상림리 유물산포지2 채집 유물
 사진 111. 상림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 112. 유정리 석불좌상
 사진 113. 이덕순 가옥 전경
 사진 114. 유정리 도요지 1호 전경
 사진 115. 유정리 건물지 전경
 사진 116. 유정리 건물지 채집 유물
 사진 117. 유정리 건물지 채집 유물
 사진 118. 유정리 건물지 채집 유물
 사진 119. 유정리 유물산포지 전경
 사진 120. 유정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사진 121. 유정리 느티나무1 전경
 사진 122. 유정리 느티나무2 전경
 사진 123. 유정리 느티나무3 전경
 사진 124. 유정리 느티나무4 전경
 사진 125. 유정리 피나무 전경
 사진 126. 신강인 묘 전경
 사진 127. 신탁 묘 전경
 사진 128. 진우리 느티나무1 전경
 사진 129. 진우리 느티나무2 전경
 사진 130. 진우리 가시향나무 전경
 사진 131. 권세경 묘와 묘갈 전경

사진 132. 권낙인 묘와 묘비 전경
 사진 133. 권낙인 묘비 앞면의 鍊書額
 사진 134. 백련암 부도
 사진 135. 추곡리 도요지 1호 전경
 사진 136. 건얼리 도요지 1호 전경
 사진 137. 곤지암 도요지 1호 전경
 사진 138. 곤지암리 향나무 전경
 사진 139. 곤지암 바위 전경
 사진 140. 만선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 141. 봉현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 142. 최봉향 효자정문 전경
 사진 143. 구연영 묘 전경
 사진 144. 삼리 구석기유적 1지점 전경
 사진 145. 삼리 구석기유적 1지점 채집 유물
 사진 146. 삼리 구석기유적 2지점 전경
 사진 147. 삼리 구석기유적 2지점 채집 유물
 사진 148. 김약서 묘 전경
 사진 149. 심종민 묘 전경
 사진 150. 심혁 묘 전경
 사진 151. 심지택 묘 전경
 사진 152. 현덕창 묘 전경
 사진 153. 현태형 묘 전경
 사진 154. 수양리 느티나무1 전경
 사진 155. 수양리 느티나무2 전경
 사진 156. 신립 묘와 묘갈 전경
 사진 157. 신준 묘와 묘갈 전경
 사진 158. 신완 묘 전경
 사진 159. 신완 신도비
 사진 160. 신성하 묘와 묘갈 전경
 사진 161. 신성하 묘갈 이수 앞면
 사진 162. 신대리 도요지 7호 전경
 사진 163. 신대리 대석동유적 전경
 사진 164. 신대리 대석동유적 채집 유물
 사진 165. 신대리 대석동유적 채집 유물
 사진 166. 신대리 대석동유적 채집 유물
 사진 167. 연곡리 구석기유적 전경
 사진 168. 연곡리 유물산포지 전경
 사진 169. 연곡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사진 170. 이당규 묘와 묘갈 전경
 사진 171. 이현석 묘 전경
 사진 172. 이현석 신도비
 사진 173. 구치관 묘 전경
 사진 174. 구치관 신도비

사진 175. 구척 묘 전경
 사진 176. 총렬묘 전경
 사진 177. 이순이 가옥 전경
 사진 178. 열미리 도요지 3호 전경
 사진 179. 하열미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 180. 구덕회 선정비 전경
 사진 181. 백인대 전경
 사진 182. 강석규 가옥 전경
 사진 183. 송일 묘 전경
 사진 184. 오향리 도요지 4호 전경
 사진 185. 상오향리 유물산포지 전경
 사진 186. 상오향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사진 187. 하오향리 유물산포지 전경
 사진 188. 하오향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사진 189. 하오향리 팽나무 전경
 사진 190. 유사리 도요지 5호 전경
 사진 191. 유사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 192. 장심리 도요지 1호 전경
 사진 193. (上)고산리 무문토기산포지 전경
 (下)고산리 채집 무문토기편
 사진 194. 고산리 느티나무1 전경
 사진 195. 고산리 느티나무2 전경
 사진 196. 김군 묘 전경
 사진 197. 김군 신도비
 사진 198. 낙안군 이말 묘 전경
 사진 199. 의령남새 묘원 전경
 사진 200. 남명선 신도비 전경
 사진 201. 유기덕 묘 전경
 사진 202. 이희조 묘 전경
 사진 203. 총사각 전경
 사진 204. (上)능평리 무문토기산포지 전경
 (下)능평리 무문토기산포지 채집 유물
 사진 205. 능평리 유물산포지 1지점 전경
 사진 206. 능평리 유물산포지 1지점 채집 유물
 사진 207. 능평리 유물산포지 2지점 전경
 사진 208. 능평리 유물산포지 2지점 채집 유물
 사진 209. 능평리 기와산포지 전경
 사진 210. 능평리 기와산포지 채집 유물
 사진 211. 능평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 212. 매산리 유물산포지 전경
 사진 213. 매산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사진 214. 매산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 215. 박교륜 송덕비 전경

사진 216. 박창환 가옥 전경
 사진 217. 문형리 유물산포지1 전경
 사진 218. 문형리 유물산포지1 채집 유물
 사진 219. 문형리 유물산포지2 전경
 사진 220. 문형리 유물산포지2 채집 유물
 사진 221. 문형리 유물산포지3 전경
 사진 222. 문형리 유물산포지3 채집 유물
 사진 223. 문형리 느티나무1 전경
 사진 224. 문형리 느티나무2 전경
 사진 225. 문형리 느티나무 3(左), 4(中), 5(右) 전경
 사진 226. 김자수 묘 전경
 사진 227. 김자수 신도비
 사진 228. 김근 묘 전경
 사진 229. 김영유 묘 전경
 사진 230. 김훈 묘와 묘갈 전경
 사진 231. 서명형 묘 전경
 사진 232. 서명형 신도비
 사진 233. 영모재 전경
 사진 234. 양평묘 전경
 사진 235. 양벌리 유물산포지 1지점 전경
 사진 236. 양벌리 유물산포지 1지점 채집 유물
 사진 237. 양벌리 유물산포지 2지점 전경
 사진 238. 양벌리 유물산포지 2지점 채집 유물
 사진 239. 양벌리 유물산포지 3지점 전경
 사진 240. 양벌리 유물산포지 3지점 채집 유물
 사진 241. 양벌리 느티나무1 전경
 사진 242. 양벌리 느티나무2 전경
 사진 243. 정응규 묘와 묘갈 전경
 사진 244. 정연 묘 전경
 사진 245. 정연 묘표음기의 '集 類眞卿 書' 기사 부분
 사진 246. 정보문 묘 전경
 사진 247. 정유 묘와 묘갈 전경
 사진 248. 추자리 유물산포지1 전경
 사진 249. 추자리 유물산포지1 채집 유물
 사진 250. 추자리 유물산포지2 전경
 사진 251. 추자리 유물산포지2 채집 유물
 사진 252. 검복리 읍나무1 전경
 사진 253. 검복리 읍나무2 전경
 사진 254. 이제 묘 전경
 사진 255. 이정기 묘 전경
 사진 256. 이정기 신도비
 사진 257. 이항 묘 전경
 사진 258. 이항 망주석

사진 259. 번천리 도요지 5호 전경
 사진 260. 상번천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 261. 불당리 향나무 전경
 사진 262. 외안대군 묘 전경
 사진 263. 외안대군 묘 좌측 문인석
 사진 264. 방방식 가옥 전경
 사진 265. 엄미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 266. 엄미리 읍나무 전경
 사진 267. 오전리 도요지 3호 전경
 사진 268. 오전리 잣나무 전경
 사진 269. 늑현리 유물산포지 전경
 사진 270. 늑현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사진 271. 늑현리 은행나무 전경
 사진 272. 정충묘 전경
 사진 273. 김태선 효자비 전경
 사진 274. 대쌍령리 도요지 5호 전경
 사진 275. 대쌍령리 구석기유적 전경
 사진 276. 대쌍령리 구석기유적 채집 유물
 사진 277. 낙화암 전경
 사진 278. 도평리 참나무 전경
 사진 279. 우감리 도요지 24호 전경
 사진 280. 산이리 도요지 1호 전경
 사진 281. 산이리 지석묘 전경
 사진 282. 신익화선생 생가 전경
 사진 283. 선동리 도요지 1호 전경
 사진 284. 장차주 묘와 묘갈 전경
 사진 285. 장시현 묘 전경
 사진 286. 광산김씨 정려문 전경
 사진 287. 이래 묘 전경
 사진 288. 이래 신도비
 사진 289. 이순 묘 전경
 사진 290. 이순 신도비
 사진 291. 이한 묘 전경
 사진 292. 이한 문인석
 사진 293. 이수언 묘 전경
 사진 294. 이수언 묘갈
 사진 295. 이소 묘 전경
 사진 296. 이소 묘갈
 사진 297. 고덕재 전경
 사진 298. 옥산사 전경
 사진 299. 신월리 은행나무 전경
 사진 300. 쌍동리 도요지 1호 전경
 사진 301. 쌍동리 지석묘 전경

사진 302. 쌍동리 지석묘 채집 무문토기 저부
 사진 303. 쌍동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 304. 용수리 유물산포지 전경
 사진 305. 용수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사진 306. 김감 묘 전경
 사진 307. 김감 신도비
 사진 308. 정흥문 묘와 묘갈 전경
 사진 309. 허난설헌 묘 전경
 사진 310. 지월리 사지 전경
 사진 311. 지월리 사지 채집 유물
 사진 312. 국수봉 산성 전경
 사진 313. 국수봉 산성 근경
 사진 314. 국수봉 산성내 석재
 사진 315. 지월리 도요지 3호 전경
 사진 316. 지월리 구석기유적 전경
 사진 317. 지월리 구석기유적 채집 유물
 사진 318. 지월리 유물산포지 전경
 사진 319. 지월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사진 320. 학동리 도요지 4호 전경
 사진 321. 홍성현 가옥 전경
 사진 322. 관음리 도요지 16호 전경
 사진 323. 관음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 324. 조영무 묘 전경
 사진 325. 광동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 326. 안당 묘 전경
 사진 327. 안당 신도비
 사진 328. 여여길 묘 전경
 사진 329. 여우길 묘 전경
 사진 330. 최항 묘 전경
 사진 331. 최항 신도비
 사진 332. 문정공최항지묘 전경
 사진 333. 문정공영모재 전경
 사진 334. 도마리 도요지 전경
 사진 335. 도마리 유물산포지 전경
 사진 336. 도마리 유물산포지 채집 주먹도끼
 사진 337. 도마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사진 338. 도마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 339. 심우승 묘 전경
 사진 340. 심우승 신도비
 사진 341. 심택 묘 전경
 사진 342. 심택 신도비
 사진 343. 심광수 묘와 묘갈 전경
 사진 344. 안근 묘 전경

사진 345. 안용 묘 전경
 사진 346. 황유 묘 전경
 사진 347. 황유 묘 문인석 얼굴 부분
 사진 348. 숙안공주 묘 전경
 사진 349. 도수리 사지 전경
 사진 350. 도수리 도요지 1호 전경
 사진 351. 신희 묘 전경
 사진 352. 신희 신도비
 사진 353. 오리 유물산포지1 전경
 사진 354. 오리 유물산포지1 채집 유물
 사진 355. 오리 유물산포지2 전경
 사진 356. 오리 유물산포지2 채집 유물
 사진 357. 오리 유물산포지3 전경
 사진 358. 오리 유물산포지3 채집 유물
 사진 359. 김익훈 묘 전경
 사진 360. 김익훈 신도비
 사진 361. 김만채 묘 전경
 사진 362. 김성택 묘 전경
 사진 363. 김상익 묘 전경
 사진 364. 김진상 묘 전경
 사진 365. 김만선 묘 전경
 사진 366. 김영택 묘 전경
 사진 367. 김진항 묘 전경
 사진 368. 김상정 묘 전경
 사진 369. 김상악 묘 전경
 사진 370. 김상악 신도비
 사진 371. 김경택 묘 전경
 사진 372. 김경택 묘표음기 부분
 사진 373. 천진암 성현오위 묘 전경
 사진 374. 우산리 도요지 14호 전경

도면목록

●민속과 전통

도면 1. 중부면 엄미리의 전형적인 기역니은자형 집
 도면 2. 회갑상 전설도
 도면 3. 하열미리 능성 구씨 후손들의 기제사 전설도
 도면 4. 불당리 밀양 박씨 후손들의 기제사 전설도
 도면 5. 지월리 진주 강씨 후손들의 기제사 전설도
 도면 6. 하열미리 능성 구씨 후손들의 묘사 전설도
 도면 7. 지월리 진주 강씨 후손들의 묘사 전설도

●읍·면별 문화유적

- 도면 1. 삼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 도면 2. 장지리 구석기유적 채집 유물
- 도면 3. 장지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 도면 4. 남택수 가옥 평면도
- 도면 5. 김용학 가옥 평면도
- 도면 6. 이운호 가옥 평면도
- 도면 7. 최지숙 가옥 평면도
- 도면 8. 한경우 가옥 평면도
- 도면 9. 분원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 도면 10. 김종옥 가옥 평면도
- 도면 11. 이춘열 가옥 평면도
- 도면 12. 삼성리 유물산포지1 채집 유물
- 도면 13. 삼성리 유물산포지2 채집 유물
- 도면 14. 여성제선생 생가 평면도
- 도면 15. 이해창 가옥 평면도
- 도면 16. 도웅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 도면 17. 상림리 유물산포지1 채집 유물
- 도면 18. 상림리 유물산포지2 채집 유물
- 도면 19. 이덕순 가옥 평면도
- 도면 20. 유정리 건물지 채집 기와
- 도면 21. 유정리 건물지 채집 기와
- 도면 22. 유정리 건물지 채집 몽돌
- 도면 23. 유정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 도면 24. 삼리 구석기유적 1지점 채집 석기
- 도면 25. 삼리 구석기유적 2지점 채집 석기
- 도면 26. 신대리 대석동유적 채집 유물
- 도면 27. 연곡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 도면 28. 이순이 가옥 평면도
- 도면 29. 강석규 가옥 평면도
- 도면 30. 상오항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 도면 31. 하오항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 도면 32. 능평리 무문토기산포지 채집 유물
- 도면 33. 능평리 유물산포지 1지점 채집 유물
- 도면 34. 능평리 유물산포지 2지점 채집 유물
- 도면 35. 능평리 기와산포지 채집 유물
- 도면 36. 매산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 도면 37. 박창환 가옥 평면도
- 도면 38. 문형리 유물산포지1 채집 유물
- 도면 39. 문형리 유물산포지2 채집 유물
- 도면 40. 문형리 유물산포지3 채집 유물
- 도면 41. 양벌리 유물산포지 1지점 채집 유물
- 도면 42. 양벌리 유물산포지 2지점 채집 유물

- 도면 43. 양벌리 유물산포지 3지점 채집 유물
- 도면 44. 추자리 유물산포지1 채집 유물
- 도면 45. 추자리 유물산포지2 채집 유물
- 도면 46. 방방식 가옥 평면도
- 도면 47. 녹현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 도면 48. 대쌍령리 구석기유적 채집 석기
- 도면 49. 신익희선생 생가 평면도
- 도면 50. 쌍등리 지석묘 채집 무문토기 저부
- 도면 51. 용수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 도면 52. 지월리 구석기유적 채집 석기
- 도면 53. 지월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 도면 54. 홍성현 가옥 평면도
- 도면 55. 도마리 유물산포지 채집 주먹도끼
- 도면 56. 도마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 도면 57. 오리 유물산포지1 채집 유물
- 도면 58. 오리 유물산포지2 채집 유물
- 도면 59. 오리 유물산포지3 채집 유물

지도목록

●읍·면별 문화유적

- 지도 1. 서명원 묘와 묘갈 위치도
- 지도 2. 서매수 묘 위치도
- 지도 3. 신수경 묘 위치도
- 지도 4. 삼리 유물산포지 위치도
- 지도 5. 송정리 도요지 위치도
- 지도 6. 송정리 노티나무1 위치도
- 지도 7. 박문간 묘 위치도
- 지도 8. 정광세 묘 위치도
- 지도 9. 장지리 구석기유적 위치도
- 지도 10. 장지리 유물산포지 위치도
- 지도 11. 안윤덕 묘와 신도비 위치도
- 지도 12. 이진 묘와 묘갈 위치도
- 지도 13. 안한언 묘 위치도
- 지도 14. 이석형 묘 위치도
- 지도 15. 적리 음나무 위치도
- 지도 16. 맹사성 묘 위치도
- 지도 17. 탄벌리 도요지 위치도
- 지도 18. 탄벌리 참나무 위치도
- 지도 19. 심구령 묘 위치도
- 지도 20. 여광주 묘 위치도

지도 21. 김용학 가옥 위치도
지도 22. 김석주 묘와 신도비 위치도
지도 23. 귀여리 도요지 위치도1
지도 24. 귀여리 도요지 위치도2
지도 25. 금사리 도요지 위치도
지도 26. 분원리 도요지 위치도
지도 27. 권진 묘 위치도
지도 28. 노물재 묘 위치도
지도 29. 삼성리 지석묘 위치도
지도 30. 여성제 묘와 신도비 위치도
지도 31. 여유길 묘와 묘비 위치도
지도 32. 이하악 묘갈 위치도
지도 33. 궁평리 도요지 위치도
지도 34. 궁평리 궁뜰유적 위치도
지도 35. 노곡리 느티나무 위치도
지도 36. 도웅리 유물산포지 위치도
지도 37. 봉알사 위치도
지도 38. 수도사 위치도
지도 39. 방도리 느티나무 위치도
지도 40. 상림리 도요지 위치도
지도 41. 상림리 유물산포지1 위치도
지도 42. 상림리 유물산포지2 위치도
지도 43. 신경인 묘 위치도
지도 44. 권세경 묘 위치도
지도 45. 백련암 부도 위치도
지도 46. 간암리 도요지 위치도
지도 47. 곤지암리 향나무 위치도
지도 48. 봉현리 느티나무 위치도
지도 49. 최봉항 효자정문 위치도
지도 50. 김약사 묘 위치도
지도 51. 신종민 묘 위치도
지도 52. 수양리 느티나무1·2 위치도
지도 53. 신환 신도비 위치도
지도 54. 신대리 도요지 위치도1
지도 55. 신대리 도요지 위치도2
지도 56. 연곡리 구석기유적 위치도
지도 57. 구쳐관 묘 위치도
지도 58. 이순이 가옥 위치도
지도 59. 열미리 도요지 위치도
지도 60. 백인대 위치도
지도 61. 송일 묘 위치도
지도 62. 오항리 도요지 위치도
지도 63. 상오항리 유물산포지 위치도

지도 64. 유사리 도요지 위치도
지도 65. 유사리 느티나무 위치도
지도 66. 장심리 도요지 위치도
지도 67. 김군 묘와 신도비 위치도
지도 68. 낙안군 이말 묘 위치도
지도 69. 이화조 묘 위치도
지도 70. 매산리 유물산포지 위치도
지도 71. 박교륜 송덕비 위치도
지도 72. 문형리 유물산포지1~3 위치도
지도 73. 김자수 묘와 신도비 위치도
지도 74. 서명형 묘와 신도비 위치도
지도 75. 영모재 위치도
지도 76. 양평묘 위치도
지도 77. 정보문 묘 위치도
지도 78. 추자리 유물산포지2 위치도
지도 79. 검복리 읍나무1·2 위치도
지도 80. 이제 묘 위치도
지도 81. 변천리 도요지 위치도1
지도 82. 변천리 도요지 위치도2
지도 83. 변천리 도요지 위치도3
지도 84. 의안대군 묘 위치도
지도 85. 방병식 가옥 위치도
지도 86. 엄미리 느티나무 위치도
지도 87. 오전리 도요지 위치도
지도 88. 늑현리 유물산포지 위치도
지도 89. 정충 묘 위치도
지도 90. 대쌍령리 도요지 위치도
지도 91. 도평리 참나무 위치도
지도 92. 무갑리 도요지 위치도1
지도 93. 무갑리 도요지 위치도2
지도 94. 산이리 도요지1 위치도
지도 95. 신익희선생 생가 위치도
지도 96. 선동리 도요지 위치도
지도 97. 선동 학동리 도요지 위치도
지도 98. 장차주 묘와 묘갈 위치도
지도 99. 이래 묘와 신도비 위치도
지도 100. 이손 묘와 신도비 위치도
지도 101. 옥산사 위치도
지도 102. 쌍동리 도요지 위치도
지도 103. 김감 묘와 신도비 위치도
지도 104. 정충문 묘와 묘갈 위치도
지도 105. 지월리 유물산포지1·2 위치도
지도 106. 학동리 도요지 위치도1

지도 107. 학동리 도요지 위치도2
지도 108. 학동리 도요지 위치도3
지도 109. 관음리 도요지 위치도1
지도 110. 관음리 도요지 위치도2
지도 111. 관음리 도요지 위치도3
지도 112. 관음리 도요지 위치도4
지도 113. 조영무 묘 위치도
지도 114. 안당 묘와 신도비 위치도
지도 115. 도미리 도요지 위치도
지도 116. 심우승 묘와 신도비 위치도
지도 117. 심액 묘와 신도비 위치도
지도 118. 안근 묘 위치도
지도 119. 도수리 도요지 위치도1 위치도
지도 120. 도수리 도요지 위치도2 위치도
지도 121. 신희 묘와 신도비 위치도
지도 122. 오리 유물산포지1 위치도
지도 123. 오리 유물산포지2·3 위치도
지도 124. 김겸택 묘 위치도
지도 125. 천진암 성현오위 묘 위치도
지도 126. 우산리 도요지 위치도1
지도 127. 우산리 도요지 위치도2
지도 128. 우산리 도요지 위치도3
지도 129. 원당리 도요지 위치도
지도 130. 정지리 도요지 위치도



I. 조사 개요

1. 조사 경위
2. 조사 방법

1. 조사 경위

광주군은 1읍 7개면을 거느린 경기도 중앙지대의 군으로서 동서간 27.88km, 남북간 30.26km로 전면적 431.89km²에 달해, 양평군과 함께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광주는 동으로 여주·이천에 접하고, 서로는 성남시, 남으로 용인군, 북으로 양주, 양평군과 하남시를 접하고 있다. 광주군의 지형은 산악이 대부분이며, 평지는 동서를 관통하여 흐르는 경안천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광주군의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는 경기도에서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각 시·군별 지표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광주군의 의뢰에 의해 본 연구원과 1999년 7월 9일 계약에 착수하고 300일의 기간동안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광주군은 그 면적이 넓기도 하고 군내지형의 대부분이 가파른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어 1년여의 조사기간만으로는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남한산성과 광주군에 산재한 수많은 도요지만으로도 1년의 조사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남한산성은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 의해 정밀지표조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도요지도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 박물관이 공동 조사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조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조사는 각 조사분야별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 조사단장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 민속 분야

○책임조사원 : 천진기(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조 사 원 :

• 주거 /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이준석(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원)

박혜령(서울대 의학박물관 학예연구원)

• 일생의례

김준권(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 마을신앙과 가정신앙

김지욱(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영호(한국민속촌 학예연구원)

권태훈(한국민속촌 학예연구원)

정유훈(한국민속촌 학예연구원)

• 부속신앙

하주성(민속연구가, 경기도도당굿보존회 사무국장)

• 구비전승

이상열(한국문화행정연구소, 연구원)

□ 고고 · 관방유적 분야

○책임조사원 : 김성태(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조 사 원 : 소상영(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김기태(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김현준(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 도요지 분야

○책임조사원 : 전승창(호암미술관 선임연구원)

○조 사 원 : 현문필(호암미술관 선임연구원)

김영미(홍익대학교 대학원)

□ 불교유적 분야

- 책임조사원 : 이숙희(홍익대학교 강사)
- 조 사 원 : 심영신(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 유교유적 분야

- 책임조사원 : 김성태(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 조 사 원 : 이민식(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정해득(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 고건축 분야

- 책임조사원 : 김동욱(경기대학교 교수)
- 조 사 원 : 이은정(홍익대학교 박사과정)

□ 보고서 발간

- 총괄 책임 : 김성태
- 편 집 : 소상영, 이민식
- 사진 촬영 : 김현준
- 실측 및 제도 : 김영준(단국대 대학원)
강동식(성균관대 대학원)
이희인(성균관대 대학원)
김대근(동국대 대학원)

2. 조사 방법

1) 민속 분야

민속분야의 조사는 광주사람들의 눈과 입을 빌어 일상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民俗誌로 꾸며졌다. 민속지란 모름지기 그 사회의 사연(social discourse)을 기록하는 작업이며, 당시에 있었던 사연은 사라졌어도 기재된 사연을 통해 훗날 볼 수 있게 내용이 기록된 것이다.

지역민들의 말뜻이 가슴에 와닿고, 말의 문맥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의 땀냄새가 불췌 나게 하는 현장감을 바탕으로 한 경험을 쿨리포드 기어츠는 近接經驗(Experience-near-concept)으로 정의하고 현지조사에는 이러한 안목이 요구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근접경험은 민속자료의 수집에서처럼 그것들의 해석에도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현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

원되었다. 면접조사로 광주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을 그들의 입과 눈을 빌어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 자료를 얻었다. 또 참여조사로 직접 조사자가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을 수집 정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역사(民俗地的 現在 Ethnographic present)와 지역성은 광주지역 제보자들의 기억문화(Memorial Cultures)와 경험한 사실들(Experienced Facts), 2000년까지 전승되는 내용의 시간성과 광주지역의 공간성으로 한정한다.

이번 조사는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한 '總民俗誌'로서의 성격보다는 '문화유적 지표조사'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주거(고가옥/집성촌), 인생의례, 세시풍속, 민속놀이, 민속신앙, 무속신앙, 구비전승 등을 중심으로 조사 기술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의생활, 식생활, 생업기술 등의 내용이 빠진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

이지만 조사상황의 여러 한계를 핑계거리로 삼았다.

각 장마다 조사방법, 조사현황과 성과를 밝혔고, 각 읍 면별로 조사내용을, 마지막으로 광주지역의 특징과 성격, 조사자의 의견 등의 순서대로 기술했다. 각각의 조사주제에서 조사방법, 조사현황, 내용 등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로 총론적인 정리나 분석은 하지 않았다.

2) 고고·관방유적 분야

고고·관방유적 분야의 조사는 먼저 기존에 알려진 유적들에 대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유적의 현황을 파악하여 조사방향을 설정하였다.

고고·관방분야의 유적은 대부분 매장문화재로 시급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존 여부도 확인되지 못한채 사라질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조사보다 매우 정밀하게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먼저 각 읍면 단위로 전체적인 지형과 현상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 결과 광주군의 면적이 워낙 넓고 산악지형이 많아 전 지역을 정밀조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어 유적의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현장에서 확인된 유적은 1/25,000, 1/5,000 지도에 표기하고 사진촬영과 함께 야장에 기록하였다. 또한 자료정리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오류의 가능성을 없애고자 노력하였다.

광주군은 면적도 넓고 험준한 산악지형이 많아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사단을 힘들게 했던 것은 거의 광주군 전역에서 채집되는 백자편이었다. 백자편이 채집되는 지역을 모두 표기하자면 광주군 전체를 유적지로 잡아야 될 지경이었다. 이런 결과는 광주군에 밀집된 수많은 도요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조사단회의를 통해 입지조건이 양호하거나 유물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은 곳만을 유적으로 표기하였다.

3) 도요지 분야

조사는 광주군에 산재해 있는 요지를 대상으로, 기존에 알려져 있는 관련자료와 각종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광주의 요지는 일제 강점기부터 수차례에 걸친 지표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광주 전지역에 분포해 있는 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록한『한국백자도요지(韓國白磁陶窯址)』는 조사와 연구에 중요한 보고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보고서가 발간된 1986년 이후에도 부분적인 지표조사와 발굴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요지가 새롭게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이 공동으로 광주 전지역의 요지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기존에 알려진 모든 요지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위치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것은 현재까지 사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곳이 90여 곳 정도에 불과하며, 각종 개발이나 훼손 등으로 유적이 변화되거나 파괴되고 있으므로, 짧은 조사일정 동안에 골이 진 산속의 새로운 요지를 찾기 보다는 밭이나 대지로 변화되는 곳에 대한 확인과 조사가 더욱 시급하며, 조사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조사에 앞서 각 지역별로 현재까지 확인된 요지의 고유번호와 성격, 위치 등을 정리하고, 요지별 출토품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였다. 요지의 번호와 위치는『한국백자도요지』에 조사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새롭게 발견된 유적은 최근 일부가 발간된『경기도광주중앙관요(京畿道廣州中央官窯(圖版篇))』 등 각종 조사보고서를 참조하였다. 특히,『한국백자도요지』에 수록된 요지의 위치표시가 애매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을 먼저 1/5,000 지도에 옮긴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요지에서 발견되는 파편의 경우, 기존에 보고된 내용을 확인하고 새로 발견된 것을 추가

하여 그간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였다.

4) 불교유적 분야

광주지역의 불교유적은 총 37개소로 寺刹, 寺址를 포함하여 佛像, 佛畵, 浮屠 등이 있는데 그중 사찰과 사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상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사찰과 사지는 기록과 함께 유적지가 남아 있는 예가 13개소에 불과한 데 반하여 기록은 남아 있지만 현재 그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절터가 20개소 정도가 되며 기록이 전혀 없는 유적지도 4개소가 있다.

이번 광주지역 불교유적 조사에서는 이미 유적지가 알려져 있는 사찰과 사지를 대상으로 우선, 『伽藍考』를 비롯하여 『梵宇攷』, 『韓國寺刹全書』(1976) 등 문헌상에 나오는 기록을 중심을 하되 道, 郡에서 나온 『畿內寺院誌』(1988), 『廣州郡誌』(1990), 『京畿道佛蹟資料集』(1999)와 그리고 『南漢山城 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2000)와같은 연구보고서 등을 참고로 하였다. 이러한 문헌기록과 유적은 반드시 현지답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자료의 발견에 중점을 두었다.

각 사찰과 사지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와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 절의 창건연대나 폐사된 시기를 추정하기도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유물의 구체적인 사항을 서술하였다. 유물의 경우는 연대가 올라가는 고려, 조선시대의 미술품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제작된 지 얼마되지 않은 현대 작품은 간단한 현황만 적어 두었다.

특히 불상과 부도는 직접 실측하였으며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전해지던 내용을 좀더 보완하여 새롭게 정리하였고 전체적인 형태와 양식적 특징을 근거로 하여 가능한 조성연대를 추정해 보았다. 또한 각 사찰에서 口傳으로 전해 내려오는 유물에 관한 내용은 참고로

하되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유물 자체의 특징을 파악하여 시대를 설정하였다. 불화의 경우는 대부분 畵記가 남아 있어 제작연대를 알아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으므로 주로 구도와 필선, 색감 등을 설명하면서 조선후기 불화의 특징을 언급하였다.

이번 광주지역의 佛蹟調査는 각 사찰이나 사지의 현황 및 연혁은 물론이고 현존하는 유물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문헌자료와 참고문헌까지 첨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서술하고자 하였다.

5) 유교유적 분야

광주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문화유적이 관내에 산재해 있고, 면적도 넓어 광역 지표조사를 시행하기에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지역에 속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문헌조사를 통한 정확한 정보의 획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한 유교유적의 문헌조사 특징으로는 광주관련 옛 문헌과 최근 출간된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각 문중의 族譜를 최대한 활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사단은 현장조사 투입전에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체계적이고도 계획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분묘와 석물조사는 족보에서 매우 상세한 자료를 얻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동안의 분묘와 석물조사가 지역 관계자의 도움을 받거나 지표조사 중 우연히 발견하는 것을 정리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렀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단계 진일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의 부족한 자료는 종친회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후손을 직접 만나 보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하지만 광주군내의 각종 개발로 인해서 현지의 토착민들이 타지로 많이 이주한 상태라 자료 수집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문헌조사 과정에서 옛 광주지역

이었던 성남시와 하남시 그리고 서울시 일부에 편입된 유교유적은 제외하였는데, 대표적인 유적으로 廣州鄉校(문화재 자료 13호), 四忠書院, 忠穆祠를 들 수가 있다.

현장조사 결과, 사당과 재실의 경우 해방이전에 건립된 것이 전무하여, 비록 근래에 만들어진 것이라도 역사속에 널리 알려진 인물의 사당과 재실은 가능한 이번 조사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분묘와 석물은 총 250여개가 조사되었지만 이를 다시 선별하여 시대별, 문종별, 읍면별의 공평성을 고려해서 약 110여개를 보고서에 수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世葬地는 대표적인 인물의 묘소만을 소개하고 내용중에 세장 묘역임을 밝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묘역내에 설치된 석물은 그 현상과 제작 연대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묘표·묘갈·신도비는 양식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서예사적인 관점에서도 주의깊게 조사 보고하였다. 왜냐하면 비석에 새겨진 글씨들은 모두 당대의 명필들이 쓴 글씨로서 眞蹟이 드문 우리나라 서예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1차 사료이기 때문이다.

6) 고건축 분야

기본적인 조사방법으로 광주군 행정구역상의 자연부락 249개의 마을을 전수조사 하였다.

대상은 근대와 현대의 기점으로 보는 1945년의 일제강점기 시대의 종점을 기준으로 해방이전에 지어진 가옥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차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자료와 문헌자료를 기초로 광주군내 자연부락 249개의 마을을 전수 조사하고, 자료와 마을주민들의 제보와 탐문을 바탕으로 대상가옥을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가옥들은 현지 지표 조사와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전수조사 결과 해방이전에 지어진 전통가옥은 70여 채가 남아있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개조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그중 가구의 상태와 그 변형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전통가옥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는 가옥 16개를 선정하여 심화 조사하였다.



Ⅱ. 역사

1. 선사시대
2. 고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5. 근·현대

1. 선사시대

선사시대라 함은 일반적으로 문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시기 즉 구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 이전 초기 철기 시대까지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조사대상 지역인 광주군에 대하여 한국사에 적용되는 시기구분법을 적용하여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순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성과 중의 하나는 광주군이 역사시대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에 있어서도 보편사적 역사 발전에 있어 사각지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었다. 광주군 곳곳에서 선사인의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광주군이 옛부터 거주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구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물·유적이 발견조사 되었다.

1) 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는 신생대 제 3기말 인류가 등장하여 도구를 사용하는 시기부터 신석기인이 등장하는 약 1만 년전·후의 시기를 말한다. 이 기간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98%이상 되는 긴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크고 작은 빙하기와 간빙기가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유적의 갯수세종 총

위를 살펴볼 때 2번에 걸친 빙하기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8년 대전 노은동에서 발굴조사된 층위를 살펴 볼 때 2번 이상의 빙하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

오늘날 구석기유적이 발견되는 것이 더 이상 주목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처럼 여러 지역에서 유물·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내에서 발굴조사 된 유적을 살펴보면 임진·한탄강유역의 전곡리와 남계리, 주월리·가월리, 원당리, 금파리유적들이 있으며, 한강유역으로 병산리유적과 일산 신도시지역이 있다. 이외에 내륙으로 들어와서 광주군 궁평리²⁾와 의정부시 민락동³⁾과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⁴⁾에서 유물·유적이 발견되어 조사되었다.

그 동안 경기도내 유적조사는 큰 강 유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내륙지역에서는 궁평리유적과 민락동유적, 평창리유적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실시한 문화유적 지표조사에서 찾아지는 유물·유적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실시된 이천시와 용인시 지표조사의 결과 여러지역에서 편석기가 발견되었으며,⁵⁾ 평택에서도 편석기들이 찾아졌다.⁶⁾

1) 『대전 노은동 일대(전북)정 신석기 유적발굴조사 현장실황회 자료』, 1988, 한국대학교 박물관

2) 『광주 궁평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충북고속연구소 문화유적 발굴 조사 보고서), 1986, 서울대학교박물관

3) 『의정부 민락동유적』, 1998, 서울대학교박물관

4) 『용인 평창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998, 경기도박물관·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5) 『용인시의 문화유산』, 1993, 서울대학교박물관

6) 『이천시의 문화유산』, 1998, 서울대학교박물관

이들을 미루어 볼 때 광주군에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유물·유적이 찾아질 것이라고 예견되었다.

광주군에서 구석기시대의 뎨석기가 처음 찾아진 것은 1986년 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당시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찾아졌다. 당시 광주군 도척면 궁평리에서 고인돌과 돌무지 무덤 발굴조사 과정 중에 3호 돌무지 아래층에서 뎨석기가 발견되었다. 찾아진 석기는 모두 21점으로 찍개, 긁개, 밀개, 홈날등이다. 궁평리유적의 조사로 광주군에 구석기 문화가 분포하고 있음이 처음으로 밝혀졌다.³⁾

1996·97년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에 의해서 실시된 곤지암천 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결과, 곤지암천과 그 주변지역에서 제 4기 갯신세층이 곳곳에 퇴적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도척면 상림리와 실촌면 연곡리에서는 몸돌, 찌개, 격지등의 펜 석기가 수습되었다.⁹⁾ 1999년 실촌면 삼리에 있는 경기도 가축위생연구소 종축장내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여러점의 펜 석기가 수습되었다.¹⁰⁾ 이곳은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에 대한 시굴조사가 가전문화재연구원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그 결과 이곳에는 제 4기 갯신세층이 광범위하게 퇴적되어 있었으며, 여러면 석기와 몸돌, 격지등이 출토되었다.¹¹⁾

이번 조사에 있어서 광주군내 9개 지점에서 편석기가 발견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점의 주먹도끼(hand-axe, biface)가 퇴촌면 도마리와 광주읍 장지리(牆枝里) 경안중학교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유물은 전곡리유적에서 보고된 이후 임진·한탄강유역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지에서 보고되고 있는 구석기시대의 석

기돌 중에 대표적인 유물이다. 한강유역에서는 일산 신도시와 양평 병산리, 여주 백석리 유적에서도 발견되었으며, 광주군 퇴촌면에서 발견된 주먹도끼가 전국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구석기 시대 유적발굴에 있어서 주먹도끼에 대하여 보고되는 예는 많지 않으나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유물에 대한 성격 규명도 시도된 적도 있다.¹²⁾ 이러한 유물이 광주군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광주군에서도 구석기시대 선사인이 폭넓은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석기제작 능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술적인 수준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신석기시대

현재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 유적의 수는 약 400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을 큰 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한강유역 및 인접도서를 포함한 서해안지역과 두만강유역을 포함한 동북해안지역, 낙동강유역과 남해도서를 포함한 남해안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3지역 사이에는 여러 가지의 문화적 특징들이 있으나 특히 토기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는 서한Ⅰ, Ⅱ, Ⅲ류로 분류하고 있다. 서한Ⅰ류는 B.C. 5000년경에서 B.C. 3500년경까지로 암사동과 미사리유적이 해당되며, 서한Ⅱ류는 B.C. 3500년경에서 B.C. 2000년경까지로 소야도와 오이도 조개더미가 해당된다고 한다. 서한Ⅲ류는 B.C. 2000년경에서 B.C. 1000년경 사이로 시도 조개더미 유적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¹³⁾

과거 동부읍 서부면과 중부면 일부가 분리되어 하남

1. 『공덕의 역사』 문희우전, 1999, 경기도박물관.

8) **즈 2)의 보고서**

③ 경기도 광주시 고지일출유원 복합유선 지표조사 보고서, 1997, 단국대학교 한국미려자연연구소

10) 『광주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도시 조성 예정부지 문화재조표조사 보고서』, 1999, 가천대학교문화재연구소

10) 『발주 2001 성격토자기 엑스파일』 조성여정 부지 시굴조사 : 조사 1지역, 치노의원회 호오 사본, 2000. 기전-상분화서원 4월

(2) 메기농·호박농·옥전장유역의 주변모래석·금장에 대한 유·무·양·소와 고분화, 석경황을대표수장하기만들음. 1985. 유공훈(인신·학도상 유공 훈장) 1인 1물성에 대하여, 『하늘그막학교』 36, 1997.

시로 재편되기 이전에 광주군에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미사동¹⁴⁾, 선동¹⁵⁾, 춘궁동¹⁶⁾ 유적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로 편제된 암사동유적도 광주군에 속했던 지역이다. 또한 광주군과 인접하여 양평 양덕리¹⁷⁾와 문호리, 광탄리,¹⁸⁾ 기흥 상갈지구¹⁹⁾에서도 유적·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의 광주군에서 신석기시대의 유물·유적에 대한 조사보고가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신석기시대 유적이 다른 유적들보다 제한적이고 한정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석기시대 유물·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지역에 신석기시대의 문화가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남종면 북쪽 한강유역과 경안천, 곤지암천유역등 여타의 지역에서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주변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유적들을 살펴볼 때 광주군지역은 신석기 시대인들이 일찍부터 활동했던 영역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들을 비루어 볼 때 광주군은 서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권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다.

3) 청동기시대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라 하면 고인돌이 축조되면서 청동기가 제작되고 무문토기가 사용된 시기를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무문토기가 청동기시대의 토기임에는 사실이지만 신석기시대 후기와 청동기, 철기시대에 걸쳐서

사용된 토기이기 때문이다. 청동기시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편년은 청동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비파형동검의 출토를 전기로 세형동검의 출토를 후기로 보는 것이다. 이에 이 시기를 청동기라는 물질문화가 대표되며, 여러가지의 사회적 변화를 일으킨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²⁰⁾ 이번 조사에서 광주군에서 발견된 무문토기 수습지역을 청동기시대로 편년하는 것에 무리한 면이 없지 않으나 일단은 청동기시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추후에 이에 대한 보완조사가 따르면 그때 수정하도록 하겠다.

광주군내에서 청동기시대의 유물·유적이 보고된 것은 해방이전 日人學者 藤田亮策이 발표한 글에서 처음 소개되고 있다. 남종면 검천리에서 발견된 유물로 무문토기와 석부, 석촉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한 日人學者 有光教 -에 의해서 발표된 「조선의 마제석검 연구」에서는 오포면 양벌리에서 출토된 마제석검이 소개되어 있다.²¹⁾ 이와 같은 사실을 1965년에 간행된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에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²²⁾

1986년 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당시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광주군 중평리에서 고인돌 3기가 발굴조사되었으며, 무문토기와 붉은 간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²³⁾ 또한 1996·97년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에 의해서 실시된 곤지암천 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에서 쌍동리와 산이리의 고인돌과 대석동 유물산포지가 조사보고 되었다.²⁴⁾

13) 임종재, 「한국 신석기문화의 편년」, 『한국 신석기문화』, 2000, 집문당

14) 『미사리』, 제 1권, 1994 서울대학교출판부

15) 藤田亮策, 「關目文土器の分布に就いて」, 『考古學』 12, 1939.

16) 横山將三郎, 「ソウル東郊外の史前遺蹟」, 『文學叢書』 5-6, 1953.

17) 『양평 양덕리유적』, 1998,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8)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한빛로지공사 호지박물관

19) 『기흥 상갈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996, 명지대학교박물관·한신 대학교박물관

20) 최병룡, 「청동기문화」, 『한국사』 3, 1997, 역사편찬위원회, 9~25쪽.

21) 有光教一, 「朝鮮製石劍の研究」,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 第二冊, 1959.

22) 김원룡, 『한국사적유물지명』,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연구소 제2집, 1966.

23) 주 2)의 참고사

24) 주 9)의 참고사

이번 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시기의 유물·유적으로 오폭면 동현마을과 양별리, 고산리 1, 2지점, 실촌면 상오향리에서 무문토기들이 찾아 졌으며, 광주읍 장지리에서 고인돌 1기가 찾아 졌다. 오폭면 동현마을과 광주읍 고산리 1, 2지점에서 수습된 토기의 양은 적으나, 하천을 끼고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적인 환경을 살펴볼 때 대단위의 주거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동현마을에서 찾아진 구순각목공렬문토기편은 청동기시대 전기에 속하는 토기로 주목되고 있다. 또한 오폭면 양별리에서도 무문토기편이 찾아졌다. 이곳은 日人學者 有光教²⁵⁾에 의해서 마제석검이 소개된 지역이기도하다. 마제석검의 정확한 출토상황은 알 수 없으나 무문토기가 수습되고 있어서 소개된 마제석검과의 관련성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실촌면 상오향리에서도 그물추 1점과 무문토기편들이 발견되어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군내에는 최소 8기의 고인돌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초월면 쌍동리, 산이리, 남종면 삼성리, 실촌면 삼리, 광주읍 장지리에 각 1기의 고인돌이 있었으며, 도척면 궁평리에 3기의 고인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중 광주군 산이리, 쌍동리, 삼성리, 장지리의 고인돌등 4기가 현장 보존되고 있으며, 궁평리 고인돌은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는 2기가 복원 전시되어 있다. 그러나 궁평리 보고서에 보고된 삼리 고인돌 1기가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삼성리에 있는 1기의 고인돌 외에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석재들 역시 고인돌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쌍동리의 3호 지방국도변으로 1기의 고인돌이 더 있었던 것으로 이곳의 주민이 전하고 있으나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4) 철기시대

현재 고고학에서 철기시대는 기원전, 후로 하여 약 600년간의 시기를 말하고 있다. 이 시기를 기원전, 후 시점으로 초기 철기시대와 철기시대 후기(원삼국시대)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시대구분에 대한 시대적인 한계성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²⁶⁾

초기 철기시대는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할때부터 청동기가 완전히 소멸되어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철생산이 시작될 무렵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철제농경구와 함께 회색의 승석문이 타날된 토기가 나타난다. 농공구류가 철기로 대체된 반면에 무기류는 여전히 청동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청동기로는 세형동검·세문경·동모·동과·팔령구·동물형 대구등 다양하고 정교한 청동제품이 생산되었다. 주거지에 있어서도 수혈식주거가 일반적이지만 온돌구조도 보이고 있다.

철기시대 후기로 들어와서는 석곽묘와 목곽묘가 발달하며, 농경에 있어서도 철기의 사용으로 급격한 진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를 역사적으로는 원삼국시대라하며 김해식토기, 와질토기라고도 불리우는 새로운 토기가 나타나고 있다.²⁶⁾

광주군에서 이 시기의 유적으로 조사된 곳은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에 의하여 조사된 실촌면 대석동유적이 있다.²⁷⁾ 보고서에 의하면 이곳에서 승석문토기와 무문토기등이 수습되었으며, 농수로에 문화층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조사단도 이곳에서 무문토기와 승석문토기편, 연질의 파수부편, 대형옹편, 숫돌등을 수습하였다. 또한 광주읍 장지리와 초월면 국수봉에서도 우각형파수부가 수습되었다. 이들은 높은 산과 구릉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25) 최몽룡, 「한반도의 철기시대」, 『동아시아의 초기 문화』(고인돌의 제1집), 1996, 문화재청(국립민속박물관)에서 펴냄

26) 최몽룡, 「철기 문화」, 『한민족사』3, 1997, 국사편찬위원회

27) 수 939, 부 224

2. 고대

경기도의 고대문화는 일찍부터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고대사회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농경문화가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한강유역에서 더욱 발전된 단계에 이르렀다. 한강유역 언저리에 형성되어 있는 넓은 농경지대, 그리고 경기도의 내륙지방을 서해안과 연결시켜 주는 한강의 지리조건은 고대사회의 성립과 발전에 커다란 밑바탕이 되었다.

청동기시대에 어떠한 정치세력이 경기도지역의 한강유역에 존재했는가를 자세하게 밝히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광주 지역에 산재한 유적²⁸⁾과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에 일정한 정치세력 집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삼한시대

경기도지역에 위치한 마한소국

국명	위치비정	
	이병도	천관우
원양국(爰襄國)	화성(華城)	파주(坡州)·연천(漣川)?
모수국(牟水國)	수원(水原)	양주(楊州)
상외국(桑外國)	화성(華城)	파주(坡州)·연천(漣川)?
소석색국(小石索國)		서행의 섬?
대석색국(大石索國)		서해의 섬?
우휴모탁국(優休牟國)	부천(富川)	춘천(春川)
신분활국(臣活國)		양성(陽城)
백제국(伯濟國)	광주(廣州)	서울 강남(江南)
속로불사국(速盧不斯國)	통진(通津)	통진(通津)=김포(金浦)
일화국(日華國)	?	양평(楊平)?
고탄자국(古誕者國)		?
고리국(古離國)	양주(楊州)	여주(驪州)?
노람국(怒藍國)	이천(利川)	이천(利川)?
목지국(目支國)	충남 직산(稷山)	연천(仁川)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	이천(利川)	충남 서산(瑞山)

28) 지금의 백정국의 편제 이전. 古 廣州를 기준으로 보면 한강하류 및 경인천 일대의 송추대지대에서 많은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앞의 청동기시대 개관 참조

『史記』朝鮮傳의 기록을 검토하면, 오늘날 예성강 이남에서 한강일대의 경기북부 지역에 辰國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기원전 2세기 말, 위만조선과 한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결과 위만조선과 유이빈 집단이 전국지역으로 들어왔고 이와 같은 집단에 의해 전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집단이 해체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한편 같은 시기의 마한세력은 경기도지역으로 진출하였다. 그리하여 3세기 중엽에 이르면 경기도지역에는 마한연맹체에 속한 10여개의 소국이 분포하기에 이르렀다. 소국으로 출발한 十濟는 주변의 지배영역을 확대하여 2세기 초 초고왕대(166~214)에 들어와 낙랑과 말갈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하남 위례성으로 중심지를 바꾸면서 국호도 伯濟로 고쳤다.

고고학적으로 삼한시대의 유적으로는 하남 미사리유적²⁹⁾, 광주 신대라 대석동유적³⁰⁾이 있다.

2) 삼국시대

하남 위례성은 북으로는 한강이 떠처럼 둘러 있고³¹⁾, 남으로는 넓은 평야가 펼쳐 있어서 방어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비옥한 곳이었다.

이 때의 백제는 미추홀의 비류집단과 결합하여 지역연맹체를 형성한 후 맹주권을 장악하였다. 3세기 후반 占爾王 때에는 沮河(예성강), 熊川(안성천), 大海(서해), 走壤(춘천)에 이르는 곳까지 세력권을 확대하였고, 이때 경기도 전역이 백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고이왕이 죽은 다음 백제 내부의 권력 다툼과 고구려의 압력으로 많은 시련을 겪다가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근초고왕 때이다. 근초고왕은 관동계를

고치고, 지방에 대한 통치와 수취를 강화하기 위하여 魯制를 편제하였다. 대외 정복활동을 활발히 벌여 경기·충청·전라지역을 차지하였고,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까지 진출하며 고구려 세력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줄기찬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백제는 한성시대를 마감하고 文周王 元年(475)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었다. 이제 광주를 비롯한 한강유역이 고구려의 지배영역에 놓이게 되었다.

한강유역과 그 이남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은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항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고구려의 남진에 대항하여 백제와 신라는 동맹체제를 형성하였고, 6세기 중엽 고구려를 축출하고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羅濟同盟은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면서 적대관계로 바뀌었으며, 한강유역을 차지한 신라는 이 지역에 新主를 설치하였다. 이후 고려가 성립하기 이전까지 450여 년 동안 한강유역은 신라의 관할이 된다.

3) 통일신라시대

광주를 포함하는 지역에 지방 행정조직인 漢山州가 설치된 것은 637년 무렵이라고 추정된다. 당시의 한산주는 임진강 이남에서 충북의 일부지역까지 포괄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7세기 후반 한산주에 여러성을 쌓아 통치하였다. 당의 병력 4만명이 평양에 주둔하면서 신라를 침입하려고 하였던 이 시기의 성으로 이성산성³²⁾과 남한산성이 있다. 남한산성은 기록으로는 주장성³³⁾으로 비정되며, 병자호란시 移宮함과 동시에 광주읍치도 移遷한 곳이다. 최근의 발굴조사 결과³⁴⁾

인화문토기가 출토됨으로서 초촉연대는 통일신라기

29)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査團, 『漢沙里』, 第1~5卷, 1994, 京畿道公營開發事業團.

30) 이 유적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1997년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이 합동으로 시행한 요지지표조사시 확인되면서부터이다.

31) 실제로 지금까지 조사된 한강변 유적들을 통해 보면 한강변에 연하여 하나의 선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서쪽에서부터 나열하면 삼천포드성·동천포성·공랑포성·구산포성(선리투성)·미사리유적 등이다.

32) 二聖山城은 한양대학교가 발굴하여 올해 '99년까지 7차에 걸쳐 발굴조사 되었다. 수도 유물로 보아 7세기 내의 것으로 보인다.

33) 『三國史記』新羅本紀 제7, 眞儒王 2년(672) 한산주에 臺長城을 쌓았는데, 둘레가 4,360步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34) 남한산성 행궁지, '99, 광주군·한국토지공사 역사박물관.

까지 소급됨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게 되었다.

통일신라는 패강 이남지역을 군현으로 편제하고, 새로운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淇江津을 8세기 후반에 설치하였다. 9세기에 들어와서는 해상교통의 요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唐城鎮, 穴口鎮, 長口鎮을 한

산주 관내에 설치하였다. 한산주의 영역은 淇西道가 설치되면서 그 범위가 축소되었고, 패강진은 패서도의 행정중심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한산주가 지녔던 국방요충지로서의 의미도 감소되었다.

3. 고려시대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고도 4년이 지난후인 태조 23년(940)에 이르러 겨우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州府郡縣의 이름을 고쳤는데, 廣州라는 명칭도 이때에 처음 등장하였다.³⁵⁾ 그러나 이같은 지방제도 개편은 형식상의 조치일 뿐, 실질적인 지방 통치를 위한 방법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통일초의 고려는 지방의 豪族 세력이 매우 강성하여 중앙의 명령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 지역의 호족인 王規(?-945)도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중앙의 간섭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태조는 왕규를 회유하기 위하여 그의 세 딸과 정략 결혼을 하고 각각 廣州院夫人³⁶⁾, 小廣州院夫人³⁷⁾, 後廣州院夫人³⁸⁾이라 봉하였으나, 왕규는 태조의 의도와는 다르게 소광주원부인의 소생인 廣州院君을 왕위에 등극시키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 때마침 惠宗(?-945)이 승하하고 定宗(923-949)이 즉위하면서 정국이 어수선하자 왕규는 이때를 이용하여 왕의 명령을 사칭하고 충신 朴述熙(?-945)와 그 측근들을 살해

한후 역모를 일으켰으나 태조의 從弟인 王武廉(?-949)이 평양의 군사를 이끌고 왕궁으로 들어가 궁궐을 굳게 지켜 내어, 실패하고 말았다. 난중에 왕규는 왕식렴에게 생포되어 牢中에 유배되었다가 참살되었고, 그 일족은 전원 몰살 당하였다.³⁹⁾ 왕규의 난 이후 광주는 뚜렷한 세력이 없어 중앙 권력에 완전히 흡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는 성종 2년(983)에 전국적으로 州府郡縣과 關防, 驛站, 江河, 浦口의 명칭을 개정하고 12牧을 설치할 때 처음으로 牧이 되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지방의 牧으로 나가는 관원으로 하여금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현지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며 牧마다 經學博士와 醫學博士 각 1인씩을 파견하여 지방 교육을 장려하고 常平倉을 설치하여 12牧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통치 체제를 정비하여 나갔다. 동왕 14년(995)에는 10道制(關內, 中原, 河南, 江南, 嶺南, 嶺東, 山南, 海陽, 朔方, 淇西)를 신설하고 12牧을 12軍의 節度使體制로 바꾸었는데, 이때 광주는

35) 『高麗史』卷56 志第10 地理1 廣州牧條.

36) 『高麗史』卷88 列傳1 后妃1 廣州院夫人 王氏條.

37) 『高麗史』卷88 列傳1 后妃1 小廣州院夫人 王氏條.

38) 『高麗史』卷88 列傳1 后妃1 後廣州院夫人 王氏條.

39) 『高麗史』卷127 列傳 第40 叛逆1 王規條.

奉國軍으로 개편되고 關內道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절도사체제도 顯宗 3년(1012)에 폐지하고 5都護 75都安撫使제도로 재편하여 광주에 안무사가 파견되었으나 이 역시 금방 혁파되고 다시 牧이 설치되었다. 당시 광주에는 川寧郡(지금의 驪州), 利川郡(지금의 이천), 竹州(지금의 안성)·料州郡(지금의 시흥)의 4개 屬郡과 龍駒縣(지금의 용인), 楊根縣(지금의 양평군 양평읍), 砥平縣(지금의 양평군 지체면)의 3개 속현이 예속되어 있었다. 이후에도 고려의 지방제도는 몇번의 변화를 더 겪은후 5道 兩界(楊廣道, 慶尙道, 全羅道, 交州道, 西海道, 東界, 北界) 체제로 완비되어, 고려는 전국적으로 京 4개, 牧 8개, 府 15개, 郡 129개, 縣 335개, 鎮 29개를 갖추게 되었다.

13세기초에 접어들어 고려는 약 30여년간 총 6차례에 걸친 몽고의 대규모 침략을 받았다. 당시 고려는 세계 최강의 몽고병을 상대로 피나는 대몽항쟁을 펼쳤으며 한때 몽고의 사령관이던 살테타이를 사살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거의 모든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패전하여 나라의 대부분이 약탈당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실정은 광주 역시 예외일 수 없어 고종 40년(1253) 몽고의 5차 침입 때에는 척후병 300여기가 광주에 이르러 가옥을 불살라 커다란 피해를 입었으며⁴⁰⁾ 고종 41년(1254) 6차 침입 때에는 몽고병이 고려의 서북 변경으로 쳐들어와, 척후기병이 광주에 진입하는 등 계속 침략을 당하였다.⁴¹⁾ 그러나 무기력하게 약탈만을 당하지 않았다. 몽고의

1·2차 침입 때에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잘 방어해 내어 왕으로부터 '광주는 오랑캐의 군사가 에워싸고 공격하였을 때에도 굳게 지켜 함락되지 않았으므로, 보통 요역이나 雜貢을 면제하라'는 詔勅을 받기도 하였다.⁴²⁾

그러나 고종 45년(1258)에 결국 고려는 최후의 항전지이던 강화도에서 나와 몽고에 항복하고 왕의 親朝와 태자의 불모를 조건으로하는 講和에 합의하고 말았다. 이후 고려는 元의 附庸國으로 전락하여 그들의 강압에 의해 모든 제도를 고쳐야 하는 커다란 시련을 겪게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광주를 비롯한 모든 牧이 또 다시 혁파되고 知書事가 설치되었다. 광주가 다시 牧으로 회복된 것은 反元 정책을 펼치던 공민왕대에 이르러서였다.

고려시대에 광주에 부임하였던 역대 관리들의 명단과 직함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지만, 여러 문헌 자료를 통해 소수의 인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직함과 행적을 간략히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 광주의 토산품으로 열매를 맺는 큰 소나무⁴³⁾와 명주⁴⁴⁾가 유명하였으며, 유리기와의 제작에 중요한 재료로 쓰이던 광주 義安의 흙이 있었다. 고려 조정에서 이 흙을 구해다가 승려 六然에게 유리기와를 만들게 하였는데, 그 품질이나 색채가 南商들이 파는 것보다 우수하였다고 한다.⁴⁵⁾

40) 『高麗史』卷24 世家24 高宗40年 8月 庚申條.

41) 『高麗史』卷24 世家24 高宗41年 8月 丙子條.

42) 『高麗史節要』卷16 高宗22年 5月條.

43) 『高麗國經』卷23 雜俗2 土山條.

44) 『高麗史』卷41 世家41 恭愍王15年 8月 乙丑條.

45)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3年 5月 壬辰條.

〈역대 광주 부임 관리 명단과 직함〉

번호	성명	주요내용	출전	비고
1	金景暭	廣州散判官을 지냈다.	『高麗史節要』卷9 仁宗 3年(1125) 9月 金景暭 卒記條.	
2	崔惟清	廣州散使로 삼았다.	『高麗史節要』卷11 毅宗 12年(1158) 12年 3月條.	
3	金	廣州掌書로 삼았다.	『高麗史節要』卷11 毅宗 21年(1167) 9月條.	
4	李仁挺	前廣州判官 李仁挺을 樞密로 임명하였다.	『高麗史』卷29 世家 29 忠烈王 6年(1280) 3月 乙卯條.	
5	薛永任	廣州散使로 임명하다.	『高麗史』卷34 世家34 忠宣王 4年(1312) 4年 3月 丁巳條.	
6	趙希古	廣州散使로 삼았다.	『高麗史節要』卷27 恭愍王 10年(1361) 11月條.	
7	宋良邁	廣州散使 宋良邁를 興仁尉賊功 2등 공신으로 하였다.	『高麗史』卷40 世家40 恭愍王 12年(1363) 閏3月 乙酉條.	
8	金漢貴	廣州道兵馬使로 임명하였다.	『高麗史』卷40 世家40 恭愍王 12年(1363) 5月 甲午條.	
9	崔雲海	廣州等處兵馬節制使 崔雲海를 回軍功臣에 수록하다.	『高麗史』卷45 世家45 恭讓王 2年(1390) 4月 壬寅條.	
10	金若溫	廣州通判을 지내다.	『高麗史』卷97 列傳10 金若溫條.	
11	崔惟清	崔惟清을 廣州散使로 작천시켰다.	『高麗史』卷99 列傳12 崔惟清條.	
12	廉信若	廣州掌書記를 역임하였다.	『高麗史』卷99 列傳12 廉信若條.	
13	洪子藩	廣州通判으로 전임되었다.	『高麗史』卷105 列傳18 洪子藩條.	
14	李 混	廣州參政이 되었다.	『高麗史』卷108 列傳21 李混條.	
15	李 瑱	廣州司錄으로 임명되었다.	『高麗史』卷109 列傳22 李 條.	
16	陳 淑	知廣州 陳淑이 사신을 영접하다.	『高麗圖經』卷39 海道6 자연도條.	
17	晉公度	차형 晉公度가 廣州的 書記로 있었다.	『東國李相國集』年譜 庚申年(奉安 5年, 1200, 神宗3)條.	
18	白和夫	廣州散使 白和夫...	『稼亭集』卷6 清風亭記條.	
19	李 悅	廣州司錄 李悅...	『牧隱詩稿』卷3 廣州司錄 李悅에게 사레하다.	
20	崔 恕	廣州散使 崔恕...	『牧隱詩稿』卷35 廣州散使 崔恕에게 부치다.	
21	南 兢	廣州散使 南兢...	『東文選』卷4 廣州散使 南兢에게 부치다.	
22	尹彦收	1138년(인종16) 廣州散使에 제수되었다.	『尹彦 墓誌銘』	
23	尹彦收	廣州散副使를 역임하였다.	『尹彦收 墓誌銘』	
24	朴得齡	廣州散使錄兼掌書記	『朴得齡 墓誌銘』	
25	朴 華	廣州散에 임명되었다.	『朴華 墓誌銘』	

4. 조선시대

광주는 조선의 개국후에도 牧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태조 4년(1395)에 이르러 京畿左道에 편입되었다. 도성의 주변에 위치하여 왕실의 매사냥 터로 자주 이용되었으며⁴⁶⁾, 왕이 溫陽으로의 行幸도중, 御駕가 廣州門懸山(지금의 오폐면 일대)에 머물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포획한 짐승을 호종하는 종친과 宰臣에게 하사하기도 하였다.⁴⁷⁾ 또한 三軍鎮撫所가 전국의 講武場을 선정할 때 李夫山·榛伐山·胎藏山·儉丹山·靑溪山·鞋掛山을 강무장으로 정하고 일반인들의 사냥을 금지시키고 있어 광주가 일찍부터 경기 지역의 중요한 강무장의 하나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⁸⁾

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中翼, 左翼, 右翼을 혁파하고 巨鎮을 설치할 때에는 廣州鎮에 楊根, 砥平, 川寧, 驪興, 陰竹, 竹山, 利川, 陽智를 포함시켰으며⁴⁹⁾ 당시 병조에서 軍器를 詳定하여 아뢴 보고에 의하면 광주에는 鄉角弓 36張, 磨箭 18部, 筒箭 18部, 長槍 15자루, 中槍 21자루, 環刀 36把, 弓弦 72개, 鐵甲 2領, 大鎗 1개, 中鎗 2개, 小鎗 2개, 鼓 2개, 大角 2개,

小角 2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광주에 주둔하던 병력은 소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⁵⁰⁾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驛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 道를 다시 개편할때 광주에 있던 樂生驛을 京畿左道察訪에 예속시켰으며⁵¹⁾ 靑溪寺를 관내의 資福寺로 지정하였다.⁵²⁾

또한 金과 焰硝가 생산되어 광주의 衙前吏卒을 2번으로 나눈 다음, 매 1번마다 각각 2백 인이 採金을 하게 하였으며⁵³⁾ 봄과 가을에 焰硝를 구워내게 하였다.⁵⁴⁾ 그리고 성종대에는 軍器寺提調에서 '광주에서 난 石硫黃을 써 보았더니 소리 나는 것은 컸으나 화살이 날아가는 것은 그전 화약보다 조금 느렸다'는 보고를 올리고 있어 광주에서 화약의 일종인 석류황도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⁵⁾

이후 연산군의 폭정으로 인해 광주목이 한때 혁파되었으나 1506년 중종반정으로 다시 복구되고 명종 21년(1566)에는 광주목사가 防禦使와 討捕使를 겸하게 되었으며 府로 승격되자 守禦使의 임무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46) 『太宗實錄』5年 2月 7日(癸酉)條.

47) 『世祖實錄』10年 2月 18日(辛丑)條.

48) 『世宗實錄』30年 12月 10日(壬戌)條.

49) 『世祖實錄』3年 10月 20日(庚戌)條.

50) 『世祖實錄』12年 7月 12日(辛巳)條.

51) 『世祖實錄』14年 3月 16日(丙子)條.

52) 『太宗實錄』7年 12月 2日(辛巳)條.

53) 『世祖實錄』14年 3月 16日(丙子)條.

54) 『文宗實錄』元年 3月 19日(庚申)條.

55) 『成宗實錄』12年 3月 30日(甲辰)條.

17세기에 들어 중국 대륙을 넘보던 淸이 조선마저 위협하자 조선은 인조 4년(1626)에 유사시를 대비하여 한강 이남의 保障處인 남한산성을 정비하고 광주의 州治도 성안으로 옮겨 훗날을 대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병자호란(1636)이라는 대전란을 맞이하여서는 왕이 도성을 포기하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최후의 항전을 펼쳐야만 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45일간의 항전 끝에 청에게 항복하고 말았지만, 이때 성내에 있던 광주 백성들은 官과 軍에 적극 협력하여 난을 극복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였다. 난이 끝난후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는 경기도 지역의 여타 고을보다 매우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正祖가 남한산성의 行宮에 나아가 守禦使 徐命膺(1716-1787)에게 하교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열 집이 있는 고을에도 또한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이 있는데, 이 고을(광주)로 말하면 경내의 호구를 통틀어 셈하면 1만 호의 고을이라 할 수 있거니와 地靈·人傑에는 분디 고금의 차이가 없으니, 또한 어찌 인재가 없겠는가? 병자란 때로 말하면 徐欣男은 私奴에 지나지 않는데 淸나라 병사가 세 겹으로 에워쌌을 때에 홀몸으로 빠져나가 능히 三南의 여러 道에 명을 전하였고, 孟元賓은 한날 閑散일 뿐인데 聖祖께서 行幸하셨을 때에 제 말을 바치기를 청하여 무사히 入城하실 수 있게 하였고, 麗朝의 金方慶·趙 이 다 이곳에서 났으니, 廣州 한 府는 인재의 府庫라 할 수 있을 만하다.⁵⁶⁾

정조는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鍊兵館에 나아가 특별히 광주군의 인재들을 상대로 과거를 시행하는 은전을 베풀었는데, 문과에는 閔台燾 등 3인이 급제하고 무과에는 李尙淵 등 15인이 선발 등용되었다.⁵⁷⁾

이어서 정조는 南漢·北漢은 다 같은 保障인데 北城에는 誌가 있고 刊本이 있으나 南城에만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徐命膺에게 『南漢誌』의 편찬을 명령하였다.⁵⁸⁾ 당시 남한산성에 대한 정조의 관심이 매우 지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정조는 남한산성을 직접 두루 돌아 본뒤 '성이 못 봉우리 꼭대기에 있고 좌우의 산골짜기가 매우 가파르니 천험(天險)의 땅이라 하겠다. 참으로 급할 때에 믿을 만하다'는, 당초에 한번 적과 결전(決戰)하지 못하고 마침내 성이 떨어지는 치욕을 면치 못하였으니, 대개 地利를 믿지 못할 것이 이와 같다'⁵⁹⁾고 말하여 병자호란을 극복치 못하고 淸에 항복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 하였다. 정조의 행차 당시에 남한산성안의 민호는 1천여 戶이며, 남자는 2천여 丁이고 여자는 2천 3백 丁였으며 倉은 7庫 11倉이었다. 그리고 광주부 전체의 민호는 1만 6백여 호이고 인구는 4만 8천여 구에 이르렀다.⁶⁰⁾

광주부는 병자호란후에 府가 설치되고 정조 22년(1798)에 다시 留守로 바뀌는 등 몇 번의 행정 변화를 더 겪다가 고종 32년(1895)에 23개의 면중에서 月谷面, 北方面, 聲串而의 3개면을 安山郡으로 이관하였다. 이후 대한제국기인 1906년(광무10) 10월에 廣州郡이 되어 漢城府 관할에 속하게 되었으며 조선이 망할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56) 『正祖實錄』3年 8月 7日(戊午)條.

57) 『正祖實錄』3年 8月 8日(己未)條.

58) 『正祖實錄』3年 8月 11日(壬戌)條.

59) 『正祖實錄』3年 8月 8日(庚申)條.

60) 『正祖實錄』3年 8月 3日(甲寅)條.

5. 근 · 현대

조선말 광주군 관내에 속해 있는 면의 수는 총 23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가 이 땅을 병탄한 뒤에 시행한 지방 행정구획의 대대적인 통폐합에 의해서 7개 면이 타 지역으로 이관되어 16개 면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1910년 中部面이 細村面을 흡수하고, 1912년에는 月谷面, 聲串面, 北方面을 始興郡에 그리고 瓦阜面을 양주군에 넘겨주었다. 뿐만아니라

1914년에는 王倫面과 儀谷面을 다시 수원군과 시흥군에 편입시키고 세촌면에 이어 郡內面까지 중부면으로 흡수시켰다. 그리고 楊平郡의 南終面을 이때에 처음으로 광주군 관내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광주군 관내의 304개 부락은 모두 16개면 183개 법정리로 재편되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광주군 관내 면의 변화〉

時 代	面 名	面 數	里 數	備 考
조선시대	慶安面 五浦面 都尺面 實村面 草月面 退村面 草阜面 東部面 西部面 龜川面 中臺面 細村面 突馬面 樂生面 大旺面 彦州面 王倫面 一用面 月谷面 北方面 松洞面 聲串面 儀谷面	23	304	
	中部面 東部面 西部面 退村面 慶安面 草月面 實村面 都尺面 五浦面 南終面 突馬面 樂生面 大旺面 彦州面 中榮面 九川面			
일제강점기		16	183	

1917년 이후의 행정 변화에서 가장 팔목할 만한 것은 광주군에서 성남시와 하남시가 분리되어 나간 것이다. 특히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의 전체 면적과 중부면의 일부가 성남시로 편입된 것은 해방이후에 광주가 겪은 행정 변화중 가장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남시는

1989년 신설되면서 광주군의 동부읍, 서부면 전체와 중부면 일부를 편입하여 나갔다. 2000년 현재 광주군은 광주읍의 1개 읍과 남종면, 도척면, 실촌면, 오포면, 중부면, 초월면, 퇴촌면의 7개 면을 관할하고 있다.

〈 1917년 이후 광주군의 행정 변화 〉

연 대	주 요 내 용	비 고
1917	중부면 산성리에 있던 군청을 慶安面 慶安里로 이전	
1939	경안면을 광주면으로 개칭	
1964	중부면에 성남출장소 설치	
1968	九川面 中岱面 彦州面과 大旺面의 逸院里 水西里 紫谷里 栗峴里 細谷里 등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됨	
1973	성남시가 신설되어 大旺面 樂生面 突馬面과 中部面의 일부가 편입됨	
1979	광주면이 광주읍으로 승격됨	
1980	동부면이 동부읍으로 승격됨	
1989	하남시가 신설되어 동부읍 서부면 전체와 중부면 일부가 편입됨	
2000	1읍 7개면	

광주군은 평지보다 산이 많아 교통이 불편하고 주거 공간이 좁아 도내의 타 시군에 비해 개발이 늦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광주군을 중앙으로 관통하는 중부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서울의곽순환도로와 연결됨에 따라 교통이 매우 편리해져 서울과의 거리가 불과 몇분사이로 짧아진 최근에는 전원주택지를 비롯한 각종 개발의 최적지로 각광받아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의 팽창과 더불어 경기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광주군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시켜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다. 더구나 2001년에는 市로의 승격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광주는 경기 동남부 지역의 중요한 거점 도시의 하나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Ⅲ. 민속과 전통

1. 주거
2. 일생 의례
3. 세시 풍속과 민속 놀이
4. 마을 신앙과 가정 신앙
5. 무속 신앙
6. 구비 전승

1. 주 거

1)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주거(古家屋, 集姓村)에 대한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방법과 현지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우선 조사지 선정에 대한 기초자료는 광주군에서 발행한 군지(郡誌)와 광주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홈페이지(<http://www.kwangju.kyonggi.kr>)를 이용하였고, 각 읍 면사무소를 통한 기초자료와 각 마을 이장·제보자들과의 전화통화 및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장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조사지는 집성촌을 중심으로 각 읍 면에 1개 마을로 정하여 총 8개 마을에 대해서 현지조사방법을 통해 조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가옥에 대한 부분은 생활가옥으로서의 고가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古建築物를 포함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2) 조사 현황 및 성과

이번에 집성촌을 중심으로 선정한 8개 마을의 조사지는 다음과 같다.

광주읍 중대1리 텃골, 남종면 수청1리 청탄마을, 도척면 유정리, 실촌면 건업리 상전업마을, 오폐면 능평리, 중부면 광지원리, 초월면 신월1리, 퇴촌면 정지2리

광주군에서 조사된 자료를 살펴보면 한 개의 성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마을이 대략 각 읍 면에 3~4개 마을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대개의 마을이 원래부터 세거하던 성씨들을 비롯해서 마을 주민들이 외지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가 일반적이다. 광주군이 수도권과 근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외지로부터 새로 입주해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성씨의 분포가 다양해지고 같은 성씨라고 하더라도 씨족으로서의 친인척관계와는 무관한 이웃관계로서의 사회적 관계만이 형성되어 있었다.

고가옥(古家屋)도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이나 누정(樓亭) 사당(祠堂) 정도만이 세 모습을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 중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없고 거의 모두가 경기도 지정문화재로서 중부면 산성리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생활가옥은 현대식으로 개량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 시간 간격이 10~20년이 보통이고 옛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겉모습만이 그러하였고 대략 30~40년이나 많게는 50~60년 정도가 고작이다.

2) 읍·면별 조사 현황

(1) 광주읍

조사지는 광주읍 중대1리 텃골이다. 이 마을에는 광

주 안씨(廣州 安氏)들이 600여년 전부터 집성(集姓)을 이루고 사는 마을이다.

우리나라에서 안씨의 都始祖는 중국 당나라때 사람인 안원(安瑗)이다. 그의 본래 성은 이씨(李氏)였는데, 당나라 憲宗 元和二年, 즉 신라 애장왕(哀莊王) 8년(807)에 중국에서 건너와 개성 송악산 아래 정착한 이원(李瑗)이다. 그는 세 명의 아들 枝春·葉春·花春을 두었는데, 이들이 신라 경문왕(景文王) 4년(864)에 왜구의 침입을 무찌른 공으로 안씨(安氏) 성을 賜姓받고 이름을 각각 방준(邦俊)·방걸(邦傑)·방협(邦俠)으로 개명하였고 죽산군(竹山君)·광주군(廣州君) 등에 봉해졌다.

광주 안씨는 둘째인 방걸을 시조(始祖)로 하여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는데, 그 중에서 여말선초때 활동했던 雪泉 安省(思簡公)을 첫째로 꼽는다. 이 사람이 바로 광주읍 중대1리 텃골에 처음으로 입향한 입향시조이기도 하다. 그는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어 평양백(平壤伯)에 봉해지기도 했다. 광주읍 중대1리 텃골로 입향한 安省은 광주 안씨 시조로부터 18대손이 되고, 安省의 19대손인 안○선(安○善, 남, 78세, 廣州 安氏 宗孫)이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중대1리 텃골에는 2000년 2월 현재 전체 50여호 중에서 18~20호 정도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데, 일제

시대 말기에서 1950년대까지는 마을 전체 100여호 중에서 50호 정도가 광주 안씨들이었다고 한다. 현재에도 거주자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마을에는

광주 안씨 외에도 尹氏, 朴氏, 千氏, 崔氏 등이 살고 있다.

조선시대에 유명한 광주 안씨에는 中宗때 삼포왜란(三浦倭亂, 1510년)을 평정했던 安淵德이 있고, 그의 증손이 되는 安滉은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후에 宣祖의 매부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이 분에 대한 不遷位祭를 제보자의 집 바로 옆에 있는 충양사(忠陽)에서 지내고 있기도 하다. 한편 영·정조 시대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順菴 安鼎福(1712~1791, 文肅公)도 광주 안씨를 빛낸 사람의 하나다.

현재 마을에서 광주 안씨 종손이 1년에 지내야 하는 제사가 10번에 달한다고 한다. 1990년대 이전에는 1년에 14번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었다고 한다. 중대1리 텃골에서는 광주 안씨가 현재까지도 마을의 대소사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일례로 마을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이장이 거의 대개가 광주 안씨들이 담당하고 있고 다른 성씨들은 이장을 역임해본 적이 없다고 말해지고 있다.

중대1리 텃골은 현재 많은 외지인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실정인데, 그 대부분이 완전히 현대적인 건축양식의 생활가옥을 짓고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변화의 모습은 확연히 나타나는데, 그나마 광주 안씨가 집성을 이루어 오래 전부터 世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당과 같은 전통적인 유교건물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래의 사진은 順菴 安鼎福 선생이 講學·著述하던 3칸짜리 규모의 이택재(麗澤齋)이다.

(2) 남종면

조사지는 남종면 수청1리 청탄마을이다. 이곳에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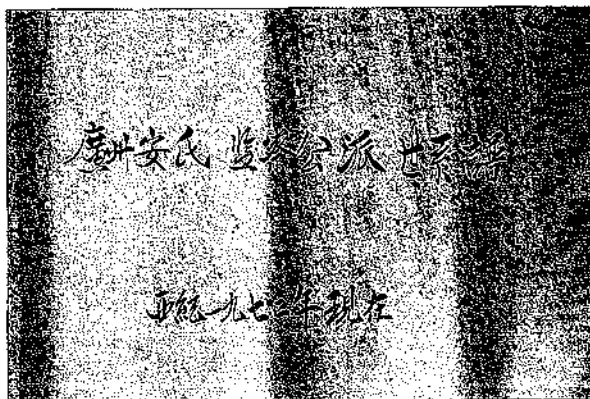


사진 1. 광주 안씨 세계보

주 정씨(慶州 鄭氏)가 집성을 이루어 살고 있다.

우리나라 정씨(鄭氏)의 시원(始原)을 이룬 경주 정씨는 진한국(辰韓國) 사로(斯羅)의 6촌 중 山 珍支村(本彼部) 촌장 지백호(智伯虎)를 시조로 받들고 있다. 서기 32년(신라 유리왕9) 그의 현손대(玄孫代)에 와서 다른 다섯 촌장들과 함께 사성(賜姓) 받을 때 본피부(本彼部)로 개칭되면서 정씨의 성을 하사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신라 법흥왕때 문화(文和)호 시호를 받았고, 656년(신라 태종무열왕3)에 감문왕에 추봉되었다.

그후 경주 정씨는 시조의 후대로 내려오면서 문헌공파(文獻公派) 양정공파(良景公派) 월성위파(月城尉派) 평장공파(平章公派)등 크게 네 개파로 갈라졌고, 지손(支孫) 계통에서는 30여본으로 본적(本籍)되어 우리나라 모든 정씨의 대종(大宗)을 이루었다. 양정공파의 광시(光時, 1610~1647)가 남종면 수청리에 세거를 열어 이곳에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수청1리 청탄마을의 생활가옥에는 그런대로 옛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집이 여러 채 있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폐가옥으로 남아있는 집이 여럿 있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폐가옥이 되긴 했지만 지붕을 제외하고는 기둥을 비롯한 벽면 그리고 내부구조가 전통적인 서민가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5칸짜리와 4칸짜리의 ㅁ자형 집이다.

아래의 사진은 현재까지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생



사진 2. 5칸짜리 폐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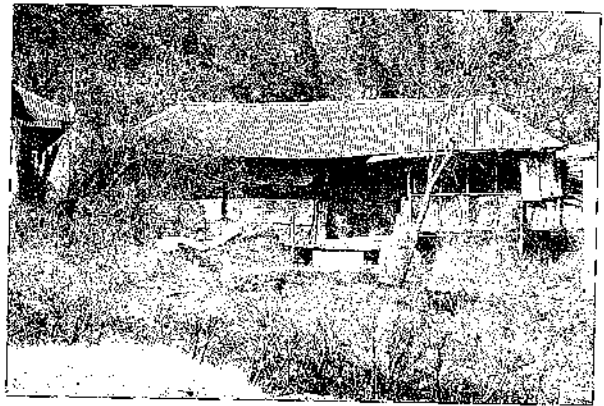


사진 3. 4칸짜리 폐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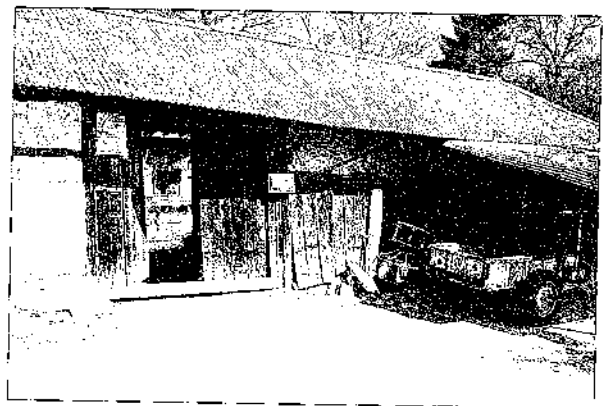


사진 4. 청탄마을의 전통적인 생활가옥 일례

활가옥으로서 ㅁ자형태의 집이다. 이 집은 지붕의 슬레이트를 제외하고는 대문·기둥·벽면이 옛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생활공간도 안채와 행랑채가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도척면

조사지는 도척면 유정리이다. 이곳에는 광주 이씨(廣州 李氏)가 집성을 이루어 살고 있다. 이곳 외에도 도척면 방도리와 초월면 대쌍령리·신월리·용수리에도 집성을 이루어 살고 있다고 전한다.

광주 이씨의 始祖는 신라때 奈勿王(356~402) 때의 內使令이란 벼슬을 지낸 자성(自成)이다. 광주 이씨의 중흥은 고려말 학자인 遁村 이집(李集, 1314~1388)에 이르러 이루어졌다. 광주 이씨는 遁

村·栗亭(李寬義)·石灘(李養中)·嚴灘(李養豪)의 네 파맥으로 이어오는데, 迺村의 후예들은 지금의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을 중심으로 옛 광주군 구천면 일대와 성남시에 연고가 많고 초월면 무갑리에는 임진왜란 때 피난을 와서 世居가 시작되어 대쌍령리 등에 번창하였고 도척면 방도리 등에도 집거하고 있다고 전한다.

迺村의 묘는 원래 성남시 하대원동에 있었고 石灘의 묘는 하남시 덕풍2동에 있었으나 도시개발에 따라 종손 이창희가 초월면 신월리로 이장을 하였고, 嚴灘의 묘는 원적산 아래 실촌면 이선리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제단(祭壇)

광주 이씨 문중에서는 매년 가을에 時祭를 지내고 있으나 선조의 문묘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시제 때에는 매년 많은 시일이 걸리고 각 분묘마다 제수를 각기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척면 방도리 안산宗中 소유 임야에 제단을 설단하여 선조의 위패를 한 자리에 순서대로 설치하고 차례로 제를 올리도록 마련하였다.

(4) 실촌면

조사지는 실촌면 건업리 상건업마을이다. 이곳에는 밀양 박씨(密陽 朴氏)가 집성을 이루어 살고 있다. 이곳 외에도 광주읍 탄벌리와 초월면 신월리에도 밀양 박씨가 집성을 이루어 살고 있다고 전한다.

밀양 박씨의 始祖 언침(彦)은 박혁거세의 29世孫인 신라 경명왕(景明王, 54대)의 맏아들로 밀성대군(密城大君, 밀성은 밀양의 옛이름)에 봉해져 후손들이 밀양을 본관으로 하여 世系를 이어 오고 있다.

언침의 42세손 척(陟)이 고려 충선왕때 밀성군으로 봉군되어 밀양 박씨의 中始祖가 되었고 척의 11세손 지령(池齡)이 1490년대 초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남리 참새골에서 광주읍 탄벌리로 이주한 것이 이 지역을 바탕으로 세거하기 시작한 사초이다. 그 후손들이



사진 5. 건업리의 전통적인 생활가옥 일례

번창하여 탄벌리(炭筏里) 회덕리(回德里) 경안리(京安里)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족보에 등재된 인원만도 1,110명에 달한다.

밀양 박씨 중에서 가장 많은 후손을 거느린 파는 규정공파(糾正公派)로서, 건업리와 신월리의 규정공파의 파조(派祖)인 현(鉉, 고려시대 司憲糾正)의 12세손은 조선시대 선조때 공예 병조의 판서를 지낸 文莊公 계현(啓賢, 1524~1580)이다. 계현의 손자 肅愍公 승종(承宗, 1562~1623)이 조선시대 인조반정때 화를 피하여(1623년) 실촌면 건업리로 낙향하면서 이것이 밀양 박씨가 광주군 실촌면 건업리에 세거하게 된 계기가 된다. 현재 그 후손들이 실촌면 건업리와 초월면 신월리에 60여세대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익신(益信, 宗會會長)이 중심인물이다

건업리 상건업마을의 주거환경은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듯이 거의 모두가 근·현대식으로 개량되어진 상태이다.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옛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던 생활가옥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집이다. 이 집은 5~6칸 규모의 ㄱ자형 집으로서 가운데에 대청마루가 있다. 현재 지붕은 슬레이트로 벽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나무기둥과 흙벽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5) 오포면

조사지는 오포면 능평리이다. 이곳에는 경주 김씨(慶州 金氏)가 집성을 이루어 살고 있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다. 이곳 외에도 중부면 불당리에도 집성을 이루어 살고 있다고 전한다.

경주 김씨의 元祖인 金閼智는 서기 65년(신라 탈해왕9) 3월 금성(金城) 서쪽 시림(始林) 숲속에 흰색 수탉이 울고있던 곳 위쪽의 나뭇가지에 달려있던 금계(金槧)를 열어보니 그 속에 비범한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김알지였다. 탈해왕은 '하늘이 내려준 아들'이라 하고 금계에서 나왔다고 하여 성을 김씨(金氏)로 사성(賜姓)하였고 또 시림(始林)을 계림(鷄林)으로 고쳐 나라이름을 삼았다고 하는 설화의 기록이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하고 있다.

서기 262년 그의 7세손인 미추(味鄒)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로부터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敬順王: 김알지의 28세손)까지 38명이 신라의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렇게 신라시대부터 세력을 키워온 경주 김씨는 그 파계(派系)가 복잡하지만 대략 8~9개의 派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派로는 영분공파(永芬公派, 鳴鍾, 경순왕의 第三子) 태사공파(太師公派, 仁瑄, 경순왕의 후손 또는 헌강왕의 7대손) 은열공파(殷說公派, 경순왕의 第四子) 판도판서공파(判圖判書公派, 將有, 경순왕의 후손) 호장공파(戶長公派) 등을 들 수 있다.

은열공파의 파조인 은열(殷說)은 경순왕(敬順王)의 넷째 아들로 평장사(平章事, 고려시대 문하부 소속의 중2품 벼슬)를 역임했고 대안군(大安君)에 봉해졌으며 그 후손이 가장 번창했다. 그래서 안동 김씨·청풍 김씨·김녕 김씨·청강 김씨·전주 김씨·양근 김씨·영광 김씨·안산 김씨 등이 모두 은열의 후손으로 전하고 있다.

은열공파 중에서 그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두 가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려시대에 대장군(大將軍, 무관의 종3품 벼슬)을 역임한 김순웅(金順雄)을 中始祖로 하는 派가 있다. 김순웅의 12대손인 김균(金, 齊肅公)은 고려말에 밀직부사를 지내고 조선시대 개국공신으로 의정부 좌찬성을 역임하였고 후에 계림군(鷄林君)에 봉해졌다.

그의 후손들은 계림군파(鷄林君派)로 대표적인 일문(一門)을 이루고 있다. 계림군 김균의 묘는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일대에 세거하기 시작했고 김균의 16세손인 김응집(金應集)이 1700년대 초반에 광주군 중부면 불당리에 세거를 열기 시작했다. 그 일부가 현재 오포면 능평리에 살고 있다.

(6) 중부면

조사지는 중부면 광지원리이다. 이곳에는 진주 강씨(晉州 姜氏)가 예전부터 집성(集姓)을 이루어 살고 있는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주 강씨의 시조는 고구려에서 무장을 지낸 강이식(姜以式)이라고 전하는데, 일설에 의하면 중국 隋나라 사람으로 隋 煬帝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征東大元帥로 출정했다가 고구려로 귀화했다고도 전한다. 현재 진주 강씨의 80%는 姜彰瑞(博士公)의 후손들이다. 이 후손 중에서 姜師瞻(御史公)의 후손이 가장 많으며, 이 어사공파 중에서도 通亭公(淮伯)派와 通溪公(淮仲)派가 가장 많다. 오늘날 진주 강씨의 70~80%가 통정공파와 통계공파의 양파의 후손들이라고 한다.

중부면 광지원리에는 고려 공민왕때 성균시에 올라 찬성사(贊成事)를 역임했던 박사공파(博士公派)에 속하는 기(琪)의 12대손인 빈(濱, 1644~1707)이 경기도 이천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살기 시작하면서 집성촌을 이루어 50여호에 이르렀다가, 2000년 2월 현재 총 75가구 중에서 25가구 정도만이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 전설에 의하면 입향조인 빈은 원래 살고있던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 그것을 피해 이곳 광지원리로 들어

오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광지원리의 입향조인 빈(濱)은 시조로부터 17代孫이 되고, 현재 입향조 빈에게서 8대손이 되는 강○천(姜○天, 남, 83세)씨가 宗孫으로서 마을에 살고 있다. 입향조로부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종손까지의 계보는 濱(入鄉祖) - 杓 - 澤煥 - 在載 - 文會 - 奭永 - 必鑾 - 台熙 - 信天(현재 종손)으로 되어있다. 그 중에서 입향조 濱에 대한 시제는 10월 초아흐렛날, 姜杓에 대한 시제는 10월 스무엿하룻날, 姜澤煥에 대한 시제는 10월 열하룻날에 지내고 있다. 현재 종손은 원래의 지계종손은 아니라고 한다. 현종손이 6~7세 었을 때 증조부였던 奭永은 말아들이 아닌 둘째였는데 말아들이었던 큰집이 복간도로 이주를 하고 돌아오지 않게 되면서 奭永의 자손들이 계승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姜濱이 경기도 이천에서 광주군 중부면 광지원리로 생활의 근거지를 옮겨왔을 때 마을에는 이미 殷氏들이 살고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광지원리를 개척하고 개촌한 성씨는 殷氏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마을에는 그 은씨의 자손들이 한 사람도 살고있지 않다.

마을에는 현재 광주 안씨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실이 나 사당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마을 내에서 주도적인 성씨로서의 두드러진 역할이나 독점적인 가문의 위세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단지 성씨의 구성 분포가 비례적으로 많을 뿐이지 다른 성씨와의 구분이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다.

중부면 산성리에는 여러 개의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그 첫째로 꼽히는 것이 수어장대(守禦將臺, 유형문화재 제1호, 중부면 산성리 815-1)이다. 이 건물은 조선시대 인조 2년(1624)에 남한산성 축성과 함께 축조된 동·서·남·북의 4將臺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장대로 산성 내의 최고봉인 日長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선 내부와 인근의 양주·양평·용인·고양·서울·인천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원래 단

층 누각을 축조하고 西將臺라 불렸으며 남한산성의 방위를 맡았던 守禦廳 중 右營將이 陳을 치고 있었다.

영조 27년(1751)에 留守 이기진(李箕鎭)이 왕명으로 서장대 위에 2층 누각을 건립하고 외부 扁額은 '守禦將臺', 내부 편액은 '無忘樓'라 이름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1896년 유수 박기수(朴岐壽)가 재건하였는데 하층은 초익공(初翼工), 상층은 이익공(二翼工) 형식에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하층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3칸 중 정면 3칸과 측면 2칸을 내진으로 구획하여 高柱를 세우고 중앙에 廳을 두었다. 상층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하층의 내진고주가 그대로 올라와 상층의 기둥을 이룬다. 상층의 각 칸에는 두 짝의 판문을 설치하였다.

다음은 송렬전(崇烈殿, 유형문화재 제2호, 중부면 산성리 717)이다. 송렬전은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드리던 사당이다. 원래 조선 인조 14년(1638)에 溫祚王祠로 건립되었으나, 후에 남한산성의 修築에 힘쓰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싸우다 죽은 守禦使 이서(李曙)를 함께 배향하였다. 정조 19년(1795)에 왕이 사액을 하사하고 송렬전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전체 건물배치 및 공간구성은 강당과 東·西齋를 중심으로 한 강학공간과 사당을 중심으로 한 제향공간으로 대별되는데, 현재는 本殿과 그 좌우에 東·西齋 그리고 外三門만이 남아 있고 강당과 내삼문 등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가단과 초석만 남기고 있다. 본전인 송렬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翼工系 형식의 건물로 겹처마의 맞배지붕 집으로 되어 있다. 전면 퇴칸은 두리기둥을 세우고 바닥은 전들을 깔아 개방하였으며 안쪽의 각 칸에는 모두 四分舍의 정자살문을 설치하여 놓았다.

다음은 청량당(淸 堂, 유형문화재 제3호, 중부면 산성리 815-2)이다. 청량당은 조선시대 후기에 실존했던 이회(李晦)와 그의 부인 그리고 碧巖大師를 모신 사당이다. 내부의 정면에 이회의 초상화가 있고 그 좌우에 벽암대사와 이회의 처첩의 초상화가 봉안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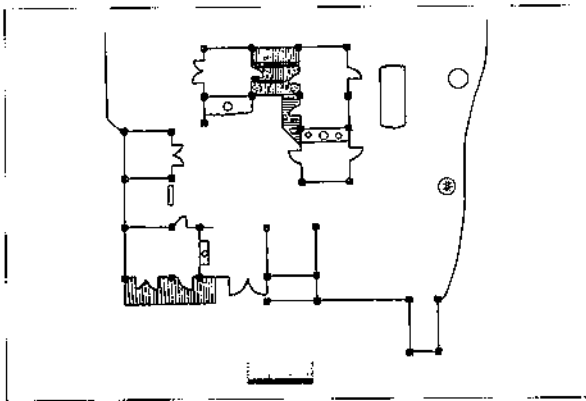
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서까래 위에 각이 진 浮椽이 없는 홑처마에 팔작지붕집으로 되어 있다. 架構는 중도리와 중도리 그리고 주심도리로 이루어진 五檁架의 가구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천장은 별도의 반자 시설이 없는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현절사(顯節祠, 유형문화재 제4호, 중부면 산성리 310-1)이다. 현절사는 병자호란 때 적에게 항복하기를 끝까지 반대했던 유집(尤集, 1606~1637), 오달계(吳達濟, 1609~1637), 홍익한(洪翼漢, 1586~1637)의 三學士의 우국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남한산성 기슭에 지은 사당이다. 숙종 19년에 현절사로 사액되었고, 숙종 37년에 척화파의 대표였던 좌의정 김상헌(金尙憲)과 인조의 항복 당일에 자결을 꾀하였던 이조참판 정온(鄭溫)을 같이 입향하게 되면서 사당의 위치를 현재의 장소로 옮기게 되었다. 이 사당은 고종 8년(1871)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제외되었던 전국 47개 사원 중의 하나이다. 사당은 정면 3칸과 측면 2칸의 규모이고 전면은 퇴칸으로 되어 있어 제향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정면의 각 칸에는 사분합의 떠살문을 달아 놓았고 측면은 방화벽으로 마감하였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양 측면에 風板을 덧달아 놓았다.

다음은 침괘정(枕戈亭, 유형문화재 제5호, 중부면 산성리 591-1)이다. 침괘정은 건립시기 및 건립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조선 영조 27년(1751) 廣州留守 이기진(李箕鎭)이 중수하고 침괘정이라 명하였다고 한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7칸 측면 3칸으로 약 31평 가량 되며, 지붕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전체 건물의 평면 중 5칸에 12평 가량의 온돌이 설치되어 있고 정면 2칸 측면 3칸에 8평 가량의 마루방이 있으며 그 반대편으로 약 5자 폭으로 퇴칸을 廻廊처럼 둘러놓았다. 현재의 건물구조로 보아서는 이 건물은 집무실로 쓰였고 무기고나 무기 제작소는 침괘정의 부근에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연무관(演武館, 유형문화재 제6호, 중부면 산성리 400-1)이다. 연무관은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무술을 연마하던 곳으로 건립연대가 확실하지는 않으나 조선시대 인조 2년(1624)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演武堂이라 부르던 것을 숙종 때에 守禦使 김재호(金在好)로 하여금 改修하게 하고 練兵館이라는 편액을 하사하였다. 정조 때에는 守禦營이라고 개칭하였으나 그 뒤에도 통칭 연무관 또는 연무관이라 부르고 있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으로서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천장은 반자가 꾸며지지 않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기둥은 두리기둥이고 기둥머리는 쇠서가 하나 뻗은 初翼工 형식으로 짜여져 있다. 배면벽은 널판벽으로 좌우의 벽에는 판문이 3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정면은 벽체나 문짝이 없이 개방되어 있는데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에는 설치되었으나 중간에 여러 차례의 보수가 이루어지면서 없어진 듯하다.

다음은 지수당(池水堂, 문화재자료 제14호, 중부면 산성리 124-1)이다. 지수당은 조선시대 현종 13년(1672)에 府尹 이세화(李世華)가 세운 건물이다. 이 세화는 호가 雙栢堂으로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문관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숙종 15년(1689) 인현왕후 폐위시 상소를 올렸다가 문초를 당하고 귀양을 가게 된다. 그 후 복직되어 大司諫·戶曹判書로 뽑혔으나 모두 사양하고 후에 세자빈객을 비롯해서 공·형·병·예조판서 등을 지냈다. 이 건물의 앞뒤로는 세 개의 연못이 있어 당시 고관들이 한가롭게 낚시를 즐기던 곳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하나가 매몰되어 두 개의 연못만이 옛 모습을 남기고 있다. 연못 가운데 '관어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 빈터만 남아 있다. 지수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통칸 구조의 건물로서 홑처마에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외벌대의 기단 위에 방형의 초석을 놓았고 그 위에 네모난 方柱를 기둥으로 사용하였으며 각 칸은 모두 개방되어 있고 하부에 머름을 두 평난간을 설치하였다. 바닥은 우물마루로서 일종의



도면 1. 중부면 엄마리의 전형적인 기억나은자형 집

누각 건물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장경사(長慶寺, 문화재자료 제15호, 중부면 산성리 22-1)이다. 이 사찰은 조선시대 인조 2년(1642)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 전국 8도의 승려들을 모집하여 丁役을 시켰는데, 이 절은 당시 이들의 숙식을 위하여 창건한 사찰로 그 당시에 있던 9개 사찰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사찰이다. 축성 당시 나라에서는 승려 각성(覺性, 1575~1660)을 都總攝으로 삼고 전국의 승려를 교대로 징집하여 사역을 돕게 하였다. 각성은 인조 16년에 이 절을 창건하였다. 그 후 효종이 복벌을 계획하였을 때에는 이 절에 총지휘본부경인 총섭을 두어 僧軍을 훈련시키는 한편, 望月寺·主井寺·國淸寺·天柱寺·開運寺·東林寺·東壇寺·漢興寺 등 성내의 8개 사찰뿐 아니라 전국의 승군을 지휘하는 국방호국 사찰의 소임을 담당하였다. 그 두 고종 때까지 250여년간 북한산성과 함께 남한산성에도 전국에서 뽑은 270여명의 승려들을 교대로 상주시켜 立番하게 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승병들의 국방활동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사찰 내의 건물로는 조선 후기 多包系 형식의 回 구조를 이루고 있는 팔자지붕과 겹처마의 主佛殿인 대웅전을 비롯하여 鎮南樓·七星閣·大房·요사채 등이 있다.

1980년대에 조사된 자료⁶¹⁾이기는 하지만 <도면 1>

과 같이 광주군 중부면 엄마리에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기억나은자집을 확인할 수 있다. <도면 1>에서 보이듯이 안채뿐만 아니라 사랑방의 전면에 뒷마루를 놓은 것은 경기도 지방의 관례를 따른 것으로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마루에 바로 걸터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유용성이 있는 가옥구조이다. 또한 안채의 전면방 정면을 벽으로 차단한 것은 내외법을 지키려는 전통적 유교적 관념이 가옥구조에 투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7) 초월면

조사지는 초월면 신월리이다. 이곳에는 여흥 민씨(驪興 閔氏)가 집성을 이루어 살고 있다. 민씨의 본관은 驪興·'黃驪'·榮州가 전하지만 '黃驪'는 驪興의 옛표현이고 '榮州 閔氏'는 여흥 민씨의 지파로서 근세에 와서 '黃驪'으로 습칭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 민씨는 驪興을 단일본으로 하고 있다.

민씨는 孔子의 제자중 한 사람인 민자건(閔子騫, 중국 전국시대 노나라의 현인)의 후손 민칭도(閔稱道)가 고려 중엽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여흥(驪興, 지금의 여주)에 정착한 것이 우리나라 민씨의 시초라고 전한다. 한편 경기도 여주에 있는 神勒寺 부근에 민씨의 시조가 나온 곳이라고 하는 '閔姓穴'이 있다는 전설도 구전되고 있지만 분명하지는 않다.

여흥 민씨의 世系는 文仁公派(漢, 고려 충숙왕때 守政丞·學者)와 文順公派(, 고려 충숙왕때 大提學)로 대별된다. 그런데 지(漬)는 문인공파(文仁公派)의 派始祖이면서 始祖 민칭도의 8세손으로서 그의 11대손 민복용(閔伏龍)이 광주군 초월면 신월리 두월정락(斗月亭落)에 세거를 열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마을에는 전체 40여호 중에서 17호 정도가 여흥 민씨들로 되어 있다.

61) 金光彦, 『韓國의 住居民俗誌』, 民音社, 1988, 290~297쪽 인용.

초월면 서하리에는 근현대 한국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인 海公 신익희(申翼熙, 1894~1956) 선생의 생가(기념물 제134호, 초월면 서하리)가 자리잡고 있다. 이 가옥의 원래 지금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고종 2년(1865)인 乙丑年 대홍수로 집이 파손되어 고종 4년경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는 19256년에 건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가옥은 안채와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목조기와집으로 전통 한옥의 외관을 잘 간직하고 있다. 안채는 전체적으로 T자형을 이루는데 중앙의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안방, 좌측에 건넌방을 두었고 안방 앞으로 부엌을 두었다. 바깥채는 ㄱ자형으로 가운데에 대문을 두고 좌측에 2칸의 사랑방을 두었다. 이 집은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19세기 또는 20세기 초반의 경기 지역 중소 지주계층의 가옥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둥의 일부 부재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부재가 가늘고 치목수법도 오랜 것이 아니어서 적어도 20세기 초에 들어와 크게 개축된 것으로 짐작된다.

초월면 신월1리에서 전통적인 생활가옥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마을 입구에 즐지어 자리잡고 있는 공장과 마을 앞을 지나가는 새로운 국도공사로 인해서 마을은 계속 변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생활가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집은 <사진 6>과 같이 6칸짜리 규모의 ㄱ자형 집인데, 슬레이트 지붕에 흙벽과 나무기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전형적인 서민농가의 모습이지만 이미 폐가가 된지 오래되었다.

반면 이○회씨 집은 ㄷ자형으로서 대문을 끼고있는 행랑채의 모습은 흙벽과 나무기둥의 모습 때문에 전통적인 옛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바깥마당이나 안마당은 상수도의 보급 등과 관련된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땅이 아니라 시멘트로 바뀌어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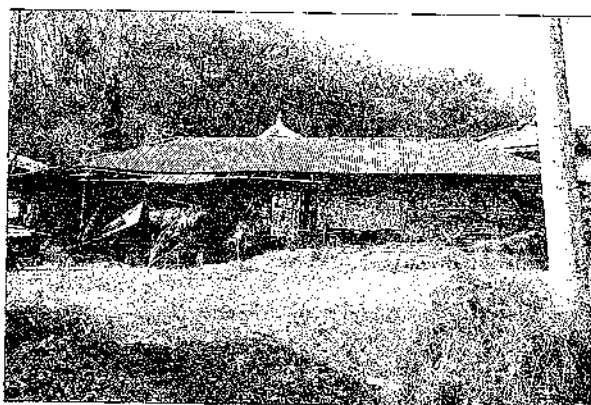


사진 6. 신월1리의 전형적인 ㄱ자형 서민농가(廢家)의 일례



사진7. 신월1리의 변해가고 있는 가옥의 일례

(8) 퇴촌면

조사지는 퇴촌면 정지2리이다. 이 마을에는 순흥 안씨(順興 安氏)가 집성을 이루어 살고 있다. 정지2리 외에도 퇴촌면 오리와 도마리에도 순흥 안씨들이 집성을 이루어 살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안씨의 都始祖는 중국 당나라때 사람인 안원(安瑗)이다. 그의 본래 성은 이씨(李氏)였는데, 당나라 憲宗 元和二年, 즉 신라 애장왕(哀莊王) 8년(807)에 중국에서 건너와 개성 송악산 아래 정착한 이원(李瑗)이 그 사람이다. 그는 세 명의 아들 지춘(枝春)·엽춘(葉春)·화춘(花春)을 두었는데, 이들이 신라 경문왕(景文王) 4년(864)에 왜구의 침입을 무찌른 공으로 안씨(安氏) 성을 賜姓받고 이름을 각각 방준(邦俊)·방걸(邦傑)·방협(邦俠)으로 개명하였고 즉



사진 8. 정지2리의 전통적인 생활가옥 일례

산군(竹山君)·광주군(廣州君) 등에 봉해졌다.

순흥 안씨는 광주군(廣州君) 방결의 9대손인 弘美(中郎將)·子美(保勝郎將)에서 갈린 것으로, 安子美를 始祖로 한다. 시조 자미(子美)는 고려 신종때 흥위위(興威衛) 보승별장(保勝別將)을 지내고 흥령현(興寧縣, 順興의 별칭)에 정착해 세거하였으며 신호위상호군(神虎衛上護軍)에 추봉되었으므로 후손들은 순흥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순흥 안씨는 자미의 세 아들 영유(永儒, 第一派), 영린(永麟, 第二派), 영화(永和, 第三派)를 각 派祖로 한 3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자학의 태주인 향(昉)은 영유의 손자인데 고려 원종때 18세의 어린 나이로 문과에 올라 도점의중찬(都僉議中贊)에 이르렀으며 교육발전을 위해 '섬학전(鰲學錢)'이라는 육영재단을 설치하여 후진을 양성하는 등 유학진흥에 힘써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로 일컬어진다.

그의 문하에서 백이(白正), 우탁(禹탁) 등의 석학이 배출되어 이제현(李齊賢)·이색(李穡) 등에 계승되었으며 다시 권근(權近)·변계량(卞季良) 등으로 유학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내려왔다. 특히 안향을 제향하는 소수서원(紹修書院)은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으로 알려졌으며 이어 전국 각지에 많은 서원이 세워져 사림의 근거지로 발전되어 왔다.

퇴촌면 정지2리에는 마을의 중앙부에 커다란 공장이

들어서 있는 곳이어서 그 변화의 모습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변화의 모습은 가옥에서 쉽게 발견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옛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단출한 서민가옥이 생활가옥으로서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이 가옥은 지붕이 슬레이트이고 벽면은 흙과 시멘트가 혼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나무기둥이 그대로 집을 지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집은 지주들에서 시멘트로 바뀌어 있긴 했지만 집의 토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아직까지도 지니고 있다.

3) 주거(고건축/집성촌)의 특징 및 성격

경기도 광주군의 주거(古家屋, 集姓村)에 있어서 조사지를 포함한 광주군 전체의 집성촌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광주군의 각 읍·면에 보통 3~4개 마을이 같은 성씨가 집성을 이루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마을들의 집성 성씨는 대개가 과거에 마을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가문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했었다. 하지만 근대를 지나 현대로 접어들면서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마을공동체의 인적 구성과 의식 변화가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 즉 약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광주군의 성씨별 지역 분포〉

구 분	성 씨	분 포 지 역	비고(성씨별 일련번호)
광주읍	宜寧 南氏	직리	○진주강씨(晉州姜氏) ○농성구씨(綾城具氏) ○경주김씨(慶州金氏) ○광산김씨(光山金氏) ○김해김씨(金海金氏)
	密陽 朴氏	탄발리	
	廣州 安氏	중대리 텃밭	
	坡州 廉氏	경안리	
	東萊 鄭氏	장지리	
남종면	淸州 韓氏	역리	○안동김씨(安東金氏) ○청풍김씨(淸風金氏) ○의령남씨(宜寧南氏)
	淸風 金氏	귀여리	
	慶州 鄭氏	수정1리 청탄마을	
도척면	江陵 陽根 咸氏	분원리	○여흥민씨(驪興閔氏) ○밀양박씨(密陽朴氏)
	廣州 李氏	유정리 방도리	
실촌면	光山 金氏	신대리	○경주손씨(慶州孫氏) ○광주안씨(廣州安氏) ○순흥안씨(順興安氏)
	綾城 具氏	열미리 삼리	
	密陽 朴氏	전업리 상전업마을	
오포면	慶州 金氏	능평리	○남원양씨(南原梁氏) ○파주염씨(坡州廉氏)
	廣州 鄭氏	추자리	
중부면	晉州 姜氏	광지원리	○광주이씨(廣州李氏) ○한산이씨(韓山李氏) ○나주임씨(羅州林氏) ○장선전씨(旌善全氏)
	慶州 金氏	불당리	
	慶州 孫氏	상 하변천리	
	韓山 李氏	상변천리	
	旌善 全氏	상변천리	
초월면	安東 金氏	도평리	○경주정씨(慶州鄭氏) ○광주정씨(廣州鄭氏) ○동래정씨(東萊鄭氏) ○충주지씨(忠州池氏) ○청주한씨(淸州韓氏)
	驪興 閔氏	신월1리	
	密陽 朴氏	신월리	
	廣州 李氏	대쌍령리 신월리 용수리	
	羅州 林氏	도평1리	
	陽川 許氏	쌍동리	
퇴촌면	順興 安氏	도마리 오리 정지2리	○강릉 양근함씨(江陵 陽根咸氏) ○양천허씨(陽川許氏)
	南原 梁氏	정지리	
	忠州 池氏	영동리	

2. 일생의례

1) 조사 개요

평생의례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중요한 시기에 겪게 되는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 의례를 말한다. 곧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성장하여 성인이 되고 혼인을 하여 늙어 마침내 죽음에 이르고, 그 후에 조상으로서 세사의 대상이 되어 상징적으로 후손들과 연결되는 일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이 가진 하나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끊임없이 변화를 겪는다. 역할의 변화는 기존의 경험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계에의 적응과 관련한 심리적 불안감과 긴장을 수반하며,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평생의례가 행해진다.

평생의례는 사회나 종족집단이 다른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같은 사회일지라도 사회계층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아놀드 반 게넵(Arnold van Gennep)이 제시하였듯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의례들은 기본구조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분리, 전이, 통합의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⁶²⁾

분리의례는 기존의 지위와 역할에서 격리되는 과정으로 상례에서 중요하며, 전이의례는 새로운 역할의 부여가 불확실한 과도기 단계로서 임신기, 약혼식, 성년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합의례는 새로운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로서 혼인식이 대표적이다.

한 사회에서 개인은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 사회의 전통에 따라 각각 새로운 역할에 따른 대우를 받는다. 개인은 가족, 친족, 촌락과 같은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건은 곧바로 사회집단 전체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한 사회집단의 성원은 그 사회가 규정한 일정한 시기에 모두 동일한 형태의 평생의례를 치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평생의례는 역할의 변화와 새로운 역할의 부여를 사회적으로 확인시키고, 이를 통해 집합적 감정과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가가례(家家禮)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각종 의례의 실천과정에서는 집안마다 지역마다 개성을 달리하는 측면이 많았다. 특히 서민사회에서는 가례를 받아들이면서 일률적으로 행하지 않고 형편에 따라 변형, 생략, 간소화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 개인의 일생에서 나이, 지위, 신분, 육체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의례들인 출생의례, 혼례, 회갑례, 상례, 조상제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생의례는 전통적인 관혼상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자식연기를 중요시한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 의례행사이다. 자료는 광주군에 대한 현지조사 수집

62) Arnold van Gennep, *The Rites of Passage* (金京秀 譯, 『通過儀禮』, 乙酉文化社, 1965).

* 강자식 남과 김도순 남은 1997년 강원1리로 지구 현제 이전서 마장면 길2리 830에 거주함

자료가 중심이며, 이것을 토대로 주민들이 일생을 살면서 예전에 경험한 평생의례의 전통적 관행을 주로 살펴보고, 부분적으로는 현재의 전승되는 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제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광주군에서 태어나 최근까지 줄곧 광주군에서 생활해온 분들을 주대상으로 하였다.

◇ 조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안성주(남, 65세, 남종면 삼성리 과학동 457-6)
- 강지석(남, 82세, 도척면 상림1리 137)*
- 김희순(여, 76세, 도척면 상림1리 137)*
- 김영복(남, 71세, 도척면 상림2리 99)
- 이은재(남, 64세, 도척면 상림2리 99)
- 김창진(남, 59세, 도척면 상림2리 99-12)
- 손구순(여, 75세, 도척면 상림2리)
- 구윤서(남, 69세, 실촌면 하열미리 301)
- 이주희(여, 69세, 실촌면 하열미리 323)
- 박상엽(남, 75세, 중부면 불당리)
- 강성환(남, 72세, 초월면 지월1리 274)
- 서종열(남, 64세, 초월면 지월1리 425)

2) 읍 · 면별 조사 내용

(1) 출생의례

출생의례는 아기 갖기를 갈망하는 기자(祈子)로부터 임신과 출산을 거쳐 아기가 태어난 후, 만 1년이 되는 돌까지의 기간 동안 중요한 계기에 행해지는 의례이다. 여기에는 지역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아기를 낳기 직전까지의 '산전의례'와 낳을 때의 '해산의례', 그리고 돌을 맞이하기까지의 아기에 대한 모든 행위인 '산후의례'가 포함된다.

우리 사회의 출생의례는 '아들'을 낳아 집안의 대를 잇게 해 주어야만 했던 부녀자들의 염원에서 발달했다

고 하겠다. 이것은 출생의례의 과정 중 기자숙, 태몽과 성별구분, 이름짓기 등에서 아들을 낳아 가계를 전승하고자 하는 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 태줄의 처리, 금줄 치기, 백일 · 돌잔치 등에서 확인되는 아기에 대한 수복강녕(壽福康寧)의 기원도 출생의례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출생의례의 관행은 조사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생을 통해 이전부터 경험해 왔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조사 내용 중에는 현재는 거의 행해지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된 것이 많다. 같은 마을일지라도 아기를 어렵사리 얻은 집에서는 삼신 받거나 기자와 같은 산전의례 행위가 두드러졌고, 출생후 성장과정에서 아기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집에서는 산후의례가 두드러졌다. 아기가 쉽게 들어서고 출생후 별 탈 없이 잘 자란 집에서는 상대적으로 의례행위가 적게 나타난 편이었다.

출생의례의 제보자들인 대부분의 여성들이 제시하는 경험사례들이라고 하는 것은 친정에서 경험한 것과 시집을 와서 경험한 것, 여러 지역을 이주해 다니면서 들은 것,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 등이 오랜 기억속에서 혼재하여 있어 지역에 따른 특징을 드러내는 데 일정 부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가. 산전 의례

① 아들 빌기

우리 사회에서는 아기를 점지해 주는 것은 어떤 신비스런 힘이 있거나 남에게 좋은 일을 하여 공덕을 쌓은 결과라고 생각했다. 조사지역의 주민들은 아기가 생기는 것을 두고 '삼신'에 의한 점지라고 많이 믿어 왔다. 보통 삼신할머니라고 불리는 삼신은 어느 가정에나 있다고 여겨지는 신비스런 존재인데 다른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삼신이 그리로 옮겨가기에 다시 자기 집으로 모셔오기 위한 행위로 삼신 받기를 행한다.

삼신 받기는 부정이 없는 깨끗한 날을 잘 골라 집안

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낚을 잘 잡는 사람이 나 만신을 불러서 한다. 혼자서 낚을 정할 경우는 한달 중 이렛날이나 열흘날이 걸릴 때 한다. 삼신 받는 날이 되면 아기가 잘 들어서지 않는 가정의 새댁은 목욕재계 하고, 집의 대문간에 금줄을 쳐서 청술가지를 끼워 놓는다. 밤이 이숙해지면 방안의 한쪽 구석에 하얀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일곱 번 점불을 쏘아낸 깨끗한 쌀 한 되를 한 개의 삼신주머니에 담아 놓는다. 자정 무렵이나 자정이 지나 노구메와 미역국을 한 그릇씩 차려 두고 절을 하면서 축원을 시작한다. 축원의 내용은 대개 자손을 나아서 잘 기르게 해 달라는 것이며 절은 많이 하면 할수록 정성이 그만큼 간절한 것이라고 한다. 축원 후 차린 음식은 새댁이 먹으며 이런 행위는 그날 밤에만 하고 끝난다.(상림2리) 좀 더 간단하게는 새댁이 있는 집의 시어머니가 만신을 불러 밤이 이숙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밥 세 그릇, 미역국 세 그릇을 방 아랫목에 차려놓고 아기를 점지해 달라고 삼신께 빌기도 한다.(삼성리)

기자 행위는 영험이 있다고 믿는 대상물에게 치성을 드려 아기의 잉태를 기원하는 치성기자, 특별한 사물을 지니거나 음식을 먹어 그 주술의 힘으로 아기를 얻으려는 주술기자,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덕행을 쌓는 공덕기자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의례들은 부녀자들이 효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부정타지 않도록 남 몰래 해야하는 비밀성,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참을성, 그리고 갖가지 조심스러움과 금기가 뒤따른다.

조사지역 주민들이 행하였거나 기억하는 기자행위는 주로 치성기자와 주술기자가 있었다. 먼저 절에 가서 100일 불공을 많이 하였다. 만신과 함께 좋은 산을 찾아가서 치성을 드리는 사례도 상당수 나타났으며 치성기간은 행편에 따라 3·7일에서 100일까지 다양하였다. 그리고 남근식으로 알려진 바위에다 소원을 비는 행위도 간혹 있었다. 주술기자 행위로는 만신한테서 부적 따위를 받아와 몸에 지니거나 정성을 드리는 일이 있었다. 나아가 아들을 잘 낳는 집 여자의 숙옷을 빌려

입으면서까지 아기를 애타게 기다린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 아기가 들어서면 임신 사실을 삼신받거나 기자 행위와 관련지어 해석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임신 사실을 해석하는 민속이 있는데 삼신샘이라는 게 그것이다. 예를 들어 한 집에서 먼저 시집온 윗동서의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 속태우는 중에 뒤에 시집온 아랫동서의 아기가 먼저 들어서면 윗동서도 덩달아 아기가 들어서는 일이 생기는데, 이를 두고 삼신이 샘을 하여 아기가 들어섰다고 풀이하는 것이다. 하열미리 일대에서는 이것을 '삼신샘'이라고 한다.

② 태몽과 성별 구분

임신을 알려주는 태몽을 가지고 태아의 성별을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태몽에 등장한 것이 무엇인가와 등장한 내용물의 규모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태몽의 특징은 꿈꾼 뒤에 꿈속의 장면이 오랫동안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속에 남아 있는다고 한다. 임신 당사자가 많이 꾸고 그 다음에는 남편, 집안 어른 순이며 가까운 집안사람들도 꾸다. 드문 일이지만 혈연 관계가 없는 타인의 태몽을 꾸는데 이 경우는 꿈에 본 것이 타인에게로 가는 것을 보고 태몽임을 짐작한다. 조사지역에서 사람들의 관념을 지배해 온 태몽의 사례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큰 뱀(구렁이)을 보면 아들이요, 작은 뱀(독사, 실뱀)을 보면 딸이다.(상림1·2리)

○큰 짐승, 큰 과일은 아들이요, 작은 짐승, 작은 과일은 딸이다.(상림1·2리)

○고추를 보면 아들이고(상림2리) 꽃을 보면 딸이다.(하열미리)

○용과 돼지를 보면 아들이다.(상림1·2리, 하열미리)

○크고 굵은 물고기는 아들이고 붕어, 미꾸라지는 딸이다.(상림1리, 하열미리)

- 밤과 대추는 아들이다.(상림1리, 하열미리)
- 배를 보면 아들이고(삼성리) 복숭아, 사과, 벌어진
밤송이를 보면 영락없이 딸이다.(삼성리, 상림1리)

태몽은 개인의 생활경험이나 환경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듯하며 이를 통한 성별 구분은 위의 여러 사례들 외에도 계보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심지어는 서로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이처럼 비과학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들에 대하여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 상당 부분 정확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태몽의 내용이 되는 주변의 사물들 중 대체로 풍족하고 긍정적인 것은 아들로 표현하고, 모자라고 부정적인 것은 딸로 나타나고 있다.

태몽을 통한 태아의 성별구분 외에 산모의 불러오는 배 모양을 보고 아들 딸을 짐치기도 한다. 상림1리에서는 산모의 배가 앞으로 몹시 튀어나오면 아들, 산모의 배가 평평하게 나오면서 배와 허리가 구분이 잘 안되게 두리몽실하면 딸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열미리에서는 산모의 배가 앞으로 쑥 빠져나오면 딸, 평평하게 나오면서 배와 허리가 두리몽실하면 아들이라고 보았다.

③ 임신중의 금기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살림이 풍부하거나 격식을 따지는 집안의 경우 임신을 확인하면 임신부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음식을 가려먹으면서 태교를 행하였다.⁶³⁾

즉 해될 말은 삼가하고 출입해서 안될 곳은 가지 않으며, 봐서 될 것과 안될 것을 가려서 한다. 이것은 임신부의 언행과 음식섭취가 태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조사지역에서 임신중의 금기는 음식금기와 행동금기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물렁뼈(미라고 부름)가 포함된 소, 돼지, 닭고기를 먹지 않는다. 산모가 물렁뼈를 먹으면 이것의 일부가 아기의 몸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흉칙하게 몸밖으로 빠져나온다고 한다. 오리고기는 먹으면 아기의 손발가락이 엉겨붙기 때문에 금한다. 닭고기는 먹으면 아기의 몸에 오돌도돌한 게 돋아나기에 금한다. 토끼고기를 먹으면 토끼처럼 아이를 줄줄이 많이 낳는다고 하여 먹지 않는다.

임신중에 임신부와 가족들의 마음가짐과 행동 또한 조심스러움이 요구되었다. 시집을 때는 친정 어머니에게서, 시집와서는 시어머니에게 아기가 들어서면 좋은 곳에 반듯하게 앉아야지 뻘뻘어지게 하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또한 임신부의 가족들도 조심스러움이 요구되었는데 그러지 않을 때 아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아래의 경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안사람이 첫애를 가졌을 때 내가 태몽을 꾸었는데 저팽이라 하기도 하고 봉탁수리(저팡수리를 말함)라고도 하는 매보다 훨씬 큰 놈을 잡아서 발로 밟아 죽였지. 꿈속에서도 그놈의 뼈 부러지는 소리가 우드득 우드득하고 나더라니까. 에이 이놈을 내가 죽여야지 하고 그랬다. 열달이 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주 우람하여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는 이놈은 크게 될 놈이라고 한마디씩 하였거든.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말짱했는데 죽고 말았지. 그래서 첫애는 실패를 봤어. 꿈에 봤을 때 죽이면 안 좋아. 그대로 살려줘야 해.”(상림1리 강지식)

조사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위의 임신중의 금기사항에 대한 믿음이 생활속에서 실천되어 왔을지라도 제대

63) 조선시대에는 중인 안락에 이르면 일찍이 “자식을 낳았을 때 집안 음식을 먹지 말고, 기우려진 차리에 눕지 말며, 동향(동정향) 기저 자식을 낳으면 ‘사완하’ 단 중할 것이다. 곧 자식은 일출을 어귀니, 배 속에 들어 있었으니, 이 어머니를 낳는 것이다.” 라고 하여 임신중의 다른 금기사항과 몸가짐을 강조하였다. [宋時烈, 金種權 譯註, 『戒女書』, 동문당, 1987, 206쪽]

로 실천할 수 있는 심적·물적 여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하였다. 결국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궁핍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마음만 점점 더 아기의 운명을 삼신 할머니의 몫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 다가갔다.

④ 출산 준비와 물품 갖추기

해산달이 가까워 오면 배넛저고리, 기저귀, 아기 포대기, 미역 등을 준비하여 둔다. 촉감이 부드러운 웅(絨)을 한 필 사서 보통 배넛저고리 두 벌과 턱받이를 만드는데 쓰며, 배넛저고리는 단추없이 수명장수의 의미가 있는 실끈을 가슴 앞부분과 겨드랑이 밑부분에 달아서 만든다. 기저귀는 광복천으로 만드는데 함끈으로 사용한 광복천도 여기에 쓴다. 미역은 집안의 남자 어른이 장보러 가서 긴 미역을 사 꺾여지지 않게 지고와서 집에 잘 보관해 둔다. 이 미역은 출산후 삼신께 드리거나 산모가 먹을 것이기에 특별히 좋은 것으로 준비하며 '산각' '산각미역'이라고 부른다. 같은 품질과 모양의 미역이라도 출산과 관련없는 미역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미역국은 산모의 산후 몸조리시 젓을 잘 나오게 하고 혈액순환과 지혈에 좋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 집안의 남자 어른들은 먼 출타를 자제하고 제사행사와 초상난 집에 출입을 삼가한다. 그리고 가족을 살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나. 출산 의례

① 해산방에 들기

해산이 임박하여 진통이 오면 미리 준비해 둔 방에 드는데 이때 섬돌 위에 신발 끈이 밖으로 가게 놓으면서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라나' 하고 중얼거리며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출산을 무사히 마쳐 다시 산실밖으로 나올 수 있기를 다짐한다. 산모가 누울 자리에는 깨끗한 벋짚을 포개어 깔아 해산할 때의 출혈액을 흡수하도록 한다. 보통 마을 바다 아기를 받아낸 경험에 있는 어른이 있어서 곁에서 도와준다.

② 태줄 자르기와 태의 처리

아기가 태어나면 준비한 수수깁이나 가위('가세'라고도 부름). 실을 가지고 먼저 태를 자르고 묶는다. 주민들은 태 자르는 것을 '태 가르기' '삼 가르기'라고 즐겨 표현한다. 시어머니나 산파가 태줄을 잡고 아기 몸쪽으로 세 번 피를 훑어내 배꼽에서 10cm 정도 떨어진 부분에서 양쪽으로 실로 묶은 다음 그 가운데를 자른다. 아기의 몸쪽에 붙은 태줄은 감아서 솜으로 덮어두고 떨어져 나온 태줄은 태반과 함께 방바닥에 깔린 벋짚에 돌돌 말아 마당 한켠에서 태운다. 간혹 가위를 제대로 소독 안한 경우 태줄을 통하여 병균이 감염되는 이른바 태독으로 아기가 며칠내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주민들은 태독이 갓태어난 아기에게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수수깁은 가위에 비해 약간 불편하기는 하지만 태독 감염의 걱정이 없어서 오래 전부터 태줄 자르기에 사용해 왔다.(삼성리) 낫이나 칼로 잘라낸 수수깁의 날카로운 부분을 태줄에 대고 그으면 쉽게 끊어진다.

태어난 아기의 몸을 닦고 씻기면서 엉덩이 윗부분에 난 푸른색의 몽고반점이 눈에 띄면 "삼신할매가 빨리 나가라고 때렸구만"이라고 얘기한다.(상림1리) 씻긴 아기를 포대기에 감싸두면 산모는 후산을 겪는다. 후산은 태반이 산모의 몸에서 분리되는 과정으로 아기가 나올 때 바로 따라서 나오기도 하나 한참 후에 나오기도 한다. 태반이 더디게 나오면 몸속을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산모가 또 한번의 호된 고통을 거친다.

시아버지는 자른 태를 '산불'이라고 부르는 왕겨불에 2~3일간 바짝 태워 개울물에 뿌려 깨끗하게 없앤다.(상림2리, 하열미리) 마을에 따라 태운 태의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종이에 싸서 아기의 이름을 적어 보관하다가 아기가 태열을 앓게 되면 참기름과 섞어서 피부에 발라준다.(삼성리) 그러나 첫들까지 아무 일없이 넘기면 보관하던 것을 깨끗하게 버린다. 때로는 같은 마을이나 이웃 마을 사람이 부스럼 치료약으로 쓸려고 태를 몰래 가져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집안의 어른들은 태

태울 때 밤늦도록 마당을 지키기도 한다. 예전부터 태운 것을 남에게 도둑맞거나 짐승들이 건드리게 되면 아기가 실하게 자라지를 못한다고 믿어 왔다. 한이레 지나 아기 배꼽에 있는 땀줄이 떨어지면 태워 없애거나 싸서 보관해 둔다.(삼성리, 상림1·2리, 하열미리)

다. 산후 의례

① 삼신상 차리기와 금줄치기

시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쌀밥 한 그릇, 미역국 한 그릇으로 삼신상을 차려 산모의 머리맡에 두어 삼신께도 감사드리고 아기의 무병장수를 빈다. 산모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몸을 추스릴 만하면 삼신상의 밥과 국을 먹고 산후 몸조리를 시작한다. 세이레 기간중의 삼신상은 태어난 날, 3일째, 두이레 시작하면서 차리기도 하고(삼성리, 하열미리) 태어난 날, 두이레와 세이레를 시작하면서 차리거나(상림2리) 태어난 날과 3일째만 차리기도 한다.(지월리) 세이레 이후 삼신상이 없다가 백일과 돌이 되면 다시 차려 삼신께 감사드리고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한편 집안의 남자 어른은 아기가 태어나면 대문의 양편에 소나무를 세워 원새끼로 꼬아서 만든 금줄을 친다.⁶⁴⁾

아들인 경우에는 금줄에 숯과 고추를 몇 개씩 끼우고, 딸인 경우에는 숯과 솔가지를 몇 개 끼워 놓는다. 금줄은 세이레가 끝날 때까지 쳐두고 타인의 출입을 금하는데 집안에 따라 그전에 거두기도 한다. 대체로 아들이 태어나면 세이레를 채우고 딸이 태어나면 한이레나 두이레 지나서 거둔다. 간절히 원했던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딸을 낳았을 때는 시어머니가 아들이 태어났다고 바깥 어른에게 거짓으로 말해 숯과 고추를 끼운 금줄을 달게 한다. 다음 번에는 반드시 아들을 얻을 것이란 믿음에서 그렇게 한다. 여하튼 딸이 태어나면 “또

옛동고리 낳았어”라고 하며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후 3일 혹은 한이레 동안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지켜야하는 금기사항이 많고 통제가 심하다. 가족 성원의 초상집 출입은 절대 금하며 제사는 생략하고 지나간다. 집 안팎으로 깨와 콩볶기를 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어기면 아기의 얼굴과 몸에 작은 돌기가 돌아난다. 이외에 기름질, 부침개 만들기도 못하고 양젖물을 쓸 수가 없게 되며 짐승도 잡지 못한다.

또한 초상집에 들렀거나 길에서라도 상제나 상여행렬을 본 사람은 절대로 출입을 못한다. 마을 사람이나 타지의 사람이 개울물을 건너와서 아기가 태어난 집에 들어오면 산모의 젖이 말라붙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출입을 금한다. 만약 이런 사실을 숨기고 누군가가 들어왔을 경우 아기한테 안좋은데, 커가면서 비실비실하게 된다고 한다.(하열미리) 그리고 몸이 깨끗하지 못한 여자, 즉 생리중인 여자도 출입을 못한다.

② 아기 이름짓기

산후의례나 행위들은 주로 아기의 무병장수를 바라는 믿음과 관계가 깊다. 시기적으로는 아기가 태어난 후 한이레부터 백일을 거쳐 돌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아기에게 처음으로 입히는 옷인 배냇저고리는 단추가 없이 거드랑이 밑쪽에 구멍을 내어 실로 묶은 끈을 매달아 만든 옷으로, 실끈을 착용하는 것은 아기의 수명이 길어지라는 의미가 있다. 세이레가 지나면 출산과 관련한 금기가 풀리면서 가족들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다. 그 동안의 금줄을 거두고 빠른 집은 아기의 이름도 짓는다. 그리고 산모와 아기의 바깥 출입이 가능해진다.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호적에 올리는 본 이름 외에 별개의 이름인 ‘아명’(兒名)을 많이 붙여 준다. 예전에

64) 조사지역에서 대부분의 집안들은 금줄을 ‘인줄’이라고 불렀는데, 잘배와 끈을 묶어 산모성운 옷자랑과 차; 금줄 중 마늘고사리; 세이레 때 끼운 것을 금줄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것만 인줄로 구분하기도 한다.

는 마마나 홍역, 경기, 원인불명의 질병으로 아기가 죽는 일이 허다하였다. 그로 인해 아명에는 병이나 잡귀의 범접을 막아 아기의 수명장수를 기원할 목적에서 아무렇게나 부르기 쉽고 험한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 아기가 어른이 되어서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본 이름보다 아명을 더 즐겨 부른다. 조사마을들에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아명으로는 '개똥이' · '소똥이' · '바우'가 있었으며, 마을별로는 '동근이' · '오쟁이' (삼성리), '봉당이' · '마당이' · '길용이' · '길동이' · '잣떡이' · '칠성이' · '차돌이' (상림1·2리), '무쇠' · '돌맹이' (하열미리) 등이 있었다. 위의 아명을 붙이게 된 배경을 보면 동근이는 아기를 동고리에 담아 장수를 기원한 데서, 오쟁이는 아기를 싸오쟁이처럼 만든 벧짚에 담아 장수를 기원한 데서, 봉당은 봉당에서 영접결에 낳은 데서, 길용이와 길동이는 산모가 논 밭일을 끝내고 들어오다가 길가에서 낳은 데서, 잣떡이는 산모가 변소에서 불일을 보고 나오다가 그 옆의 잣간에서 낳은 데서, 칠성은 칠월 칠석날 낳은 데서 각각 유래하였다. 여자의 아명으로는 '간난이' · '언년이'가 있으며, 간혹 아명이 실제 이름으로 둔갑하여 호적에 올라가기도 한다.

③ 아기데리고 나들이 하기

아기의 바깥 나들이는 대개 세이래가 지나면서 이루어진다. 이웃집으로의 나들이와는 달리 아기가 외가에 처음 나들이 할 때에는 탈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아기의 친할머니가 부엌의 가운데 아궁이 솥밑에 묻어 있는 숯점정을 아기의 이마와 양볼에 발라 주거나('겨망칠' 이라고 함), 아기의 옷 뒷고대에 하얀 형점을 바늘로 찔러 달게 하여서 간다. 이것은 아기의 평소 모습을 변화시켜 집을 나서면 잡귀가 쫓아오지 못할 것이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길가던 사람들은 숯점정을 칠한 모습의 아기를 보면 외가에 첫나들이 가는 줄로 단번에 알아차린다. 아기가 탈 없이 백일과 돌을 넘기면 이러한 조치는 자연히 생략하게 된다.

④ 돌림병에 대한 방지

아기가 태어나서 돌을 넘길 때까지는 무병장수에 특별히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 시기에 아주 위협적인 것은 계절에 따른 돌림병이었다. 홍역과 같은 돌림병이 도는 조짐이 있으면 가시가 많은 엄나무를 베와서 대문밖에 꽂아둔다. 엄나무는 어느 때에도 잡귀의 출입을 막는데 효험이 있다고 하여 대문밖에 장치하지만 특히 돌림병 때 많이 쓴다고 한다. 그리고 장절부사가 돌면 배밀을 다리미에 볶아 대문밖에다 뿌리면서 "이게 짝이 나면 우리집에 오너라" 외치고 병귀를 쫓는 시늉을 한다.(삼성리)

⑤ 백일 잔치

아기가 태어나 자라면서 돌림병도 무사히 넘기고 백일이 되는 날 백일 잔치를 한다. 이날은 태어난 아기가 중심이 되는 의례이지만 간혹 집안의 형편에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사지역에서 주민들은 백일 때 '백일상' 이라고 하여 밥, 미역국, 백설기, 수수팥단주를 각각 한 그릇씩 차려 삼신께 먼저 올렸다. 이어서 백일상의 음식은 아기 어머니가 먼저 조금씩 맛을 본다. 잔치를 위해 특별히 장만하는 음식은 백설기, 수수팥단주가 있다. 백설기는 백사람이 먹으면 아기가 장수한다고 하며, 수수팥단주는 살풀이떡이라 하여 재액을 물리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집안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백일 잔치에서 수수팥단주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음식이다. 잔치집은 이웃 사람들에게 장만한 떡을 돌리고 이웃 사람들은 그에 대한 답례로 아기의 명이 길라고 실을 한 타래 선물하였다. 일가 친척들과 아주 가까운 이웃들은 잔치집에 직접 가서 실타래 등을 선물하고 백일떡이나 미역국을 대접받는다.

⑥ 돌잔치

돌은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로, 이는 성장의 초기 과정에서 한 고비를 완전히 넘겼다는 의미가 되므로 보통 백일보다 성대하게 치른다. 돌날

아침에 아기의 어머니는 삼신상을 차려 삼신에게 아기의 수명·재주·복·건강을 빈다. 아기의 돌복은 누에를 쳐직접 고치실을 뽑아 짜서 주로 분홍색 물을 들인 바지와 저고리, 혹은 양회색 물을 들인 바지, 남색 물을 들인 조끼를 만들어 입히고 타래버선을 신긴다. 형편이 좋은 집은 시장에서 색동옷감을 사서 만든다. 색동옷에는 긴 끈장식과 수복(壽福)의 글자 무늬가 들어가는데, 모두 아기의 수명장수를 기원하고 재액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돌음식은 백일 때와 대동소이하나 좀 더 크게 차린다. 돌상에는 백설기, 수수팔단주, 인절미, 배·사과 등의 과일 그리고 실 한타래를 올리고 돌잡이를 위해 연필, 공책, 돈을 올린다. 사람들은 아기가 연필이나 공책을 집으면 공부를 잘 하고 돈을 집으면 부자가 되고 떡을 집으면 미련할 것이라고 점친다.

백일 때처럼 준비한 음식을 이웃에 돌리면 답례로 실 한타래를 선물받는 일이 많았다. 일가 친척과 아주 가까운 이웃들은 돈을 주기도 하고 잔치집에서 음식을 서로 나눠 먹기도 한다.

집안에 따라 아이가 열살이 될 때까지 할머니나 어머니가 수수팔단주를 준비하여 수명장수와 재액 방지의 소원을 비는 일이 많았다. 이것은 과거에 계절의 급격한 변화나 질병의 유행으로 인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의 수명을 확신할 수 없었던 생활 환경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2) 혼례

혼례(婚禮)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례를 말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족이 창설되고 기존의 가족이 확대되는데, 당사자는 배우자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속했던 집단의 성원들과 인척관계를 맺게 된다. 게다가 전통사회에서 혼인은 자손을 번성케 하여 조상의 제사를 이어주는 중요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혼례는 두 개인의 결합으로 독립된 가계를 형성하는 서구사회의 개인주의와는 달리, 두 집안의 결합을 통해 공동가계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전통사회의 가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 준다. 그 결과 혼례의 절차인 의혼에서 재행에 이르기까지 양가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신랑과 신부를 새 집단에 통합하기 위한 의례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신랑은 초행과 재행을 통해서 새 집단의 성원으로 인정을 받으며, 신부는 의혼과 초례를 거쳐 본집으로부터 격리되고, 신행을 통해 새 집단의 성원으로 인정을 받는다.

가. 가족주의의 전통

가례의 규정에 따르면 혼례의 과정은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이라는 사례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행해져온 혼례는 가례의 틀을 유지하되 지역이나 가문에 맞게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세분하자면 혼담·사주·택일·납폐·예식·우귀의 순서로 이루어져 왔다.

의혼이란 중매에 의해 혼담이 오고 가는 것으로 가례에서는 남자는 16~30세 사이에, 여자는 14~20세 사이에 혼인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사지역에서 면담에 응한 60세 이상의 많은 주민들 중 남성은 20세에서 26세 사이에, 여성은 18세에서 22세 사이에 대부분 혼인을 하였다. 주민들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스물에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경구에 거리낌없이 동조하는 세대이다. 직접 경험을 확인하지 못한 민며느리혼과 데릴사위혼의 경우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혼인 당시 신랑 신부가 10대 중후반의 연령에 해당하였다.

의혼과정에서는 중매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중매인은 친척이나 이웃, 혹은 옷감을 팔러 다니는 부인네들이며 '연줄중매' '연줄혼'이라고 하여 아는 관계의 범위 내에서 의혼이 이루어진다. 마을에 따

라 혼기에 다다른 남녀가 있으면 이들이 나서서 중매를 하게 된다. 중매인은 남녀 구분없이 '주인애비' (삼성리)라고도 하나 '중매쟁이' '중매잡이' 라고 많이 부른다.

혼담이 오가면 먼저 여자쪽의 어른이 중매인과 함께 남자를 보러오는 일이 많다. 여자쪽 어른은 돌아가서 남자가 마음에 들면 중매인에게 남자집에다가 딸애를 보러오라고 요청한다. 이러한 간선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서로가 마음에 들어하면 나머지는 중매인이 양가를 오가며 필요한 것을 전달한다. 간혹 중매인이 양가를 너무나 잘 알 경우는 남자를 직접 데리고 여자쪽을 방문하여 어른께 인사를 시키기도 한다. 이때 어른이 남자의 절을 받으면 혼인의 의사가 있다는 표시이다.

연줄중매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개 중매인이 양쪽을 잘 아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혼인 당사자의 의사보다 집안간의 관계를 중시하던 예전에 혼인후 있을지도 모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혼인 당사자들끼리의 선택의 여지는 없고 양가 부모가 좋다면 혼인이 이루어지는 식이다. 혼인 당사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선본다'는 말은 있었으나 실제로 상대방의 얼굴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혼인 의사가 확인되면 납채를 행한다. 납채는 남자집에서 신랑될 사람의 사주를 써서 혼례일을 정하여 여자집으로 보내면 여자집에서는 혼인을 허락하면서 택일(연길 : 消吉)을 하여 보내는 절차를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약혼식 절차이다. 먼저 남자집에서는 신랑될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종이에 쓴 사주단자를 여자집에 보내면서 정식으로 혼인을 청한다. 간혹 사주단자를 보낼 때 형편이 좋은 집은 청혼서를 함께 보내기도 한다. 또한 대략의 혼례날을 정하여 보내는데 이것을 '날택일' 혹은 '결택일' 이라고 한다.

사주가 도착하면 신부될 사람의 아버지가 의관을 차리고 나와 소반 위에 공손히 받아 펼쳐 보게 된다. 사주를 보내는 뜻은 천간지지에 따른 궁합과 앞날의 길흉화

복을 따져보고, 혼례날을 정하는 택일에도 참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과정은 형식을 갖추는데 지나지 않는다.

여자집에서는 남자쪽이 정하여 보낸 날을 대개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과정에서 혼례일을 정할 때 피하는 달은 혼인 당사자들의 사주를 따져 살이 낀 달이라고 하는 증생달, 양가 부모가 혼인한 달, 썩은 달로 불리는 음력 6월의 장마기와 12월의 흑한기이다. 이어서 형편을 따져 어디서 초례를 치를 것인가는 두 집안이 정하기 나름이다.

연길서장을 받은 다음에는 납폐를 행한다. 납폐란 혼인을 허락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로서 주민들은 대개 '봉채' 또는 '함' 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혼례일 전에 미리 보내기도 하고 신랑이 신부집에서 초례를 치를 경우 그때 가져가기도 한다. 대개 초례를 치러러 갈 때 마을에서 복이 많은 사람, 즉 첫아들을 낳고 아들도 많고 집안이 다복한 사람이 함진아비가 되어 지고 간다.

함의 주요 내용물은 집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혼서지(婚書紙), 치마·저고리 한두 벌, 은반지, 은비녀 정도이다. 혼서지는 한지에 싸서 그 위에 청홍실을 두르고 치마와 저고리감은 서로 색깔이 다른 종이에 싸서 넣어 준다. 내용물을 모두 넣고 광목으로 '질배'라고 하는 함끈을 만들어 쌍매듭으로 묶는데 이런 매듭 처리는 신랑 신부의 결합을 의미한다. 함진아비는 함을 신부집에 전해주고 나서 함끈은 신랑집에 갖다 준다. 조사지역에서 나타나는 함의 내용물은 다음과 같다.

○혼서지, 치마와 저고리 1벌, 금반지, 시계(삼성리, 안성주)

○혼서지, 치마와 저고리 2벌, 은반지, 은비녀(상림리, 강지석)

○혼서지, 치마와 저고리 1벌, 은반지, 은비녀(상림2리, 김영복)

○혼서지, 치마와 저고리 1벌, 은반지(상림2리, 손구순)

○혼서지, 치마 2벌, 은비녀(하열미리, 이주희)

○혼서지, 치마 2벌(지월리, 강성원)

함의 내용물은 혼서지를 제외하고는 집안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하열미리의 능성 구씨 집안으로 시집온 이주희 님과 지월리의 진주 강씨 후손인 강성원 님에 따르면 예전부터 격식을 따지는 집안에서는 함속에 옷감은 치마감만 2벌 넣는다고 하였다.

친영(親迎) 혹은 혼행(婚行)은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초례를 치르고 신부를 맞아오는 예이다. 이 절차에는 고례(古禮)와 속례(俗禮)의 두 가지가 있다. 고례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전안례(奠雁禮)만 올리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집으로 돌아와 초례를 올리고 신방을 꾸미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 신부는 시부모에게 폐백을 올리고 신랑의 일가들에게 인사를 한다. 이렇게 사흘을 시댁에서 지낸 다음 친정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정식으로 시댁으로 돌아온다. 우리사회에서는 신랑 집안의 형편이 나을 경우 고례의 관행이 있어왔다. 속례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르고 거기서 신방을 꾸민 다음 하루나 사흘을 묵은 뒤 신부를 데리고 자기집으로 오는 것이다. 신부는 시댁에 도착해서 폐백을 올리고 인사를 드리는 현구례(見舅禮)를 행하게 된다. 조사지역에서 속례의 관행은 일부의 격식을 따지는 집안에서 행해져 온 것 같다. 전체적으로는 당일 우귀가 많이 나타나 고례와 속례의 관행이 혼합되어 있어 왔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초례를 치를 경우 보통은 당일 아침에 출발한다. 이것은 예전의 봉혼권이 좁아서 그렇게 하였다. 초례의 출발에 앞서 신랑은 조상 산소에 가서 주과포를 올리고 혼인 사실을 고하거나(하열미리) 생략하기도 한다.(상림2리) 신부집으로 가는 초행길에 동행하는 사람은 신랑, 우유(‘우유손님’이라고도 함) 1명, 가마꾼 4명, 함진아비 1명, 짐꾼 몇 명 등이다. 신랑은 형편이 되면 말이나 나귀를 타고 가고 아니면 걸어서 간다. 우유는 집안내에서 혼인 당사자와 가

까운 어른중 주로 숙부가 따라간다. 가마는 신부를 맞이해 올 때 쓰기 위해 준비해 가는 것이다. 일행이 마을을 벗어나 신부집으로 가는 중에 서낭당이 있으면 신랑은 말이나 나귀에서 내려 돌을 던지고 무엇인가를 축원한다.(삼성리, 상림2리)

신랑 일행이 신부의 마을에 도착하면 먼저 사처방이라고 하는 신부 일가의 집에서 대기하게 된다. 여기서 신랑은 평상복을 벗고 준비해온 혼례복으로 갈아 입는다. 그런 후에 초례청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린다.

한편 함진아비는 얼굴에 숯검정을 칠하고 바로 함을 지고는 신부집으로 향한다. 신부집이 보이는 지점에 이르르면 “함사시오”라고 외치면서 짐짓 멈춰서거나, 이때 신부집의 가족과 일가들이 대문밖으로 달려나와서 함진아비를 정중하게 맞이해 들이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질이 벌어진다. 이런 일에 익숙한 함진아비가 실랑이질을 벌이면서도 지켜야 하는 것은 내디딘 걸음을 뒤로 물리지 않는 일이다. 약간의 소동이 있고 나서 함진아비는 집안으로 들어가 대청마루의 떡시루와 냉수를 봐둔 상 옆으로 가서 돌아 선다. 그러면 신부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함을 받아 떡시루 위에 내려 놓고 속의 내용물을 한 개 꺼낸다. 대개 치마나 저고리를 꺼내는데 저고리를 꺼내면 신랑 신부가 첫아들을 낳고 치마를 꺼내면 첫딸을 낳는다고 점친다.(삼성리) 또한 꺼낸 내용물이 청홍의 치마나 저고리인 경우 청색보다 홍색이 신랑 신부의 앞날에 좋을 것이라고 점친다.(상림 1·2리)

신랑이 사처방을 나와 초례청으로 들 때 마을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나서서 ‘쟁거름질’이라 부르는 부정풀이를 행한다. 즉 사람들은 삼태기와 같은 기구에 불 땀 아궁이의 재나 그을음을 퍼 담아 두었다가 신랑에게 마구 뿌려댄다. 심한 경우는 신랑 일행과 마을 사람들 간에 예기치 못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풀이는 신랑에게 묻어 온 잡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한다.

초례 시간이 되면 신랑은 신부측 사람의 안내를 받아

초례청으로 든다. 신랑은 신부집에 도착하여 바로 땅을 던지 않고 깨끗한 이엉을 엮어 깔아 놓은 짚풀 위로 걸어서 초례청으로 들어간다. 마을 사람들은 초례청의 멍석 위에 간 돛자리 아래에 마끄럽고 잘 구르는 불전을 넣어 신랑이 긴장한 상태로 초례청에 돌다 넘어지게 하거나 난처하게 만들어 식장의 엄숙한 분위기를 웃음바다으로 바꾸는 장난을 많이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긴장한 다수가 자기집단에 새로이 통합해 들어 오는 낯선 인물의 뒤흔임을 의례과정을 빌어 평가해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주민들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보여주는 순간적인 신랑의 태도는 그 후에도 두고두고 이야기꺼리가 된다고 한다. 사람들이 눈여겨 보는 것은 신랑이 얼마나 침착하고 조심성이 있는 인물인가 하는 점이다.

초례청에 든 신랑은 먼저 전안례를 올린다. 전안례는 소례라고도 하며 신랑이 나무 기러기 한쌍을 신부집에 바치는 의식을 일컫는다. 신랑이 청홍색 보자기에 싸서 가져온 나무 기러기를 병풍 앞에 준비한 전안상에 올려 놓고 물러난다. 신부 어머니의 친구중 한사람이 나서서 나무 기러기를 집어 다시 신랑에게 주면 신랑은 이를 받아 절을 하고 신부 어머니에게 준다.(삼성리) 마을에 따라 신랑이 나무 기러기를 전안상 위에 올려 놓으면 신부 어머니의 친구가 직접 장모될 분한테 전해주기도 한다.(상림2리) 신부 어머니는 마루끝에서 재빨리 그것을 받아 치마폭에 들들 말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날아가지 못하게 시루로 덮어 둔다. 주민들에 따르면 기러기는 평생토록 한 배필을 따라 절개를 지키는 새이기 때문에 초례에 앞서 기러기를 신부집에 바친다고 하였다. 이것은 신랑쪽에서 보면 신부를 맞이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맹세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전안례가 끝나면 신부가 성복을 하고 두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수모의 부축을 받으면서 나온다. 수모는 어머니의 친구이거나 집안의 여자가 나서서 한다. 이때 신랑은 등을 돌리기도 하나 신부가 나오는 쪽을 그대로 바라보고 서있는 때가 많다. 신부의 성복은 원삼에 죽

두리를 쓰고 연지를 찍는다. 신랑은 대문이나 사랑채를 등지고 신부는 안채쪽을 등지고 선다.

초례상은 용떡, 검정콩, 붉은팥, 삼색 실과, 정화수를 진설하며 경기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다. 나선형으로 꼬아진 모양의 용떡은 대추로 눈을 만들어 붙이고 사발에 담아 사람이 서로 다정하게 마주보는 듯이 좌우에 하나씩 놓는다. 신랑의 오른쪽으로 검정콩을, 신부의 오른쪽으로 붉은팥을 사발에 담아서 용떡 옆에 놓는다. 삼색 실과는 밥, 대추, 꽃감을 말하며 때로 사과와 배를 더 올리기도 하는데 신랑 신부의 앞쪽으로 각각 놓는다. 초례상의 중앙에는 정화수를 준비한다. 꽃병에는 사철나무와 대나무를 꽂아 놓고 청홍색 실을 걸어 둔다. 사철나무는 사철 푸르기를 기원하고 대나무는 절개를 기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철나무·대나무 대신에 소나무와 전나무를 쓰기도 한다.(삼성리) 신랑쪽은 수탉이, 신부쪽은 암탉이 자리한다.

신랑 신부의 초례청 입장이 끝나면 초례를 시작한다. 초례 혹은 대례는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마주하여 백년 해로를 약속하는 예식으로 교배례(交拜禮)와 합근례(合 禮)로 이루어진다. 예식은 진행자격인 창홀이 진행하는데 마을에서 예법에 밝은 어른이 전담하다시피 한다. 교배례는 신랑 신부가 서로 절을 주고 받는 예로써, 먼저 수모의 도움으로 신부가 일배하면 신랑은 답으로 일배한다. 다시 신부가 일배하면 신랑은 일배한다. 이 순서가 끝나면 신랑 신부가 서로 잔을 주고 받는 합근례를 올린다. 수모가 상에 있는 잔에 술을 따라 신부에게 주어 약간 입에 대게 하였다가 다시 받아 신랑 곁에서 거들어 주는 사람인 대반(對盤)에게 준다. 이 잔을 신랑에게 주면 신랑은 받아서 마신다. 답례로 대반이 다른 잔에 술을 따라서 신랑에게 주면 신랑이 입에 약간 대었다가 대반을 통해 수모에게 건네 준다. 수모가 이 잔을 받아서 신부에게 주면 신부는 약간 입에 대었다가 내린다. 이런 식으로 합근례에서 신랑 신부의 잔을 세 번씩 교환하고 나면 초례는 끝난다. 술잔의 교환 외에 장작에 국수나 콩나물을 달아 신랑 신부에게

취서 떡이는 시늉을 한다. 이것은 국수나 콩나물처럼 부부가 길게 잘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례를 마치고 3년 초례상의 좌우에 닭을 들고 서 있던 사람은 신랑 신부의 앞날이 재수 좋으라는 의미로 닭을 멀리 날려 보내게 된다.

초례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한방에 들어가서 잠시 숨을 돌린다. 방합례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신랑은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신부를 바라보게 되나 신부는 고개를 숙이고 다소곳이 앉아 있다. 이어서 식사가 들어오고 신랑과 신부는 겸상을 하여 식사를 한다. 신랑은 제대로 식사를 하나 신부는 아직은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거의 식사를 못한다. 조사지역에서는 신부의 당일 신행, 즉 당일 우귀(于歸)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면 신랑 일행은 신부를 데리고 돌아올 준비를 해야 한다. 신랑이 신부집에서 첫날밤을 치르고 다음날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났다(하열미리).

나. 새 집단에 통합되기 위한 의식

초례를 끝낸 신랑 신부가 새 집단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겪는 의식들은 신랑의 경우 신랑 다루기, 신부의 경우 신행(新行)과 현구례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의식들을 거치면서 신랑과 신부는 성인이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로 여러 지위를 동시에 부여받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도 변화를 겪는다.

신부의 우귀시에 신부는 가마(‘조곤’이라고 부름)를 타고, 신랑은 말이나 나귀를 타거나 걸어서 간다. 신부 집에서는 남자 어른이 한사람 따라 가는데 ‘우유’(손님) 혹은 ‘후행’(손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음식과 이불짐, 장롱 등의 살림도구를 짊어진 짐꾼 7~8명, 집안에 따라 하남 바님이라 하는 여자 어른이 따라간다.

신부집에서 가마가 출발할 때 가마속에 찹쌀 그릇 하나, 쌀 그릇 하나, 그리고 묵화솥과 씨를 넣은 요강을 넣어준다. 묵화솥을 넣은 요강은 가마를 타고 가는 신부가 소변이 마려우면 소리나지 않게 불일을 보라는 것

이다. 가져온 찹쌀과 팥은 시집에 온 후 3일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밥을 찰지게 하여 신혼부부가 백년해로하라는 소원을 담아 며느리에게 먹인다. 묵화씨는 시집와서 경작을 위해 심는데 자손을 널리 번창시키라는 의미와 상통한다고 한다.(하열미) 마을에 따라서 요강속에 넣어온 묵화씨는 시집에 도착하자마자 버리기도 한다.(삼성리) 조사지역에서 일부의 행편이 꽤나 좋은 집에서는 신부의 가마위에 호피를 씌워서 보내는 일도 있다.

가마가 신부집에서 출발하면 신랑쪽의 우유는 혼자서 먼저 신랑의 마을로 돌아온다. 가마가 신랑집에 도착할 때까지 신부는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다만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내릴 때나 서낭당 앞을 통과할 때는 내려서 걷는다. 특히 서낭당을 지나면서는 음식을 바치고 신랑 신부 뿐만 아니라 일행 모두가 돌을 쫓아 돌무더기에 던지고 축원을 한다.(삼성리, 상림2리)

해거름이 질무럼 시집에 도착하면 안방에 들어가면서 부정풀이를 한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봉당에 걸쳐 놓으면 사람들이 콩이나 팥을 먼저 가마에다 대고 뿌린다. 이어서 신부는 왼발을 먼저 내딛으면서 내려서는 마루위로 올라선다. 거기서 사댁사람이 한옥쿵 가득 손가락을 신부의 손에 쥐어주는데 신부는 이것을 받아 마루에 놓인 돗대야나 돗양푼 속에 요란한 소리가 나게 떨어뜨린다. 그런 다음에 문지방을 넘어 갈 때 소땡을 밟고 들어간다. 주민들은 이러한 행위를 ‘소땡밟기’라고 표현한다.

신부가 소땡밟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신랑은 어른에게 이끌려 바로 부엌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신랑은 왼발을 부뚜막에 올려 놓고 어른이 주걱에 들들 말아 떠준 국수를 황급히 먹는다. 그러고 나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방안으로 들어간다.

신부가 시가에 도착하여 치르는 이런 행위들은 신부에게 불어온 잡귀를 쫓아내는 것 외에도 농사를 잘 지어 살림이 늘고 아들 딸 잘 낳아 기르라는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주술적 행위는 신부쪽에서 보면

친정과와의 관계절연의 의미와 함께 시가 집단으로의 순결한 통합을 상징하는 행사인 셈이다.

신부의 부정꽃이가 끝나면 곧바로 현구례를 올린다. 현구례는 신부가 시가에 와서 시부모를 비롯한 시가의 일가들에게 예를 올리고 준비해간 예물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 신부측에서 준비해온 폐백 음식은 닭, 대추, 밤, 술 등이다. 시부모는 그 보답으로 폐백상에 놓여 있는 밤과 대추를 신부의 치마폭에 던진다. 밤과 대추는 자식, 그 중에서도 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곧 가계계승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의미있는 행사인데, 이를 통해 신부의 시가집단에 대한 귀속은 공인된다.

현구례 다음에 신랑 신부는 신랑 집안의 증조부모까지 조상에 대해 지방없이 주과포와 잔치를 위해 마련한 음식을 함께 올려 사당차례를 지낸다.(삼성리, 상림1·2리) 사당차례는 별도로 시가에 온지 3일째 되는 날 지내기도 한다(하열미리).

사당차례후에 신부는 안방의 아랫목에 그냥 다소곳이 앉아 있다. 시가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은 수시로 드나들면서 인물평도 하고 음식을 권하기도 한다. 신부를 따라온 하남 바님이라 불리는 어른은 사람들이 신부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게끔 옆에서 거들어 준다. 집안에 따라서 이날 저녁에나 다음날 아침에 사돈잔치라 하여 신부측 어른을 성대히 대접하는 잔치를 연다.

첫날밤에 신방을 차리면 마을 사람들이 신방의 문구멍을 뚫고 엿보는 것을 '신방 지키다'고 한다. 왜 신방 지키기를 하는가에 대해 신랑 신부의 첫날밤을 귀신의 장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상림1·2리, 하열미리)이거나 예전 이야기에 신랑보고 신부를 벗기라고 하였더니 신부의 살갓을 벗기는 불상사가 있어서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삼성리) 엿본다고 하였다. 대개 신랑은 먼저 신부의 족두리를 벗기고 저고리 끈을 풀어준다. 그 다음에 치마와 버선을 벗기는데 제보자들에게 의하면 그 나머지는 각자가 알아서 한다고 하였다.

신부가 시가에 온지 3일째 되는 날 신랑과 함께 재행

(再行)을 간다. 이때는 떡과 엿을 많이 준비해 가는데 이것을 '채반' '채반떡' '차담'이라고 부르며 신랑 신부가 떡과 엿처럼 끈끈하게 찰싹찰싹 잘 붙어서 살아가라는 소원에서 그렇게 한다.

재행을 가면 신부쪽 마을 청년들이 신랑의 사람됨됨이를 알아보는 '신랑 달아매기', 즉 동상례(東床禮)를 행한다. 신랑 달아매기는 신랑이 신부측 집단의 한 성원으로 통합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행사로 여겨져 왔다. 이 과정을 무난히 넘기고 나면 비로소 신부측 성원들은 심정적으로 별다른 거리감없이 신랑을 자기네 성원의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

재행은 하루 정도 묵은 후에 돌아오는게 보통이며 드문 일이지만 형편에 따라 더 오래 머물다가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돌아올 때에는 다시 채반떡을 가지고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려 나눠 먹는다. 신랑은 집안 어른의 손에 이끌려 일일이 이웃의 어른들에게 혼인했음을 알리는 인사를 다니고 신부는 며느리가 되어 '귀먹어 3년, 눈멀어 3년, 병어리 3년'의 고된 시집살이를 시작한다. 계절이 몇 번 바뀔 후에야 며느리는 시어른들의 허락을 얻어 새로운 곡식으로 떡, 과일, 술 등의 음식을 정성스레 마련하여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근친(覲親)을 간다.

다. 그밖의 혼인들

① 데릴사위혼

데릴사위혼은 여자쪽이 아들이 없고 형편은 좋은 반면 남자쪽은 생활이 곤란할 경우 이루어지는 혼인이다. 여자쪽에서는 당사자를 미리 데려와 일을 시키고 부려먹을 목적으로 열살에서 열다섯 살 정도의 허우대가 멀쩡한 남자를 데려온다. 남자의 나이는 혼인할 여자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나이가 차면 초례는 신부집에서 치르며 신랑의 부모는 오지 않고 삼촌이나 젊은 친지들이 몇 명 참석한다. 첫날밤은 신부집에서 지내고 3일후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재행식으로 본가에 왔다

가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처가로 가서 산다. 데릴사위가 된 남자는 신부집 호적으로 양자식으로 옮겨가지만 본인의 원래 성씨는 유지한다. 태어나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씨를 물려 받는다. 데릴사위는 처가 집안의 조상 제사를 받들면서도 자신의 성씨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데릴사위혼은 민며느리혼과 함께 민간에서 상당 부분 있어 왔으나 해방과 6·25 이후 서양문화의 영향으로 혼례풍습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줄어들었다.

② 민며느리혼

민며느리혼은 남자집에서 혼기가 차지 않은 여자를 데려와 부려 먹다가 나이가 차면 혼인을 시키는 것이다. 여자가 처음 민며느리식으로 올 때 나이는 대개 열살 안쪽인 경우가 많다. 여자 집안은 식구도 많고 가난하고 딸애를 제대로 키우기가 어려워서 보낼려고 하나 남자쪽에서는 우선 여자의 인물이 괜찮고 착실할 것을 따진다. 여자 나이 열다섯 내외일 때 혼례를 올리며 신랑은 신부보다 어린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여자를 일시키고 부려 먹을 목적으로 데려 온 때문이다. 초례는 신랑집에서 올리며 연락을 받은 신부집은 삼촌이나 젊은 친지들이 몇 명 참석할 뿐 신부의 부모는 거의 참석치 않는다. 부부가 되어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재행을 오면 신부측 마을 청년들이 동상례를 치른다. 민며느리혼 역시 데릴사위혼과 같은 시기에 같은 원인으로 해서 줄어들었다.

③ 보쌈 혼인

이것은 홀아비와 과부를 짝지어 주기 위한 혼인방식이다. 한 마을에 홀아비가 있어 혼자의 힘으로 재혼이 여의치 않으면 친구들이 나서서 주변 마을의 과부에 대해 알아 둔다. 사전에 일이 알려지면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깊은 밤에 몰래 저지르는 것이다. 홀아비의 친구들은 과부집으로 가서 과부를 보자기에 싸서 둘러매고 와서는 홀아비집에 데려다 놓는다. 마을의 부인네들이 위로하고 설득하면 이내 팔자려니 하고 같이 살게

된다. 한편 과부의 시댁에서는 며칠 내로 소식이 없으면 그러려니 하고 잊어간다. 만약 과부에게 자녀가 있으면 원래의 시댁에서 그대로 키운다. 양반들은 체면과 격식에 매여 보쌈을 엄두도 못내었으나 민간에서는 홀아비와 과부를 맺어주는 재혼의 방식으로 간혹 행해져 왔다. 조사지역에서 70대 이상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한 마을에 한둘 정도의 보쌈 혼인 사례를 보았거나 기억하고 있었다.

④ 쌍둥이 혼인

조사마을 한곳의 제보자에 의하면 1930년대 당시 마을내 최씨 집안 쌍둥이 형제의 혼례식이 한날에 있었다. 형편상 남자집에서 초례를 치르게 되어 형과 혼인할 신부는 대문으로 먼저 들어가고, 동생과 혼인할 신부는 대문옆의 담장 울타리를 헐고 나중에 들어갔다. 차일을 친 초례청에는 초례상을 각각 두 개를 차려 두었다가 형이 먼저 초례를 끝낸후, 이어서 동생이 초례를 치렀다고 한다(상림1리).

(3) 회갑례

회갑례 혹은 환갑례는 사람이 태어나서 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에 이루어지는 잔치의례를 말한다. 출생의례와 혼례가 어른들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회갑례는 직계자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부모 생존시에 자손들이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행사이다. 회갑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가 중요하다. 즉 자녀가 제때 출가를 하고 가족 성원의 불미스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대로 회갑잔치를 치른다는 것은 회갑인 본인에게는 자손을 잘 두었음을 자랑하는 것이요 자손들로서는 부모를 효친으로 봉양하였음을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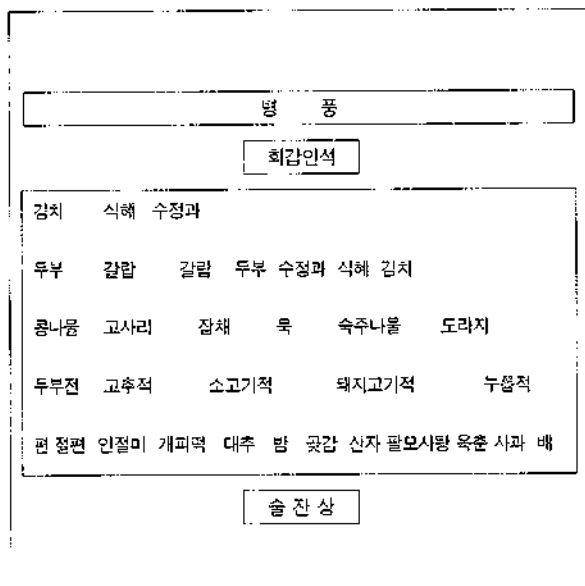
집안의 어른이 회갑년이 될 경우 자손은 먼저 인근의 절이나 만신에게 가서 회갑인 당사자의 운수를 따져본다. 문제가 없으면 대개 그 해의 생일날 잔치를 치르지

만 삼재가 낀 해이거나 자손이 사고를 당한 경우는 잔치를 치르지 않는다. 회갑잔치 대신 며칠간 두 내외분에게 여행을 다녀 오시도록 하였는데 강원도 여행이 많았다. 그러다가 칠순이나 팔순이 되면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고 축하를 받는다. 회갑년이 되어 부부중 한 사람만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잔치를 치르는 일이 많았다.

회갑일이 다가오면 인편으로 이웃마을 사람들과 멀리 있는 친척들에게 일자를 알린다. 회갑인의 마을 사람들은 나서서 음식준비를 거둔다. 잔치 당일날 회갑인의 가족들은 일찍 아침을 먹고 잔치를 준비한다. 또한 회갑상의 음식을 진설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잔치 전날부터 마을에서 특히 잘 쌓는 사람들이 늘 정도 나서서 한다.

가족들은 회갑선물로 옷 한벌과 두루마기를 준비하여 입혀드리고 대청마루에 회갑상이 다 차려지면 먼저 조상의 지방을 써붙여 놓고 절을 올려 회갑잔치의 사실을 고한다. 마당에는 차일을 치고 덕석을 깔아 손님맞을 준비를 한다.

조사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진 회갑상의 진설과 특징은 아래와 같다.



도면 2. 회갑상 진설도

회갑상의 진설도를 살펴보면 병풍을 두른 앞의 중앙에 회갑인 부부가 앉고 좌우에 회갑인 부부의 형제자매들이 앉는다. 회갑상에 올리는 음식은 양이 푸짐하고 가짓수가 많을수록 체면이 서고 정성도 지극하다고 여겼다. 기본적으로 올리는 음식외에 몇가지의 음식은 마을과 집안에 따라 다르다. 위의 진설도에는 없는 호두나 은행, 파전, 부추전 등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조사지역에서 회갑상에 생선과 해물류를 올리는 예는 드물었다.

회갑상은 앞에서 보아 맨 앞줄에 과일과 과자류를 차리며 가장 신경써서 보기 좋게 차린다. 쌓는 높이는 한 자 세 치 혹은 한 자 가웃 정도인데 먼저 대추는 실로 길게 꿰어서 접시 한복판에 쌀을 담은 종이 봉지를 세운 후 그 주위를 돌돌 말아서 쌓아 올린다. 밤은 모두 보기 좋게 깎아서 쌓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작업이라고 한다. 꽃감은 꼬챙이에 꿰 채로 길게 세워서 쌓되 쓰러지지 않게 끈을 빙 둘러서 묶는다. 배는 아래와 윗부분만 약간 깎아내 가는 꼬챙이로 여러 개를 아래 위 옆으로 서로 끼워서 쌓는다. 사과도 배와 같은 방식으로 쌓는다. 산자와 팔모사탕, 옥춘 또한 과일을 쌓은 것과 똑같은 높이로 쌓는다.

과일 다음에는 편, 절편, 인절미, 개피떡과 같은 떡종류를 놓는데 송편은 마을에 따라 놓기도 하고 안놓기도 한다. 떡을 쌓을 때는 떡판을 갖다 놓고 종류에 따라 똑같은 크기로 오려서 정사각형으로 과일 쌓는 높이에 맞게 올린다. 다 쌓으면 남은 부스러기들은 가운데의 빈 공간에다가 쓸어 담는다. 과일줄과 떡줄은 집안의 체통과 잔치분위기를 위해 제대로 쌓아야 한다.

전·적류와 나물류, 회갑인 바로 앞쪽에 놓는 안주류는 과일과 떡을 쌓을 때보다는 정성을 적게 들인다. 전·적류는 같은 모양으로 썰어서 8각으로 쌓아 올리되 쌓는 높이가 과일과 떡에 맞도록 한다. 준비한 분량이 적어 높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바닥에 접시를 한 두 개 더 고여서 맞춘다. 소고기적이나 돼지고기적 중 하나는 가운데에 놓는다. 전적류 다음에는 나물류를 놓

는다. 좌우로 놓는 순서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묵과 찹채는 회갑인쪽 가까이 붙여 놓는다. 마지막으로 회갑인석 바로 앞에 회갑 당사자가 헌수잔을 받아 마시고 술안주로 드시라고 양쪽에 같은 종류의 안주감을 많이 준비한다.

회갑인 부부와 형제자매분들이 자리를 잡고 앉으면 후손들이 차례로 나서서 술잔을 바치고 절을 올린다. 순서는 아들과 딸을 구별하여 형제의 순서대로 한다. 먼저 큰 아들과 큰며느리가 잔을 바치고 절을 하고 다음에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 셋째 아들과 셋째 며느리……, 첫째 딸과 첫째 사위, 둘째 딸과 둘째 사위……, 조카들 내외의 순으로 한다. 절은 재배로 하거나(상림2리, 불당리) 단배로 한다.(지월리) 이때 초대되어온 기생은 능수능란한 솜씨로 자손들이 순서에 맞게 헌수잔을 올려 절하는 것을 도와주고 헌수가를 불러서서히 잔치집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친척들은 옷가지 등을 선물하고 이웃마을 친구들은 막걸리를 담고 오거나 묵과 찹채를 만들어 오기도 한다.

자손들의 절이 끝나면 회갑상을 물리고 음식은 집 한 켠에 마련한 과방에다 보관한다. 회갑인과 가족 친척들, 그리고 하객들은 기생이 이끄는대로 한바탕 어우러져 춤추고 노래한다. 많이 불려진 노래는 대부분 경기 민요들인데 노래가라, 장부타령, 청춘가 등이 인기가 있었다. 기생은 틈나는대로 거문고나 장고를 연주하고 같이 온 악사는 오르간(아바 아코디언인듯)을 연주한다. 마을 사람들은 꿩파리와 징을 준비하여 역시 함께 어울려 논다.

한편 과방일을 보는 과방쟁이는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접시에 담아 내보낸다. 대개 마을에서 회갑상을 잘 쌓는 사람이 과방일도 같이 보며, 과방쟁이는 준비한 잔치음식이 너무 일찍 동나지 않게 내보내는 음식의 양을 잘 조절하는 눈썰미가 있어야 한다. 한상에 준비하여 내보내는 음식은 떡접시, 고기접시, 전·적접시, 과일접시의 네 종류이고, 부엌에서는 따로 국수를 준비하여 대접한다. 병환이나 집안 사정으로 잔치에 참석치

못한 마을내의 노인들과 이웃마을에 사는 회갑인 친척에게는 별도로 도시락만한 크기의 봉송(봉송이라고 부름)을 준비하여 보낸다. 봉송의 내용물은 잔치에 차린 음식을 몇조각씩 섞이지 않게 골고루 넣어주되 고기, 떡, 전·적, 과일은 기본으로 들어간다.

잔치는 당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준비한 음식이 많고 집안 형편이 좋을 경우는 하루나 이틀 더 이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회갑인의 체면과 관련되기 때문에 잔치가 길어지더라도 자손들은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음식과 술이 다할 때까지 대접한다.

(4) 상례

상례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지내는 절차로서 임종에서부터 시신을 매장해 묘지를 조성하고 가족과 근친들이 상복을 입는 기간 동안 치르는 각종 의례를 말한다. 이것은 한 개인으로서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통과의례이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산 자와 죽은 자가 영원히 이별하는 분리의례가 된다. 따라서 개인의 죽음은 가족이나 공동체 질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데, 상례의 각종 절차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평상의 생활로 회복하는 데 맞춰져 있다.

먼저 망자와 밀접히 관련된 가족이나 성원들은 차차 슬픔을 극복하면서 죽음을 자연스런 세대교체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죽음은 때로는 가장이나 공동체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장례 절차의 준비, 진행, 마무리 과정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집단 상호간의 단합이 이루어지며 축제의 성격을 띄기도 한다. 죽음에 대하여 망자의 몸은 땅속에 묻히되 영혼은 저승의 세계로 편입되어 들어가서 조상신으로 승화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상례는 인간이 이승에서 겪는 마지막 관문이며, 서 자신이 아닌 다른 생존자들에 의해 진행된다. 그리고 죽음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다른 의례에 비해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보수적인 성격을 가장 많이 간직하면

서 행해져 왔다.

예서에 의하면 상례 과정은 초종의(初終儀)의 절차부터 시작하여 시신 처리 과정, 상주의 의례, 조상신으로의 승화 등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예서의 규정은 우리 사회에서 가문이나 지역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진 관행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어 왔다.

가. 망자를 처리하는 복잡한 절차들

초종은 입종에 대한 준비, 초혼, 시신 거두기, 상례 동안의 역할 분담, 관 준비, 부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조사지역에서 예전에 병환이나 아주 연로하여 입종이 임박한 어른이 있으면 안방으로 모시어 깨끗한 흰옷으로 갈아 입히고 평온한 최후를 맞게 한다. 입종이 임박하면 그 조짐을 알려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 마리의 까마귀가 떼를 지어 지붕위를 넘어왔다 넘어갔다 하면 대개 3일 안에 초상이 난다. 또한 마을의 공동 우물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하면 머지 않아 초상이 난다.(상림1리) 운명을 하면 가족들은 구천에까지 돌리도록 크게 통곡을 한다.

운명 후 최초로 시신을 보살피는 것으로 수시(收屍)의 절차가 있다. 수시는 습(襲)·염(殮)을 하기에 편하도록 시신을 똑바로 동여매는 것을 말한다. 조사지역에서 수시를 ‘수세 거둔다’ ‘수세 걷는다’고 하는데, 운명 후 시신을 바로 눕혀 굳어지기 전에 손발을 고투 주불러 펴서 양손은 배위에 가지런하게 놓고 발은 양 엄지 발가락을 같이 붙여 놓는다. 손과 발을 묶은 끈은 서로 연결하여 조여두며 몸에 있는 구멍은 솜으로 막아둔다. 이러한 조치는 예전에 절핵으로 운명하는 일이 많아 나쁜 충균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수시후 시신 앞에 병풍을 치고 향을 피운다. 그리고 작은 상위에 북어포, 술잔, 나뭇, 젓가락을 올리고 촛불을 켜둔다.

이어서 초혼(招魂), 즉 고복(皁復)을 한다. 초혼은 망자의 회생을 기원하면서 떠도는 혼을 부르는 의식이

다. 조사지역에서 초혼의식은 망자의 가족이나 집안 사람이 망자가 살아 생전에 입었던 적삼을 들고 행한다. 먼저 앞마당에 서서 북쪽을 향해 “해동 조선국(또는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군 ○○면 ○○리 ○○번지 ○월 ○일생 본관공(망자가 남자일 때), 본관씨(망자가 여자일 때) ○월 ○일로 별세 휘이! 휘이! 휘이! 혹은 복복복(復復復)”을 세 번 부르고 “속적삼 받아가시오” “속적삼 올라갑니다”라고 하면서 적삼을 지붕위에 던져 둔다.

초혼 후에 사자밥을 마당의 동쪽 끝에 준비한다. 나무절구 위에도 키클 올려 놓고 그 위에도 사자밥을 차린다. 사자밥은 사람이 죽을 때 저승에서 사자 세 명이 내려와 망자를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보는 관념에서 사자들의 먹을 것과 쓸 돈을 대접하는 것이다. 조사지역의 사자밥 차림은 밥 세 그릇, 동전 세냥, 짚신 한 켤레(삼성리, 상림1리, 하열미리, 지월리), 밥 세 그릇, 동전 세냥, 짚신 세 켤레(불당리)가 있었다. 짚신 한 켤레를 놓아두는 마을은 망자를 위하여, 짚신 세 켤레를 놓아두는 마을은 세 병의 저승사자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

망자의 가족들은 모두 머리를 풀고 비녀와 같은 장신구를 제거하고 곡을 하며 흰옷으로 갈아 입는다. 이처럼 가족들이 상제의 모습을 갖추고 초상난 것을 밖에 알리는 것을 발상이라고 한다. 상주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남좌여우라 하여 부친상이면 왼쪽 소매를, 모친상이면 오른쪽 소매를 찢지 않는다.(불당리)

마을에서 초상이 나면 가족의 범위를 넘어 친족집단과 이웃들이 나서서 장례의 절차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의 뒤탈다꺼리, 상복 만들기, 상여 매기, 조문객 접대, 묘지를 조성하는 산역(山役) 등의 일을 처리해 준다. 이런 일을 위하여 주민들은 평소에 상계, 상포계 조직을 운영해 왔다.(삼성리, 상림1리, 불당리) 계원들은 마을내 뿐만 아니라 이웃마을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으며 우선 장례물품을 준비하면서 호상일 경우 집집마다 팔죽을 쑤어 오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으로

오면서 게조직은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초상집에서 팔죽이 필요한 것에 대해 상주들이 힘든 일로 해서 입맛을 잃은 데다가 죄인의 몸이라서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에 준비하거나(상림1리, 불당리), 잡귀의 범점을 막아 상문을 피하게 해주는 음식이기에 준비한다.(지월리) 대개 팔죽은 망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장례일을 거드는 사람들도 같이 먹으며 염한 후에는 먹지 않는다.

상가에서는 친지 가운데 상례에 밝은 이를 호상으로 삼아 장례치를 준비를 하는 한편 부고를 보낸다. 먼저 장일과 장지를 언제 어디로 할 것인가를 정하고 관을 준비하게 된다. 장일은 중상일(중복일)인 사일(뱀날)·해일(돼지날)을 피하여 생활 형편과 조상관념에 따라 정하며 대개는 생활형편이 많이 좌우한다. 5일장·7일장이 많이 나타났으며 부유한 집일수록 장일이 길어는데 간혹 9일장도 있었다.

조사지역에서 예전에 많이 사용한 관은 5cm 정도 두께의 송판으로 집에서 짠 판이었다. 이도저도 형편이 안되는 집은 짚으로 엮은 공석에 싸서 장사를 지낸다. 이 경우는 3일장이 밝은데 초상이 난지 3일째 지나자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염을 하여 아침에 행상을 나간다. 별도로 초분 혹은 복장제라고 하는 이중장제의 유습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요즘은 들면서는 얇은 송판관을 많이 쓰기에 달관을 한다.

습과 염을 할 때 양반의 가풍을 고수한 집에서는 망자의 성별을 따져 남자나 여자가 하였으나 민간에서는 망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남자가 말아서 했다. 습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목욕에 앞서 불에다 향나무를 담가두었다가 향불이 우러나면 약솥에다가 향물을 문혀 얼굴부터 시작하여 상체, 하체로 나누어 씻는다. 조발낭 혹은 오낭이라고 부르는 주머니를 다섯 개 준비하여 머리 빗으면서 빠진 머리카락을 모으고, 양쪽 손톱과 발톱을 깎아 따로 넣는다. 그런 다음에 약귀를 못나오게 하는 믿음에서 시신의 귀와 코, 눈을 막는다.

수의를 입히면서 반함(飯含)을 한다. 반함을 할 때 향불에 불린 쌀을 버드나무 젓가락에 세 번 떠서 시신의 입에 넣어 주면서 다음과 같이 외친다.

○천석이요! 만석이요! 십만석이요!(상림1리)

○천석이요! 만석이요! 억만석이요!(불당리)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지월리)

수위는 기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 바지, 속곳, 두루마기, 도포를 갖추고 여자는 저고리, 치마, 속고쟁이를 갖추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머리싸개, 턱반이, 손싸개, 버선이 들어간다. 수의를 입힐 때 반함을 하고 손싸개와 버선을 입힌다. 그 다음에 하의를 처리한 후 상의를 입힌다. 마지막으로 턱반이를 하여 턱이 눌지 않게 고이고 머리싸개를 덮는다. 옷을 입히면서 동전과 같은 쇠붙이를 넣는 지역도 있으나 조사지역 주민들은 쇠붙이 자체는 어떤 경우라도 시신에 좋지 않다고 하여 넣지 않았다. 수의를 다 입히고 나면 시신을 흠이불로 싸서 한쪽에 모셔 놓고 염할 준비를 한다. 조사지역에서 염은 운명 후 3일째 되는 날에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염은 수의를 입힌 시신의 각 부위가 보이지 않게끔 가지런하게 덮어 싸는 소렴(小殮)과 시신을 매듭으로 단단히 동여매 관속에 넣는 대렴(大殮)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습, 소렴, 대렴의 과정은 뚜렷한 구분이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은 습과 염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소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닥에 땃배 한필을 깔고 그 위에 장배를 놓는다. 흠이불에 싼 시신을 장배 위에 놓고 등에서 머리와 발을 감아 나오게 묶는다. 이어서 땃배를 시신의 등쪽에서 일곱 매로 갈라 앞으로 돌려 각 매당 셋으로 나누어 총 스물한 매를 머리쪽에서부터 묶어 내려온다. 그런데 상림1리의 주민들은 땃배를 앞으로 돌려서 세등분 하지 않고 그대로 일곱 매 채로 묶는다. 망자의 머리카락 주머니는 뒤통수 부분에, 손톱

주머니는 소매에, 발톱 주머니는 발쪽에 각각 끼워넣는다.

다음에는 입관하는 절차가 있다. 먼저 준비한 관의 밑바닥에 칠성판(七星板)을 깔고 그 위에 시신을 넣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시신이 흔들리지 않게 보강 처리를 잘 해야만 한다. 그래서 시신을 넣고 남은 틈새를 몇 가지 재료를 써서 채우게 된다. 이러한 식으로 관속을 채우는 행위나 재료를 '부국' (상림1리), '보공' (불당리), '보음' (지월리)한다고 하며, 형편이 좋은 집은 인조 풀솜이나 고운 베를 많이 썼고 가난한 집은 짚풀이나 솔잎, 시루에 찢은 황토흙 등을 한지에 말아서 썼다. 재료로 짚풀류나 솔잎처럼 흙과 쉽게 동화되는 물질은 쓴 까닭은 사람이 죽으면 흙보탬이 된다고 하는 믿음에서이다.

입관의 절차가 끝나면 관 뚜껑을 덮고 새끼나 광복천으로 관을 세 부분으로 나눠 묶는다. 그리고 관 앞에는 병풍을 두르고 병풍 가장자리에 명정을 걸쳐 놓는다.

염의 절차 다음에 상주와 가족들이 상복을 갈아 입는 단계인 성복제(成服祭)를 한다. 마당에 명석을 깔고 큰 대야에 물을 한 그릇 떠 놓으면 곡을 하고 물을 찍어 바르며 동쪽, 북쪽, 서쪽, 남쪽 방향(불당리) 혹은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방향(지월리)으로 각각 한번씩 절을 한다. 상주들은 마당을 한 바퀴 돌아 방으로 들어가 비로소 정식으로 조문객을 맞이한다. 성복을 하고 나면 밥, 탕, 술잔, 복어포, 삼색 실과, 나물 등의 제물을 준비하여 제를 올린다. 그리고 매장전까지 조석전(朝夕奠)이라 하여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물을 차려 곡을 한다.

조문객들은 성복을 한 상주들의 모습을 보고 망자와의 관계를 판단하였다. 남자 상주들은 흰 두루마기 위에 기본적으로 굴건 제복을 걸치고 다리에 행전을 두른다. 부친상일 때는 밑으로 늘어뜨린 베옷의 끝부분에 바느질을 하지 않고 너덜너덜한 채로 내버려두고 모친상일 때는 베옷의 끝부분을 안으로 말아 넣어 바느질을 하여 입는다. 이것은 남자는 바느질을 하지 못하고 여

자는 바느질을 하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상장은 부친상에는 대나무를, 모친상에는 버드나무나 오동나무를 밑둥치가 위로 오게 하여 짚는다. 사용하는 나무는 남자는 죽으면 자손이 끊어진다는 의미를, 여자는 재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

여자 상주들은 서로 간에 머리를 올려 쪽지고 나무를 깎아서 비녀를 끼우는데 부친상에는 대나무 비녀를, 모친상에는 앵두나무 비녀를 끼운다. 그리고 '박또아리'라고 부르는 새끼줄을 머리에 동여 매며, 부친상일 때는 앞에서 보아 새끼줄 끝의 잇는 짚이 왼쪽으로 오고 모친상일 때는 오른쪽으로 온다.

마을 사람들은 혼백을 모실 혼백함과 혼백틀을 준비한다. 주민들에게는 혼백틀 보다는 '조의틀' '조의상'이란 말이 더 익숙하다. 혼백틀은 석자 반에서 너저나 정도의 높이로 나무틀을 짜서 윗부분에 혼백함을 놓을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든다. 혼백함은 사방이 구멍없이 막히게끔 두꺼운 한지 만든 것으로, 뚜껑부분에는 '上'자를 써서 표시해 둔다. 혼백함 속에는 땅인의 거주(지방)를 보관하며 행상시 만사위가 돌고 갔다가 반흔하여 상청에 모신다. 상기 동안 상식과 제물을 올릴 때마다 눈에 보이도록 잠시 꺼내어 두었다가 덮어 둔다.

나. 영혼불멸의식과 조상신으로의 승화

장례일 전날에는 상두군 혹은 '연군' 들이 모여 행상을 준비하게 된다. 마을에 상여가 있으면 곳집에서 꺼내 오고 상여가 없으면 이웃마을에서 빌려와 조립을 한다. 상여를 '생여' (상림1리, 불당리) 혹은 '상에' (지월리)라고도 부르며 상여의 규모는 대개 두 종류로 나뉜다. 상두군이 12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여를 '외접 상여' 혹은 '단 상여' (삼성리), '소틀' (상림1리), '외출 상여' (불당리, 지월리)라 한다. 주로 마을의 규모가 작거나 자체로 상여가 없는 곳에서 쓰였으며 조사지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른 하나는 상두군이 24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여로 '쌍접 상여' 혹은 '쌍 상여' (삼성리), '대틀' (상림1리), '쌍줄 상여' (불당리, 지월

리)라 부른다. 마을의 규모가 크거나 예법을 엄격히 따지는 종가가 있는 곳에서 주로 쓰였으며, 초월면의 무갑리나 서하리 등지에서는 최근까지 행해지고 있다 한다. 상여 때는 일은 상계 조직이 활성화 되기 이전에는 천하게 취급받던 사람들, 즉 하인이나 종, 머슴들이 맡아서 했으며 같은 마을 내에서도 초상집의 성씨와는 다른 성씨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다. 형편이 좋은 집은 상두군에게도 건을 씌우고 행전을 배게 하여 격식을 차리고자 하였다.

조사지역에서는 행상일 전날에 빈상여놀이를 행하지 않았다. 다만 이웃 마을에서 상여를 빌려와 마을 입구에서 조림을 하여 상가까지 배고 가면서 실제 행상 때의 행위를 간단히 흉내내는 놀이가 있을 뿐이었다.(불당리) 여기서는 상가집의 일가를 들러서 술값 정도의 푼돈을 받아내 상두군들의 허기를 채우는 식이다.

장례를 치르는 날 아침 상주는 지관이 정해준 하관시간에 맞게 장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먼저 아침에 메를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행상할 준비를 한다.

행상의 준비가 끝나 마당 한가운데 상여를 갖다 두면 방에서 관을 내온다. 보통 상두군 6~8명이 관을 들고 방안의 네 귀퉁이를 돌면서 '방가심'이라 하여 세 번씩 앞뒤로 흔들고 관의 머리 방향을 앞쪽으로 하여 나오면서 맨 앞사람이 문지방 밖이나 마루 끝에 엎어 놓은 박바가지를 밟아서 깬다. 집안에 따라 명정을 든 사람이 방안을 한바퀴 돌아 나가기도 한다. 혹은 위와 같은 식의 방가심을 하지 않고 관을 내오는 마을에서는 문지방 밖의 박바가지 위에다 관을 세 번 내려 놓는 시늉을 하고 나서 맨 앞사람이 박바가지를 밟아서 깬다.(삼성리) 이러한 의식은 시신에 달라붙어 있는 잡귀를 쫓아 내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다.

상두군들이 관을 상여에 실어 새끼로 단단히 동여맨 다음 대문쪽에 놓아 두면 발인제(發引祭), 즉 영결식(永訣式)을 시작한다. 상주가 술잔을 올려 절하고 발인축이 이어지면 나머지 상주들은 옆드려 곡을 한다.

상두군들이 '수번' 혹은 '요령잡이'라고 하는 지휘자의 소리에 맞추어 상여를 매고 일어나면 상여의 앞쪽을 집을 향해 세 번 숙여 마지막 하직인사를 한다. 상주들은 집을 등진 채로 밭절을 한다.

행상시 운구행렬은 맨 앞에 공포가 서고 그 뒤에 병정·혼백합·상여·상주·복인의 순서로 간다. 혼백합은 만사위가 들고 가며 사위가 없으면 조카나 조카사위, 손주사위가 대신한다.

행상시의 상여 소리는 수번이 요령을 흔들면서 회심곡이나 엮음수십가 풀이에 잡담을 섞어 한다. 수번은 집안의 내력을 들먹이기도 하고 애처로운 사연을 풀어놓아 방자의 가족을 한껏 슬프게 한다. 수번이 누구인가에 따라 혹은 장지까지 가는 거리와 행상길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 소리의 내용은 약간씩 달라진다. 하관사가 여유가 있고 평지를 갈 경우 긴 상여소리로, 시간여유가 없고 오르막의 경우는 자진모리로 한다. 조사지역에서 상여소리는 세 가지 빠르기로 구성되어 있다. 즉 평지에서서의 느린 긴방아 소리, 조금 빠른 4박자 소리, 아주 빠른 2박자에 가까운 소리가 있다. 행상의 출발에서는 긴방아 소리로 행상의 분위기를 돋우며 빠른 소리는 지형이나 시간문제로 해서 변화되어 내는 소리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 보통의 상여 소리와 마찬가지로 조사지역의 상여 소리 또한 평균적으로 3분박 보통 빠른 4박자나 조금 느린 4박자(12/8 박자)로 되어 중중모리 장단에 맞는 상여 소리를 부른다. 수번이 한두 장단의 앞소리를 메기면 상두군들은 뒷소리를 받는다. 제보자 서종렬 님이 구술한 상여소리를 보자.

(발을 맞추고 상여를 들어올리면서 긴방아 소리로)

앞소리 : 해해해이야 어거리넘차 허허야

뒷소리 : 해해해이야 어거리넘차 허허야

앞소리 :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더 있는가

뒷소리 : 해해해이야 어거리넘차 허허야

앞소리 : 옛 노인의 말씀들이 저승길이 멀다하더니
 뒷소리 : 해해해이야 어거리넘차 허허야

앞소리 : 애구 답답 서러운 지고 인간 하중 망극하다
 뒷소리 : 해해해이야 어거리넘차 허허야

앞소리 :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 설워마소
 뒷소리 : 해해해이야 어거리넘차 허허야

앞소리 : 병년 삼월 돌아오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뒷소리 : 해해해이야 어거리넘차 허허야

앞소리 : 인생 한번 돌아가면 다시 오기가 어렵구나
 뒷소리 : 해해해이야 어거리넘차 허허야

앞소리 : 이 세상을 하직하고 북망산천 가르리라
 뒷소리 : 해해해이야 어거리넘차 허허야

앞소리 : 어찌 할까 깊은 심산 정처없는 길이로다
 뒷소리 : 해해해이야 어거리넘차 허허야

앞소리 : 불쌍하고 가련한데 인제가면 언제오나
 뒷소리 : 해해해이야 어거리넘차 허허야
 (중략)

(조금 빠른 4박자 소리로)

앞소리 : 어허이 오하
 뒷소리 : 어허이 오하

앞소리 : 어허이 오하
 뒷소리 : 어허이 오하

(이주 빠른 2박자 소리로)

앞소리 : 어허이 어허이
 뒷소리 : 어허이 어허이

앞소리 : 어허이 어허이
 뒷소리 : 어허이 어허이

앞소리 : 어하 어허
 뒷소리 : 어하 어허

앞소리 : 어하 어허
 뒷소리 : 어하 어허

(다시 긴방아 소리로)

앞소리 : 약탕판을 올려 놓고 지성구호 극진하니
 뒷소리 : 해해해이야 어거리넘차 허허야

앞소리 : 죽을 병을 살릴손가 윗목을 올려다보니
 뒷소리 : 해해해이야 어거리넘차 허허야

앞소리 : 팔십 잠순 어머니가 약탕판을 벌려 놓고
 뒷소리 : 해해해이야 어거리넘차 허허야

앞소리 : 한 손갈을 더 받아라 두 손갈을 더 받아라
 뒷소리 : 해해해이야 어거리넘차 허허야

(중략)

상여 행렬이 등구밖을 벗어나면 여자 상주들은 더 이상 상여를 따를 수가 없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망자가 쓰던 물품을 모아 집밖에서 태우는데 상여가 간 쪽으로 연기가 날아가면 망자가 좋은 세상으로 간 것으로, 집쪽으로 연기가 날아가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상여 행렬이 가다가 노제를 지내기도 한다. 상여가 쉬면 상여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서 절하고 상두군들과 조문객들이 먹는다. 이것은 마지막 가는 망자의 저승천도를 기원하고 상두군들의 휴식과 조문객들의 의식참여를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상여가 도착하기에 앞서 장지에서는 지관의 지시에

따라 방위에 맞춰 하관할 수 있도록 산역을 한다. 산역에 앞서 부덤을 만들 자리에 포와 술잔, 나무젓가락을 하나씩 차려 놓고 산신에게 올리는 축문을 읽는다. 산역은 요즈음은 포크레인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삽과 괘이, 톱과 같은 도구를 가지고 하였다.

이윽고 상여가 도착하면 부덤 자리의 앞쪽 방향의 평지를 골라 빈소를 마련한다. 차일을 치고 술·과일·포를 상위에 차리며 뒤쪽으로 상여를 가리는 식으로 병풍을 두르고 그 앞에 혼백함을 모신다. 여기서도 상주들은 옆에 계속 대기하면서 조문객들의 조문을 받는다.

지관은 '나침반' 또는 '쇠'라고 부르는 기구를 가지고 일일이 방위를 잡아 주고, 하관 시간이 되면 상주들이 곡을 하는 가운데 관이나 시신을 광중에 내린다. 여기서 상주는 산신에게 바치는 폐백인 현훈(玄)을 드린다. 먼저 일꾼이 관이나 시신 위에 흙수로 덮은 횡대중위쪽부터 세 빈째 횡대를 들어 만상주를 주변 폐백을 걸쳐 재배를 한다. 그런후 광중에서 하관을 돕는 일꾼이 그것을 받아 홍색 비단인 현은 동쪽편으로, 청색 비단인 훈은 서쪽편으로 넣는다. 그 다음에 횡대를 원래의 제자리에 놓고 명정을 덮으면 만상주가 흙을 세 번 뿌린다. 마을에 따라 먼저 명정을 덮고 그 위에 횡대를 놓기도 한다. 하관시에 '피상'이라고 하여 하관장면을 봐서는 안되는 연령대의 사람은 상주일지라도 그 자리를 피한다.

광중에 흙을 채우면서 여러 일꾼들이 밭로 밟거나 장대로 단단히 다지는데 이를 주민들은 '달고질' '달고'(삼성리), '달구질' (상림1리, 지월리), '회방아달기' (불당리) 등으로 표현한다. 이때 내는 소리를 '달구 소리'라고 한다. 북잡이가 나서서 세 번 다지기에서 첫 번째는 광중에 흙이 반 정도 채워졌을 때 하고, 두 번째는 광중에 흙을 거의 다 채웠을 때 한다. 두 차례의 다지기를 광중 달구질이라고 한다. 마지막 다지기는 분상 달구질로서 봉분이 약간 불룩한 모양을 갖추었을 때 하며 이때는 가운데에 박대기를 꽂아 중심을 잡기도 한다.

봉분 다지기를 하면서 부르는 달구 소리는 대개 3분

박 보통 빠른 4박자(12/8 박자)로 되어 중중모리 장단이나 늦은 자진모리 장단에 맞는다. 한 명의 북잡이가 산의 명기를 모으는 북소리를 내면서 자유리듬으로 느리고 길게 앞소리를 베기면 여러 명의 후수들은 같은 장단의 뒷소리를 받는다. 강지석 님이 구술한 달구 소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북을 치면서)

선수 : 혼방님네 다모여라

한발 두뼘 달구대로 콕콕 눌러 주시오

선수 : 오호 달구

후수 : 오호 달구

선수 : 북망산에 다다르니 석자 땅을 집을 짓고

후수 : 오호 달구

선수 : 흙덩이로 베개 삼고 뗏장으로 이불 삼아

후수 : 오호 달구

선수 : 어진 듯이 누워 있어 산천초목 살펴보자

한양 도읍이 되어 올제 삼각산 주산이요

남산은 안산이요 동구재가 청룡이요 만리재가 백호로다

학을 불러 대결 짓고 사대문을 세울 적에 이 아니 명진이나

삼각산 낭백이 뚝 떨어져

광주산성 유전되어 대화산이 생겼구나

대화산을 살펴보니 좌청룡 우백호에 주산 안산이 분명코나

이 산소를 뵈신 뒤에 아들 나면 효자 낳고딸을 낳으면 효녀난다

며느리를 얻으면 효부 얻고

삼정승 육판서에 팔도감사가 이 안에 있네

조사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달구의 소리말은 주로 장지가 명당이어서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덕담으로 짜여져 있으며, 상주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기분 좋게 하는 데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상여 소리보다 밝고 빠르고 씩씩하게 들린다.

달구질이 끝나면 봉분을 완성하여 주과포전을 차려 성분제(成墳祭)를 지낸다. 그런 후 봉분을 한바퀴 돌아 혼백을 집으로 모셔가는 반혼(反魂)을 행한다. 집으로 되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상여가 갔던 길을 따라 와야 하며 뒤를 돌아봐서는 안된다고 한다. 뒤를 돌아보면 혼백함의 혼이 빠져나가고, 다른 길로 오면 혼이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반혼 후 당일 미리 준비해 놓은 상청에 혼백을 모시고 초우제(初虞祭)를 지낸다. 초우제는 상주가 처음으로 제주가 되어 제사의 절차에 따라 지내는 첫제사이다. 이때부터 후손들은 망자를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조상신의 자격으로 받들게 된다.

또한 이날 저녁에 무당을 불러 망자의 저승천도를 기원하는 혼풀이굿을 반드시 행하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차리견이'라고 부른다. 무당은 징과 팽과리를 치면서 망자의 혼적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다닌다.

다음날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상청에 상식을 올리고 산소에도 다녀온다. 삼우제 이후에는 초하루 삭망과 보름 삭망이라 하여 제물을 올려 곡을 하고 조상신을 기린다. 조사지역에서 부친상 다음에 모친상을 당하면 두 분 모두 대상인 3년 상기를 채우지만 모친상을 먼저 겪었을 경우 모친에 대해서는 소상인 1년 상기만 채운다고 하였다.

3년 상기를 채우고 나면 돌아가신 날의 전날 자정 무렵에 세 번째 제사를 올리고 돌아가신 날 새벽 첫닭이 울기 전에 탈상을 한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탈상을 거들기도 하며 장례시 미처 조문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날 찾아와서 조문을 하게

된다. 탈상제는 주과포전을 간단히 차려 놓고 지낸다. 그런후 마당에 물대야를 준비하여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각각 세 번씩 절을 하고 건, 상의, 행전, 바지 등의 순서로 상복을 벗는다. 혼백함의 가주는 물 위에 소지해 올리고 상기중에 쓰인 물품을 태워 없앤 다음 상주와 가족들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

(5) 제례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제례는 가족 및 동족집단에 근본을 둔 조상숭배 제의로서 오늘날까지도 혈연의 종적 유대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례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조상을 추모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뿌리를 지키려는 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조사지역에서 예전부터 행하여 온 조상제례를 중심으로 기제사, 설과 추석 명절의 차례, 그리고 묘사를 살펴보겠다.

가. 기제사

원래 기일(忌日)이란 친속이 돌아가신 날로서, 이날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오직 제사에만 신경쓰고 다른 일 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제사는 해마다 닭이 울기 전인 자시(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제사의 명칭은 주로 '기제사', '기일', '기고'라고 하였다. 제사는 예전에는 사당에서 신주를 모셔와 제청이나 안방에 모시고 제사를 지낸 후 신주를 사당에 다시 모셨다. 그러나 현재에는 사당제사 이외에 신주를 모시는 집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대신 지방(紙榜)을 사용한다.

상차림과 제사의 시행시 방위의 인식은 실제의 동서남북 방위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안방이나 제청의 내부는 지방을 모신 곳을 북쪽으로 삼고 제주와 나머지 참사자들이 제사지내는 곳을 남쪽으로 생각한다. 상차림은 제상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을 동편, 왼쪽을 서편으로

생각하고 한다. 고비위(考位)를 합설하기 때문에 제주의 위치에서 왼쪽을 남자(고위)의 자리로, 오른쪽을 여자(비위)의 자리로 생각하고 있었다. 과일(紅東白西)·조율이시(棗栗梨柿), 고기와 생선은 어동육서(魚東肉西)·동두서미(東頭西尾), 그리고 좌포우혜(左脯右醢)의 원칙을 모두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제사가 가가례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마을과 가문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어 왔다. 기제사 관행의 다양성은 제사의 진설과 제사 진행과정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제상에 올리는 음식은 경기도의 다른 지역의 기제사 음식과 거의 같은 것들이며 다만 같은 마을에서도 집안에 따라 계절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먼저 능성 구씨 후손들의 기제사 관행을 살펴보자(도면 3). 먼저 제상 뒤에 병풍을 두르고 진설하되 기본적으로 5열로 한다. 제1열은 반열(飯)로서 가운데에 시접이 들어가며 메(飯)와 갹(羹) 사이에 술잔을 놓고 양쪽에 촛대가 자리한다. 제2열은 전(煎)·적(炙)과 편을 진설한다. 제3열은 탕(湯)을 진설한다. 탕은 예전부터 5탕이나 3탕을 진설하였으나 지금은 3탕으로 간소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제4열은 간장과 나물류이다. 제5열은 과실을 진설하고 좌우에 식혜, 포를 놓았다.

제사는 '강신(降神)→참신(參神)→초헌(初獻)→독축(讀祝)→이헌(亞獻)→유식(飮食)→종헌(終獻)→합문(闔門)→계문(啓門)'의 순서로 진행된다. 신주 대신에 지방을 쓸 경우 대개 강신을 먼저하고 참신을 하거나 참신을 생략하기도 하며 조사지역에서는 강신과 참신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참신이 생략된 것처럼 보였다. 헌관은 제주 혼자서 하기도 하고, 제주 및 자식들의 순서에 따라서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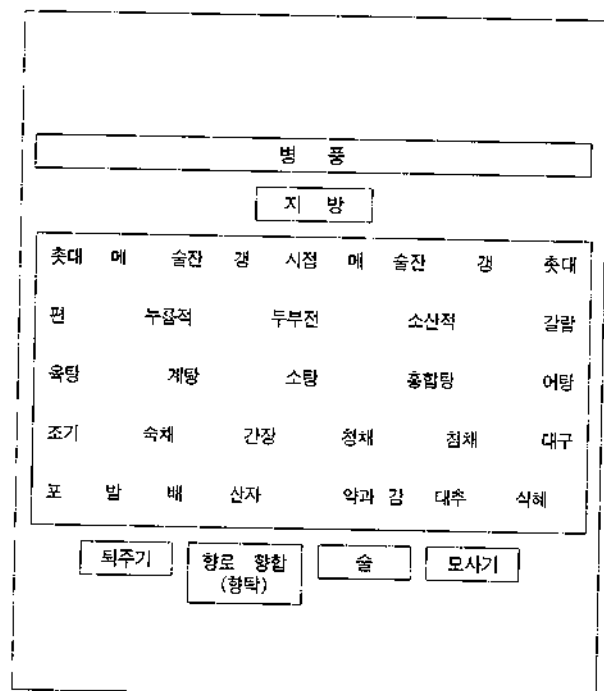
먼저 제주는 불대야에 손을 씻고 수건에 깨끗이 닦는다. 제사는 향을 피우고 술을 잔에 따르는 순서인 강신부터 시작된다. 강신잔은 제주가 고위와 비위의 잔에 술을 반쯤 채워 조용히 올렸다가 모사기에 세 번 나눠서 붓는다. 빈 잔을 잔대에 놓으면 참사자 전원이 재배

를 한다.

첫번째 잔인 초헌은 제주가 올리며 이 단계에서 집사는 메그릇의 뚜껑을 열고 여러 종류의 전·적을 적틀에 포개어 올린다. 제주 이하 모두가 꿇어 앉으면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독축후에 초헌관과 축관만 재배를 한다.

이어서 이헌관이 고비위의 잔을 올리고 혼자 재배를 한다. 다음에 종헌관이 잔을 올리고 집사는 메그릇에 삽시를 한다. 잠시후 종헌관 혼자 재배하고 물러난다. 집사가 국그릇을 내리고 불그릇을 올려 밥을 세 번 떠서 맡아두면 참사자 전원은 밖으로 나와 문을 닫는다. 합문의 과정으로 조상신께 음식을 드시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2~3분이 지나 참사자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수저를 거두고 젓가락을 세 번 시집에 굴리는 정저(整箸)를 하고 모두가 재배를 하면 제사는 끝난다.

능성 구씨 후손들의 기제사에서 정저는 갹을 맡아서 끝낼 때 한번만 한다. 축문과 지방은 그 자리에서 불사르고 철상을 하는데 시접을 가장 먼저 내린다고 한다. 제사계승은 자손들 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장자가 모두 계승하는 원칙을 고수해 오고 있다.



도면 3. 하열미리 능성 구씨 후손들의 기제사 진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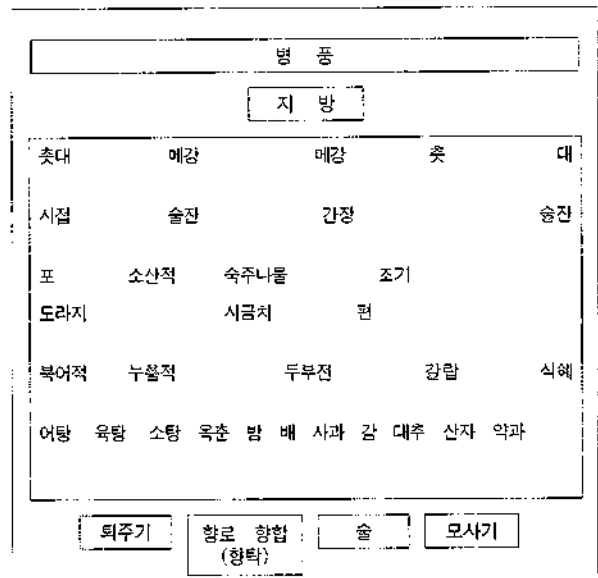
불당리 밀양 박씨 후손들의 기제사 진설(도면 4)은 5열이 기본이며 매와 갠이 중앙에 위치하고 탕은 예전부터 3탕을 차려왔다. 그런데 제사의 간소화 유행의 영향으로 탕은 단탕으로 점차 변해가면서 두부, 쇠고기, 무를 한꺼번에 담아 다시마를 덮어서 올리는 집이 많아졌다.

제사의 기본틀은 '강신(降神)→참신(參神)→초헌(初獻)→독축(讀祝)→아헌(亞獻)→유식(侑食)→종헌(終獻)→합문(闔門)→계문(啓門)'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사과정에서 먼저 제주가 강신잔을 올리고 나서 멧상(진지상)을 올리라고 말하면 이때 비로소 매와 국이 들어오고 간장, 조기, 나박김치, 숙주나물도 같이 상위에 올린다. 조기는 1마리 채 그대로 올리거나 토막을 내어 가운데 부분만을 올리기도 한다. 집사가 개반삼시를 하면 제주가 초헌잔을 올린다. 모두가 끓여 얹은 상태에서 축관의 독축이 끝나면 참사자 모두가 재배하고 집사는 젓가락 두 쌍을 시접에 세 번 굴리는 정저를 행한다.

초헌잔을 퇴주기에 붓고 차자가 아헌잔을 반 정도만 채워 올린다. 잠시 후 유식의 과정으로 국그릇을 물리고 물그릇을 올려 밥을 물에 말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가 집사가 정저를하고 나면 참사자 모두가 재배를 한다.

이어서 다음 사람이 첨작하는 식으로 종헌잔을 가득 채우면 촛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2~3분 가량 엎드려 조상신이 응감하시기를 기다린다. 제주가 일어나면 모두 따라 일어나 재배를 한다. 곧이어 메그릇과 물그릇을 내리고 조상신께서 안녕히 가시라고 모두가 일배를 하고 제사를 끝낸다. 지방과 축문은 그 자리에서 불사르고 철상에는 특별한 순서가 없다. 제사계승은 장자가 계승하는 원칙을 고수해 오고 있으며 독축은 최근으로 오면서 급속히 생략되고 있다.

지월리 진주 강씨 후손들의 기제사 관행은 후손들에 의하면 조선 후기 노론 기문에서 행해진 것의 영향을 많이 입었다고 한다. 제사 과정에는 촛불만 밝힌 채 지



도면 4. 불당리 밀양 박씨 후손들의 기제사 진설도

내며 제사가 끝난 후에도 제청과 대문간에는 날이 밝을 때까지 불을 켜둔다.

진주 강씨 후손들의 기제사 진설도(도면 5)를 통해서 진설에 따른 관행을 살펴보면 진설 순서는 앞쪽의 과일 줄부터 먼저 하여 기본적으로 5열로 한다. 과일은 홍동백서(紅東白西)·조울어시(棗栗梨柿), 고기와 생선은 어동육서(魚東肉西)·동두서미(東頭西尾), 그리고 좌포우혜(左脯右醢)의 원칙을 모두 고수하고 있다. 과일줄의 양편에는 만든 조과를 진설하여 다른 집안과의 차이를 보여준다. 2열의 탕은 3탕을 진설하여 왔으나 간소화 추세로 단탕이 늘고 있다. 어탕은 북어, 육탕은 쇠고기, 소탕은 다시마가 제각각 들어가는데 단탕일 경우 무, 두부, 다시마를 얹고 북어나 쇠고기를 넣는다. 적줄의 북어적은 동두서미의 원칙을 지켜 머리부분이 안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매와 같은 열에 놓은 잔받침과 술잔은 앞에서 보아 매의 왼쪽으로 치우치게 하여 놓는다. 제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음식은 모두 진설한다.

제사는 위의 두 사례와 마찬가지로 '강신(降神)→참신(參神)→초헌(初獻)→독축(讀祝)→아헌(亞獻)→유식(侑食)→종헌(終獻)→합문(闔門)→계문(啓門)'의

병 품									
지 방									
춧대	메강	메강	춧대						
시집	술잔	술잔	편						
포	소탕	육탕	백탕	식혜					
도라지	시금치	나막김치	간장	숙주나물	조기				
두부전	파전	돼지(소)산적	계란전	누름전					
밥	배	옥준	산자	약과	사과	감	대추		
퇴주기		향로 향합 (향탁)		술					

도면 5. 지월리 진주 강씨 후손들의 기제사 진설도

순서로 진행된다. 제사과정에서 먼저 제주인 장자가 강 신잔을 올렸다가 모사기에 세 번 나누어 붓는다. 장자가 초헌잔을 고비위에게 올리면 모두가 부복한 상태에서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모두가 재배하고 집사는 시집에 젓가락 두 쌍을 세 번 굴리는 정저를 행한다.

이헌잔은 차자가 올리며 모두 재배하고 나면 다시 정저를 행한다. 이어서 삼자가 중헌잔을 올리고 모두가 재배한 후 세 번째 정저를 행한다. 이 단계에서 참사자들은 촛불을 켜둔 채로 조상신께서 응감하시라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와 3~4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간다. 방으로 들어와서 집사가 국그릇을 내리고 물그릇을 올려 밥을 말고 나면 잠시 기다렸다가 모두가 재배한다. 다시 숟가락을 거두어 시집에 올리고 젓가락은 시집 위에다 정저를 한다. 참사자 모두는 조상신께서 안녕히 가시라는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재배를 하고 제사를 마친다. 축문과 지방은 그 자리에서 불사르고 철상은 특별한 순서없이 행한다.

나. 차례

우리 사회에서 차례는 예전에는 연 4회, 즉 정월 초

하루, 유두 또는 단오나 칠월 칠석, 팔월 추석, 그리고 시월 동지에 지냈었다. 그러나 요즘은 정월 초하루의 설과 팔월 추석의 연 2회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례는 제의 진행 시간 및 절차, 음식의 종류 등 여러 점에서 기제사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차례와 기제사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차이일 뿐이지 조사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은 아니다. 차례는 아침부터 낮동안에 지내나 기제사는 밤 자정을 전후하여 지낸다. 그리고 차례에는 독축이 없다. 차례는 명절에 4대조까지의 모든 조상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제사하기 때문에 헌잔이 일헌으로 끝난다. 또한 차례는 계절에 따라 올리는 음식이 다르다. 그래서 설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을 준비하지만 기제사에는 언제나 밥과 국을 올린다. 조사지역에서 대개 설은 만두를 넣은 떡국을, 추석은 송편을 제상에 올린다.

차례는 조상을 모신 모든 집에서 명절에 행하기 때문에 여러 집을 다녀야 한다. 즉 일가붙이들은 고조를 모신 종가에서 종가집 차례를 지내고 다음에 중조, 조부, 부모를 모신 집의 차례에 참석한다.

다. 묘사

묘사란 조상의 묘소에 제수를 진설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며 봉사 대상은 5대 이상의 조상이다. 우리나라의 가족과 친족집단에서 4대까지의 조상은 기제사의 봉사 대상이고 불천위(遞遷位)인 5대 이상의 조상은 기제사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5대 이상의 조상에 대해서는 확대된 남계의 종족인 문중(門中)이 공동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산소의 보존 내지 종족성원의 친목과 복지를 위해 조직되어 왔다.

조사지역에서 묘사는 '시향'이란 명칭으로 즐겨 불린다. 봄철의 한식 때와 음력 시월의 제사가 현재까지 묘사로 행해지고 있다. 한식 제사는 조상이 불천위로 넘어가면서 기제사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정식의 시월 시향의 봉사 대상으로도 편입되지 못한 조상들을 기리는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봉사를 위해 모이는 사람

들은 가까운 직계의 후손들이나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사의 규모도 단순한 편이다.

그에 비해 입향조나 중시조를 중심으로 봉사하는 시월 시향은 제사의 격식이나 규모, 참석하는 인원 등에서 훨씬 더 문중의식을 고양하고 대외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특히 능성 구씨 후손들은 하열미리에 충렬공 구치관을 모신 사당에서 불천위 기제사와 명절제사를 모시고 있고 재실인 추원재(追遠齋)를 관리하고 있다. 위의 두 종회 뿐만 아니라 조사지역에 오래전부터 기반을 두어 온 종회들은 시향에서 제상을 격식에 맞게 차려 유건과 도포를 입고 집례자의 진행에 따라 전승되어 온 제사 홀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조상을 추모한다.

하나의 사례로 능성 구씨 후손들은 충렬공의 묘소에 음식을 진설하여 봉사하는데 묘사와 기제사라는 차이만 없다면 기제사의 상차림과 비슷하다(도면 6). 반열에서 시접이 중앙에 위치한다. 떡은 편이나 인절미이고 앞에 조청이나 꿀을 놓는다. 탕은 형편에 따라 4탕이나 5탕을 올린다. 반찬줄은 생동숙서의 원칙을 적용하며 숙주, 고사리, 시금치, 김치, 간장을 가운데에 두고 원편

에 익힌 자반을, 오른편에 마른 자반을 진설한다. 맨 앞줄은 좌포우혜와 조율이시의 원칙을 적용한다. 포는 세 겹으로 놓는데 육포, 대구포, 문어나 북어포의 순서로 쌓아 올린다. 과일에서 대추와 밤은 7층으로 고여 진설하였으나 요즈음은 많이 간소화하고 있다. 배는 7개를 진설하며 감은 꿀로 대신하기도 한다.

먼저 제사의 진행에 앞서 주과포를 차려 산신제를 지낸다. 이때 산신을 위로하며 읽는 축문은 다음과 같다.

山神祭 祝文

維 歲次 癸亥十月 丙戌朔 三日戊子 儒學具○○
敢昭告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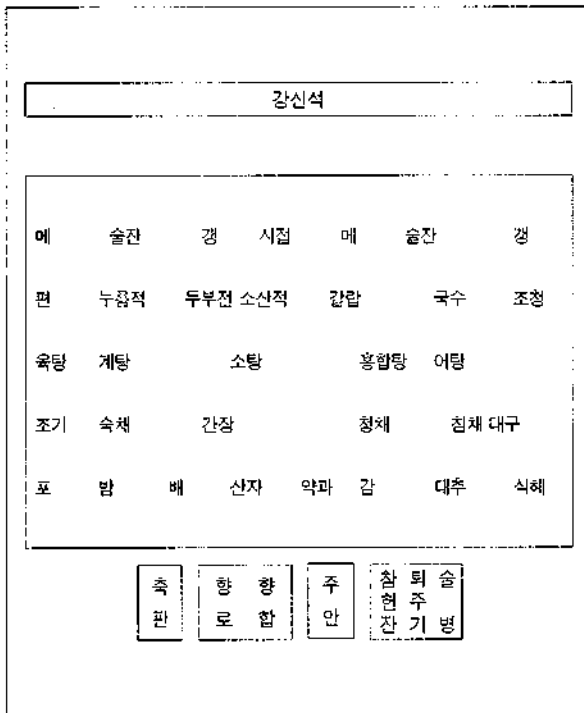
土地之神 本信恭修 歲事于

二十代祖考 贈純忠積德補祿功臣大匡輔國崇祿
大夫議政府領議政

封綾原府院君行通訓大夫公州牧使府君

二十代祖 贈貞敬夫人海平尹氏之墓

維時保佑 實賴神休 謹以清酌脯醢 恭伸奠獻 尚饗



도면 6. 하열미리 능성 구씨 후손들의 묘사 진설도

제사 진행시 조상신의 강림을 청하는 강신잔은 묘소 앞의 땅에다가 세 번을 붓기 때문에 묘사기는 필요치가 않다. 메그릇의 뚜껑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종손인 초헌관이 첫잔을 올리면 참사자 모두는 재배를 한다. 메 뚜껑을 열고 적을 올리고 축관이 독축을 한다. 독축이 끝나면 초헌관과 축관만 재배를 한다. 아헌관이 아헌잔을 올리고 혼자 재배를 하고 이어서 종헌관이 종헌잔을 올린다. 좌우집사가 메그릇에 숟가락을 꽂으면 종헌관 혼자 재배를 한다. 종헌관이 물러나면 좌우집사가 국그릇을 내리고 물그릇을 올려 밥을 말아 놓는다. 참사 후 수저를 거두어 정저를 하고 잔을 내리고 메그릇의 뚜껑을 덮고 끝낸다. 이러한 과정의 제사를 예전에는 여러 날 걸쳐 지냈으나 요즈음은 하루나 이틀에 마친다. 그만큼 제의 과정은 간소화하고 참석 인원도 대폭 줄어들었다. 후손들이 원활하고 격식있는 제사 진행을 위해

간직해 온 흙기는 아래와 같다.

笏 記

祭官一同序立 初獻官 默祝陳設 獻官 及 諸執事詣 洗位洗手

行降神禮 初獻官 詣香案前 奉香 獻官之左 奉爐 獻官之右 獻官 三上香 再拜 奉酌奉降神盞盤 授獻官 奉酌 斟酒于盞 獻官 三除茅上 再拜

行參神禮 祭官一同 再拜

行初獻禮 初獻官 詣香案前 奉酌 奉盞盤 斟酒 授獻官 奠酌 奠于神位前 啓飯蓋 獻官以下 俯伏

祝 詣獻官之左 東向 讀祝文 祭官典 獻官再拜 降復位

行亞獻禮 亞獻官 詣香案前 奉酌 退酒 奉盞盤 斟酒 授獻官 奠酌 奠于神位前 獻官再拜 降復位

行終獻禮 終獻官 詣香案前 奉酌 退酒 奉盞盤 斟酒 授獻官 奠酌 奠于神位前 獻官再拜 降復位

行飭食禮 插匙正箸 撤羹進茶 祭官一同 肅峻小頃

行辭神禮 盒飯蓋 下匙箸 獻官以下 再拜 祝官 詣幕庭之左 西向立 告利成 焚祝 飲福 撤床

諸 執 事

初獻官 奉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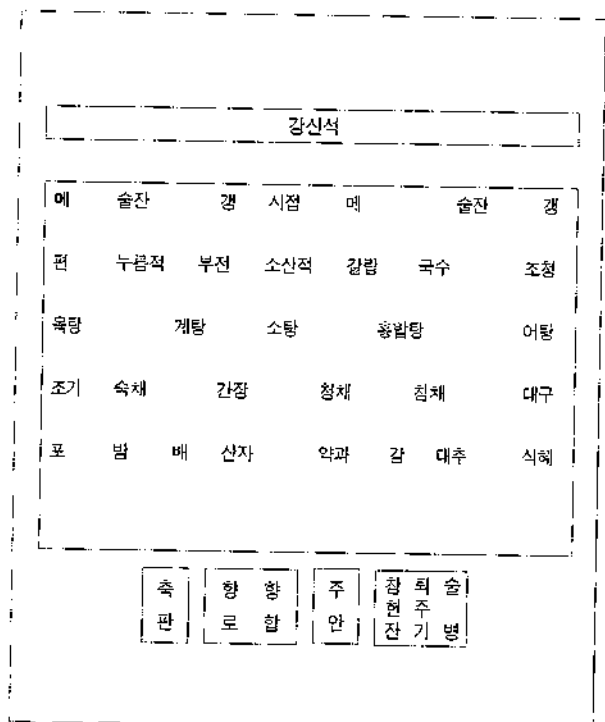
亞獻官 奉爐

終獻官 奉酌

都執禮 奠酌

大 祝

지월리 진주 강씨 후손들은 묘사 진설도(도면 7)에서처럼 원래 시향에서 편을 올리고 메와 갯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다 이천 백사면에 사는 후손들이 메와 갯을 진설하는 것을 보고 십여년 전부터 그것을 채택해 왔다. 1월에는 편, 면, 조청이 중심이고 나불류와 전·적



도면 7. 지월리 진주 강씨 후손들의 묘사 진설도

류를 그 다음 열에 진설하였다. 탕은 3탕을 기본으로 하였고 맨 앞의 과일줄은 집에서 만든 조과류를 기제사에서 처럼 과일의 양편에 진설하였다. 전체적으로 기제사의 진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향일이 되면 먼저 신신제를 지내고 제사를 진행한다. 예전에는 음력 사월에 나흘 동안 시향을 올렸으나 이틀로 통합했다가 요즈음은 사월 첫 일요일에 지낸다. 그러다보니 제사진행이 많이 간소화 하였다. 종회장이 나 나이 어린 종손이 강신잔을 고비위에게 올렸다가 세 번 나누어 땅에다 붓는다. 초헌잔을 올리고 나서 모두가 무복하면 축관이 독축을 한다. 독축 후 모두가 재배하고 좌집사가 정저를 한다. 초헌관이 물러나고 아헌관이 술잔을 올리면 전체 재배를 하고 좌집사가 정저를 행한다. 이어서 중헌잔 후에 국그릇을 내리고 물그릇을 올리면 모두가 재배한다. 순가락을 내리고 젓가락으로 정저를 한 후에 다시 재배를 한다. 최근에는 제사가 간소화 하면서 초헌잔에는 초헌관과 축관만이, 아헌잔과 중헌잔에는 헌관 혼자만 재배를 한다. 마지막 배례시에만 참사자 모두가 재배를 한다.

3) 일생 의례의 특징과 성격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평생의례의 관행은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있고, 의례의 내용에 따른 차이도 작용하고 있다. 조사지역에서 행해진 평생의례는 가례에서 규정한 관혼상제의 의례절차나 내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가례의 이상적 규정과 실제 생활에서의 관행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 왔다.

출생의례는 가례의 규정과는 별도로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의례이다. 다른 의례와는 달리 의례행위자가 주로 여성들이어서 행위과정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밀한 부분이 많고, 내용은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조사지역에서 출생의례는 주민들마다 서로가 듣고 알게 된 개별적 경험을 그대로 실천하여 여러 관행이 섞인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조사지역에서 혼례는 절차상으로는 가례를 따르면서도 실제 내용은 두 집안의 생활 형편을 고려하여 행해진 측면을 많이 보여 준다. 함에 넣어 주는 옷감을 통해 반가의 격식을 따지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민간의 의식 체계를 엿볼 수가 있다. 또한 조사지역이 내륙인 때문인지 경기도의 해안지역에 비해 초례후 신부의 당일 우위가 많이 나타났다. 그런 까닭에 3일 우위의 사례는 제대로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일반적인 혼인과는 달리 문헌으로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던 데릴사위혼, 민며느리혼, 보쌈 혼인이 생활속에서 비교적 많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에서의 혼례의 모습을 보다 잘 알기 위해서는 조사지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다른 지역의 조사에서 확인, 비교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회갑례는 집안의 화목과 좋은 잔치 분위기를 보여주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 중시되는 수의를 정성스레 마련하여 선물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여타의 의례와는 달리 회갑잔치에서는 준비한 음식이 다할 때까지 손님을 대접하면서 회갑인의 위신을

높인다. 이러한 것은 북아메리카 인디언족의 콰키우틀 의례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상례는 인생에서 누구든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로 그 일의 비중과 성격상 닥친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다른 의례와 비교하여 가족이나 성원들의 협동을 많이 요구하는 의례이다. 조사지역에서 상례는 그 준비 과정과 망자의 조상신으로의 전이의례 과정에서 예전의 복잡한 관행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의례이다. 대상의 상기를 지킨 관행이 경기 서부나 해안지역보다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경기의 도서 해안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이중장제의 풍습이 내륙인 조사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상여 매기에서 격식과 예법을 따지는 집안일수록 조상의 시신을 나르는 일을 비천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일이 많았다.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례는 지역에 따른 특성도 작용하지만 한 지역내에서 가문이나 인물에 따라서도 그 관행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것은 제례의 관행에서 시조로부터 후손까지 종적으로 계승되는 제사의식과 행위가 그대로 계승되어 온 측면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례는 가가례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정도로 한 마을에서도 성씨가 다르면 집집의 관행이 달리 나타난다. 먼저 드러나는 특징과 양상은 제사 절차의 간소화, 축문의 생략, 제상의 진설과 진설물의 변화가 있다.

요컨대 광주군은 예전부터 인근의 성남, 서울을 비롯한 도시권과 접하여 왔고 한강을 통한 교류가 가능한 지역이어서 평생의례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변화의 기회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의 조사에서 이러한 변화상도 관찰할 수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평생의례의 관행이 비교적 최근까지 주민들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모습을 본 것이었다. 따라서 일회성의 조사는 지양하되 체계적인 연구활동의 기회를 계속 가져 평생의례의 본류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3. 세시 풍속과 민속 놀이

1)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이번 조사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이루어졌다. 1차 문헌조사는 광주군에서 발행한 군지와 경기도의 여러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광주지역에 대한 자료조사와 『동국세시기』, 『열량세시기』, 『경도잡기』 등의 한국의 세시풍속 및 놀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한 마을을 현지조사하였다.

현지조사는 마을의 이장을 먼저 면담하여 마을의 개괄적인 이해에 도움을 받은 후, 이장을 통해 마을 토박이를 중심으로 주요 제보자를 소개받았다. 주로 제보자의 집에서 직접 대담 조사하였다.

(2) 조사 현황 및 성과

2000년 2월 7일부터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현지조사와 추가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 기간이 정월 대보름을 전후한 시기였기 때문에 대보름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자세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마을 대동 율놀이를 직접 참여 관찰할 수 있어 현재 대동놀이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조사에 있어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지만, 현재 전승되고 있지 않더라도 조사자가 특별히 강조한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는 전승의 여부를 밝히는 범위에서 함께 기술하였다.

세시풍속은 생업력과 세시력을 동시에 염두에 두면서 정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윤달까지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기술하였다. 가신신앙도 매년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된다는 의미에서 세시풍속의 범주로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민속놀이는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대동놀이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고, 그에 따라 세시풍속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2) 읍·면별 조사 현황⁶⁵⁾

(1) 조사지 개요

가. 광주읍 중대리(덧골)

광주읍 면적은 약 56.96km²이고, 인구는 약 20,000명으로서, 광주군의 군청소재지이다. 1910년 편성된 경안면이 1917년 군청이 현재 광주읍으로 이전해오면서 군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 후 1939년에 경안면을 광주면이라 개칭하고, 1979년에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었다. 중심 조사지인 중대리는 중말과 덧골이라는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덧골은 예전부터 집짓기에 좋은

65) 조사는 읍·면 단위로 이루어졌지만,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부분은 중대리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조사지를 먼저 선택하고 조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성하여 기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터라 하여 기곡(基谷)이라 불렀다. 또 기곡의 한자 뜻을 풀어 텃골이라고도 하였다.

특히 이 마을은 광주 안(安)씨의 세거지로, 현재 마을에는 총 50여호 중 18~20여호가 살고 있다.

나. 남종면 수청1리(청탄마을)

남종면의 면적은 약 48.58km²이고, 인구는 약 2,800명으로서, 군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남종(南終)은 남쪽의 끝에 위치하였다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조선 영조(1747년)때는 양주군에 그리고 1908년에는 양근군과 지평군을 폐합하여 양평군으로 소속되었다가 1914년에 광주군으로 편입되었다.

중심 조사지인 수청리는 마을 앞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푸르려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청탄(大春灘), 작은청탄(小靑灘), 개목이(狗項洞)라는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다. 도척면 유정리

도척면의 면적은 약 52.22km²이고, 인구는 약 5,000명으로서 군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도척(都尺)은 용인군과 경계를 이루는 남쪽의 '되재'를 한자로 쓴 이름이다.

중심 조사지인 유정리는 굴우물(雲井洞), 바우산골(峇城洞), 새밭(柳餘坪), 미륵동, 벌말이라는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라. 실촌면 건업리(建業里)

실촌면의 면적은 약 76.63km²이고, 인구는 약 8,200여 명이며 군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고종 32년(1895년) 광주군 실촌면이라 한 이래 현재 16개 리를 관할한다.

중심 조사지인 건업리는 상건업과 하건업, 진고개, 동심(東深)이라는 4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조 광해군 때 밀양(密陽) 박(朴)씨의 조상이 이곳에 와서 터를 잡고 살면서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하여 돌탑을 쌓았다고 해서 '건업리'가 되었다.

마. 오포면 능평리

오포면의 면적은 약 46.96km²이고, 인구는 약 7,500명으로서 군의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면의 중앙으로 경안천(京安川)이 흐르고, 경안천의 지류인 세피천(細皮川)을 중심으로 판비, 허산, 주머니, 양촌, 영말 등 다섯 보(洑)가 있었기 때문에 '오포(五浦)'라 하였다고 한다.

중심 조사지인 능평리는 광주말(廣州村), 수레실(車谷), 용산골(龍山洞), 창들(倉坪洞), 능골이라는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능평이라는 지명만으로도 능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고려말 충신인 포은 정몽주가 개성에서 죽어 장지인 충남으로 장례 행렬이 가던 중 풍덕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명정이 바람에 날려 이곳 증평에 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 정몽주의 묘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1917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이곳의 일부가 용인군에 편입되었는데, 그 후에 용인군 쪽에서는 능원리라 부르고, 광주군 쪽에서는 능평리라 부르고 있다.

한편 숲 속 나뭇가자에 달려있던 금계에서 태어났다는 김알지의 후손인 경주(慶州) 김(金)씨의 세거지이기도 하다.

바. 중부면 광지원리

중부면의 면적은 약 34.83km²이고, 인구는 약 4,800명으로서, 광주군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경안천의 지류인 번천(樊川)이 있어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다. 한편 이곳은 약 2,000년전 백제의 시조 온조왕이 마한을 멸망시킨 후 낙랑과 말갈의 침범을 막기 위하여 위례성(南漢慰禮城)이라고 칭했던 옛 백제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그 후 신라가 백제를 병합한 후 신라 진흥왕 14년(553년)에는 남한산성 또는 산주(山州)라 칭하였고, 진평왕 26년(603년)에는 한산성(漢山城)으로 개칭되었다가 고려 태조 23년(940년)에 비로소 광주로 개칭되는 등 유래가 깊은 마을이다.

중심 조사지인 광지원리는 조선시대 여주의 영릉(英陵)에 왕래하던 임금이 쉬었던 역원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연못이 빛을 발했다고 해서 광지원(光池院)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안밭(內村)과 바깥밭(外村)이라는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예전에는 진주(晉州) 강(姜)씨의 세거지기도 했다.

사. 초월면 신월1리

초월면의 면적은 약 56.05km²이고, 인구는 약 7,000명으로서 군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곤지암천을 중심으로 면의 지형이 초생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처음 '초'를 쓰는 초월면(初月面)이라 하였으나 후에 풀 '초'를 쓰는 초월면(草月面)으로 통용되고 있다.

중심 조사지인 신월리라는 지명은 새 달의 초순에 뜨는 달(初月) 혹은 새로운 달(新月)이라는 의미에서 신월(新月)이라 하였다고 하고, 처음에는 못굴(池谷) 즉, 지월에 속했다가 행정구역 개편 때 새로 독립됨으로써 '새로운 지월'이라는 의미에서 신월(新月)이라 했다고도 한다. 신단(新丹), 두월(斗月), 숯굴(炭洞), 사기막골이라는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숯을 굽고, 사기를 굽는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자의 10제자 중 한 사람이며 고려때 사신으로 들어와 여흥(지금의 여주)에 정착한 민씨의 시조인 민칭도(閔稱道)의 8세손이며 문인공파의 파시조인 지의 11대손 복룡(伏龍)이 초월면 신월리에 입촌함으로써 여흥(驪興) 민(閔)씨가 많이 살게 되었다. 한편 여흥 민씨 외에도 밀양(密陽) 박(朴)씨도 상당수 살고 있는데, 밀양 박씨는 이곳뿐만 아니라 광주읍 탄벌리와 실촌면 건업리에도 상당수 살고 있다.

아. 퇴촌면 정지2리

퇴촌면의 면적은 약 60.78km²이고, 인구는 약 4,000

명으로서 군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조의 개국 공신인 조영무(趙英茂)가 늙어 관직에서 물러나 이곳에 은퇴하여 거주하였다고 '퇴촌(退村)'이라 하였다.

정자동과 지위동이라는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2) 광주군의 세시 풍속과 민속 놀이

가. 1월

① 설날

○차례 지내기와 세배하기

설에는 떡국으로 제사를 지낸다. 그 외 제물은 특별한 것은 없다. 마루에 선반을 가로질러 그 위에 모셔둔 위패⁶⁶⁾를 옮겨다 차례를 지내고, 위패가 없는 집안에서는 지방을 써서 붙인다.

차례가 끝나면 집안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오후부터 일가 친척들에게 세배를 하러 다닌다. 단, 여자들은 3일이 지난 후부터 세배를 다닐 수 있다. 종가댁에는 보통 보름 전까지는 계속 세배를 하러 오는데, 외부에서 온 경우는 먼저 사당에 세배를 한 후 종손에게 세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⁶⁷⁾

손위 어른들은 아랫사람이 세배를 하면 덕담을 해주고, 연배가 비슷한 경우에는 서로 덕담을 나누어 한 해의 운수를 기원한다.

○복조리 팔기

정월 초에 복조리를 팔러 다닌다. 때로는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복조리를 집안에 던져 놓고 후에 복조리 값을 받으러 오기도 하지만, 새해에 조리를 사서 걸어 두면 한해 동안 복을 받는다는 인식 때문인지 별다른 실랑이는 없다. 값도 주는 대로 받아 간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복조리를 팔러 다녔다. 최근 들어서는 이 풍속도 많이 없어졌다.

66) 중부면 뒷골 광주 안씨 종택

67) 중부면 뒷골 광주 안씨 종택

○여성 외출 금기

여성은 세배도 초사흘이 지난 후부터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름 전까지는 남의 집에 가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② 정월 열나흘날

○오곡밥

5가지 곡식을 넣은 오곡밥과 9가지 나물을 먹는다. 나무도 9점을 진다.

정월 보름날 오곡밥을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광주지역에서는 정월 열나흘날 오곡밥을 지어 정월 보름까지 먹는다.

○일월신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광주에는 보름날 서로 경하를 교환한 후 일월신(日月神)에게 절을 하는 풍속이 있었다.

○밥 훑쳐먹기

주로 아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세시이다. 밥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이날만은 아이들에게 밥을 실컷 먹게 해 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이기도 하겠지만, 민속상으로는 풍농을 기원하는 의례로 해석하는 것이 통례이다. 한편 『경도잡지』에 정월 보름날 볏을 타고 살빛이 검어지고 아위는 아이들이 백 집의 밥을 빌어다가 절구를 타고 개와 마주 앉아 개에게 한 숟갈 먹이고 한 숟갈 먹으면 다시 병이 도지지 않는다는 풍속이 있다.

밥을 훑쳐 먹거나 또는 얻어 먹는 풍습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 경기도 일부 지역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정월 열나흘날은 여자날이라고 하여 부인들끼리 모여 밤 늦도록 놀던 풍습도 있었는데, 밤에 부인들끼리 모여 이집저집 다니면서 오곡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무리를 지어 오곡밥을 얻어먹기도

하였다.⁶⁸⁾

○야광귀

야광이라는 귀신이 아이들의 신을 신어보고 발에 맞는 것을 신고 간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있거나 신을 방 안에 들여놓고 잔다.

③ 정월 보름

○부럼깨기와 귀밝이술

한해 동안 부스럼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럼을 깨다. “부스럼 깨물자”라고 말하면서 호두, 땅콩, 밤, 무 등을 깨문다.

또 귀를 밝게 해 준다고 술을 마시는 것을 귀밝이술이라고 한다.

○더위 팔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야! 불려서 대답을 하면 “내 더위(더위) 사가라”고 한다. 그러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달맞이와 달집태우기

새해에 첫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이 정월 대보름이다. 이날 떠오르는 달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에게 행운이 온다고 여긴다. 그래서 가까운 산으로 올라가 달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 소원을 빌고, 달집을 만들어 태운다.

○연날리기

정월 보름을 전후해서 시작하여 아이들은 겨우내 연을 날린다.

고려말 최영 장군이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탐라(제주도)에 갔을 때 배로 섬 주변에 이르렀으나 절벽이 많아 상륙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을 태운 종이 연을 날리어 상륙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종이 연

68) 경기민속지, 경기도박물관, 1998.

의 시초가 되었다⁶⁹⁾는 이야기도 있다.

○해동화 세우기

중부면 광지원리에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세시민속놀이이다.

약 200여년 전에 마마와 같은 질병이 마을에 전염되고 있을 때 강표(姜杓)라는 노인의 꿈에 나타나 각 집마다 나뭇단을 모아서 쌓아놓고 태우면서 제를 지내면 전염병이 치유(治癒)될 수 있다고 하여 그때부터 매년 정월 보름에 행하고 있다.⁷⁰⁾

정월 열나흘날 집집마다 생나무를 한 짐씩 준비하여 마을 중앙의 빈터에 나뭇단을 약 7m 정도로 쌓아놓는다. 이때 나뭇단이 넘어지지 않게 받침목을 대고 나뭇단이 흩어지지 않게 새끼줄로 둘레를 여러 번 감는다. 이렇게 세운 나무기둥을 '동해(동네햇불)'라고 한다.

이 마을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서 달이 뜨는 것을 살펴보다가 달이 뜨면 햇불로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마을에서는 나뭇단에 불을 붙이고 제물을 차려놓은 상태에서 제를 지낸다. 이때 제주(祭主)는 동네 사람들이 의논하여 고령자를 위촉했지만 요즘은 마을 이장이 총감독을 맡는다.

동해가 아랫단까지 다 타내려 갈 동안, 그 주위를 돌면서 농악놀이를 하고 그 다음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한다. 지신밟기가 끝나면 다시 동해 앞으로 모여 불이 사그러질 때까지 함께 햇불을 나이 수 대로 감아 묶고, '달애미'를 한다. 어른이 아이를 감아 안고, 각기 준비한 햇대를 달 쪽으로 향하면서 기원을 한다. 이때 '달애미 저어라', '달님 저어라'라고 주문을 외운다.

이렇게 제를 지내고 난 후 마을 각 집을 돌면서 지신밟기를 한다. 지신밟기와 함께 뒷풀이가 이어지는데,

여느 민속과 마찬가지로 제의성은 약화되고 유흥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승되면서 현재는 제를 지내는 것은 없어지고 대동놀이의 형태만 남아있다.

이 놀이는 정월 대보름에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달맞이와 달집태우기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놀이이지만, 마을의 공동제와 연관되어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다음은 조사자가 이 마을에 도당제 같은 공동제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제보자의 대답이다.

글쎄 우리 마을에는 그런거는 없고, 해동화 세우는 거는 하지. 열 나흘날 집집마다 생나무를 한 짐씩 지어다가 보름달 저녁에 세워놓고 빌기도 하고, 전체로 놀기도 하고 그러지. 집집매담(집집마다) 한 짐씩 해와, 저 앞에 공터에다가 놓고 태우지. 해동화 세운다고 해. 올해는 (마을에) 상이 나서 못하지. 올해만 못하지 매년 했어. 부정이 없으면.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해동화'라는 명칭의 의미와 놀이의 성격이다.

첫째, 명칭상 문제이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해동화'를 굳이 한자의 뜻으로 해석해 볼라 치면 '海洞禍'로 보아야 할지 '解冬火'로 보아야 할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여느 세시풍속의 의미와 전주어 볼 때, 마을의 화(禍)를 풀어버린다는 뜻과 마을의 안녕이나 풍농을 위해서 겨우내 얼었던 것을 녹인다는 이 두가지 뜻을 모두 고려해 봄직은 하다. 놀이의 형태나 놀아지는 시기에 맞추어 명칭을 한자화하여 유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자 뜻의 무리한 의미 해석이 낳을 오류 또한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일부 문헌 기록은 이것을 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놀이의 장르에 속하지만, 줄다리기가 그 자체로 놀이의 장르에 속하지만 '줄다리기 놀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현지 주민

69) 김성원, 근, 한국의 세시풍속, 경문당, 1987, 60-61쪽.

70) 광주군지편찬위원회, 廣州郡誌, '990.

들도 '해동화 놀이'라고 하지 않고, '해동화 세운다'라고 하거나 '해동화 논다'라고 한다. 따라서 '해동화'는 그 자체가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동화 세운다' 또는 '해동화 논다'라는 복합어가 되었을 때 민속어휘로서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놀이 성격의 문제이다. 이 놀이는 시기상 정월 보름에 행해진다. 그리고 장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그리고 집집마다 나무를 한 짝씩 갖다 놓는 대동성이 있고, 제사를 지내는 공동 제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해동화는 제의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정월 세시풍속의 일환으로 풍농을 기원하는 의미의 대동놀이임이 틀림없다.

○척사대회

척사는 옷놀이를 일컫는 말인데 광주 전역에 걸쳐 전승되고 있다. 주로 보름을 전후해서 시작되어 정월 내



사진 8. 중대리 텃골 옷놀이



사진 9. 초월면 신월1리 정월대보름 옷놀이 안내문

내 이루어진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척사의 사(柶)는 네 개의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도잡지』에는 이를 사희(柶戲)라고도 하였다.

이 옷놀이는 현재는 대회의 형태로 전승되며 작계는 동 단위로, 크게는 면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번 조사지 8개 마을은 모두 동 단위 또는 인근 마을을 포함하여 척사대회를 비롯한 대보름 대동놀이가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농기(農旗)씨움

중부면 광지원리에서 전승되는 놀이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생업의 근간으로 한



사진 10. 남종면 수척리 인근마을 정월대보름 풍물놀이



사진 11. 초월면 신월1리 인근마을 옷놀이

농경사회의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마을마다 공동노동을 하기 위한 두레라는 조직이 존재했고 그와 더불어 농악대도 마을마다 존재했었다. 각 마을의 농악대마다 고유한 농가 있게 마련인데 이것은 농악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기도 하면서 그 마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기도 했다. 정초에 특히 정월 대보름이 되면 각 마을은 농악대를 앞세우고 즐겁게 노는데, 이때 각 마을의 농악대 또는 옆 마을의 농악대와 인사하는 것이 기세배(旗歲拜)이다. 이때 마을마다 서열이 정해진 경우가 있어서 서열이 낮은 마을이 서열이 높은 마을의 농가에 먼저 인사를 하게 되어있지만, 서열이 정해지지 않거나 엇비슷한 서열의 마을끼리는 상대방 마을에게 인사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하게 하려고 싸움이 벌어진다. 이것을 기싸움 또는 농기싸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줄다리기

광주군 전역에서 행했던 놀이이며, 마을별로 이루어졌던 줄다리기 외에 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등의 지역이 함께 대규모로 줄다리기를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색전(索戰)'이라고도 부르는 이 줄다리기는 대다수의 마을 주민이 참가하는 경쟁놀이이다. 판교에서는 정월 대보름이 가까워지면 마을 사람들이 짚을 모아 길이 50~60m 정도가 되는 거대한 암주로가 솥줄을 꼬아놓는데, 암줄과 솥줄이 결합되는 부분에 나무로 된 비너를 꽂아놓는다. 정월 대보름날에 남녀(동부와 서부)로 편을 갈라 줄을 당기는데 여자편이 이겨야만 3년 동안 마을이 평안하고 풍년이 든다고 하여, 일부러 여자편이 이기게 하는 경우도 있다.

줄은 줄다리를 할 정월 대보름날 2~3일 전부터 동부와 서부로 나뉜 각각의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짚을 모아 만든다. 줄을 만들고 나면 줄다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지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여자가 줄에 올라타거나 건너다니면 재수가 없다고 하였다. 또 상대방 사람들이 줄다리기에 이기려는 목적으로 재수 없는 일을 몰래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줄다리를 하는 정월 대보름이 되면 동부와 서부로 나뉜 마을들은 암줄과 솥줄로 된 줄의 머리 부분에 재물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낸다. 고사는 주로 마을 이장이 세 번 절을 하고 줄다리기가 도중 사람이 다치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줄다리기를 후에 마을의 안녕과 풍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고사가 끝나면 줄다리를 할 사람들이 줄을 어깨에 메고 줄다리를 할 장소로 농악대의 뒤를 따라 길놀이를 하면서 이동한다. 동부와 서부로 나뉜 각 마을이 줄을 메고 줄다리를 할 장소에 모이면 줄의 머리부분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자리를 잡아두고 상대방의 기를 꺾고 자기편의 사기를 높이기 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풍물가락에 맞추어서 마당놀이를 한다. 마당놀이가 끝나면 암줄과 솥줄의 머리부분을 결합시키는데, 암줄과 솥줄의 결합과정에서 암줄은 솥줄이 들어올 때 뒤로 빼기도 하고 솥줄은 암줄의 머리부분에 들어가려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에는 결합하게 되고 암줄과 솥줄의 머리부분에는 나무로 된 커다란 비너를 꽂아두게 된다.

암줄과 솥줄이 서로 끼워져서 결합되면 줄다리를 할 사람들이 줄을 따라 늘어선 줄다리를 할 준비를 한다. 신호가 떨어지면 양편은 있는 힘을 다해서 줄을 당겨 승패를 가린다. 이때 풍물패를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편이 이기기를 바라면서 힘찬 응원을 한다. 이 줄다리는 단판으로 승부를 가르기도 하지만 세 번에 걸쳐서 하기도 한다. 줄다리가 끝나면 이긴 쪽은 줄을 들어올려 기뻐하고 진 쪽은 줄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긴 편을 축하해준다. 그리고 모두가 풍물가락에 맞추어서 뒷풀이를 한다.

줄을 만드는데 있어서 한 집도 빠짐없이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거두어들이는 것은 모든 가정이 함께 복을 받고 액을 막기 위한 민간신앙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줄은 그 굵기가 2.5~3cm 정도 되고 길이는 150cm 정도이다. 이런 줄 세 가닥을 합쳐서 꼬면 굵기가 7~8cm

가 되고 다시 이것을 세 가닥을 합쳐서 꼬면 20~24cm 정도가 된다. 이렇게 굵기가 20~24cm가 되는 줄을 합하여 반으로 접어 줄의 머리부분을 만든다. 이때 숯줄은 좁고 위로 치켜 올라가게 만들고 암줄은 숯줄의 머리부분이 들어올 수 있게끔 둥그런 공간이 있게 만든다. 머리부분을 만들고 나면 줄다리기패의 대장이 올라타는 줄의 목부분을 만드는데, 그 길이가 1.5~2m 정도가 된다. 이렇게 줄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잡아끌 수 있도록 결줄을 굵기 5cm, 길이가 10m 정도로 만든다. 결줄은 사람들이 잡아서 끄는 부분이기 때문에 칩뿌리나 칩껍데기를 섞어서 튼튼하게 꼬아만든다.

○제기차기

제기차기는 반드시 정월 보름날이나 행해진 놀이가 아니라 정월 또는 겨울동안 행해졌던 어린이에서부터 청장년까지 즐기던 놀이이다. 처음에는 한쪽 발로만 차기도 어려우나 익숙한 사람은 두 발로 번갈아 차기도 하고 뒤꿈치로 차서 앞으로 넘기고 앞에서 차서 뒤로 넘기는 기교를 부림으로써 놀이의 즐거움을 더해간다.

④ 귀신날

정월 16일을 '귀신날'이라 하여 이날 외출을 하면 귀신이 붙는다고 해서 삼간다. 이날은 일도 하지 않는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하늘에서 야광귀가 내려와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간다고 하여 신발을 숨겨 놓고 자기도 하고, 대문간에 채를 걸어 놓고 자기도 한다. 채는 귀신이 내려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채반 구멍을 세어보느라 날이 밝아 그냥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석하여 걸어놓는 것이다.⁷¹⁾

나. 2월

① 초하루

○머슴날 놀기

2월 초하루가 되면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때라는 의미에서 일꾼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하루 놀게 해준다. 주인이 떡과 술 등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일꾼들은 이날만은 흥겹게 종일 논다. 또 그 해에 나이 20이 된 머슴은 선배 머슴에게 한 톱을 내는데, 아이에서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라고 한다.⁷²⁾

○나이떡 먹기

나이 대로 송편을 지어 먹는 풍습이다. 『동국세시기』에는 정월 보름날에 세워 두었던 화간(禾竿:벼가릿대)에서 벼를 내려다가 흰 떡을 만드는데, 큰 것은 손바닥만하게 작은 것은 달걀만하게 해서 모두 둥근 옥의 반쪽 모양 같게 만든다고 한다. 이 송편(松餅)은 찰종으로 소를 하고, 시루 안에 솔잎을 겹겹이 찌서 물로 씻고 참기를 말라 먹는다고 되어 있다.

또는 온 식구의 나이대로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이것으로 떡을 만드는데, 이것을 세병(세병) 또는 수복병(수복병)이라고 하여 이렇게 하면 그 해 온 집안이 무병하고 만사가 형통한다고 한다.⁷³⁾

그러나 현재는 나이떡을 먹는 풍속과 머슴날이 혼재되는 현상을 보인다. 즉, 머슴날이기 때문에 나이떡을 해 먹는다고 하기도 하고, 머슴날과 나이떡을 구분하여 같은날 행하는 다른 세시풍속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② 성주 고사

성주 고사는 한식을 전후하여 손 없는 날을 택하여 집안의 주부가 주재한다. 성주단지에 담겨있던 묵은 쌀을 새 쌀로 바꾸고 단지를 덮는 한지도 새 종이로 바꾼다. 특별한 제물은 준비하지 않지만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 묵은 쌀로는 밥을 지어 집안 식구끼리 나누어 먹는다.

71) 경기민속지, 경기도박물관, 1998.

72)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도편), 1978, 422쪽

73)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도편), 1978, 423쪽

③ 장 담그기

겨우내 띄운 메주로 간장을 담근다. 예전에는 집안이 흥하고 망하는 것도 장맛을 보면 안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 담그기에 신경을 썼다. 지역에 따라 3월에 장을 담그는 곳도 있지만, 광주지역에서는 주로 2월중에 손이 없는 날을 골라 정성스럽게 장을 담근다.

다. 3월

① 삼짖날

음력 3월 3일을 삼짖날이라 한다.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하여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예고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특별한 풍속은 없지만 절에 가는 사람도 있다.

② 화류(花遊)

'꽃놀이'라고도 한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 동네 앞산으로 봄맞이를 가는 것이다. 남자들은 주로 서당의 학동끼리, 여자들은 부녀자들은 부녀자들끼리 그리고 처녀들은 처녀들끼리 주로 간다. 여자들은 진달래로 '꽃떡'을 부쳐먹기도 한다.

라. 4월 초파일

4월 초파일은 절에 간다. 예전에는 쌀과 과일 그리고 직접 만든 등을 가지고 갔지만 요즘은 등은 절에 가서 사서 단다. 이 날은 마을 부녀자들이 함께 가서, 하루종일 절에서 시간을 보내다 온다.

마. 5월 단오

○그네뛰기

부녀자들의 놀이 중 정월 놀이로 널뛰기를 꼽는다면, 5월 놀이로는 단연 그네뛰기가 있다. 주로 큰 나무가 있고, 마당이 넓은 집 마당이나 마을 공터에 그네를 맨다. 혼자 뛰는 외그네를 타기도 하고, 둘이 뛰는 쌍그네를 타기도 한다.

남자놀이와 여자놀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자놀이

는 대개 '내기'나 '경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여자놀이는 단순히 '즐거움' 것에 있다.

○창포에 머리감기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창포를 머리에 꽂기도 한다.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결이 고와지고 색이 검어진다고 한다. 일종의 벽사(酸邪)의 기능이다.

○씨름

그네뛰기가 여성들의 단오 놀이라면, 씨름은 남성들의 놀이이다. 단오에는 주로 백사장이나 강가에서 씨름을 했는데, 씨름은 단오에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80대 초반의 제보자가 정월에 논바닥에서도 씨름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씨름은 반드시 단오의 세시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쑥떡 해먹기

단오에는 산에서 뜯어온 쑥으로 떡을 해 먹는다.

『동국세시기』에서는 중국의 『세시잡기』(歲時雜記)의 "단오날 쑥을 가지고 호랑이 형상을 만들고, 혹은 비단을 잘라서 작은 호랑이를 만든다. 쑥잎을 붙여서 머리에 꽂는다"는 기록을 인용해, 우리나라에서 단오에 쑥떡을 해 먹는 풍습은 이를 본뜬 것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바. 6월 유두

음력 6월 15일이 유두이다. 『동국세시기』와 『열량세시기』에 "六月 望日 具酒食 就東流水頭 沐浴 宴樂 除不祥"이라하여 "술과 음식을 갖추어서 동으로 흐르는 물가에 가서 목욕도 하고 잔치도 하여 즐기면서 상서롭지 못한 것들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데서 유래한다.

지방에 따라 밀전병이나 밀떡을 만들어 발 두둑에 놓아두기도 하고 '유두떡'이라하여 떡을 해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가 한창 곡식이 익을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성장의례로 볼 수 있겠다.

사. 7월 칠석

칠석은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번 만나는 날로 알고 있다. 전언에 의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견우와 직녀가 일년에 한번 만나는 날로, 그들이 만나도록 까마귀들이 '오작교' (烏鵲橋)를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이날은 오작교를 만들어주기 위해 까마귀가 모두 하늘로 올라가고 지상에는 한 마리도 있지 않다고도 하고, 견우와 직녀가 까마귀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서 이 날이 지나고 나면 까마귀의 머리가 벗겨져 있다고도 한다.

『동국세시기』, 『열랑세시기』, 『경도잡지』 등에 칠석 풍속에는 이런 견우와 직녀 설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다만 『동국세시기』에는 옷을 거풍시키는 날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형초세시기』에는 “天河之東, 有織女, 天帝之子也. 年年織 勞役, 織成雲錦天衣, 天帝憐其獨處, 許嫁河西牽牛郎, 嫁後, 遂廢織姬, 天帝怒, 責令歸河東, 唯每年七月七日夜, 渡河一會”라고 하였다.

이날 광주지역에는 절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

아. 8월

① 추석

○차례 지내기와 성묘

햇쌀로 빚은 송편으로 차례를 지낸다. 특히 8월 제사는 햇과일, 햇곡식을 조상에게 바치는 날로 인식된다. 추석 전에 별초를 하고, 추석날은 성묘를 간다.

○달맞이

정월 보름과 마찬가지로 8월 추석에도 떠오르는 달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에게 행운이 온다고 하여, 해가 지기 시작하면 앞다투어 마을 앞산에 오른다. 떠오르는 달을 보며 소원을 빌면 그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거북놀이

경기도 광주군 일대를 비롯해서 이천·용인·여주·평택·안성 등과 충청도·전라도·경상도지역까지도

전승이 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거의 단절되었고 광복 후에는 아이들의 놀이로 바뀌어 8월 한가위에 주로 행하고 있다.

〈거북놀이의 연원〉

• 경기도 이천 지역 - 신라 제31대 문무왕(661~681)때 공주가 병이 켜는 듯이 나왔다고 하여 이때부터 거북놀이가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다.

• 충남 천안 지방 - 고려 8대 현종(1010~1031)때 나라에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어 곳곳마다 도둑들의 행패가 심하여지자 현종이 직접 민정을 살피기 위해 각 고을을 순회하였다. 그러던 중 직산현(稷山縣)에서 하루를 거거하는데 어느 날 꿈에 신라의 문무왕이 나타나 1월 한가위에 거북이를 보낼 테니 거북과 더불어 뛰어 놀고 민심을 수습하라는 현몽을 하였다. 해상으로 침입하는 적은 용왕이 있어 막을 수 있으나 육지에서 침입하는 적은 물리칠 수 없으므로 수록 양생하는 거북을 보내니 국가를 잘 보호하도록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현종은 이튿날 조정의 중신들과 의논한 끝에 지형을 두루 살펴보고 입장면 구덕리(현재 신덕리 1구)가 거북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이 마을 사람들과 거북놀이를 하였더니(일설에는 추석날 조정 대신들이 이 마을에 보내 거북놀이를 하였다고 함) 이듬해에 벼알이 수수알처럼 풍성하게 여물어 대풍을 이루었다. 이때부터 이 마을에서는 매년 추석이 되면 거북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광주군 오폐면에서는 1970년대 후반까지도 추석날 마을의 어린이들이 수수잎을 엮어서 거북의 탈을 만들어 쓰고 돌아다니며 떡과 음식을 얻는 것을 즐기곤 하였다. 광주군 일대에서 거북놀이에 쓰이는 거북이는 멧 방석에 용기름을 얹어 거기에 수수잎을 꽂아서 늘어뜨리고, 그것을 새끼줄로 엮어서 훌리지 않게 했으며 머리부분을 구별하기 위해 굵은 새끼줄로 목부분을 묶은 형태로 그 줄을 잘라 태비가 잡고 다녔다. 즉, 수수대로 다발을 묶어서 꼬리를 만든 형태이다.

8월 한가위가 가까워오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쪼

으로 줄을 꼬고 수수잎을 따서 한가운데 모양을 만들어 길게 엮는다. 이것을 몇 개 이어서 멍석처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인다. 그러면 마치 거북이 걸어가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된다. 이것을 거북탈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거북의 입자가 뒤에 서서 “거북아 거북아 만세 거북아 잘도 먹고 잘도 놀아라”라고 외치고 이어서 풍물이 흥을 돋군다. 그리고 동네 큰집에 가서 흥

겹게 놀아주다가 거북이 쓰러지면, 거북이 배가 고파서 쓰러졌으니 먹을 것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술, 떡, 과일이나 안주 등을 내 와서 흥겹게 먹고 논다. ‘길놀이 - 우물굿 - 문굿 - 마당굿 - 조왕굿 - 터주굿 - 성주굿 - 마당 뒷풀이’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여러 집을 돌면서 이런 행위를 반복한다.

거북놀이의 인원구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

〈거북 놀이의 인원구성과 복색〉

배역	인원	복색
거북	2명	바지저고리에 줄으로 나타나는 다리부분을 수수잎으로 감고 앞사람은 머리부분을 뒷사람은 꼬리부분을 맡는다.
질라레비	1명	수수비를 들고 머리와 팔, 몸통, 가슴 등을 수수잎으로 감싼다
소	2명	부포상포, 등걸잡방이, 더거리, 삼색띠, 짚신
북, 징, 장고	각 2명	고깔, 등걸잡방이, 더거리, 삼색띠, 짚신
소고	4~6명	나비삼, 등걸잡방이, 더거리, 삼색띠, 짚신
비나리	1명	先祀德談을 하는 가창자로 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는다.
광대	3~5명	양반광대는 정자관에 도돌 담뱃대를 들고, 남종은 돼랭이에 개나리 붓짐과 등걸잡방이에 행전을 착용하고 짚신을 신으며, 여종은 치마저고리를 입는다.

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거북놀이 또한 주민들의 안녕과 집안의 평안, 무병장수하기를 바라고 풍년을 기원하는 일종의 세시놀이이다.

자. 9월 중양절

음력 9월 9일을 ‘중구’(重九) 또는 ‘중양절’(重陽節)이라고 한다. 특별한 풍속은 없지만 길일(吉日)로 여기고 있다.

차. 10월

① 시사

우리나라는 4대 봉사가 보편적이다. 그래서 4대조까지는 제삿날 기제사를 집에서 지내고, 5대 이상이면 신주를 산소에 묻거나 불에 살라 버리기 때문에 신주도 없고 제사를 지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1년에 한번 날을 정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시사’(時祀) 또는

‘시제’(時祭)라고 한다.

보통 1일에서 15일 사이에 지내는 것이 보통이고, 중대리 텃골 광주 안씨 가에서는 매년 초하루에 지낸다. 예전에는 멀리서도 시제를 지내러 오기 때문에, 며칠씩 묵어가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중가에서는 10월 시사가 어떤 명절보다 분주하고 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② 성주고사

광주 지역에서는 특별히 성주단지나 터주가리에 햅쌀을 갈아 넣는 것을 일컫는 이름은 없다. 음력 2월에는 묵은 쌀을 새 쌀로 가는 것이라면, 10월에는 묵은 쌀을 햅쌀로 갈아 넣고, 그리고 터주가리 위에 덮어 놓은 짚을 새로 이어서 엮는다. 이 때 묵은 쌀은 밥을 해 집안 식구들끼리 나누어 먹는다. 중대리 텃골 광주 안씨 가에서는 성주단지를 ‘불천지우’라고도 하고, 단지 와 함께 붉은색 도포를 통에 넣어 모시고 있다.

카. 11월 동지

동지에는 찹쌀가루로 만든 새알심을 넣은 팔죽을 쑤어 먹는다. 팔죽을 쑤어 먼저 제사를 지내고 집안 곳곳에 뿌리고 난 후 나누어 먹는다. 동지가 초순에 들면 애기동지라 하여 이때에는 팔죽을 쑤지 않는다.

『형초세시기』에는 “공공씨(共工氏)에 불초(不肖)의 아들이 있어 동지날에 죽어서 역병(疫病)의 귀신이 되었는데, 이 귀신이 팔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동지날에 죽을 만들어 이로써 악마를 내쫓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타. 선달 그믐

○잠 안자기

선달 그믐날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는 풍습이 있다. 잠을 자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집 안팎에 불을 밝혀두기도 한다.

이 풍속도 상당히 연원이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동국세시기』에는 이를 수세(守歲)의 풍속으로 전한다.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에서도 “도성의 사람은 매년 제야가 되면 부엌 속에 등불을 켜놓는 습례가 있다. 그것은 대그믐날에 부엌 귀신이 집 사람의 죄상 일체를 천신(天神)에 밀고한다”는 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 이 풍속은 속담에서도 전해진다.

○묵은 세배

일년의 마지막 날 정월 초하루에 세배하듯이 세배를 한다. 집안 어른뿐 아니라 일가 친지들에게도 하고, 사당이 있는 경우에는 사당에도 한다.

파. 윤달

윤달은 ‘공달’이라 하여 이 달에는 아무 일이나 해도 탈이 없다고 하여 평소 꺼리던 일을 하기도 한다. 또 수의를 윤달에 만들면 좋다고 하여 수의를 장만하기도 한다.

■ 기타 민속놀이

① 장(杖)치기

경기도 광주군 일대에 전승되는 놀이로써, 대개 1년 내내 놀아진다. 문헌상 그 역사를 고려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으며, 처음에 궁중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놀았던 것으로 상류사회의 전형적인 놀이였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민속화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치기는 현대화 된 운동경기 중에서 필드하키field hockey와 가장 비슷하다. 장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 작대기로 만든 채와 소나무 웅이부분을 둥글게 깎아서 만들거나 짚을 단단하게 뭉쳐서 엮은 얼레공이 필요하다. 이 놀이는 적당한 수로 양편을 갈라서 상대방이 정한 일정한 곳에 얼레공을 채로 물고 가서 넣는 놀이인데, 어느 쪽이 많이 넣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자기편 쪽으로 얼레공을 물고 와야 이기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장치기는 대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놀이형태로서 나무꾼이나 어린이들이 땔감나무를 할 때 내지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노는 것, 다른 하나는 본격적인 경쟁놀이로서 연초에 마을간에 장치기 시합을 할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대개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에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때는 한 마을을 초월한 보다 큰 규모의 대동놀이였고 그 놀이에는 경쟁에 의한 승패가 존재했기 때문에 마을의 풍물패가 자기 마을 사람들이 장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응원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 장치기 놀이에서 이기는 마을이 그 해 풍년이 든다고 하여 때로는 다소 격렬하고 과격하게 놀이를 하기도 했다.

② 가마놀이

아이들이 주로 노는 놀이다. 두 사람이 서로의 네 팔을 엇갈리게 걸쳐 네모 모양을 만들면 그 위에 한 아이를 태운다. 처음에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태워주는 놀이에서 시작하여 편을 나누어 편싸움을 하기도 한다.

3) 세시 풍속과 민속 놀이의 특징 및 성격

지금까지 광주군의 8개 마을을 표본으로 광주군의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를 살펴보았다.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광주지역에서 특징적인 세시풍속은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해동화 세우기'가 있다. 이 놀이는 제의와 놀이와 복합된 세시 대동놀이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 놀이를 경상도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동제 그리고 뒷풀이로 이어지는 대동놀이와 비교해 볼적하다. 즉, 준비과정에서 동제의 비용을 집집마다 각출하듯이

해동화 세우기를 위해 집집마다 생나무 한 짐씩을 지어 온다. 그리고 의례의 시기도 둘 다 정월 14일 밤에 행해진다. 또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끝나면 지신밟기 등의 대동놀이로 이어진다는 것 등의 동일한 요소를 갖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제의의 형식적 차이와 무게중심을 제의에 두고 있는가 놀이에 두고 있는가 이다. 동제가 정숙형의 유교식 제사를 위주로 진행되고 다음날 본격적인 대동놀이가 이어진다면, 해동화 세우기는 그 자체가 제의를 포함한 대동놀이이다. 주민들도 '제사를 지낸다'는 의식보다는 '놀이'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광주군의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시	기	세 시 풍 속	민 속 놀 이	비 고
정월	초하루(설날)	차례지내기와 세배하기 복조리 팔기, 여성 외출 금기		
	14일	오곡밥 해먹기, 일월신에 절하기 밥 훑쳐먹기, 야광귀		
	15일(보름)	부럼깨기와 귀밝이술 녀위팔기	달맞이와 달집태우기, 연날리기 해동화세우기, 척사대회, 농기싸움 줄다리기, 제기차기	
	16일(귀신날)	일 안하기, 야광귀		
2월	1일(머슴날)	머슴날 놀기, 나이떡 먹기		
	순 없는 날	성주고사, 장 담기		
3월	3일(삼진날)			
		화류		
4월	8일(석가탄신일)	절에 가기		
5월	5일(단오)	그네뛰기, 창포에 머리 감기 씨름, 쑥떡 해먹기		
6월	15일(유두)			목욕, 밀전병
7월	7일(칠석)			거풍
8월	15일(추석)	차례지내기와 성묘	달맞이, 거북놀이	
9월	9일(중양절)			
10월		시사, 성주고사		
동지	동지	팔죽		
섣달	30일	잠 안자기, 묵은 세배		
윤달		이장, 수의 장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도 근본적인 차이라기 보다는 제의성이 더 많이 남아 있다가 또는 놀이성이 더 강화되었느냐 하는 전승 과정상의 문제인 듯하다.

이제 정리한 표를 대조하면서 광주지역의 세시풍속과 놀이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물론 이 특성은 우리나라의 세시풍속과 놀이의 보편적인 특성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맥락에서 들여다보았을 때, 광주지역에서만 전해지는 세시풍속과 놀이의 의미도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아래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세시와 놀이가 정월 대보름과 추석에 주로 행해졌으며, 특히 정월 대보름에 집중되어 있다.

세시풍속이 보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달의 주기와 관련이 있고, 달의 주기는 농사를 주업으로 삼았던 전통사회에서는 뉘 내야 뉘 수 없는 관계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만월이 된 달은 풍요의 상징이다. 정월 보름은 한해의 시작인 정월에 떠오른 첫 만월이다. 그래서 보름 중에서도 '대보름'이라 일컬었다. 그리고 8월 보름의 달은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만월이다. 그래서 첫 보름인 대보름에는 한 해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고 풍흉을 점치는 세시풍속이, 그리고 8월 보름에는 한 해의 수확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제의성이 강조된 세시풍속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둘째, 세시 일은 양수가 겹쳐지는 날이 많다.

1월 1일 설날, 3월 3일 삼짇날, 5월 5일 단오, 7월 7일 칠석, 9월 9일 중양절 등이 그 예이다. 이처럼 민속현상에서 양수가 겹치는 날은 길일이라고 인식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숫자 관념과 연관되어 있다. 즉, 짝수 보다는 홀수가 좋고, 그 중 홀수가 겹쳐지는

날을 최고로 치는 것이다. 9월 9일을 '중구' 또는 '중양'이라고 하는 것도 9가 겹쳤다는 의미로 '중구(重九)', 그리고 양수가 겹쳤다고 하여 '중양(重陽)'이라 하였다.

셋째, 세시에 행해지는 풍속과 놀이는 같은 뜻 다른 이름이다. 즉, 세시에 행해지는 풍속과 놀이는 모두 제의성과 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세시의 풍속과 놀이는 모두 반일상(半日常)⁷⁴⁾의 개념으로 이해된 바 있다. 반일상(半日常)은 일상 속에서 영위되는 비일상의 의미로 사용되며, 비 일상은 일상과 대국적인 관계에 있고 초자연적인 존재와 의사소통이 행해지는 시간과 그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래서 일상적 대동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협업 및 놀이 등을 통해서 경험되는 반면, 제의적 대동은 비 일상적 시공간에서 제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제사, 협업, 놀이 등을 통해서 경험된다.

따라서 세시에 행해지는 민속놀이는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큰 범주의 세시풍속으로 분류할 수 있고, 특히 세시에 행해지는 대동놀이는 세시라는 비일상적 시공간에서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세시풍속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같은 풍속이 여러 세시에 행해지기도 한다.

광주지역에는 같은 풍속이 여러 세시에 행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정월 열나흘날 야광귀 풍속이 '귀신 날'인 정월 열엿새날에도 행해지고 설날 그믐날 잠을 안자는 풍속도 앞의 두 풍속과 유사하게 행해진다.

다섯째, 놀이의 성격에 따라 놀이 요소의 성격도 다르다.

즉, 까이와의 놀이 요소⁷⁵⁾를 전제로 살펴보면, 성에 따라 여성놀이와 남성놀이로 분류할 때 남성놀이는 주

74) 한강명, 『韓國 大同놀이 研究』, 1993, 중앙사 도서출판

75) 그제 까이역(야)장골 역, 『놀이의 의미』, 1994, 문예출판사

로 '아곤(Agon:경쟁)'의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 있고 여성놀이는 주로 '일링크스(현기증:Illinx)'의 요소가 강조된 놀이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놀이인 씨름, 연날리기와 여성놀이인 널뛰기, 그네뛰기를 예로 들어보면 그 특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씨름과 연날리기는 주로 겨루기를 통해 승자를 가리는 놀이인 반면에 널뛰기와 그네뛰기는 현기증과 같은 놀

이 요소가 강조되는 놀이이다. 반면에 성의 구별이 없는 대동놀이는 네 가지 놀이 요소가 고루고루 섞여있다. 예를 들어 줄다리기나 농기싸움과 같은 것은 '아곤(Agon:경쟁)'의 성격이 강하고, 해동화 세우기나 거북놀이는 '미미크리(Mimicry:모방)'의 성격이 짙다. 또 윷놀이는 '알레아(Alea:우연)'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4. 마을 신앙과 가정 신앙

1)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광주지역의 마을신앙에 대한 조사는 먼저, 기 조사보고서에 보고된 내용을 조사하여 지금까지의 전승여부를 확인하고 또 그 간 보고되지 않은 마을 중 현재 마을신앙을 행하고 있는 마을을 파악하여 도표화함으로서 현재 광주지역 마을신앙의 전승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마을 이장들과의 전화대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기존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마을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을 기술하였고, 기 조사보고된 마을에 대하여는 참고문헌을 적어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편의상 마을신앙을 전승하고 있는 마을에서 가정신앙의 전승여부도 현장 조사하였는데 대체로 이러한 마을에서 여타 민속의 전승력도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2) 조사 현황 및 성과

조사내용은 마을 공동체신앙과 가정신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재 광주지역 민속신앙의 전승 실태를 폭넓게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각 읍·면별로 전승 현황표를 정리하였는데 그 결과 광주군의 행정구역상 1개읍 7개면에서 현재 마을신앙 전승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53개 마을중에서 마을 공동제의를 행하고 있

는 마을은 35개 마을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본다면 66% 이상의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각 읍·면별로 기 보고되지 않은 마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조사하기로 하였고 가정신앙에 대하여는 엄미리 마을 집안신의 사례만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외 마을에 대하여는 현재 전승 실태를 간단히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여타지역과 같이 가정신앙의 신체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전궁으로 10월 상달 고사를 지내는 가정은 남아 있으며 업주저리도 몇 가정이 조사되었다. 각 읍·면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광주군의 마을 신앙과 가정 신앙

(1) 광주읍

가. 광주읍 목현1리

□ 장승제

○ 제의 명칭 및 일시

목현1리에서는 격년으로 5월 단오날에 장승제를 지낸다. 제사 시간은 오후 12시 - 1시 사이로 정해져 있다.

○ 제당 위치 및 형태

장승은 마을입구 도로변 양쪽에 세워져 있다. 마을쪽으로 가깝게 세워진 것이 천하대장군으로 현재 3기가 서있고, 길 건너 맞은 편에는 지하여장군 2기가 서있다. 솟대는 새로 세운 천하대장군옆에 1기가 있다. 장

〈광주읍 마을 신앙 전승 현황〉

리 명	제의 명칭	제의 시기	제당 명칭	제당 형태	제당 위치	관련 자료	전승 여부	비 고
경안 3리	산제사	정월 보름 안	성황당	돌무더기 신목	마을 뒷산 기슭		40여년전 소멸	도로개설로 소멸
송정 2리	산신제	정월	당	신목(참나무)	마을 앞산 정상		20여년전 소멸	
송정 4리	산고사	음력 2월경		신목	장군산 기슭		40여년전 소멸	
회덕리	산고사	음력 10월	산고사터	신목(소나무)	마을 산 중턱		50여년전 소멸	
북현 1리	장승제	5월 단오 (격년)		장승/솟대	마을 입구	경기도지방 장승 솟대신앙	전승	
북현 2리	산제	음력 10월1일	산제터	참나무	이배재교개·국수 봉정상·반나무골		전승	
장지 1-3리	산신제	음력 10월 (격년)	산제당	당집/신목		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	1980년대 초 소멸	도로개설로 소멸
억 1리	당고사	음력 10월	당집	당집/신목 (상수리나무)	마을 서북쪽 산 뒷	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	전승	

승의 얼굴은 물감으로 칠했는데, 마을사람들은 이를 두고 “장승 분장한다”고 한다. 분장을 할 때 천하대장군은 무섭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승은 가운데 구멍을 파고 장승을 심을 수 있게 콘크리트로 만든 단안에 세웠다. 3기씩 심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 제의 진행

장승제는 5월 단오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의날을 잡기위한 절차는 없다. 제물 지내기 2-3일 전에 장승 깎을 오리나무를 베러 가는데 나무를 베기 전에 탁주와 북어포를 놓고 간단한 고유제를 지낸다. 나무베기는 마을 장정 3-4명이 맡아서 하며, 베 나무는 장승제 지내는 곳으로 옮겨놓는다.

제관은 마을 장년층을 주축으로 4-5명을 선정하여 하루전에 알려주는 것이 보통이며 마을어른들은 제사 진행을 도와주는 정도이다.

제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 공동기금과 마을 주민

이 자발적으로 1-2만원 정도의 현금을 내는 것으로 충당한다. 예전에는 각호당 쌀 1-2되를 거두어 경비를 마련하였다. 외지인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데 3-5만원 정도의 찬조금을 낸다. 마을 공동기금은 마을 청년들이 주가 되어 상여매기 등 마을공동 작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제물장은 제사 전날 마을 이장이 광주읍에 가서 구입



사진 13. 북현1리 천하대장군



사진 14. 목현1리 지하여장군

해 온다. 구입품목은 돼지머리 삶은 것, 삼색실과, 북어와 시루떡 한 말이다. 구입해온 제물은 마을 회관에 보관하고 다음날 장승깎기가 시작될 무렵 마을 부녀회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장승은 마을내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깎는데, 예전부터 마을에 살고 있는 대목이 주로 깎는다. 장승깎기가 끝나고 장승 분장을 하고 나면 마을 내에 있는 성불사 스님이 축원을 해준다. 제의절차는 먼저 천하대장군에 제사를 지내고 그 상을 그대로 가지고 천하여장군 앞에 놓고 제를 지낸다. 절차는 이장이 먼저 절을 하고 돼지머리에 돈을 꽂으면 마을사람 중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 돈을 꽂고 절을 한다. 이 마을에서는 축문이 없으며 소지도 올리지 않는다.

제사가 끝나면 장승옆에 판을 벌리고 음복 잔치를 벌인다. 제사경비에 대한 결산은 그날 책임을 맡고 일을 진행한 8명이 함께 모여 결산하고 끝낸다.

▶ 제보자 : 차완용 (남, 46세) 목현1리 17번지. 현재 이장

나. 광주읍 목현2리

□ 산제

○ 제의 유래 및 일시

이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제의를 산제라고 하며, 매년 음력 10월 1일 저녁 12- 1시경에 지낸다. 모두 4곳에서 제를 지내는데 그 중 영천대감은 100여년 된 참나무를 신체로 삼고 있다. 이 마을에서 영천대감을 모시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 인조때부터 라고 한다. 지금부터 300년전 이 마을 앞으로 인조대왕의 상여가 지나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말이 이 마을 앞에서 멈추어선 후 꼬박 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정이 바람에 날려 지금 영천대감으로 모시는 자리에 꽂혔다. 그래서 말의 목을 쳐서 그 머리를 제물로 바치자 상여가 다시 움직였다고 한다. 그 후부터 계속 위하고 있다.

○ 제당 위치 및 형태

목현 2리에서 산제를 지내는 장소는 모두 네곳으로 이배재고개, 국수봉, 밤나무골, 영천대감이 있는 곳이다. 이 중 영천대감은 100여년 된 참나무를 신체로 삼고 있으며 별도의 제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외 이배재, 국수봉, 밤나무골의 제의터는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제단이나 특별한 신체는 없고 산 정상부분에 마련된 터에서 지낸다.

○ 제의 진행

산제 날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택일을 위한 절차는 없지만,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부정한 일이 생기면 다음달 초하루로 날을 미룬다. 제관은 마을 어른들이 2-3일전에 모여 생기복덕을 가려 1명의 당주와 3명의 제관을 선정한다. 산제일을 맡아할 사람으로 선정된 뒤에는 부정을 금하고 외부출입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제사 당일에는 마을사람들 전체가 비린음식을 먹지 않았다.

제물은 산제 하루전에 당주와 이장이 함께 시장에 나가 장을 봐온다. 주요 제물로는 영천대감의 경우 '노금' (노그메, 커다란 양푼에 담에 젓상에 올리는 밥) 두 그릇, 소 염통, 삼탕, 삼색나물, 9가지 과일, 북어를 올리고, 다른 세 곳에는 각각 '노금' 1그릇, 북어 1마리,

막걸리만 올리고 지낸다.

제의 경비는 지난해(1999년)의 경우 제물구입비로 70만원 정도 사용되었는데, 마을사람들이 정성껏 낸 돈과 마을기금으로 충당하였다. 마을 기금은 청년회에서 상여를 돌려주거나 잔치를 도와주고 받은 돈을 모아 둔 것이다.

제의 당일이 되면 새벽 1시경 3명의 제관들은 부부가 함께 짝을 이루어 제물을 가지고 각자 맡은 산으로 올라간다. 각자 제당에 도착하면 서로 햇불로 신호를 하여 모두 동시에 제를 지낸다. 제가 끝나면 당주집으로 내려와 잠시 쉬었다가 영천대감이 있는 곳으로 올라간다. 이때는 남자 제관들만 올라간다. 제물을 진설하고 제를 지낸 뒤 분축을 하고 당주와 제관이 함께 축원을 하면서 마을사람의 소지를 올린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치면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음복을 하고 산을 내려온다. 다음날 점심 때를 전후하여 다시 당주집에 모여 음복을 한다. 제의 경비에 대한 결산은 연말 마을 총회때 함께 한다. 이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사람이 모여 윷놀이를 하고, 최근의 풍습으로는 양력 4월 마지막주 일요일에는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

□ 가정 신앙

해마다 10월 상달에 좋은 날을 받아서 성주와 터주

에 떡을 올리고 치성을 드린다. 현재 집집마다 남아 있는 자신의 신체는 없다. 성주는 안방, 터주는 장독대옆이나 집안 뒤꼍에 건궁으로 위하고 있다. 터주는 예전에는 안에 곡식을 넣은 단지를 넣고 짚주저리로 덮어두었지만 지금은 이 역시 신체가 없다. 10월 상달고사때만 위하고 고사떡은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 제보자 : 강용구 (남, 55세) 목현 2리 288번지.
마을 이장

(2) 남종면

가. 남종면 수청1리

□ 산제사

○ 제의 명칭 및 일시

이 마을에서는 공동체 신앙을 산제사라고 하며 정초에 지내는데 설이 지나고 보름안쪽으로 날을 잡는다. 산제사는 한 해 걸러 한번씩 지내며 지난해(1999년) 제를 지냈다. 제의 택일은 12월 말 마을 대동회때 미리 생기복력을 가려서 정해둔다.

○ 제당 위치 및 형태

산제당은 마을 뒷산 정상 아랫부분에 있는 200여년 된 소나무이고 조금 큰 바위가 제장의 표시처럼 있을

〈남종면 마을 신앙 전승 현황〉

리 명	제의 명칭	제의 시기	제당 명칭	제당 형태	제당 위치	관련 자료	전승 여부	비 고
귀여 1리	산신제	음력 10월	서낭당	신목(참나무, 뽕배나무)	마을 앞 강변도로변		15년전 소멸	
점천 2리	산치성	음력 10월		신목(소나무)	마을 입구 도로변		7년전 소멸	도로개설로 소멸
점천 3리	산제사	음력 10월		신목(참나무)	마을 서남쪽(골안)		10여년전 소멸	
수청1리	산제사	음력 정월 보름전(겨울)		신목(소나무)	마을 뒷산 정상		전승	

뿐 별도의 제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제의 진행

택일이 되면 선정된 제관들은 부정한 것을 보지 않고 집안에만 머무르게 된다. 제관은 총 3명을 선정하는데 예전에는 5명씩 뽑았다. 산제를 지낼 제관 1명과 나머지 2명은 집을 운반하는 일을 맡는다. 산제 지내는 사람들은 제사 당일까지 합숙을 하며 부정을 금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물장은 이장이 양평에 나가 구입해 온다. 주요 제물은 돼지머리, 막걸리, 식혜, 산자 등인데 지난해(1999년)의 경우 총 1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제사 당일 제관들은 다시 한번 목욕재개하고 새벽 5시경 제물을 준비해서 산으로 올라간다. 이때 동네사람들은 부정을 막기 위해 일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 신위는 두분을 모시고 제주(祭酒)는 단잔을 올린다. 축문은 지금은 읽지 않고 마을사람들의 소지도 올리지 않는다.

제 지낸 곳에서 간단히 음복을 한후 제관 집으로 모든 음식을 가지고 온다. 마을 노인들이 아침을 겸해서 제관집에 모여 음복을 한다. 사용한 경비는 별도로 결산보고는 하지않고 마을회의때 결산을 해준다.

□ 가정 신앙

제보자 정씨댁에서는 매년 12월에 조상신을 모신다. 작은 단지에 쌀을 담고 그 위에 솔가지와 짚을 덮어 만든 신체를 안방에 모시고, 불 한그릇을 올린 떡시루를 시루채 제물로 올리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 맥의 경우 조상 가운데 '홍씨 할머니'를 조상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매년 햅쌀로 갈아주며 단지에서 꺼낸 쌀로는 밥을 지어 가족끼리만 먹는다.

▶ 제보자 : 정운복 (남, 59세) 수침1리 693번지

(3) 도척면

〈도척면 마을 신앙 전승 현황〉

리 명	제의 명칭	제의 시기	제당 명칭	제당 형태	제당 위치	관련 자료	전승 여부	비 고
노락리	우물고사	정월 초하루		우물 신복(향나무)	마을 뒷산 밑		전승	우물에 고사를 지내고 나서 양쪽 개울에도 고사를 지냄.
유정 2리	비록제	정월 초하루 4월 초파일 7월 칠석	비록봉	돌비루	마을회관 앞		전승	
방도 1리	장승제	정월		돌장승	마을 입구		6년전 장승 제후 중단	장승제를 지내기 전에는 서낭제라고 해서 신목을 모시고 제를 드렸음.
상림 2리	산신제	부정기	고사나무	신목(소나무) 우물	밥송골		전승	마을에 우물이 있을 때 제를 올림.
도동 2리	산신제	정월 초 (3년마다)	산제사터	신복(소나무)	마을 뒷산 중턱		20여년전 소멸	
진우 1리	산신제	음력 10월 초하루	산제터	산제터 샘	마을 뒷산 정상	산간신앙, 강원· 경기·충북·충남편	전승	

가. 도착면 노곡리

□ 우물고사

○ 제의 명칭 및 일시

우물고사, 정제사(井祭祀)라고 하며, 매년 1월 2일 밤 12시 경에 미리 선정된 제주와 3-4명의 제관이 제를 지낸다.

○ 제당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 뒤에 있는 우물과 뒷개울 방죽, 앞 개울 느티나무 앞에서 지낸다. 우물은 산 아래에 위치하며 40여년된 향나무와 함께 시멘트로 정비되어 있다. 예전에는 마을에 4개의 우물이 더 있었지만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모두 없어지고 현재의 우물만 남았다. 뒷개울 방죽에는 별도의 제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 개울 방죽에는 200여년된 느티나무가 있고 옆에 마을 정자가 있다.

○ 제의 진행

정월 병절 전에 마을어른들이 모여 1명의 제주와 3-4명의 제관을 선정한다. 제관이 정해지면 마을사람들은 고사 지날 샘을 청소하고 제관들은 마을회관에 금줄을 친다. 이후 제관들은 회관에서 함께 숙식을 한다. 제의 경비는 마을 공동담(2,400평)과 해마다 두차례 마을사람들이 내는 회비로 마련한 공동기금을 사용한다. 마을 공동담에서는 해마다 동곡과 하곡을 받는데 동곡은 벼 2말2되, 하곡은 겉보리 2말 2되를 받는다. 그러나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해 지금은 하곡에는 20,000원, 동곡에는 18,000원을 받는다.

제물구입은 고사 하루전에 이장이 한다. 주요 제물은 소로 예전에는 소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러나 소 도살이 금지된 후로는 정육점에서 소다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세 곳의 제장에 쓸 소다리를 준비한다. 다른 제물은 사용하지 않고 생 소고기와 술(탁주)만으로 제를 지내고 제물 지낸 술은 모두 땅에 버리기 때문에 읍복할 술은 별도로 준비한다.

고사 당일 제주와 제관은 먼저 샘에 제를 지내고 다음으로 뒷 방죽, 앞 방죽 순서로 지낸다. 술은 단간을 올리고 축문은 장소에 따라 각각 읽는다. 원래는 축문은 태우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축문을 쓸 사람이 없는 이유로 예전의 것을 보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며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고사가 끝나면 다음날 마을회관에 모여 읍복 하고 제의 비용에 대한 결산은 하곡 결산 때 함께 한다.

□ 가정 신앙

10월 상달 고사때 떡을 올리고 고사를 지내는 가정은 몇 집 남아 있지만 터주 등의 신체는 거의 소멸되었다. 30여 년전까지만 해도 정월 대보름이면 거북장난이라고 하여 수수깡으로 만든 거북을 쓰고 동네 이집 저집을 다니며 걸립을 하기도 했다. 또한 봉화대우기라고 하여 싸리나무로 만든 집을 태웠으며 앞산과 뒷개울 산 정상에서 달맞이를 하였던 마을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대부분 터주, 성주 등의 가신을 모시고 있었다고 한다.

▶ 제보자 : 조갑성 (남, 44세) 노곡리 새마을 지도자, 이장과 함께 정제사 주관

나. 도착면 유정 2리

□ 미륵치성

유정 2리 미륵님은 마을 단위로 모시지 않고, 개인적인 치성이 이루어 지는 곳이다. 주로 초파일, 명절 등에 개인별로 불을 켜고 치성을 드리며 10월에도 떡을 해 올리고 치성을 드린다.

다. 도착면 방도 1리

□ 장승제

○ 제의 유래 및 일시

방도 1리에서는 예전에는 서낭제라 하여 홀수해 정월달에 좋은 날을 택일하여 자정무렵에 마을 치성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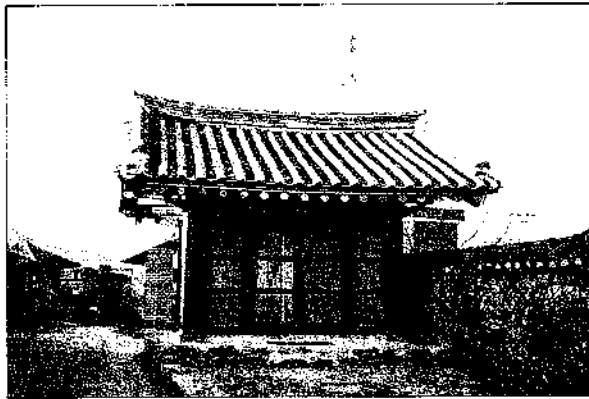


사진 15. 유정 2리 미륵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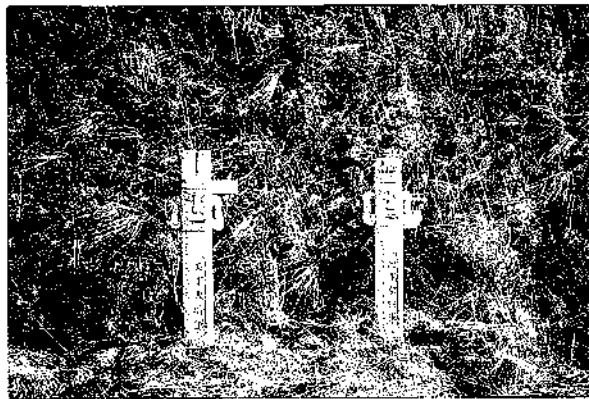


사진 16. 방도1리 석강승

지냈다. 그러나 7년전 군사도로가 생기면서 서낭당 (당집은 없고 위하는 나무만 있었음)이 없어진후 중단되었다. 그 후 마을 청년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겹치자 부녀회에서 주동이 되어 장승을 만들어 세웠다. 6년전에 지금의 장승을 세우면서 장승제를 지낸 후 지금까지 마을공동제와는 행하지 않고 있다.

○ 제당 위치 및 형태

현재 장승은 예전에 서낭당이 있던 곳에 새로 만들어 세운 것이다. 화강암으로 제작되었으며 좌측은 천하대장군, 우측은 지하여장군이라는 글씨를 세겼다.

○ 제의 진행

마을공동제의를 마지막으로 지낸 것이 장승을 새로 만들어 세울 때였다. 그 전에는 격년제로 서낭에 제를 지냈지만 당나무가 없어진 뒤 장승을 세우고 장승제를 지냈다. 장승제 때에는 마을 노인회에서 생기복덕을 가려 날을 받고 10명 내외의 제관을 선출하였다. 장승제를 지낼 때에는 마을 공동기금과 외지 인사의 찬조금,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낸 성금으로 경비를 준비하였다. 서낭제는 자정 무렵에 지냈지만 장승을 세울 때에는 낮에 제를 지냈다. 제물은 이장이 구입하였으며 돼지머리, 시루떡, 밥, 대추, 배, 감과 술(탁주)을 올렸다. 술은 단잔으로 올리고 절은 두 번하였으며, 축문을 읽고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음복을 하였다. 이어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모두 모여 음복하였으며 제의 경비 결산은 연말 대동회 때 함께 하였다.

▶ 제보자 : 이용기 (남, 68세) 이 마을에서 출생한 후 현재까지 거주.

〈 실촌면 마을 신앙 전승 현황 〉

리 명	제의 명칭	제의 시기	제당 명칭	제당 형태	제당 위치	관련 자료	전승 여부	비 고
부항 2리	산신제 장승제	정월		신복(엮나무) 장승	마을 입구		5년전 소멸	산신제를 지낸후 장신제를 지냈음
상열미리	우물고사	음력 2-3월 (2-3년마다)		우물	마을 뒷산		전승	
삼 1리	탐고사	정월 보름	할아버지탑 할머니탑	돌탑-신목	마을 입구		전승	신목은 할머니탑 예만 남음

(4) 실촌면

가. 실촌면 상열미리

□ 우물고사

○ 제의 유래 및 일시

상열미리는 총 20여호로 주민의 대부분이 진주 강씨로 구성되어 있다. 우물고사는 2-3년에 한번씩 2-3월 경에 날을 잡아서 지낸다. 그러나 통상 3월 정일이나 해일이 고사날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제관은 마을 어른 중 정갈한 사람으로 1명을 선정 한다.

○ 제당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 뒷산 아래에 위치한 우물이다. 상수도가 들어가기 전에는 마을 식수로서 우물로 해결했지만 지금은 식수로써는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 이 우물은 산에서 솟아나는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웅덩이를 파놓은 정도이며 돌과 시멘트로 주위를 손질하였다.

○ 제의 진행 과정

제의 날짜가 잡히면 먼저 우물 청소를 한다. 그 후부터는 고사를 지낼 때까지 아무도 우물에 손을 댈 수 없다. 다만 고사에 쓸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제주(祭酒)로 구입한 막걸리를 올리지만 10여년 전 까지만 해도 이 우물물로 직접 술을 담았다. 제물은 제관과 이장이 주가 되어 구입하며, 소머리



사진 17. 상열미리 고사우물

와 소피가 주요 제물이다. 소머리는 삶아서 젓상에 올리고 소피는 고사 전날 마을 주위와 제관의 집 앞 등에 뿌려 잡귀 등 부정한 것의 근접을 막는 주술적인 용도로 쓴다. 그러므로 젓상에는 소머리와 술만 올리게 된다. 고사 날 아침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우물을 다시 한 번 치우고 제사를 지낸다. 절차는 제관의 단잔 단배로 간단하다. 고사가 끝나면 마을 회관에서 음복을 하고 고사지낸 우물물은 마을 사람들 각자가 길어가 밥을 해 먹는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다. 고사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소요 경비에 대한 결산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 가정 신앙

상열미리에는 터주를 모시는 가정은 5가구인데 제보자 강씨댁의 경우에는 터주가리만 남아있고 그 안에 곡식은 넣어두지 않았다. 예전에는 쌀을 넣어 두었으나 얼마 가지않아 부패하여 아주 치워버렸다고 한다. 해마다 10월이면 좋은 날을 가려 고사를 지낸다. 제물로 붉은 팔시루떡을 썬 떡시루채 상위에 올린다. 시루 양손잡이에 북어를 한 마리씩 꽂고 시루안에는 물과 막걸리를 사발에 담아 놓는다.

성주와 터주에 먼저 제물을 차리고 절을 한다음 떡을 나누어 변소를 제외한 집안 구석구석에 갖다 놓는다. 이때 고사 주관은 안주인인 주부가 맡아서 하며 제보자댁의 경우 타지에 나가 살고 있는 자식들을 불러 온가족이 함께 고사에 참여한다. 절은 반드시 할아버지가 먼저하고 할머니와 타지에 나가있는 자식들 순으로 한다. 고사떡은 항상 동네 이웃에 돌려 나누어 먹는다.

특히 이 댁의 경우 1월 1일, 1월 15일, 5월 5일, 8월 15일 등 일년에 네번 조상을 모시는 제를 지냈다. 각 날짜별로 제물은 동일하게 준비하였다. 또한 이 댁에서는 동지에 팔죽을 쑤지 않는데, 6.25가 끝나던 해에 전염병이 심하게 돌았던 적이 있었다. 전염병이 들면 팔죽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여 그 뒤부터 팔죽을 쑤지 않고 있다.

- ▶ 제보자 : 강재구 (남, 72세) 10대조때 이 마을에
입향, 출생후 현재까지 거주
김난향 (여, 75세) 강재구씨와 부부, 17
세때 이천군 대월면에서 출가

나. 실촌면 삼 1리

□ 탐고사

○ 제의 유래 및 일시

매년 정월 대보름 저녁 달이 떠오를 무렵(통상 7시
내외가 됨)에 탐고사를 지낸다. 제관은 마을 사람중 깨
끗한 사람으로 제관 1명과 유사 1명을 선정한다. 마을
사람들의 발에 의하면 이 탐은 위령탐의 일종으로 억울
하게 죽은 백성의 원한을 위로하고 마을에 잡귀의 근접
을 금하며, 마을사람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한다.

○ 제당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다. 형태는 자연석을
모아 둥글게 쌓아 올린 돌탑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좌측
에 있는 것이 탐 할아버지, 우측이 탐 할머니다. 탐할머
니 옆에는 수령 50년 정도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나
무는 신앙의 대상은 아니고 후에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
이다. 탐은 돌을 자연스럽게 올려 쌓을 탓에 지난해에
무너진 적이 있어 다시 보수하였다. 탐 상단부에는 남
근석 모양의 돌을 얹었고 바닥에는 돌단을 하나 시멘트



사진18. 삼1리 마을 입구 돌탑

로 붙여 두었다.

○ 제의 진행

정월 대보름 3일전이면 고사 준비를 한다. 탐 주위에
금줄을 치고 주변을 청소한다. 탐고사를 지낼 때 마을
앞 논에서는 회태우기가 동시에 진행된다. 탐고사를 크
게 지낼 때에는 외부사람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
다. 제의 비용은 호당 각출한다. 마을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40여호중 20여호만 고사에 참여한
다. 참여 호당 쌀 한 되와 500원 정도의 현금을 거두는
데 현금은 막걸리를 구입하여 마을 사람들이 음복을 하
는데 사용하고 쌀로는 고사떡을 쪄다. 거둔 경비를 가
지고 이장이 곧지암에 나가 제물을 구입한다. 구입품목
은 밥, 대추, 배, 사과, 통복어, 막걸리이며 백설기는 한
시루만 준비한다.

고사날이 되면 마을사람들은 집에 있고 제관만 고사
를 지내러 간다. 먼저 할아버지탐에 제를 지내고 할머
니탐으로 이동한다. 제물은 따로 차리지 않고 한 상을
그대로 옮겨간다. 3년전부터는 축문을 읽지않는데 예
전에는 탐축문이 있었다. 제관은 단상에 재배만 한다.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떡을
나누어 먹는다. 거둔 돈으로 막걸리를 구입해 이때 함
께 나누어 마신다. 제사 비용에 대한 결산은 별도로 하
지 않는다.

□ 가정 신앙

터주나 성주 등의 신체는 모시지 않고 10월 고사때
마루와 장독대에 떡을 놓고 고사를 지낸다. 지금도 농
사를 짓는 가정에서는 신체는 모두 없었지만 고사떡을
찌고 있다. 주요한 세시풍속으로는 정월대보름에 하는
회태우기와 달맞이가 있다. 자기 나이 수대로 묶은 회
를 태우면서 달에게 소원을 빈다.

- ▶ 제보자 : 이우봉 (남, 72세) 이 마을에서 출생후 현
재까지 거주

(5) 오포면

〈 오포면 마을 신앙 전승 현황 〉

리 명	제의 명칭	제의 시기	제당 명칭	제당 형태	제당 위치	관련 자료	전승 여부	비 고
신현 2·4리	서낭제	음력 10월	서낭당	돌무더기 신목	부처당골 (분당으로 남아가는 고개)		30여년전 소멸	
능평 3리	서낭고사	정월 보름경	성황당	돌무더기 신목(참나무)	마을 입구		30여년전 소멸	
묵형 1리	산신제	음력 10·11월	산저당	낭집(초가) 신목(참나무)	마을 뒤 문형산	『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 『산간신앙』 강원·경기· 충북·충남편	1990년대 초 소멸	
매산 1리	산신제	음력 10월1일 (격년)	당	신목(참나무) 제단	마을 뒤편의 당재		전승	신목은 왜가리로 얇혀 죽음. 선출된 남녀 각 3명이 제의를 담당.
매산 3리	산신제	음력 10월	서낭당	돌무더기 신목(참나무)	마을 야산의 정상		1980년대 말 소멸	
양벌 1리	산신제	음력 10월 (격년)	당	신목(소나무) 참나무	마을 남쪽의 당재	『산간신앙』 강원· 경기·충북·충남편	전승	금년 시행 예정
양벌 3리	산신제	음력 10월 (격년)	도당터	신목(상수리 나무)/ 부군 당	마을 뒷산		전승	마을회관에 도당 한머니를 모셔두고 있음. 제의는 도당 할머니께 먼저 올리고 나서 신목 에게 제를 올림.

가. 오포면 매산1리

□ 산신제

○ 제의 유래 및 일시

매산 1리는 격년제로 산신제를 지내는데 지난해 (1999년) 제를 지냈다. 일제강점기에 단절되었다가 해방 되던 해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제를 지내는 날은 음력 10월 1일 밤 12시경으로 정해두었다. 제를 지내기 2-3일전에 마을어른들과 이장이 회의를 통해 당주 1명과 부정이 없는 사람 2명을 고른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보지 않아야 하는데 남의 집 초상이나 외부 출입 등을 삼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의 당일에는 비린 음식은 먹지 않고 큰소리를 내지 않으며, 목욕을 한다. 제관의 집에는 반드시 굶줄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 제당 위치 및 형태

예전부터 있었던 당나무가 왜가리 때문에 말라 죽어 버린 후 그 아래에서 자란 소나무를 옮겨 당나무로 삼고 있다. 그 나무앞에 상석모양의 화강암을 두고 제단으로 쓰고 있다. 제단과 당나무 주변으로 잔디를 심어 제의공간을 구분하였다.

○ 제의 진행 과정

마을공동기금과 마을사람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제의를 준비한다. 제기 등은 공동기금으로 미리 마련한 것을 마을회관에 보관해두고 사용하고 있다. 제물장은 제의 2-3일 전에 부녀회원 중에서 선정하여 광주읍에 나가서 구입해 온다. 반드시 제일 좋은 물건으로 구입해야 하며 가격은 싸게 깎지 않는다. 제물음식도 부녀



사진 19. 매산1리 산신제단

회에서 주관하여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준비하는데 제사 음식처럼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간장으로 간을 한다.

산신제에 쓰이는 주 재물은 떡으로 이 마을에서는 백설기와 시루떡을 같이 준비한다. 백설기는 쌀 3-4되 정도 분량을 찌는데 이는 산신은 위해 올리는 제물이고 시루떡은 마을 사람들이 먹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 막걸리, 탕 1그릇, 생두부, 무나물, 대추, 밤, 감, 배, 사과, 통복어와 타래실을 함께 제물로 올린다. 제당은 제지내기 3일전에 청소를 하고 당일날 제장 주변에 황토를 뿌린다. 제의 당일이면 남자 제관 외에 제물을 준비한 부인 4사람이 함께 당에 올라가 쟈상을 차린다. 그러면 남자 제관들이 제를 지내는데 잔은 반드시 두개를 올린다. 하나는 당할아버지, 다른 하나는 당할머니를 위한 것이다. 술은 단잔을 올리고 제가 끝나면 축문을 태운 뒤 제사에 참여한 마을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소지를 올린다.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음복 한 뒤 제를 마무리하는데, 제사에 사용한 통복어와 타래실은 당나무에 묶어 두고 내려온다. 제물은 다음날 마을회관에서 나누어 먹으며 제의 경비는 연말에 결산한다. 지난해에는 총 30만원이 제비로 사용되었다.

▶ 제보자 : 황제권 (남, 68세) 매산 1리 노인회 총무,
축문을 Tm고 진설 등을 자문. 출생후 현
재까지 거주

황제욱 (남, 72세) 이 마을에서 출생후 현
재까지 거주

김순철 (여, 62세) 이 마을 출생후 잠시
외지에 나갔다가 10년전 과천에서 이주

나. 오폐면 양벌 3리

양벌리는 10년전까지만 해도 보름이나 명절이면 이 마을 풍물패가 풍물을 치고 놀았으며, 들일을 나갈때에도 농기를 앞세우고 들에서 두레를 놀았다. 또한 해동 화놀이라고 하여 대보름날 달이 뜰무렵 갯단을 자기 나 이 수대로 묶어 '달임' '달입' 하고 절을 하는 풍습도 있었다. 초파일이면 불교신자들은 마을 내에 있는 용화사나 정수암으로 불공을 드리러 가며, 정초에는 절에서 부적을 받아오고, 입춘에는 입춘부적을 문앞에 붙였다. 역시 지금은 하지않는다.

□ 산신제

○ 제의 유래 및 일시

양벌리는 격년으로 마을 뒷산 당제터에서 마을공동 제의를 행한다. 6.25전만 해도 광대와 화랭이, 무당을 비롯해 줄타기패까지 불러 행했던 마을의 큰 잔치였다. 그러나 그 규모가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 되었고 1999년 IMF이후에는 무당굿도 없애고 마을에서 간단히 행하는 잔치로 바뀌었다. 마을의 당골이 중심이 되어 사흘동안 큰 굿을 벌이던 것이 지금은 마을 자체적으로 부군당제, 도당제, 산신제를 지낸다. 제사일시는 음력 10월경으로 아침 10경에 부군당에서 부정거리를 치고 도당제와 산신제를 지낸다.

부군당은 그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조상 대대로 전해져 오던 것이었다. 부군당을 지을 때 일화를 보면 다른 곳에 당을 지으면 건물이 제대로 서있지를 못하고 자꾸 무너졌다. 지으면 무너지고 지으면 무너지고, 이러한 일을 반복하다가 마을 회관 옆에 당을 짓자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 제당 위치 및 형태

양벌리의 제당은 크게 세 곳이다. 마을 회관 옆에 있는 부군당과 마을 뒷산에 있는 도당, 그리고 도당 위에 있는 산신제터에서 각각 치성을 드린다.

마을 회관 옆에 있는 부군당은 마을 사람들이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치성을 드리는 곳이다. 무당이 와서 치성을 드렸다고도 하지만 주로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였다. 개별적으로 자식이 군에 가고나 하는 등의 집안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각자 치성을 드린다. 초하루와 보름에 정기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가정도 있다. 이 부군당은 1칸내의 규모의 방인데 벽면에 벽장이 있어 그 안에 신체를 봉안하고 있다. 신체는 한지를 겹겹이 쌓 것으로 산치성을 드린 뒤 새 한지를 그 위에 덧씌운 것이다. 한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 옆에 작은 쌀항아리를 두었다. 벽장문은 늘 닫아 놓고 치성을 드릴 때에만 열어 놓는다. 신체 앞에는 치성 재물을 올리는 쟁상이 준비되어 있다. 마을 치성때 이곳에서 당골⁷⁶⁾무당이 먼저 굿을 하고 산신, 도당 순으로 굿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간단한 부정거리만 행하고 산신당으로 가서 제를 지낸다. 도당제를 지내는 곳은 60여년 된 참나무 군락과 그 아래에 땅을 골라 제단터를 마련해 놓았으며 산신제를 지내는 곳은 지름 3m 높이 2m 내외의 바위로 그 앞에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 제의 진행

9월 그믐께 마을어른들이 제일을 택하면 마을 원로 중 초상이나, 출생, 우환 등 부정이 없는 가정을 가려 화주, 제관, 축관을 각 1명씩 총 3명을 선정한다. 이때 선정된 제관은 재물을 준비하는 화주와 함께 제의일까지 일체의 부정을 금하고 집안에서만 머물러야 한다.

제주나 화주중 한사람이 제일 3-4일전에 팥주옴으로 나가 제의에 쓸 물건을 구입해 온다. 양벌리에서는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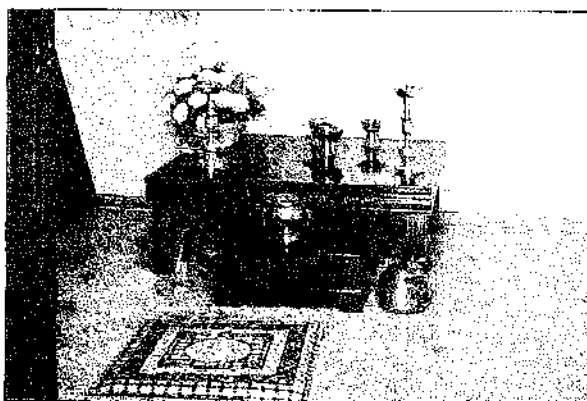


사진 20. 양벌3리 부군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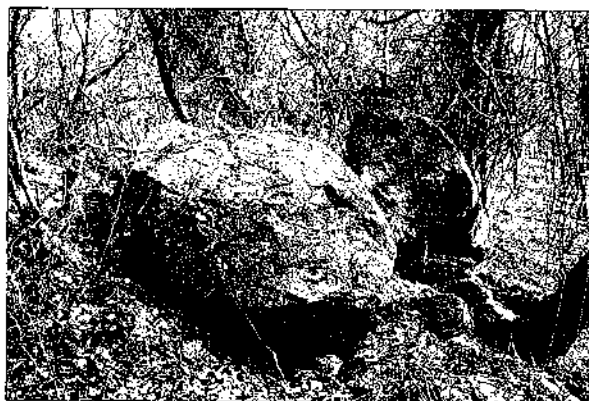


사진 21. 산신제터

의 비용은 그 해에 마을사람들이 내는 찬조금과 마을 동회비로 충당 한다. 제물은 소머리, 시루떡, 육탕과 소탕, 밤, 대추, 건시, 배와 포, 제주로 막걸리를 쓴다. 제물을 구입해오면 마을부인들이 모여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면 마을사람들과 화주, 제관, 축관이 올라가 제를 지내는데, 술은 단잔만 올린다. 제를 모두 드리고 나면 현장에서 같이 간 사람들끼리 간단히 음복하고 다음날 마을 회관에서 모여 남은 음식을 가지고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복한다. 제의 경비는 총무(주로 이장)가 결산한다.

□ 가정 신앙

양벌 3리에는 다른 가정신앙 형태는 찾아볼 수 없고

76) 양벌리에는 3년 전까지 당골이 있었다. 당골은 정초가 되면 다음에 와서 소수 등을 바치고 복제로 쌀이나 돈을 바치었다. 그리고 산지성 때 와서 다음 것을 해 주었는데, 3년 이후 마을 곳이 없어진 후 오지 않고 있다.



사진 22. 박창규씨택 터주

박창규씨 집에서만 터주가리를 볼 수 있다. 터주가리는 나락을 넣은 항아리를 넣고 그 위에 짚주저리를 씌웠다. 언제부터 모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년 10월 보름에 시루떡과 정안수를 놓고 터주가리 앞에서 고사를 지

낸 뒤 짚과 그 안의 곡식을 잘아준다. 이러한 일은 언제나 박씨의 어머니가 맡아서 하고 있다.

▶ 제보자 : 이덕준 (남, 72세) 이 마을에서 출생후 현재까지 거주
박창규 (남, 45세) 마을 이장, 이 마을에서 출생후 현재까지 거주

(6) 중부면

가. 중부면 하변천리

□ 산치성

○ 제의 명칭 및 일시

이 마을에서는 마을공동제의를 산치성이라고 하며 산하주, 육산, 소산 등 세곳에서 제를 지낸다. 제일은 매년 음력 10월 1-5일 사이에서 택일하며 밤 12시를 전후해서 지낸다. 택일은 언제나 음력 9월 27일에 한다.

〈 중부면 마을 신앙 전승 현황 〉

리 명	제의 명칭	제의 시기	제당 명칭	제당 형태	제당 위치	관련 자료	전승 여부	비 고
엄미 1리	산신제 장승제	음력 2월	산제당	신복(소나무) 장승	마을 앞산 마을 입구		10여년전 소멸	중부고속도로 건설로 소멸
엄미 2리	산신제 장승제	음력 2월 (3년마다)		신복(소나무)	마을(마라울) 내부 마을 내부	『경기지방 장승·숫대 신앙』	전승 /가정신앙	장승은 2곳, 마라울과 새마을에 세움. 먼저 장승제를 지낸 후 산신제를 지냄.
상변천 1리	산치성	음력 7월 그믐		신복(참나무)	퇴촌 방향 장작 산 조입		전승	
하변천리	산제사 장승제	음력 10월초 (1-5일사이)	산신당	터 장승/숫대	온곡마을 옆 천사산 기슭 마을 입구 개울	『경기지방 장승·숫대 신앙』	전승	장승은 격년으로 깎아 새우며, 갑년 시행 예정
불당리	산신제	음력 10월 (격년)	산제터	바위	마을 뒷산 중턱		전승	
검복리	장승제	음력 3월초		장승	마을 입구	『경기지방 장승·숫대 신앙』	전승	장승제는 매년 자내나 장승은 격년으로 깎아 새움.



사진 23. 육산 장승



사진 24. 소산 장승

○ 제당 위치 및 형태

하번천리는 박진이, 은골, 양지말 세개의 자연마을로 구성 되어있다. 은골 산 중턱에 있는 산하주는 스레이토로 지은 한칸 규모의 창고로 소를 잡기 위한 도구와 제기를 보관하고 있다. 그 뒷자리에 산치성을 지내는 터가 마련되어 있고 조라술을 붙는 짚주저리도 있다. 양지말 입구에는 소산이라 하여 천하대장군이라고 쓴 장승과 솟대가 각 1기씩 서있고, 박진이 입구에는 육산이라 하여 지하대장군이라고 쓴 묵은 장승과 솟대가 각 2기가 서있다. 이 장승은 2년에 한번씩 오리나무로 새로 깎아 세우고 있다. 썩은 장승은 치우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둔다. 장승은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으로 되어있으며, 클씨 아래쪽에는 서울 팔십리 이천 육십리라고 적었다.

○ 제의 진행

택일을 하고 나면 제관들은 외출을 삼가고 산하주 제관만이 이장과 함께 장을 보러 간다. 제사지내는 날이면 마을사람들도 비린음식은 먹지않고 외출을 삼간다.

특히 제사지내는 곳에는 일체 접근을 하지 않는데 지금도 지키고 있다.

이 마을의 경우 제물로 소 한 마리를 올리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제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호당 2만원의 돈을 각출하고 나머지는 마을 공동기금을 사용한다. 소는 반드시 솟소를 구입하고⁷⁷⁾ 기타 제물은 떡, 쌀, 술을 준비한다. 특히 술은 제사 지내기 전날 소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그곳에서 담아 땅에 묻어만든 조라술을 사용하며, 소는 제사지내는 날 아침에 잡아서 손질을 하는데 제사에 사용하는 부위는 안심묵과 결심묵이다. 제는 새벽에 췌불로 신호를 보내 3곳에서 동시에 지낸다. 산신에는 강신 없이 술만 1잔 올리고 육산과 소산에는 술을 5잔씩 올린다. 산신과 육산에는 제물로 생고기가 사용되지만 소산에는 시루떡, 중편, 메(밥), 두부만을 올리고 제물 지낸다. 축문은 세 군데 모두 각각 다른 축문을 사용하며 소지는 별도로 올리지 않는다.

제의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산하주있는 곳으로 올라간다. 공평하게 쇠고기를 분배하는데 나무젓이(소 잡

77) 1999년도에 양지말에서 소를 구입해 제물로 사용하였다.



사진 25. 김춘자씨댁 터주가리

는 사람) 3명이 이일을 전담한다. 살코기 부위는 바을 가구수대로 동일하게 분배하고 내장, 꼬리, 우족, 뼈 등은 별도로 원하는 가정에 판매를 한다. 음복은 그 다음 날 점심 무렵에 이장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는 것으로 대신한다.

□ 가정 신앙

현재 이 마을에는 2가정에서 터주를 모시고 있는데 신체는 버를 담은 항아리를 짚주저리로 덮어둔 형태다. 곡식은 매년 10월 고사때 갈아주는데 터주의 신체가 있는 집에서는 터주가리 안에 넣었던 곡식으로는 노금(밥)을 지어 치성드리는 상위에 놓고 고사를 지내고, 없는 집에서는 시루떡만 놓고 마루의 성주와 장독대 옆 터주에 정성을 드린다. 이 외에도 정월 초사흘날 시루떡을 해놓고 성주와 터주신을 모시는 고사를 지내는 데 이러한 집안 고사는 여자가 주가되어 행하고 있다.

▶ 제보자 : 손한기 (남, 49세) 하번천리 88-1, 마을 이장

김춘자 (여, 54세) 하번천리 316번지. 중 부면 지월리에서 20세때 시집옴

나. 중부면 엄미 2리

엄미 2리는 새말 · 미라월 · 박수골의 3개 자연마을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미라월이 중심마을이다. 농사는 전부터 해왔지만 얼마전부터 부업으로 메주를 만들어 대량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다. 노적산에 둘러싸여있어 산간마을의 성격이 강하여 산에 대해 각별한 외경심을 가지고 있다. 이 곳 엄미리에서는 2년에 한번 음력 2월 초에 장승제와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⁷⁸⁾.

이 글에서는 이 마을의 가정신앙을 정리하였다.⁷⁹⁾

이 마을에서도 가정고사는 주로 10월 상달에 많이 지내고 혹 7월 초순이나 칠석날에도 간단히 지내는 집이 있다. 집고사를 지내기 위해 날을 잡을 때에도 산제 사때와 같이 만약 날을 잡아놓고 부정한 일이 생기면 다시 날을 잡아 고사를 지낸다. 특히 10월 상달고사 때의 제물은 떡과 함께 반드시 정화수로 물을 올린다. 전에는 술을 가정에서 직접 빚었으나 요즘은 가게에서 사서 쓴다. 술을 사는 가게는 부정이 없는 '정결한 가게'여야 하며, 근래에 초상이 있었거나 출산이 있는 등 부정한 일이 있었던 집은 피해서 구입한다. 집안에 위하는 신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정 신앙

○ 터주

이 마을의 경우 여러 가정에서 터주를 섬겼으나 주벽을 개량하면서 터주의 신체가 대부분 사라지고 몇 가정에서만 그 신체를 찾아 볼 수 있다. 터주는 집터를 지켜주는 가정신으로 흔히 터대감이라고 한다. 신체는 짚을 고깔모양으로 세워 만든 짚가리로 그 안에 오지 항아리를 넣고 뒤꼍 장독대나 그 근처에 모신다. 항아리 둘레에는 원새끼를 꼬아 감고 항아리 안에는 콩이나 나락을 넣는데 대개는 나락을 많이 넣어둔다. 예전에는 음력 7월 초이레, 칠석 무렵의 고사 때 항아리 속의 쌀을 찧어 떡을 해 먹었으나 요즘에는 음력 10월 고사 때 쓴다. 이때 터주가리를 갈아주며 먼저 있던 짚주저리는 태워 버린다.

78) 『경기지방 잡승·숫대신앙』, 1968, 국립민속박물관, 145-147쪽 참조

79) 『경기민속지』, 신양현, 1999, 경기문화재단, 50-56쪽 참조

○ 성주

성주는 집안을 두루 돌보아 주는 가정신으로 집안의 호주(戶主)인 대주(大主)를 상징한다. 이 마을의 경우 신체는 대부분 사라지고 '건궁 성주'를 위하고 있다. 성주의 자리는 안방 문지방 위, 또는 대청 대들보 등이다.

○ 제석

제석은 자손의 번창과 가정의 화목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 자리는 안방 윗목쪽이며 신체로 제석주머니를 매단다. 신체(神體)는 흰색형짚(주로 소청)으로 주머니를 만들고 위에는 한지 고깔을 씌워 안방 구석 벽에 매단다. 주머니 안에는 가을에 첫 수확한 나락을 도정해서 나온 쌀을 넣는다. 고사를 지낼 때마다 주머니는 그대로 쓰지만 고깔은 갈아준다. 먼저 씌웠던 고깔은 앞마당에 손없는 방향을 향해 놓고 태운다. 주머니 속에 넣었던 쌀은 고사지낸 다음날 노금(노구배, 밥)을 해서 가족끼리 먹는다.

○ 조상

조상신은 돌아가신 어른인데 신체는 없이 섬긴다. 그 자리는 막연하지만 보통 대청 한가운데, 제사지내는 곳이라 생각한다. 조상이 집안을 잘 보살피 주어야 집안이 잘 된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제석은 삼신, 또는 조상신으로 여기는 수가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제석을 삼신으로, 조상신은 별도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산신

각 가정에서는 집고사를 지낼 때에도 뒤뜰에서 산지당(산제당)을 향해 먼저 고사를 지낸다. 산지당이 있는 방향에 떡시루와 정화수를 놓고 집안 내 무고하고 풍요롭기를 비는 것이다. 이 마을은 맨 아랫마을이 새말, 중간마을이면서 중심마을인 미라월, 그리고 맨 위에 벽수골이 있다. 산지당은 맨 위 마을인 벽수골에 자리잡고

있으며 별도의 제당은 없고 산제당 터만 있다.

○ 조왕

조왕은 부엌에 있는 신이다. 음식맛을 비롯하여 위생이나 불(火)을 관장하는데 신체는 없고 부엌 부뚜막을 조왕 자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엌을 개조하여 예전과 같은 부뚜막은 없다. 싱크대가 있는 곳이 조왕인 셈이다. 조왕에 대해서는 가을 집안고사 때 간단하게 떡을 올린다.

○ 우물

우물신은 주로 물할머니라고 한다. 우물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집의 물을 관장한다. 신체는 없이 건궁으로 섬기며 물할머니가 보살피 주어야 샘물이 잘 나온다. 요즘은 우물 대신 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물신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고사 지낼 때에는 떡을 접시에 담아 잠시 올려 둔다.

○ 마당

마당은 집으로 들어오는 처음 공간으로 좋은 일이건 좋지않은 일이건 일단 마당을 거쳐 대문으로 들어오고 나간다. 따라서 마당은 중요한 자리이며 신이 집의 앞마당에 존재한다고 믿어 고사를 지낼 때에는 대문 안쪽에 떡을 조금 놓고 간단하게 바친다.

○ 걸립

걸립은 대문 주변, 기둥자리를 일컫는다. 대개 대문 가까이 마당의 한쪽에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하여 고사를 지낼 때 마당과 대문·걸립 등에 떡을 조금씩 놓고 집안의 평안을 빈다.

○ 기타

위의 집안신 이외에도 곳간·외양간·변소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제물을 나누어 놓고 비손 한다. 가신은 집안 곳곳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어느 곳이나 정성을 드

려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농사가 줄어 소를 기르는 가정이 별로 없으므로 외양간에 대한 인식이 퇴색되었지만 예전에는 외양간과 곡물을 넣어두는 공간을 대단히 중시했다. 또한 변소의 축선은 부서운 존재라 하여 각별히 조심했다.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기능이 축소된 공간에 자리했던 집지킴이에 대한 의례는 점차 제외되어 가정고사도 점차 간소화 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 제보자 : 강규화 (70세,여) 엄미2리 389, 미라월

정길순 (72세,여) 엄미2리 376번지

공재범 (62세,남) 엄미2리 462번지

(7) 초월면

가. 초월면 선동1리

□ 산제사

○ 제의 유래 및 일시

산제사는 홀수해(격년)에 한번씩 지내며, 제의 일시는 2월 초순이다. . 제관은 제의 2-3일전에 그 사람의 생기복덕을 고려해서 선정하는데, 15년 전에는 당주 1명과 화주 2명을 선출했지만 지금은 당주와 화주가 각 1명씩이다. 선출된 당주와 화주는 한집(주로 당주집)에 거처하며 부정을 금하고 외부 출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의 일까지 지낸다.

○ 제당 위치 및 형태

제사를 지내는 곳은 돌신, 당집과 군웅 참나무다. 돌신은 특별한 신체는 없고 마을 들판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군웅할아버지와 할머니 두분을 위하고 있다. 군웅참나무는 70여년 정도된 나무로 당집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당집은 슬레이트 건물로 안에는 삼신단지라 하여 세 개의 단지를 모셔두었다. 단지에는 쌀 한 되씩을 넣어두었으며 산제사를 지낼 때 쌀을 갈아준다.

○ 제의 진행

산제사를 지낼 날짜가 잡히면 우선 당주 집앞에 금줄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며 맑은 물을 길어와 목욕을 하면서 제의준비를 한다. 목욕은 제사 당일까지 매일 한다. 그리고 제사 잡히는 날 우선 술과 식혜를 담고 제사 당일 장을 보러간다. 주요 제물은 소머리 삶은 것, 통복어, 식혜, 밥, 대추를 올린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2월 1일이면 당집에 올라가 삼신단지에 넣어두었던 곡식을 새것으로 갈고 주변을 정리한다. 제의 당일 날 아침식사를 하고 10시경에 제를 지내러 간다. 마을 사람은 나오지 않고 음복할 정도의 시간이 되면 알아서 당집 주변으로 나온다.

제를 모시는 순서는 우선 돌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산신, 군웅제 순으로 한다. 15년 전에는 산신은 산꼭대기에서 모셨으나 지금은 군웅참나무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돌신과 산신은 포와 술만으로 간단히 지내고 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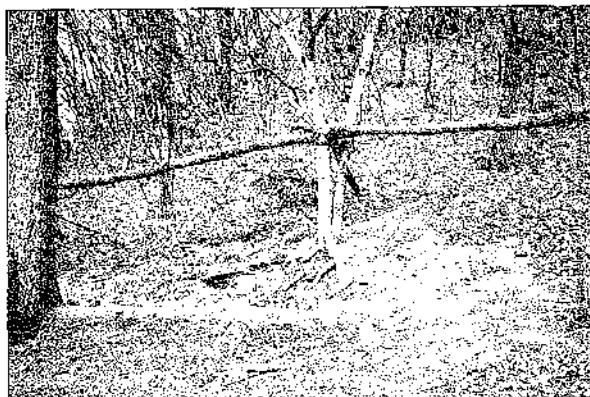


사진 26. 선동1리 당집과 당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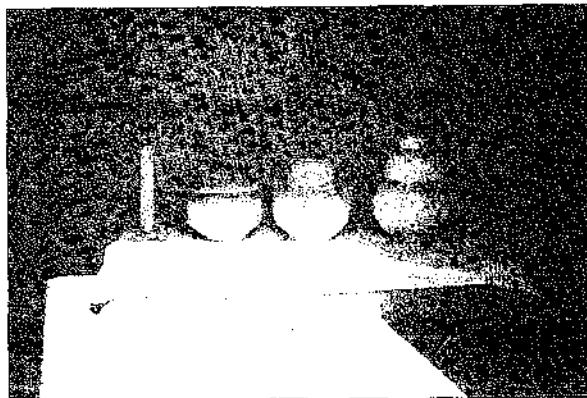


사진 27. 당집안에 있는 삼신단지

〈 초월면 마을 신앙 전승 현황 〉

리 명	제의 명칭	제의 시기	제당 명칭	제당 형태	제당 위치	관련 자료	전승 여부	비 고
대생령 1·3리	정승제	정월 초이름	사당 (정승묘)	사당	마을북서쪽 대로변	『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	전승	1리와 2리가 돌아가며 제를 주관.
쌍동 1리	정제사 산제사	정월 초		우물	마을 뒷산 초입	『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	전승	
쌍동 2리	산신제	음력 10월	호당 (호랑이가 자고 갔다고 해서 유래)	신목 (참나무)	마을 뒤편 전주 이씨 효령대군과 전산		전승 (무정기)	전주이씨 효령대군과 후손들이 주관했음. 지금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제를 올림.
학동 2리	산신제	정월	서낭당	돌무더기 신목 (참나무)	마을 입구		20여년 전 소멸	
선동 1리	산제사	정월 (3년마다)	당	방집 (슬레이트) 신목 (참나무)	마을 뒷산 기슭		전승	방집엔 '군웅'이라 하여 쌀을 넣은 향아 리를 모셔두었음.
선동 2리	산제 (군웅제)	정월 열나흘	산제터	신목 (소나무)	마을내 고개		전승	
용수 1·3리	산제사	정월 보름경	국사당 (국수당)	신목 (참나무)	마을 동편 산 정상	『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	전승	2리가 제를 주관. 1999년에는 제를 올리지 않음.
신원 1·2리	산제사	정월 초나흘	산제사터	신목 (참나무 등)	1리와 2리 사이 의 골짜기	『산간신앙』 강원·경 기·충북·충남편	전승	급년 시행 예정. 초사홀에 날음 잡음.
신원 3리	산제사	정월 열나흘		신목 (참나무)	마을 입구	『산간신앙』 강원·경 기·충북·충남편	전승	세우므로 돼지 한마 리를 잡으며, 이를 신 목에 걸어둠.
지원 1리	산제사	정월 초 (격년)	산제사터	신목(장수 리나무) / 우물	마을 남쪽 산		전승	2000년 시행 예정
지원 3리	산신제	신날 그믐경 (격년)	산제터	산제성터	마을 뒷산 정상		전승	
무갑리	산제사 장승제	음력 2월 초 (격년)	할아버지당 (도당할아버지) 할머니당 (도당할머니)	신목 신목 장승	마을 우측 마을 좌측 산허리 마을 입구 좌우편	경기지방 장승·숫대 신앙.	전승	산제사를 끝낸 후 장승제를 지냄. 마을 입구 개울 좌우로 '북 방측제장군'과 '남방 적제장군'을 세움.
서하리	산제사 장승제	음력 2월 초	할아버지당 (도당할아버지) 할머니당 (도당할머니)	신목(소나무) 신목(소나무) 장승	마을 뒤편 당산 마을 옆 도로변	경기지방 장승·숫대 신앙.	전승	장승제는 격년으로 지내며, 장승은 모두 세곳에 세움.
도평 1·2리	산제사 (위령제)	음력 10월 초하루	산제단	신목 (참나무) 제단	마을 입구 가마소산 남쪽	『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	전승	병자호란 때 전사한 장군을 위로하는 제의. 신목을 '군웅' 할아버지'로 부름.

안에 모신 삼신에는 소머리, 통복어, 식혜, 부나물, 밤, 대추를 제물로 올린다. 당주가 모든 제를 주관하고 화주는 축관을 맡는다. 절은 두 번반을 하는데 예전에는 세 번반을 하였던 것이다. 마을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소지를 올리고 축문을 태우면 제사가 끝난다.

제를 지낸후에도 당주는 1년동안 개고기 등의 부정한 음식은 가려먹고 상가집 등을 가지않는등 조심을 해야한다. 제가 끝나면 마을사람들과 함께 냇집 아래에서 음복을 하며 이때 제의 경비 사용 등을 결산한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 마을회관에 별도로 음식을 차려드린다. 제의비용은 마을공동기금을 사용하는데 지난해(1999년도)에는 40-5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 가정 신앙

제보자 김씨댁에서는 남아있는 신체는 아무 것도 없지만 10월이면 고사를 지낸다. 밤 12시경에 팔시루떡을 썰 시루채 집 뒤꼍 터주에 먼저 올리고 다음으로 마루 성주에 올린다. 그 후 떡을 조금씩 나누어 뒤주, 부엌, 우물에 가져다 놓는다. 절은 부부가 함께 한다. 이 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이면 햇불을 자기 나이 수대로 묶어서 달이 뜰무렵 달님에게 절을 하며 태우는 달맞이를 한다. 이때 싸리나무를 묶어서 태우기도 한다.

▶ 제보자 : 김만기 (남, 67세) 이 마을에서 출생후 지금까지 거주

나. 초월면 선동 2리

□ 산제

○ 제의 유래 및 일시

선동 2리는 두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제는 한 쪽마을에서만 지내고 있다. 홀수해 1월 14일 깨끗한 사람을 선정해 달이 뜰무렵에 산제를 모신다. 이 마을에서 산신은 군웅할머니라고 부르며 제관은 1명을 선출해 혼자서 제를 지내고 있다.

다른 한 마을에는 교회가 있는 쪽 마을인데, 예전에

는 이 마을에서도 산제를 지냈다. 당시에는 이 쪽 마을에 우물이 있었고 우물 옆에 전나무 한 그루와 오동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몇 십년전 벼락에 맞아 전나무가 죽어버렸다. 이 때 전나무에 살고있던 이무기가 타죽었는데 며칠동안 나무가 타면서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고 한다. 그 후로부터 이 마을에서는 산제를 모시지 않고 갈뚝고개 너머 마을에서만 제를 모시고 있다.

이렇게 산제는 한쪽 마을에서만 지내지만 정월 대보름 화태우기는 두 마을이 같이 하고 있다. 각 집에서 싸리나무로 가족 수대로 화를 묶어오면 동네앞 밭에 이것을 모두 모아 햇집을 만든다. 햇집을 만들 때 마을 호수대로 매듭을 묶고 그 위에 깃발을 꽂는다. 기는 한지로 만드는데 큰 것 1개, 작은 것 3개를 단다. 제보자에 따르면 산신제를 지내는 마을은 남자, 지내지 않는 마을은 여자마을이라 하여 남자마을에는 제일 큰 것대에 백기를 달고, 여자마을에는 창호지에 용을 그려서 단다. 나머지 작은 기에는 마을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달아 두며 타지로 나간 고향사람들도 참석을 할수 있다. 주변에서 이것을 구경하기위해 많이 모여들고 있다.

○ 제당 위치 및 형태

산제는 군웅나무 앞에서 모시는데 3년 전만해도 벼나무와 참나무가 있었다. 그러나 집을 지으면서 산을 지나치게 깎는 바람에 산사태가 나 나무가 죽고 말았다. 지금은 군웅나무 위쪽에 있는 소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내고 있다. 소나무 아래에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 제의 진행

산제를 지내기 3일전부터 호당 쌀 한 되씩을 걷는다. 제의 날짜가 잡히면 제관은 마을우물을 치고 그 물을 길어 목욕을 하는데 한해는 부정이 타서 우물을 다시 치기도 했다. 갈뚝고개 너머 살고 있는 가구가 모두 8가구인데 모두 제의에 참석 한다. 산제터 주위를 치우고 지금은 구입을 하지만 전에는 일주일 전에 조라술을

직접 담아서 사용했다. 제물구입은 이장이 하며 밤, 대추, 배, 사과와 복어포를 구입하고 제관집에서는 호당 거둔 쌀을 가지고 백설기를 찐다.

제의 시간은 매년 해태우기 행사전에 지낸다. 제관은 부인과 함께 산에 올라가 제를 지내는데 술은 단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3년 전까지는 축을 읽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생략하고, 소지 없이 제관이 마을의 무사안녕을 비는 입축원으로 대신한다. 제가 끝나면 10여년 전에는 제를 지낸 자리 아래 해태우는 곳에서 음복을 했지만, 지금은 다음날 제관집에서 제물음식을 가지고 음복한다. 경비결산은 별도로 하지 않고 동회때 함께 결산 한다.

□ 가정 신앙

제보자 신씨댁의 경우 10월중 날을 골라 집안고사를 지낸다. 터주 신체는 짚가리 형태이며 그 안에는 곡식을 넣은 향아리를 넣어두었다. 고사는 먼저 대청마루에서 성주를 모시고 다음으로 터주를 모신다. 그다음에 떡을 나누어 외양간, 변소 등 집안 구석구석에 놓아 둔다.

▶ 제보자 : 장경순 (남, 65세) 이 마을에서 출생후 현재까지 거주
신달현 (여, 72세) 22세에 도착면 진우3리에서 출가

다. 초월면 지월 1리

□ 산제사

○ 제의 유래 및 일시

음력 1월 4일 마을어른들이 모여 손없는 날을 골라 산제사를 지낼 날짜를 택일한다. 주로 보름안쪽으로 정하며 제의시간은 밤 12시를 전후하여 지낸다. 제의는 한해 걸러 한번씩 격년제로 지내고 있으며 지난해(1999년도)에 산제사를 지냈다. 제관은 소임 3-4명, 축관 1명으로 구성되는데,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이 많으면 소임을 5명까지 뽑지만 여의치 않으면 3명 내외로 한다.

○ 제당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 뒤에 있는 참나무 숲으로 70여 년된 참나무 4그루와 제기 등을 보관하는 당집으로 되어있다. 치성을 드리는 곳은 참나무 앞에 땅을 다듬어 만들었으며 뒤쪽나무를 가로질러 나무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 곳에 소고기를 걸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 치성터 옆을 흐르는 자연도랑을 이용하여 상탕, 중탕, 하탕을 설정하고 제물 준비 등에 사용하는 물을 구분하여 쓰고 있다.

○ 제의 진행

산제사 날짜가 잡히면 우선 제장 주변을 청소하고 샘을 치운다. 이와 동시에 제물 마련을 위한 나무를 모아 제장 주변에 가져다 놓는다. 소임중 한 사람이 제물장을 보는데 주요 제물은 소 1마리, 통복어, 삼색과일이다. 소는 반드시 한 마리를 쓰는데 부위별로 잘라 솥불에 구워 찜상 위에 9점시로 나누어 놓는다. 남은 고기는 고기를 걸기위해 만들어 둔 나무대에 걸어 놓는다. 일본강점기에는 소 도살이 금지되어있어 부위별로 구입하여 제물로 사용하였다. 제주로 사용되는 술을 담을 때는 상탕의 물을 사용하였다. 제물 진설은 남자가 하며 술은 세잔 올리고 절은 두 번씩 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사람의 이름과 소원을 적은 소지를 올리고 재배한 뒤 분축을 하고 간단히 음복한후 제장을 마무리 한다. 제의 비용은 마을 공동기금과 치성하는 해에 각 호당 5만원씩 각출해서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결산은 제의가 끝난 뒤에 바로 한다. 산신제가 끝나면 마을 회관에 모여 소고기를 호당 동일하게 분배하고 술을 준비해 마을사람 모두가 음복한다.

□ 가정 신앙

마을에 가정신앙의 대상물인 신체는 남아있지 않고 다만 10월에 가을걷이후 지붕 윗다리 등을 고치고 난 뒤 시루떡이나 백설기 등을 찌서 대청마루 성주나 장독대에서 비손하는 '10월 고사떡'은 하고 있는 집이 몇 있다. 정월 대보름이면 숙과 비슷한 땃풀을 자기 나이

수대로 매듭을 묶어 앞산에 올라가 달이 떠오를 때 “다님” “다님”하고 절을 하면서 태우는 풍속이 있다. 태우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이다. 음력 2월 초하루면 팔이나 콩 등을 속으로 넣어 송편을 빚어 나이 수대로 먹는데, 이를 나이떡이라고 한다. 지금은 전승되지 않는다.

▶ 제보자 : 강성환 (남, 72세) 이 마을에서 5대째 거주

라. 초월면 지월 3리

□ 산신제

○ 제의 유래 및 일시

음력 10월 1일 밤 12시에 산위에 마련된 제장에서 산치성을 드린다. 예전에는 택일을 해서 절정을 했지만 지금은 10월 초하루로 제일을 고정하였으며 해를 걸러 홀수 해에 치성을 모신다. 제관은 치성 3일전에 총 4명을 선출하는데 제주는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제주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 제당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 옆으로 자리잡은 산의 7부 능선 부위에 마련되어 있으며 계곡과 인접해있다. 치성을 모시는 제장에는 지름 4m 높이 3m 내외의 바위가 있는데 그 앞에 땅을 골라 재단을 마련해 놓았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제기 등을 보관하기 위해 2칸 규모의 스테이트지붕으로 만든 당집이 있다. 치성을 드리는 바위를 제석이라고도 하고 바위 할머니, 바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분들이 마을을 지켜주고 좋은일이 생기게 도와준다고 믿고 있다.

○ 제의 진행

산치성날 사흘전에 제주를 담고 읍내에 나가 제물장을 본다. 장을 보러갈 때에는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어른이 가서 장을 봤지만 운반 등의 어려움이 있어 요즘은 이장이 주로 이 일을 맡아서 하며 제의비용은 동기금과 호당 자율적으로 각출을 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한다.



사진 28. 지월 3리 산제당

주요 제물은 통돼지 생것(반드시 숫놈을 사용함)과 백설기 1시루, 삼색과일, 탕, 포, 그리고 밥 2그릇인데, 이는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할머니가 준비를 한다. 제의 당일 제주와 제관들은 산위로 올라가 치성터 앞에 상을 놓고 백지를 칸 뒤 그위에 진설을 한다. 절은 세 번하며 술은 삼잔을 올린다. 이어 제의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 각자의 소지를 올리고 분축을 한 뒤 치성을 마무리 한다.

치성을 드리고 나면 터 아래 평평한 곳에 내려와 음복을 하고, 마을사람들은 별도로 모여 음복 한다. 이때 이장이 결산을 하는데 보통 70-8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 가정 신앙

제보자 우씨댁에서는 매년 10월 첫 말날이면 집안에 있는 터주신에게 시루떡과 막걸리를 놓고 안주인이 치성을 드리는데, 터주신에게는 막걸리를 세 번 나누어 붓는다. 그리고 터주 안에 넣어 두었던 곡식을 갈아주며, 이때 성주에게도 같이 치성을 드린다. 떡시루를 나누어 부엌, 마당, 외양간, 축간에 4조각씩 나누어 놓아둔다. 이 마을의 경우 현재 5가구에 터주의 신체가 남아 있으며 그 옆에 터주보다 더 크게 술가지로 만든 엽을 위하고 있다. 엽은 현재 6가구에서 모시고 있다.

▶ 제보자 : 우태진 (남, 74세) 이 마을에서 출생후 지금까지 거주

(8) 퇴촌면

가. 퇴촌면 정지 2리

□ 산치성

○ 제의 유래 및 일시

9월 1일경 날을 받아서 3-4일경 밤 12시에 산치성을 올린다. 치성날이 잡히면 산우물과 치성터 주변을 청소하고 부정이 없는 사람중 생가복력을 가려 당주 2명과 비당주 2명을 선정한다. 3년전에 제사를 지냈으며 산 할아버지와 산할머니 두분을 모시고 있다.

○ 제당 위치 및 형태

제당은 마을 뒷산 정상에 마련되어 있는데 50여년 된 참나무 군락지로 이루어져 있다. 굵거나 특이한 모양을 한 나무는 없다. 정상에 있는 나무 아래에 남쪽을 향해 땅을 다듬어 제당터를 마련해 놓았다. 제당터 주위에는 불을 피워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자연 아궁이가 있으며 산정상 100m 아래로 숲을 담고 밭을 지을 때 사용하는 우물이 있다.

○ 제의 진행

당주로 선정된 사람은 우선 부정한 일을 급하고 집밖 출입을 삼간다. 2명의 당주중 1명은 장을 보러 가는데, 제의비용은 마을사람들이 성의껏 내는 것으로 총당한다. 주된 제물은 통돼지(안컷), 과일, 밥이다. 음식은 당주집에서 마련하며 다른 사람들은 일체 출입을 할 수 없다. 제사 날일이 되면 당주와 비당주만 산에 올라간다. 산아래 샘에서 물을 길어 제당 옆에서 직접 물을 피워 밥을 짓고 조리술을 담는다. 모든 제물은 산제당에서 직접한다. 밥과 돼지, 술을 올리고 제를 지내는데 그 절차는 술잔을 세 번올리고 절도 세 번을 한다. 제가 끝나면 마을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소지를 올리고 축문을 태운 뒤 간단히 음복하고 내려온다. 다음날 마을사람들은 아침을 먹지않고 당주집에 모여 아침식사로 음복을 한다. 이때 산위에서 빗은 술도 같이 나누어 먹으며 마을 회의도 겸해 결산을 한다.

□ 가정 신앙

이 마을의 경우 터주 등 가정신앙의 신체는 찾아볼

〈 퇴촌면 마을 신앙 전승 현황 〉

리 명	제의 명칭	제의 시기	제당 명칭	제당 형태	제당 위치	관련 자료	전승 여부	비 고
관음 2리	산제 장승제	음력 3월 내지 10월	산제당	신목 + 제단 장승	마을입구 야산 정상	경기도방 장승·숫대신앙, 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 경기민속지, 1 신앙편	전승	장승제는적년으로, 산제는 마을에 우환 이 있을 때 지낸다.
우산 1리	산제사 장승제	음력 10월초	산제당	신목(소나무) 장승	마을앞 당산 정상 마을 입구	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	전승	산제사를 지낸 후 장승제를 지낸다. 1999년 경우 직접 장승을 깎지 않고 외부에서 깎아왔음.
도수 1리 오 리	산신제	정월		신목(향나무)	국사봉 정상		20여년전 소멸	누군가 신복인 향나무를 베어가고 부터 지내지 않게 되었음.
원당리	산제사	음력 2월초	할아버지당 할머니당	신목(참나무) 신목(참나무)	마을회관 뒤편 산	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	전승	할아버지당에 제를 지낸후 할머니당에 지낸다.
정지 2리	산치성	음력 9월 초 (3년마다)	산치성터	신목(참나무) 우물	마을남쪽 산 정상		전승	



사진 29. 정지 2리 산치성터

수 없지만 10월 보름 고사때 떡을 해서 터주 신체가 있던 장독대 옆에 차리고 치성을 드린다. 건궁으로 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루 가운데 자리에 시루를 올리고 성주를 모시며, 이 떡을 나누어 변소를 제외한 외양간, 공간 등에 조금씩 가져다 놓는다. 10여년 전까지는 2월 초하루면 나이떡이라고 하여 자기 나이 수대로 송편을 해먹었다.

- ▶ 제보자 : 안영근 (남, 60세) 이 마을에서 출생후 지금까지 거주
조천녀 (여, 75세) 17세에 퇴촌면 원당리에서 이 마을로 출가

3) 마을 신앙과 가정 신앙의 특징

이상에서 광주지역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능한한 폭넓게 현재의 전승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사된 총 53개 마을중 35개 마을에서 지금도 제의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신제(산제사, 산제, 산치성 등)를 지내는 마을은 40개(전승: 26, 비전승: 14) 마을이며 장승제를 지내는 마을은 12개(전승: 9, 비전승: 3) 마을, 이 중 산신제와 장승제를 함께 지내는 곳이 8개(전승: 6, 비전승: 2) 마을이다. 산제와 정제(우물고사)를 함께 지내는 곳도 1개 마을이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우물고사를 지내는 곳은 3개 마을이 현재 전승되고 있으며, 당고사(서낭제, 서낭고사)를 지내는 곳이 3개(전승: 1, 비전승: 2) 마을, 그리고 기타 탑고사와 머룩제, 정충제를 지내는 곳이 각 1마을씩이다.

조사 결과만을 보았을 때에는 66%의 전승력을 보이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전승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⁸⁰⁾

특히 산신제가 75%를 차지하며 장승제를 합하면 83%가 된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농경지 보다는 산악지역이 많은 지리적인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경지는 주로 한강유역과 동서를 관통하는 경안천 유역, 그 외는 산간계곡에 자리하고 있다. 크고 작은 평야와 산간지가 함께인 이러한 마을에 장승이 자리잡고 있다. 산신을 먼저 위하고 그 하위신으로 마을 입구를 지키는 장승제를 지내는 마을이 많음도 이러한 지리적인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승제는 경기도내에서 광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제의일시는 주로 음력 정월 초와 보름안, 2월 초, 10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물로는 소 한 마리를 직접 제장에서 잡아 희생제물로 올리는 마을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남아 있다. 제관의 금기사항도 타 지역에 비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도 마을신앙의 종교적인 기능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또하나 주목되는 점은 이들 마을에서는 제장에서의 간단한 음복후에 다시 마을회관이나 제관, 이장집에서 마을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음복을 겸한 마을잔치를 행하고 있는 마을이 많다

80) 2000년 3월 경기도내 도서해안 지역인 화성군의 경우 10여년전에 비해 20% 정도의 전승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다.

는 사실이다. 이는 마을공동체 신앙의 축제적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광주지역 마을신앙의 특징이자 민속신앙의 전승력을 강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가정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체는 대부분 소멸되었으나 지금도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는 10월 상달에 고사떡을 올리는 가정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남아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신체중에서 터주와 업의 신체는 몇몇 가정에서 찾아 볼 수 있고, 특히 가정고사에서 마을신앙의 대상인 산신을 향해 제를 올리는 가정이 남아 있음도 산신을 중요시하는 이 지역 민속신앙의 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민속신앙의 전승 현황은 그 지역 민속의 전승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본이 된다. 특히 마을신앙은 민속생활 중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자연공동체의 공동 의례다. 마을의 전통은 물론 단합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광주군은 교통의 요충지이며 수도권 1일 관광 휴양지로 급격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토지 개발 지역과 미개발 지역과는 민속의 전승력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민속은 그 필요성에 의해 단절되기도 하고 다른 대체 기능으로 인해 소멸되기도 하고 또 그 순기능으로 인해 계속 전승되기도 한다. 민속신앙은 분명 그 종교적인 기능은 약화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마을의 단합, 자연공동체의 일체감 조성, 마을 잔치라는 축제적 기능으로 인해 전승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히 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지역이라면 이를 하나의 볼거리로 제공하는 문화상품으로서의 전승요인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종교성이 완전히 배제된 마을 공동체 신앙이란 하나의 공연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우리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상품으로 전승하되 마을사람들의 신앙심을 최대한 배려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⁸¹⁾.

81) 설촌면과 같이 민속신앙의 전승 마을이 많은 지역의 연대위로 민속신앙을 중심으로한 전통문화 마을의 조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 무속 신앙

1) 조사개요

무속은 아주 오래 전부터 민초들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전승이 되어왔다. 광주군에서는 한때는 많은 단골이나 강신무 등에 의해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무의식(巫儀式)인 굿이 성행해왔다. 남한산성이라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어 항상 전장(戰場)이라는 격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광주군은 아직도 많은 곳에서 마을 제의식과 함께 굿이 거행되고 있다. 이렇게 타 지역보다 많은 동제가 열리고 있다는 것은 오랜 시간동안 역사 속에서 늘 불안함을 갖고 있던 무의식적 사고가 아직도 주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기도 하다. 민속은 역사적, 시대적 상황과 주변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지니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 요충지인 광주군의 일대는 그만큼 평안을 바라는 바람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광주군에서 나타나는 동제를 보면 지역마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과 과거 한강을 끼고 취락이 형성되어 있던 지역(현재는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일대), 그리고 산을 끼고 발달된 마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중부면 엄미리나 검복리, 하변천리 등과 초월면 무갑리, 서하리 등 많은 곳이 아직도 장승제를 지내고 있으며 군내 곳곳에는 장승백이나 수살백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곳이 상

당 수 있어서 광주군의 민속신앙을 다양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광지원리의 해동화놀이나 오포면 등에서 팔월 한가위를 맞이하여 연희되던 거북놀이 등도 모두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기원성민속(祈願性民俗)으로 최근까지도 많은 마을에서 정월이나 10월을 맞이하여 주민 중에서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서 세관을 뽑고 마을 주민들이 금기(禁忌)를 지키며 마을의 안녕을 축원했던 것이다.

더욱 광주군에서는 최근까지도 각 마을마다 대동굿인 도당굿을 펼친 곳으로 조사가 되고 있으며 20~30년 전만 하여도 5~6곳의 마을에서 단골들이 펼치던 도당굿을 볼 수 있었으며, 굿을 할 때는 3~7일씩 굿판을 벌렸고, 광대가 들어와 줄을 타는가 하면 난쟁이 서기도 하는 등 대대적인 도당굿 판이 열렸던 곳이다.

광주군의 도당굿이 나타나던 곳은 광주읍 역말과 직리, 초월면 무갑리와 서하리, 남한산성 매당왕신 도당굿을 비롯하여 광주군 중대면과 연주면이었던 송파 오금동, 잠실, 신천역 일대와 잠실 3단지의 도당, 그리고 현 하남시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도당굿이 열렸으며 이외에도 현 성남시 일대에 많은 도당굿이 나타나고 있었던 점을 보아 광주군이 처해 있는 지리적인 입지조건과 함께 역사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44년 광주군 연주면 청수골(현 하남시)에서는 도당굿을 열었는데 굿이 시작되기 전에 줄광대가 먼저 줄을 타고 기녀들이 나와서 창부타령을 부르면 마을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소리도 하면서 돈도 주고 흥을 돋우었다는 기록이 보인다.(1959, 사상계 7월호, 이해구 「무악연구」)

현재 광주군에는 100여명의 무당들이 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무의식인 굿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굿당이 남한산성 내인 중부면 점복리 산2번지 큰골굿당과 오포면 능령4리 용상사 부설굿당, 오포면 문형리에 국선암 등 5~6개소의 굿당이 있다. 광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무당들은 모두 강신무로 과거에 경기도 지역에 분포되어 나타나던 가계세습무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다만 초월면 무갑리에 살고 있는 조송자(여, 70세)의 경우 할머니 유씨만신(1950년대 사망)과 어머니인 김효재(1976년 69세로 사망)의 뒤를 이어서 무갑리 도당굿을 주관하였으나 현재는 마을에서 굿을 폐하고 장승제만 지내고 있어서 기능세습무도 찾아 볼 수가 없다.

2) 광주군의 무속(巫俗)

광주군에서는 과거에는 전통적인 경기도의 세습무들과 강신무들이 굿을 공유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마을에서 나타나는 도당굿을 보더라도 강신무 계열의 굿과 세습무 계열의 굿이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세습화랭이나 단골들에 의해서 도당굿이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지만 남한산성, 초월면 무갑리, 서하리 등은 기능을 물려받은 강신무들이 100여년 동안 굿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되기도 해서 수원이나 화성 등 가계 세습무들이 각기 판을 나누어서 굿을 하던 곳과는 차이가 난다. 결국 광주군의 지역은 가계세습무와 기능세습무 혹은 강신무들이 각 마을의 도당을 관할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역 특성상 한수 이남 지역이기는 해도 수원 등보다는 한양 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한수 이북에 많은 강신무들의 굿이 일찍부터 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주군내에는 많은 도

당이 있어서 매우 활발한 무의식인 굿 행위가 이루어졌으나 현 하남시 남한산성 기슭인 청수골 등은 가계세습 무들인 화랭이들을 주축으로 해서 굿이 이루어졌으며 현 광주군 일대에서는 강신무들과 세습화랭이, 혹은 기능세습무 등이 공동으로 굿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 광주의 도당굿

광주군의 무의식은 도당굿을 중심으로 해서 전승이 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도당굿을 하는 마을이 없으나 40~50년 전만 하여도 많은 마을에서 도당굿 혹은 곳창굿이란 명칭으로 마을굿이 거행되었다. 현 광주군의 지역인 남한산성 청량당과 초월면 무갑리, 서하리, 광주읍 직리와 역말, 그리고 실촌면, 이선리 등에서도 도당굿을 했으며 현 하남시인 청수골과 성남시로 분할이 된 판교, 고등동, 상적동, 심곡동, 시흥동, 창곡동, 분당 삼평동과 석운동, 이매동 등 많은 지역에서 도당굿을 한 흔적이 있으며 현재 서울로 편입된 송파 오금동과 잠실 인근에서도 도당굿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당굿은 매년 정월이나 10월에 마을에서 집집마다 굿을 할 비용을 거출해 제물을 마련하고 굿을 했다고 하는데 40~50년 전부터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도당굿을 하는 마을은 없다고 한다. 조송자가 어룡산으로 줄을 타기 위해 전국을 다니는 동안 초월면 무갑리에서 인근의 강신무들을 청해와서 도당굿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 조송자가 다시 무갑리로 들어와서 살고는 있으나 주민들은 장승제로만 모실 뿐 굿은 하지 않고 있다. 무갑리 도당굿은 한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재현이 되기도 했지만 정작 마을에서는 도당굿을 하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조송자가 마을을 떠나 있는 동안 도당굿을 하지 않아도 마을에 큰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굿은 하지 않고 장승제만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 광주군 지역〉

마 을 명 칭	곳 의 명 칭	곳 의 시 기	현 재
남한산성 청량당	매당왕신도당곳	음력 정월 초2일	8월 중에 강신무곳
초월면 무갑리	도당곳	음력 2월초 택일	장승제만 지냄
초월면 서하리	곳창곳	음력 2월초 택일	장승제만 지냄
광주읍 직리	도당곳	음력 9월중 택일	현재소멸
광주읍 역말	도당곳	음력 10월 초하루	산신제만 지냄
실촌면 이선리	도당곳	음력 2월초	현재소멸

〈현 성남시 지역〉

마 을 명 칭	곳 의 명 칭	곳 의 시 기	현 재
관 교 동	도당곳	음력 정월 보름	산신제만 지냄
고 등 동	도당곳	음력 10월 중	산신제만 지냄
심 곡 동	도당곳	음력 7월 초하루	산신제만 지냄
시 흥 동	도당제	음력 10월	산신제
상 적 동	도당곳	음력 10월	소멸됨
창 곡 동	정확치 않음	정확치 않음	소멸됨
삼 평 동	도당제	정확치 않음	소멸됨
석 운 동	정확치 않음	정확치 않음	소멸됨
이 매 동	도당제	음력 9월 중	산신제

판 마을의 도당곳도 광주군이 서울, 성남, 하남시로 행정구역이 갈라지면서 점차 외지인들의 유입이 잦아지게 되고 마을이 급격히 변화가 되면서 그 절차나 방법, 주무의 관계 등의 조사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마을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살던 토착민을 통한 현지 조사의 경우, 마을에서 도당곳을 한 것은 어려서 전해 들었거나 보았기 때문에 일부 증언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곳을 한 무력들이 세습무인지 강신무인지 알 길은 없고 다만 몇몇 곳에서 그들이 하던 곳 행위로 보아서 가계 세습무와 강신무로 구분지를 뿐이다. 한때는 거의 마을마다 이루어지던 도당곳이 1950년대를 기준으로 거의 소멸되고 이제는 곳을 대신해 많은 마을이 산신제나 장승제 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광주군에 속해있던 지역의 도당곳을 보면 광주군의 무의식이 얼마나 활발하게 나타났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현 성남시와 하남시, 그리고 서울 송파구 등 광주군 지역으로 있던 마을에서는 도당곳 혹은 곳창곳이란 명칭으로 많은 마을곳이 펼쳐졌다. 하남시 청수골에서는 1950년대까지 도당곳이 마을의 큰 축제로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곳을 하는 도중에 마을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기도 했다고 하며 현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는 오금공원 안에 오금동 도당비를 세우고 이 곳이 과거 도당곳을 하던 자리임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송파구 잠실3단지 앞이나 현 문

정동사무소 앞에도 큰 거목이 서 있어 그 곳에서 매년 혹은 3년마다 도당굿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모두 소멸되고 말았다. 현재는 모두 소멸되고 대신 장승제나 산신제 등으로 대신하는 마을들이 많지만 한때는 음력 2월이나 10월 혹은 9월에 마을마다 길일을 택해서 도당굿을 했다는 광주군은 현재는 지역 내에 굿을 전문으로 하는 굿당이 5~6개소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 광주군, 성남시, 용인시, 이천시, 서울 등에서 무업에 종사하고 있는 무격들이 단골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재수굿, 병굿, 안택굿, 내림굿 등을 하고 있다.

(2) 광주군 무의 생활

현재 광주군에는 100~120명 정도의 무격들이 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강신무들로 과거 마을에 보이던 세습 단골들은 남아 있지 않다. 현재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광주읍과 중부면, 오포면 등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각 면에도 몇 명씩 분산되어서 무업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광주군의 무격들은 남한산성 대동굿 보존회와 민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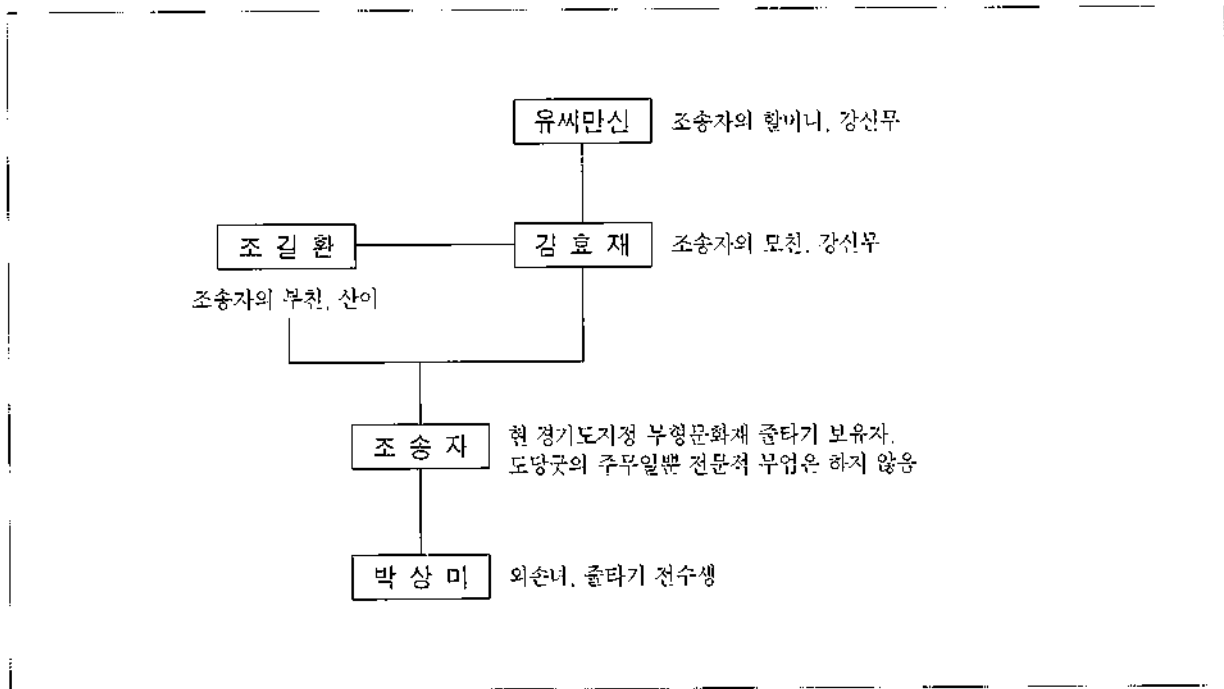
예술연구원, 혹은 사단법인 대한정신회 등에 가입을 한 40여명의 무격들과 비가입자 60~80명 정도가 있는데 타지방에 비해 단체에 가입한 무격들의 숫자가 적어 정확한 숫자는 조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어느 곳이나 그렇듯이 무격들의 이주가 잦아서 숫자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남한산성 대동굿 보존회장 남근만은 그 이유를 광주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남으로 이주해 오는 경우가 많아서 광주만을 따로 떼어서 무격의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과거에는 광주군의 전 지역에 많지는 않다고 해도 마을의 굿 등을 주관하던 세습 단골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은 그들이 점도 보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가계로 전해지는 세습무는 아닌 것 같다. 다만 그들을 단골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랜 시간동안 한 자리에 머물면서 무업에 종사하다보니 마을 주민들이 단골

네라고 칭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도 광주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장자들은 마을에 있는 무당들을 보고 곧잘 단골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능세습무 조송자

마을에서 조송자의 줄타기를 지도하는 장구의 소리가 하도 많이 들려서 현재 광주군에서는 무녀로 불리기 보다는 '평릉네'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진 어룡산이 조송자(사진1). 그녀의 아버지 조길환은 광주, 서울 송파, 잠실 등지를 다니면서 굿의 음악을 하던 산이었다고 하며 장구를 잘 쳤다고 한다. 조송자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줄타는 기예를 익혀서 전국을 다니면서 줄을 타 명성을 자자했었다고 한다. 무갑리 도당굿의 주무인 어머니 김효재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을에서는 인근에 살고 있는 강신무들을 초청해 도당굿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이종복, 남, 71세, 22대째 무갑리에서 거주) 조송자가 무갑리에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주민들은 상관없이 장승제만을 지내고 있다. 더욱 조송자의 경우 지금도 손녀 박상미에게 줄타는 기예만을 가르키고 있으며 현재는 줄타는 기예 중 몇 가지를 빼고는 다 배웠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조송자가 강신무인지는 알 수 없다. 본인 역시 자신이 신내림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다만 조송자가 마을로 들어와 살면서 2회 정도 강신무들을 청하여 무갑리 도당굿을 주관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마을에 있는 당나무 밑에 가서 굿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와서 하루 종일 굿을 했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으로 보아서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굿의 기능을 익힌 기능세습무로 보인다. 현재는 관절염이 심해서 줄을 타지 못하고 손녀딸인 박상미가 줄을 타러 다닐 때 함께 따라 다닌다고 한다.

〈조송자의 무계〉



●강신무 최영자의 무업

1970년에 결혼을 해서 청량리, 자양동 등에서 장사를 하던 최영자(여, 50세)는 첫아들을 낳고서도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던 끝에 1984년도에 경기도 광주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광주에서도 장사를 계속했지만 이상하게 5~6개월 정도만 지나면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부진하기 시작해 결국은 모두 망진해 버리기를 4번이나 반복되자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장소를 바꿔서 영업을 해 보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날려 버리고 말았다. 장사를 하면서 이상한 버릇이 생긴 것은 1982년 정도부터였다고 기억을 한다. 동지선달인데도 찬물로 머리를 감는 일이 생기고 몸이 아파 오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큰 고생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에 풍파가 생기고 사업에 실패를 거듭하게 되자 술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밤 11시가 넘어서 불암산을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 불암산에 있는 한 암자에 들어간 그녀는 무조건 절을 했다고 한다.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무엇

에 대고 절을 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온 터였지만 그 날은 그렇게 하면서 절을 했다고 한다. 옥천암이라는 암자를 아침에 내려온 최영자는 광주로 돌아왔다. 그 후 낮에는 방안에서 밥을 해 먹고 책을 사다가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밤만 되면 무엇에 홀린 것처럼 밖에 나가서 술을 마셨다. 하도 한집에 사는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김치를 갖다 준다는 핑계로 얼굴이나마 보려고 했지만 피해 버렸다.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이 싫었다. 그렇게 방안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사람들과 대면을 한 것이 방안에서 생활을 한지 100일이 지나서였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1986년도 가을에 내림곳을 했다.

현재 15년째 무업의 길을 견고 있는 최영자는 내림을 받고 난 후 광주읍 역3리 8-5번지에 신당을 차린 후 지금까지 한 자리에서 계속하고 있다. 처음에 수양부리를 정한 신자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다니고 있다고 하는

수양부리들은 100여명 정도라고 하는데 정월 홍수막이와 4월 초파일, 7월 칠석 등에 단골들이 찾아오면 축원을 해 준다고 한다. 정월이 되면 남들은 인채가 된 부적을 사다가 수양부리들에게 나누어주지만 본인은 밤을 세워서 일일이 써서 준다고 한다.

●강신부 허은영의 무업

광주읍에 거주하고 있는 허은영(여, 39세)은 1998년 7월에 내림을 받고 무업을 시작한지 만 2년이 채 안된 무녀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고향인 그녀는 내림굿을 받기 전에 4년 정도를 현재 있는 자리에서 철학관을 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고 1년 때 마을에 사는 무당이 어머니에게 자신을 신탈로 달라고 했단다. 허은영은 그때부터 신의 풍파를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1988년 남편과 이혼을 했다가 1993년에 다시 재결합을 했다고 한다. 자신이 결혼을 하고 보니 7남매의 맏며느리로 시집 식구들은 모두 교인이었던단다. 굿을 수 차례나 해 보았지만 그렇다고 신기가 가시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무당이 되는 길은 피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철학관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신기를 피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1998년 내림굿을 했다고 한다. 허은영은 현재 신당에는 동자, 대신, 용왕, 삼불제석, 칠성, 산신, 글문도사, 장군, 오방신장의 탕화가 걸려 있고 선녀, 산신, 장군의 소상이 놓여있다. 현재 수양부리들은 100여명이 있으며 광주를 비롯해 성남과 수원, 파주 등 경기도 일대에 수양자들이 풀고 루 퍼져 있다고 한다. 현재 남한산성 도당굿 보존회 광주지부를 맡고 있으며 굿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아직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수양부리들이 와서 굿을 할 일이 있으며 신아버지와 상의해서 수원, 인천 등에 거주하는 무력들을 초청한다고 한다. 허은영은 정월에 수양부리들을 위한 홍수막이를 시작으로 4월 초파일에 연등맞이, 그리고 칠월 칠석에 하는 칠성맞이를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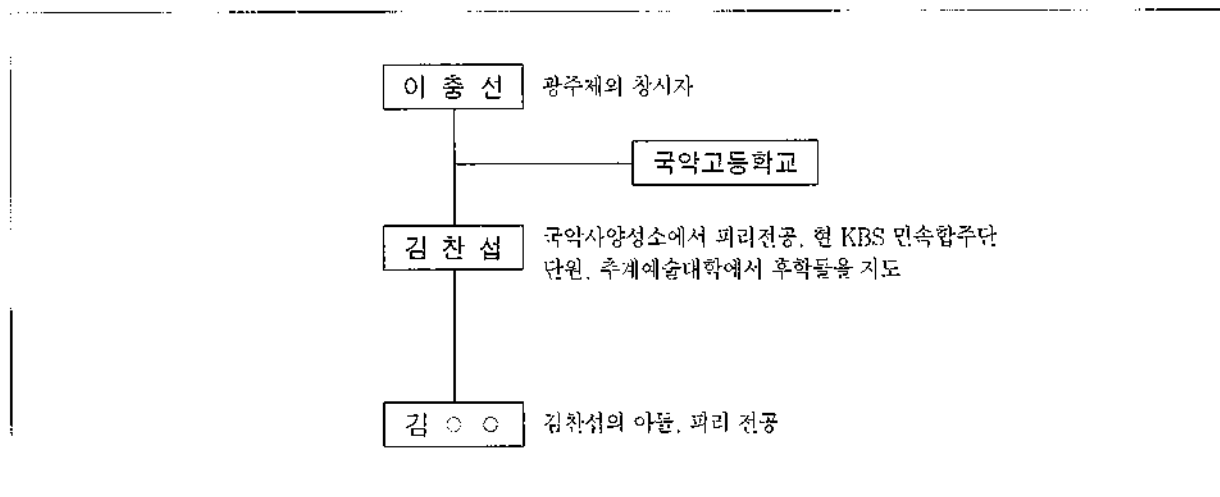
현재 광주에서 무업에 종사하고 있는 무력들의 무업 행위는 굿과 점술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광주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력들이 모두 강신무이기 때문에 기능 위주로 무업을 하는 세습무와는 달리 신내림 후에 일반적으로 하는 점술과 굿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에서 무업에 종사하고 있는 무력들이 년 중 하는 행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정월 : 홍수막이
- 삼월 : 꽃맞이
- 사월 : 연등맞이
- 칠월 : 칠성맞이, 백중축원
- 시월 : 단풍맞이, 안택축원
- 십일월 : 동지축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정월에 하는 홍수막이는 일반적으로 모든 무력들이 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삼월에 하는 꽃맞이는 수양부리들을 위하기보다는 무력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격들을 위한 진적굿이며 사월 초파일에 하는 연등맞이는 불교와는 달리 수양부리들을 자신의 전안에서 축원해 주는 형태로 한다. 음력 7월 칠석에는 자손들을 위한 칠석맞이를 하며 백중 때는 죽은 망자(亡者)들을 위한 축원을 한다. 시월이 되면 무력들의 진적굿의 형태로 나타나는 단풍맞이 굿이 많이 나타나며 농사를 짓고 있는 집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재수굿을 겸한 안택굿을 한다고 한다. 십일월에는 집안의 아이들을 위한 동지축원을 하는데 애동지(애동지는 음력 동짓달 10일 이내에 동지가 드는 것을 말한다)일 때만 한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축원을 다 할 수 있는 무력들은 몇 명되지 않는다고 하며 요즘에 새로 내림을 받고 무업에 종사하는 무력들의 경우 홍수막이만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력들의 무업이 기능적인 면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광주의 무악(巫樂)

〈광주제의 무악 계보(系譜)〉



광주군은 한 때는 많은 마을에서 도당굿이 나타나던 곳이며 세습화랭이에 의해서 도당굿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도당굿에서 많은 산이들이 기능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 무악의 경우 화성군 남양면에서 시작한 남양제(南陽制)와 지희영의 음악의 주로 하는 안산제(安山制), 그리고 대금을 불던 방화준의 동령제(東嶺制)와 광주제(廣州制)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마다 기능이 뛰어난 산이들이 있어서 이들 중에서 자신의 음악적 특성을 대를 이어가며 전승시키고 있는 지역을 통해서 편의상 구분한 것이다. 한때 광주 인근에서는 광주제를 창안한 피리의 명인 이충선을 비롯해서 김광채와 안성출신인 도살풀이 기능보유자였던 김숙자의 부친인 김덕원, 현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줄타기의 기능보유자인 조송자의 부친인 조길환 등이 있어서 무악의 한 지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광주제를 창시한 이충선은 피리의 명인으로 그의 피리산조는 현재 국립국악고등학교로 전승이 되고 있다.

원래 무악은 경기시나위를 모체로 하기 때문에 그 선율이 정형화된 산조(散調)와는 달리 현장성이 강하다. 이는 무악이 굿을 하는 무격에 따라서 그때마다 달라지

기 때문이다. 즉 굿을 하는 무격의 기능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따라서 굿이 달라지게 되고 굿을 반주하는 무악 역시 굿을 할 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상당한 기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기에 무속음악을 하는 악사들은 그때그때 굿을 하는 무격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산조만을 갖고 무악 반주를 하기는 어렵다. 광주의 경우 대금의 명인으로 알려진 김광채의 기능은 현재 무속음악을 하는 아들 김한국에게로, 피리의 명인 이충선의 기능은 김찬섭에게로 전해졌다. 이 중 김한국 경우에는 부친인 김광채의 기능을 이어서 대금을 불고는 있으나 그 율제는 김광채가 동령제의 창시자인 방화준의 율제를 전수받아 당대에 맥이 끊어져 버렸으므로 김한국 대금은 부친인 김광채의 율제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

다. 김찬섭은 국악사양성소(현 국립국악고등학교 전신)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피리를 배웠으며 현재는 KBS 민속합주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학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어서 이충선의 광주제는 산조화하기는 했지만 전승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광주 의 굿

광주군에는 굿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굿당이 여러 곳이 있어서 항상 굿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요즈음 들어서 어느 지역이나 그러하듯 지역적인 특성에 따른 굿을 하기보다는 무력에 따른 굿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광주군의 굿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즉 어느 지역의 굿이 어떻게 다른가에 따른 구분은 광역적(廣域的)인 구분으로 한양굿, 경기도당굿, 황해도 등 이북굿과 전라도 셋김굿, 동해안 별신굿 등 너른 분포에서의 지역적인 특성상 구분은 가능하나 광주의 굿이 같은 경기권의 굿과 다른 점이 없어지고 굿을 행하는 무력의 기능에 따라서 구분이 지어 진다. 특히 요즈음에는 강신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한양굿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서 굿을 보아도 한양굿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특징이 나타나기보다는 무력의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굿을 하는가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1) 남한산성 매당왕신 도당굿

전승민속은 주변의 자연적인 환경이나 인위적인 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민속이란 어느 시기에 창출된 것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과 공동체의 발로 등 그 시대적 요건에 따른 민속 재창출의 당위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남한산(신라 문무왕 때 성을 축조하고 주장성(晝長城), 또는 일장성(日長城)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서 산 이름도 주장산(晝長山), 일장산(日長山) 또는 이회장군의 영정을 모신 청량당이 있다고 해서 청량산(淸 山)이라 부르기도 했다)이라는 지정학적(地政學的)조건과 산성이라는 역사적인 조건은 이를 둘러싼 주변 지역의 민속에 독특한 요소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즉 전투와 방어라는 침예한 목적을 가진 산성(山城)을 낀 이 지역의 민속은 다

른 지역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무엇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남한산성에 관한 학술적(學術的)이고 역사적인 면은 다루지 않더라도 산성이라는 특성은 도읍지(都邑地)의 방어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벽(防禦壁)으로서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기에 자연히 산성 주변지역은 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왔을 것이고 그만큼 삶에 대한 간절한 기원(祈願)이 담겨있는 민속이 나타났을 것이다. 남한산성 주변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민속을 보더라도 모두 마을의 안녕과 풍농, 가내의 안과태평(安過太平)을 기원하는 민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남한산성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민속을 보면 도당신(都堂神)을 섬기는 도당굿과,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는 성황당, 여단제(礪壇祭) 등의 무의식(巫儀式)으로 미루어 항상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성 민속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현 송파구 암사동 일대는 옛 광주군 중대면(中岱面)이었는데 남한산성 주변에는 유독 대(岱)라는 지명을 보이는 곳이 많다. 현재 성남시에 있는 단대동(丹岱洞), 광주읍에 있는 중대리(中岱里) 등 많은 지명에서 대(岱)라는 명칭을 볼 수가 있다. 여기서의 [岱]는 [臺]와 같은 뜻으로 풀이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단(檀, 壇)]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대(臺)는 제(際)를 지내던 터를 말하는 것으로 제의 시기와 회수에 관해 언급이 된 백제의 사례(祀禮)를 보면 “백제는 매년 4중지월(四中之月 = 봄 2월, 여름 5월, 가을 8월, 겨울 11월)에 천신(天神) 및 오제(五帝)의 신께 제사하고 그 시조 구태(仇台)의 묘를 나라 동쪽에 세우고 네 차례 제사한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도 어느 지역보다 많은 제사 터를 갖고 있는 남한산성 주변에는 그만큼 많은 제나 굿 등의 제의식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산성 주변 마을에 있는 지명을 보더라도 많은 곳에서 무의식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성남시 고등동에 있는 도당제산과 도당고개, 사송동에 있는 당념어, 산성동의 서낭당, 그리고 심곡동에서 동자리 사이의 산모퉁이를 당뫼산, 혹은 도당터라고 해

서 이곳이 도당굿을 했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광주 실촌면 오향리에 있는 성황당이 등은 모두 민속신앙(民俗信仰)과 관계가 있던 곳이며, 40여년 전만 하여도 성남시 창곡동에도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한다. 현재도 남한산성 주변인 엄미리, 목현리, 김복리, 하번천리의 장승제와 광지원리의 해동화놀이, 불당리의 산신제(山神祭) 등이 있어서 남한산성과 그 주변에는 예로부터 다양한 민속이 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은 삼국초기부터 주변에는 토성(土城) 및 석성(石城)을 구축하고 적의 침입에 방비를 했던 군사적 요충지이다. 산성 안에는 조선조 영조(英祖), 정조(正祖), 혜종(惠宗) 때를 기해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기록에 의하면 1759년(영조 35년)에 성내 남동에 614호에 2,246명이 살았고, 성내 북동에 462호에 1,862명이 거주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당시 성안에만 1,076호에 4,108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광주군의 총 인구는 11,713명으로서 남한산성은 광주군 전체의 30%가 넘는 인구밀집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다. 1789년 정조13년에는 성안에 1,044호에 3,631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1836년 혜종 2년의 인구는 남한지(南漢誌)에 의거하여 1,117호에 4,353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광주군내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던 남한산성은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오래도록 전승이 되어 온 것이 남한산성 도당굿이다. 남한산성 성내에는 시조 온조왕묘(溫祖王廟)와 성황당(城隍堂), 여단(礪壇)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남한산성을 축조하다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처형을 당한 이회장군(李晦將軍)과 그 부인을 도당신으로 모시고 그 넋을 위로하는 도당제를 지내기 이전부터 성황굿이나 여단제 등이 전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여단제(礪壇祭)는 주로 고을의 수령(首領)에 의해

서 지내졌는데 마을에서 떨어진 산 중턱에 여단(礪壇 =돌이나 흙을 쌓아 제를 지낼 수 있게 만든 단이나 이를 위한 당집을 의미하기도 한다)을 조성하고 매년 정월 열 나흘 날에 몸을 정결히 한 후 제물을 진설하고 제를 모시는 행위이다. 이 여단제는 비명횡사(非命橫死)한 원귀(冤鬼)들을 위로하기 위한 의식으로 그 원귀의 종류를 적고 있는데 1.맹수나 독충에 죽은 사람, 2.얼어죽은 사람, 3.굶어죽은 사람, 4.전쟁터에서 죽은 사람, 5.자살한 사람, 6.압사(壓死)당한 사람, 7.애를 낳다가 죽은 사람, 8.지진이나 천재지변으로 죽은 사람, 9.떨어져 죽은 사람, 10.후손이 없이 죽은 사람, 11.칼에 찔려 죽은 사람, 12.물에 빠져 죽은 사람, 13.불에 타 죽은 사람, 14.도적에게 죽은 사람, 15.형벌을 받아 죽은 사람, 16.병이 들어 죽은 사람, 17.납치되어 죽은 사람, 18.여자로 태어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의식이다. 부여 동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마을의 주민 중에서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서 제판을 선출하고 매년 정월 열 나흘 날 밤에 제를 올리고 있는데 남한산성의 역사적, 지리적 위치를 살펴볼 때 위에서 언급한 18가지 원귀의 종류가 고루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단제가 이 지역에서 때마다 치러지던 중요한 의식으로 보여진다.이렇듯 성안에 남아있던 성황당이나 여단 등의 흔적으로 보아서 남한산성 안에서는 오래 동안 제의 성격을 띤 무의식(巫儀式)이 행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한때는 일제의 문화말살정책(文化抹殺政策)과 식민지민(植民地民)의 뿌리 끊기 음모의 결과로서 흑세무민(惑世誣民)의 미신(迷信)으로 몰리기도 하고 더욱 종교적 사대주의에 기인한 박해로 인해서 중단이 되기도 했던 도당굿은 남한산성 축조의 중임을 맡았으나 지정된 기일 안에 성을 쌓지 못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수가 된 이회장군(李晦將軍)과 그 부인 송씨(宋氏)의 넋을 위로하는 곳이다. 이회장군을 모시고 있는 청량당은 남한산성 내 일장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의 서

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도당(都堂)국은 한 지역과 연관이 있는 인물이 사후(死後)에 그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 인격신(人格神)으로 추앙되어 받들어 지는 성격을 띠고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많은 도당의 주신(主神)은 거의가 인신(人神)으로 상징되고 있으며 도당을 섬기는 이유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남한산성의 도당신 역시 이회장군과(사진2) 장군의 성역을 돕다가 남편의 참형소식에 강물에 몸을 던져 순절한 송씨부인과(사진3) 소당(小堂=침실) 유씨부인(사진4), 벽암대사(碧岩大師)(사진5), 백마신장(白馬神將), 오방신장(五方神將), 대신(大神)할머니, 군웅, 별상 등 남한산성과 관련이 있는 인물과 무속신을 함께 모시고 있다.

이회장군은 조선조 인조 2~4년(1624~1626) 사이에 지세가 험악한 산성 동남쪽의 축조 공사를 맡아했는데 위낙 지형이 험해서 제 날짜에 공사를 마감하지 못하자 장군을 시기하는 간신의 무리들이 장군이 주색잡기에 빠져서 공금을 탕진했기 때문이라는 모함으로 인해 서장대 앞뜰에서 즉결처분으로 참수를 당하게 되었다. 이때 장군은 구차스런 변명을 하지 않고 내가 죄가 없으면 죽는 순간에 매 한 마리가 날아오리라. 만일 매가 오지 않으면 내 죄가 죽어 마땅하지만, 매가 날아오면 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참형을 당하는 순간 매 한 마리가 날아와 서장대 앞에 있는 바위에 앉아 죽임을 당하는 장군을 바라보고 슬피 울었다고 하여서 그 바위를 매 바위라고 불렀으며 청량당 안에 매 바위의 화분(탱화)을 그려서 장군의 영정 옆에 보관하고 있다. 이회장군은 성의 축조를 완고히 하기 위해서 처참을 삼남지방으로 보내 축성 비용을 모금케도 하였는데 축성자금을 마련하여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장군의 비보를 들은 처참이 비분을 금치 못하고 송파(松波) 강머리에 몸을 던져 순절하고 말았다고 하여 당 안에 같이 모셔져 있다.

남한산성 도당국은 송씨부인과 침실 유씨부인이 물에 빠져 죽은 정월 초이튿날에 청량당의 앞에 있는 수

령 350여 년이나 된 향나무 앞에서 주변에 만신(萬神)들에 의해서 의식이 행해지던 것으로 전해진다. 도당국의 시원(始原)은 이회장군과 부인 송씨, 소실 유씨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청량당(마을의 주민들은 대감당(大監堂)이라고도 부른다)을 축조하고 그 안에 영정과 신위(神位)를 모신 후에 향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남한산성 도당국의 역사는 350여 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까지도 청량당 앞에는 당지기(=巫堂)가 살고 있던 두 칸 짜리 집이 있었으나 일제에 의해 도당국이 강제로 중단되자 당지기에 의한 독제(獨祭)형태로 명맥이 유지되어 왔으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지시에 의해서 당집마저 헐리어 도당국의 모든 흔적은 사라져 버렸다.(산성리 604번지 거주 석익균옹 증언, 남, 84세).

350여 년이나 전해지던 도당국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현재 지역에서 일고있는데 남한산성 주변에 있는 성남, 광주, 송파, 잠실 등의 무격(巫覡)들의 모임인「남한산성 대동굿 보존회」(회장: 남근만, 47세, 성남시 신흥동 거주)에 의해서 1991년 8월 28일부터 매년 거르지 않고 제가 거행되고 있다. 남한산성 대동굿 보존회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5년 동안은 남한산성 내 주차장에서 행사를 해 오다가 청량당의 동편에 있는 서장대에서 대동굿을 진행하면서 남한산성 문화제를 열어 3회째 행사를 거행했다. 보존회와 산성 내 상인 및 주민들은 청량당(淸涼堂)에서 제를 올린 후 신목(神木=지역에서는 신목이라고 하지만 그 형태로 보아서 서낭임을 알 수 있다)을 받아 내려 모신 다음 대동굿을 거행하는 등 전승과 복원에 애쓰고 있다. 당시의 도당국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형태는 알 수가 없으나 경기도 지방에서 나타나는 도당국은 대개가 같은 맥으로 전승이 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징에 따르거나, 혹은 의식을 진행하는 무격(巫覡)에 의해서 약간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재현된 남한산성 대동굿은 강신무들에 의해서 거행이

되기 때문에 한양곳에서 보이는 열두거리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며 작두를 탄다. 현재는 청량당에 올라가서 먼저 제를 올린 후에 굿을 진행한다.

(南漢山城 大同祭 奉請祝文)

維 歲次 檀紀 四千參百參拾〇年 〇〇年 〇〇月 〇〇日

初獻官 〇〇〇, 亞獻官 〇〇〇, 終獻官 〇〇〇 感昭告于

顯 橫數大監 李晦將軍

附 碧岩大師

爲 國盡忠至誠 築造南漢山城廓

功勞至大 然爲名勝古蹟

施陰德爲 山城發展

萬歲遺傳 永慕慰靈

今而 庶羞祗薦 伏願奠獻

尙 饗

(2) 재수굿

2000년 1월 4일 남한산성 내에 있는 큰골 굿당에서는 광주군 광주읍에 거주하고 있는 무녀 허은영(여, 39세)의 단골인 경기도 과주에 사는 수양부리의 재수굿이 열렸다. 18시에 굿당에 모인 일행은 굿상을 진설하기 시작했다. 이날 굿에 참여한 무격은 남한산성 대동굿보존회장인 남근만과 허은영, 그리고 부천에 사는 박수김씨(38세)와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무녀 오씨(58세), 그리고 새로 기자가 된지 3개월 정도가 된 박수 등 5명이 굿을 맡았다. 상을 차리는데 소요된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였으며 무격들은 모두 상차림에 가담하였다. 상을 차리고 난 뒤 미리 부탁을 한 통돼지를 굿청 바깥에 진설하고 굿청 방문 앞에는 뒷전상을 차렸다. 제가집에서는 오누이가 참석을 했는데 상을 다 차리고 난 뒤 19시 30분 경에 저녁들을 먹고 20시가 되어서 먼저 남무 김씨가 굿상 앞에 장고와 징을 놓고 앉은부정을

쳤다. 앉은부정은 근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되었는데 부정을 시작한지 30분 정도가 지나서 남근만과 제가집 일행이 산신당에 올라가서 산신축원을 시작했다. 남근만은 산신당에 올라가서 제가집에 술을 따르고 촛불을 켜게 한 후 징을 치면서 산신축원을 했다. 이날 진행된 재수굿은 다음과 같다.

• 앉은부정(20:00~21:00)(사진7)

• 산신축원(20:30~21:00)(사진8)

• 산거리(21:00~21:40)

• 산거리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무녀 오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사진9)

• 불사굿(21:40~22:20)

• 산거리를 맡아 한 오씨 무녀가 신복을 갈아입은 후 굿상에 진설된 육류를 흰 종이로 가린 후에 불사굿을 진행했다.(사진10)

• 대신거리(22:20~23:00)(사진11~12)

대신거리는 이날 굿을 맡은 허은영이 맡아서 했다. 허은영은 내림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굿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단골 굿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신거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조상거리(23:00~23:35)

무녀 오씨가 치마, 저고리에 머리에는 끈을 두르고 조상을 놀였다.

• 상산/별상/신장/대감(23:35~01:10)(사진13)

남무 김씨가 대안주라고 하는 상산, 별상, 신장, 대감 굿을 맡아서 했다. 먼저 신복 위에 남천익을 입은 후에 삼지창과 월도를 들고 상산을 진행한 다음 별상을 잠시 놓고 나서 오방신장기를 들고 신장차령을 불렀다. 이때 반주는 여무 오씨가 장단을 치고 허은영이 바라를 쳤으며 남근만이 징을 쳤다. 이렇게 선율악기가 없이 하는 굿을 통맹이 굿이라고 하는데 이는 장단만을 통탕거리면서 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한다. 요즈음 들어서 악사를 대동한 굿은 보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통

탱이 굿이 보편화되었다. 이는 경제가 악화됨에 굿비가 적어지다 보니 굿에 참여하는 무격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 제가집에게 신장기를 뽐내해서 공수를 준 후 남부 김씨가 굿청 밖에 놓아둔 통돼지로 사슬을 세웠다.(사진14) 사슬을 세우고 난 뒤 굿청 안으로 들어와서 대감굿을 하고 나서 신복을 벗어 제가집의 팔에 얹어준 시간이 5일 01시 10분 경이었다.

● 뒷전(01:10~01:25)

여무 오씨가 징을 들고 굿청 문밖에 차려진 뒷전상 앞에서 징을 치면서 갓은 수비, 영산 등을 풀어 먹여 굿이 뒷탈이 없게 해 달라고 치성을 드리고 굿을 다 마친 시간이 오전 1시 25분 경으로 굿상을 진설하기 시작할 때부터 소요된 산은 7시간 30분 정도였다.

요즈음 들어서 광주군 소재에 있는 굿당에서 행하는 굿의 형태를 보면 전통적인 경기도의 굿은 보기가 힘들고 한양굿 12거리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으며 굿을 하는 모습도 과거와는 달리 시간을 많이 단축해서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예전과 같이 내림을 받고 나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내림을 주관한 신의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굿의 문서 및 절차, 춤사위, 장단, 굿상 차리는 법 등을 힘들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림굿 이후 단기간에 자신의 길을 택하는 무격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단기간에 굿을 배울 수 있는 한양선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신부모나 선생을 선택하여 나가는 것이다. 또한 신딸이나 신아들이 굿을 때는 경우 내림굿을 주관해 준 신부모에게 굿비를 갓다주거나 나누곤 했는데 이러한 경제적 종속관계를 벗어나려는 자구책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요즈음은 삼접이 혹은 사접이를 잡히고 굿을 하는 모습은 보기가 어렵고, 약사가 있다고 해도 피리 혼자서 굿을 담당해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4) 광주군 무속의 특징 및 성격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너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광주군은 마을마다 도당굿이라는 마을 공동체 신앙인 굿이 있어서 많은 세습화랭이나 단골, 혹은 기능세습무들에 의해서 굿이 이루어졌다. 특히 경기도의 동부에 자리하고 있는 광주군은 경기무악의 한 유파를 창시한 곳으로 이 곳을 기점으로 서부인 수원, 화성 등과는 또 다른 형태의 굿계를 가지면서 오랜 시간동안 무의식인 굿이 전승이 되어왔던 곳이다. 그러나 40~50년 전까지도 마을마다 정월이나 음 2월, 혹은 음 9월과 10월에 대동이 모여서 마을굿을 하던 광주군에서는 이제는 대동굿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도당굿에서 선학을 한 화랭이나 단골들이 자연도태 되어버린 지금은 경기굿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다. 더욱 요즈음 들어서 10년 이상을 학습을 해야만 겨우 그 멋을 알 수 있다는 경기굿보다는 쉽게 배워 굿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랫가락 풍의 한양굿을 선호하는 많은 무격들이나, 작두타기 등 관심끌기용 행사성 효과만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경기굿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경기도당굿보존회의 활발한 활동과 남한산성 대동굿보존회 등 일부 단체의 전통 경기도 굿의 복원노력이 있어 앞으로 기대해 볼만하다. 과거의 굿판에서 굿을 보며 함께 즐거워하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재담을 해가며 질펀하게 놀던 전통 경기굿을 재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 무격들에 의해서 재현을 한다고 해도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광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廣州郡誌』
- 하주성 『경기도의 굿』 1999, 경기문화재단
- 서울시 송파구 1994, 『송파구지』
- 이해구 『무악연구』 1959, 사상계 7월호

6. 구비 전승

1)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구비전승(口碑傳承)은 구비문학(口碑文學) 혹은 민속문학(民俗文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말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말과 말을 통해서 전승되는 특징을 지닌다. 설화, 민요, 판소리, 무가(巫歌), 수수께끼, 속담 등이 구비전승에 속하는데, 그 중 설화는 일반적으로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뉜다. 광주군 구비전승 조사에서는 여러 장르 가운데 설화에서 전설을, 그리고 민요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광주군의 구비전승은 『광주군지』에 다수 소개되어 있고, 그밖에 광주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광주문화』 등 몇몇 자료에도 간간히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소개된 구비전승은 다시 조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 까닭은 조사의 목적이 기존에 소개되지 않은 구비전승을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에서는

첫째, 지명유래 및 역사유적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기존에 조사되지 않은 마을을 중심으로 읍면별로 3개 마을씩을 조사지로 선정하여 2000년 1월에서 2월초 사이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둘째, 구비전승의 지역적 특성 파악을 위해서 제보자는 대대로 그 마을에서 거주해온 토박이에 한정하였고,

셋째, 기본적으로 구비전승이 선대에서 후대로, 입에서 입을 통해 전승되면서 첨삭과 윤색이 가해지는 특성

을 갖는다는 점에서 제보자와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연내용의 기술에 있어서는 조사자가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질문은 제외하였으며, 제보자의 구술 내용은 가감없이 기술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채록된 구비전승이 조사마을이 아닌 타마을과 관련된 경우엔 조사마을 부분에 정리하였다. 한편, 전설의 경우 역사적 사실이나 개별적 증거물과 관련되기에 가능한 시대를 명기해 놓았으나 시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근세 이전’으로 하였다.

(2) 조사 현황 및 성과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읍면별로 3개 마을씩 모두 24개 마을을 조사지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구비전승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마을은 13개 마을에 불과했다. 그나마 전설의 경우엔 지명이나 자연물의 유래와 관련된 단편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구비전승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상기할 때, 주민 대부분이 그 마을과 관련된 전설을 이야기할 기회를 점차 상실해감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역사유적과 관련된 전설로 경기도유형문화재 제 88호로 지정된 도척면 유정리의 ‘석불좌상’과 경기도기념물 제 166호로 지정된 중부면 엄미리의 ‘의안대군묘’와 관련된 전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엄미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 나라의 정기를 말살하려던 시도와 관련된

〈읍·면별 조사 현황〉

읍·면	조사마을	제보자	전설	민요
광주읍	송정 2리	안태경(남, 65세, 399번지)	1	
		정태성(남, 67세, 38-10번지)	1	
남종면	검천 2리	문태성(남, 83세, 408번지)	1	
	귀여 1리	민창순(여, 73세)		2
	귀여 2리	윤제경(남, 66세, 335-1번지)	1	
도척면	유정 2리	장병재(남, 80세, 222번지)	2	
		한중석(남, 63세, 184-2번지)		2
		정옥희(여, 71세, 222번지)		1
실촌면	만선리	이주필(남, 72세, 379-1번지)	1	2
	삼합리	이현수(남, 74세, 316번지)	1	
		김창기(남, 76세, 90-2번지)	2	
오포면	추자 1리	이상숙(남, 66세, 381번지)	3	
중부면	엄미 1리	유기영(남, 66세, 219-7번지)	1	
	엄미 2리	이주영(남, 79세, 701번지)	1	
초월면	쌍동 1리	허경희(남, 67세, 152번지)	1	
		허운(남, 79세, 125번지)	1	
		이건순(여, 83세, 132-2번지)	1	
		이건분(여, 71세, 125번지)		1
		황복수(여, 79세, 125번지)		2
퇴촌면	관음 3리	최재병(남, 71세, 관음 3리 128-1번지)	2	
	오리	안호명(남, 62세, 오리 187-3번지)	2	

전설도 채록할 수 있었다.

민요 역시 노랫가락이나 타령류와 같은 유희요가 다수를 이뤘다. 반면 공동노동을 하며 부르던 김매기소리나 배를 찌며 부르던 배틀가 등의 노동요는 공동노동이나 길쌈을 행한 지 오래된 까닭에 기억하는 이가 없었다. 일생의례나 기원의식과 관련해서 불려지던 의식요 또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노동요나 의식요가 현장성이 강한 기능요에 속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사에서 채록한 구비전승은 전설 22편과 민요 10편이며, 읍·면별 조사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읍·면별 조사 현황

(1) 광주읍

가. 송정리 '똥골'

□ 소재지 : 광주읍 송정리

□ 시 대 : 근세 이전

□ 종 류 : 전설

□ 내 용

“서낭당이 넘기 무서워 똥을 누던 똥골”

저기 회덕리서 이리루 넘어오다 보던 서낭당이고개가 있어. 지금 도로 공사하는 데. 서낭당이고개 넘어가

는 데 그리 들어가면 똥골이라고 있어. 옛날부터 '똥골 똥골' 그러고 내려왔어. 거기 골짜기가 크지도 않고 좁아. 조붓하게 생겨가지고 똥누기 좋으니까 다들 똥누고 그래서 똥골이라고 그러지. 그래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엔 서낭당이에 서낭이 있었어. 지금은 집이 있지만, 그전엔 집도 없고 그랬어. 옛날에 서낭당을 넘어 가자면 거기가 으속하니까 겁이 나잖아. 무서우니까 똥이 마렵잖아. 그래서 거길 지나기 전에 똥을 뉘서 똥골이라고 부르지.

▶ 제보자 : 정태성(남, 67세, 송정 2리 38-10번지)

나. 정지리 '장사바위'

- 소재지 : 퇴촌면 정지리
- 시 대 : 근세 이전
- 종 류 : 전설
- 내 용

"장사가 오줌누던 장사바위"

퇴촌면 정지리. 거기 가면 우리부터 21대조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거기가 사두혈(蛇頭穴)이거든. 그래서 그전부터 석물 같은 걸 못했어, 뱀혈이라고 해서. 그런데 산소 있는 꼭대기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정지리선 '장사바위' 라고 부르는데, 거기 발자국이 이것만큼씩 된다고. 장사가 밟고 올라간 발자국이 드문드문 이렇게 크게 있다고, 바위에. 그래 그걸 장사바위라고 그러는데, 고 밑에도 덩어리가 이것만한 바위가 하나 떨어져 있어. 장사가 눈 오줌에 바위가 쭉 갈라졌다고 그러지. 거기 오줌 때문에 구멍도 패여 있어. 옛날 노인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 뭐.

▶ 제보자 : 안태경(남, 65세, 송정 2리 339번지,
퇴촌면 정지리에서 이주해옴)

(2) 남종면

가. 검천리 '文昌門孝子碑'⁸²⁾

- 소재지 : 남종면 검천리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전설
- 내 용

"얼음 조각 타고 강을 건넌 효자"

요기 효자비가 있다고. 그 분이 집은 여기예요, 저 꼭대기 집 있는 데가 예전에 그분이 살던 집터였다고. 이제 그분이 어딜 갔다가 제사가 돌아와서 집에 오는데, 그땐 겨울이라 얼음이 얼었어요. 그래 얼음이 언줄 알고 밤에 그 양반이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오니까 물이 풀렸더라 그말이에요. 물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건너다 보니까 자기네 집인데 불만 뽕뽕뽕 하더라. 앉아서 건너다보고 있는데, 얼음이 슬레트작처럼 드문드문 떠내려오더니 하나가 스리리 와닿더라고. 제사에는 가야하니까, 그 양반이

"아, 하얀간 올라타보자"

그래 올라탔더라고. 올라타니까 이게 서서히 이쪽편으로 붙더라고. 거기서 여기가 한 천메다 잡아야될거야. 그래 저기 모래톱에 건너가 닿더라고. 그렇게 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얼음썩이 삼월달까지 녹지않고 남아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양반이 효자니깐 얼음썩이 건너와서 녹지 않고 남아있구나' 하고 효자비를 여기다 세운거예요. 그 양반 아버지 산소가 저기 있었는데, 노다지 와서 절하고 그래서 무릎 꿇은 때가 잔디가 자라질 못했대요.

▶ 제보자 : 문태성(남, 83세, 검천 2리 408번지)

나. 귀여리 '제청말 묘자리' 와 '절터'

- 소재지 : 남종면 귀여리
- 시 대 : 근세 이전

82) 묘자리 전에는 '孝子文昌門之碑' 라고 쓰여있으며, 후면에는 '任郎文昌門 江城君益漸之後文原君至十一代孫也 以孝行卓異 上之七年辛丑因曹啓 給復' 라고 적혀있다.

□ 종 류 : 전설

□ 내 용

“호랑이혈에 지은 절”

옛날에 체청말에 대장이란 분이 살았대요. 그분한테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대장이 돌아가시니까 산소자리를 잡아야되잖어. 그래 지관이 와서

“이 자리에다 쓰면은 집안이 흥한다”

고 그러면서 묘자리를 잡아주었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묘자리 잘잡아주면 지관에게 돈 주는게 있지. 그런데 그 집에 천리를 가는 노새가 있었답니다. 그래 지관한테 대장님의 천리노새를 주기로 했는데, 산소 쓰고 나니까는 아들 삼형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하기를

“아버지 타고 탕기던 천리노새를 주면은 너무 억울하다”

천리노새가 요새로 치면 백만원이 가면 백만원을 주자 그렇게 오늘 중으로 약속을 하는걸 소변을 보러가다 지관이 들었어요. 패썹하잖아요, 약속을 안지키니깐.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갈 적에

“묘자리 옆에 절을 하나 지으면은 더 좋다”

“절을 짓고 매일 쇠불이 소리를 내면은 아주 집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고 그랬대요. 중이 화가 나서 망하라고 그런거지. 아들이 생각하길 거기다 묘를 쓰면은 잘될 것 같단 말이야. 거기다가 씨네서 산소를 썼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씨네서 좀 더 잘될라고, 줄건 안주고 거기다 절을 짓어요. 그러니깐 중들이 맨날 종을 칠거 아난가. 그래 묘지가 호랑이혈이거든. 요놈(호랑이)이 와서 뭐 잡아먹을라고 지키고 섰으면 종이 ‘땅땅’ 울리니 견딜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점점 묘지의 운이 다 없어지구. 결국 그 절에 빈대가 성하더니 절도 망하고 유씨네도 그렇게 잘되지 않았다는 전설이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거지.

▶ 제보자 : 윤재정(남, 66세, 귀여 1리 335-1번지)

다. 귀여리 민요

① 방아타령

□ 소재지 : 남종면 귀여리

□ 종 류 : 민요

□ 내 용

오다가다 만난 임은

정은 어이 깊어

넌지 생각 가고 또 생각

가니 사귄 것이 후회로구나

이루해 또 다시 임 만나면

에헤라 연분이로다

에헤영 에헤야 에헤야

아라 우이겨라 방아로구나

절반이 넘어서 썩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해

할아버지가 앵도라졌네

열씨구나 좋구나

하늘천자 따지 땅에 집우자로 집을 짓고

날일자 연창문에 달월자로 달을 놓고

에헤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아라 우이겨라 방아로구나.

▶ 제보자 : 민창순(여, 73세, 귀여 2리)

② 창부타령

□ 소재지 : 남종면 귀여리

□ 종 류 : 민요

□ 내 용

어화 어화등등 내 사랑아

일월에 꿈이로구나

모두다 잊어버려라 꿈이로다

나를 싫다고 나를 박차고

나를 마다고 가는 사랑

잊어야만 옳을 줄을

나도 변연히 알면서도

어리석은 미련이 남아
그래도 못잊어 한이로다
얼씨구 지화자자가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다

▶ 제보자 : 민창순(여, 73세, 귀여 2리)

(3) 도척면

가. 유정리⁸³⁾ 石佛坐像

□ 소재지 : 도척면 유정리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전설

□ 내 용

“충알도 괴해간 영험한 미륵불”

우리도 내력을 확실히는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고. 우리 조상이 여기 5-6대 사는데, 정확히 언제 지는 아는 사람이 없어. 전해들은 얘기로는 저기 저 뒤에 있는 밭에서 석불좌상을 찾아서 일루 모셔왔대요. 내가 알기로는 여기 옛날에 조진사라는 분이 살았어요. 그 분의 집터가 조 된데, 이게 그 분이 다 이룩해신거야. 옛날에 진사문 동네선 큰 저거지. 그 분이 밤에 현몽을 하셨는데,

“석불좌상이 밭에 있으니까는 모셔서 여가다가 안치를 해라”

라고 했대요. 그래 그 분네가 자기네 밭에 석불좌상이 있다고 해서 모신거야. 그 후손이 우리하고 같이 살았었다고. 지금은 다들 외지로 나갔지. 처음엔 그 양반들이 미륵님을 섬겼는데, 이제 주민들이 섬기는 거야. 수호신이지.

그런데 우리가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기다 미륵님을 모시고, 그 무서운 난리를 치렀잖아. 8 15, 6 25 이런 난리를 치렀는데, 이 동네 사람은 군인 가서

하나도 상한 사람이 없어. 여기가 다 폭격 맞아서 망가진 데야, 이 동네가.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더 믿게 되고. 또 한가지 내가 본 거로는 인민군이 여기 와서 엄청 많이 쏘았어요. 들어와가지고 미륵님한테 총을 쏘는 거야.

“이게 뭐냐”

고 총을 쏘더라고. 그런데 총알이 불발이 되고 안나가. 우리가 목격해 본 거야. 계속 쏘도 불발이 되고 안나가잖아. 그래 우리가 보고 그랬지.

“그건 왜 쏘슈. 그 분이 뭐래니까. 당신네가 암만 그걸 안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옆이 홀랑 다뿔어. 그래도 미륵님만 남았었어. 또 한가지 있어. 이 동네는 미륵님 앞애다 집을 지른 혈여진대, 미륵님이 있어서. 미륵님을 가린다고 해서 미륵님이 무너뜨린대. 그래서 미륵님 앞으로는 절대 집을 안져요. 옛날 어른들 말로는 미륵님이 사공이래요, 사공. 말하자면 배 나가는 사공 있잖아. 그래 사공의 앞을 가리면 배가 못나가잖아. 그래서 앞을 막지 못하는 거야.

▶ 비 고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 88호(1979년 9월 3일 지정)

▶ 제보자 : 장병재(남, 80세, 유정 2리 222번지)

나. 유정리 ‘왕바위’

□ 소재지 : 도척면 유정리

□ 시 대 : 근세 이전

□ 종 류 : 전설

□ 내 용

“왕이 쉬어간 왕바위”

이 동네 저기 저 위에 바위가 하나 있었어. 지금은 캐버렸지만 예전엔 바위가 있었어. 옛날부터 그 바위를

83) 조사지인 유정 2리는 ‘미륵동’으로 불린다. 이렇게 불리는 까닭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88호로 지정된 ‘광주 유정리 석불좌상’ 때문이다. 광주군 출판이지 ‘지명유래’에는 미륵동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노상에 자리잡고 있던 석불을 조선조 광기 신사 조희백의 아내가 잘 모시지 않자 날지 못하던 독남을 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던 이후부터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되었으니 다음이름도 ‘미륵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왕바위’라고 했었는데, 왜 왕바위라고 하나면 어느 왕 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이 마을을 지나갔대요.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다리도 아프고 쉬고 싶어서 둘러보니깐 이렇게 앉기 좋게 생긴 바위가 있는거야. 그래 거기서 한참을 쉬어 가셨대. 그 바위에 왕자를 새겨놓았거든. 그래서 왕바위라고 부르는 거야.

▶ 제보자 : 장병재(남, 80세, 유정 2리 222번지)

다. 유정리 민요

① 상여소리

□ 소재지 : 도척면 유정리

□ 종 류 : 민요

□ 내 용

일락서산 해가 지구
일출동녘 해가 뜰제
우리 인생 한번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벽에 걸린 장닭이 울면
이때 저때 오시려나

※ 상여가 갈 때 요령을 흔들면서 불러야 흥도 나고 가사가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앞부분만 간략히 들려줌.

▶ 제보자 : 한중석(남, 63세, 유정 2리 184-2번지)

② 달구질 소리

□ 소재지 : 도척면 유정리

□ 종 류 : 민요

□ 내 용

어헤 에헤이 에호리 달궁
일락서산 해가 지구
동녘 돌 적에 해가 뜰제
에호리 달궁
작년 이때 우피 금 때
한번 가구 못 올 인생
에호리 달궁

댓장으루 이불 삼구
손구루마로 요를 삼어
에호리 달궁
이네 산에 묻힌 인생
어느 때나 돌아오나
에호리 달궁

※ 달구질을 하면서 불러야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앞부분만 간략히 들려줌.

▶ 제보자 : 한중석(남, 63세, 유정 2리 184-2번지)

③ 노랫가락

□ 소재지 : 도척면 유정리

□ 종 류 : 민요

□ 내 용

하늘 걸은 약한 몸에는
황소 걸은 병이 들어
임 오시라고 편지했드니
약만 쓰라고 답장왔네
넌과 같이 냉정한 남아
생각하느니 내가 끊지
못민겠구려 못민겠구려
남자의 마음을 못민겠네
돌아서면 잊을 줄을
나도 변연히 알면서도
어리석은 여자의 마음
알면서도 그대로구나

▶ 제보자 : 정옥희(여, 71세, 유정 2리 222번지)

(4) 실촌면

가. 만선리 ‘삼선댕이’

□ 소재지 : 실촌면 만선리

□ 시 대 : 근세 이전

□ 종 류 : 전설

□ 내 용

“세 신선이 만나 노닐던 삼선댕이”

여간 만선리고, 조 안으로 이선리가 있어. 이선리는 신선 둘이 살았다해서 이선(二仙)인데, 내선(內仙)과 외선(外仙)이야. 조기 이선리 가는 데 개울 있고 둘이 있는 데 ‘삼선댕이’가 있어. 들이름이 삼선댕인데, 말하자면 세 신선이 다니던 곳이야. 거기 두 신선과 여기 신선이 삼선댕이서 만나 노는데, 언제든지 여기 신선이 제일 늦게 간다는구려. 그래서 제일 늦게 온다해서 늦을 만(晩)자를 써서 만선, 이선리는 두 신선이 있어서 이선이라고 한다지 아냐.

▶ 제보자 : 이현수(남, 74세, 만선리 316번지)

나. 만선리 ‘홍가들’

□ 소재지 : 실촌면 만선리

□ 시 대 : 근세 이전

□ 종 류 : 전설

□ 내 용

“홍가들 우물에 묻힌 금베들”

요 앞에 홍씨네가 살던 데가 있어요. 예전엔 거기 여러 집이 살다가 죄 없어졌어요. 그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참 좋았어요. 여기 면내 들어와서는 제일 좋다고 그랬던 거예요. 겨울에는 이렇게 김이 나고, 여름에는 차가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폐쇄가 되고 그랬는데, 거기 옛날에 금베들이 묻혔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옛날에 베 짜는 베들이 금으로 만든 게 묻혔다고 그래요. 홍가들이 여기서 옛날에 제일 부자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들 이름도 ‘홍가들’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 자리에 공장이 들어서서 우물이 망가져서 사라졌어요. 그 우물자리가 아니라 그 옆 어디라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홍씨들이 망하고 나갈제 거기 다 금베들을 묻고 나갔다고 그래요.

▶ 제보자 : 이주필(남, 72세, 만선리 379-1번지)

다. 晩仙里 민요

① 장부타령

□ 소재지 : 실촌면 만선리

□ 종 류 : 민요

□ 내 용

아니 아니 노진 못하리라
 백구여 나질 마라 너를 잡으려니라
 서산에 버렸으니 너를 쫓아서 여기 왔네
 나물 먹구 물 마시구 팔을 비구서 누웠으니
 대장부야 살림살이는 요만하면 만족하지
 일천간장 맺은 설움은 부모님 생각뿐이로다
 열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구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제보자 : 이주필(남, 72세, 만선리 379-1번지)

② 노랫가락

□ 소재지 : 실촌면 만선리

□ 종 류 : 민요

□ 내 용

자룻아 말 놓구 창쓰질 마오
 만인 장줄이 간을 앤다
 장창은 어데다 두고
 두르나나 창검이요
 아들을 내다 품고
 돌아든다고 장판교라

▶ 제보자 : 이주필(남, 72세, 만선리 379-1번지)

라. 삼합리 ‘국정포 야포 지음동’

□ 소재지 : 실촌면 삼합리

□ 시 대 : 고려시대

□ 종 류 : 전설

□ 내 용

“공민왕이 피신처로 삼았던 삼합리”

여기가 국정포고, 요기서 길 건너 땀이 야포동이고, 지음동은 요 밑 동네가 지음동이에요. 삼합리가 세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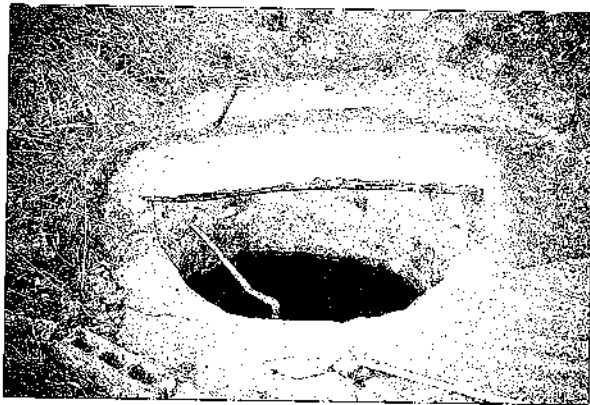


사진 30. 삼합리 국정포의 국정(國井)

물이 합쳐져서 삼합리예요. 공민왕이 이제 여기서 피신을 해실 적에 식수를 이 동네 와서 자셨대요. 국정포라고 우물이 있어요, 시방은 거의 없어지고. 예전엔 그 물이 식수가 좋고 근량이 많이 나갔대요. 우리는 무계를 달아보고 그런 적은 없었으나 중량이 제일 많이 나가니까 주로 그 물만 잡수셨대요. 그래고 야포동이 풀무곶이라고 그래요. 풀무곶이라고 하는데, 그 동네서 무기를 맨 들었대요. 옛날에는 대장장이가 풀무를 불어서 썼거든.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거기를 가서 보면은, 왜 옛날 풀무 잘하고 그럴 때 쇠통이라고 그런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너머 지음동이라는 거기서는 산등에 올라서면 저 아래가 훤히 보이고 그런다고. 그래서 진을 치고 했다고 해서 진굴이라고도 그래요. 또 가막재라는 데가 있어요. 가막재 어디 무슨 소금덩어리가 있는데, 공민왕이 와서 쌓아논 소금이 있답니다. 거기 불을 댕서 길을 꺼명게 만들었대거든. 뭐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 제보자 : 김창기(남, 76세, 삼합리 90-2번지)

마. 삼합리 '가막재'

- 소재지 : 실촌면 삼합리
- 시 대 : 근세 이전
- 종 류 : 전설
- 내 용

"기와를 굽던 가막재와 빈대로 망한 절"

가막재가 기와 굽던 데가 있어서 가막재예요. 거기도

옛날에 기와가 한가마 붙었다는데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다 이렇게 나가는 능선, 그 너머 여주 산북면에 안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옛날에 거기 절이 엄청 많았대요. 인제 절에 지붕을 올릴 적에는 스님들이 어떻게 숫자가 많은지 가막재에서 기와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팔미리를 해서 올라갔대요. 거기가 몇 킬로가 되는데. 그래 그 절이 왜 망했냐면 빈대로 망했대요. 아, 빈대가 기둥토막같이 있대요. 몇 십년만에 가보니까 웬 없던 아름다리 기둥이 하나가 섰는데, 그대 전부가 빈대였대요.

▶ 제보자 : 김창기(남, 76세, 삼합리 90-2번지)

(5) 오폐면

가. 추자리 '벼락바위'와 '도둑놈바위'

- 소재지 : 오폐면 추자리
- 시 대 : 근세 이전
- 종 류 : 전설
- 내 용

"지네가 벼락맞아서 벼락바위, 음흉하게 생겨서 도둑놈바위"

'벼락바위'는 유래되는 말로는 벼락이 쳐서 지네를 죽였다고 그래요. 옛날에 애기로는 큰 지네가 건너가다가 하늘에서 그거 죽이는 벼락을 쳐서 죽였대요. 지네가 죄를 많이 지었나보지, 벼락을 친 걸 보니. 그래서 벼락바위다 그렇다고 그래요.

요기 또 바위가 흉상맞게 생긴 바위가 있어요. 여기 오폐라는 땅이요, 다 돌이 없는 민산이예요. 그런데 고기만 돌이 음흉스럽게, 말하자면 내리쏘아 있었거든요. 시방도 여기 있구요. 그래 시커멓고 우중충한게 도둑놈같이 생겼으니 '도둑놈바위'라고 그러지요.

▶ 제보자 : 이상숙(남, 66세, 추자 1리 381번지)

나. 추자리 '배님이고개'

- 소재지 : 오폐면 추자리

□ 시 대 : 근세 이전

□ 종 류 : 전설

□ 내 용

“배를 매어두던 배님이고개”

그전 유래로는 이 오포(五浦)가 다섯 오자에 물가 포자거든요. 그래 옛날에는 여기가 전부 물이었대는 거예요.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는 여기가 오포래는 땅 자체가 바다였던거죠. 문형산 등성이 넘어가면 저 등성이가 하나 있어요. 그걸 ‘배님이’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인제 여기 오포가 바다니까는 거기가 제일 높다란 데 아녜요. 그래서 아마 거기다 배를 매놔두고 띄우고 했던 모양이죠. 거긴 물이 얕을 거 아녜니까. 그러니까 그 골짜구니로 사람이 배를 끌어올리다시피해서 땀겨보내고 땀겨오고 했던 모양이죠. 여기 문형 2리에 참바대라고 있어요. 진해촌(眞海村)이라고도 하는데, 한문으로 따지면 참 진자, 바다 해자, 촌락 촌자 그래 진해촌이에요. 옛날로 내려오는 지명인데, 오포 전체가 바다였으니까 거기도 바다였을 거 아녜요. 그러고 보면 거기는 여기보다 더 얕은 데 아니예요.

▶ 제보자 : 이상숙(남, 66세, 추자1리 381번지)

다. 추자리 ‘절터’

□ 소재지 : 오포면 추자리

□ 시 대 : 근세 이전

□ 종 류 : 전설

□ 내 용

“빈대로 망한 절”

여기 기도원 위에 꼭대기에 절터라고 있어요. 그래 그 골짜구니 이름이 절터골이야. 시방 가도 터는 분명해요. 뭐 유래로는 그전에 할머니가 얘기하던 소리로는

“그 절터는 빈대로 망했다더라”

그러시더라구. 그래 할머니가 얘기하시는 거는 거기 가서 상기둥 있던 데 돌을 찍어서 뉘새를 맡으면

“빈대뉘새가 난다”

그러더라구요. 할머니도 들은 얘기죠. 보신 얘기는

아니니까. 여하튼 중이 시주를 나갔다고 하면 대웅전 상기둥에 거기 가서 빈대가 빨갭게 매달려 있었대니까. 그래 구렁이나 이런 거로 알고서는 나가자빠지고 나가자빠지고. 빈대가 나와서 쪽 붙어있으니깐. 그놈이 비늘 같이 생겨가지고서 사람을 놀래키는거야.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못해고 나와서 망가졌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 제보자 : 이상숙(남, 66세, 추자 1리 381번지)

(6) 중부면

가. 엄미리 ‘장사바위’

□ 소재지 : 중부면 엄미리

□ 시 대 : 근세 이전

□ 종 류 : 전설

□ 내 용

“역새풀에 목을 베인 장사바위”

여기 ‘장사바위’가 있어. 여기서 안보여. 장사바위가 어디 있냐면, 저기 저 높아요. 산을 넘어가야돼, 회소골 넘어가야돼. 그래 생긴 게 우뚝 서있어. 왜정 때 장사가 날라고 하는데, 모가지를 잘랐다 소리가 있어요. 왜놈이 한국 인재를 못나게 하기 위해서 무슨 혈을 박았느니, 뭐 어쨌느니 그런 얘기 있어. 말뚝을 박았다 그러잖아. 그래 장사가 나면 큰일이니까, 장사가 못나도록 바위를 잘라버린거지. 큰 바위에 이만한 바위가 올라 앉어있어요. 돌이 몸뚱이처럼 이렇게 되고, 위에 모가지 모양 이렇게 얹혀있는 거를 그전에 그걸 역새풀로 목을 뺐다는거야. 칼로도 안잘리고 뿔로도 안잘리는데, 역새풀로 자르니까 잘라지더라. 그전에 왕서방네, 여기 굴뚝고개라고 굴뚝같이 좁으니까 굴뚝고개라고 했는데, 거기 묘에도 왕인가 장사가 날라고 그러는데, 일본놈이 와서 혈을 꿇고. 혈을 꿇은 산소는 지금 없고. 거기까 무슨 혈이 좋은 가봐. 혈을 꿇어놓고 쇠말뚝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 제보자 : 유기영(66세, 엄미 1리 219-7번지)

나. 엄미리 '의안대군묘'

- 소재지 : 중부면 엄미리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전설
- 내 용

"명정(銘旌)이 선택한 애기능"⁸⁴⁾저 양반(의안대군) 돌아가시면서 바로 여기다 묘를 쓸 수가 없지. 왜 그러냐면 형님한테 칼에 맞아 돌아가신 분인데, 태종대왕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양반을 시해를 했지 않습니까. 어디 그때 당시엔 아무데나 갖다 내다버리면 그걸로 끝나는거지. 그렇잖아요. 그래 세종대왕이 이 양반의 조카니까, 가만히 생각하길

"이 분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종실사람들을 아버지가 아무 죄도 없이 시해를 했으니까, 제대로 산소를 써서 보존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묘를 옮겼지. 원래는 왕자비 심씨가 먼저 돌아가서 여기다 산소를 썼어. 아마 옛날엔 심씨네 산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지.

그래서 묘를 썼었는데, 원래는 여주쪽으로 산소를 끌려고 그랬지. 강변나루 건너와서 광주땅으로 올 적에 여기와서 쉬는데, 급작스레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명정이 여기 와서 떨어졌대는데야. 사람들이 와보니까 심씨 산소 바로 위다 이거야. 예전엔 여주 이천쪽으로 갈려고 해도 이 산쪽으로 길이 있었으니까 남한산성 어디로 넘어갔나봐. 거기 앉아서들 쉬는데, 앞에 기가 날라가서. 그걸 찾아야지 갈 수 있잖아. 가니깐 거기가 앉았더라요. 앉았기 때문에

"아, 여기가 이분의 앉을 자리보다"

하고 거기다 그대로 앉혔다는 얘기지.⁸⁵⁾ 능을 가보면 부인묘는 앞에, 남편묘는 뒤에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사실인 것 같아요. 저기 길이 포장했지만 원래는 비포장도로였는데, 한날 보니까 노

란 프랑카드가 날라와서 뚝뚝 뭉쳐서 길에 있더라고. 그래서 요 밑에 집 아저씨 보고 "아저씨 개통식 언제 했어요, 우리도 몰르는데." 난 길 개통식을 한줄 알고 "무슨 개통식을 했냐"구. "그럼 이 프랑카드가 여기와 왜 이렇게 있느냐"고 그랬더니. "왜 그게 개통식을 해서 있는거냐"구. "그럼 이게 왜 여기와 있어요" 그랬더니. 광주군에서 한 삼년 전에 노래자랑 했어요. 일요일마다 하는 '전국노래자랑' 그걸 했거든요. 허느라고 프랑카드를 막 달아놓잖아요. 그게 날라와 가지고. 어떻게 날라왔는지 길다란 프랑카드가 거기 와서 있더라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근처 달아놓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나도 '아하, 옛날에 역사에 여기 뭔가 날라와서 있다더니 그말이 진짜 맞구나' 하고 알았다고요.

▶ 비 고 : 경기도기념물 제 166호(1998년 4월 13일 지정)

▶ 제보자 : 이주영(남, 79세, 엄미 2리 701번지)

(7) 초월면

가. 쌍동리 '말바위'

- 소재지 : 초월면 쌍동리
- 시 대 : 근세 이전
- 종 류 : 전설
- 내 용

"철마를 놓아두던 말바위"

저기 백마산 산잔등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그걸 여기서는 '말바위' 라고 하는데, 바위에 말 두 마리를 만들어서 뒀었어. 쇠로다 뻔든 말이 있었어. 애미하고 새끼하고 들어 있었는데, 애미는 왜정 때 없어지고, 새끼도 그 후로 없어졌지. 그전엔 삼리하고 여기하고 서로 말을 돌려놓았어. 왜 그러냐면 말이 똥을 누면은 똥든지 늘어나간다고 해서는 입을 이쪽으로 뒀으면 저쪽으로

84) 주민들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여덟번째 아들인 광석(廣碩)이 태어났을 때 죽었다고 해서 '애기능'으로 부르고 있다. 의안대군묘의 유래에 대해서는 '完山李氏密城君派世譜'에 단 기록되어 있다.

85) 이주영씨의 이야기에 의해서 부인인 안씨화자(여, 84세)씨는 자신이 겪은 얘기라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돌려놓고, 저쪽에선 올라와서 또 이쪽으로 돌려놓고,
서로 그렇게 돼서 말바위라고 그래는거야.

▶ 제보자 : 허경희(남, 67세, 쌍동 1리 152번지)

나. 쌍동리 '백마산'

□ 소재지 : 초월면 쌍동리

□ 시 대 : 근세 이전

□ 종 류 : 전설

□ 내 용

"아기장수와 백마"

말바위 고 넘어가면 산이리쪽에 '고인바위' 라고 있어. 장사가 말바위에서 뛰어내려가서 바위를 고인바위로 고여냈다고. 그래 고여냈다고 해서 고인바위야. 옛날에 요 아랫동네(소쌍) 거기서 장사가 났었는데, 장사가 나오니깐 백마가 나게 마련이지. 그래 장사가 나니깐 이제 백마산 거기서 백말이 땅에서 솟아올랐대요. 그런데 장사가 나서 오래 살지를 못하고 세 살인가 네 살 적에 죽었대. 장사가 나면 겨드랑이에 날개가 났다고 안그래요. 옛날엔 장사가 나면 나라에서 죽였다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장사가 죽으니깐 오래 백마도 따라 죽을거야나. 그래 백마가 났다해서 백마산이라고 그러지.

▶ 제보자 : 허은(남, 79세, 쌍동 1리 125번지)

다. 雙東里 '배넘이골'

□ 소재지 : 초월면 쌍동리

□ 시 대 : 근세 이전

□ 종 류 : 전설

□ 내 용

"천지개벽 때 배가 넘나들던 배넘이골"

옛날에 옛날에 거기 배가 넘어 댕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천지개벽이 나서 모두 물에 잠겨서 여기가 다 풍지박산이 됐어요. 물에 잠겼으니깐 배가 다녔을거 아네요. 그래 그리로 배가 댕겼대는 거예요.

▶ 제보자 : 이건설(여, 83세, 쌍동 1리 132-2번지)

라. 쌍동리 민요

① 노랫가락 1

□ 소재지 : 초월면 쌍동리

□ 종 류 : 민요

□ 내 용

시들새들 봄배차는

찬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아니 놀구선 무엇하나

일생에 좋은 것은 덩더쿵이요

평생에 좋은 것은 널니라

이때 못놀면 어느 때 놀며

이때 못쓰면 언제 쓰나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일생에 좋은 것은 덩더쿵이라

▶ 제보자 : 이건설(여, 71세, 쌍동 1리 125번지)

② 노랫가락 2

□ 소재지 : 초월면 쌍동리

□ 종 류 : 민요

□ 내 용

○○화류 천하시에

애를 끓는 저 두견아

어대 창천 어데다 두고

내 창천에 슬피우나

밤중이면 니 울음소리

억지로 든 잠이 놀래 켜다

어지러운 사바세계

외지할 곳이 전혀 없어

모든 미련 다버리고

산간벽지를 찾아가네

산중바람도 쓸쓸한데

두견조차 슬피운다

심야삼경 깊은 밤에
너도 울고 나도 울어
같이나 울어서 세워보자

▶ 제보자 : 황복수(여, 79세, 쌍동 1리 125번지)

③ 노랫가락 3

□ 소재지 : 초월면 쌍동리

□ 종 류 : 민요

□ 내 용

연 끝에 구름 달고 구름 끝에 해가져
진달래 열싸안고 고향길을 돌아오니
물레방아 도는구나 물레방아 도는구나
어머님 치마폭에 인사 없이 안겼소

▶ 제보자 : 황복수(여, 79세, 쌍동 1리 125번지)

(8) 퇴촌면

가. 관음리 '구용소'와 '소마담'

□ 소재지 : 퇴촌면 관음리

□ 시 대 : 근세 이전

□ 종 류 : 전설

□ 내 용

"소마담의 땅소 울음소리"

이 마을에 땅소가 살았다 그래요. 요기 구용소라고 있거든. 구용소에 가보면 돌이 싹 깎은 듯 구용처럼 돼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했는지 모르겠어. 장마만 지면 폭 파여서 구용같다고. 거기서 소가 죽을 먹고, 소마담에 올라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소마담이 소를 내다 매는 데거든. 그리고 요기 올라가다보문 돌에 큰 소 발자국하고 송아지 발자국이 나있었어. 그걸 길 닦을 적에 내가 갔다 집에다 뒤야 되는건데, 그게 길속에 묻혀 들어갔다고. 나중에 생각하니깐 그게 큰 돈인데, 그게 얼마야. 전해내려오기는 소가 구용소에서 죽을 먹고, 바위로 올라가면서 애미 발자국하고 새끼 발자국 남기고서 소마담에 가서 누웠다는 전설이



사진 31. 관음리 구용소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전에는 소마담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 어른들이 땅소가 운다고 했거든.

"거기 왜 저렇게 소 우는 소리가 나느냐"

고 그러면, 어른들이

"땅소가 운다"

고 그랬어. 소가 구용소에서 죽을 먹고 소마담에서 누워있었다고 해서 소가 우는 건데, 그래서 땅소라고 그러는거야. 요즘에는 우는 소리가 없어졌지. 거기를 왕우혈이라고 그런다고. 그래 소 우는 소리가 안나니까 혈이 끊어진거 아닌가 생각하지.

▶ 제보자 : 최재병(남, 71세, 관음 3리 128-1번지)

나. 관음리 '할미소'와 '할아버소'

□ 소재지 : 퇴촌면 관음리

□ 시 대 : 근세 이전

□ 종 류 : 전설

□ 내 용

"산사람의 혼을 원하는 할미소의 물귀신"

요 밑에 내려가면 할미소가 있고, 그 밑에 할아버소가 있어요. 여기서 내려오는 내력으로는 거기에 할머니가 빠져 돌아가서 할미소, 할아버지가 빠져죽어서 할아버소 이렇다 그래요. 그런데 할미소 안에 보면 딱 사람만한 바위가 있는데, 송장바위라 그러거든. 할머니가 빠져죽어서 그런건지는 모르지만, 바위가 꼭 관같이 기



사진 32. 관음리 참미소

다랗게 딱 있으니깐 송장바위라 그래서 옛날에는 거길 잘 안들어갈려고 그러지.

거기가 예전엔 서너길 됐었어. 보면은 물이 퍼렸는데, 지금은 집들 짓느라고 개울물 파올리고 해가지고 민터가 됐다고. 그전에는 거기서 빠져죽는다 해가지고 잘 안들어갔다고. 내가 알기로는 빠져죽은 사람은 없는데, 빠져 죽을려는거 사람들이 건졌지. 나도 건진 적이 있는데, 세 사람이 팔을 붙잡고 건질려고 하는데 안나와. 자꾸 빠져들어가는거 간신히 건졌지. 그래 물귀신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때고 사람 하나 잡아넣어야 자기 혼이 나온다는 거지. 물에서. 그 사람을 거기다 두고 자기 혼이 인간세계로 나온다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자리는 자꾸 그 자리서 빠져죽게 마련이라는 거지. 혼이 잡아당겨서.

▶ 제보자 : 최재병(남, 71세, 관음 3리 128-1번지)

다. 오리 '망지고개'와 '성터'

□ 소재지 : 퇴촌면 오리

□ 시 대 : 근세 이전

□ 종 류 : 전설

□ 내 용

“죽음을 피하기 위해 쌓은 성터와 망을 보던 망지고개”

여기 큰산이 국사산이에요, 국사산. 왜 국사산이냐 하면은, 그래다 보면 퇴촌면이 나와야대요. 퇴촌면이

몰러갈 퇴자 퇴촌면이거든. 왜 퇴촌이냐, 여기가 낙향한 사람들이 들어와 살던 데예요. 그래 여기 남종면으로 넘어가다보면 망지고개라고 있어요. 옛날에 낙향을 하고 사는데, 죄를 지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는. 지금 서울 임금 있는 데서 여기를 올려면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와야 된다 말이야. 정약용 선생 고향 있는 마재라는 데까지만 배를 타고 오는거야. 거기서 아리 분원으로 들어와서 여기 와서 낙향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온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거기서 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망지고개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관가에서 불뿔러 오나 안오나 망을 본다고 해서 망지고개라는 제목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얘기로만 들은건데, 아까 얘기한대로 낙향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거주하면서 터를 잡기 위해서 국사산이라는 저 봉우리에 성을 쌓으려고 했어요. 죽지 않으려고 성을 쌓은거죠. 올라가보든 지금도 그 성터가 윤곽이 있어요. 그래 거기 보든 돌 내려 굴렀대는 데도 있구, 당재라고 그래가지고 우물도 있다고. 예전에는 거기가 못이었는데, 지금은 우물로 만들어놴어요. 지금도 여기서 물들도 떠다먹기도 하구 그러는데. 당재라는 게 글자 그대로 당제사 지내는 데라고, 국사봉을 위해서 당제사 지내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얘기한대로 성을 쌓다가 미쳐 성을 쌓지 못했다는 거지, 터만 닦고. 터는 지금도 뽕뿔러 있어요. 지금도 도자(불도저)나 포크레인이 넉넉히 땡길 만큼 있다고, 성 쌓을라고 터 닦아놓은게. 그런데 그때 그걸 이루지를 못하고 없어진걸로 알고 있지. 결국은 낙향한 사람들이 여기서 부질 제대로 못했겠지. 그래니까 없어진거다 그렇게 봐야겠지.

▶ 제보자 : 안호명(남, 62세, 오리 187-3번지)

라. 오리 '사만절터'

□ 소재지 : 퇴촌면 오리

□ 시 대 : 근세 이전

□ 종 류 : 전설

□ 내 용

“빈대로 망한 사만절”

여기에 사만절터가 있어요. 국사산에서 조금 저쪽으로, 지금 퇴촌에서 이리 들어오는 쪽인데, 그 골짜구니가 엄청 큼니다. 지금도, 그전에 전설의 고향에도 나왔던 얘데요. 역사나 옛날 노인네들한테서 전설 모양 내려오는 얘기만 들은거지 사실은 모르는 거고.

거기가 왜 사만절이라고 하나면, 스님이 말이야, 거기서 거주하는 중이 사만명이었대는 거야. 그렇게 큰 절이었어. 그런데 그 절이 왜 망가졌냐면은 빈대로다 망가졌대는거거든. 빈대가 기둥을 다파먹고, 빈대떼로 다가 기둥을 이룰 정도로 빈대가 많아가지고 절이 망했다는거지. 다 삭아없어졌대는 거지. 거기가면 지금도 기와장 모양 파편들이 일부 나와요.

▶ 제보자 : 안호명(남, 62세, 오리 187-3번지)

3) 광주군 구비 전승의 특징과 성격

기존에 조사된 광주군의 전설은 역사적 사실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광주군은 병자호란의 중심에 있었던 남한산성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설이 곳곳에 남아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왕건과 공민왕에 관련된 전설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존에는 지명이나 자연물과 관련된 전설은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 동안 많이 조사되지 않았던 지명이나 자연물의 유래에 관한 전설을 다수 채록할 수 있었지만,⁸⁶⁾ 그 대부분이 단편적이었다. 채록한 전설을 유형별로 보면, 지명·자연물 지형 등과 관련된 전설이 18편, 그외 유적 유물과 관련해서 효자비 능 석불 관련

전설이 각 1편씩이다. 지명·자연물 지형과 관련된 전설의 경우엔 빈대로 망한 절터이야기나 대홍수 관련 전설이 다수 나타났다. 이들 전설은 광주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한편, 엄리 1리에서는 일본이 우리의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행한 만행과 관련한 전설을 채록할 수 있었다. 이로써 남한산성 일대에 병자호란 관련 전설과 엄미리의 전설 등 광주군에서는 민족의 수난사와 관련된 전설이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요의 경우엔 유희요 8편, 의식요 2편을 채록할 수 있었지만, 노동요는 확인하지 못했다. 유희요가 놀이의 목적으로 불려지고, 의식요가 각종 의례에서 불려짐에 비해서 노동요는 노동의 현장에서 불려지던 노래다. 생업과 세대가 변한 지금, 다른 민요보다 불려질 기회가 더 적은 노동요가 기억에서조차 잊혀짐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는 광주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구비전승은 선대에서 후대로 입과 입을 통해, 말과 말을 통해 전승되는 특징을 지니기에 최초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구연자의 의도에 따라 침식되고 윤색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구연자의 구연능력에 따라 그 재미가 더할 수도 반감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설을 이야기하고 민요를 부를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전설과 민요는 기억에서마저 잊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군의 구비전승 역시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다.

4) 광주군 구비 전승의 전망과 향후 과제

문자가 있기 전, 우리의 지식과 사고는 말을 중심으로

86) 본문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조사에서 확인한 특이사항으로 으르면 대산 1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특이한 자락에 위치한 대산 1리에 갖가지 전설을 간직하고 있을만한 많은 석회와 돌짜기 존재하는데, 이곳 마을회관 앞에는 바위와 돌짜기, 그리고 백마산의 유래를 적어놓은 안내판이 서있다. 안내판에 따르면, 백마산의 각종 자연물(고려를 거룩한 왕건과 조선국사가 산사를 훈련시키면서 불인 지경이라는 것이다. 물론 다음에서 내려오는 전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민 중 일부가 나름대로 해석을 붙인 것이다. 주민들 중에는 이를 사실로 믿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전설로 정착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로 형성되고 전승되어 왔다. 문자로 기록된 문학이 기록한 사람의 생각과 지식 및 개성 등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반면, 구비전승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는 점에서 민중의 공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 속에는 지역공동체의 삶과 애환이 어려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수대에 걸쳐 한곳에 거주해온 토박이도 지명유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다수 접할 수 있었다. 삶의 순간마다, 삶의 곳곳에서 불려지던 민요도 시대와 생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기억하는 이가 많지 않았다.

구비전승의 단절은 자연공동체의 해체와도 무관하지 않다.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광주군 역시 외지인의 유입이 늘어남으로써 토박이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주민의 전출입이 늘고 생업환경이 변함에 따라 전설이나 민요가 전승될 기회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의 추세라면 머지 않은 장래에 광주군 구비전승의 단절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미 구비전승이 단절된 마을 또한 허다하다. 광주군 구비전승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시급함을 지적코자 한다.

최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고 문화관광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치단체마다 문화유적의 발굴과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비전승 조사

는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설은 역사적 사실과 관련되거나 개별적인 증거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한 예로 의안대군묘를 들 수 있다. 엄미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애기농'으로 불리며 그에 관한 이야기가 전설로 구전되어온 의안대군묘는 최근에 와서야 조사가 이뤄지고 외부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정밀한 구비전승 조사가 이뤄졌다면 애기농의 존재는 좀 더 일찍 외부에 알려졌을 것이고, 광주군의 문화자원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전설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한편, 전설과 민요의 전승계기가 사라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기 마을의 전설을 이야기하고 민요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민에게 마련해주는 것도 구비전승의 단절을 막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이는 향토축제의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모든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축제프로그램의 획일성과 지역특성 결여는 자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지역 주민이 직접 전설을 이야기하고 즐겨 부르던 민요를 되새겨보는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특성을 살림과 아울러 주민이 축제의 주체가 되는 데 공헌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IV. 문화유적

1. 읍·면별 문화유적

광주읍

남종면

도척면

실촌면

오폐면

중부면

초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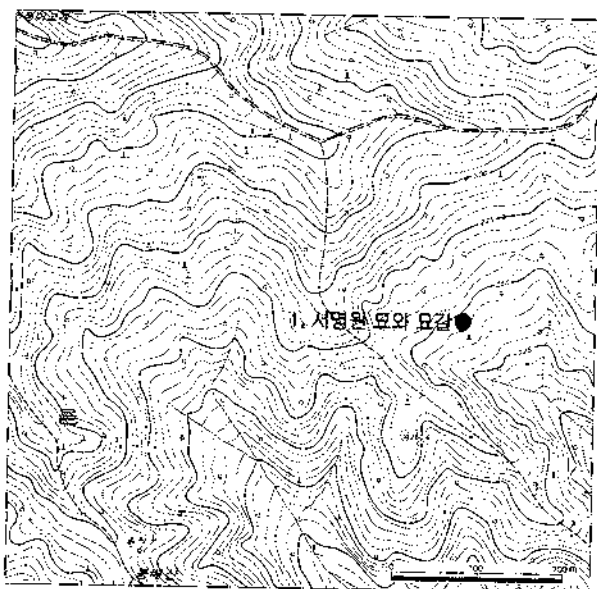
퇴촌면

2. 조사 성과

1. 읍 · 면별 문화유적

광 주 읍

1. 徐命元 墓와 墓碣



지도 1. 서명원 묘와 묘갈 위치도(수원 029)

- 소재지 : 광주읍 목현1리 산25-2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徐命元(1701-1742)은 英祖代의 인물로 본관은 大邱이며 자는 仁伯이다. 이조참의를 지낸 宗燮(1680-1734)의 아들이자 영의정을 역임한 邁修(1731-1818)의 아버지이다.

묘소는 두리봉(458.3m) 줄기가 남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면서 형성한 연장골의 북쪽 구릉 중턱에 南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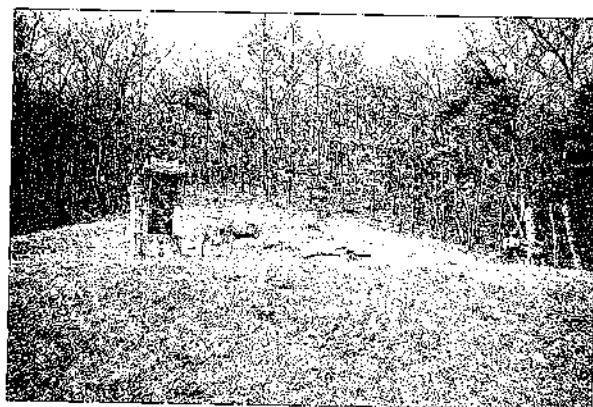


사진 1. 서명원 묘와 묘갈 전경

자리잡고 있다. 1804년(순조4) 맏아들 邁修가 좌의정을 제수받자 아버지인 命元도 영의정으로 추증되어, 묘역을 새롭게 단장하고 묘갈을 비롯한 각종 석물을 구비하였다. 純祖代에 조성된 사대부 묘소의 전형으로, 원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조선후기 묘제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묘역에는 상석, 혼유석, 망주석, 羊石(높이 65cm, 폭 47cm, 두께 120cm)의 옛 석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봉분 좌측에는 묘갈(총높이 약 298cm)이 건립되어 있다. 19세기에 유행하던 方趺蓋石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烏石의 비신(높이 160cm, 폭 63cm, 두께 36.5cm)에 四面刻字하였다. 碣題를 '有明朝鮮國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 觀象監事徐公墓碣銘并序'라 하여 묘갈임을 밝히고 있으며, 奉朝賀 金鍾秀(1728-1799)撰, 男 左議政

邁修 書, 族曾孫 左議政 龍輔(1757-1824) 篆이고
追記는 男 邁修 追識이다. 또한 전액은 朝鮮贈議政
府領議政徐公命元墓碣銘'이라 하였으며 건립 연대
는 '崇禎紀元後3乙丑(1805, 순조5) 月 日立'이다.

묘소 아래에는 大邱判官을 지낸 맏아들 退修
(1730-1790)의 묘소가 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大邱徐氏族譜』, 1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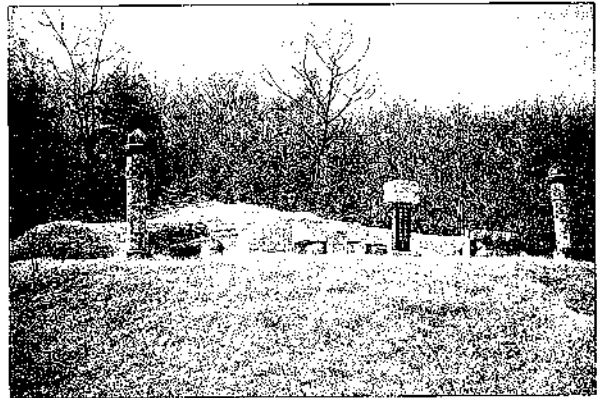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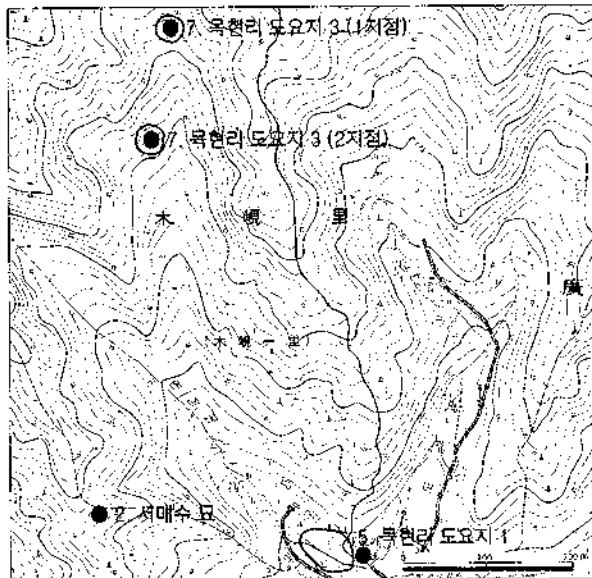


사진 2. 서매수 묘 전경

2. 徐邁修 墓



지도 2. 서매수 묘 위치도(수원 030)

□ 소재지 : 광주읍 목현리 산25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徐邁修(1731-1818)는 純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大邱이고 자는 德而이며 호는 懸軒으로 증의정 命
元의 아들이다. 1771년(영조47) 진사가 되고 1787년
(정조11) 唐津縣監에 재직중 56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순조초 이조판서로 재직할 때 時派에 치
우친 인사를 단행하여 僻派로부터 크게 반발을 사기도

하였으나, 평소 성격이 원만하다는 평을 들었다. 우의
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翼獻이다.

묘소는 새오개 마을 서측의 두리봉 줄기 중턱에 東向
으로 자리잡고 있다. 初葬地는 아버지 命元 묘소의 우
측 구릉에 있었으나 1997년 광주군의 유락시설 개발사
업으로 인해 현재의 장소로 이장하였다. 묘역에는 혼유
석, 상석, 고석, 향로석, 차일석, 문인석, 망주석, 양석
(높이 74cm, 폭 45cm, 두께 122cm)의 옛 석물을 갖추었
지만 이장을 하면서 제자리를 잃어 버린 상태이다. 특
히 문인석(높이 88cm)은 양식상 순조대 이전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후손들이 타지에서 새로 들여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봉분 우측의 묘비는 1997년 5월에
건립한 것으로 앞면에 '大匡輔國領議政大邱徐公邁
修 貞敬夫人昌原黃氏之墓'라 쓰여져 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大邱徐氏族譜』, 1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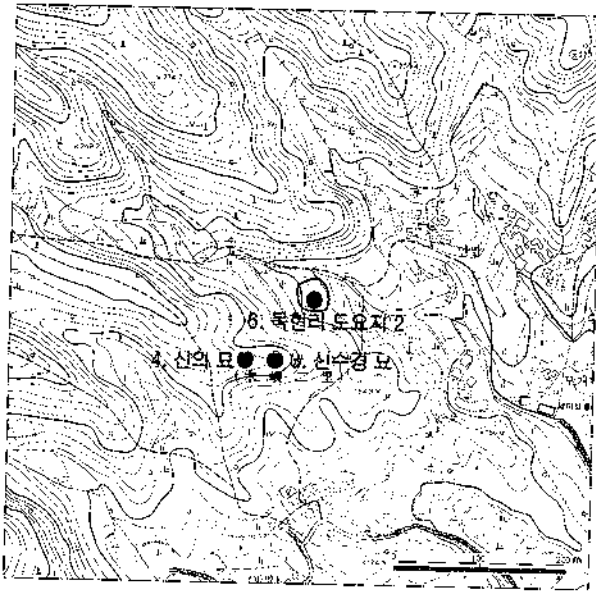
3. 申秀涇 墓

□ 소재지 : 광주읍 목현리 산107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지도 3. 신수경 묘 위치도(수원 029)

申秀涇(1501-1584)은 宣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高靈이며 자는 幼淸이다. 都事를 지낸 涵의 아들이나 成宗의 駙馬인 高原尉 沆(1477-1507)에게 입양되었다. 호조정랑과 여주목사를 거쳐 좌승지를 역임하였으며 衛社功臣 3등에 봉해졌다.

묘소는 모개미 마을회관의 좌측 구릉에 東向으로 자리잡은 고령신씨 세장지내에 위치하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장명등, 武人石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다. 또한 원형의 호석을 둘러친 봉분 뒤로는 곡장이 설치되어 있다. 장명등(높이 108cm)의 화사석에는 4개의 火窓이 나 있고, 상·하대석에는 眼象을 새겨 놓았으며 망주석에는 簾依와 雲角을 조각하였다. 그리고 묘역의 좌우에는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무인석(높이 236cm)이 長劍을 땅에 짚고 서 있는데, 우측 무인석의 코가 약간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봉분의 우측에는 1999년에 조성한 元配 淸州韓氏의 設壇 표석과 1987년에 건립한 묘비가 있다.

묘소 아래에는 손자인 군수 士楨(1546-1593)과 증손자 楮(1565-1581)의 묘소가 자리잡고 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高靈申氏世譜』, 1995, 農耕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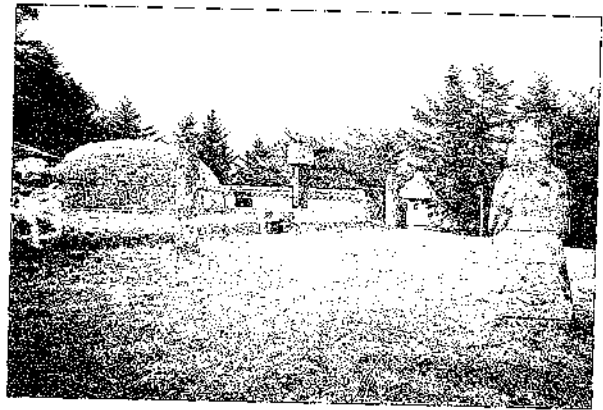


사진 3. 신수경 묘 전경



사진 4. 신수경 묘 무인석

4. 申儀 墓

□ 소재지 : 광주읍 독현2리 산107(지도3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申儀(1530-1584)는 宣祖代의 인물로 본관은 高靈, 자는 濟叟, 호는 樗軒이며 좌승지를 지낸 秀涇의 아들이다. 1541년(중종26) 中宗의 제 4녀인 敬顯公州와 혼인하여 靈川尉에 봉해졌다.



사진 5. 신의 묘 전경

묘소는 아버지 수경의 묘소 위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장명등, 문인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봉분 주위로 꼭장을 돌렸

다. 장명등(높이 177cm)은 신수경 장명등과 양식이 동일하고, 망주석(높이 210cm)의 柱身에는 원형 고리 장식이 조각되어 있다. 원형 고리는 원래 차일의 끈을 묶도록 망주석에 설치하였던 것인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고리는 없어지고 문양화되어 그 흔적만 남게 되었다. 또한 묘역의 좌우에 설치된 한 쌍의 문인석(높이 184cm)은, 전시대보다 머리가 어깨 아래로 더 내려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봉분 우측에는 1987년에 건립한 묘비가 서 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高靈申氏世譜』, 1995, 農耕出版社

5~7. 木峴里 陶窯址 1~3號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굽/발침/요도구	위 치	현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C	●(상감)백자/대접, 접시, 잔, 항아리, 병/담청백, 연회백색/죽절굽/태토비침 ●요도구/감발, 감발뚜껑, 도침, 원반형발침	새오개	林·田	성남 190-4	○	
2호	16-17C	●백자/대접, 접시/미백, 연회백색/죽절굽/태토비침, 모래발침 ●요도구/감발, 감발뚜껑, 원반형발침	새오개	林	성남 190-4	×	
3호	16-17C	●(철화)백자/대접, 접시/담청, 연회백색/태토비침	모개미	林	성남 19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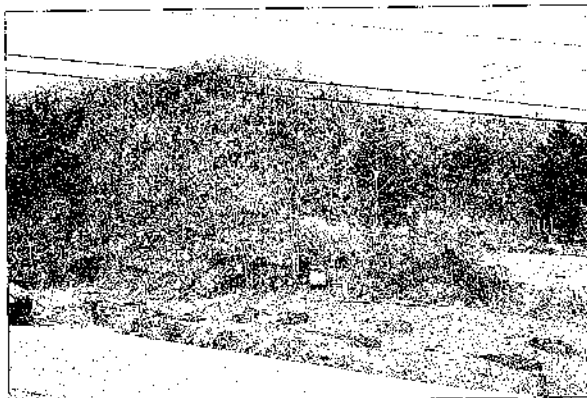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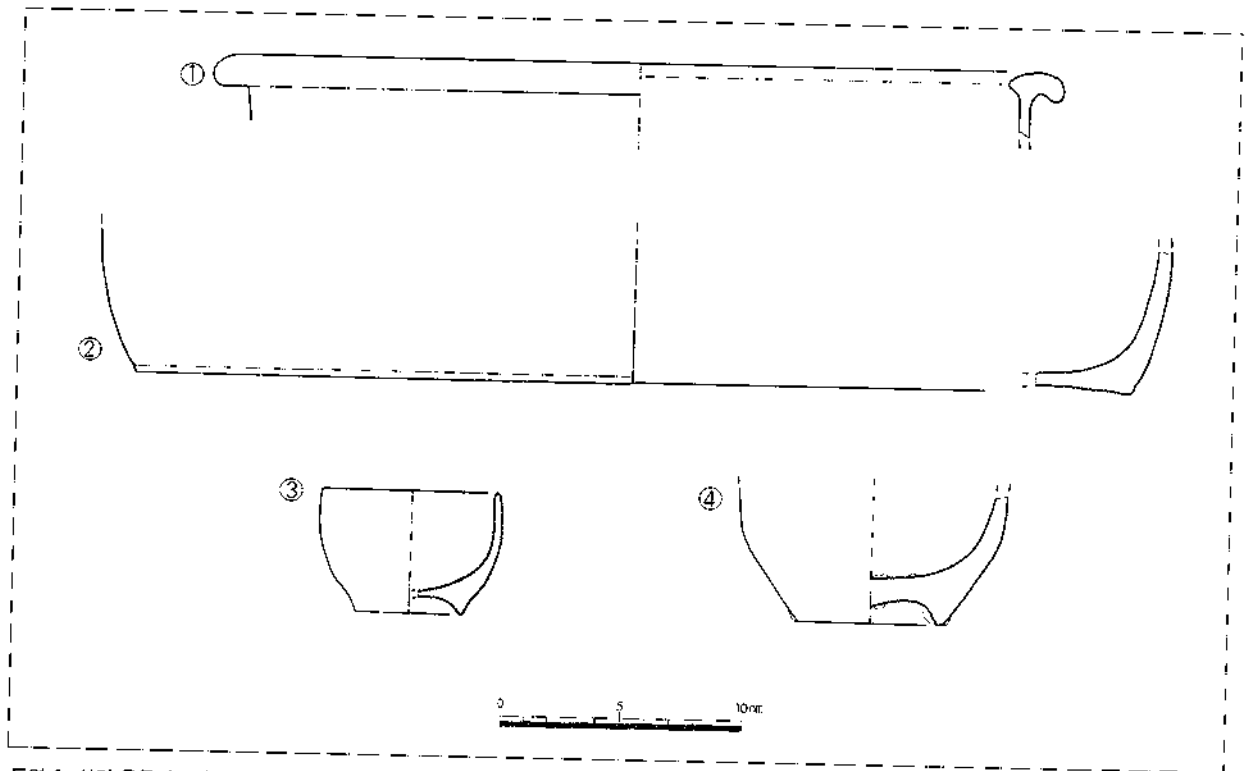
사진 6. 목현리 도요지 1호 전경

8. 三里 遺物散布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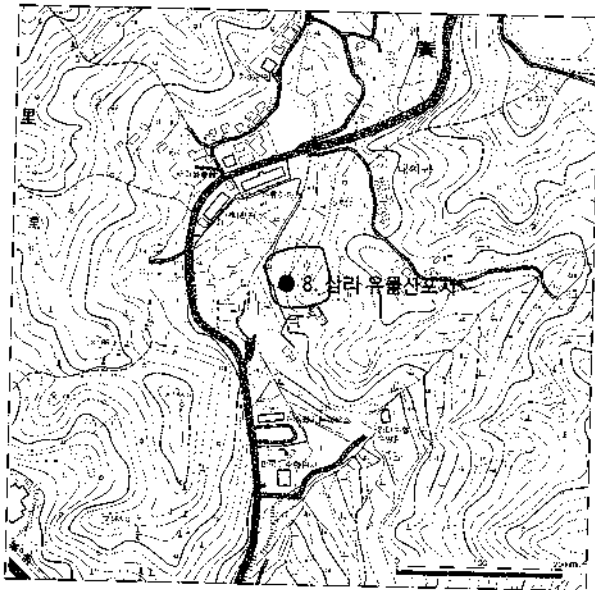
- 소재지 : 광주읍 삼리 산154-4 전 일대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광주읍에서 성남 방향으로 가는 3번국도에서 뉴서울 컨트리 클럽으로 가는 길 동쪽의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유적은 밭으로 개간되고 있는데 500여평의 면적에 자기류와 토기류가 넓게 분포하고 있지만 유물



도면 1. 삼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지도 4. 삼리 유물산포지 위치도(수원 039)

의 밀집도는 높지 않다. 경작지는 이미 생토가 드러날 정도로 개간되어 있어 유구가 잔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채집 유물

① 토기 구연부편(사진 8, 도면 1-①)

회갈색 경질토기로 용형토기의 구연부로 추정된다. 구연부는 외반되어 있으며 외면과 내면에 물레의 흔적이 남아 있다. 현높이 3.1cm, 추정구연지름 34.0cm이다.

② 토기 저부편(사진 8, 도면 1-②)

경질토기 저부로 외면과 내면은 짙은 회청색, 속심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저부는 약간 들린바닥을 하고 있으며 기형은 용형으로 추정된다. 현높이 5.3cm, 추정지름 42.0cm이다.

③ 백자잔편(사진 8, 도면 1-③)

백자잔으로 2/3 정도가 결실되었으나 구연부와 저부의 일부가 남아 있어 기형복원은 가능하다. 굽은 오목 굽의 형태이며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있다. 색조는 옅은 회청색을 띠며 유약의 착색과 발색 모두 양호하다. 높이 5.1cm, 추정구연지름 7.4cm, 추정저부지름 4.4cm이다.

④ 백자저부편(사진 8, 도면 1-④)

저부와 동체의 일부만 남아있는 백자편으로 기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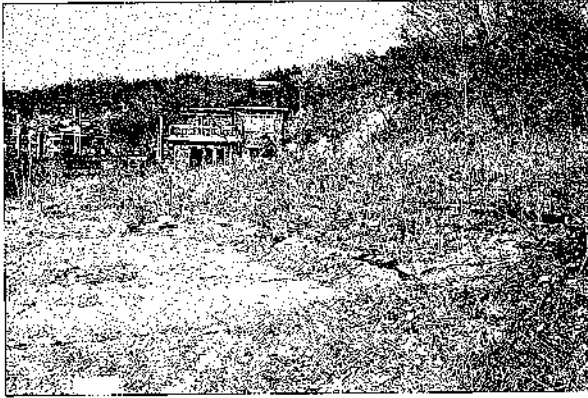


사진 7. 삼리 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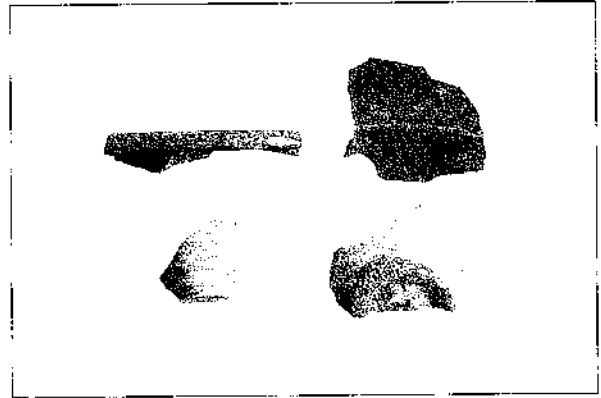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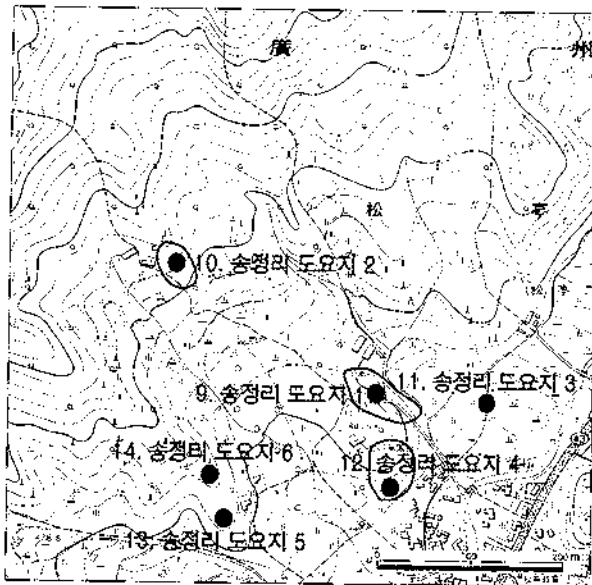
사진 8. 삼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완이나 발형으로 추정된다. 내저에는 원각이 있고 굽은 족절굽이며 받침으로 사용된 모래가 남아있다. 색

조는 담청을 머금은 회백색으로 유약의 착색과 발색 모두 양호하다. 현높이 5.5cm, 저부지름 6.0cm이다.

9~15. 松亭里 陶窯址 1~7號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굽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7세기	●(청화·철화)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잔받침, 향아리, 합, 뚜껑, 병, 세기/유백, 연회백색/직립형굽/굽은모래받침/左庚寅, 辛卯, 右六丁 등음각명문 ●청자/대접, 접시/암록, 연록색/직립형굽/굽은모래받침/左庚丁 등음각명문 ●요도구/폐기물활용받침	밤나무 단지 (371, 372-5, 367-6)	田·林	광주 191-3	○	
2호	17-18세기	●(철화)백자/대발, 대접, 접시, 잔/연회백, 회색/오목굽/굽은모래받침	밤나무 단지 (63-9)	林	광주 191-3	○	
3호	17-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회색/직립형굽, 오목굽/모래받침	추정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4호	17-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향아리/연회백, 회색/직립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원반형받침	밤나무 단지 (368-1, 386-2)	林	광주 191-3	○	
5호	17-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합, 병/연회백, 회색/직립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원반형받침	엄치골 (65-2)	林	광주 191-3	×	
6호	17-18세기	●백자/대발, 대접, 접시, 잔/연회백, 회색/도립삼각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갑발, 원반형받침	엄치골 (65-3)	林	광주 191-3	×	
7호	17-18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회색/오목굽/굽은모래받침	추정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지도 5. 송정리 도요지 위치도(이천 021)



사진 9. 송정리 도요지 2호 전경

16. 松亭里 느티나무 1



사진 10. 송정리 느티나무 1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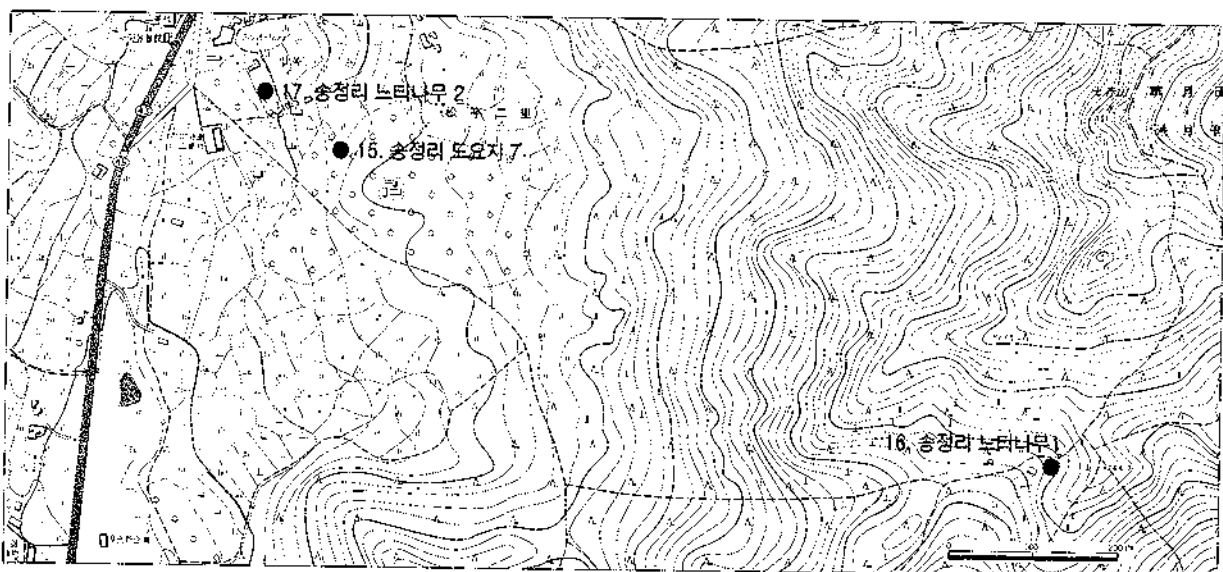
□ 소재지 : 광주읍 송정2리 전302-11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송정리 경화여중고교 서북쪽 칠보사에 위치하고 있다. 나무의 수령은 260년 높이는 18m, 둘레는 3.5m



지도 6. 송정리 느티나무1 위치도(이천 031)

이다. 1983년 8월 읍나무로 지정되었다. 절의 경내에 위치하고 있어 보호수 주변은 잘 정비되어 있으며 1994년 10월 외과수술이 이루어졌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지정번호 : 경기광주 2

17. 松亭里 느티나무 2



사진 11. 송정리 느티나무 2 전경

□ 소재지 : 광주읍 송정2리 전302-11(지도6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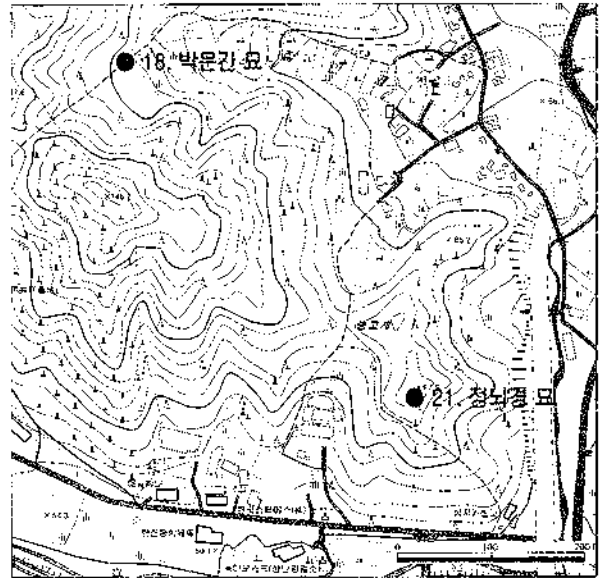
송정 2리 밀목마을의 군부대 진입로 좌측에 위치한 다. 느티나무의 수령 110년, 나무키 17m, 나무둘레 3.1m이다. 1983년 3월 10일 리나무로 지정되었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지정번호 : 경기광주 4

18. 朴文幹 墓

□ 소재지 : 광주읍 장지 3리 산54임



지도 7. 박문간 묘 위치도(수원 050)



사진 12. 박문간 묘 전경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

朴文幹은 成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高靈, 자는 仲彬으로 光陽縣監을 지낸 仁孝(1405-1465)의 아들이나 생몰년은 미상이다. 1480년(성종11)에 문과에 합격하고 관직에 나아가 여러 벼슬을 거쳐 홍문관교리에 이르렀다.

묘소는 절골 마을 고령박씨 세장지내의 서쪽 구릉 중턱에 東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봉분은 쌍분이며 묘표 2기와 문인석 1쌍을 제외한 나머지 석물은 최근에 새로 마련한 것이다. 좌측 봉분 앞에 세워진 묘표(총높이

89cm)의 앞면에는 '通德郎□□□郎朴文幹之墓'라 쓰고 좌측에 '成化丙午(1486, 성종17)3月 日'이라 하였으나 나머지 내용은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우측 봉분 앞의 묘표(총높이 102cm) 전면에는 '正郎朴文幹妻恭人朴氏之墓'라 쓰고 뒷면에는 '弘治2年(1489, 성종20)2月'이라 새겨 놓았다. 두 묘표 모두 15세기에 유행하던 방부하엽 양식을 갖추고 있다. 묘역의 좌우에 시립하고 서 있는 문인석(높이 172cm)은 紗帽冠帶를 착용하고 있는데, 머리에 쓴 사모가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어 이채롭다.

묘소 위로 증조부 武肅公 蔓(1362-1423)과 조부 宗廟署丞 眞言(1385-1442)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여러 구릉에는 현감 仁孝(1405-1465)와 妻 利川徐氏, 典籍 禎(1466-1520), 進士 白燕, 郡守 檣, 嘉善大夫 廷翊(1602-1688) 등의 묘소가 산재해 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高靈朴氏大同譜』, 1987, 回想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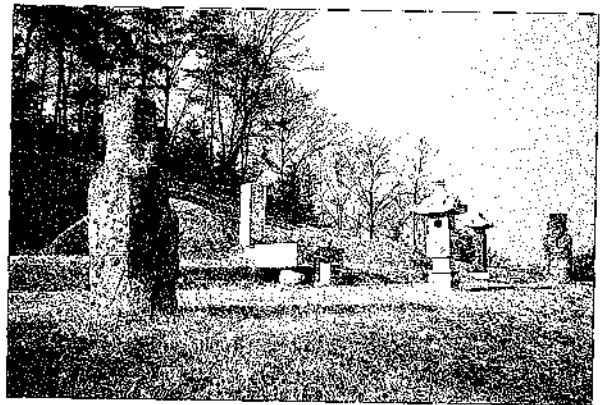


사진 13. 정광세 묘 전경

□ 소재지 : 광주읍 장지2리 산64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鄭光世(?-1514)는 中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東萊이며 直長을 지낸 蘭孫의 아들이다. 1479년(성종10) 承仕郎으로서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부수찬, 시강원 보덕을 지냈다. 이어 外職으로 평안도관찰사와 경기관찰사를 거쳐 좌찬성에 이르렀다. 시호는 昭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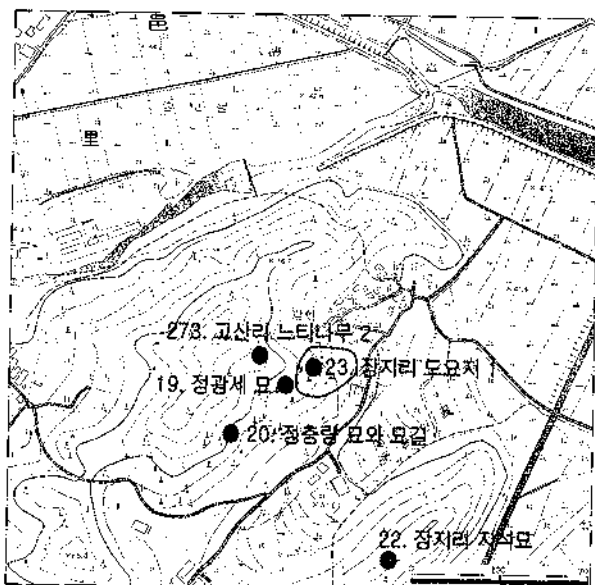
묘소는 담안 마을내에 자리잡은 동래정씨 세장지의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봉분 앞에 있는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56cm) 전면에는 '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 諡昭平東萊鄭公光世之墓 貞敬夫人興海裴氏附左'라 쓰여져 있으며 뒷면에는 '開國529年庚申(1920)2月 日改立'이라 새겨져 있다. 1920년에 묘표를 세우면서 혼유석, 상석, 향로석, 고석도 다시 조성하고 묘역도 새로 단장하였다. 묘역의 좌우에 세워져 있는 문인석(높이 173cm) 1쌍 만이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얼굴에 난 수염과 笏이 서로 붙어 있고, 蔽膝이 삼각형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묘역 우측의 신도비는 1963년에 좌의정 李荇(1478-1534)의 비문을 刻字하여 새로 건립한 것이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19. 鄭光世 墓



지도 8. 정광세 묘 위치도(수원 050)

20. 鄭忠樑 墓와 墓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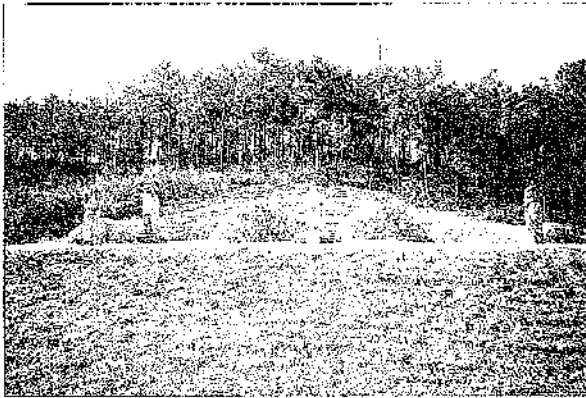


사진 14. 정충량 묘와 묘갈 전경



사진 15. 정충량 묘갈 및 문인석(左: 再刻 묘갈, 中: 原 묘갈, 右: 문인석)

- 소재지 : 광주읍 장지2리 산64임(지도8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鄭忠樑(1480-1523)은 中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東萊, 자는 叔幹이며 형조판서를 지낸 光世의 아들이다. 1506년(중종1) 문과에 급제하여 檢閱을 제수받고, 이어 사간원헌납과 도승지를 지냈다. 1519년(중종14) 己卯土禍때 臺諫의 탄핵을 받았으나 禍를 면하였고 이조참의를 거쳐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묘소는 정광세 묘소의 좌측 구릉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문인석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으나 剝落이 심한편이다. 묘역 좌측에는 방부이수 양식의 原 묘갈과 방부개석 양식의 再刻 묘갈

이 세워져 있다. 원 묘갈은 前知中樞府事 金安國(1478-1543)이 撰하고 僉知中樞府事 金希壽(1475-1527)가 書하여 '皇明嘉靖4年乙酉(1525, 중종20)8月15日立' 하였으나 마모가 심하여 영조대에 원 묘갈문을 그대로 재각하였다. 그러나 재각 묘갈의 碣題를 '通政大夫吏曹參議鄭公墓碣銘并序(원 묘갈의 갈제는 마모되어 확인할 수 없다)'라 하고 전액을 '鄭公神道墓碑(원 묘갈의 전액과 동일)'라 하여 명칭을 혼동하고 있는데 碣題를 따라 묘갈이라 칭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비문에 새겨진 것은 '墓碣銘并序'이지 '神道碑銘并序'나 '墓碑銘并序'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각 묘갈의 건립 연대는 '上之52年丙申(1776, 영조52)嘉靖乙酉後252年8月 日立'이며 묘갈을기는 翊衛司翊贊 安鼎福(1712-17191)이 記하고 巾史源이 書하였다. 그리고 묘역 입구에는 1998년에 건립한 정광세, 정충량신도비가 나란히 서 있다.

묘소 아래에는 아들 活人署別提 守厚, 손자 司導寺 僉正 麟壽, 증손 宣務郎 思敏, 현손 社稷署令 弘輔, 5대손 贈司導寺正 公遠의 묘소가 있으며 좌측으로는 증손 內瞻寺正 思愼의 묘소가 위치한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21. 鄭雷卿 墓

- 소재지 : 광주읍 장지1리 산61-2임(지도7 참조)
- 시 대 : 조선
- 종 류 : 묘
- 내 용

鄭雷卿(1608-1639)은 仁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溫陽, 자는 震伯, 호는 雲溪이다. 1637년(인조15) 司諫에 재직할 때 昭顯世子가 淸의 瀋陽으로 인질이 되



사진 16. 청뇌경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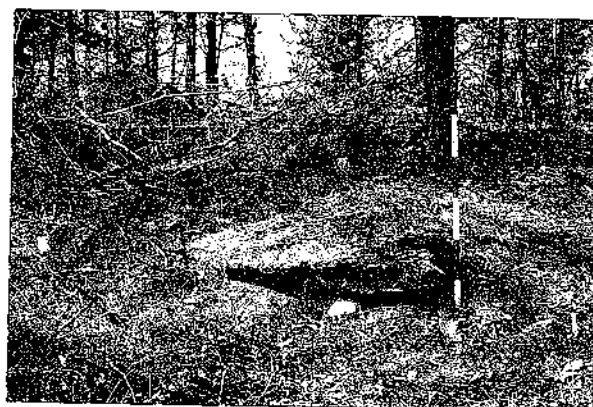


사진 17. 장지리 지석묘 전경

어 끌러가자 그 수행원으로 동행하였다. 당시 조선인으로써 淸에 버슬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鄭命壽와 金突이 청으로 보내던 歲幣를 빼 돌리자 그 죄상을 고발. 청의 황제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청의 刑部에 압송되어 사형을 당하였다. 사후 贊成에 追贈되었으며 시호는 忠貞이다.

최근에 묘역을 보수 단장하면서 모든 석물과 묘비를 새롭게 조성하였다. 묘소 아래에는 후손들의 묘소와 새로 신축한 사당 그리고 신도비(1989)가 건립되어 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萬姓大同譜』, 1931

□ 소재지 : 광주읍 장지리 산64-1임 일대(지도8 참조)

□ 시 대 : 청동기시대

□ 종 류 : 선사분묘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지석묘는 장지리 유물산포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400m 떨어진 지점에 소재하고 있다. 경안천 쪽으로 발달한 산구릉으로 유물산포지와 같은 능선 선상에 있다. 43번 지방도로 변에 있는 SK주유소 뒤편언덕에 있다. 상석의 크기는 176×127×20cm이며, 약 6cm 정도의 성혈도 관찰되고 있으나 풍화로 인하여 확실하지 않다. 상석의 밑으로는 22×15cm 가량의 받침돌들이 있다. 압질은 화강 편마암으로 주변에서 유물들은 수습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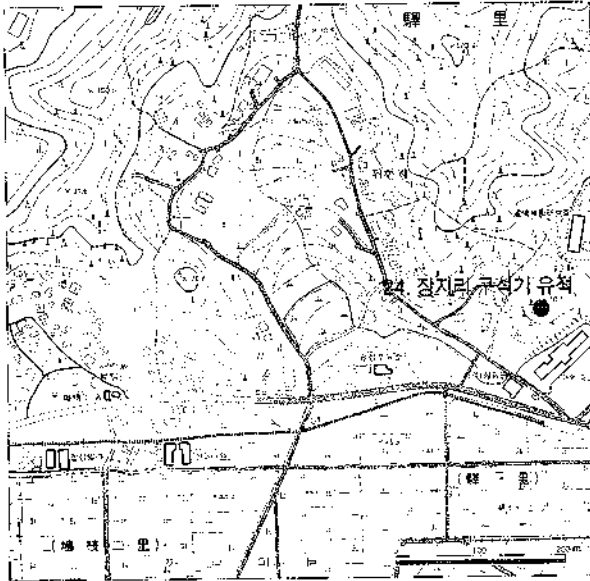
▶ 지도번호 : 성남 190-4

22. 塙枝里 支石墓

23. 塙枝里 陶窯址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굽/받침/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담청, 회백색/직립형굽/태토비집, 모래받침/ ●요도구/갑발, 원통형받침	동래정씨 묘역일대	林	성남 190-4	×	

24. 塙枝里 舊石器遺蹟



지도 9. 장지리 구석기유적 위치도(수원 050)

- 소재지 : 광주읍 장지리 산1번지
- 시 대 : 구석기시대
- 종 류 : 선사유적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유적지는 광주읍에 소재하고 있는 경안중학교의 옆 남쪽구릉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작은 문구점이 있으며 우측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터 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노출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주먹도끼, 여러면 석기, 굽개 등이다.

(2) 채집 유물

① 주먹도끼(사진 19상, 도면 2-①)

암질은 규암으로 크고 긴 격지로 만든 주먹도끼이다. 석기의 등면 아래 부분에 1/3가량의 자연 면이 남아 있으며, 윗 부분은 폐기가 이루어 졌다. 격지로 폐기 한 이후 밑 부분에서 좌측 날까지 6·7차례의 폐기가 이루어 진 것이 관찰된다. 석기의 끝 부분은 뾰족한 형태로 전체적인 형태는 좌측 모서리가 결실된 긴 삼각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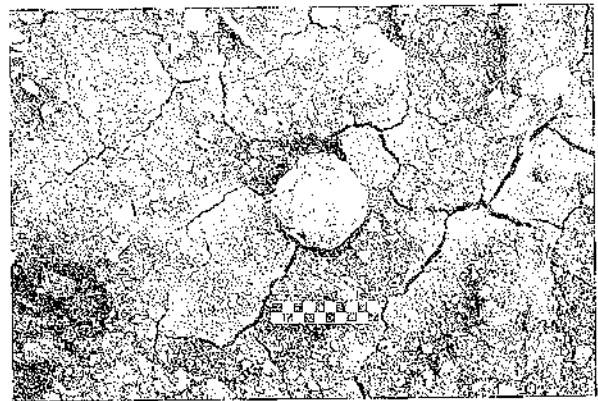


사진 18. 장지리 구석기유적 석기 노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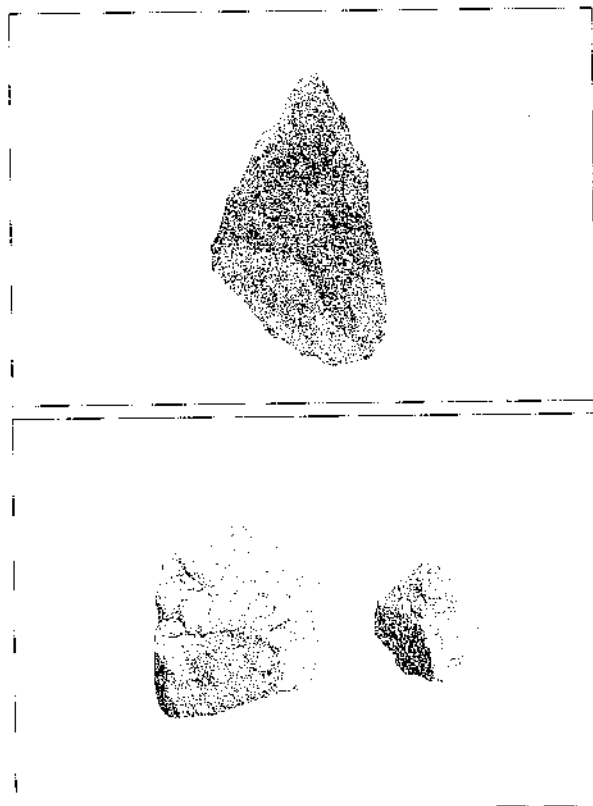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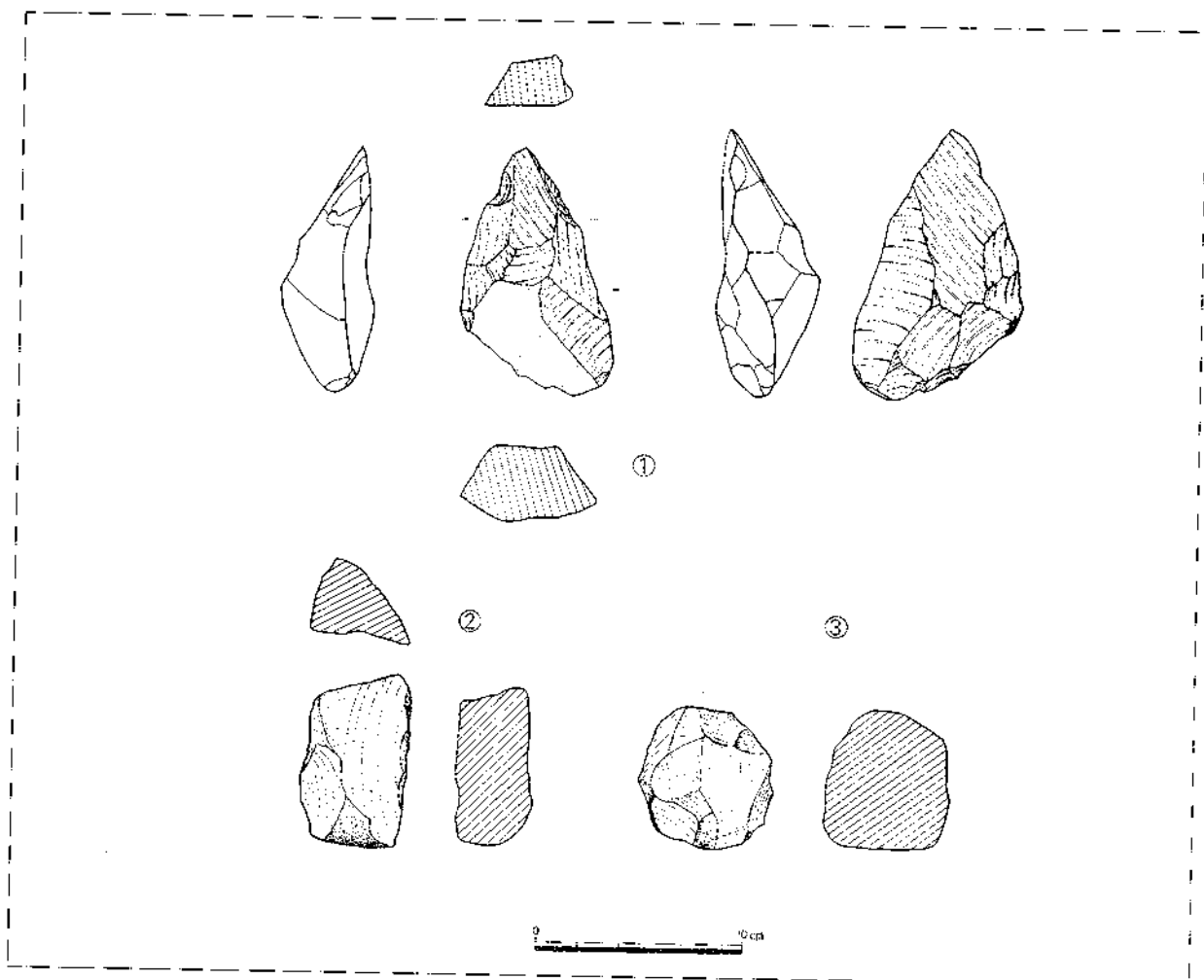
사진 19. 장지리 구석기유적 채집 석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날은 之자 형태이다. 크기는 $17.6 \times 9.6 \times 5.82\text{cm}$, 무게는 895g이다.

② 여러면 석기(사진 19하, 도면 2-②)

암질은 석영암으로 석기 전면에서 격지 폐기가 이루어져 자연 면이 남아 있지 않다. 둥근 형태로 다른 물체에 부딪쳐서 생긴 자국이 관찰되기도 한다.

크기는 $7.8 \times 8.8 \times 8.7\text{cm}$, 무게는 875g이다.



도면 2. 장지리 구석기유적 채집 유물

③ 굽개(사진 19하, 도면 2-③)

암질은 석영암이다. 굽은 자연면이며, 등면 일부분에 자연면이 있을 뿐 주로 뎀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기의 오른쪽으로는 2번에 걸친 큰 떼기가 이루어 졌으며, 우측날에 배면에서 등면으로 가지런한 잔손질을 배풀어 날을 만들었다. 날은 직선 날로 길이는 8cm이다. 크기는 $11.5 \times 6.8 \times 4.7\text{cm}$, 무게 445g이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25. 塙枝里 遺物散布址

□ 소재지 : 광주읍 장지리 산67-1임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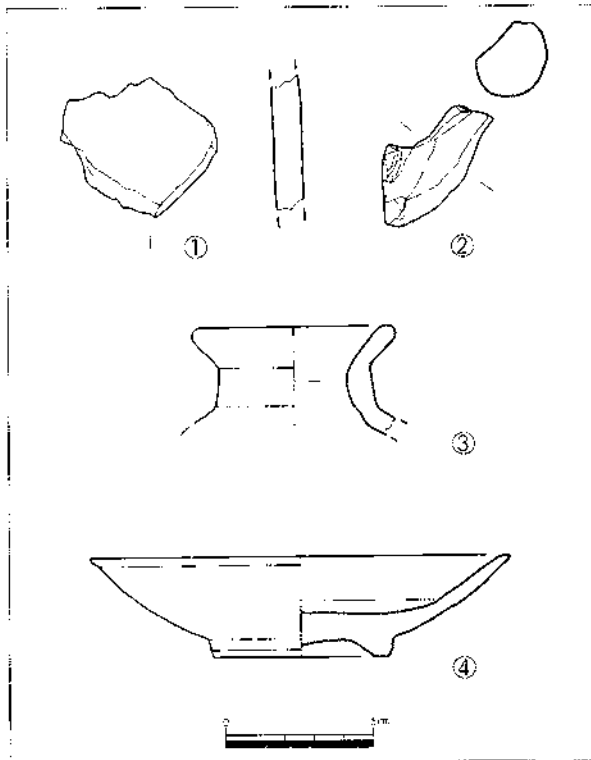
□ 시 대 : 청동기시대 ~ 조선

□ 종 류 : 유물산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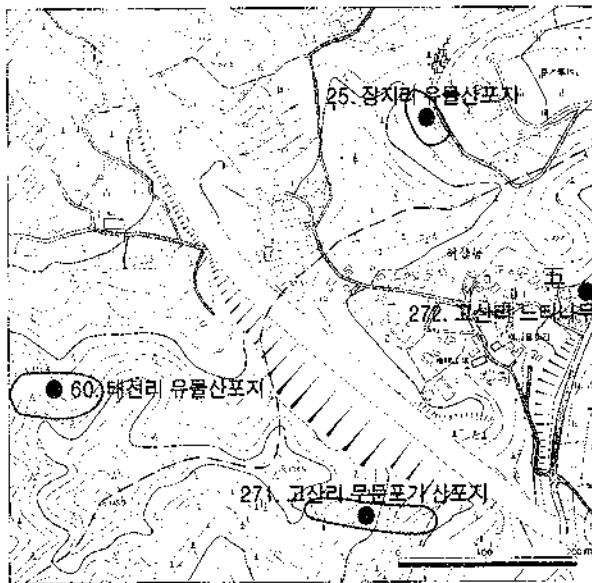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오폐면에서 43번 지방국도를 타고 광주읍으로 들어 서면 좌측으로 신원 에벤에셀 물류센타가 소재하고 있다. 그 뒤쪽으로 중앙교회 묘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산포지는 묘역뒤편 산 능선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수습된 유물은 무문토기편과 牛角形把手 백자등이 있다. 현재는 묘역의 확장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도면 3. 장지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지도 10. 장지리 유물산포지 위치도(수원 050)

(2) 채집 유물

① 무문토기(사진 20, 도면 3-②)

몸체편으로 전면에 물손질로 정면한 모습이 보인다. 두께가 두꺼운 편으로 경질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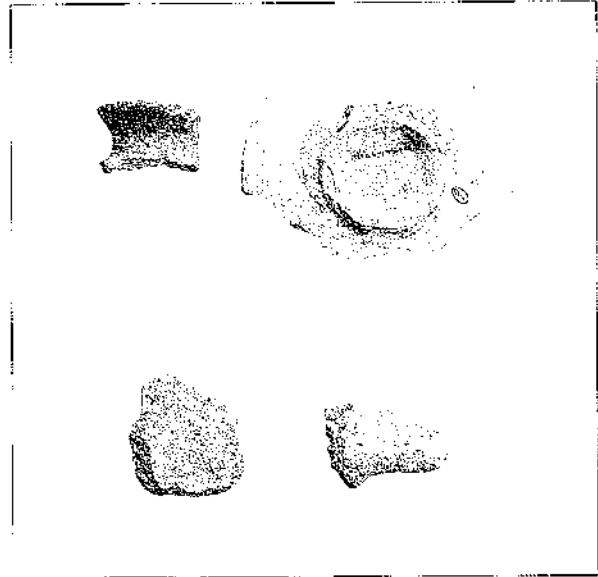


사진 20. 장지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에 석영·운모등이 혼입되었다. 잔존길이4.7cm 두께 1.0cm

② 우각형파수편(사진 20, 도면 3-①)

적갈색 경질의 우각형파수로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윗쪽으로 휘어져있다. 몸체와의 부착부위는 흠을과 연결을 공고히 하였으며, 파수전면에는 물손질로 정면한 모습이 잘 남아있다. 단면은 원형이고, 태토는 점토질에 석영등이 혼입되어 있다. 길이4.2cm 두께2.5cm

③ 토기 구연부편(사진 20, 도면 3-③)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기형은 병으로 추정된다. 구연은 외반되었으며, 목이 짧게 처리되었다. 문양은 없으며, 전면에 물레자국과 물손질로 정면한 모습이 남아있다. 정선된 점토질을 태토로 사용하였다.

높이3.8cm 추정구연지름7.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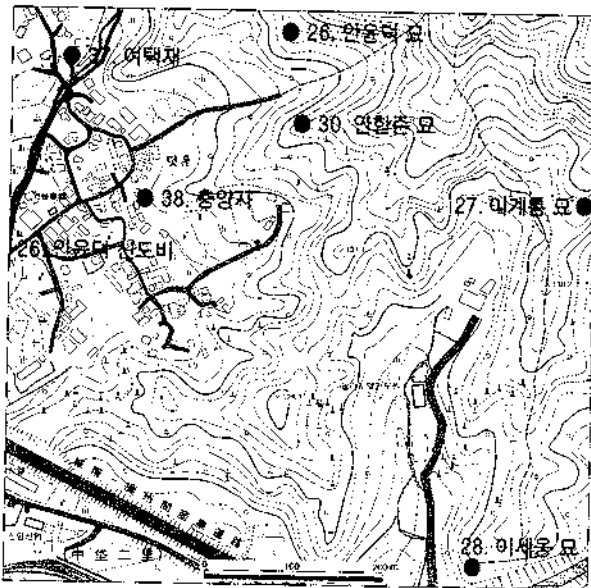
④ 백자편(사진 20, 도면 3-④)

대접류로 상태가 양호하다. 구연은 살짝 외반되었으며, 굽은 낮은 수직굽으로 처리되었다. 내저에 원각이 있으며, 그안에 4군데 내화토받침흔이 남아있다. 담청 백색유를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였다.

높이3.5cm 추정구연지름14.4cm 굽지름6.0cm

▶ 지도번호 : 성남 190-4

26. 安潤德 墓와 神道碑



지도 11. 안윤덕 묘와 신도비 위치도(수원 026)

- 소재지 : 광주읍 중대1리 산15-2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安潤德(1457-1535)은 中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廣州, 자는 善卿, 호는 月峰이며 安東判官을 지낸 彭老의 아들이다. 1483년(성종14)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간 뒤 여러 벼슬을 거쳐 예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504년(연산군10) 甲子士禍에 연루되어 전라도 金堤로 귀양갔다가 중종반정(1506)으로 복귀하고 漢城府左尹이 되었다. 이후 호조참판을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翼惠이다.

묘소는 텃골 마을 뒤편, 靈辰山 남서 구릉의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망주석, 문인석(높이 163cm), 묘표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상석, 장명등, 향로석은 근래에 다시 마련하였다. 이중 망주석 한 쌍은 새 짝이 아닌데, 양석상 좌측 망주석은 中宗代에, 우측 망주석은 18-19세기에 조성된 것이다. 묘역을 새로 보수 정비하면서 타지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된다.

봉분은 쌍분이다. 우측 봉분 앞의 안윤덕 묘표는 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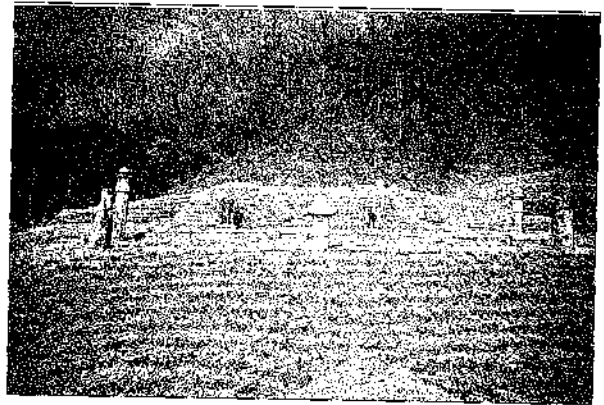


사진 21. 안윤덕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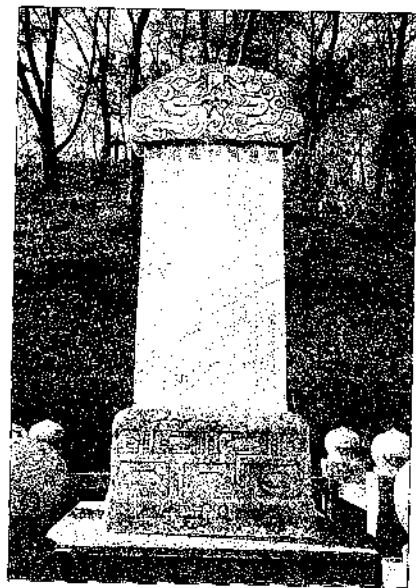


사진 22. 안윤덕 신도비

靖14年乙未(1535, 중종30)11月27日'에 입석하였으나 좌측 봉분 앞의 貞夫人 錦城羅氏 묘표는 건립연대가 새겨져 있지 않다. 그러나 중종대에 유행하던 방부하엽 양식을 따르고 있어, 안윤덕 묘표와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도비(총높이 274m)는 마을 입구의 소로변 좌측에 건립되어 있다. 方趺螭首 양식을 갖추고 있는데, 조각 솜씨가 매우 정교하여 당대를 대표할 만 하다. 이수 전면에는 구름속에서 여의주를 다투는 두 마리의 용(雙龍爭珠)을 생동감있게 조각하였고, 방부의 윗면에는 覆蓮을 四面에는 眼象과 蓮珠를 세밀하게 새겨 놓았다. 이수와 비신은 一枚의 백대리석을, 방부는 화강암

을 다듬어 사용하였다. 碑題를 ‘有明朝鮮國資憲大夫戶曹判書兼同知成均館事贈諡翼憲公安公神道碑銘并序’라 하여 신도비임을 밝히고 전액을 ‘翼憲公神道碑銘’이라 하였다. 비신(높이 159cm, 폭 84cm, 두께 19.5cm)의 앞면에만 새겨 놓은 비문은 刑曹判書 鄭士龍(1491-1570)이 撰하고 僉知中樞府事 金魯(1498-1548)가 書并篆額을 하였다. 조선중기 왕희지체의 대가였던 김로는 생전에 많은 비문을 썼으나 안윤덕신도비처럼 글씨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본 신도비는 우리나라 서예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건립 연대는 ‘皇明嘉靖27年(1548, 명종3)9月 日立’이다.

묘소 아래에는 5대손 時璽(1585-1666)의 묘소가 위치한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廣州安氏大同譜』, 1983

27. 李季通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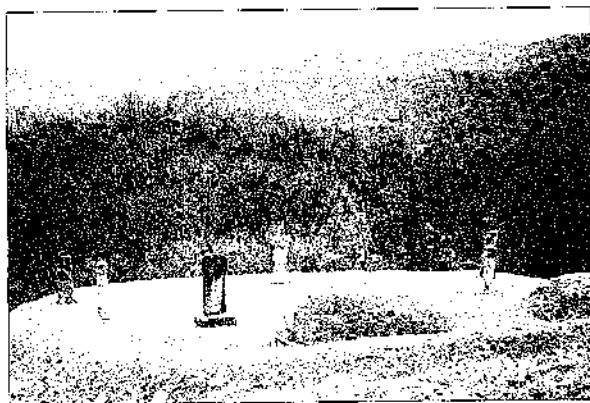


사진 23. 이계통 묘 전경

- 소재지 : 광주읍 중대리 산11-1임(지도1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李季通(1439-1491)은 成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咸安이고 자는 達而이며 副正을 지낸 興孫의 아들이다. 1472년(성종3) 문과에 합격하고 관직에 올라 사헌부감찰과 사간원정언을 지냈다. 이후 外職으로 나아가 益山郡守를 역임한뒤 司宰監副正에 이르렀다. 사후 이조참판에 증직되고 咸城君에 봉해졌다.

광주읍에서 산업도로를 타고 성남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장지리에 이르러 우측에 중합가구할인매장이 나타난다. 묘소는 가구매장 뒤편의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초장지는 산업도로 구간내에 있었으나 1976년 현재의 장소로 이장하였다.

묘역은 최근 새롭게 단장하여 옛 석물은 문인석 한 쌍만이 남아 있는데, 눈꼬리 끝이 위로 올라가는 양식상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봉분 우측에는 백대리석의 비신 전면에 ‘贈純忠補祚功臣嘉善大夫吏曹判書弘文館提學同知義禁府事 咸城君李公之墓 貞夫人全州柳氏之墓’라 써 놓은 방부이수 양식의 묘표가 건립되어 있다. 비신의 뒷면에 음기가 새겨져 있으나 마모가 극심하여 ‘正憲大夫吏曹判書…金安老(1481-1537) 撰’이라는 기사 외에는 판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묘소의 우측 구릉에는 掌樂院正에 추증된 5대손 時遇(1589-1645)의 묘소가 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咸安李氏大同譜』, 1980

28. 李世應 墓

- 소재지 : 광주읍 중대리 산11-1임(지도1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李世應(1473-1528)은 中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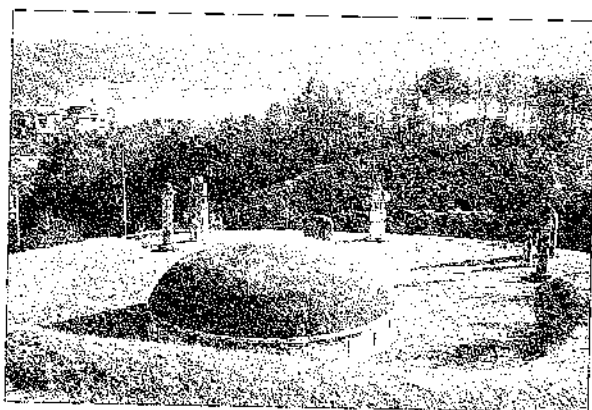


사진 24. 이세응 묘 전경

咸安, 자는 公輔, 호는 安齋이며 司宰監副正을 지낸 李通의 아들이다. 1501년(연산군7) 식년문과에 등과하고 관직에 올라 의정부사인을 지냈다. 1506년 中宗反正에 참여하여 靖國功臣에 책훈되고 咸陽君에 봉해졌으며 이후 이조참판을 거쳐 평안도관찰사에 이르렀다. 시호는 襄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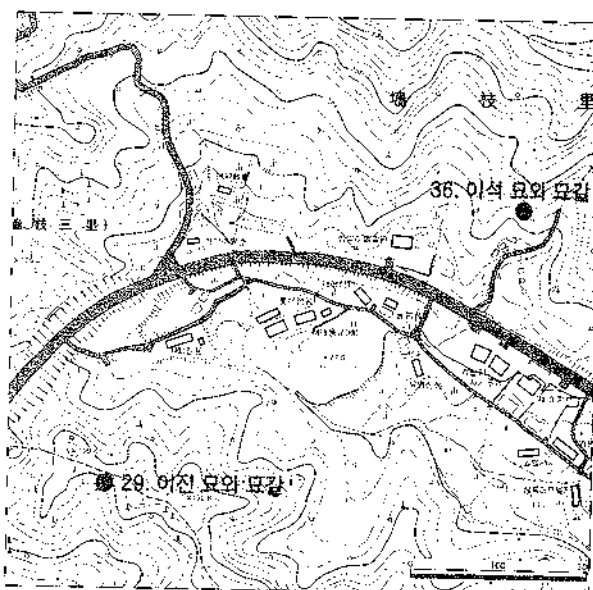
이계통 묘소의 좌측 구릉 끝자락에 묘소가 위치하며 그 앞으로 산업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방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장명등은 근래에 다시 마련하였다. 석물중 가장 이채로운 것은 직사각형의 향로석(높이 20cm, 폭 68cm, 두께 42.5cm)으로, 전체 모양이 대모(玳瑁) 교자상과 비슷하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형태의 향로석으로 석물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또한 봉분 앞에 세워진 묘표(총높이 185cm)의 이수 앞면에는 구름속에서 한 마리 용이 여의주를 갖고 노는 모습을(單龍弄珠) 조각하였으며 방부에는 覆蓮과 唐草紋을 새겨 놓았다. 백대리석의 비신 전면에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知義禁府事世子左賓客行齊義靖國功臣嘉善大夫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平壤府尹咸安君李襄簡公之墓 貞夫人慶州金氏 葬于東阿榮異室이라 썼으며 뒷면에는 '嘉靖7年戊子(1528, 중종23)閏10月28日葬于廣州葛麻里靈長山予坐午向之原'이라 새겨 놓았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咸安李氏大同譜』, 1980

『가마와 소반』, 1995,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29. 李震 墓와 墓碣



지도 12. 이진 묘와 묘갈 위치도(수원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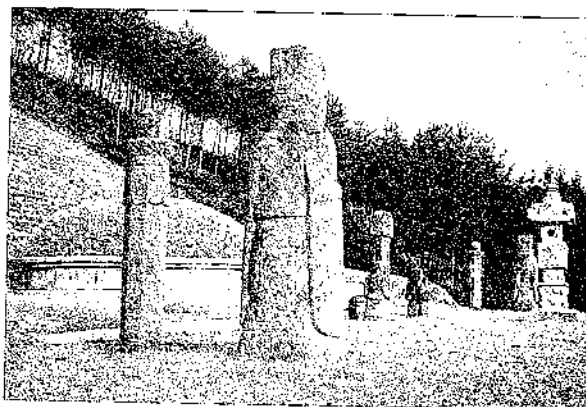


사진 25. 이진 묘와 묘갈 전경

□ 소재지 : 광주읍 중대2리 산10-6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李震(1500-1573)은 宣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咸安, 자는 伯胤이며 이조참판을 지낸 世應의 아들이다. 1597년(선조30)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예문관검열과 승정원주서를 지냈으나, 乙巳士禍(1545)에 연루되어 충청도 泰安에서 21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 이후 放還되어 의정부사인을 역임하고 三陟府使에 이르렀다.

증말에서 광주·성남간 산업도로와 연결되는 소로를 타고 북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우측으로 영장산 구릉의 중턱에 南向으로 자리잡은 이진의 묘소가 나타난다. 묘역은 새로 단장하여 원형이 많이 변형되었으나 향로석, 망주석, 동자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금관조복을 착용한 문인석은 얼굴의 아래 부분과 笏이 서로 붙어 있고, 폐슬과 후수에 운문을 새기는 등 宣祖代의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봉분 우측에 세워져 있는 묘갈은 방부이수의 양식이나 이수 앞면에 새겨진 雙龍爭珠의 조각은 정교하지 못한 편이다. 이수와 비신은 대리석을, 방부는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비신의 전면에는 '通政大夫行三陟都護府使江陵鎮管兵馬同僉節制使李公之墓 淑夫人密陽朴氏 葬于東' 이라 썼다. 비신의 뒷면 상단에 올린 '行府使李公墓碣'이라는 전액을 통해 비석의 종류가 묘갈임을 알 수 있다. 묘갈문은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어려우나 족보에 의하면 礪城尉 宋寅(1516-1584)이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립 연대는 '萬曆3年乙亥(1575, 선조8)4月'이다. 비문과 전액을 쓴 사람은 미상이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咸安李氏大同譜』, 1980



사진 26. 안한준 묘 전경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安漢俊은 中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廣州, 자는 延臣이며 翼惠公 潤德의 아들이다. 海州牧使와 安東府使를 역임하였으나 생몰년은 미상이다.

묘소는 안윤덕 묘소의 우측 구릉에 자리잡고 있으며, 묘역 아래에는 忠陽祠라는 사당이 신축되어 있다.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망주석, 장명등, 문인석, 묘표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으며 봉분은 쌍분으로 꾸며져 있다. 좌측 봉분 앞의 묘표 전면에는 '通訓大夫安東大都護府使安東鎮兵馬僉節制使安公之墓'라 되어 있고, 우측 봉분 앞의 묘표 앞면에는 '淑人高麗申氏之墓'라 쓰여져 있다. 모두 方趺荷葉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음기와 건립연대는 없다. 그리고 묘역 중앙에 세워져 있는 장명등은 화사석을 망실한 상태이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廣州安氏大同譜』,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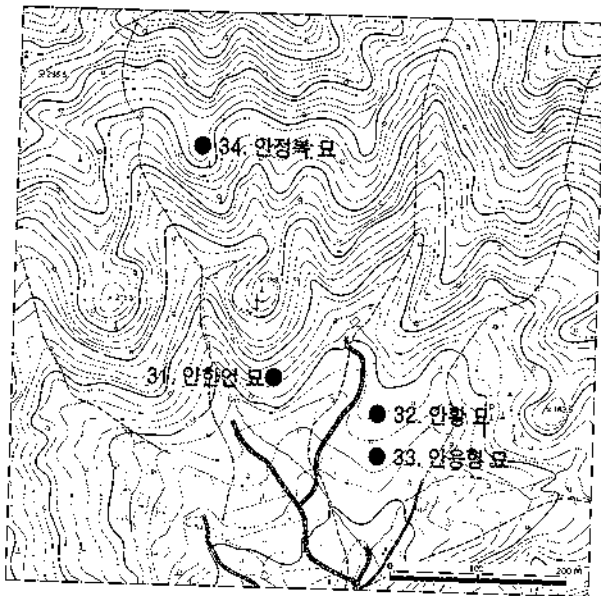
30. 安漢俊 墓

□ 소재지 : 광주읍 중대1리 산15-2임(지도11 참조)

31. 安漢彦 墓

□ 소재지 : 광주읍 중대1리 산15-2임

□ 시 대 : 조선시대



지도 13. 안한연 묘 위치도(수원 039)



사진 27. 안한연 묘 전경

□ 종 류 : 묘

□ 내 용

安漢彦은 中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廣州, 자는 延老이며 翼惠公 潤德의 아들이자 안동부사를 지낸 漢俊의 동생이다. 江華都護府使를 역임하였으며 사후 司僕寺正을 증직받았다. 생몰년은 미상이다.

묘소는 영장산 줄기가 남으로 뻗어내린 텃골 마을의 뒷산 구릉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내에는 상석, 향로석, 망주석, 장명등, 동자석, 문인석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으며 봉분 앞에 묘표가 세워져 있다. 상석은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장명등(높이 91cm)은 화사석을 망실한 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동자석(높이 76cm)은 토사에 많이 매몰되어 있다. 묘역의 좌우에 서 있는 문인석(높이 161cm)은 금판조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앞면의 蔽膝에는 雲紋을, 뒷면의 後綬에는 鶴을 조각하였다. 뒷면의 후수 문양은 매우 희귀한 예로, 문인석의 복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方趺圓首 양식의 묘표(총높이 154cm) 전면에는 '通訓大夫行江華都護府使長湍鎭管兵馬司僉節制使兼監牧安公之墓'라 쓰여져 있으며 음기와 건립 연대는 새겨져 있지 않다.

묘소 아래에는 安東判官을 지낸 彭老의 묘소가 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廣州安氏大同譜』, 1983

32. 安湏 墓와 神道碑

□ 소재지 : 광주읍 중대1리 산15-2임(지도13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安湏(1549-1593)은 宣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廣州이고 자는 景浩이며 驪州牧使를 지낸 汝敬(1523-1585)의 아들이다. 또한 德興大院君의 사위이자 宣祖大王의 妹夫이다. 덕흥대원군의 따님과 혼인한후 三品官으로 특진하여 司導寺正을 지냈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敦寧府都正으로써 왕을 扈從하여 義州로 가던 도중, 평안도 江西縣의 客館에서 病死하였다. 사후 扈聖功臣과 廣陽君에 봉해졌다.

묘소는 안한연 묘소의 우측 구릉 끝자락에 南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나, 최근 묘역을 새롭게 단장하여 원형이 많이 변형된 상태이다. 쌍분에는 직사각형의 호석을 각각 두르고 그 앞으로 1997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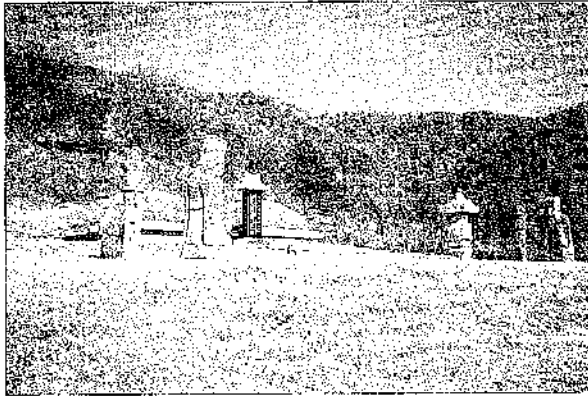


사진 28. 안향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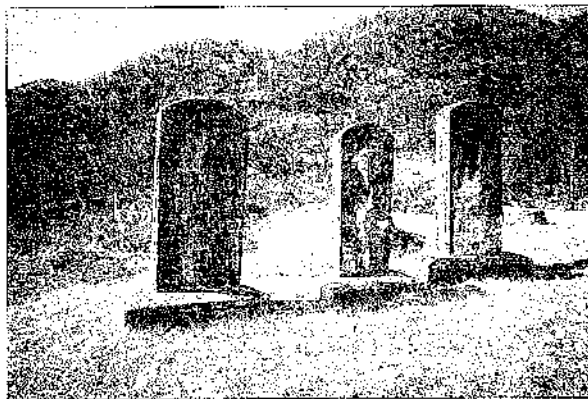


사진 29. 광주안씨 비석군(左: 안향신도비, 中: 안향 묘표, 右: 안여경 묘표)

새로 만든 묘비를 세워 놓았다.

원래의 묘표(총높이 160cm)와 신도비(총높이 180cm)는 묘소의 좌측 아래에 아버지 여경의 구묘표와 함께 나란히 세워져 있다. 方趺圓首 양식의 묘표 앞면 중앙에는 한 줄로 贈忠勤貞亮效節協策慰聖功臣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義禁府事廣陽君行嘉善大夫敦寧府都正安公之墓라 小楷로 쓰여져 있으며 음기와 전립연대는 없다. 동일한 양식을 갖춘 신도비는 대리석의 비신이 검게 산화되었으며 비문의 마모가 심한 상태이다. 비신의 前面에만 새겨진 비문은 晉原府院君 柳根(1549-1627)이 撰하고 忠武衛司猛 金玄成(1542-1621)이 書하였으며 同知敦寧府事 柳希亮(1575-1628)이 篆을 올렸다. 전액은 贈刑曹判書安公神道碑銘이라 하여 신도비임을 밝히고 있고, 입석 연대는 萬曆48年(1620, 광해군12)月 日 立이다.

묘소 아래에는 아버지 汝敬의 묘소가 위치한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廣州安氏大同譜』, 1983

33. 安應亨 墓



사진 30. 안응형 묘 전경

□ 소재지 : 광주읍 중대1리 산15-2임(지도13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安應亨(1578-1655)은 孝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廣州, 자는 叔嘉, 호는 靜齋이며 廣陽君 滉의 아들이자 영의정 李山海(1538-1609)의 사위이다. 1606년(선조39)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사헌부지평, 홍문관수찬을 지냈으며 外職으로 평안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奏文上使로 청나라의 燕京에 다녀왔으며 1654년(효종5) 대사헌을 거쳐 호조판서에 이르렀다.

묘소는 할아버지 汝敬의 묘소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방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최근에 장명등을 새로 마련하였다. 그리고 봉분에는 원형의 호석을 둘렀다. 또

한 묘역의 좌우에 세워져 있는 문인석(높이 194cm)은 금관조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신체의 비례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 봉분 앞에 있는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 높이 180cm) 전면에는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 世子貳師知 經筵春秋館事行嘉義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副總管安公諱應亨之墓 貞敬夫人韓山李氏附'라 썼으며 음기와 건립 연대는 없다. 비신은 백대리석을 사용하였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廣州安氏大同譜』, 1983

부사를 거쳐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으며 廣成君에 봉해졌다. 이익의 학문을 계승하여 조선후기 3대 私撰 역사서의 하나인 『東史綱目』을 저술하였다. 시호는 '文肅'이다.

묘소는 안한연 묘소가 자리잡은 구릉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묘비를 비롯한 모든 석물을 최근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묘역 주위로 곡장을 쌓았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廣州安氏大同譜』, 1983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34. 安鼎福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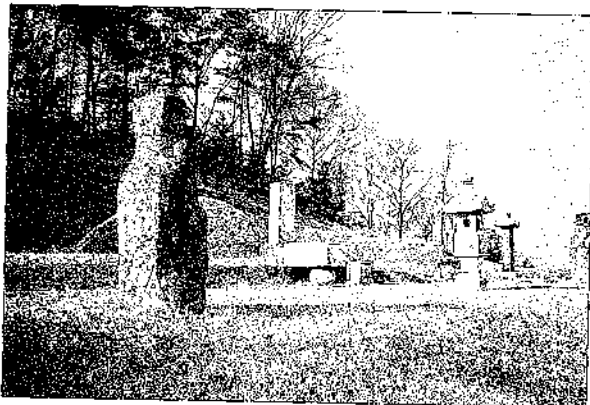


사진 31. 안정복 묘 전경

□ 소재지 : 광주읍 중대1리 산15-2임(지도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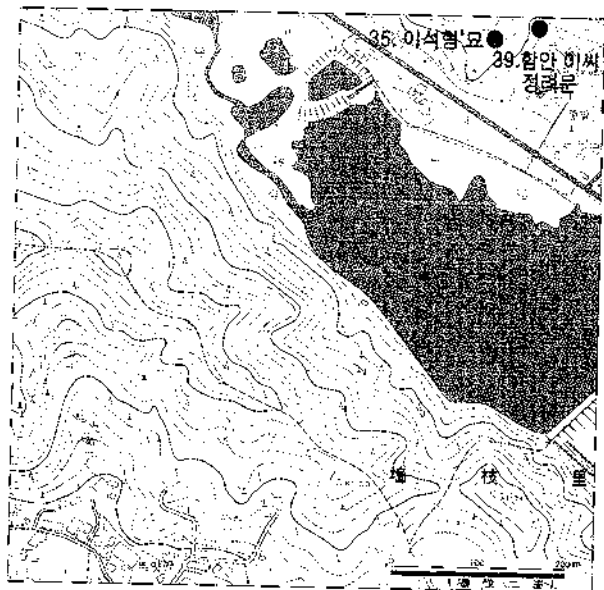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안정복(1712-1791)은 英 · 正祖代의 학자로 본관은 廣州, 자는 百順, 호는 順菴이며 호조참판을 지낸 極의 아들이자 星湖 李瀾(1681-1763)의 문인이다. 1773년(영조49) 世子翊衛司衛率에 재직할때 世孫(정조)을 輔導하였으며, 외직으로 충청도 木川縣監에 나아가 善政을 베풀었다. 이후 돈령부주부와 첨지중추

35. 李碩亨 墓



지도 14. 이석형 묘 위치도(수원 049)

□ 소재지 : 광주읍 중대2리 산11-6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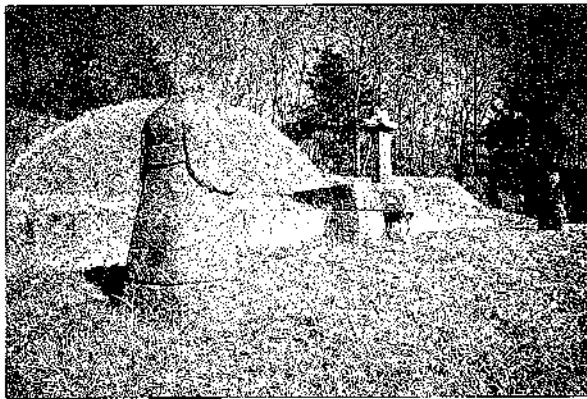


사진 32. 이석형 묘 전경

이석형(1534-?)은 宣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咸安, 자는 君會이며 三陟府使를 지낸 震의 아들이다. 1568년(선조1) 진사에 합격하고 관직에 진출해 別提를 지냈다. 임진왜란때 歙谷縣令으로서 판아를 지키다가 위험에 빠지자 큰아들 鬯과 둘째 아들 旻이 몸으로써 아버지를 구하고 왜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참극을 겪었다. 왜란후 조정에서 두 아들에게 증직을 내리고 旌褒하였다.

광주읍에서 389번 도로를 타고 성남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좌측으로 홍충저수지가 나타나고 저수지를 거의 지나갈 무렵 우측으로 1957년에 세운 襄簡公李世應神道碑가 나타난다. 묘소는 신도비 뒤편의 함안 이씨 세장지내에 南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동자석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다. 동자석(높이 105cm)은 어깨가 좁고 발 부분이 넓어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사각 향로석(높이 46cm)의 다리는 雲尾으로 조각되어 있다. 1979년에 새로 만든 묘비는 봉분 우측에 세워 놓았는데, 眼象이 새겨진 방부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이다. 비신 전면엔 '通訓大夫行 歙谷縣令 咸安李公碩亨之墓 配淑人高靈市氏祔'라 써 놓아 피장자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

묘소 좌측에는 큰아들 鬯(?-1598)의 묘소가 위치한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咸安李氏大同譜』, 1980

36. 李 柘 墓와 墓碣



사진 33. 이석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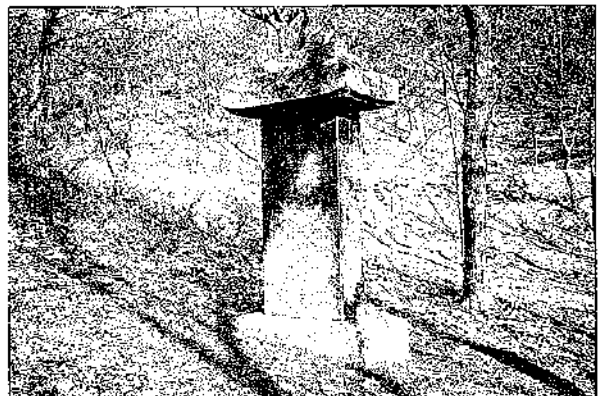


사진 34. 이석 묘갈

- 소재지 : 광주읍 장지3리 산48-1임(지도12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李柘(1627-1682)은 肅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德水이다. 처음 이름은 積, 자는 仲車였는데 만년에 柘과 重舉로 고치었다. 예조참판을 지낸 景憲(1585-1651)의 아들로 1663년(현종4) 진사가 되고 관직에 진출하여 氷庫別檢을 제수받고 이어 공조좌랑을 지냈다. 이후 외직으로 나아가 淸道군수를 거쳐 梟州목사

에 이르렀다.

광주읍에서 성남 방향으로 산업도로를 타고가다 보면 장지리에 이르러 우측으로 꽃시름농장이 나타난다. 묘소는 농장 뒤편의 경사가 가파른 산자락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방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다. 당대에 조성된 문인석(높이 90cm)은 키가 매우 작고 몸에 비해 얼굴이 긴 편이며 향로석은 좀 더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봉분 우측에 있는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 전면에는 피장자의 신분을 알리는 글귀만 쓰여져 있을 뿐, 음기와 건립연대는 없다.

묘역의 우측 아래에는 方趺蒸石 양식의 묘갈(총높이 약 219cm)이 건립되어 있다. 碣題는 朝鮮通訓大夫星州牧使尙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李府君 墓碣銘并序' 이고 判中樞府事 朴世堂(1629-1703) 撰, 兵曹參議 李德成(1655-1704) 書, 弘文館副提學 金鎮圭(1658-1716) 篆이며 전액은 '贈吏曹參判星州牧使李公墓碣'이다. 비신(높이 140cm, 폭 64.5cm, 두께 27cm)의 四面에 비문을 각자하였고 건립 연대는 '今上即位之29年癸未(1703, 숙종29)5月 日 立'이다. 묘갈문에 의하면 초장자는 忠州 黃金山이었으며 1683년(숙종9) 현재의 장소로 이장하였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京畿金石大觀』2, 1987, 경기도

37. 麗澤齋

□ 소재지 : 광주읍 중대1리 대197-2(지도11 참조)

□ 시 대 : 현대

□ 종 류 : 기타 유적

□ 내 용

덧골 마을내에 위치하는 麗澤齋는 조선 正祖代의 문신이자 학자인 順庵 安鼎福(1712-1791)이 후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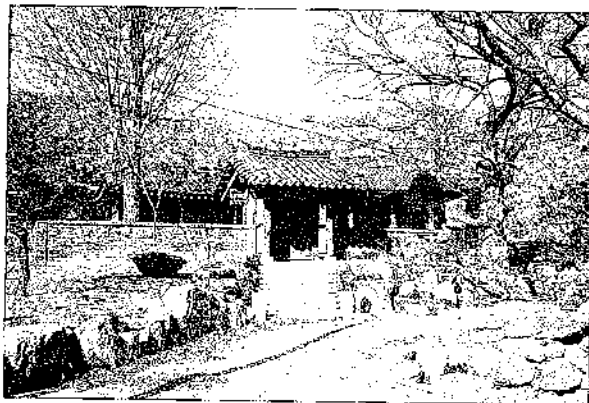


사진 35. 여택재 전경

양성하며 講學하던 곳으로 근래에 새로 重修를 하였다. 건물은 대문인 靈長門과 본채인 여택재 그리고 思齋 堂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여택재 현판은 후손 安秉淳이 썼다. '麗澤'이란 단어는 벗 끼리 서로 도와 학문을 닦고 수양에 힘쓰는 것을 말하는데, 『易經』의 '麗澤兌, 君子以朋友講習'이라는 구절에서 처음 쓰인 말이다. 여택재의 우측에는 1995년에 조성한 '文肅公順庵安鼎福先生崇慕碑'와 '안정복강학소터'라는 표석이 세워져 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38. 忠陽祠



사진 36. 충양사 전경

□ 소재지 : 광주읍 중대1리 산15-2(지도11 참조)

□ 시 대 : 현대

□ 종 류 : 사당

□ 내 용

텃골 마을내에 위치하는 忠陽祠는 安滌(1549-1593)의 不遷之位를 모시는 사당으로 근래에 건축하였다. 텃골에는 수백년을 내려오는 광주안씨의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思簡公 安省(?-1421), 翼憲公 安潤德(1457-1535)을 비롯한 수십 기의 광주안씨 묘소가 자리잡고 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39. 咸安李氏 旌閭門



사진 37. 함안이씨 정려문 전경

□ 소재지 : 광주읍 중대2리 107-1대

□ 시 대 : 현대

□ 종 류 : 정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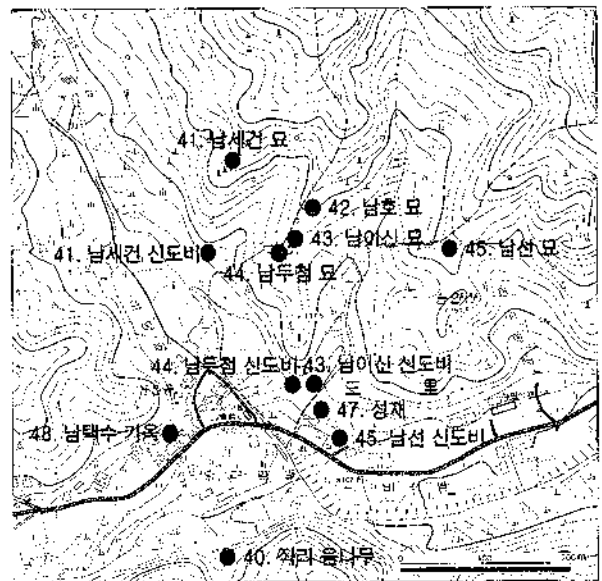
□ 내 용

홍중저수지 옆의 389번 도로를 타고 성남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우측으로 襄簡公李世應神道碑(1957)가 나타난다. 정려문은 신도비 뒤쪽의 함안이씨 선산내에 위치한다. 정면 3칸, 옆면 1칸의 맞배지붕을 갖춘 건물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많이 퇴락한 모습이다. 처

마 끝에는 임진왜란때에 아버지를 구하려다 화를 입은 효자 李穉과 그를 따라 죽은 부인 完山李氏 그리고 아들 時遇의 정려문 현판이 걸려 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40. 直里 음나무



지도 15. 직리 음나무 위치도(수원 038·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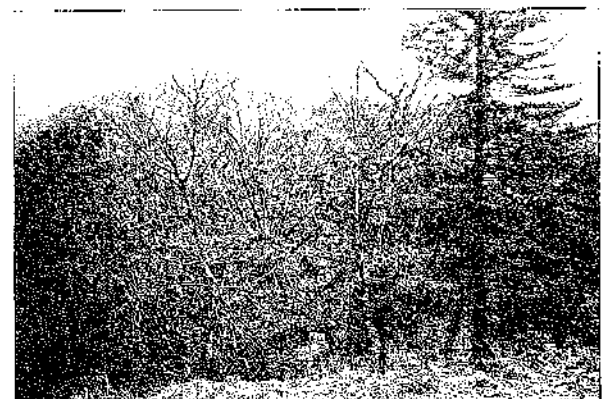


사진 38. 직리 음나무 전경

□ 소재지 : 광주읍 직리 28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적리 골은골의 남쪽 야산 끝자락에 위치한다. 음나무의 수령 310년, 나무키 27m, 나무둘레 3.7m, 수목면적 25㎡으로 1983년 3월 10일 군나무로 지정되었다. 주변에 잡목이 많아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렵다. 매년 9월이 되면 온 마을 주민이 모여 도당굿을 하고 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지정번호 : 경기광주 1

▶ 참고문헌 : 『광주군지』, 1990, 광주군

41. 南世健 墓와 墓碑



사진 39. 남세건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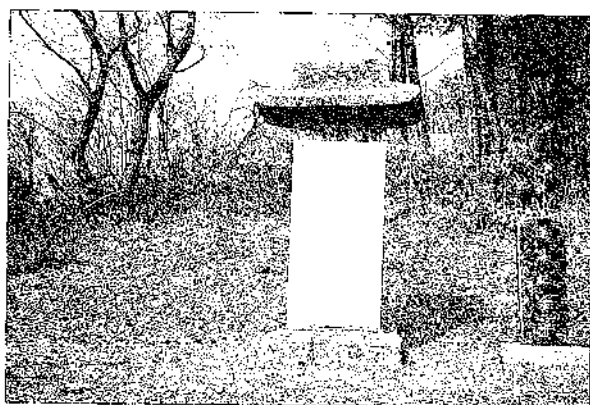


사진 40. 남세건 묘비

□ 소재지 : 광주읍 적리 산20임(지도15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南世健(1484-1552)은 明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宜寧이고 자는 伯順이며 군수를 지낸 (1454-1499)의 아들이다. 1507년(중종2) 진사에 합격하고 음서로 관직에 올라 敬陵殿參奉을 지냈으며, 1524년(중종19) 문과에 급제하고 直提學과 大司成을 거쳐 예조참판에 이르렀다.

묘소는 골은골의 의령남씨 세장지내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는 성남시에 있었으나, 1971년 도시확장으로 인해 宗山이 있는 현 위치로 이장하였다. 옛 석블로는 문인석과 방주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문인석(높이 216cm)은 균형잡힌 몸매에 얼굴을 사실적으로 조각한 우수한 작품이며, 장명등(높이 190cm)은 후대에 화사석을 보수하였다. 묘역 좌측에 세워진 方趺圓首 양식의 묘표(총높이 150cm)는 음기와 입석 연대가 없지만 당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신의 앞면에 '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官南世健之墓 貞夫人星州李氏 于'라 쓰여져 있다.

묘역 입구에 세워진 墓碑(총높이 약 265cm)는 方趺蓋石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 비신은 회청색의 대리석을, 방부와 개석은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碑題를 '有明朝鮮國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經筵春秋館事南公某碑銘并序'라 하여 묘비임을 밝히고 있으며 篆額을 '禮曹參判南公之墓碑'라 하였다. 또한 비문은 비신(높이 183cm, 폭 79cm, 두께 17cm)의 앞면에만 刻字하였고 兵曹判書 金貴榮(1519-1593)撰, 禦侮將軍 李 礪書, 男 戶曹參判 應雲(1509-1587)이 篆을 하였다. 건립 연대는 '萬曆4年(1576, 선조9)5月 日立'이다. 비제와 전액의 명칭을 墓碑라 하였지만 신도비의 성격을 가진 비석이다. 조선중기까지 신도비의 명칭을 묘비와 혼용한 예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묘소 위로는 할아버지 僞과 아버지 忭의 묘소가 있으며 아래에는 손자 琛(1539-1596)의 묘소가 자리잡고 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南氏大同譜』, 1979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42. 南璈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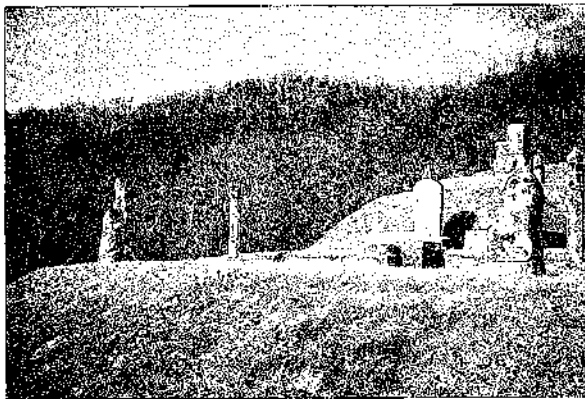


사진 41. 남호 묘 전경

□ 소재지 : 광주읍 직리 산20임(지도15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南璈(1536-1585)는 宣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宜寧이고 자는 仲猷이며 예조참판을 지낸 應雲의 아들이다. 1568년(선조1) 司馬試에 합격하고 음서로 벼슬길에 올라 開城府都事를 역임하였다.

묘소는 세건 묘소의 우측 구릉에 자리잡은 以仁(璈의 장남으로 관직은 察訪을 지냈다)의 묘소 아래에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봉분에는 가로 472cm, 세로 477cm의 호석을 돌렸다. 문인석(높이 200cm)의 얼굴의 수염과 笏을 잡은 손가락을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봉분 앞에 세워져 있는 方趺圓首 양식의 묘표(총 높이 173cm)는 陰記의 表題를 '有明朝鮮國贈資憲大

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行中訓大夫開城府都事南公墓表'라 하여 묘표임을 밝히고 있다. 아들인 副提學 以恭(1565-1640)이 謹表하였으며, 입석 연대는 '萬曆 40年(1612, 광해군4)9月 日立'이다. 묘역 입구에는 1979년에 새로 조성한 신도비가 건립되어 있다.

묘소의 우측 구릉에는 5대손인 進士 浚明(1654-1689)의 묘소가 위치한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南氏大同譜』, 1979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43. 南以信 墓와 神道碑



사진 42. 남이신 묘 전경



사진 43. 左 : 남두첨 신도비, 右 : 남이신 신도비

- 소재지 : 광주읍 직리 산20임(지도15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南以信(1562-1608)은 宣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宜寧이고 자는 子有이며 호는 直谷이다. 開城府都事를 지낸 璒의 아들이자 대사헌을 지낸 丁胤福(1544-1592)의 사위이다. 1588년(선조21) 進士가 되고 2년 후 증광문과에 합격하여 承政院假注諡가 되었으며 대사간을 거쳐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묘소는 아버지 璒의 묘소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설치하였다. 모두 宣祖代 말기의 양식을 보이는데, 특히 문인석(높이 190cm)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衣褶線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봉분 앞에 세워진 方趺圓首 양식의 묘표(총높이 192cm) 앞면에는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行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春秋館事南公以信之墓 貞敬夫人羅州丁氏 祔'라 되어 있으며, 음기와 건립연대는 없다.

묘역 입구에 세워진 신도비(총높이 약 281cm)는 '崇禎戊辰周甲後癸未(1703, 숙종29)4月 日'에 건립한 것으로 당시 유행하던 方趺蓋石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방부에는 아무런 문양도 새기지 않았고 개석도 팔각 지붕 형태만 간략히 표현하였다. 장식정보다는 비문 보호의 기능을 최대한 강조시킨 양식이다. 비신(높이 183cm, 폭 81cm, 두께 29cm)의 前後面에 각자한 비문은 大司成 金蓍國(1577-1655) 撰, 玄孫 漢明(1668-1736) 書, 曾孫 至薰(1653-1718)이 篆하였고 追記는 증손 致薰(1645-1716)이 記하였다. 전액은 '贈領議政行兵曹參判南公神道之碑'라 되어 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南氏大同譜』, 1979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44. 南斗瞻 墓와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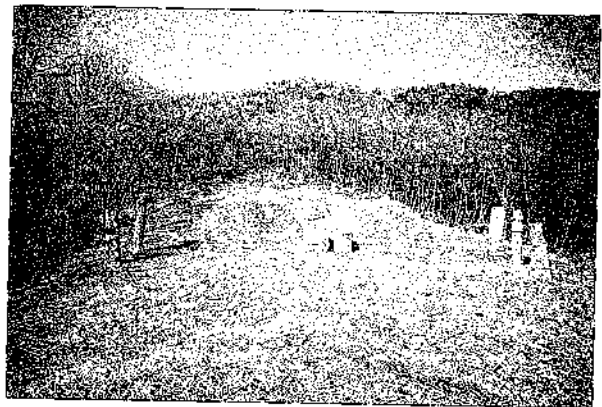


사진 44. 남두침 묘 전경

- 소재지 : 광주읍 직리 산20임(지도15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남두침(1590-1656)은 孝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宜寧이고 자는 汝昂이며 호는 醒窩이다. 병조참판 以信의 아들이며 우의정을 지낸 韓應寅(1554-1614)의 사위이다. 1616년(광해군8)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진출하여 忠州목사를 지내고 海州牧使를 거쳐 兵曹參知에 이르렀다.

묘소는 아버지 以信의 묘소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갖추었는데, 상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대에 조성한 것이다. 효종대(1649~1659)에는 北伐 운동으로 인해서 사회 분위기가 매우 긴박하던 시대였다. 당시 宋時烈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은 왕실의 陵과 사대부의 묘역을 호화롭게 꾸미는 것을 억제하고, 검소하게 꾸미는 薄葬을 권유하였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斗瞻의 석물도 대부분 소규모로 조성되었는데, 특히 문인석의 규모(높이 140cm)는 동자석과 비슷할 정도로 크게 축소되었다. 봉분 우측에 세워진 方趺圓首 양식의 묘표(총높이 168cm) 앞면에는 贈資憲大夫吏曹判書行通政大夫兵曹參知南公斗瞻之墓 贈貞夫

人光州金氏 附右 贈貞夫人清州韓氏 附左'라 쓰여져 있고, 음기와 건립연대는 없다.

묘역 입구의 남이신신도비 좌측에 건립된 남두첨신도비(총높이 약 281cm)는 비문을 判中樞府事 姜栢年(1603-1681)이 撰하고 曾孫 漢明(1668-1736)이 書并篆하였으며 追記는 孫 致薰(1645-1716)이 識하여 비신(높이 183cm, 폭 81cm, 두께 29cm)의 前後面에 刻字하였다. 또한 전액은 '贈吏曹判書行兵曹參知南公神道碑銘'이며 입석 연대는 '崇禎紀元後71年甲午(1714, 숙종40)2月 日'이다. 남이신신도비와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조성되었다.

묘소 아래에는 아들 翺의 묘소가 위치한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南氏大同譜』, 1979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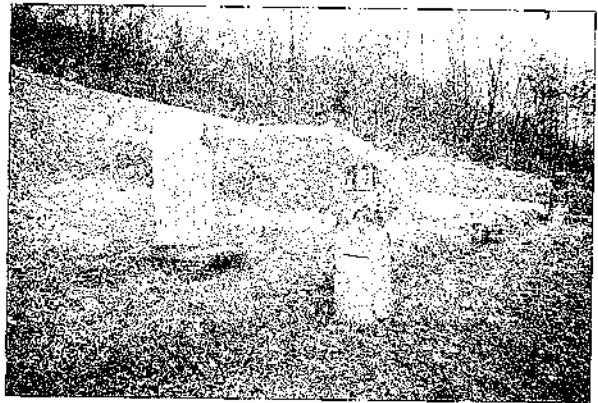


사진 45. 남선 묘 전경



사진 46. 남선 신도비

45. 南翺 墓와 神道碑

□ 소재지 : 광주읍 직리 산20임(지도15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南翺(1609-1656)은 孝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宜寧, 자는 伯圖, 호는 滄溟이며 병조참지 斗瞻(1590-1656)의 아들이다. 1636년(인조14)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진출하여 승지를 지내고, 外職으로 나아가 여주와 충주목사를 거쳐 경상도관찰사에 이르렀다.

묘소는 아버지 두점 묘소에서 동쪽으로 바라다 보이는 능안산(151.8m)의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문인석(높이 151cm)의 옛 석물을 갖추었으며 망주석은 세우지 않았다. 또한 원래의 상석은 우측 문인석 뒤로 옮겨 놓고, 후대에 만든 상석

을 봉분 앞에 배치하였다. 봉분 좌측에 세워진 묘표(총높이 167cm)의 음기에는 표제를 '朝鮮國 贈嘉善大夫 吏曹參判·行通政大夫守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 節度使南公崇表'라 하여 묘표임을 밝히고 男 益薰(1640-1693) 泣血記에 前星州牧使 柳以升(1638-?)이 書하였다. 건립연대는 '崇禎紀元後64年辛未(1691, 숙종17)月 日'이다.

신도비(총높이 약 269cm)는 묘역 입구에 새로 신축한 의령남씨 재실(誠齋) 우측의 과수원 옆에 건립되어 있다. 비문은 비신(높이 175cm, 폭 79cm, 두께 28.5cm)의 앞뒤면에 刻字하였는데 禮曹參判 申濡(1610-1665) 撰, 曾孫 同副承旨 泰耆(1699-1763) 書, 曾孫 廣州府尹 泰溫(1691-1755) 篆으로 追記는 曾孫 泰良(1695-1752)이 識하였다. 전액은 '贈吏曹參判 行慶尙道觀察使南公神道碑銘'이며 건립 연대는 '崇

禎紀元後再己巳(1749, 영조25)3月 日'이다. 양식은 남이신, 남두첨신도비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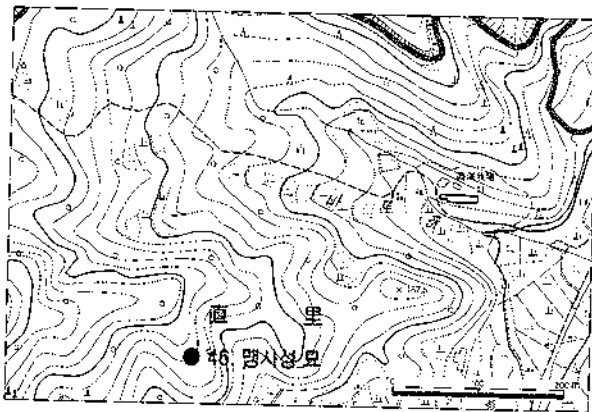
묘소 좌측에는 從父인 參奉 斗望의 묘소가 있으며, 우측 구릉에는 아들인 義禁府都事 聖熏(1630-1664)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南氏大同譜』, 1979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46. 孟思誠 墓



지도 16. 맹사성 묘 위치도(수원 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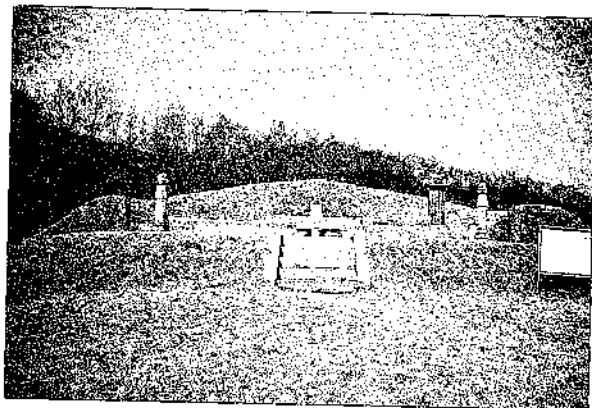


사진 47. 맹사성 묘 전경

□ 소재지 : 광주읍 직리 산27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孟思誠(1360-1438)은 世宗代의 명재상으로 본관은 新昌이고 자는 自明이며 호는 古佛이다. 修文殿提學을 지낸 希道の 아들이고 고려말의 명장 崔瑩(1316-1388)의 손녀사위이자 陽村 權近(1352-1409)의 門人이다. 1386년(우왕12)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春秋館檢閱을 지냈으며 조선 개국후에도 계속 出仕하여 각조의 판서를 지낸뒤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청렴결백하여 清白吏에 錄選되었으며 시호는 文貞이다. 황희와 함께 세종대왕을 잘 보필하여 조선초기의 사회 안정과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묘소는 땃산(413.5m)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내려 형성한 땃골 골짜기의 뒷산 중턱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묘역은 근래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원형이 많이 변형된 상태이며 당대에 조성한 석불은 문인석(높이127cm)뿐이고 나머지는 최근에 마련한 것이다. 문인석은 세종대의 양식을 갖추고 있으나, 다른 세종대의 문인석보다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봉분에는 가로 406cm, 세로 527cm의 호석을 들렀으며, 그 앞으로 力趺荷葉 양식의 단정한 묘표(총높이 91cm)를 세워 놓았다. 비신의 앞면에는 '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集賢殿經筵春秋館事兼判吏曹事 世子傳贈諡文貞孟公之墓'라고 당시 유행하던 松雪體로 유려하게 썼으며, 뒷면에는 '皇明正統3年戊午(1438, 세종20)12月 日立石'이라 새겨 놓았다. 양식이 뛰어나고 연대가 분명하여 조선초기 碑碣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묘역 우측의 묘비는 1959년에 건립한 것이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비 고 : 경기도기념물 제21호

▶ 참고문헌 : 『京畿金石大觀』5, 1992, 경기도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재대관』-도지정편-, 1998,

경기도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47. 誠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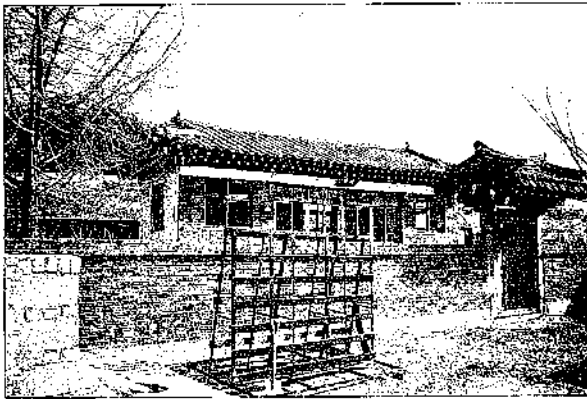


사진 48. 성재 전경

□ 소재지 : 광주읍 직리 대168-3(지도15 참조)

□ 시 대 : 현대

□ 종 류 : 사당

□ 내 용

골은골 마을내에 위치하는 誠齋는 宜寧南氏의 사당으로 근래에 지어진 건물이다. '誠齋'라 쓰여진 현판은 1976년 10월에 후손 南相集이 쓴 것이다. 골은골 뒷산에는 예조참판 南世健(1484-1552), 병조참지 南斗瞻(1590-1656), 병조참판 南以信(1562-1608)을 비롯한 수십 기의 의령남씨 묘소가 산재해 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48. 남택수 가옥

□ 소재지 : 광주읍 직리(골은골)(지도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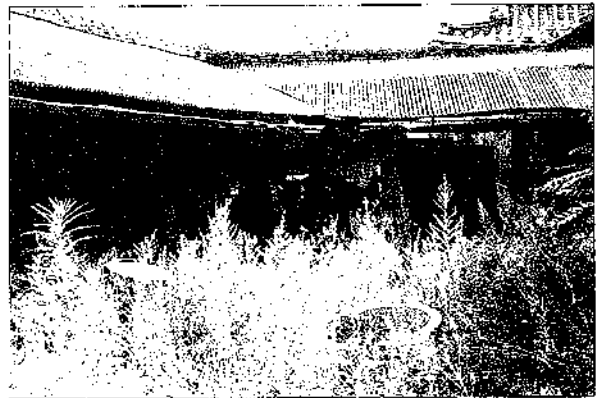


사진 49. 남택수 가옥 전경

□ 시 대 : 근대

□ 종 류 : 고가

□ 내 용

안채상량문(大清光緒七年辛巳十月二十日未時立柱上樑)의 기록으로 보아 1881년에 건축된 가옥으로 바깥채는 안채건립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마을에서는 가장 오래된 가옥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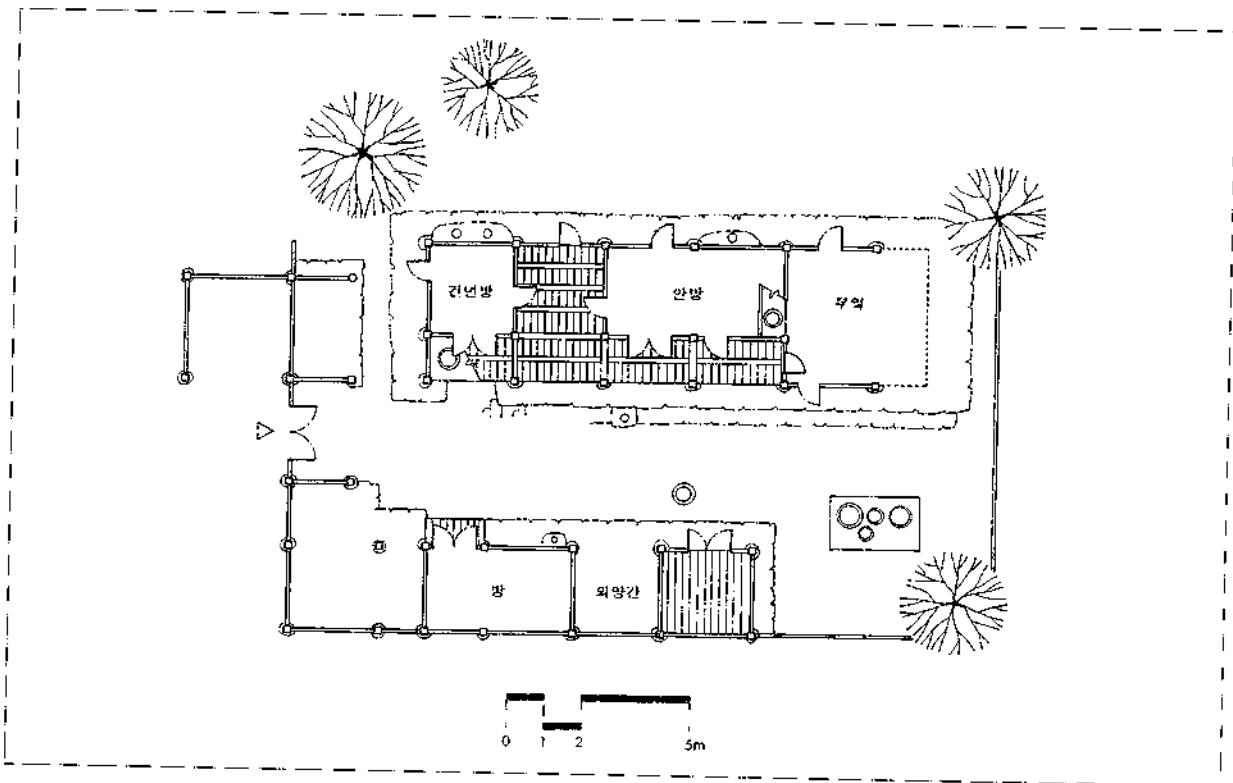
전물의 상태는 그 건축시기에 비해 보존이 잘 되어 있는 편이나 빈집으로 가옥이 방치되어 있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ㅡ자형의 안채와 ㄱ자형의 바깥채가 좁고 긴 ㅡ자형의 마당을 가운데 두고 전체적으로 ㄷ자형의 배치를 하고 있다.

가옥이 약간의 경사지에 배치되어 있어 안채 전면은 2단의 기단으로 자연석으로 이루어져있고 전체적으로 산 중턱에서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배치되어 있다. 마당은 흙마당으로 남아있고, 주변마당은 방치되어 있는 관계로 수풀이 우거져서 황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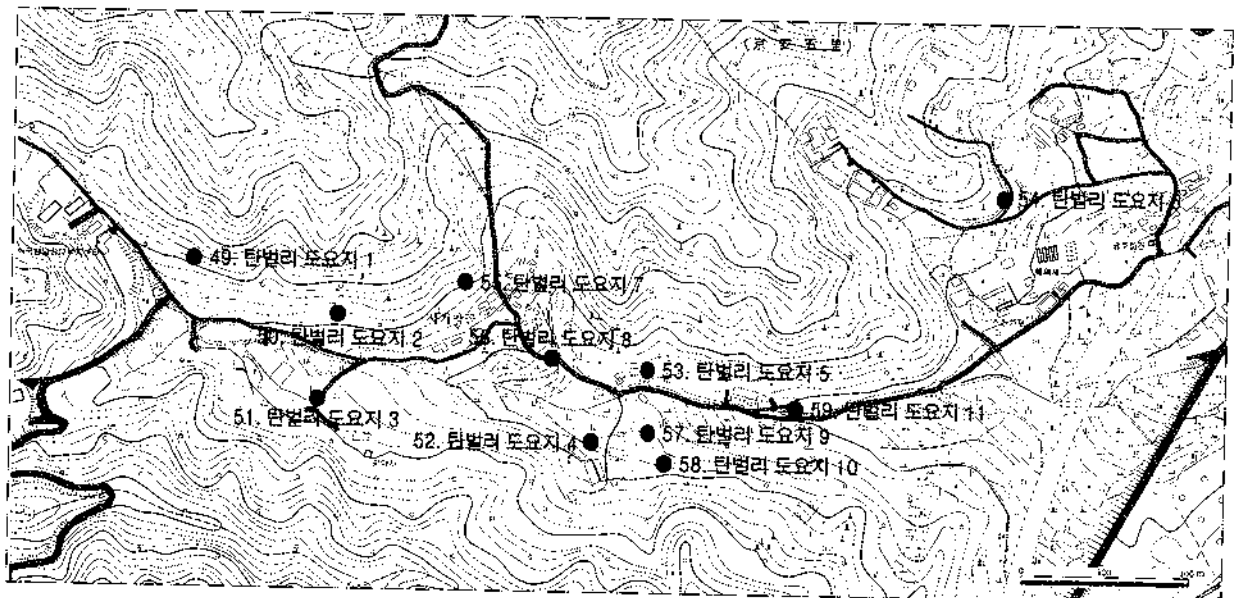
안채는 건넌방 대청 안방 부엌-나뭇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조는 평4량으로 되어 있다. 부엌은 삼면에 살창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흙바닥으로 움푹 패여 있어 높이가 상당히 높아 보인다. 부엌내의 나뭇간 부분은 나중에 증축한 부분으로 처마선끝까지 확장되었다.

▶ 지도번호 : 성남190-4



도면 4. 남택수 가옥 평면도

49~59. 炭筏里 陶窯址 1~11號



지도 17. 탄벌리 도요지 위치도(수원 040)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굽/발침/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전접시, 합, 향아리/유백, 연회백색/도 랍삼각형굽/모래받침/左内午, 丁未등유각명문 ●청자/대 접, 접시/암록, 연록색/도랍삼각형굽/모래받침	추정		성남 190-4	×	1986년의 조사내용임
2호	17-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회색/도랍삼각형굽, 오목굽/ 굽은모래비짐, 모래받침, 태토비짐/左음각명문	추정		성남 190-4	×	1986년의 조사내용임
3호	17-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병, 향아리/연회백, 회색/도랍삼 각형굽, 오목굽/굽은모래비짐, 굽은모래받침	광덕사부근 (693-1)	田	성남 190-4	×	
4호	17-18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회색/도랍삼각형굽, 오목굽/굽 은모래비짐	사기막골 (551-3)	田	성남 190-4	○	
5호	17-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유백, 연회백, 회색/직립형굽 /굽은모래받침, 굽은모래비짐 ●요도구/갑발, 원반형받침	사기막골 (76,570-2)	田 林	성남 190-4	○	
6호	16-17세기	●백자/대접, 접시/철백, 연회백, 회색/죽절굽, 도랍삼각형 굽, 오목굽/태토비짐, 모래받침, 모래비짐받침	추정		성남 190-4	×	1986년의 조사내용임
7호	17세기	●백자/대접, 대접, 접시/유백, 연회백색/직립형굽/모래받 침, 모래비짐받침 ●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원반형받침	사기막골 (576,78)	貸地 林	성남 190-4	×	
8호	17-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병, 향아리, 기타/유백, 연회백, 회색/ 직립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 굽은모래비짐	사기막골 (572)	畵	성남 190-4	○	
9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철백, 연회백, 회색/오목굽/굽은모래받 침, 굽은모래비짐 ●요도구/원반형받침	사기막골 (553-1)	田	성남 190-4	×	
10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회색/오목굽/굽은모래비짐	사기막골 (556-2)	田	성남 190-4	×	
11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회색/직립형굽, 오목굽/굽은모 래비짐, 굽은모래받침	사기막골 (562-1)	畵	성남 190-4	×	



사진 50. 탄벌리 도요지 5호 전경

60. 胎田里 無文土器散布址

- 소재지 : 광주읍 태전리 산13-3임 일대(지도10 참조)
- 시 대 : 청동기시대
- 종 류 : 선사유적
- 내 용

(1) 위치와 현상

고산리 1차점에서 서쪽으로 발달된 능선부분이다. 행정구역상으로 이 지역은 광주읍쪽으로 편제되어 있다. 현재 이곳은 여러가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진 51. 태전리 무문토기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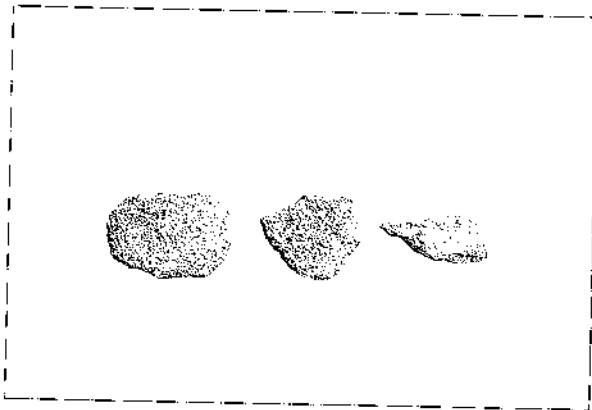


사진 52. 태전리 채집 무문토기편

상태로 있으며 드러난 단면상에서 토기편들을 수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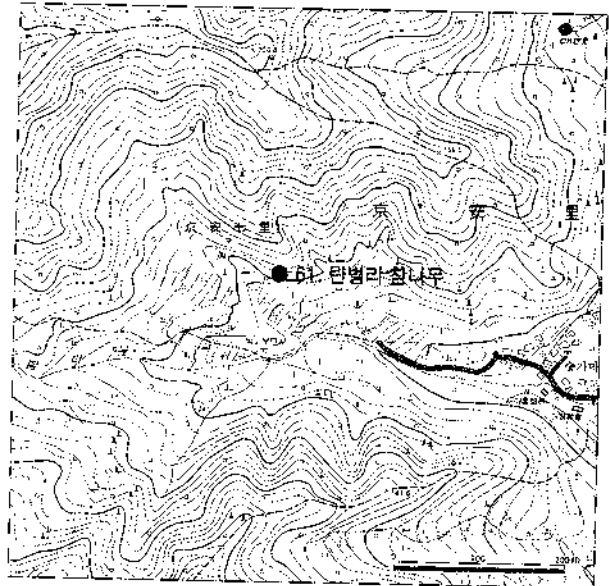
(2) 채집 유물

①·②·③무문토기편

모두 무문토기 몸체편으로 내·외벽에 일부 물 손질로 정면한 모습이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에 석영·운모등이 혼입되었다. 길이 3.6~4.3cm, 두께 0.5~0.6cm

▶ 지도번호 : 성남 190-4

61. 炭筏里 참나무



지도 18. 탄벌리 참나무 위치도(수원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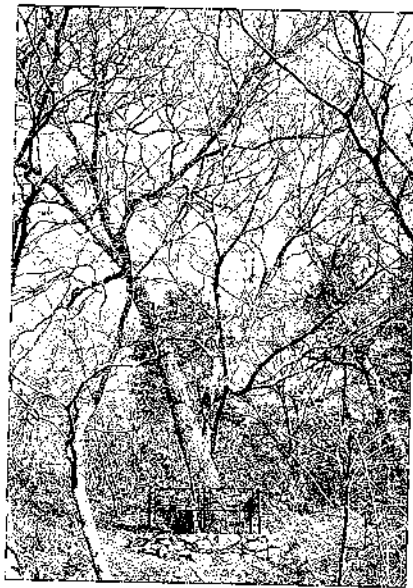


사진 53. 탄벌리 참나무 전경

□ 소재지 : 광주읍 탄벌리 산26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탄벌리 숲가마골에 위치한 보호수이다. 마을의 당산목으로 주변은 잘정비 되어있으나 안내판이 너무 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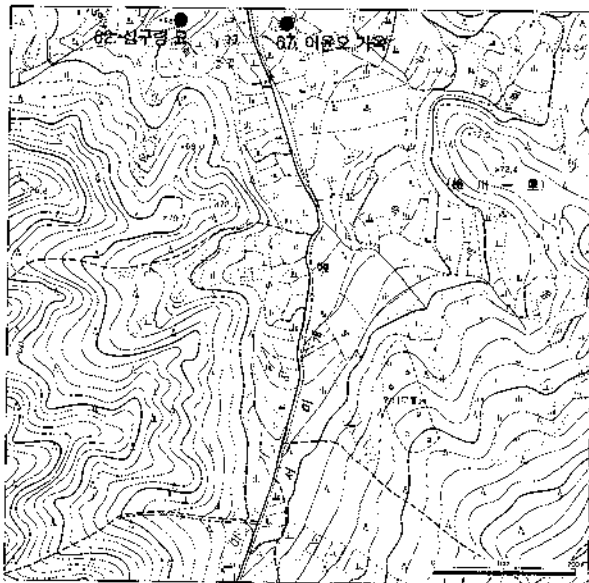
교체가 필요하다. 1982년에 읍나무로 지정되었고, 나무의 수령은 260년 높이 24m, 둘레는 2.36m이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지정번호 : 경기광주 3

남 종 면

62. 沈龜齡 墓



지도 19. 심구령 묘 위치도(양수 094)



사진 54. 심구령 묘 전경

□ 소재지 : 남종면 검천1리 산92-1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沈龜齡(1350-1413)은 태종대의 武臣으로 본관은 豐山, 자는 天錫, 호는 屏潭이며 典農寺事를 지낸 承慶의 아들이다. 이방원을 도와 1·2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워 佐命功臣에 책훈되고 豐川君에 봉해졌으며 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온뒤 判恭安府事에 이르렀다. 성품이 강직하고 射御에 능하였으며 시호는 靖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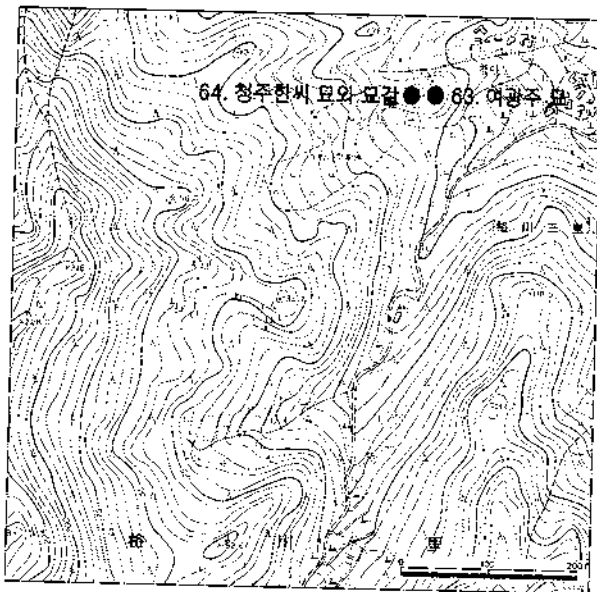
묘소는 능골 마을의 남쪽 구릉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은 고려시대 묘제로 조선초기까지 유행하던 3단의 계체석 구조로 조성되어 있으며 상석, 장명등, 문인석(높이 152cm)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다. 문인석은 衣襟線이 자연스럽고 신체 비례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이끼가 많이 끼어 있다. 또한 중앙에 있는 장명등(높이 122cm)은 화창이 4개 뿔려 있고 중대석과 하대석에 문양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양식상 태종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묘역의 우측에는 방부개석 양식의 묘표가 건립되어 있다. 원 묘표가 마모되어 光武 9年(1905)에 18대손 爽基가 識하고 前議政府主事를 지낸 完山 李建昇이 글씨를 써서 다시 세웠으나 한국전쟁때 파손되었다. 그래서 1998년 풍산심씨 대종회에서 방부와 개석은 그대로 사용하고 비신을 새로 마련하여 묘표를 重修하였다. 심구령 묘역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석물들의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조선초기 묘제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묘소 뒤에는 부인 靖和宅主江陵金氏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다.

▶ 지도번호 : 양수 206-1

- ▶ 참고문헌 : 『광주군문화유적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63. 呂光周 墓



지도 20. 여광주 묘 위치도(양수 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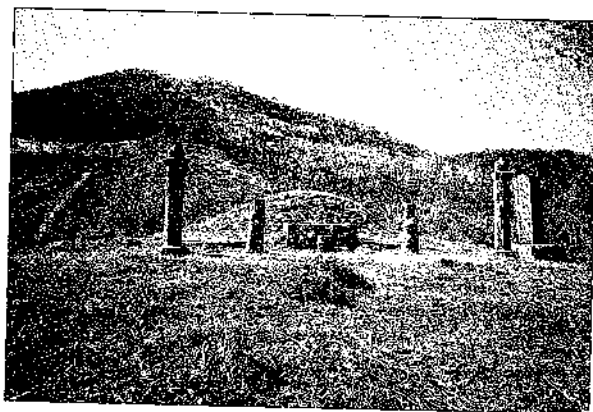


사진 55. 여광주 묘 전경

- 소재지 : 남종면 검천3리 산31-3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呂光周(1666-1714)는 肅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咸陽이고 자는 師仲이며 영의정을 지낸 聖齊의 손자이다. 1687년(숙종13) 진사가 되고 관직에 진출하여 의금부도사와 공조좌랑을 지냈으며, 이후 外職으로 나아가 전주판관과 단양군수를 역임하였다. 1709년(숙종35) 문과에 급제하여 시강원사서가 되었으며 경상우도암행어사를 거쳐 홍문관교리에 이르렀다.

묘소는 검단 마을의 뒷산 구릉에 자리잡고 있으며, 묘역에는 상석, 혼유석, 망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향로석의 좌우에는 키가 97cm에 불과한 소규모 문인석을 배치하였는데, 원래 이 자리는 등자석을 세우던 곳으로 문인석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이 위치로 옮겨 설치한 것이다. 우측에 세워져 있는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73cm) 전면에는 '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呂公光周之墓 宜人延安李氏'라 쓰여져 있고 음기는 1704년(숙종30, 崇禎紀元後回甲申)에 여광주가 짓고 썼다(夫咸陽後人呂光周識并書). 부인 연안이씨가 먼저 돌아가자 남편인 여광주가 묘표의 좌·우측에 그 행적을 간단히 略述하고, 뒷면을 비워 두어 자신의 행적을 사후에 후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끔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묘소 아래에는 증손 榮川郡守 東根, 증조모 淸州韓氏, 현손 敦寧府都正 民變, 6대손 進士 正鉉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다.

- ▶ 지도번호 : 양수 206-1

- ▶ 참고문헌 : 『咸陽呂氏世譜』, 1986, 農耕出版社

64. 淸州韓氏 墓와 墓碣

- 소재지 : 남종면 검천3리 산31-3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사진 56. 청주한씨 묘역 묘갈 전경

淸州韓氏(1587-1637)는 인조대왕의 國舅인 西平府院君 韓浚謙(1557-1627)의 따님이다. 참판을 지낸 呂爾徵(1588-1656)에게 出嫁하였으나 소생이 없었다. 평소 孝友가 돈독하였으며 小學과 內訓을 읽어 집안을 다스림에 항상 법도가 있었으나 병자호란때 강화도로 피난갔다가 성이 함락되자 자결하였다. 사후 나라에서 旌閭門을 하사하였다.

묘소는 여광주 묘소 아래에 위치한다. 산세가 급하여 비좁게 마련된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조밀하게 설치하였으며, 문인석(높이 101cm)과 망주석(137cm)을 소규모로 조성하였다. 봉분 앞에 세운 方趺圓首 양식의 묘갈(높이 161cm) 전면에는 '烈婦貞夫人淸州韓氏之墓'라 쓰고 碣題를 '有明朝鮮國烈婦貞夫人淸州韓氏墓碣'이라 하여 묘갈임을 밝히고 있다. 묘갈문은 東陽尉 申翊聖(1588-1644)이 撰하고 吏曹參判 金佐明(1616-1671)이 撰하였으며, 건립 연대는 '崇禎紀元後30年丁酉(1657, 효종8) 月 日立'이다.

▶ 지도번호 : 양주 206-1

▶ 참고문헌 : 『咸陽呂氏世譜』, 1986, 農耕出版社

65. 文昌門 孝子碑

□ 소재지 : 남종면 검천2리 450-1전(지도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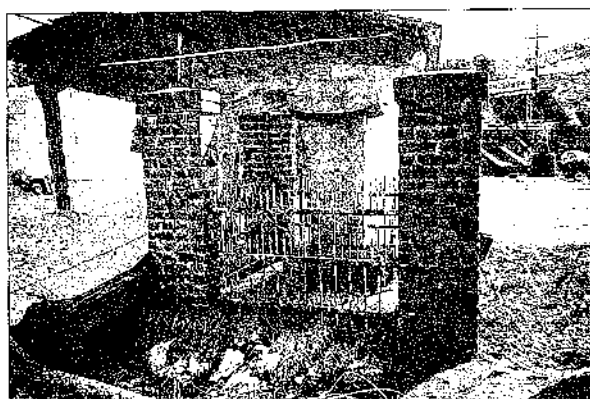


사진 57. 문창문 효자비 전경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효자비

□ 내 용

검천노인정 앞의 도로변에 위치한다. 효자비 좌측에는 보호수인 은행나무가 있다. 문창문은 江城君 文益漸(1329-1398)의 후손으로 文原君 致의 11대손이 된다. 정9품 從仕郎의 품계를 받았으며 효행이 卓異하여 조정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비의 전면에 큰 글씨로 '孝子文昌門之碑'라 쓰고 뒷면에는 음기를 간단히 적어 놓았다. 음기중에 '上之七年辛丑 因 肅 啓給復'이라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41년(헌종7)을 전후하여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총높이 162cm, 비신의 높이 101cm, 폭 43cm, 두께 16cm의 규모이다.

▶ 지도번호 : 양수 206-1

66. 김용학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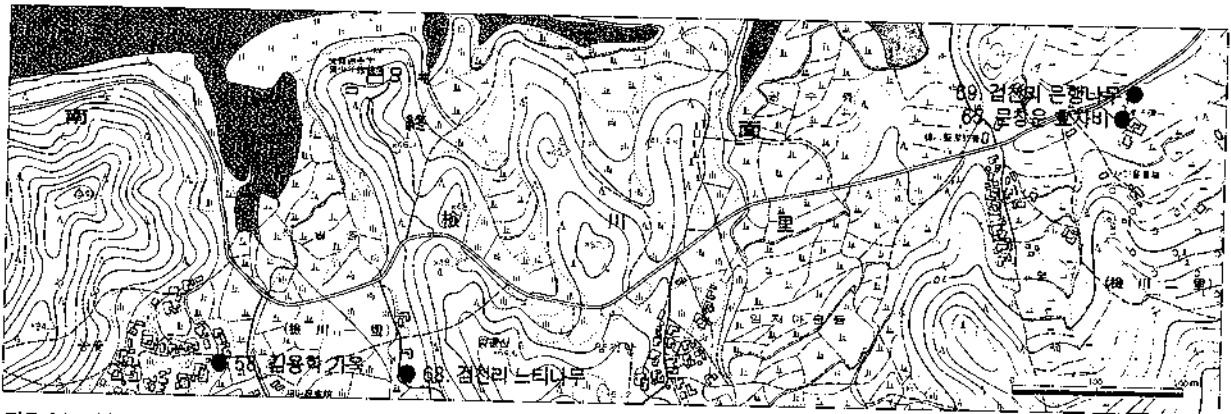
□ 소재지 : 남종면 검천1리 865번지

□ 시 대 : 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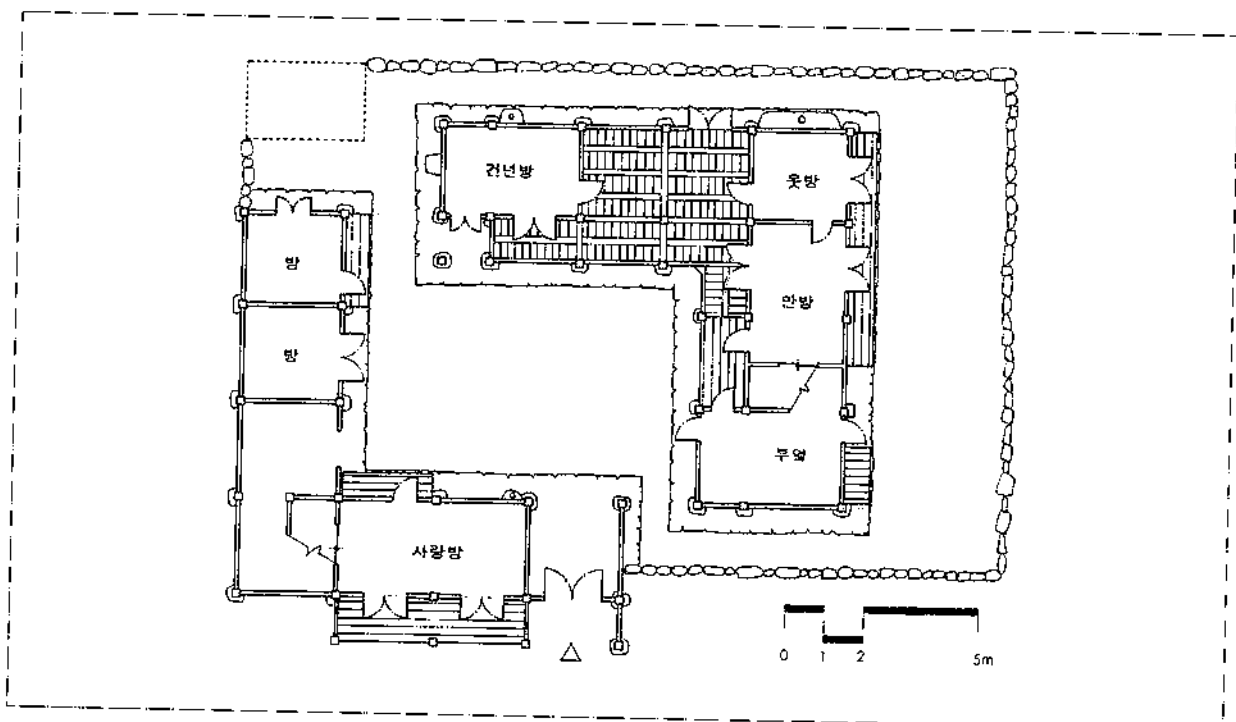
□ 종 류 : 고가

□ 내 용

원래 풍산 심씨 소유의 가옥이었으나, 현재는 외자인 이 사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도 21. 김용학 가옥 위치도(양수 084)



도면 5. 김용학 가옥 평면도



사진 58. 김용학 가옥 전경

상량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탐문결과 지은지 80년 정도 된 가옥이라고 한다.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해방 이전에 지어진 풍산 심씨 소유의 가옥중 가장 규모가 큰 가옥이다.

전체적인 배치형태는 ㄱ자형의 안채와 ㄴ자형의 바깥채가 합쳐 뜰 ㄱ자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바깥채는 안채보다는 건립연대가 이후로 보이나 정확한 연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안채는 건넌방 + 대청 + 옷방 + 안방 + 부엌의 1고주 5량의 팔작지붕이다.

건넌방의 구성은 후에 수리가 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장공간이었던 부분을 내부에서 문을 제거하고 방의 크기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부엌과 대청, 안방은 툇마루를 통하여 연결되어지고, 안채부엌부분에 살판이 있다.

원래는 초가지붕이었으나, 70년대에 지붕을 초가에 서 기와로 개조하였고, 담은 돌담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도번호 : 양수2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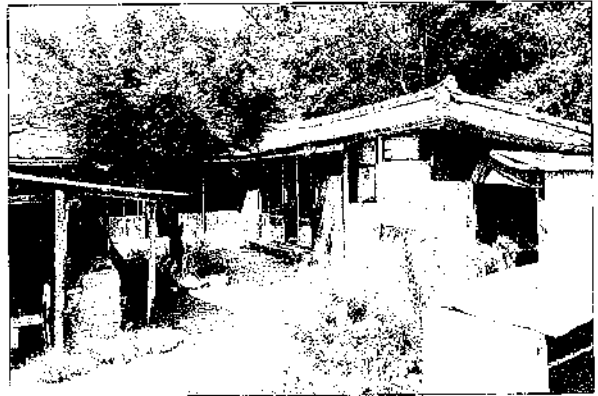


사진 59. 이윤호 가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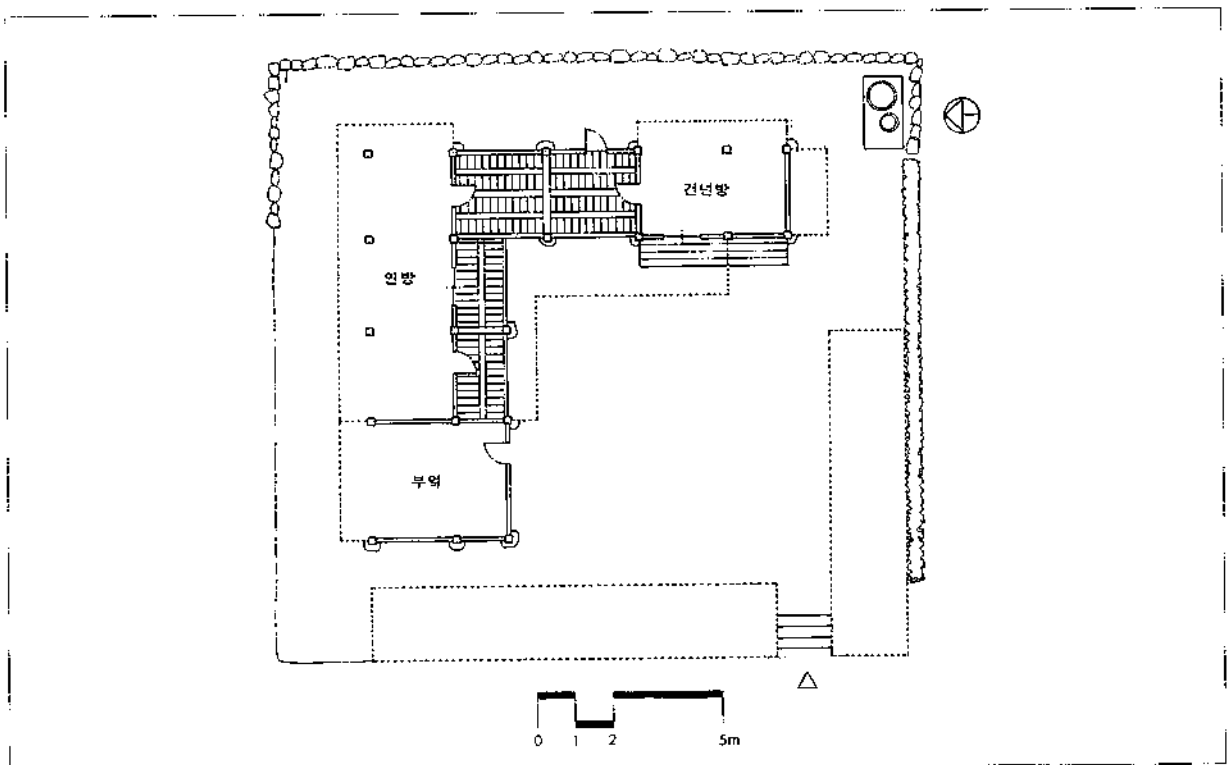
67. 이윤호 가옥

- 소재지 : 남종면 검천1리(지도19 참조)
- 시 대 : 근대
- 종 류 : 고가
- 내 용 :

안채상량문(大韓光武三年二月初一日午時立柱上樑卯坐酉向)의 기록으로 보아 1899년에 건립된 가옥이다. 바깥채 부분은 완전히 개조되어 있고, 안채는 전면에 알루미늄 문을 달아놓고, 안방과 옷방, 건넌방 부분을 외부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다.(5년 전에 공사)

그리고 옷방과 안방 사이의 벽체는 없애고 전체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안채의 구성은 부엌 + 안방 + 옷방 + 대청 + 건넌



도면 6. 이윤호 가옥 평면도

방의 7자형이고, 구조는 3량의 홀치마 우진각 지붕이다. 대청과 안방 부엌은 뒷마루를 통하여 연결되고 있다.

▶ 지도번호 : 양수206-1

68. 檢川里 느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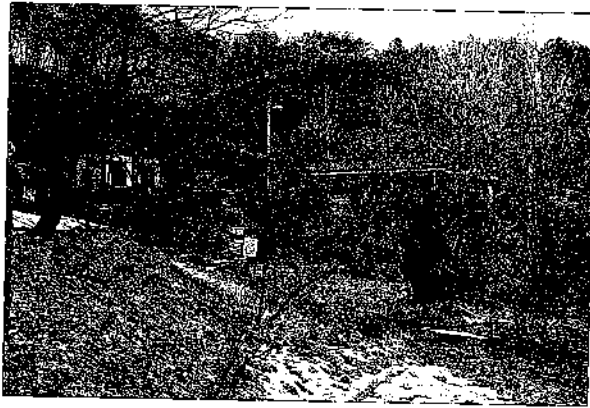


사진 60. 검천리 느티나무 전경

□ 소재지 : 남종면 검천1리 865(지도2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검천 1리 능골마을에 위치한다. 느티나무의 수령 260년, 나무키 16m, 나무둘레 1.93m이다. 1983년 3월 10일 면나무로 지정되었다.

▶ 지도번호 : 양수 206-1

▶ 지정번호 : 경기광주 38

69. 檢川里 은행나무

□ 소재지 : 남종면 검천2리 답402-1(지도2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검천노인정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의 대로변에 위치하며 바로 옆에는 文昌門孝子碑가 세워져 있다. 느티나무의 수령은 270년이며 나무키 20m, 나무둘레 3.3m이다. 1983년 3월 10일 면나무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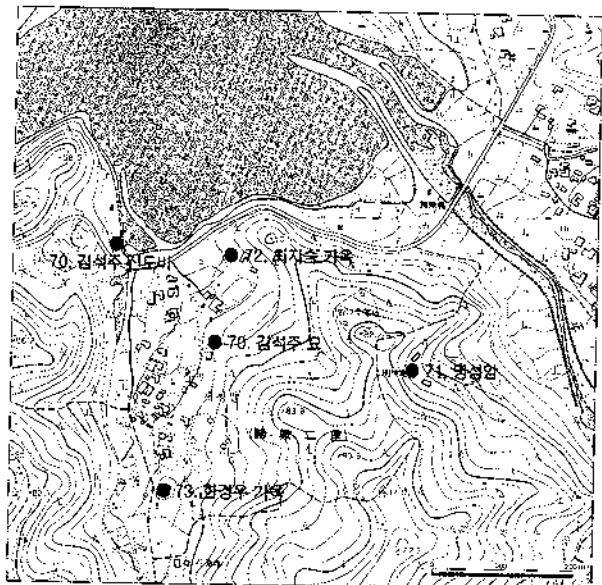
▶ 지도번호 : 양수 206-1

▶ 지정번호 : 경기광주 39



사진 61. 검천리 은행나무 전경

70. 金錫胄 墓와 神道碑



지도 22. 김석주 묘와 신도비 위치도(양수 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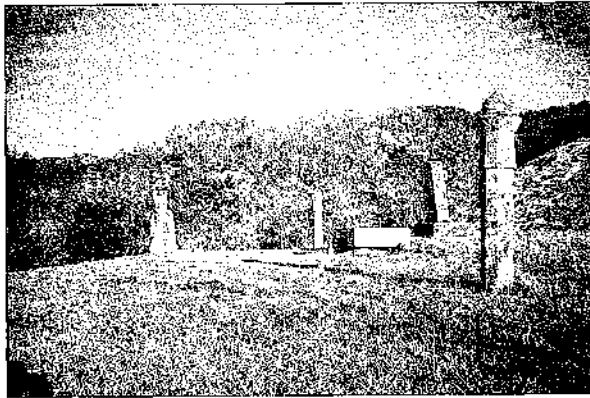


사진 62. 김석주 묘 전경

- 소재지 : 남종면 귀여리 산75-1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

金錫胄(1634-1684)는 肅宗代의 문신으로 자는 斯百이고 호는 息庵이며 본관은 淸風이다. 아버지는 병조판서 佐明(1616-1671)이며 어머니는 宣祖大王의 駙馬인 東陽尉 申翊聖(1588-1644)의 따님이다. 1662년(현종3) 增廣文科에 장원하여 관직에 올랐으며 당색은 西人 중에서도 漢黨에 속하였다. 政爭의 중심에서 적극 활동하여 그 成敗에 따라 정치적 浮沈이 심하였으며, 논의가 과격하여 같은 당에서도 반감을 사기도 하였다. 1682년(숙종8) 우의정에 이르렀으며 文詞에 매우 뛰어났다. 사후 肅宗의 廟廷에 配享되었고 시호는 文忠이다.

묘소는 제청말 성결교회의 좌측 산자락에 위치한다. 전후 총 4번을 이장하여 현재의 장소에 자리잡게 되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고석, 망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는데, 모두 숙종대를 대표할만한 우수한 작품들이다. 특히 문인석은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 마치 살아 있는 사람을 대하는 듯하다. 봉분 앞에 있는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 전면에는 朝鮮國保 社功臣右議政淸城府院君文忠金公錫胄之墓라 쓰여져 있으며 음기는 不肖孫 道淵(1664-1689) 書이나 撰者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비신의 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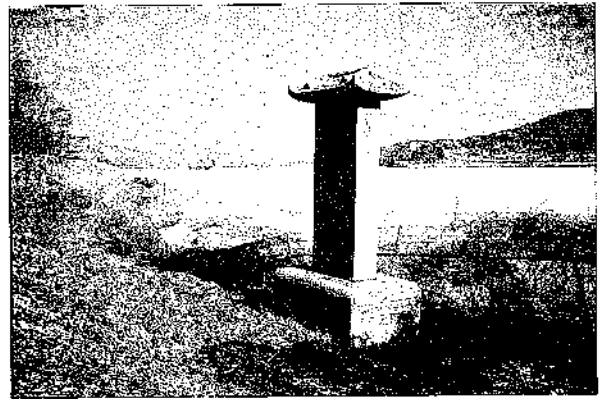


사진 63. 김석주 신도비

面에 글이 새겨져 있으나 이끼가 많이 끼 있어 읽기가 불편하다. 입석 연대는 '崇禎甲申後戊辰(1688, 숙종14)8月 H立'이다.

신도비(총높이 약 400cm)는 마을 입구의 도로 건너편 팔당호반에 최근접하여 건립되어 있으며 숙종대에 유행하던 方趺蓋石 양식을 갖추고 있다. 용마루와 내림마루를 도드라지게 표현한 개석은 전체적으로 날렵한 느낌을 주며, 방부의 상면에는 覆蓮을 四面에는 唐草紋을 장식하였다. 비신(높이 269cm, 폭 107.5cm 두께 43cm)은 애석을 다듬어 사용하였다. 비제를 '有明朝鮮國奮忠義納幾協謨保 社功臣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兵曹判書淸城府院君 贈諡文忠金公神道碑銘并序'라 하여 신도비임을 밝혔으며 大司憲 宋相琦(1657-1723) 撰, 甥姪 前全義縣監 趙正緒 書, 禮曹參判 金鎮圭(1658-1716) 篆이다. 입석 연대는 '崇禎甲申後69年壬辰(1712, 숙종38)4月 H立'이다.

▶ 지도번호 : 양수 206-1

▶ 참고문헌 : 『淸風金氏世譜』, 1958

『京畿金石大觀』2, 1987, 경기도

『광주군문화유적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71. 明性庵



사진 64. 명성암 전경

- 소재지 : 남종면 귀여리 551(지도22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사찰
- 내 용

남한강변을 따라 남종면 북쪽을 간신히 뚫어있는 308번 도로를 따라가다分院里를 지나歸歟里에 들어서면 '귀여교'라는 작은 다리가 나온다. 이 다리를 건너기 바로 전에 오른쪽으로 비포장된 작은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 500m정도 가면 명성암이 있다.

명성암은 매우 작은 규모의 사찰로 현재 大雄殿과 山神閣, 寮舍만 있으며 절의 창건연대나 연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韓國寺刹全書』에서 인용한 「太古寺法」에는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남한산에 있으며 大本山 奉恩寺의 末寺”라고 전할 뿐이다.

현존하는 유물로는 대웅전 안에 봉안된 19세기말에 제작된 4점의 불화와 2점의 위패가 있다. 우선, 유리장 안에 안치된 아미타불상의 후벽에 장식된 阿彌陀佛幀畵를 살펴보면 가로 204cm, 세로 122cm의 큰 화폭에 아미타불좌상을 중심으로 보살과 제자들이 2단으로 배치한 단순한 구도로 되어 있다. 아미타불상의 아래쪽에는 地藏菩薩을 포함하여 八大菩薩이 정면을 향하여 일렬로 나란히 서 있는데 반하여 그 위로는 阿難과 迦葉을 비롯한 10대제자가 자유로운 자세로 서 있어 구

도상에 약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본존불은 中品下生印의 손모양을 했으며 본존 바로 왼쪽 옆에 서 있는 관음보살은 특이하게 白衣를 걸치고 있다.

이 불화는 현재 畵記가 불단에 가려져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상하 2단의 단순한 구도에 각 상을 일렬로 길게 배치한 점이나 생동감 없는 필선, 적색과 녹색 외에 남색 등을 사용한 점 등에서 19세기에 제작된 조선후기의 불화로 추정된다.

대웅전 주벽의 阿彌陀佛幀 오른쪽으로는 現王幀畵가 봉안되어 있는데 가로 74cm, 세로 88.5cm로 明性庵에 남아 있는 4점의 불화 가운데 가장 작은 크기에 해당되며 地藏十王 중 염라대왕만 크게 표현한 것이다. 官服을 입고 손에 笏을 들고 앉아있는 現王은 화면 중앙에 크게 그려지고 그 주위로 2구의 使者와 童子가 서 있으며 책상 앞에는 大輪聖王과 轉輪聖王, 그 아래 錄事가 차례로 배열되어 있다. 이 장면은 現王을 비롯한 閻界的 여러 상을 나타내어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畵記에는 “光武二年戊戌十二月初十日/點眼奉安于/證明 龍潭泰還/ 諸師 漢谷頓法/ 化主 比丘尼常允普門/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라고 적혀 있다. 이 기록을 통해 1898년(光武 2)이라는 조성연대와 이 불화를 제작한 諸師의 이름을 알 수 있다.

대웅전 주벽을 향하여 오른쪽 즉 阿彌陀後佛幀畵 왼쪽에는 七星幀畵가 안치되어 있다. 크기는 가로 119cm, 세로 168cm로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한다. 중앙에 배치된 본존불인 熾盛光如來는 禪定印을 하고 그 위에 金輪이 놓여 있으며 그 좌우에는 日光菩薩과 月光菩薩이 합장한 채 시립하고 있다. 이 삼존불 주위로 七天星君과 七如來가 등글게 에워싸고 있는데 얼굴이 신체에 비해 유난히 큰 편으로 균형이 맞지 않고 필선에는 힘이 없으며 사실성이 떨어지는 인물묘사와 채색법 등은 같은 작가에 의해 제작된 現王幀畵에서도 잘 나타난다. 畵記에 기록된 “光武二年戊戌/十二月初三日/ 七星幀一軸造成/ 於楊州南中面/ 金鳳山

明性庵奉安于/ 點眼初十日/ 緣化所/ 持殿 比丘普仁/ 比丘竺禪/ 奉茶 比丘尼妙眞/ 允植/ 都監 比丘尼尙允/ 證明 龍潭堂泰還/ 誦呪 比丘尼有化 妙錫/ 片手 漢谷頓法/ 松各守苗益/ 金魚 石洲現夏/ 沙彌大仁/ 化主 比丘尼普文/ 供司 比丘尼妙蓮/ 淨桶 童洪十”의 내용에는 1898년에 제작되어 명성암에 봉안하게 된 사실과 이와 관계된 승려 및 그림제작에 참여한 장인의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불화들보다 약간 이른 시기인 1890년에 제작된 神衆愼壽는 주벽을 향하여 오른쪽 편의 또다른 벽에 봉안되어 있다. 神衆圖란 불, 보살을 보호하고 佛法을 지켜주는 神의 무리가 형상화된 그림을 말한다. 가로 169cm, 세로 171cm의 크기로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 2단 구도에 武裝을 한 역동적인 자세를 취한 신중상을 그렸는데 이러한 신중상은 전라남도 천은사에 소장된 1833년의 신중탱화와 구도나 인물표현, 채색 그리고 세부묘사 등에서 거의 유사하여 전남일대에서 활약하던 畫派의 畫師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畫記에는 “光緒十六年庚寅十月?奉安于玉井寺造成于長慶寺”라 하여 이 불화는 원래 남한산성 안에 있는 長慶寺에서 조성하여 玉井寺에 봉안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연유로 명성암에 옮겨지게 되었는지 그 전래과정에 대해서는 전하는 바가 전혀 없다.

이외에도 이 절에는 阿彌陀佛愼壽가 모셔진 유리장 안에는 ‘主上三殿壽萬歲’, ‘世子邸下壽千秋’라고 쓰여진 2점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 지도번호 : 양수 206-1

▶ 참고문헌 : 權相老 編, 『韓國寺刹全書』 上 · 下 1976, 東國大學校出版部
『畿內寺院誌』, 1988, 경기도
洪潤植 編, 『韓國佛畵 畵記集』, 1995, 가람사연구소

72. 최지숙 가옥



사진 65. 최지숙 가옥 전경

□ 소재지 : 남종면 귀여2리 551번지(지도22 참조)

□ 시 대 : 근대

□ 종 류 : 고가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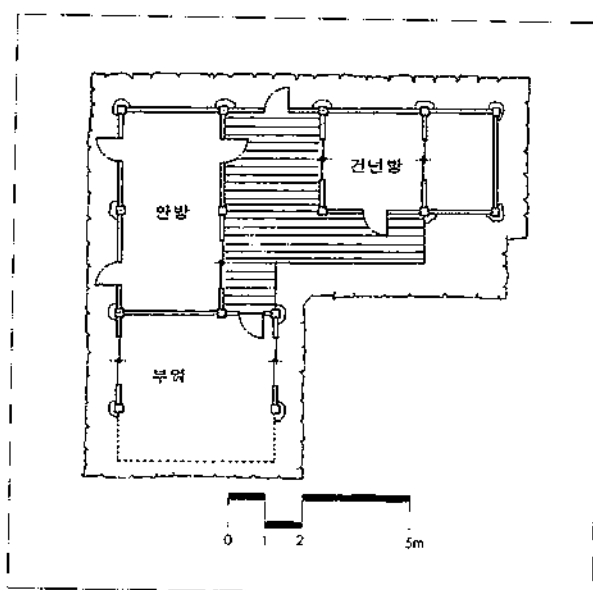
안채상량문(昭和十九年 甲寅...二月二十六日午時 立柱上樑) 기록으로 보아 1944년에 건립된 가옥이고, 주인이 없어서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전체 배치는 ㄱ자형의 안채와 안채 정면에 증축한 ㅡ자형의 가건물이 있어 ㄷ자형을 이루고 있고, 안채와 증축부 사이의 틈 사이로 출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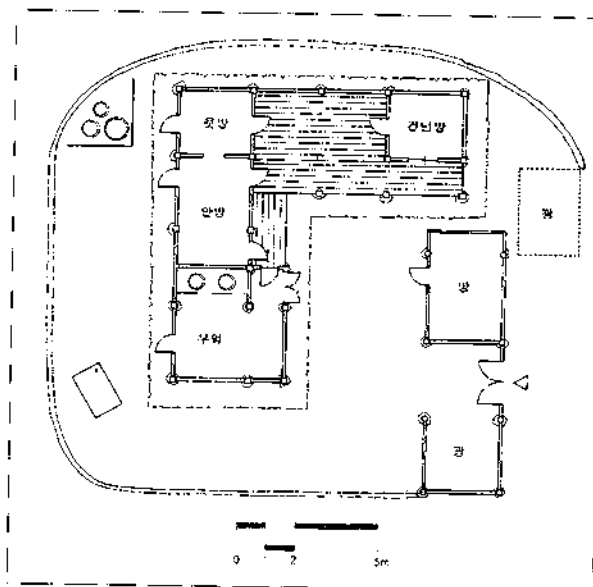
안채는 부엌과 벽체만 일부 수리하였을뿐 전반적으로 가구가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다.

안채는 삼량가 홀처마의 ㄱ자형으로, 실 구성은 부엌 + 안방 + 대청 + 건넌방으로 되어있다. 부엌은 처마 내민 길이만큼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건넌방과 대청, 안방, 부엌이 모두 뒷마루로 연결되어 있다. 안방 옆은 반침으로 아랫부분에는 아궁이가 있어, 예전에는 화목으로 난방을 하였다고 한다.

▶ 지도번호 : 양수206-1



도면 7. 최지숙 가옥 평면도



도면 8. 한경우 가옥 평면도

73. 한경우 가옥



사진 66. 한경우 가옥 전경

- 소재지 : 남종면 귀여2리 54-3(지도22 참조)
- 시 대 : 근대
- 종 류 : 고가
- 내 용

상량 확인은 되지 않으나, 이웃들의 증언과 가구의 상태로 보아 해방이전에 건축된 가옥으로 보인다. 가옥에 거주하고 계신 유씨 할머니님이 80대이신데, 이곳에

서 태어나셨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가옥의 상태가 건립연도에 비해 아주 양호하고, 수리부분이 적다.

전체적으로 안채와 바깥채가 ㄷ자형을 이루고 있고, 안채를 중심으로 외부공간을 흙담이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안채의 구성은 부엌 + 안방 + 옷방 + 대청 + 건넌방으로 ㄱ자형을 이루고 있고, 구조는 1고주 4량의 홀 처마 팔작지붕이다.

마루 전면에 유리문을 달았고, 마루를 장마루로 새로 한 것 외에는 개조부분이 거의 없다.

기둥은 150mm이고 초석은 자연석으로 되어 있고, 기단은 자연석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처리되어 있다. 부엌에는 살판이 있고 판벽으로 되어있다.

바깥채는 방 + 대문 + 광으로 ㄱ자형의 3량가 우진각 지붕으로, 대문간에 아궁이가 있어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바깥채 밖으로 마당을 작업용으로 넓게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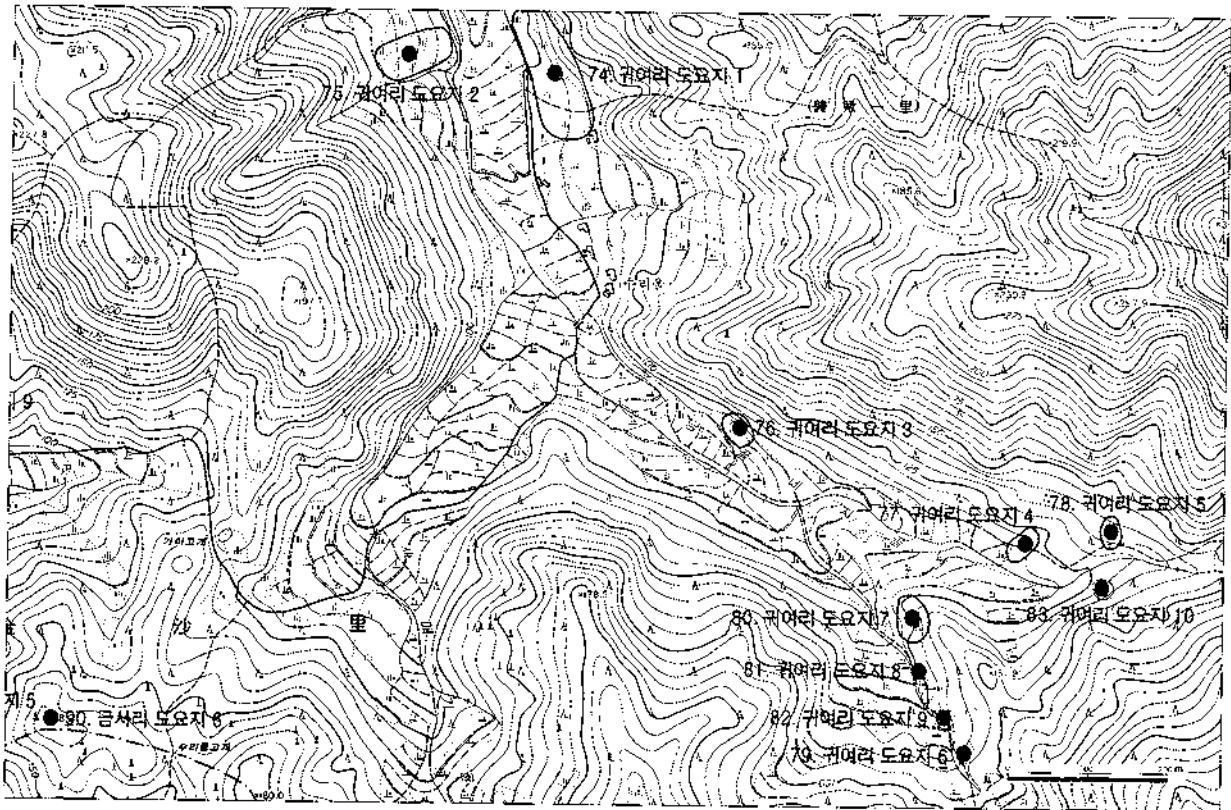
▶ 지도번호 : 양수206-1

74~84. 歸興里 陶窯址 1~11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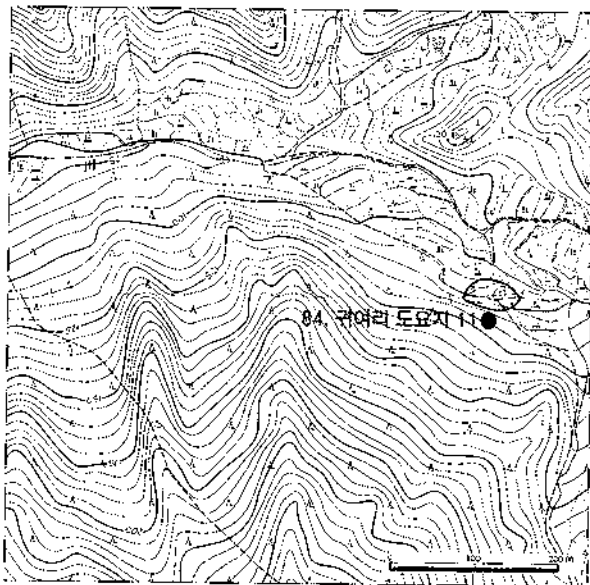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굽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항아리/유백, 연회백, 담청백색/죽절 굽/태토비집	수리울골 (116,120)	田	광주 191-3	○	
2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수리울골 (483)	林	광주 191-3	×	
3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당골네 (458, 431-1)	臺·田	광주 191-3	×	
4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당골네 (426, 428-1)	林	광주 191-3	×	
5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방/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당골네 (425)	林	광주 191-3	×	
6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요도구/원반형받침	당골네 (93-5)	林	광주 191-3	×	
7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화형)잔/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 토비집 ●요도구/원반형받침	당골네 (93-10, 93-11)	林	광주 191-3	×	
8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당골네 (93-11)	林	광주 191-3	×	
9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당골네 (93-11)	林	광주 191-3	×	
10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요도구/도침, 원반형받침	당골네 (93-11)	林	광주 191-3	×	
11호	15-16세기	●(청화)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뚜껑, 바상배, 설백, 연 회백, 담청백색/도랍삼각형굽,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집/ 黃, 地畵각평문 ●청자/대접, 접시, 반, 양록, 연록/도랍삼각 형굽/모래받침 ●요도구/갑발, 갑발뚜껑, 도침, 원반형받침	다람내골 (61)	林	광주 191-3	×	



사진 67. 귀여리 도요지 3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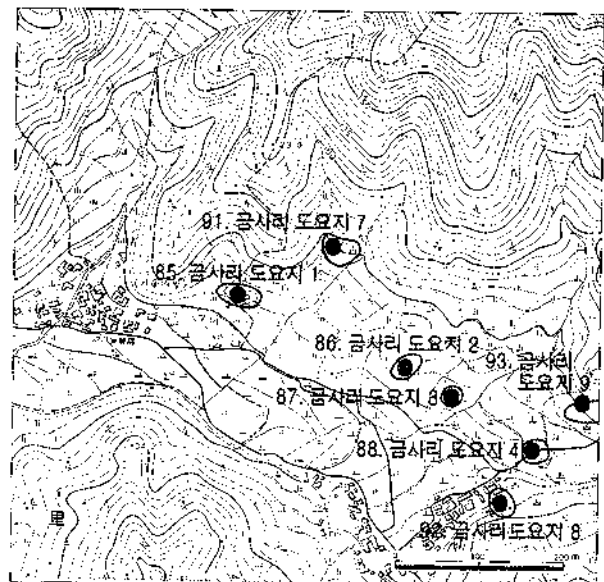


지도 23. 귀여리 도요지 위치도1(이천 004)



지도 24. 귀여리 도요지 위치도2(양수 094 · 이천 004)

85~93.金沙里 陶窯址 1~9 號



지도 25. 금사리 도요지 3 위치도(이천 003)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굵 / 받침 / 오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8세기	●(청화)백자/대접, 접시, 잔, 향아리, 뚜껑, 채연, (광각)제기/유백색/직립형굽/모래받침/음각명문●요도구/갑발	구터 (98-7)	窪地	광주 191-3	×	
2호	18세기	●(청화)백자/대발, 대접, 접시, 잔, 함, 반, 향아리, 병, (광각)제기/유백, 철백색/직립형굽, 안굽/모래받침●요도구/갑발, 도침	윗말 (71-1, 73, 74, 75)	田	광주 191-3	○	
3호	18세기	●(청화·철화)백자/대발, 대접, 접시, 함, 향아리, (광각)제기/유백, 연회백색/직립굽, 안굽/모래받침●요도구/갑발/원반형받침	윗말 (72-1, 22)	田	광주 191-3	○	
4호	18세기	●(청화)백자/(광각)대접, (광각)접시, 잔, 향아리/유백, 연회백색/직립형굽, 오목굽/모래받침●요도구/갑발	윗말 (9)	田	광주 191-3	×	
5호	18세기	●(청화·철화)백자/대반, (광각)대접, 접시, 향아리, 병/유백, 연회백색/직립형굽/굵은모래받침●요도구/갑발	추정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6호	18세기	●(청화)백자/(광각)대접, 접시, 잔/유백색/직립형굽/모래받침	추정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7호	18세기	●(청화)백자/(광각)대접, 접시, 잔, 향로, 향아리/유백색/직립형굽/모래받침	구터 (96)	田	광주 191-3	×	
8호	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유백색/직립형굽/모래받침	윗말 (3-1)	窪地	광주 191-3	×	
9호	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유백색/직립형굽/모래받침	구터굴 (11, 13, 25)	田	광주 19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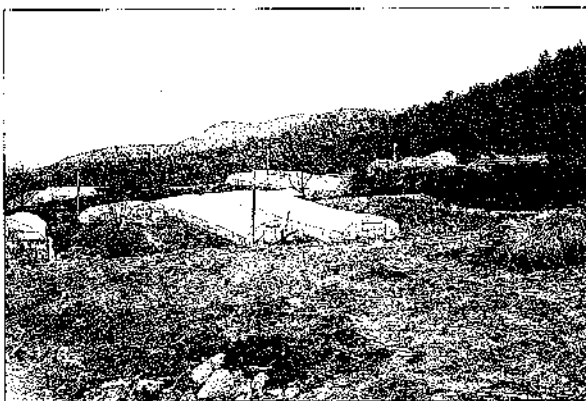


사진 68. 금사리 도요지 3호 전경

- 시 대 : 조선, 근대
- 종 류 : 선정비
- 내 용

분원초등학교내에는 司饗院 分院과 관련된 선정비 16기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송덕비 2기, 기념비 1기를 한 곳에 모아 놓은 선정비군이 있다. 선정비의 명칭과 건립연대를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司饗院提調綾昌君清德善政碑(乾隆20年, 1755, 영조31)

○橋造官金公啓永善政碑(庚辰年, 1820 또는 1880)

○司饗院都提調李公時秀惠民遺愛碑(道光5年, 1825, 순조25)

○司饗院都提調蔡公濟恭□□□(道光5年, 1825, 순조25)

94. 分院里 善政碑群

□ 소재지 : 남종면 분원리 116(지도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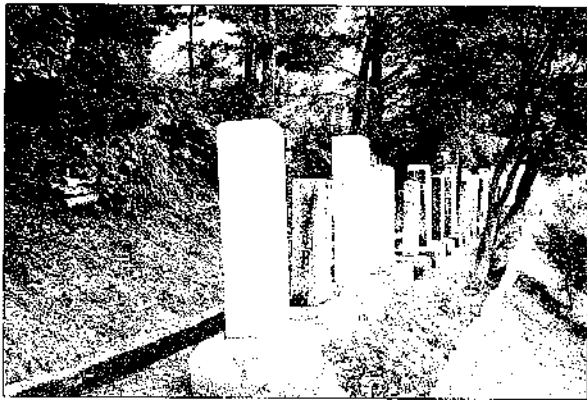


사진 69. 분원리 선정비군 전경

- 司饗院提調徐公左輔善政碑(道光24年, 1844, 현종10)
- 司饗院提調朴公岐壽善政碑(道光27年, 1847, 현종13)
- 行郡守金公老淳善政碑(道光27年, 1847, 현종13)
- 播造官趙公行鎮善政碑(道光27年, 1847, 현종13)
- 司饗院都提調趙公寅永善政碑(道光27年, 1847, 현종13)
- 播造官丁公學淵善政碑(咸豐9年, 1859, 철종10)
- 司饗院都提調金公興根善政碑(同治4年, 1865, 고

종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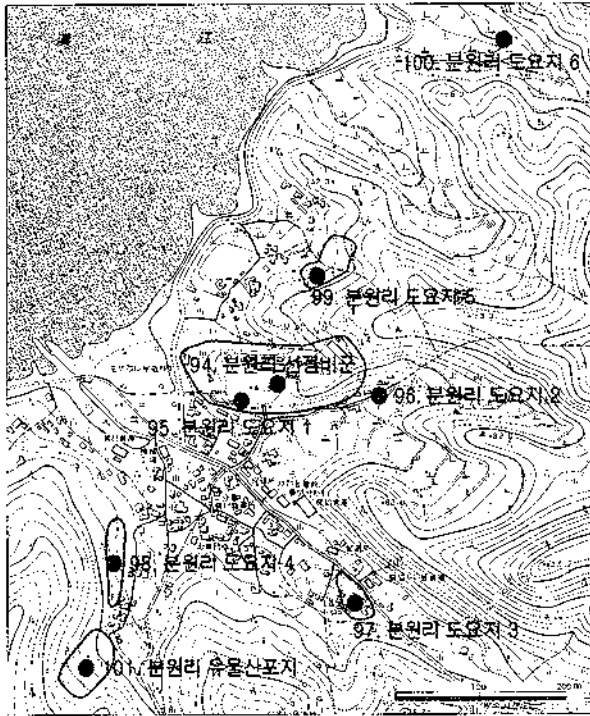
- 播造官沈公英慶善政碑(同治6年, 1867, 고종4)
- 司饗院提調興賓君善政碑(同治6年, 1867, 고종4)
- 播造官洪公大重善政碑(同治11年, 1872, 고종9)
- 司饗院提調閔公泳達善政碑(光緒16年, 1890, 고종27)
- 司饗院都提調朴公珪壽善政碑(光緒30年, 1904, 光武8)
- 金公洛奎頌德碑(昭和16年, 1941)
- 面長丹山斌氏頌德碑(昭和16年, 1941)
- 丹陽禹公施惠紀念碑(昭和9年, 1934)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95~100.分院里 陶窯址 1~6號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굽/받침/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8-19세기	●(청화)백자/대접, 대접, 접시, 잔, 뚜껑, 병, 향아리, 연적, 약봉, 팔통, 향로, 제기/유백, 설백, 연회백색/직립형굽/굵은모래받침●요도구/갑발, 도침, 높은굽접시형받침	분원초교 (117-3.5, 99-1, 산5)	林 依地	광주 191-3	○	
2호	19세기	●(청화)백자/대접, 대접, 접시, 뚜껑, 잔/유백, 담청백색/직립형굽/굵은모래받침●요도구/갑발, 높은굽접시형받침	초교뒷편 (159, 산6)	田	광주 191-3	×	
3호	19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합, 뚜껑, 향로, 병, 동물형기, 제기/유백, 담청백색/직립굽/굵은모래받침	추정	依地	광주 191-3	×	확인불가
4호	18-19세기	●(청화)백자/접시, 병, /회백, 담청백색/직립굽/모래받침●요도구/갑발	442번지 일대	田	광주 191-3		
5호	16세기이후	●(철화, 청화)백자/대접, 접시, 병, /회백, 담청백색/직립굽/모래받침●요도구/갑발	255-19번지 일대	林	광주 191-3		
6호	16세기이후	●분청, (청화)백자/대접, 접시, 잔, /회백, 담청백색/직립굽/테도비집, 모래받침●요도구/갑발	255번지 일대	畓	광주 191-3		



지도 26. 분원리 도요지 위치도(이전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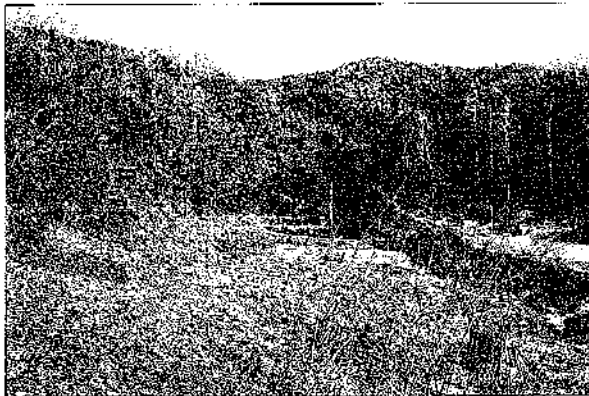


사진 70. 분원리 도요지 2호 전경



사진 71. 분원리 석기 채집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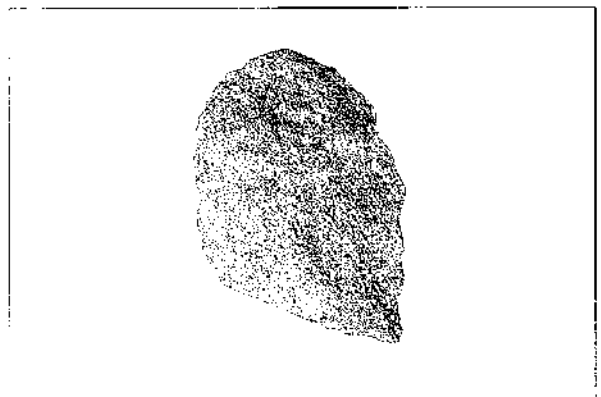


사진 72. 분원리 채집 석기

(1) 위치와 현상

분원리 면사무소에서 서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민가 주변 밭에서 수습되었다. 이곳은 산 능선들이 둘러 쌓여 있는 곳으로 기반암인 화강편마암이 지표면에 노출·풍화되어 이곳의 밭들은 매우 척박하다. 주변에서 백자편들이 찾아지고 있으나 다른 유물들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발견된 유물은 가까운 지역에서 이동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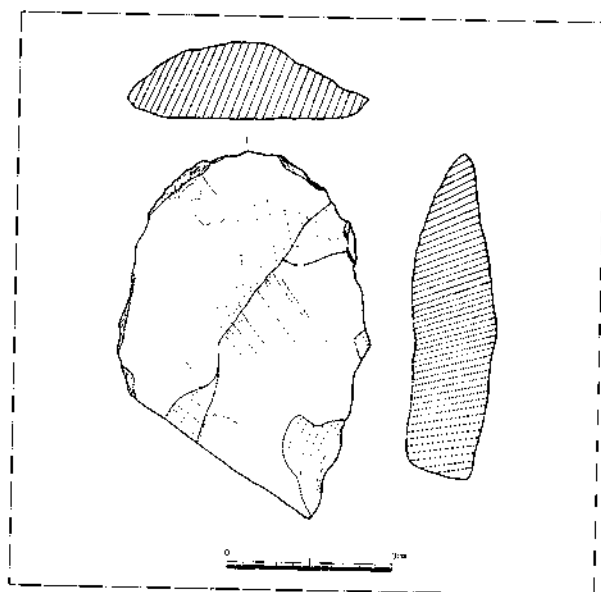
(2) 채집 유물

① 보습(사진 72, 도면 9)

암질은 편마암 계통으로 비교적 납작하고 편평한 타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저부는 석재의 절리 따라 떨어진 자연면으로 석재의 주위를 둘러가면서 때어내기 시도하여 날을 형성하였다. 끝 부분은 삼날의 형

101. 分院里 遺物散布址

- 소재지 : 남종면 분원리 442번지 일대 (지도26 참조)
- 시 대 : 선사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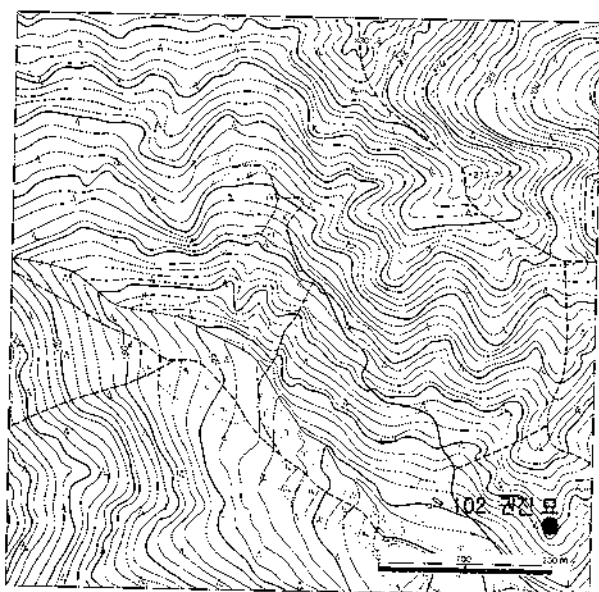
도면 9. 본원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태를 가지고 있다.

길이 22.6cm, 너비 14.6cm

▶ 지도번호 : 광주 191-3

102. 權軫 墓



지도 27. 권진 묘 위치도(이천 001)



사진 73. 권진 묘 전경

□ 소재지 : 남종면 삼성리 산42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權軫(1357-1435)은 世宗代의 文臣으로 본관은 安東이며, 호는 獨樹窩이다. 사헌부 監察을 지낸 希正의 아들로, 1377년(禰王3) 문과에 급제하고 판직에 나가 義昌縣令과 全州判官을 지냈다. 조선 개국후에도 계속 出仕하여 형조와 이조의 판서를 역임하였으며 1431년(세종13)에 우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文景이다.

과학동 마을의 서측에 문경사라는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있다. 묘소는 문경사 입구 우측의 廣岳山 자락 중턱에 南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후손에 의하면 묘소는 중간에 失傳되었다가 誌石이 출토되어 다시 찾았다고 한다.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장명등, 문인석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다. 봉분에는 가로 406cm, 세로 493cm의 호석을 둘렀으며 莎城에는 토사가 밀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담을 쌓아 놓았다. 세종대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인석은 얼굴에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수염이 났으며, 손을 덮은 옷소매가 사선을 그리며 좌우로 내려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앙에 위치한 장명등은 화사석을 망실한 상태이다.

묘역 우측에 있는 묘비는 16세손 正默이 宗後學 相峯에게 비문을 받아 1936년에 세운 것이고, 1969년

마을 입구에 건립한 신도비는 掌樂院正 朴元亨(1411-1469)이撰한 비문을 16세손 龍奉이 刻한 것으로 앞면에 큰 해서체로 '文景公敬齋權先生神道碑'라 쓰여져 있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광주군문화유적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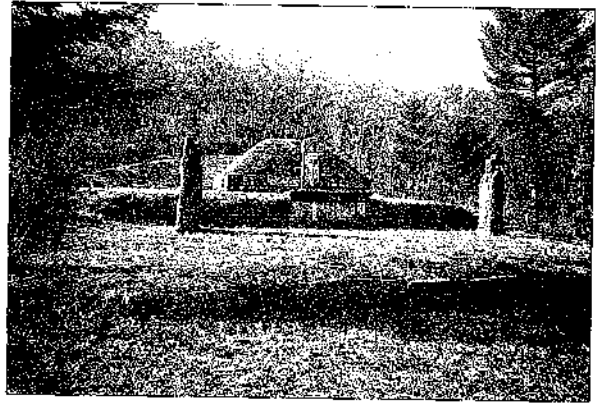


사진 74. 노물재 묘 전경

103. 盧物載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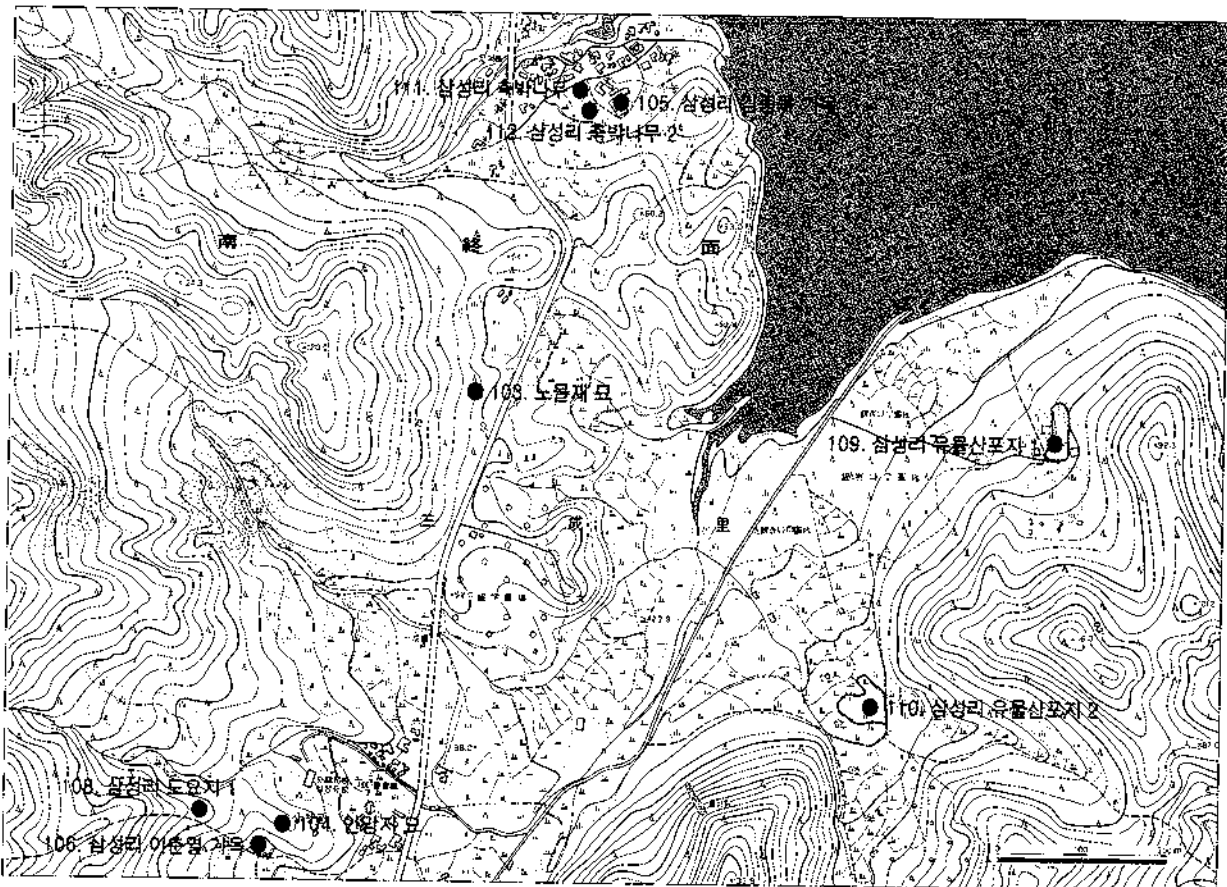
□ 소재지 : 남종면 삼성리 산60-10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盧物載(1396-1446)는 世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交河이다. 우의정을 지낸 閔(1376-1443)의 아들이며 영의정을 역임한 思愼(1427-1498)의 아버지이다.



지도 28. 노물재 묘 위치도(이전 002)

또한 부인 靑松沈氏는 沈溫(?-1418)의 따님으로 세종대왕비 昭憲王后의 동생이 된다. 1427년(세종9) 蔭補로 太平館直을 제수받고 이어 선공감직장과 사헌부 감찰을 지냈으며 동지돈녕부사에 이르렀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고 交陽府院君에 봉해졌다.

필당에서 45번 도로를 타고 퇴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삼성리에 이르면, 도로 우측으로 숙종대의 석물이 배치된 無名 묘소가 나타난다. 노물재 묘소는 무명 묘소 바로 위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은 2단의 階砌石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석과 문인석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1단 계체석의 윗면을 상석받침으로 사용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 봉분에는 가로 497cm 세로 600cm의 방형 호석으로 둘러싸. 문인석은 어깨 폭과 다리 폭이 동일한 몸매를 하고 있으며 얼굴에는 수염이 덩수룩하게 나아 있고 홀 잡은 손을 옷소매가 덮고 있는데, 양식상 세종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봉분 앞에 세워져 있는 방부이수 양식의 묘표 전면 중앙에는 작은 글씨 한줄로 贈純忠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交陽府院君盧公之墓라 쓰여져 있다. 뒷면의 음기는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어려우나 孫公弼(1445-1516) 識라는 글씨가 겨우 확인된다. 이수는 훼손되어 옛 문양(單龍弄珠)을 다시 조각하여 최근에 보수 교체하였고, 비신은 백대리석을 방부는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交河盧氏世譜』



사진 75. 안망지 묘 전경

安望之(?-1424)는 世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竹山이며 平壤府尹을 지낸 叔老의 아들이다. 아들 孟鵬(1415-1462)이 세종대왕의 따님 貞懿公主와 혼인하여 延昌尉에 봉해졌다. 咸興府尹을 지냈으며 사후 우의정에 추증되었다. 初葬地는 高陽縣 서쪽이었으나 1447년(세종29) 현재의 장소로 遷葬하였다. 중간에 실전하였으나 참판을 지낸 9대손 續(1617-1685)이 다시 찾고 1687년(숙종13)에 改封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묘소는 삼정골 마을의 삼성감리교회 좌측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은 조선초기에 유행하던 3단 階砌石 구조로 조성 되었으며 상석과 문인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다. 봉분에는 가로 470cm, 세로 605cm의 2단 호석을 둘러싸. 그리고 봉분 주위에는 곡장의 초석으로 추정되는 장대석이 남아 있다. 또한 봉분 앞에 세워진 묘표(총높이 57.5cm)는 마모가 극심하나 전면의 朝鮮國……이라는 글과 뒷면 음기의 有明正統12年(1447, 세종29)……公諱望之……라는 기사가 확인되어 초창지인 고양에서 현재의 장소로 이장할 때 건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5세기에 유행하던 방부하엽 양식을 갖추었으나 剝落이 심하여 자세한 관찰이 어려운 상태이다. 문인석(높이 204cm)은 노물재 묘소의 문인석과 양식이 거의 동일하여 세종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봉분 우측에는 1999년 새로 조성한 묘비가 건립되어 있다.

104. 安望之 墓

□ 소재지 : 남종면 삼성리 산48-5(지도28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竹山安氏世譜』, 1923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105. 김중옥 가옥



사진 76. 김중옥 가옥 전경

□ 소재지 : 남종면 삼성리 291번지(지도28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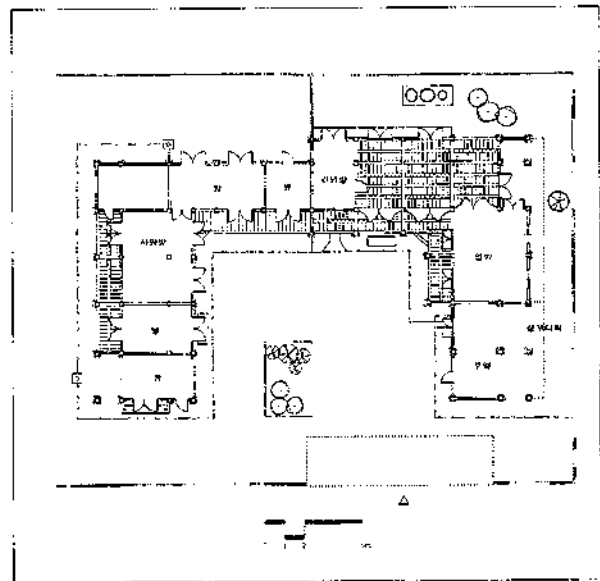
□ 내 용

상량은 보이지않아 정확한 연도는 확인하지 못 하였으나, 주인 김중옥씨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가옥의 상태로 보아 해방이전에 지어진 가옥임이 확실해 보인다.

이 근방에서는 가장 큰 가옥이었다고 하며 현재는 안채와 사랑채만이 남아있으나, 예전에는 99칸집이었다고 한다. 안채와 사랑채만을 보더라도 그 규모가 추정 가능하다.

옆집의 대지도 예전에는 이 집에 따른 부속채가 지어졌던 장소라고 한다.

ㄱ자형의 안채와 ㄱ자형의 사랑채가 붙어 있어 전체적으로 ㄷ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뒤쪽으로는 담으로서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뒤쪽으로



도면 10. 김중옥 가옥 평면도

안채의 뒷마당과 사랑채의 뒷마당이 약간의 경사지를 따라 넓게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5량가의 홀치마 팔작지붕이고, 건넌방의 앞되는 밑에 아궁이를 두고있어서 퇴부분이 대청마루보다 높게 처리되어 있다. 그리고 보통 안방 윗쪽으로 옷방이 있는 자리가 대청부분으로 되어 있고, 안방 출입문도 이 방향에 사분합문이 달려 있다.

대청 전면에는 사분합문이 달려 있고, 기둥은 180mm, 초석은 치석으로 450mm, 기단도 치석으로 높이가 640mm이다.

안방부엌부분의 다락은 그 높이를 높게 하여, 밖에서 보면 부엌이 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크기가 큰 편이다. 현재 부엌은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아궁이가 있는 부분은 넓혀서 보일러로 난방을 하여 온돌방처럼 사용하고 있다.

사랑채에도 ㄱ자형의 모서리 부분의 공간이 단차이를 550mm정도 높여서 수장공간으로 사용 되고있다. 가옥이 전체적으로 규모에 비하여 수장공간이 많이 있는 편이다.

▶ 지도번호 : 광주191-3

106. 이춘열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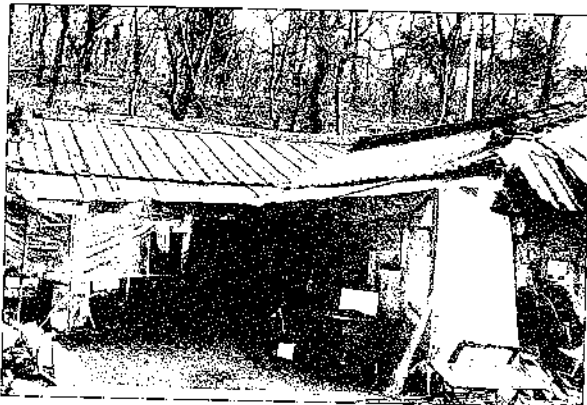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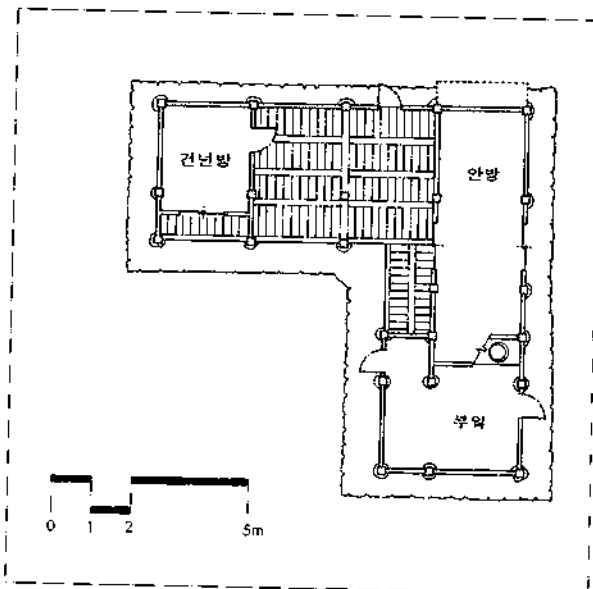


사진 77. 이춘열 가옥 전경



도면 11. 이춘열 가옥 평면도

□ 소재지 : 남종면 삼성리(지도28 참조)

□ 시 대 : 근대

□ 종 류 : 고가

□ 내 용

안채상량문(大清光緒十一年乙酉正月二十七日酉時立柱上樑丑坐未向龍) 기록으로 보아서 1885년에 건립된 가옥으로, 5대째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원래는 ㄱ자형의 안채와 ㄴ자형의 바깥채가 합쳐져서 ㄷ자형의 배치였으나, 1993년에 바깥채가 전소되어 지금은 안채만이 남아있다.

주변에 다른 가옥은 없고, 주택 뒤쪽으로는 경사지가 있어 자연스럽게 경계를 이룬다. 마당과 담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서 대문이 따로 있지는 않다.

안채의 구성은 건넌방 + 대청 + 안방 + 부엌으로 되어있고, 평4랑의 홀치마 팔작지붕이다.

안채 규모에 비해서는 2칸 대청으로 마루의 규모가 큰 편이며, 현재는 건넌방과 대청은 단지 수장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마루는 우물마루, 초석은 치석으로 되어있고, 기단은 자연석으로 마당은 흙마당이다.

▶ 지도번호 : 광주191-3

107.三成里 支石墓



사진 78. 삼성리 지석묘 전경

□ 소재지 : 남종면 삼성리 394-1전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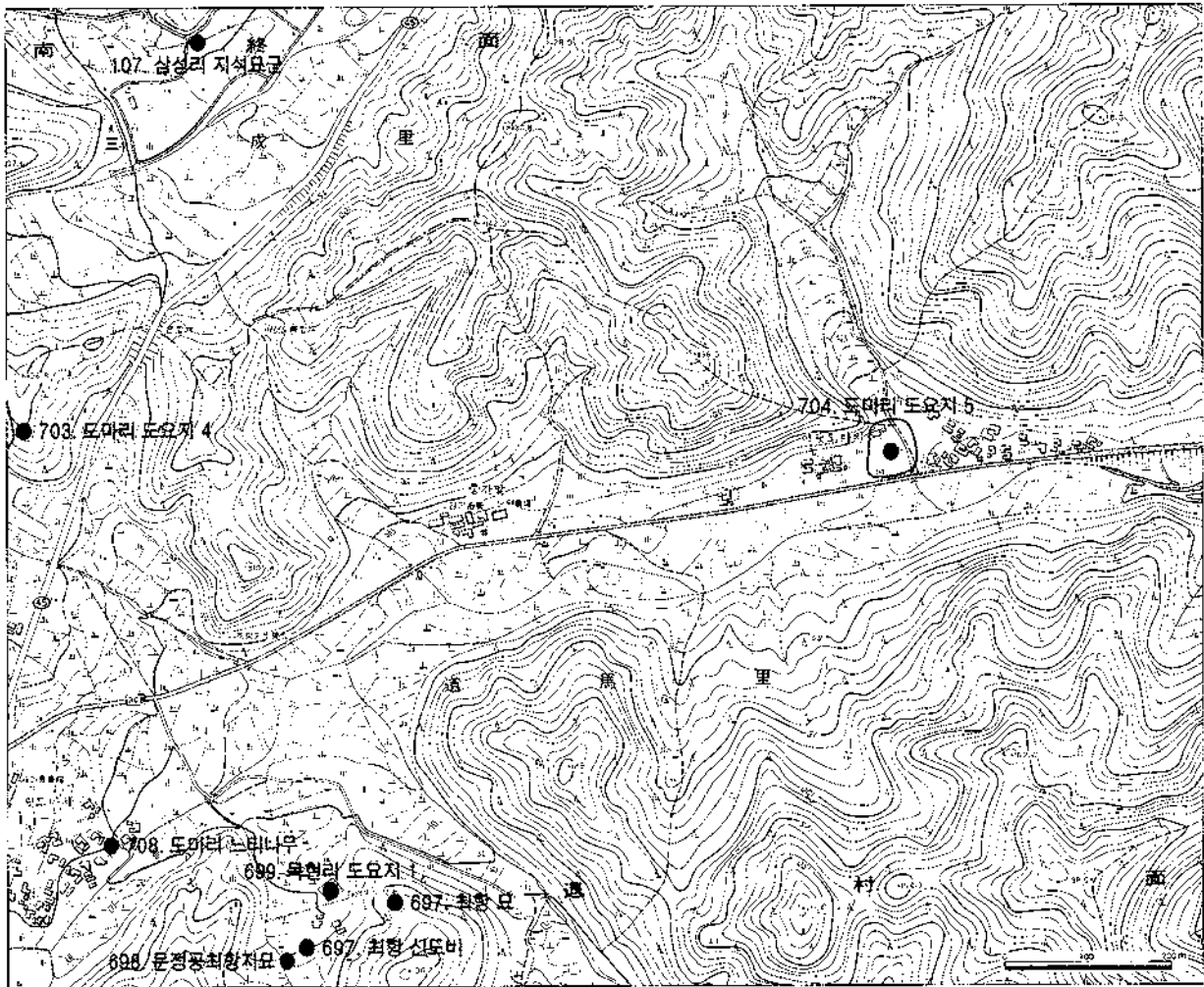
□ 시 대 : 청동기시대

□ 종 류 : 선사분묘

□ 내 용

(1) 위치와 현상

고인돌은 삼성리 과학동에 있는 權軫신도비옆에 소재지하고 있다. 형태는 방형으로 크기는 250×162×90cm이다. 윗면에는 약 5cm 정도의 성혈이 13개 정도가 확인되고 있으며, 암질은 화강 편마암이다. 고인돌



지도 29. 삼성리 지석묘 위치도(이천 012)

주변에 이와 유사한 석재들이 여러개가 찾아지고 있다. 관련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곳은 고인돌군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었으나, 현재에는 남아있는 것은 조사된 고인돌 1기 뿐이다. 밭의 축대로 사용되고 있는 석재들은 고인돌군으로 보고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주변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지만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108. 三成里 陶窯址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굽/받침/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살백, 담청백색/도립삼각형굽,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집 ●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추정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109.三成里 遺物散布址1



사진 79. 삼성리 유물산포지 1 전경

- 소재지 : 남종면 삼성리 산3-1임 일대(지도28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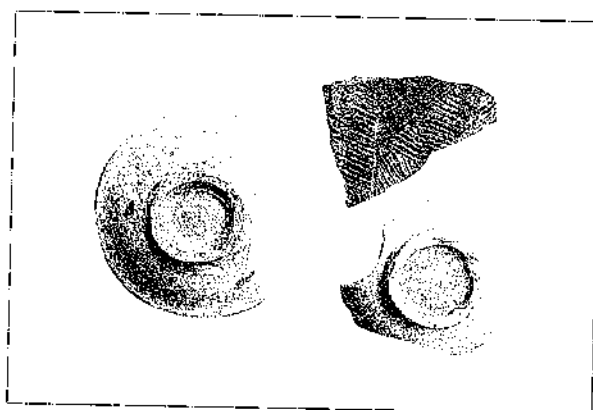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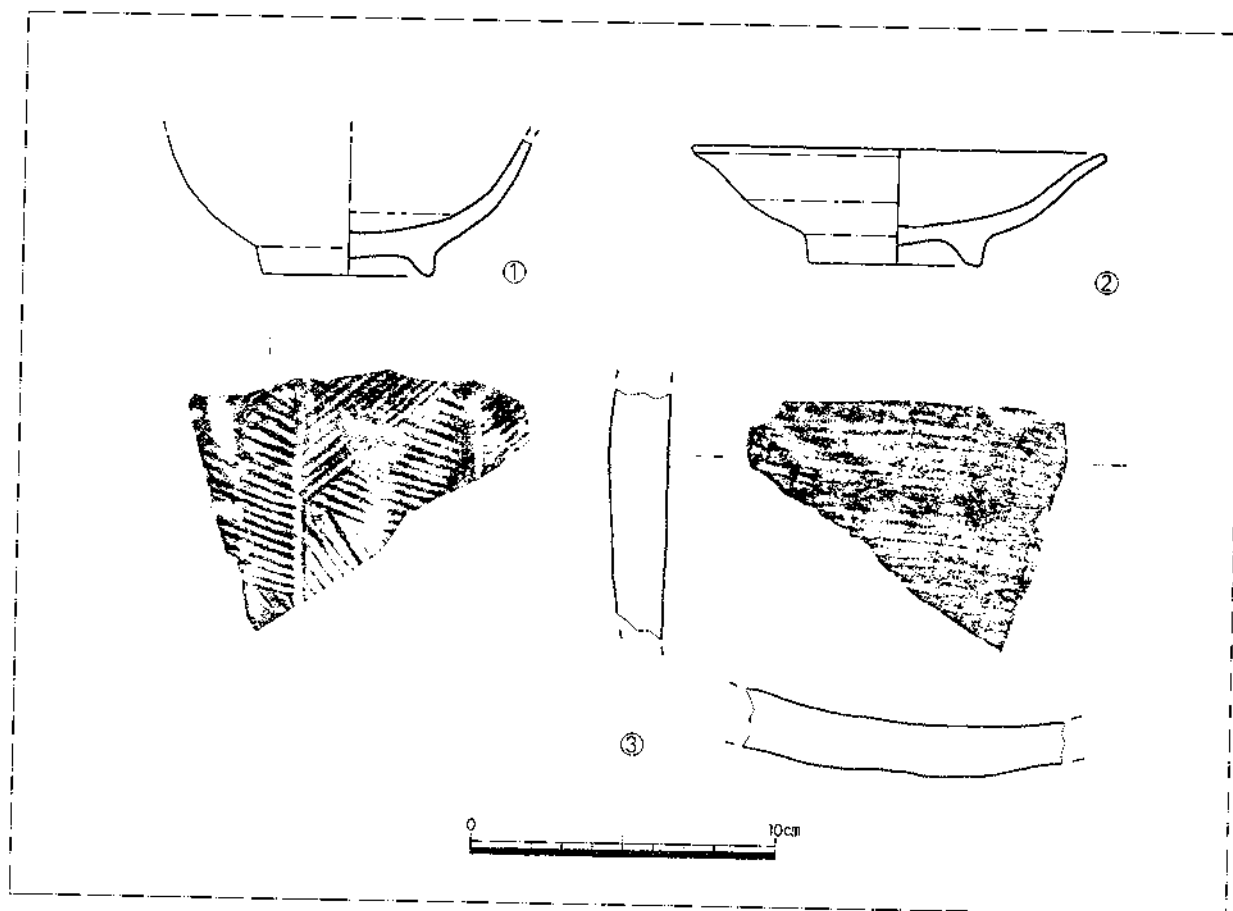


사진 80. 삼성리 유물산포지 1 채집 유물

□ 내 용

(1) 위치와 현상

남종면의 삼성리에 있는 삼성 하수종말처리장 우측 능선지역이다. 이 일대의 능선에는 민묘군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현재는 관리되고 있지 않다. 현재 이곳에



도면 12. 삼성리 유물산포지 1 채집 유물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파헤쳐진 흙 속에서 자기와 기와류가 수습되었다.

(2) 채집 유물

① 백자대접편(사진 80, 도면 12-①)

몸체는 곡선을 이루며, 굽은 수직굽이다. 내저에 원각이 관찰되며 내화토 받침흔이 남아있다. 담청백색 투명 유를 굽 안쪽만 제외하고 전면에 시유하여 소성하였다.

높이 4.6cm, 굽 지름5.6cm

② 백자접시편(사진 80, 도면 12-②)

외반된 구연부에 기벽은 사선으로 이어지며 굽은 수직굽을 띠고 있다. 문양은 없으며, 내저에 4군데 내화토 받침으로 포개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회백색유를 굽 안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으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높이 3.7cm, 구연지름13.4cm, 굽 지름5.5cm

③ 암키와편(사진 80, 도면 12-③)

등면에는 사선의 짐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매우 조밀한 마포흔이 남아있다. 측면은 남아있지 않으며, 회색경질의 기와로 태토는 매우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잔존길이 8.6cm, 너비 10.9cm, 두께 2.1cm

▶ 지도번호 : 광주 (1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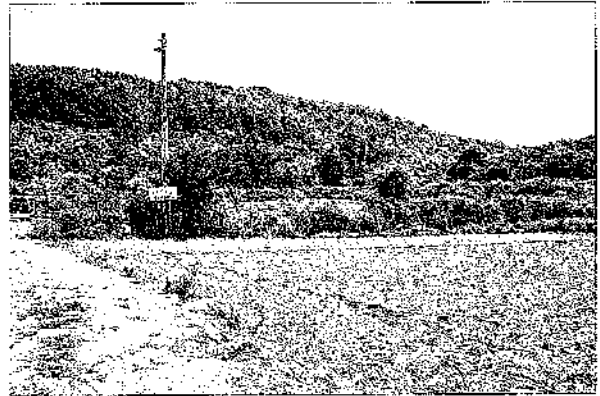


사진 81. 삼성리 유물산포지 2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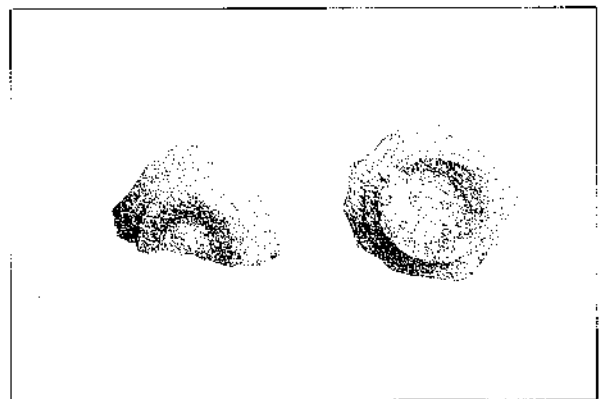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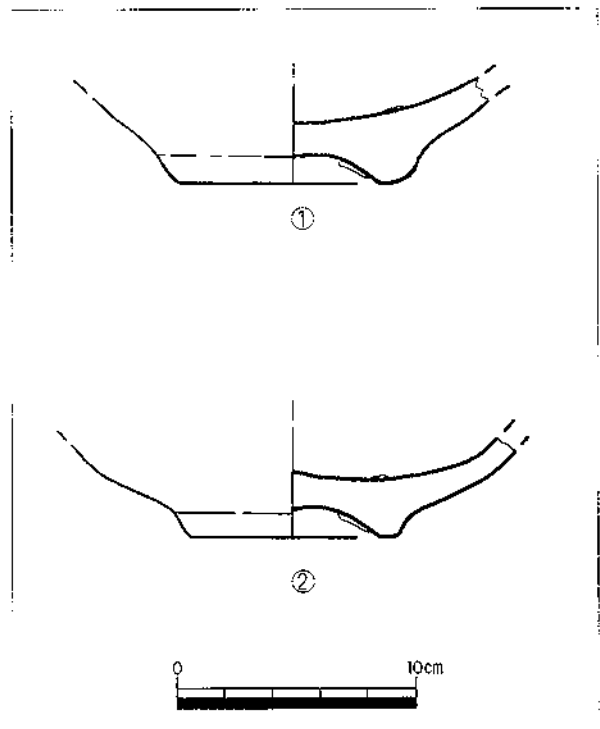


사진 82. 삼성리 유물산포지 2 채집 유물



도면 13. 삼성리 유물산포지 2 채집 유물

110. 三成里 遺物散布址2

□ 소재지 : 남종면 삼성리 산 19-1임 일대(지도110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삼성리에 있는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가기 전에 우측의 산골짜기 안쪽을 안심정골이라 한다. 이곳에 2·3채의 민가가 있으며,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이곳을 온누리 농장이라 하며 유물은 농장주변 밭에서 수습되었다.

(2) 채집 유물

① 백자저부편(사진 82, 도면 13-①)

수직굽의 형태로 접지면과 내저에 모래받침흔이 관찰된다. 청색유를 시유하여 소성하였으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속심이 붉은 색을 띠며,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지 못하였다. 높이 2.6cm, 굽 지름 5.2cm

② 백자저부편(사진 82, 도면 13-②)

파손이 심한편으로 굽과 몸체일부만 남아 있다. 굽은 낮은 오목굽으로 접지면과 내저에 모래 받침흔이 남아 있다. 회백색유를 전면에 시유하였고 외벽에 일부 빙렬의 흔적이 관찰되고 있다. 높이 2.2cm, 굽 지름 4.6cm

▶ 지도번호 : 광주 (191-3)

월에 외과수술을 받았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지정번호 : 경기광주 35

▶ 참고문헌 : 『광주군지』, 1990, 광주군

111. 三成里 측백나무1



사진 83. 삼성리 측백나무 1(左), 2(右) 전경

□ 소재지 : 남종면 삼성리 대291-7(지도28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삼성리 죽동 마을에는 측백나무 두 그루가 함께 서 있는데, 이중 북쪽에 있는 것이 경기광주 35로 지정된 보호수이다. 수령 300년, 나무키 13m, 나무둘레 2.3m이며 1983년 3월 10일 군나무로 지정되어 1993년 10

112. 三成里 측백나무2

□ 소재지 : 남종면 삼성리 대291-7(지도28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삼성리 죽동 마을의 두 그루 측백나무중에 남쪽에 있는 것이다. 수령 310년, 나무키 13m, 나무둘레 2.3m로 1983년 3월 10일 군나무로 지정되어 1994년 10월에 외과수술을 받았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지정번호 : 경기광주 36

▶ 참고문헌 : 『광주군지』, 1990, 광주군

113. 呂聖齊 墓와 神道碑

□ 소재지 : 남종면 수청1리 산101-10

□ 시 대 :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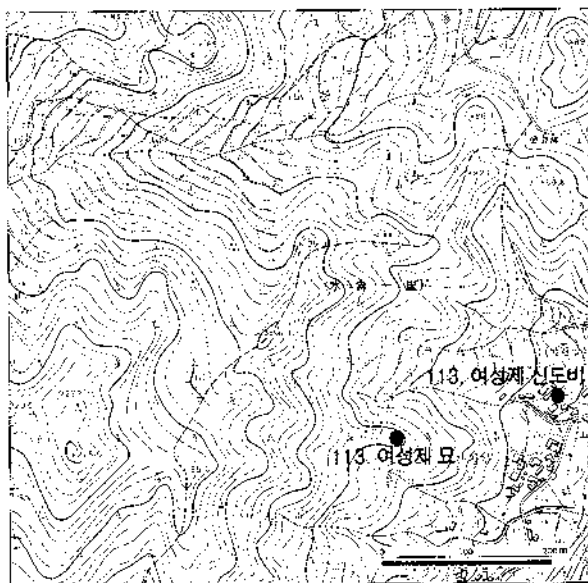
□ 종 류 : 묘

□ 내 용

呂聖齊(1625-1691)는 肅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咸陽, 자는 希天, 호는 雲浦이다. 府使를 지낸 爾亮(1603-1669)의 아들이나 仲父인 爾微에게 입양되었다. 1654년(효종5)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여러 요직과 각 조의 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남인들이 成渾과 李珣(1536-1584)를 文廟에서 黜享시키려 하자 이의 불가함을 陳疏하였고, 仁顯王



사진 84. 여성제 묘 전경



지도 30. 여성제 묘와 신도비 위치도(양수 095)

后를 폐위하려할 때도 적극 반대하였다. 저서로 『雲浦集』 3권이 있으며 시호는 靖惠이다.

묘소는 큰청탄 마을 뒷산 구릉의 중턱에 東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동자석, 문인석(높이 182cm), 장명등(높이 160cm)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는데, 조각 솜씨가 뛰어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당대를 대표할 만 하다. 숙종대 사대부 묘제의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묘역 우측에 세워져 있는 묘표(총높이 약 193cm)의 음기에는 여성제의 행적을 간단히 서술하여 놓았다. 陰記는 外孫 黃海道觀察使 吳命峻 記, 孫男 司諫院正 諱 光周(1666-1714) 혹은 건립연대는 刻字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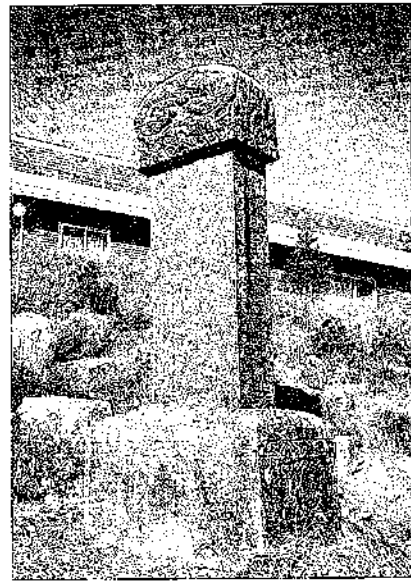


사진 85. 여성제 신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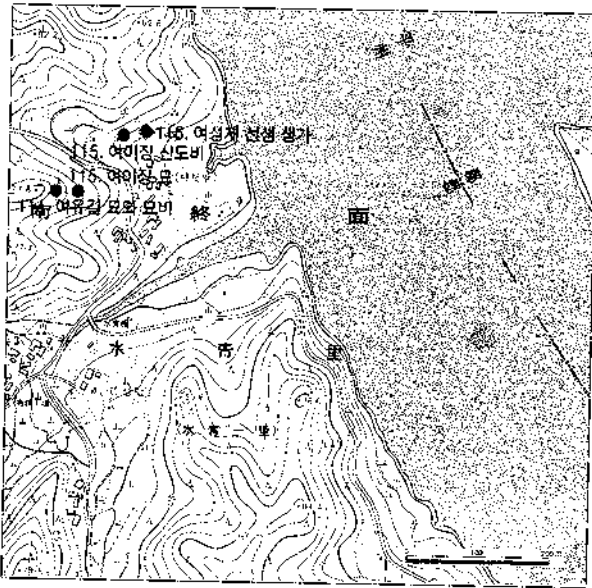
았으며, 숙종대에 유행하던 방부개석 양식을 갖추었다.

큰청탄 마을내에는 방부이수 양식의 신도비(총높이 약 393cm)가 건립되어 있다. 靑石의 비신(높이 207cm, 폭 83.5cm, 두께 50.5cm)에 비문을 四面刻字하고 비제를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贈諡□□ 呂公神道碑銘并序’이라 하여 신도비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비문은 原任 領議政 南九萬(1629-1711)이 撰하고 原任 領議政 柳尙運(1636-1707)이 書하였으며 전액은 여성제가 생전에 남긴 글씨를 모아 集字하였다(公所書篆集字篆). 4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에 비문의 상태가 완벽하고 이수의 앞뒤면에 조각한 용의 모습이 매우 정교하여 숙종대를 대표할 만한 신도비로 평가된다. 전액은 ‘領議政呂公神道碑銘’이며 건립 연대는 ‘崇禎紀元後74年甲申(1704, 숙종30)9月 11日’이다.

▶ 지도번호 : 양수 206-1

▶ 참고문헌 : 『咸陽呂氏世譜』, 1986, 農耕出版社
『광주군문화유적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114. 呂裕吉 墓와 墓碑



지도 31. 여유길 묘와 묘비 위치도(양수 096)

- 소재지 : 남종면 수청1리 산101-1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呂裕吉(1558-1619)은 光海君代의 문신으로 자는 德夫, 호는 春江이며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順元의 아들이자 牛溪 成渾(1535-1598)의 문인이다. 1580년(선조13)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成均館典籍, 承政院注書를 거쳐 호조정랑을 지냈다. 1610년(광해군2) 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算數와 星曆에 매우 능하였다.

작은청탄 마을에서 337번 도로를 타고 웃고개를 넘으면 우측 구릉에 자리잡은 함양여씨 세장지가 나타난다. 묘소는 세장지의 가장 윗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앞으로 팔당호가 펼쳐져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봉분 앞에는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를 세워 놓았다. 산 위에서 토사가 많이 밀려와 망주석과 문인석(높이 164cm)은 1/3 정도가 땅에 묻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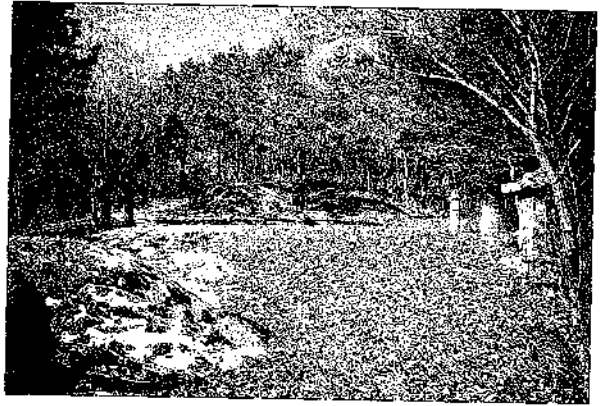


사진 86. 여유길 묘와 묘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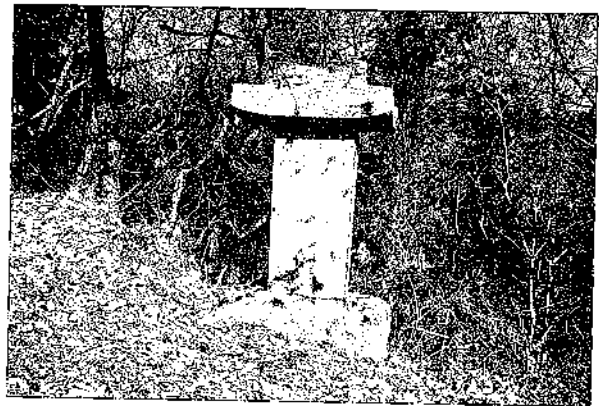


사진 87. 여유길 묘비

고 혼유석은 거의 매몰된 상태이다. 묘표(총높이 141cm)의 앞면에는 피장자의 신분을 쓰고, 뒷면에는 손자인 聖齊가 영의정을 제수받고 할아버지 裕吉의 관직을 추증하게된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놓았다. 건립 연대는 刻字하지 않았다. 묘역 우측 아래에 건립된 방부개석 양식의 墓碑(총높이 약 238cm)는 艾石의 비신(높이 128cm, 폭 60cm, 두께 29.5cm)을 사용하였으며 상태는 완벽하다. 비제를 '有明朝鮮國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行嘉善大夫漢城府右尹呂公墓碑銘'이라 하여 묘비임을 밝히고 右議政 張維(1587-1638) 撰, 兵曹判書 趙相愚(1640-1718) 書, 子 吏曹參判 爾徵(1588-1656) 篆篆하였다. 전액은 '贈左贊成呂公墓碑銘'이며 입석 연대는 '崇禎紀元後78年丙戌(1706, 숙종32) 月 日立'이다.

▶ 지도번호 : 국수 206-2

▶ 참고문헌 : 『咸陽呂氏世譜』, 1986, 農耕出版社

115. 呂爾徵 墓와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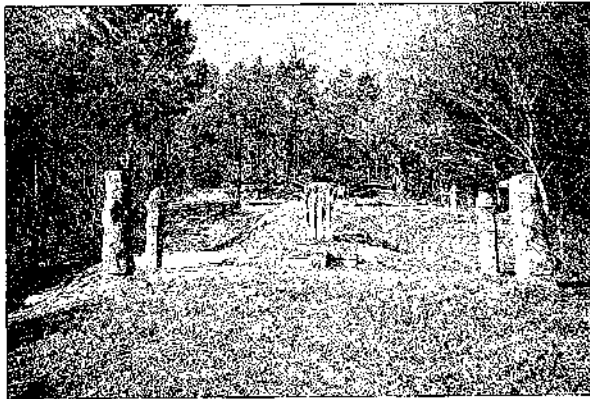


사진 88. 여이징 묘 전경



사진 89. 여이징 신도비

- 소재지 : 남종면 수침1리 산101-임(지도3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呂爾徵(1588-1656)은 孝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咸陽, 자는 子久, 호는 東江이며 참판 裕吉의 아들이

다. 또한 西平府院君 韓浚謙의 사위이자 久菴 韓百謙(1552-1615)의 門人이다. 1610년(광해군2)에 生員이 되어 잠시 관직에 나아갔으나 1616년(광해군8) 廢母論이 일어나자 낙향했다. 1624년(인조2) 문과에 급제하고 경기도관찰사와 예조참판을 지냈으며 부제학을 거쳐 공조참판에 이르렀다. 性理學과 天文, 曆算에 밝았으며 篆書에 뛰어나 비문의 글씨를 많이 남겼다. 저술로 『東江集』 2권이 전한다.

묘소는 여유길 묘소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봉분 앞에 방부원수 형의 묘표(총높이 147cm)를 세워 놓았다. 백대리석의 비신 앞면에 '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春秋館義禁府事藝文館提學五衛都總府副總管 世子左副賓客呂公諱爾徵之墓'라 쓰고, 뒷면에는 아들 聖齊가 영의정을 제수받고 아버지의 관직을 추증하게된 기사를 간단히 적어 놓았다. 건립 연대는 刻字하지 않았다. 문인석(높이 169cm)의 머리가 너무 길어 신체비례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묘소의 우측으로 방부개석 양식의 신도비와 함양여씨 고택이 자리잡고 있다. 신도비(총높이 약 215cm) 방부의 앞면에는 蓮花紋을 조각하고 개석에는 팔작지붕을 없었으며 비신(높이 141cm, 폭 64cm, 두께 26cm)은 백대리석을 사용하였다. 비문은 禮曹參判 鄭斗卿(1597-1673) 撰, 原任 左議政 趙師錫 書(1632-1693), 男 原任 右議政 聖齊(1625-1691) 篆이고 追記는 左議政 李端夏(1625-1669)가 識하였으며 건립 연대는 '崇禎紀元後64年辛未(1691, 숙종17)8月 H立'이다. 그리고 전액을 '贈領議政呂公神道碑銘'이라 하여 신도비임을 밝히고 있다.

묘소 아래에 손자 必升(1648-1666)과 8대손 主祥의 묘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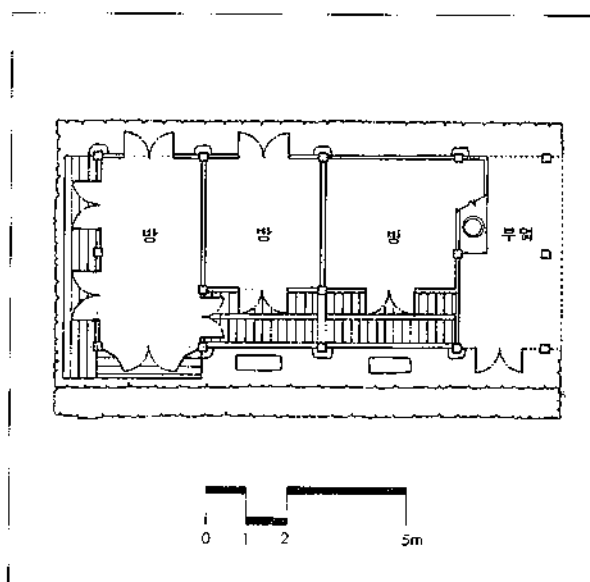
▶ 지도번호 : 국수 206-2

▶ 참고문헌 : 『咸陽呂氏世譜』, 1986, 農耕出版社

116. 여성제선생 생가



사진 90. 여성제선생 생가 전경



도면 14. 여성제선생 생가 평면도

□ 소재지 : 남종면 수청1리(지도3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고가

□ 내 용

숙종때에 영의정을 지낸 呂聖齊(1625-1691)의 생가로 전해지는 한옥이다. 상량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가구의 상태로 보아 조선시대의 가옥으로 보여진다.

지금은 가옥의 한 부분인 사랑채만이 남아있으나, 사랑채의 부채와 구성으로 보아, 지난날에는 굉장히 규모

가 큰 저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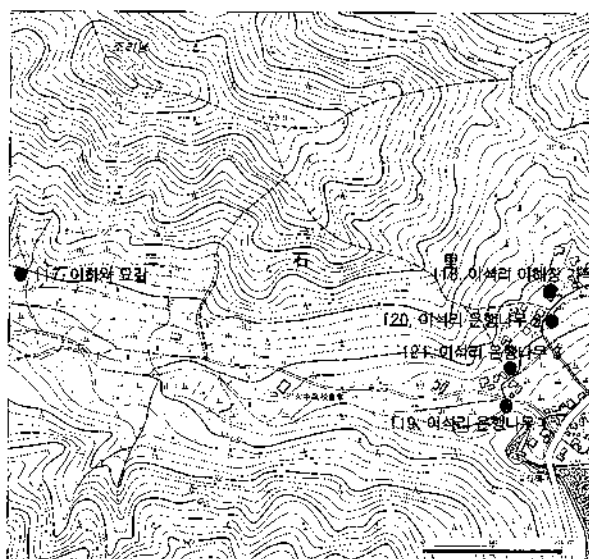
남아있는 사랑채는 전면 3칸 측면 2칸의 ㄱ자형으로 실 구성은 방 + 방 + 방 + 부엌의 형태이다. 부엌으로 사용되고 있는 1칸 부분은 나중에 증축한 것이다.

기둥은 방형으로 한변의 길이가 225mm정도로 상당히 굵은 편이며, 기단은 2단으로 520mm의 높이로, 가옥의 부채와 규모가 큰 것을 보여준다.

제일 좌측 방에는 전면, 측면에 뒷마루가 부가되어 있는데, 이는 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수장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 지도번호 : 양수206-1

117. 李河岳 墓碣



지도 32. 아하악 묘갈 위치도(이천 002)

□ 소재지 : 남종면 이석리 전133-2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李河岳(1608-1677)은 肅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龍仁이고 자는 汝壽이며 대사간을 지낸 李慶(1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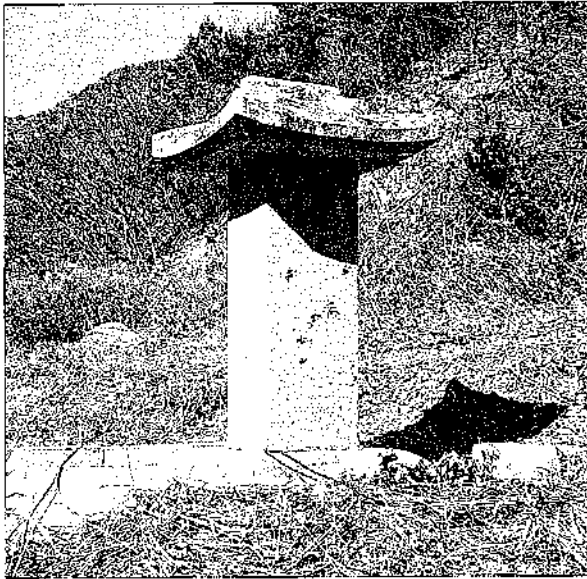


사진 91. 이하막 묘갈

1621)의 손자이다. 1633년(인조11) 진사가 되고 관직에 나아가 여러 벼슬을 거쳐 羅州牧使에 이르렀다.

묘갈(총높이 약 237cm)은 석림 마을 서쪽 골짜기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소로변에 건립되어 있으며 숙종대에 유행하던 방부개석 양식을 갖추고 있다. 방부와 개석의 폭을 정방형의 비신(높이 168cm, 폭 58cm, 두께 50cm)보다 훨씬 넓게 만들어 비문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였다. 비신의 앞면에 7개의 탄흔이 남아 있으나 전반적인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碣題를 '有明朝鮮國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行通政大夫羅州牧使羅州鎮兵口口僉節制使李公慕碣銘并序'라 하여 묘갈임을 밝히고 있으며, 左議政 宋時烈(1607-1689)撰, 工曹參口金壽增(1624-1701)篆, 男 平安道觀察使 世載(1648-1706)書이다. 追記는 世載가 泣血謹錄하고 전액은 '贈嘉善大夫戶曹參判李公墓碣銘'이라 하였으며 건립 연대는 '崇禎紀元後75年壬午(1702, 숙종28)8月 日立'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龍仁李氏大同譜』

118. 이해창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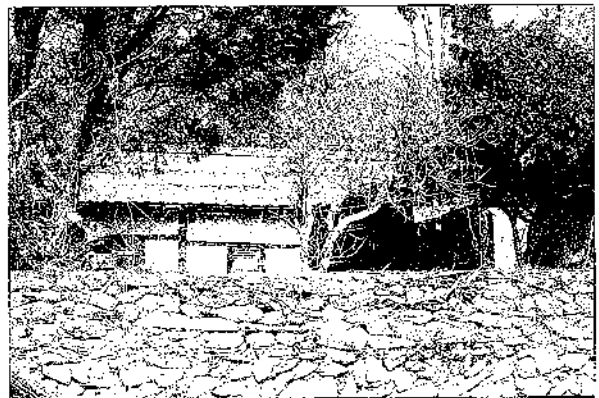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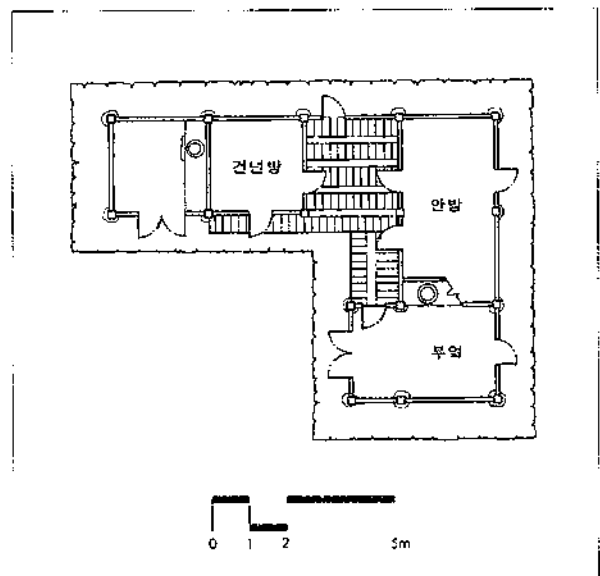


사진 92. 이해창 가옥 전경



도면 15. 이해창 가옥 평면도

□ 소재지 : 남종면 이석리 9번지(지도32 참조)

□ 시 대 : 근대

□ 종 류 : 고가

□ 내 용

현재 상주하는 사람은 없으나, 도예가가 구입하여 작업실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다. 그러나 가구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부엌 부분만 입식부엌형으로 개조되어 있었다.

안채상량문(大正四年乙卯……立柱上樑家主丙申)의 기록으로 보아 1915년에 지어진 가옥으로 안

채판이 남아 있고, 부엌과 마주보는 위치와 최근에 지어진 도자기를 넣어두기 위한 창고가 있다.

안채의 전체적인 구성은 경기도의 전형적인 평면형태인 ㄱ자형의 주택에 부엌이 건넌방쪽으로 붙어있는 부엌 + 건넌방 + 대청 + 안방 + 부엌 형태이다. 건넌방쪽으로 부가된 부엌은 건넌방의 난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채는 3량구조의 ㄱ자형 형태이고, 홀처마 팔작지붕이다. 지붕은 원래 초가였으나 후대에 기와로 바뀌었고, 기단과 초석은 자연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입문은 앞쪽에 있는 문을 사용하지 않고 뒤쪽으로 나있는 쪽문을 사용하고 있다.

내부에는 뒤주, 맷돌, 책상 등 옛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나, 원래 이 주택에서 쓰이던 것인지, 후에 현 주인이 구입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1: 25,000), 이천 002(1: 5,000)

119. 二石里 은행나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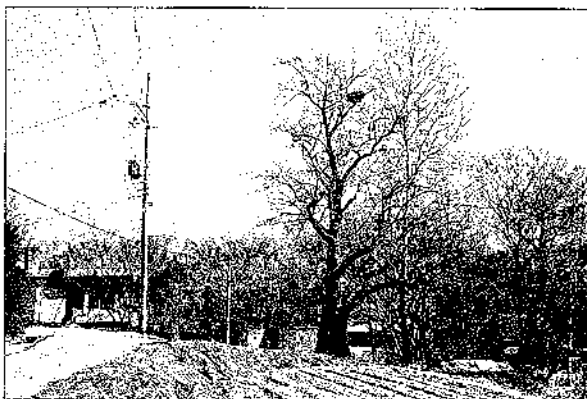


사진 93. 이석리 은행나무 1 전경

- 소재지 : 남종면 이석리 답145(지도32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이석리 석림마을내에 위치한다. 나무의 수령 310년, 높이 22m, 둘레 4.25m이다. 1983년 3월 10일 군나무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 10월 외과수술을 받았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지정번호 : 경기광주 37

120. 二石里 은행나무 2



사진 94. 이석리 은행나무 2 전경

□ 소재지 : 남종면 이석리 46(지도32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이석리 석림마을내에 위치한다. 느티나무의 수령 270년, 나무키 20m, 둘레 3.3m이다. 1983년 3월 10일 군나무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 10월 외과수술을 받았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지정번호 : 경기광주 40

121. 二石里 은행나무 3



사진 95. 이석리 은행나무 3 전경

□ 소재지 : 남종면 이석리 46(지도32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이석리 석림마을내에 위치한다. 느티나무의 수령 220년, 높이 19m, 둘레 4.25m이다. 1982년 10월 15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주변은 잘 정비되었으나, 안 내판이 낡아 교체가 필요하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지정번호 : 경기광주 41

도 칙 면

122~130. 宮坪里 陶窯址 1~9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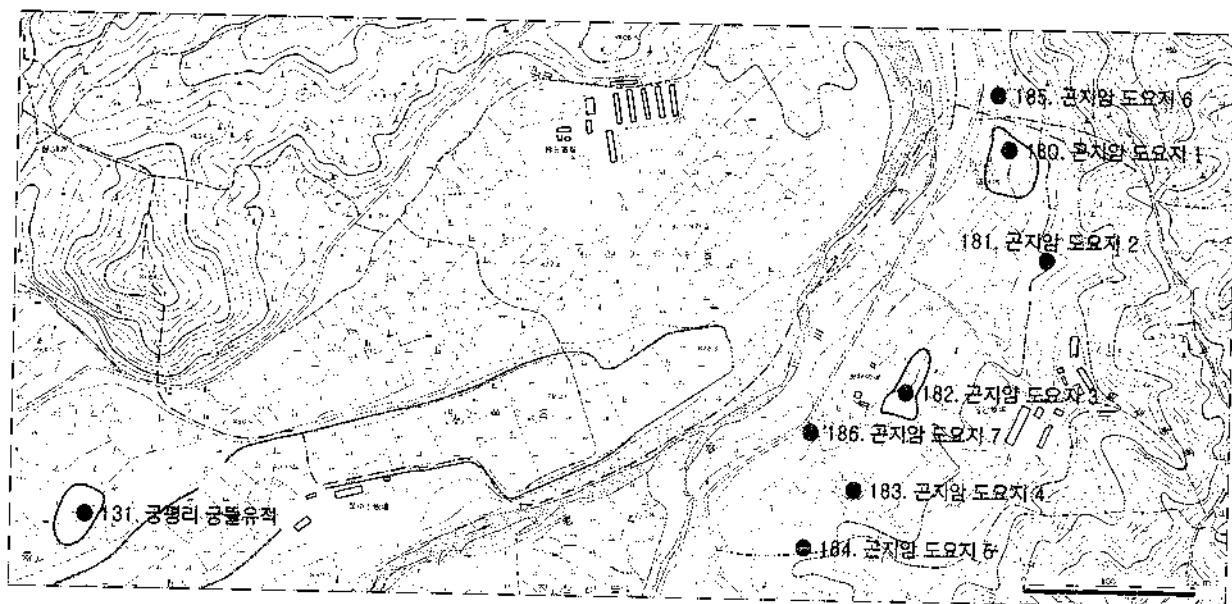
지도 33. 궁평리 도요지 위치도(이천 063)



사진 96. 궁평리 도요지 5호 전경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굽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8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잔, 뚜껑/설향, 연회백, 회백색/직립형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도침, 굽높은접시형받침	간창골 (2-1,340)	田	노곡 191-1	○	
2호	18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향아리, 뚜껑/설향, 연회백, 회백색/직립형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감발, 원반형받침	간창골 (2-1,337-2)	田	노곡 191-1	○	
3호	17-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향아리/유백, 연회백, 회백색/직립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	간창골 (284)	田·墓	노곡 191-1	○	
4호		『한국의 백자도요지』에 위치표시 있음	미확인		노곡 191-1	×	
5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회백색/오목굽, 직립형굽/굽은모래받침	간창골 (2-1)	田	노곡 191-1	○	
6호	17-18세기	●(청화)백자/발, 대접, 접시, 잔, 향아리/연회백, 회백색/직립형굽/굽은모래받침	간창골 (494)	田·林	노곡 191-1	×	
7호	17-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유백색, 연회백, 회색/직립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감발, 원반형받침, 폐기물활용받침	용두산 (53)	林	노곡 191-1	×	
8호	18세기	●(청화)백자/대접, 접시, 향아리/유백, 연회백, 회색/오목굽, 직립형굽/굽은모래받침	새남터들 (563)	田·畝	노곡 191-1	×	
9호	18세기	●(청화)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회백, 회청색/직립형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도침, 굽높은제기형받침	대락바위 (54-2)	田·林	노곡 191-1	×	

131. 宮坪里 궁평遺蹟



지도 34. 궁평리 궁돌유적 위치도(이천 063)

- 소재지 : 도척면 궁평리
- 시 대 : 구석기시대 ~ 백제
- 종 류 : 선사유적, 분묘
- 내 용

1) 위치와 현상

궁평리 궁뜰유적은 곤지암에서 궁평리방향으로 나 있는 지방도로 방향으로 가면 중부고속도로 옆에 위치한 궁뜰마을에 소재하고 있다.

궁평리유적은 중부고속도로 공사구간 발굴작업의 일환으로 충북대학교에서 1986년 조사한 유적으로, 靑銅器時代 支石墓 3기, 百濟時代 돌무지 2기와 舊石器時代의 뿔석기층을 발굴하였다. 이외에도 보고자는 新石器時代의 櫛紋土器片도 일부 확인된다고 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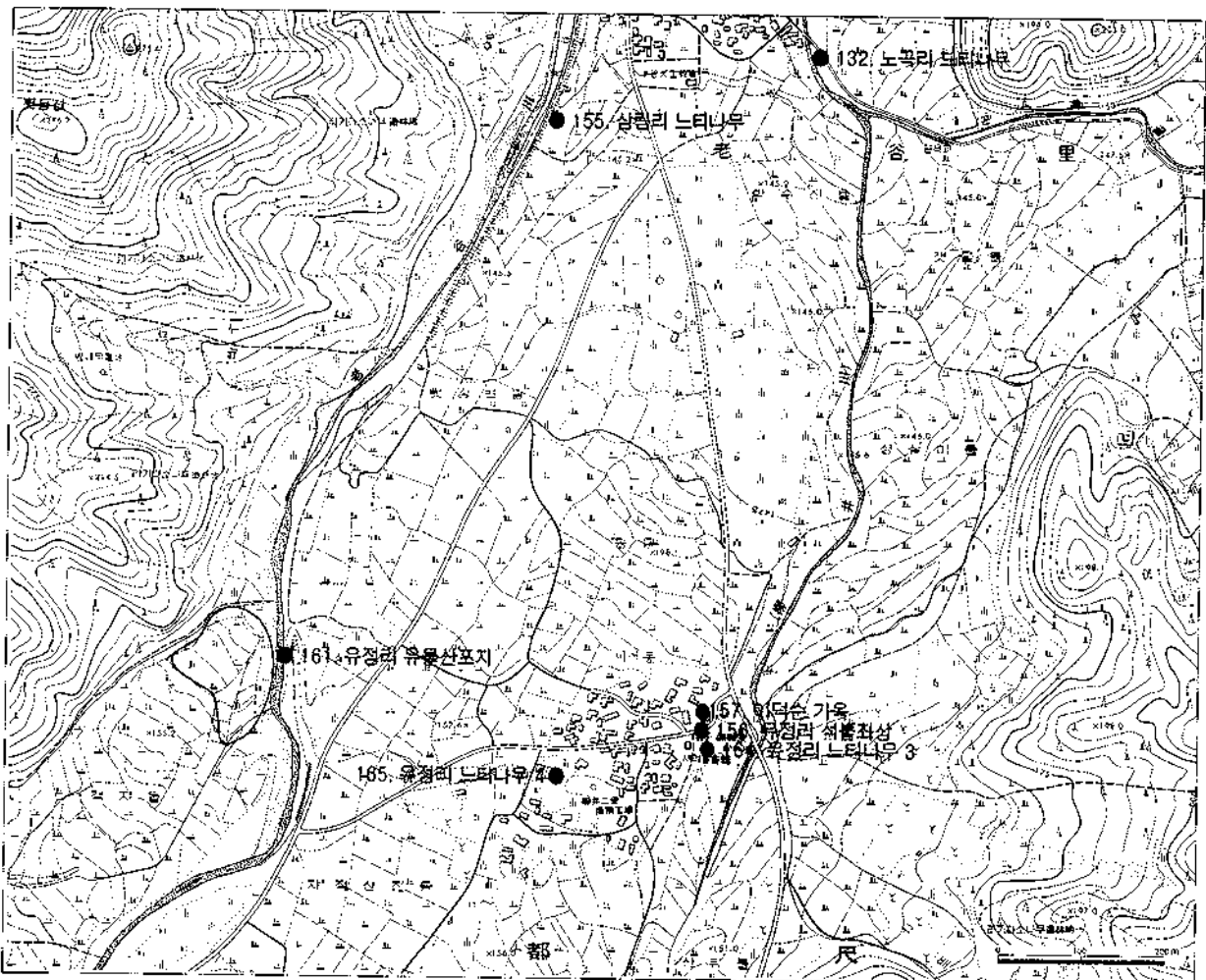
다. 또한 朝鮮時代의 陶窯址도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궁뜰유적은 舊石器時代에서 百濟時代에 이르는 유적이 분포하는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곳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支石墓와 출토된 유물은 중부휴게소로 이전하여 전시·보관되고 있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132. 老谷里 느티나무

- 소재지 : 도척면 노곡리 498-1
- 시 대 : 조선시대



지도 35. 노곡리 느티나무 위치도(이천 084)



사진 97. 노곡리 느티나무 전경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

본 보호수는 도척면 노곡리 498-1번지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나이는 240년이며 품격은 먼나무, 나무종류는 느티나무이다. 1983년 3월 10일 도나무로 지정되었다. 보호수의 높이는 12m, 둘레는 3.5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지정번호 : 경기광주 69

133. 陶雄里 遺物散布址

□ 소재지 : 도척면 도웅리 111-2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

1) 위치와 현상

곤지암에서 도척면 방향으로 가다 보면 44번 국도와 인접하여 두갈래 길이 나온다. 여기서 우측 길인 궁평리 방향으로 나 있는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도웅리 응



사진 98. 도웅리 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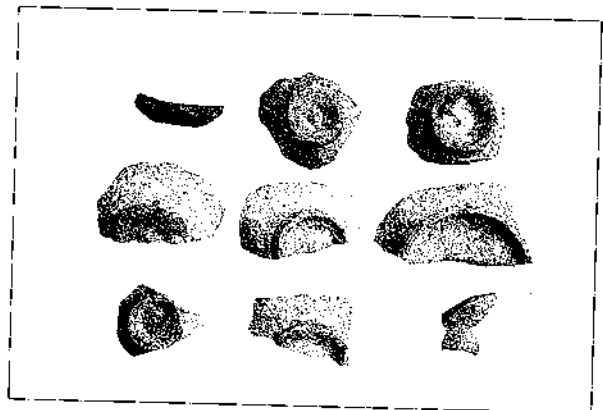


사진 99. 도웅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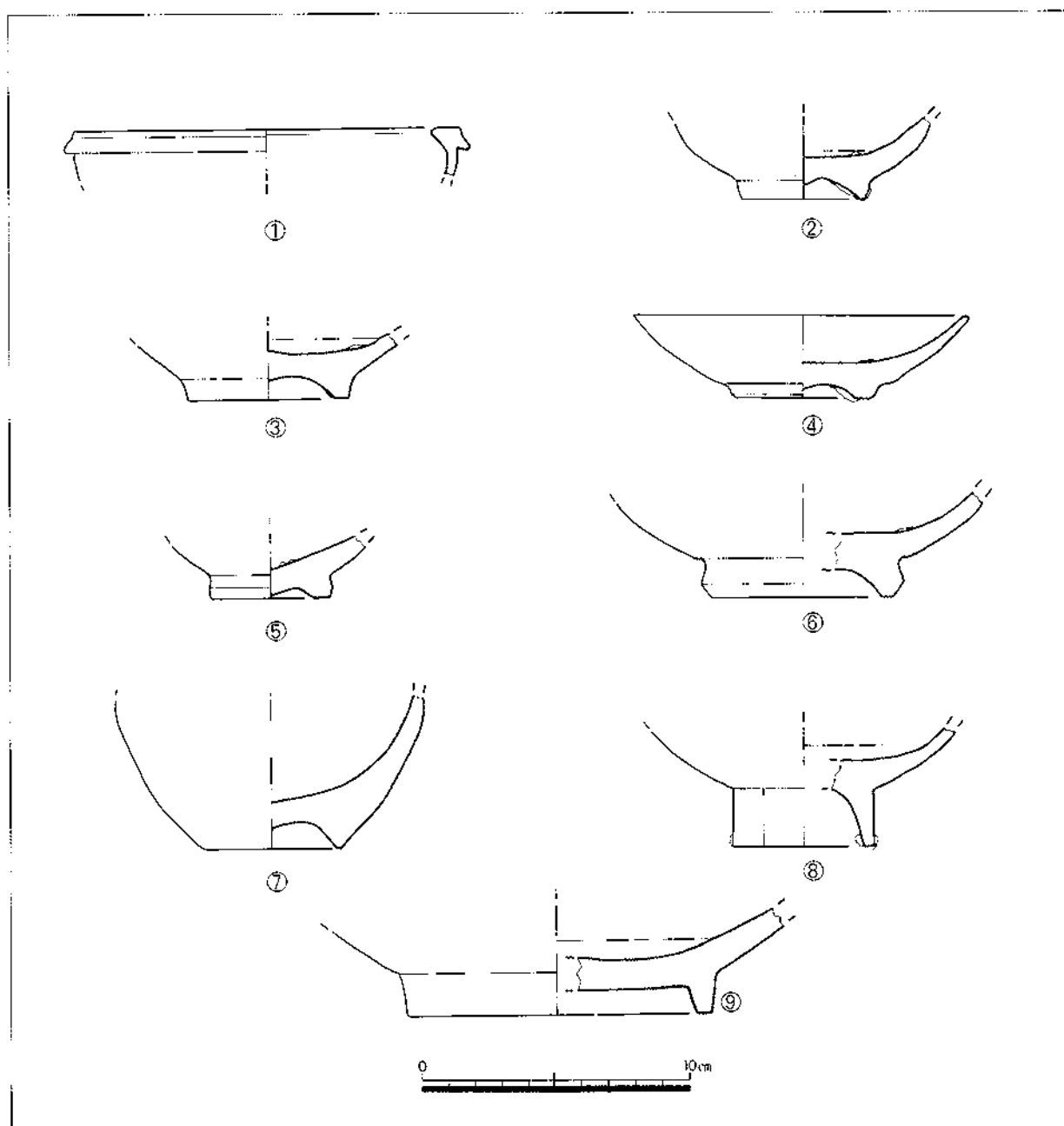
골 마을을 지나 안응골 마을이 나온다. 유적은 안응골 마을과 맞닿아 있는 구릉과 평지와 인접한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금은 경작지로 조성되어 있고 자기편과 도기편 일부가 산란되어 있을 뿐, 유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괴석 2기가 확인되고 있다. 유적의 북동쪽으로 노곡천이 흐르며 천 주위로는 논과 밭이 조성되어 있다. 북쪽과 남쪽으로는 해발 300m 내외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2) 채집 유물

① 토기구연부편(사진 99, 도면 16-②)

회청색 경질의 구연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속심은 붉은색, 표피는 회청색이다. 태토는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현높이 1.8cm, 복원구경 14.4cm이다.



도면 16. 도옹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② 백자대접편(사진 99, 도면 16-①)

굽과 저부 일부만 남은 백자대접편이다. 시유상태는 양호하며 전면에 빙열이 돌려져 있다. 바닥에 원각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과 바닥에 모래받침 자국이 남아 있다. 현높이 3.1cm, 저경 4.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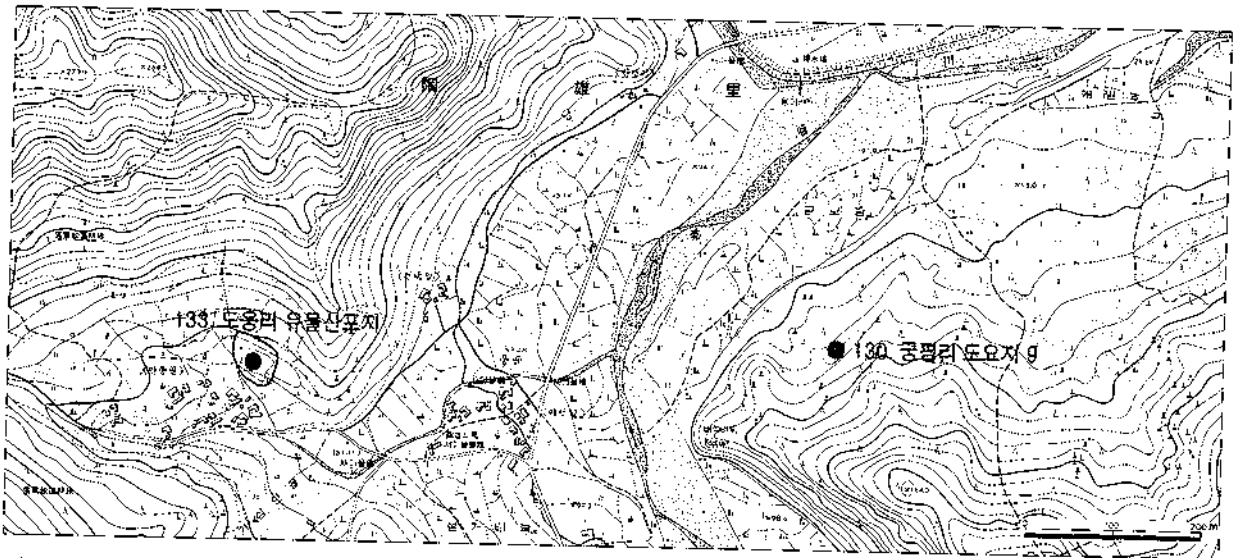
③ 백자대접편(사진 99, 도면 16-④)

굽과 저부 일부만 남은 백자대접편이다. 빙열이 일부

나 있고 바닥에 원각선이 돌려져 있다. 굽과 바닥에 모래받침 자국이 남아 있다. 현높이 2.5cm, 저경 6.0cm이다.

④ 백자대접편(사진 99, 도면 16-③)

반파된 백자대접편이다. 시유상태는 양호하지 못하고, 전면에 옅은 푸른색으로 시유되었다. 굽과 바닥에 모래받침 자국이 남아 있다. 높이 3.1cm, 저경 5.4cm이다.



지도 36. 도웅리 유물산포지 위치도(이천 063)

⑤ 백자대접편(사진 99, 도면 16-⑤)

굽과 저부 일부만 남은 백자대접편으로 초벌구이만 한 것이다. 색조는 회백색이며 바닥에 모래받침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현높이 3.1cm, 저경 4.6cm이다.

⑥ 백자저부편(사진 99, 도면 16-⑥)

굽과 동체부 일부만 남은 백자편으로 내면만 시유된 상태이다. 내면에 원각선이 2줄 돌려져 있다. 현높이 4.0cm, 저경 11.4cm이다.

⑦ 백자저부편(사진 99, 도면 16-⑦)

굽일부만 남은 백자편으로 내면만 시유된 상태이다. 내면에 빙얼과 모래받침 흔적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높이 : 2.3cm, 저경 : 6.8cm이다.

⑧ 백자저부편(사진 99, 도면 16-⑧)

굽과 동체부 일부만 남은 백자편으로 색조는 회백색이다. 시유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현높이 4.0cm, 저경 6.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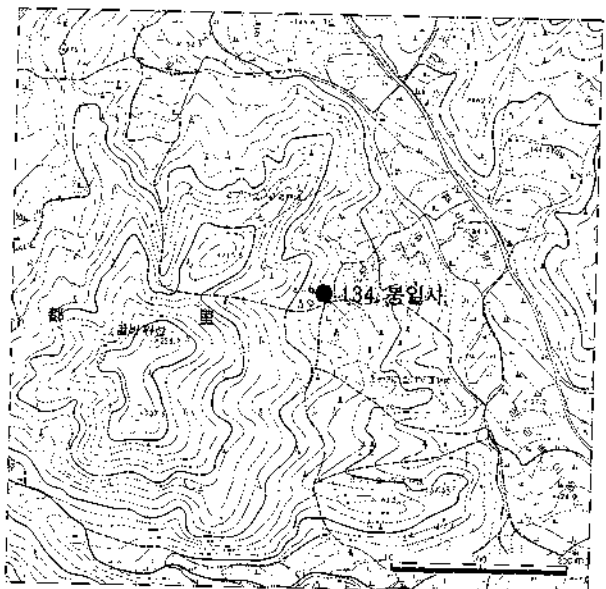
⑨ 백자제기편(사진 99, 도면 16-⑨)

굽바닥 일부만 남은 제기편이다. 일부편만 잔존하여 몇 개의 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굽에 모각이한 흔적은 확인할 수 있다.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각이 져 꺾여 굽에 이르는 형태이다. 연갈색유로 시유되어 있고 시유상태는 양호하

다. 굽바닥에 모래받침 흔적이 보인다. 현높이 4.5cm, 굽높이 2.2cm, 저경 5.4c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134. 奉日寺



지도 37. 봉일사 위치도(이천 084)



사진 100. 봉일사 전경



사진 101. 봉일사 대웅전 삼존불상

- 소재지 : 도척면 방도2리 147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사찰
- 내 용

충부고속도로에서 광주군 곤지암쪽으로 내려오다가 329번 국도를 따라 들어오면 유정리 석불좌상의 佛蹟이 보이고 거기에서 다시 곧바로 직진하면 奉日寺에 이르게 된다. 현재는 大雄殿, 大雄寶殿과 山神閣, 寮舍, 浮屠 등이 배치된 작은 규모의 현대식 사찰로 1980년대 동국대학교 불교연구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건립한 것이다.

봉일사에 관한 史蹟記나 碑文이 남아 있지 않아 그 창건연대와 연혁을 알 수 없으나 『東國輿地勝覽』 권9에 “경기도 부평군(지금의 부천) 제양산에 있다”고 되어 있고 『梵宇攷』에도 “지금은 폐사되었다”는 내용이

있어 조선시대까지 존속되었다가 폐사된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이 절의 현재 주지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조선 시대의 김점흥에 의해 초창된 절로 그때 寺名은 ‘奉日庵’이라 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의 대웅전 바로 옆에는 “奉日庵碑”가 세워져 있다.

대웅전 안에는 절의 창건때 조성되었다고 하는 紙佛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근래에 조성된 보살상이 안치되어 있고 후벽에 靈山會相圖와 七星幀畫, 神衆幀畫 등이 그려져 있다. 특히 본존불인 紙佛은 단정한 이목구비로 부드러운 인상이며 머리 위의 肉에는 2개의 珠가 장식되었다. 또한 佛身은 두껍게 입혀진 도금 때문에 양 손목에 표현된 옷자락과 불상의 內衣를 표현한 것처럼 가슴 위로 수평으로 약간 도톰하게 튀어나온 것 이외에는 세부표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른손은 가슴 위로 올려 손바닥을 위로 한 채 마치 지물을 들고 있는 것 같고 왼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두고 있다.

이 불상은 상체에 비해 결가부좌한 다리부분이 유난히 작고 빈약하게 처리되어 신체비례가 맞지 않는데 이는 최근에 만들은 대좌부분과 결합하면서 불상의 아랫부분이 잘려나간 듯한 느낌을 준다. 이 紙佛은 종이로 만들어졌다는 재료면에서는 주목할만하나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한 신체비례나 두 손의 형태, 극도로 생략된 세부표현 등으로 인하여 어색한 조형감에서는 이 절이 창건된 당시의 조선시대 불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최근에 건립된 大雄寶殿에는 降魔觸地印을 한 석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불을 배치한 三世佛과 후불벽화가 안치되어 있다. 이 삼세불과 후불벽화는 大雄寶殿의 건립과 함께 조성된 현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참고문헌 : 『畿內寺院誌』, 1988, 경기도 『梵宇攷』

135. 修道寺



사진 102. 수도사 전경



사진 103. 수도사 불상

- 소재지 : 도척면 방도리 633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사찰
- 내 용

도척면 소재지에서 329번 도로를 따라 1km 못 미친 곳에 유정리 석불좌상이 있고 이곳으로부터 1km 정도 더 직진하면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 마을로 들어가 '수도사'란 안내판을 따라가면 마을 끝 해발 약 230m 정도되는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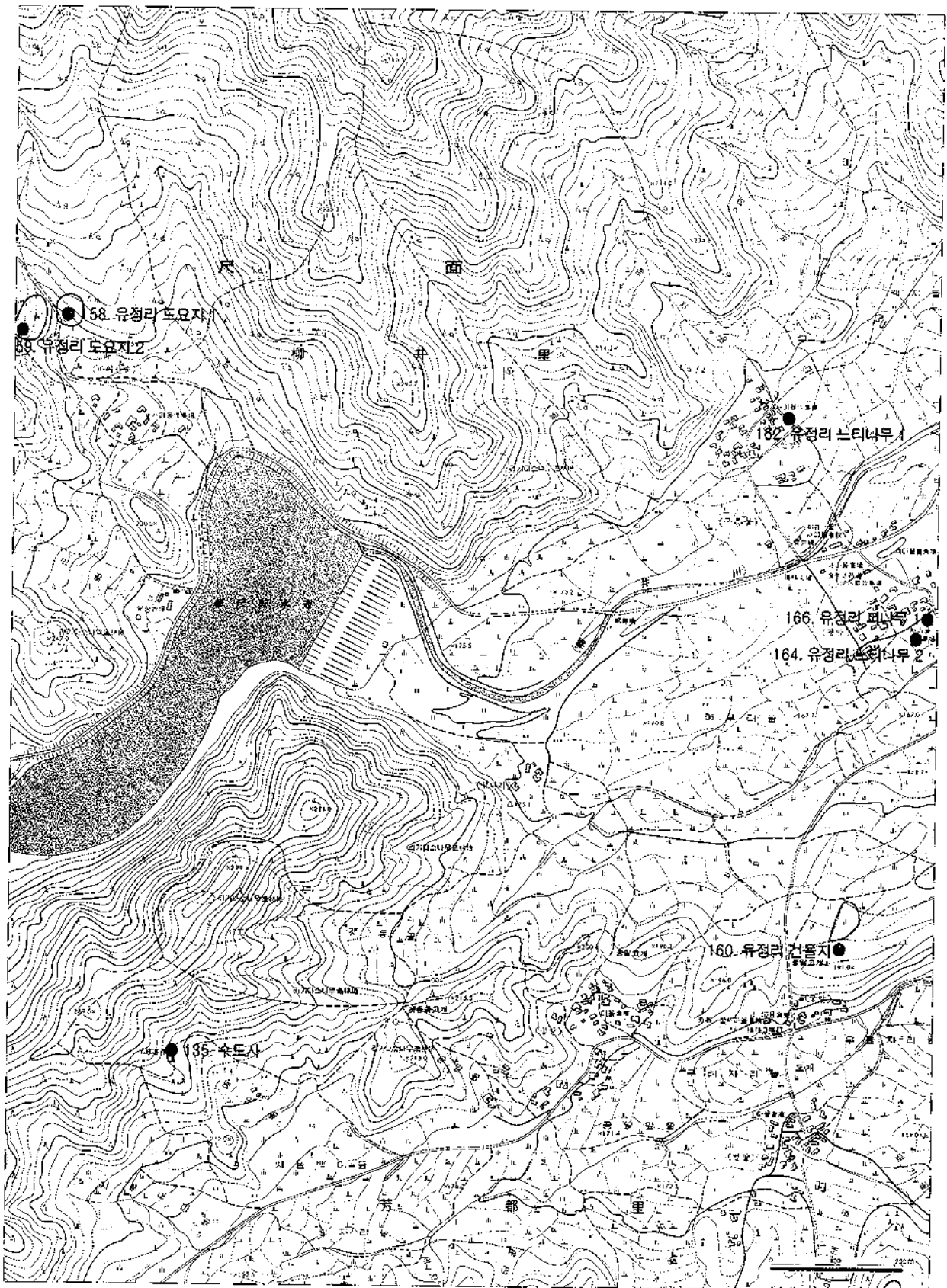
大雄殿과 寮舍만 있는 작은 규모의 근대 사찰이었으나 최근에 佛事를 위하여 옛 대웅전을 헐고 터만 남은 채 아직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요사채가 있던 자리에는 가건물로 지은 법당이 들어서 있다. 현

재 절터 주변에는 기와편이나 자기편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韓國寺刹全覽』에는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남한산 大本寺 奉恩寺의 末寺”로 되어 있다. 또한 『太古寺法』에 의하면 “1859년(조선 哲宗 10)에 相公 金左根(1797-1869)이 창건하였으며 1943년에는 化主 震虛大師가 법당을 창건하면서 大房을 중수하였다”고 한다. 金左根은 조선말기의 문신으로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중심인물이었다. 김좌근과 이 곳이 어떤 지역적 연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하는 기록이 맞다면, 이러한 인물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보기에는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梵宇攷』에는 “경기도 陽城(지금의 安城郡) 槐胎山에 있으나 지금은 폐사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伽藍考』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가건물로 된 법당 안에는 중앙에 降魔觸地印을 석가불좌상을 안치하고 좌우에 협시보살상을 배치한 목조의 삼존불상과 후벽에 阿彌陀佛幀畫가 그려져 있다. 특히 본존불의 오른쪽에 있는 보살상은 아래쪽에 ‘藥師如來佛’로 명명되어 있으나 이 불상은 당초문이 새겨진 보관을 쓰고 왼손바닥에 목조의 寶瓶을 올려놓고 있어 여래라기 보다는 보살상으로 여겨진다. 이 보살상은 작은 크기로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네모난 얼굴에 길고 작은 눈과 각이 진 코가 표현되었으며 가슴 위로는 수평으로 가로지른 주름잡힌 內衣가 보이고 오른쪽 어깨에 접혀진 옷자락이 가슴 앞쪽으로 흘러 내려와 배 앞부분에 끼워져 마무리되었다. 더욱이 함께 안치된 본존불과 관음보살과는 표현기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원래 한 짝이 아니었던 것 같으며 또 보관형태나 주름이 표현된 꽃잎모양의 內衣, 법의의 착의법 등은 조선후기 불, 보살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따라서 이 보살좌상은 조선시대 불상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조선 후기까지 올라다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삼존불상의 오른쪽 편으로는 왼손에 寶珠를 들고 있는 민머리 형태의 지장보살이 배치되어 있고 그 앞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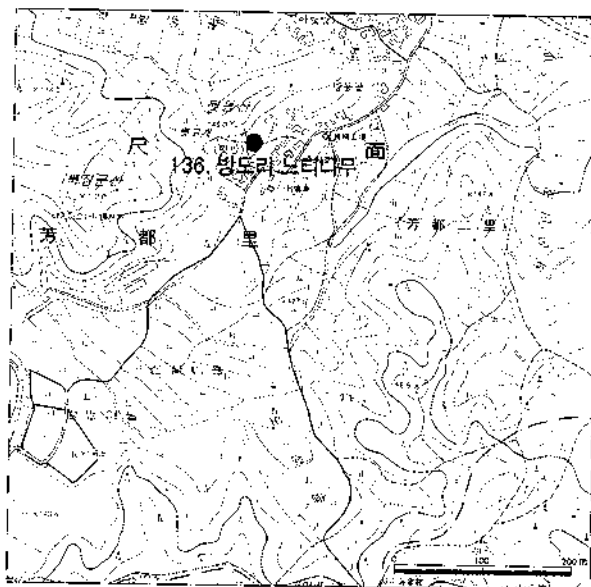


지도 38. 수도사 위치도(이천 083)

석조로 된 단독상의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다. 삼존불 가운데 본존과 관음보살 및 지장보살상은 얼굴의 세부표현이나 신체표현 등에서 유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 수도사가 중건되면서 함께 조성된 현대의 작품으로 보인다. 대웅전 안에 있는 불화 역시 구도나 불, 보살의 표현, 채색 등에서 조형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근래에 제작된 것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참고문헌 : 『畿內寺院誌』, 1988, 경기도
權相老 編, 『韓國寺刹全書』 上 · 下,
1976, 東國大學校出版部



지도 39. 방도리 느티나무 위치도(이천 094)

136. 芳都里 느티나무



사진 104. 방도리 느티나무 전경

□ 소재지 : 도척면 방도2리 임54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본 보호수는 도척면 방도2리 임54번지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나이는 210년이며 품격은 면나무, 나무종류는 느티나무이다. 1983년 3월 10일 도나무로 지정되었다.

보호수의 키는 24m, 둘레는 3.4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지정번호 : 경기광주 1

137~151. 祥林里 陶窯址 1~15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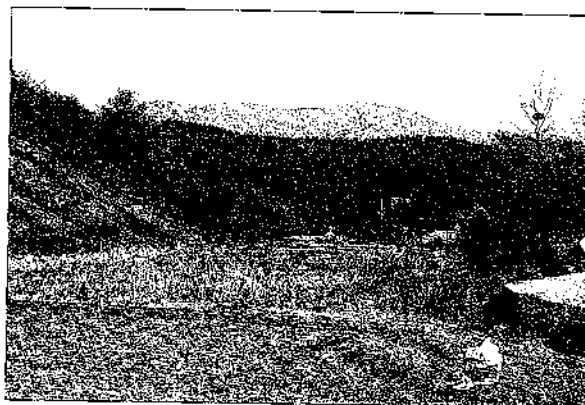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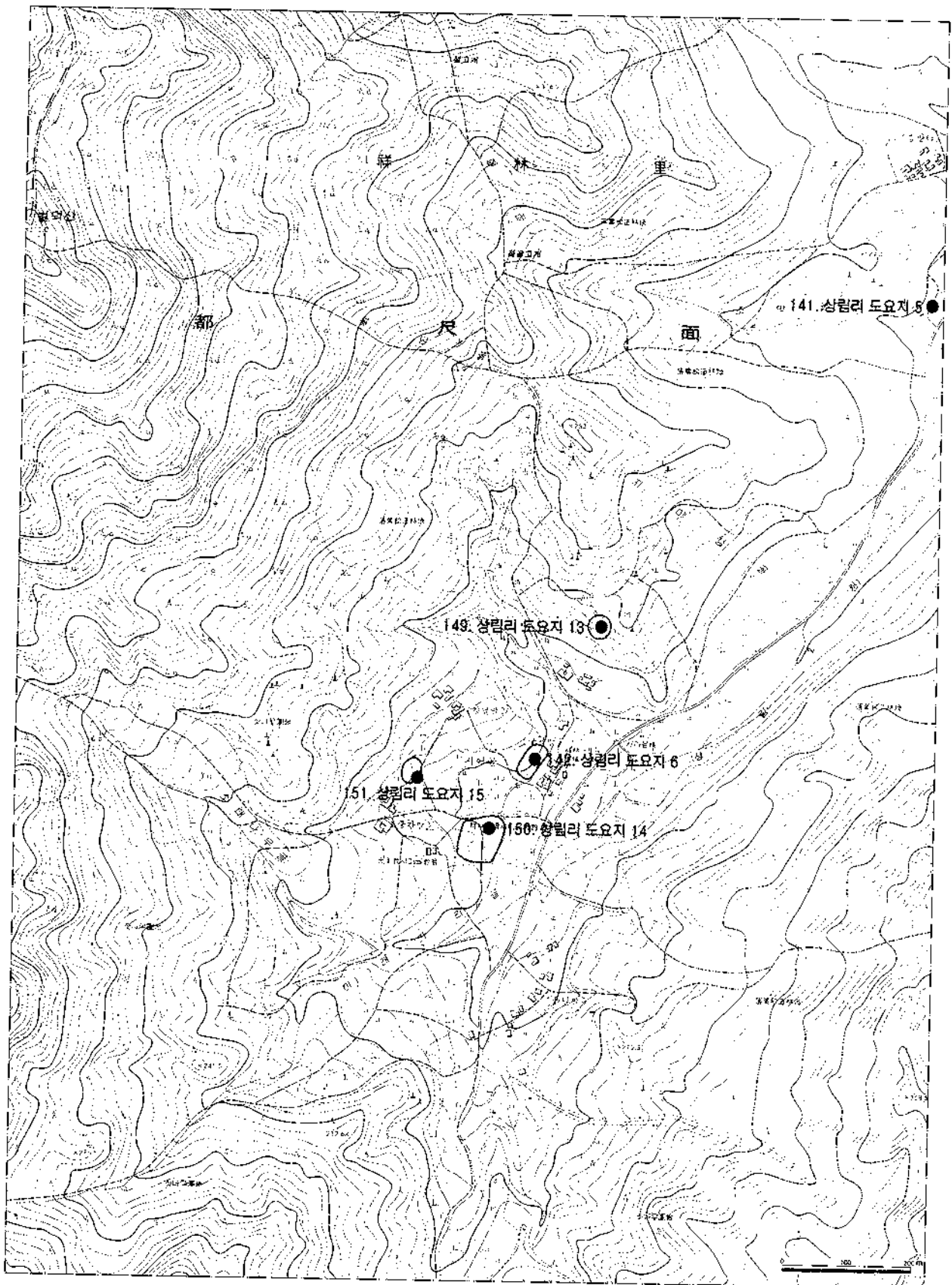


사진 105. 상림리 도요지 7호 전경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굽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7세기	●(철화)백자/대발, 대접, 접시, 전접시, 잔, 뚜껑, 향아리, 향로묘지/유백, 연회백, 회백색/직립형굽, 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右辛未, 左乙亥등음각명문 ●청자/대접, 접시, 제기/암목, 연록색/직립형굽/모래받침 ●요도구/원반형받침, 폐기물활용받침	추정		노곡 191-1	×	1986년의 조사내용임
2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잔, 병, 향아리/연회백, 회백색/직립형굽, 도립삼각형굽, 오목굽/모래받침, 굽은모래받침/음각명문 ●요도구/원반형받침, 폐기물활용받침	사기소 (51-33)	田	노곡 191-1	×	
3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 병, 향아리/연회백, 회백색/직립형굽, 도립삼각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원반형받침, 폐기물활용받침	새마을회관부근 (5-1,4)	田 · 畓	노곡 191-1	○	
4호	18-19세기	●백자/대접, 접시, 병, 제기/연회백, 회청색/직립형굽/굽은모래받침	추정		노곡 191-1	×	1986년의 조사내용임
5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담회백색/직립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원반형받침	조막골 (129)	田	노곡 191-1	×	
6호	17-18세기	●백자/발, 대접, 접시, 잔/연회백, 회백색/직립형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원반형받침	시어골 (185-3)	田	노곡 191-1	×	
7호	17-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회색/오목굽, 직립형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원반형받침	사기소 (3-1)	林	노곡 191-1	×	
8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향아리, 뚜껑/유백, 연회백, 회색/직립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갑발, 원반형받침	추정		노곡 191-1	×	1986년의 조사내용임
9호	17세기	●백자/대발, 대접, 접시, 잔, 향아리/유백, 연회백, 회색/직립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	사기소 (3-29)	林	노곡 191-1	×	
10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연적, 병, 향아리/유백, 연회백, 회색/도립삼각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己左, 己右음각명문 ●청자/접시/암록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사기소 (51-3, 51-47)	田	노곡 191-1	○	
11호	17세기	●(철화)백자/대발, 대접, 접시, 전접시, 잔, 편병, 향아리, 뚜껑/유백, 연회백, 회색/직립형굽, 도립삼각형굽, 오목굽/모래받침/乙亥左음각명문 ●요도구/원반형받침, 폐기물활용받침	사기소 (3-13)	林	노곡 191-1	×	
12호	16-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뚜껑, 향아리, 병/유백, 연회백, 회색/도립삼각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	사기소 (51-4)	田	노곡 191-1	○	
13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잔, 향아리, 뚜껑/연회백, 회백색/오목굽, 직립형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갑발, 원반형받침	시어골 (17-13)	田	노곡 191-1	×	
14호	16-17세기	●(상감)백자/대발, 대접, 접시, 잔/연회백, 회백색/죽절굽, 직립형굽, 오목굽/테토비자, 굽은모래받침 ●요도구/원반형받침, 폐기물활용받침	시어골 (204-3)	田	노곡 191-1	×	
15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향아리/연회백, 회백색/오목굽/굽은모래받침	시어골 (17-19)	田	노곡 191-1	×	



지도 40. 상림리 도요지 위치도(이천 072)

152. 祥林里 舊石器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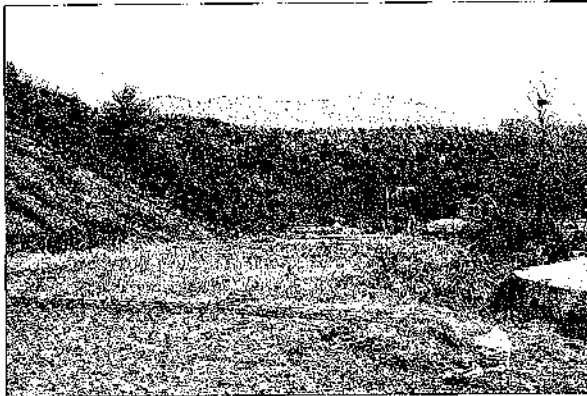


사진 106. 상림리 구석기유적 전경

- 소재지 : 도척면 상림리(지도41 참조)
- 시 대 : 구석기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이 유적은 1997년 단국대학교에서 지표조사를 하였던 유적으로 상림리 마을에서 상림교를 지나 도웅리 방향으로 가는 길옆, 왼쪽 밭에 위치해 있다. 당시 보고에 는 이 일대의 속칭 '안자리돌' 밭과 전원주택을 만들려 고 깎아 놓은 단면에서 갱신세층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석기 1점을 수습하였다고 했다. 지금은 전원주택이 들어서서 층위와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지도번호 : 노국 191-1

153. 祥林里 遺物散布址 1

- 소재지 : 도척면 상림리 104-32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도척면소재지에서 상림리로 나 있는 도로를 따라 올



사진 107. 상림리 유물산포지 1 전경



사진 108. 상림리 유물산포지 1 채집유물

라가면 상림리 상림마을이 나온다. 유적은 상림마을 조금 못 미쳐 뽕재이들 앞, 도로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은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고 자기편이 산란 되어 있으나 이미 형질 변경이 많이 이루어져 일부만 확인되고 있다. 북쪽으로 곧지압천이 약 100m 떨어져 있고 주변은 논과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채집 유물

① 토기구연부편(사진 108, 도면 17-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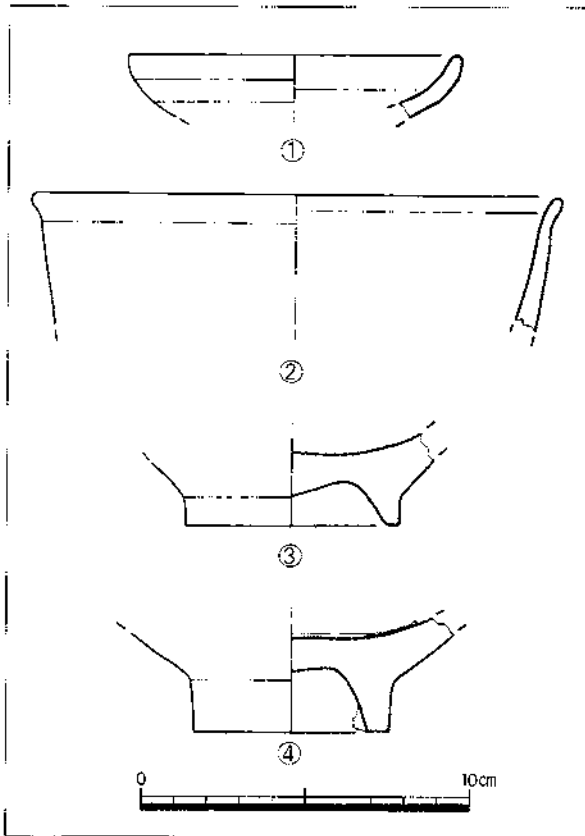
연갈색의 토기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다.

현높이 4.0cm, 복원구경 14.4cm이다.

② 백지구연부편(사진 108, 도면 17-①)

구연부 일부만 남아 있는 백자편이다. 연갈색유로 시 유되어 있고 시유 상태는 양호하다. 추정구연지름 : 16.4cm이다.

③ 백자저부편(사진 108, 도면 17-③)



도면 17. 상림리 유물산포지 1 채집 유물

저부만 남아 있는 백자편이다. 시유상태는 불량하고 내외면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현높이 2.9cm, 저부지름 6.4cm이다.

④ 백자저부편(사진 108, 도면 17-②)

굽과 저부 일부만 남아 있는 백자편이다. 회청색유로 시유되어 있고 상태는 양호한편이다. 내면에 희미하게 원각선이 돌려져 있고 굽과 바닥에 모래받침흔이 남아 있다. 현높이 3.6cm, 저부지름 6.0c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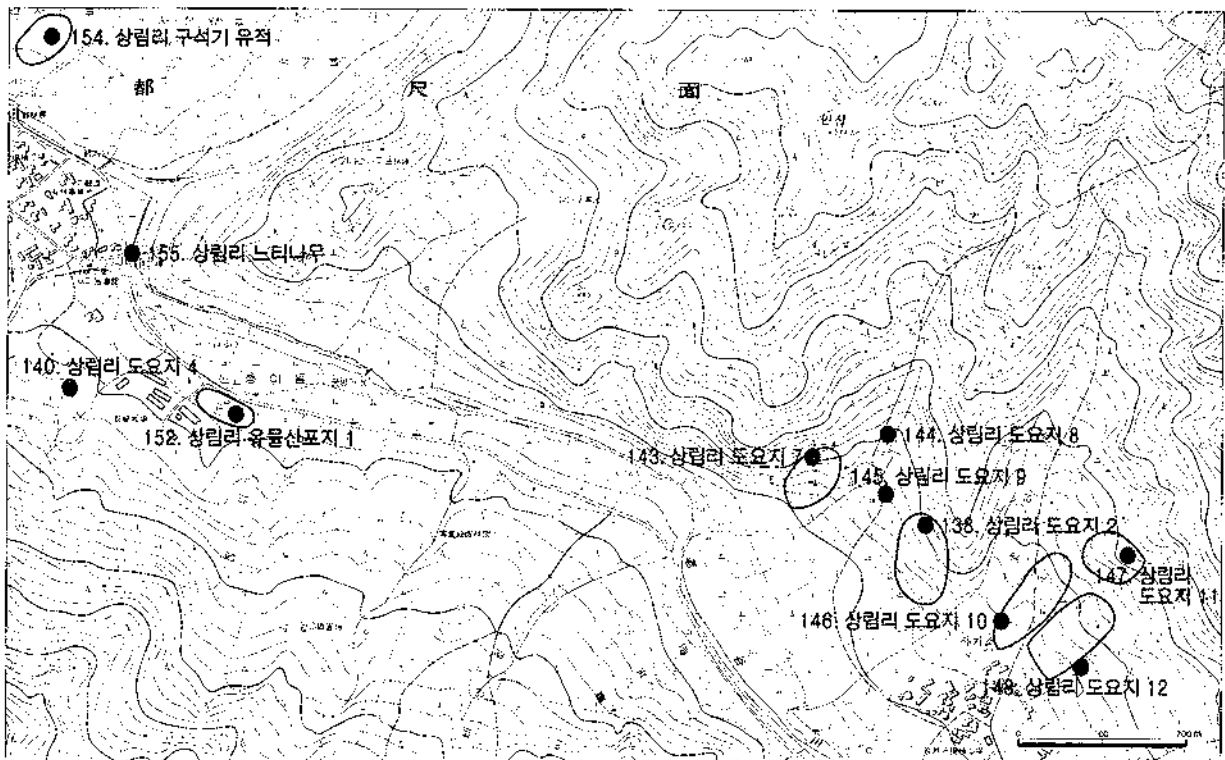
154. 祥林里 遺物散布址 2

□ 소재지 : 도척면 상림리 23답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지도 41. 상림리 유물산포지1 위치도(이천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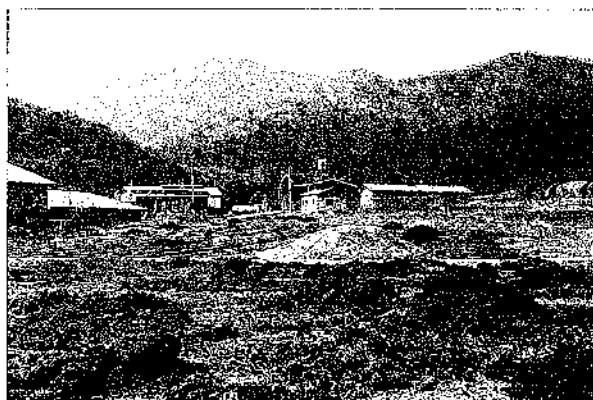


사진 109. 상림리 유물산포지 2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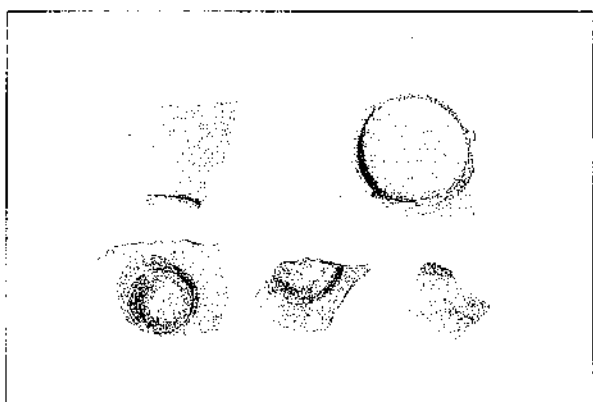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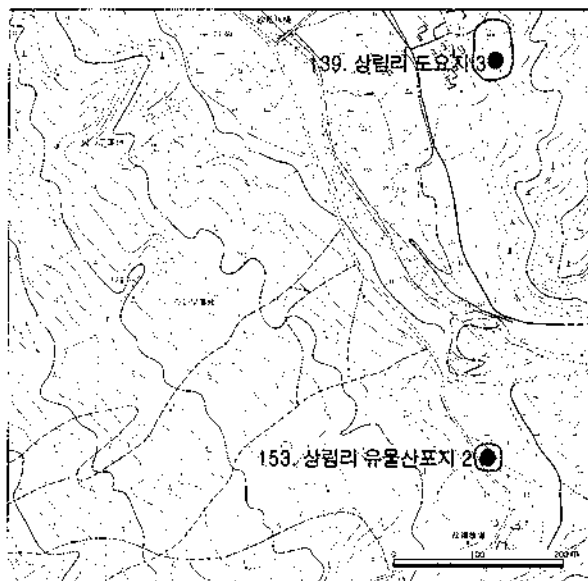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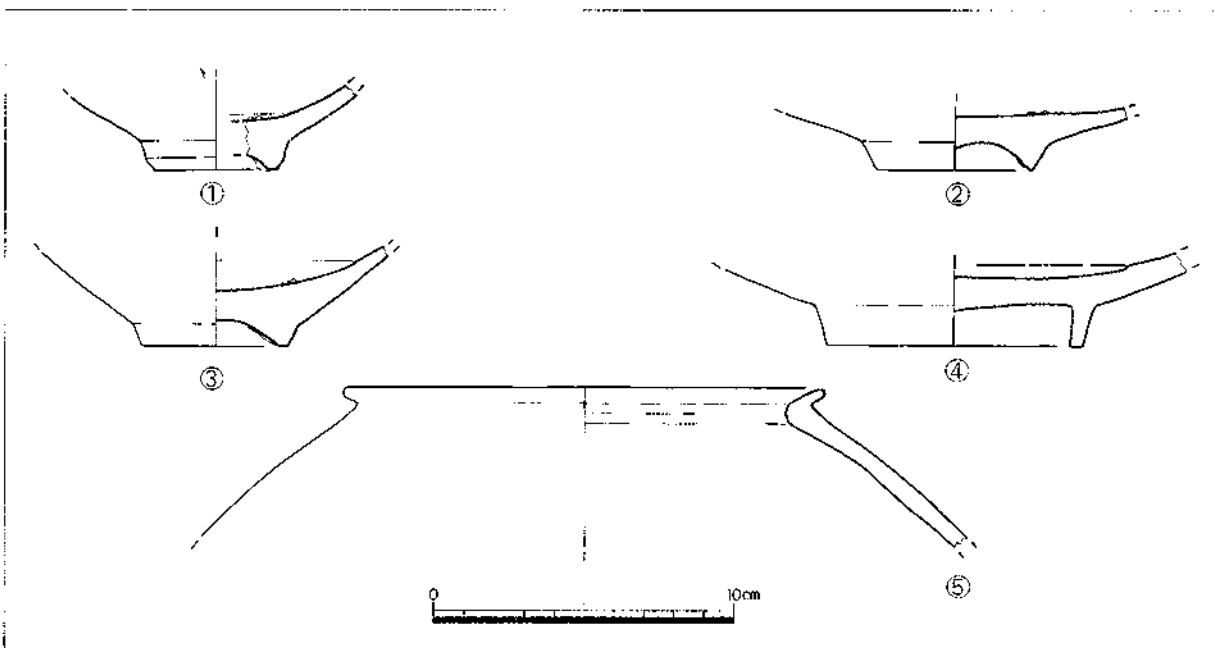
사진 110. 상림리 유물산포지 2 채집 유물



지도 42. 상림리 유물산포지2 위치도(이천 073)

1) 위치와 현상

상림리 유물산포지Ⅱ는 상림리 유물산포지Ⅰ에서 서남쪽으로 직선거리 약 1.6km 떨어져 있으며 송학목장 옆에 위치해 있다.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역시 형질 변경이 많이 이루어져 자기편 일부만 확인되고 있다.



도면 18. 상림리 유물산포지 2 채집유물

2) 채집 유물

① 백자대접편(사진 110-①, 도면 18-①)

저부 일부만 남아 있는 백자대접편이다. 회백색유로 시유되어 있고 시유상태는 양호하며 전면에 빙열이 나 있다. 내저면에 원각선이 있고, 바닥과 굽바닥에 모래받침흔이 확인된다. 현높이 2.7cm, 추정저부지름 4.0cm이다.

② 백자접시편(사진 110-②, 도면 18-②)

저부만 남아 있는 백자접시편이다. 연갈색유로 시유되어 있고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전면에 빙열이 나 있고 내저면과 굽바닥에 모래받침흔이 확인되고 있다. 현높이 2.1cm, 추정부지름 5.0cm이다.

③ 백자대접편(사진 110-③, 도면 18-③)

저부만 남아 있는 백자대접편이다. 초벌구이만 한 것으로 색조는 연한갈색을 띄고 있다. 내저에 원각선이 있고 굽바닥에 모래받침흔이 확인된다. 현높이 3.4cm, 저부지름 4.8cm이다.

④ 백자대접편(사진 110-④, 도면 18-④)

저부만 남아 있는 백자편이다. 회백색으로 시유되어 있고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굽바닥에 이형의 문양이 선각되어 있고 모래받침흔이 관찰된다. 현높이 3.2cm, 저부지름 8.4cm이다.

⑤ 백자호편(사진 110-⑤, 도면 18-⑤)

구연부 일부만 남아 있는 백자원호이다. 구연부는 낮게 밖으로 외반하였고 내면에 물레성형흔이 보인다. 회백색으로 시유되어 있고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현높이 5.3cm, 복원구연지름 15.7c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155. 祥林里 느티나무

- 소재지 : 도척면 상림리 하천 276-4(지도4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사진 111. 상림리 느티나무 전경

□ 내 용

본 보호수는 도척면 상림리 하천 276-4번지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나이는 110년이며 품격은 먼나무, 나무종류는 느티나무이다. 1983년 3월 10일 도나무로 지정되었다. 보호수의 키는 14m, 둘레는 2.0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지정번호 : 경기 광주 72

156. 柳井里 石佛坐像



사진 112. 유정리 석불좌상

□ 소재지 : 도척면 유정리 222-7(지도35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불상

□ 내 용

충부고속도로에서 광주 곤지암쪽으로 가다가 국도 329번을 따라 곧장 가다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돌아 얼마 못가서 유정리 마을에 이르게 된다. 이 석조불상은 현재 柳井里 彌勒洞 마을회관 근처에 목조건물로 된 保護閣에 안치된 것으로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미륵불로 신앙되어 왔으나 원래 출토된 위치나 이곳에 옮겨져 안치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더욱이 근래에 다시 보수하면서 전체적으로 胡粉을 두텁게 칠해서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1979년 9월 3일 유형문화재 제 88호로 지정되었다.

이 불상은 높이 약 2.1m가 되는 크기의 석불좌상으로 앞에는 석조로 된 사각형의 拜禮石(126×57×15cm)이 놓여 있어 불상의 다리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얼굴과 상반신은 결구부좌한 두 다리에 비해 유난히 큰 편으로 전체적인 신체비례가 맞지 않아 어색한 느낌을 준다. 얼굴은 이마가 넓고 각이 져 네모난 형태로 눈, 코, 입이 작고 단정하게 표현되었으며 螺髮로 표현된 머리 위에는 높고 큼직한 肉가 솟아 있고 그 위와 아래부분에 珠가 2단으로 장식되었다.

계주는 범어로 Cudamani 또는 Cudarātna라 하며 원래는 고대 印度人의 머리 장식에 사용했던 구슬에서 유래된 것이다. 『法華經』 권제5 『安樂行品』 제14에서는 여래의 乘妙旨를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로 변했으며 선종에서는 宗旨傳受의 방법으로 師僧이 제자에게 心印을 허가하는 과정을 계주라 부를 정도로 중히 여겼다. 따라서 계주는 일반적으로 선종에서 말하는 傳佛心印을 상징하는 의미가 계주의 원 뜻과 결합되어 불상의 새로운 머리형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머리형식인 계주장식은 9세기경 이전의 불상머리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唐 開元(713-741) 이래

중국대륙에 개화한 盛唐문화의 소산인 신사조에 의한 새로운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 중엽경의 불상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고려와 조선시대에 크게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문헌상으로도 통일신라하대의 鳳巖寺 智證大師碑文이나 毘盧寺 眞空大師碑文에 ‘頂珠’, ‘戒珠’, ‘珠’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목에는 三道가 표현되었으며 두 귀는 크고 어깨 위에까지 길게 내려와 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은 왼손바닥 위에 오른손등을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대고 있는 禪定印으로 작고 빈약하게 처리되었을 뿐 아니라 두 팔이 곧바로 내려오다가 각이 지게 꺾이면서 표현되어 있어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범의는 양쪽 어깨를 덮은 通肩式으로 가슴 위쪽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U자형의 옷주름이 형식적으로 몇 개 늘어져 있고 신체표현 역시 굴곡의 변화없이 밋밋하게 처리되었다. 특히 얼굴부분과 佛身은 표현기법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더욱 생경한 모습일 뿐 아니라 이와 연결시킬만한 관련된 불상도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 유정리 석불좌상은 넓적하고 생동감없는 얼굴이나 피체감이 느껴지는 신체표현, 유난히 어색한 신체비례와 단순화되고 형식적인 옷주름, 투박한 조각기법 등에서 조선시대 석조불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이 불상은 그 조형성이나 조각기법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예배대상으로서의 신성한 느낌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민간신앙에 의한 토속적인 불상으로 평가되어 왔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지정사항 : 유형문화재 제 88호(1979년 9월 3일 지정)

▶ 참고문헌 : 『畿內寺院誌』, 1988, 경기도 『廣州郡誌』, 1990, 광주군

『京畿文化財大觀』- 京畿道指定篇 -,
1990, 경기도

157. 이덕순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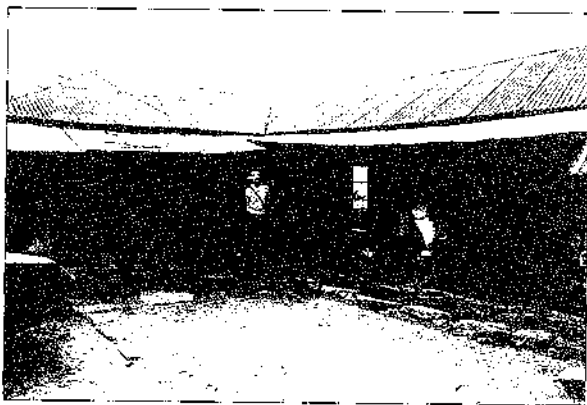


사진 113. 이덕순 가옥 전경

- 소재지 : 도척면 유정2리(지도35 참조)
- 시 대 : 근대
- 종 류 : 고가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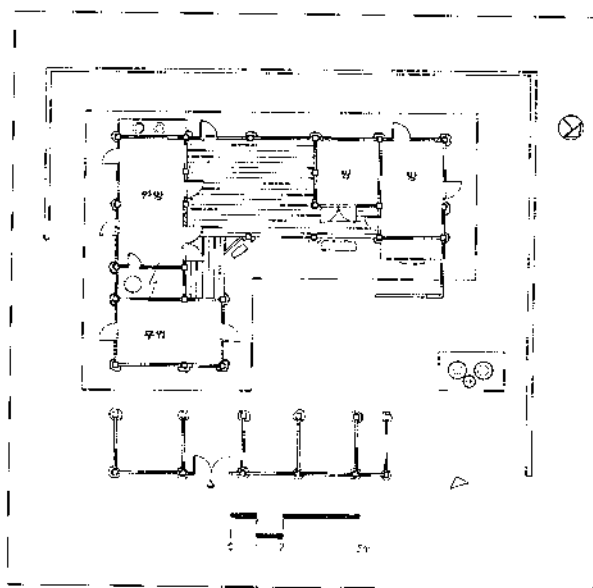
안채상량문(昭和八年……)의 기록으로 보아 1933년에 건립된 가옥임을 알 수 있다.

이 집에서 4대째 거주하고 있고, 사랑채는 후대에 축조하였다고 한다.

난방을 아직도 화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건넌방 앞의 가벽을 빼고는 개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안채의 구성은 부엌 + 안방 + 대청 + 방 + 방의 7자형이고, 구조는 5량의 홑처마 우진각 지붕이다. 지붕은 현재 슬레이트 지붕이나, 처음에는 기와지붕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안마당에는 예전의 옛기와가 간간이 묻혀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안방 맞은편의 건넌방 2개는 원래는 1개의 방이었으나, 일제시대에 간막이를 하여 2개의 방으로 만들었다



도면 19. 이덕순 가옥 평면도

고 한다. 대청사이에 2개의 기둥이 더하여 구조를 보강하고 있다.

초석과 기단은 자연석으로 되어 있고, 마당은 흙마당이다.

출입은 대문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바깥채와 담 사이의 틈새로 출입하고 있다.

▶ 지도번호 : 노곡191-1

158~159. 柳井里 陶窯址 1·2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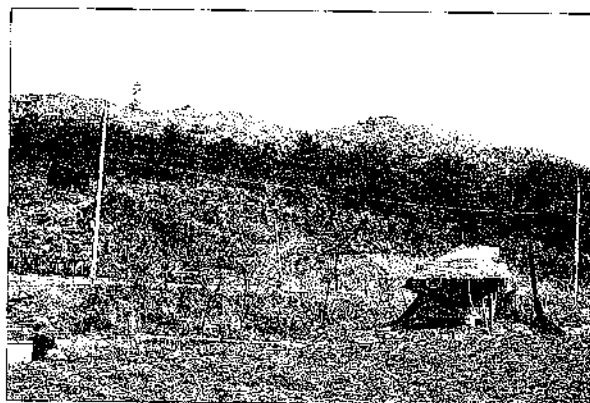


사진 114. 유정리 도요지 1호 전경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굵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7-18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잔, 항아리/유백, 연회백, 회청색/직립형굽, 오목굽/굵은모래받침	바우산골 (573-1)	田	노곡 191-1	×	
2호	17-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유백, 연회백, 회청색/직립형굽, 오목굽/굵은모래받침	바우산골 (16)	林	노곡 191-1	×	

160. 柳井里 建物址



사진 115. 유정리 건물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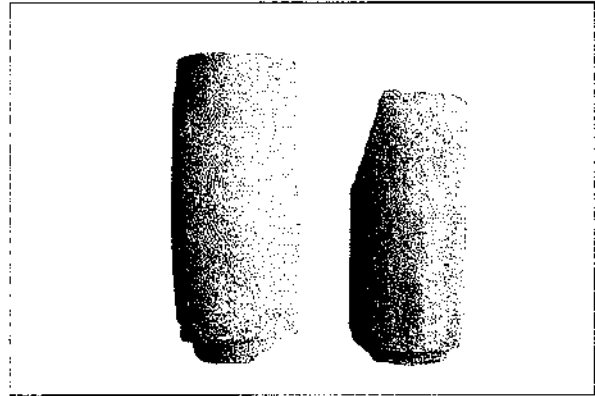


사진 117. 유정리 건물지 채집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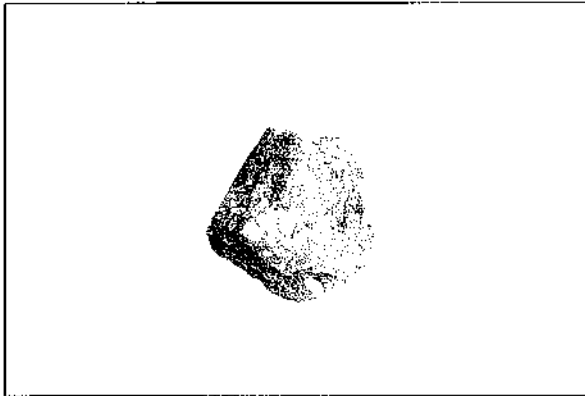


사진 116. 유정리 건물지 채집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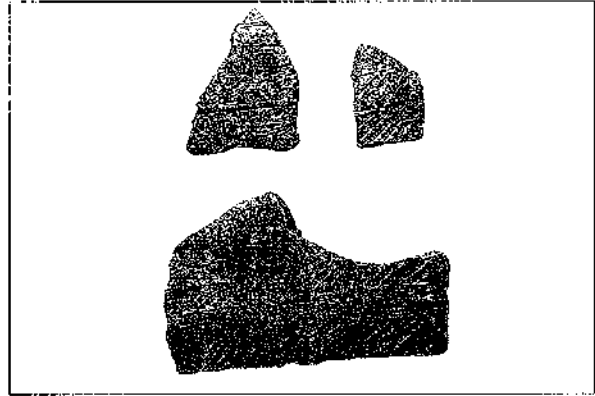


사진 118. 유정리 건물지 채집 유물

□ 소재지 : 도척면 유정리 (지도38 참조)

□ 시 대 : 고려 ~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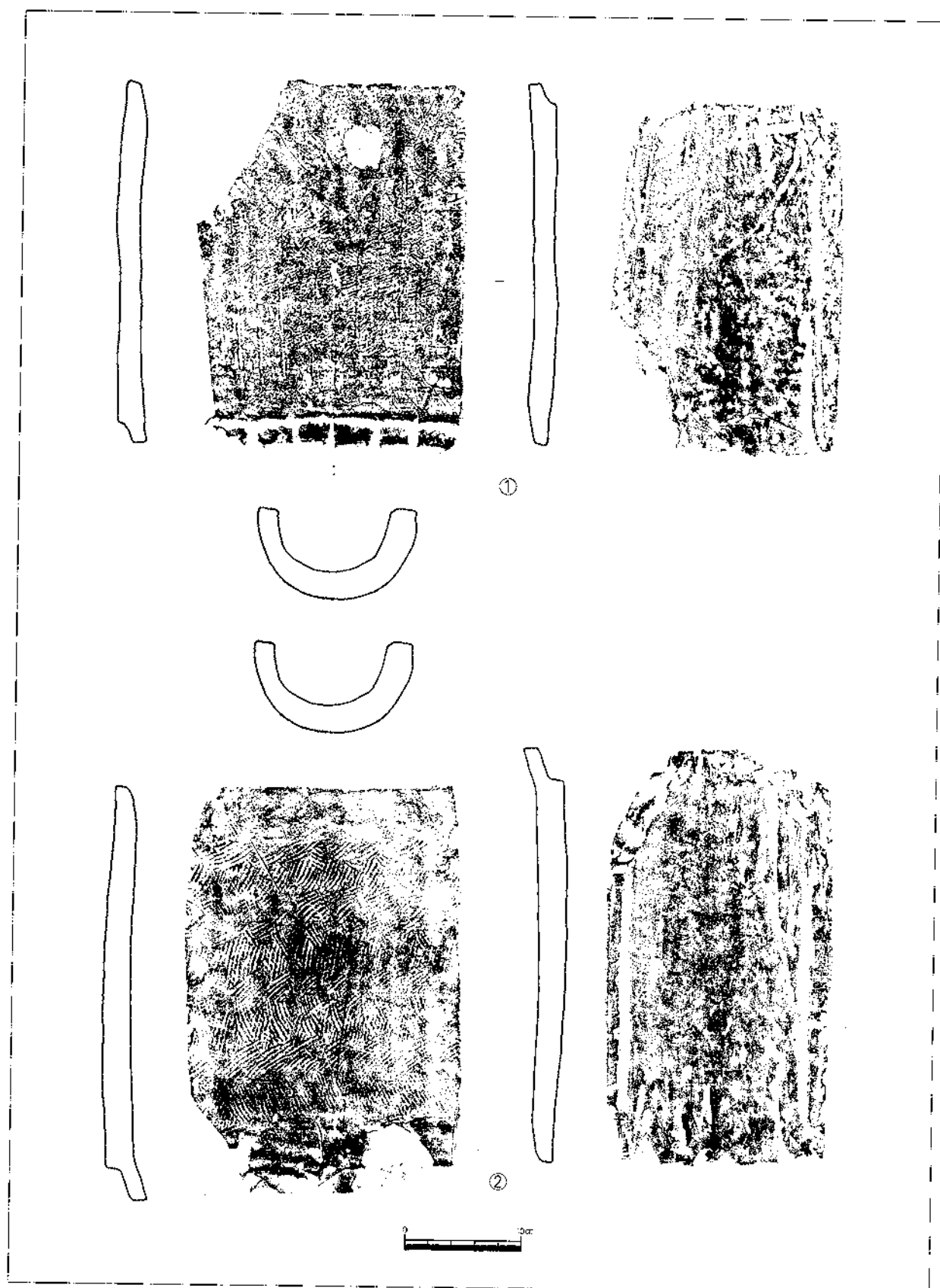
□ 종 류 : 유물산포지, 건물지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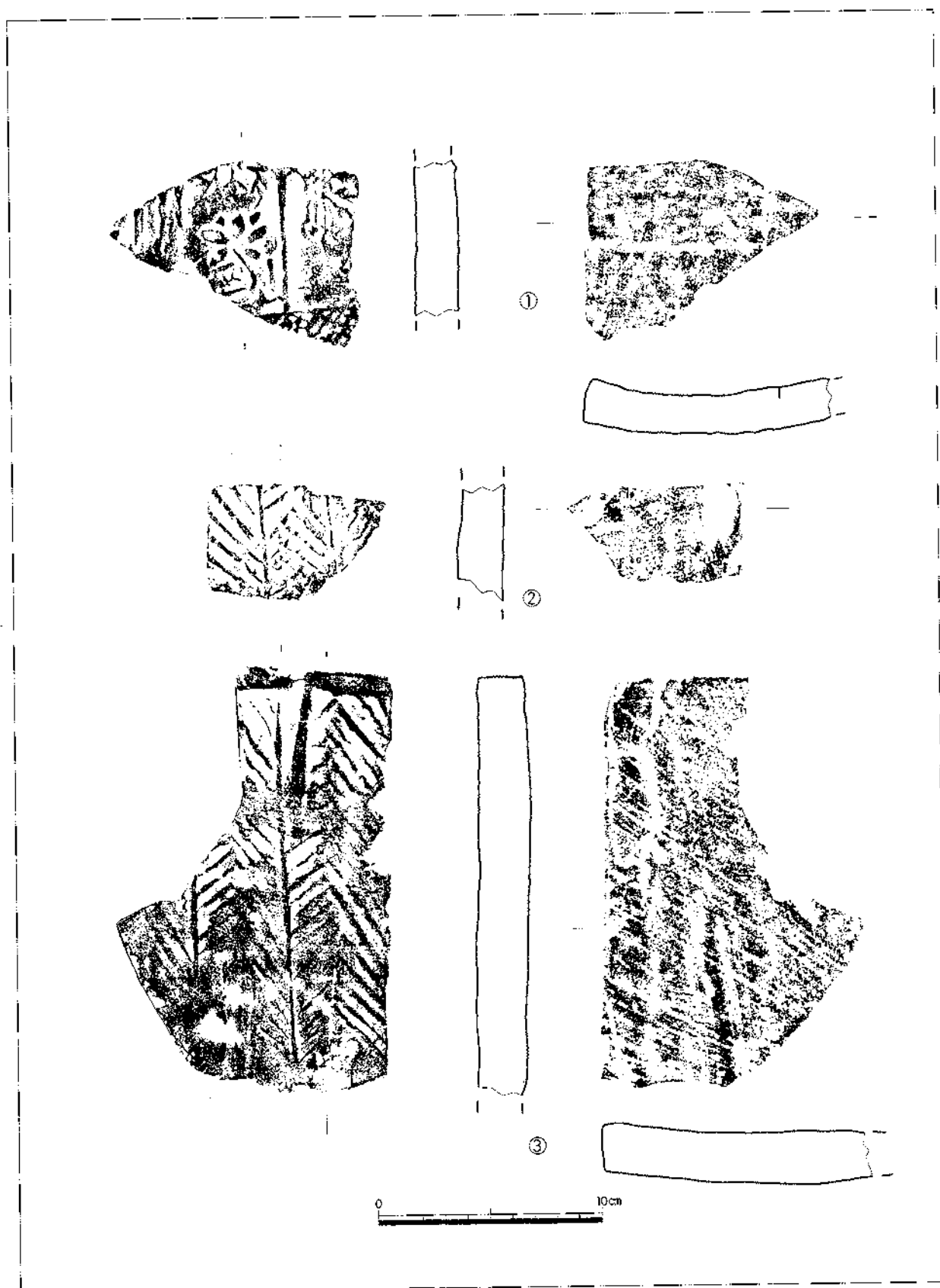
1) 위치와 현상

도척면사무소에서 방도리 방향으로 가면 서쪽으로 까치말이란 마을이 나온다. 유적은 이 곳 191.0m의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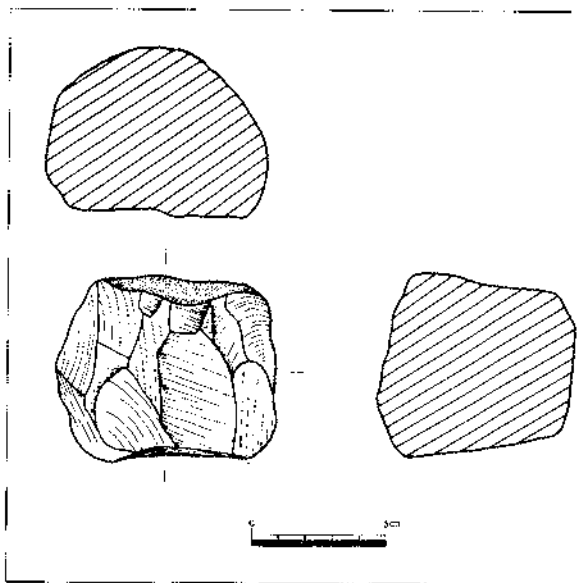
은 구릉과 평지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금은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변은 해발 100~200m 내외의 낮은 구릉이 조성되어 있다. 너른 평지에는 礎石과 적심으로 보이는 돌들이 산란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주변에서 朝鮮時代 와편들과 구석기시대 몸돌 1점이 수습되었다.



도면 20. 유정리 건물지 채집기와



도면 21. 유정리 건물지 채집 기와



도면 22. 유정리 건물지 채집 물돌

2) 채집 유물

① 수키와(사진 116, 도면 20-①)

언강과 미구가 있는 유단식 기와로 비구부분 일부만 결실되어 있는 원형이다. 색조는 회청색을 띠고 있는 경질와로 소성은 양호하다. 표면에는 집선문이 타날되어 있고 이면에 포목흔이 확인된다. 측면에는 와도흔이 잘 남아 있다. 길이 : 34.7cm 폭 : 14.9cm, 두께 : 2.3cm이다.

② 수키와(사진 116, 도면 20-②)

언강과 미구가 형성되어 있는 유단식 기와로 끝부분 일부가 결실되어 있다. 색조는 회청색을 띠고 있는 경질와로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표면에는 희미하게 선문이 타날되어 있다. 측면에는 와도흔이 잘 남아 있다.

길이 : 39.1cm, 폭 : 16.7cm, 두께 : 2.6cm이다.

③ 암키와(사진 117, 도면 21-①)

회청색 경질와로 상단 일부만 남아 있다. 표면에 어골문이 타날되어 있고 이면에 포목흔이 관찰된다. 측면에 와도흔이 확인되며, 태토에는 석립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 20.2cm, 폭 : 12.7cm, 두께 2.7cm이다.

④ 암키와(사진 117, 도면 21-②)

회청색 경질와로 측면 일부만 남아 있다. 표면에 화

조문과 기타 여러문양이 타날되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과 함께 합철흔이 관찰된다. 측면에 와도흔이 1/2가량 남아 있다. 현길이 : 8.0cm, 폭 : 10.5cm, 두께 1.7cm이다.

⑤ 암키와(사진 117, 도면 21-③)

회청색 경질와로 측면 일부만 남아 있다. 표면에 어골문이 타날되어 있고 이면에 포목흔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측면에는 와도흔이 1/2가량 남아 있다. 태토에는 석립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 5.1cm, 폭 : 7.9cm, 두께 1.9cm이다.

⑥ 몸돌(core)(사진 118, 도면 22)

암질은 석영암이다. 석기의 6면 가운데 2면이 자연면과 떼어진 면을 때림면으로 하여 1차적으로 마주때기가 이루어 졌다. 더 이상 떼어질 수 없도록 석기의 각이 둔각을 보이자 90°돌려서 좌측면과 우측면에 한방향 때기가 이루어 졌다. 이후 더 이상 격지를 얻을 수 있는 날의 각이 나오지 않자,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크기는 7.3×7.8×6.7cm로 무게 590g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161. 柳井里 遺物散布址

□ 소재지 : 도척면 유정 2리 285답(지도35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도척면사무소에서 유정리 방향으로 나 있는 지방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미륵동 마을 앞으로 노곡천을 끼고 나 있는 제방길이 나온다. 유물산포지는 속칭 객지들 주변과 노곡천을 따라서 확인되고 있다. 유적의 북서방향으로 해발 612m의 태화산이 솟아 있고 남서방향으로 저지대가 펼쳐져 있으며, 오른쪽으로 노곡천이 남북



사진 119. 유정리 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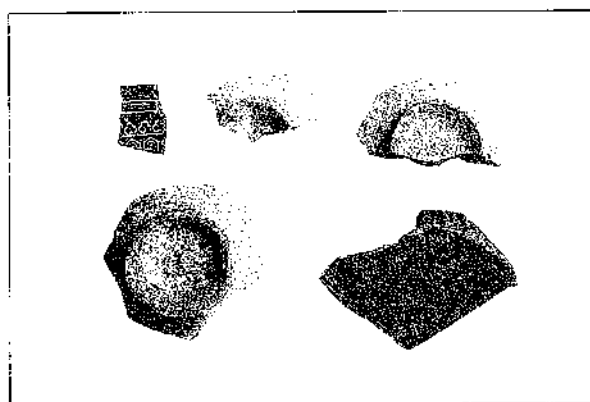


사진 120. 유정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으로 굽이쳐 흐르고 있다.

2) 채집 유물

① 토기저부편(사진 120, 도면 23-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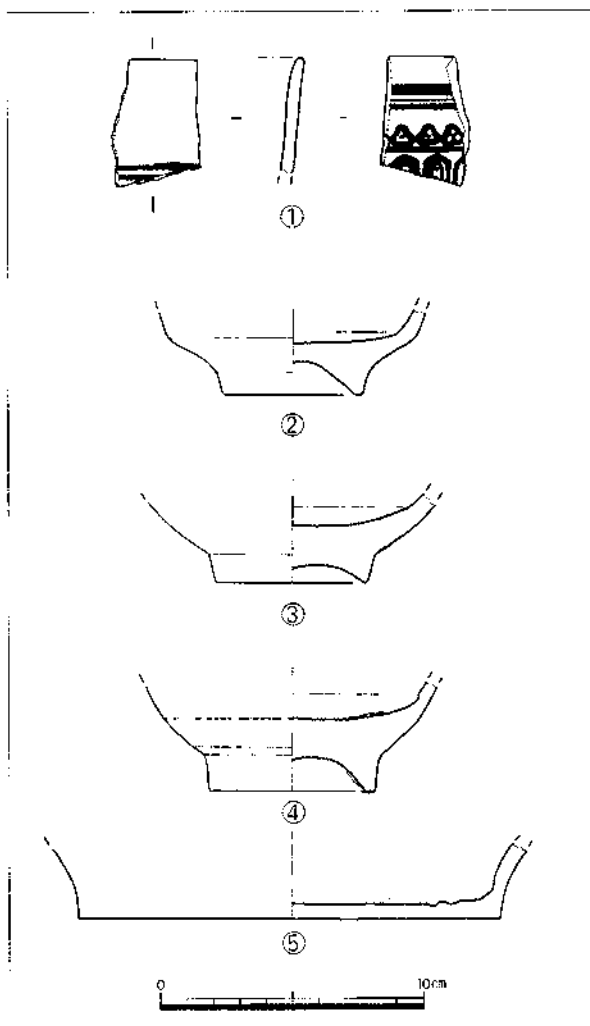
저부 일부만 남아 있다. 내면에 물레흔이 일부 확인되며 거칠게 조성되었다. 현높이 2.8cm, 저부지름 16.0cm이다.

② 분청사기편(사진 120, 도면 23-①)

분청사기편으로 구연일부만 남아 있다. 회갈색유로 시유되어 있고 내면에 연판무늬와 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백토상감으로 몇줄의 선문을 돌린 것이 확인된다. 현높이 4.8cm이다.

③ 백자대접편(사진 120, 도면 23-②)

굽과 저부 일부만 남은 백자대접편이다. 회백색유로 시유되어 있고 상태는 양호하다. 굽과 바닥에 모래받침



도면 23. 유정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자국이 남아 있다. 전면에 빙열이 돌려져 있다. 현높이 3.3cm, 저부지름 5.2cm이다.

④ 백자대접편(사진 120, 도면 23-③)

굽과 저부 일부만 남은 백자대접편이다. 시유상태는 양호하지 못하며 내면에 희미하게 원각선이 돌려져 있다. 굽과 바닥에 모래받침 자국이 남아 있다. 현높이 3.4cm, 저부지름 5.6cm이다.

⑤ 백자대접편(사진 120, 도면 23-④)

굽과 저부 일부만 남아 있는 백자대접편이다. 회청색유로 시유되어 있고 상태는 양호하다. 내외면에 원각선이 돌려져 있다. 현높이 3.1cm, 저부지름 5.4c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162. 柳井里 느티나무 1



사진 121. 유정리 느티나무 1 전경

- 소재지 : 도척면 유정리 417(지도38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본 보호수는 도척면 유정리 417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나이는 460년이며 품격은 군나무, 나무종류는 느티나무이다. 1983년 3월 10일 도나무로 지정되었다.

보호수의 키는 13m, 둘레는 2.8m이다.

- ▶ 지도번호 : 노곡 191-1
- ▶ 지정번호 : 경기광주 68

163. 柳井里 느티나무 2



사진 122. 유정리 느티나무 2 전경

- 소재지 : 도척면 유정리 잡종지 182(지도38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본 보호수는 도척면 유정리 잡종지 182번지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나이는 210년이며 품격은 면나무, 나무종류는 느티나무이다. 1983년 3월 10일 도나무로 지정되었다. 보호수의 키는 21m, 둘레는 3.8m이다.

- ▶ 지도번호 : 노곡 191-1
- ▶ 지정번호 : 경기광주 70

164. 柳井里 느티나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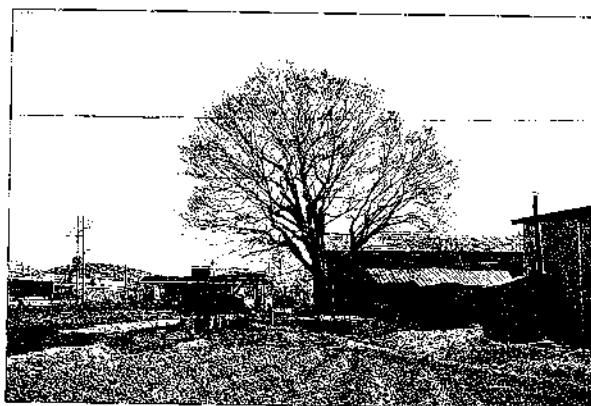


사진 123. 유정리 느티나무 3 전경

- 소재지 : 도척면 유정리 대546(지도35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본 보호수는 도척면 유정리 대 546번지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나이는 160년이며 품격은 마을나무, 나무종류는 느티나무이다. 1983년 3월 10일 도나무로 지정되었다. 보호수의 키는 27m, 둘레는 3.2m이다.

- ▶ 지도번호 : 노곡 191-1
- ▶ 지정번호 : 경기광주 75

165. 柳井里 느티나무 4



사진 124. 유정리 느티나무 4 전경

□ 소재지 : 도척면 유정리 대 546(지도35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본 보호수는 도척면 유정리 대 546번지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나이는 160년이며 품격은 편나무, 나무종류는 느티나무이다. 1983년 3월 10일 도나무로 지정되었다. 보호수의 키는 16m, 둘레는 2.75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지정번호 : 경기광주 76

166. 柳井里 피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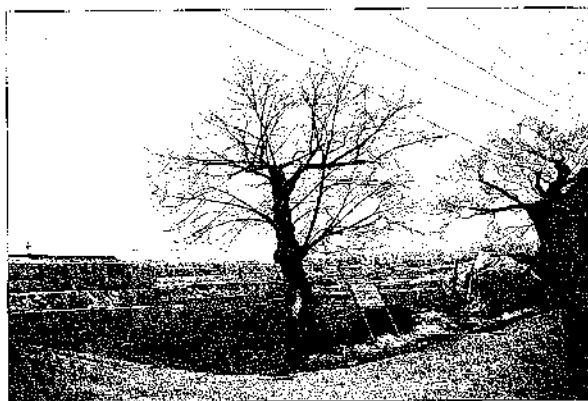


사진 125. 유정리 피나무 전경

□ 소재지 : 도척면 유정리 417-1(지도38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본 보호수는 도척면 유정리 417-1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나이는 140년이며 품격은 마을나무, 나무종류는 피나무이다. 1983년 3월 10일 도나무로 지정되었다.

보호수의 키는 12m, 둘레는 3.0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지정번호 : 경기광주 73

167. 申景禔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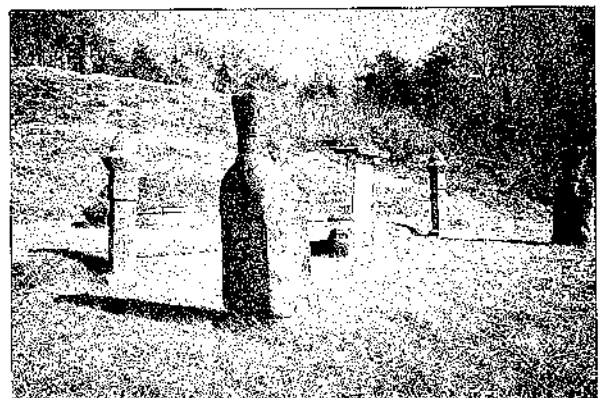


사진 126. 신경인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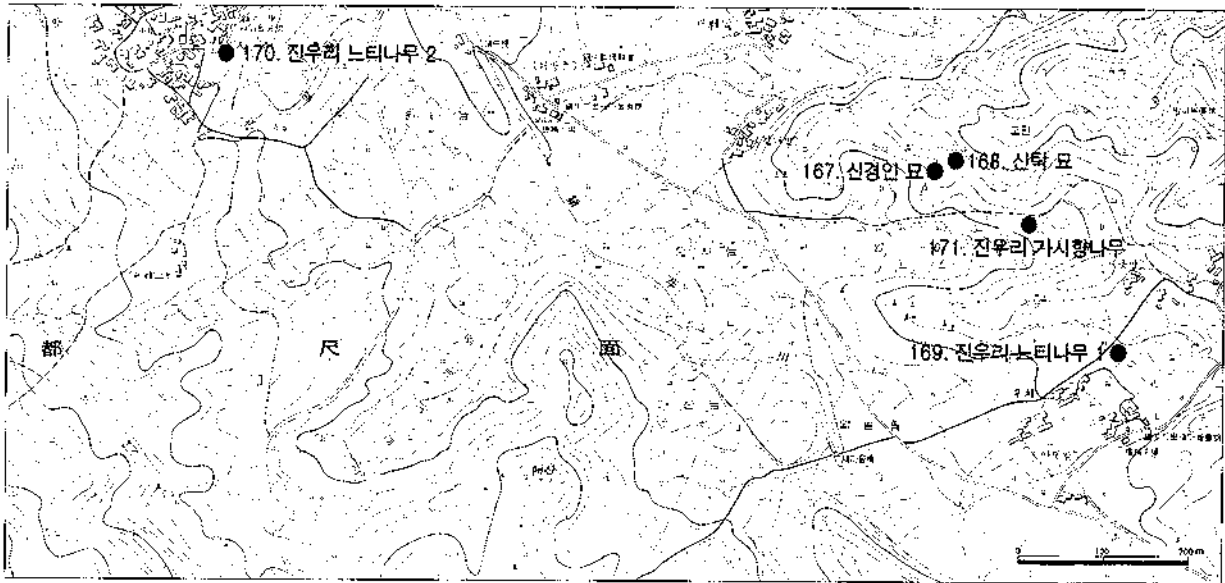
□ 소재지 : 도척면 진우2리 산34-1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申景禔(1590-1643)은 仁祖代의 무신으로 본관은 平山이고 자는 子精이다. 명장 申禔의 세째아들이자 영의정을 지낸 景禔(1575-1643)의 동생이다. 1615년(광해군7) 무과에 급제하여 宣傳官을 제수받고 五衛都摠府都事를 지냈다. 1623년 형 景禔, 景裕(1581-1633)와 함께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靖社功臣



지도 43. 신경안 묘 위치도(이천 074)

에 책훈되고 束城君에 봉해졌다. 이후 포도대장과 호위대장을 거쳐 지돈령부사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忠度이다. 형들과는 달리 신중하고 청렴하였으며 兵法에 능하였다.

묘소는 건너말 태웅냉장 건물의 우측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앞으로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높이 172cm)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봉분 우측에 방부개석 양식의 묘표(총높이 약 216cm)를 건립하였다. 팔각지붕 형태의 옥개석 용마루 양끝에는 龍頭를, 방부에는 覆蓮과 唐草紋을 조각하였다. 또한 비신(높이 120cm, 폭 58cm, 두께 23cm)은 백대리석을 다듬어 사용하였으며 음기를 四面刻字하였다. 비신의 앞면에는 피장자의 신분을 큰 해서로 썼으며 음기는 '上9年癸亥(1683, 숙종9)10月 日에 副提學 朴世堂(1629-1703)이 撰하였다. 表題를 '有明朝鮮國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一行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資憲大夫知敦寧府事束城君申公墓表'라 하여 묘표임을 밝히고 있으며 曾孫인 生員 瓊(1652-1698)이 書하였다. 입석 연대는 '崇禎紀元後57年甲子(1684, 숙종10)4月 日立'이다. 우측에 새겨진 追記는 撰書者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참고문헌 : 『平山申氏大同譜』, 1976

168. 申琢 墓



사진 127. 신탁 묘 전경

- 소재지 : 도척면 진우2리 산34-1(지도43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申塚(1650-1693)의 본관은 平山이며 자는 彦修이다. 東城君 景禪의 증손이자 成川府使를 지낸 汝哲(?-1695)의 아들이다. 學行으로 천거 받고 관직에 나아가 여러 벼슬을 거쳐 司僕寺主簿에 이르렀다. 사후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東陵君에 봉해졌다.

묘소는 신경인 묘소의 뒤쪽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높이 165cm)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다. 봉분 우측에 세워진 묘표(총 높이 137cm)는 방부개석 양식으로 조성되었으나 옥개석을 망설하였다. 하늘색의 애석을 사용한 비신(높이 113cm 폭 59cm, 두께 19cm) 앞면에는 '司僕寺主簿申公塚之墓 淑人林川趙氏 附左'라 썼고 陰記는 副提學 朴世堂(1629-1703)이 撰하고 延安都護府使 舍弟 瓊(1652-1698)이 揮涕書石하였다. 입석 연대는 '崇禎紀元後甲戌(1694, 숙종20)8월 日立'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참고문헌 : 『平山申氏大同譜』, 1976

169. 鎭牛里 느티나무 1



사진 128. 진우리 느티나무 1 전경

□ 소재지 : 도척면 진우리 전706-2(지도43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본 보호수는 도척면 진우리 전706-2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나이는 510년이며 품격은 도나무, 나무종류는 느티나무이다. 1983년 3월 10일 도나무로 지정되었으며 1992년 10월 외과수술을 받았다. 보호수의 키는 13m, 둘레는 4.7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지정번호 : 경기광주 65

170. 鎭牛里 느티나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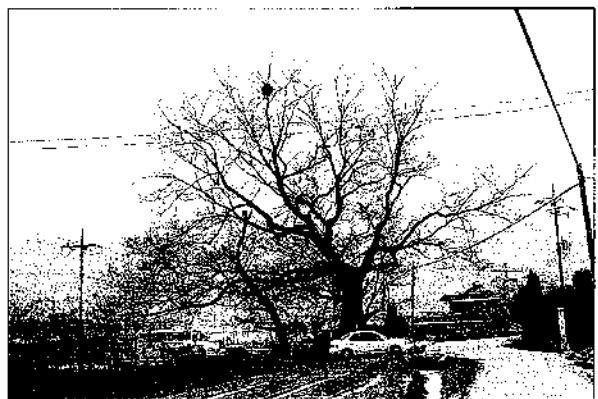


사진 129. 진우리 느티나무 2 전경

□ 소재지 : 도척면 진우리 임707(지도43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본 보호수는 도척면 진우리 임707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나이는 460년이며 품격은 군나무, 나무종류는 느티나무이다. 1983년 3월 10일 도나무로 지정되었고 1993년 10월 외과수술을 받았다. 보호수의 키는 26M, 둘레는 4.5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지정번호 : 경기광주 66

171. 鎭牛里 가시항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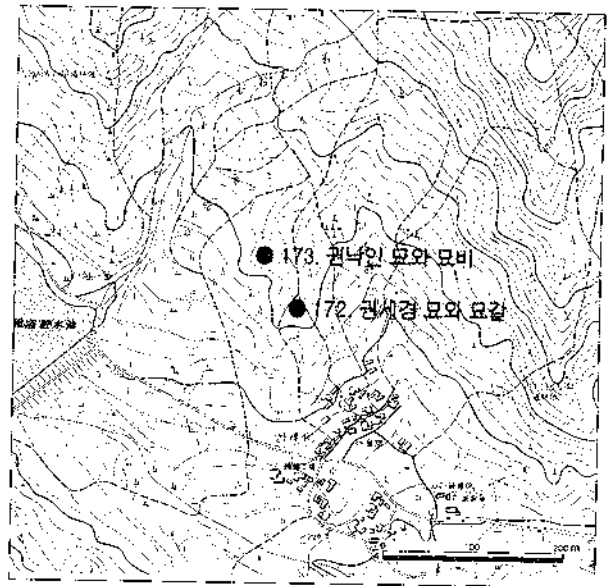
사진 130. 진우리 가시항나무 전경

- 소재지 : 도척면 진우리 답740(지도43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본 보호수는 도척면 진우리 답740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나이는 360년이며 품격은 군나무, 나무종류는 가시항나무이다. 1983년 3월 10일 도나무로 지정되었다.

보호수의 키는 7m, 둘레는 2.3m이다.

- ▶ 지도번호 : 노곡 191-1
- ▶ 지정번호 : 경기광주 67



지도 44. 권세경 묘 위치도(이천 082)



사진 131. 권세경 묘와 묘갈 전경

172. 權世經 墓와 墓碣

- 소재지 : 도척면 추곡리 산40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權世經(1626-1704)은 肅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安東이며 자는 伯常이다.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順昌(1609-1687)의 아들이며 沙溪 金長生(1548-1631)의 門人이다. 약관의 나이에 司馬試에 합격하고 관직

에 나아가 淮陽府使와 청주목사를 거쳐 司導寺正에 이르렀으며 시문에 능하여 『遺集』을 남겼다.

가래실 마을회관에서 추곡저수지를 향해 올라가다 보면 저수지 못미처 우측으로 태화산 줄기가 나타난다. 묘소는 이 산줄기 중턱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초장지는 廣州 靜林面 思樂里이었으나 근래에 현재의 장소로 이장하였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으며 봉분 좌측에 묘갈(총높이 약 206cm)이 세워져 있다. 금관조복을 착용하고 있는 문인석(높이 174cm)은 숙종대에 조성된 것으로 문양이 화려하고 사실적이며 조각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묘갈의 옥개석은 팔작지붕 형태만 갖추고 아

무런 장식도 가미하지 않았으며 방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묘갈 앞면에는 큰 해서로 피장자의 신분을 밝히고 뒷면에는 묘갈문을 각자하였다. 碣題를 '有明朝鮮國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 經筵參贊官行通訓大夫 司導寺正權公墓碣銘并序'라 하여 묘갈임을 밝혔다. 묘갈문은 領議政 崔錫鼎(1646-1715)이 撰하고 右議政 趙相愚(1640-1718)가 書하였으나 전액은 마련하지 않았다. 건립 연대는 '崇禎紀元之後85年 壬辰(1712, 숙종38)9月 日立'이며 상태는 완벽하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참고문헌 : 『安東權氏樞密公派大譜』, 1983, 回想社

173. 權樂仁 墓와 墓碑

□ 소재지 : 도척면 추곡리 산40(지도44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權樂仁(1738-1808)은 純祖代의 문신이며 본관은 安東이다. 司導寺正 世經의 4대손이자 石泉 巾綽(1760-1828)의 장인으로 첨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묘소는 권세경 묘소의 좌측 구릉에 마련된 안동권씨 세장지내에 위치한다. 권낙인 묘소는 원래 광주군 서부면에 있었는데, 최근에 현재의 장소로 이장하였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고석, 방주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봉분 좌측에 묘비(총높이 약 236cm)를 건립하였다. 비신(높이 138cm, 폭 58cm, 두께 28cm) 앞면의 상단에 두 줄로 '僉知中樞府事權公墓碑'라 古隸로 크게 쓰고 그 아래에 비문을 각자하였다. 碑題가 '僉知中樞府事權公墓碑銘并序'로 되어 있어 묘비임을 알 수 있다. 묘비라 하였어도 신도비와 동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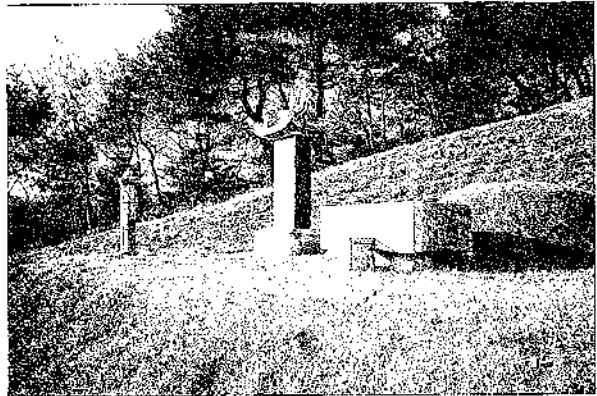


사진 132. 권낙인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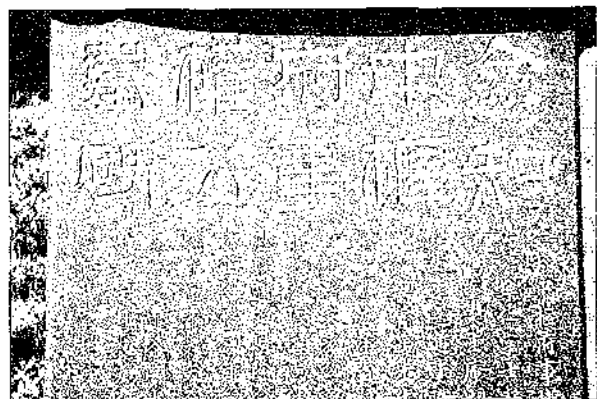


사진 133. 권낙인 묘비 앞면의 碑書額

성격을 가진 비석이다. 비문은 判中樞府事 李晩秀(1752-1820)가 撰하고 副提學 朴宗薰(1773-1841)이 書하였으며 女壻 副校理 申綽(1760-1828)이 跋額을 올렸다. 건립 연대는 '崇禎紀元後189年 丙子(1816, 순조16) 月 日立'이다. 방부개석 양식이며 비신은 烏石을 사용하였다.

묘소 위에는 파주목사를 지낸 아들 相夏(1642-1717)의 묘소가 있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참고문헌 : 『安東權氏樞密公派大譜』, 1983, 回想社

174. 白蓮庵 浮屠



사진 134. 백련암 부도

□ 소재지 : 도척면 추곡리 산 65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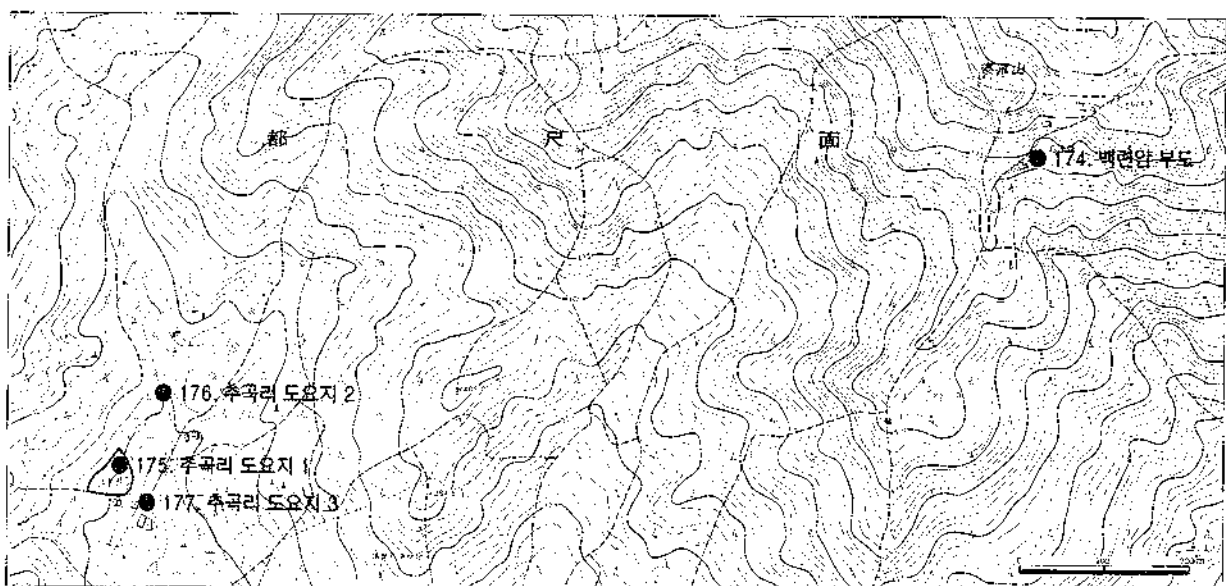
□ 내 용

충부고속도로에서 광주 곤지암쪽으로 들어와 국도 329번을 따라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오른쪽 길로 유

정리 석불좌상을 지나서 조금 더 가면 추곡리 백련암의 안내판이 크게 보인다. 그곳에서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올라가면 泰華山 정상부근에 현대식 건물의 백련암과 함께 백련암 부도가 있고 그 옆으로 최근에 건립한 石鐘型 부도와 佛紀 2543년 10월 17일에 주조한 銅鐘, 鐘閣施主功德碑 등이 세워져 있다.

현재 백련암에 관한 事蹟記나 銘文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으나 『梵宇攷』에 “경기도 광주군 子山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伽藍考』와 『輿地圖書』에도 “주 동쪽 70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 조선시대까지 절의 범맥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한편으로 『重訂南漢誌』에는 “實村面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련암 부도는 방형의 지대석 위에 놓여 있는 높이 1.75cm, 넓이 98cm의 石鐘型 부도로 전체 형태가 아주 간략화된 것으로 塔身部와 臺石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대석(150×150×25cm)은 네면 중 2면에 고부조의 당초문이 새겨져 있고 1면은 眼象이 간략하게 표현된 반면에 1면에는 아무런 장식도 시문하지 않았다. 하대석인 覆蓮은 지대석과 같은 돌로 되어 있고 그



지도 45. 백련암 부도 위치도(이전 082)

위로 塔身의 仰進이 서로 대칭을 이루며 조각되었다. 상륜부는 2단으로 覆鉢과 寶珠로 구성되었으며 그 사이로 연주문을 돌려 구분하였고 보주 표면에는 선각으로 연꽃봉우리를 새겨넣었다.

이와 같은 석종형 부도는 원래 인도의 覆鉢塔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형태가 鐘 모양과 같다는 데에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말부터 조선시대에 걸쳐서 크게 유행하였던 형식으로 대표적인 석종형 부도로는 가장 오래된 통일신라말의 太和寺址 십이지부도를 비롯하여 神勒寺 普濟尊者石鐘(1379), 金山寺 石鐘 등 고려시대의 예가 남아 있다.

이 백련암 부도는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고 균형잡힌

형태나 연판문, 眼象의 표현 등으로 볼 때 조선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4년 9월 12일에문화재자료 제 53호로 지정되었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비 고 : 문화재자료 제 53호(1984년 9월 12일)

▶ 참고문헌 : 『畿內寺院誌』, 1988, 경기도
『京畿文化財大觀』- 京畿道指定篇 -, 1990, 경기도
『廣州郡誌』, 1990, 광주군
申景濬(1712 - 1781), 『伽藍考』
『梵宇攷』

175~177. 楸谷里 陶窯址 1~3號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굽/발침/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7-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유백, 회청색/직립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발침	419-2전 일대	田	노곡 191-1	×	
2호	17-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유백, 회청색/직립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발침	482 일대	田	노곡 191-1	×	
3호	17-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회청색/직립형굽, 오목굽/모래발침	418전 일대	田	노곡 191-1	×	



사진 135. 추곡리 도요지 1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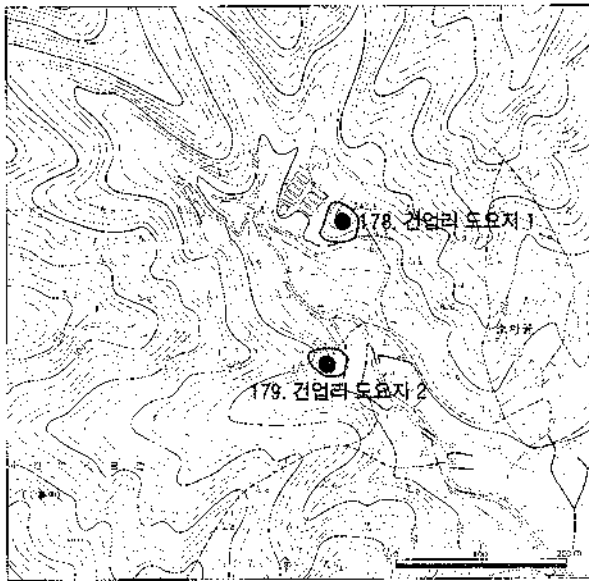
실 촌 면

178·179. 建業里 陶窯址 1·2號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굽 / 받침 / 오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16세기	●(상감)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향아리/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요도구/도침	소미골 (7)	林	양평 190-2	×	
2호	15-16세기	●(상감)백자/대접, 접시/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소미골 (8-3)	道路	양평 190-2	×	

180~186. 昆池岩里 陶窯址 1~7號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굽 / 받침 / 오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병, 향아리/설백, 연회백, 담청백색/도립삼각형굽,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집/음각명문 ●청자/둔/암록색 ●요도구/압발, 갑발뚜껑, 원반형받침	조림지 (46-1)	川 · 林	이천 191-2	×	
2호	16세기	●백자/대접, 접시/설백, 연회백/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청자/접시/암록색	황새봉골 (46-1)	林	이천 191-2	×	
3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설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요도구/압발, 갑발뚜껑, 원반형받침	황새봉골 (47-1, 509-8)	窪地 林	이천 191-2	○	
4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설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추정	.	이천 191-2	×	1986년의 조사내용임
5호		『한국의 백자도요지』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음	미확인	.	이천 191-2	×	
6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설백, 연회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요도구/압발, 원반형받침	곤지암 (471-1)	林 · 田	이천 191-2	○	
7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설백, 연회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요도구/원반형받침	대림목장 (510-8, 510,3)	窪地	이천 191-2	×	



지도 46. 건업리 도요지 위치도(이천 036·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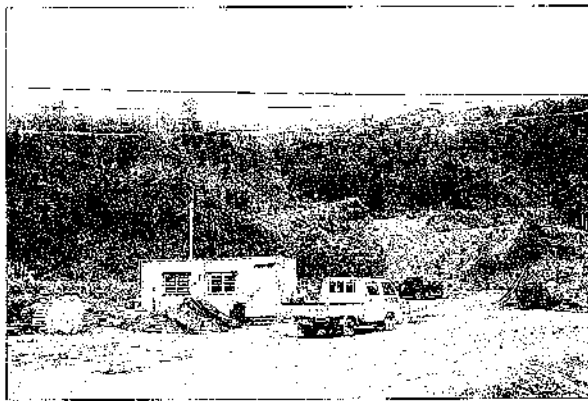


사진 136. 건업리 도요지 1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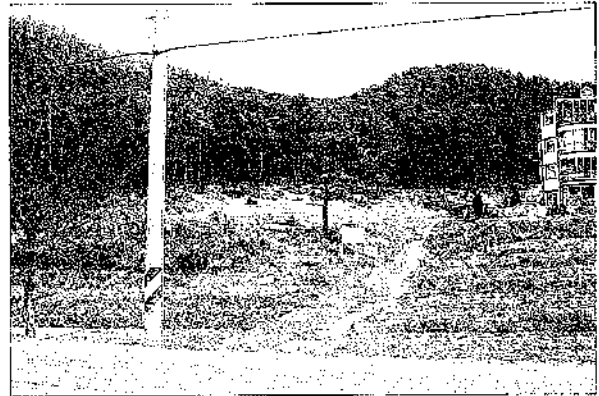


사진 137. 곤지암리 도요지 1호 전경



사진 138. 곤지암리 향나무 전경

신대리 大石洞 뒷산에 모실 때, 곤지암 바위가 두 쪽이 나고 그 곳에서 향나무가 나왔다고 전한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지정번호 : 경기광주 58

▶ 참고문헌 : 『광주군지』, 1990, 광주군

187. 昆池岩里 향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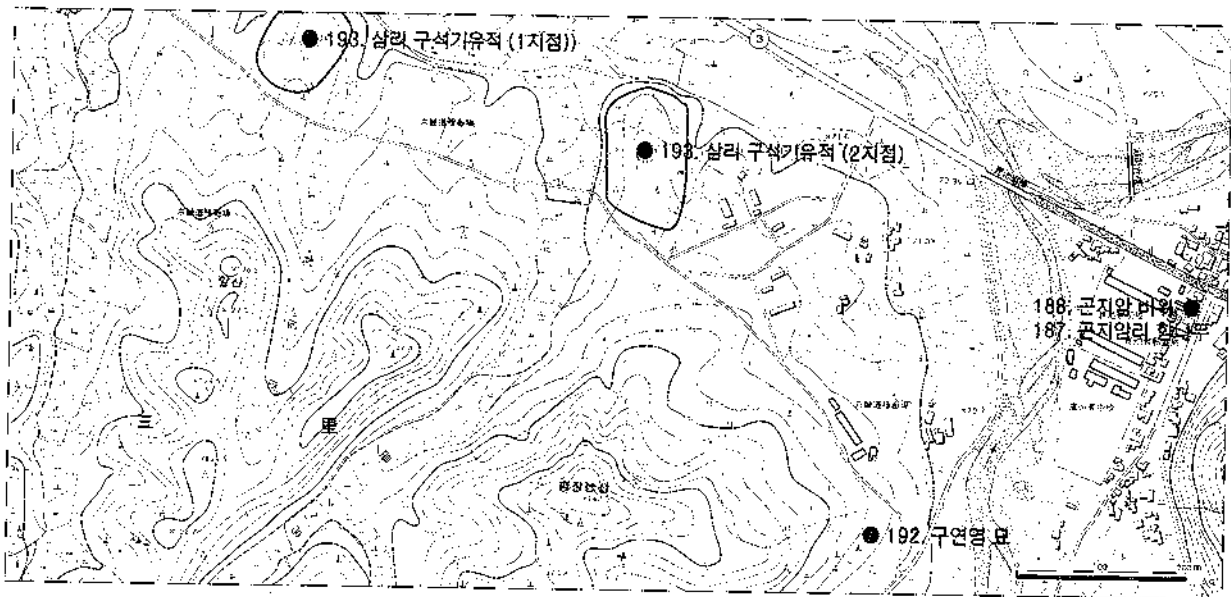
□ 소재지 : 실촌면 곤지암리 임453-4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곤지암초등학교 옆 도로가의 곤지암 바위틈에서 자라고 있다. 향나무의 수령 400년, 나무키 10m, 나무둘레 2.6m이며 1983년 3월 10일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임진왜란때의 명장 申稔(1546-1592) 장군의 묘소를



지도 47. 곤지암리 향나무 위치도(이전 064)

188. 昆池岩 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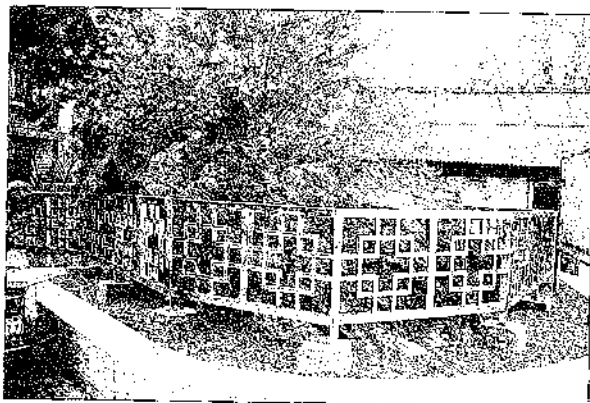


사진 139. 곤지암 바위 전경

- 소재지 : 실촌면 곤지암리 453-20(지도47 참조)
- 시 대 : 조선
- 종 류 : 기타유적
- 내 용

곤지암초등학교 옆 도로가에 위치한다. 바위는 모두 2개인데 큰바위는 높이 3.6m에 폭이 5.9m이고 작은 바위는 높이 2m에 폭 4m이다. 두 바위 사이로 보호수인 수령 400년의 향나무가 자라고 있다. 임진왜란때 충

주 탄금대에서 전사한 申稔(1546-1592) 장군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내려 오고 있다. 원래 바위주변으로 연못이 있었으나 현재는 매립되어 학교와 주택이 들어서 있다.

- ▶ 지도번호 : 노곡 191-1
- ▶ 비 고 : 문화재자료 제63호
- ▶ 참고문헌 :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재대관』 -도지정편-, 1998, 경기도
『경기문화유적지도』 Ⅱ, 2000, 경기도
박물관

189. 晩仙里 느티나무

- 소재지 : 실촌면 만선리 답240-1(지도64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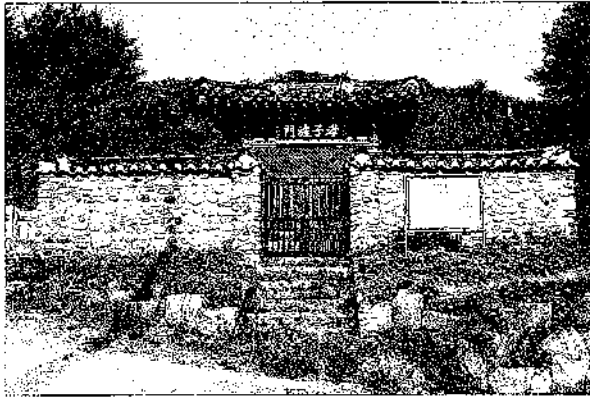


사진 140. 만선리 느티나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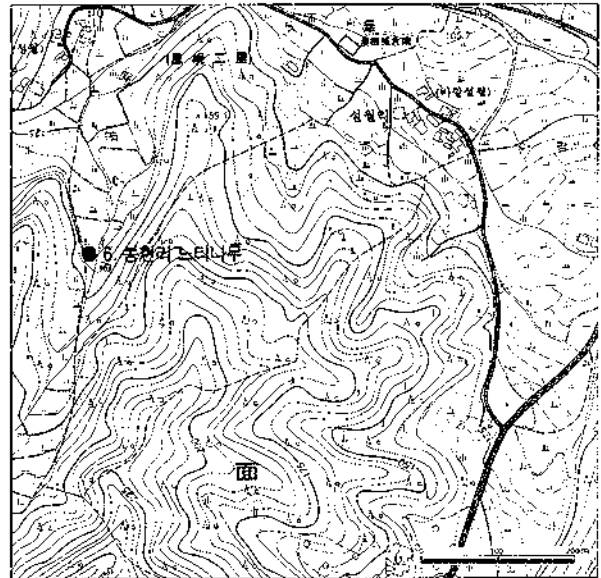
만선노인정의 앞마당에 자리잡고 있다. 수령이 370년된 느티나무로 나무키 13m, 나무둘레 4m이다. 1983년 3월 10일 군나무로 지정되었다. 고려말 判開城府事를 지낸 李仁敏이 이곳으로 낙향하여 연못을 파고 정자나무로 심어 놓은 것이라 전하나, 나무의 수령과 시대가 일치하지 않아 이인민의 후손이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

- ▶ 지도번호 : 이천 191-2
- ▶ 지정번호 : 경기광주 60
- ▶ 참고문헌 : 『광주군지』, 1990, 광주군

190. 鳳峴里 느티나무



사진 141. 봉현리 느티나무 전경



지도 48. 봉현리 느티나무 위치도(이천 066)

- 소재지 : 실촌면 봉현2리 답29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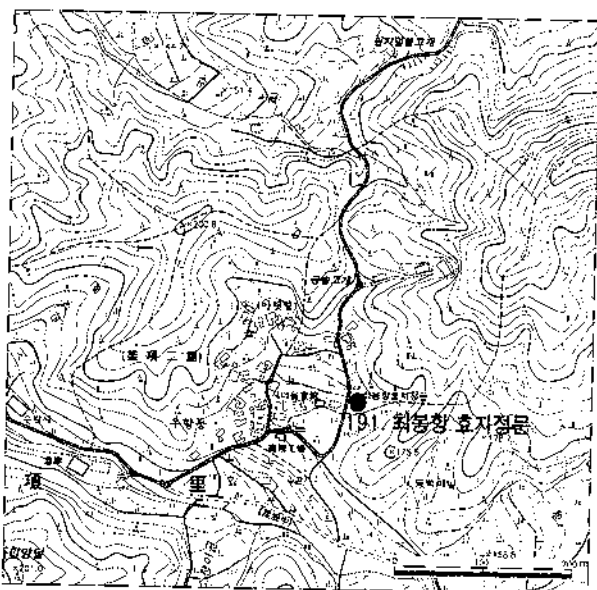
본 보호수는 실촌면 봉현2리 답29번지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종류는 느티나무이고, 나무나이 410년, 나무키 21m, 나무둘레는 4.5m이다. 1983년 3월 10일 면나무로 지정되었다.

- ▶ 지도번호 : 이천 191-2
- ▶ 지정번호 : 경기광주 64

191. 崔鳳恒 孝子旌門

- 소재지 : 실촌면 부향2리 산69
- 시 대 : 현대
- 종 류 : 정려문
- 내 용

우향동마을의 동쪽에 자리잡은 효자 최봉항의 정문이다. 최봉항의 본관은 慶州로 어려서부터 품행이 바



지도 49. 최봉향 효자정문 위치도(이천 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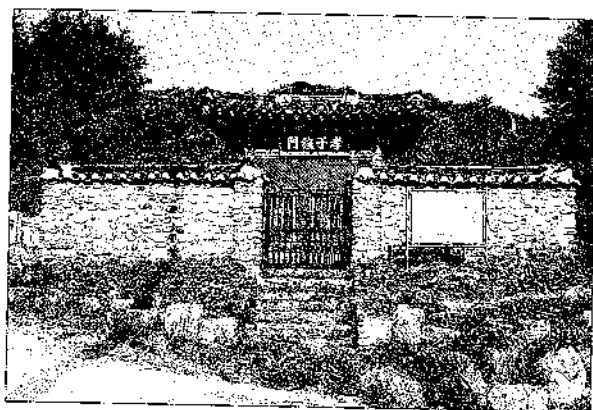


사진 142. 최봉향 효자정문 전경

르고 효성이 지극하여 효자로 소문났다. 1892년(고종 29) 유림들이 조정에 상신하여 효자정문과 함께 孝蒙敎官의 증직을 하사받았다. 원래의 효자정문이 많이 훼손되자 1979년 새로 보수하였으며, 효자정문 좌측에는 최근 건립한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최봉향의 묘소는 효자정문의 뒷산에 마련되어 있다.

▶ 지도번호 : 이천 191-2

192. 具然英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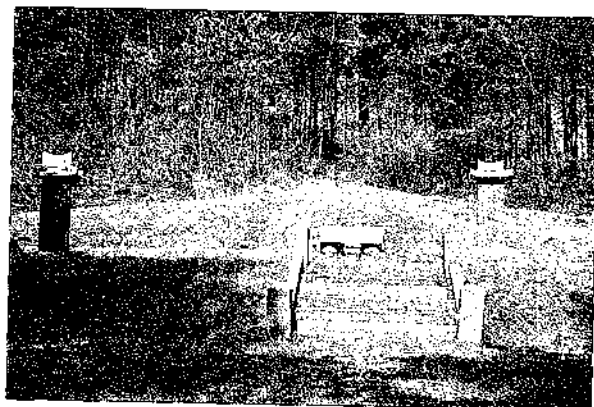


사진 143. 구연영 묘 전경

□ 소재지 : 실촌면 삼리 26-33(지도47 참조)

□ 시 대 : 대한제국

□ 종 류 : 묘

□ 내 용

具然英(1864-1907)은 구한말의 독립운동가로 본관은綾城이며 호는 春景이다. 1895년(고종32) 단발령이 내리자 이듬해 1월 경기도 利川에서 金河洛(1846-1896), 趙性學 등과 함께 倡義하였다. 2월에는 朴準英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2,000여명의 의병을 동원하여 남한산성을 점령하였으나 정부군의 공격으로 남한산성이 다시 함락되자 영남지방으로 내려가 항전하였다. 이후 경기도로 올라와 독립협회에 가입하고 구국종교활동을 벌였으며 1907년 정미칠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친일매국단체인 進會의 죄상을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성토했다. 그러나 이해 7월 일진회의 밀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아들 楨晬와 함께 총살당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묘소는 경기도종축장 남쪽 출입구의 좌측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 앞에 들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봉분 우측으로 1963년에 건립한 묘비가 서 있다. 또한 묘소 좌측에는 함께 순국한 아들 楨晬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 참고문헌 : 『광주군문화유적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193. 三里 舊石器遺蹟

1) 1지점

- 소재지 : 실촌면 삼리 산 26-9임 일대(지도47 참조)
- 시 대 : 구석기시대 · 고려시대
- 종 류 : 선사유적 · 와요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이곳은 광주군 곤지암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종축장내 북쪽 구룡능선 지역이다. 1999년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의해서 지표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고려시대 기와 산포지와 구석기시대의 타제석기가 찾아졌다. 당시 이곳을 조사 1지역이라 하였다.

2000년 1월에 시행된 확인 시굴조사 결과 이곳에 고토양층이 두텁게 퇴적되어 있으며, 3층인 토양 켜기층과 4층인 암갈색점토 층에서 석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지표조사시에 발견된 기와 산포지는 고려시대 기와 가마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채집 유물

① 찌개(사진 145-①, 도면 24-①)

암질은 석영암으로 석기의 우측면 일부에만 자연면이 남아 있고 아래면은 켜면으로 이루어 졌다. 3번에 걸친 큰 폐기로 날을 형성하였으며, 날의 모양은 톱니날이다. 날의 길이는 9.3cm로 날의 각은 $82^{\circ} \sim 86^{\circ}$ 사이에 든다.

크기는 $7.5 \times 6.4 \times 4.5\text{cm}$, 무게 302g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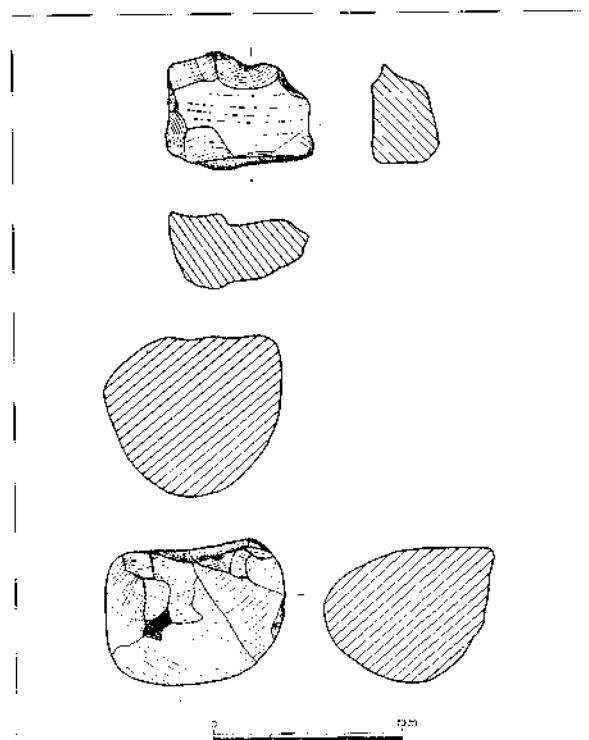
② 몸돌(사진 145-②, 도면 24-②)



사진 144. 삼리 구석기유적 1지점 전경



사진 145. 삼리 구석기유적 1지점 채집 유물



도면 24. 삼리 구석기유적 1지점 채집 석기

암질은 석영암이다. 한 면을 제외한 다른 면은 자연면으로 한쪽 면으로 만 떼기가 이루어 졌다. 폐림 면을 자연면으로 하여 한 방향 떼기로 석기의 암질과 형태로 보아 집중적으로 격지떼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석기는 찹개로도 분류할 수 있다. 크기는 $10.3 \times 9.9 \times 7.6\text{cm}$, 무게 1.045g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참고문헌 : 『광주군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단지 조성 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999,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광주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단지 조성 예정부지 시굴 조사 : 조사 1지역』-지도위원회 회의자료-, 2000,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2) 2지점

□ 소재지 : 실촌면 삼리 산 26-9임 일대

□ 시 대 : 구석기시대

□ 종 류 : 선사유적

□ 내 용

(1) 위치와 현상

1999년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에 의해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던 조사 3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도 고토양층이 두텁게 발달하고 있으며, 몸돌과 여러면 석기 등 많은 양의 타계석기가 지표에서 수습되고 있어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이곳은 2000년 6월경에 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 채집 유물

① 여러면 석기(사진 147, 도면 25-①)

암질은 석영암으로 여러면 석기로 분류되는 석기 중 작은 편에 속한다. 석기의 일부분에는 자연 면이 남아 있으나 전면에 걸쳐서 떼기가 이루어 졌다. 자연 면이 있는 주변으로 석기의 맞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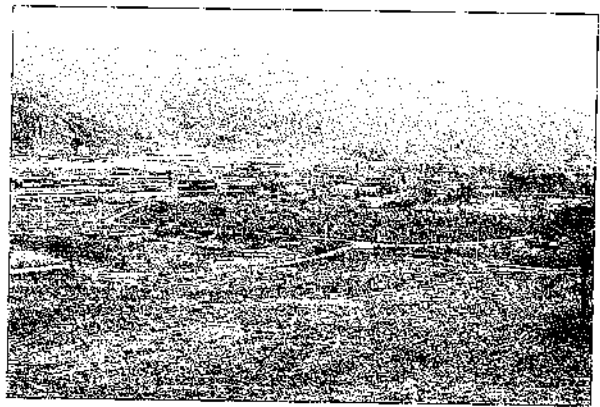


사진 146. 삼리 구석기유적 2지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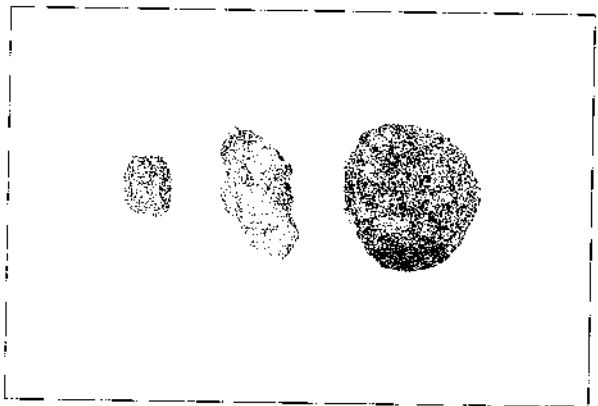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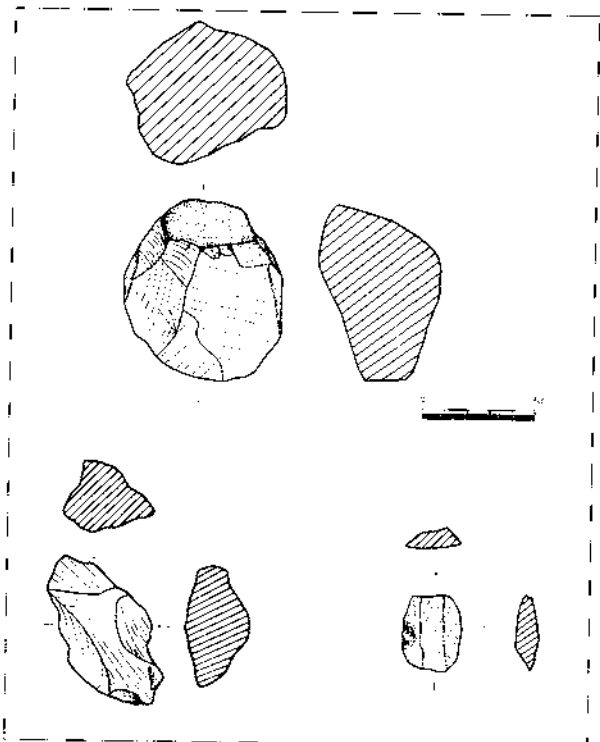


사진 147. 삼리 구석기유적 2지점 채집 유물



도면 25. 삼리 구석기유적 2지점 채집 석기

크기는 7.1×7.5×6.4cm, 무게 450g이다.

② 격지(사진 147, 도면 25-②)

암질은 석영암이다. 굽은 자연면이나 석기의 형태가 불규칙하여 버리는 석재라 할 수 있다. 크기는 6.1×3.4×2.8cm, 무게 80g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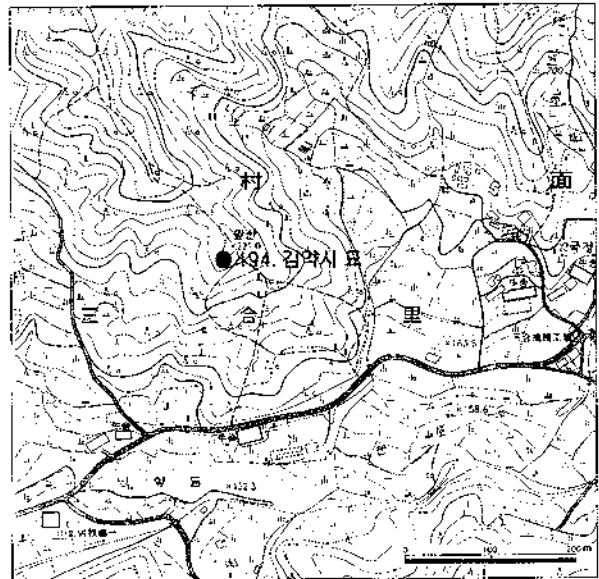
③ 격지(사진 147, 도면 25-③)

암질은 석영암이다. 굽은 자연면으로 등면에 3번에 걸친 때기가 이루어졌다. 석기의 횡단면은 사다리꼴의 형태로 석기 끝에는 암질의 결에 따라 떨어졌다. 크기는 3.5×2.6×1.2cm, 10.5g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비 고 :

▶ 참고문헌 : 『광주군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단지 조성 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999,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광주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단지 조성 예정부지 시굴조사 : 조사 1지역』-지도위원회 회의자료-, 2000, 기전매장문화재 연구원.



지도 50. 김약시 묘 위치도(이천 048)

□ 시 대 : 조선

□ 종 류 : 묘

□ 내 용

金若時(1335-1403)는 고려말의 충신으로 본관은 光山이고 호는 陰村이며 光城君 鼎의 아들이다. 1383년(우왕9) 문과에 합격하고 관직에 나아가 여러 벼슬을 거쳐 直提學에 이르렀다. 고려가 망한 뒤 조선 태조가 거듭 벼슬을 내려 회유하였으나 끝내 거절하고 출사하지 않았으며 광주군 金光村에서 隱居하다가 생을 마감하였다. 시호는 忠定이다.

유사리에서 여주로 가는 도로를 타고가다 삼합리 국청개 마을에 이르면 좌측으로 최근 신축한 景慕齋라는 사당이 나온다. 묘소는 사당 뒷산의 중턱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원래는 성남시에 있었으나 1972년 현 위치로 이장하였다. 묘역에는 정확한 조성 시기를 알 수 없는 석인(높이 120cm) 1쌍과 양식상 세종말에서 세조초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문인석(높이 169cm) 1쌍이 구비되어 있다. 봉분 우측으로 1978년에 세운 묘비가 서 있으며, 그 옆으로 1729년(영조3, 崇禎紀元後再周丁未9月 立)에 조성한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50cm)가 건립되어 있다. 비신(높이 148cm,

194. 金若時 墓



사진 148. 김약시 묘 전경

□ 소재지 : 실촌면 삼합리 산50-1

폭 64cm, 두께 20.5cm)은 백대리석으로 앞면에는 '高麗直提學金公若時之墓'라 쓰여져 있고 음기는 吏曹參判 李緯(1680-1746)가 撰하고 傍孫 大司諫 祖澤이 篆하였다. 또한 묘역 아래 도로변에는 1972년에 세운 신도비가 건립되어 있다.

▶ 지도번호 : 양평 191-4

▶ 참고문헌 : 『京畿金石大觀』7, 1994, 경기도
『光山金氏直提學公派譜』, 1998, 回想社
『광주군문화유적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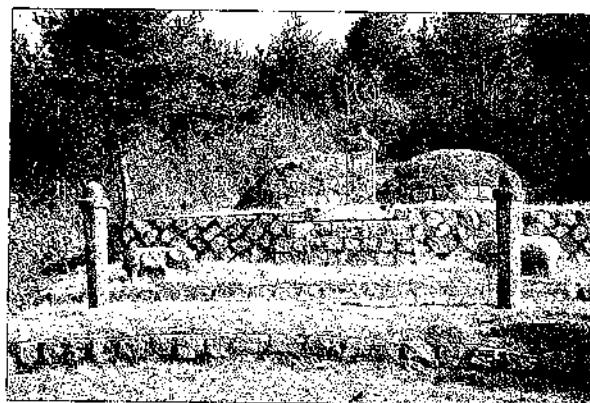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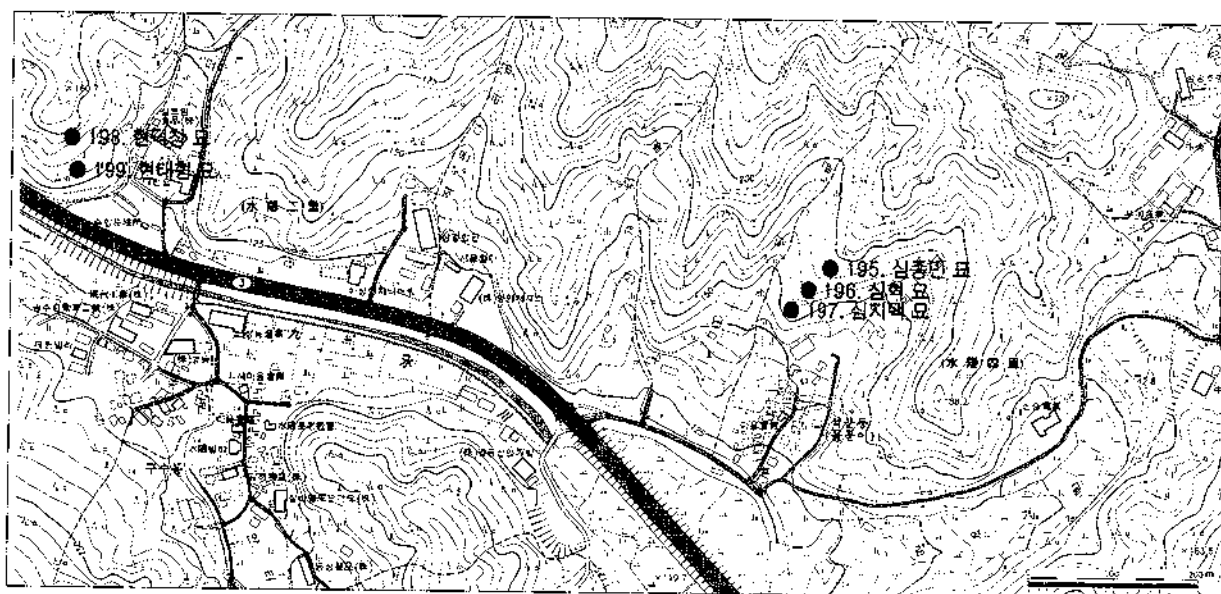
사진 149. 심종민 묘 전경

沈宗敏(1554-1618)은 光海君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靑松, 자는 士訥, 호는 晴澗이다. 현감을 지낸 錦의 아들이나 從父인 逸齋 鎬(1518-1589)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牛溪 成渾과 栗谷 李珣의 門人으로 1576년(선조9) 生員이 되고 관직에 진출하여 호조좌랑과 판결사를 거쳐 평안도 价川郡守에 이르렀다. 효성이 지극하고 청빈하였다.

돌문이 마을의 서쪽 산자락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은 최근 새로 단장하면서 원형이 많이 변형된 상태이며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羊石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다. 양석(높이 72cm, 폭 50cm, 두께 123cm)

195. 沈宗敏 墓

- 소재지 : 실촌면 수양4리 산51-1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지도 51. 신종민 묘 위치도(이천 066)

은 비만한 몸집에 다리가 짧고, 향로석(높이 25cm, 폭 58cm, 두께 28cm)은 직사각형의 교자상 형태를 하고 있어 이채롭다. 봉분 앞에는 방부하엽 양식의 묘표(총 높이 약 174cm)가 세워져 있다. 비신(높이 109cm, 폭 56cm, 두께 19.5cm)의 전면에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同知義禁府事行通政大夫价川郡守晴灣沈公宗敏之墓 貞夫人綾城具氏 附左'라 쓰여진 글씨와 음기를 모두 玄孫 延熙(1656-1714)가 예서체로 썼으며 撰者는 기록하지 않았다. 입석 연대는 '崇禎紀元77年 甲申(1704, 숙종30) 月 日'이다. 숙종대 중반은 방부개석 양식이 크게 유행하던 시기로 심종민묘표가 방부하엽 양식을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 지도번호 : 이천 191-2

▶ 참고문헌 : 『靑松沈氏世譜』, 1843

196. 沈 倅 墓

□ 소재지 : 실촌면 수양4리 산51-1(지도5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沈倅(1573-1633)은 仁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靑松이며 자는 君頤이다. 군수 宗敏의 아들이며 西川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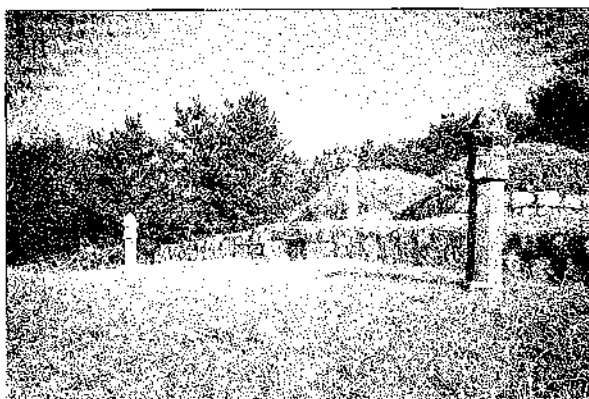


사진 150. 심혁 묘 전경

院君 鄭崑壽(1538-1602)의 사위이다. 旌善郡守를 역임하였으며 사후 司憲府執義를 추증받았다.

묘소는 심종민 묘소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은 최근 새로 단장하고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다. 교자상 형태의 향로석(높이 20cm, 폭 48cm, 두께 34.5cm)이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한 편이며 심종민의 향로석과 매우 비슷하다. 봉분 앞에는 방부하엽 양식의 묘표(총높이 약 146cm)를 세워 놓았는데, 하엽의 봉우리는 망실되었고 비신(높이 100cm, 폭 55cm, 두께 20.5cm)은 절단되었던 것을 접합해 놓은 상태이다. 비신의 전면에 '通訓大夫行旌善郡守沈公俠之墓 淑人淸州鄭氏 附左'라고 大楷로 썼으며 뒷면의 음기는 '崇禎紀元77年 甲申(1704, 숙종 30) 日'에 曾孫 延熙(1656-1714)가 小楷로 쓴하였다. 撰者는 미상이다.

▶ 지도번호 : 이천 191-2

▶ 참고문헌 : 『靑松沈氏世譜』, 1843

197. 沈之澤 墓

□ 소재지 : 실촌면 수양4리 산51-1(지도5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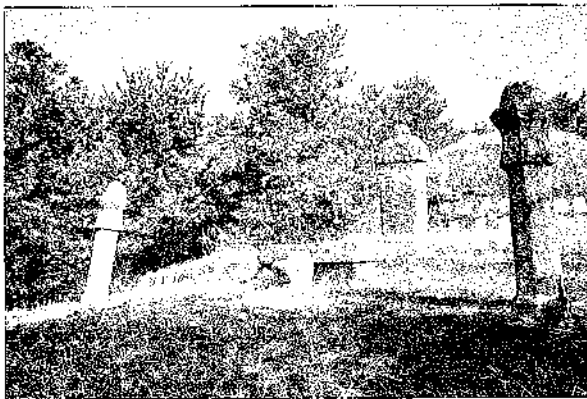


사진 151. 심지택 묘 전경

□ 내 용

沈之澤(1597-1634)의 본관은 靑松으로 자는 子固이며 군수를 지낸 僊의 아들이다. 일생을 학문에만 전념하여 處士로 자처하였다. 묘소는 심척의 묘소 아래에 위치한다. 최근 새로 단장한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의 옛 석물을 갖추었으며 봉분 앞에는 방부하엽 양식의 묘표(총높이 약 153cm)를 건립하였다. 비신(높이 96.5cm, 폭 55cm, 두께 21cm)의 四面에 글씨를 刻字하였으나 박락되고 바모되어 상태가 좋지 못하다. 앞면에 '處士沈公之澤之墓 恭人寧越嚴氏 附左'라 大隸로 쓰고, 음기는 小隸로 不肖孫 延熙(1656-1714)가 書하였으며 潘南 朴世采(1631-1695)가 撰하였다. 건립 연대는 '崇禎紀元後77年甲申(1704, 숙종 30) 月 11'이다.

▶ 지도번호 : 이천 191-2

▶ 참고문헌 : 『靑松沈氏世譜』, 1843

198. 玄德昌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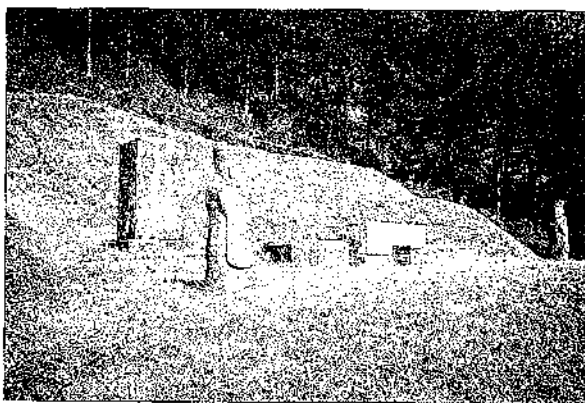


사진 152. 현덕창 묘 전경

□ 소재지 : 실촌면 수양2리 산44-1(지도5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玄德昌(1681-1727)은 英祖代의 인물로 본관은 川寧이고 자는 大叔이다. 고려시대에 令問正을 지낸 守의 후손이며 자헌대부 漢一의 아들이다. 정3품 折衝將軍에 오르고 龍驤衛副護軍을 역임하였다.

묘소는 수암휴게소의 좌측 산자락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데 초장지는 果川 霜草里이며 1970년 현재의 장소로 이장하였다. 묘역내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봉분 좌측에 묘표를 세워 놓았다. 문인석(높이 109cm)은 규모가 작으나 균형 잡힌 몸매에 사실적인 조각으로 문양을 장식하였다.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35.5cm)는 비신의 두께가 정방형에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건립 연대는 '乾隆庚子(1780, 정조4) 月 日 立'이다. 비신(높이 121cm, 폭 61cm, 두께 45cm)의 앞면에 각자해 놓은 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玄公諱德昌墓 淑夫人延安張氏 附左'라는 큰 글씨는 宣祖代의 名筆인 石峯 韓濩(1543-1605)의 글씨를 集字하였으며, 뒷면의 음기는 중국 唐나라의 명필인 柳公權(778-865)의 글씨를 집자하였다. 集字碑는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韓·中 역대 명필과 서예에 대한 깊은 연구의 결과물로 등장한 특수한 형태의 입석 방법이다. 眞景時代에 크게 유행하였는데, 특히 정조대에 많은 수량이 조성되었다.

▶ 지도번호 : 이천 191-2

▶ 참고문헌 : 『延州玄氏七修大同譜』

『英·正祖代 集字碑 名品展』, 1999,
한신대학교박물관

199. 玄泰衡 墓

□ 소재지 : 실촌면 수양2리 산44-1(지도5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사진 153. 현태형 묘 전경

玄泰衡(1718-1766)은 英祖代의 인물로 본관은 川寧이고 자는 樸久이며 부호군을 지낸 德昌의 아들이다. 일찍 譯科에 합격하고 관직에 진출하여 副司果를 지내고 僉正을 역임하였다.

묘소는 아버지 德昌의 묘소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봉분의 좌측에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94cm)를 세워 놓았다. 비신(높이 150.5cm, 폭 66.5cm, 두께 26.5cm)의 전면은 宣祖代의 명필로 널리 알려진 石峯 韓濩(1543-1605)의 글씨를 集字하여 '僉正玄公諱泰衡墓 淑人密陽朴氏 附右 淑人淸州劉氏 附左 贈淑夫人寧海朴氏 附'라고 刻字하였으며, 음기는 不肖男 商尹(1736-1805)이 識하고 從弟이자 圖畫署 화원인 泰純(1727-?)이 書하였다. 입석 연대는 '乾隆庚子(1780, 정조4) 月 日立'이다.

▶ 지도번호 : 이천 191-2

▶ 참고문헌 : 『延州玄氏七修大同譜』

『澗松文華』18, 1980, 한국민족미술연구소

『英·正祖代 集字碑 名品展』, 1999, 한신대학교박물관

200. 水陽里 느티나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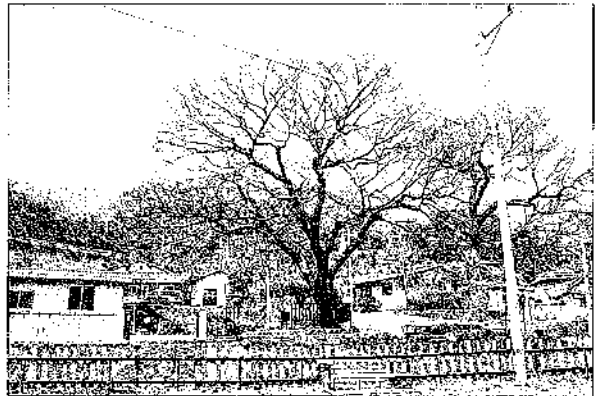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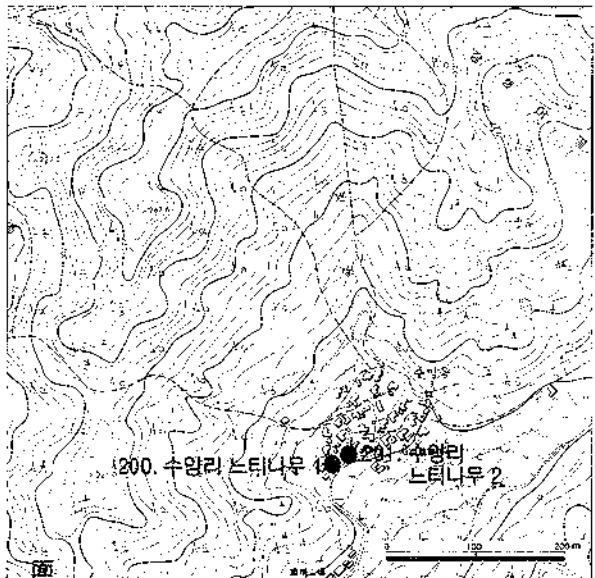


사진 154. 수양리 느티나무 1 전경



지도 52. 수양리 느티나무1·2 위치도(이천 065)

□ 소재지 : 실촌면 수양리 전195-4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본 보호수는 실촌면 수양리 전195-4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종류는 느티나무이고 나무나이 290년, 나무키 18m, 나무둘레 2.5m이다. 1983년 3월 10일 면나무로 지정되었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지정번호 : 경기광주 61

201. 水陽里 느티나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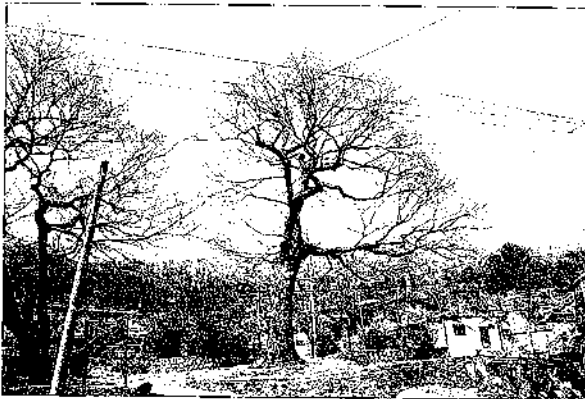


사진 155. 수양리 느티나무 2 전경

- 소재지 : 실촌면 수양리 전195-4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본 보호수는 실촌면 수양리 전195-4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종류는 느티나무이고 나무나이 290년, 나무키 16m, 나무둘레 2.55m이다. 1983년 3월 10일 면나무로 지정되었다.

- ▶ 지도번호 : 노곡 191-1
- ▶ 지정번호 : 경기광주 62

202. 申砬 墓와 墓碣

- 소재지 : 실촌면 신대리 산1-1(지도55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申砬(1546-1592)은 宣祖代의 무신으로 본관은 平山이고 자는 立之이며 아버지는 생원 華國(1517-1578)이다. 아들 景禎, 景裕, 景禔의 삼형제가 모두 무과에 급제하고 仁祖反正에 가담하여 공신에 책봉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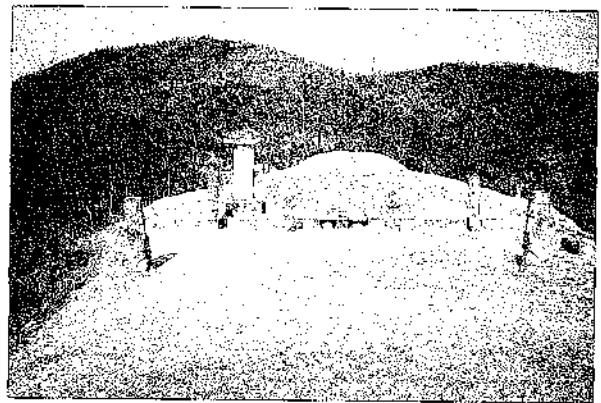


사진 156. 신립 묘와 묘갈 전경

부인 집안이다. 1567년(명종22)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제수받고 도총관과 진주판관을 지냈으며, 1583년(선조16) 온성부사로 있을 때 野人들의 침입을 여러 번 물리쳐 六鎭을 지켜 내었다. 이어 평안도병마절도사를 거쳐 한성부판윤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八道都巡邊使로 임명되어 충주 탄금대에서 왜군과 결전을 벌였으나 참패를 당하고 남한강에 투신, 자결하였다. 시호는 忠壯이다.

묘소는 대석동 마을 뒷산의 중턱에 南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혼유석, 고석, 망주석, 동자석, 문인석(높이 158cm)의 옛 석물을 구비하고 있다. 봉분 좌측에 묘갈(총높이 280cm)을 세워 놓았는데, 옥개석의 용마루에는 두 마리의 용이 올라가 있으며 방부에는 覆蓮과 唐草紋을 조각하였다.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178cm, 폭 61cm, 두께 18.5cm) 전면에는 피장자의 신분을 큰 글씨로 썼고 뒷면에는 묘갈문을 刻字하였다. 碣題를 '有明朝鮮國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平陽府院君行資憲大夫漢城府判尹五衛都總府都總管知訓練院事八道都巡邊使中公墓碣銘并序'라 하여 묘갈임을 밝혔으나 전액은 새기지 않았다. 묘갈문은 宋時烈(1607-1689)이 撰하고, 副提學 申翼相(1634-1697)이 書하였으며 입석 연대는 '崇禎61年戊辰(1688. 숙종 14)8月 日立'이다.

묘소 아래에 5대손인 平憲君 聖夏의 묘소가 있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비 고 : 경기도기념물 제 95호

▶ 참고문헌 : 『平山申氏大同譜』, 1976

『京畿金石大觀』2, 1987, 경기도

『광주군문화유적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재대관』 -도지정편-, 1998, 경기도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203. 申垞 墓와 墓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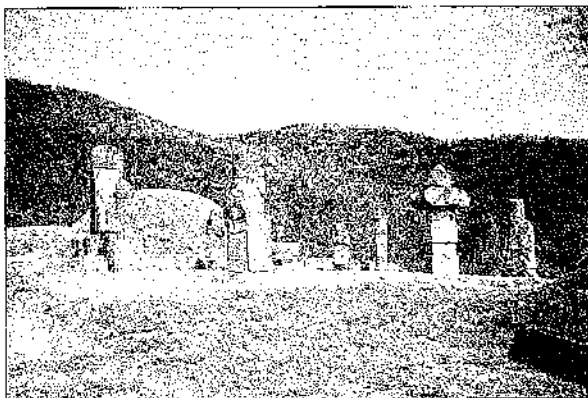


사진 157. 신촌 묘와 묘갈 전경

□ 소재지 : 실촌면 신대리 산1-1(지도55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申垞(1592-1658)은 孝宗代의 무신으로 본관은 平山이고 자는 平仲이며 忠翼公 景禎의 아들이다.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靖社功臣 3등에 책훈되었고 摠戎使와 御營大將을 거쳐 형조판서에 이르렀으며 平興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忠靖이다.

묘소는 신림 묘소 위에 자리잡고 있다. 혼유석, 상석,

향로석, 고석, 방주석, 동자석, 문인석(높이 187cm), 장명등(높이 212cm)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다. 모든 석물의 양식이 좋고 조각 솜씨가 뛰어나 당대를 대표할 만하다. 동자석이 약간 훼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태도 양호하다. 봉분 좌측에는 방부이수 양식의 묘갈(총높이 250cm)이 건립되어 있다. 이수의 전면에는 구름속에서 해가 떠 오르는 日出광경을 아름답게 조각하였다. 또한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144cm, 폭 70.5cm, 두께 23cm) 앞면에는 단정한 해서로 贈領議政諡忠靖行刑曹判書平興君申公垞之墓 贈貞敬夫人安東金氏 附左라 썼다. 뒷면의 碣題가 有明朝鮮國…資憲大夫刑曹判書平興君申公墓碣銘并序라 되어 있어 묘갈임을 알 수 있다. 묘갈문은 原任 司憲府執義 朴弼周(1665-1748)가 撰하고 承政院副承旨 李重協(1681-?)이 書하였으며 전액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건립 연대는 崇禎紀元後109年丙辰(1736, 영조12) 月 日立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참고문헌 : 『平山申氏大同譜』, 1976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204. 申琬 墓와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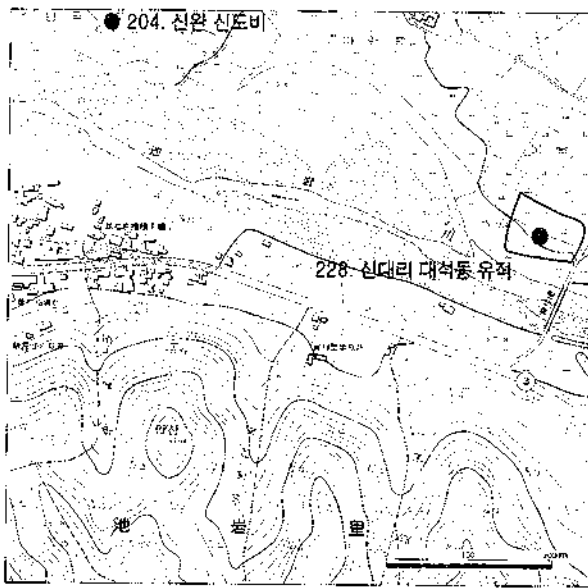
□ 소재지 : 실촌면 신대리 산1-1(지도55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申琬(1646-1707)은 肅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平山이고 자는 公獻이며 호는 絢庵이다. 목사 汝拭(1627-1690)의 아들이나 伯父인 현감 汝挺(1615-1651)에게 양자로 입양되었다. 관찰사 趙遠期(1630-?)의 사위이며 南溪 朴世采(1631-1695)의 門人이다. 1672년(현종13)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을 제수받



지도 53. 신완 신도비 위치도(이천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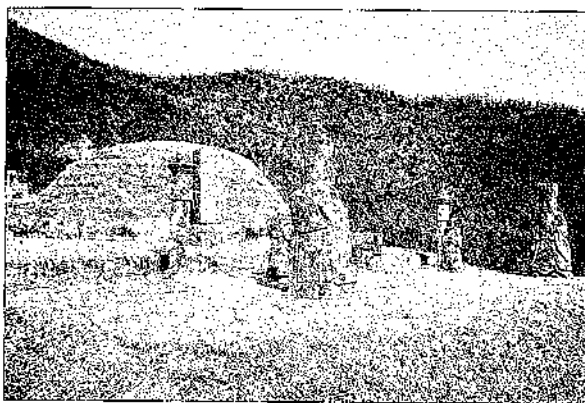


사진 158. 신완 묘 전경

왔고 도승지와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西人의 중심 인물로서 南人과 자주 대립하였으며 예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이르러 平川강에 봉해졌다. 시호는 文莊이며 저서로 『綱庵集』 4권을 남겼다.

묘소는 할아버지 垓의 묘소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고석, 망주석, 동자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고 있다. 모든 석물의 양식이 뛰어난 조각 솜씨가 훌륭하다. 특히 문인석(높이 194cm)은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었는데, 뒷면의 후수 장식이 매우 화려하다. 동자석이 약간 훼손되었을 뿐, 나머지 석물은 상태가 모두 양호하다. 봉분 좌측에는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79.5cm)를 건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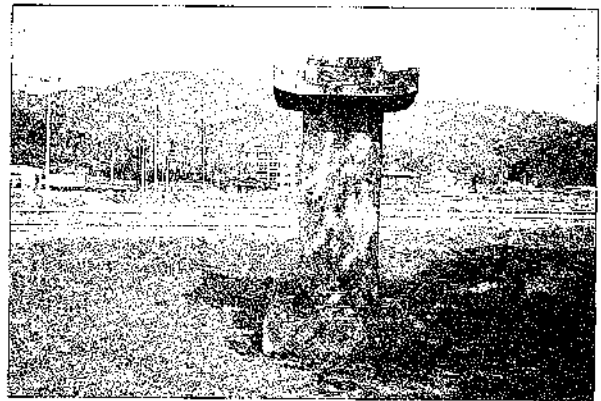


사진 159. 신완 신도비

방부에는 覆蓮과 花紋을 장식하였다. 비신(높이 137.5cm, 폭 61cm, 두께 21cm)의 앞면 우측에 大楷로 '領議政平川君 贈諡文莊申公琬之墓 贈貞敬夫人 林川趙氏 祔左'라 쓰고 이어서 小楷로 묘표 음기를 四面에 刻字하였다. 表題가 '有明朝鮮國大匡輔國 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平川君贈諡文莊申公墓 表'라 되어 있어 묘표임을 알 수 있다. 原任 司憲府執義 朴弼周(1665-1748)가 撰하고 弘文館修撰 洪鳳 昨(1680-1760)가 書하였으며 입석 연대는 '崇禎紀元 後109年丙辰(1736, 영조12) 月 日立'이다.

신도비(총높이 약 265cm)는 대석동 마을 남쪽에 펼쳐져 있는 논 가운데에 건립되어 있다. 방부개석 양식으로 조성되었는데, 개석은 용마루와 내림마루를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방부에는 아무런 장식도 가미하지 않았다. 비신(높이 180cm, 폭 71.5cm, 두께 46cm)의 전면 중앙에 한글로 '議政府領議政平川君 贈諡文莊申公琬之神道碑'라 큰 글씨로 써 놓아 신도비임을 알 수 있다. 비문은 1799년(정조23)에 左贊成 宋煥箕(1728-1807)가 銘하였으나 바로 각자하지 못하다가 1894년(고종20, 光緒20年甲午4月 日立)에 이르러 서야 知中樞府事 金永壽(1829-1899)의 글씨를 받아 입석하게 되었다. 전액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참고문헌 : 『平山申氏大同譜』, 1976

『京畿金石大觀』1, 1982, 경기도

『광주군문화유적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205. 申聖夏 墓와 墓碣



사진 160. 신성하 묘와 묘갈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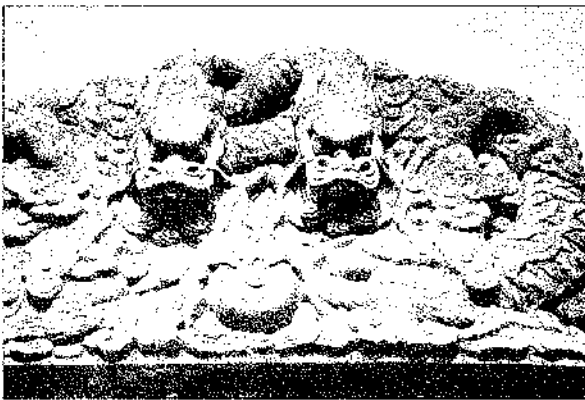


사진 161. 신성하 묘갈 이수 앞면

- 소재지 : 실촌면 신대리 산1-1(지도55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申聖夏(1665-1736)는 英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平山이고 자는 成甫이며 호는 和庵이다. 文莊公 琬의 아들이자 좌의정을 지낸 朴世采의 사위이다. 1704년(숙종30) 음보로 참봉이 되고 현감을 거쳐 연안부사

가 되었으며 돈령부도정에 이르러 平雲菴에 봉해졌다. 李世煥이 지은 『東儒師友錄』에 그 행적이 전하며 저술로 『和庵集』 2권이 있다.

묘소는 신림 묘소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고석, 방주석, 동자석, 문인석(높이 177cm)의 옛 석물을 갖추었다. 동자석의 머리가 약간 훼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석물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또한 봉분 좌측에는 '崇禎紀元後3丙辰(1796. 정조20) 月 日立'에 건립된 방부이수 양식의 묘갈(총 높이 약 300cm)이 서 있다. 비신(높이 182.5cm, 폭 77cm, 두께 22.5cm)과 이수는 一枚의 백대리석을 다듬어 만들었다. 이수 앞면의 雙龍爭珠는 기존의 형식과는 다르게 쌍룡의 시선이 모두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조각 솜씨가 극히 정교하고 생동감이 넘쳐 이수 조각의 극치라 할 수 있다. 묘갈이 조성된 正祖代는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으로 문화 예술의 전 분야에서 조선의 고유색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던 시대였다. 신성하의 이수 조각은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 조선시대 이수 조각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평가된다. 전액이 '贈吏曹參判行敦寧府都正平雲君申公慕碣銘'이라 되어 있어 묘갈임을 알 수 있으며 묘갈문은 右贊成 朴弼周(1665-1748)가 撰하고 右議政 尹善東(1729-1797)이 書하였으며 知中樞府事 李敏輔(1720-1799)가 篆을 올렸다.

묘소 아래에는 吏曹參判을 지낸 아들 昉(1686-1736)의 묘소와 아버지 琬의 繼配인 草溪鄭氏의 묘소가 위치한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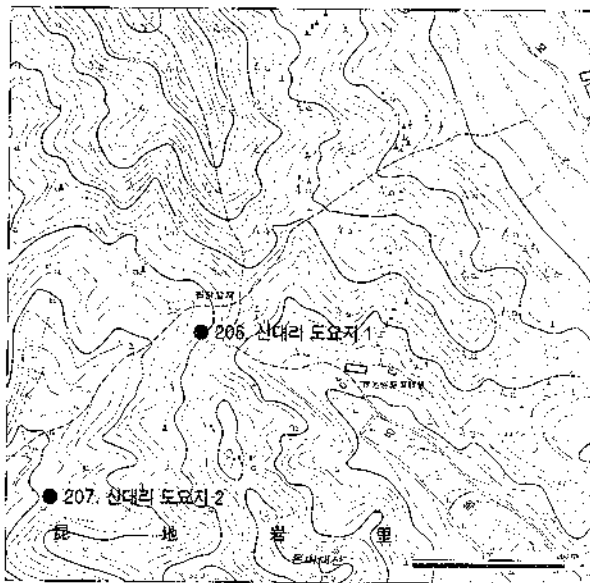
▶ 참고문헌 : 『平山申氏大同譜』, 1976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206~227. 新垆里 陶窯址 1~22號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굽/발침/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16세기	●(인화)분청사기/대접/잔목색/죽절굴형/모래받침●(철화)백자/대접, 접시, 잔, 향아리/연회백, 남청백색/죽절굴, 도립삼각형굽/태토비침, 모래받침	추정		노곡 191-1	×	1986년의 조사내용임
2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남청백색/죽절굴/태토비침	추정		노곡 191-1	×	1986년의 조사내용임
3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향아리, 제기/유백, 연회백, 회백색/직립형굽, 오목굽/굵은모래받침	절굴 (14)	林	노곡 191-1	×	
4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병, 향아리/연회백, 회백색/오목굽/굵은모래받침	절굴 (13)	田·林	노곡 191-1	×	
5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잔, 향아리/연회백, 회백색/해부리형굽/굵은모래받침	절굴 (20-1, 93-1, 2, 91-1, 2)	田	노곡 191-1	○	
6호	17세기	●(철화)백자/발, 대접, 접시, 잔, 향아리/연회백, 회백색/직립형굽, 오목굽/굵은모래받침	절굴 (11)	林	노곡 191-1	×	
7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잔, 접시, 잔, 향아리/연회백, 회백색/오목굽, 직립형굽/굵은모래받침/유각명문	절굴 (93-1, 2, 95)	田·墓	노곡 191-1	○	
8호	17세기	●(철화)백자/대발, 대접, 접시, 잔, 접시/설향, 연회백색/죽절굴, 도립삼각형굽, 오목굽/태토비침, 굵은모래받침●요도구/원반형발침, 제기문화용발침	새터말 (9-12, 145-1, 2, 146, 145-10, 11)	田·林	노곡 191-1	○	
9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접시, 향아리, 편병/유백, 연회백색/직립형굽/굵은모래받침	추정		노곡 191-1	×	1986년의 조사내용임
10호	17세기	●(철화)백자/향아리/연회백, 회백색/오목굽/굵은모래받침/己, 丙, 甲寅등유각명문	새터말 (5-5)	林	노곡 191-1	×	
11호	17세기	●(철화)백자/대발, 대접, 접시, 향아리/연회백, 회백색/도립삼각형굽, 오목굽/굵은모래받침	새터말 (8-7)	田·林	노곡 191-1	×	
12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잔, 접시, 잔, 향아리/유백, 연회백, 회백색/도립삼각형굽, 직립형굽, 오목굽/굵은모래받침●요도구/갑발, 원반형발침	새터말 (8-6, 149-1, 7)	林	노곡 191-1	○	
13호	16-17세기	●(칠화)백자/대접, 접시, 잔, 향아리, 뚜껑/유백, 연회백, 남청색/죽절굴, 도립삼각형굽, 직립형굽/태토비침, 굵은모래받침/유각명문●요도구/갑발, 원반형발침	작은굴 (151-1, 152-1, 153-1, 154-3)	田	노곡 191-1	○	
14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 향아리/설향, 연회백, 회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유각명문	추정		노곡 191-1	×	1986년의 조사내용임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굽/발침/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5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합/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침 받침	추정		노곡 191-1	×	1986년의 조사내용임
16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침	추정		노곡 191-1	×	1986년의 조사내용임
17호	16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연회백, 회청색/죽절굽, 오목굽/태토비침, 굽은모래받침 ●요도구/도청, 원반형받침	하오개동 (175-1)	田·林	노곡 191-1	×	
18호	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실백, 연회백, 회청백색/죽절굽, 도립 산각형굽, 오목굽/태토비침, 모래받침/음각명문 ●요도구/원반형받침	새터말 (197-5)	田·좁	노곡 191-1	×	
19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회청백색/오목굽, 직립형굽/굽은모래받침	적골 (98)	窯·田	노곡 191-1	○	
20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잔, 향아리/유백색, 연회백, 회백 색/오목굽, 직립형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감발, 감발뚜 껍, 원반형받침	새터말 (8-11)	林	노곡 191-1	×	
21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유백, 연회백, 회백색/오목굽, 도립형 산각형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원반형받침	정암농장 (5-7)	林	노곡 191-1	×	
22호	15-16세기	●(상감·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회백, 회청, 암갈색/죽 절굽/태토비침, 굽은모래받침 ●백자/대접, 접시/유백, 연 회백색/오목굽, 직립형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도청	십이내미골 아래 (167)	田	노곡 191-1	×	



지도 54. 신대리 도요지 위치도 1(이천 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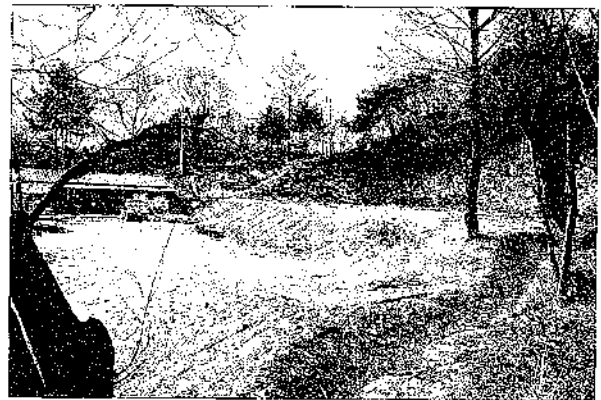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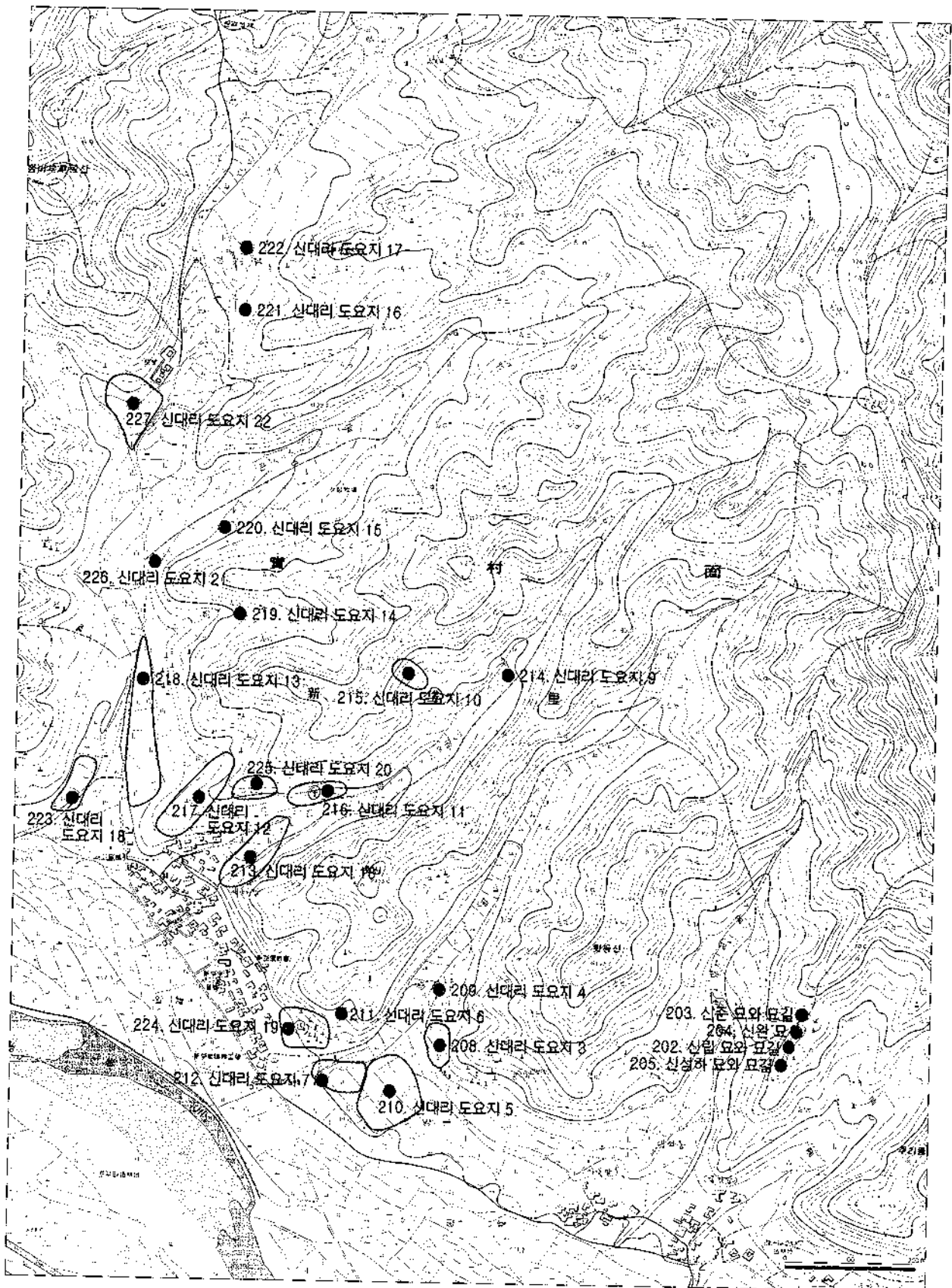


사진 162. 신대리 도요지 7호 전경



지도 55. 신대리 도요지 위치도2(이전 054)

228. 新垓里 대석동遺蹟



사진 163. 신대리 대석동유적 전경

- 소재지 : 실촌면 신대리 555-44답 일대(지도53 참조)
- 시 대 : 청동기시대 · 철기시대 후기
- 종 류 : 주거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이곳은 1997년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에서 끈지압천 유역 지표조사 때 발견되어 보고된 지역이다. 끈지암에서 양평으로 가는 329번 국도의 예개교를 건너면 바로 좌측에 밭에 소재지하고 있다. 이곳을 대댐이라고 하며, 유물은 이 밭에서 출토되고 있다. 출토되는 범위는 약 300여평에 이른다. 이곳의 농수로로 단면에서 문화층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나 조사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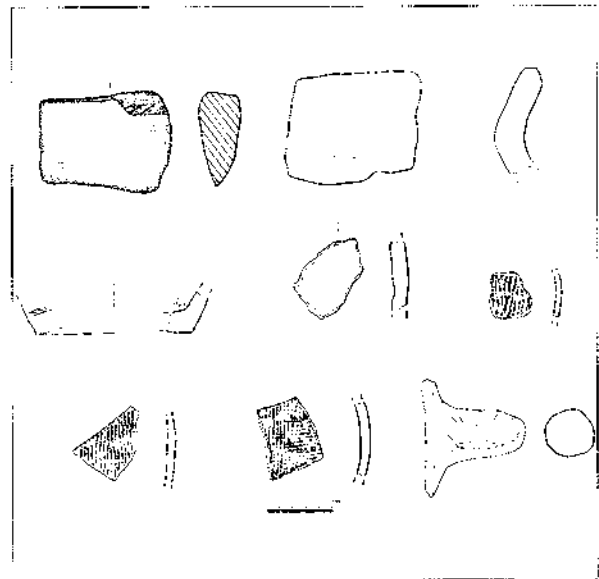
(2) 채집 유물

① 무문토기편(사진 164)

몸체편으로 일부 내·외벽에 정면한 모습이 보인다. 태토는 점토질에 석영과 운모등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 길이 2.8cm, 너비 3.3cm, 두께 0.9cm

② 경질무문토기편(사진 164)

파손이 심한 저부편으로 바닥은 약간 들린 굽이다. 적갈색을 띠며 안쪽과 바닥은 검은색이다. 태토는 점토질로 석영, 운모등이 혼입되어 있다. 높이 2.6cm, 굽지



도면 26. 신대리 대석동유적 채집 유물

름 cm

③ 경질무문토기편(사진 164, 도면 26-③)

파손이 심한 저부편으로 바닥은 평저를 이루고 있다. 바닥과 몸체의 연결부위에 흙으로 덧댄 흔적이 남아있다. 적갈색을 띠며 안쪽은 검은색을 띤다. 태토는 점토질로 석영, 운모등이 혼입되어 있다. 높이 3.0cm, 굽지름 11.2cm

④ 경질무문토기편(사진 164, 도면 26-④)

몸체편으로, 겉면에 빗질로 다듬은 흔적이 뚜렷하며, 검은색을 띠고 있다. 내면은 적갈색을 띠고 태토는 점토질에 굵은 석영등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길이 5.7cm, 너비 4.6cm 두께 1.0cm

⑤⑥ 경질무문토기편(사진 164)

몸체편으로, 내·외면에 물손질로 정면한 모습이 관찰된다. 태토는 점토질에 굵은석영등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 길이 3.1~4.8cm, 너비 4.9cm, 두께 0.6~0.8cm

⑦ 파수편(사진 165, 도면 26-⑧)

몸체일부와 같이 남은 파수 편으로, 파수는 단면원형으로 끝을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몸체에는 송석문이 시문되었으며, 몸체와 손잡이의 부착부분에는 물 손질을 하여 정면한 모습이 뚜렷하다. 연갈색 연질에 태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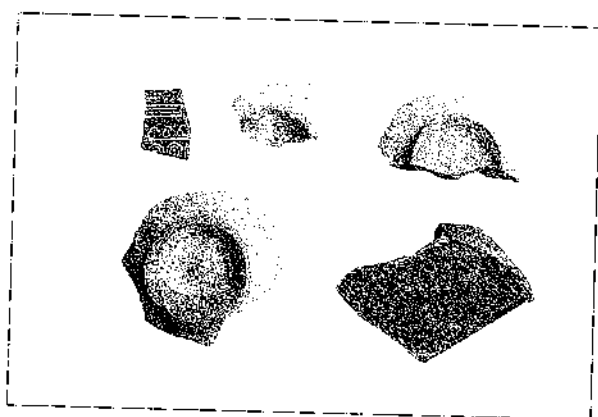


사진 164. 신대리 대석동유적 채집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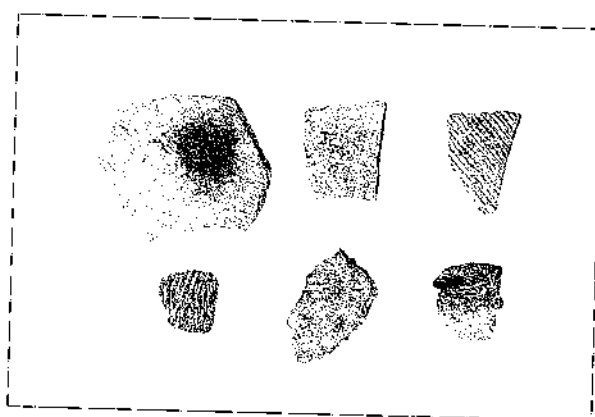


사진 165. 신대리 대석동유적 채집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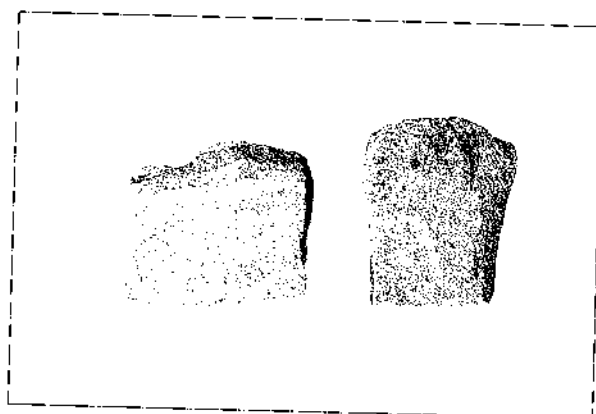


사진 166. 신대리 대석동유적 채집 유물

정선된 점토질에 석영,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전체길이 7.1cm, 파수길이 5.5cm, 두께 3.5cm

⑧ 회흑색 경질토기편(사진 165, 도면 26-⑦)

몸체편으로 기벽에 격자문이 타날·시문되어 있다. 내면에는 일부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고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잔존길이 6.0cm 너비 4.2cm 두께

0.6cm

⑨ 연질토기편(사진 165, 도면 26-⑤)

작은 몸체편으로 기벽에 조밀한 승문이 타날·시문되어 있다. 겉면은 흑색, 내면은 연갈색을 띠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잔존길이 3.2cm, 너비 3.1cm

⑩ 회흑색 경질토기편(사진 165, 도면 26-⑥)

몸체편으로 기벽에 유사 승석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는 일부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고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잔존길이 5.6cm 너비 4.6cm 두께 0.6cm

⑪ 대웅편(사진 166, 도면 26-②)

구연부편으로 끝을 둥글게 처리하였다.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편으로 분양은 없고 전면에 정면한 모습만이 뚜렷히 남아있다. 연갈색의 연질토기이며, 속심은 검은색을 띤다. 태토는 매우 정선된 점토에 석영·운모 등이 혼입되었다. 잔존높이 8.4cm, 두께 1.9cm

⑫ 숫돌편(사진 166, 도면 26-①)

평면 방향으로 단면은 삼각형을 띠고 있다. 사압 계통으로 면과 이 바연한 흔적이 관찰되고 있다. 측면과 상면에는 철성분이 묻어있으며 암갈색을 띠고 있다. 길이 9.7cm, 너비 6.7cm

▶ 지도번호 : 노곡 191-1

▶ 비 고 :

▶ 참고문헌 :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천 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7,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229. 蓮谷里 舊石器遺蹟

□ 소재지 : 실촌면 연곡리 198-3전 일대

□ 시 대 : 구석기시대

□ 종 류 : 선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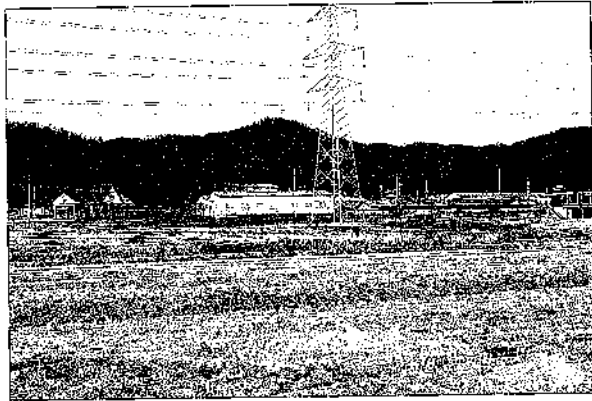


사진 167. 연곡리 구석기유적 전경

□ 내 용

연곡리 마을 맞은편에 소재지하는 밭으로 1997년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 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보고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밭의 중앙에는 철탑이 있으며 그 뒤쪽으로 44번 지방국도가 지나고 있다. 97년도에 조사시에는 밭의 단면에서 구석기 갱신세층이 확인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밭의 경작과 퇴적된 흙으로 층위를 찾을 수는 없었다. 97년 당시에는 몸돌, 찌개, 굽개, 격지등의 석기들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참고문헌 :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천 유역 문화유

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7,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230. 蓮谷里 遺物散布址

□ 소재지 : 실촌면 연곡리 618-2번지일대(지도56 참조)

□ 시 대 : 통일신라말기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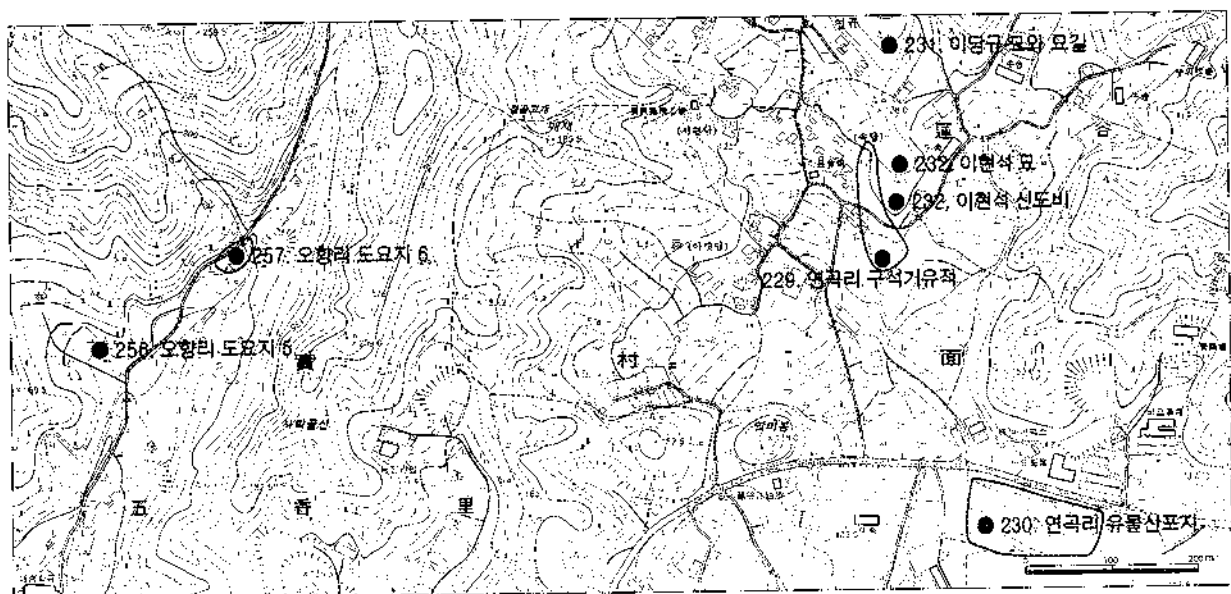
(1) 위치와 현상

연곡리에는 조선시대 숙종 때 의정부 좌참찬을 지낸 이현석 묘와 신도비가 있다. 유물은 묘지가 있는 좌측 민가주변과 밭에서 고려시대 토기편과 조선시대의 자기, 기와편들이 다수 수습되었다.

(2) 채집 유물

① 회청색 경질토기편(사진 169, 도면 27-①)

구연부 편으로 구연부는 외반하여 끝을 말아서 처리하였고 그 밑으로 2조의 음각선과 2조의 파상문이 시



지도 56. 연곡리 구석기유적 위치도(이천 056)



사진 168. 연곡리 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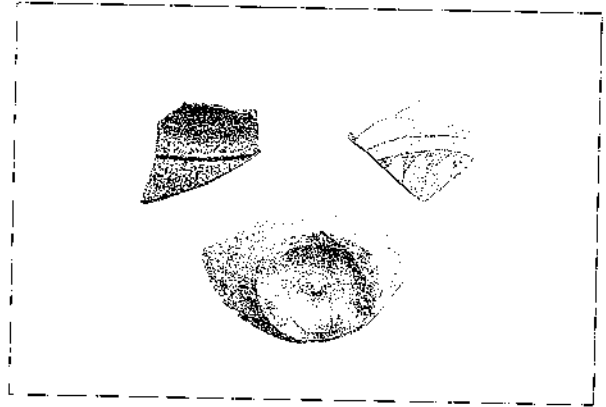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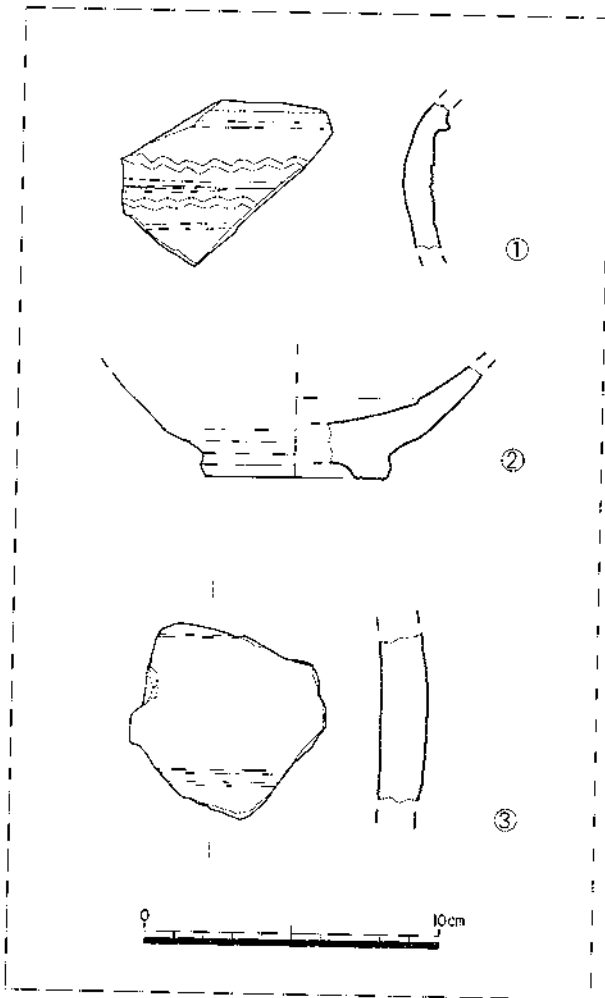


사진 169. 연곡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도면 27. 연곡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문되어 있다. 또한 전면에 조밀한 물레 흔이 남아있다.
태토는 매우 정선되어 있다. 높이 6.0cm 두께 0.9cm

② 청자편(사진 169, 도면 27-②)

파손이 심한 편으로 굽의 접지 면이 넓게 형성되어
마치 해 무리 굽처럼 보이지만 파손으로 정확히 알 수
가 없다. 내저에 원각을 이루고 있으며, 그 안에 내화토
반침흔이 남아있다. 소성이 좋지 않아 발색이 제대로
되지 못한 편이다. 높이 3.8cm, 추정굽지름 6.0cm

③ 남석제용기편(사진 169, 도면 27-③)

작은 몸체편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다. 외벽에는 3조
의 음각선이 시문되어 있으며, 내·외면 모두에 마연한
흔적이 잘 남아있다. 잔존길이 6.7cm, 두께 1.5cm

▶ 지도번호 : 노곡 191-1

231. 李堂揆 墓와 墓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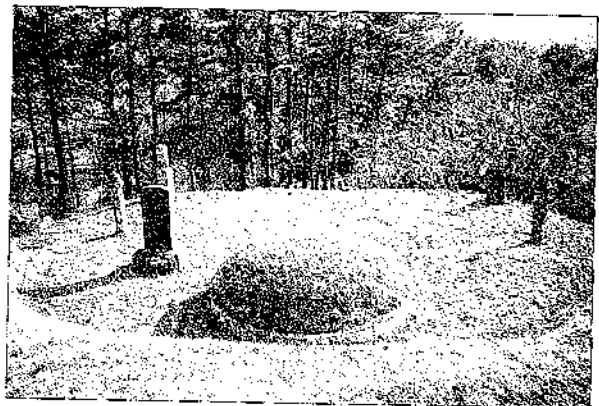


사진 170. 이당규 묘와 묘갈 전경

□ 소재지 : 실촌면 연곡리 산18(지도56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李堂揆(1625-1684)는 肅宗代의 문신으로 자는 基仲이고 호는 退村이다. 태종의 왕자인 敬寧君(?-1458)의 후손이며 영의정을 지낸 熙求(1584-1644)의 아들이다. 1668년(현종9)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홍문관수찬과 이조참의를 지냈다. 숙종초의 南人 정권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으며 함경도관찰사를 거쳐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1680년(숙종6) 庚申大黜陟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파직되고 폐서인이 되었으나 1682년(숙종8) 다시 復官되었다. 시호는 文敏이다.

묘소는 연골 마을회관의 우측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원래 퇴촌면 도수리에 있었던 것을 근래에 현재의 장소로 이장하였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높이 160cm)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다. 봉분 우측에 세워진 묘갈(총높이 165.5cm)은 방부원수 양식이며 방부에는 아무런 장식을 가미하지 않았다. 비신(높이 126.5cm, 폭 55.5cm, 두께 19.5cm)은 대리석을 사용하여 마모가 심한 상태이나 앞면에 새겨진 贈吏曹判書行吏曹參判李公堂揆之墓 贈貞夫人晉陽姜氏 附左의 글씨는 뚜렷하다. 碣題가 '有明……都總府副總管李公墓碣'이라 각자되어 있어 묘갈임을 알 수 있다. 묘갈문은 不肖孫 陰城縣監 漢謙(1675-1750)이 謹錄하고 淸安縣監 南漢明(1668-1736)이 謹書하였다. 입석 연대는 '崇禎紀元甲申後79(1723, 敬宗3)年 8月 日立'이다.

▶ 지도번호 : 이천 191-2

▶ 참고문헌 : 『全州李氏敬寧君派世譜』

232. 李玄錫 墓와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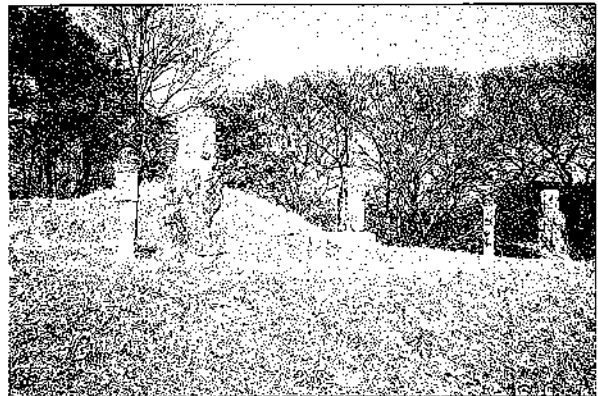


사진 171. 이현석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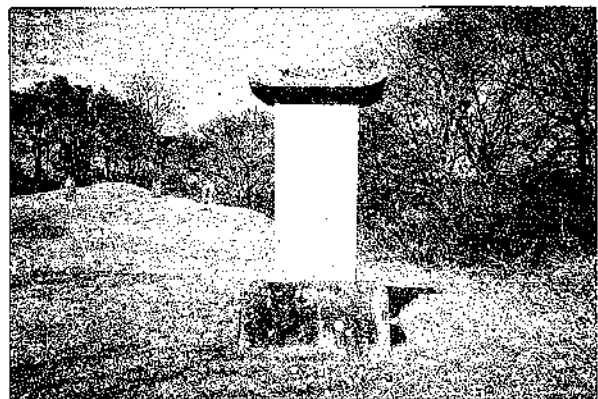


사진 172. 이현석 신도비

□ 소재지 : 실촌면 연곡리 산18(지도56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李玄錫(1647-1703)은 肅宗代의 문신으로 자는 夏瑞이고 호는 游齋이며 이조참판을 지낸 堂揆의 아들이다. 1675년(숙종1) 문과에 급제하고, 出仕하여 여러 관직을 지냈다. 집안 대대로 南人에 속하였으나 매사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고 偏黨하지 않아 같은 남인이면서 세력가이던 閔黻(1636-1694), 張希載(?-1701)와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도승지와 형조판서를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文敏이다. 글씨에 능하고 학문에도 뛰어나 『易學窺斑』과 『明史綱』

日; 30권, 『游齋集』 24권의 저술을 남겼다.

묘소는 이당굴의 묘소 아래 약 50m 거리에 위치한다. 묘역은 관리 상태가 좋아 보존이 잘 되어 있으며 상석, 향로석, 방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다.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는 봉분 우측에 건립되어 있다. 대리석의 비신 앞면에 피장자의 신분을 써 놓은 큰 글씨는 식별이 가능하나, 음기는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어렵다.

신도비는 묘역 아래에 건립되어 있으며 영조대에 유행하던 방부개석 양식을 갖추고 있다. 碑題를 '有明朝鮮國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 兼知義禁府事 世子左副賓客 贈諡文敏李公神道碑銘并序' 라 하고 전액을 '議政府左參贊贈諡○○李公神道碑銘' 이라 올려 신도비임을 밝히고 있다. 비문은 禮曹判書 카淳(1680-1741)이 撰하고 大司憲 李眞淳(1679-?)이 書하였으며 吏曹參議 卞命教(1687-1753)가 篆을 썼다. 건립 연대는 '崇禎紀元後111年戊午(1738, 영조14) 月日立' 이다.

▶ 지도번호 : 이천 191-2

▶ 참고문헌 : 『全州李氏敬寧君派世譜』

『京畿金石大觀』 3, 1988, 경기도

『광주군문화유적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 Ⅱ, 2000, 경기도 박물관

233. 具致寬 墓와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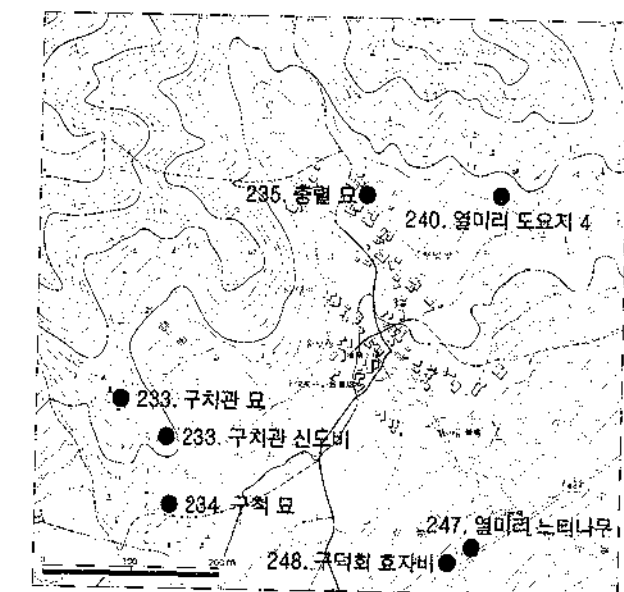
□ 소재지 : 실촌면 하열미리 산3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具致寬(1406-1470)은 世祖代의 문신으로 자는 而栗이며 본관은 綾城이다. 公州牧使를 지낸 揚의 장남



지도 57. 구치관 묘 위치도(이천 055)



사진 173. 구치관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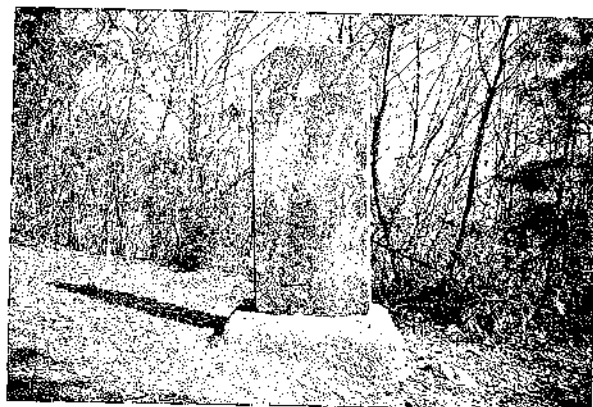


사진 174. 구치관 신도비

으로 1434년(세종16) 문과에 급제하고 承文院正字에 임명되었으나 중용되지 못하였다. 이후 10여년간 하급

관료로 배회하다가 수양대군 측에 가담하여 承政院同副承旨로 발탁되었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佐翼功臣에 임명되고 병조참판을 제수받았으며 1462년(세조 7)에는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라 綾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렬이다.

묘소는 아랫말 뒷산 구릉의 중턱에 南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묘역은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석물로는 문인석(높이 227cm) 1쌍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모두 근래에 마련한 것이다. 성종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문인석은 눈 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가는 세조대의 특징이 아직도 남아 있다. 봉분 앞에 있는 방부하엽 양식의 화강암제 묘표(총높이 120cm)는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며, 그 우측에 있는 묘비는 1970년에 새로 세운 것이다.

묘역 아래에는 신도비(총높이 약 250cm)가 건립되어 있다. 15세기에 유행하던 方趺圭首 양식을 갖추었는데,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208cm, 폭 88cm, 두께 23cm)을 사용하여 비문의 마모가 극심한 상태이다. 비신 상단의 '忠烈公神道碑銘'이라는 전액이 겨우 판독되어 구치관신도비임을 알 수 있다. 비록 비문은 마모되었지만 成宗代에 조성된 귀중한 신도비로, 朗善君 李僎(1637-1693)가 편찬한 『大東金石書』에 의하면 徐居正(1420-1488) 文에 吏曹佐郎 朴孝元이 쓴 것으로 되어 있다. 마을 입구 도로변에는 1983년에 새로 건립한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구치관 묘소 위에는 아버지 揚의 묘소가 있으며 아래에는 손자 宗親府典簿 長孫과 5대손 忠義衛 理淵(1553-1628)의 묘소가 위치한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참고문헌 : 『大東金石書』, 아세아문화사

『綾城具氏世譜』, 1938

『京畿金石大觀』5, 1992, 경기도

『광주군문화유적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234. 具滌 墓



사진 175. 구척 묘 전경

□ 소재지 : 실촌면 하열미리 산3(지도57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具滌(1602-1650)은 仁祖代의 인물로 본관은 綾城이며 자는 新伯이다. 忠烈公 致寬의 6대손이자 觀善齋 文榮(1636-1693)의 아버지이다. 평생 학문에만 정진하였으며 사후인 1670년(현종11)에 孝行으로 정려문을 하사받았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갖추었는데, 문인석(높이 175cm)은 얼굴과 옷 소매가 매우 경직되게 표현되어 있다. 봉분 우측에 건립되었던 방부개석 양식의 묘표는 도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나 비신(높이 130cm, 폭 42.5cm, 두께 20cm)의 상태는 양호하다. 陰記에 의하면 1663년(현종4)에 領中樞府事 李景奭(1595-1671)이 撰并書하였던 것을 1875년(고종12)에 다시 改立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면에는 '處士綾城具公滌之墓 高靈中氏 附左'라 쓰여져 있다.

구척 묘소의 좌측에는 증조부 生員 元之의 묘소가 있으며 우측에는 縣監을 지낸 恒柱(1700-1750)의 묘소가 있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참고문헌 : 『綾城具氏世譜』, 1938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235. 忠烈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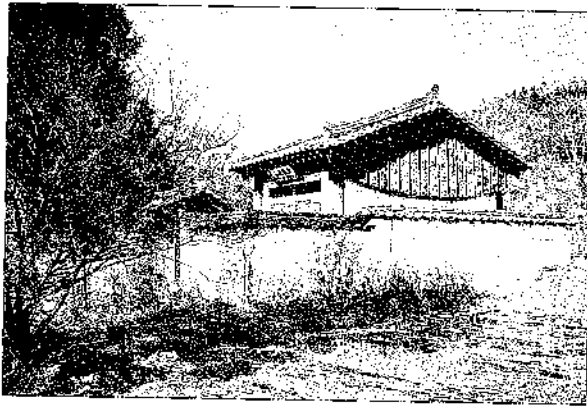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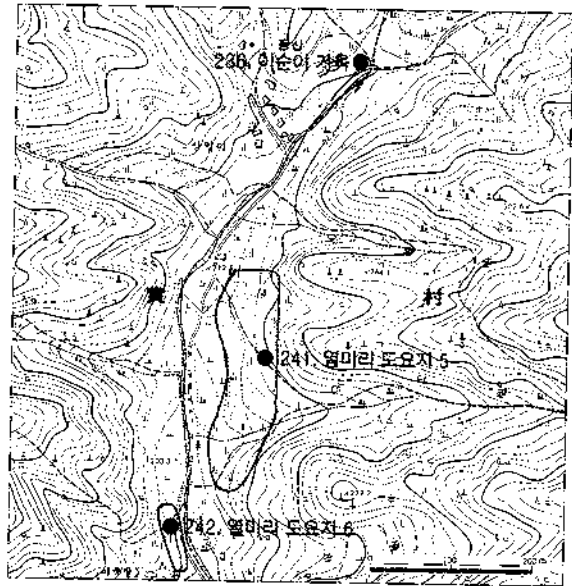
사진 176. 충렬묘 전경

- 소재지 : 실촌면 열미리 313(지도57 참조)
- 시 대 : 현대
- 종 류 : 사당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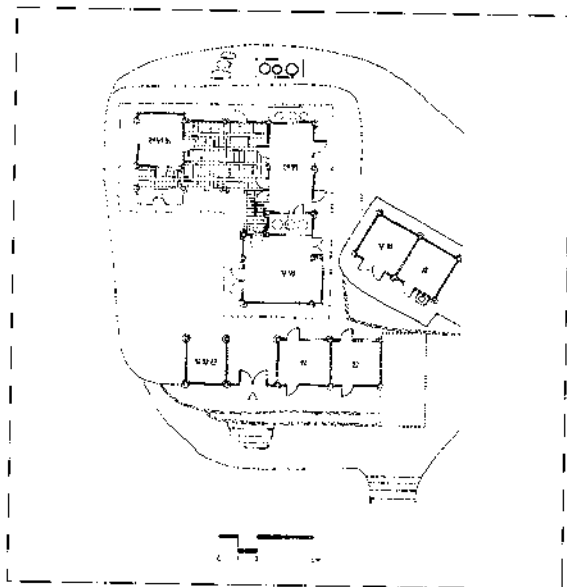
양달말 안쪽의 구교운씨 댁 바로 옆에 위치한다. 정면 1칸의 맞배지붕을 갖춘 아담한 사당으로 현관은 從 17代孫인 會升이 썼다. 忠烈은 世祖代에 영의정을 역임한 具致寬(1406-1470)의 시호로, 본 건물은 구치관의 不遷之位 사당이다. 후손에 의하면 지금도 1년에 두 번씩 기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1980년대에 改補修를 하였다고 한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236. 이순이 가옥



지도 58. 이순이 가옥 위치도(이천 045)



도면 28. 이순이 가옥 평면도

- 소재지 : 실촌면 상열미리 11번지
- 시 대 : 근대
- 종 류 : 고가
- 내 용

이 마을의 작은 종가집으로, 옆에 위치한 큰 종가집이 6·25때에 전소되어, 현재는 이 가옥이 마을의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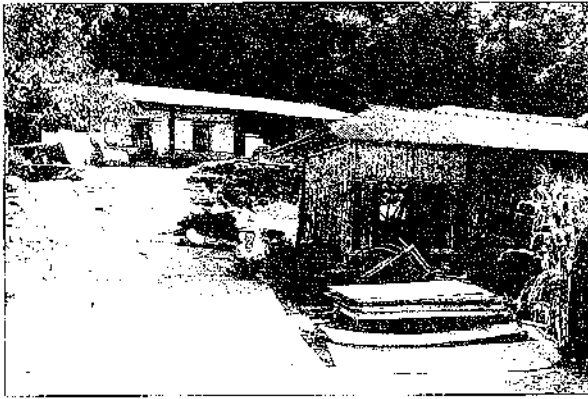


사진 177. 이순이 가옥 전경

오래되고 큰 가옥이다.

안채 상량문은 확인할 수 없으나, 가장 나중에 지었다는 별채상량문(大正十四年……)의 기록으로 보아 별채의 건립년도인 1925년보다 이전에 지어진 것이 확실하다.

가옥의 상태의 개조 부분이 거의 없고, 부채가 굵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리적으로 산속의 도로의 끝부분인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옥의 배치는 평지가 아닌 산의 중턱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지형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다. 안채와 별채, 바깥채와 행랑채가 경사지에 배치되어 있다.

안채의 구성은 건넌방 + 대청 + 안방 + 부엌의 4자형의 구성이고, 구조는 1고주 5량의 홀처마 우진각 지붕이다. 건넌방은 벽감이 있고, 현재는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부엌에는 살판이 있고, 초석과 기단은 자연석으로 되어 있어 원형의 형태를 많이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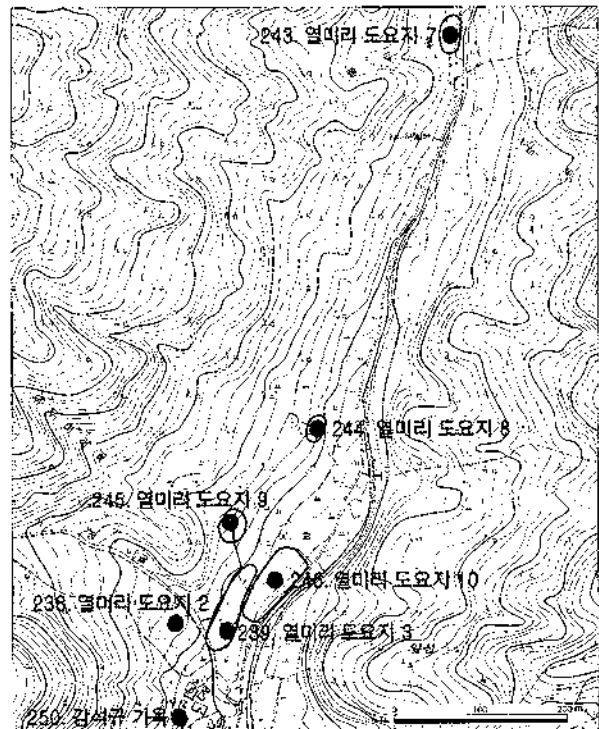
별채는 부엌 + 방 + 광의 2자형으로, 삼량의 홀처마 우진각 지붕으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양봉을 하는데에 사용되고 있다.

이순이 할머니(76세)이 시집오셔서 처음에는 이곳에서 생활하셨다고 한다.

바깥채는 외양간 + 대문 + 방 + 방의 2자형 형태이고, 삼량의 우진각 지붕이다. 바깥채 아래 부분에 행랑채가 위치하고 있다.

▶ 지도번호 : 광주191-3

237~246. 悅美里 陶窯址 1~10號



지도 59. 열미리 도요지 위치도(이천 055)



사진 178. 열미리 도요지 3호 전경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굵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병, 합/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추정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2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가장골 (139)	田	광주 191-3	×	
3호	16세기	●백자/대접, 접시, 향아리/연회백, 담청백, 설백색/죽절굽,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집, 모래받침/유각명문●요도구/도침, 원반형받침	충열미 (121,133)	田	노곡 191-1	○	
4호		한국의 백자도요지,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음	비확인		노곡 191-1	×	
5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합, 뚜껑, 향아리/설백, 연회백, 담청백색/도립삼각형굽,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집/꽃문각명문●요도구/잡발, 감발뚜껑, 도침, 원반형받침	너덕골 (48,25-1, 65-1,2)	田·林	광주 191-3	○	
6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설백, 연회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요도구/원반형받침	넋골 (64-1)	田·林	광주 191-3	○	
7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향아리/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풀무골 (120-1)	林·田	노곡 191-1	×	
8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설백, 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요도구/원반형받침	우두머리골 (125-8)	林	노곡 191-1	×	
9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향아리, 병/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집, 모래받침●요도구/원반형받침	우두머리골 (122)	田	노곡 191-1	×	
10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꽃들 (119-1,2)	田	노곡 191-1	○	

247. 下悅美里 느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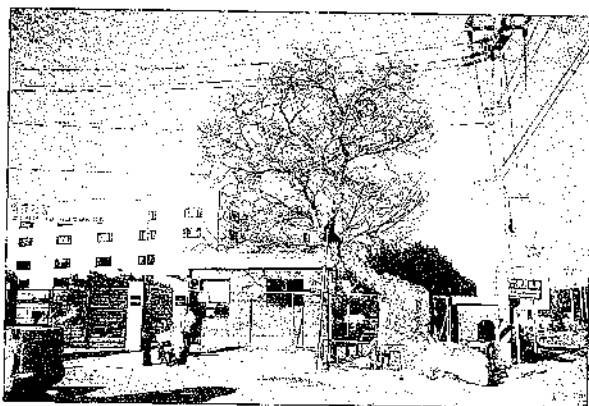


사진 179. 하열미리 느티나무 전경

□ 소재지 : 실촌면 하열미리 486-1 (지도57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하열미리 마을 입구의 도로변 우측에 위치한다. 느티나무의 수령 550년, 나무키 16m, 나무둘레 5.9m이다. 남향으로 뻗은 큰 줄기가 말라 죽어 1993년 10월 외과수술을 받았다. 세조대에 영의정을 역임한 具致寬(1406-1470)이 마을 뒷산에 아버지의 묘소를 조성한 후 이 나무를 심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지정번호 : 경기광주 57

▶ 참고문헌 : 『광주군지』, 1990, 광주군

248. 具德會 孝子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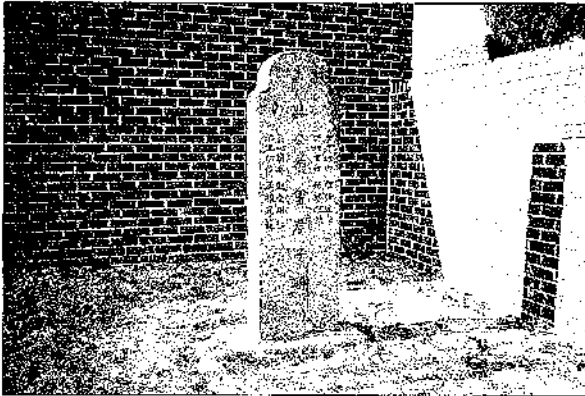


사진 180. 구덕회 효자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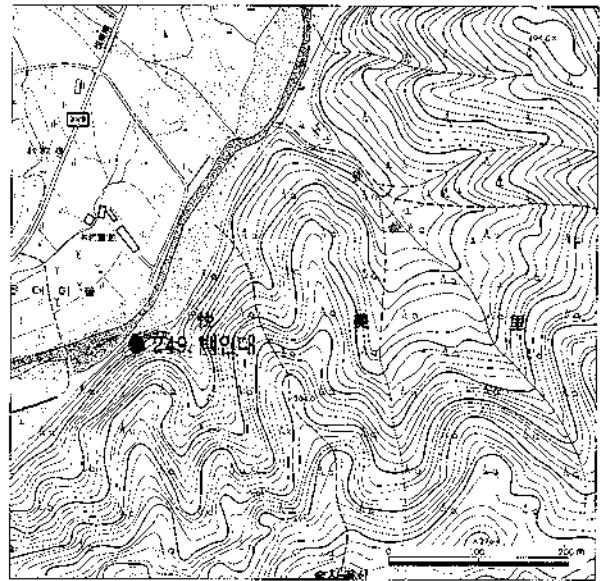
- 소재지 : 실촌면 열미리 467-4전(지도57 참조)
- 시 대 : 근대
- 종 류 : 효자비
- 내 용

곤지암에서 양평방향으로 가다가 열미교를 지나면 좌측으로 최근 건립한 구치관신도비가 나타난다. 효자비는 신도비의 우측에 자리잡고 있으며, 도로 건너편에는 보호수 느티나무가 위치하고 있다. 구덕회는 양부모를 평생토록 지성껏 모셨으며 돌아가신후에도 3년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고 전한다. 실촌면 주민들이 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이 효자비를 세웠다. 앞면에는 '具德會孝子碑'라고 큰 글씨로 썼으며 우측에는 '庚午三月日 實村面一同'이라 새겨 놓았다. 경오년은 1930년에 해당하며 비석 받침이 거의 흠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이다. 효자비의 현재 총높이는 143c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참고문헌 : 『廣州鄕土史料集』1, 1997, 광주문화원

249. 百仞臺



지도 60. 백인대 위치도(이천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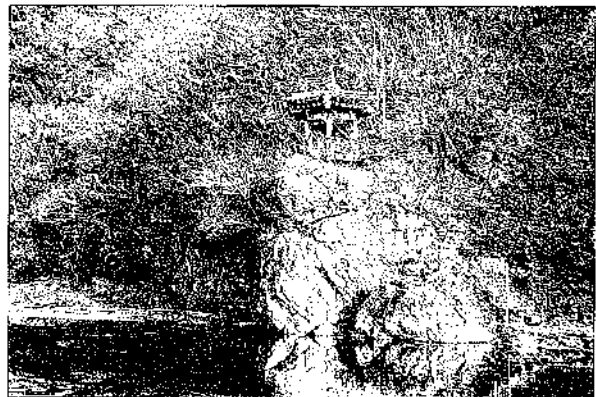


사진 181. 백인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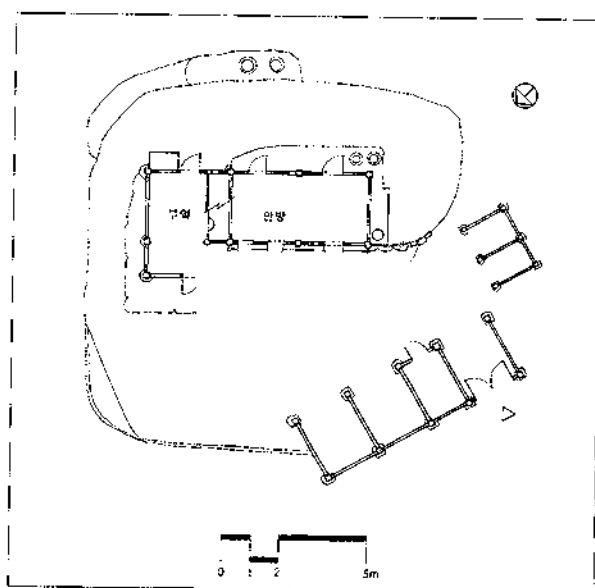
- 소재지 : 실촌면 열미리 산174
- 시 대 : 현대
- 종 류 : 기타유적
- 내 용

은대미들의 남쪽으로 흐르는 곤지암천변에 위치한다. 百仞臺는 송시열이 충청도에서 상경할 때 그의 문인들과 함께 반드시 둘러 이 지역 출신의 제자인 具文榮(1636-1693)과 더불어 經學講論하고 詩文和答을 나누던 곳이다. 봄에는 백화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수 놓은 것 같으며 麓 아래로는 맑은 물이 유유히

홀려 옛부터 근세까지 봄, 여름, 가을에 詩會와 천렵이 끊이지 않던 명승지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구문찬의 후손들이 臺 위에 1937년 六角亭을 지었으나 오랜 세월과 병화로 인해 훼손되었는데, 1996년에 다시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자 안에는 '百仞臺建築記'와 '百仞臺亭子重建記'가 안치되어 있으며 치마 밑에는 '百仞臺' 현판이 걸려 있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참고문헌 :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도면 29. 강석규 가옥 평면도

250. 강석규 가옥



사진 182. 강석규 가옥

□ 소재지 : 실촌면 열미리 144번지

□ 시 대 : 근대

□ 종 류 : 고가

□ 내 용

마을 제일 위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을 뒤로 하고 마을을 내려보는 배치이다.

반자가 대어져 있어 상량 확인은 안되나, 거주자(81세)가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점과 가구의 상태로 보아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가옥으로 보인다. 가옥의 상태는 10년전에 벽일부를 시멘트로 보수한 것을 빼고는 거의 보수한 곳이 없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가옥은 전체적으로 안채와 바깥채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채앞의 바깥채는 6·25 당시 무너진 것을 다시 동일 규모로 지은 것이다.

안채는 부엌 + 안방의 ㅡ자형 형태로, 이 지역에서 많지 않은 전면 3칸, 측면 1칸반의 ㅡ자형 가옥이다. 구조는 1고주 4량의 홑처마 우진각 지붕이다. 예전에는 초가지붕이었다고 하나 현재는 슬레이트 지붕이다.

부엌에는 살판이 있고, 초석과 기단은 자연석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처리했다.

▶ 지도번호 : 노곡191-1

251. 宋駟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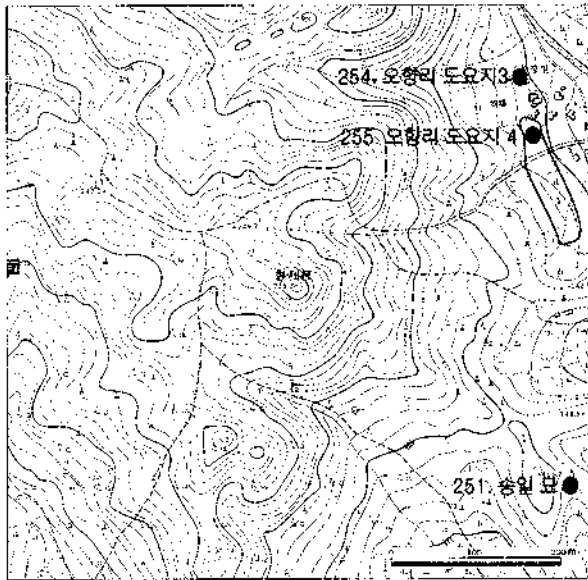
□ 소재지 : 실촌면 상오향리 산46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宋駟(1557-1640)은 仁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礪



지도 61. 송일 묘 위치도(이전 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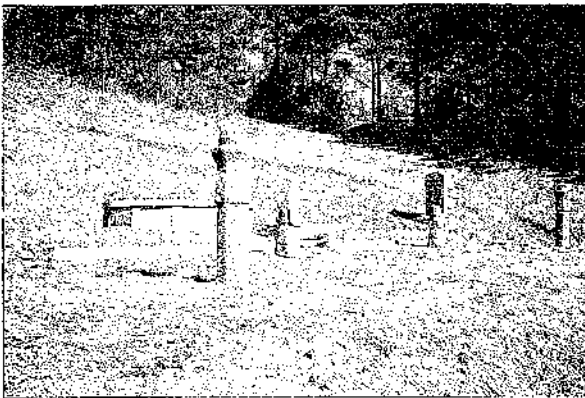


사진 183. 송일 묘 전경

山, 자는 德甫, 호는 作鶴翁 또는 石谷이며 군수를 지낸 承禧(1538-1592)의 아들이다. 光海君代에 상소를 올려 권신 李爾瞻을 탄핵한뒤, 벼슬을 버리고 利川의 牛谷里로 낙향하였다. 1596년(선조29) 副率로써 문과에 등과하고 사헌부집의를 제수 받았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나이 80세에 지중추부사를 역임하고 耆老所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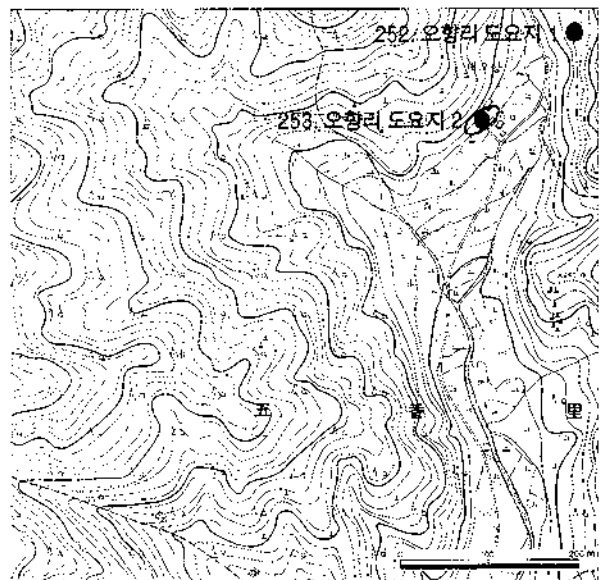
묘소는 박촌말 서쪽의 형제봉 산자락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새로 단장한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동자석(높이 96cm)의 옛 석물을 갖추었으며 묘역 우측에 묘표를 건립하였다.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40cm)는 1709년(숙종 35, 葬後69

年)에 曾孫인 江原監司 廷奎가 立石 謹識하였다. 비신(높이 118cm, 폭 53cm, 두께 25cm)의 앞면에는 '知中樞府事 贈左贊成宋公駟之墓 貞敬夫人文化柳氏'라고 써 놓아 피장자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참고문헌 : 『礪山宋氏大同譜』, 1989, 回想社

252~257. 五香里 陶窯址 1~6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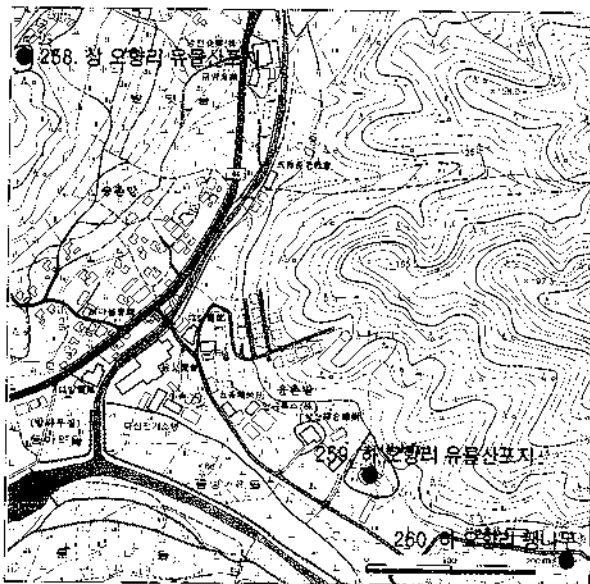
지도 62. 오향리 도요지 위치도(이전 055)



사진 184. 오향리 도요지 4호 전경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굵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추정		노곡 191-1	×	1986년의 조사내용임
2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담청백, 회백색/오목굽, 죽절 굽/굵은모래받침, 태토비집	내오향 (34-3)	堡地林	노곡 191-1	×	
3호	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유백, 연회백색/직립형굽, 안굽/굵은 모래받침 / 유각명문	목장말 (222)	田	노곡 191-1	×	
4호	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합/유백색/직립형굽/굵은모래받침	목장말 (321)	田	노곡 191-1	○	
5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담청백, 연회백, 회백색/죽절굽/태토 비집	추정		이천 191-2	×	1986년의 조사내용임
6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담청백, 연회백색/죽절굽/태토비집	학골 (136-2)	田·峯	이천 191-2	×	

258. 上五香里 遺物散布址



지도 63. 상오향리 유물산포지 위치도(이천 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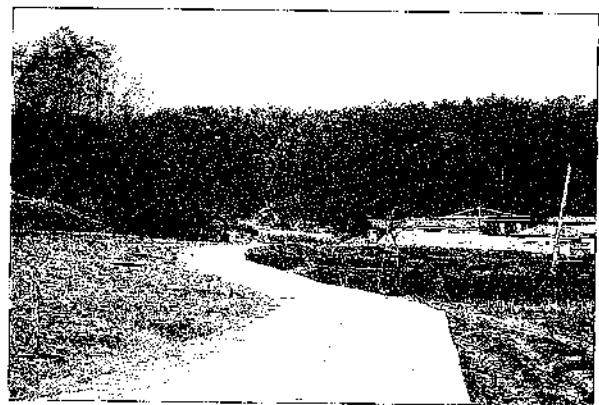


사진 185. 상오향리 유물산포지 전경

상오향리에는 1999년 이곳의 주민들이 세운 제실이 있다. 산포지는 제실 뒤쪽으로 약 150m정도 떨어진 309번지 민가주변 밭에 소재지하고 있다. 이 일대를 한 그네라고 하며, 동쪽으로는 밭뒷들이라 하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산포지의 오른쪽 산 중턱에는 조선시대 지중추부사를 지낸 송일의 묘소가 있다. 수습된 유물은 무문토기, 그물추, 인화문토기, 자기편들로 다수가 수습되었다.

(2) 채집 유물

① 무문토기편(사진 186, 도면 30-①)

- 소재지 : 실촌면 상오향리 309번지 일대
- 시 대 : 통일신라시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 (1) 위치와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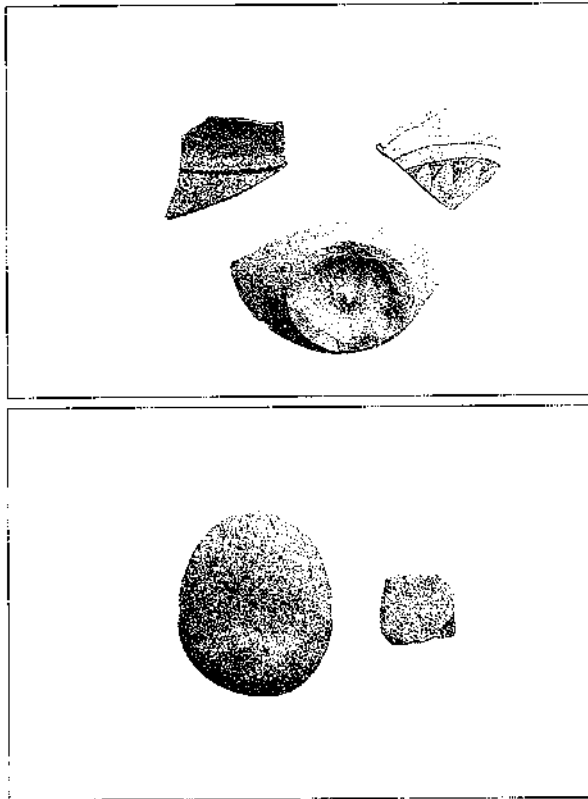


사진 186. 상오항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몸체편으로 일부 물손질로 정면한 모습이 보인다. 내면에는 흠이 파여져 있고, 태토는 점토질에 석영·운모·장석등이 혼입되었다. 잔존길이 3.4cm, 너비 3.2cm, 두께 0.5cm

② 어망추(사진 186, 도면 30-②)

둥근 강자갈돌을 이용, 양옆을 떼어 만든 어망추로 단면은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길이 8.5cm, 너비 6.5cm

③ 인화문토기편(사진 186, 도면 30-③)

파손으로 전체기형을 알 수는 없으나, 뚜껑 편으로 보인다. 외벽에는 연결고리모양의 인화문이 시문되었으며, 내면에는 물레 흔이 남아있다. 회색의 경질이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에 일부 사립질이 혼입되었다. 높이 5.4cm 두께 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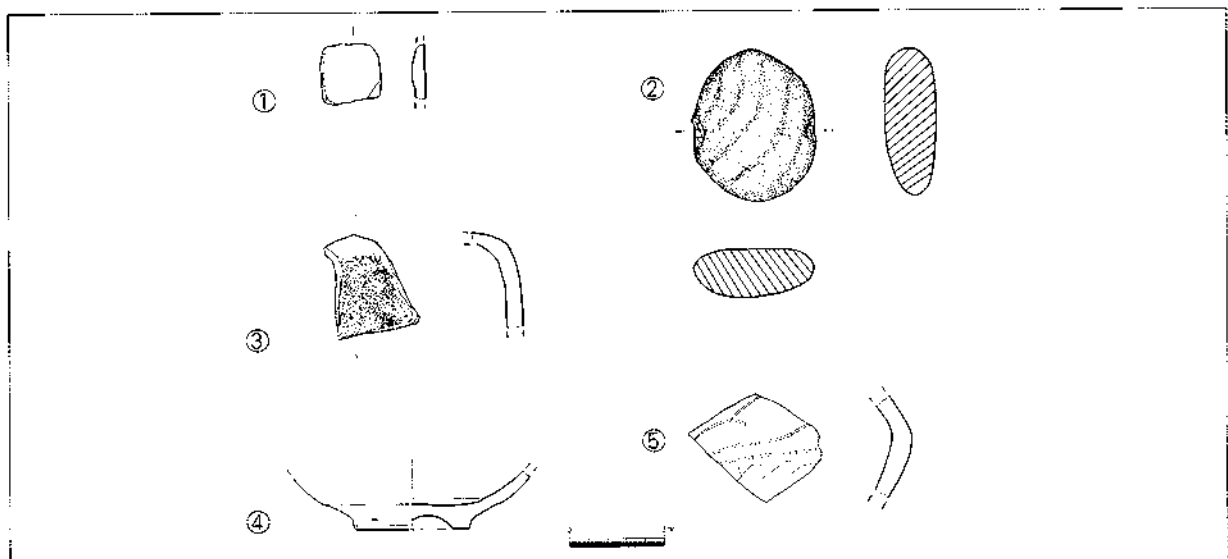
④ 분청사기편(사진 186, 도면 30-④)

일부 동체편으로 외벽에는 박지와 음각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였으나 파손으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담청색을 시유하였으며, 내면에 일부 빙렬의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5.7cm, 두께 1.1cm

⑤ 백자 저부편(사진 186, 도면 30-⑤)

넓은 수직굽으로 접지면 일부가 파손되어 있다. 내지에는 원각을 이루고 그 안으로 내화토 받침흔이 남아있다. 회백색 유를 굽과 그 주위를 제외하고 사유하였으나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다. 높이 3.3cm, 추정굽지름 6.0cm

▶ 지도번호 : 노곡 191-1



도면 30. 상오항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259. 下五香里 遺物散布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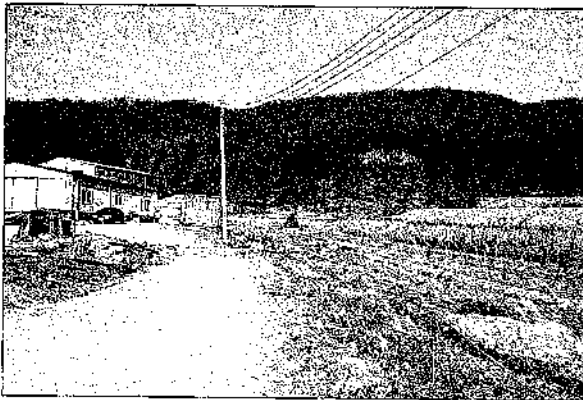


사진 187. 하오향리 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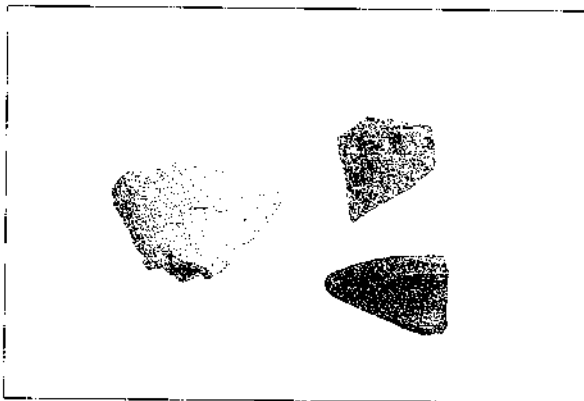


사진 188. 하오향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 소재지 : 실촌면 하오향리 54번지 일대(지도63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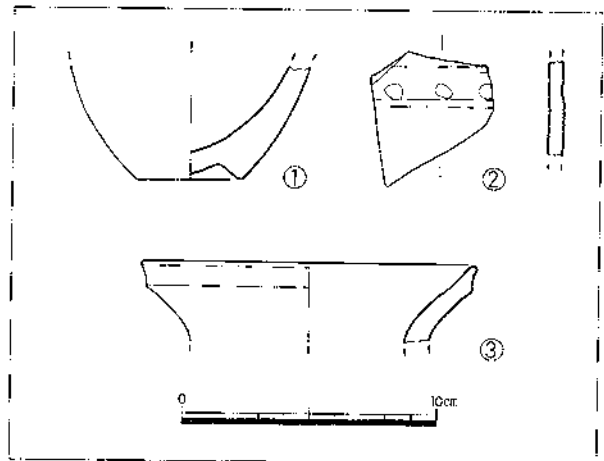
(1) 위치와 현상

하오향리에서 부향리 가는 길로 약 400m지점 좌측에 민가가 있다. 이곳을 성낭댕이라고도 부르며, 앞쪽으로는 곧지암천이 흐르고 있다. 유물은 민가주변 밭에서 산포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의 자기와 질그릇편이 수습되고 있다.

(2) 채집 유물

① 백자편(사진 188, 도면 31-①)

안감을 지닌 백자편으로 굽 접지면은 좁게 처리되어



도면 31. 하오향리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모래를 받친 흔적이 남아있다. 문양은 없으며 회백색 투명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높이 4.7cm, 추정굽지름 4.2cm

② 회갈색 경질토기편(사진 188, 도면 31-②)

동체편으로 외벽에는 2조의 음각선과 그안에 손으로 눌러 문양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일부 타날문이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에 일부 사립질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길이 3.2cm, 두께 0.5cm

③ 흑갈색 토기편(사진 188, 도면 31-③)

구연부로 반구형을 띠고 있다. 문양은 없으며, 전면에 물레흔이 조밀하게 나타나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에 일부 사립질이 혼입되어 있다. 높이 3.2cm 추정구연지름 13.0cm

▶ 지도번호 : 노곡 191-1

260. 下五香里 팽나무

- 소재지 : 실촌면 하오향리 답36-1(지도63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본 보호수는 실촌면 하오향리 답36-1에 위치해 있



사진 189. 하오항리 팽나무 전경

다. 나무의 나이는 410년이며 품격은 군나무. 나무종류는 팽나무이다.

보호수와 키는 12m, 둘레는 3.2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지정번호 : 경기광주59

261~268. 柳寺里 陶窯址 1~8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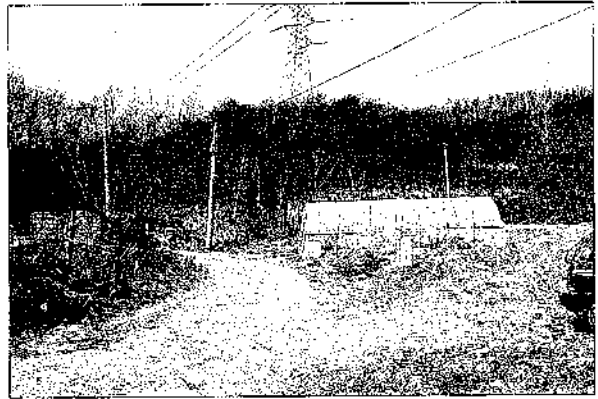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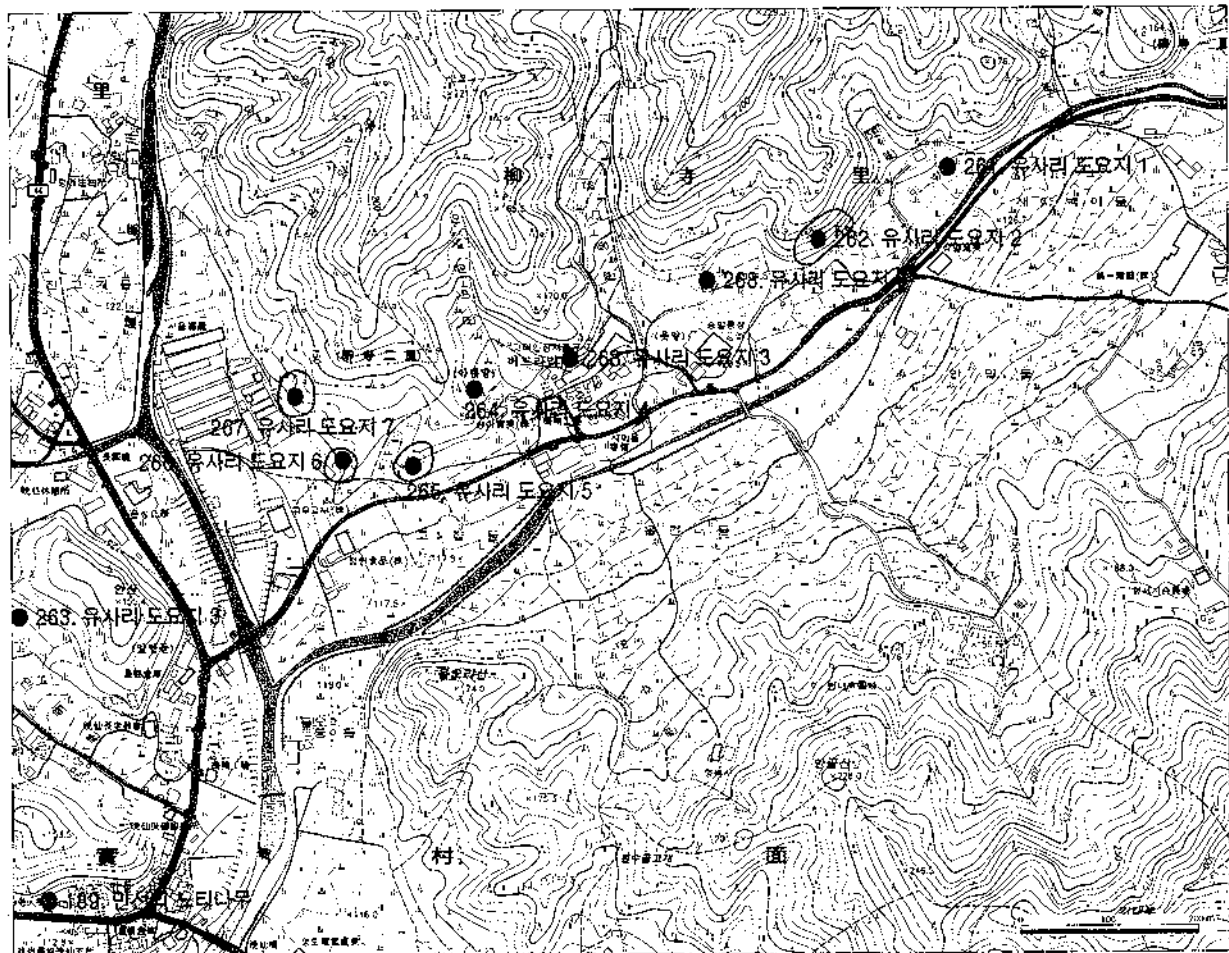


사진 190. 유사리 도요지 5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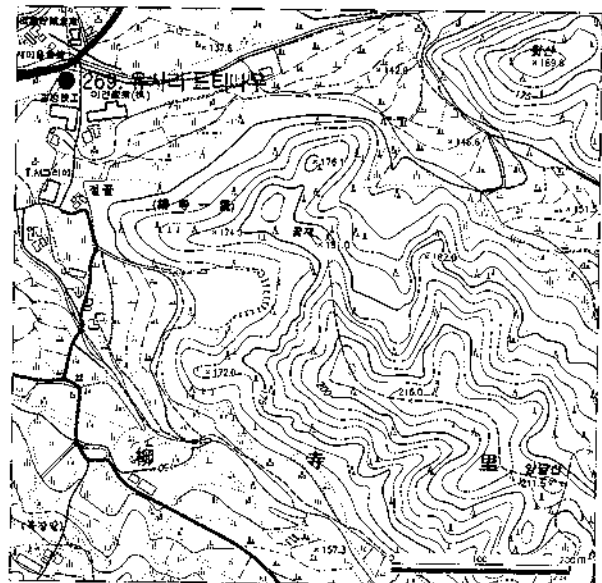
지도 64. 유사리 도요지 위치도(이천 057)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굵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유백, 연회백, 회백색/직립형굽, 오목굽/굵은모래받침	뒷골	空地林	이천 191-2	×	
2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잔, 항아리/유백, 연회백, 회백색/직립형굽, 오목굽/굵은모래받침●요도구/갑발	뒷골	田·林	이천 191-2	×	
3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잔, 항아리, 편병/유백, 연회백, 회청색/직립형굽, 안굽, 해무리형굽/굵은모래받침/无辛丑, 行辛丑동유각명문●요도구/갑발	비드라리 (365-3, 366, 367, 368)	고場	이천 191-2	○	
4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색, 회백색/직립형굽, 오목굽/굵은모래받침	아랫말 (364-1)	田	이천 191-2	×	
5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회백색/오목굽, 직립형굽/굵은모래받침	아랫말 (65-2, 65-6)	林	이천 191-2	○	
6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회백색/오목굽, 직립형굽/굵은모래받침	서울축산 (349)	田	이천 191-2	×	
7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회백색/오목굽/굵은모래받침	서울축산 (65-3)	墓·林	이천 191-2	×	
8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항아리/유백, 연회백, 회백색/직립형굽, 오목굽/굵은모래받침	웃말 (464)	田	이천 191-2	○	

269. 柳寺里 느티나무



사진 191. 유사리 느티나무 전경



지도 65. 유사리 느티나무 위치도(이천 058)

- 소재지 : 실촌면 유사리 전268-2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본 보호수는 실촌면 유사리 전268-2번지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나이는 420년이며 구분은 정자목, 나무종

류는 느티나무이다.

보호수의 키는 18m, 둘레는 4.6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지정번호 : 경기광주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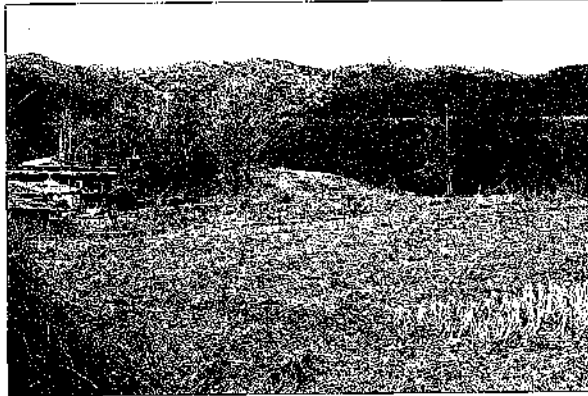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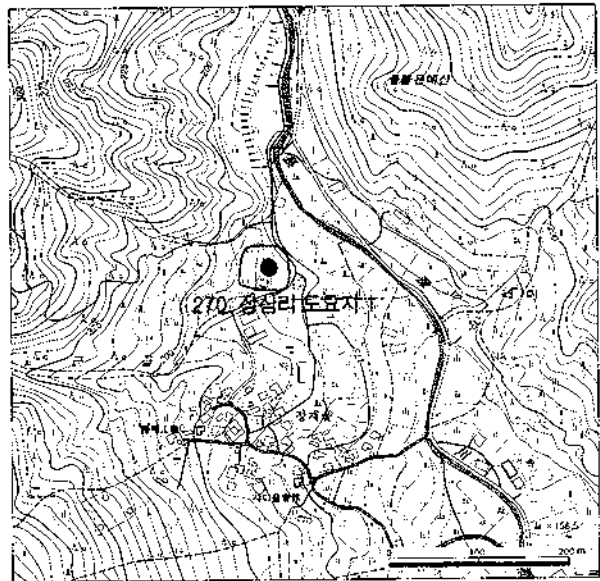


사진 192. 장심리 도요지 전경



지도 66. 장심리 도요지 위치도(이전 046)

270. 長深里 陶窯址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굽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당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큰골 (74)	III	양평 190-2	x	

오 포 면

271. 高山里 無文土器散布址

- 소재지 : 오폐면 고산리 산4-1임 일대 (지도10 참조)
- 시 대 : 청동기시대
- 종 류 : 선사유적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이곳은 오폐면과 광주읍의 경계되는 지점으로 고산리 허산동이다. 43번 지방국도와 45번 국도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이곳의 북쪽 산(해발 145.9m) 사면에서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유물은 용인쪽에서 하남시 쪽으로 가는 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드러난 단면에서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무문토기 편들로 많은 양은 아니나 넓은 범위에 걸쳐서 발견되고 있다. 이곳에 대단위 취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에도 이곳에는 각종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상태로 있어 주의와 관심이 요망되는 지역이다.

(2) 채집 유물

- ① · ② 무문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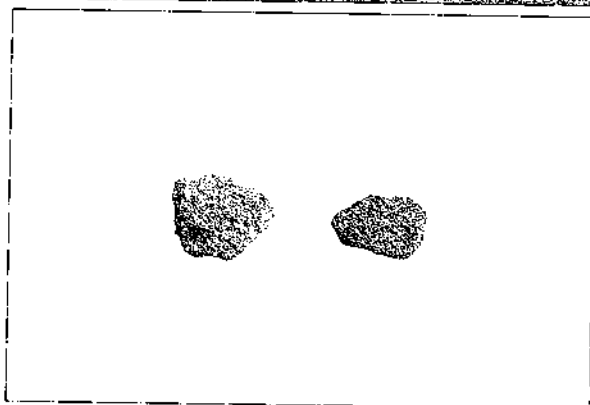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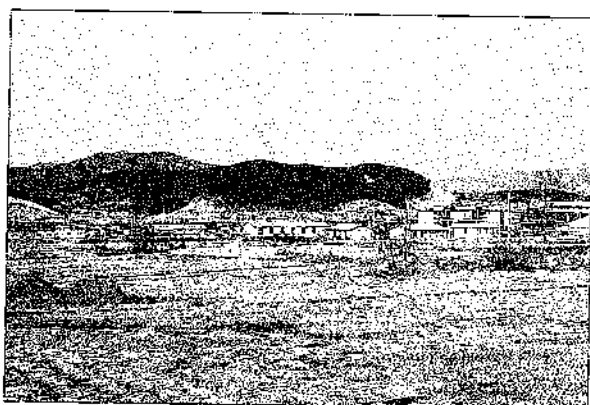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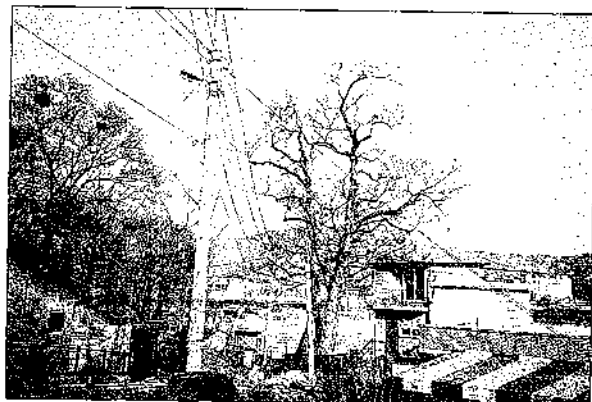


사진 193. (上) 고산리 무문토기 산포지 전경(下)고산리 채집 무문토기편

모두 무문토기 몸체편으로 내·외벽에 일부 물손질로 정면한 모습이 보인다. 태토는 점토질에 석영·운모 등이 혼입되었다. 길이 1.9~2.5cm, 두께 0.5~0.6cm

▶ 지도번호 : 성남 190-4

272. 高山里 느티나무 1



194. 고산리 느티나무 1 전경

□ 소재지 : 오포면 고산1리 대22(지도10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소로의 좌측에 위치한다. 느티나무의 수령 210년, 나무키 15m, 나무둘레 3.3m이다. 1983년 3월 10일 편나무로 지정되었으며 외과수술을 받았다. 보호수 가까이 전봇대를 세워놓아 경관이 좋지 못하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지정번호 : 경기광주46

273. 高山里 느티나무 2



사진 195. 고산리 느티나무 2 전경

□ 소재지 : 오포면 고산1리 대22(지도8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소로의 좌측에 위치한다. 느티나무의 수령 210년, 나무키 15m, 나무둘레 3.3m이다. 1983년 3월 10일 편나무로 지정되었으

며 외과수술을 받았다. 보호수 가까이 전봇대를 세워
놓아 경관이 좋지 못하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지정번호 : 경기광주46

274. 金樞 墓와 神道碑



사진 196. 김균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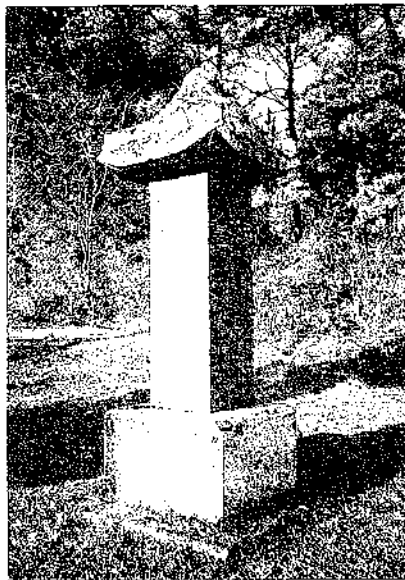


사진 197. 김균 신도비

□ 소재지 : 오폐면 능평1리 산89-1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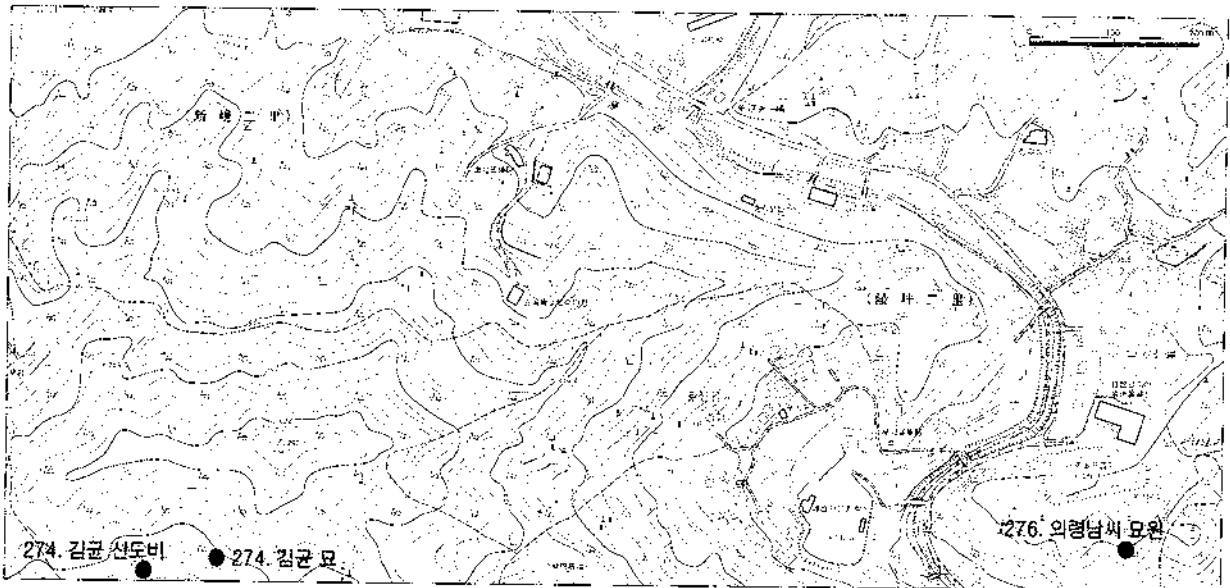
金樞(?~1398)은 太祖代의 문신이며 贈贊化功臣 智允의 아들이다. 恭讓王초에 蜜直副使를 지냈으며 조선 개국에 참가하여 개국공신 3등에 녹훈되고 鷄林府院君에 봉해졌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의정부좌 찬성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齊肅이다.

수레실 마을의 새빛전원교회에서 우측으로 난 소로를 따라 올라가면 최근에 조성한 전원마을이 나타난다. 묘소는 마을 뒷편 산자락에 南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균 묘소는 오래도록 失傳되었다가 1799년(정조23)에 13대손인 思穆(1740~1829)이 廣州留守로 있을 때 故老들에게 수소문하여 다시 찾고 묘역을 改築하였다.

묘역은 上下墳으로 조성하고 봉분마다 방형의 호석을 둘렀으며 묘역 주위에는 곡장을 쌓아 묘소를 보호하고 있다. 망주석 1쌍과 문인석 2쌍의 옛 석물이 있으며 장명등과 양석은 최근에 추가로 설치하였다. 봉분 좌측에 세워져 있는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47cm)는 비신(높이 120cm, 폭 54cm, 두께 13.5cm)의 위쪽이 아래쪽보다 넓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 비신의 前面大字는 '朝鮮開國功臣雞林君金公樞之墓'라 써 놓았으며, 뒷면의 음기에 17대손 敦德이 監董하고 從孫 判中樞府事 弘集(1842~1896)이 입석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묘소의 동쪽 약 50m 거리에 신도비(총높이 307cm)가 건립되어 있다. 사모지붕 형태의 옥개석과 無紋의 방부를 갖추었으며 정방형의 비신(높이 165cm, 폭 54cm, 두께 53cm)에 四面刻字하였다. 비제를 純忠奮義 佐命開國功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雞林府院君贈諡齊肅金公神道碑銘并序'라 하고 전액을 '朝鮮開國功臣雞林府院君齊肅金公神道碑銘'이라 올려 신도비임을 알 수 있다. 비문은 成均館祭酒 德恩 宋秉璫이(1836~1905) 撰하였으며 判敦寧院事 海平 尹用求(1853~1939)가 곁하고 前秘書院丞 安東 金南漢이 篆하였다. 건립 연대는 '504年乙巳季春立'이니 1905년(광무 30)에 해당한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지도 67. 김군 묘와 신도비 위치도(수원 057)

- ▶ 비 고 : 경기도기념물 제 105호
- ▶ 참고문헌 : 『慶州金氏鷄林君派大同譜』, 1971, 回想社
- 『京畿金石大觀』4, 1990, 경기도
- 『광주군문화유적현황』, 1996, 광주군
- 『경기문화재대관』 -도지정편-, 1998, 경기도
-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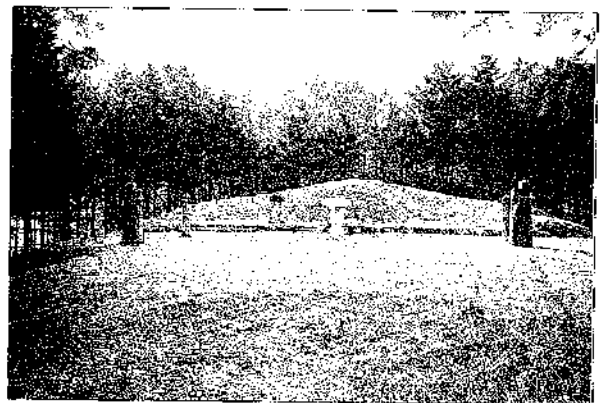


사진 198. 낙안군 이말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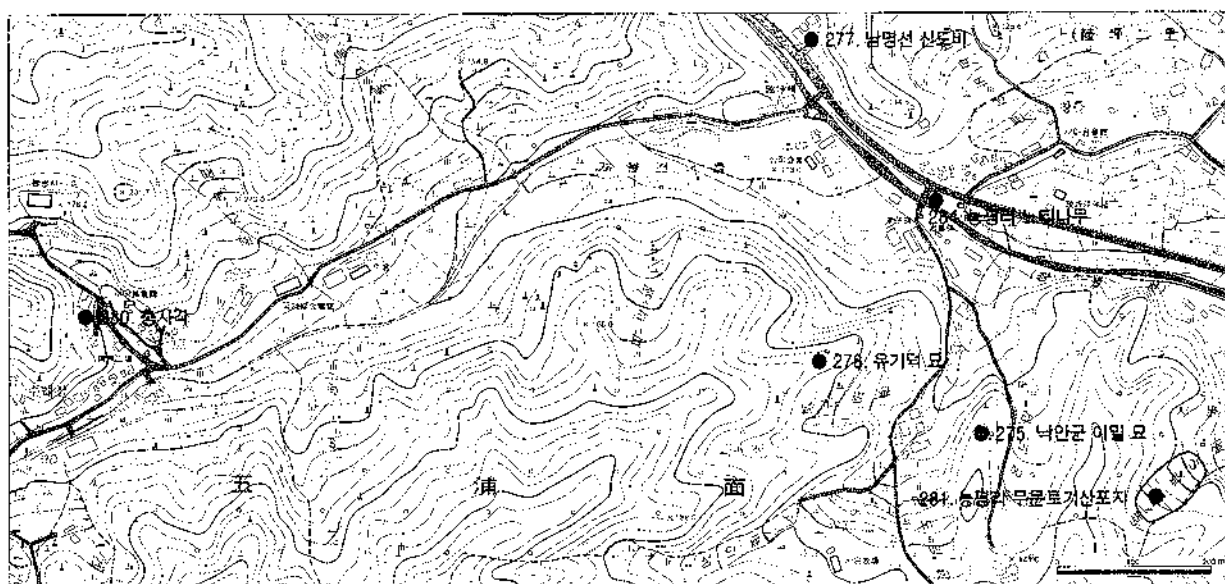
275. 樂安君 李 寧 墓

- 소재지 : 오폐면 능평2리 산129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樂安君 李寧(1417~1474)은 成宗代의 인물로 자는 士安이고 孝寧大君(1396~1486)의 네째 아들이며 軍資監主簿 金仲行의 사위이다. 從一品 嘉德大夫

에 올랐으며 시호는 夷安이다.

묘소는 작은도망골의 서쪽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초장지는 果川 明達里에 있었으나 1968년 현재의 장소로 이장하였다. 묘역에는 성종대초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인석(높이 176cm)과 방부하엽 양식의 묘표(총높이 144cm)가 건립되어 있다. 묘표 전면에는 '嘉德大夫樂安君贈諡夷安公寧之墓 梁山郡夫人彥陽金氏之墓'라 새겨 놓았다. 陰記에 의하면 낙안군의 葬日은 '成化10年甲午(1474, 성종5)7月27日葬'이고 부인의 葬日은 '弘治4年辛亥(1491, 성종22)8月26日葬'이다. 음기의 撰書者는 미상이다. 묘역 아래 능



지도 68. 낙안군 이밀 묘 위치도(수원 067)

평교 옆에는 1968년에 조성한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참고문헌 : 李載完 撰, 『孝寧大君神道碑銘并序』

276. 宜寧南氏 墓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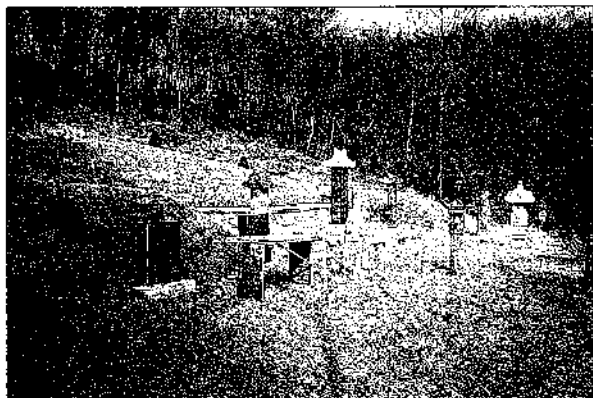


사진 199. 의령남씨 묘원 전경

□ 소재지 : 오포면 능평리 산54-12(지도67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조선시대부터 광주군 중부면 炭里에는 宜寧南氏의 대규묘 선산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 성남 시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수십만평의 宗山과 位土가 연차적으로 수용되자 선대 묘소 800여기를 이장 또는 화장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각 派別로 적당한 吉地를 물색하여 이장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秉節校尉 世則을 파조로 하는 교위공파도 현재의 장소로 이장지를 정하고, 1981년에 묘원을 조성하였다.

능골삼거리에서 57번 도로를 타고 성남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능평교를 지나면 우측으로 대진가구상설할인 매장이 나타난다. 묘원은 매장 뒤 약 500m 거리의 산사면에 자리잡고 있다. 묘원에는 파조인 秉節校尉 世則을 비롯하여, 양아들 卍司直 應井(1522-1577), 손자 秉節校尉 挺芝(1552-1598), 증손 副司果 以吉(1577-1623), 이길의 양아들 宗廟審令 斗樞(1605-1682), 두추의 아들 左承旨 淵(1650-1728), 후손 漢城府右尹 命善(1846-1917), 애국지사 柱元 등의 유골이 모셔져 있다. 또한 옛 묘역에 설치되어 있던 碑碣과 석물도 함께 옮겨와 진설해 놓았는데, 이중 중요한

비갈의 撰書者와 건립 연대를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南應井墓表 : 玄孫 淵 謹書識, 崇禎紀元後再乙巳(1725, 영조1)

○南挺芝墓表 : 淵 書識, 崇禎紀元周甲後丁酉9月(1717, 숙종43)

○南以吉墓表 : 孫 淵 識, 曾孫 徽(1671-1732) 書, 崇禎紀元後91年戊戌8月(1718, 숙종44)

○南斗樞墓表 : 男 前行世子翊衛司衛率 淵 識, 孫 前義禁府都事 徽 書, 崇禎紀元後100年 丁未9月(1727, 영조3)

○南淵墓碣 : 族孫 輔國崇祿大夫行吏曹判書 泰齊(1699-1776) 撰, 嘉義大夫戶曹參判 曹允亨(1725-1799) 書并篆, 追記 玄孫 命烈(1779-1847) 識, 集 顔眞卿 書, 崇禎甲申後丁未(1847, 헌종13) 月 日建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참고문헌 : 『南氏大同譜』, 1979

277. 南命善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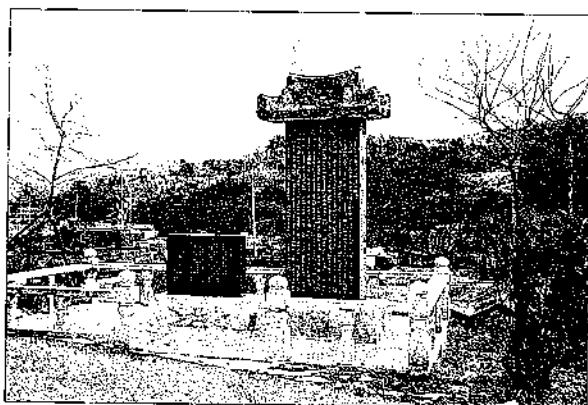


사진 200. 남명선 신도비 전경

□ 소재지 : 오포면 능평리 대340-4(지도68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南命善(1846-1917)은 高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宜寧이고 호는 玄潭이다. 군수를 지낸 正倫의 아들이나 贈參判 正應에게 입양되었다. 관직은 黃海水使와 江界府使를 거쳐 漢城府右尹에 이르렀다.

신도비(총높이 약 302cm)는 의령남씨 묘원으로 오르는 길 옆의 대진가구상설할인매장 주차장 옆에 자리잡고 있다.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사성리에 있었던 남명선의 묘소가 1995년 현재의 묘원이 있는 장소로 이장되자 신도비도 함께 移建하였다. 신도비는 방부개석의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비신(높이 207cm, 폭 85cm, 두께 36cm)은 烏石을 사용하였다. 碑題를 '嘉義大夫漢城府右尹南公神道碑銘并序'라 하고 전액을 '朝鮮國嘉義大夫漢城府右尹南公神道碑銘'이라 하여 신도비임을 알 수 있다. 비문은 前成均館大司成 安東 金福漢(1860-?)이 撰하고 前判敦寧院事 海平 尹用求(1853-1939)가 書并篆하였다. 입석 연대는 '檀君4254年 辛酉(1921)10月 日立'이다. 또한 신도비 좌측에는 1995년에 만든 豎記 표석이 세워져 있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참고문헌 : 『南氏大同譜』, 1979

278. 柳基德 墓

□ 소재지 : 오포면 능평2리 산124-1(지도68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柳基德(1842-1867)의 본관은 文化이며 자는 聖在이다. 壬辰倭亂原從勳 1等에 봉해진 夢周의 11세손이며 昌陵參奉을 지낸 寅植의 아버지이다.

능골삼거리에서 57번 도로를 타고 성남 방향으로 진



사진 201. 유기덕 묘 전경

행하다가 능평교를 건너면 사슴목장으로 올라가는 작은 소로가 놓여 있다. 묘소는 소로 우측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차일석, 방주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묘표의 건립 연대가 '壬戌(1922) 3月日'인 것을 감안하면, 석물도 이 때를 전후하여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물의 양식이 간결하고 단정하여 이 시기의 기준작으로 삼을만 하다.

방부개석 양식의 묘표(총높이 약 190cm)는 不肖男 參奉 寅植(1867-1948)이 述하고 4從孫 豊烈이 書하였으며 전액은 '文化柳公墓表'라 하였다. 비신(높

이 108cm, 폭 37cm, 두께 28cm)은 烏石이며 방부와 개석은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방부의 사면에는 장릉의 다리 부분에 설치되는 운각과 족통이 조각되어 있다. 또한 묘표 아래에는 地臺石을 설치하여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묘소 아래에는 아들 寅植의 묘소가 위치한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참고문헌 : 柳寅植 述, 『柳基德墓表陰記』

279. 李華朝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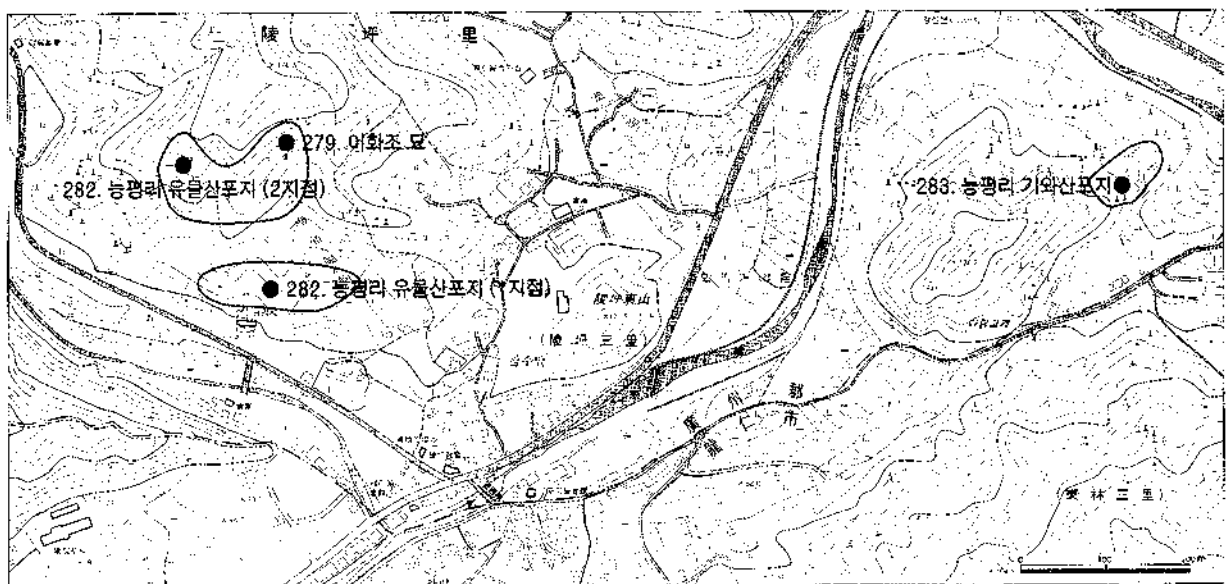
□ 소재지 : 오폐면 능평3리 산32-1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李華朝(1681-1719)는 肅宗代의 인물로 본관은 延安이고 자는 汝實이다. 文康公 石亨(1415-1477)의 7세손이자 贈戶曹參議 夏相의 아들이다. 아들 翼臣이 嘉義大父의 품계에 올라 戶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지도 69. 이화조 묘 위치도(수원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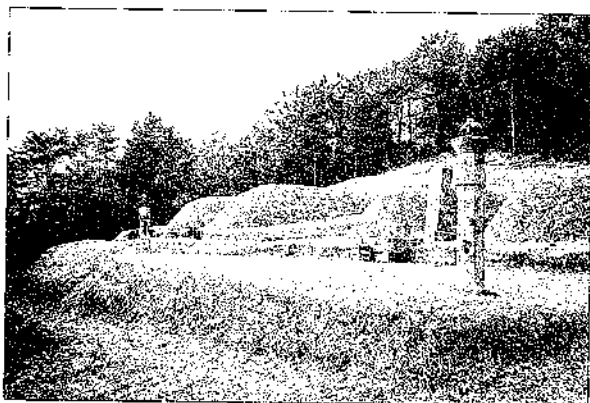


사진 202. 이화조 묘 전경

묘소는 옷두물골 뒤쪽에 있는 文暎山의 남쪽 줄기에 자리잡고 있으며 묘소 앞으로 분당-오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는데, 양식상 영조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봉분 앞으로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62cm)를 건립하였으며 비신(높이 135cm, 폭 48.5cm, 두께 23cm)의 전면에는 贈戶曹參判李公華朝之墓 貞夫人坡半尹氏 祔右'라고 단정한 해서로 써 놓았다. 뒷면의 음기는 아들 翼臣이 출하였으나 撰者는 기록하지 않았다. 건립 연대는 '崇禎紀元後3丁亥(1767, 영조43)3月 日立'이다.

묘소 좌측에는 아버지 相夏의 묘소가 위치한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참고문헌 : 『萬姓大同譜』, 1931

280. 忠祠閣

□ 소재지 : 오포면 능평1리 618(지도68 참조)

□ 시 대 : 현대

□ 종 류 : 사묘

□ 내 용

수레실마을내에 있는 襄武公 孫湜(1663-1736)의 사당이다. 손식은 본관이 慶州이며 鎭海縣監과 金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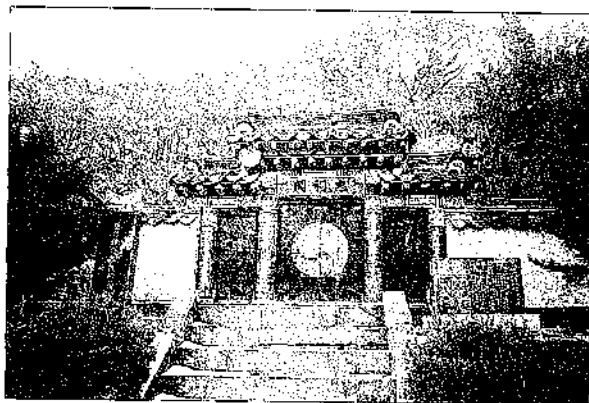


사진 203. 충사각 전경

鎭管兵馬節制都尉를 역임하였다. 사당의 三門 처마 밑에 忠祠閣이라는 현판이 걸려있으며 1953년에 개축 보수하였다. 총대지 면적 187평이며 건평은 12평이다. 사당앞으로 1984년에 세운 '慶州孫公益鉉功績碑'와 '慶州孫公襄武功臣忠祠閣建立碑'가 건립되어 있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참고문헌 : 『慶州鄉土史料集』2, 1998, 광주문화원

281. 陵坪里 無文土器散布址

□ 소재지 : 오포면 능평3리 산 132-2임 일대(지도68 참조)

□ 시 대 : 청동기시대

□ 종 류 : 선사유적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산포지는 능골 3거리에서 분당으로 가는 57번 국도로 약 700m정도 떨어진 동현마을의 왼쪽 산 골짜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유적의 앞쪽으로는 경안천의 지류인 창뜰천이 흐르고 있으며, 창성교회와 현대·기아자동차 출고센터가 있다. 이곳에는 근래에 조성된 약 3·400여평 정도의 포도밭이 있으며 유물은 이곳에서 수습되었다. 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으로 고압선의 철탑이 지나고 있다. 유물은 구순각목 공렬토기편과 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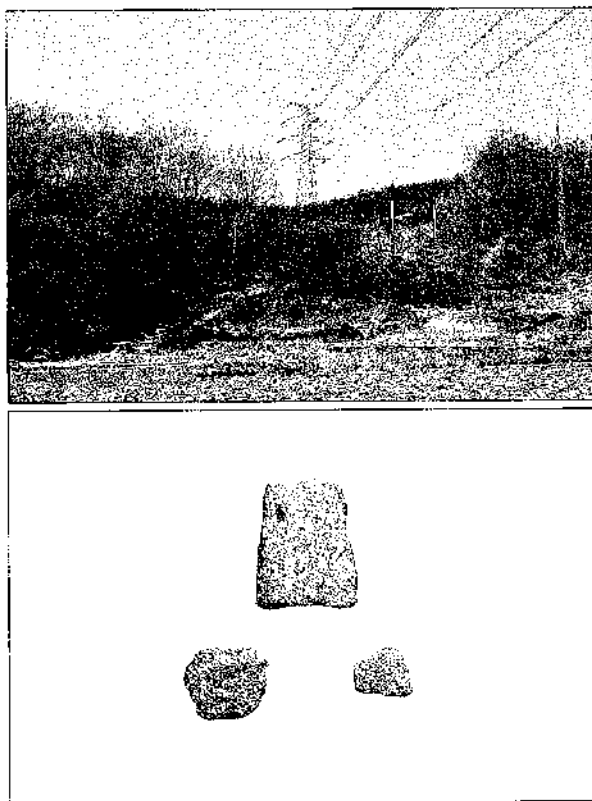


사진 204. (上)능평리 무문토기산포지 전경 (下)능평리 무문토기산포지 채집 유물

토기 몸체편으로, 포도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의 양은 많지 않지만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주거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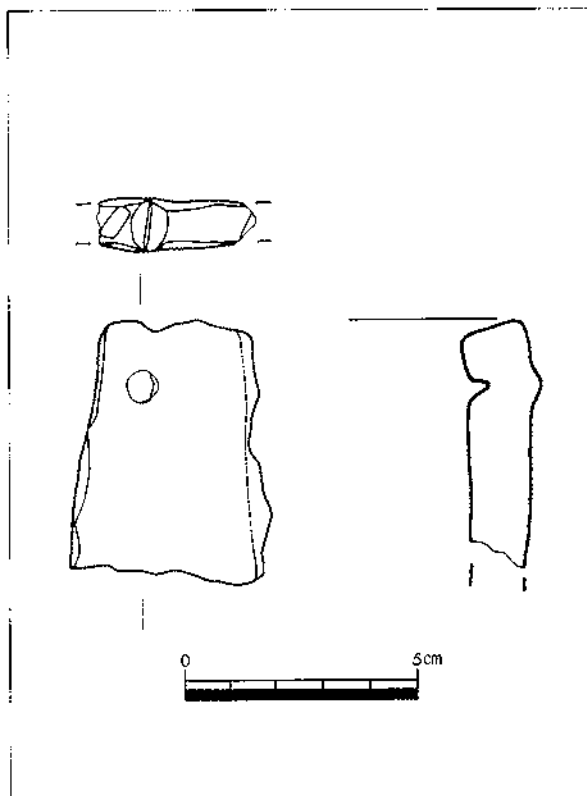
(2) 채집 유물

① 구순각목 공렬토기편(사진 204, 도면 32)

직립 구연부편으로, 외심과 내심은 적갈색이며 속심은 흑색을 띠고 있다. 외면에 일부 물손질로 정면한 모습에 보인다. 구순에는 두께 0.3cm의 각목이 새겨져 있으며, 구연 아래쪽으로 지름 0.4cm 정도의 구멍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반쯤 뚫려있어 외면은 약간 불룩하게 솟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로 석영과 운모등이 혼입되어 있다. 길이 5.6cm, 너비 4.0cm, 두께 1.2cm

②·③ 무문토기 몸체편(사진 204)

파손이 심한 몸체편으로 전체 기형을 추정할 수가 없다. 내·외심 모두 적갈색을 띠며, 태토는 점토질에 석



도면 32. 능평리 무문토기산포지 채집 유물

영과 운모등이 혼입되어 있다. 길이 3.1cm, 너비 3.3cm, 두께 0.6cm

▶ 지도번호 : 능평 190-2

282. 陵坪里 遺物散布址

1) 1 지점

- 소재지 : 능평3리 산73-16임(지도69 참조)
- 시 대 : 고려시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 산포지·추정 건물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능골 3거리에서 분당쪽으로 약 500m 떨어진 도로우측 언덕기슭에 소재지하고 있다. 유물산포지는 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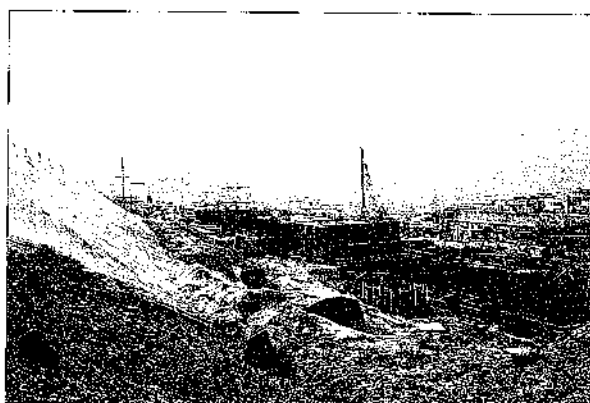


사진 205. 능평리 유물산포지 1지점 전경

광주말간 확장도로공사와 오포 베르빌A.P.T건설 공사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공사중에 고려시대 질그릇편들과 조선시대 백자·질그릇·기와편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2) 채집 유물

① 흑회색 경질토기편(사진 206, 도면 33-①)

구연과 몸체의 일부편으로, 구연부는 외반되어 있다. 목과 몸체의 경계부분에 2조의 음각선이 시문되어 있으며, 내면 몸체에도 타날흔이 남아있다. 내·외면 모두 물레흔이 뚜렷하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로 일부 석립질이 섞여 있다. 높이 8.4cm, 추정 구연지름 26cm

② 회흑색 경질토기편(사진 206, 도면 33-②)

구연부(口緣部)와 경부(頸部)만 일부 남아있다. 구연부는 외반되어 있으며, 목과 몸체의 경계에 1조의 돌대가 돌려져 있다. 다른 문양은 시문되어 있지 않다. 토기의 내·외면 모두에 물레흔이 조밀하게 돌려져 있으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에 일부 석립질이 섞여 있다. 높이 6.0cm, 추정 구연 지름 27cm

③ 흑회색 경질토기편(사진 206, 도면 33-③)

외반된 구연부편으로 문양은 시문되어 있지 않다. 내면에 물레흔이 남아있으며, 토기 전면에는 자연유가 착유되어 광택이 난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에 석립질이 혼입되어 있다. 높이 3.8cm, 추정 구연 지름 10.0cm

④ 백자 저부편(사진 206, 도면 33-④)



사진 206. 능평리 유물산포지 1지점 채집 유물

반파된 자기편으로 굽은 수직굽이다. 접지면은 얇게 처리하여 굽은 모래를 받쳐서 소성하였다. 내저에는 원각을 이루고 있으며, 문양은 시문되어 있지 않다. 회백색 투명유를 시유하여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태토는 잘 수비된 백토로 일부 잡물이 섞여 있다. 높이 5.0cm, 추정 굽지름 6.6cm, 굽 높이 1.2cm.

⑤ 회청색 경질토기편(사진 206, 도면 33-⑤)

평저의 토기편으로 저부와 몸체의 경계에 1조의 음각선이 시문되어 있다. 소성이 양호하여 내면에 일부 자연유가 착유되어 있다. 또한 내·외면 모두 조밀한 물레흔이 남아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에 일부 석립질이 섞여 있다. 높이 2.4cm, 바닥 지름 13.0cm

⑥ 수키와편(사진 206, 도면 33-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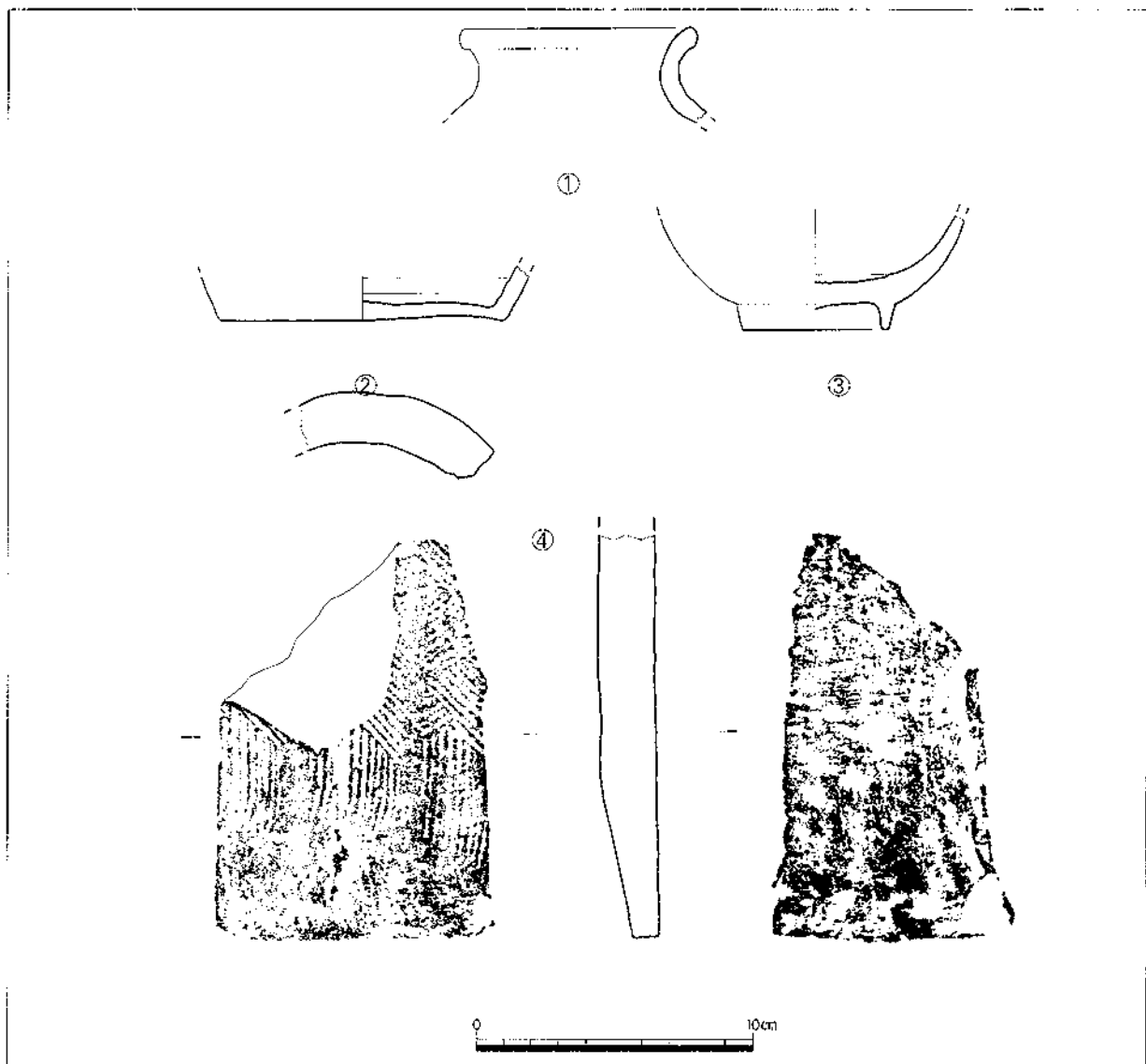
기형은 바른 편으로 측면 안쪽에 와도 흔이 남아있다. 등면에는 선문이 교차되어 타날된 문양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조밀한 마포흔이 보이며 그 위로 물 손질 방법으로 정면한 흔적이 보인다. 회청색 경질로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석영과 운모가 혼입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15.0cm, 최대너비 9.3cm

▶ 지도번호 : 능평 190-2

2) 2 지점

□ 소재지 : 오포면 능평3리 산32-1임일대

□ 시 대 : 조선시대



도면 33. 능평리 유물산포지 1지점 채집 유물



사진 207. 능평리 유물산포지 2지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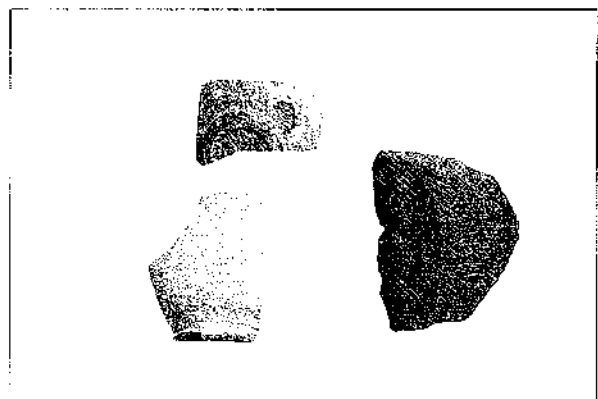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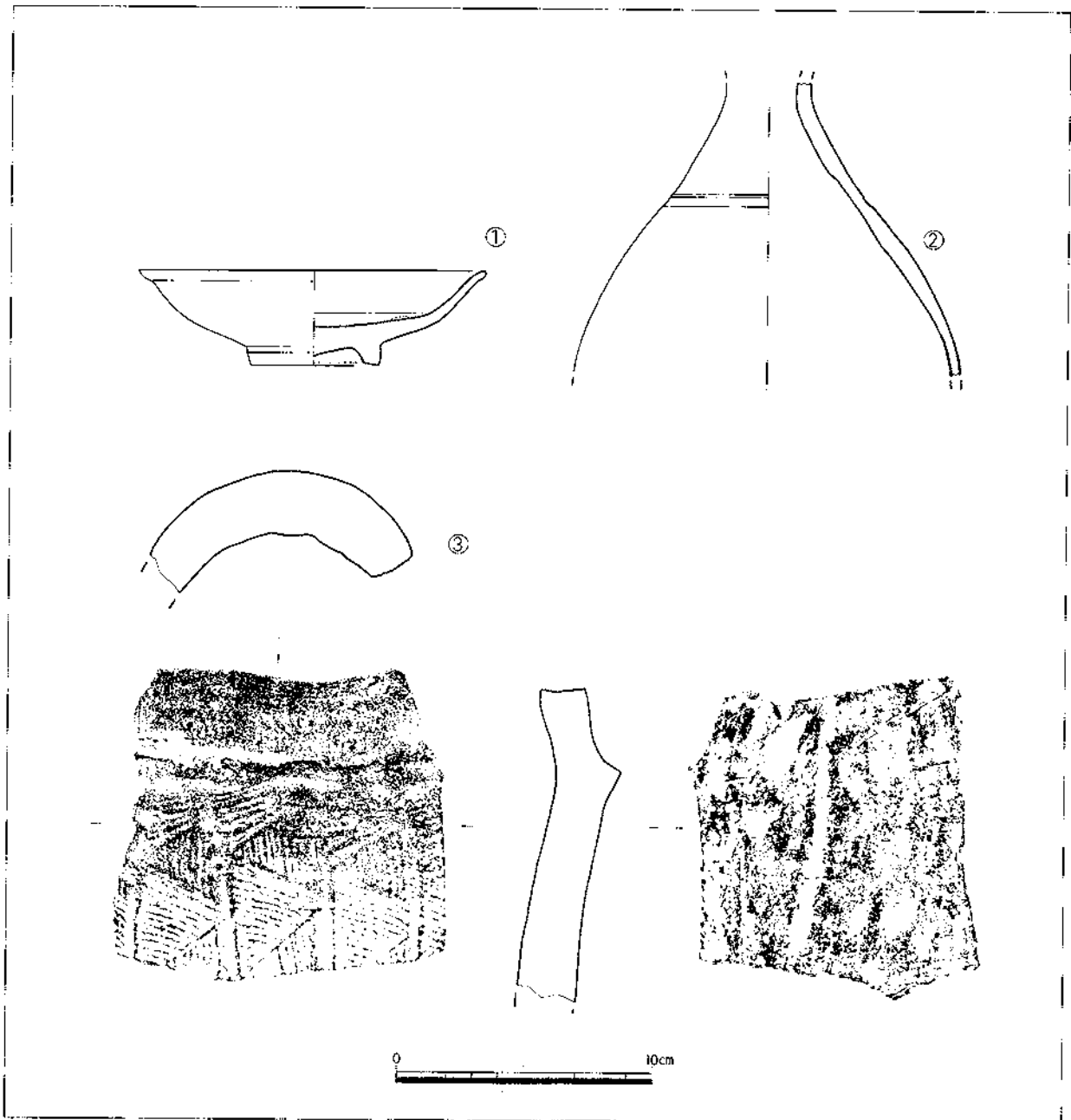


사진 208. 능평리 유물산포지 2지점 채집 유물



도면 34. 능평리 유물산포지 2지점 채집 유물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이곳은 1지점 오포 베르빌A.P.T건설 공사장 북쪽 언덕 능선지역으로 수원교구 오포성당 신축공사 예정부지와 조선시대 증호조참판 이화조의 묘가 있는 곳이다. 산포지는 비교적 넓은 범위로 분포되었으며, 유물은 능

선을 따라서 자기류·질그릇·기와편들이 다수 수습되었다.

(2) 채집 유물

① 백자편(사진 208, 도면 34-②)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구연부의 형태는 외반되었으며 굽은 낮은 수직굽으로 되어 있다. 내면에 내저원각

을 이루고 그 안에 내화토를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회백색 투명 유를 시유하였으며, 잘 수비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높이 4.2cm, 굽 지름 5.6cm, 구연부 지름 15.0cm

② 녹청자편(사진 208, 도면 34-①)

병으로 추정되는 녹청자편으로 목과 몸체의 경계부분에 1조의 돌대선이 돌려져 있다. 전면에 암녹색 유약을 시유하였으나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유약이 뭉쳐 흐른 흔적이 남아있다. 높이 13.4cm, 최대경 16.5cm

③ 수키와편(사진 208, 도면 34-①)

유단식 수키와로 언강이 부분이 잘 남아있다. 등면에는 집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측면은 와도를 이용하여 안쪽에서 분할한 흔적이 남아있다. 소성이 매우 양호하며 전면에 자연유가 착유되어 있다. 회청색 경질에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13.0cm, 너비 11.5cm, 두께 2.6cm

▶ 지도번호 : 능평 190-2

283. 陵坪里 蓋瓦散布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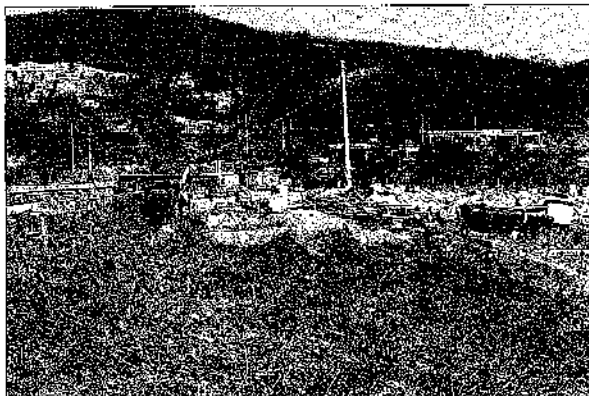


사진 209. 능평리 기와산포지 전경

□ 소재지 : 오포면 능평리 산1-1임 일대(지도69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 산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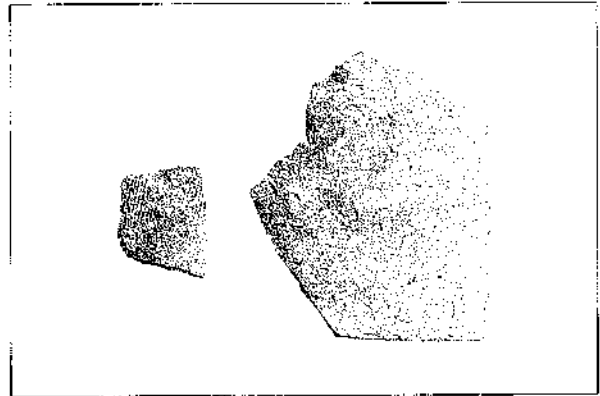


사진 210. 능평리 기와산포지 채집 유물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오포면 광주말에 있는 성남공원묘지의 정문 앞쪽으로 창뿔천이 흐르고 있다. 산포지는 하천을 건너 산사면에 소재지하고 있다. 이곳의 산 전체가 민묘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의 민묘를 이전하며 파헤쳐진 흙더미 속에서 조선시대 기와편이 다수가 수습되었다.

(2) 채집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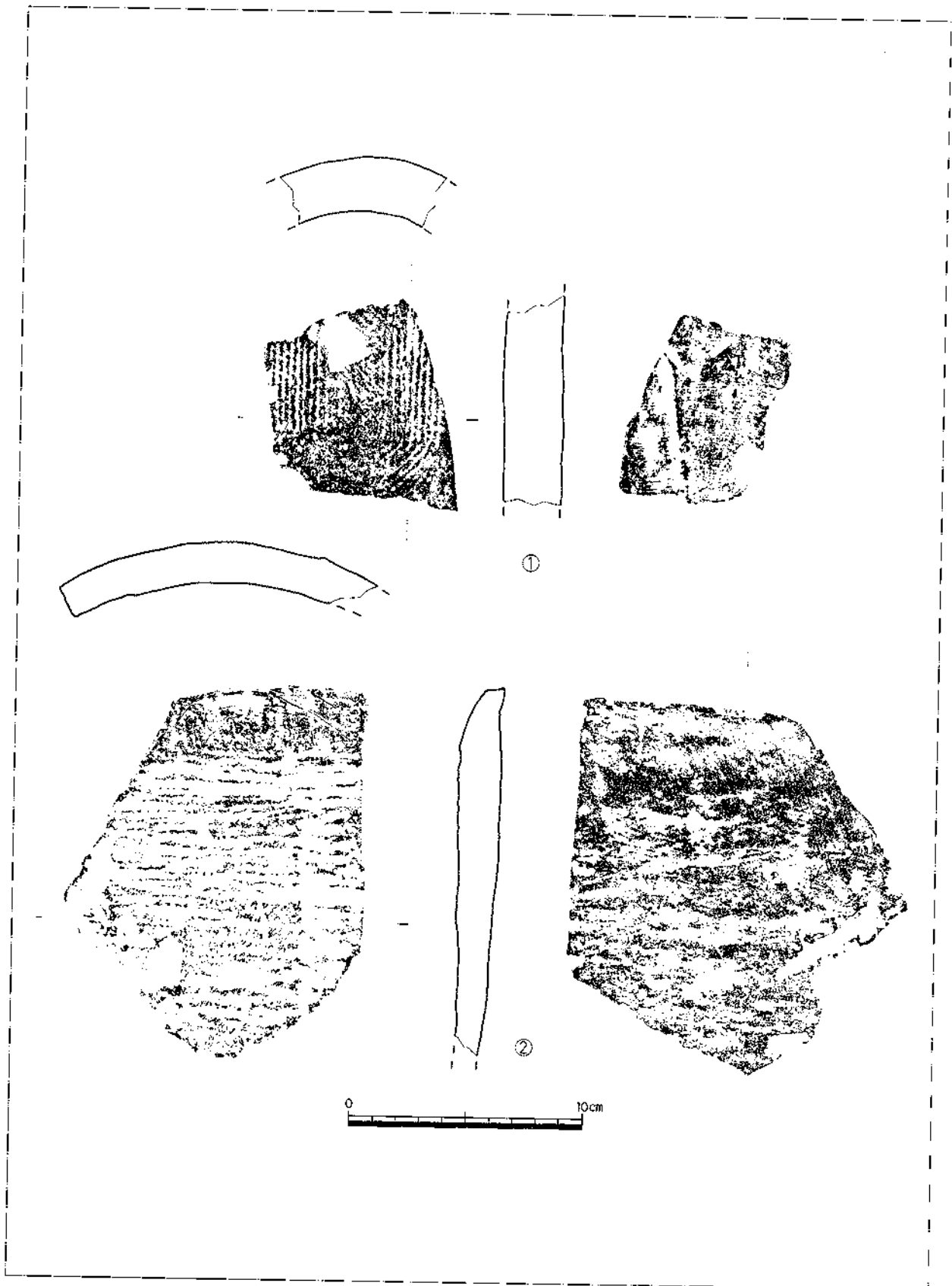
① 암키와편(사진 210, 도면 35-②)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등면에는 물손질로 정면한 모습이 남아있다. 측면에는 와도흔 자국이 있으며, 내면에는 승석흔이 굵게 나타난다. 그 위로 물 손질로 정면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회색연질로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잔존길이 24.5cm, 너비 16.2cm, 두께 2.6cm

② 수키와편(사진 210, 도면 35-①)

파손이 심한편으로 직선문이 타날·시문되어 있다. 내면에는 조밀한 마포흔이 남아있으며 회청색 경질의 기와이다. 태토는 점토질로 굵은 사립질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길이 9.5cm, 너비 7.6cm, 두께 2.6cm

▶ 지도번호 : 능평 190-2



도면 35. 능평리 기와산포지 채집 유물

284. 陵平里 느티나무



사진 211. 능평리 느티나무 전경

- 소재지 : 오폐면 능평2리 답268-13(지도68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능골삼거리에서 57번 지방도로를 타고 성남방향으로 진행하다보면 좌측으로 능평교가 나온다. 보호수는 능평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느티나무의 수령은 210년, 나무키 22m, 나무둘레 3.2m로 1983년 3월 10일 먼나무로 지정되었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지정번호 : 경기광주 47

285. 梅山里 遺物散布址

- 소재지 : 오폐면 매산2리 700번지 일대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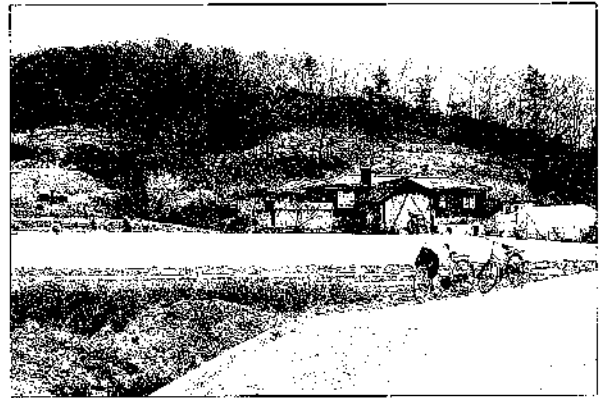


사진 212. 매산리 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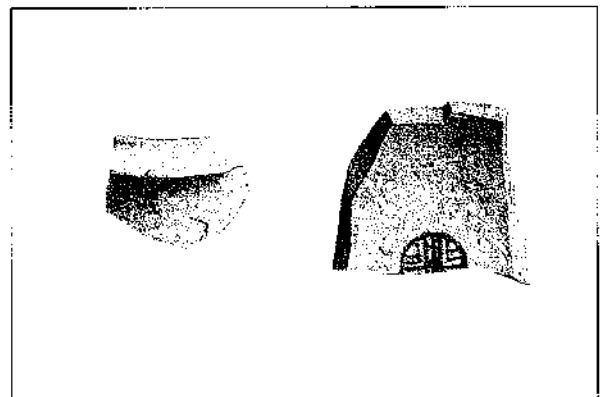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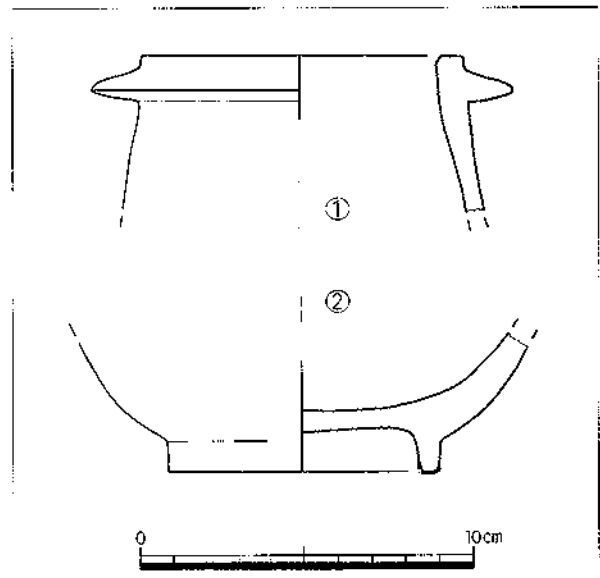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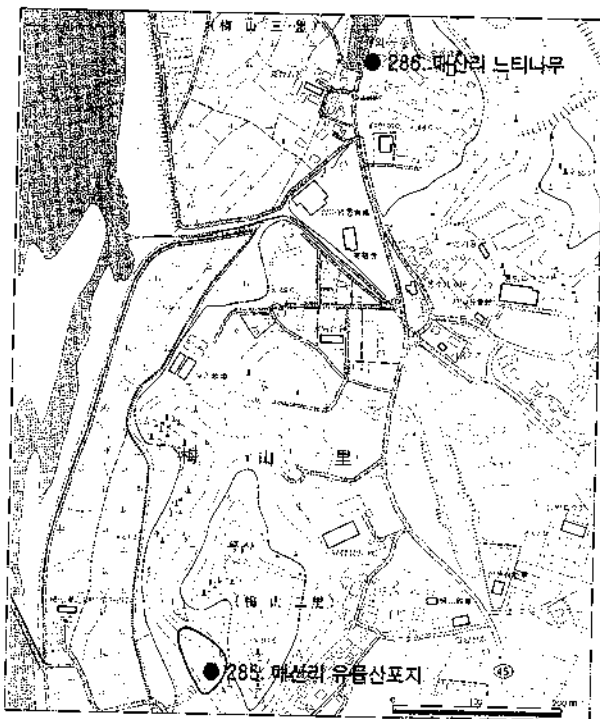
사진 213. 매산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도면 36. 매산리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1) 위치와 현상

산포지는 매산 2리 700번지 민가 주변 밭에서 수습



지도 70. 매산리 유물산포지 위치도(수원 060)

되었다. 서쪽으로는 경안천과 인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독산(해발 90m)이라는 작은 산에 접하고 있다. 또한 산포지 앞으로는 매산리 간이오수처리장이 있다. 조선시대 백자가 수습되었으나 그 분포 범위는 작다.

(2) 채집 유물

① 백자편(사진 213-①, 도면 36-①)

용도를 알수 없는 편으로 구연부는 직립하였고 그 밑으로 1조의 돌대가 길게 들려져있다. 문양은 없으며, 담청백색 투명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높이 4.8cm, 추정 구연 지름 9.8cm

② 청화백자편(사진 213-②, 도면 36-②)

대접편으로 굽은 넓게 형성되어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내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원형의 문양이 시문되어 있으며 그 주위로 역시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회백색유를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였다.

높이 4.3cm, 추정 굽 지름 8.2cm

▶ 지도번호 : 능평 190-2

286. 梅山里 느티나무



사진 214. 매산리 느티나무 전경

□ 소재지 : 오폐면 매산3리 전615-5(지도70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매산 3리 마을 앞으로 새로 확장된 45번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느티나무의 수령 360년, 나무키 24m, 나무둘레 4.5m이다. 1983년 3월 10일 군나무로 지정되었으며 1992년 10월 외과수술을 받았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지정번호 : 경기광주 44

287. 朴敎倫 頌德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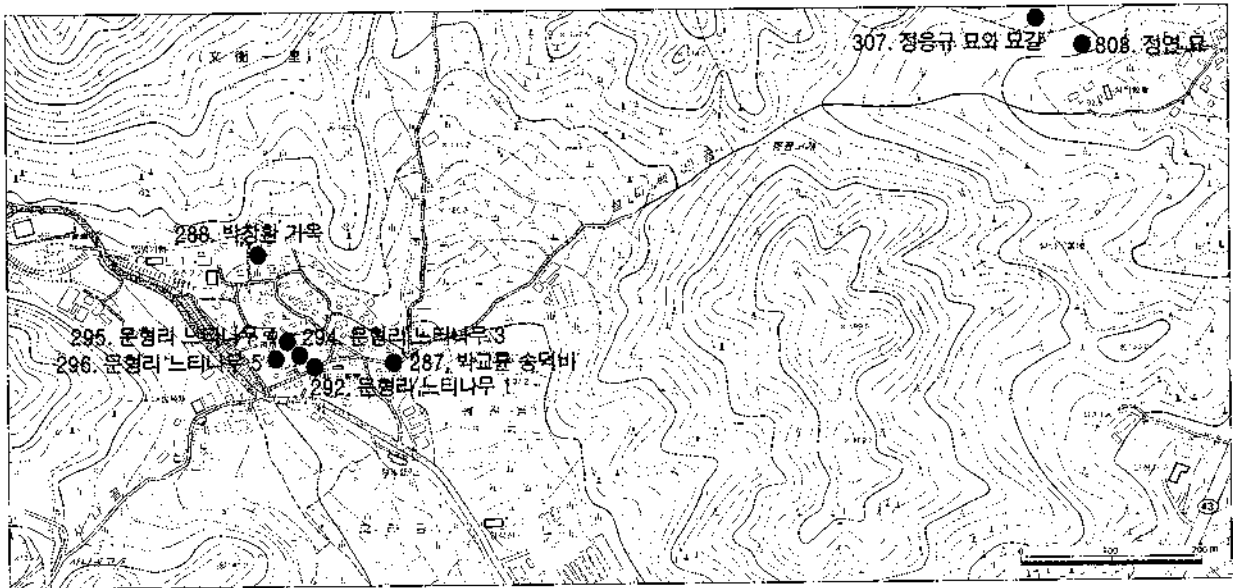
□ 소재지 : 오폐면 문형1리 66-1대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송덕비

□ 내 용

봉골마을 구판장에서 동쪽으로 약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전면에 '眉山朴公敎倫慈惠頌德碑'라 쓰고 뒷면에는 '辛酉陽月 日 立'이라 각자하였다. 미산 박교륜의 善行을 기리기 위해 세운 송덕비로 1861년



지도 71. 박교륜 송덕비 위치도(수원 059)



사진 215. 박교륜 송덕비 전경

(철종12) 10월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는 비각이 있었던 듯 송덕비 주변에 3개의 주초석과 기단석렬이 남아 있다. 19세기에 유행하던 方趺蓋石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총높이 251cm에 비신의 높이 156cm, 폭 46.5cm, 두께 30cm의 규모이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288. 박창환 가옥



사진 216. 박창환 가옥 전경

□ 소재지 : 오폐면 문형1리(지도7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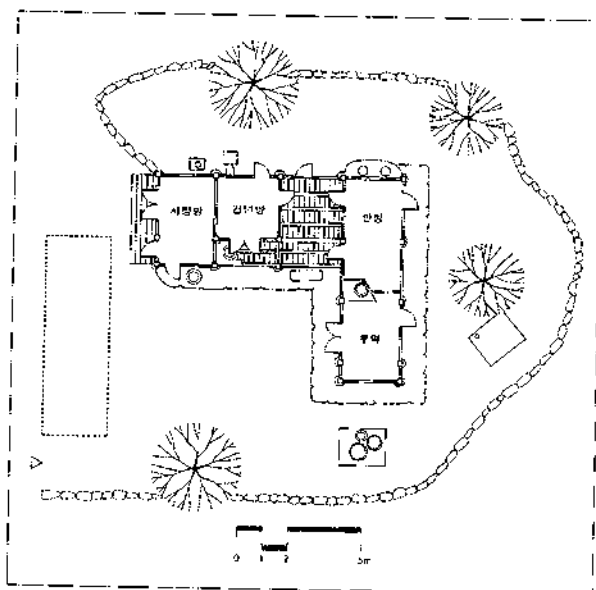
□ 시 대 : 근대

□ 종 류 : 고가

□ 내 용

자세한 건립 연대는 확인 할 수 없으나, 가옥의 상태와 마을 이웃의 증언을 통해 해방이전 건립된 가옥임은 확실하다.

가옥은 안채와 창고(나뭇간)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고가 있는 자리에 건물이 있었으나, 60년대말에 소실



도면 37. 박창한 가옥 평면도

되었다.

안채 구성은 사랑방 + 건넌방 + 대청 + 안방 +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은 기본적인 ㄱ자형 집에 사랑방을 덧붙인 경우이다. 사랑방의 문은 안마당쪽이 아닌 측면으로 되어 있고, 뒷마루가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아직도 난방은 화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채의 구조는 1고주 4량으로 홀치마 우전각 지붕이다. 부엌에는 살판이 있고 처마내빈 길이 정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3면에 살창이 있다. 초석과 기단은 자연석으로 안마당은 흙마당이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289. 文衡里 遺物散布址1

- 소재지 : 오폐면 문형리 565-3답 일대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 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사진 217. 문형리 유물산포지 1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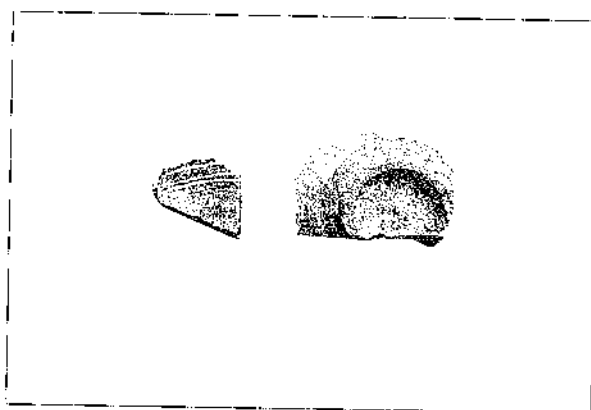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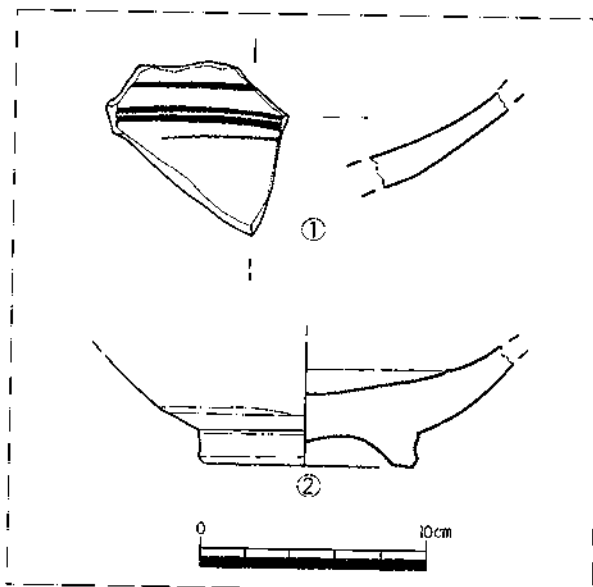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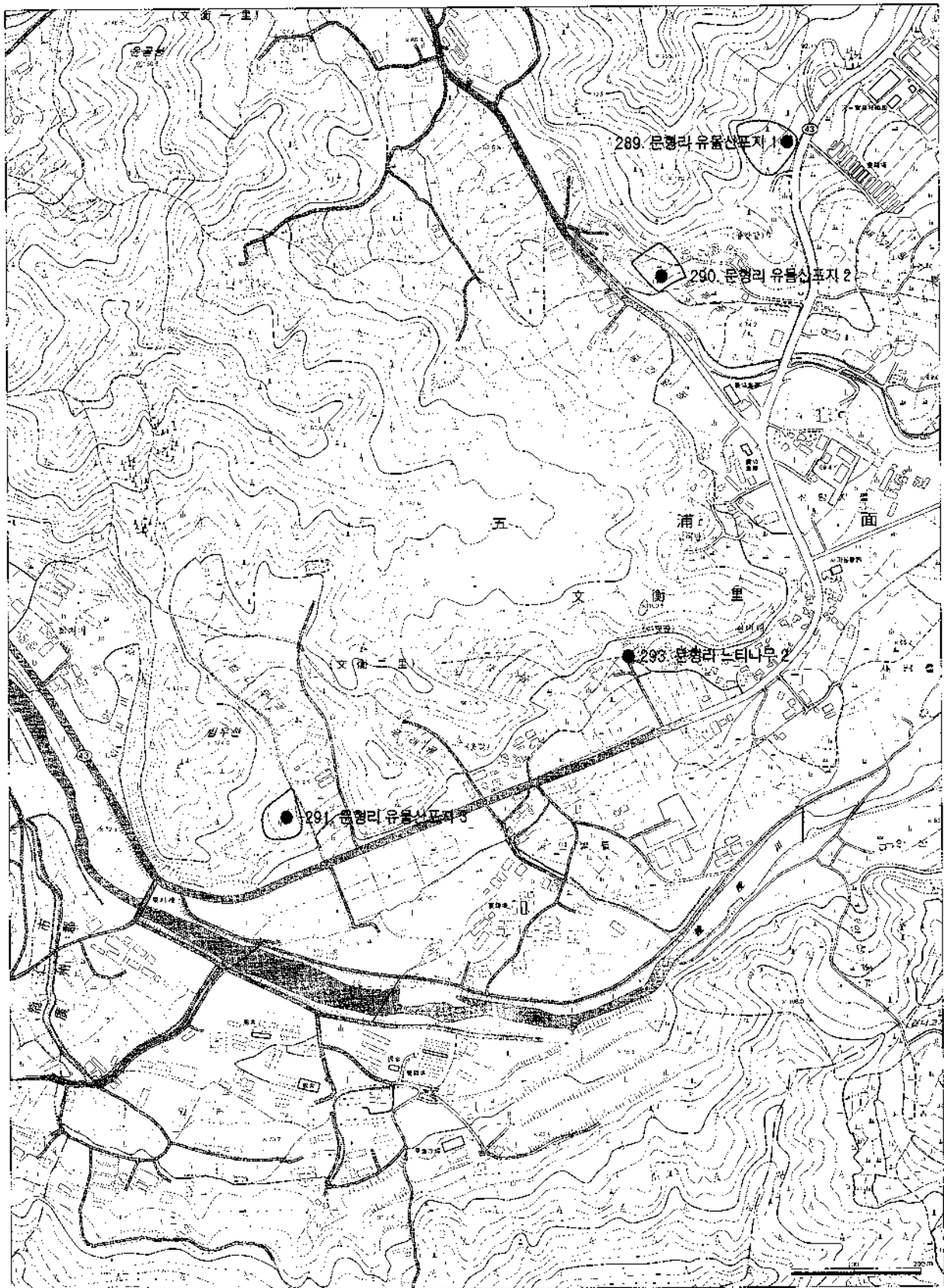


사진 218. 문형리 유물산포지 1 채집 유물



도면 38. 문형리 유물산포지 1 채집 유물

이곳은 광주군과 용인시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문형리 동림교를 지나 도로변 좌측언덕에 소재하고 있



지도 72. 문형리 유물산포지1~3 위치도(수원 069)

다. 범우산(해발 124m)에서 연장된 산능선으로 산포지의 정상부로는 철탑이 지나가고 있다. 약 4·500평 되는 밭에서 분청사기, 백자, 기와편들이 수습되었다.

(2) 채집 유물

① 분청사기편(사진 218-①, 도면 38-①)

파손이 심하여 일부 몸체만 남아 있다. 내면에는 약 4조의 선 상감이 둘러져 있으며, 광택이 나는 암녹색의 투명유가 시유되어 있다. 철분이 약간 섞여 수비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잔존길이 3.9cm, 두께 0.8cm

② 백자저부편(사진 218-②, 도면 38-②)

자기의 대부분이 파손된 저부편으로 굽은 수직굽이다. 문양은 시문되어 있지 않으며, 내저에는 원각을 이루고 있다. 또한 4군데에 있어 내화토 받침흔이 관찰된다. 담청백색의 투명유가 시유되어 있으며 태토에는 약간 잡물이 섞여있는 것이 보인다. 잔존높이 2.7cm, 저경 5.2cm

▶ 지도번호 : 능평 1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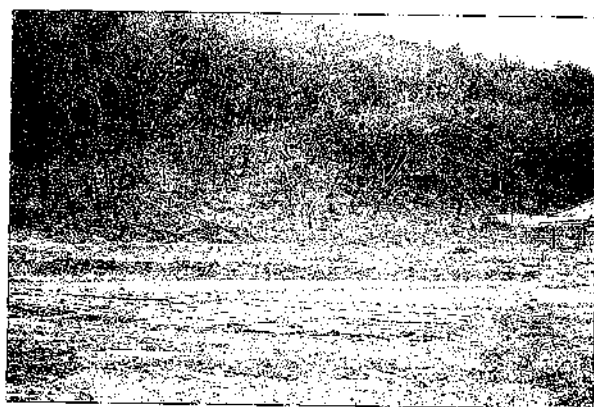


사진 219. 문형리 유물산포지 2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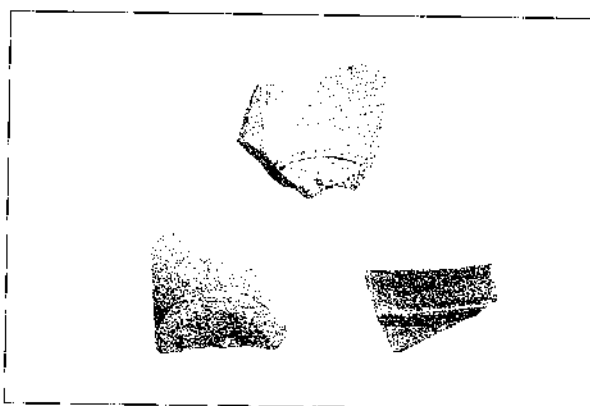


사진 220. 문형리 유물산포지 2 채집 유물

290. 文衡里 遺物散布址2

□ 소재지 : 오포면 문형1리 201-2번지 일대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문형2리에서 문형1리로 들어가는 길목 오른쪽으로 10여채의 민가들이 있다. 유물은 문형1리 201-2번지 옆쪽의 밭에서 수습되고 있으며, 출토범위는 약 200여평이다. 이곳은 조사가 진행되었을 때와 다르게 외부에서 많은 흙을 들여와서 논과 밭들이 성토되어 있다. 이곳에서도 본래의 지형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다.

(2) 채집 유물

① 백자저부편(사진 220, 도면 39-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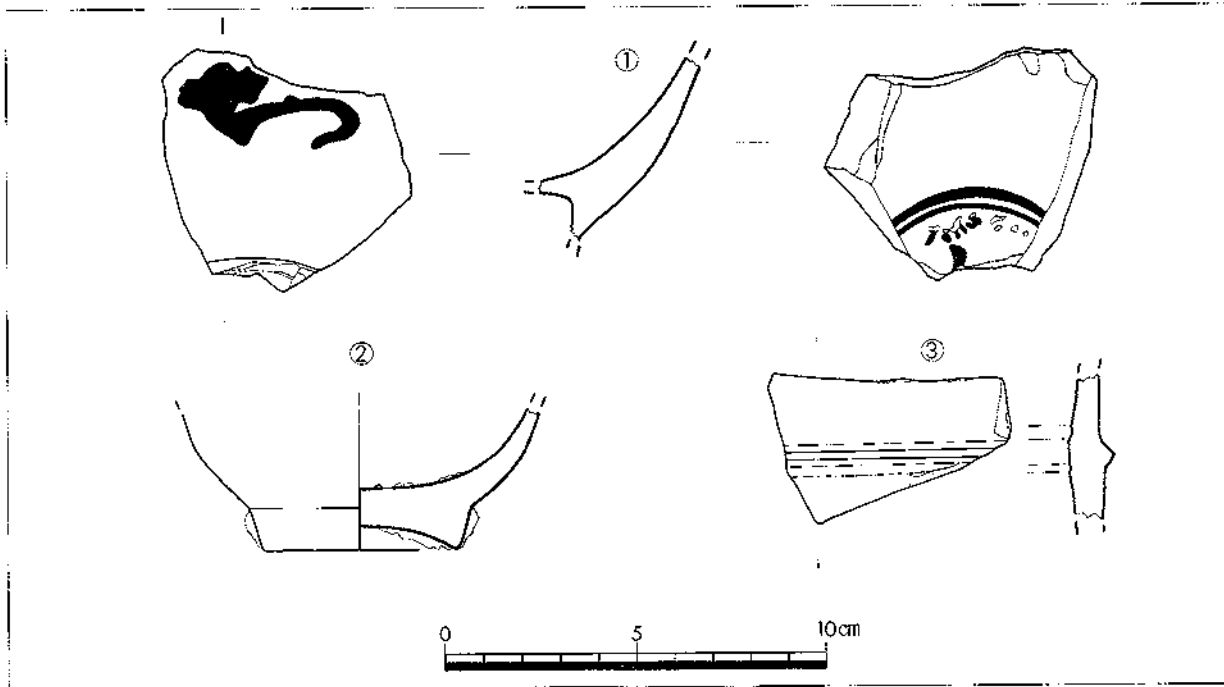
파손이 심하여 굽의 일부와 몸체부분이 남아 있다. 굽은 수직굽으로 굽과 내저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관찰된다. 회백색 투명유가 굽 안쪽까지 시유되었으며 일부에 빙결이 보인다. 높이 3.6cm, 추정 굽 지름 5.0cm

② 청화백자편(사진 220, 도면 39-①)

저부는 파손되어 알 수 없으며, 몸체 외면에는 당초문이 내저에는 2조의 음각선이 시문되어 있다. 내저에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관찰된다. 회백색 반투명유가 시유되어 있으며, 태토에는 일부 잡물이 섞여 있다. 높이 4.7cm 두께 0.5cm

③ 흑회색 경질토기편(사진 220, 도면 39-③)

경부(頸部)편으로, 외벽에는 1조의 단면 삼각형의



도면 39. 문형리 유물산포지 2 채집 유물

돌대 선이 돌려져 있다. 그 위로 물손질한 모습과 물레 흔 자국이 관찰된다. 내벽에는 물손질로 2조의 음각선을 돌린 자국이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로 석립질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길이가 3.8cm 두께 1.1cm

▶ 지도번호 : 능평 190-2



사진 221. 문형리 유물산포지 3 전경

291. 文衡里 遺物散布址3

□ 소재지 : 오폐면 문형2리 261-4번지 뒤편일대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광주말에서 43번 국도로 문형 1리 지나 바로 국도와 인접하여 세기건설중기(261-4번지)가 있다. 세기건설중기 뒤쪽으로 월성박씨 추상공파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으며, 유물은 일대의 숲과 묘역 주변에서 수습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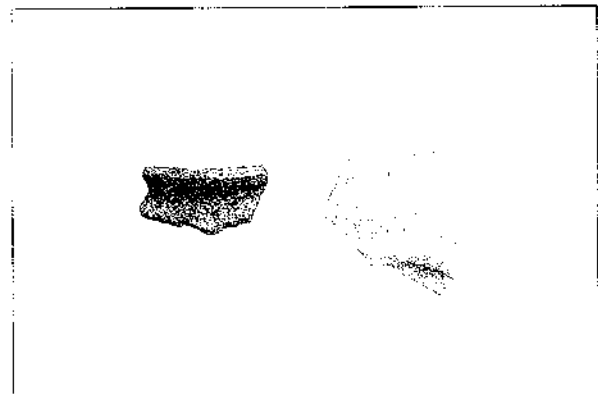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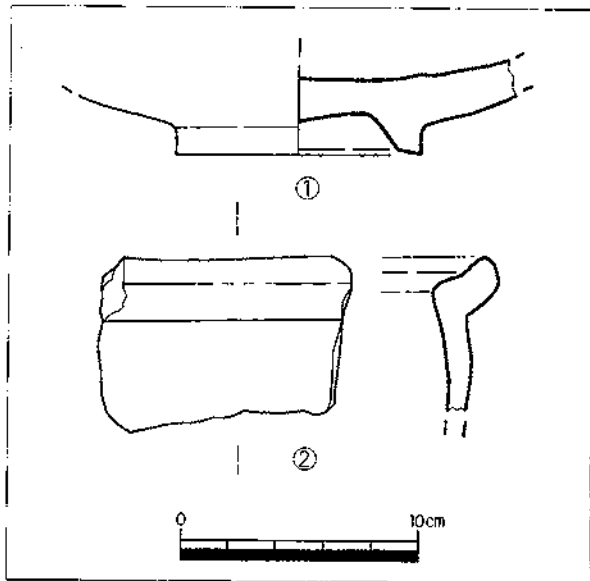


사진 222. 문형리 유물산포지 3 채집 유물



도면 40. 문형리 유물산포지 3 채집 유물

있다.

(2) 채집 유물

① 백자저부편(사진 222, 도면 40-①)

파손이 심하여 일부의 굽과 몸체만 남아 있다. 굽은 수직굽으로 접지 면과 내저에 내화토를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담청백색유를 시유하여 소성하였으며, 일부 빙결의 흔적이 관찰되고 있다. 높이 2.0cm, 굽 지름 5.0cm

② 회흑색 경질토기편(사진 222, 도면 40-②)

구연부 편으로 파손이 심한 상태이다. 구연부는 거의 수평으로 외반되어 안쪽으로 1조의 홈이 돌려져 있다. 문양은 없으며, 물손질로 정면한 모습이 관찰된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로 운모등이 섞여있다. 잔존길이 3.6cm, 두께 1.3cm

▶ 지도번호 : 능평 190-2

292. 文衡里 느티나무1



사진 223. 문형리 느티나무 1 전경

□ 소재지 : 오포면 문형1리 대63(지도7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문형 1리 봉골마을의 마을구관장 옆에 위치한다. 수령 310년, 나무 키 21m, 나무 둘레 4.6m이다. 1983년 3월 10일 군나무로 지정되었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지정번호 : 경기광주 43

293. 文衡里 느티나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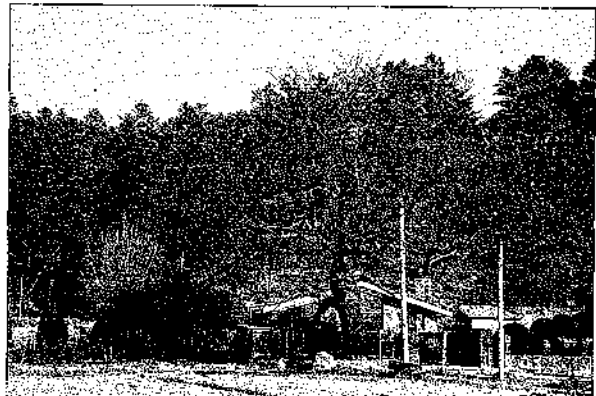


사진 224. 문형리 느티나무 2 전경

□ 소재지 : 오폐면 문형2리 대452(지도72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문형리 아랫말에 위치한다. 수령 510년, 나무키 25m, 나무둘레 5.4m이다. 1983년 3월 10일 도나무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 10월 외과수술을 받았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지정번호 : 경기광주 48

294. 文衡里 느티나무3



사진 225. 문형리 느티나무 3(左), 4(中), 5(右) 전경

□ 소재지 : 오폐면 문형1리 대63(지도7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문형 1리 봉골마을 박삼봉씨댁 앞의 공터에는 총 세 그루의 느티나무가 자리잡고 있다. 이중 좌측에 위치하는 느티나무가 경기광주 48로 지정된 보호수이다. 수령 260년, 나무키 13m 나무둘레 3.4m이며 1983년 3월 10일 면나무로 지정되었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지정번호 : 경기광주 49

295. 文衡里 느티나무4

□ 소재지 : 오폐면 문형1리 대63(지도7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문형 1리 봉골마을 박삼봉씨댁 앞 공터에 있는 세 그루의 보호수중 가운데에 있는 느티나무이다. 수령 260년, 나무키 15m, 나무둘레 3.7m이며 1983년 3월 10일 면나무로 지정되었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지정번호 : 경기광주 50

296. 文衡里 느티나무5

□ 소재지 : 오폐면 문형1리 대63(지도7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문형 1리 봉골마을 박삼봉씨댁 앞 공터에 있는 세 그루의 보호수중 우측에 있는 느티나무이다. 수령 260년, 나무키 15m, 나무둘레 3.4m이며 1983년 3월 10일 면나무로 지정되었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지정번호 : 경기광주 51

297. 金自粹 墓와 神道碑

□ 소재지 : 오폐면 신현4리 산120-1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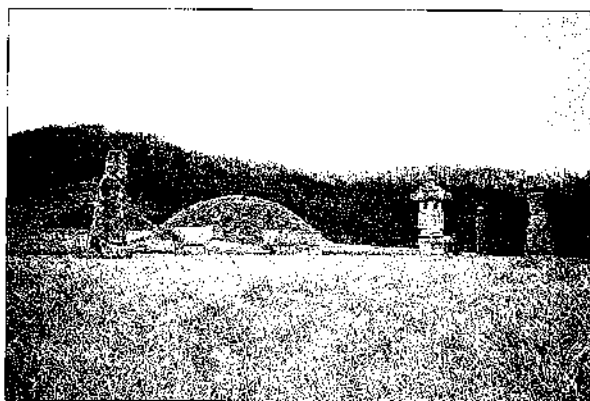


사진 226. 김자수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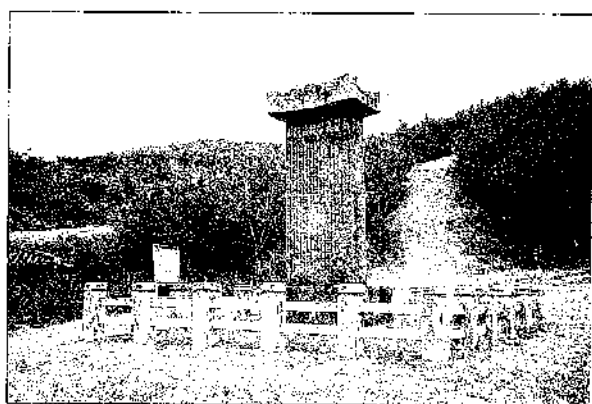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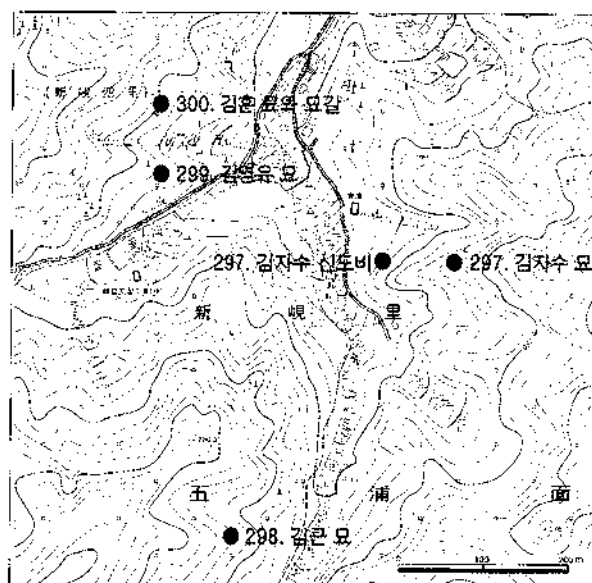


사진 227. 김자수 신도비

□ 내 용

金白粹(1350-1413)는 고려의 遺臣으로 본관은 慶州이고 자는 純仲이며 호는 桑村이다. 通禮門副使를 지낸 珥의 아들이다. 1374년(공민왕 23)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거쳐 忠淸道都觀察使에 이르렀다. 이후 麗末의 정치 상황이 혼란해지자 관직을 사퇴하고 낙향해서 두문불출하였으며, 조선 개국후 太宗이 형조 판서를 제수하자 이를 거절하고, 고려의 망국을 비판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에 圃隱 鄭夢周(1337-1392), 牧隱 李穡(1328-1396)과 더불어 서로 벗하여 친하게 지냈으며,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나라에서 孝子旌門을 내려 표창하였다.

묘소는 상대마을 대지골의 서쪽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김자수의 遺命에 의해 그가 자결한 현재의 장소(廣州 秋嶺)에 유해를 안장한 것이다. 묘역의 봉분은



지도 73. 김자수 묘와 신도비 위치도(수원 066)

上下墳으로 구성되어 있고, 망주석과 문인석 2쌍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다. 양식상 안쪽의 문인석(높이 83cm) 1쌍은 조선초에, 바깥쪽의 문인석(높이 183cm) 1쌍은 1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석물은 모두 근래에 마련한 것이며 묘비는 세우지 않았다.

묘역 아래에는 방부개석 양식의 신도비(총높이 약 318cm)가 건립되어 있는데, 碑題를 '高麗忠淸道都觀察使桑村金先生神道碑銘并序'라 하고 전액을 '高麗國忠淸道都觀察使桑村先生慶州金公神道碑銘'이라 올려 신도비임을 밝히고 있다. 烏石을 사용한 비신(높이 222cm, 폭 93.5cm, 두께 39.5cm)에는 10代外孫 吏曹參判 蔡裕後(1599-1660)가 비문을 撰하여 前判敦寧府事 卮用求(1853-1939)가 書하고 17代孫 禮曹參判 文濟가 篆을 하였다. 追記와 子孫錄은 撰者 미상이고 又追記는 후손인 前主事 容益이 기록하였다. 입석 연대는 '公沒後9丙寅(1926)10月 H立'이다.

신도비 앞에는 비신과 이수만 남아 있는 구신도비(총 높이 260cm)가 놓여져 있다. 遺命으로 감히 세우지 못해, 땅에 매몰하였다가 1926년에 다시 발굴해낸 신도비이다. 1926년에 건립된 신도비의 추기에 의하면 구

신도비는 孝宗甲午年(1654, 효종5)에 8대손 忠淸道 觀察使 弘郁(1602-1654)이 書하고 吏曹參判 呂爾徵(1588-1656)이 篆하였던 것으로 撰者는 未詳이다. 현재는 완전 마모되어 식별이 불가능하나 비신(높이 182cm, 폭 93cm, 26cm)의 우측에 '高麗國孝子忠臣都 觀察使桑村先生金公自粹之碑'라는 기사가 刻字되어 있어 김자수신도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도비 주변에는 1958년에 세운 殉節碑가 비각안에 안치되어 있으며, 그 옆으로 1987년에 조성한 桑村詩碑가 세워져 있다.

묘소 뒤에는 아들 根의 繼配인 贈貞夫人 牛峯李氏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비 고 : 경기도기념물 제98호

▶ 참고문헌 : 『京畿金石大觀』4, 1990, 경기도
『광주군문화유적현황』, 1996, 광주군
『慶州金氏桑村公派世譜』, 1998
『경기문화재대관』-도지정편-, 1998, 경기도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 소재지 : 오포면 신현4리 산120-1(지도73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金根(1374-1425)은 世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慶州이고 자는 本齊이며 桑村 自粹의 아들이다. 관직은 平壤少尹을 지냈으며 사후 병조판서를 증직받았다.

묘는 김자수 묘소에서 대지골고개로 올라가는 소로의 우측 산자락에 東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묘역은 최근에 새로 단장하여 원형이 변형된 상태이며 모든 석물을 다시 마련하였다. 봉분앞에 세워진 묘표는 15세기에 유행하던 方趺圭首의 양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앞면에는 大楷로 '贈資憲大夫兵曹判書行平壤少尹 慶州金根之墓 贈貞夫人密陽朴氏合祔'라 쓰고, 그 좌측에 小楷로 '丁酉10月 日 追贈以子永濡爵秩'이라 각자해 놓아, 정유년(1477, 성종8)에 아들 永濡의 顯達로 인해 관직을 追贈받았음을 알 수 있다. 묘표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입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비신의 우측에 새겨진 '檀紀4317年 10月 改修'란 기사를 통해 1984년에 묘표를 개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묘소 아래에는 후손 通德郎 聲遠과 進士 冕鎭의 묘소가 있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참고문헌 : 『慶州金氏桑村公派世譜』, 1998

298. 金根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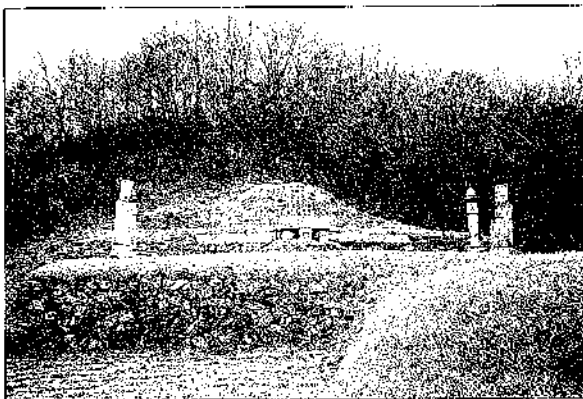


사진 228. 김근 묘 전경

299. 金永濡 墓

□ 소재지 : 오포면 신현4리 산119-1(지도73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金永濡(1418-1494)는 成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慶州이고 자는 澤夫이며 호는 退齋이다. 平壤少尹을



사진 229. 김영유 묘 전경



사진 230. 김훈 묘와 묘갈 전경

지낸 根의 아들이다. 1447년(세종29)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承文院正字를 지냈다. 1471년(성종2)에는 佐理原從功臣 1등에 책훈되었으며 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恭平이다.

묘소는 김자수 묘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경주김씨공평공파 재실(崇德齋)의 뒷편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에 묘역을 새로 단장하였다. 문인석(높이 188cm) 1쌍을 제외한 나머지 석물은 최근에 다시 마련한 것이다. 또한 봉분 앞에는 방부하엽 양식의 묘표(총높이 136cm)가 건립되어 있다. 비신(높이 93cm, 폭 51cm, 두께 20cm)의 전면에 '嘉靖大夫守知中樞府事贈諡恭平公金公之墓'라 써서 피장자의 신분을 밝혔으나, 음기와 건립 연대는 기록하지 않았다. 묘표 우측의 묘비는 1988년에 세운 것이며 묘역 아래의 신도비는 1955년에 조성한 것이다.

묘소 바로 위에는 부인 淸州韓氏의 묘소가 위치한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참고문헌 : 『慶州金氏桑村公派世譜』, 1998

300. 金燕 墓와 墓碣

□ 소재지 : 오포면 신현4리 산119-1(지도73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金燕(1437-1501)은 燕山君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慶州이고 자는 國馨이다. 恭平公 永濡의 아들이며 李清軒 世嫻(1473-1533)의 아버지이다. 1468년(세조14) 진사가 되고 관직에 나아가 여러 벼슬을 거쳐 尙衣院僉正에 이르렀다.

묘소는 김영유 묘소의 우측 구릉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의 옛 석물은 문인석(높이 158cm) 1쌍 뿐이고, 나머지는 최근에 마련하였다. 봉분 앞으로 方趺圭首 양식의 묘갈(총높이 145.5cm)이 건립되어 있다. 백대리석 비신(높이 130.5cm, 폭 47.5cm, 두께 16.5cm)은 마모가 심하여 상태가 좋지 못하지만 앞면에 쓰여진 贈資憲大夫工曹判書行通訓大夫尙衣院僉正金公之墓라는 큰 글씨는 뚜렷하다. 碣題가 '…尙衣院僉正金君墓碣銘并序'라 확인되어 묘갈임을 알 수 있다. 묘갈문은 知中樞府事 洪貴達(1438-1504)이 撰하고 進士 姜漢이 書를 하였으나 건립 연대는 마모되어 확인할 수 없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참고문헌 : 『慶州金氏桑村公派世譜』, 1998

301. 徐命珩 墓와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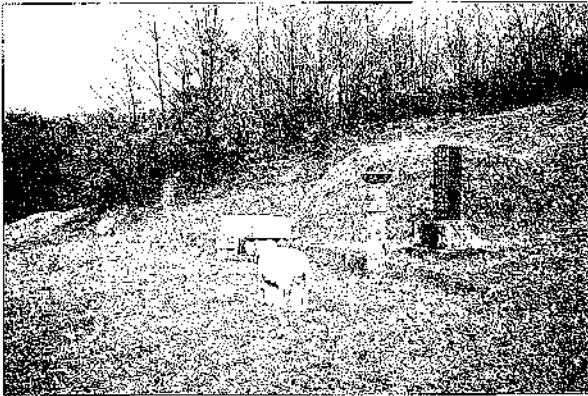


사진 231. 서명형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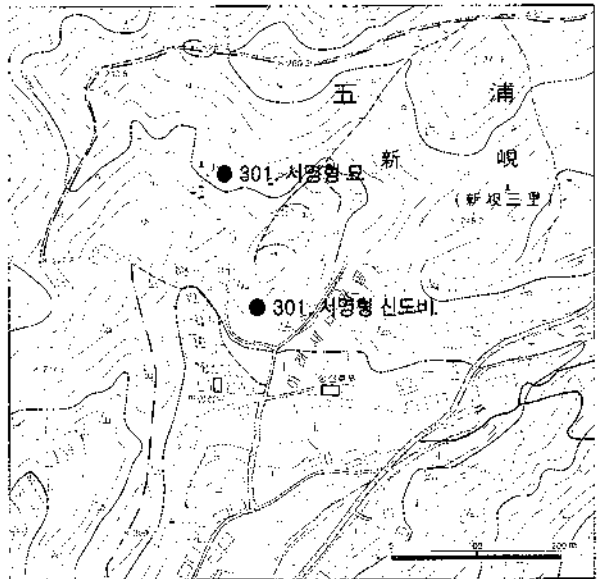


사진 232. 서명형 신도비

- 소재지 : 오폐면 신현3리 산97-1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徐命珩(1687-1750)은 英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大邱이고 자는 行玉이며 漢城府庶尹을 지낸 宗積의 아들이다. 1723년(경종3)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承文院權知副正字를 제수 받았다. 이후 사간원 정언과 대사간을 거쳐 都承旨에 이르렀다.

묘소는 장막구비골에 있는 영성하이테크 공장 뒤편



지도 74. 서명형 묘와 신도비 위치도(수원 047·057)

의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방주석, 향로석의 옛 석물과 근래에 만든 석물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봉분 우측에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85cm)가 세워져 있다. 烏石으로 만든 비신(높이 135cm, 폭 44.5cm, 두께 24cm)의 전면에는 피장자의 신분을 써 놓았으나 음기와 건립연대는 없다.

묘역 입구의 신도비(총높이 약285.5cm)는 정조대에 크게 유행하던 방부개석 양식으로 건립되어 있다. 비문을 비신(높이 164.5cm, 폭 65.5cm, 두께 37.5cm)의 四面에 새겼으나 하단의 마모가 매우 심하여 撰書篆者의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1852년(철종3)에 편찬된 『大邱徐氏族譜』의 徐命珩 조항에 게재된 '有神道碑 大提學黃景源撰, 書集 緒遂良筆, 篆集 李陽永筆'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비문을 黃景源(1709-1787)이撰한 다음, 중국 당나라의 명필 緒遂良(596-658)의 글씨를 집자하고, 전액은 李陽永의 전서로 集字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저수량의 글씨로 집자비를 조성한 예는 극히 드물어, 서명형신도비는 우리나라 서예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碑題는 마모되었지만 전액의 '嘉善大人行承政院都承旨徐公神道碑銘并序'라는 내용을 통해 신도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입석 연대는 '崇禎紀元後3辛亥(1791, 정조 15) 月 日立'이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참고문헌 : 『大邱徐氏族譜』, 1852

『광주군문화유적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 소재지 : 오포면 신현리 810

□ 시 대 : 현대

□ 종 류 : 사당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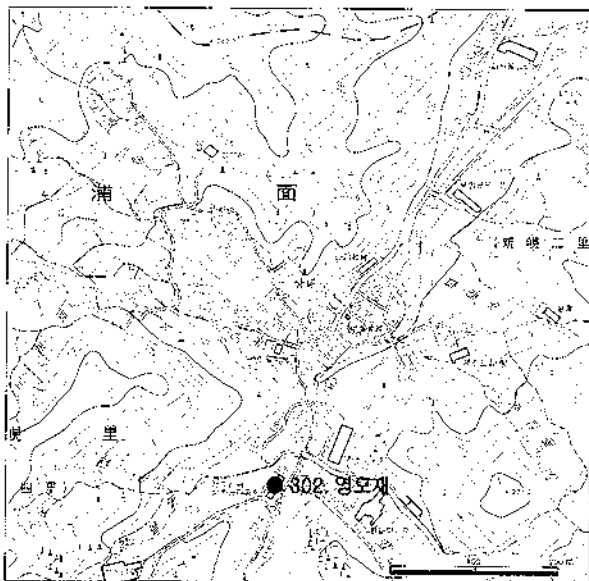
오포면 능골삼거리에서 성남방향으로 57번 도로를 타고가다 보면 좌측으로 상태마음이 나타난다. 재실은 이 마을내에 위치한다. 건물 처마 밑에는 '永慕齋'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며, 기둥에는 '慶州金氏鷄林府院君齋室'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다. 계림부원군은 의정부좌참성을 역임한 金 穉(?-1398)이며 능평리 수레실 마을에 묘소가 있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302. 永慕齋



사진 233. 영모재 전경



지도 75. 영모재 위치도(수원 050)

303. 襄平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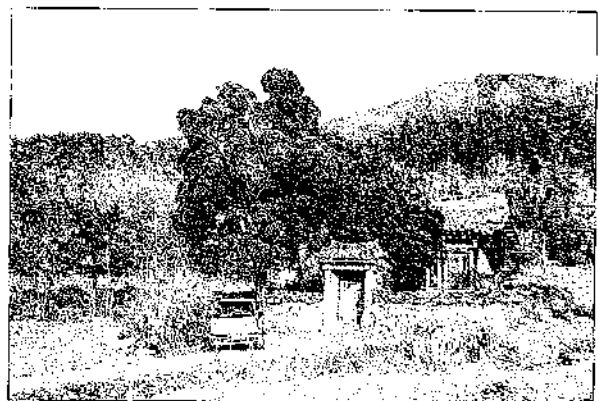


사진 234. 양평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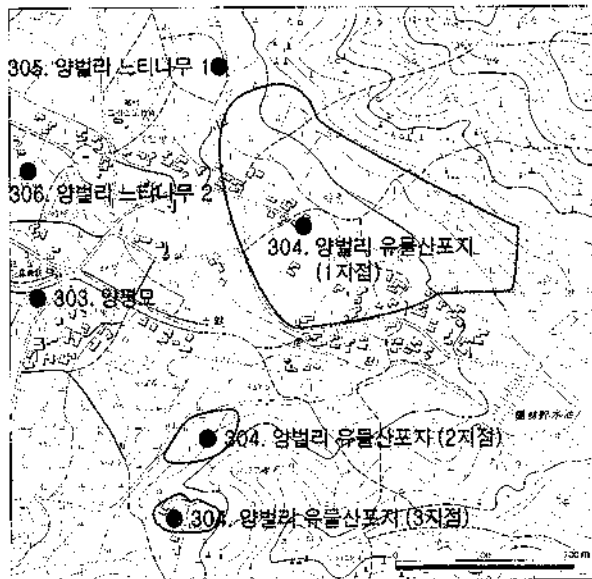
□ 소재지 : 오포면 양벌1리 520-1

□ 시 대 : 현대

□ 종 류 : 사묘

□ 내 용

롯데칠성음료(주) 오포공장 뒤쪽의 밭가운데에 위치하는 襄平公 黃孝源(1414-1481)의 사당이다. 황효원은 본관이 尙州로 成宗代에 의정부우참찬을 역임한 인물이다. 정면 3칸의 맞배지붕을 갖춘 한옥 건축물로



지도 76. 양평묘 위치도(이천 051)

처마 밑에 '襄平廟'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양평묘 주위로 담장을 두르고 마당에는 향나무를 심어 놓았으나 관리 소홀로 인해 많이 퇴락한 상태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304. 陽筏里 遺物散布址

1) 1 지점

- 소재지 : 오폐면 양벌리 730번지 일대 (지도76 참조)
- 시 대 : 고려시대~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오폐면 양벌리에 있는 매곡초등학교에서 마을 안쪽으로 약 200m 정도 들어가면 양벌교회가 있다. 산포지는 교회의 북쪽일대이다. 이곳에 양평묘라는 사당이 있으며, 이 사당의 주변으로 부터 옷발, 대숲뜰에 이르는 지역에서 유물이 수습되고 있다. 청자와 분청사기,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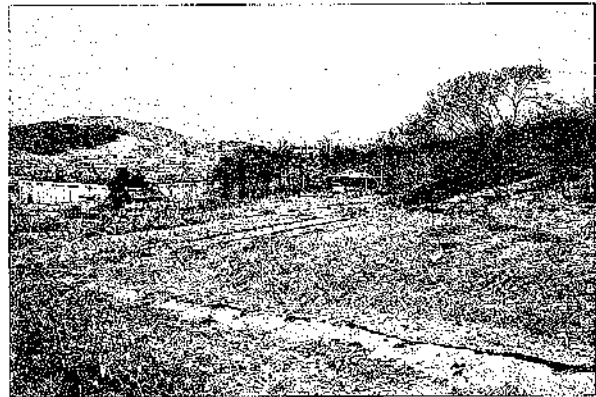


사진 235. 양벌리 유물산포지 1지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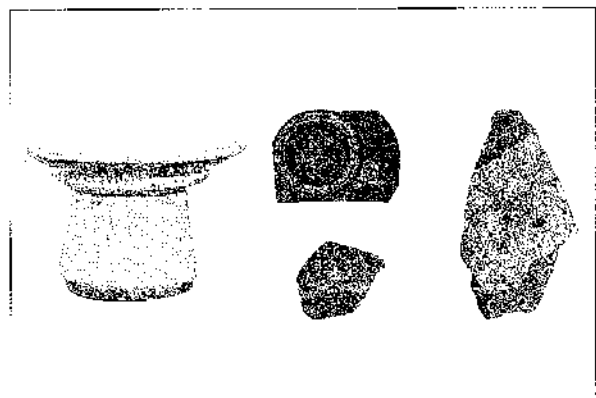


사진 236. 양벌리 유물산포지 1지점 채집 유물

자, 질그릇편들이 수습되었으며, 고려·조선시대 기와도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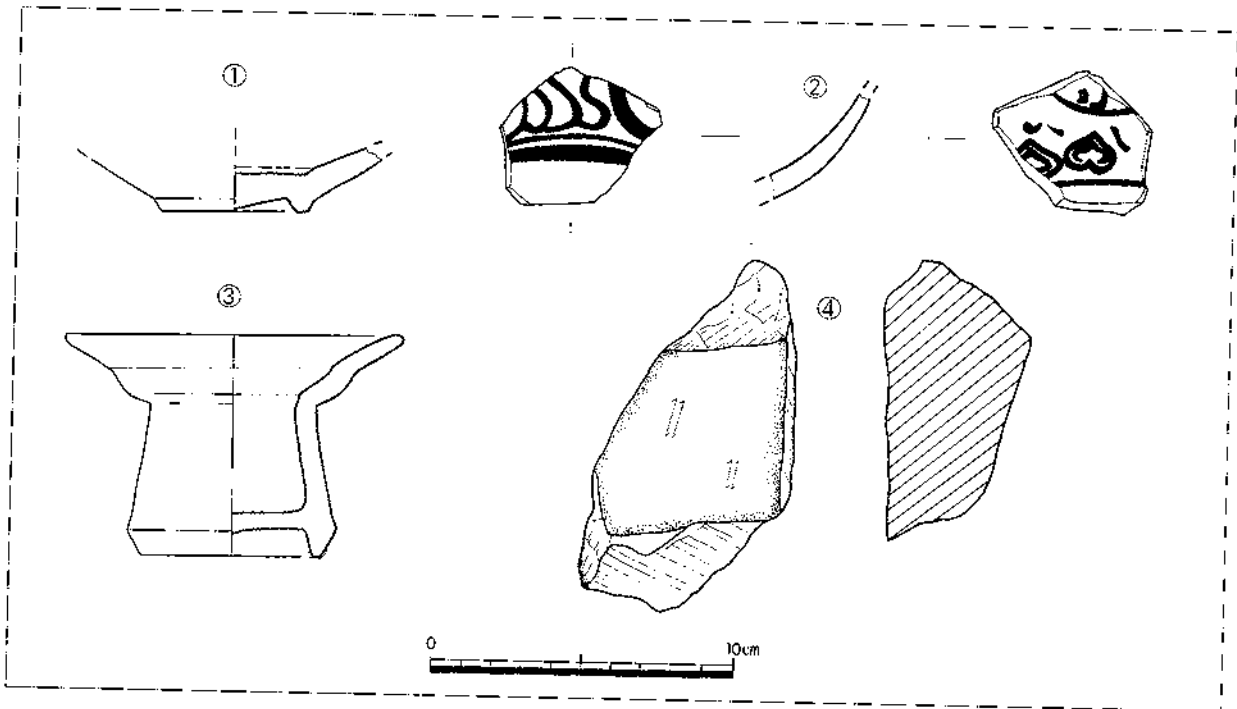
이 지역에서 무문토기로 추정되는 조그마한편과 자기류가 수습되었다. 또한 그 뒤로 넓게 펼쳐진 밭에서도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밭을 일구면서 쌓은 것으로 보이는 돌무지 주변으로 조선시대 백자편과 제기들 그리고 숫돌이 수습되었다.

(2) 채집 유물

① 청자편(사진 236, 도면 41-①)

저부편으로 낮은 수직굽이다. 문양은 없으며 내저에는 굽을 따로 만들어 부착한 흔적이 잘 남아있다. 녹색 투명유를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여 상태가 양호하다. 높이 2.2cm, 굽지름 4.8cm

② 분청사기편(사진 236, 도면 41-②)



도면 41. 양벌리 유물산포지 1지점 채집 유물

작은 몸체편으로 표면이 많이 박락되어 있다. 외벽에는 파손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곡선의 선 문양이 상감되었고, 내벽에는 운문 등이 시문되었다. 담녹색 유약을 시유하였다. 잔존길이가 4.5cm, 너비가 5.3cm이다.

③ 백자편(사진 236, 도면 41-③)

제기류로 보이는 편으로 높은 굽과 구연부는 동체에 서 사선으로 이어지며 중간에 단이 형성되어 있다. 굽 접지면에는 모래받침으로 포개구운 흔적이 남아있으며, 내면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다. 담청백색 투명유를 시유하였으며, 상태가 양호하다.

높이는 7.4cm로 굽지름이 5.8cm, 구연지름 11.0cm이다.

④ 숯돌편(사진 236, 도면 41-④)

암질을 사암으로 파손이 심한편이다. 윗면에 일부 장축방향으로 마연하여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다. 회백색을 띠며 단면은 방형이다.

잔존길이가 11.7cm이며 너비가 6.9c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사진 237. 양벌리 유물산포지 2지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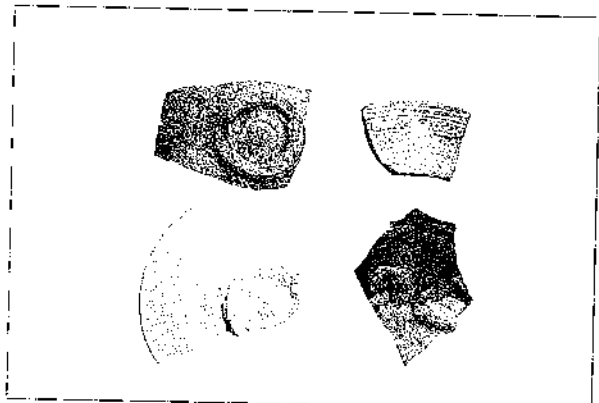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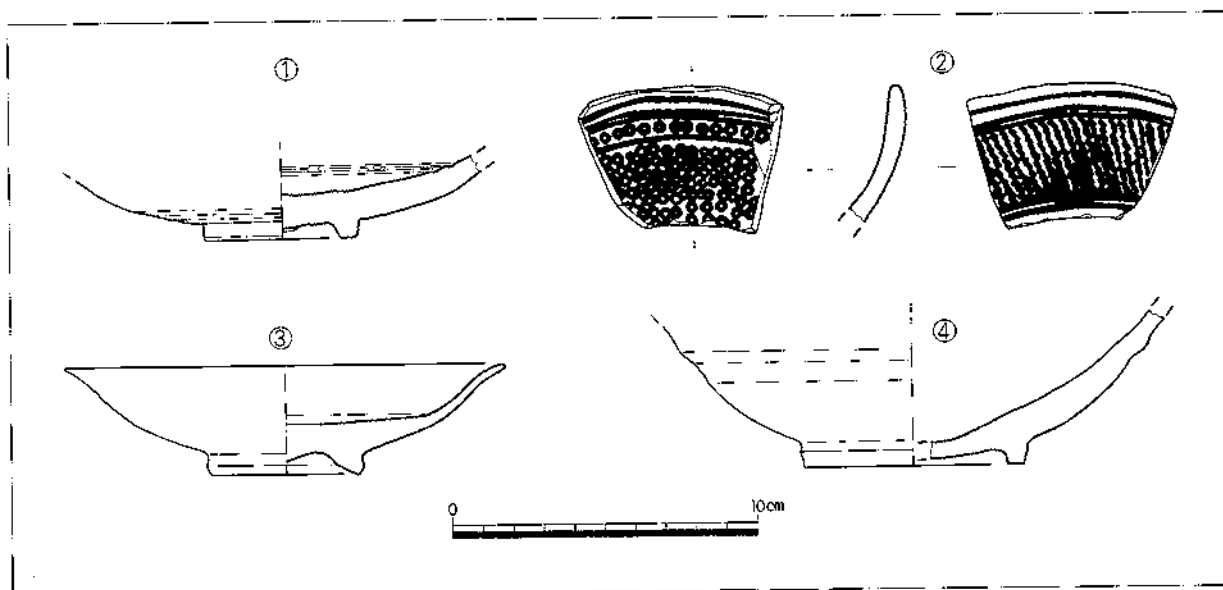


사진 238. 양벌리 유물산포지 2지점 채집 유물



도면 42. 양벌리 유물산포지 2지점 채집 유물

2) 2 지점

- 소재지 : 경기도 광주군 오폐면
- 시 대 : 청동기 · 고려~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2지점은 양벌리 1지점에서 남쪽으로 양촌천이라는 하천을 넘어가, 고추밭 일대에 소재지한다.

(2) 채집 유물

① 상감청자편(사진 238, 도면 42-①)

저부편으로 외벽에는 문양이 없으며, 내벽에는 2조의 선상감이 되어있다. 내저에는 내화토를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관찰된다. 암녹색 유약을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굽은 죽절굽으로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소성한 흔적이 남아있다. 높이 3.1cm, 굽 지름 5.2cm

② 분청사기편(사진 238, 도면 42-②)

구연부편으로 파손이 심한 상태이다. 구연부는 안쪽으로 약간 내만되었으며, 내·외벽에는 4조의 선이 시문되었고 그 안에 외벽에는 우점문대가 내벽에는 원형

의 인화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갈색 투명유를 전면에 시문하여 광택이 나며, 태토는 잘 수비되어 있다. 잔존 최대경 4.5cm, 두께 0.5cm

③ 백자 접시편(사진 238, 도면 42-③)

보존상태가 양호한 백자접시편으로 외반된 구연부에 굽의 형태는 죽절굽이다. 문양은 없으며 내저에는 원각을 이뤄 그안에 3군데에 내화토로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있다. 광택이 나는 청색빛 유약을 시유하였으며, 굽 안쪽으로는 시유되어 있지 않다. 잘 수비된 태토에 철분이 약간 섞여 있다. 높이 3.6cm, 구경 14.0cm, 저경 4.8cm이다.

④ 흑(갈)유편(사진 238, 도면 42-④)

저부편으로 굽은 수직굽의 형태로 접지면은 좁게 처리되었다. 내벽에 2조의 선이 시문되어 있고 내저에는 내화토를 받쳐 구운 흔적이 있다. 잘 수비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잔존높이 4.8cm, 추정 굽지름 7.0cm

▶ 지도번호 : 노곡 191-1

3) 3 지점

- 소재지 : 오폐면 양벌리 612-1번지 일대



사진 239. 양벌리 유물산포지 3지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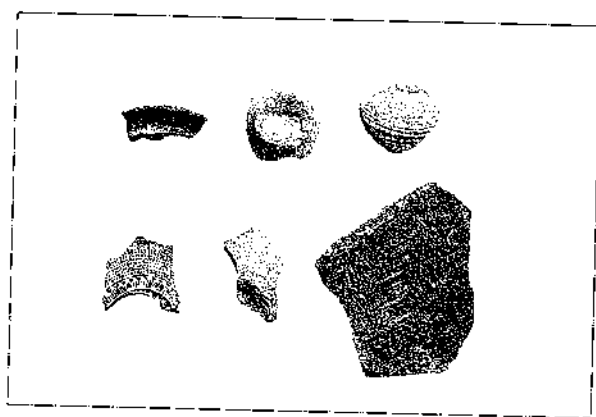


사진 240. 양벌리 유물산포지 3지점 채집 유물

□ 시 대 : 고려~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3지점은 양벌리 2지점 남쪽으로 낮은 산능선의 안쪽에 소재지하고 있다. 이곳을 안터라고 하는데 밖에서 보면 지형적으로 은폐되어 있고, 벌이 잘들어 건물지가 들어서기가 좋은 지역이다. 유물은 이곳 밭에서 청자, 백자편들이 수습되고 있는데 출토되는 범위는 좁은편이나 수습되고 있는 밀집도는 높은 편이다.

(2) 채집 유물

① 흑색경질토기편(사진 240-①, 도면 43-①)

외반된 구연부편으로 瓶類로 추정된다. 문양은 시문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조밀한 물레흔 만이 남아있다.

기벽에 자연유가 일부 착유되어 있으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에 일부 불순물이 혼입되어 있다. 높이 2.5cm, 추정 구연지름 9.6cm

② 청자편(사진 240-②, 도면 43-②)

저부편으로, 굽은 낮으나 접지면이 상당히 넓게 형성되어 있다. 내저는 동체부와 각을 이루고 있으며, 문양은 없다. 담녹색유약을 시유하였으며, 일부 빙결의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 높이는 4.0cm이며, 굽지름은 6.4cm이다.

③ 분청사기편(사진 240-③, 도면 43-③)

호형을 이루고 있는 동체편으로, 외벽에 7조의 선과 그 안으로 국화문이 인화기법으로 시문되어 있다. 담녹색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특이하게 내면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잔존 길이 6.3cm, 너비는 7.1cm

④ 분청사기편(사진 240-④, 도면 43-⑤)

동체편으로, 내벽에 연판문과 그위에 우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외벽에는 얇은 사선문이 상감 시문되어 있다. 녹갈색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잔존길이 6.3cm 너비 7.1cm

⑤ 백자 저부편(사진 240-⑤, 도면 43-④)

굽은 안굽의 형태로 접지면에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 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문양은 시문되어 있지 않으며, 회백색 투명유를 전면에 시유하여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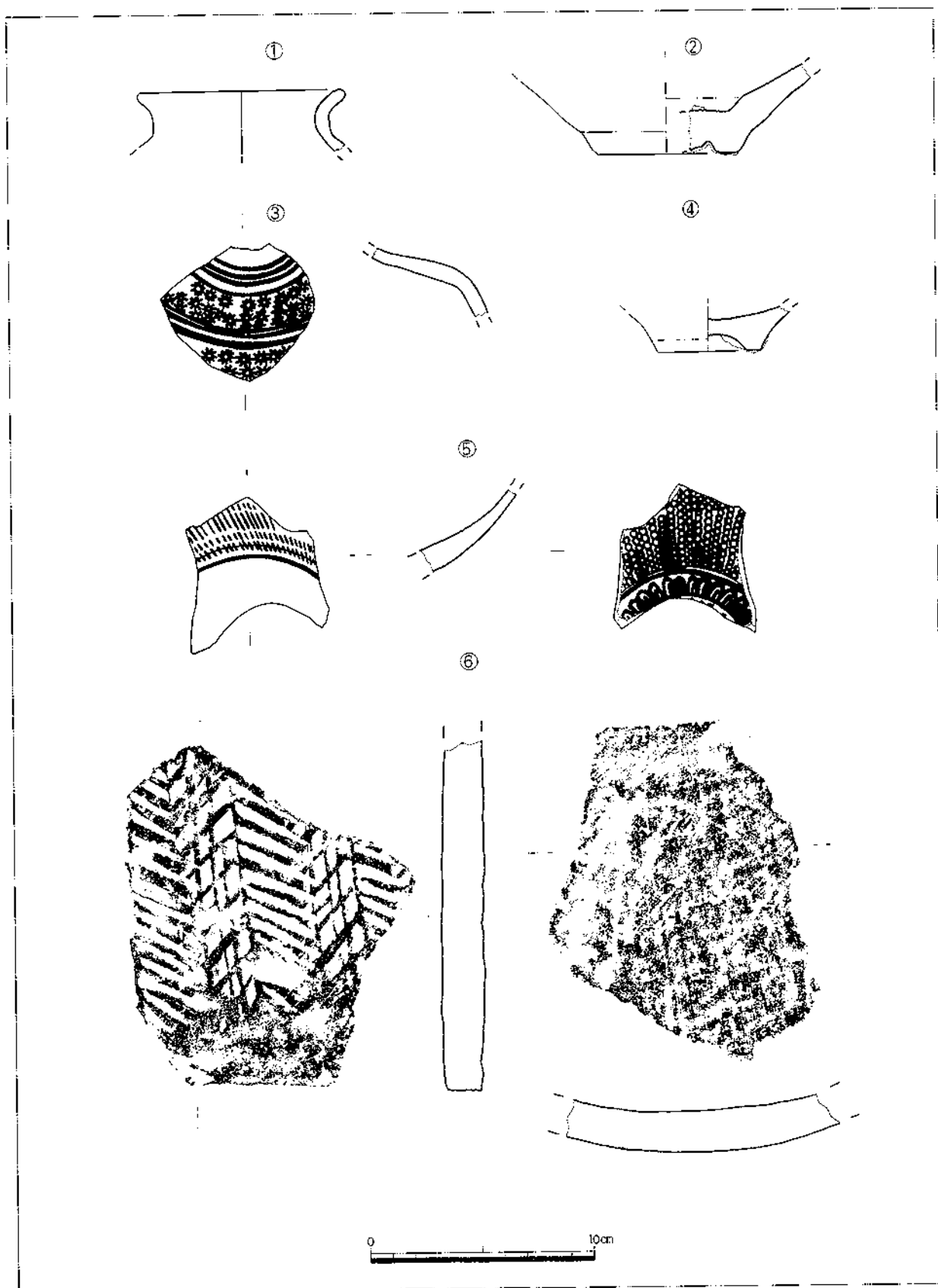
높이 0.6cm 굽지름 4.8cm

⑥ 암키와편(사진 240-⑥, 도면 43-⑥)

기형이 바른편으로 등면에는 어골문과 격자문이 굽게 시문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조밀한 마포흔과 그 위로 물손질 정면한 모습이 남아있다. 상면은 잘 다듬어져 있다. 회갈색경질에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

잔존길이 14.5cm 너비 12.6cm 두께 1.6cm

▶ 지도번호 : 노곡 191-1



도면 43. 양벌리 유물산포지 3지점 채집 유물

305. 陽筏里 느티나무1



사진 241. 양벌리 느티나무 1 전경

- 소재지 : 오폐면 양벌3리 전616(지도76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양벌리 양촌마을에 위치한 보호수이다. 현재 안내판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세는 양호한편이나 밀집된 주택사이에 위치해 있어 앞으로 주의깊은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나무의 수령은 410년, 높이는 12m, 둘레는 4.2m 이다.

- ▶ 지도번호 : 노곡 191-1
- ▶ 지정번호 : 경기광주 45

306. 陽筏里 느티나무2

- 소재지 : 오폐면 양벌1리 답622-2(지도76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양벌리 신성교회 앞에 위치한다. 수령 180년, 나무키



사진 242. 양벌리 느티나무 2 전경

20m, 나무둘레 3.5m이며 1983년 3월 10일 마을나무로 지정되었다.

- ▶ 지도번호 : 노곡191-1
- ▶ 지정번호 : 경기광주 52

307. 鄭應奎 墓와 墓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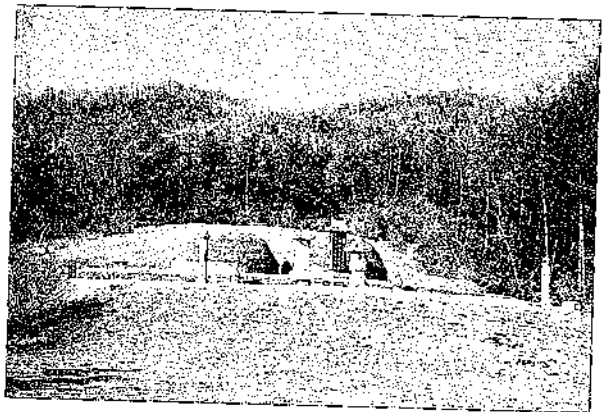


사진 243. 정응규 묘와 묘갈 전경

- 소재지 : 오폐면 추자리 산30-1(지도71 참조)
- 시 대 : 조선
- 종 류 : 묘
- 내 용

鄭應奎(1508-1565)는 明宗代의 무신으로 본관은 光州이고 자는 夢得이며 宗簿寺正을 지낸 熊(?-1533)의 아들이다. 1533년(중종28) 무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樂安郡守와 訓練院判官을 지냈으며 加德鎭僉使를 거쳐 全羅左道水軍節度使에 이르렀다.

묘소는 상담교회 우측의 門縣山 동쪽 구릉에 자리잡고 있다. 잘 단장된 묘역에는 향로석, 동자석, 망주석, 장명등(높이 184cm)의 옛 석물을 갖추었는데, 양식상 선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쌍분으로 꾸며진 봉분에는 원형의 호석을 둘렀다. 봉분 가운데에 세워진 묘갈(총높이 약 173cm)의 방부와 개석은 화강암으로 만들고 비신(높이 113cm, 폭 47cm, 두께 16.2cm)은 백 대리석을 사용하였다. 비신 전면에는 피장자의 신분을 밝히고 뒷면에는 묘갈문을 刻字하였다. 碣題가 '有明朝鮮國折衝將軍全羅左道水軍節度使鄭公墓碣銘并序'로 되어 있어 묘갈임을 알 수 있다. 묘갈문은 사문인 同知中樞府事 南應雲(1509-1587)이 撰하고, 察訪 金玄成(1542-1621)이 書하였으며 전액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입석 연대는 '萬曆5年(1577, 선조 10)10月 日立'이다. 또한 추자리 앞을 지나가는 43번 도로 주변의 대보산업 앞에는 1987년에 건립한 신도비와 증손자 維의 忠孝族閭碑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참고문헌 : 『光州鄭氏世譜』, 1977

『潤松文華』 29, 1985, 한국민족미술연구소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308. 鄭演 墓

□ 소재지 : 오포면 추자리 산30-1(지도7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鄭演(1541-1621)은 光海君代의 인물로 본관은 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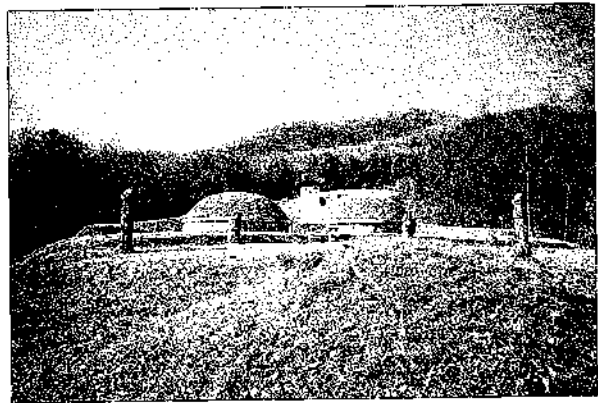


사진 244. 정연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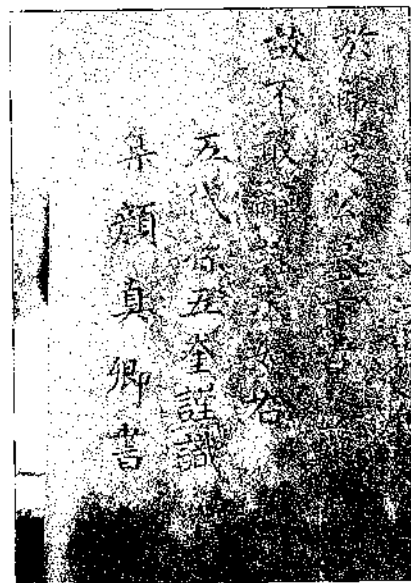


사진 245. 정연 묘표음기의 '集 鄭演 墓' 기사 부분

州이고 자는 巨源이며 호는 永思堂이다. 수군절도사 應奎의 아들이며 참판을 지낸 菊窓 南應雲(1509-1587)의 사위이다. 그리고 영조대에 크게 활약한 진경산수화의 대가 謙齋 鄭敼(1676-1739)의 高祖父이기도 하다. 蔭補로 잠시 관직에 나아가 용양위부사직을 지내고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으나 관직 생활을 즐겨하지 않았다.

묘소는 아버지 應奎의 묘소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동자석, 망주석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고, 쌍분으로 된 봉분에는 최근 원형의 호석을 설치하였다. 봉분 앞에는 방부개석 양식의 묘표가 건립되어 있는데, 방부와 개석은 화강암으로 비신은 순

백색의 대리석으로 조성하였다. 비신의 앞면에는 '贈戶曹判書行嘉善大夫副司直鄭公演之墓'라 썼으며 뒷면의 陰記는 5代孫 五奎(1678-1744)가 識하고 중국 당나라의 명필 顏真卿(709-785)의 글씨를 集字하였다. 영조대에 조성된 집자비로 서예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입석 연대는 '崇禎再辛酉(영조17, 1741)月日'이다.

묘소 아래에는 璿源殿參奉을 지낸 손자 綽의 묘소가 있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참고문헌 : 『光州鄭氏世譜』, 1977

『澗松文華』 29, 1985, 한국민족미술연구소

『英·正祖代 集字碑 名品展』, 1999, 한신대학교박물관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309. 鄭保門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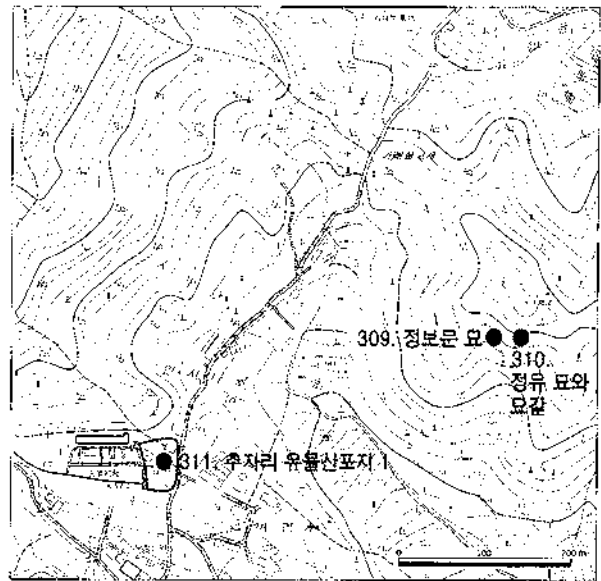


사진 246. 정보문 묘 전경

□ 소재지 : 오포면 추자리 산20-1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지도 77. 정보문 묘 위치도(수원 059)

□ 내 용

鄭保門(1572-1652)은 仁祖代의 무신으로 본관은 光州이고 자는 慶叔이며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演의 아들이다. 1603년(선조35)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제수 받고 熊川縣監, 訓練院僉正을 지냈으며 1651년(효종2) 壽職으로 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묘소는 가래울고개 우측 능선의 중턱에 南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등자석, 문인석(높이 171cm)의 옛 석물을 갖추었으며 봉분에 호석을 설치하였다. 또한 방부개석 양식의 묘표(총높이 약 194cm)를 봉분 앞에 건립하였다. 비신(높이 134cm, 폭 64cm, 두께 20.5cm)의 앞면 중앙에는 한 줄로 通政大行熊川縣監鄭公保門之墓'라 썼으며 뒷면에는 '淑夫人居昌愼氏墓在羅州伽倻先山 淑夫人全州李氏墓在西麓卯向之原'이라는 기사를 각자하여 놓았다. 撰書者와 건립 연대는 기록하지 않았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참고문헌 : 『光州鄭氏世譜』, 1977

『澗松文華』 29, 1985, 한국민족미술연구소

310. 鄭維 墓와 墓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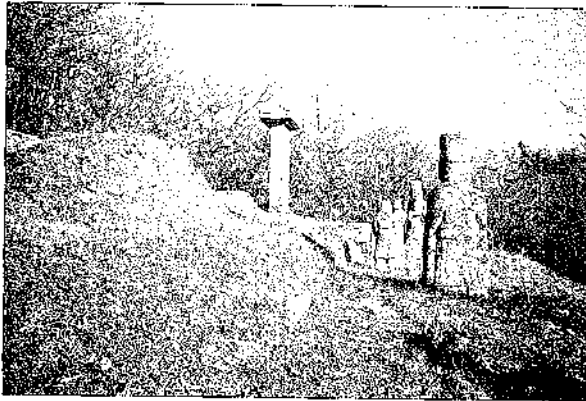


사진 247. 정유 묘와 묘갈 전경

- 소재지 : 오포면 추자리 산20-1(지도77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鄭維(1593-1654)는 孝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光州이고 자는 持世이며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保門의 아들이다. 1618년(광해군10)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권신인 李爾瞻(1560-1623)의 廢母論를 강력히 論斥하고 고향인 전라도 羅州로 낙향하였다. 인조반정후 申欽(1566-1628)의 추천으로 慶基殿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5년후인 1628년(인조6)에 다시 출사하여 光陵參奉을 지내고, 全義縣監과 공조좌랑을 거쳐 白川郡守에 이르렀다. 1822년(순조22) 大臣 金軾瓚(1746-1827)과 韓用龜(1747-1828)가 忠孝로써 表彰할 것을 경연에서 상주하여 정려문을 하사받았다.

묘소는 아버지 保門의 묘소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동자석, 문인석(높이 176cm)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봉분 앞에 묘갈을 세웠다. 동자석(높이 120cm)은 효종대에서 현종대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체 비례가 균형적이고 조각 솜씨가 뛰어나다. 방부개석 양식의 묘갈(총높이 약 221cm)은 '崇禎戊辰後54年辛酉(숙종7, 1681)5

月 日'에 건립한 것으로 刑曹判書 南龍翼(1628-1692)이 撰하고 男 原州牧使 時亨(1619-1699)이 書하였다. 碣題를 '有明朝鮮國通訓大夫行白川郡守 鄭公墓碣銘并序'이라 하여 묘갈임을 밝혔으나 전액은 마련하지 않았다.

묘소 아래에 아들 時元(1613-1666)의 묘소가 있다.

▶ 지도번호 : 능평 190-2

▶ 참고문헌 : 『光州鄭氏世譜』, 1977

『潤松文華』 29, 1985, 한국민족미술연구소

311. 楸自里 遺物散布址 1



사진 248. 추자리 유물산포지 1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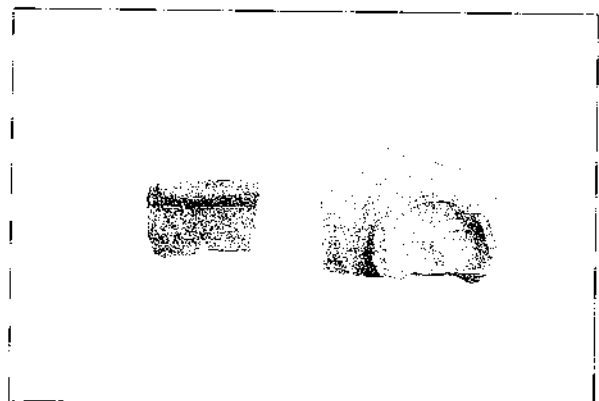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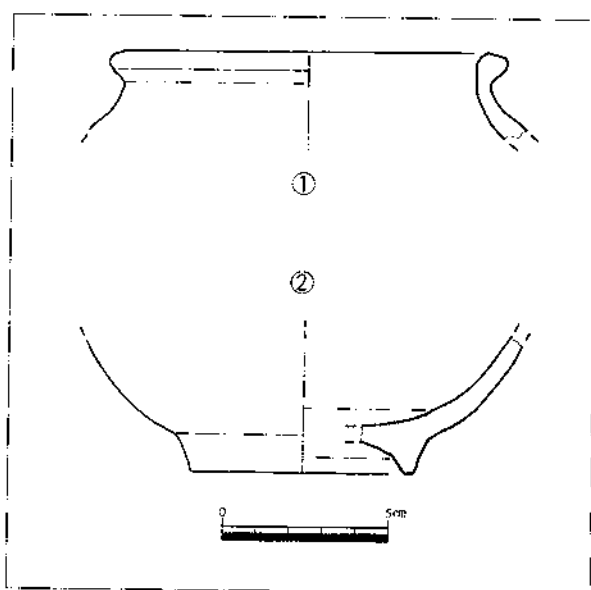


사진 249. 추자리 유물산포지 1 채집 유물



도면 44. 추자리 유물산포지 1 채집 유물

□ 소재지 : 오폭면 추자2리 31-1답 일대(지도77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추자리에 있는 오폭 면사무소를 가기 전에 오폭 파출소의 옆 길로 약 600m정도 올라가면 67번지 일대 공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산포지는 공장 앞쪽 밭에 소재지하고 있다. 낮은 야산 중턱에 밭으로 범위는 약 1000여평 정도로 추정된다. 유물들은 백자편과 기와류 그리고 경질토기편들이 다수 수습되었다.

(2) 채집 유물

① 회갈색경질토기편(사진 249, 도면 44-①)

외반된 구연부편으로 끝을 둥글게 말아 처리하였다. 전체기형은 알수 없으며, 문양도 시문되어 있지않다. 다만 기벽전체에 조밀한 물레자국만이 남아있다. 정선된 점토질을 태토로 사용하였다. 잔존높이 2.6cm 추정 구연지름12.2cm

② 백자편(사진 249, 도면 44-②)

저부편으로 수직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접지면에

는 모래받침흔이 남아있으며, 내저는 원각을 이루고 있다. 문양은 시문되지 않았으며, 전면에 남청백색유약을 시유하였다. 높이4.5cm 추정급지름7.0cm

▶ 지도번호 : 능평 190-2

312. 楸自里 遺物散布址 2



사진 250. 추자리 유물산포지 2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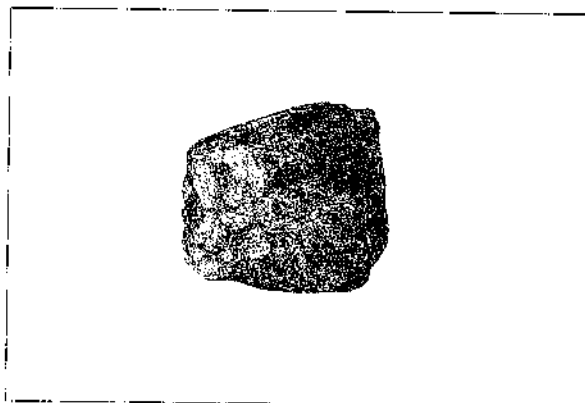


사진 251. 추자리 유물산포지2 채집 유물

□ 소재지 : 오폭면 추자1리 480-1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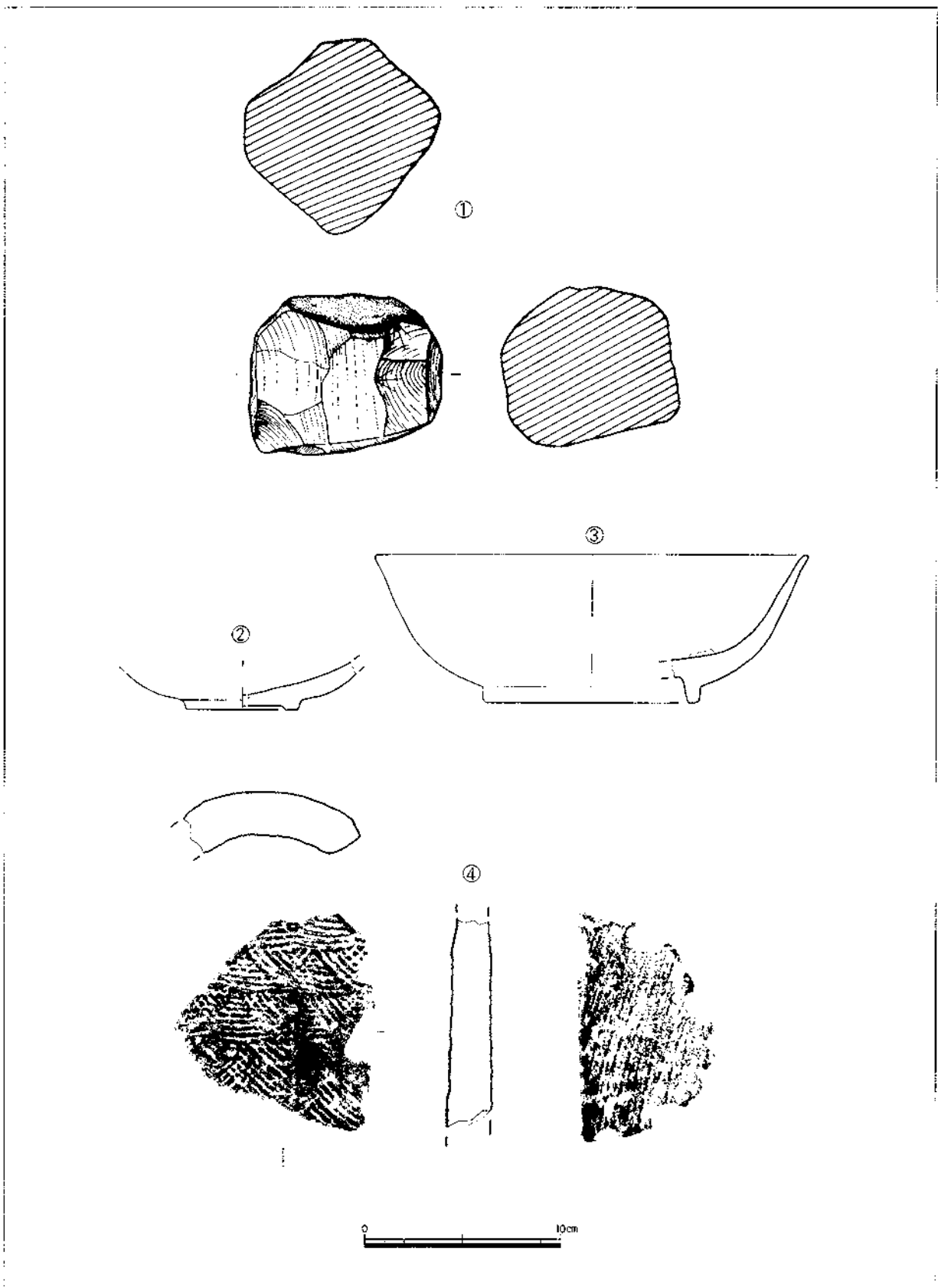
□ 시 대 : 구석기시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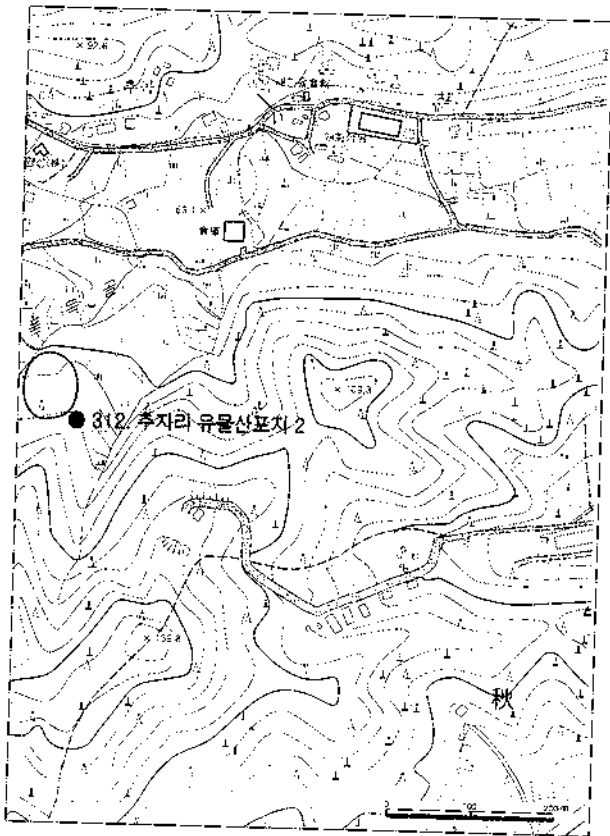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오폭면 추자리에 있는 오폭초등학교 주변에 비교적 넓은 밭이 구릉 능선을 따라 조성되어 있다. 산포지는



도면 45. 추자리 유물산포지 2 채집 유물



지도 78. 추자리 유물산포지2 위치도(수원 060)

이 일대에 480-1번지 민가의 주변 밭에 자리하고 있으며,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서 수습되고 있다. 이곳에서 구석기시대 몸돌과 자기류 그리고 기와편들이 다수 수습되었다.

(2) 채집 유물

① 몸돌(사진 251 상, 도면 45-①)

암질은 석영암으로 들감은 두텁고 큰 자갈들로 추정

된다. 윗면은 자연면이며, 아래 면은 암질의 결을 따라 떨어진 켜면이다. 격지 떼기는 주로 서로 마주보는 두 방향과 아래 면에서 이루어 졌다. 암질이 거칠어 좋은 격기를 얻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윗면의 모서리에 다른 볼체와 부딪쳤던 자국이 관찰되고 있다. 석기는 다른 지역에서 이동 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8.2cm×9.25cm×8.5cm, 1,125g이다.

② 분청사기편(사진 252 하, 도면 45-①)

파손이 심하여 굽과 저부 일부만 남아 있다. 굽은 낮은 수직굽의 형태로 접지면이 넓다. 기벽이 많이 박락되어 있으며, 암녹색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 내면과 외면에 방열흔이 관찰된다. 높이 2.4cm, 굽 지름 2.1cm

③ 백자대접편(사진 252 하, 도면 45-②)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굽과 몸체, 구연부가 남아 있어 기형복원이 가능하다. 구연부는 직립의 형태이며 굽은 수직굽으로 안쪽은 깊게 깎여있다. 문양은 없으며, 내저에 굵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관찰된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회백색 투명유가 시유되어 소성되었다. 태토는 잘 수비된 백토로 일부 잡물이 혼입되어 있다. 높이 7.7cm, 구경 10.8cm, 추정 굽지름 5.2cm

④ 수키와편(사진 252 하, 도면 45-③)

결실이 심한편으로 등면에는 수파문이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 굵은 마포흔 자국이 관찰되고 있다. 측면에는 안쪽에서 분할한 와도흔 자국 1/3 정도 남아 있다. 흑회색 경질의 기와로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로 굵은 사립질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길이 11.2cm, 두께 2.4cm

▶ 지도번호 : 능평 190-2

중 부 면

313~527. 남한산성과 주변유적

- 소재지 :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일대
- 시 대 : 조선시대 · 근대 · 현대
- 종 류 :
- 내 용

1) 위치와 현상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군 산성리에 자리하고 있다. 서쪽의 청량산(淸涼山:497m)과 북쪽의 연주봉(連珠峯:466m), 동쪽의 망월봉(望月峯:502m), 벌봉(514m)등을 연결하여 쌓은 석성이다. 성의 외부는 급 경사를 이루는 지역이 많으나 성의 내부는 경사가 완만하고 넓은 구릉성 분지를 이루고 있다. 면적이 약 2.3km²에 이르며, 약 45개의 연못과 80여개의 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천연 요새로서의 지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남한산성은 팔당지역에서 한강하류에 이르는 넓은 수계가 영향권에 들어오며, 한강 이북의 아차산 일대와 불암산, 인왕산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산성의 서북쪽으로는 암사동 선사유적지와 풍납동, 방이동, 석촌동의 토성과 고분군이 있으며, 동북쪽으로는 교산동, 이성산성등 많은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산성의 서쪽으로는 교통로인 중로가 지나고 있어 남쪽으로부터 한양 도성으로 가거나 북쪽으로부터 한강 이남지역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남한산성은 문무왕 12년(672) 신라가 당의 침공에 대비하여 쌓은 주(壘)장성이라 하였다. 주장성은 고려시대에 몽고의 침입시에도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남한산성에 들어가 항쟁하였다는 기록도 보이고 있다. 남한산성에 대한 수축논의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계속되어져 왔지만 이괄의 난과 청의 군사적 위협이 전개되면서 인조 2년(1624)에 수축되어 인조 4년에 완성하였다. 병자

호란 이후에도 인조 16년(1638) 대대적인 중·개축이 이루어졌고, 숙종 12년(1685)에는 봉암성을 신축하였다. 숙종 19년(1693) 병자호란때 청군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였던 동쪽지역에 한봉성을 신축하여 취약점을 보완하였다. 영조 11년(1753) 신남성 돈대가 구축되었으며, 정조 3년(1779) 남한산성에 대한 중·개축이 이루어 졌다. 이후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산성내에 있던 많은 사찰과 건물들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산성은 1950년대에 들어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63년 1월 사적 제 57로 지정되었다. 국립공원이었던 남한산성이 1971년 3월 도립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1972년에는 수어장대를 비롯한 송렬전, 청량당, 현절사, 침패정, 연무관등 성내의 건물들이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83년 지수당과 장경사가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으며, 1988년에는 망월사지와 개원사지가 경기도 기념물로 추가 지정되었다. 1997년에는 남한산성 행궁지가 경기도 기념물 제 164호로 지정되어 현재에는 성벽을 포함하여 12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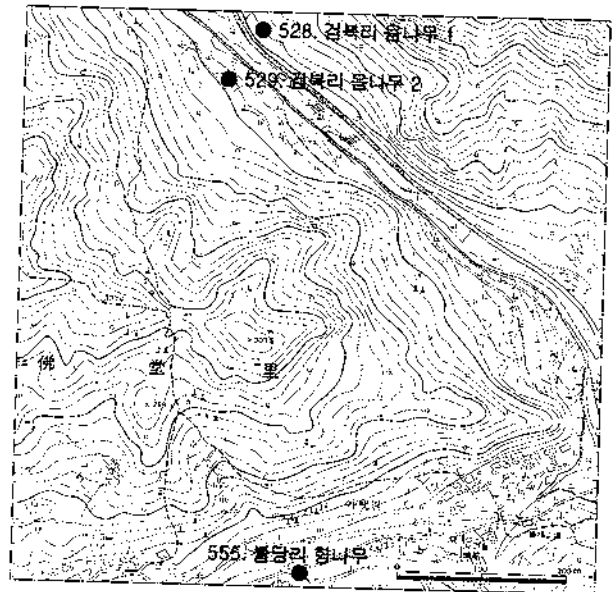
남한산성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조사는 1986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성곽의 현황과 4 대문, 암문, 웅성, 돈대, 행궁지등이 조사되었다.

이후 1998년에는 한국토지공사 토지 박물관에 의하여 남한산성의 행궁지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발굴조사는 행궁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 및 발굴조사로 상궐지는 정면이 7間 측면이 4間구조의 건물지로 밝혀졌다. 건물지의 아래층에서 통일신라시대 기와편과 인화문토기편이 출토되어 주목되었다. 또한 1999년 상기 기관에 의하여 조사된 남한산성 지표조사 결과 웅성을 포함한 원성의 둘레가 8.89km, 외성의 둘레가 3.21km로 전체의 둘레가 12.1km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 218건에 달하는 많은 문화유적이 찾아지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남한산성에 대한 학술적조사가 이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질 것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남한산성』, 1986, 한양대학교 박물관
『남한산성 행궁지』, 199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지도 79. 검복리 음나무 1, 2 위치도(수원 019)

528. 黔伏里 음나무1



사진 252. 검복리 음나무 1 전경

□ 소재지 : 중부면 검복리 답 43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남한산성 대표소를 지나 검복리 양지말 입구에 위치한다. 수세와 수형은 대체로 양호하나 주변정리가 되지 않아 경관은 어수선하다. 나무의 수령은 160년, 높이는 21m, 둘레는 2.55m 이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지정번호 : 경기광주 30

529. 黔伏里 음나무2



사진 253. 검복리 음나무 2 전경

□ 소재지 : 중부면 검복리 답 43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검복리 음나무 1의 맞은편의 장승군과 인접해 위치

소는 고속도로 못미처, 우측의 장작산(333m) 남쪽 줄기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문인석은 최근에 새로 조성하였다. 봉분 앞에 위치한 方趺圓首 양식의 묘표 전면에는 '有明朝鮮 贈嘉善大夫吏曹參判行通政大夫行大邱都護府使李公 穉之墓 貞夫人羅州林氏 附左'라 되어 있는데, 품계 앞에 쓰는 '行'자를 한번 쓰고 관직 앞에 또 쓰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음기와 건립 연대는 기록하지 않았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萬姓大同譜』, 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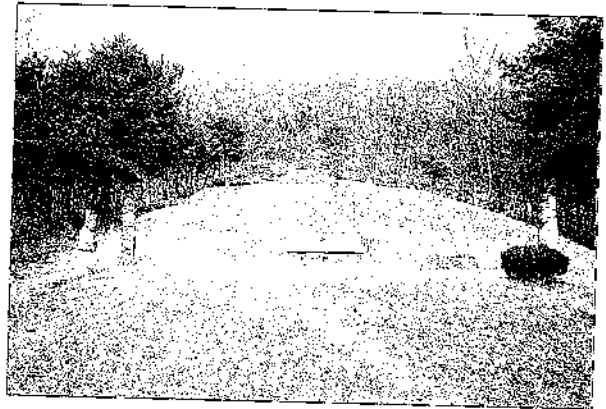


사진 255. 이정기 묘 전경

531. 李廷夔 墓와 神道碑

□ 소재지 : 중부면 상번천리 산2-1임(지도80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李廷夔(1612-1671)는 顯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韓山, 자는 一卿, 호는 歸川으로 대구도호부사를 지낸 穉의 아들이며 참판 金光炫(1584-1647)의 사위이다. 1648년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정언과 전적을 지냈으며 1656년(효종7) 홍문관 수찬에 재직시 상소를 올려 愍懷嬪 姜氏(?-1646)의 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金弘郁(1602-1654)을 伸冤시켰다. 이후 대사성과 한성부좌윤을 거쳐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尤庵 宋時烈(1607-1689)과 절친한 사이였으며 학문에도 뛰어나 『月坡漫錄』과 『順外編』을 저술하였다.

묘소는 아버지 穉의 묘소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의 석물은 망주석을 제외하고 모두 최근에 새로 마련하였다.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는 비신의 전면에 '有明朝鮮 嘉善大夫吏曹參判李公廷夔之墓 貞夫人安東金氏 附左'라 썼으며 음기와 건립연대는 새기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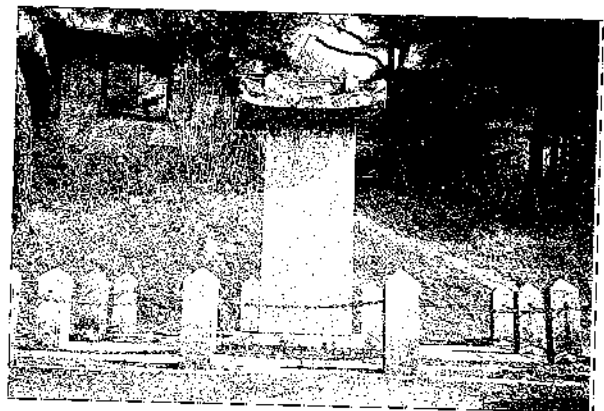


사진 256. 이정기 신도비

묘소 앞, 도로 건너 맞은편의 구릉에는 신도비가 건립되어 있다. 입석 연대는 '崇禎甲申後再丙寅(1746, 영조22)閏3月29日 立'으로 당시 크게 유행하던 방부개석의 양식을 갖추고 있다. 비문은 宋時烈(1607-1689)이 짓고 宋浚吉(1606-1672)의 글씨를 集字하였으며 '贈吏曹判書行吏曹參判李公神道碑銘'이라고 쓰여진 전액은 金壽恒(1629-1689)의 篆書를 집자하였다. 그리고 追記는 증손 台重(1694-1756)이 謹識하였다.

송시열, 송준길, 김수항은 西人의 중심 인물로 효종과 현종대의 정계와 학계에 끼친 영향이 막대하였다. 뿐만아니라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나, 당시 서인들은 碑碣을 입석할 때 한결같이 이들에게 비문과 글씨를 얻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다. 송시열은 문장에도 능하였지만 글씨에도 뛰어나 송준길의 글씨와 함께 일러 세

상에서는 '兩宋體'라 칭하였는데, 양송체는 氣質이 雄渾하고 行儀가 莊重한 서체로 당시 서인의 당색을 가진 인물들은 모두 이 글씨체를 따라 썼다. 또한 당나라 李陽冰의 전서를 수용하여 자기화시킨 김수항의 전서 역시 당대 제일이었다.

1676년(숙종2) 송시열에게 비문을 받아 놓았으나 조건의 여의치 못해 입석을 미루다가, 70년후인 1746년에 이르러서야 빗들을 구하고 신도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이때 송시열 撰, 송준길 撰, 김수항 篆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당대 명필의 글씨를 구하지 않고 두 사람의 遺筆을 모아 集字하였다. 후손들이 이같은 방법을 택한 것은 당시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던 集字碑의 형식을 따른 것이기도 하다.

신도비의 좌측에 1982년 세워진 '菊史李公尙馥功績碑'의 비문에 의하면 1936년 대홍수로 인해 신도비가 유실될 뻔한 것을 현재의 장소로 移建하였다고 한다.

묘소 아래에는 말아들 濱의 묘소가 있으며, 이웃한 상변천 2리의 한산이씨 세장지에는 한성부우윤 李慶涵(1553-1627), 증공조판서 李慶滉(1569-1628) 등의 묘소가 산재해 있다. 또한 三和縣令을 지낸 李韻(본관 미상)의 묘소도 있으나 후손이 없어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京畿金石大觀』 5, 1992, 경기도

『英·正祖代 集字碑 名品展』, 1999, 한신대학교박물관

『중부고속도로(하남-호법구간)확장공사 예정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7, 세종대학교박물관

532. 李沆 墓

□ 소재지 : 중부면 상변천리 산2-1임(지도8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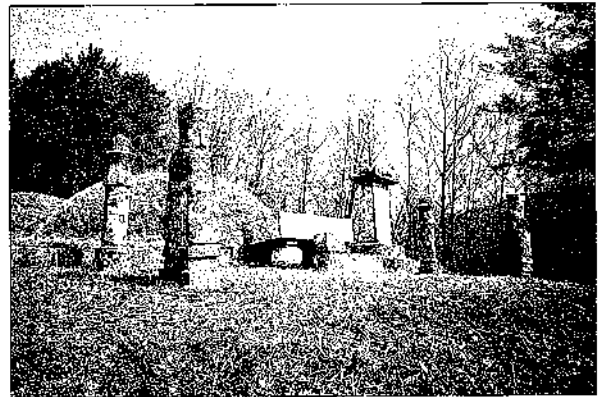


사진 257. 이항 묘 전경



사진 258. 이항 망주석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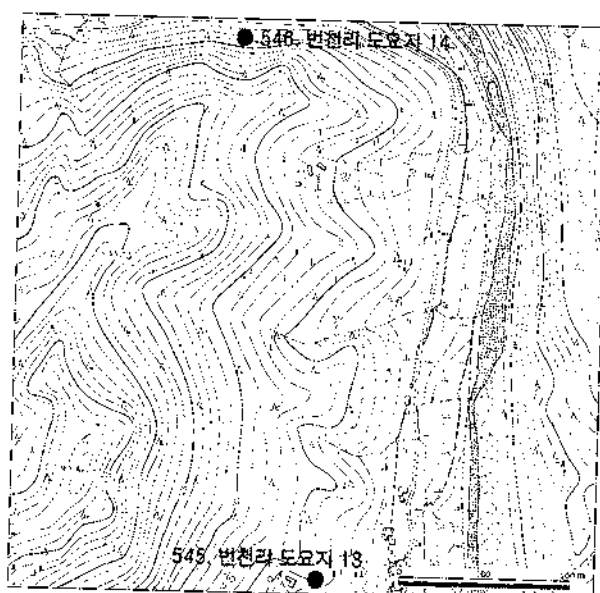
李沆(1654-1680)은 肅宗代의 인물로 본관은 韓山이며 자는 季深이다. 이조참판을 지낸 廷燮의 아들이며 대사헌 閔蕃重(1625-1677)의 사위이다. 27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였으나 文行이 있었다고 전한다. 아들 秉常(1676-1748)이 현달하여 사후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묘소는 이정기 묘소의 우측 구릉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

였으며 봉분 우측에 묘표(총높이 약 237cm)를 세워 놓았다. 蓮花臺를 마련한 망주석(높이 194cm)과 문인석(높이 166cm)은 양식이 뛰어나고 조각 솜씨가 사실적이다. 묘표의 앞면에는 '有明朝鮮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李公沆之墓 贈貞敬夫人驪興閔氏 附右 貞敬夫人全州崔氏 附左'라 썼다. 음기는 男 判敦寧府事 秉常이 識하고 從孫 弘文館副應教 台重이 撰하였으며 건립 연대는 '崇禎甲申後102年乙丑(1745. 영조21)5月 日'이다. 양식은 영조대에 유행하던 방부 개석 양식이며 비신(높이 158cm, 폭 62cm, 두께 35cm)은 애석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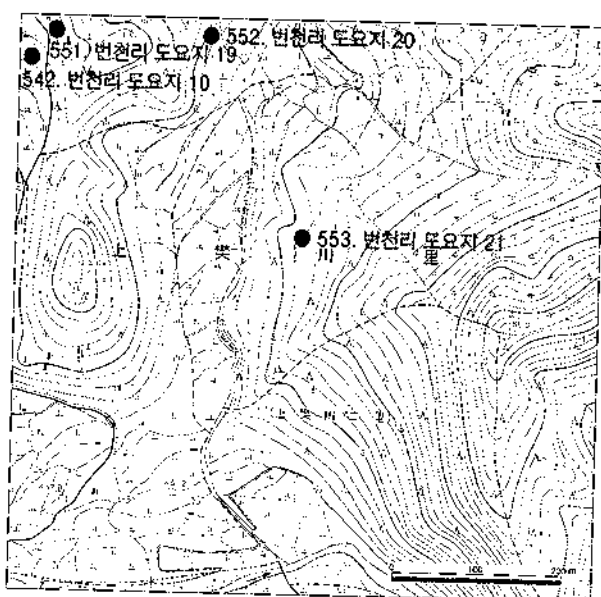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萬姓大同譜』, 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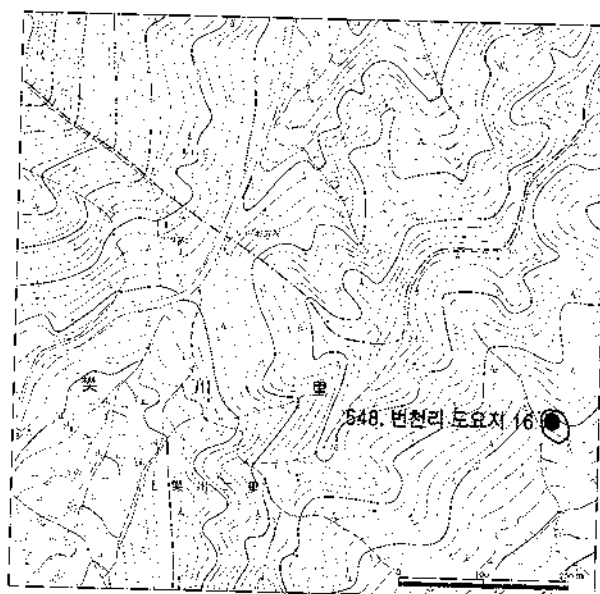


지도 82. 변천리 도요지 위치도2(이천 022)

533~553. 樊川里 陶窯址 1~21號



지도 81. 변천리 도요지 위치도1(이천 022)



지도 83. 변천리 도요지 위치도3(이천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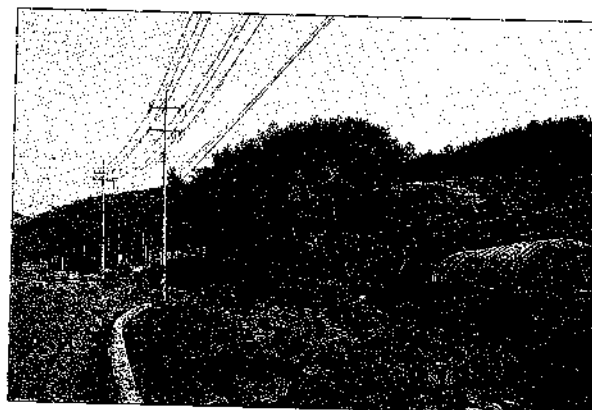


사진 259. 변천리 도요지 5호 전경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급/반침/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세기	●(상감)백자/대접, 접시, 잔, 병, 향아리/담청, 연회백색/죽 절굴/태토비침●요도구/도침, 원반형반침	상록원 (681-3, 681-5)	田	광주 191-3	○	
2호	15세기	●(상감)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담청색/죽절굴/태토 비침	추정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3호	15세기	●(상감)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마상배, 합, 향아리/설백, 연회백, 담청색/죽절, 도립삼각형급/태토비침, 모래받침● 요도구/갑발뚜껑, 도침	술치 (126)	林	광주 191-3	×	
4호	15-16세기	●(청화·철화)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마상배, 합, 뚜 껑, 병, 향아리, 제기, 묘지/설백, 연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 죽절굴/모래받침, 태토비침●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원반 형받침●작업장시설	경안 뜰개이트 (522-2)	展示館	광주 191-3	○	1985-1986 년 이대 박물관 발굴 (5호로 명명)
5호	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향아리/설백, 연회백, 담청색/도 립삼각형, 죽절굴/모래받침, 태토비침●요도구/원반형받 침	관청수 부근 (113-1)	林·田	광주 191-3	○	
6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설백, 연회백색/도립삼각형급/모래받 침	추정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7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설백, 연회백색/도립삼각형급/모래받 침●요도구/원반형받침	관청수 부근 (186-1)	田	광주 191-3	○	
8호	15-16세기	●백자/대접, 대접, 접시, 잔/설백, 연회백, 담청색/도립삼각 형, 죽절굴/모래받침, 태토비침●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원 반형받침	관청수 부근 (86)	林	광주 191-3	○	
9호	16세기	●(청화)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마상배, 합, 뚜껑, 병, 향 아리, 묘지/설백, 연회백, 담청백색/도립삼각형, 죽절굴/모 래받침, 태토비침/人, 地, 玄, 黃음각명문●(상감)청자/화 분, 반침, 제기/연록색●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원반형받침 ●작업장시설	관청수 부근 (188-1, 2, 3)	田 道路	광주 191-3	○	1998-1999년 이대박물관 발굴
10호	15세기	●(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 병/연회백, 암갈, 적갈색/죽 절굴형/굵은모래받침	추정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11호	15세기	●(상감)백자/대접, 접시, 향아리/연회백, 담청색/죽절굴/ 태토비침●요도구/원반형받침	말랑고개 (344-4)	田	광주 191-3	×	
12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굴/태토비침	추정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13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굴/태토비침	큰골 (36)	笠地 田	광주 191-3	×	
14호		『한국의 백자도요지』의 지도에 표시만 있음	미확인		광주 191-3	×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굵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5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항아리/설백, 연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집 ●요도구/잡발, 원반형받침	관청수부근 (183-3)	林	광주 191-3	×	
16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회백, 담청색/죽절굽/태토비집	장작골 (34-12)	幕·林	광주 191-3	×	
17호	15-16세기	●(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연회백/죽절굽형 ●(상감)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항아리/회백, 담청색/죽절굽/태토비집	세동묘지 (367-4)	林·田	광주 191-3	×	
18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회백, 담청색/죽절굽/태토비집 ●요도구/도침	말랑고개 (331)	林	광주 191-3	×	
19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담청색/죽절굽/태토비집	상변천2리 (138)	沓	광주 191-3	×	
20호	15세기	●(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연회백, 암록, 암갈색/죽절굽형 ●백자/대접, 접시, 잔/회백, 담청색/죽절굽/태토비집	상변천2리 (108)	幕·田	광주 191-3	○	
21호	15세기	●(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연회백, 암갈색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담청색/죽절굽/태토비집	상변천2리 (114.73)	林	광주 191-3	○	

554. 上樊川里 느티나무



사진 260. 상변천리 느티나무 전경

로 진입하여 번내마을로 들어서는 입구 하천에 위치한다. 보호수 주변에는 번천리 도요지군과 번천초등학교, 번천성결교회가 자리한다. 나무의 수세와 수형은 모두 양호하며, 수령은 210년, 높이 21m, 둘레 3.3m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지정번호 : 경기광주 27

555. 佛堂里 향나무

□ 소재지 : 중부면 불당리 대 199(지도79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남한산성 매표소를 지나 불당리 아랫말에 위치한다. 보호수는 식당의 담장사이에 위치해 있어 수세와 수형

□ 소재지 : 중부면 상변천리 대 211-1(지도80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하남에서 광주로 가는 10번 도로에서 경안톨게이트



사진 261. 불당리 향나무 전경

이 모두 좋지 못하여 주변경관의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무의 수령은 130년 높이는 7m, 둘레는 1.43m 이다.

- ▶ 지도번호 : 성남 190-4
- ▶ 지정번호 : 경기광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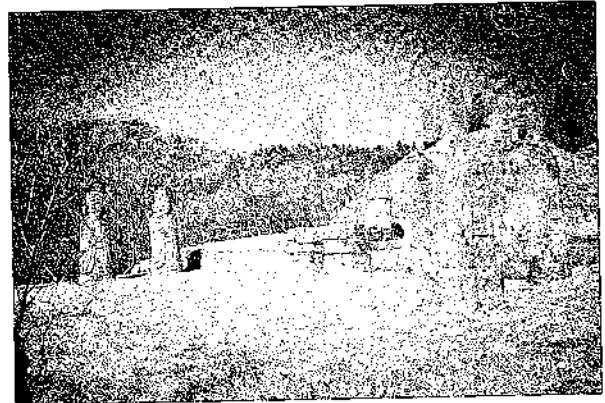


사진 262. 의안대군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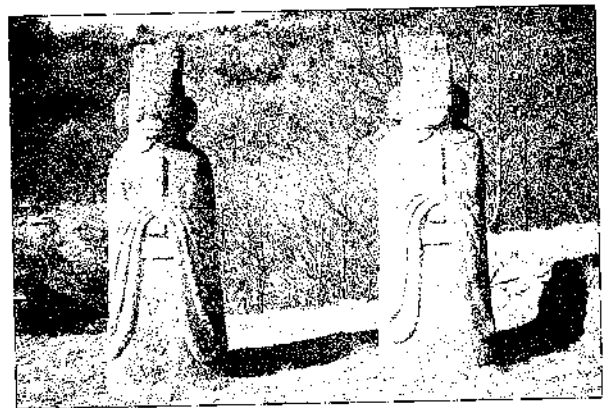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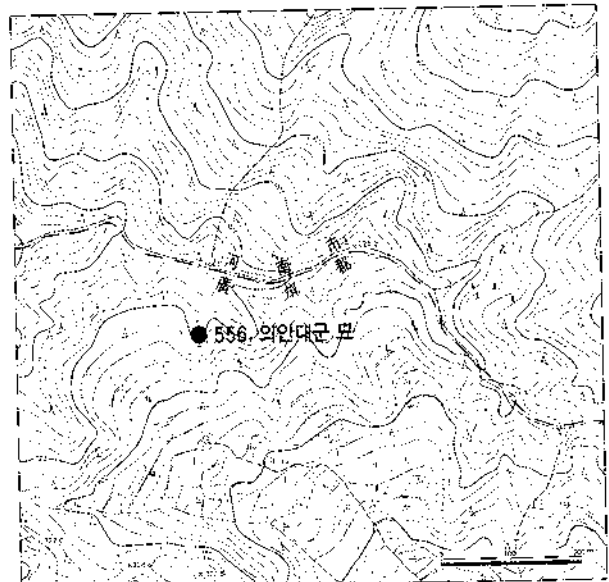


사진 263. 의안대군 묘 좌측 문인석

556. 宜安大君 墓

- 소재지 : 중부면 엄미2리 산152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宜安大君(1382-1398)은 태조의 제 8왕자로 이름은 芳碩이며 母后는 神德王后 康氏이다. 1392년(태조1) 世子로 책봉되었으나 1398년(태조7) 일어난 제 1차 왕자의 난에 친형인 撫安大君(1381-1398)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1406년(태종 6년) 昭悼라 追諡하였으며 1437년(세종 19년) 왕명으로 錦城大君(1426-1457)을 後嗣로 정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받들게 한뒤 五原을 贈邑하였다. 그러나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를 꾀하다 세조에 의해 賜死되자 다시 세종의 제 12왕자 密城君 瑨(1430-1479)의 둘째 아들인 春城君 당으로 하여금 후사를 잇게 하였다. 1680년



지도 84. 의안대군 묘 위치도(수원 009)

(숙종 6년) 의안대군으로 추증되었으며 1794년(정조 18년)에는 왕이 친히 제문을 찬술하고 승지를 보내 치

제하였다. 그리고 매년 경기도관찰사로 하여금 광주군을 순행할 때에 몸소 살피고 장계로 보고하게 하였다.

묘소는 벽수골 뒤편, 남한산의 동쪽 구릉에南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명 '애기능'이라고도 불리운다.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문인석 2쌍(안쪽 문인석 높이 170cm, 바깥쪽 문인석 높이 166cm)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다. 1448년(세종 30) 11월에 부인 심씨가 돌아가자 세종의 명으로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묘역을 새로 정비하고 석물을 갖추었다. 이때에 조성된 묘표와 문인석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양식과 조각 솜씨가 뛰어나 세종대의 우수했던 문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묘소는 上下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봉분마다 호석을 둘렀다. 뒤쪽이 의안대군의 봉분(호석 규모, 가로 414cm, 세로 565cm)이고 앞쪽이 부인 심씨의 봉분(호석 규모, 가로 416cm, 세로 527cm)이다. 의안대군의 묘표(총높이 100cm) 앞면에는 '有明朝鮮國五原昭悼公之墓'라 썼고 후면에는 '皇明正統拾肆年(1449, 세종31)2月 日'이라 하였다. 또한 부인 심씨의 묘표(총높이 95cm)는 전면이 마모되어 '…三…大夫人沈氏之墓'라는 글자만 확인되나 후면은 '皇明正統拾肆年(1449, 세종31)正月 日'이라는 刻字가 온전히 남아 있다. 뒷면의 간지중에 정통14년을 十四年이라 하지 않고 拾肆年이라 표기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 두 묘표 모두 방부하엽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재질은 화강암이다. 심씨의 봉분 앞에 놓여져 있는 향로석은 양식상 정조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정조의 명으로 경기도관찰사가 묘역을 살피보고,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 묘역 뒤로는 곡장을 쌓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비 고 : 경기도기념물 제16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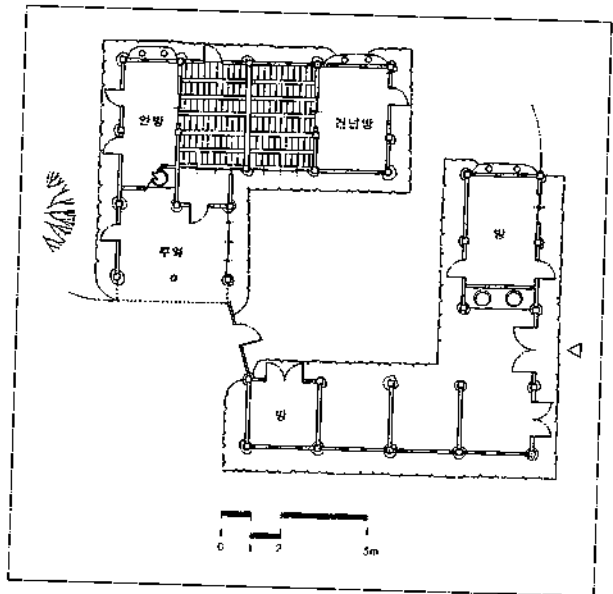
▶ 참고문헌 : 『完山李氏密城君派世譜』

『경기문화유적지도』, 2000, 경기도 박물관

557. 방병식 가옥



사진 264. 방병식 가옥 전경



도면 46. 방병식 가옥 평면도

□ 소재지 : 중부면 엄미2리(벽수골)

□ 시 대 : 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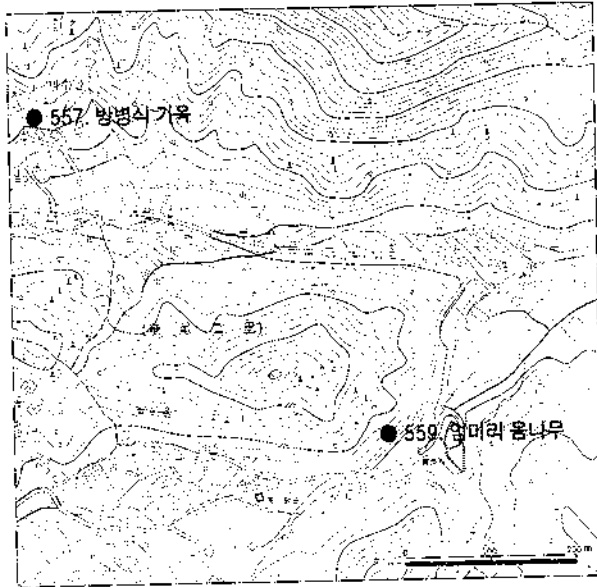
□ 종 류 : 고가

□ 내 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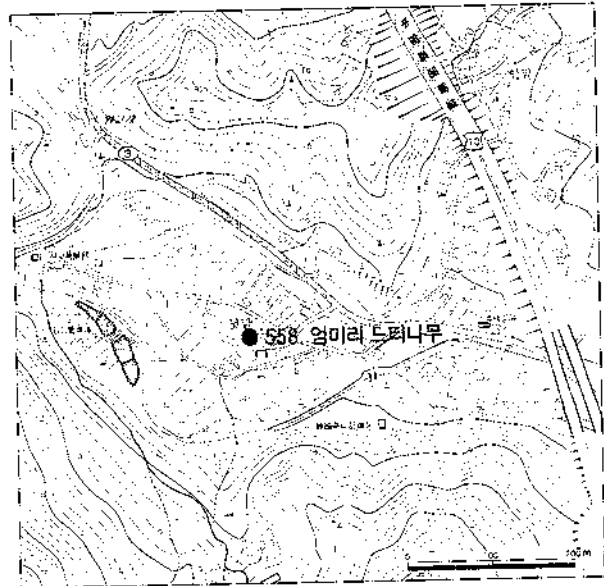
안채상량문(崇禎紀元後五甲)의 기록으로 보아 1942년에 건립된 가옥으로 보인다.

벽수골에서는 가장 오래된 가옥이다.

전체 배치는 ㄱ자형의 안채와 바깥채가 함께 튼 ㄷ자형의 형태이다. 안채구성은 부엌 + 안방 + 대청 + 건넌방으로, 구조는 1고주 4량의 홀처마 팔작지붕이다.



지도 85. 방병식 가옥 위치도(수원 020)



지도 86. 엄미리 느티나무 위치도(수원 020)

안채 대청에 문을 달아 쓰고 있는 것 외에는 큰 변형은 없고, 바깥채는 여전히 화목으로 난방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

▶ 지도번호 : 성남190-4

□ 내 용

뒷말의 마을회관 앞마당에 위치한다. 느티나무의 수령 300년, 나무키 25m, 나무둘레 6.7m이다. 1983년 3월 10일 군나무로 지정되었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지정번호 : 경기광주16

558. 奄尾里 느티나무



사진 265. 엄미리 느티나무 전경

□ 소재지 : 중부면 엄미 1리 전399-2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559. 奄尾里 옴나무

□ 소재지 : 중부면 엄미리 576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엄미리 새말 입구에 위치한다. 보호수 주변에는 장승군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다. 수세와 수형은 모두 양호하며, 나무의 수령은 160년 높이는 15m, 둘레는 3.0m 이다.

▶ 지도번호 : 성남 190-4

▶ 지정번호 : 경기광주 33



사진 266. 엄미리 읍나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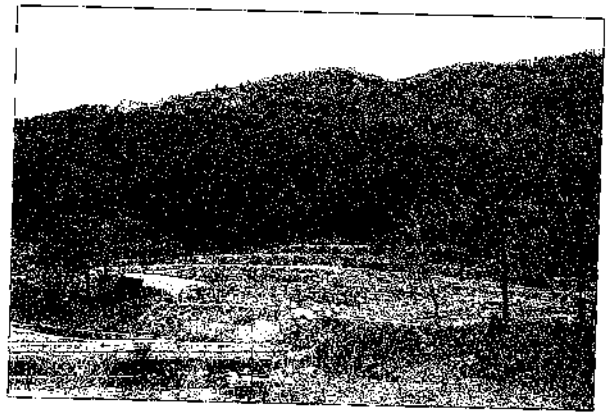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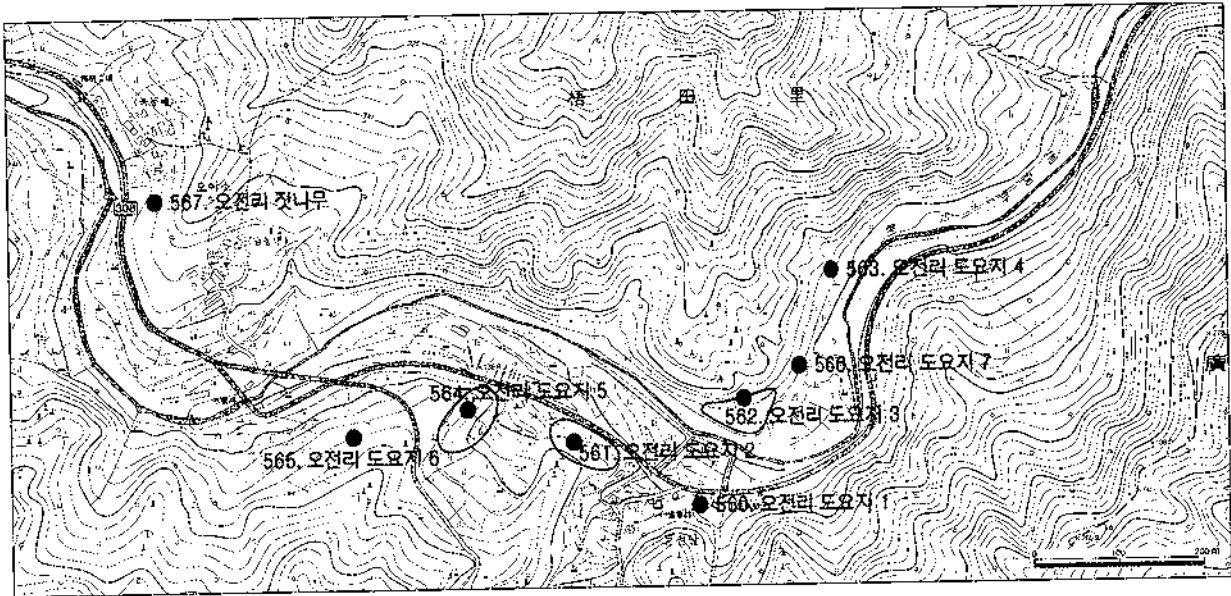


사진 267. 오전리 도요지 3호 전경

560~566 梧田里 陶窯址 1~7號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굽/받침/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향아리/연회백, 담청색/죽절굽/태토비짐	둔전말 (35-1, 35-4, 35-7)	田 林	성남 190-4	×	
2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설백, 연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짐 ●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원반형받침	둔전말 (270-3, 268-3, 269)	林	성남 190-4	○	
3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설백, 연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짐 ●청자/반/암록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요도구/갑발뚜껑, 도청, 원반형받침	둔전말 (27, 28)	林 · 田	성남 190-4	○	
4호		『한국의 백자도요지』의 지도에 표시만 있음	미확인		성남 190-4	×	
5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뚜껑/설백, 연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짐 ●요도구/갑발뚜껑, 원반형받침	둔전말 (291, 305-3, 304)	田 貸地	성남 190-4	○	1998년 전국대 발굴
6호		『한국의 백자도요지』의 지도에 표시만 있음	미확인		성남 190-4	×	
7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담청색/죽절굽/태토비짐 ●요도구/도청	둔전말 (15-1)	林 · 田	성남 190-4	×	



지도 87. 오전리 도요지 위치도(수원 020)

567. 梧田里 잣나무

- 소재지 : 중부면 오전리 답 97(지도87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남한산성 매표소를 지나 석은교 북동쪽 잣나무 숲에 위치한다. 보호수 주변에는 오전리 도요지군이 위치한다. 나무는 모두 다섯 그루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한 그루는 이미 잘려 없어진 상태이다. 또한 주변에 쓰레기 어지럽게 널려있어 주변 경관의 정리가 필요하다. 잘려나간 한그루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세와 수형 모두 양호하다. 나무의 수령은 130년 정도이고 높이 19~



사진 268. 오전리 잣나무 전경

22m, 둘레는 1.7m 내외이다.

- ▶ 지도번호 : 성남 190-4
- ▶ 지정번호 : 경기광주 32

초 월 면

568. 勒峴里 遺物散布址

- 소재지 : 초월면 늑현리 25-8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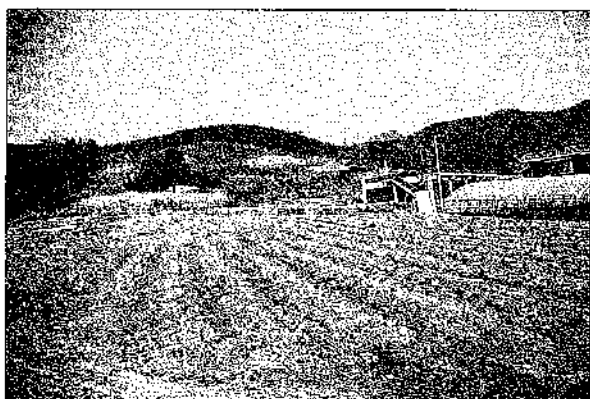


사진 269. 녹현리 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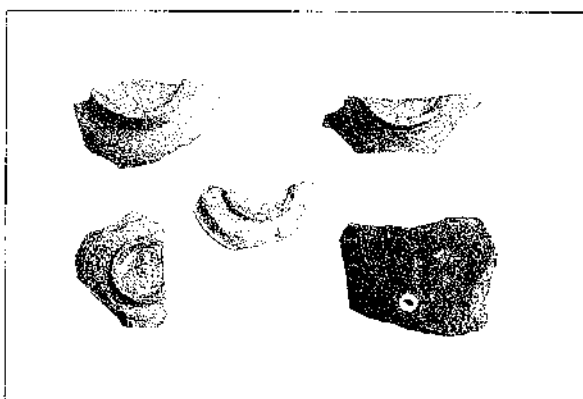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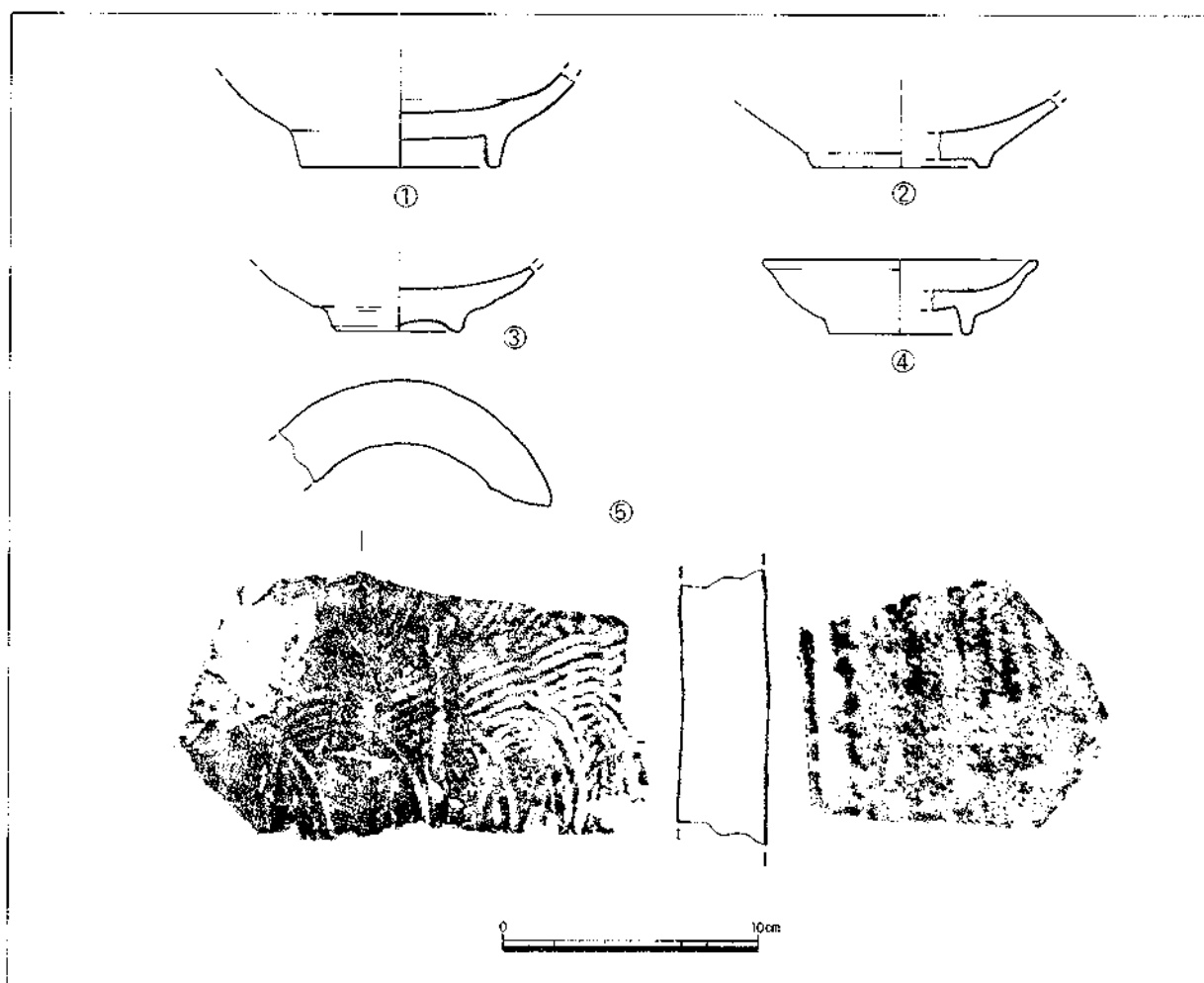


사진 270. 녹현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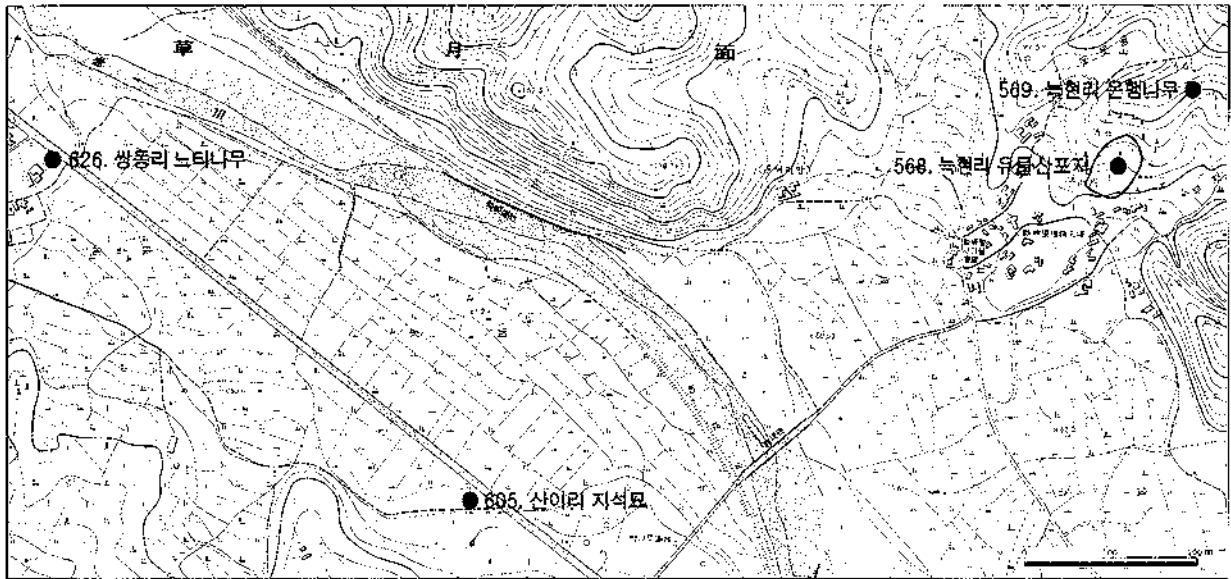
1) 위치와 현상

산이리 지석묘에서 북동쪽으로 나 있는 도로를 따라 가면 새마을회관을 지나 부처빛골이 나온다. 유물산포

지는 이 곳, 평지와 인접한 구릉사면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주변에 자기, 도기편이 산재해 있다. 지금은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고, 공장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다. 북쪽



도면 47. 녹현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지도 88. 녹현리 유물산포지 위치도(어천 053)

으로는 해발 100~130m 내외의 소구릉이 솟아 있고, 남서쪽으로 약 600m 떨어져 곤지암천이 흐르고 있다.

2) 채집 유물

① 백자접시편(사진 270, 도면 47-①)

굽 일부만 남아 있는 백자접시편이다. 연녹색유로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상태는 양호하다. 내저에 원각선이 1줄 둘러져 있으며 굽 접지면에 모래받침흔이 확인된다. 현높이 3.9cm, 복원구연지름 8.0cm이다.

② 백자접시편(사진 270, 도면 47-②)

굽 일부만 남아 있는 백자접시편이다. 연녹색유로 시유되었으며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내저에 내화토눈 흔적이 확인된다.

현높이 2.8cm, 복원저부지름 7.0cm이다.

③ 백자접시편(사진 270, 도면 47-③)

굽 일부만 남아 있는 백자접시편이다. 연녹색을 띄고 있으며굽을 제외하고 시유되어 있다. 시유 상태는 불량하다. 현높이 2.7cm, 저부지름 5.0cm이다.

④ 백자종지편(사진 270, 도면 47-④)

굽 일부만 남아 있는 백자종지편이다. 연백색유로 시유되었고 시유상태는 불량하다. 내저에 모래받침흔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높이 3.0cm, 복원 저부지름 5.8cm이다.

⑤ 수키와(사진 270, 도면 47-⑤)

회녹색 경질와로 상단 일부만 남아 있다. 표면에 중호문이 일부 타날되어 있고 이면에는 포목흔이 관찰된다. 측면에 와도흔이 1/3가량 남아 있다. 현길이 8.8cm, 폭 11.4cm, 두께 2.6c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569. 勒峴里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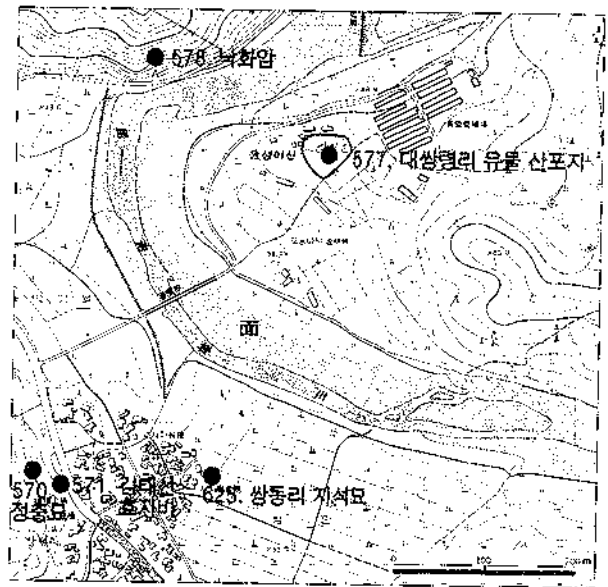
사진 271. 녹현리 은행나무 전경

- 소재지 : 초월면 늑현리 산18-22(지도88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

본 보호수는 초월면 늑현리 구러개마을 뒷산 사면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나이는 510년이며 품격은 도나무, 나무종류는 은행나무이다. 1983년 3월 10일 도나무로 지정되었다. 보호수의 키는 18m, 둘레는 4.5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2

▶ 지정번호 : 경기광주 53



지도 89. 정충묘 위치도(이천 042)

570. 精忠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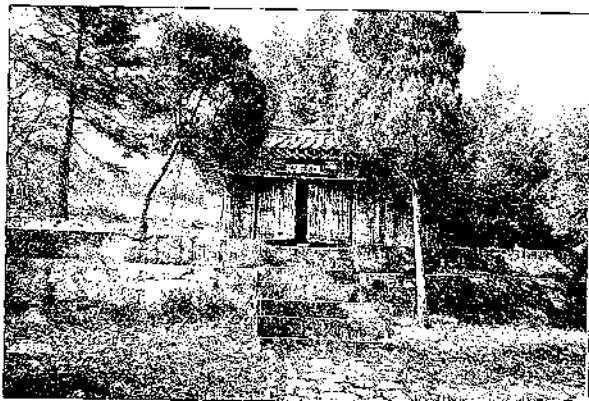


사진 272. 정충묘 전경

한옥 건물이다. '정충묘'라 쓴 현판 글씨 옆으로 '년亥年正初重修'라는 附記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1959년에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 소재지 : 초월면 대쌍령리 87-1

□ 시 대 : 현대

□ 종 류 : 사묘

□ 내 용

곤지암에서 3번 도로를 타고 광주읍으로 향하다가 대쌍령리에 이르면 도로변 좌측으로 홍살문이 나타난다. 정충묘는 홍살문 안쪽 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丙子胡亂시 이곳에서 淸군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경상 좌도병마절도사 許完, 경상우도병마절도사 閔泳, 안동 영장 宣世綱을 모신 사당으로 정면 1칸, 측면 1칸의

571. 金台善 孝子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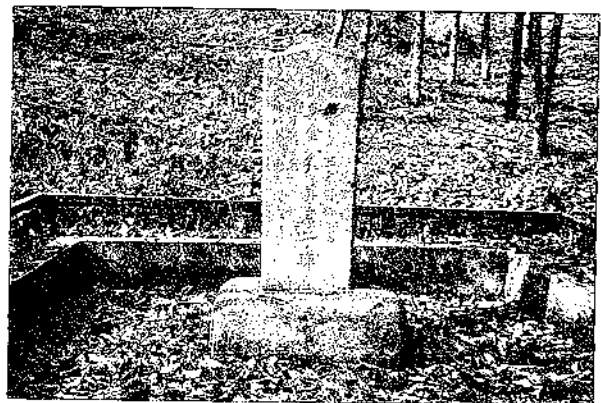


사진 273. 김태선 효자비 전경

□ 소재지 : 초월면 대쌍령리 87-1(지도88 참조)

□ 시 대 : 근대

□ 종 류 : 효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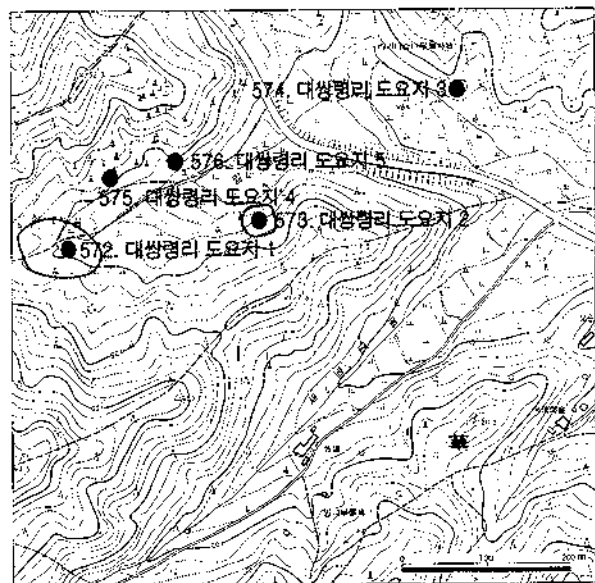
□ 내 용

精忠廟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효자 김태선은 본관이 安東으로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묘소 옆에 墓幕을 짓고 3년간의 시묘살이를 하였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이에 초월면 주민들이 그의 효행을 기리고자 효자비를 건립하였다. 비의 앞면에는 큰 해서로 '前出身金公台善孝子碑'라 쓰고 뒷면에는 '大正九年庚申四月 日 草月面豎'라 새겨 놓아 1920년에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碑身の 재질은 화강암으로 높이 110cm, 폭 45cm, 두께 2cm이며 方趺는 높이 30cm, 폭 92cm, 두께 70cm의 규모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사진 274. 대쌍령리 도요지 5호 전경



지도 90. 대쌍령리 도요지 위치도(이천042)

572~576. 大雙嶺里 陶窯址 1~5號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굽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6세기	●(청화)백자/대발, 대접, 접시, 잔/설향, 연회백색/도립삼각형굽,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검/별음각명문●청자/접시/연록색/도립삼각형굽●요도구/갑발뚜껑, 원반형받침	짐터골 (99-4)	荒地 造林地	광주 191-3	○	
2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항아리/설향, 연회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요도구/원반형받침	웃말골 (104-1)	林	광주 191-3	×	
3호	15-16세기	●백자/대발, 대접, 접시/설향, 연회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요도구/원반형받침	조림지 (384)	堡地 林	광주 191-3	×	
4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설향, 연회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요도구/갑발뚜껑, 원반형받침	짐터골 (404-2)	塚·林	광주 191-3	×	
5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설향, 연회백색/도립삼각형/모래받침	웃말골 (106-1)	塚·林	광주 191-3	×	

577. 大雙嶺里 舊石器遺蹟



사진 275. 대쌍령리 구석기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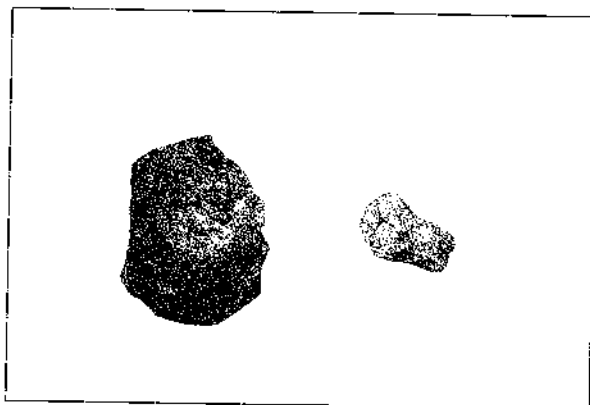


사진 276. 대쌍령리 구석기유적 채집 유물

- 소재지 : 초월면 대쌍령리 154-16전 일대
- 시 대 : 구석기시대
- 종 류 : 선사유적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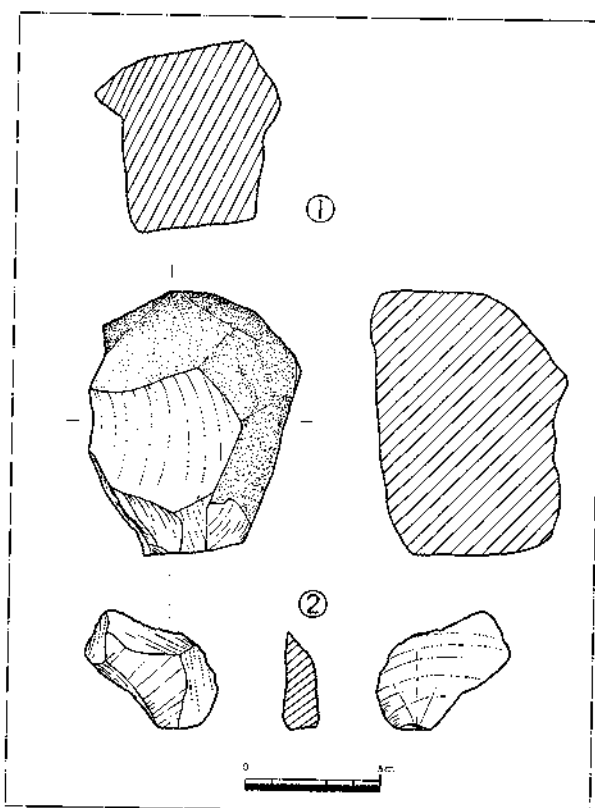
(1) 위치와 현상

초월면 대쌍령리에 위치하는 곤지암천의 선린교를 건너면 바로 선린마을이 나온다. 10여채의 민가와 각종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70년대부터 형성된 마을로 이곳의 민가 주변 밭에서 석기가 수습되었다.

(2) 채집 유물

① 몸돌(사진 270, 도면 47-①)

암질은 석영암으로 부정형의 형태의 몸돌이다. 석기



도면 48. 대쌍령리 구석기유적 채집 석기

의 우측면으로는 쪼개진 면을 가지고 있다. 크기는 $9.7 \times 7.5 \times 6.7\text{cm}$, 무게는 688g이다.

② 격지(사진 270, 도면 47-②)

암질은 석영암으로 작은 격지이다. 굽은 떼어진 면으로 석기의 등면에 3번에 걸쳐서 떨어진 면이 관찰된다. 크기는 $4.9 \times 4.3 \times 1.1\text{cm}$, 무게는 2.5g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578. 落花岩

- 소재지 : 초월면 대쌍령리 123(지도89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
- 내 용

가미소산(160m)의 남쪽 능선이 곤지암천과 만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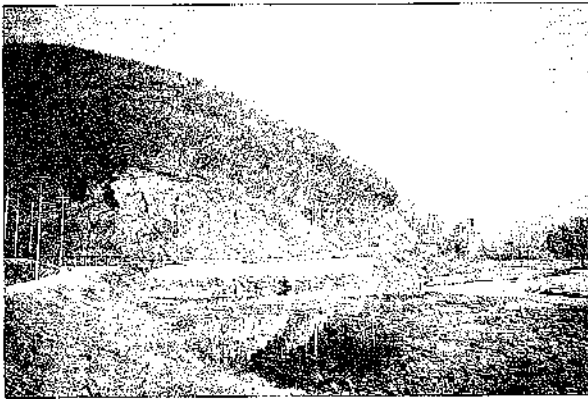


사진 277. 낙화암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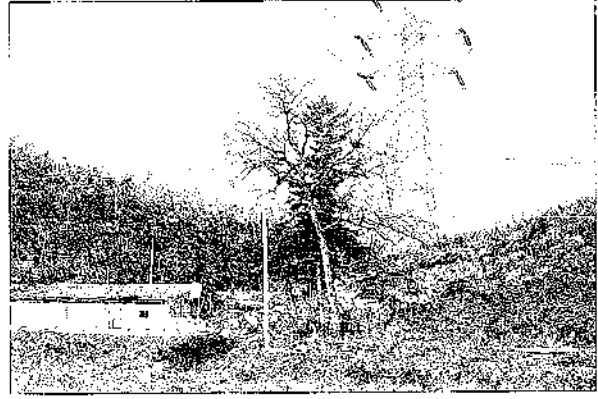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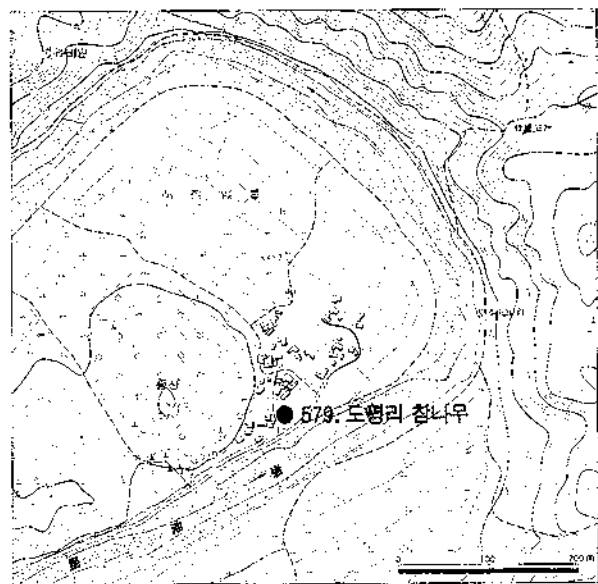
사진 278. 도평리 참나무 전경

서 깎아지른 절벽을 만들어 놓은 곳에 낙화암이 위치한다. 하지만 도평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놓이면서 경관이 많이 훼손되어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며, 낙화암 앞으로 흐르던 곤지암천의 물도 과거에는 깊었다고 하나 현재는 수심이 많이 낮아져 있다.

병자호란(1636)때 지금의 대쌍령리 지역에서 조선군이 청군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자 많은 사람들이 낙화암 근처로 피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군이 여기까지 몰려오자 진퇴양난에 빠진 수백명의 피난민들이 결국 강물에 투신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꽃잎이 떨어지듯 하여 후대 사람들이 이곳을 '낙화암'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지도 91. 도평리 참나무 위치도(이천 043)

본 보호수는 草月而 도평리 하도평마을 산184-1번지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나이는 260년이며 품격은 편나무, 나무종류는 참나무이다. 1983년 3월 10일 도나무로 지정되었다. 보호수의 키는 23m, 둘레는 2.2m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지정번호 : 경기광주 56

579. 島坪里 참나무

□ 소재지 : 초월면 도평리 산 184-1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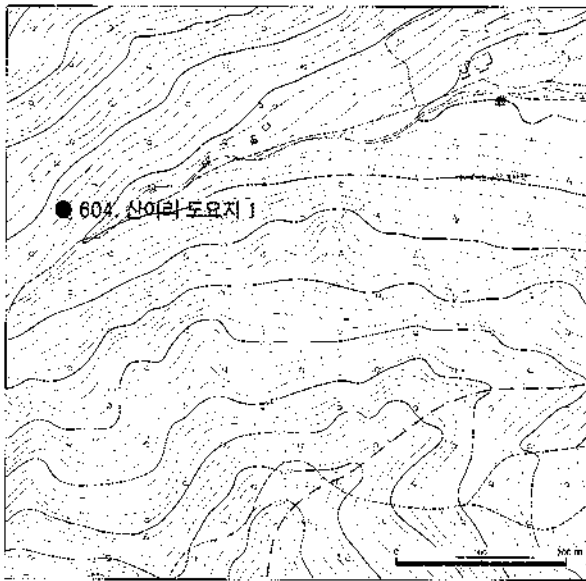
□ 내 용 :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굽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담청, 연회백색/죽절굽/태토비짐	추정	.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2호	15-16세기	●(상감·청화)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병, 항아리, 연적, 제기/설백, 연회백/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天地玄黃 음각명문 ●(상감)청자/화분/연록색 ●요도구/갑발	추정	.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3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설백, 연회백, 담청색/죽절,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짐, 모래받침	추정	.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4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담청색/죽절굽/태토비짐	추정	.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5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설백, 연회백색/도립삼각형,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짐 ●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원반형받침	미내미골 (63, 25, 26-1, 26-4)	林·墓	광주 191-3	○	
6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설백, 연회백, 담청색/죽절굽,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짐, 모래받침	미확인	미확인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7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설백, 연회백색/죽절굽,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짐, 모래받침 ●요도구/갑발, 갑발뚜껑	미내미골 (67)	林·田	광주 191-3	×	
8호	15-16세기	●백자/대발, 대접, 접시, 전접시, 잔, 항아리/설백, 연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짐 ●(상감)청자/기타/연록색 ●요도구/갑발, 원반형받침	미내미골 (30-3)	林·田	광주 191-3	○	
9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설백, 연회백, 담청백색/도립삼각형,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짐 ●요도구/갑발, 원반형받침	구용골 (97)	林	광주 191-3	×	
10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항아리, 뚜껑, 제기/설백, 연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원반형받침	삼박골 (448-2)	田	광주 191-3	×	
11호	15-16세기	●백자/대발, 대접, 접시, 병, 항아리, 뚜껑/설백, 연회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원반형받침	삼박골 (129-1, 447, 492, 492-1)	田·林	광주 191-3	○	
12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설백, 연회백, 담청백색/도립삼각형굽,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짐 ●요도구/갑발뚜껑, 원반형받침	웅덩이 (188-5)	田	광주 191-3	×	
13호	15-16세기	●백자/대발, 대접, 접시, 잔, 함/설백, 연회백, 담청백색/도립삼각형굽,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짐 ●요도구/원반형받침	거명골 (56-1)	釜地	광주 191-3	×	
14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함, 항아리/설백, 연회백, 담청백색/도립삼각형굽,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짐 ●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원반형받침, 원통형받침	미내미골 (903, 50)	林	광주 191-3	○	
15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설백, 연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짐	미내미골 (26-3, 29)	釜	광주 191-3	○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굽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6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회백, 담청색/죽절굽/태토비집	수악골 (64)	垆地 林	광주 191-3	×	
17호	15-16세기	●백자/대발, 대접, 접시, 전접시, 잔, 마상배, 합, 향아리/철백, 연회백, 담청백색/도립삼각형,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집/玄, 黃등음각명문●요도구/갑발, 갑발뚜껑, 도침, 원반형 받침	미내미골 (63)	林	광주 191-3	○	5호와 접합
18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향아리/설향, 연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집●요도구/도침, 원반형 받침	구용골 (46-3)	田	광주 191-3	×	
19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향아리, 뚜껑/설향, 연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집●요도구/원반형 받침	미내미골 (35)	林	광주 191-3	×	
20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설향, 연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집	구용골 (194)	田	광주 191-3	×	
21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뚜껑/설향, 연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 죽절굽, 모래받침, 태토비집●요도구/갑발, 원반형 받침	미내미골 (50-1)	田·林	광주 191-3	○	
22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설향, 연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모래받침●요도구/원반형 받침	종죽골 (121)	林 垆地	광주 191-3	×	
23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설향, 연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모래받침●요도구/원반형 받침	당골 (473)	田·甌	광주 191-3	×	
24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설향, 연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모래받침●요도구/갑발, 원반형 받침	삼박골 (129-1)	田	광주 191-3	○	

604. 酸梨里 陶窯址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굽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16세기	●(상간)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담청백, 설향/죽절굽, 도립삼각형/태토비집, 모래받침●요도구/원반형 받침	송배골 (15)	造林地	광주 191-1	×	



지도 94. 산이리 도요지1 위치도(이천 053)



사진 280. 산이리 도요지 1호 전경

605. 酸梨里 支石墓

- 소재지 : 초월면 산이리 1번지(지도88 참조)
- 시 대 : 청동기시대
- 종 류 : 선사분묘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산이리 支石墓는 쌍동리 支石墓에서 남동방향으로 약 75m 떨어져 있으며 3번 국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 곧자암천이 흐르고 주위도 역시 평지인



사진 281. 산이리 지석묘 전경

논과 밭이 조성되어 있다.

支石墓 上石은 도로에서 약 5~6m 떨어져 있으며 농장 안에 위치해 있다. 支石墓는 탁자식 고인돌이며 평면 형태는 부정형이다. 주축방향은 동-서 방향이며 上石 표면에는 性穴이 5개가 확인되고 있다. 크기는 장축 620cm, 단축 390cm, 높이 70cm이며 性穴의 지름은 3~8c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606. 신익희선생 생가

- 소재지 : 초월면 서하리 160-1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고가
- 내 용

원래 생가터는 지금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1885년 장마때 건물의 상당 부분이 파손되어 그 뒤 옛 모양대로 지금의 자리에 이전했다고 한다. 그 후 6·25사변때는 폭격에 의해 행랑채가 파손되었던 것을 근래 개축하였다.

안채나 경기도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ㄱ자 평면을 기본으로 하면서 안방 뒤로 2칸을 달아내었으며 행랑채는 대문 왼쪽에 2칸방과 바루 1칸을 들여 사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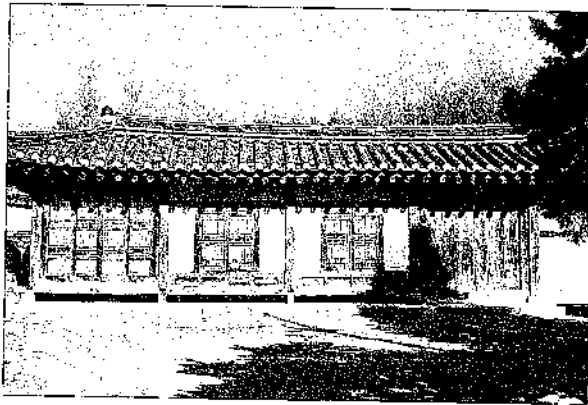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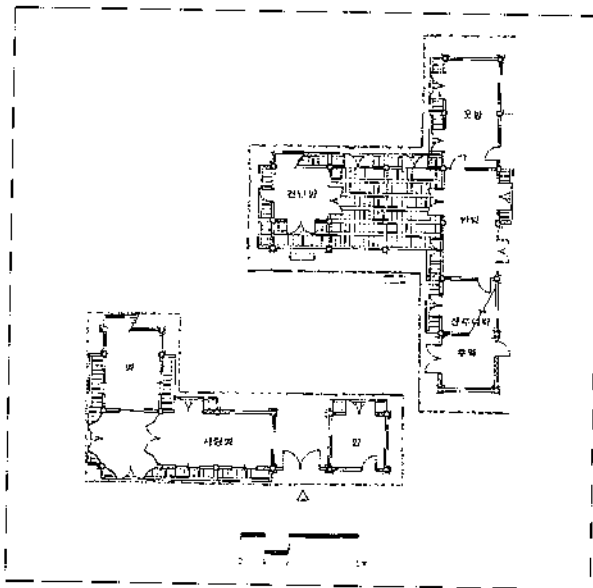


사진 282. 신익희선생 생가 전경



도면 49. 신익희선생 생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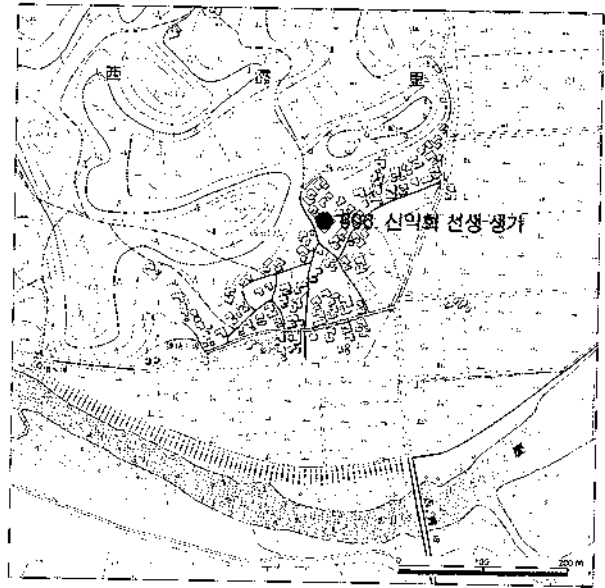
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안채는 1고주 5량의 홀처마 팔작지붕으로 T자형으로 옷방과 대청은 뒷마루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옷방 옆의 증축부는 후대에 이루어져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다.

부엌은 2칸 규모인데 1칸 전체가 안방의 다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락부분에는 창이. 그 아래부분에는 살창이 있다. 건넌방 앞의 뒷마루는 대청마루보다 240mm 정도 높여서 그 아래에는 아궁이가 있고, 측면에는 뒷마루가, 후면으로는 상부다락이 있다.

▶ 지도번호 : 광주191-3

▶ 비 고 : 경기도 기념물 제134호



지도 95. 신익희선생 생가 위치도(이천 023)

607~611. 仙東里 陶窯址 1~5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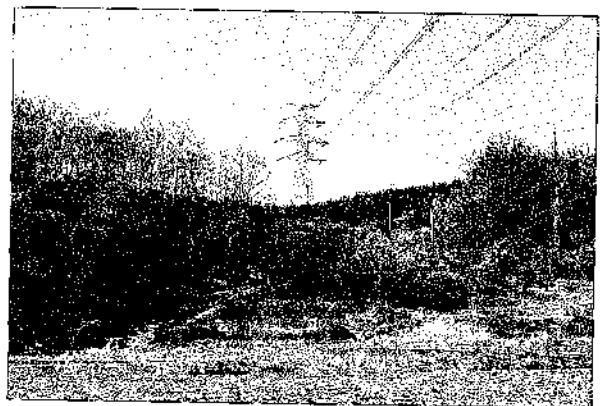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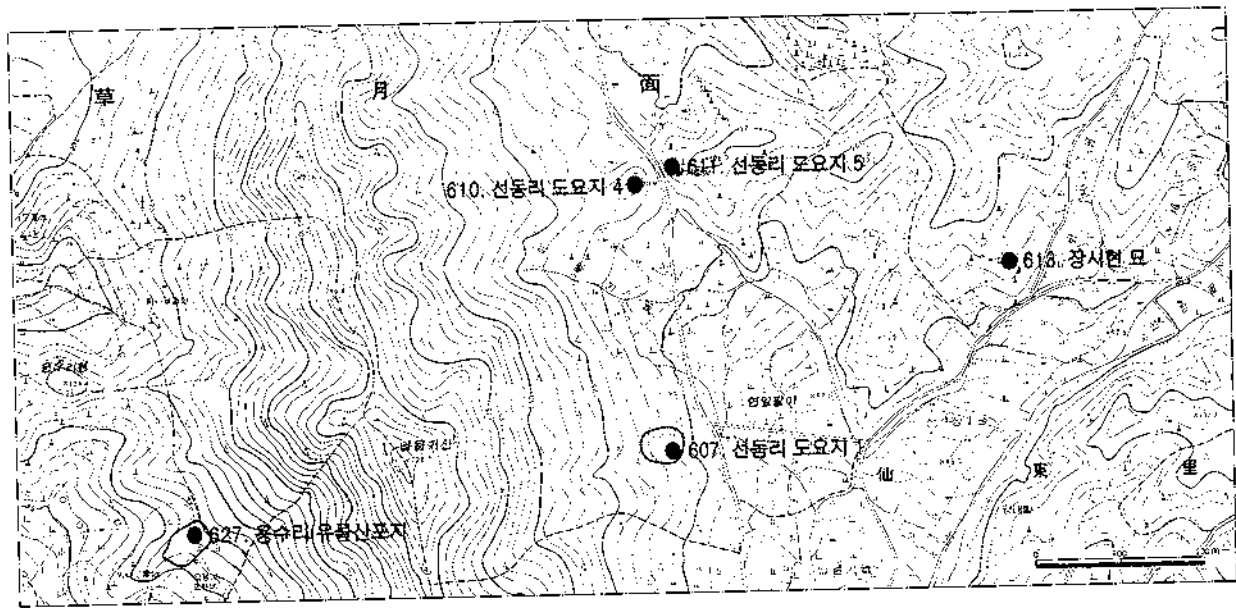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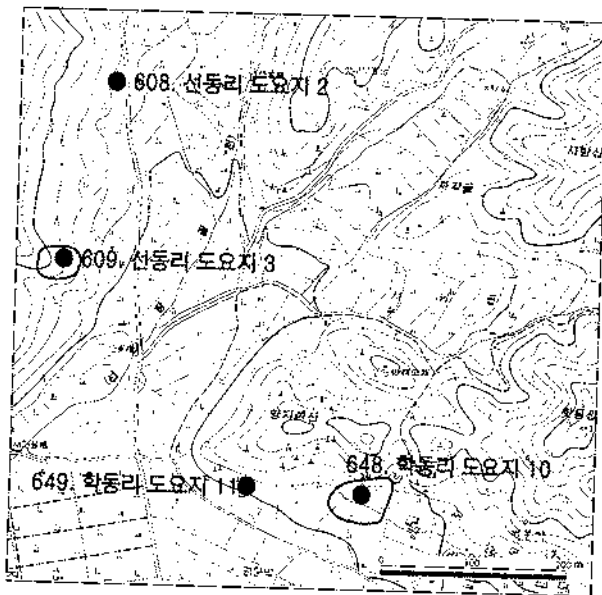


사진 283. 선동리 도요지 1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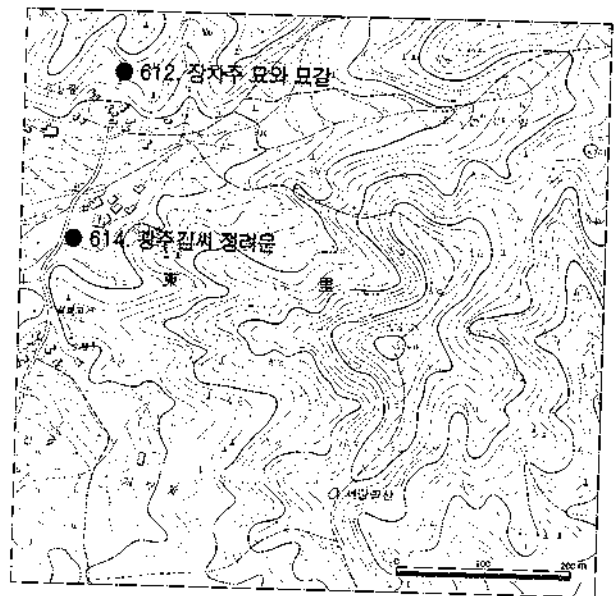


지도 96. 선동리 도요지 위치도(이천 043)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굽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7세기	●(철화·청화)백자/대발, 대접, 접시, 잔, 전접시, 합, 뚜껑, 향아리, 병, 벼루, 제기/유백, 연회백색/직립형굽, 안굽, 해무리형굽/모래받침/灰辰, 左甲申, 己丑, 癸丑 등 음각명문 ● 청자/대접, 접시, 합, 제기/암록, 연록색/직립형굽/모래받침 ● 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원반형받침	연일팔이 (산1-5)	林	광주 191-3	×	
2호	17세기	●(철화·청화)백자/대발, 대접, 접시, 잔, 합, 향아리, 병, 편병, 장군, 마상배, 잔받침, 연적, 뚜껑, 향로, 제기/유백, 연회백색/직립형굽, 안굽, 해무리형굽, 오목굽/모래받침/灰辰, 己丑, 左, 右 등 음각명문 ● 청자/대접, 접시, 제기/암록, 연록색/직립형굽/모래받침 ● 요도구/갑발, 원반형받침	안산 (산1-1)	林	광주 191-3	○	1986년 이대박물관 발굴
3호	17세기	●(철화)백자/대발, 대접, 접시, 전접시, 잔, 향아리, 병, 합, 뚜껑, 향로, 장군, 제기/연회백, 회색/직립형굽, 오목굽, 해무리형굽/굽은모래받침 ● 요도구/갑발, 원반형받침	선동교 (산1-5)	林	광주 191-3	×	1986년 이대박물관 발굴
4호		『한국의 백자도요지』의 지도에 표시만 있음	미확인		광주 191-3	×	
5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향아리/유백, 연회백색/오목굽/굽은모래받침	미확인	通路	광주 191-3	×	



지도 97. 선동·학동리 도요지 위치도(이천 043)



지도 98. 장차주 묘와 묘갈 위치도(이천 044)

612. 張次周 墓와 墓碣



사진 284. 장차주 묘와 묘갈 전경

- 소재지 : 초월면 선동2리 산3-1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張次周(1606-1651)는 孝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仁同이며 자는 文哉이다. 尙州牧使를 지낸 遇漢(1585-1663)의 아들이며 이조참판 金縈(1580-1640)

의 사위이다. 25세에 성균관에 들어가 수학하였고 1644년(인조22)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을 거쳐 세자시강원의 설서를 재수받았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홍문관수찬에 이르렀다. 평소 言議와 행동이 신중하여 끝은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묘소는 선장골 뒤편 무갑산의 서쪽 구릉에 南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묘역은 최근 새로 단장하여 원형이 많이 변형된 상태이며 혼유석, 상석, 향로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다. 금관조복을 입은 문인석(높이 140cm)의 얼굴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봉분 좌측에는 묘갈(총높이 약 266cm)이 건립되어 있다. 팔작지붕형의 옥개석은 용마루와 내림마루의 선을 굽게 조각하고 추녀마루의 양끝을 급하게 올린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방부에는 아무런 장식도 가미하지 않았다. 碣題를 '有明朝鮮國 贈嘉善大夫吏曹參判行通訓大夫弘文館修撰知製教張公墓碣銘并序'라 하고 篆額을 '贈吏曹參判張公墓碣銘'이라 하여 묘갈임을 밝히고 있으며 묘갈문은 비신(높이 195cm, 폭 64cm, 두께 27cm)의 앞뒤면에만 각자하였다. 原任 右議政 李宜顯(1669-1745)의 撰에 原任 兵曹判書 朴師益(1675-1736)이 書하고 吏曹判書 趙尙綱(1681-

1746)이 篆을 올렸다. 건립연대는 '崇禎紀元後91年 甲寅(1734, 영조10) 月 日立'이다.

선장골의 인동장씨 세장지에는 玉山府院君 墩(?-1627)을 비롯한 묘소가 약 20여기 산재해 있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仁同張氏太常卿公派世譜』, 1994, 回想社

두께 23.5)의 전면에는 贈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行 奉列大夫掌樂院主簿張公始顯之墓 贈貞夫人安東 金氏 附左'라 써 놓았다. 건립연대는 '崇禎後再庚午 (1750, 영조26)10月 日立'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仁同張氏太常卿公派世譜』, 1994, 回想社

613. 張始顯 墓



사진 285. 장시현 묘 전경

□ 소재지 : 초월면 선동2리 산2-1임(지도96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張始顯(1647-1713)은 肅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仁同, 자는 揚卿, 호는 散隱으로 홍문관수찬을 지낸 次周의 손자이다. 음서로 관직에 나아가 掌樂院主簿를 역임하였다.

묘소는 장차주 묘소의 좌측 구릉에 위치한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봉분 우측에 方趺圓首 양식의 묘표(총높이 160cm)를 세워 놓았다. 묘표 음기는 손자인 大紹가 記하고 아울러 號하였으며 비신(높이 135cm, 폭 64,

614. 光州金氏 旌閭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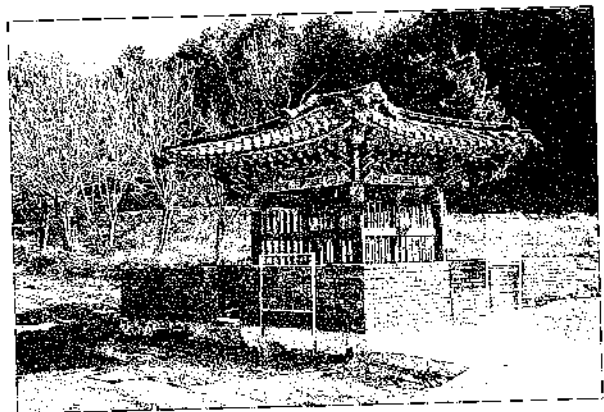


사진 286. 광주김씨 정려문 전경

□ 소재지 : 초월면 선동2리 66(지도98 참조)

□ 시 대 : 현대

□ 종 류 : 정려문

□ 내 용

선장골 마을에서 갈월고개로 오르는 소로의 좌측변에 위치한다. 열녀 광주김씨는 이조참판을 지낸 金槩(1580-1640)의 따님으로 張次周(1606-1651)와 혼인하였다. 병자호란(1636)때에 오랑캐에게 붙잡히게 되자 자결하여 貞節을 지켰으며, 1652(효종3)년 나라에서 열녀정문을 하사하였다. 최근 새롭게 단장한 보호각안에는 붉은 색칠의 정려문 현판이 안치되어 있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廣州鄕土史料集』1, 1997, 광주문화원

615. 李來 墓와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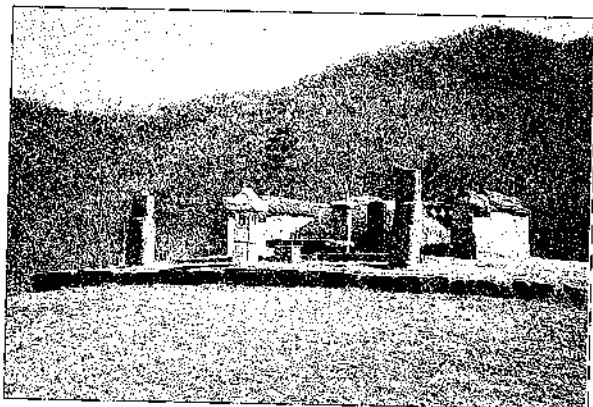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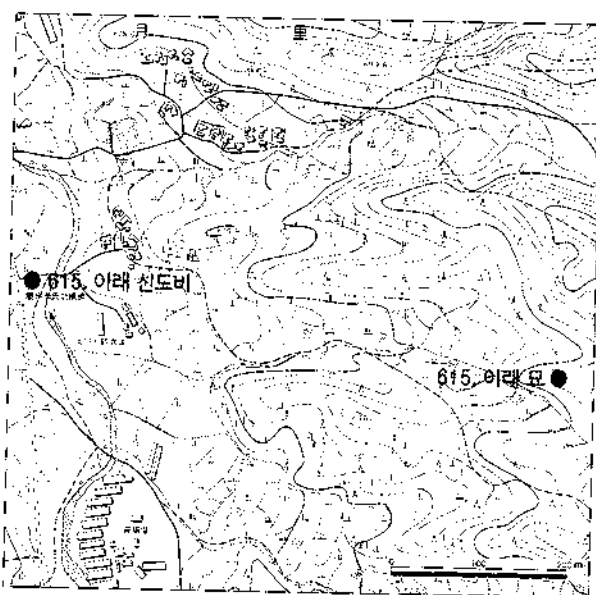
사진 287. 이래 묘 전경



사진 288. 이래 신도비

- 소재지 : 초월면 신월2리 산11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李來(1362-1416)는 太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慶州이고 자는 樂甫이다. 兒名은 安國이며 右正言를 지낸 存禧(1341-1371)의 아들이다. 1383년(우왕9)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진출하여 左司議大夫를 지냈으며, 1392년(공양왕4) 鄭夢周가 살해되자 그 일당으로 몰려 鷄林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와 公州로 낙향했



지도 99. 이래 묘와 신도비 위치도(이천 033)

다. 그러나 조선개국후 출사하여 左諫議大夫가 되고, 왕자의 난에는 이방원을 적극 도와 佐命功臣에 책훈되었으며, 1404년(태종4) 正朝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여러 요직을 거쳐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사후 태종의 廟庭에 配享되고 鷄城府院君에 追封되었으며 시호는 景節이다.

묘소는 두월 마을 북동쪽의 무갑산 구릉 중턱에 東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묘역 주위로 곡장을 쌓았고 봉분에는 가로 311cm 세로 435cm의 방형 호석을 들렀다. 옛 석물로는 상석과 문인석(높이 164cm)이 세워져 있으며 장명등과 향로석은 최근에 만들었다. 또한 봉분 앞에 세워져 있는 묘표(총높이 166cm)는 一枚의 화강암을 다듬어 조성하였는데, 개석은 맞배지붕의 용마루와 추녀마루만 간결하게 표현하였고 방부는 형태만 갖추었다. 비신(높이 110cm, 폭 40.5cm, 30.5cm)의 앞면에 '朝鮮佐命功臣鷄城君李謐景節公之墓'라 써서 피장자의 신분을 밝혔으며, 뒷면에는 '皇明永樂15年(1417, 태종17)正月 日'이라고 건립 연대를 새겨 놓았는데, 조선초기 碑碣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신도비(총높이 약 266cm)는 묘소 아래 약 1km 지점의 마을 입구 도로변에 건립되어 있다. 정방형의 비신

(높이 195cm, 폭64cm, 두께 26.5cm)을 갖춘 방부개석 양식으로 주위에 석재 난간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다. 전액이 '朝鮮佐命功臣鷄城府院君謚景節李公神道碑'라 쓰여져 있어 신도비임을 알 수 있다. 비문은 宮內府特進官 延安 金晩秀가 撰하고 15世孫 斗榮이 刻하였으며 16世孫 圭琬이 篆을 올렸다. 건립 연대는 '公之卒後9甲戌(1934)10月 日立'이다.

묘소 아래에 內廳寺判官을 지낸 둘째 아들 直生의 묘소가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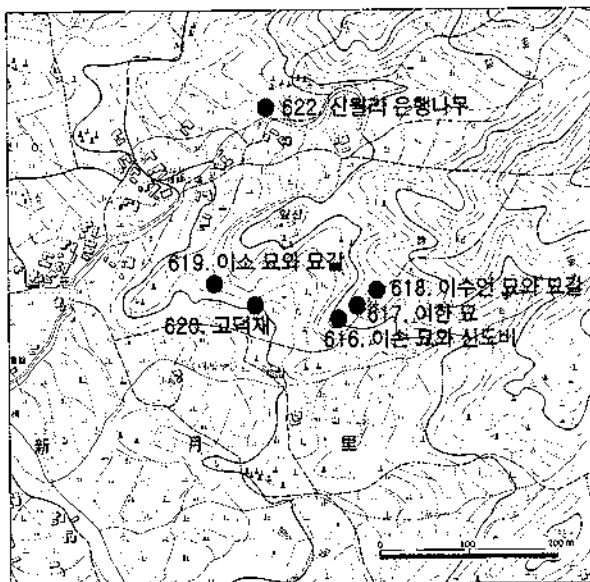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慶州李氏大同譜』, 1979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616. 李蓀 墓와 神道碑



지도 100. 이소 묘와 신도비 위치도(이천 043)

□ 소재지 : 초월면 신월리 산22-1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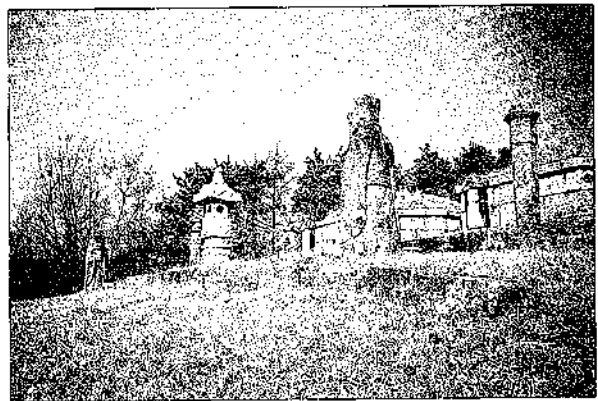


사진 289. 이소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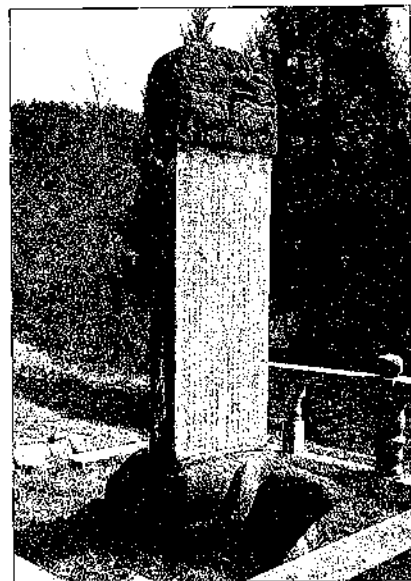


사진 290. 이소 신도비

□ 내 용

李蓀(1439-1520)은 中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廣州, 자는 子芳이며 漢原君 守哲의 아들이다. 1470년(성종1)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갔으며 1506년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靖國功臣 3등에 봉해졌다. 이후 우참찬을 거쳐 좌찬성에 이르렀으며 1513년(중종8) 漢山君에 봉해졌다. 만년에는 절친하던 영의정 柳湊(1441-1517), 판서 安瑬(1445-1515) 등과 더불어 九老會를 만들고 산천을 소요하며 여생을 보냈다. 시호는 胡簡이다.

묘소는 매망골의 무갑산 서쪽 구릉 중턱에 자리잡은 광주이씨 세장지내에 위치한다. 묘역은 3단의 階砌石

구조에 쌍분으로 조성되었다. 좌측 봉분이 이손, 우측 봉분이 정부인 이씨의 것이다. 봉분마다 7각 2단의 호석을 둘렀으며 봉분 앞으로 方趺荷葉 양식의 묘표와 상석을 각각 배치하였다. 또한 묘역의 좌우로 문인석(높이 192cm)과 망주석(높이 220cm)을 세워 놓았는데, 양석이 세련되고 조각 솜씨도 뛰어나 당대를 대표할 만하다. 고석, 향로석, 장명등은 최근에 새로 마련하였다.

묘소 아래에는 신도비(총높이 약 270cm)가 건립되어 있으며 주위에 석재 난간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다. 龜趺의 등에는 龜甲紋을 장식하였고, 이수 앞면에는 雙龍爭珠를, 뒷면에는 單龍弄珠의 모습을 정교하게 조각하였다.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163cm, 폭 71cm, 두께 21.5cm)에 비문을 앞뒤로 刻字하였는데, 상태는 양호하다. 碑題를 '有明朝鮮國秉忠奮義靖國功臣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漢山君贈謚胡簡公神道碑銘并序'라 하고 전액을 '胡簡公神道碑'라 하여 신도비임을 밝히고 있다. 비문은 工曹參判 李衍(1478-1534)이 짓고 承政院右副承旨 金希壽(1475-1527)가 썼으나 전액을 쓴 사람은 刻字하지 않았다. 입석 연대는 1520년(正德15年庚辰5月 日立)이니 중종 15년에 해당한다. 이손신도비는 실물이 부족한 조선중기 석비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손 묘소 위에는 判司僕寺事를 지낸 외증조부 李潁과 집의를 지낸 아들 粹彦의 묘소가 있다. 또한 수언의 묘소 위로는 최근 하남시에서 이장해 온 아버지 贈漢原君 守哲과 刑曹左參議를 지낸 증조부 養中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우측 구릉에는 할아버지 증이조판서 遇生과 증손자 贈漢陵君 遵義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廣州李氏石灘派族譜』, 1923

『韓國金石總目』, 1984, 동국대학교출판부

617. 李潁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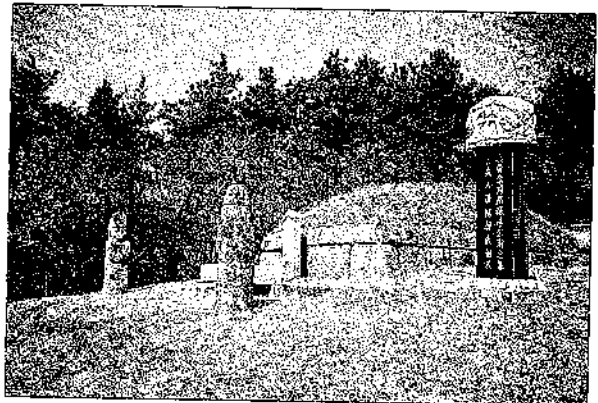


사진 291. 이한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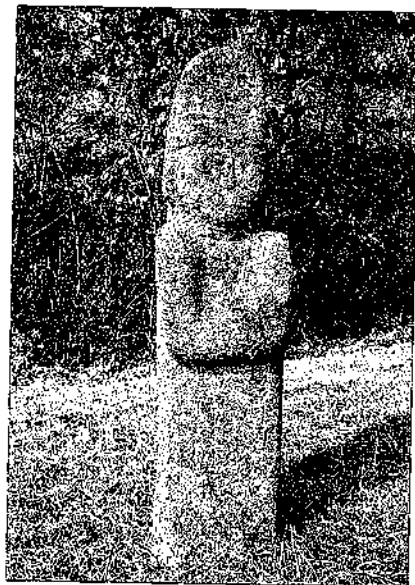


사진 292. 이한 문인석

□ 소재지 : 초월면 신월1리 산22-1임(지도100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李潁의 본관은 陽城이며 고려때 문하시중을 지낸 春富의 아들이다. 조선 개국후에도 계속 出仕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통정대부 判司僕寺事에 이르렀다. 손녀인 孟常의 딸이 평안도절도부사 李守哲과 혼인하여 漢山君 李蓀을 낳았다. 신월1리 매망골의 광주이씨 세장지는 이한의 묘소 아래에 외증손인 이손의 묘소가

자리잡으면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묘역에는 문인석 1쌍의 옛 석물이 있으며, 봉분에는 가로 364cm, 세로 439cm의 방형 호석이 설치되어 있다. 봉분 뒤에는 곡장을 쌓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문인석(높이 142cm)의 양팔은 '凹'자 모양으로 도식화되어 있고 손에는笏이 없으며 머리에는 둥근幘頭를 쓰고 있다. 봉분 앞에 놓인 묘표(총높이 120cm)는一枚의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방부하엽 양식을 갖추고 있다. 하엽을 매우 간결하게 표현하여 날렵한 느낌을 주고 있다. 문인석과 묘표는 태조에서 태종대에 걸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초의 작품이다. 이 시기의 문인석과 묘표가 극소수만 남아 있어, 이 분야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비신은 마모가 심하지만 앞면의 '有明朝鮮判事李公 夫人韓氏...'라는 글씨와 뒷면의 몇 글자가 확인된다. 묘역 우측에는 1984년에 건립한 묘비가 세워져 있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陽城李氏大同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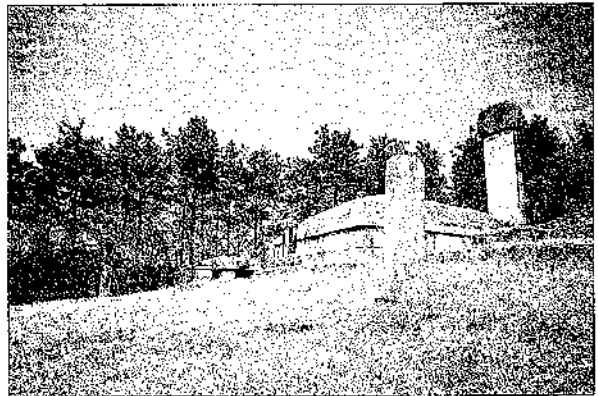


사진 293. 이수언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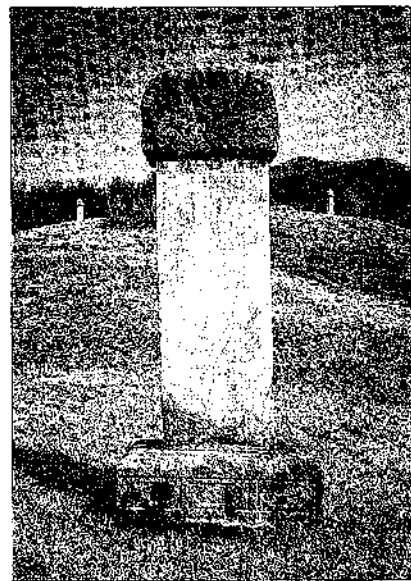


사진 294. 이수언 묘갈

618. 李粹彦 墓와 墓碣

□ 소재지 : 초월면 신월1리 산22-1임(지도100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李粹彦(1457-1495)은 燕山君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廣州이고 자는 士美이며 한산군 孫의 아들이다. 1480년(성종11) 문과에 급제하고 검열과 주서를 지냈으며 1491년(성종22)에는 野人의 정벌에 도원수 許琮(1434-1494)의 종사관으로써 참전하였다. 1494년(성종25) 執義를 계수받았으며, 西界에 둔전 설치하는 문제로 현지로 파견되었다가 海州에서 객사하였다.

묘소는 외교조부 李辭의 묘소 위에 위치한다. 묘역

에는 혼유석, 상석, 華表柱가 구비되어 있으며 봉분에는 7각 2단의 호석을 쌓았다. 방형의 石柱 모양으로 생긴 화표주(높이 148cm)는 망주석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석물로 기능은 서로 비슷하나 형태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조선초부터 중기에 걸쳐 극소수의 묘소에서만 설치되어 아직까지 발견된 예가 극히 드문 석물이다. 조선시대 석물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봉분 앞에 세워진 방부하엽 양식의 묘표(높이 149cm)는 비신이 절단되어 다시 접합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 비신의 앞면에 피장자의 신분을 알려주는 글만 써 놓았을 뿐 음기와 건립연대는 없다.

봉분 우측에는 묘갈(총높이 240cm)이 건립되어 있

다.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150cm, 폭 60cm, 두께 27cm)에 묘갈문을 앞면에만 刻字하였으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碣題를 '有明朝鮮國中直大夫司憲府執義兼承文院參校李君菴碣銘并序'라 하고 전액을 '執義李公墓碣'이라 올려 묘갈임을 밝히고 있으나 撰書者는 해당 부분이 마모되어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韓國金石總目』에 의하면 李荇이 撰(1478-1534)하고, 송설체의 명필인 成世昌(1481-1548)이 書한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 서예사의 귀중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입석 연대는 마모되어 정확한 건립시기를 알 수 없지만 중종대에 유행하던 방부이수 양식을 갖추고 있어 이 시기를 전후하여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의 앞면에는 구름속에서 여의주를 갖고 노는 용의 모습(單龍弄珠)을 생동감있게 조각하였으며, 방부의 四面에는 眼象을 숨쳐있게 장식하였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廣州李氏石灘派族譜』, 1923
『韓國金石總目』, 1984, 동국대학교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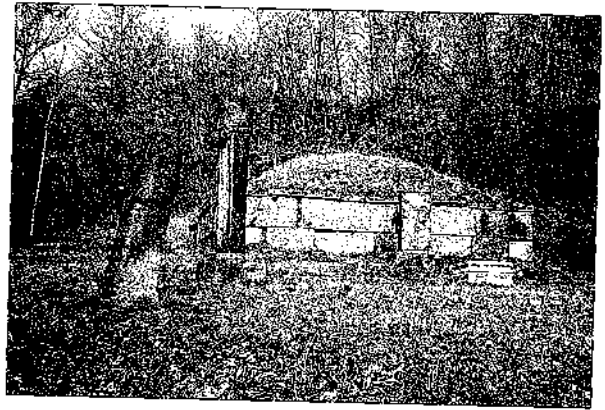


사진 295. 이소 묘 전경



사진 296. 이소 묘갈

619. 李昭 墓와 墓碣

□ 소재지 : 초월면 신월1리 산221-1임(지도100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李昭(1441-1499)는 成宗代의 무신으로 본관은 廣州이고 자는 晦甫이다. 처음 이름은 熒이었으나 무과 급제후 왕의 특명으로 昭로 고쳤다. 贈漢原君 守哲의 둘째 아들이자 韓山君 孫의 동생이다. 어려서부터 弓馬에 능하여 弱冠이 되기전에 무과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1467년(세조13) 魚有沼(1434-1489)가 李施愛의 난을 토벌할 때 종군하여 공을 세웠다. 이후 4朝를 섬기며 40여년 동안 관직을 지냈으며 첨지중추부사

를 거쳐 全羅右道水軍節度使에 이르렀다.

묘소는 매망골 高德齋(광주이씨 재실)의 좌측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받침, 화표주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다. 상석 좌우에는 용도 미상의 정사각형 석물(가로 43.5cm 세로 43.5cm 높이 19cm)이 놓여져 있는데, 위면은 홈이 파여져 있고 사면에는 眼象이 장식되어 있다. 상석 앞에 새로 마련된 교자상 형태의 향로석은 현재 남아 있는 옛 받침대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원래의 향로석이 망실 또는 분실되자, 원형 그대로 다시 복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자상 형태의 향로석은 매우 드문 예에 속한다. 또한 묘역의 좌우에는 방형의 石柵 모양을 갖춘, 화표주

(높이 121cm) 한쌍이 설치되어 있다. 봉분에는 5각 2단의 호석을 둘렀으며 봉분 앞으로 방부이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71.5cm)를 세워 놓았다. 앞면에 피장자의 신분을 써 놓았으나 음기와 입석 연대는 새기지 않았다.

묘역 좌측에는 묘갈(총높이 약 201cm)이 건립되어 있다. 방부는覆蓮과 안상을 조각하였고, 하엽은 연잎을 보기 좋게 잘 맡아 올렸다. 비신(높이 122cm, 폭 64cm, 두께 18cm)과 하엽은 백대리석을 방부는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전액이 '節度使李公之墓'로 올려져 있으나 碣題가 '有明朝鮮國折衝將軍全羅右道水軍節度使李公墓碣銘并序'라 되어 있어 묘갈임을 알 수 있다. 비문은 左參贊 洪貴達(1438-1504)이 撰하였으며 건립연대는 '弘治12年(1499, 연산군5)8月17日立石'이다. 비문을 쓴 사람과 전액을 올린 사람의 이름을 刻字하지 않았으나 비문의 상태는 양호하다. 15세기 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묘갈중의 하나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虛白亭集』

『廣州李氏石灘派族譜』, 1923

『韓國金石總目』, 1984, 동국대학교출판부

620. 高德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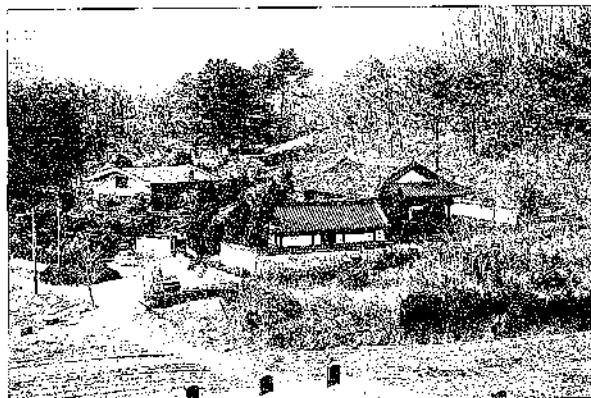


사진 297. 고덕재 전경

□ 소재지 : 초월면 신월리 174(지도100 참조)

□ 시 대 : 현대

□ 종 류 : 사묘

□ 내 용

매망골의 이창희씨댁 바로 옆에 위치하는 廣州李氏石灘公派의 재실이다. 본채는 정면 5칸의 팔작지붕이고 별채는 정면 3칸의 맞배지붕 한옥이다. 본채와 三門의 처마 밑에 모두 '高德齋'라는 현판을 걸었으며 1989년에 건축하였다. 매망골에는 石灘公 李養中, 胡簡公 李蓀(1439-1520)의 묘소를 비롯한 광주이씨의 묘소 수십 기가 산재해 있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621. 玉山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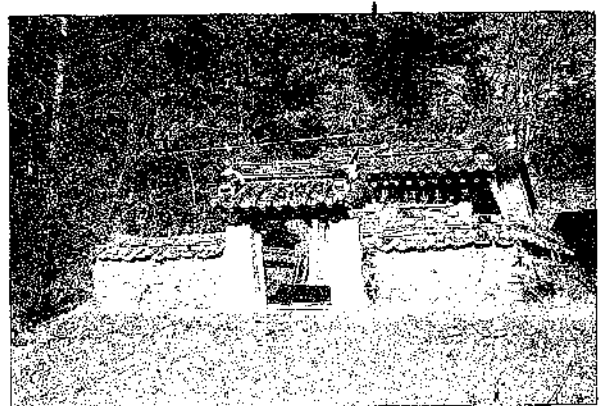


사진 298. 옥산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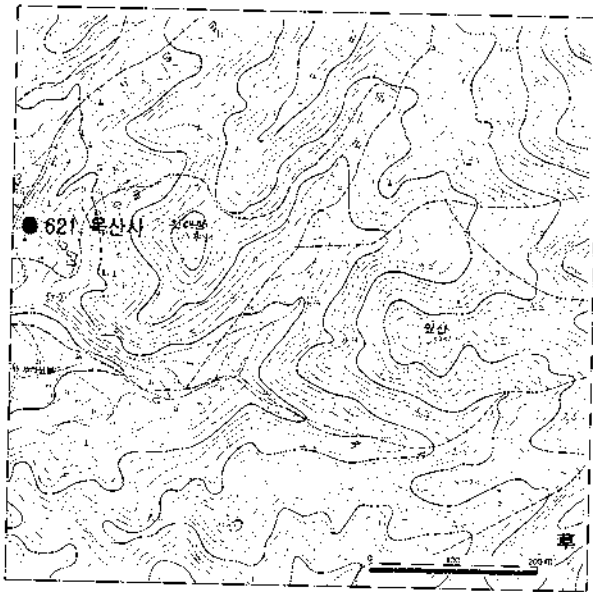
□ 소재지 : 초월면 신월리 14전

□ 시 대 : 현대

□ 종 류 : 사묘

□ 내 용

숫골 마을 안쪽의 밭 가운데에 위치하는 玉山府院君 張敞(?-1627)의 사당이다. 장돈은 본관이 仁同으로 1624년(인조2) 李适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으며, 병자호란(1623)때에는 咸川鎭管兵馬節制使로써



지도 101. 옥산사 위치도(이천 044)

청군과 맞서 싸우다가 평안도 安州에서 전사하였다. 사후 領中樞府事에 증직되고 賜牌地(지금의 선동리 선장골 일대)를 하사받았다. 사당은 정면 2칸의 맞배지붕에 청기와를 얹은 한옥 건물로 처마 밑에 '玉山祠'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후손에 의하면 1960년대에 건축하였으며 현재 보수중이라 한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廣州鄉土史料集』 1, 1997, 광주문화원

622. 新月里 은행나무

□ 소재지 : 초월면 신월리 담121(지도100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



사진 299. 신월리 은행나무 전경

본 보호수는 초월면 신월리 담121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나이는 310년이며 품격은 군나무, 나무종류는 은행나무이다. 1983년 3월 10일 도나무로 지정되었다. 보호수의 키는 30m, 둘레는 4.7m이다. 1994년 10월 외과수술을 받았다.

▶ 지도번호 : 노곡 191-2

▶ 지정번호 : 경기광주 54

623·624. 雙東里 陶窯址 1·2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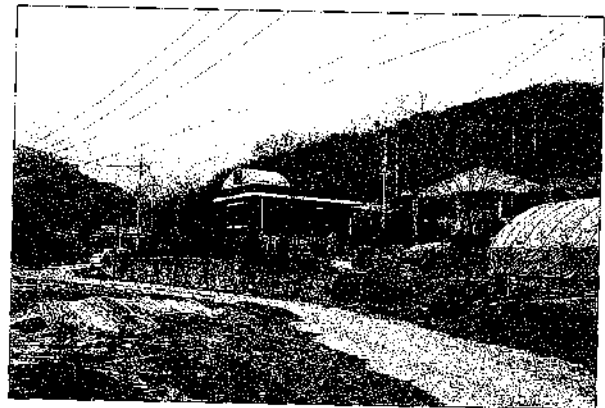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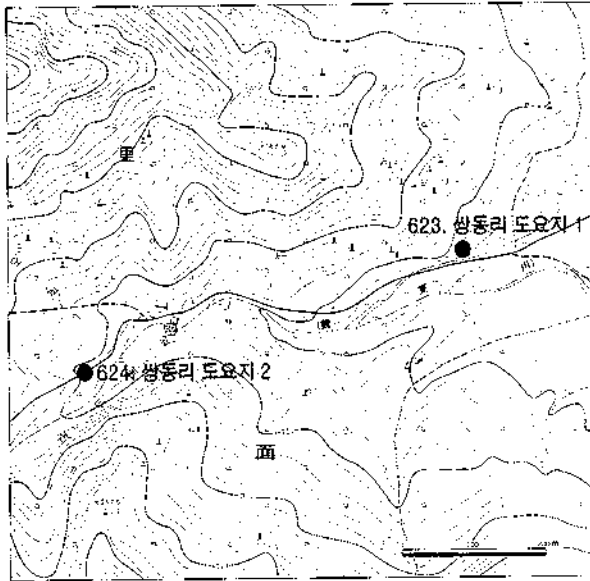


사진 300. 쌍동리 도요지 1호 전경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굽/발침/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세기	●(상감·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임목, 회색/죽절굽형/태토비집, 굽은모래받침	어두메골(34)	터지	노곡 191-2	×	
2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미백, 설백, 연회색/죽절굽, 도립삼각형/태토비집, 모래받침	추정		노곡 191-2	×	1986년의 조사내용임



지도 102. 쌍동리 도요지 위치도(이천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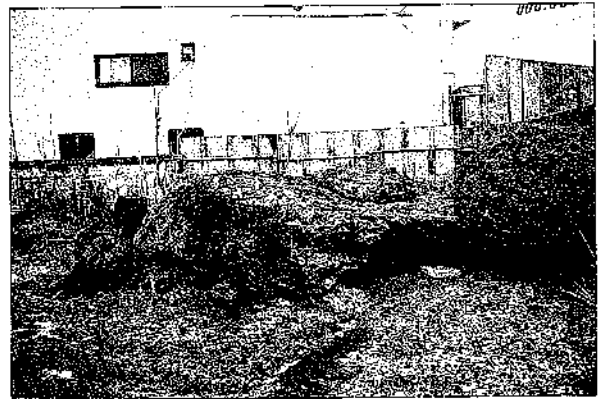


사진 301. 쌍동리 지석묘 전경

625. 雙東里 支石墓

- 소재지 : 초월면 쌍동리 15번지(지도89 참조)
- 시 대 : 청동기시대
- 종 류 : 선사유적
- 내 용

1) 위치와 현상

광주읍에서 3번 국도를 타고 이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오른편으로 쌍동리 도곡동이 나오는데, 지석묘는 3번 국도와 바로 인접한 쌍동리 15번지 민가 안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곧지암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고, 천 주변으로 논과 밭이 조성되어 있다. 북동쪽으로는 해발 200m 내외의 산지들이 형성되어 있다.

上石의 평면 형태는 부정형이고 주축방향은 남-북방향인 바둑판식 고인돌이다. 上石 밑의 하부구조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주변에서 無文土器 底部 1점을 수습하였다. 재질은 礫岩이며, 크기는 장축 560cm, 단축 470cm, 높이는 110cm이다. 性穴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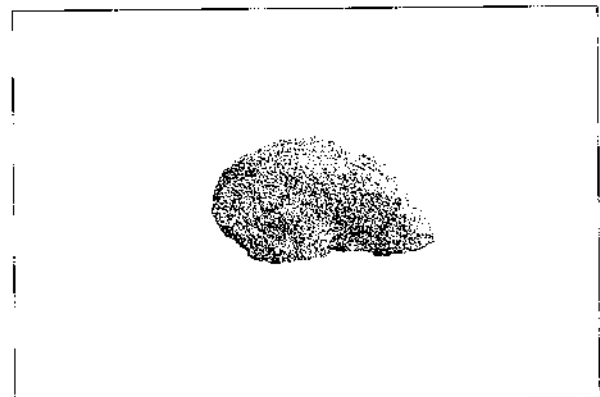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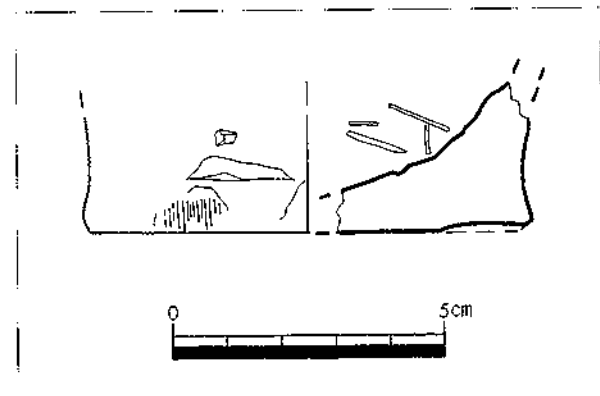


사진 302. 쌍동리 지석묘 채집 무문토기 저부



도면 50. 쌍동리 지석묘 채집 무문토기 저부

2) 채집 유물

① 무문토기 저부(사진 302, 도면 50)

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남아 있다. 내면은 황갈색을 띄고 있고 외면은 명갈색을 띤다. 표면은 박리가 심하고 석영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현높이 2.8cm, 저경 8.2c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 참고문헌 :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천 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7, 단국대학교 한국민속학 연구소

626. 雙東里 느티나무



사진 303. 쌍동리 느티나무 전경

□ 소재지 : 초월면 쌍동리 전173-9(지도88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본 보호수는 초월면 쌍동리 전173-9번지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나이는 270년이며 품격은 면나무, 나무종류는 느티나무이다. 1983년 3월 10일 도나무로 지정되었다. 보호수의 키는 21m, 둘레는 3.4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2

▶ 지정번호 : 경기광주 55

627. 龍水里 遺物散布址

□ 소재지 : 초월면 용수리 23-1(지도96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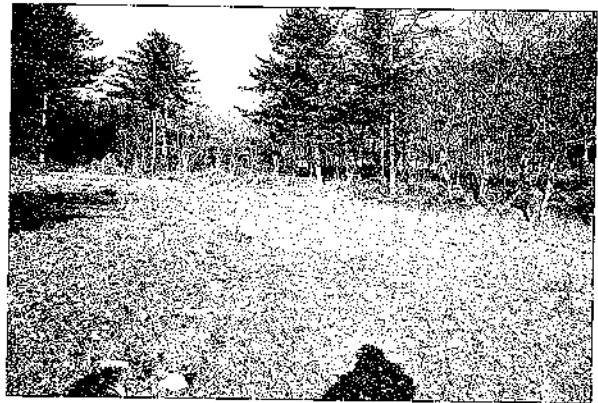


사진 304. 용수리 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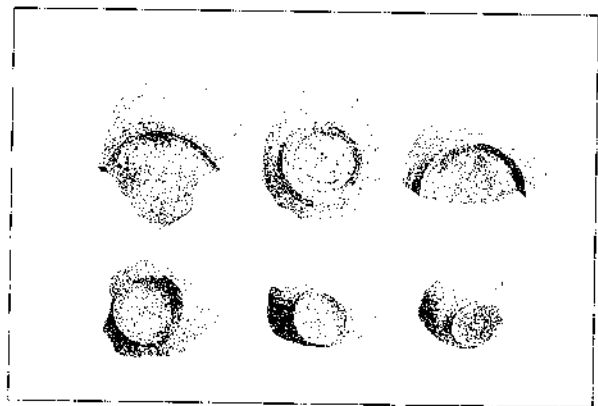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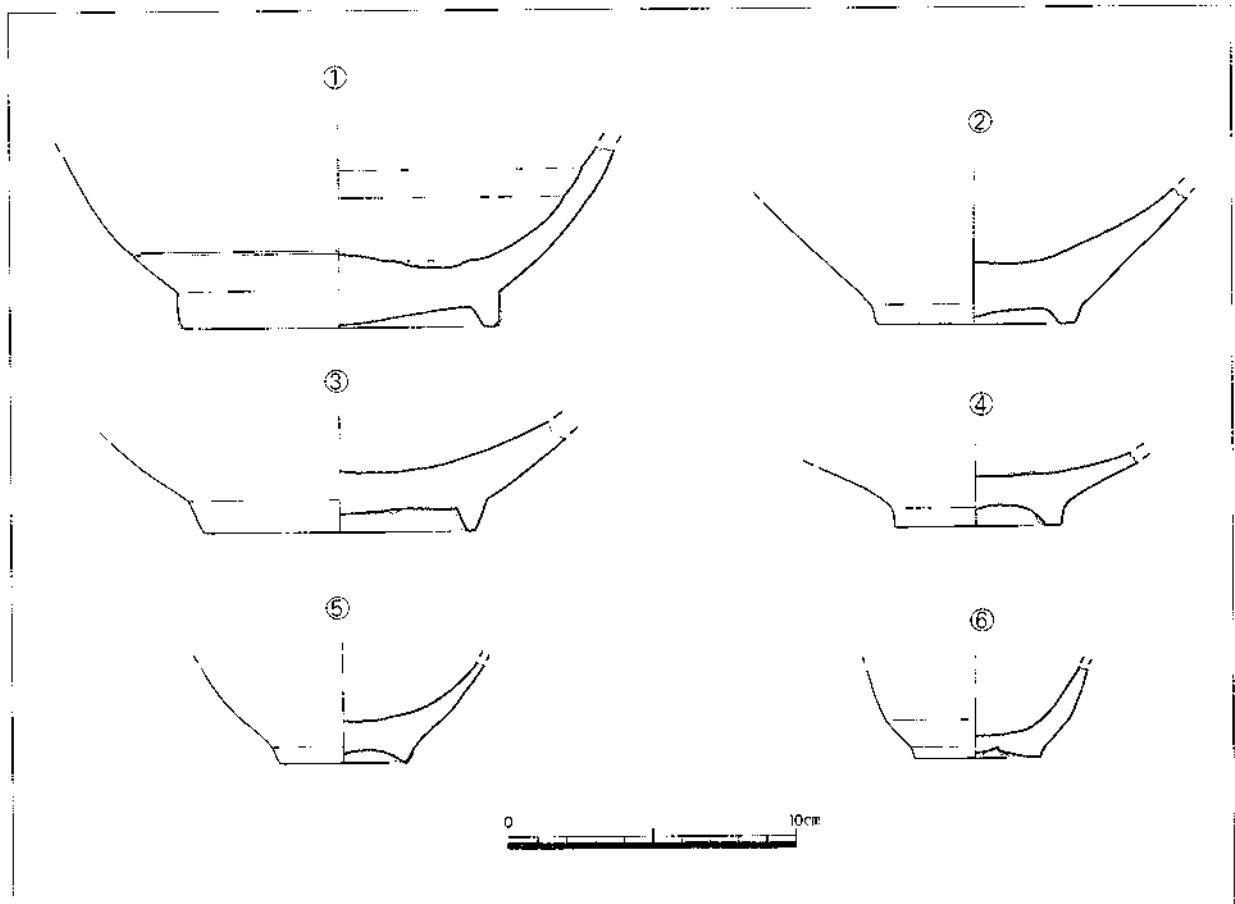
사진 305. 용수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3번국도를 타고 광주읍에서 초월면 방향으로 가면 대쌍령리를 지나 왼편으로 용수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나온다. 이 도로를 타고 들어가면 용수교를 지나 용두마을이 나오는데 유적은 용두마을 북쪽 구룡사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곳은 너른 범위에 걸쳐 유물이 산포되어 있는데 자기편, 기와편, 도기편 일부가 확인되고 있다. 주변의 너른 공간을 묘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질 변경이 이미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적의 서쪽으로 약 500m 떨어져 곤지암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고, 주변은 논과 밭으로 조성되어 있다. 북동쪽으로는 남들기산이 솟아 있으며, 해발 100~200m 내외의 저구릉들이 여러개 형성되어 있다.



도면 51. 홍수리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2) 채집 유물

① 백자대접편(사진 305, 도면 51-①)

굽 일부만 남은 백자대접편이다. 연갈색의 유로 내면을 제외한 외면만 시유되었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뚜렷이 남아 있고 기벽과 굽이 접하는 부분에 얇은 홈이 파여 있다. 굽바닥에 모래받침흔이 확인되고 있다.

현높이 6.5cm, 복원구경 11.0cm이다.

② 백자대접편(사진 305, 도면 51-②)

굽일부만 남은 백자대접편이다. 회백색의 유로 전면을 시유하였고 상태는 양호하지 못하다. 내면에 물레흔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굽바닥에 모래받침흔이 확인된다. 현높이 : 4.9cm, 저경 7.0cm이다.

③ 백자대접편(사진 305, 도면 51-③)

굽일부만 남은 백자대접편이다. 담청색의 유로 전면

시유하였고 상태는 양호하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확인된다. 굽바닥에 모래받침흔이 관찰된다. 현높이 : 2.6cm, 저경 : 5.9cm이다.

④ 백자접시편(사진 305, 도면 51-④)

굽일부만 남은 백자접시편이다. 회청색의 유로 시유하였고 시유상태는 양호하며 전면에 빙얼이 확인된다. 내저바닥과 굽바닥에 모래받침흔적이 관찰된다. 현높이 : 2.6cm, 저경 : 5.9cm이다.

⑤ 백자종지편(사진 305, 도면 51-⑤)

굽일부만 남은 백자종지편이다. 회청색의 유로 시유하였고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내저바닥에 원각선이 확인되며 굽바닥에 모래받침이 확인된다. 현높이 : 3.6cm, 저경 4.4cm이다.

⑥ 백자종지편(사진 305, 도면 51-⑥)

저부만 남아 있는 백자종지이다. 회백색의 유로 시유하였고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외면에 빙결이 관찰된다. 굽바닥에 모래받침흔적이 확인된다. 현높이 : 3.3cm, 저경 : 4.4cm이다.

▶ 지도번호 : 노곡 191-1

628. 金勘 墓와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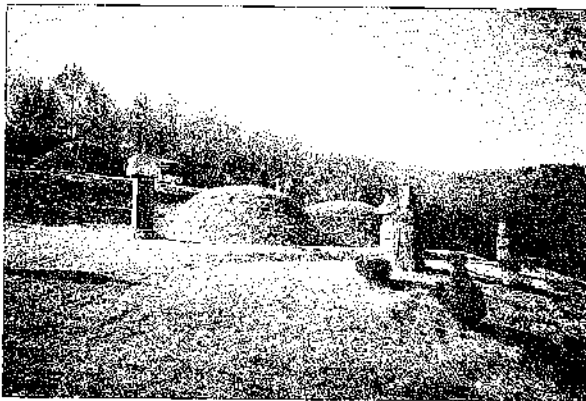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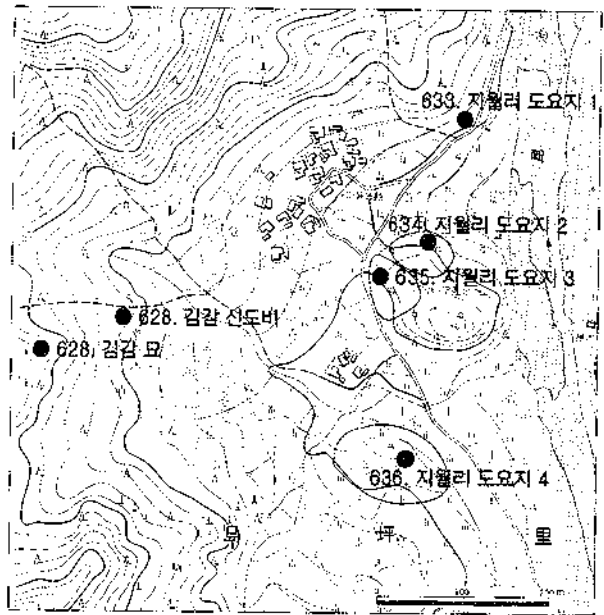
사진 306. 김감 묘 전경



사진 307. 김감 신도비

- 소재지 : 초월면 지월리 산69-1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金勘(1466-1509)은 中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延



지도 103. 김감 묘와 신도비 위치도(이전 032)

安, 자는 子猷, 호는 一齋 또는 仙洞이고 부사를 지낸 元臣의 아들이며 襄靖公 蔡壽(1449-1515)의 사위이다. 1489년(성종20)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진출하여 홍문관정자를 지냈다. 이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대제학을 거쳐 의정부좌찬성에 이르렀다. 1506년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靖國功臣 2등에 策勳되고 延昌府院君에 봉해졌다. 문장에 능하여 많은 비문을 지었으며 시호는 文敬이다.

묘소는 잣나무골 새마을회관 서측 구릉 중턱의 연안 김씨 세장지내에 東向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묘소 앞으로 곧지암천이 흐르고 있다. 묘역의 옛 석물은 문인석(높이 197cm) 1쌍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최근에 마련한 것이다. 봉분 좌측으로 1991년에 세운 묘비가 있는데, 그 앞면에 輔國崇祿大夫秉忠荷義翊運靖國功臣議政府左贊成領經筵監弘文館藝文館大提學延昌府院君諱文敬公延安金公諱勘之墓 配貞敬夫人仁川蔡氏라 쓰여져 있다.

묘역 아래에는 신도비(총높이 260cm)가 건립되어 있다. 이수에는 雙龍爭珠의 모습을 화려하게 조각하였으며 방부에는 覆蓮과 龍象을 정교하게 새겨 놓았다. 비신(높이 147cm, 폭 84cm, 두께 19.5cm)과 이수는 백대리

석을 방부는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이수의 앞면에 가로 19cm, 세로 26cm의 공간을 마련하고 ‘文敬公神道碑’라는 전액을 새겨 놓아 신도비임을 알 수 있다. 비문은 禮曹判書 申用祿(1463-1519)가 撰하고 承文院校理 金希壽(1475-1527)가 書并篆하였으며 비신의 앞면에만 글을 刻字하였다. 김희수는 당대의 명필로 생전에 많은 비문을 썼으나, 현재 남아 전하는 작품은 대부분 마모가 심하여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다. 그러나 김감신도비는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김희수의 書法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건립 연대가 없으나 양식상 중종대의 특징을 보이는 귀중한 신도비이다.

묘소 위에는 황해도관찰사를 지낸 조부 修와 안동부사를 지낸 아버지 元臣의 묘소가 있으며, 우측 아래에는 呂陵參奉를 지낸 達思의 묘소가 위치한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延安金氏大同譜』, 1987, 回想社

629. 鄭興門 墓와 墓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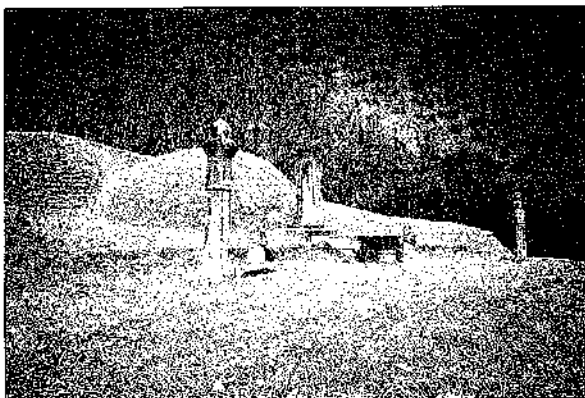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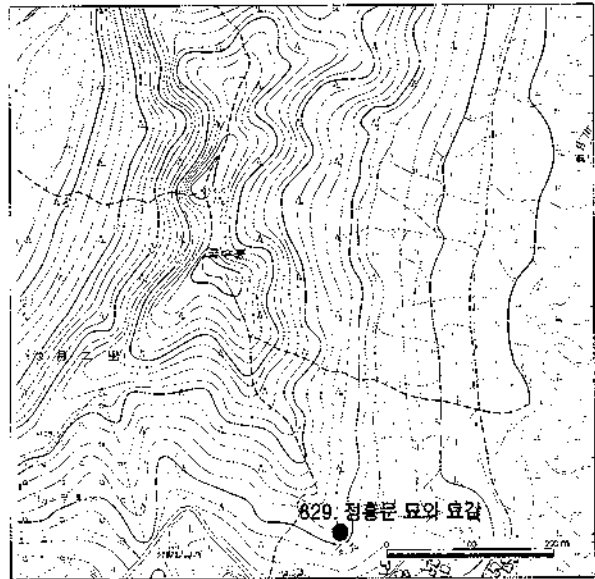


사진 308. 정흥문 묘와 묘갈 전경

- 소재지 : 초월면 지월리 산26-1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지도 104. 정흥문 묘와 묘갈 위치도(이천 032)

□ 내 용

鄭興門(1563-1631)의 본관은 光州이고 자는 敬伯이며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演의 아들이다. 1618년(광해군10) 健元陵 참봉을 제수받고 관직에 나아가 歸厚署別提를 역임하였다. 노년을 龍仁의 琵琶潭에서 보내다가 생을 마감하였으며 사후 호조참판을 추증받았다.

묘소는 경수마을 뒤편 국수봉(152m)의 남쪽 구릉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동자석, 망주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는데, 상석을 백대리석으로 조성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 봉분 앞에는 方趺圓首 양식의 묘갈(총높이 185cm)이 세워져 있다.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147cm, 폭 61.5cm, 두께 21.5cm) 전면에는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副總管行通訓大夫歸厚署別提鄭公興門之墓 貞夫人昌寧成氏附左’라 썼으며, 뒷면에 각자된 묘갈문은 마모가 심하지만 碣題가 ‘…鄭公墓碣銘并序’라 확인 되어 묘갈임을 알 수 있다. 묘갈문은 禮曹參判 鄭斗卿(1597-1673)이 撰하고 효종대왕의 부마인 靑平尉 沈益顯(1641-1683)이 書하였다. 건립 연대는 ‘崇禎戊辰後43年庚戌(1670, 현종11)正月 日立石’이다.

- ▶ 지도번호 : 광주 191-3
- ▶ 참고문헌 : 『光州鄭氏世譜』, 1977

630. 許蘭雪軒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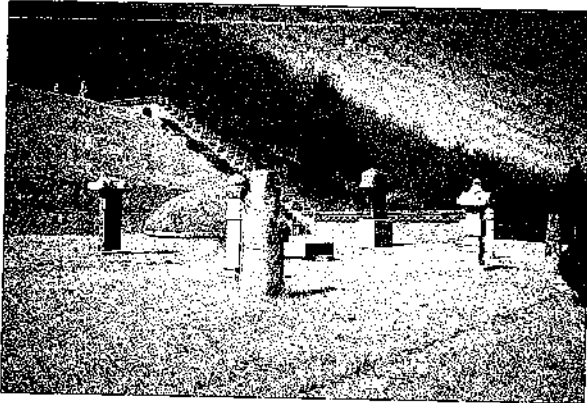


사진 309. 허난설현 묘 전경

- 소재지 : 초월면 지월리 산29-5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許蘭雪軒(1563-1589)의 본관은 陽川으로 자는 景樊이고 이름은 楚姬이며 난설현은 호이다. 草堂 許晔(1517-1580)의 딸이며 荷谷 許筠(1551-1588)과 蛟山 許筠(1569-1618)의 누이이다. 三唐 시인중의 한 명인 蔭谷 李達(1539-1612)에게 시를 배워 일찍부터 그 재능을 인정받았었다. 1577년 金誠立(1562-1592)과 혼인하였으나 성격 차이로 가정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였고, 아이들이 일찍 죽는 등 개인적으로 매우 불우한 일생을 보냈다. 조선에 사신으로 왔던 朱之蕃이 중국에서 난설현의 시집을 발간하였고, 일본에서도 시집이 간행되어 널리 애송되었다.

묘소는 국수봉의 북쪽 구릉에 동향으로 자리잡은 안동감씨 세장지내에 위치하며 묘소 앞으로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초장지는 고속도로 구간내에 있었

으나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장하였다. 1쌍의 문인석을 제외한 모든 석물을 다시 마련하였으며 1978년 봉분의 좌측에 묘비를 세우고 우측에는 1985년 허난설현시비를 건립해 놓았다.

- ▶ 지도번호 : 광주 191-3
- ▶ 비 고 : 경기도기념물 제 90호
- ▶ 참고문헌 :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재대관』-도지정편-, 1998, 경기도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631. 池月里 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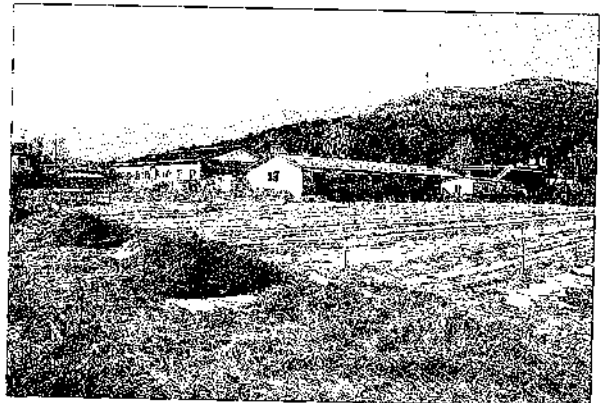


사진 310. 지월리 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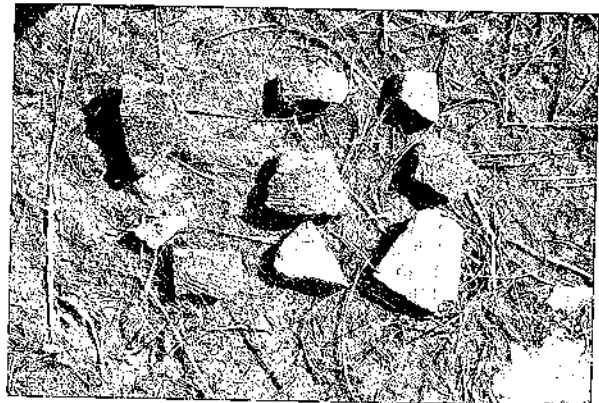


사진 311. 지월리 사지 채집 유물

□ 소재지 : 초월면 지월리 619-1

□ 시 대 : 고려 ~ 조선시대

□ 종 류 : 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유적은 지월리 탐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바로 붙어서 곤지암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다. 지금은 밭으로 쓰이고 있는 곳에서 高麗 ~ 朝鮮時代로 보이는 기와편이 넓게 분포되어 확인되고 있으나,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을 이름이 탐마을이어서 사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마을 사람들의 구전에 의하면 이 곳 말고도 川 건너 편에도 사지가 있었다고 한다. 유적 서편으로 해발 276m의 절뒤산이 솟아 있고, 곤지암천은 북으로 흘러 경안천과 합류한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논과 밭이 조성되어 있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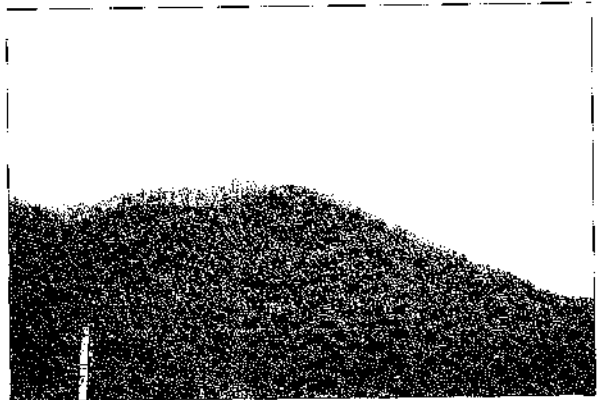


사진 312. 국수봉 산성 전경



사진 313. 국수봉 산성 근경

632. 國守峯 山城

□ 소재지 : 초월면 지월리 산69-1임

광주읍 쌍령리 산26임

□ 시 대 : 미상

□ 종 류 : 산성

□ 내 용

1) 위치 및 현상

국수봉산성은 광주읍에서 이천쪽으로 가는 3번 지방국도의 경안교를 건너 좌측 산 정상부(해발 260m)에 위치한다.

산성은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는 퇴폐식 산성으로, 잔존하고 있는 성의 둘레길이는 약 250m 정도이다. 성벽의 석축들은 이미 대부분 훼손되어 제자리를 잃고 있으며, 그중 동·남쪽의 성벽 석축이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성의 내부에는 평탄하나 1개의 단이 있는



사진 314. 국수봉 산성내 석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저수조와 망루, 봉수대 터로 추정되는 곳이 찾아지고 있다. 저수조의 깊이와 폭은 약 50×250cm 정도로 15×15~20cm 정도의 석재를 이용하여 약 5단 정도를 쌓아올렸다. 저수조는 이미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주변에서는 유물이 수습되지 않았다.

망루와 봉수대터로 보이는 곳은 성의 서북쪽 끝 지점

에 있다. 이곳에서는 서쪽으로는 문형산 일대가 관찰되며, 북쪽으로는 광주읍과 남한산성일대가 한눈에 전망된다. 또한 이곳은 봉수대터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원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곳에 96년도에 세워진 국수봉비가 있으며, 비는 병자호란때에 쌍령리일원에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허완이 이끄는 구원군이 청군에게 패하여 전사한 허완, 민영, 선세강, 이의배등을 추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성내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어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그러나, 산성 남쪽 출입구가 있는 능선으로부터 등산로 길을 따라 약 100m정도 떨어진 곳에서 우각형과수 1점과 토기편 3점이 수습되었다.

국수봉산성은 광주읍내를 비롯한 경안천유역을 관망할 수 있는 지형·지세를 갖추고 있으나 성의 규모를 보아 많은 수의 군사가 주둔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곳은 남한산성과 이천의 설봉산성을 연계하는 길목에 있으며, 한강에서 경안천으로 거슬러 용인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실제로 남한산성이 북쪽으로 10km, 이천 설봉산성이 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위치적으로도 하남-광주-이천-장호원으로 이어지는 옛교통로 선상에 있으며, 이들 주변지역 산성을 살펴볼 때 이성산

성-남한산성-국수봉산성-설봉산성-효양산성-설성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곳 국수봉산성은 남한산성과 설봉산성을 이어주는 산성이라 하겠다.

2) 채집 유물

이곳에서 출토된 철제유물이 광주문화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조사단은 여러번에 걸쳐 이 유물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광주문화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유물을 조사할 수가 없었다. 출간된 자료에 의하면 철제유물은 부장품과 옛무기의 파편이라 한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광주향토사료집』1, 1997, 광주문화원
『광주향토사료집』2, 1998, 광주문화원

633~636. 池月里 陶窯址 1~4號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굽/받침/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잔/유백, 연회백, 회색/직립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갑발	마을회관 (69-1)	墓·林	광주 191-3	○	
2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병, 향아리/설백, 연회백, 회색/직립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원반형받침	마을회관 (632)	林	광주 191-3	○	
3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잔/유백, 연회백/직립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원반형받침	마을회관 (654)	田·林	광주 191-3	○	
4호	17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향아리/유백, 연회백, 회색/직립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	마을회관 (680)	田·林	광주 19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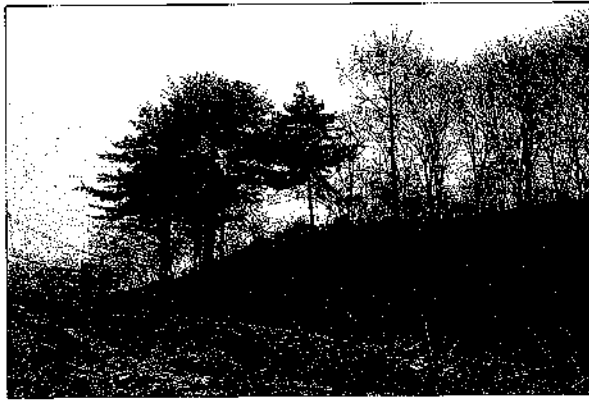


사진 315. 지월리 도요지 3호 전경



사진 316. 지월리 구석기유적 전경

637. 池月里 舊石器遺蹟

- 소재지 : 초월면 지월리 28-3답 일대
- 시 대 : 구석기시대
- 종 류 : 선사유적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이곳은 초월면 지월리 오송계로 우측으로는 중부고속도로 중부 3호 터널이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허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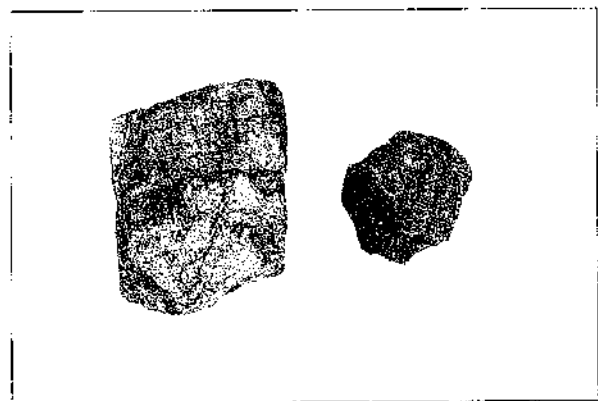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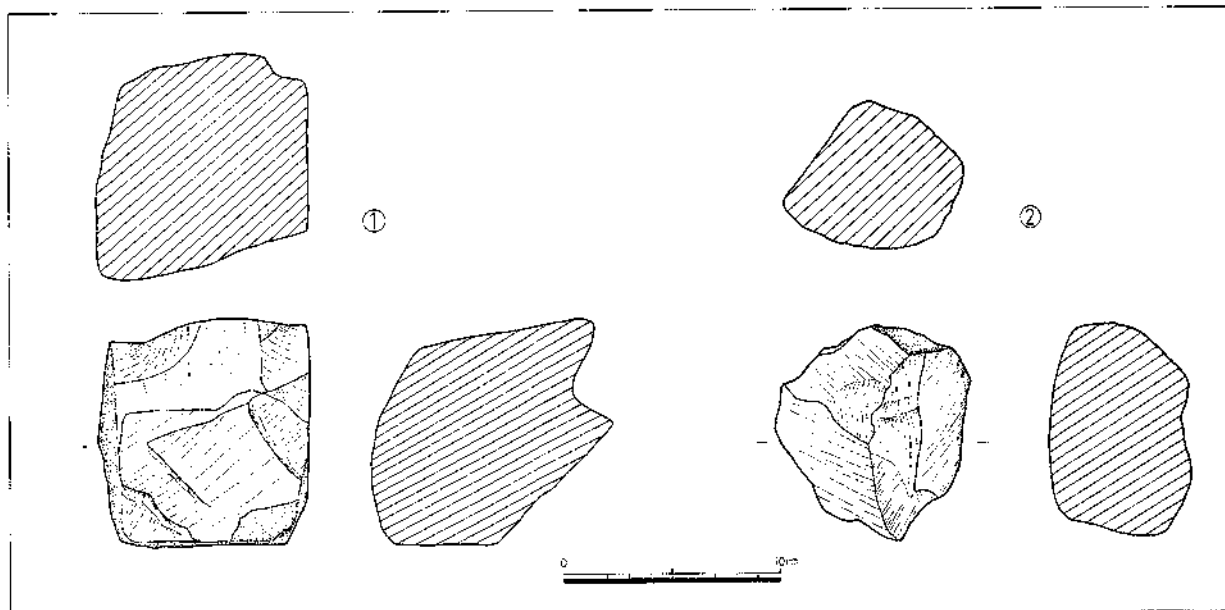


사진 317. 지월리 구석기유적 채집 유물

현묘가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 흐르는 경안천이 이곳



도면 52. 지월리 구석기유적 채집 석기

에서 사행을 이루며 한강쪽으로 흘러나간다. 이곳에 민가 3·4 채가 있으며, 유물은 민가 위쪽 밭에서 수습되었다. 이 지역에서도 갱신세 층이 두텁게 퇴적되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있어 보다 세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 채집 유물

① 찌개(사진 317, 도면 52-①)

암질은 석영암으로 장방형의 두터운 석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깨어진 한면을 제외한 전면이 자연면이다. 석기는 암질의 결에 따라 금이 가거나 결의 방향으로 떨어 졌다. 한 두번의 큰 깨기가 이루어진 후에 날 부분에 있어 잔손질을 하여 날을 형성하였다. 날은 불록날로 날의 길이는 7.2cm이다.

크기는 14.8×9.2×9.9cm, 무게는 1,750g이다.

② 찌개(사진 317, 도면 52-②)

암질은 석영암으로 둥근형태의 석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깨어진 면과 자연 면을 때림 면으로 하여 2번 찌개의 깨기가 이루어 졌다. 날의 길이는 10.4cm로 크기는 8.8×7.6×6.0cm, 582g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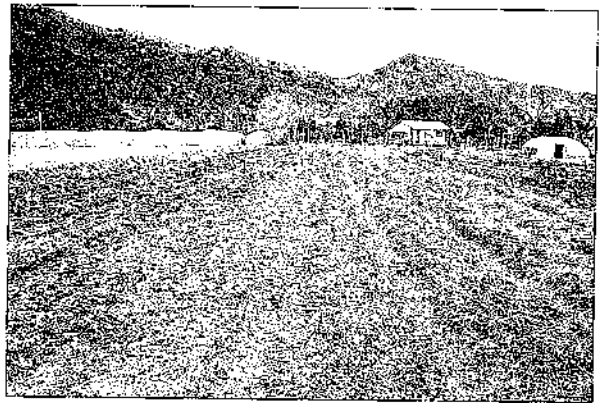


사진 318. 지월리 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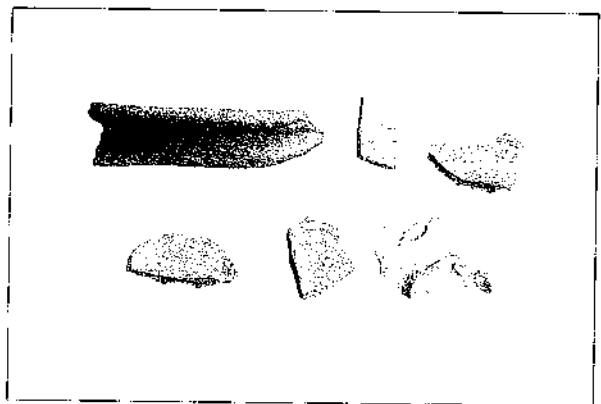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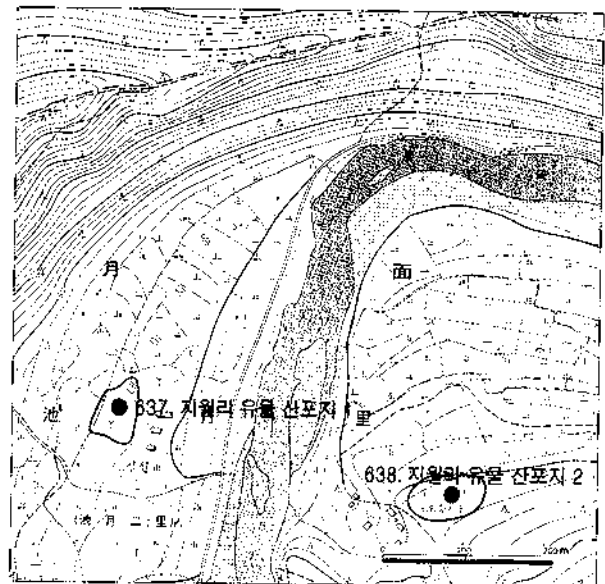
사진 319. 지월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638. 池月里 遺物散布址

- 소재지 : 초월면 지월리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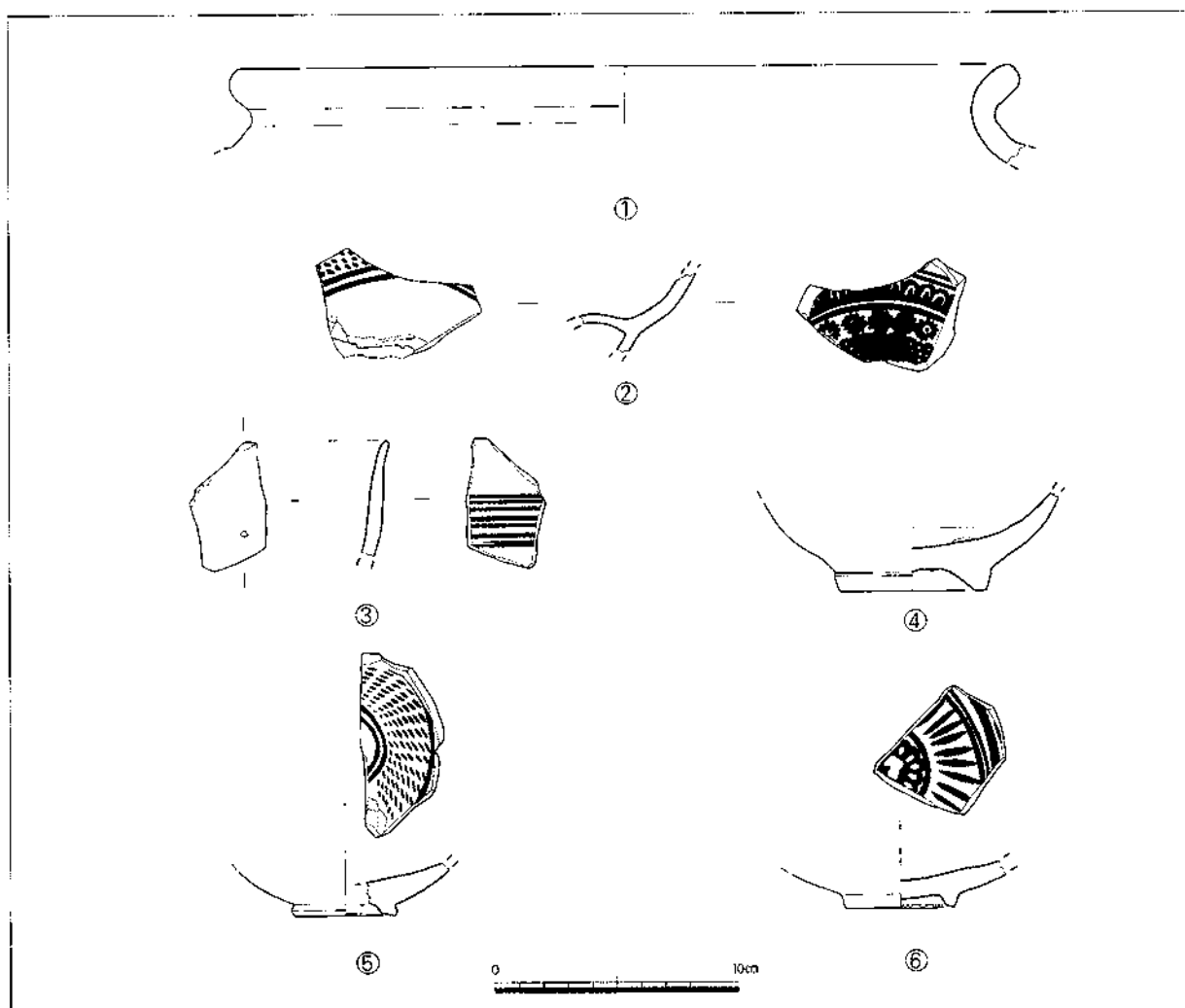
1) 위치와 현상

광주읍에서 퇴촌면 방향으로 나 있는 도로를 따라 가면 지월리 오송계마음이 나오는데, 이 마을 옆으로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유물산포지는 경안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비닐하우스농장 근처에서 확인되고



지도 105. 지월리 유물산포지1·2 위치도(이천 022)

있다.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 자기, 도기편이 보이고 있다.



도면 53. 지월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2) 채집 유물

① 회갈색토기편(사진 318, 도면 53-①)

대형호로 추정되는 연질토기 구연부편이다. 색조는 회갈색이며 태토에는 소량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높이 3.5cm, 복원구연지름 32.0cm이다.

② 분청사기편(사진 318, 도면 53-②)

동체부편으로 보인다. 내면에 몇줄의 횡선을 돌려 상감처리하였다. 회청색유로 시유하였고 빙열이 일부 확인된다. 높이 4.9cm이다.

③ 분청사기편(사진 318, 도면 53-③)

저부편으로 보인다. 내면에 화문, 원판문, 점열문을 시문하였고 백토로 상감한 횡선을 돌렸다. 연녹색유를

전면에 시유하였고 일부 빙열이 확인된다. 현높이 6.4cm이다.

④ 분청사기편(사진 318, 도면 53-④)

접시편으로 저부 일부만 남아 있다. 내면에 화문과 백토상감한 횡선을 돌렸다. 담청색유로 시유되었고 빙열이 확인된다.

현높이 2.2cm, 복원저부지름 4.0cm이다.

⑤ 분청사기편(사진 318, 도면 53-⑤)

굽 일부만 남아 있는 접시편이다. 내면에는 인화문, 선문이 시유되었고, 횡선문으로 문양을 구획하였다. 담청색유로 시유되었고 시유상태는 불량하다. 현높이 3.1cm, 저부지름 4.6cm이다.

⑥ 백자대접편(사진 318, 도면 53-④)

굽 일부만 남아 있는 백자대접편이다. 회백색유로 시유되었다. 내저에 원각선이 1줄 돌려져 있고 내화토받침이 2곳 확인된다.

현높이 4.1cm, 저부지름 6.0cm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639~654. 鶴東里 陶窯址 1~16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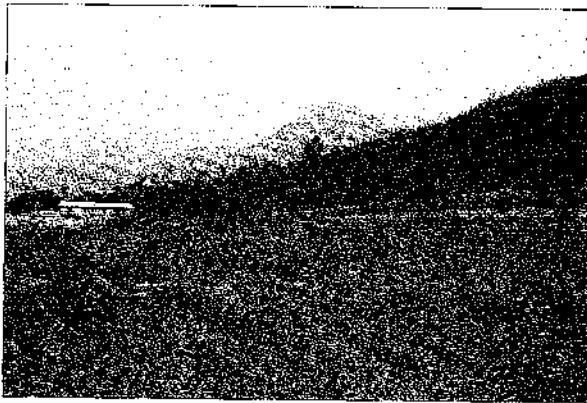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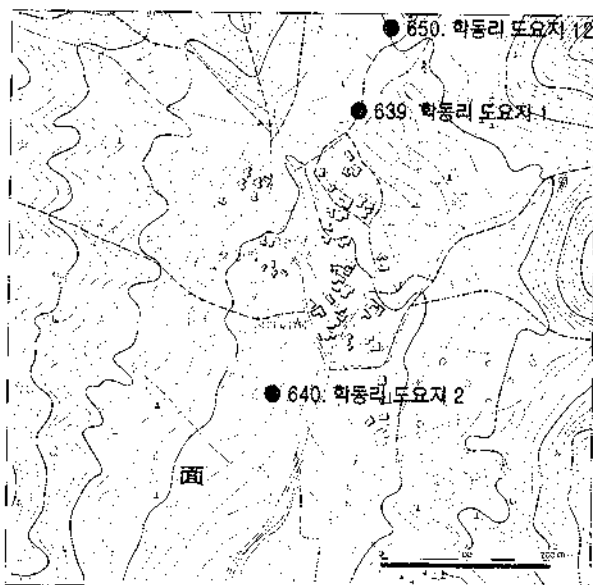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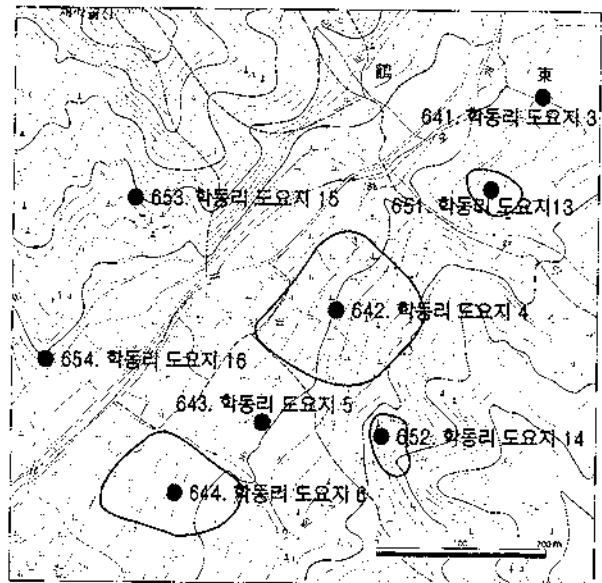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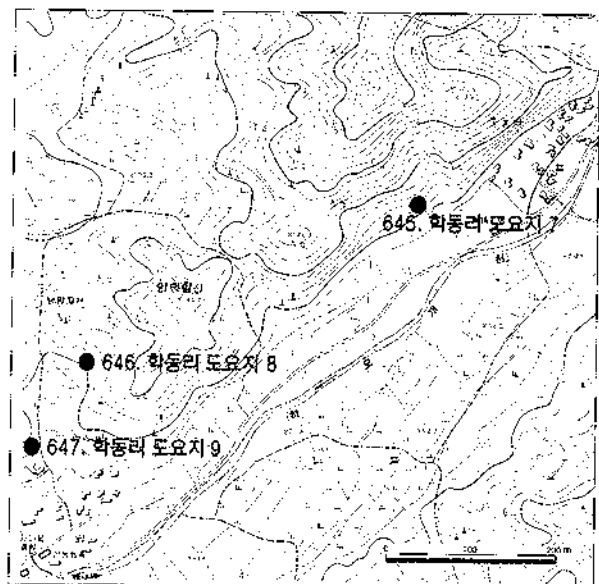
사진 320. 학동리 도요지 4호 전경



지도 106. 학동리 도요지 위치도1(이천 044)



지도 107. 학동리 도요지 위치도2(이천 044)



지도 108. 학동리 도요지 위치도3(이천 044)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굽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담청, 연회백색/죽절굽/태토비집	살막골 (5-1)	田	광주 191-3	×	
2호	16-17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병, 향아리/설백, 연회색/도립삼각형굽, 오목굽/모래받침, 굽은모래받침	새마을 (31)	林	광주 191-3	×	
3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설백, 연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굽,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집	추정	-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4호	15-16세기	●(상간·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 배병/암록, 연록색/죽절굽/태토비집 ●백자/대접, 접시, 잔/설백, 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굽,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집 ●청자/대접, 접시, 반, 뚜껑, 받침/암록, 담록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요도구/갑발, 원반형받침	두두봉돌 (121-10~15)	田	광주 191-3	○	
5호	15-16세기	●(인화)분청사기/●백자/대접, 접시, 잔, 병, 마상배/설백, 연회백, 담청백색/도립삼각형,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집 ●청자/발, 대접/암록, 담록색 ●요도구/갑발, 원반형받침	붓당골 (123-4)	田	광주 191-3	×	
6호	15-16세기	●(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연록, 회록색/죽절굽형/태토비집, 모래받침 ●백자/발, 대접, 접시, 전접시, 잔/설백, 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굽,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집 ●요도구/갑발, 원반형받침	붓당골 (149-7)	田	광주 191-3	×	
7호	16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회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벌동막 (114, 199)	田	광주 191-3	○	
8호	16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회색/도립삼각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	추정	-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9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설백, 연회백, 회색/도립삼각형굽, 오목굽/(굽은)모래받침/左乙卯, 右乙卯유각명문 ●요도구/원반형받침, 폐기물활용받침	벌동막 (9-1)	林	광주 191-3	×	
10호	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병, 버루, 제기/설백, 연회백, 회색/도립삼각형굽, 오목굽/모래받침, 굽은모래비집	영문발 (202-6)	田	광주 191-3	×	
11호		「한국의 백자요지」의 지도에 표시만 있음	추정	-	광주 191-3	○	
12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요도구/도침	산막골 (1-3)	田	광주 191-3	×	
13호	16세기	●백자/대발, 대접, 접시, 잔/설백, 연회백, 담청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붓당골 (85)	沓	광주 191-3	×	
14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보지/설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원반형받침	붓당골 (101-1)	林	광주 191-3	×	
15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설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원반형받침	두두봉돌 맞은편 (136)	墓·林	광주 191-3	×	
16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설백, 연회백, 담청백색/죽절굽,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집, 모래받침 ●요도구/갑발, 원반형받침	셋골 (161)	田·林	광주 191-3	×	

퇴 촌 면

655. 홍성현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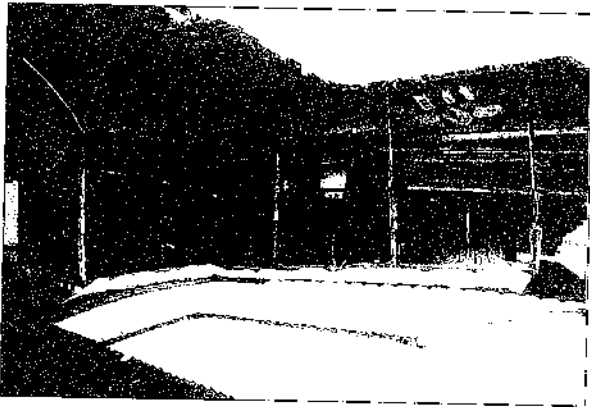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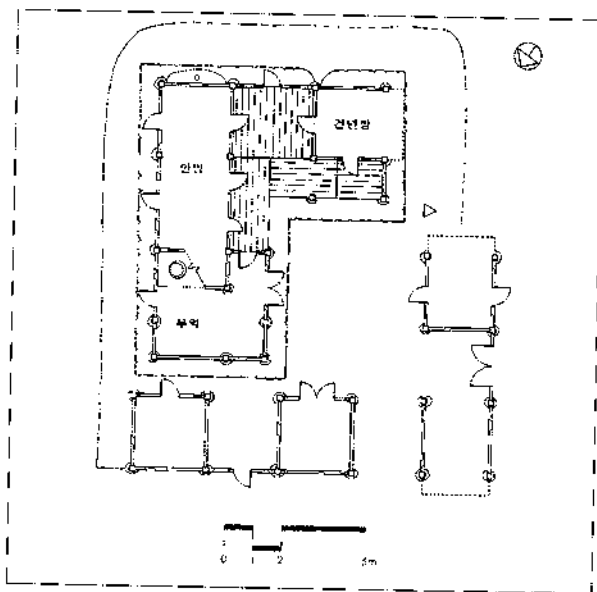


사진 321. 홍성현 가옥 전경



도면 54. 홍성현 가옥 평면도

- 소재지 : 퇴촌면 관음리 700-1(지도109 참조)
- 시 대 : 근대
- 종 류 : 고가
- 내 용

안채상량문(昭和七年二月十六日立柱上樑……)의 기록으로 보아 1932년경에 지어진 가옥으로 현 거주인

은 4개월전부터 거주하여 가옥의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었다.

안채와 바깥채가 전체적으로 튼ㄱ자형을 이루고 있다.

안채는 1고주 5량의 ㄱ자형으로 부엌과 안방, 대청, 건넌방이 ㄱ자형을 이루고 있고, 건넌방과 대청, 부엌에 모두 퇴가 부가되어 있다.

바깥채 부분의 대문은 폐쇄되어 있고, 안채와 바깥채 사이의 작은 공간을 통하여 출입하고 있다. 안채와 바깥채 모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안방과 부엌만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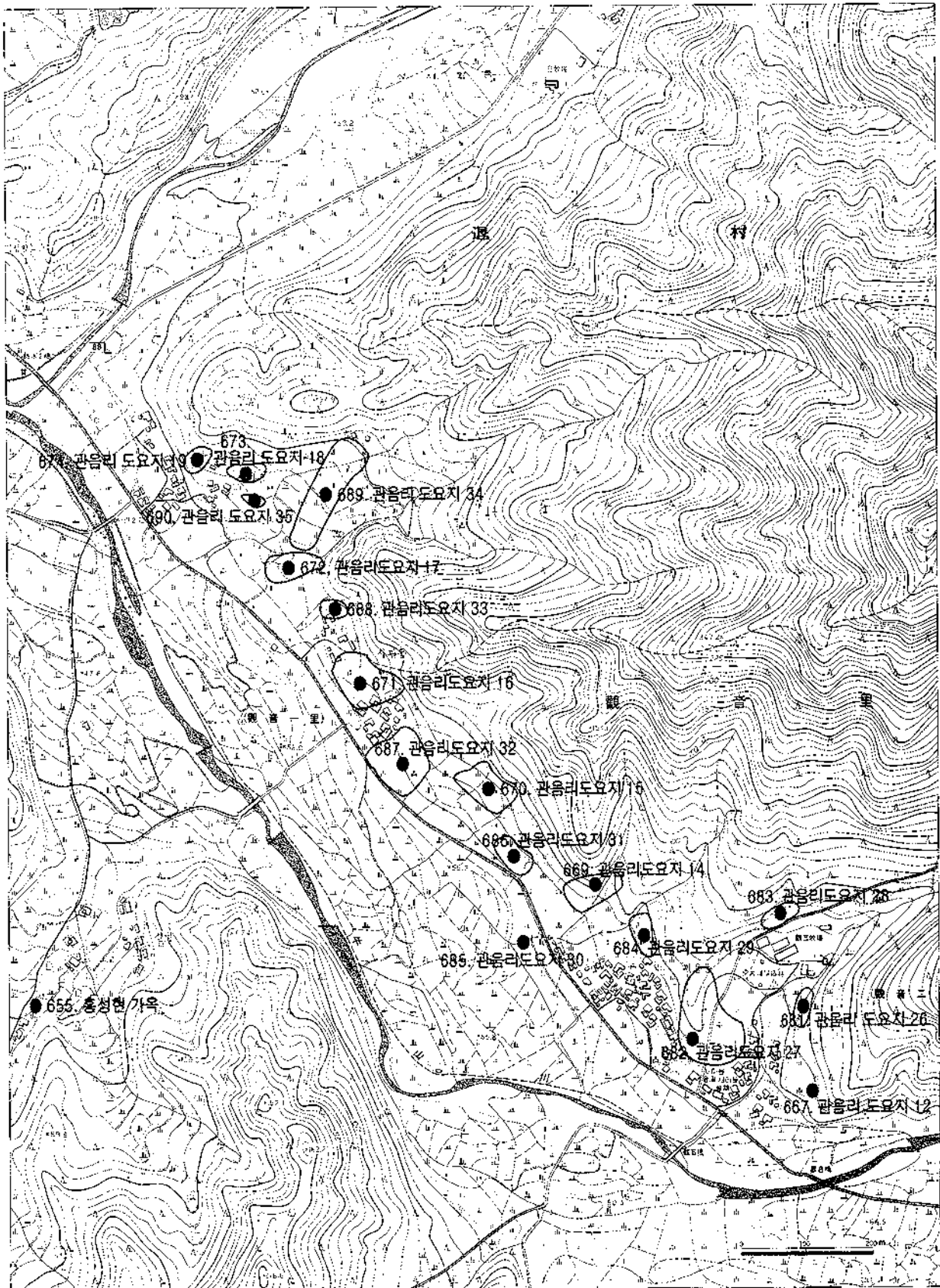
안방은 화북을 사용하고 있고, 초석과 기단은 자연석으로 안마당은 흙마당이고, 담장은 싸리울로 되어있다.

▶ 지도번호 : 광주1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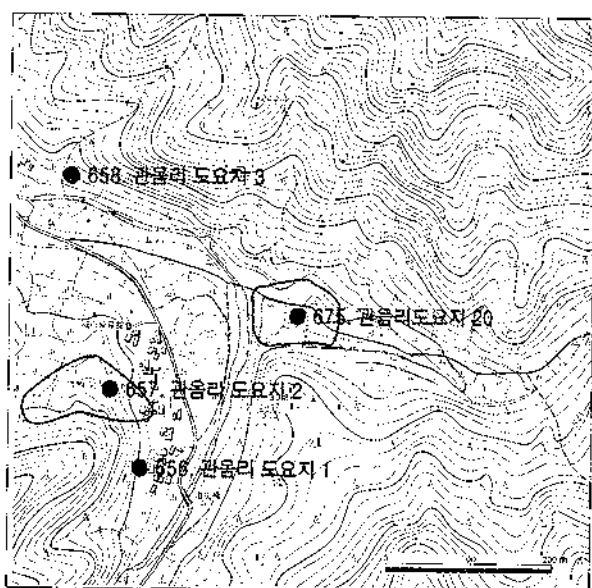
656~690. 觀音里 陶窯址 1~35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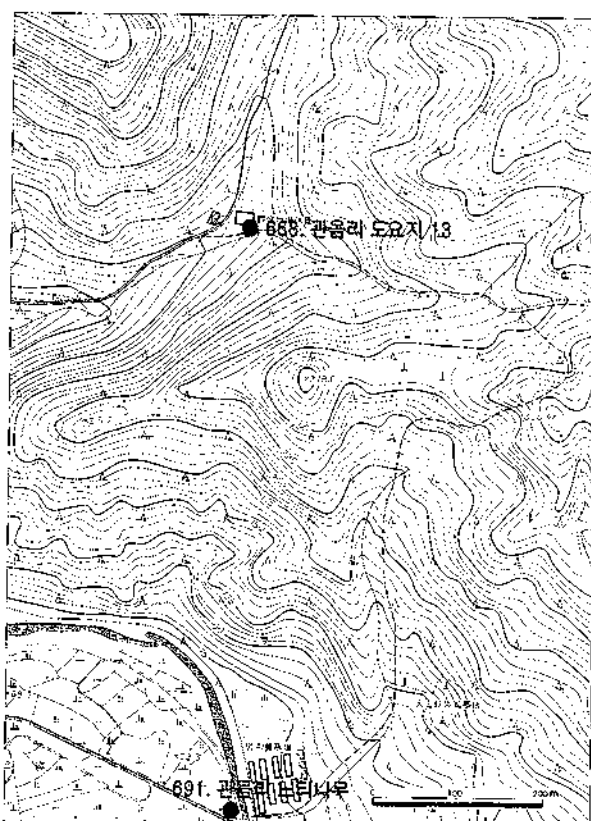
사진 322. 관음리 도요지 16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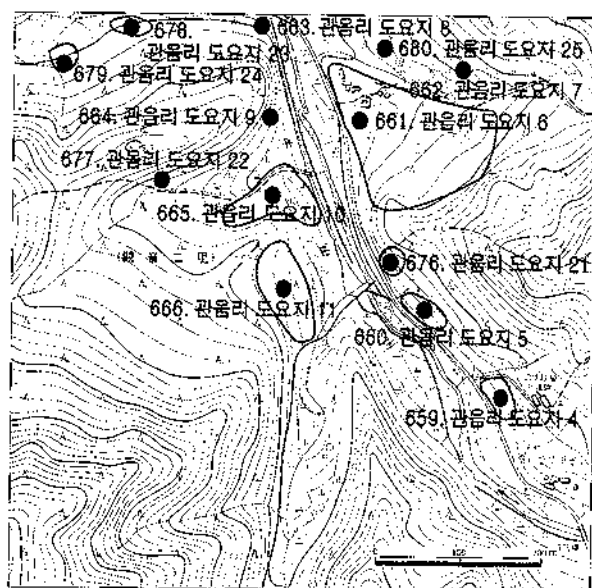
지도 109. 관음리 도묘지 위치도 1(이천 014)



지도 110. 관음리 도요지 위치도2(이천 025)



지도 112. 관음리 도요지 위치도4(이천 014)



지도 111. 관음리 도요지 위치도3(이천 024)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굽/발침/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회백, 담청색/죽절굽/태도비집 ●요도구/도침, 원반형발침	도장교변 (148)	林	광주 191-3	×	
2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회백, 담청색/죽절굽/태도비집	도장골 (151-2)	林	광주 191-3	×	
3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철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발침	추정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굵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4호	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설향, 연회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左음각명문 ●청자/접시/암록색	도장골 (176-1)	田	광주 191-3	○	
5호	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뚜껑/설향, 연회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원반형받침	명학골 (176-11, 176-12)	田	광주 191-3	○	
6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받침, 병/회백, 설향/죽절,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집, 모래받침	명학골 (194-1, 194-3)	田	광주 191-3	○	1997년 전국대 발굴
7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함뚜껑/담청, 회백색/죽절굽/태토비집 ●요도구/원반형받침	명학골 (203-3)	畵	광주 191-3	×	
8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향아리/연회백, 설향/죽절,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집, 모래받침	명학골 (160-1)	林	광주 191-3	○	
9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색/죽절,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집, 모래받침 ●요도구/갑발뚜껑, 원반형받침	명학골 (160-1)	林	광주 191-3	○	
10호	16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잔, 병, 뚜껑/설향, 회백색/도립삼각형,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집/左右음각명문 ●청자/접시/암록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명학골 (160-1)	林	광주 191-3	○	
11호	16세기	●백자/대발, 대접, 접시, 전접시, 마상배/설향, 연회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右음각명문 ●요도구/갑발뚜껑, 원반형받침	명학골 (160-1)	林	광주 191-3	○	
12호	15-16세기	●(상감·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회청, 회백색/죽절굽형/굵은모래받침, 태토비집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색/죽절굽/태토비집 ●요도구/원반형받침	추정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13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색/죽절굽/태토비집	추정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14호	15-16세기	●(상감·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회청, 회백, 암록색/죽절굽형/모래받침, 태토비집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색/죽절, 오목굽/태토비집, 굽은모래받침	관음동 (15-2)	林	광주 191-3	○	
15호	16-17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회백색/죽절, 오목굽/태토비집, 굽은모래받침	관음동 (508-1)	田	광주 191-3	×	
16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잔/설향, 회백색/도립삼각형, 오목굽/굽은모래받침 ●요도구/도침, 원반형받침	사관동 (518, 519)	田	광주 191-3	○	
17호	17-18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병/설향, 회백색/도립삼각형, 오목굽/굽은모래받침	새마을 (524-6)	畵	광주 191-3	×	
18호	17-18세기	●(철화)백자/대발, 대접, 접시, 잔/설향, 회백색/도립삼각형굽/굽은모래받침/田山/左음각명문 ●요도구/원반형받침	새마을 화관부근 (548-2)	田	광주 191-3	○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굵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9호	17-18세기	●백자/대발, 대접, 접시, 잔, 향아리/설향, 회백색/도립삼각형, 오목굽/굵은모래받침/음각명문 ●요도구/갑발, 원반형 받침	새마을 회관부근 (548-1)	田	광주 191-3	○	
20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담청색/죽절굽/태토비집 ●청자/대접, 접시, 잔/암록, 연록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요도구/갑발, 원반형받침	새마을 회관부근 (134, 136-2)	畵	광주 191-3	○	
21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설향, 연회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원반형받침	명학골 (176-2)	田	광주 191-3	○	
22호	15-16세기	●(청화)백자/대접, 접시, 기타/설향, 설향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명학골 (160-1)	林	광주 191-3	○	
23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담청, 회백색/죽절,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집, 모래받침	명학골 (242-2)	林	광주 191-3	×	
24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설향, 연회백, 회색/죽절,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집, 모래받침	명학골 (165)	林	광주 191-3	×	
25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향아리/설향, 담청, 연회백색/도립삼각형, 죽절굽/모래받침, 태토비집 ●요도구/갑발뚜껑, 원반형	명학골 (778)	田	광주 191-3	×	
26호	15세기	●(상감·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 잔, 병/암록, 회록색/죽절굽형/모래받침, 태토비집 ●요도구/도침	새마을 회관 (399-1)	田	광주 191-3	×	
27호	15-16세기	●(상감·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 매병/암록, 회록색/죽절굽형, 평저/모래받침 ●백자/대접, 접시, 잔/설향, 연회백, 담청색/죽절,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집, 모래받침 ●요도구/갑발, 갑발뚜껑, 도침, 원반형받침	새마을 창고 (327, 331-1)	田 休地	광주 191-3	○	
28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회백, 담청색/죽절굽/태토비집	관음목장 (394)	田	광주 191-3	×	
29호	15-16세기	●(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암록, 회록색/죽절굽형/모래받침 ●백자/대접, 접시/설향, 담청, 회백색/죽절굽/태토비집	관음동 (384-1, 385)	田	광주 191-3	×	
30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병/회백색/죽절,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집, 모래받침	관음동 (362-1)	田	광주 191-3	×	
31호	15세기	●(상감·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 병, 매병, 뚜껑/암록, 회록색/죽절굽형/모래받침, 태토비집 ●요도구/원반형받침	관음동 (507-6)	田	광주 191-3	×	
32호	17-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설향, 연회백, 회색/도립삼각형, 오목굽/굵은모래받침 ●요도구/원반형받침	사관동 (512-10)	田	광주 191-3	×	
33호	17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회색/오목굽/굵은모래받침	사관동 (517-1, 519)	田	광주 191-3	○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굽/발침/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34호	17-18세기	●백자/대접, 대접, 접시/설백, 연회백색/도립삼각형, 오목 굽/굽은모래발침	사관동 (550)	III	광주 191-3	×	
35호	18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병/유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 발침●요도구/갑발	세마음 회관 부근 (547-2)	岱地	광주 191-3	×	

691. 觀音里 느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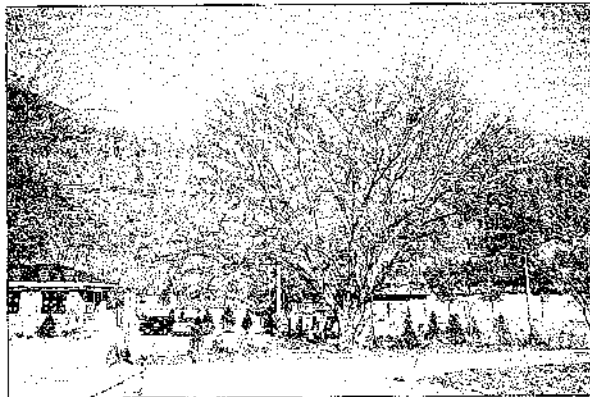


사진 323. 관음리 느티나무 전경

- 소재지 : 퇴촌면 관음2리 전326-1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관음 2교 다리 옆에 위치한다. 느티나무의 수령 100년, 나무키 20m, 나무둘레 2m이다. 1983년 3월 10일 면나무로 지정되었다.

- ▶ 지도번호 : 광주 191-3
- ▶ 지정번호 : 경기광주 80

692. 趙英茂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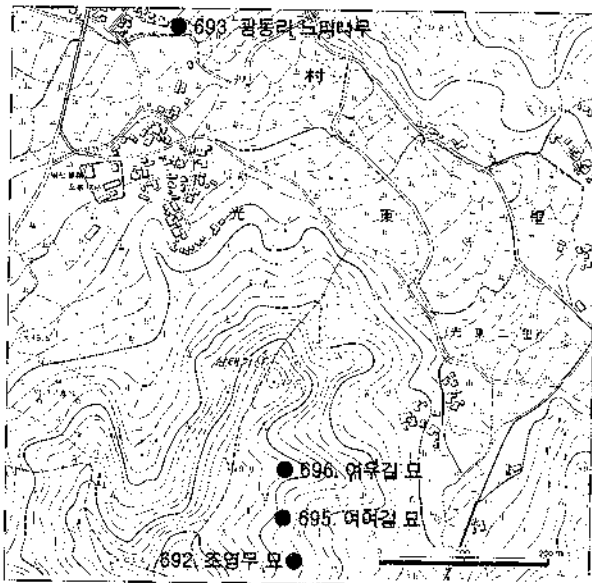


사진 324. 조영무 묘 전경

- 소재지 : 퇴촌면 광동2리 산16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趙英茂(1338-1414)는 太宗代의 무신으로 본관은 漢陽, 자는 乾也, 호는 退村 또는 休巖이며 漢山伯世珍의 아들이다. 李芳遠의 심복으로써 趙英珪(?-1395) 등과 함께 鄭夢周(1337-1392)를 개성 선죽교에서 격살하고, 조선 개국에 적극 가담하여 개국공신이 되었다. 1·2차 왕자의 난에는 이방원을 도와 승리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태종의 지극한 총애를 받아 관직이 右政丞에 이르렀으며 漢山府院君에 봉해졌다. 사후 태종의 廟廷에 配享되었으며 시호는 忠武이다.

묘소는 광복동 함양여씨 세장지의 좌측 구릉에 자리



지도 113. 조영무 묘 위치도(이천 013)

잡고 있다. 묘역 주위로 곡장을 쌓았으며 장명등(높이 150cm), 문인석(높이 147cm)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다. 장명등과 문인석은 약간 훼손되어 시멘트로 보수하여 놓았으며 나머지 석물은 최근에 새로 마련한 것이다. 봉분에는 가로 360cm 세로 482cm 크기의 호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우측으로 1961년에 건립한 묘비가 세워져 있다.

신도비는 묘역 아래, 재실(退村齋)의 좌측에 건립되어 있다. 1918년(永曆5戊午) 5월에 후손이 비문을 짓고 判敦寧院事 海平 尹用求(1853-1939)가 書并篆하여 신도비를 세웠으나 한국전쟁때 훼손되었다. 현재의 신도비는 1968년에 원비문을 다시 再刻하고 改豎한 것이다.

묘소 아래에는 江西縣令을 지낸 후손 璫의 묘소가 위치한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漢陽趙氏世譜』, 1994, 回想社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693. 光東里 느티나무



사진 325. 광동리 느티나무 전경

□ 소재지 : 퇴촌면 광동1리 답346-1(지도113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동지벌말의 논 가운데에 위치하며 보호수 옆으로 조그마한 개울이 흐르고 있다. 느티나무의 수령 210년, 나무키 21m, 나무둘레 3.25m이다. 1983년 3월 10일 면나무로 지정되었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지정번호 : 경기광주 78

694. 安塘 墓와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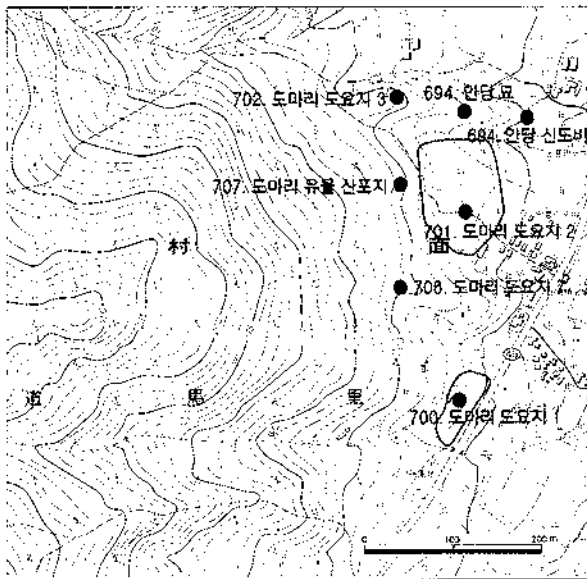
□ 소재지 : 퇴촌면 도마리 산22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安塘(1461-1521)은 中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順興, 자는 彦寶, 호는 永慕堂으로 司藝를 지낸 敦厚(1421-1483)의 아들이다. 1481년(성종12)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지의금부사를 지냈다. 1507년



지도 114. 안당 묘와 신도비 위치도(이천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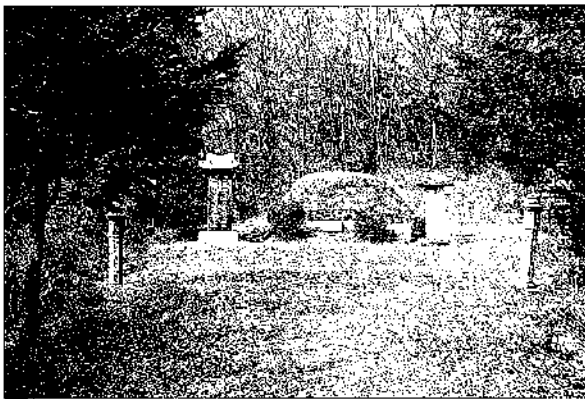


사진 326. 안당 묘 전경



사진 327. 안당 신도비

(중종2) 李顯의 난을 다스려 定難功臣이 되었으며 대사간과 이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1519년

(중종14) 己卯士禍가 일어나자 士林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도리어 파직되었다. 1521년(중종16) 큰아들 處謙(1486-1521)이 기묘사화의 원흉 沈貞과 南僣을 제거하려다가 무산되고, 오히려 庶姑母의 아들 宋祀述(1496-1575)의 誣告로 처형당할 때 세째 아들 處謙(1490-1521)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1566년(명종21) 復官되었으며 시호는 貞愍이다.

묘소는 윗도마치 마을의 뒷산에 東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묘역의 옛 석물은 고종대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망주석 1쌍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근래에 새로 갖춘 것이다. 봉분 우측에는 방부개석 양식의 묘표(총높이 179cm)가 건립되어 있으며 비신(높이 120cm, 폭 40cm, 두께 18.5cm)의 전면에는 '左議政 贈諡貞愍公順興安塋墓'라 쓰여져 있고 음기는 없다. 입석 연대는 '崇禎紀元後5壬午(1882, 고종19)8月 日立'이다. 또한 봉분 좌측에는 1974년에 새로 만든 묘비가 서 있다.

묘역 입구에는 신도비(총높이 약 196cm)가 건립되어 있다. 전액을 '右明朝鮮國左議政贈諡貞愍安公神道碑'라 하여 신도비임을 알 수 있다. 栗谷 李珥(1536-1584)의 비문을 15대손 承麟이 기록하고 '崇禎紀元後5壬午(고종19, 1882)8月 日'에 건립한 방부개석 양식의 신도비이다. 그러나 비신(높이 137cm, 폭 49cm, 두께 26cm)의 석질이 견고하지 못해, 오래 보존되지 못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1969년 종중에서 새로 烏石의 비신을 구하고, 율곡의 비문을 그대로 礪山 宋成鑑의 글씨를 받아 마을내에 또 하나의 신도비를 건립하였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順興安氏族譜』, 1864

『京畿金石大觀』4, 1990, 경기도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695. 呂興吉 墓



사진 328. 여여길 묘 전경

- 소재지 : 퇴촌면 광동2리 산19-1임(지도113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呂興吉(?-1593)은 宣祖代의 인물로 본관은 咸陽이고 자는 益夫이다.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順元(1535-1619)의 아들이며 사후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를 추증받았다.

묘소는 광복동 마을 서쪽, 삼태기산(122m) 동쪽 구릉의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동자석, 망주석, 문인석(높이 133cm)의 옛 석물이 갖추어져 있으며 봉분에는 원형의 호석이 둘러쳐져 있다. 봉분 앞에 세워져 있는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20cm) 전면에는 贈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呂公之墓 貞夫人慶州李氏 附 라 썼으며 음기와 건립연대는 없다.

묘소 위에는 광복동의 입향조인 고조부 允秀의 묘소가 위치한다.

- ▶ 지도번호 : 광주 191-3
- ▶ 참고문헌 : 『咸陽呂氏世譜』, 1986, 農耕出版社

696. 呂祐吉 墓



사진 329. 여우길 묘 전경

- 소재지 : 퇴촌면 광동2리 산19-1임(지도113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呂祐吉(1567-1632)은 仁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咸陽이고 자는 尙夫이며 호는 癡溪이다. 첨지중추부사 順元의 아들이자 牛溪 成渾(1535-1598)의 문인이다. 1591년(선조24)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올라 밀양부사를 지냈다. 1607년(선조40) 回答兼刷還使로 일본에 파견되었고 1614년(광해군6)에는 陳慰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충청도관찰사 재직시 任所인 淸州에서 病死하였다.

묘소는 만형인 興吉의 묘소 우측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망주석, 동자석, 문인석(높이 120cm)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다. 현재 묘역을 정비중이라 석물을 모두 한쪽으로 모아 놓은 상태이다. 쌍분의 중앙에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83cm)가 세워져 있으며 화강암으로 만든 방부에는 覆蓮과 唐草紋을 돌을 새김으로 조각하였다.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156cm, 폭 70.5cm, 두께 28.5cm)은 산화되어 검게 변색되어 있는데, 앞면에는 피장자의 신분을 쓰고 뒷면에는 陰記를 각자하였다. 표제를 有明朝鮮國通政大夫守公洪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呂公墓表 라 하

고 전액을 觀察使呂公墓表'라 하여 묘표임을 밝히고 있다. 음가는 右議政 宋時烈(1607-1689)이 撰하고 外曾孫 朗善君 侯(1637-1693)가 書하여 孫男 同副 承旨 聖齊(1625-1691)가 篆을 올렸다. 입석 연대는 '崇禎紀元後戊申(1668, 현종9)月 日立'이다.

묘소 우측의 구릉에는 掌樂院僉正을 지낸 증조부 世琛, 左承旨에 추증된 조부 淑, 僉知中樞府事를 지낸 아버지 順元(1535-1619)의 묘소가 위치한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咸陽呂氏世譜』, 1986, 農耕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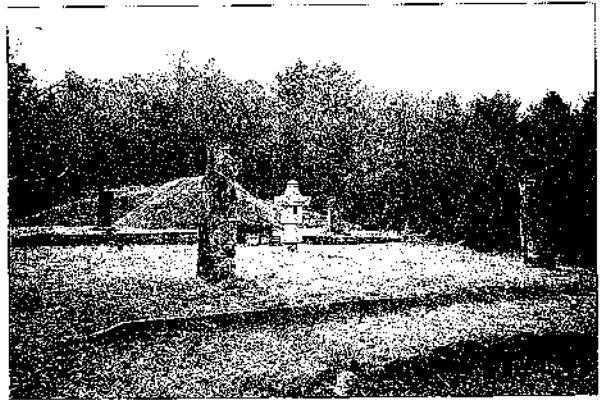


사진 330. 최항 묘 전경

697. 崔恒 墓와 神道碑

□ 소재지 : 퇴촌면 도마리 산11(지도29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崔恒(1409-1474)은 世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朔寧, 자는 貞夫, 호는 太虛亭 또는 梁이며 영의정에 추증된 士梁의 아들이다. 부인은 達川府院君 徐彌性的의 따님으로 文忠公 徐居正(1420-1488)의 누이이다. 1434년(세종16) 문과에 급제하고 집현전에 들어가 부수찬과 응교를 지냈으며 직제학에 올랐다. 1453년(단종1) 癸酉靖難에 공을 세워 靖難功臣 1등이 되고 도승지를 제수받았다. 이후 이조참판과 좌찬성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寧城府院君에 봉해졌다. 대학자로 조선초기의 문물제도 정비에 많은 공을 세웠으며, 각종 도서의 편찬 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시호는 文靖이다.

윗도마치에서 소로를 타고 무수리 방향으로 진행하면 우측으로 최항의 재실인 景慕齋가 나타난다. 묘소는 경모재 좌측의 구릉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은 2단 階砌石 구조로 조성되어 있으며 옛 문인석 1쌍과 최근에 새로 마련한 상석, 향로석, 장명등의 석물을



사진 331. 최항 신도비

갖추고 있다. 문인석(높이 211cm)은 세조대에서 성종대로 넘어가는 양식상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봉분 우측에 마련된 방부하엽 양식의 묘표(총높이 148cm)는 一枚의 화강암을 다듬어 세운 것이며,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앞면에는 피장자의 신분을 당시 유행하던 松雪體로 유려하게 써 내려 갔고 뒷면에는 '歲在成化10年甲午(1474, 성종5)孟秋望日樹標'라는 내용을 刻字하였다. 양식이 단정하고 조각 솜씨가 우수하여 당대를 대표할 만한 묘표로 평가된다. 봉분 좌측에는 1938년에 새로 만든 묘비가 서 있다.

묘역 아래, 최항의 사당(文靖公崔恒之廟) 좌측에는

방부하엽 양식의 구신도비(총높이 약202cm)가 세워져 있다. 방부는 땅에 거의 묻혀 있고 하엽의 봉우리는 망실되었으며 비신(높이 161cm, 폭 91.5cm, 두께 24.5cm)은 절단되었던 것을 접합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신도비 전체가 겹게 산화되었고 비문의 마모가 극심하여 판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비신 상단의 '文靖公墓碑'라는 전액만이 간신히 읽혀지는데, 『大東金石畵』에 의하면 처남인 徐居正이 비문을 撰하고 成任(1421-1484)이 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중기까지 신도비의 명칭을 '묘비'와 '신도비' 둘 다 사용하여, 碑題를 '신도비'라 쓰고도 전액은 '묘비'라 올린 경우가 여러 신도비에서 확인되고 있다. 成宗代에 조성된 중요한 신도비로 판단된다. 1938년에 다시 건립한 방부 개석 양식의 신도비는 묘역 앞의 308번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데, 서거정의 비문을 16대손 炳直이 그대로 書并篆하여 조성한 것이다.

묘소의 우측 구릉에는 형조참의를 지낸 맏아들 永潯의 묘소가 있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비 고 : 경기도기념물 제 33호

▶ 참고문헌 : 『大東金石畵』, 아세아문화사

『京畿金石大觀』1, 1982, 경기도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재대관』 -도지정편-, 1998, 경기도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698. 文靖公崔恒之廟

□ 소재지 : 퇴촌면 도마리 197-8(지도29 참조)

□ 시 대 : 현대

□ 종 류 : 사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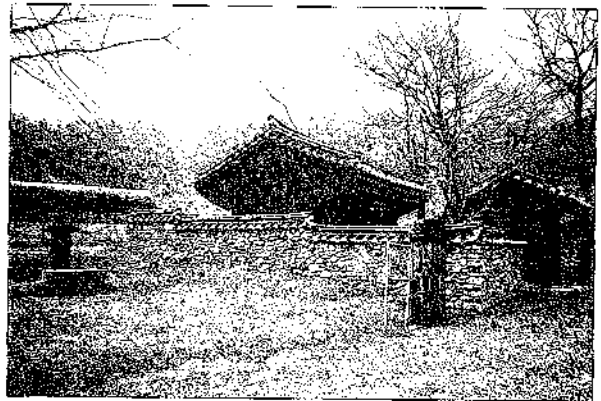


사진 332. 문정공최항지묘 전경

□ 내 용

문정공영모재 앞으로 난 소로를 따라 우측으로 약 50m 정도 올라가면 崔恒(1409-1474)의 廟가 나타난다. 정면 2칸의 맞배지붕에 단청을 장식한 아담한 건물로 1985년에 개보수하였다. 처마 밑에는 '文靖公崔恒之廟'라 새긴 현판을 걸어 두었으며, 담장 옆에는 최근 발굴한 최항의 구신도비와 通訓大夫崔秀英塋碑를 세워 놓았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廣州鄉土史料集』1, 1997, 광주문화원

699. 文靖公永慕齋



사진 333. 문정공영모재 전경

□ 소재지 : 퇴촌면 도마리 195

□ 시 대 : 현대

□ 종 류 : 사묘

□ 내 용

도마리에서 무수리로 가는 소로의 우측편에 위치하는 文靖公 崔恒(1409~1474)의 재실이다. 최항은 본관이 朔寧으로 世祖代에 영의정을 역임한 인물이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처마 밑에 '文靖公永慕齋'라는 현판을 걸어 두었으며 재실 주위로 빨간 벽돌 담장을 둘렀다. 현판의 附記에 '歲丁未仲秋'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1967년을 전후한 시기에 건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700~706. 道馬里 陶窯址 1~7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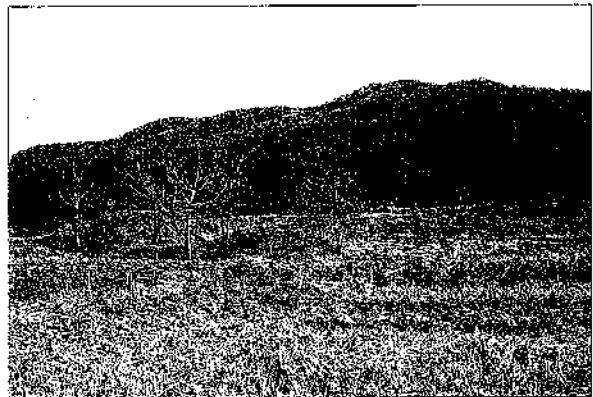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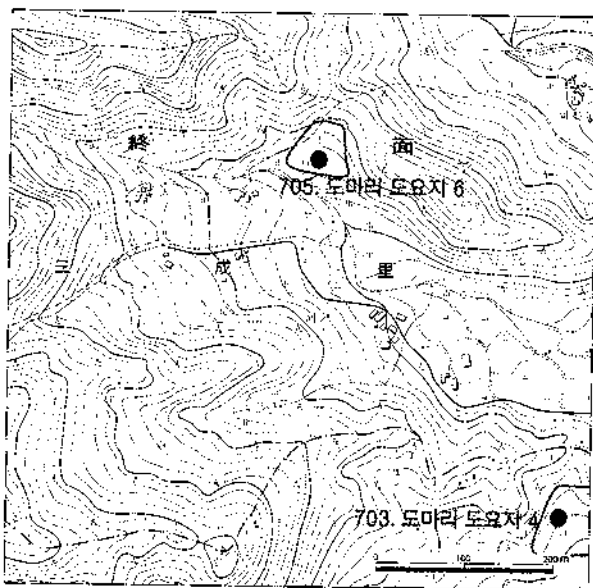


사진 334. 도마리 도요지 전경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굽/발침/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16세기	●(삼강·청화)백자/발, 대접, 접시, 전접시, 잔, 함, 뚜껑, 향아리, 병, 장군, 반, 향로/설향, 회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天, 地, 玄, 黃, 숫자음각명문/중국(청화·철화)백자 ●(상감)청자/향로, 돈, 화분, 화분받침/연록, 회록색/모래받침 ●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원반형받침, 삼족받침	윗도마치 (250-14, 251-3)	田·林	광주 191-3	○	1964-1966년 국립박물관 발굴
2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향아리, 병/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순흥 안씨비 (16-1)	田	광주 191-3	○	
3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회백색/죽절굽/태토비집	추정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4호	15-16세기	●(상감)백자/대접, 접시, 향아리/회백색/죽절굽/태토비집 ●요도구/뚜껑모양받침, 원반형받침	판발굴 (70)	田	광주 191-3	○	
5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도마치 (38-1)	田	광주 191-3	×	
6호	15-16세기	●(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연록, 회록색/죽절굽/태토비집, 모래받침 ●백자/접시, 대접, 병/회백색/죽절,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집, 모래받침 ●요도구/갑발, 갑발뚜껑, 도침, 원반형받침	괴기 (32)	林	광주 191-3	×	
7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담청, 회백색/죽절굽/태토비집 ●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윗도마치 (16-1)	林	광주 191-3	○	



지도 115. 도마리 도요지 위치도(이천 011)

707. 道馬里 遺物散布址



사진 335. 도마리 유물산포지 전경

- 소재지 : 퇴촌면 도마리 113전 일대(지도114 참조)
- 시 대 : 구석기시대 · 조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산포지는 도마리 2호 가마터가 있는 지점으로 산자락 밑에 조성된 묘역주변과 그일대의 밭에 소재하고 있다. 유물은 주먹도끼와 자기 류 그리고 벼루 편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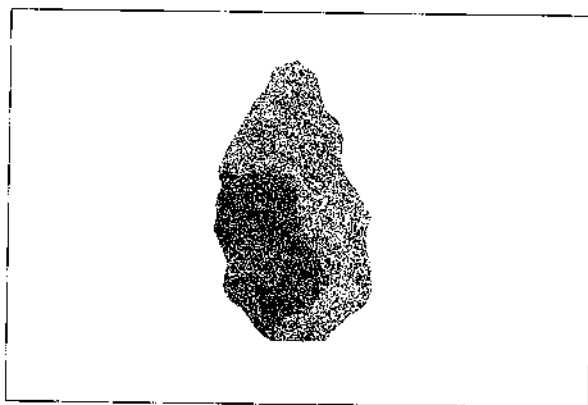


사진 336. 도마리 유물산포지 채집 주먹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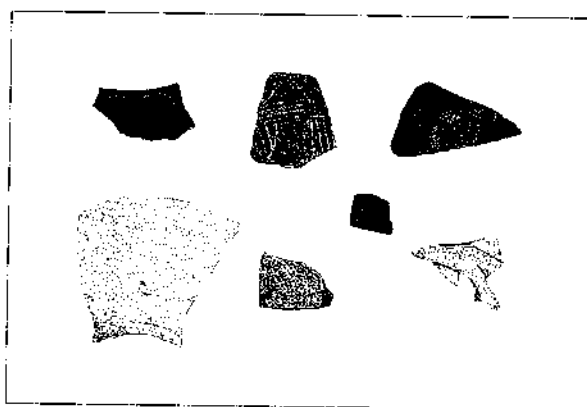


사진 337. 도마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수습되었다. 이 일대는 묘역을 조성하는 과정 중에 가까운 곳에서 흙이 이주된 것으로 파악되어 갱신세층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전에 도요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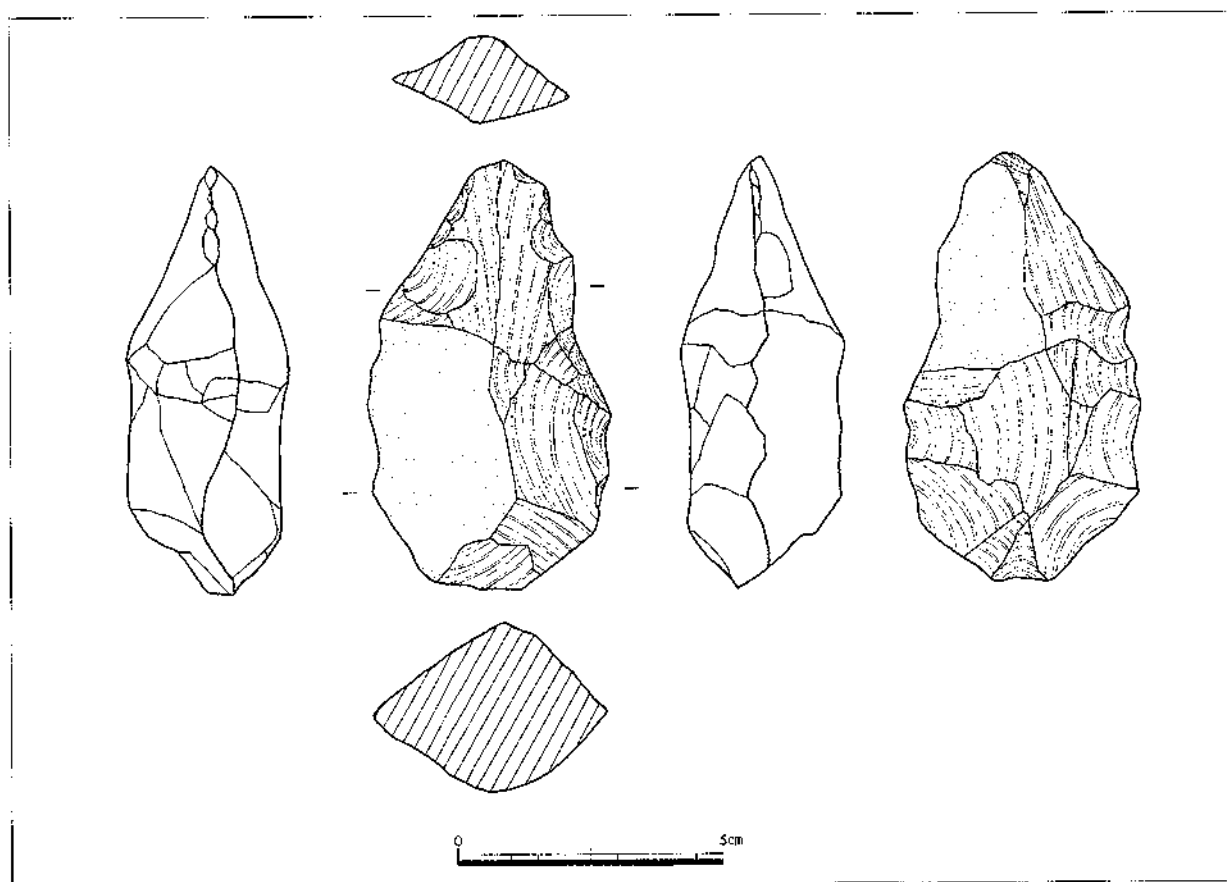
(2) 채집 유물

① 주먹도끼(사진 336, 도면 55)

암질은 규암으로 몸돌로 만든 주먹도끼이다. 등면은 1/3, 배면은 1/4 정도의 자연면이 남아 있으며, 석기의 전체를 돌려가며 떼기가 이루어 졌다. 석기의 끝은 삼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좌·우측 면으로 떼기를 베풀어 날을 형성하였다. 날의 형태는 乙자를 띠고 있다. 크기는 16.6×9.2×5.5cm, 무게는 830g이다.

② 회청색경질토기편(사진 337, 도면 56-①)

평외반된 구연부에, 구순을 아주 정연하게 깎아내었



도면 55. 도마리 유물산포지 채집 주먹도끼

다. 문양은 없으며, 전면에 조밀한 물레흔이 남아있고 그위로 물손질로 정면한 모습이 보인다. 정선된 점토질에 일부 석립질이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높이 3.8cm 추정 굽지름 13.0cm

③ 청자저부편(사진 337, 도면 56-②)

굽은 낮게 처리되어 접지면이 약간 돌려있고 안쪽은 일정하게 깎여 선이 나있다. 문양은 없으며, 녹색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높이 2.3cm 추정 굽지름 5.0cm

④ 청자병편(사진 337, 도면 56-③)

병의 경부 부위로 보인다. 외벽에는 가로·세로로 선상감이 되어 있으며, 담청색유를 시유하였으나 내면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잔존길이 6.8cm 두께 1.3cm

⑤ 분청사기접시편(사진 337, 도면 56-④)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편으로 굽은 매우 낮게 처리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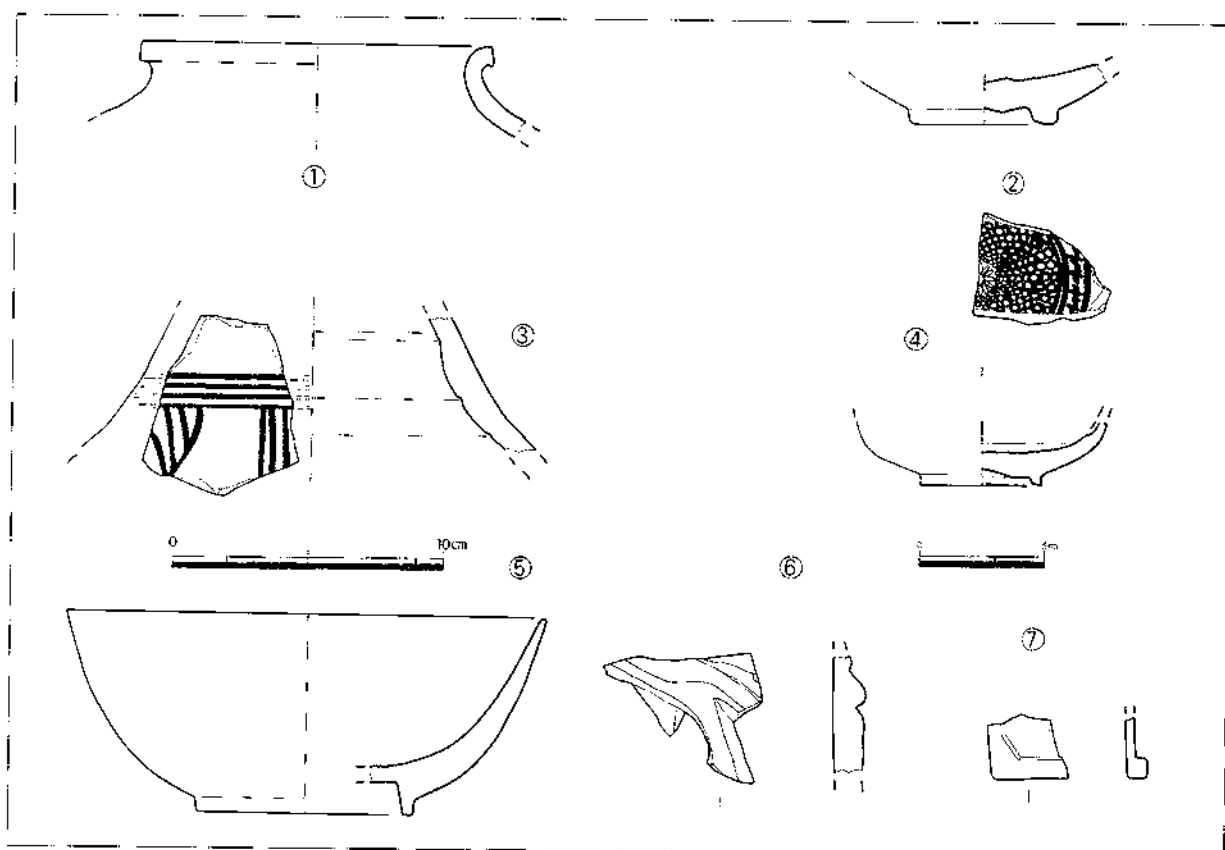
었다. 내면에는 정중앙에 국화문을 그주위로 우점문대 그리고 선문을 인화·시문하였다. 외벽에도 문양이 시문된 것으로 보이나 파손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암녹색유를 굽안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였다. 높이 2.4cm 추정 굽지름 4.6cm

⑥ 백자대접편(사진 337, 도면 56-⑤)

구연은 동체부에서 완만하게 오르다가 살짝 외반되어 있다. 굽은 수직굽으로 접지면은 얇게 처리되어 모래받침흔이 남아있다. 문양은 없으며, 설백색유약을 전면에 시유하여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높이 7.0cm 추정 구연지름 18.0cm 굽지름 8.0cm

⑦ 백자투각장식편(사진 337, 도면 56-⑥)

파손이 심한편으로 어떤 문양인지는 알수가 없다. 다만 단면 방향의 줄을 여러개 이어서 만든 모습이다. 회백색 투명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도면 56. 도마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잔존길이 4.8cm 두께 1.1cm

⑧ 버루편(사진 337, 도면 56-⑦)

평면이 방형인 버루에 모서리편으로 너비 0.7cm의 연시가 돌려져 있다. 연지부분의 두께가 아주 얇게 처리되었으며, 먹을 갈았던 흔적이 일부 보인다. 뒷면은 일부 파손되었다. 잔존길이 3.5cm 두께 0.7cm

▶ 지도번호 : 광주 191-3



사진 338. 도마리 느티나무 전경

708. 道馬里 느티나무

- 소재지 : 퇴촌면 도마리 전221-1(지도29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보호수)
- 내 용

윗도마치 마을내에 위치한다. 수령 550년의 느티나무로 나무키 24m, 나무둘레 5.7m에 이르며 수간에 직경 0.5m의 동공이 있다. 옛날, 마을 우물에 사람이 빠져 죽어 우물을 흙으로 메웠는데 거기서 지금의 느티나무가 자라났다는 전설이 전한다. 1983년 3월 10일 도 나무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 10월 외과수술을 받았다.

- ▶ 지도번호 : 광주 191-3
- ▶ 지정번호 : 경기광주 77
- ▶ 참고문헌 : 『광주군지』, 1990, 광주군

709. 沈友勝 墓와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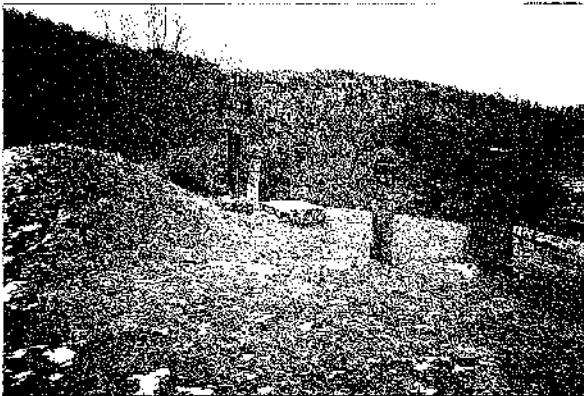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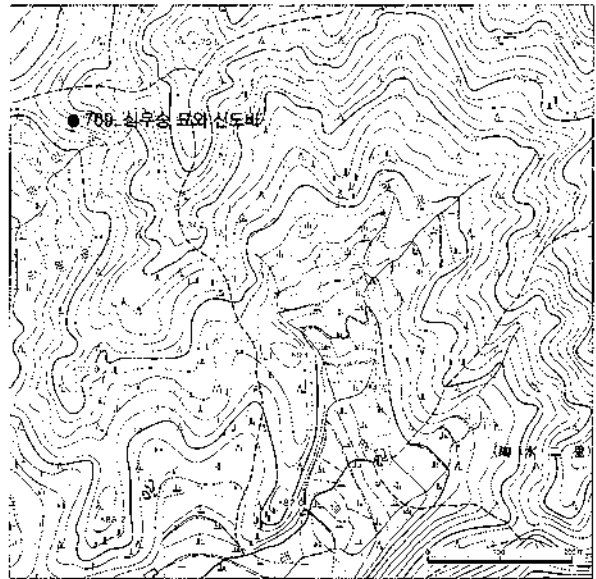


사진 339. 심우승 묘 전경



사진 340. 심우승 신도비

- 소재지 : 퇴촌면 도수2리 산70-3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지도 116. 심우승 묘와 신도비 위치도(이천 014)

沈友勝(1551-1602)은 肅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靑松, 자는 士進, 호는 晩沙이며 관찰사 銓(1520-1589)의 아들이자 현령을 지낸 安容의 사위이다. 1580년 문과에 급제하고 성균관에 보직되었으며, 임진왜란 발발 다음해인 1593년(선조26) 陳奏使의 書狀官으로 明에 구원을 요청하러 다녀왔다. 이후 승지를 거쳐 호조참판을 역임하였으며 경기도관찰사에 이르렀다. 사후 昭顯功臣 2등에 책훈되고 靑溪府院君에 봉해졌다.

광주중학교 우측으로 난 소로를 따라 올라가면 해협산의 서쪽 산자락에 자리잡은 심우승 묘소가 나타난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높이 187cm)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으며 봉분 앞에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73.5cm)가 세워져 있다. 산화되어 검게 변한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140.5cm, 폭 63cm, 두께 16cm) 앞면에는 '有明朝鮮 贈議政府領議政靑溪府院君行嘉義大夫京畿觀察使沈公諱友勝之 墓 貞敬夫人順興安氏 附左'라 되어 있고 뒷면에는 '萬曆壬寅葬後乙未碑誌碣具'라는 기사가 각자되어 있어 만력 임인년(1602, 선조35)에 장사 지내고 을미년(1655, 효종6)에 신도비, 묘지, 묘표를 갖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묘소 아래에는 신도비(총높이 약 233cm)가 건립되어 있다. 방부와 개석은 산화되어 검게 변색되어 있고,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160cm, 폭 67cm, 두께 20.5cm) 하단에는 이끼가 끼 있으나 비문의 판독에는 어려움이 없다. 전액을 '贈領議政沈公神道碑銘'이라 하여 신도비임을 밝혔으며 비문은 副提學 李啟求(1589-1670)가撰하고 孫 光洙(1598-1662)가書하였으며 左參贊 金光煜(1580-1656)이篆을 올렸다. 입석 연대는 '崇禎後乙未(1655, 효종6)立'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靑松沈氏世譜』, 1843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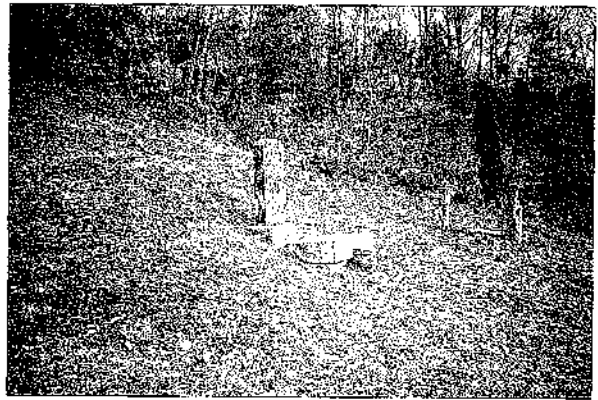


사진 341. 심액 묘 전경



사진 342. 심액 신도비

710. 沈 諮 墓와 神道碑

□ 소재지 : 퇴촌면 도수2리 산70-3임

□ 시 대 :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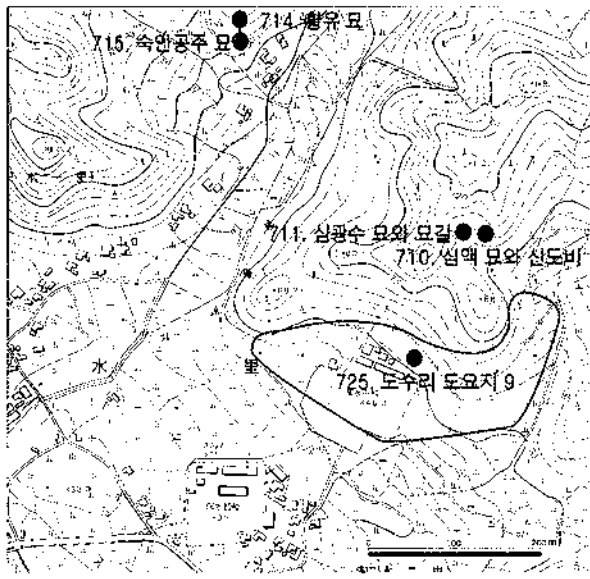
□ 종 류 : 묘

□ 내 용

沈諮(1571-1655)은 孝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靑松, 자는 重卿, 호는 鶴溪이며 참판 友勝의 아들로 友俊에게 입양되었다. 1596년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검열을 제수받고 설서와 정언을 지냈다. 이후 도승지와 대사헌을 거쳐 이조판서에 이르렀으며 靑松君에 봉해졌다. 1652년(효종3) 판의금부사로 耆老所에 들어갔으며 시호는 懿憲이다.

묘소는 심우승 묘소의 좌측 구릉에 아들 光洙의 묘소와 좌우로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묘역은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좌측 봉분이 아들 광수와 며느리 안동권씨의 것이고, 우측 봉분이 액과 부인 안동권씨의

것이다. 봉분마다 상석과 향로석을 따로 설치하고, 묘역의 좌우에는 망주석 1쌍과 문인석(높이 150cm) 1쌍을 배치하였다. 즉 두 명의 墓主가 망주석과 문인석을 함께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의 묘제는 극히 드물어 조선시대 묘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심액 봉분의 우측에는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91cm)를 세워 놓았다.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154cm, 폭 68cm, 두께 23cm) 전면에는 '輔國崇祿大夫行吏曹判書靑松君懿憲沈公之墓 貞敬夫人安東權氏 附左'라고 큰 해서체로 썼으며 뒷면에는 '皇明崇禎後庚子立碑誌既具'라 刻字하여 승정 경자년(1660, 현종1)에 묘표를 세우고 신도비와 墓誌는 이미 갖췄음을 알



지도 117. 심액 묘와 신도비 위치도(이천 013)

수 있다.

신도비(총높이 약 260cm)는 묘소 아래에 건립되어 있다. 방부와 개석은 산화되어 검게 변색되었으며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177cm, 폭 84.5cm, 두께 25cm) 앞면 또한 변색이 진행중이다. 비신의 앞뒤면에 비문을 새겼는데, 뒷면의 보존 상태는 완벽하다. 비문은 原任 左參贊 趙綱(1586-1669)이 撰하고 淳昌郡守 李山資(1603-?)가 書하였으며 外孫 吏曹參判 吳挺一(1610-1670)이 篆을 올렸다. 전액을 '行吏曹判書青松君懿憲沈公神道碑銘'이라 하여 신도비임을 밝히고 '丁酉(1657, 효종8)秋立'에 입석하였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靑松沈氏世譜』, 1843

『權域書畫徵』, 1928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711. 沈光洙 墓와 墓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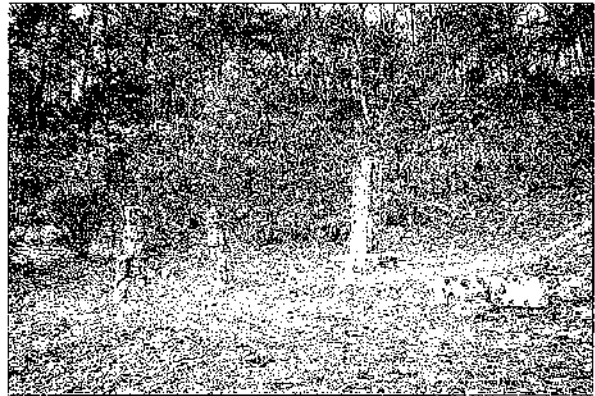


사진 343. 심광수 묘와 묘갈 전경

□ 소재지 : 퇴촌면 도수2리 산70-3임(지도117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沈光洙(1598-1662)는 孝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靑松, 자는 希聖, 호는 魯淵이며 이조판서를 지낸 諡의 아들이고 進思齋 李命俊(1572-1630)의 門人이다. 1635년(인조13) 鳳林大君의 師傅를 지냈으며, 병자호란 때에는 주화론자인 崔鳴吉의 처형을 주장하였다. 胡亂이 끝난 뒤 春川으로 낙향하였다. 南人의 山林으로 조정에서 누차 불렸으나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 예학에 밝아 효종에 대한 慈懿大妃의 복상 문제를 결정하는 논의에서 宋時烈과 宋浚吉의 주장에 반대하여 宗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3년설을 주장하였다. 사후 이조참판을 증직받았으며 靑安君에 봉해졌다.

묘소는 아버지 액 묘소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분 좌측에 방부원수 양식의 묘갈(총높이 214cm)이 세워져 있다. 비신(높이 184cm, 폭 72.5cm, 두께 26cm)의 앞뒤면에는 이끼가 많이 끼 있어 비문을 읽기에 불편하며, 전면에 큰 글씨로 피장자의 신분을 표시하고 후면에 묘갈문을 각자하였다. 碣題를 '有明朝鮮 贈嘉善大夫吏曹參判…靑安君行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沈公墓碣銘并序'라 하여 묘갈임을 알 수 있다.

묘갈문은 右議政 許穆(1595-1682)이 撰하고 右承旨 丁昌燕가 書하였으며 건립연대는 '崇禎後戊午(1678, 숙종4)立'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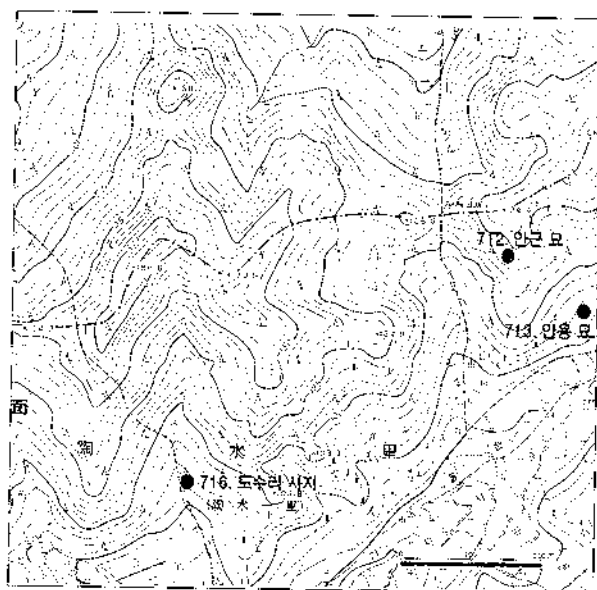
▶ 참고문헌 : 『靑松沈氏世譜』, 1843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712. 安槿 墓



사진 344. 안근 묘 전경



지도 118. 안근 묘 위치도(미천 003)

□ 소재지 : 퇴촌면 도수1리 산72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安槿의 본관은 順興이며 晦軒 安珣(1243-1306) 선생의 7대손이다. 무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軍器寺副正을 역임하였다.

국사봉(206m) 구릉이 동쪽으로 뻗어 형성한 지사골의 북쪽 산자락에 순흥안씨 부정공파의 세장지가 있는데, 안근 묘소는 세장지 서쪽 구릉의 중턱에 南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묘역은 上下墳으로 꾸며져 있으며 상석과 문인석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다. 문인석(높이 182cm)은 박락이 심하고 이끼가 많이 끼 있으나, 신체 비례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 양식상 15세기 후반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봉분 좌측에는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가 건립되어 있다. 후손에 의하면 본 묘표는 1970년대에 새로 조성한 것으로, 오석의 비신 전면에 '通訓大夫行軍器寺副正安公諱근之墓 淑人安東金氏之墓居上'이라 써 놓았으며 음기와 건립연대는 없다.

지사골 순흥안씨 세장지는 入鄉祖인 안근의 묘소를 비롯하여 약 500여년 동안 72정보의 땅에 대대로 묘소를 써 온 대규모 세장 묘역이다. 안근 묘소의 주변에는 아들인 生員 善武, 主簿를 지낸 손자 應元(1504-1552), 宗簿寺正를 지낸 증손 寬(1530-1567), 同知 中樞府事를 역임한 현손 上誠의 묘소를 비롯한 수십기의 순흥안씨 묘소가 산재해 있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順興安氏參判公派譜』,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713. 安容 墓



사진 345. 안용 묘 전경

- 소재지 : 퇴촌면 도수1리 산 72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安容(1524-1577)은 宣祖代의 인물로 본관은 順興이고 자는 伯優이다. 尙衣院主簿를 역임한 應元의 아들이며 관찰사를 지낸 沈友勝의 장인이다. 처음에 洗馬를 제수 받고 관직에 나아간 뒤, 여러 벼슬을 거쳐 龍安縣監에 이르렀다.

묘소는 안근 묘소의 우측 구릉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앞으로 구티고개로 향하는 소로가 뚫어져 있다. 묘역은 최근 새롭게 단장하여 원형이 변형된 상태이며 혼유석, 상석, 향로석, 문인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다. 문인석(높이 178cm)은 선조대에 조성된 것으로 이끼가 많이 끼 있으나, 금관조복을 입은 모습이 매우 단정하고 後綴의 문양이 화려하다. 쌍분의 중앙에 세워진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36cm)는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110cm, 폭 48.5cm, 두께 18.5cm) 전면에 큰 해서체로 '朝奉大夫行龍安縣監安公之墓 令人平昌李氏之墓'라 썼다. 陰記를 사둔인 沈銓(1520-1589)이 識하였으나 글씨와 입석 연대는 마모가 극심하여 확인할 수 없다.

도수 2리의 청송심씨 세장지는 順興安氏들이 안용의 사위인 심우승에게 묘자리를 내어주면서 비롯된 것

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順興安氏參判公派譜』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714. 黃裕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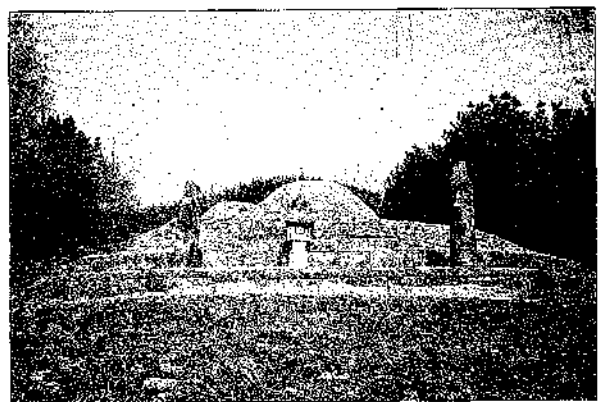


사진 346. 황유 묘 전경



사진 347. 황유 묘 문인석 얼굴 부분

- 소재지 : 퇴촌면 도수리 산75(지도117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黃裕(1362-1440)는 世宗代의 인물로 본관은 懷德, 자는 魯直이며 知中樞院事를 지낸 惠懿公 子厚(1362-1440)의 아들이다. 태종의 왕녀 淑安翁主와 혼인하여 正憲大夫 懷川尉에 봉해졌다.

도수초등학교에서 지사골로 들어가는 소로를 따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재실(慕先齋)이 나타난다. 묘소는 재실 뒤편의 산자락에 南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장명등(높이 126cm), 문인석(높이 200cm)의 옛 석물을 구비하고 있으며 봉분에는 호석을 둘렀다. 봉분 앞에 세워 놓은 방부하엽 양식의 묘표(총 높이 146cm)는 '景泰元年庚午(1450, 세종32)년에 입석한 것으로 그 전면에는 '正憲大夫懷川尉謚良悼公黃裕之墓'라 썼다. 또한 뒷면에도 음기가 새겨져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다. 묘역의 구조와 석물이 세종대에 조성된 것으로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조선초기 묘제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묘소 바로 위에는 어머니 漢陽郡夫人 淸州韓氏의 묘소가 위치한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懷德黃氏大同譜』, 1994, 回想社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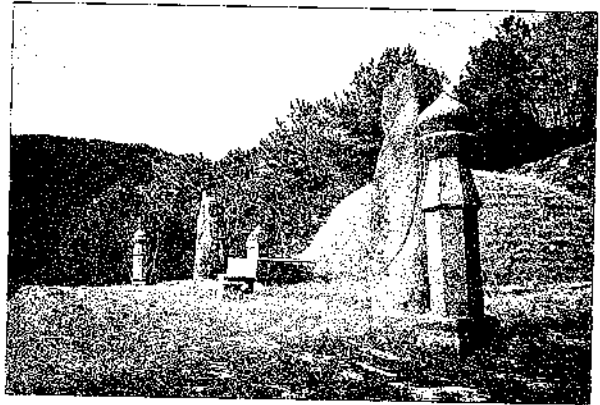


사진 348. 숙안공주 묘 전경

1440)와 혼인하였다. 족보에 의하면 원래 묘소는 楊州郡 廣津의 黃谷에 있었으나 실전되었다가, 戊寅년 봄에 후손 奎顯이 다시 찾아 묘역의 定界를 정하였으며 己酉년(1969) 7월에 현재의 장소로 이장하였다.

묘소는 회천위 묘소 아래에 위치한다. 근래에 묘역을 새로 단장하면서 석물을 다시 갖추었다. 옛 석물중 남아 있는 것은 문인석(높이 202cm) 1쌍 뿐인데, 비만한 몸집에 큰 얼굴을 투박하게 조각하였다. 봉분 좌측에는 방부하엽 양식의 묘표(높이 111cm)가 전립되어 있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懷德黃氏大同譜』, 1994, 回想社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715. 淑安公主 墓

□ 소재지 : 퇴촌면 도수리 산75(지도117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淑安翁主는 태종의 王女로 懷川尉 黃裕(1362-

716. 陶水里 寺址

□ 소재지 : 퇴촌면 도수리 70(지도118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사지

□ 내 용

중부고속도로로 내려오다가 광주 인터체인지에서 국도 45번쪽으로 들어와 다시 오른쪽으로 국도 308번을 따라가면 도수리의 수동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도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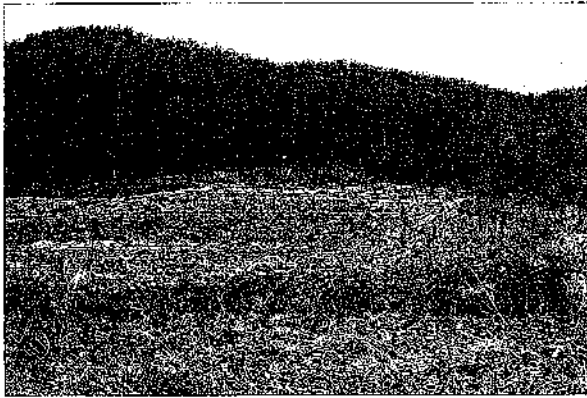


사진 349. 도수리 사지 전경

마을회관 뒷편으로 큰 소나무 한그루가 있고 그 위로 順興安氏 묘역을 따라 올라가면 절터에 이르게 된다. 지금은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곳곳에 석축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잡초와 눈이 덮여 있어서 그런지 기와편이나 자기편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절에 관해서는 전해오는 기록이 없어서 절의 이름이나 연혁 등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마을사람들에 의하면, 원래 이곳에 불상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으며 이 때문에 '부처울'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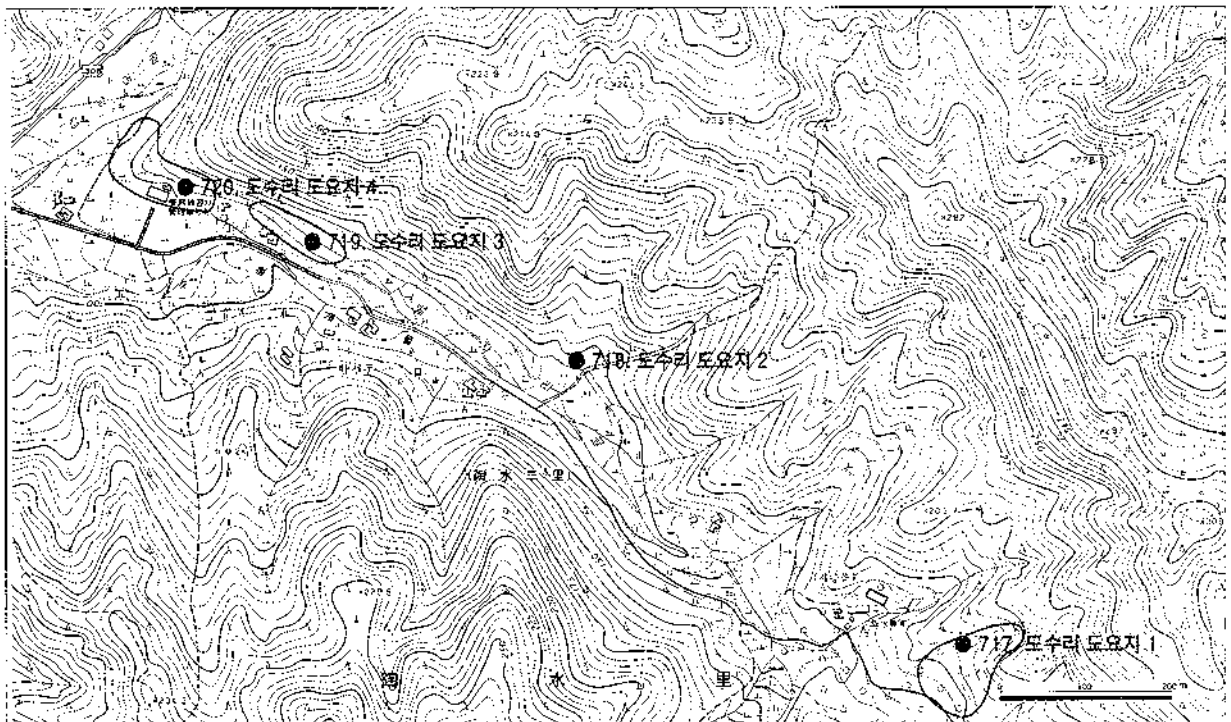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경기문화유적지도』Ⅱ, 1999, 경기도 박물관

717~725. 陶水里 陶窯址 1~9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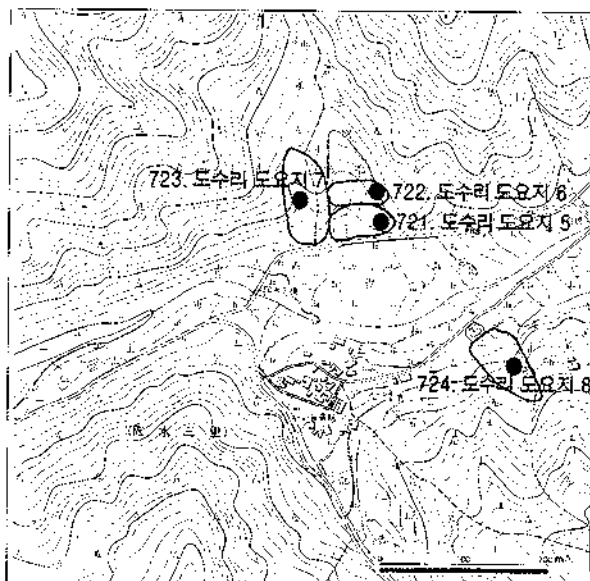


사진 350. 도수리 도요지 1호 전경



지도 119. 도수리 도요지 위치도 1(이천 015)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굽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회백색/죽절, 오목굽/태토비집, 굽은 모래받침	도수농원 (11)	III	광주 191-3	×	
2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회백, 설백색/죽절, 도립삼각형 굽/태토비집, 모래받침	추정		광주 191-3	×	1986년의 조사내용임
3호	15세기	●(상감)분청사기/대접, 병/회청색●백자/대접, 접시, 잔/회백색/태토비집	연습림 (82-1)	林	광주 191-3	○	
4호	15-16세기	●(상감·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회청, 연록색/죽절굽형/태토비집, 모래받침●백자/대접, 접시, 잔, 뚜껑/회백, 설백색/죽절,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집, 모래받침●요도구/감발, 감발뚜껑, 도침, 원반형받침	연습림 (85, 11, 83, 82-2, 82-4, 82-6)	林	광주 191-3	○	
5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회백, 단청색/죽절굽/태토비집	연습림 124-1, 127	林	광주 191-3	○	
6호	15-16세기	●(상감·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암록, 회청색/죽절굽형/태토비집, 굽은모래받침●백자/대접, 잔, 접시/회백, 연회색/죽절굽/태토비집	사기장골 (25)	III	광주 191-3	×	
7호	15-16세기	●(청화·청화)백자/대접, 접시, 잔, 향아리, 제기, 묘지/회백, 설백색/죽절굽, 도립삼각형, 안굽/태토비집, 모래받침	사기장골 (1-1)	林	광주 191-3	×	
8호	16세기	●(철화)백자/대접, 접시, 잔, 향아리/회백, 연회색/오목, 도립삼각형굽/모래받침	산백골 (38-4)	林	광주 191-3	×	
9호	15-16세기	●(인화)분청사기/대접, 접시/회청색/죽절굽형/굽은모래받침●백자/대접, 접시, 병, 향아리/회백, 설백, 연회색/죽절, 도립삼각형, 오목굽/태토비집, 모래받침	도수중교 (588)	堡地	광주 191-3	×	



지도 120. 도수리 도요지 위치도2(이천 014)

726. 申欽 墓와 神道碑

- 소재지 : 퇴촌면 영동리 산12-1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申欽(1566-1628)은 仁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平山, 자는 敬叔, 호는 象村 또는 玄翁으로 開城府都事를 지낸 承緒의 아들이고 淸江 李濟臣(1536-1584)의 사위이다. 또한 맏아들 翊聖(1588-1644)이 선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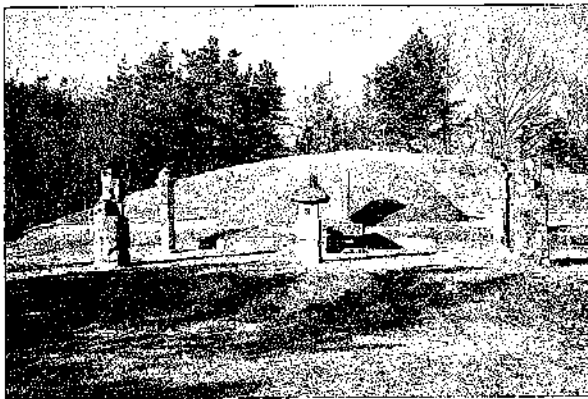


사진 351. 신흥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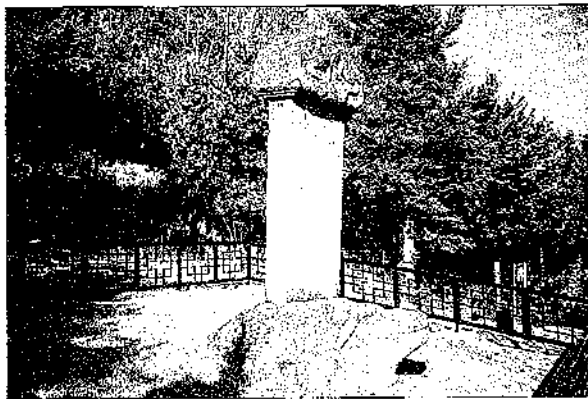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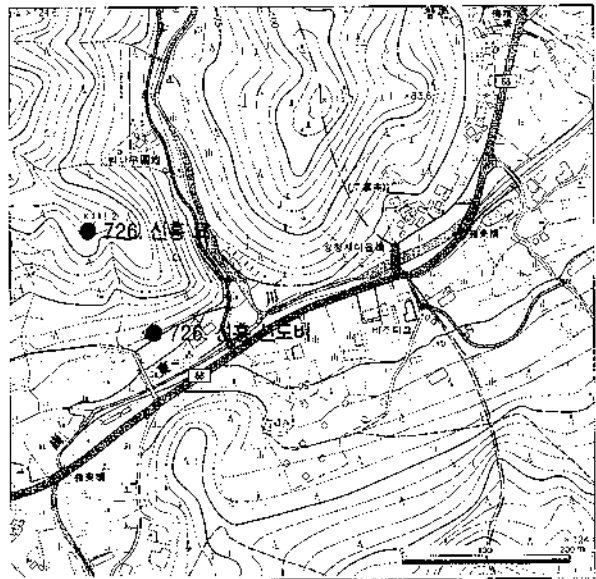


사진 352. 신흥 신도비

왕녀 貞淑翁主와 혼인하여 선조와는 사돈지간이 된다. 1586년(선조19)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감찰과 병조좌랑을 지냈으며 임진왜란때에는 도체찰사 鄭澈(1536-1593)의 종사관을 역임하였다. 이후 老西의 중심 인물이 되어 대사간, 도승지, 병조판서를 지내고 대제학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선조가 永昌大君(1606-1614)의 보필을 부탁한 遺教七臣의 한 사람이며 문장에도 능하여 李廷龜(1564-1635), 李植(1584-1647), 張維(1587-1638)와 함께 조선 중기 한문학 4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사후 仁祖廟庭에 配享되었으며 시호는 文貞이다.

양평에서 308번 도로를 타고 퇴촌으로 진행하다가 영동리 거북골에 이르면, 우측으로 신흥신도비가 나타난다. 묘소는 신도비 뒤편 海峽山(531) 줄기의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신도비문에 의하면 초장지는 김포의 선



지도 121. 신흥 묘와 신도비 위치도(이천 006·016)

산이었으며 1674년(숙종 원년) 현재의 장소로 이장하였다고 한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높이 175cm), 장명등(높이 151cm)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봉분 앞에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53cm)를 세워 놓았다. 묘역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고 석물의 양식과 조각 솜씨가 뛰어나 조선시대 묘제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묘표는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128cm, 폭59cm, 두께 17.5cm)과 화강암의 방부로 구성되어 있다. 비신의 앞면에 큰 해서체로 피장자의 신분을 쓰고 뒷면에 음기를 刻字하였다. 음기는 아들 翽璫이 아버지의 自敘와 世系, 官歷를 述并書하고 전액을 '玄翁自叙'라 하였다. 그러나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어렵고 건립연대도 알 수 없다.

묘역 아래에는 귀부이수 양식의 장중한 신도비(총높이 약 369cm)가 건립되어 있다. 龜趺(높이 84cm, 폭 175cm, 두께 235cm)는 거북이 머리를, 이수 앞면에는 雙龍爭珠의 모습을 생동감있게 조각하였으며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201cm, 폭 95cm, 두께 27.5cm)에 비문을 앞뒷면으로 새겼다. 비문은 右議政 李廷龜(1564-1635)가 撰하고 戶曹判書 沈悅(1569-1646)이 書하

였으며 判中樞府事 金尙容(1561-1637)이 篆을 올렸다. 碑題가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 贈諡文貞申公神道碑銘并序'라 되어 있어 신도비임을 알 수 있다. 입석 연대는 뒷면의 마모가 심하여 파악하기 어려우나, 양식상 인조대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비신의 우측에 새겨진 기사(肅廟甲寅移 於廣州退村子坐原今上己卯7代孫應顯京畿都事時運立)에 의하면 숙종 갑인년(1674)에 묘소를 김포에서 현재의 장소로 이장하였고, 금상 기묘년(1699, 숙종 25)에 7대손 應顯이 京畿都事로 있을 때 신도비를 지금의 장소로 옮겨왔음을 알 수 있다.

▶ 지도번호 : 양평 191-4

▶ 비 고 : 경기도기념물 제 145호

▶ 참고문헌 : 『京畿金石大觀』2, 1987, 경기도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재대관-도지정편-』, 1998, 경기도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사진 353. 오리 유물산포지 1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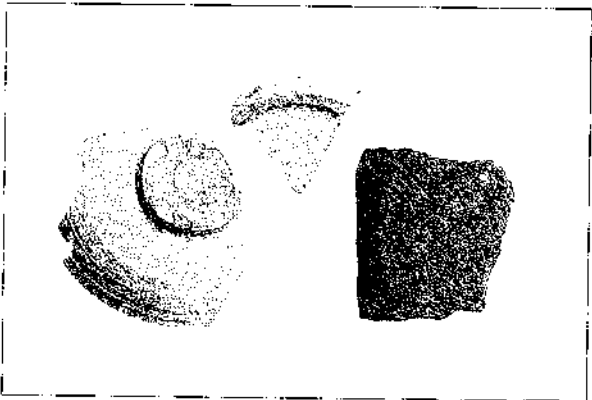


사진 354. 오리 유물산포지1 채집 유물

727. 梧里 遺物散布址1

□ 소재지 : 퇴촌면 오리 235-1전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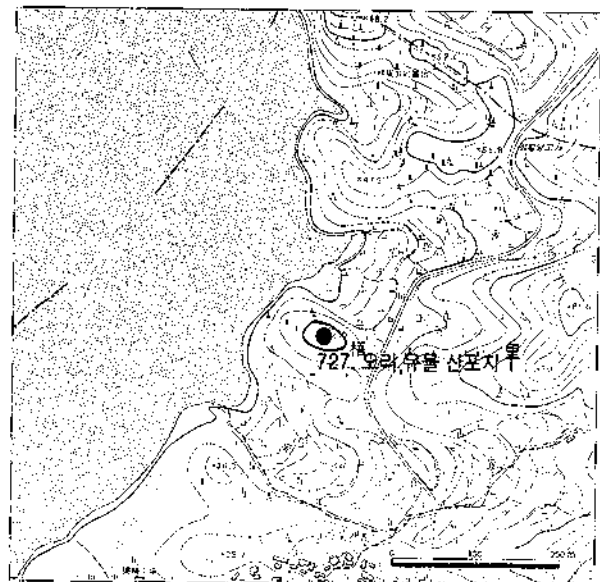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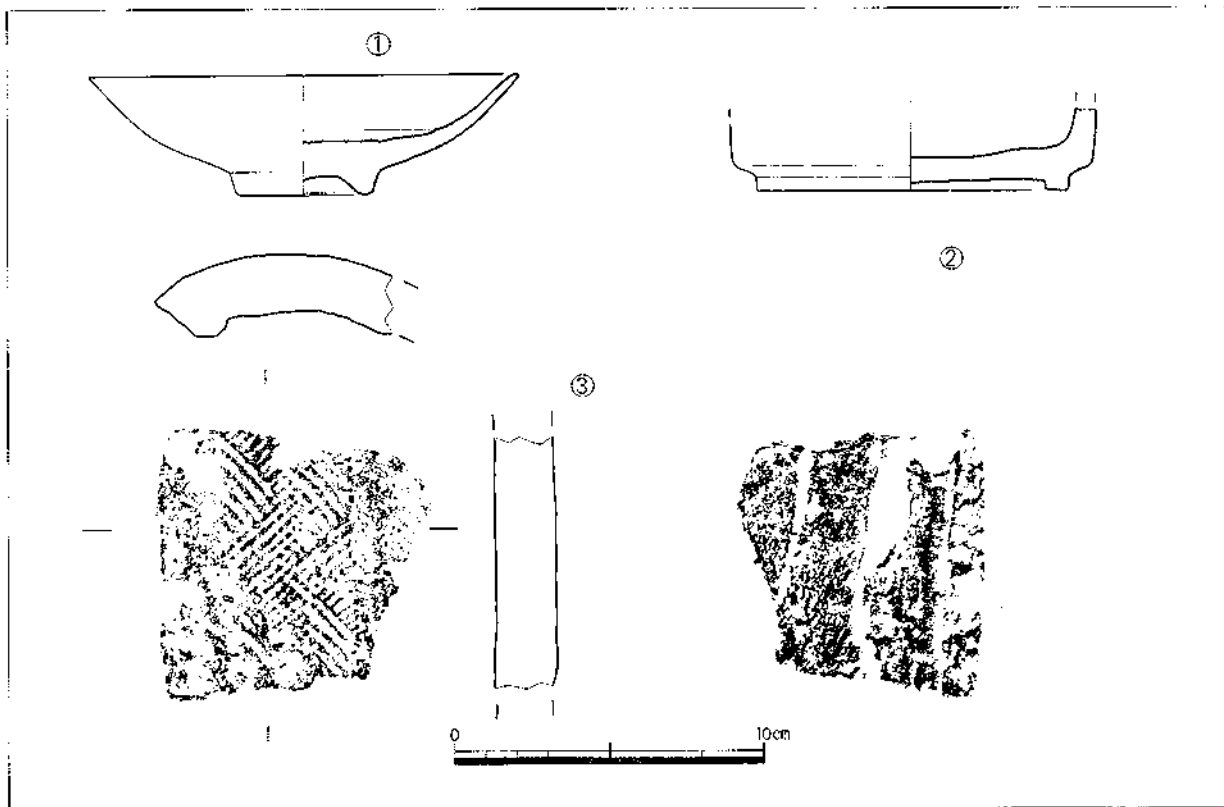
(1) 위치와 현상

퇴촌면에서 남종면 금사리로 들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한강과 인접하여 작은 구릉사면이 있다. 이 언덕을 중심으로 북쪽 골짜기를 도른여골, 남쪽 골짜기를 동산넘어골이라 한다. 현재 이곳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밭기는 보이지 않는다. 도로 옆으로 인접해



지도 122. 오리 유물산포지1 위치도(아천 003)

서 근래에 지어진 건물 한채가 있다. 유물은 강쪽으로 난 농로 주변에서 수습되고 있다. 자기와 기와가 다수



도면 57. 오리 유물산포지 1 채집 유물

수습되었다.

(2) 채집 유물

① 백자발편

구연은 동체에서 바로 이어져 살짝 외반하였으며, 굽은 낮은 수직굽으로 되어있다. 내저에는 원각을 이뤄 그안에 4군데 내화토를 받쳐 포개구웠으며, 특별한 문양은 없다. 담청백색 투명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높이4.4cm 추정구연지름15.2cm 굽지름4.4cm

② 백자편

병류로 보이거나 파손으로 알수가 없다. 굽은 아주 낮고 넓게 처리되었다. 문양은 없으며, 접지면에 모래받침흔이 보인다. 담청백색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높이3.0cm 추정굽지름11.0cm

③ 수키와편

파손이 심한편으로 등면에는 사선을 교차 타날·시문하였다. 측면은 안쪽에서 약3/4정도 자른후 분할하였으

며, 내면은 표면박리로 마포흔이 잘 관찰되지 않는다. 회청색경질에 태토는 아주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길이10.0cm 너비8.8cm 두께2.1cm

▶ 지도번호 : 이천(003)

728. 梧里 遺物散布址2

□ 소재지 : 퇴촌면 오리 40-2답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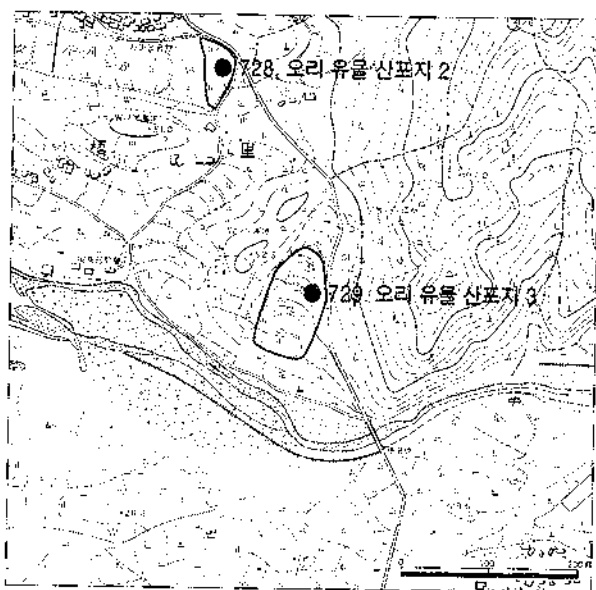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퇴촌면에서 남종면으로 넘어가는 도로 서쪽의 가루개골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일대는 밭으로 개간되고 있으며 약 100평정도의 면적에 자기와 토기편이 분포



지도 123. 오리 유물산포지 2·3 위치도(이천013)



사진 355. 오리 유물산포지 2 전경

한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은 도로의 개설과정에서 파괴된 유구에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백자명기 한점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분묘가 인근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생토층이 드러날정도로 개간되어 있어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채집 유물

① 토기저부편(사진 356, 도면 58-①)

저부와 동체일부만이 남아있는 회청색경질토기편이다. 외면과 내면에 무늬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태토는 잘 정선되어 있다. 호형의 토기로 추정된다. 현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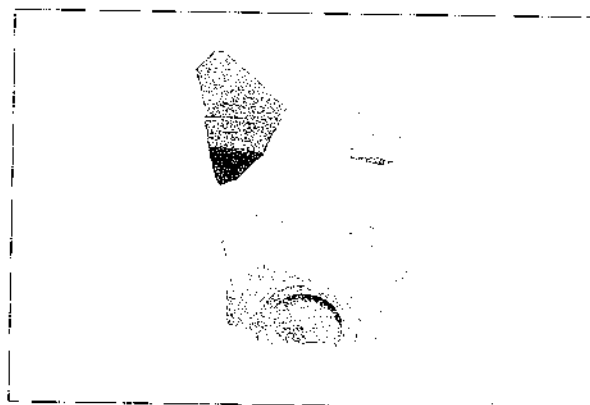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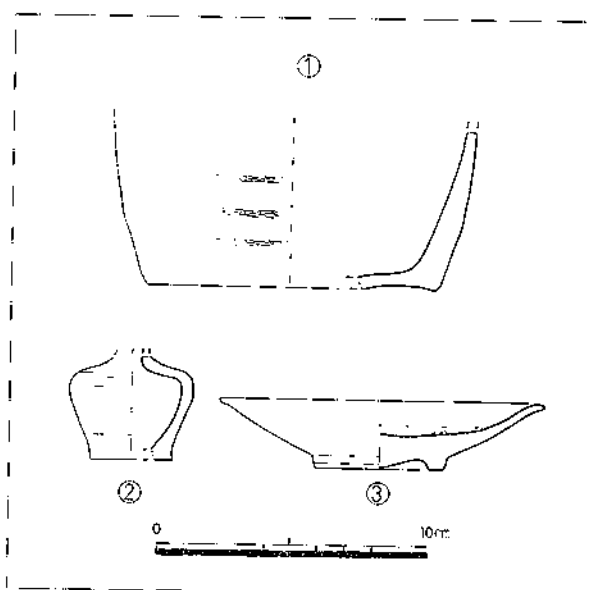


사진 356. 오리 유물산포지 2 채집 유물



도면 58. 오리 유물산포지 2 채집 유물

7.0cm, 추정저부지름 12.0cm이다.

② 백자명기편(사진 356, 도면 58-②)

구연부와 동체부의 1/3가량이 결실된 백자명기이다. 색조는 담청을 머금은 유백색이며 유약의 착색과 발색 모두 양호하다. 어깨부위에 3조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동체 하부에 1조의 횡침선이 있다. 현높이 4.7cm, 추정저부지름 3.4cm이다.

③ 백자접시편(사진 356, 도면 58-③)

구연부와 동체의 1/3가량이 결실된 백자접시이다. 시유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벌구이후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연부는 외반 되었고 내저에 원각과 태토받침흔이 남아 있다. 굽의 형태는 죽절굽이다. 높이

2.9cm, 추정구연지름 13.4cm, 저부지름 5.2cm이다.

729. 梧里 遺物散布址3

- 소재지 : 퇴촌면 오리 73답 일대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상

퇴촌면에서 남중면쪽으로 오리교를 넘어 경안천변에 위치한다. 주변에 최근에 건설된 문화예술관과 보전지소가 위치한다. 오리 유물산포지 2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건설과정에서 파괴된 유적에서 유물이 흘러들어온 것으로 판단되며 유구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채집 유물

① 토기뚜껑편(사진 358, 도면 59-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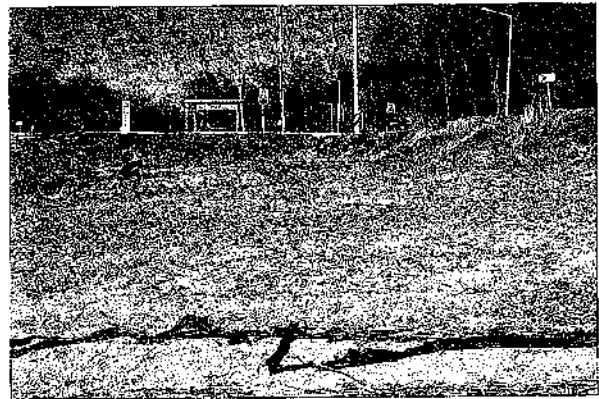


사진 357. 오리 유물산포지 3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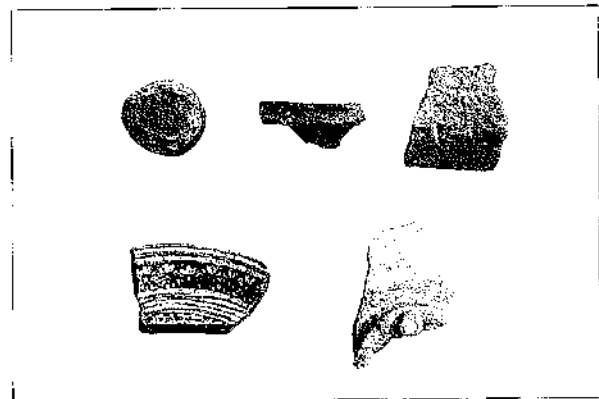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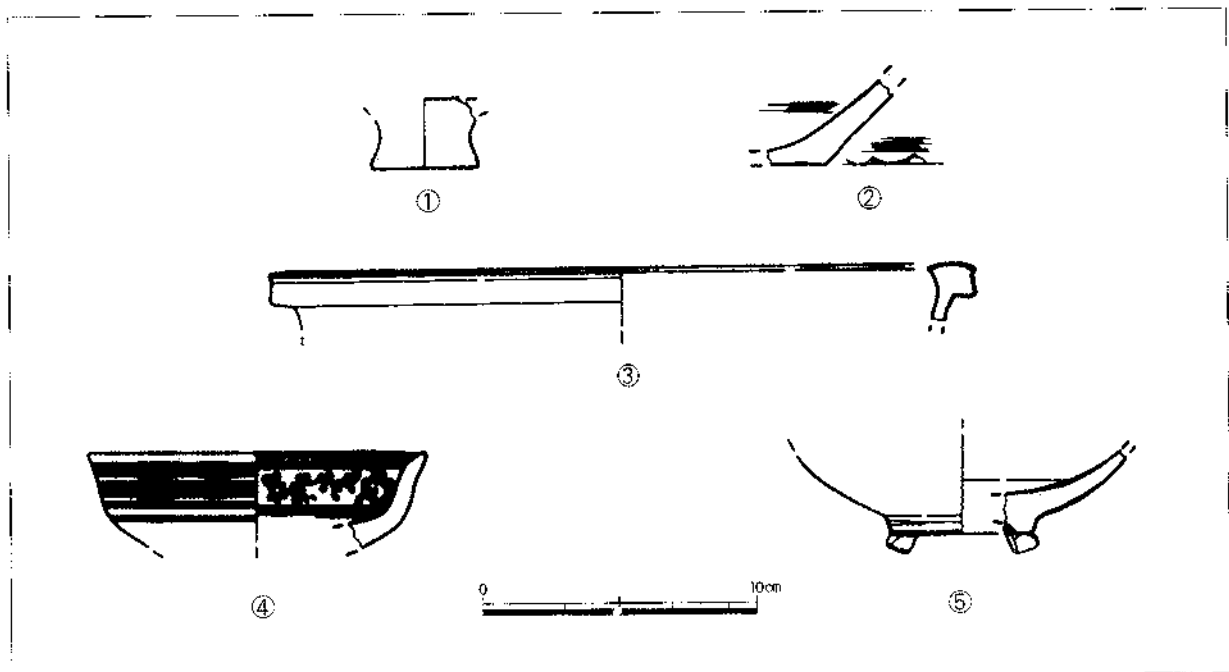


사진 358. 오리 유물산포지3 채집 유물



도면 59. 오리 유물산포지 3 채집 유물

회갈색 연질의 토기뚜껑편으로 꼭지만 남아있다. 외면에 물레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태토는 잘정선된 점토에 고운사립이 일부 섞여있다. 현 높이 2.5cm이다.

② 토기저부편(사진 358, 도면 59-②)

연질의 토기저부편으로 외면은 회백색, 내면은 회흑색을 띠고 있다. 저부와 동체 일부만 남아 있어 기형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기벽에 저부를 따로 제작하여 붙인 흔적이 보인다. 현높이 3.0cm이다.

③ 토기구연부편(사진 358, 도면 59-③)

경질의 토기구연부편으로 색조는 회청색을 띠고 있다. 구연부의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형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호형의 토기로 추정된다. 태토는 잘정선되어 있으며 석립이 일부 섞여 있다. 현높이 2.0cm, 추정구연지름 24.2cm이다.

④ 분청사기편(사진 358, 도면 59-④)

저부는 유실되었고 구연부와 동체의 일부만이 남아 있는 분청사기편이다. 외면에는 선문이 내면에는 선문과 인화문이 시문되었다. 유약의 착색과 발색 모두 양호하다. 현높이 3.1cm, 추정구연지름 11.4cm이다.

⑤ 백자저부편(사진 358, 도면 59-⑤)

동체와 저부의 일부만 남아있는 백자편이다.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으나 완이나 접시류로 추정된다. 색조는 담청백색이며 유약의 착색과 발색 모두 양호하다. 내저원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굽에 태토발침흔적이 남아 있다. 굽의 형태는 죽절굽이다. 현높이 3.6cm, 추정저부지름 4.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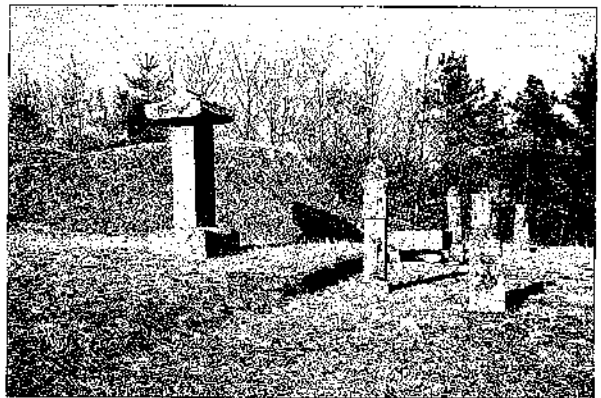


사진 359. 김익훈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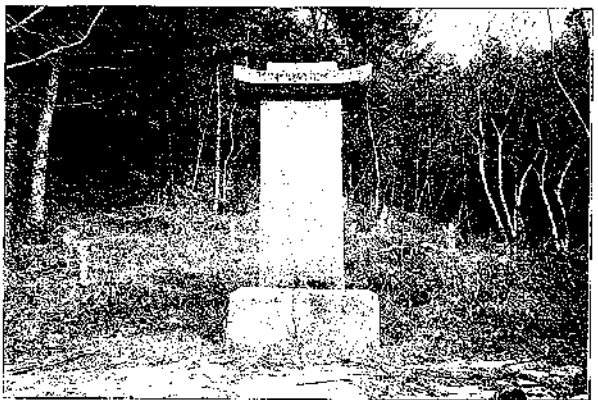


사진 360. 김익훈 신도비

金益勳(1619-1689)은 肅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光山이고 자는 懋叔이다. 대학자 沙溪 金長生(1548-1631)의 손자이며 참판을 지낸 槃(1580-1640)의 아들이다. 인조대에 음직으로 의금부도사가 되었고 현종대에 수원방어사를 거쳐 숙종대에 총융사와 어영대장을 역임하였다. 西人의 맹장으로 1680년(숙종6) 庚申 大黜陟을 일으켜 南人을 몰아내어, 그 공으로 保社功臣에 책훈되고 光南君에 봉해졌다. 그러나 1689년(숙종15) 己丑換局으로 남인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자 평안도 江界로 유배, 투옥되었다가 고문으로 죽었다. 사후에 이조판서로 追贈되었으며 시호는 忠獻이다.

묘소는 윗무술 마을 뒤편의 남쪽 구릉에 자리잡은 광산김씨 세장지내에 위치하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높이 140cm)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봉분 좌측으로 방부개석 양식의

730. 金益勳 墓와 神道碑

- 소재지 : 퇴촌면 무수리 산 4-3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묘표(총높이 약 242cm)를 세워 놓았다. 묘표 음기는 姪孫 鎮圭(1658-1716)가 識하고 孫男 鎮商(1684-1755)이 書하였으며 비신(높이 149cm, 폭 65cm, 두께 32.5cm)의 앞면에는 '有明朝鮮國嘉善大夫刑曹參判兼五衛都總府副總管金公益勳之墓 貞夫人安東金氏附左'라 써 놓았다. 건립연대는 '崇禎甲申後64年丁亥(1707, 숙종33) 月 日'이다. 또한 상석 앞면에도 大隸로 피장자의 신분을 刻字하여 놓았다.

신도비(총높이 약 394cm)는 마을회관 좌측에 건립되어 있다. 건립연대는 '崇禎甲申後72年丙申(1716, 숙종42)8月16日立'이며 당시 유행하던 방부개석 양식을 갖추었다. 전액이 '刑曹參判金公神道碑銘'이라 되어 있어 신도비임을 알 수 있는데, 비문은 判中樞府事 李 命(1658-1722)이 撰하고 從曾孫 全羅道觀察使 普澤(1672-1717)이 전액을 올렸으며 孫男 鎮商이 隸書로 비문을 썼다. 비신(높이 263cm, 폭 105, 두께 34cm)의 四面에 글씨를 새기었으나 마모가 심하여 하단은 거의 알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그래서 1992년 후손들이 원비문을 그대로 再刻하여 새로운 신도비를 마을내에 건립하였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光山金氏良簡公派譜』

『京畿金石大觀』7, 1994, 경기도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731. 金萬塚 墓

□ 소재지 :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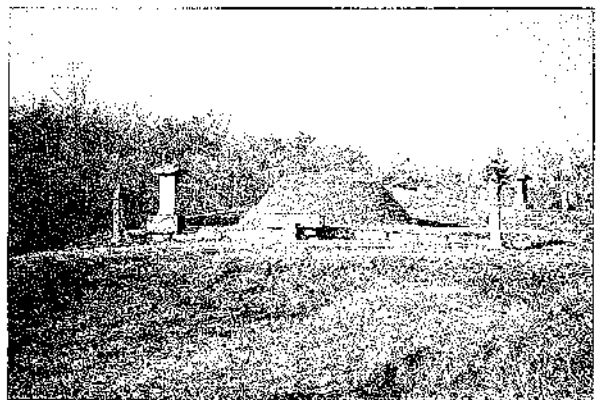


사진 361. 김만채 묘 전경

□ 내 용

金萬塚(1644-1715)는 肅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光山이고 자는 子封이며 忠獻公 益勳의 아들이다. 1666년(현종7) 진사가 되고 1680년(숙종6) 司僕寺主簿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묘소는 김익훈 묘소의 좌측에 위치한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봉분 좌측에 묘표(총높이 약 221cm)를 건립하였다. 방부개석 양식의 묘표 아래에는 地臺石을 마련하여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방부에는 아무런 문양도 새기지 않았으며 艾石의 비신위에 팔각지붕형의 옥개석을 얹었다. 비신(높이 134cm, 폭 58.5cm, 두께 25.5cm)의 전면에는 큰 예서체로 '有明朝鮮嘉善大夫兵曹參判金公萬塚之墓 貞夫人全義李氏附左'라 썼으며 음기는 해서체로 '不肖孤 鎮商(1684-1755)이 泣血謹書하였다. 건립연대는 '崇禎甲申後72年丙申(1716, 숙종 42년) 8月24日'로 刻字되어 있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光山金氏良簡公派譜』

『京畿金石大觀』7, 1994, 경기도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732. 金聖澤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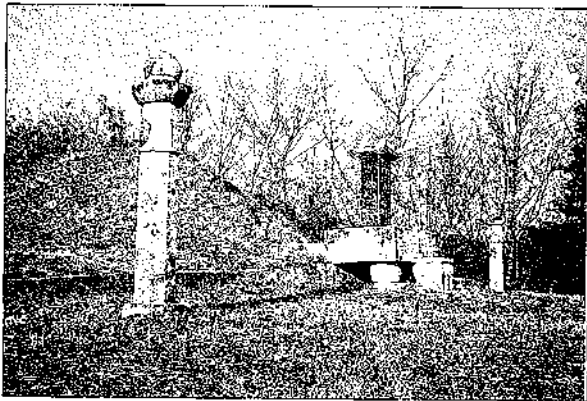


사진 362. 김성택 묘 전경

- 소재지 :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金聖澤(1691-1741)은 조선 肅宗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光山, 자는 時伯이요 호는 梧軒이니 愚軒 鎮恒의 아들이다. 1713년(숙종39)에 生員試에 합격하고 관직에 나아가 禮山縣監을 역임하였으며 사후 이조참판을 추증받았다.

묘소는 김만채 묘소의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고석, 망주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봉분 우측에 방부개석 양식의 묘표(총높이 약 282cm)를 건립하였다. 방부에는 아무런 문양도 새기지 않았고, 烏石의 비신위에 팔작지붕형의 옥개석을 얹었는데 추녀 밑의 창방을 매우 도드라지게 조각하였다. 비신(높이 181cm, 폭 63.5cm, 두께 39.5cm)의 전면에는 큰 예서체로 '有明朝鮮行禮山縣監 贈吏曹參判金公聖澤之墓 贈貞夫人嘉林趙氏附左'라 썼으며 뒷면의 음기는 不肖孫 箕性(1752-1811)이 씀하였다. 건립 연대는 '崇禎3丁卯(1807, 순조7)5月 日立'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光山金氏良簡公派譜』

『京畿金石大觀』7, 1994, 경기도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733. 金相翊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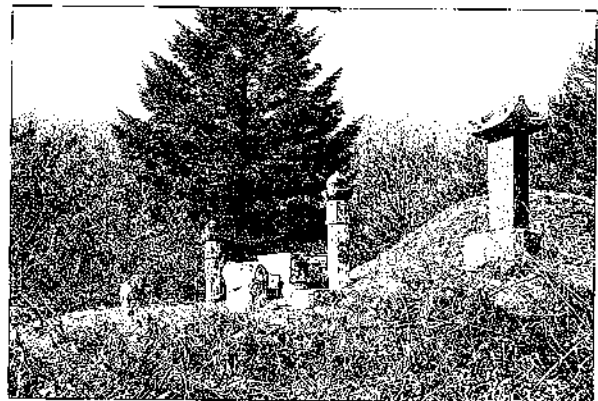


사진 363. 김상익 묘 전경

- 소재지 : 퇴촌면 무수리 산 4-3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金相翊(1721-1781)은 英·正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光山이고 자는 仲佑이며 호는 弦菴이다. 현감 聖澤의 아들로 작은아버지 慶澤에게 입양되었다. 1750년(영조26) 진사가 되고 관직에 나아가 惠陵參奉을 지내고 1759년(영조35)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참의와 부제학을 거쳐 형조참판에 이르렀다.

묘소는 김성택 묘소의 좌측 아래에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羊石(높이 70cm, 폭 42cm, 두께 120cm)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는데, 양식상 모두 정조대 말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상석 앞에는 최근 새로 만든 향로석을 설치하고, 원 향로석은 우측의 양석 뒤에 방치해 놓았다. 봉분 우측에 건립한 방부개석 양식의 묘표(총높이 251.5cm, 폭 57cm, 두께

25.5cm)는 地臺石을 설치하여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또한 비신(높이 141.5cm, 폭 57cm, 두께 25.5cm)은 烏石을 그리고 방부와 개석은 화강암을 사용하였으며, 비신의 앞면에는 큰 해서로 '有明朝鮮嘉善大夫刑曹參判兼同知經筵事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金公相翊之墓 貞夫人 贈貞敬夫人南陽洪氏附左'라 써 놓았다. 음기는 右贊成 宋煥箕(1728-1807)가撰하고 不肖孤 箕性(1752-1811)이 書하였으며, 건립 연대는 '崇禎後3甲子(1804, 순조4) 月 日立'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光山金氏良簡公派譜』

『京畿金石大觀』7, 1994, 경기도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734. 金鎮商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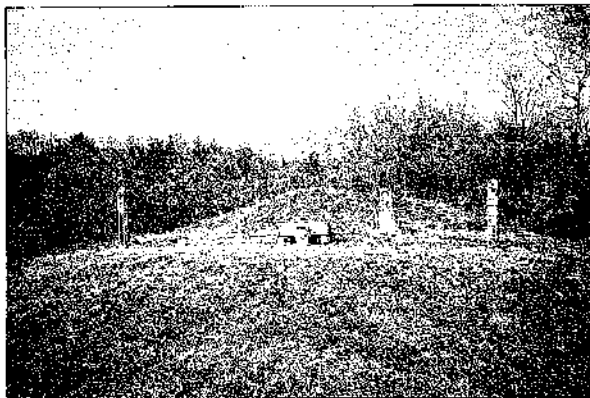


사진 364. 김진상 묘 전경

□ 소재지 :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金鎮商(1684-1755)은 英祖代의 문신이자 서예가로 본관은 光山, 자는 太伯, 호는 退漁이다. 忠獻公

益勳의 손자이자 병조참판틀 지낸 萬琛의 아들이다. 1712년(숙종38) 문과에 급제하고 주서와 지평을 지냈으며 1722년(경종2) 辛壬士禍에 연루되어 함경도 茂山으로 유배되었다가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이조정랑으로 재등용되었다. 이후 부제학, 대사헌을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으며 耆老所에 들어갔다. 글씨에 능하였는데, 특히 篆隸에 뛰어나 많은 비문을 썼다. 작품으로 金益勳神道碑(1716)와 宋奎濂神道碑(1746) 등이 있다.

묘소는 김성택 묘소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봉분 우측에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47.5cm)를 건립하였다. 비신(높이 124.5cm, 폭 55cm, 두께 20cm)은 백대리석을 방부는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음기는 曠典 閔遇洙(1694-1756)가 述하고 東國眞體의 대가인 南陽 洪鳳祚(1680-1760)가 글씨를 썼으며 앞면에는 '有明朝鮮正憲大夫議政府右參贊退漁金公鎮商墓 附貞夫人漢陽趙氏附左'라 하였다. 건립 연대가 없으나 양식상 영조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묘소 아래에는 맏아들 金說澤(1727-1799)의 元配인 淑人 青海李氏(1727-1748)의 묘소가 자리잡고 있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光山金氏良簡公派譜』

735. 金萬塹 墓

□ 소재지 : 퇴촌면 무수리 산21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金萬塹(1648-1669)의 본관은 光山이고 자는 德基이며 忠獻公 益勳의 세째 아들이다. 1666년(현종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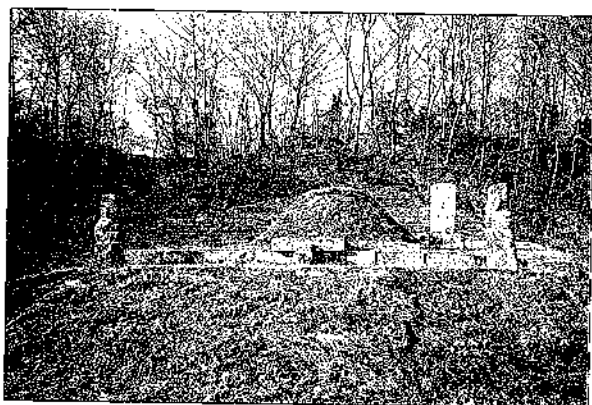


사진 365. 김만선 묘 전경

生員試에 합격하였으나 불과 22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묘소는 김익훈 묘소의 좌측 구릉에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문인석(높이 117cm)의 옛 석물을 갖추었으며 봉분 우측에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37cm)를 건립하였다.艾石으로 만든 비신(높이 100cm, 폭 46cm, 두께 14.5cm)의 앞면에 '有明朝鮮成均生員金君萬璫之墓 孺人趙氏祔左'라 썼다. 음기는 '崇禎甲寅(1674, 현종15)9月 日'에 老先生(김만선의 증조부 金長生)門人 左議政 宋時烈(1607-1689)이 識하고 西部主簿 金 槩(1613-?)가 書하였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光山金氏良簡公派譜』

736. 金令澤 墓

□ 소재지 : 퇴촌면 무수리 산21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金令澤(1699-1766)은 英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光山, 자는 秀閑, 호는 六五堂이며 증이조판서 鎭恒의 아들이다. 부인 平山申氏는 平雲君 聖夏(1665-



사진 366. 김영택 묘 전경

1736)의 따님으로 영의정 申琬(1646-1707)의 손녀이고 文純公 朴世采(1631-1695)의 외손녀이다. 관직은 大興郡守를 지냈으며 사후 司僕寺正을 추증 받았다.

묘소는 김익훈 묘소의 좌측 두 번째 구릉에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방주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봉분 좌측에 방부개석 양식의 묘표(총높이 약 234.5cm)를 건립하였다. 비신(높이 138.5cm, 폭 51.5cm, 두께 26cm)은 烏石을 방부와 개석은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음기는 判敦寧府事 李敏輔(1720-1799)가 撰하고 兵曹判書 洪櫓(1722-1809)이 書하였으며 비신의 앞면에는 '有明朝鮮大興郡守金公諱令澤之墓 配淑人平山申氏祔左'라 써 놓았다. 건립 연대는 '崇禎紀元後3乙丑(1805, 순조5)'이다.

묘소에서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구릉 위에는 仲父 金鎭商(1684-1755)의 繼配인 貞夫人 慶州朴氏(1649-1708)의 묘소가 자리잡고 있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光山金氏良簡公派譜』

737. 金鎭恒 墓

□ 소재지 :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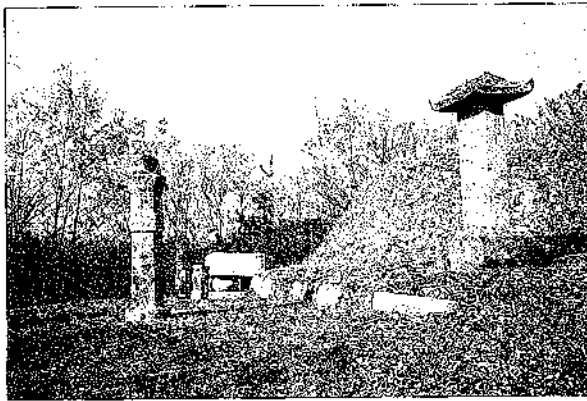


사진 367. 김진항 묘 전경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金鍾恒(1672-1702)은 肅宗代의 인물로 본관은 光山, 자는 汝常, 號는 愚軒이니 참판을 지낸 萬塚의 아들이고 우참찬을 지낸 鍾商의 형이다. 관직에 진출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으나 불과 31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였다. 손자인 相岳이 현달하여 사후 이조판서를 증직받았다.

묘소는 김익훈 묘소의 맞은편 구릉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으며 봉분 좌측에 방부개석 양식의 묘표(총높이 약 219.5cm)를 건립하였다. 묘표 아래에는 地臺石을 설치하여 기초를 튼튼히 하였으며 비신(높이 137.5cm, 폭 56cm, 두께 23cm)은 瓦石, 방부와 개석은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음기는 左議政 李頤命(1658-1722)이 識하고 右參贊 任陞(1640-1724)이 書하였으며 앞면에는 '有明朝鮮光山金公諱鍾恒字汝常之墓 孺人昌寧成氏 附左'라 하였다. 입석 연대는 '崇禎甲申後76年庚子(1720, 숙종46)8月 日立'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光山金氏良簡公派譜』

738. 金相定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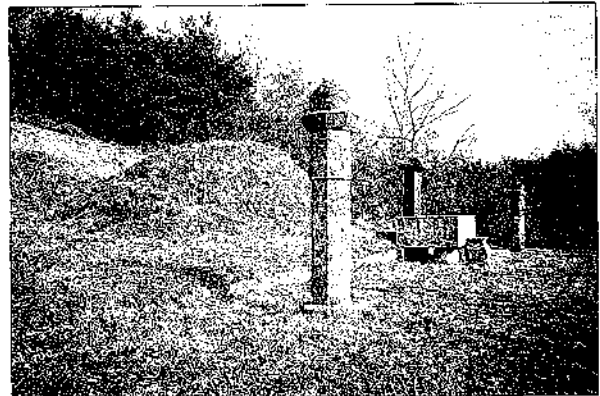


사진 368. 김상정 묘 전경

□ 소재지 :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金相定(1722-1788)은 英·正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光山, 자는 樸五, 호는 石堂이며 군수 令澤의 아들이다. 1771년(영조47) 義城縣令으로써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承旨를 지냈다. 좌의정 金鍾秀(1728-1799)와 절친하였으며 문장에 뛰어나 荷棲 趙璣(1727-1787), 新齋 洪樂命(1722-1784)과 더불어 이름을 크게 떨쳤다. 『遺稿』 6권이 전한다.

묘소는 김진항 묘소의 우측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다. 봉분 우측에는 地臺石 위에 세워진 방부개석 양식의 묘표(총높이 231cm)가 있다. 비신(높이 138cm, 폭 53cm, 두께 28.5cm)은 瓦石을, 방부와 개석은 화강암 석재를 사용하였다. 묘역의 좌우에 배치된 망주석(높이 181cm)은 양식상 정조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비신의 앞면에 '有明朝鮮承旨石堂金公相定之墓 贈淑夫人延安李氏 附左 淑夫人南陽徐氏 附左'라 썼으며, 음기는 友人 淸風 金鍾秀(1728-1799)가 撰하고 婦弟 達城 徐有臣(1735-1800)이 書하였다. 건립연대는 '崇禎紀元後3乙丑(1805, 순조5) 月 日'이다.

호'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光山金氏良簡公派譜』

739. 金相岳 墓와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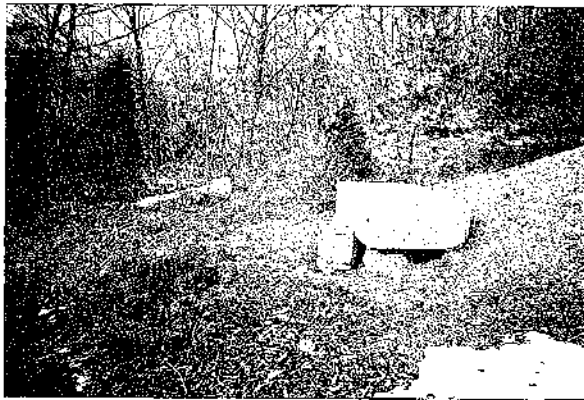


사진 369. 김상악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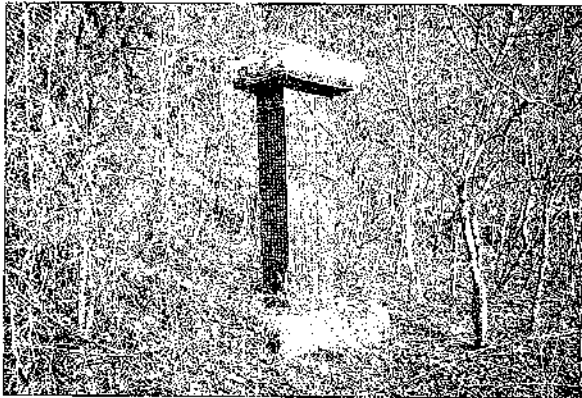


사진 370. 김상악 신도비

- 소재지 :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金相岳(1724-1815)은 純祖代의 문신으로 본관은 光山, 자는 舜咨, 호는 韋菴이니 현감을 지낸 聖澤의 아들이자 참판을 지낸 相翊의 동생이다. 학문을 즐겨 관악산에 들어가 많은 공부를 하였고 근세의 易學을

총망라한 『山天易說』 12권과 시문집 『韋菴詩錄』 3권을 저술하였다. 관직은 홍릉참봉과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으며 사후 50년만(1865, 고종2)에 이조판서를 추증받았다. 시호는 文簡이다.

묘소는 조부 鎮恒의 묘소 좌측 구릉에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의 석물이 갖추어져 있으나 관리소홀로 인해 봉분은 거의 허물어지고 망주석은 쓰러진 채 풀숲에 방치되어 있다. 상석(높이 23.5cm, 폭 108cm, 두께 69cm)의 앞면에 贈吏曹判書諡文簡韋菴先生光山金公諱相岳墓 贈貞夫人海平尹氏附左 玄孫永穆謹書'라는 글을 刻字해 놓아 피장자의 신분을 알 수 있으며, 묘표는 세우지 않았다.

신도비(총높이 약 253cm)는 마을회관 우측에 건립되어 있다. 비신(높이 181cm, 폭 56cm, 두께 33.5cm)은 烏石을, 방부와 개석은 화강암의 석재를 사용하였고 개석의 처마 밑에 連雲紋을 조각하였다. 碑題가 '朝鮮國贈吏曹判書成均館祭酒諡文簡公韋菴金先生神道碑銘并序'라 되어 있어 신도비임을 알 수 있다. 비문은 奉朝賀 尹定鉉(1793-1874)이 撰하고 玄孫 大司成 永穆(1835-1910)이 書하였으며 領敦寧府事 金炳學(1821-1879)이 篆額을 올렸다. 건립 연대는 '聖上15年崇禎紀元後5戊寅(1878, 고종15)7月 日刻'이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光山金氏良簡公派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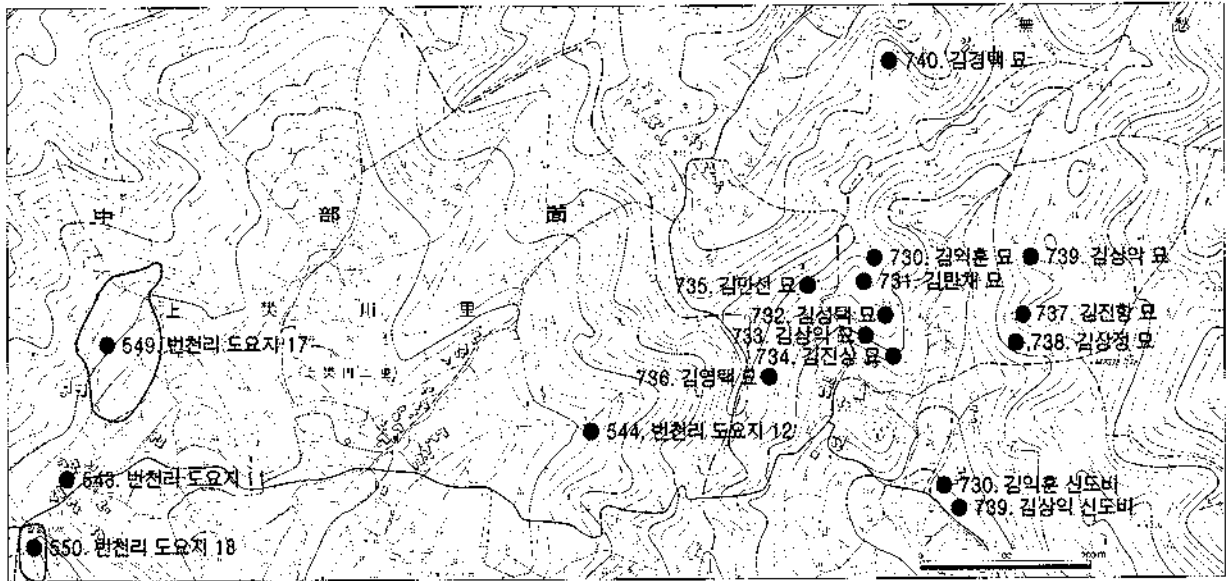
『京畿金石大觀』7, 1994, 경기도

『광주군 문화유적 현황』, 1996, 광주군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740. 金慶澤 墓

- 소재지 : 퇴촌면 무수리 산5임



지도 124. 김경택 묘 위치도(이천 012)



사진 371. 김경택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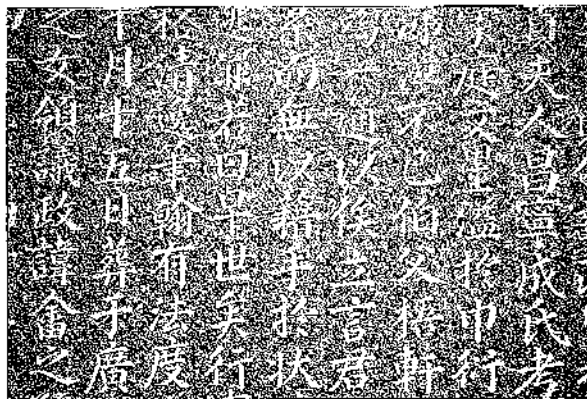


사진 372. 김경택 묘표 음기 부분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金慶澤(1696-1714)은 肅宗代의 인물로 본관은 光山, 자는 善餘이다. 증이조판서 鎮恒의 아들이자 현감 聖澤의 동생이며, 영의정을 지낸 文敬公 李畬(1645-1718)의 손녀사위이다. 어려서부터 품행이 단정하고 충명하였으나 불과 19세의 나이로 요절하여 형 성택의 둘째 아들 相翊을 입양시켜 대를 잇게하였다. 후에 양자인 상익이 귀하게 되어 의정부좌찬성을 추증받았다.

묘소는 작은무술 마을의 동측 구릉 중턱에 北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의 옛 석물을 구비하였고, 봉분 우측에는 순조대에 유행하던 방부개석 양식의 묘표(총높이 약 241cm)를 건립해 놓았다. 방부와 개석은 화강암을, 비신(높이 138cm, 폭 56cm, 두께 32cm)은 烏石을 석재로 사용하였다. 비신의 전면을 '有明朝鮮 贈議政府左贊成金公慶澤之墓'라 큰 예서체로 쓰고, 음기는 子 相翊(1721-1781)의 泣血撰에 不肖孫 箕性(1752-1811)이 씀하였다. 건립 연대는 '崇禎3丁卯(1807, 순조7)5月 日立'이다.

묘소 아래에는 일찍 요절한 姑母 광산김씨(아버지 鎮恒의 누이)의 묘소가 있다. 1706년(숙종32)에 弟

進士 鎭商이 쓴 묘표와 석물이 갖추어져 있으나 판리소홀로 인해 묘표는 도괴되었으며 봉분 위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또한 묘소의 좌측 구릉에는 부인 德水李氏의 묘소가 자리잡고 있는데, 1807년(순조7) 從子 大司諫 相定(1722-1788)이 撰하고 不肖孤 箕性이 쓴 묘표와 석물이 구비되어 있다.

▶ 지도번호 : 광주 191-3

▶ 참고문헌 : 『光山金氏良簡公派譜』



사진 373. 천진암 성현오위 묘 전경

741. 天真庵 聖賢五位 墓

□ 소재지 : 퇴촌면 우산리 500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묘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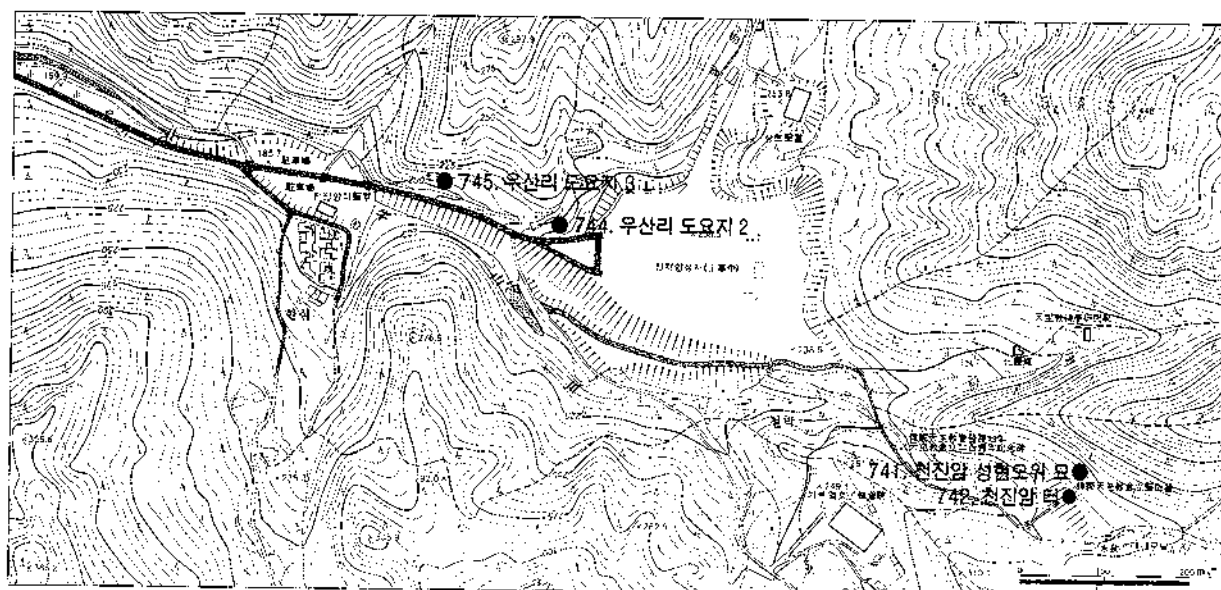
우산리 鶯子峯(666.8m) 자락에는 '100년 계획 한 민족 대성당' 건립 부지가 조성되어 있다. 부지 뒤쪽의 천진암 옛 터에는 천주교 창립 선조인 選菴 丁若鍾(1760-1801), 蔓川 李承薰(1756-1801), 曠菴 李蘊

(1754-1786), 稷菴 權乚身(1742-1791), 鹿菴 權哲身(1736-1801)의 묘소가 있다. 원래 경기도 포천군에 있던 것을 1979년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였다.

각 묘소마다 봉분에 장방형의 호석을 들렀으며, 피장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석을 마련해 놓았다.

▶ 지도번호 : 양평 191-4

▶ 참고문헌 : 『경기문화유적지도』Ⅱ, 2000, 경기도 박물관



지도 125. 천진암 성현오위 묘 위치도(이천 036)

742. 天真庵址

- 소재지 : 退村面 牛山里 500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사찰
- 내 용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광주 인터체인지에서 우회전하여 道馬里와 觀音里를 지나 牛山里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가다 牛山 1교를 지나면 오른쪽으로 강동고교 수련장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1km도 못미친 지점에 천주교 발상지로 성역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천진암의 터에 도달하게 된다. 현재 천진암과 관련된 절터나 유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며 그 주변 일대는 천주교 성지로서 이미 개발되어 까르뻔 수도원이 세워져 있다.

천진암은 언제 창건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다만 이곳에서 공부하던 정약용, 이승훈 등이 1801년 참수되면서 폐사된 듯하나 이 역시 정확한 연대는 아니다. 『輿地圖書』와 『伽藍考』에는 “주 동쪽 40리에 있다”고 그 위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韓國寺刹全書』에서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鷲子山에 있으나 수십년 전에 폐하였다”고 적혀 있다. 또한 『重訂南漢誌』에는 “鷲子山에 있는 古刹로 종이를 만들며 司饗院에 속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천진암은 18세기 중엽경 權哲身을 중심으로 한 南人系 학자들이 講學을 가졌던 곳으로 주로 유교경전과 함께 당시 전래된 漢譯 西學書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면서 점차 천주교와 관련되어 천주교 신앙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천주교가 신앙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진 장소가 과연 천진암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若鏞』 역시 이곳을 자주 방문했던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그의 『輿猶堂全書』에는 천진암과 관련된 서문이 여러 편 전해지고 있으며 그 당시 이미 퇴락한 천진암의 모습을 표현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후 완전히 폐허화되었으나 1962년에 이르러 南相

喆에 의해 그 절터가 확인되었고 1979년-1981년 사이에는 이벽, 정약중,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등 한국 천주교회 초기인물들의 묘소가 이장되면서 천주교의 성지로서 자리잡았다.

▶ 지도번호 : 양평 191-4

▶ 비 고 :

▶ 참고문헌 : 『畿內寺院誌』, 1998, 경기도
權相老 編, 『韓國寺刹全書』 上·下, 1976, 東國大學校出版部
『민족문화대백과사전』 21, 1991, 한국
국정신문화연구원
『京畿道佛蹟資料集』, 1999, 경기도박
물관
『경기문화유적지도』 II, 1999, 경기도
박물관

743~763. 牛山里 陶窯址 1~21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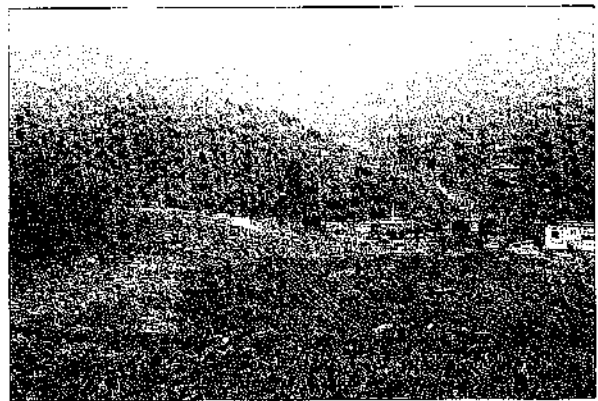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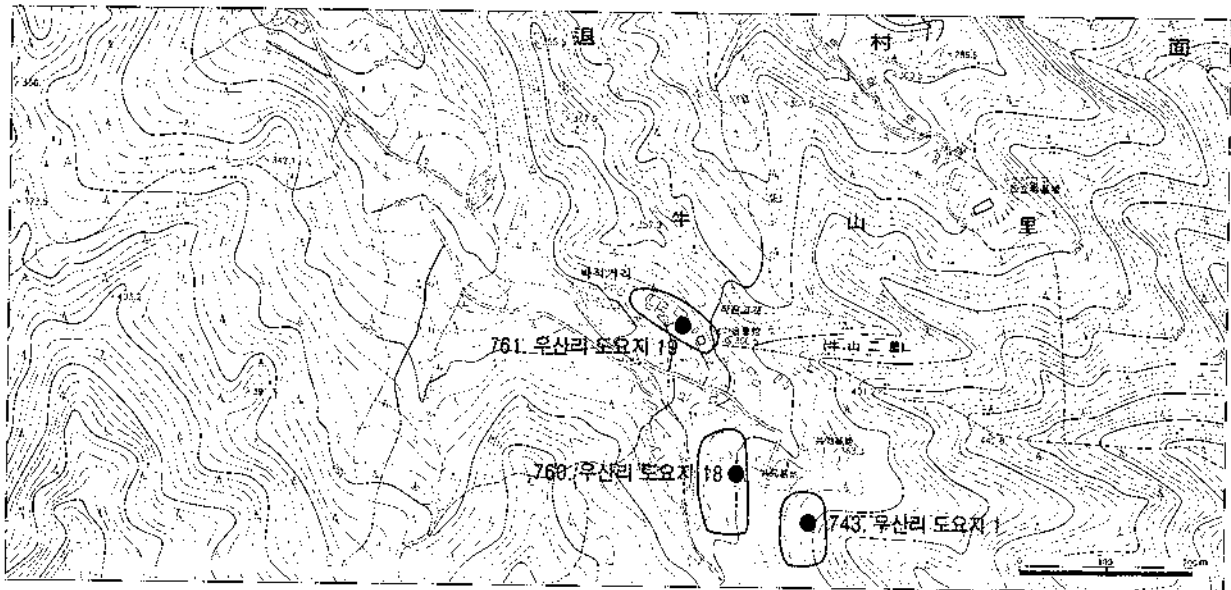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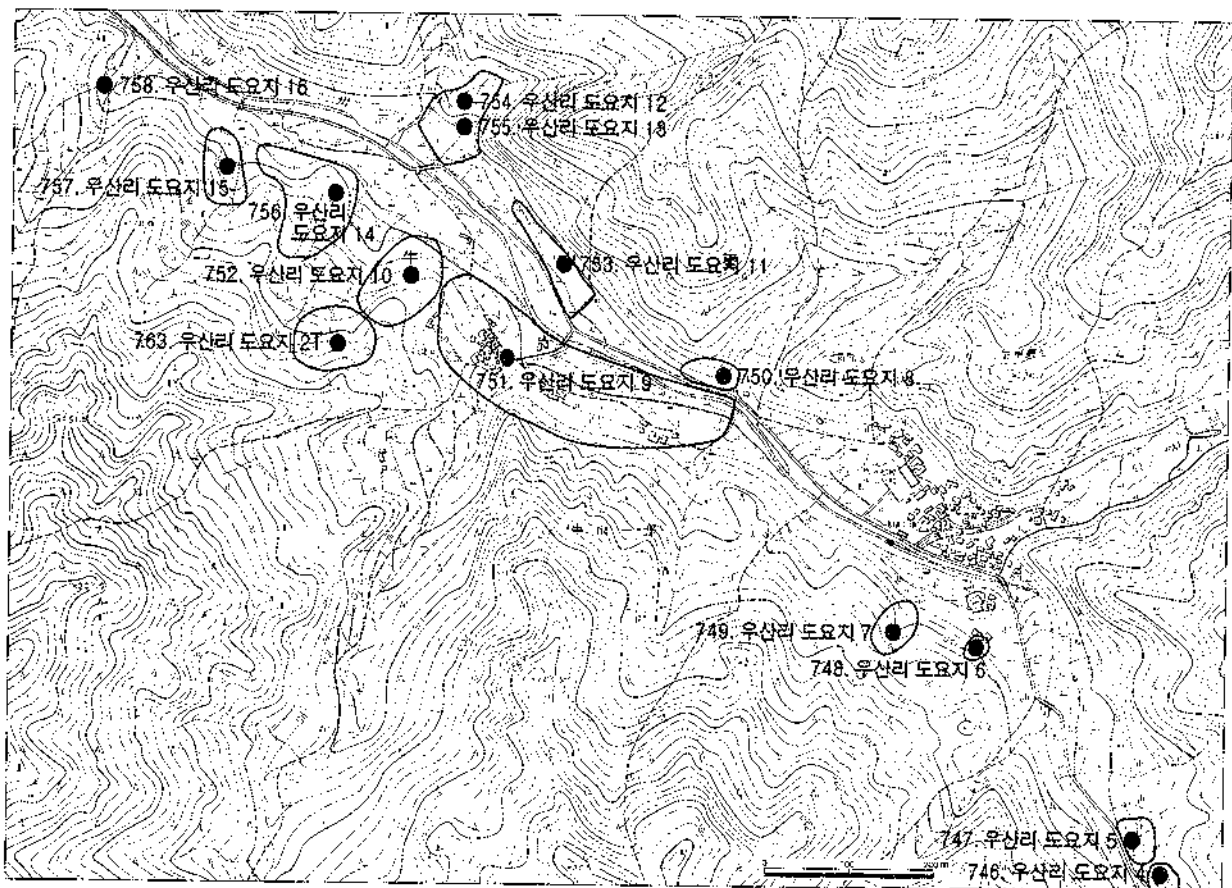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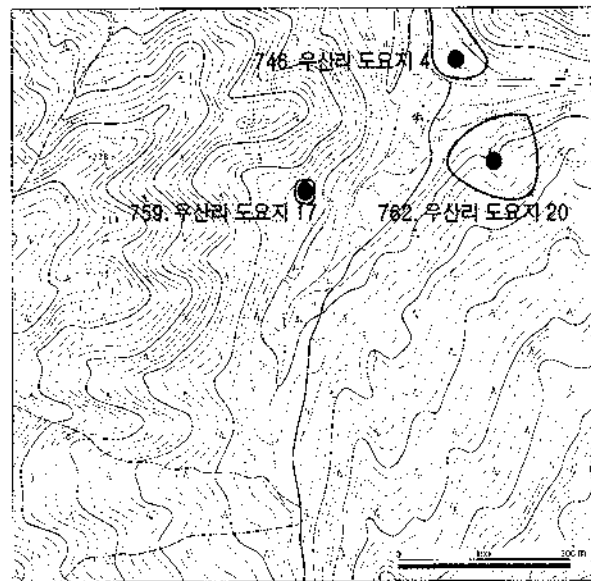
사진 374. 우산리 도요지 전경



지도 126. 우산리 도요지 위치도1(이천 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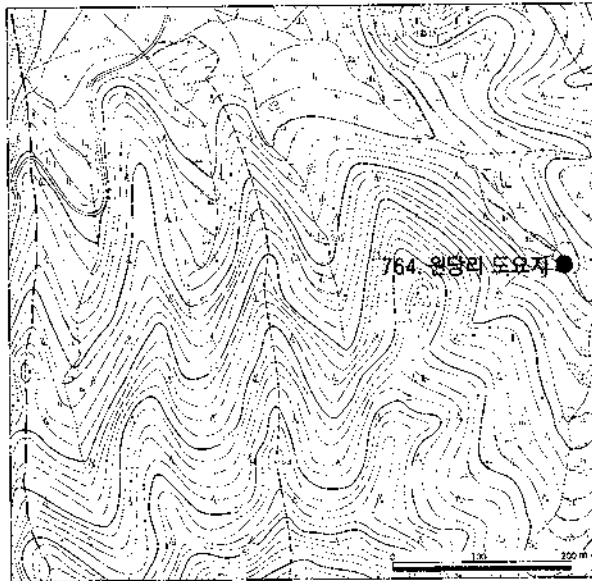
지도 127. 우산리 도요지 위치도2(이천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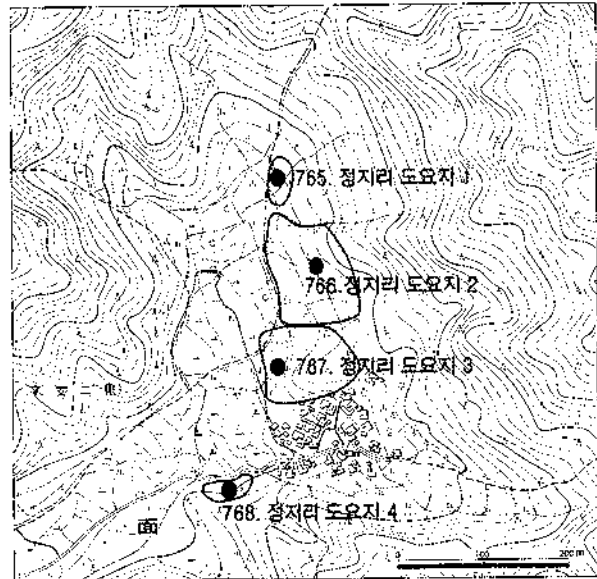
지도 128. 우산리 도요지 위치도3(이천 035)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 / 기종 / 유색 / 굽 / 받침 / 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향아리등/회백, 담청색/죽절,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집, 모래받침 ●요도구/원반형받침	박석거리 (203)	林·墓	양평 191-4	×	
2호	15세기	●(상감)백자/대접, 접시, 잔, 병, 장군/회백, 담청색/죽절굽/태토비집/內川음각명문 ●청자/대접, 접시/암록, 회록색	천진암 (437~439)	埋沒	양평 191-4	×	1993년 해강미술관 발굴
3호	15세기	●(상감)백자/대접, 접시, 마상배/유백, 회백색/죽절굽/태토비집/음각명문 ●청자/암록, 회록색	천진암 (미확인)	埋沒	양평 191-4	×	
4호	15세기	●(상감)백자/대접, 접시, 잔, 향아리, 병, 벼루/회백, 담청색/죽절굽/태토비집/內, 內, 王, 中, 仁 음각명문 ●(상감)청자/대접, 접시/암록색 ●요도구/갈발, 원반형받침	뒷골 (368, 369)	田	양평 191-3	○	
5호	15세기	●(상감)백자/대접, 접시, 잔/회백, 담청색/죽절굽/태토비집 ●청자/대접/암록색 ●요도구/원반형받침	뒷골 (370, 370-1)	田	양평 191-3	○	
6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마상배/담청, 회백색/죽절굽/태토비집	소미교 (289-3)	林	양평 191-3	×	
7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 함뚜경/담청, 회백색/죽절굽/태토비집	소미교 (289-3)	田	양평 191-3	×	
8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회백, 담청색/죽절,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집, 모래받침	가장골 (260)	畵	양평 191-3	×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굽/발침/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9호	15-16세기	●(청화)백자/발, 대접, 접시, 전접시, 잔, 마상배, 향아리, 합, 병, 편병, 뚜껑, 제기/설향, 회백, 담청색/도립삼각형, 죽절굽/모래발침, 태토비집/天, 地, 玄, 黃, 음각명문/중국(청화)백자●(투각)청자/대접, 접시, 병, 합, 뚜껑, 반, 제기, 둔/암록색/도립삼각형굽/모래발침●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원반형발침	매내미 (262-1 262-2 272-2)	田	광주 191-3	○	1992년 이대박물관 발굴
10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회백, 담청색/죽절굽/태토비집	매내미 (320, 68, 272-2)	林·田	광주 191-3	○	
11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설향, 회백, 담청색/죽절,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집, 모래발침●요도구/갑발, 갑발뚜껑, 도침, 원반형발침	매내미 (104-4)	胾	광주 191-3	×	
12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향아리/설향, 회백색/도립삼각형굽/모래발침	매내미 (95)	垜地	광주 191-3	×	
13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요도구/갑발뚜껑/원반형발침	매내미 (88)	田	광주 191-3	×	
14호	15-16세기	●백자/발, 대접, 접시, 잔, 마상배, 비루/회백, 담청백색/도립삼각형, 죽절굽/모래발침, 태토비집/음각명문●청자/대접, 접시/암록, 연록색●요도구/갑발, 갑발뚜껑, 원반형발침	매내미 (71-2)	田	광주 191-3	○	
15호	15-16세기	●(청화)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향아리, 제기/설향, 회백, 담청색/죽절,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집, 모래발침●청자/접시/암록●요도구/원반형발침	매내미 (326)	垜地	광주 191-3	×	
16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설향, 회백색/죽절, 도립삼각형굽/태토비집, 모래발침●요도구/원반형발침	미확인	林	광주 191-3	×	
17호	15-16세기	●(상감)백자/대접, 접시, 잔, 병, 향아리/연회백, 담청색/죽절굽/태토비집●요도구/원반형발침	도로지골 (386-4)	林	광주 191-3	×	1997년 해강 미술관 발굴
18호	15-16세기	●(상감)백자/대접, 접시, 연적, 향아리/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요도구/갑발	박석거리 (156-6)	田	양평 191-4	×	
19호	15-16세기	●(상감)백자/대접, 접시/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박석거리 (195)	林	양평 191-4	×	1986년 1호와 동일
20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요도구/갑발, 원반형발침	고로지골 (279-1)	林	광주 191-3	×	
21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회백, 담청백색/죽절굽/태토비집	고로지골 (322)	林	광주 191-3	×	



지도 129. 원당리 도요지 위치도(이천 023)



지도 130. 정지리 도요지 위치도(이천 023)

764. 元堂里 陶窯址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굽/받침/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5-16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설백색/죽절굽/태토비침	추정		이천 023 광주 NJ52-9-20-1	×	1986년의 조사내용임

765~768. 亭支里 陶窯址 1~4號

요지	시 대	유물의 종류/기종/유색/굽/받침/요도구	위 치	현 상	지도번호	지정	비 고
1호	16-17세기	●백자/대접, 접시, 잔/연회백, 회색/오목굽/굵은모래받침, 굵은모래비침, 태토비침	능골 (85, 87, 88)	田	이천 023 광주 NJ52-9-20-1	×	
2호	16-17세기	●백자/대접, 접시, 전접시, 잔, 반/연회백, 회색/오목, 도립삼각형굽/태토비침, 굵은모래비침 ●요도구/원반형받침	능골 (61-1, 61-2, 67)	田 · 墓林	이천 023 광주 NJ52-9-20-1	○	
3호	16-17세기	●백자/발, 대접, 접시, 전접시, 항아리/회백, 회색/도립삼각형, 오목굽/굵은모래받침, 굵은모래비침/左, 右음각명문 ●청자/대접, 접시, 제기/압록색/도립삼각형굽/굵은모래받침	정자동 (68-1, 68-2, 61-2, 69)	田 · 林	이천 023 광주 NJ52-9-20-1	○	
4호	16-17세기	●백자/대접, 접시/연회백, 회색/도립삼각형굽/굵은모래받침 ●요도구/원반형받침	정자동 (11-2)	田	이천 023 광주 NJ52-9-20-1	○	

2. 조사 성과

이번에 조사된 유적은 총 768개소이다. 이중 이번 조사에서 새로 찾은 유적은 45개소로 대부분 고고분야에 속한다. 유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요지를 제외한 고고·관방유적이 153개소, 도요지가 296개소, 불교유적이 19개소, 유교유적이 156개소, 고건축이 19개소, 보호수를 비롯한 기타유적이 125개소이다. 각 분야별 조사성과는 아래와 같다.

1) 고고·관방유적 분야

이번 고고·관방 유적 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9곳의 구석기유적과 국수봉 산성의 발견이다.

구석기 유적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퇴촌면 도마리와 광주읍 장지리에서 발견된 2점의 주먹도끼와 현재 광주군 도자기엑스포부지로 선정되어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삼리 유적이다. 이러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광주군에서도 구석기시대부터 선사인의 폭넓은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국수봉산성은 퇴피식의 석축산성으로 아직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앞으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면 많은 학술적인 자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고·관방유적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기존에 알려진 유적을 제외하고 많은 유적을 확인 할 수는 없었다. 특히 광주군을 동서로 가로 지르는 경안천 부근에서 많은 선사유적의 발견을 예상했으나 제방과 도로공사에 의해 지형이

변경되어 유적을 찾기 어려웠고, 몇몇 유적도 이미 파괴된 유물산포지로 유구의 존재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실 1년이 채 못되는 기간에 광주군과 같이 면적이 넓고 산악지형이 많은 지역의 고고유적을 모두 조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는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곳만을 집중조사하고 나머지 지역은 개략적인 현상만을 파악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은 차후 지역을 세분하여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2) 도요지 분야

광주에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관어용(官御用)의 자기를 제작하던 요지가 퇴촌면, 중부면, 광주읍, 초월면, 도척면, 실촌면, 남종면 등 일곱 개의 읍과 면에 산재해 있다. 요지는 주변의 골짜기나 구릉을 따라 분포되어 있으며, 지금은 주로 밭으로 개간되고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임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백자를 주로 하여 분청사기와 청자도 제작하였는데, 가마의 운영시기와 성격에 따라 발견되는 그릇의 종류와 형태, 색깔, 장식수법, 문양소재, 요도구, 제작기법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별로 관련된 문헌기록과 요지의 성격, 발견되는 유물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퇴촌면

군의 동쪽 끝에 위치한 면으로, 우산리에 21개소, 도마리에 7개소, 도수리에 9개소, 원당리에 1개소, 관음리에 35개소, 정지리에 4개소 등 6개리에 걸쳐 총 77개소의 가마터가 있다.

우산리에서는 15-16세기의 순백자, 상감백자, 청화백자, 그리고 소량의 청자가 발견된다. 도마리 역시 우산리와 유사하지만, 이곳에는 분청사기를 제작하던 가마터도 있다. 도수리는 15세기 전반에서 16세기 후반 사이에 분청사기와 순백자, 청화백자, 철화백자를 제작하던 곳이다. 관음리에는 15-16세기에 상감, 인화 분청사기와 순백자, 철화백자를 제작하던 가마가 다수 있지만, 17-18세기의 백자가마터도 혼재하며, 정지리에서는 16-17세기의 다양한 백자와 소량의 청자가 확인된다.

① 우산리

가마터는 앵자봉 서편에서 서북쪽의 관음리를 향해 길게 뻗은 골짜기를 따라 좌우변의 구릉에 위치하며, 현재는 대부분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종(端宗) 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의 경기도 광주 토산조(土産條)에는 당시 자기(磁器)를 제작하던 곳으로 '在州東 所山下品'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곳에 나타나는 '所山'이 오늘날의 '우산(牛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알려져 있는 가마중 일부가 15세기 전반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⁸⁷⁾

현재까지 우산리에는 21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⁸⁸⁾ 모두가 15-16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였던 곳으로 주로 백자를 제작하였으며, 일부 가마에서는 소량의 청자도 함께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마 중에는 다량의 갑발파편이 발견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종(器種)과 설백(雪白)의 유색(釉色), 도립삼각형(倒立三角形)의 굽모양, 그리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세부의 형태를 갖춘 백자가 주로 발견된다. 또한 순백자 이외에도 소량의 청화백자가 확인되며, 대접과 접시의 파편 중에는 '天·地·玄·黃' 등의 문자를 굽바닥에 새겨 놓은 예도 있다. 갑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가마의 경우에는 대접과, 접시, 잔과 같은 일반적인 기종이 주류를 이루지만 드물게 상감백자도 발견된다. 이들은 담청백 혹은 연회백의 유색, 대나무 마디모양의 굽, 그리고 다소 거친 굽주변의 처리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자는 갑발의 사용과 무관하게 곳곳의 가마에서 확인되지만, 질이 좋은 백자와 함께 제작하던 곳에서는 기종이 비교적 다양하다.

1992년에는 여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9호 가마가 발굴되었다. 이곳에서는 3기(基)의 가마와 함께 다량의 백자와 갑발을 비롯한 요도구(窯道具), 그리고 소량의 청자파편이 출토되었다. 백자는 순백자와 청화백자가 함께 제작되었고, 청자는 모두 순청자였지만 투각장식을 한 예도 있었으며, 두 종류 모두 기종이 다양하였다. 특히, 백자의 굽바닥에 '天·地·玄·黃'의 문자를 새긴 접시와 대접이 수습되기도 하였으며, '壬寅(임인, 1482 혹은 1542년)' 명이 음각된 묘지(墓誌)가 출토되기도 하였다.⁸⁹⁾ 1993년에는 해강도자미술관에 의하여 2호 가마가 발굴되었다. 출토품은 죽절 굽의 순백자가 대부분이었지만, 드물게 상감백자파편도

87)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 1994, 文藝出版社, p.398.

88) 1986년 발간된 『韓國白磁陶窯址』의 본문에는 당시 확인된 가마가 16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묘지분포지도에는 낙석거리의 동남쪽에 가마의 일련번호가 붙지 않은 한 곳이 추가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확인된 우산리의 가마는 17곳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후 3곳이 추가로 확인된 셈이다. 한편, 1997년의 지표조사 결과를 담은 『京畿道廣州中央官窯(地圖篇)』에는 낙석거리 동남쪽에 위치한 가마가 우산리 1호로 표기되어 있어, 『한국백자도요지』의 순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韓國白磁陶窯址』에서 1호 묘지로 평정한 일대가 『경기도광주중앙관요(지도편)』에는 19호로 표기되어 있다.

89)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韓國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展-附 廣州牛山里9號窯址 發掘調査報告』, 1993, pp.13-20.

수습되었다. 특히, 이곳에서는 백자의 대접 안바닥에 '內用'이라는 문자가 음각으로 찍힌 파편이 수습되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어오고 있다.⁹⁰⁾ 또한 1997년에도 해강도자미술관에 의하여 17호 가마가 발굴되었으며, 순백자와 상감백자, 요도구 등이 출토되었다.⁹¹⁾

② 도마리

도마리는 변천리와 북동쪽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 가마터는 낮은 구릉과 산록을 따라 펼쳐진 마을 주변에 위치하지만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었다. 『世宗實錄』 『地理志』의 경기도 광주 토산조에는 당시 도기(陶器)를 만들던 곳으로 '州東 草伐里 下品'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곳에 나타나는 '草伐里'의 가마가 현재 6호로 명명된 가마로 추정되고 있다.⁹²⁾ 6호 가마에서는 15세기 전반에 주로 제작되던 인화장식이 있는 분청사기가 확인되는데, 「지리지」의 내용이 조사되던 1424-1432년의 시기와의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어서 문헌기록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마리에는 7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두가 15-16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분청사기를 제작하던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백자를 만들었으며 일부 가마에서는 소량의 청자도 함께 확인되었다. 가마중에는 갑발파편이 발견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다양한 기종과 설백의 유색, 도립삼각형의 굽모양, 그리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세부의 형태를 갖춘 백자가 주류를 이룬다. 한편 순백자 이외에도 소량의 청화백자도 확인되며, 대접과 접시의 파편중에는 '天·地·玄·黃' 등의 문자를 굽바닥에 새겨 놓은 예도 있다. 갑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가마의 경우에는 대접과, 접시, 잔과 같은 일반적인 기종이 주류를

이루며, 담청백색 혹은 연회백의 유색 그리고 대나무 마디모양의 족절굽, 다소 거친 굽주변의 처리 등이 특징이다. 청자는 갑발을 사용하여 질이 좋은 백자를 제작하던 1호 가마에서만 확인되었는데, 기종은 화분이나 돈(敦)과 같은 특별한 것에 한정되어 있다.

1964-65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하여 1호 요지에 대한 조사와 발굴이 진행되었는데, 이미 요적이 파괴된 상태에서 가마의 유구나 퇴적의 층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⁹³⁾ 이곳에서는 다량의 백자와 갑발을 비롯한 요도구, 그리고 소량의 청자와 중국백자의 파편 등이 출토되었다. 백자는 순백자와 상감, 청화백자가 함께 출토되었으며, 청자는 순청자와 상감청자가 확인되었다. 특히, 백자의 굽바닥에 '天·地·玄·黃·숫자' 등의 문자를 새긴 대접과 접시가 다량 출토되었으며, '乙丑八月(1505)'의 음각명이 있는 사각봉(四角棒)이 수습되어 가마의 활동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③ 도수리

가마터는 퇴촌면 사무소에서 관음리로 가는 길의 좌측편으로 길게 뻗은 도로와 구릉을 따라 좌우변에 산재해 있으며,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경기도 광주 토산조에는 당시 도기를 만들던 곳으로 '州東 羔峴'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곳이 오늘날의 도수리로 추정되고 있다.⁹⁴⁾

현재까지 도수리에서는 9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⁹⁵⁾ 모두가 15세기 전반에서 16세기 후반 사이인 조선시대 전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분청사기와 백자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청사기는 3호, 4호, 6호, 9호에서 발견되며 상감과 인화장식이 있

90) 海剛陶磁美術館, 『廣州 牛山里 白磁窯址』, 1995, pp.53-58.

91) 海剛陶磁美術館, 『廣州 牛山里 白磁窯址(Ⅱ)』, 1999, pp.62-68.

92) 尹龍二, 앞의 책, p.412.

93) 國立中央博物館,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道馬里 1號 窯址-』, 1995, pp.117-124.

94) 尹龍二, 앞의 책, p.412.

95) 『한국백자도요지』의 본문에는 7곳의 요지가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부록인 요지분포지도에는 요지의 일련번호가 없는 곳이 추가로 표시되어 있다.

는 것이 많다. 백자는 순백자 이외에도 7호와 8호에서 철화백자와 소량의 청화백자가 만들어졌다. 특히 4호 가마에서는 분청사기 이외에도 갑발 등의 요도구와 함께 설백의 유색과 도립삼각형의 굽을 갖춘 정교하게 다듬어진 백자편이 발견된다.

④ 원당리

원당리는 남쪽의 무갑리와 북쪽의 정지리 사이에 위치하며, 서쪽의 경안천과 접해 있는 곳으로, 마을 남쪽편의 구릉에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곳의 가마터와 관련된 문헌기록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1986년에 발간된 『한국백자도요지』에는 유적의 위치와 수습유물이 소개되어 있지만,⁹⁶⁾ 현재는 확실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⑤ 관음리

가마터는 남서쪽의 우산리에서 북쪽의 퇴촌면 소재지를 향해 길게 펼쳐 있는 구릉과 골짜기의 좌우변에 위치하며, 현재는 대부분이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백자파편중에는 ‘左’ 혹은 ‘右’의 음각명문이 있는 예가 있는데, 이것은 성현(成僎)의 『용재총화(齋總話)』에 “매년 사옹원 관리를 파견하여 좌우변(左右邊)으로 나누어 봄부터 가을까지 제조, 감독하여 어부(御府)에 수납한다”라는 기록의 내용과도 대략적으로 일치하여 주목되고 있다.⁹⁷⁾ 따라서 이들 파편이 출토되는 곳에는 당시 왕실용 백자의 제작을 관리하고 감독하던 사옹원의 파견부서인 분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관음리에는 35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마의 다수가 15-16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이지만, 일부는 조선시대 중기에 백자를 만들

던 곳이다. 15-16세기의 가마는 대부분 백자를 제작하였지만, 그중에서도 12호, 14호, 26호, 27호, 31호의 가마에서는 상감이나 인화장식이 있는 분청사기가 만들어졌으며, 4호 10호, 20호에서는 소량의 청자도 확인된다. 백자는 순청자 이외에도 철화백자가 발견되었으며, 22호에서는 청화백자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곳의 백자는 굽의 형태에 따라 대나무 마디 모양의 죽절굽과 도립삼각형굽, 오목굽 등으로 대별되는데, 그중 설백의 유색에 세부가 정교하게 다듬어진 도립삼각형굽의 백자에는 굽바닥에 ‘左’ ‘右’ 등의 음각명문이 새겨진 예가 있다. 한편, 조선시대 중기의 가마터인 17-19호와 32-35호에서는 금사리에서 보이는 백자편과 굽의 형태나 유색 등이 유사한 예가 다수 확인된다. 1992년에는 해강도자미술관에 의하여 관음리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었으며,⁹⁸⁾ 1997년에는 건국대학교박물관에 의하여 6호가마가 시굴조사되었다.⁹⁹⁾

⑥ 정지리

관음리에서 절골을 지나 남서쪽의 경안천 방향으로 가면 나타나는 마을로, 가마터는 마을 우측 구릉에 위치하며, 현재는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마터와 관련된 문헌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곳은 조선시대 전기에서 중기로 이어지는 조선백자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밝힐 수 있는 곳이다.

현재까지 정지리에는 4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두가 16-17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백자를 만들었지만 3호 가마에서는 소량의 청자도 제작하였다. 이곳의 백자는 굽의 형태에 따라 도립삼각형굽과 오목굽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3호에서 제작된 백자의 굽바닥에서는 ‘左’ ‘右’의 음각명문이 있는 예가 발견되기도 한다. 1598-1605년 사이에 제

9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白磁陶器址』, 1986, p.80.

97) 成僎, 『齋齋總話』, 卷10. “每歲還司饗院官分左右邊...從春至秋監造而輸納于御府...”
尹龍二, 임의 책, p.402.

98) 海剛陶磁美術館, 『廣州의 白磁窯址(1)』, 1992, pp.22-116.

99) 報告書 未刊

작활동을 벌였으며, 임란 직후 최초로 광주에서 작업을 개시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⁰⁰⁾

조선시대 전기에 주류를 이루던 설백의 유색과 도립삼각형의 굽 등 세부의 특징이 점차 중기의 나타나는 회백색의 오목굽 백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2) 중부면

군의 중서부에 위치한 면으로, 변천리에 21개소, 오전리에 7개소 등 2개리에 걸쳐 총 28개소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① 변천리

변천리는 남쪽의 송정리와 북쪽의 도마리 사이에 위치하며, 가마터는 상변천리의 마을과 주변 구릉에 흩어져 있고 다수가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경기도 광주 토산조에는 ‘在州東 伐乙川 上品’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곳에 나타나는 ‘伐乙川’이 오늘날의 벌내 혹은 벌천으로도 불리는 변천리로 추정되고 있다.¹⁰¹⁾ 따라서 이곳의 가마중 일부가 15세기 전반에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上品의 자기를 생산했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변천리에는 21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두가 15-16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분청사기와 백자를 제작하였으며, 일부 가마에서는 소량의 청자도 함께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청사기는 10호, 17호, 20호, 21호에서 발견되며, 모두 인화장식이 있다. 백자는 순백자 이외에도 1호, 2호, 3호, 11호에서 상감백자, 5호에서는 청화와 철화백

자, 9호에서는 다양한 청화백자가 제작되었다. 이곳에서 제작된 백자는 굽의 형태에 따라 대나무 마디 모양의 죽절굽과 도립삼각형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죽절굽의 경우 6호와 7호를 제외한 모든 가마에서 볼 수 있다. 도립삼각형굽 백자의 경우, 3호-9호, 15호에서 제작되었으며, 9호에서는 굽바닥에 ‘天·地·玄·黃’의 음각명문을 적은 예가 다수 확인되었다. 9호 가마에서는 청자도 수습되는데, 화분과 받침, 제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백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85-1986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5호 가마가 발굴되었다.¹⁰²⁾ 1기(基)의 가마와 작업장 시설이 확인되었으며, 다량의 백자파편과 요도구 등이 출토되었다. 백자는 순백자 이외에도 소량의 청화와 철화백자편이 확인되었다. 특히, ‘嘉靖三十三年(1554)’의 음각명이 있는 묘지(墓誌)가 출토되어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하였다.¹⁰³⁾ 당시 발굴된 유구는 현재 보호각이 건립되어 보존되고 있다. 1998-1999년에는 이대박물관에 의하여 9호 가마가 발굴되었다.¹⁰⁴⁾ 가마와 함께 주변의 작업장 시설이 확인되었으며, 다량의 백자파편은 물론 갑발과 갑발뚜껑을 비롯한 다양한 요도구도 함께 출토되었다. 이곳에서는 순백자와 소수의 청화백자를 포함하여, 순청자와 상감청자도 제작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우사리 9호 가마와 같이 대접과 접시의 굽바닥에 ‘天·地·玄·黃’의 음각명을 적은 파편이 다수 수습되었다.

② 오전리

오전리는 상변천리의 서북쪽에 위치하며, 가마터는 남한산성으로 오르는 도로의 주변에 산재해 있다. 현재 가마터의 대부분은 임야의 가장자리에 있어 일부는 밭으로

100) 尹龍二, 앞의 책, p.343.

101) 尹龍二, 앞의 책, p.396.

102)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5호 가마는 『한국백자도요지』에 변천의 4호 가마로 명명되어 있는 요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4호로 기록되어 있다.

103)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廣州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堤川里5호·仙東里2,3호』, 1996, pp.53-125.

104) 發掘報告書 未刊.

개간되기도 하였다. 가마터와 관련된 문헌기록은 없다.

현재까지 오전리에는 7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두가 15-16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백자를 만들었지만 3호 가마에서는 소량의 청자도 확인된다. 이곳의 백자는 굽의 형태에 따라 도립삼각형굽과 죽절굽으로 대별되는데, 1호와 7호에서는 죽절굽의 백자파편만이 발견되지만 나머지 가마터에서는 두 종류가 모두 확인된다.¹⁰⁵⁾ 1998년에는 건국대학교박물관에 의하여 5호요지가 시굴조사되었다.¹⁰⁶⁾

(3) 광주읍

군의 서남부에 위치한 읍으로, 송정리에 7개소, 탄벌리에 11개소, 목현리에 2개소 등 3개리에 걸쳐 총 220개소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송정리에서는 17세기의 순백자와 철화백자, 청화백자를 주로 하여 소량의 청자도 제작되었다. 이곳에서 제작된 백자중 간지가 적혀 있는 파편을 검토한 결과 1649-1653년 사이에 분원이 제작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탄벌리의 가마 역시 17세기에 백자와 소량의 청자를 제작하였으며, 송정리보다는 이른 시기인 1606부터 1612까지 분원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목현리에서는 15-16세기와 16-17세기에 순백자를 주로 제작하였으며, 소량의 상감백자파편도 확인된다.

① 송정리

변천리와 경안리 사이에 위치하며, 가마터는 마을 주변의 구릉에 산재해 있고 모두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

고 있다. 송정리에는 7개의 요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두 17세기에 가장 활발한 제작활동을 벌였으며, 백자와 함께 소량의 청자도 생산하였다. 1호 가마에서는 순백자와 청화, 철화백자가 만들어졌으며, 소량의 청자도 제작되었다. 특히, 굽바닥에는 '庚寅左' '辛卯右' '壬辰右' '癸巳右' 등의 간지가 새겨진 것과 '七十九' '右四十三' '右五十' 등의 숫자가 음각되어 있는 예가 있는데, 간지와 유물의 검토결과 이들의 제작연대는 1649-1653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¹⁰⁷⁾

② 탄벌리

경안리의 서편에 있는 사기골 마을에 위치하며, 가마터는 마을 주변 구릉에 산재해 있다. 탄벌리에는 11개의 요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¹⁰⁸⁾ 대접과 접시 등을 주로 한 연회백색의 오목굽 혹은 도립삼각형굽의 백자가 제작되었다. 이곳의 가마는 대부분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활발한 제작활동을 벌였는데, 1호 가마의 경우 백자 이외에도 소량의 청자도 제작되었다. 특히, 굽바닥에는 '丙午左' '庚戌右' '丁未左' '丁未右' '辛亥' '己酉左' '壬子' 등의 간지가 적혀진 예가 있는데, 간지와 유물의 검토결과 이들의 제작시기는 1606-1612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¹⁰⁹⁾

③ 목현리

탄벌 2리와 북쪽으로 접해 있는 목현 1리 새오개 마을의 중앙과 주변의 임야에 위치한다. 현재까지 목현리에서는 2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15-17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두 곳 모두 백자를 제작하였다. 1호에서는 죽절굽의 백자가 대부분이지만 상감백자도

105) 오전리에서도 대접이나 접시의 굽바닥에 '天, 地, 玄, 黃'의 글자를 음각한 파편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 1991, p. 124).

106) 調査報告書 未刊.

107) 鄭良謨, 앞의 책, p. 151.

尹龍二, 앞의 책, p. 405.

108) 『한국의 백자요지』의 본문에는 8곳의 요지가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중 5곳의 요지가 추가로 확인된 셈이다.

109) 鄭良謨, 앞의 책, p. 136.

尹龍二, 앞의 책, p. 402.

발견되며, 죽절굽의 백자를 제작하던 가마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갑발과 갑발뚜껑의 파편퇴적이 형성되어 있어 주목된다. 2호는 비교적 높은 입야에 위치하며 백자편이 매우 적지만, 입자가 치밀하고 기벽이 얇게 제작된 갑발퇴적이 형성되어 있다.

(4) 초월면

군의 중앙에 위치한 면으로, 무갑리에 24개소, 학동리에 16개소, 쌍동리에 2개소, 대쌍령리에 5개소, 산이리에 1개소, 지월리에 4개소, 선동리에 5개소 등 7개리에 걸쳐 총 57개소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무갑리에서는 15-16세기의 순백자, 상감, 청화백자와 청자가 발견된다. 학동리는 15-16세기와 16-17세기에 걸쳐 제작활동을 벌이던 가마가 확인되었으며, 인화와 상감장식이 있는 분청사기, 그리고 백자와 청자가 제작되었다. 백자파편에 적힌 간지로 보아 1613-1617년 사이에 분원이 작업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쌍동리에는 15-16세기에 상감, 인화분청사기와 백자를 각각 제작하였던 가마가 있고, 대쌍령리에서는 15-16세기에 제작된 순백자와 청화백자 파편이 발견되었다. 산이리 역시 15-16세기의 백자가마이며, 지월리는 17세기에 순백자와 청화백자를 만들던 곳으로 1677년(肅宗 3년)부터 몇 년간 분원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동리에서는 17세기에 순백자와 청화, 청화백자, 그리고 소량의 청자가 제작되었으며, 간지가 새겨진 파편이 발견되어, 상림리, 송정리 가마의 중간기간인 1640-1649년 사이에 분원이 제작활동을 벌였던 곳으로 밝혀졌다.

① 무갑리

무갑산과 관산 사이의 골짜기와 무래비마을 주변의 구릉에 위치하며, 가마는 현재 산자락에 보존되고 있거나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마터와 관련된 당시의 문헌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퇴촌면 우산리의

가마와 더불어 조선시대 전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무갑리에는 24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두가 15-16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백자를 제작하였으며, 일부 가마에서는 소량의 청자도 함께 만들었다. 특히, 2호 가마에서는 상감백자와 청화백자편이 발견되고, 대접과 접시의 굽바닥에 ‘天·地·玄·黃’ 등의 음각명문을 적어 놓은 예가 확인된다. 음각명문은 17호 가마의 파편에서도 확인되는데, 문자가 새겨진 백자는 모두 설백의 유색에 도립삼각형의 굽을 갖추고 갑발을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갑발을 사용하여 백자를 제작한 가마에서는 다양한 기종과 설백의 유색, 도립삼각형의 굽모양, 깔끔하게 다듬어진 세부의 형태 등 공통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2호, 5호, 7-14호, 16-17호, 21호, 24호에서는 갑발파편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가마에서는 도립삼각형굽 이외에도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죽절굽의 백자파편이 함께 수습된다. 청자는 2호와 8호 가마에서 순청자와 상감청자가 모두 확인되며, 대접과 접시 이외에 화분과 같은 기종이 제작되었다.

② 학동리

무갑산의 남쪽 골짜기를 따라 펼쳐진 상동막과 중동막 일대의 구릉에 가마터가 위치하며, 입야에 포함되어 보존상태가 양호한 예도 있지만 일부는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학동리에는 16개의 가마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5-16세기와 16-17세기에 걸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분청사기와 백자, 그리고 소량의 청자가 제작되었다. 분청사기는 4-6호에서 확인되는데, 인화장식이 주류를 이루지만 상감장식이 있는 예도 다수 있다. 백자는 4호와 6호를 포함한 모든 가마에서 제작되었으며, 죽절굽과 도립삼각형굽, 오목굽 등 제작시기 별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굽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9호 가마에서는 대접과 접시의 굽바닥에 ‘庚

(戌) '癸(丑)' '(乙)卯右' '丁巳右' 등의 간지가 음각된 예가 발견되어, 백자의 제작시기가 1613-1617년 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¹⁰⁾ 청자는 4호, 5호 가마에서 출토되며, 발, 대접, 접시 등 일상적인 기종이 확인된다. 1997년에는 전국대학교박물관에 의하여 4호 가마가 시록조사되었다.¹¹¹⁾

③ 쌍동리

백마산 동쪽 골짜기에 있는 도곡동 주변에 위치하며, 현재는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쌍동리에는 2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두 15-16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분청사기와 백자를 각각 제작하였다. 분청사기는 1호 가마에서 제작하였는데, 모두 상감과 인화장식이 있는 것으로 기종은 대부분 대접과 접시이다. 백자는 2호 가마에서 볼 수 있으며, 죽절굽과 도립삼각형의 굽을 갖춘 예가 함께 확인된다.

④ 대쌍령리

대쌍령리에서 쌍령리로 향하는 도로의 좌우측 구릉에 위치하며, 대부분 임야와 접한 곳에 있다. 현재까지 5개의 요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모두 15-16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이다. 모두 백자를 제작하였지만, 1호 가마에서는 청화백자 파편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 가마에서는 대접의 굽바닥에 '別'이라는 음각 명문이 찍여진 예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別燭'의 준말로 궁중의 특별한 행사나 목적을 위해 제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¹²⁾ 또한 1호에서는 청자 접시편도 확인되는

데, 연록색에 도립삼각형을 갖추고 있다. 2호, 3호, 4호에서도 모두 설백 혹은 연회백색을 보이는 도립삼각형 굽의 백자를 제작하였지만, 갑발은 확인되지 않았다.

⑤ 산이리

쌍동리의 남쪽으로 발리봉의 동편 골짜기를 따라 무세비 거리로 향하는 중간의 구릉에 위치하며, 현재는 주변에 묘가 조성되어 있다. 산이리에는 1개의 가마터가 있으며, 백자를 제작하였던 곳으로 확인되었다. 순백자 이외에 상감백자도 함께 확인되며, 대접과 접시와 같은 일상적인 기종이 주류를 이룬다. 죽절굽과 함께 도립삼각형 굽의 백자도 있지만, 갑발은 확인되지 않았다.

⑥ 지월리

서편의 쌍령리와 동편의 무갑리 사이에 위치하며, 가마터는 도평리에서 무갑리로 가는 길 중간의 마을 주변에 산재해 있다. 현재까지 4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17세기에 백자를 만들던 곳이다. 순백자 이외에 철화백자가 발견되며, 기종은 대접과 접시, 잔 등이 주류를 이룬다. 오목굽과 직립형 굽이 공존하며, 모두 굽은 모래받침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지월리에는 탐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숙종(肅宗) 2년(1676)에는 "지금의 분원설치처에서 서북으로 약 15리 거리에 있는 탐립동으로 내년 봄에 분원을 옮긴다"는 마을 이름과 관계된 기록이 등장한다.¹¹³⁾ 기록의 탐립동은 지월리의 탐동으로, 1677년 부터 분원을 이곳으로 옮겨 백자를 제작했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으며,¹¹⁴⁾ 가마터에서 확인되는 파편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지월리의 가마터는 구

110) 尹龍二, 앞의 책, p.403.

111) 調査報告書 未刊

112) 尹龍二, 앞의 책, p.442.

113) 『承政院日記』第二五六冊 肅宗 2年 8月28日, "該掌郞廳奉事沈 往審形勢 而來呈稟 當時設處 西北距十五里許 有可設燭造所之地 地名塔立洞... 明睿分院移設定於此處爲之宜當... 傳曰允"

114) 尹龍二, 앞의 책, p.407.

한편 鄭良謨 선생은 지월리 탐립동에 분원이 설치되어 백자를 제작했던 시기를 1677-1680년경까지로 보고 있다(鄭良謨, 앞의 책, p.154.).

체적인 제작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분원의 이동과 변화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곳이다. 1992년 해강도자미술관이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¹¹⁵⁾

⑦ 선동리

선동리에서 지월리로 향하는 대로의 좌측구릉에 산재해 있으며, 현재는 논이나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선동리에는 5개의 가마터가 있으며, 17세기에 백자를 제작하던 곳으로 확인되었다. 순백자 이외에도 청화와 철화백자가 제작되었으며, 소량의 청자도 함께 제작되었다.

1986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2호와 3호 가마가 발굴되었다.¹¹⁶⁾ 2호 가마에서는 다량의 백자와 청자, 요도구, 시유편(施釉片)이 출토되었다. 백자는 순백자 이외에 용이나 난초, 포도 등이 그려진 다수의 철화백자와 안바닥에 '祭'자를 적어놓은 소수의 청화백자 접시 등이 출토되었으며, 청자는 대형 접시와 인화장식이 있는 제기 등을 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접시나 대접의 굽안바닥에 '辛巳' '壬午左' '癸未右' '甲申左' '丙戌右' '丁亥右' '戊子左' '己丑' '庚辰右' 등의 간지가 새겨진 파편이 발견되어, 상림리, 송정리 가마의 중간기간인 1640~1649년 사이에 분원이 이곳에서 제작활동을 벌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10년 분의 간지가 출토되어 분원의 10년 단위로 가마를 이설하였다는 기록을 입증해 주기도 하였다. 3호는 두 개의 가마로 나뉘어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오목굽에 연화백의 유색을 띠는 백자가 출토되었으며, 운영시기는 2호 가마와 비슷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¹⁷⁾

(5) 도척면

군의 남단에 위치한 면으로, 상림리에 15개소, 궁평리에 9개소, 유정리에 2개소 등 3개리에 걸쳐 26개소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상림리에서는 17세기를 전후하여 순백자와 철화백자, 청자를 제작하였으며, 1631~1636년 사이에 분원이 제작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궁평리에서는 17~18세기의 순백자와 철화백자, 청화백자가 발견된다. 유정리에서도 17~18세기의 순백자와 철화백자가 확인된다.

① 상림리

정광산과 태화산의 중간에 위치하며, 노곡천을 따라 궁평리에서 남서쪽으로 가는 길에 상림마을이 있고 그 주변에 가마터가 산재해 있다. 현재까지 15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백자를 주로 하여 소량의 청자도 제작하던 곳이다. 이중 1호 가마에서는 순백자 이외에 운룡문이 그려진 철화백자와 청자 제기편 등이 출토된다. 특히, 대접과 접시의 굽바닥에 '辛未別' '癸酉右' '甲戌' '甲戌右' '乙亥左' '乙右亥' '丙(子)右' 등의 간지가 음각된 백자와 편이 출토되어, 1631년~1636년 전후에 분원이 이곳에서 제작활동을 벌였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10호와 11호에서도 '己左' '己右' '乙亥左'와 같은 간지가 새겨진 파편이 발견된다.¹¹⁸⁾ 철화백자는 1호 이외에 2호, 5호, 10호, 11호, 12호, 13호 등에서도 발견되며, 대부분 직립형굽 혹은 오목굽에 굽은 모래를 받쳐 변조하였다.

115) 海剛陶磁美術館, 앞의 책, 1992, pp.117-126.

116)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pp.233-295.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한 2·3호요지와'원파백자요지'에 수록된 2호요지, 그리고 부록인 오지본포지도에 표시된 3호 요지와는 유물의 성격이나 위치가 서로 다르다. 이것은 발굴과 지표조사의 마무리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며 생김 문제로 생기는 것인데, 현재는 지표에 출토된 파편의 양이 적어 복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117)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pp.214-216, 291-295.

118) 鄭良謨, 앞의 책, p.142.

尹龍二, 앞의 책, p.403.

② 궁평리

곤지암리에서 상림리로 가는 중간에 있으며, 가마터는 마을 주변의 밭과 얇은 산자락에 흩어져 있다. 현재까지 9개의 가마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17-18세기에 걸쳐 백자를 제작하였다. 순백자 이외에 1호와 2호 가마에서는 철화백자가 출토되며, 6호와 8호, 9호에서 청화백자도 확인된다. 이중 1호 가마에서는 '卍'자가 찍여진 파편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1호, 2호, 6호, 9호에서는 대부분 직립형굽의 백자가 발견되지만, 나머지 가마에서는 오목굽이 공존한다. 기종은 대접, 접시, 잔, 향아리 등이 대부분이며, 유색은 설백 혹은 유백색과 함께 연회백색이 주류를 이룬다. 굽바닥에는 대부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으며, 오목굽의 경우는 포개구이를 하였다. 1992년에 해강도자미술관에 의해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¹¹⁹⁾

③ 유정리

도척저수지와 서북쪽에 접해 있으며, 가마터는 바위산골 마을 주변에 산재해 있다. 현재까지 2개의 가마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17-18세기에 걸쳐 백자를 제작하였다. 순백자 이외에 1호에서는 철화백자가 출토된다. 1호와 2호 모두 직립형굽과 오목굽 백자가 공존하며, 기종은 대접, 접시, 잔, 향아리 등이 대부분이고, 유색은 유백과 연회백색이 주류를 이룬다. 굽바닥에는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 실촌면

군의 동남단에 위치한 면으로, 유사리에 8개소, 신대리에 22개소, 오항리에 6개소, 곤지암리에 7개소, 열미리에 10개소, 건업리에 2개소, 장심리에 1개소 등 7개리에 걸쳐 총 56개소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유사리에서는 17세기의 순백자와 철화백자가 발견되며, 1660-1664년을 전후한 시기에 분원이 활동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대리에는 15-16세기에 분청사기와 백자를 만들던 곳도 있지만, 주로 17세기에 백자를 만들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1669-1676년을 전후한 시기에 분원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항리에서는 15-16세기와 17-18세기의 백자가 발견되며, 1717년부터 1720년까지 분원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곤지암리에서는 15-16세기의 백자만이 확인되며, 열미리 역시 15-16세기에 백자가 발견된다. 한편 건업리에서는 15-16세기의 순백자와 상감백자가 발견되며, 장심리에서도 15-16세기에 백자가 발견된다.

① 유사리

서편의 연곡리와 동편의 삼합리 사이에 유사리가 있으며, 가마터는 버드라미 마을 주변에 산재해 있다. 현재까지 8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17세기에 백자를 제작하였다. 순백자 이외에도 2호, 3호, 8호에서는 철화백자가 발견되며, 특히 3호 가마에서는 대접과 접시의 안바닥에 '甲辰左' '辛丑左' '癸卯右' '庚(子)左' 등의 干支가 음각된 파편이 수습되어 1660-1664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²⁰⁾ 모든 가마에서는 직립형굽과 오목굽의 백자가 공존하며, 3호에서는 안굽과 해무리형굽도 드물게 발견된다. 기종은 대접, 접시, 잔, 향아리 등이 대부분이지만, 3호에서는 편병도 확인된다. 유색은 유백과 연회백색이 주류를 이루며, 굽바닥에는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② 신대리

곤지암리의 북쪽에 위치하여 서로 마주보는 마을로,

¹¹⁹⁾ 海剛陶磁美術館, 앞의 책, pp.127-138.

¹²⁰⁾ 鄭良謨, 앞의 책, p.152.

尹龍二, 앞의 책, p.406.

가마터는 골짜기와 마을 주변의 구릉에 산재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마터는 22개로 17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이 많지만, 15-16세기에 분청사기와 백자를 만들던 곳도 일부 존재한다. 분청사기는 1호와 22호에서 발견되는데, 대접과 접시에 상감이나 인화장식이 있는 예가 주류를 이룬다. 백자는 순백자 이외에 3-8호, 10-13호, 17호, 19호, 20호에서 철화백자가 발견된다. 특히, 10호 가마에서는 대접과 접시의 굽바닥에 '己(酉)' '丙(辰)' '甲寅' '乙卯' 등의 간지를 음각한 예가 있어, 1669-1676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²¹⁾ 이것은 숙종 2년(1676) 『承政院日記』에 “지금의 분원설치처에서 서북으로 약 15리 거리에 있는 탐립동으로 내년 봄에 분원을 옮긴다”는 문헌기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¹²²⁾ 지월리의 탐립동으로 가기전에 신대리에서 분원이 제작활동을 하였던 사실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2호, 15호, 16호에서는 담청백색이나 연회백의 유색을 보이며 죽절굽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15-16세기의 백자가 발견된다. 나머지 17세기의 가마에서는 설백, 연회백의 유색에 대부분 직립형굽이나 오목굽의 백자가 공존하며, 굽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한 예가 확인된다.

③ 오향리

감투봉의 우측 골짜기로 열미리에서 유사리로 가는 길 좌측에 마을이 있고, 가마터는 주변에 길게 산재해 있다. 현재까지 6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에 걸쳐 백자를 제작하였다. 1호와 5호, 6호에서는 담청백 혹은 연회백의 유색을 보

이며 죽절굽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백자가 발견되고, 3호와 4호에서는 유백색을 보이며 직립형굽에 모래를 받쳐 번조한 질이 좋은 백자가 확인된다. 특히, 『승정원일기』경종(景宗) 즉위년(1720) 조에는 “번조소(煔造所)를 정유년(丁酉年, 1717)에 실촌면 오양동(五陽洞)으로 옮겼으나 땀나무가 거의 다하여, 내년에 이설하기 좋은 곳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다.¹²³⁾

즉, 1717년부터 1720년까지 오향리에서 분원이 백자를 제작하였다는 기록으로, 당시의 가마가 지금의 3호 혹은 4호라고 추정되고 있는 중요한 곳이다.¹²⁴⁾

④ 끈지암리

노곡천을 사이에 두고 궁평리와 마주보는 구릉에 위치한다. 현재까지 7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15-16세기에 백자를 제작하였다. 백자 이외에도 1호와 2호 가마에서는 청자파편이 확인된다. 1호에는 굽바닥에 음각명문이 있는 파편이 있으며, 갑발과 갑발뚜껑도 확인된다. 모든 가마에서는 도립삼각형굽의 백자가 발견되지만, 1호에서는 죽절굽의 백자가 공존한다. 대체적으로 유색은 설백색이 주류를 이루며, 굽바닥에는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⑤ 열미리

끈지암과 오향리 사이에 열미리가 위치하며, 가마터는 마을 입구인 하열미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은 상열미까지 산재해 있다. 현재까지 10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15-16세기에 백자를 제작하였다. 6호에서는 설백의 유색을 보이는 도립삼각형굽의 백자가 만들어졌으며, 3호, 5호, 9호에서는 도립삼각형굽과

121) 尹龍二, 앞의 책, p.406.

鄭良謨 선생은 1670년대에 제작활동을 벌였던 곳으로 정의하였는데, 칠봉의 개지치거를 1674년으로 보고 있지만 제작종류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鄭良謨, 앞의 책, p.152).

122) 註113: 참조

123) 『承政院日記』第525冊 景宗 卽位年 12月 17日, “又以司窰院官員 以都提調啓曰 本院煔造所 丁酉年間 移設場內 實村五陽洞矣 本院匠卒輩 齊聲呼曰 煔所近處 柴木殆盡 明年 煔木 無路繼用 若不越卽移設 必將有狼狽之患 故使郎廳 移設可合處看審 則場內牛川 樹木雖不茂盛 水路最近 間間質用不至狼狽云 依此移設 宜當...傳曰允”

124) 尹龍二, 앞의 책, p.409.

담청백색을 띠는 죽절굽 백자가 혼재하고, 나머지 가마에서는 죽절굽에 태토비짐을 받친 예만 확인된다. 기종은 대접과 접시, 잔 이외에 병, 합, 향아리, 반 등이 있다. 5호 가마에서는 굽바닥에 ‘黃’자가 음각된 파편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⑥ 건업리

장심리 북쪽에 위치하며, 가마터는 청남컨트리클럽 입구와 주변에 있다. 현재까지 2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15-16세기에 백자를 제작하였다. 두 곳 모두 순백자와 상감백자를 제작하였는데, 대체적인 양상은 우산리 천진암 주변의 상감백자 가마터와 유사하다. 기종은 대접, 접시, 잔 이외에도 전접시와 향아리가 확인된다. 유색은 연회백과 담청백색이 대부분이며, 죽절굽 바닥에는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 있다.

⑦ 장심리

서편의 열미리와 북쪽의 건업리 사이에 장심리가 위치하며, 가마터는 장심천을 거슬러 올라간 마을 주변에 있다. 현재까지 1개의 가마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15-16세기에 백자를 제작하였다. 연회백, 혹은 담청백색의 대접과 접시가 만들어졌으며, 죽절굽 바닥에는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 있다.

(7) 남종면

군의 북동단에 위치한 면으로, 유사리에 11개소, 금사리에 9개소, 분원리에 3개소, 삼성리에 1개소 등 4개리에 걸쳐 총 24개소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귀여리에서는 15-16세기의 백자와 청화백자, 청자 등이 확인된다. 굽바닥에는 ‘黃’, ‘地’ 등의 문자가 음각된 예도 있다. 금사리에서는 18세기에 백자가 확인되며, 순백자 이외에도 청화, 철화백자가 발견된다. 1726년 경부터 1751년까지 약 25년간 분원이 운영되

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분원리는 1752년부터 1883년까지 분원이 운영된 곳이다. 순백자와 청화백자 파편이 발견되며, 많은 양의 파편이 노출되어 있다. 삼성리는 15-16세기에 백자를 만들던 곳으로 도립삼각형굽과 죽절굽 백자가 혼재한다.

① 귀여리

금사리의 동편에 접해 있으며, 가마는 골짜기를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11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15-16세기에 백자를 제작하였다. 1-10호는 대접과 접시, 잔을 주로 하여 병과 향아리 등을 제작하였으며, 담청백색의 유색과 죽절굽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이곳에서 가장 주목되는 곳이 11호 가마로 순백자와 청화백자, 청자 등이 발견된다. 백자는 대접, 접시, 잔 이외에 전접시와 마상배, 합뚜껑 등이 확인되며 설백색에 도립삼각형굽을 갖춘 백자와 죽절굽 백자가 혼재한다. 특히, 대접과 접시의 굽바닥에는 ‘黃’, ‘地’ 등의 문자가 음각된 예가 있다. 청자는 대접과 접시, 반 등이 발견되며, 연록 혹은 암록색을 띠고 도립삼각형의 굽을 갖추고 있다. 요도구로는 갑발과 갑발뚜껑, 도침 등이 발견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지표에서 확인되는 대체적인 양상은 우산리 9호 혹은 번천리 9호 가마와 유사하다.

② 금사리

퇴촌면에서 경안천을 끼고 분원리로 가는 길 우측 골짜기에 금사리가 있으며, 가마터는 마을 주변의 구릉에 흩어져 있지만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9개의 가마터가 발견되었으며, 모두 18세기에 백자를 제작하였다. 순백자와 함께 1-7호에서는 청화백자가 만들어졌으며, 3호와 5호 가마에서는 철화백자가 확인된다. 기종은 대접, 접시 이외에 잔, 향아리, 병, 제기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표면을 육각 혹은 팔각으로 모각이한 파편이 많다. 유색은 설백 혹은 유백색이며, 굽은 직립형굽으로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

다. 대부분 가마에서 갑발을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가마에서 백자를 제작하던 시기는, 가마를 오향리에서 우천으로 옮겼다가 다시 우천 강변으로 이동하는 1726년 경부터 현재의 분원리로 이설되기 전인 1751년까지 약 25년간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²⁵⁾ 이들 가마는 18세기 전반 분원의 변화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며, 특히 금사리 백자는 조선시대 후기백자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③ 분원리

금사리의 서북쪽에 분원리가 위치하며, 가마터는 분원초등학교가 세워져 있는 곳과 주변에 산재해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 양근군(楊根郡) 물산조(物産條)에 “임신년에 광주 번조소를 남종면에 이설하여 매해 사용원판리가 왕실용 그릇의 제작을 감독하였다”는 관련기록이 남아 있으며,¹²⁶⁾ 이곳은 금사리로 부터 1752년 이설하여 운영이 민영화되던 1883년까지 분원이 설치되었던 곳이다.¹²⁷⁾

현재까지 분원리에는 3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3호 요지에는 건물이 세워져 확인이 불가능하다. 1호와 2호에서는 순백자와 함께 다수의 청화백자 파편이 발견되며, 기종도 대접, 접시 이외에 잔, 병, 향아리, 뚜껑, 연적, 필통, 향로 등 으로 매우 다양하다. 분원초등학교 입구에서 운동장을 거쳐 뒷편 구릉과 주변의 밭으로 이어지는 1호와 2호에는 현재까지도 많은 양의 파편이 노출되어 있다. 초등학교 입구쪽에서는 드물게 금사리의 백자와 유사한 예가 발견되지만, 운동장과 뒷편 구릉 그리고 구릉 밑의 밭에서는 설백색 또는 담청백색의 유색을 보이는 수직굽 혹은 굽이 높은 백자파편이 발견되며, 청화백자의 경우 간략한 초화문

(草花文)이나 ‘壽’, ‘福’의 문자를 작게 도안화하여 쓴 예가 확인된다.

④ 삼성리

도마리에서 북쪽으로 과학동을 지나 나타나는 삼정골 마을에 위치한다. 현재까지 1개의 가마터가 발견되었으며, 15-16세기에 백자를 제작하던 곳이다.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설백색의 도립삼각형굽과 담청백색의 죽절굽 백자, 그리고 갑발과 갑발뚜껑이 혼재한다.

(8) 분원의 조직과 운영

광주군 일대에는 사용원(司饔院)이 관할하는 사기제조장(沙器製造場)인 분원(分院)이 설치되어 조선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왕실용과 관청용의 사기제작을 관리하고 감독하였다. 사용원의 임무는 왕에게 어선(御膳)을 바치는 일과 궐内の 음식제공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것이었지만, 사기(沙器)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그 역할이 확대되어 어용(御用) 및 궁중소용의 그릇제작을 직접 주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기그릇을 만드는 제작지에는 작업을 감독하는 관리가 파견되고 관청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사용원의 분관인 ‘분원’인 것이다.

분원이 처음 설치된 시기는 1467-1468년 사이로,¹²⁸⁾ 예종 원년(1469)에 반포된 『경국대전(經國大典)』 공전(工典) 경공장(京工匠) 조에 따르면, 사용원에 소속된 380명의 사기장(沙器匠)이 백자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용원 소속의 사기장은 당시 지방에서 비교적 질이 좋은 자기를 제작하던 장인을 선별하여 경공장에 편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¹²⁹⁾ 사기장의 수로 미루어 광주에 분원이 설치된

125) 尹龍二, 앞의 책, p.409-410.

鄭良謨 선생은 1720년 이후부터 1751년 사이에 제작활동을 벌였던 곳으로 보고 있다(鄭良謨, 앞의 책, p.171).

126) 『輿地圖書』上卷 京畿道 廣州 楊根府 物産條, “今增磁器 今上壬申 移設廣州播造所于都南 五十里南終面 每歲司饔院官監造勿用之器”

127) 尹龍二, 앞의 책, p.410.

128) 金英媛, 『朝鮮前期 陶磁의 研究』, 1995, 學研文化社, p.232.

129) 田勝昌, 「15世紀 陶磁所 考察(上)」, 『湖巖美術館 研究論文集』, 1號, 1996, pp.98-100.

초기부터 관어용(官御用) 자기(磁器)를 대규모로 제작하였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380명의 자기장이 분원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였고, 이처럼 대규모의 인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였는가에 대한 조선시대 초기의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후대의 기록인 인조 3년(1625)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호(戶)와 봉족(奉足)을 합하여 1,140명이던 분원의 자기장이 해마다 평계를 대고 도방하여 겨우 821명만이 남아 있다”고 적고 있으므로,¹³⁰⁾ 전체적인 자기장의 운영은 분삼번입역제(分三番入役制)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140명이 정원이었던 자기장의 수가 17세기 전반에는 821명으로 줄었고, 18세기 중반에 분원의 규모와 규정을 기록한 『분주원보담(分廚院報臚)』에는 총인원이 552명으로 되어 있어, 분원의 인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분주원보담』에는 당시 분원의 인적구성과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기록에 따르면 감관(監官)을 비롯하여 분원경영의 실무를 담당했던 원역(員役), 사령(使令)이 27명이었고, 자기의 제작에 관계되는 장인은 변수(邊首), 조기장(造器匠), 마조장(磨造匠), 건화장(乾火匠), 수비장(水飛匠), 연장(鍊匠), 참역(站役), 화장(火匠), 조역(助役), 부호수(釜戶首), 감화장(監火匠), 화청장(畫靑匠), 연정(鍊正), 착수장(着水匠), 파기장(破器匠) 등 108명, 기타 잡역으로는 공사군(丁沙軍), 운회군(運灰軍), 허벌장(許伐匠), 부회군(浮灰軍), 수토재군(水上載軍), 수토감관(水土監官), 수세고군(收稅庫軍), 노복군(路卜軍), 진상결복군(進上結卜軍), 감고(監考) 등 417명이 있었으며,

총인원 552명의 거대한 조직이지만 작업만큼은 고도로 분업화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¹³¹⁾ 분원의 제작활동 기간은, 성현(成俔)의 『용재총화(齋叢話)』에 “매년 사옹원 관리를 파견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자기만드는 일을) 감독하고 제작하여 어부(御府)에 수납한다”고 적고 있으므로,¹³²⁾ 해동기(解冬期)부터 결빙기(結氷期)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작활동에 따른 관리는 종8품(從八品)인 봉사(奉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들중 한 명이 자기의 제작이 있을 때마다 분원으로 파견되었는데, 이를 번조관(燔造官) 혹은 분원낭청(分院郎廳)이라고 불렀다.¹³³⁾ 봄부터 가을까지 분원에서 제작되던 자기의 수량은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19세기 후반 1867년(고종4)에 편찬된 『육전조례(六典條例)』에 따르면 특별한 행사나 목적에 의해 만들어지는 별번(別燔)의 제작량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경우 1,327죽(竹, 1죽은 10개), 즉 13,270개였다.¹³⁴⁾ 분원에서 자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재료인 백토(白土)의 공급이 중요한 문제였다. 조선시대 초기의 백토 산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6세기인 1530년(중종25) 『중종실록(中宗實錄)』에는 “자기를 만드는 백점토(白粘土)는 이전에 사현(沙峴)이나 충청도에서 가져다 썼지만 지금은 양근(楊根)에서 파다 쓴다”고 적고 있으며,¹³⁵⁾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는 양구(楊口), 봉산(鳳山), 진주(晋州), 선천(宣川), 충주(忠州), 경주(慶州), 하동(河東), 곤양(昆陽) 등지에서 상황에 따라 채취하였음이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¹³⁶⁾

한편, 18세기 중반인 1746년(영조22)에 완성된 『속대전(續大典)』공전(工典) 잡령조(雜令條)에는, “사옹

130) 『承政院日記』七冊 仁祖 3年 7月 2日, “李敏求以司窰院官啓曰 法典內 戶奉足拜一千一百四十名內 年年逃故第 只存八百二十一名...”

131) 淺川巧, 『朝鮮陶磁名考』, 1931, 東京 朝鮮工藝刊行會, pp. 132-142에서 재인용.

132) 成俔, 『慵齋叢話』, 卷10, “...每歲遣司窰院官 分左右邊... 從春至秋 監造而輸納于御府...”

133) 尹龍二, 앞의 책, p. 386.

134) 『六典條例』卷二 司窰院 分院, “...各標沙器一千三百七十二竹隨燔進上...”

尹龍二, 앞의 책, p. 392.

135) 『中宗實錄』卷67 25年 2月 乙丑, “...沙器燔造白粘土 前者或於沙峴或於忠清道取用 今則又於楊根地掘取”

원 번조사기의 원료로는 광주(廣州), 양구, 진주(晋州), 곤양(昆陽) 등지의 백토가 가장 적합하다”는 기록이 있어,¹³⁷⁾ 분원이 설치되었던 광주에서도 질이 좋은 백토가 채취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육전조례』에도 “광주 수토(水土) 1,400석을 굴급(掘給)하면 선박으로 운반해 온다”는 기록이 있는데,¹³⁸⁾ 당시 1년 동안 분원으로 운반되는 각 처의 백토는 합계 2,095석으로 그중 반이 넘는 1,400석이 광주의 흙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량은 전국 어느 지방의 백토보다도 많았다.¹³⁹⁾

백토만큼이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자기제작에 소용되는 땔나무(樵木)의 조달이었다. 분원은 필요한 땔나무의 조달을 위하여 숲이 울창한 일정 지역을 조정으로 부터 분할받았고 여기에서 번목(樵木)을 채취하여 연료로 사용하였는데, 이곳이 주로 광주지역에 해당한다. 연료조달의 문제는 분원의 운영이나 가마의 설치 및 이설(移設)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현재 광주지역 일곱 개 읍과 면에 걸쳐 요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분원은 연료조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략 10년 정도를 주기로 대개 광주 내의 수목이 무성한 곳을 찾아 이전하였다. 분원이 한 번 설치되어 땔나무를 채취한 곳은 나무가 다시 무성해질 때까지 비워 두었다가 다음에 다시 그곳에 분원을 설치하고 수목을 채취하는 것이 원칙이었다.¹⁴⁰⁾ 그러나 17세기 후반 숙종대(肅宗代)부터는 화전민(火田民)이 유입되고, 점차 그 수가 증가하면서 화전으로 개간되어 황폐화되는 지역이 넓

어졌으며, 이같은 상황은 분원의 이동과 함께 18세기 중반까지도 지속되었다. 땔나무의 조달이 어려워지자 1752년부터는 이전과는 달리 현재의 남종면 분원리에 분원을 고정시켜,¹⁴¹⁾ 나무를 운반해 사용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운영방법은 분원이 민영화되는 1883년까지 지속되었다.

광주는 조선시대의 관영사기장인 분원이 설치되어 백자를 만들던 곳으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의 요지군(窯址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동안 왕실용의 최고급 백자가 제작되던 곳으로, 우리의 우수한 도자문화는 물론 조선시대 전기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유적지이자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광주일대에 산재해 있는 요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학자에 의해 일부 지역이 조사된 것을 비롯하여, 국공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 사립미술관 등에 의하여 전지역 혹은 부분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지표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요지의 분포와 각 요지별 제작품의 특징, 제작시기, 문헌자료의 발굴과 검토, 그리고 분원에 대한 연구 등이 폭넓고 깊이 있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해가 거듭될수록 광주지역의 요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고, 그만큼 국내외적으로도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었다.

1980년대에 조사된 요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가마터는 약 288 곳에 달하며, 앞으로도 구릉이나 임야지역에서 더 많은 가마가 발견될 가능성이 많

136) 『承政院日記』三百七十二冊 肅宗23年 7月 26日, “...晉州發送白土 所載船隻 覆沒金羅道靈巖地...”, 『承政院日記』三百九十三冊肅宗27年 8月 14日, “...楊口不合於築器爐造 故每以宣川忠州慶州等邑土 掘取爐造矣...”, 『承政院日記』四百四十六冊 肅宗35年 1月22日, “...鳳山白土性剛善折之 故敗船風土...”, 『承政院日記』四百六十五冊 肅宗38年 1月 11日, “...上年楊口白土春川紅隻所載者十四石...”, 『承政院日記』四百八十冊肅宗49年 8月 4日, “...司窰院啓曰昆陽水乙土之 已盡...則河東土品 雖不及於昆陽 猶有勝於他處 故仍爲掘取以來矣...”

137) 『續大典』卷六 工典 雜令, “司窰院爐造磁器一年二次春秋進上 廣州楊口晉州昆陽最宜爐土處掘取船運”

138) 『六典條例』卷二 司窰院 分院, “...廣州水土一千四百石 本府掘給 則定船運來...”

139) 尹龍二, 「광주분원과 도자제작」, 『경기도 역사의 문화』, 1997, p.218.

140) 『承政院日記』二百五十五冊 肅宗 2年 8月 1日條.

李顯微以司窰院官員以都提意啓曰 分院沙器爐造之所排設取柴 若近十年 則樹木既盡 決難繼爐 故例移於他處矣...

141) 『輿地圖書』上卷 京畿道 廣州 楊根府 物產條, “今增磁器 今上壬申 移設廣州爐造所於都南五十里南於面 每歲司窰院官監造御用之器”

다. 그러나 새로운 가마의 발굴보다는 기존에 확인된 요지에 대한 현상보존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특히, 최근 십 수년간 급격히 진행된 개발로 대지나 도로, 혹은 밭과 논 등으로 변화되어 백자파편을 확인하기 힘든 곳조차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작위적인 훼손이 진행된 곳도 있으며, 심지어는 숲에 가려져 접근이 어려운 임야지역의 요지들도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요지에 관한 구체적인 현상파악과 보존대책의 수립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도자기의 나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우수한 자기를 제작하였으며, 오늘날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광주는 세계적인 선진 자기문화를 이룩해낼 수 있었던 중심으로, 마땅히 국내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곳이다.

3) 불교유적 분야

광주군 불교유적 조사에서 확인된 사찰과 사지는 총 16개소로 그중 開元寺를 비롯하여 國淸寺, 望月寺, 長慶寺, 南壇寺址, 東林寺址, 靈源寺址, 玉井寺址, 天柱寺址, 漢興寺址 등은 남한산성 안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이외의 明性庵, 修道寺, 奉日寺, 白蓮庵 등은 南終而과 都尺面, 陶水里寺址와 天眞庵址는 退村面에 각각 분포되어 있다.

현존하는 유물로는 고려시대 석조불상이 1점, 조선시대 불상 2점, 조선시대 石鐘型 부도 1점, 조선후기의 불화 4점 등으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조성된 유물들이다. 특히 開元寺 佛乳閣에 안치된 고려시대의 석불입상은 얼굴의 세부표현이나 옷주름 표현, 기둥과 같은 느낌의 큰 불상이라는 점 등에서 고려초기에 충청도 지역에서 크게 유행한 대형불상의 한 형태로 고려시대 불상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만 불상의 다리 아랫부분이 현재 石壇으로 가려져 있어 전체적인 형태

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이 석불입상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새로운 자료로서 이번 광주지역 불교유적을 조사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불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좀더 구체적인 조성연대가 밝혀지면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에 귀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문화재로서 지정되어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불화 4점은 단순한 구도나 형태, 색채 등에서 다소 조형성이 떨어지는 조선후기 불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나 畵記에 의해 1890년 또는 1898년에 제작된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조선후기 불화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다. 현재 소장되어 있는 사찰의 규모나 보완시설 등이 미비한 점으로 볼 때 역시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寺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폐허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각 사지에 그나마 남아 있는 유물도 쉽게 파손되고 손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사지와 관련된 유물의 수집은 물론이고 새로운 자료의 발견과 함께 보호책이나 안내판과 같은 시설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광주지역은 백제의 옛서울이 있었으며 후삼국시대 궁예의 본거지인 철원지역과 고려의 도읍지인 개성과도 인접해 있고 조선왕조의 수도의 일부 또는 외곽지역이었으므로 삼국시대 이래로 오래된 古都이자 중요한 지역으로 주목받았던 곳이다.

『三國史記』권24 『百濟本紀』에는 “385년(침류왕 2) 漢山에 절을 세우고 10명의 승려를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三國遺事』권3 『興法第三』에도 “제 15대 침류왕이 즉위한 384년에 印度僧 摩羅難陀가 東晉에 이르니 그를 맞이하여 궁중에 두고 예로써 공경하였다. 이듬해 385년에 새서울 漢山州에 절을 짓고 승려 10명을 두었으니 이것이 백제 불법의 시초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경기도 광주지역은 백제때부터 불교가 전래되어 사찰을 비롯한 불상,

탑, 불화 등이 조성되면서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광주지역에서 시대가 올라가는 오래된 유물의 예는 거의 발견된 바가 없으며 오히려 경기도 驪州나 安城 일대에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高達寺址, 석불대좌(보물 제 8호)를 비롯하여 元宗大師慧眞塔(보물 제 7호)과 塔碑의 귀부와 이수 등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재 광주지역의 불교유적은 『京畿道佛蹟資料集』(경기도박물관, 1999)에 의하면 총 37개소인데 대부분 조선시대에 건립된 사찰과 寺址들이며 고려시대 불상도 1점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서 기록과 함께 유적이 남아 있는 사찰은 長慶寺를 비롯하여 開元寺, 國淸寺, 望月寺, 南壇寺址, 東林寺址, 天柱寺址, 漢興寺址, 玉井寺址, 靈源寺址, 明性庵, 白蓮庵, 天眞庵址 등 13개의 사찰이 있는데 남한산성이 위치한 中部面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외 南終面과 都尺面, 退村面에 각각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기록은 남아 있지만 현재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절터는 약 20개소에 이르며 기록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찰 또한 4개소에 해당한다.

현존하는 유물로는 開元寺의 석불입상과 유정리 석불좌상, 修道寺의 목조보살좌상 등 고려와 조선시대 불상이 있으며 부도로는 白蓮庵에 있는 조선시대의 石鐘型 부도 1기와 조선 후기 불화 4점이 明性庵에 전하고 있다. 특히 開元寺에 봉안된 석불입상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고려 초기에 충청남도 지방에서 유행한 대형석불의 하나로 고려시대 불상양식을 보여줄 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매우 주목할만하며 고려시대 불상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광주지역의 불교유적은 남아 있는 예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대체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하고 특색있는 불교미술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광주지역이 고려시대 이후로 불교와 관련하여 중요지역이 되면서 불교미술이 성했던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抑佛崇

儒 정책 아래 불교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었던 조선시대에 사찰을 비롯한 불상, 불화 등의 佛事가 광주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壬辰倭亂, 丙子胡亂과 같은 국난 이후 새로이 부흥된 조선후기의 불교정책과 관련있는 것이다. 즉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민중의 신앙심을 고조시켜 불교신도의 양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특히 國亂 때마다 활약했던 僧軍에 의해 불교가 다시 일어나면서 많은 사원이 증창되고 佛事들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남한산성내의 사찰은 이러한 국가적인 신앙형태로서 護國佛教의 성격에서 건립되었으며 불상이나 불화, 부도 역시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의 전성기 불교미술이 보여주는 창의력이나 조형적인 우수성은 찾아볼 수 없지만 단순화되고 형식화되는 등 나름대로의 양식적 특징을 지니면서 전개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광주지역의 불교유적 조사는 각 지역별의 불교유적 조사와 함께 앞으로 보다 많은 새로운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경기도 불교미술문화나 더 나아가 조선시대의 불교미술을 밝히는데 기초적인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4) 유교유적 분야

그동안 광주군의 유교유적은 『문화유적총람』(1977)을 필두로하여 『광주군지』(1990), 『광주군 문화유적현황』(1996), 『광주 향토 사료집』(1997·1998) 등에서 조사 보고되었지만 대부분 간략한 조사에 그쳤으며 유적도 거의 중복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료의 발굴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전문 학술기관에 의한 정밀 지표조사의 실시는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금번 조사의 가장 큰 성과로, 원형이 잘 보전된 10여 곳의 세장지를 확인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중에서도 광주읍 직리의 외령남씨세장지(남세전·남이신·남두침), 광주읍 중대리의 광주안씨세장지(안윤덕·안

항), 남종면 수청리의 함양여씨세장지(여유길·여이징·여성제), 실촌면 신대리의 평산신씨세장지(신립·신준·신완·신성하), 초월면 신월리의 광주이씨세장지(이손·이수언·이소), 퇴촌면 무수리의 광산김씨세장지(김익훈·김진상·김상악)에는 조선중기부터 후기까지 분묘의 형식과 석물조각사의 유기적인 설명이 가능할 정도의 자료들이 집중되어 있어 조선시대 묘제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유적으로 평가되었다. 단일묘가 아닌 세장지가 이렇듯 잘 보존되어 내려온 것은 물론 후손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광주군의 개발이 도내의 타군보다 늦게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세종대(1418-1450)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안대군(1382-1398), 안망지(?-1424), 권진(1357-1435), 맹사성(1360-1438), 노물채(1396-1446)의 묘소를 확인하였다. 이들 묘소를 통해 우수하였던 세종대(1418-1450) 문화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였는데, 추후 조선전기의 묘제와 석물의 연구에 있어서 기준작으로 삼을 만한 유적들로 평가된다.

또한 조선초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계기적으로 조성된 여러 분묘들에서 다양한 개성을 지닌 분묘 형태와 다수의 석물을 확인하였는데, 관련 족보와 문집 등 문헌자료의 수집 보완에 의해 이들 분묘와 석물들의 역사적 중요성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예사 연구의 중요한 금석문을 다종다양하게 발견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중기 왕희지체의 대가로 이름을 크게 떨쳤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여지껏 연구되지 못하였던 金希壽(1475-1527)와 그의 아들 金魯(1498-1548)를 포함한 여러 서예가의 작품 수집기를 새로 확인하였고 한중서예가의 集字碑 5기도 추가로 발견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하였다.

앞으로 이들 유적의 보존을 위한 관련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고건축 분야

광주군 전수조사 결과, 해방이전에 지어진 가옥의 건립시기는 대부분 19세기말부터 1945년까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은 상량문이 남아있는 경우는 그 확인으로, 상량문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탐문과 가옥의 상태를 보아 판단하였다.

경기도 지역은 조선시대 이후 수도에 근접한 지역으로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곳으로, 광주군 또한 그 한 부분을 이룬 지역이다. 이같은 지리적 특성은 다른 지방보다도 수도권의 기술과 사상의 전파가 빨리 이루어지는 결과를 이루어, 전통주거에서도 그 영향이 보여진다.

광주군의 전통가옥들은 앞서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광주군 지역의 20세기 전반기의 주거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1) 평면형태의 특성

경기도 지역은 산간지역과 평야, 해안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주거의 모습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곱은자집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된다. 즉 서울을 포함하는 경기 지역의 서민계층이 주거유형으로서 곱은자집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알려져왔다.

곱은자집은 ㄱ자형의 가옥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안채의 구체적인 구성요소가 부엌·안방·대청·건너방이라 할때, 이들이 부엌·안방의 배열축과 대청·건너방의 배열축으로 나누어 서로 직교되게 배열하는 것을 기본형으로 하는 것이다.

곱은자집은 바깥채와 더불어 ㄷ자형이나 ㄷ자형의 완결된 형태를 갖추게 되나, 바깥채가 가변적인 반면에 안채는 어떤 원형을 유지하며 보다 격식을 가지고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번 광주군의 조사 결과, 바깥채의 경우는 가변성의 결과로서 그 원형을 찾아보기는 힘들고 거주인의 필요에 따라 생성과 변형을 계속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안채의 경우는 전수조사결과 발견한 해방이전에 건립된 가옥 중 그 평면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54채의 가옥 중 43채가 ㄱ자형의 배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광주군에서도 대표적인 주거형태가 곁은자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안채와 바깥채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전체 배치의 경우는 조사가옥 54채의 가옥 중 20채가 튼 ㄱ자형의 배치를, 17채가 ㄴ자형의 배치를 보이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광주군의 곁은자집 중에서는 퇴가 없는 홑집은 거의 없다. 반면에 부엌에 전퇴가 있거나, 대청·전년방에 전퇴가 있는 경우, 부엌·대청·전년방에 모두 전퇴가 있는 경우 등 곁은자집 중에서도 뒤풀이 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안채의 경우 실의 구성은 부엌-안방-대청-전년방이 기본적인 실구성이다. 여기에 안방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안방과 윗방으로 분리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가옥이 부엌에 전퇴가 있어 부엌의 규모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구조의 특성

구조적인 특징으로는 평4량의 분포를 들 수 있다. 이번 전수조사시 안채의 대청 상부기구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3량집, 4량집, 5량집이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다.

이중 4량집의 경우 대부분이 평4량으로서 광주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평4량구조란 ‘처마도리와 중도리에는 경사 서까래를 걸어 용마루 부분을 積心 또는 덧서까래로 꾸민 지붕틀’이다.¹⁴²⁾ 이와 같은 평4량 구조는 중도리를 생략하여 내부공간의 변용을 이루는, 종래의 목조기구법 상

의 규범으로 보면 파격적인 면이 있는 경기도 지역의 특징적인 형식이다.

이러한 평4량 구조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광주군의 전통가옥들이 대부분 곁은자집 중에서도 뒤풀이 집인 경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퇴칸을 만들기 위한 것이 그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즉 퇴를 내면서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평4량구조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18세기 후반부터 현실생활에 있어서 실용적인 학문이 일어나고,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상적인 주생활들을 개선해 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수도를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에 이러한 사상적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평4량구의 가구형식 개량은 이러한 주거문화의 근대화를 위한 움직임으로서 일반 서민층에서 실용주의적 주의식이 자생적으로 자리잡은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전통가옥에 대한 관심은 조선시대에 건립된 반가와 대표적인 민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조선시대 말 이후 해방이전 까지 건립된 가옥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의 전통주거에 대한 연결고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점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시기에 이루어진 우리의 전통가옥을 찾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전통가옥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군 또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화에 따라 전통가옥들이 소멸해가고, 그 전통가옥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전수조사는 해방이전에 건립된 광주군의 전통가옥에 대한 자료를 남길 수 있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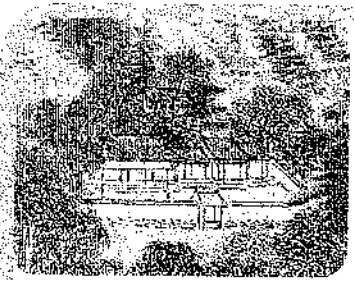
142)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집』, 1982, 아진문화사

〈광주군 해방이전 건립가옥 목록 1〉

지 역	가 옥 명	소 재 지 (마을명)	시 대	비 고
광 주 읍	김사곤 가옥	탄벌2리 344(숯가마밭)	1938	
	서덕원 가옥	목현1리 (새오개)	해방이전	
	안해수 가옥	중대리 210-13 (터굴)	해방이전	
	남승현 가옥	직리 189 (곰은골)	해방이전	
	남택수 가옥	직리 (곰은골)	1881	
	안병천 가옥	장지1리 86 (앞가지)	1937	
	이용돈 가옥	장지2리 33 (뒷가지)	해방이전	
	정용준 가옥	장지2리 37 (뒷가지)	1914	
남 중 면	이해창 가옥	이석리 9 (석림동)	1915	
	김종옥 가옥	삼성리 291 (죽동)	해방이전	
	이춘열 가옥	삼성리 354 (삼정골)	1885	
	최지숙 가옥	귀여2리 551 (제청밭)	1944	
	한경우 가옥	귀여2리 54-3 (제청밭)	해방이전	
	한건동 가옥	귀여1리 (괴내)	해방이전	
	김용학 가옥	검천1리 865 (능곡)	해방이전	
	이윤호 가옥	검천1리 (능곡)	1899	
	이수경 가옥	검천3리 7-2 (검단)	1875	
	수청리 빈집	수청리 332 (작은청탄)	1939	
	최정순 가옥	수청2리 (작은청탄)	1925	
	변영순 가옥	수청1리 729-1(큰청탄)	해방이전	
	변무희 가옥	수청1리 큰청탄	해방이전	
	여성제선생 생가	수청1리 (큰청탄)	해방이전	
도 척 면	이종옥 가옥	방도1리 650 (공밭)	1944	
	노승렬 가옥	진우1리 449 (진밭)	해방이전	
	이덕순 가옥	유정2리 (기록동)	1933	
	구민회 가옥	유정1리 (별밭)	1936	
	임현규 가옥	유정1리 (별밭)	해방이전	

〈광주군 해방이전 건립가옥 목록 Ⅱ〉

지 역	가 옥 명	소 재 지 (마을명)	시 대	비 고
실 촌 면	박양순 가옥	수양3리 507 (구양동)	해방이전	
	이순이 가옥	상열미리 11 (상열미)	해방이전	
	강석규 가옥	중열미리 144 (중열미)	해방이전	
	김영철 가옥	신대리 139-3 (새터)	1943	
오 포 면	김항기 가옥	봉천2리 69 (살월리)	1907	
	신현리 빈집	신현4리 (상배)	1907	
	노홍운 가옥	능평2리 225 (창졸)	1939	
	최영복 가옥	능평3리 151 (광주)	1899	
	박상봉 가옥	문형1리 63 (봉굴)	1886	
	박창환 가옥	문형1리 (봉굴)	해방이전	
	김계돌 가옥	추자2리 53-3(가래울)	해방이전	
중 부 면	방병식 가옥	엄미2리 (벽수골)	1942	
	오전리 빈집	오전리 (둔전)	1919	
	공석봉 가옥	엄미리 465 (양지)	해방이전	
	불당리 빈집	불당리 202 (윗밭)	1891	
	김평엽 가옥	불당리 (연계)	1888	
	김창배 가옥	오전리 (둔전)	1932	
	김창현 가옥	오전리 (둔전)	1933	
초 월 면	박금단 가옥	신월2리 (신단)	1931	
	박상순 가옥	신월2리 287 (신단)	1943	
	박금래 가옥	지월1리 642-2 (도사랑)	해방이전	
	안근식 가옥	서하리 118 (사마루)	1939	
외 촌 면	신익희선생 생가	서하리 160-1 (사마루)	해방이전	경기도 기념물 134호
	홍성현 가옥	관음1리 700-1 (절골)	1932	
	지창환 가옥	영동리 198 (거벽골)	1941	
	이정숙 가옥	도수3리 (탑선동)	1943	
	강순례 가옥	정지리 (아랫밭)	1939	



V. 유적분포지도

양수

국수

성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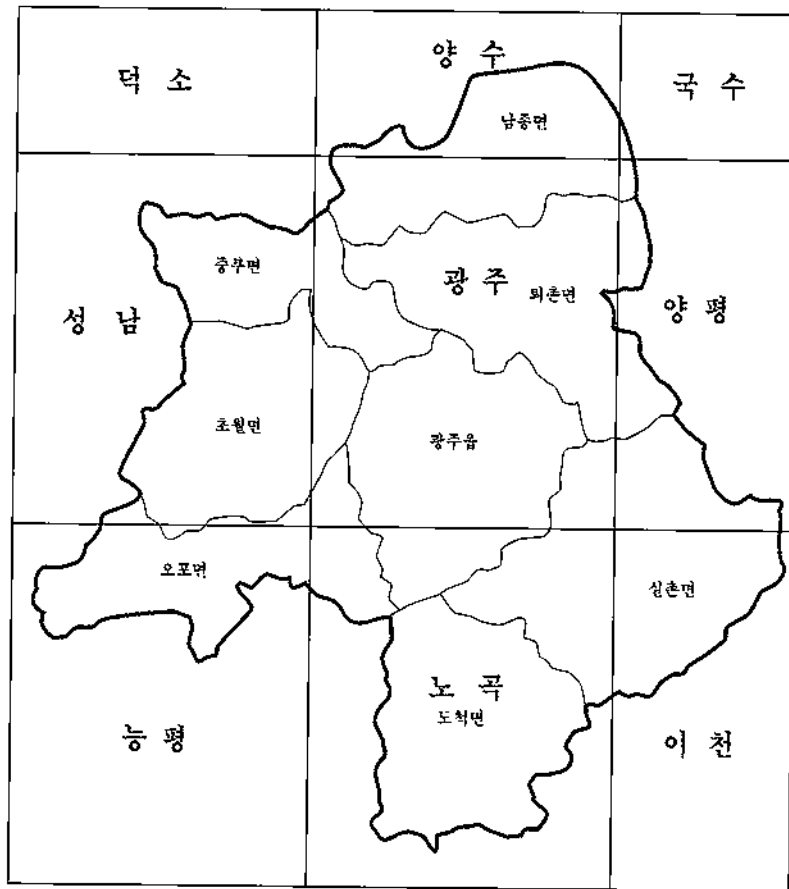
광주

양평

능평

노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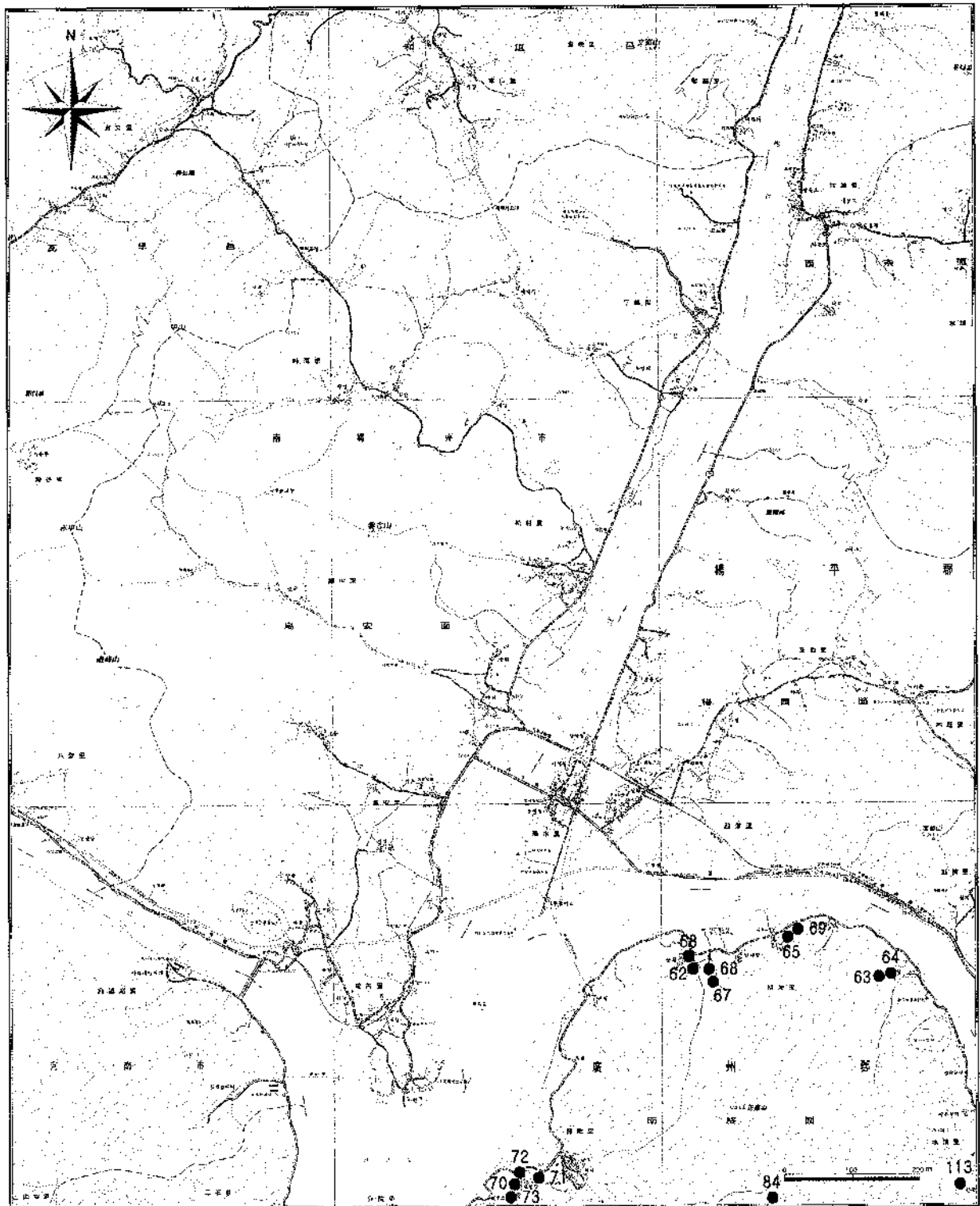
이천



유적분포지도 색인도

양 수

No. 2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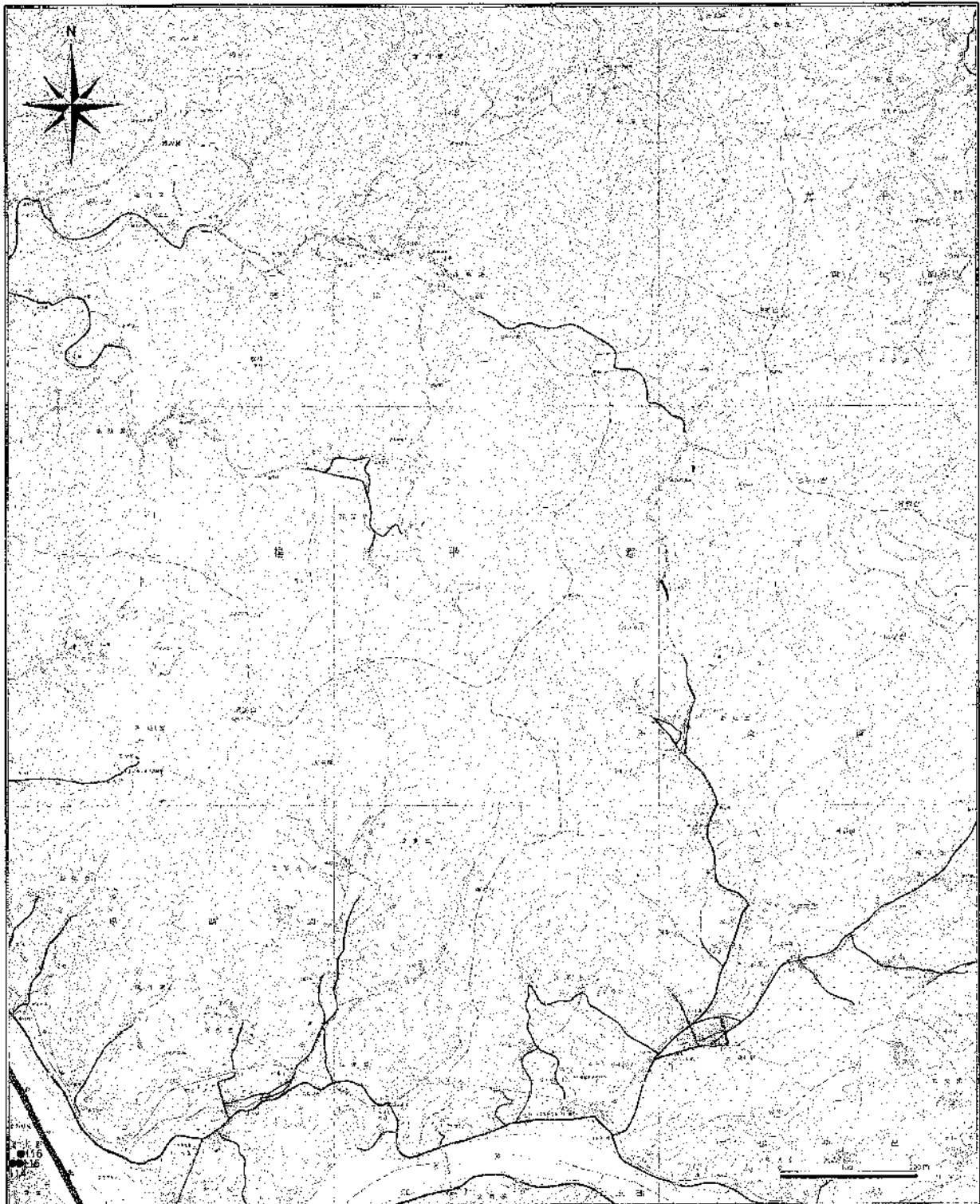


양 수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62	심구령 묘	남종면 검천리 산92-1	묘	조선		
63	여평주묘	남종면 검천리 산31-3	묘	조선		
64	청주한씨 묘와 묘갈	남종면 검천리 산31-3	묘	조선		
65	문창문 효자비	남종면 검천리 450-1전	효자비	조선		
66	김용학 가옥	남종면 검천리 856(능곡)	고가	근대		
67	이운호 가옥	남종면 검천리(능곡)	고가	근대		
68	검천리 느티나무	남종면 검천리 865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38	
69	검천리 은행나무	남종면 검천리 402-1남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39	
70	김석주 묘와 신도비	남종면 귀여리 산75-1	묘	조선		
71	명성암	남종면 귀여리 551	사찰	조선		
72	최지숙 가옥	남종면 귀여리 551	고가	근대		
73	한경우 가옥	남종면 귀여리 54-3	고가	근대		
84	귀여리 도요지 11	남종면 귀여리 다람네골	도요지	조선		
113	여성제 묘와 신도비	남종면 수청리 산101-10	묘	조선		

국수

No. 2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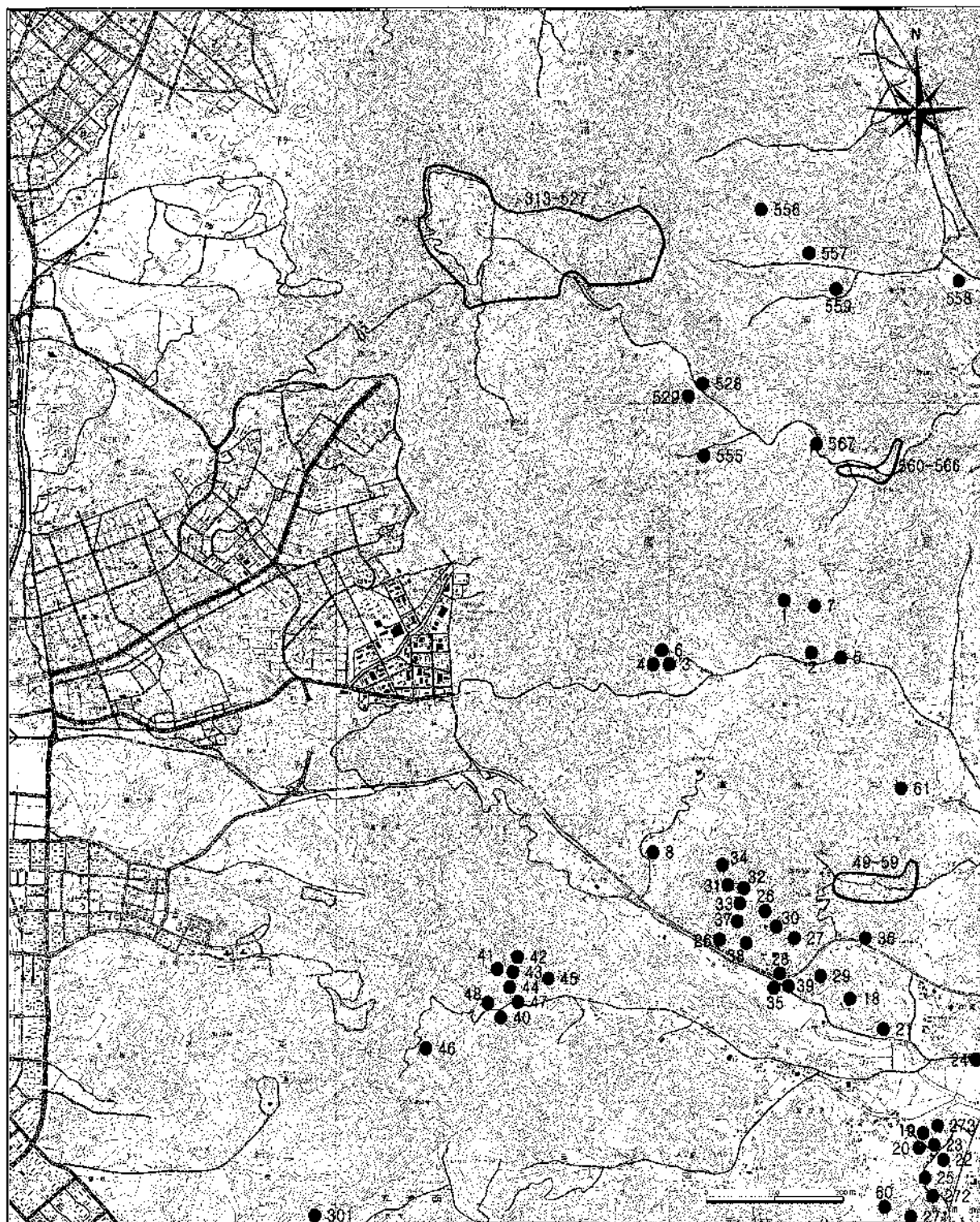


국 수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114	여유길 묘와 묘갈	남종면 수청리 산101-1	묘	조선		
115	여이장 묘와 신도비	남종면 수청리 산101-임	묘	조선		
116	여성제선생 생가	남종면 수청리(큰청탄)	고가	조선		

성 남

No. 190-4



성 남

번호	유적명	소재지	유적종류	시대	지정사항	비고
1	서명원 묘와 묘갈	광주읍 목현리 산 25-2	묘	조선		
2	서매수 묘	광주읍 목현리 산 25-임	묘	조선		
3	신수경 묘	광주읍 목현리 산 107	묘	조선		
4	신의 묘	광주읍 목현리 산 107	묘	조선		
5	목현리 도요지 1	광주읍 목현리 새오개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	목현리 도요지 2	광주읍 목현리 새오개	도요지	조선		
7	목현리 도요지 3	광주읍 목현리 새오개	도요지	조선		
8	삼리 유물산포지	광주읍 삼리 154-4전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신규
18	박문간 묘	광주읍 장지리 산54임	묘	조선		
20	정충량 묘와 묘갈	광주읍 장지리 산64임	묘	조선		
22	장지리 지석묘	광주읍 장지리 산64-1	선사분묘	청동기		
23	장지리 도요지	광주읍 장지리	도요지	고려-조선		신규
24	장지리 구석기 유적	광주읍 장지리 산1	선사유적	구석기		신규
25	장지리 청동기 유적	광주읍 장지리 산6701임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신규
26	안윤덕 묘와 신도비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27	이계통 묘	광주읍 중대리 산11-1임	묘	조선		
28	이세용 묘	광주읍 중대리 산11-1임	묘	조선		
29	이진 묘와 묘갈	광주읍 중대리 산10-6임	묘	조선		
30	안한준 묘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31	안한언 묘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32	안황 묘와 신도비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33	안응형 묘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34	안정복 묘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35	이석형 묘	광주읍 중대리 산11-6	묘	조선		
36	이석 묘와 묘갈	광주읍 중대리 산48-1임	묘	조선		
37	여택재	광주읍 중대리 197-2대	기타유적	현대		
38	충양사	광주읍 중대리 산15-2	사묘	현대		
39	함안이씨 정려문	광주읍 중대리 107-1대	정려문	현대		
40	직리 읍나무	광주읍 직리 28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1	
41	남세건 묘와 신도비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42	남호 묘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43	남이신 묘와 신도비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44	남두철 묘와 신도비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45	남선 묘와 신도비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46	맹사성 묘	광주읍 직리 산27임	묘	조선		
47	성재	광주읍 직리 168-3대	사묘	현대		
48	남택수 가옥	광주읍 직리(끝은골)	고가	근대 (1881)		
49	탄벌리 도요지 1	광주읍 탄벌리	도요지	조선		
50	탄벌리 도요지 2	광주읍 탄벌리	도요지	조선		
51	탄벌리 도요지 3	광주읍 탄벌리	도요지	조선		
52	탄벌리 도요지 4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3	탄벌리 도요지 5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4	탄벌리 도요지 6	광주읍 탄벌리	도요지	조선		
55	탄벌리 도요지 7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56	탄벌리 도요지 8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7	탄벌리 도요지 9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58	탄벌리 도요지 10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59	탄벌리 도요지 11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60	태전리 무문토기산포지	광주읍 태전리 산13-3임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신규
61	탄벌리 참나무	광주읍 탄벌리 산26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3	
74	귀여리 도요지 1	남종면 귀여리 수리울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75	귀여리 도요지 2	남종면 귀여리 수리울골	도요지	조선		
76	귀여리 도요지 3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77	귀여리 도요지 4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78	귀여리 도요지 5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79	귀여리 도요지 6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80	귀여리 도요지 7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81	귀여리 도요지 8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82	귀여리 도요지 9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83	귀여리 도요지 10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85	금사리 도요지 1	남종면 금사리 구터	도요지	조선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86	금사리 도요지 2	남종면 금사리 윗밭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87	금사리 도요지 3	남종면 금사리 윗밭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88	금사리 도요지 4	남종면 금사리 윗밭	도요지	조선		
89	금사리 도요지 5	남종면 금사리	도요지	조선		
90	금사리 도요지 6	남종면 금사리	도요지	조선		
91	금사리 도요지 7	남종면 금사리 구터	도요지	조선		
92	금사리 도요지 8	남종면 금사리 윗밭	도요지	조선		
93	금사리 도요지 9	남종면 금사리 구터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271	고산리 무문토기산포지	오포면 고산리 산4-1임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272	고산리 느티나무1	오포면 고산리 22대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42	신규
273	고산리 느티나무2	오포면 고산리 22대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46	
301	서명형 묘와 신도비	오포면 신현리 산97-1	묘	조선		
313	원성	중부면 산성리 산 1사	성	조선	사적 57호	남한산성
314	봉암성	중부면 산성리 산 5사	성	조선		남한산성
315	한봉성	중부면 검복리 산 99-8임	성	조선		남한산성
316	신남성동둔대	중부면 산성리 산성리 산99-8임	성	조선		남한산성
317	신남성서둔대	중부면 검복리 산 99-6임	성	조선		남한산성
318	남용성1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남한산성
319	남용성2	중부면 산성리 산 137임	성	조선		남한산성
320	남용성3	중부면 산성리 산142임	성	조선		남한산성
321	장경사신지용성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22	연주봉용성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남한산성
323	동문	중부면 산성리 산 6-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24	북문	중부면 산성리 산 667	성	조선		남한산성
325	서문	중부면 산성리 산 1246도	성	조선		남한산성
326	남문	중부면 산성리 산 1244도	성	조선		남한산성
327	신남성동둔대성문	중부면 검복리	성	조선		남한산성
328	신남성서둔대성문	중부면 검복리 산99-6임	성	조선		남한산성
329	남용성 홍예문	중부면 산성리 산137임	성	조선		남한산성
330	압문 1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31	압문 2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332	암문 3	중부면 산성리 산13사	성	조선		남한산성
333	암문 4	중부면 산성리 산13사	성	조선		남한산성
334	암문 5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남한산성
335	암문 6	중부면 산성리 산30사	성	조선		남한산성
336	암문 7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남한산성
337	암문 8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남한산성
338	암문 9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남한산성
339	암문 10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남한산성
340	암문 11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남한산성
341	암문 12	중부면 산성리 산5사	성	조선		남한산성
342	암문 13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43	암문 14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44	암문 15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45	암문 16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46	원성치 1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남한산성
347	원성치 2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남한산성
348	원성치 3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남한산성
349	원성치 4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남한산성
350	봉암성치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51	수구문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남한산성
352	수구 1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53	수구 2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54	수구 3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55	수구 4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56	수구 5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57	수구 6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58	수구 7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59	수구 8	중부면 산성리 산185읍	성	조선		남한산성
360	수구 9	중부면 산성리	성	조선		남한산성
361	수구 10	중부면 산성리	성	조선		남한산성
362	수구 11	중부면 산성리	성	조선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363	수구 12	중부면 산성리 산2사	성	조선		남한산성
364	수구 13	중부면 산성리	성	조선		남한산성
365	수구 14	중부면 산성리 산30사	성	조선		남한산성
366	수구 15	중부면 산성리 산30사	성	조선		남한산성
367	수구 16	중부면 산성리 산30사	성	조선		남한산성
368	수구 17	중부면 산성리 산137사	성	조선		남한산성
369	수구 18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70	수구 19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71	수구 20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72	수구 21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73	수구 22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74	수구 23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성	조선		남한산성
375	수구 24	중부면 산성리 산5사	성	조선		남한산성
376	수구 25	중부면 산성리 산5사	성	조선		남한산성
377	수구 26	중부면 검복리 산99-8임	성	조선		남한산성
378	수구 27	중부면 검복리 산99-8임	성	조선		남한산성
379	수구 28	중부면 검복리 산99-6임	성	조선		남한산성
380	남용성 포루 1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남한산성
381	남용성 포루 2	중부면 산성리 산37임	성	조선		남한산성
382	남용성 포루 3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남한산성
383	동성포루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남한산성
384	장경사웅성포루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남한산성
385	연주봉웅성포루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남한산성
386	한봉성포루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남한산성
387	등장대지	중부면 산성리 산15사	성	조선		남한산성
388	북장대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남한산성
389	수어장대	중부면 산성리 산85-1사	성	조선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호	남한산성
390	남장대	중부면 산성리 산32-1임	성	조선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호	남한산성
391	외등장대지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성	조선		남한산성
392	송렬전	중부면 산성리 산717사	사묘	조선	경기도유형문화재 제4호	남한산성
393	현절사	중부면 산성리 산310-1사	사묘	조선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394	사직단지	중부면 산성리 산94사	사묘	조선		남한산성
395	성황당.여단	중부면 산성리 산651사	사묘	조선		남한산성
396	기우제단	중부면 산성리 715-1사	사묘	조선		남한산성
397	청광당	중부면 산성리 715-1사	기타목조물	조선		남한산성
398	행궁상궐지	중부면 산성리 935-6전 일대	궁	조선		남한산성
399	행궁하궐지	중부면 산성리 935-3대	궁	조선		남한산성
400	좌진지	중부면 산성리 936-2전	궁	조선		남한산성
401	우실지	중부면 산성리 1070-1전	궁	조선		남한산성
402	재덕당지	중부면 산성리 935-1 전	관아,성곽건물	조선		남한산성
403	좌승당지	중부면 산성리 935-4전	관아,성곽건물	조선		남한산성
404	일장각지	중부면 산성리 935-4전	관아,성곽건물	조선		남한산성
405	한남루지	중부면 산성리 935-5대	관아,성곽건물	조선		남한산성
406	인화관지	중부면 산성리 550-14대	관아,성곽건물	조선		남한산성
407	연무관	중부면 산성리 400-1사	관아,성곽건물	조선		남한산성
408	이아지	중부면 산성리 388	관아,성곽건물	조선		남한산성
409	포도청지	중부면 산성리 526-1전	관아,성곽건물	조선		남한산성
410	군외청지	중부면 산성리 400-1사	관아,성곽건물	조선		남한산성
411	종각지	중부면 산성리 581-1대	관아,성곽건물	조선		남한산성
412	수창지	중부면 산성리 867-4	관아,성곽건물	조선		남한산성
413	영고지	중부면 산성리 373학	관아,성곽건물	조선		남한산성
414	별창지	중부면 산성리 373학	관아,성곽건물	조선		남한산성
415	구군기고지	중부면 산성리 400-사	관아,성곽건물	조선		남한산성
416	무방루지	중부면 산성리 85-1사	정,각	조선		남한산성
417	침패정	중부면 산성리 591-1사	정,각	조선	경기도유형문화재 제5호	남한산성
418	지수당	중부면 산성리 124-1	정,각	조선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4호	남한산성
419	구송정지	중부면 산성리 92임	정,각	조선		남한산성
420	관어정	중부면 산성리 124-1	정,각	조선		남한산성
421	영일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정,각	조선		남한산성
422	영춘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9임	정,각	조선		남한산성
423	육천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정,각	조선		남한산성
424	완대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정,각	조선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425	우회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정,각	조선		남한산성
426	유차산루지	중부면 산성리 935-4전	정,각	조선		남한산성
427	이위정지	중부면 산성리 936-4전	정,각	조선		남한산성
428	송암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9임	정,각	조선		남한산성
429	개원사	중부면 산성리 198-6	사찰	조선		남한산성
430	남단사지	중부면 산성리 103전	사지	조선		남한산성
431	한흥사지	중부면 산성리 산38	사지	조선		남한산성
432	장경사	중부면 산성리 22-1	사찰	조선		남한산성
433	망월사	중부면 산성리 14	사찰	조선		남한산성
434	동림사지	중부면 산성리 1	사지	조선		남한산성
435	옥정사지	중부면 산성리 265-1	사지	조선		남한산성
436	국청사지	중부면 산성리 812	사지	조선		남한산성
437	천주사지	중부면 산성리 831	사지	조선		남한산성
438	영원사지	중부면 검복리 2	사지	조선		남한산성
439	남웅성무인비	중부면 산성리 산137임	기념비	조선		남한산성
440	병암 남성신수기비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념비	조선		남한산성
441	봉암신성명인비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기념비	조선		남한산성
442	행궁앞 석비군	중부면 산성리 1223도	선정비군	조선		남한산성
443	남문앞 석비군 1	중부면 산성리 1173-4	선정비군	조선		남한산성
444	남문앞 석비군 2	중부면 산성리 1243도	선정비군	조선		남한산성
445	이세화 선정비	중부면 산성리 124-1	선정비	조선		남한산성
446	석세환 불망비	중부면 산성리 590-1대	선정비	조선		남한산성
447	국청사 불망비	중부면 산성리 804임	선정비	조선		남한산성
448	옥천정 압각문	중부면 산성리 산23임	기타비	조선		남한산성
449	반석암각문	중부면 산성리 935-6전	기타비	조선		남한산성
450	중은암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기타비	조선		남한산성
451	수어서대	중부면 산성리 815-1사	기타비	조선		남한산성
452	귀부	중부면 산성리 124-1	기타비	조선		남한산성
453	금림조합비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기타비	조선		남한산성
454	월성김씨효열비	중부면 산성리 975대	충효비	조선		남한산성
455	정씨정열비	중부면 산성리 142-2도	충효비	조선		남한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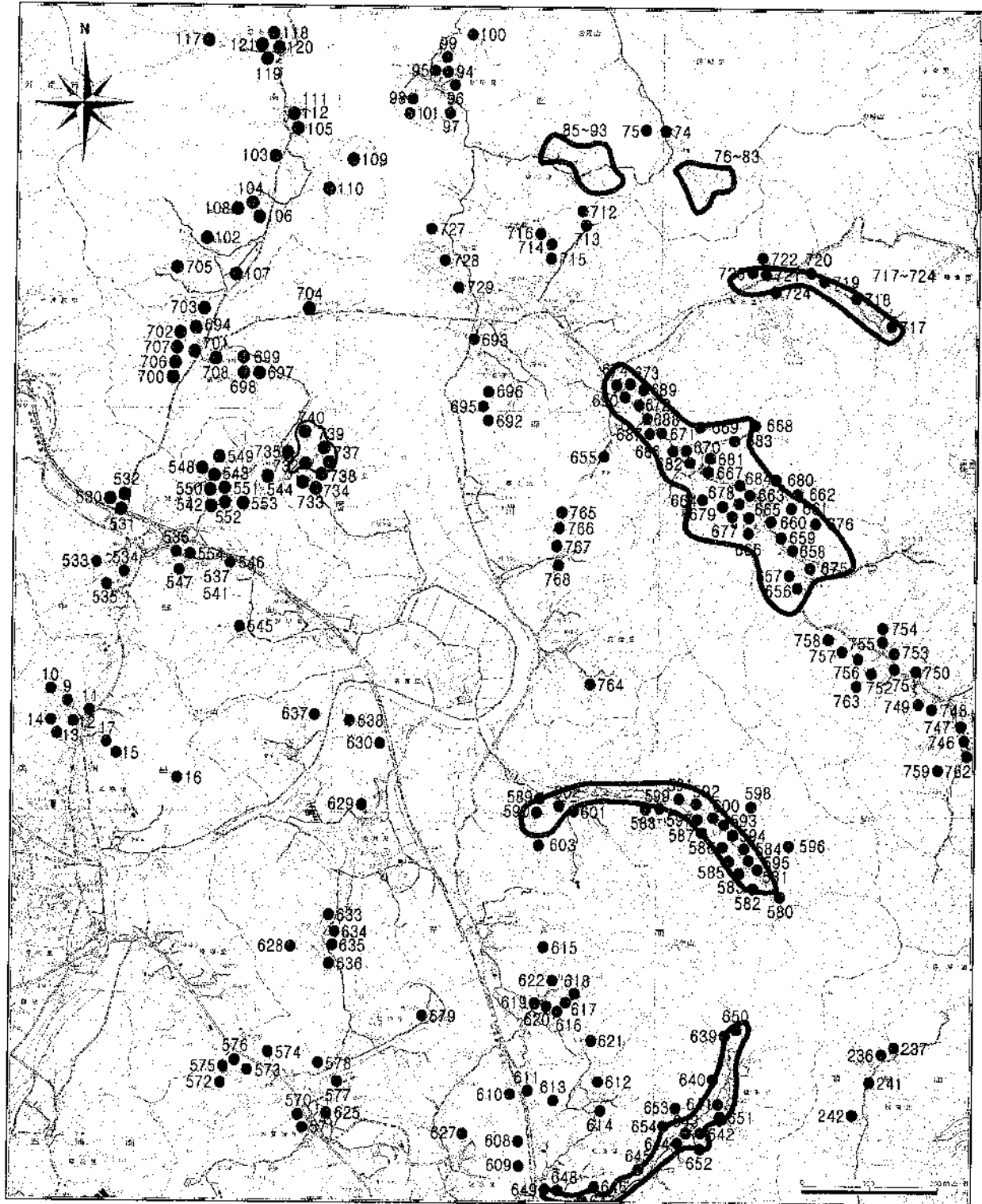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456	이대통령행차기념식수비	중부면 산성리 815-1사	기타비	근대		남한산성
457	서혼남묘비	중부면 산성리 124-1	묘비	조선		남한산성
458	주필암	중부면 김복리 103-1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59	동림사지 우물	중부면 산성리 1전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60	효자우물	중부면 산성리 1220구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61	국청사지 우물	중부면 산성리 813임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62	남단사지 우물	중부면 산성리 103전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463	옥정사지 우물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464	형제 우물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465	장군수 우물	중부면 산성리 804임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466	박달재앞 우물	중부면 산성리 1223도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467	개원사용왕당	중부면 산성리 198-6전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468	감로수	중부면 산성리 산18임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469	대궐할머니 우물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470	우목골 우물	중부면 산성리 1057전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71	붕어다리 우물터	중부면 산성리 948대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72	남문약수	중부면 산성리 1173-3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473	당지기 집터	중부면 산성리 815-3임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74	송수탑지	중부면 산성리 산28임	기타유적	근대		남한산성
475	대장간터	중부면 산성리 519-3대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76	도가터	중부면 산성리 581-3대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77	사형장	중부면 산성리 400-1사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78	도살장	중부면 산성리 44-6답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79	장터	중부면 산성리 400-1사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80	탁지부 측량소삼각점	중부면 산성리 815-1사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81	고마소	중부면 산성리 971전 일대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82	파녀터	중부면 산성리 459전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83	매염처	중부면 산성리 595-2전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84	배탄처	중부면 산성리 산17임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85	감투바위	중부면 산성리 871전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486	대부송	중부면 산성리 산9임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번호	유적명	소재지	유적종류	시대	지정사항	비고
487	매바위	중부면 산성리 815-1사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88	물방아	중부면 산성리 산183-3	기타유적	조선		남한산성
489	별바위	중부면 산성리 산2-1입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490	왕바위	중부면 산성리 산37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491	취성암	중부면 산성리 산19입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492	구멍바위	중부면 산성리 815-1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493	홍전분가옥	중부면 산성리 603	고가	근대		남한산성
494	안동순가옥	중부면 산성리 947	고가	근대		남한산성
495	김원려가옥	중부면 산성리 447	고가	근대		남한산성
496	매바위	중부면 산성리 815	민간신앙	미상		남한산성
497	벌봉 서낭당	중부면 산성리 산 2	민간신앙	미상		남한산성
498	현절사 서낭당	중부면 산성리 334전	민간신앙	미상		남한산성
499	검복리 장승	중부면 검복리 산43-1입	민간신앙	미상		남한산성
500	영월제터	중부면 산성리 527일대	민간신앙	미상		남한산성
501	터주가리	중부면 산성리 홍전분가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502	청량당굿당	중부면 산성리 815-1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503	벌봉굿당	중부면 산성리 815-1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504	큰골굿당	중부면 검복리 2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505	개심폭바위	중부면 산성리 산 27	기타유적	미상		남한산성
506	산성리 느티나무 1	중부면 산성리 산 21입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5	남한산성
507	산성리 느티나무 2	중부면 산성리 산 21입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6	남한산성
508	산성리 느티나무 3	중부면 산성리 797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7	남한산성
509	산성리 느티나무 4	중부면 산성리 산 23입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8	남한산성
510	산성리 느티나무 5	중부면 산성리 입 397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9	남한산성
511	산성리 느티나무 6	중부면 산성리 입 23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10	남한산성
512	산성리 느티나무 7	중부면 산성리 산 23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11	남한산성
513	산성리 느티나무 8	중부면 산성리 산 23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12	남한산성
514	산성리 느티나무 9	중부면 산성리 산 23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13	남한산성
515	산성리 느티나무 10	중부면 산성리 산 23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14	남한산성
516	산성리 향나무	중부면 산성리 815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15	남한산성
517	산성리 느티나무 11	중부면 산성리 400-1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17	남한산성

번호	유적명	소재지	유적종류	시대	지정사항	비고
518	산성리 느티나무 12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18	남한산성
519	산성리 느티나무 13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19	남한산성
520	산성리 느티나무 14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20	남한산성
521	산성리 느티나무 15	중부면 산성리 171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21	남한산성
522	산성리 느티나무 16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22	남한산성
523	산성리 느티나무 17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23	남한산성
524	산성리 느티나무 18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24	남한산성
525	산성리 느티나무 19	중부면 산성리 377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25	남한산성
526	산성리 소나무	중부면 산성리 산 15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28	남한산성
527	산성리 은행나무	중부면 산성리 산 17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29	남한산성
528	검복리 읍나무 1	중부면 검복리 답43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30	
529	검복리 읍나무 2	중부면 검복리 대99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34	
556	의안대군 묘	중부면 엄미리 산152임	묘	조선	경기도기념물 제66호	
557	방병식 가옥	중부면 엄미리(백수골)	고가	근대		
558	엄미리 느티나무	중부면 엄미리 전399-2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16	
559	엄미리 읍나무	중부면 엄미리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33	
560	오전리 도요지 1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561	오전리 도요지 2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62	오전리 도요지 3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63	오전리 도요지 4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564	오전리 도요지 5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65	오전리 도요지 6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566	오전리 도요지 7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67	오전리 잣나무	중부면 오전리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32	

광 주

No. 191-3



광 주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9	송정리 도요지 1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10	송정리 도요지 2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11	송정리 도요지 3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12	송정리 도요지 4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13	송정리 도요지 5	광주읍 송정리 엄치골	도요지	조선		
14	송정리 도요지 6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15	송정리 도요지 7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16	송정리 느티나무1	광주읍 송정리 302-11전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2	
17	송정리 느티나무2	광주읍 송정리 302-11전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4	
19	정광세 묘	광주읍 장지리 산64위	묘	조선		
21	정뇌경 묘	광주읍 장지리 산61-2임 일대	묘	조선		
94	분원리선정비군	남종면 분원리 116	선정비	조선, 근대		
95	분원리 도요지 1	남종면 분원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96	분원리 도요지 2	남종면 분원리	도요지	조선		
97	분원리 도요지 3	남종면 분원리	도요지	조선		
98	분원리 도요지 4	남종면 분원리 442 일대	도요지	조선		
99	분원리 도요지 5	남종면 분원리 255-19일대	도요지	조선		
100	분원리 도요지 6	남종면 분원리 255 일대	도요지	조선		
101	분원리 유물산포지	남종면 분원리 442 일대	선사유적	선사시대		신규
102	권진 묘	남종면 삼성리 산42	묘	조선		
103	노물재 묘	남종면 삼성리 산60-10	묘	조선		
104	안망지 묘	남종면 삼성리 산48-5	묘	조선		
105	김종옥 가옥	남종면 삼성리 291(죽동)	고가	조선		
106	이춘열 가옥	남종면 삼성리(삼정골)	고가	근대		
107	삼성리 지석묘	남종면 삼성리 394-1일대	선사분묘	청동기		
108	삼성리 도요지	남종면 삼성리	도요지	조선		
109	삼성리 유물산포지 1	남종면 삼성리 산3-1임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신규
110	삼성리 유물산포지 2	남종면 삼성리 산19-1임	유물산포지	조선		신규
111	삼성리 측백나무 1	남종면 삼성리 291-7대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35	
112	삼성리 측백나무 2	남종면 삼성리 291-7대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36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117	이하악 묘갈	남종면 이석리 133-2전	묘	조선		
118	이해창 가옥	남종면 이석리 9(석림동)	고가	근대 (1915)		
119	이석리 은행나무 1	남종면 이석리 145답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37	
120	이석리 은행나무 2	남종면 이석리 46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40	
121	이석리 은행나무 3	남종면 이석리 46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41	
236	이순이 가옥	실촌면 상열미리 11	고가	근대		
241	열미리 도요지 5	실촌면 상열미리 더덕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30	이제 묘	중부면 상변천리 산2-1임	묘	조선		
531	이정기 묘와 신도비	중부면 상변천리 산2-1임	묘	조선		
532	이항 묘	중부면 상변천리 산2-1임	묘	조선		
533	변천리 도요지 1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34	변천리 도요지 2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535	변천리 도요지 3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536	변천리 도요지 4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37	변천리 도요지 5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38	변천리 도요지 6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539	변천리 도요지 7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40	변천리 도요지 8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41	변천리 도요지 9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42	변천리 도요지 10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543	변천리 도요지 11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544	변천리 도요지 12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545	변천리 도요지 13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546	변천리 도요지 14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547	변천리 도요지 15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548	변천리 도요지 16	중부면 상변천리 장작골	도요지	조선		
549	변천리 도요지 17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550	변천리 도요지 18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551	변천리 도요지 19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552	변천리 도요지 20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53	변천리 도요지 21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번호	유적명	소재지	유적종류	시대	지정사항	비고
554	상변천리 노티나무	중부면 상변천리 211-1대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27	
555	불당리 향나무	중부면 불당리 199대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31	
570	정충묘	초월면 대쌍령리 87-1	사묘	현대		
571	김태선 효자비	초월면 대쌍령리 87-1	효자비	근대		
572	대쌍령리 도요지 1	초월면 대쌍령리 집터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73	대쌍령리 도요지 2	초월면 대쌍령리 옷말골	도요지	조선		
574	대쌍령리 도요지 3	초월면 대쌍령리	도요지	조선		
575	대쌍령리 도요지 4	초월면 대쌍령리 집터골	도요지	조선		
576	대쌍령리 도요지 5	초월면 대쌍령리 옷말골	도요지	조선		
577	대쌍령리 구석기유적	초월면 대쌍령리 154-16진 일대	선사유적	구석기		신규
578	낙화암	초월면 대쌍령리 123	기타유적	조선		
579	도평리 참나무	초월면 도평리 산 184-1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56	
580	무갑리 도요지 1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581	무갑리 도요지 2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582	무갑리 도요지 3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583	무갑리 도요지 4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584	무갑리 도요지 5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585	무갑리 도요지 6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86	무갑리 도요지 7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587	무갑리 도요지 8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588	무갑리 도요지 9	초월면 무갑리 구용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89	무갑리 도요지 10	초월면 무갑리 삼박골	도요지	조선		
590	무갑리 도요지 11	초월면 무갑리 삼박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91	무갑리 도요지 12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592	무갑리 도요지 13	초월면 무갑리 거명골	도요지	조선		
593	무갑리 도요지 14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94	무갑리 도요지 15	초월면 무갑리 수악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95	무갑리 도요지 16	초월면 무갑리 수악골	도요지	조선		
596	무갑리 도요지 17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597	무갑리 도요지 18	초월면 무갑리 구용골	도요지	조선		
598	무갑리 도요지 19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599	무갑리 도요지 20	초월면 무갑리 종죽골	도요지	조선		
600	무갑리 도요지 21	초월면 무갑리 당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01	무갑리 도요지 22	초월면 무갑리 당골	도요지	조선		
602	무갑리 도요지 23	초월면 무갑리 당돌	도요지	조선		
603	무갑리 도요지 24	초월면 무갑리 삼박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04	산이리 도요지	초월면 산이리 쑤배골	도요지	조선		
606	신악회선생 생가	초월면 서하리 160-1	고가	조선	경기도 기념물 제34호	
607	선동리 도요지 1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608	선동리 도요지 2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09	선동리 도요지 3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610	선동리 도요지 4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611	선동리 도요지 5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612	장차주 묘와 묘갈	초월면 선동리 산3-1임	묘	조선		
613	장시현 묘	초월면 선동리 산2-1	묘	조선		
614	황주김씨 정려문	초월면 선동리 66	정려문	현대		
615	이래 묘와 신도비	초월면 신월리 산11임	묘	조선		
616	이손 묘와 신도비	초월면 신월리 산22-1임	묘	조선		
617	이한 묘	초월면 신월리 산22-1임	묘	조선		
618	이수언 묘와 묘갈	초월면 신월리 산22-1임	묘	조선		
619	이소 묘와 묘갈	초월면 신월리 산2211임	묘	조선		
620	고덕재	초월면 신월리 174	사묘	현대		
621	옥산사	초월면 신월리 14전	사묘	현대		
622	신월리 은행나무	초월면 신월리 121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54	
628	김감 묘와 신도비	초월면 지월리 산69-1임	묘	조선		
629	정흥문 묘와 묘갈	초월면 지월리 산26-1임	묘	조선		
630	허난설헌 묘	초월면 지월리 산29-5	묘	조선	경기도 기념물 제90호	
631	지월리사지	초월면 지월리 619-1	사지	고려-조선		
632	국수봉 산성	초월면 지월리 69-1 / 광주읍 쌍령리 산 26임	성	미상		신규
633	지월리 도요지 1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34	지월리 도요지 2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35	지월리 도요지 3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636	지월리 도요지 4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637	지월리 구석기유적	초월면 지월리 28-3답 일대	선사유적	구석기		신규
638	지월리 유물산포지	초월면 지월리 28-5임	유물산포지	조선		신규
639	학동리 도요지 1	초월면 학동리 삼막골	도요지	조선		
640	학동리 도요지 2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641	학동리 도요지 3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642	학동리 도요지 4	초월면 학동리 두두봉들	도요지	조선		
643	학동리 도요지 5	초월면 학동리 붓당골	도요지	조선		
644	학동리 도요지 6	초월면 학동리 붓당골	도요지	조선		
645	학동리 도요지 7	초월면 학동리 벌동막	도요지	조선		
646	학동리 도요지 8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647	학동리 도요지 9	초월면 학동리 벌동막	도요지	조선		
648	학동리 도요지 10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649	학동리 도요지 11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650	학동리 도요지 12	초월면 학동리 산막골	도요지	조선		
651	학동리 도요지 13	초월면 학동리 붓당골	도요지	조선		
652	학동리 도요지 14	초월면 학동리 붓당골	도요지	조선		
653	학동리 도요지 15	초월면 학동리 두루봉들	도요지	조선		
654	학동리 도요지 16	초월면 학동리 셋골	도요지	조선		
655	홍성현 가옥	퇴촌면 관음리 700-1(절골)	고가	근대		
656	관음리 도요지 1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657	관음리 도요지 2	퇴촌면 관음리 도장골	도요지	조선		
658	관음리 도요지 3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659	관음리 도요지 4	퇴촌면 관음리 도장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60	관음리 도요지 5	퇴촌면 관음리 병학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61	관음리 도요지 6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62	관음리 도요지 7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663	관음리 도요지 8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64	관음리 도요지 9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65	관음리 도요지 10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66	관음리 도요지 11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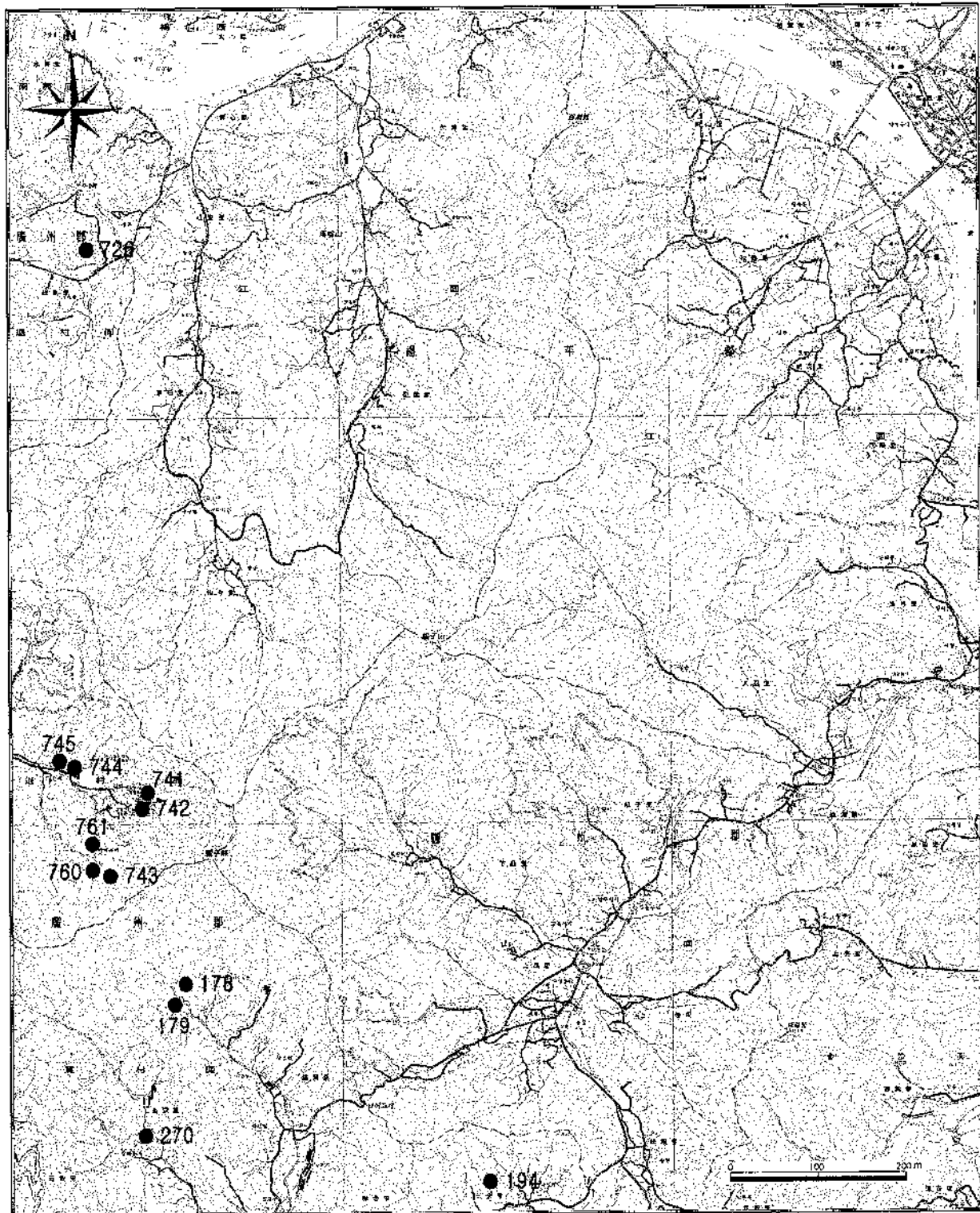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667	관음리 도요지 12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668	관음리 도요지 13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669	관음리 도요지 14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70	관음리 도요지 15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671	관음리 도요지 16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72	관음리 도요지 17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73	관음리 도요지 18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74	관음리 도요지 19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75	관음리 도요지 20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76	관음리 도요지 21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77	관음리 도요지 22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678	관음리 도요지 23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679	관음리 도요지 24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680	관음리 도요지 25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681	관음리 도요지 26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82	관음리 도요지 27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683	관음리 도요지 28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684	관음리 도요지 29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685	관음리 도요지 30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686	관음리 도요지 31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687	관음리 도요지 32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688	관음리 도요지 33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689	관음리 도요지 34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690	관음리 도요지 35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691	관음리 느티나무	퇴촌면 관음리 전326-1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80	
692	조영무 묘	퇴촌면 광동리 산16	묘	조선		
693	광동리 느티나무	퇴촌면 광동리 답346-1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78	
694	안당 묘와 신도비	퇴촌면 도마리 산22임	묘	조선		
695	여여길 묘	퇴촌면 도마리 산19-1임	묘	조선		
696	여우길 묘	퇴촌면 도마리 산19-1임	묘	조선		
697	최항 묘와 신도비	퇴촌면 도마리 산11	묘	조선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698	문정공최항지묘	퇴촌면 도마리 197-8	사묘	현대		
699	문정공영모재	퇴촌면 도마리 195	사묘	현대		
700	도마리 도요지 1	퇴촌면 도마리 윗도마치	도요지	조선	사적 314호	
701	도마리 도요지 2	퇴촌면 도마리	도요지	조선	사적 314호	
702	도마리 도요지 3	퇴촌면 도마리	도요지	조선		
703	도마리 도요지 4	퇴촌면 도마리 탄발골	도요지	조선	사적 314호	
704	도마리 도요지 5	퇴촌면 도마리 도마치	도요지	조선		
705	도마리 도요지 6	퇴촌면 도마리 괴기	도요지	조선		
706	도마리 도요지 7	퇴촌면 도마리 윗도마치	도요지	조선	사적 314호	
707	도마리 유물산포지	퇴촌면 도마리	유물산포지	구석기·조선		신규
708	도마리 느티나무	퇴촌면 도마리 전221-1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77	
709	심우송 묘와 신도비	퇴촌면 도수리 산70-3임	묘	조선		
710	심액 묘와 신도비	퇴촌면 도수리 산70-3임	묘	조선		
711	심광수 묘와 묘갈	퇴촌면 도수리 산70-3임	묘	조선		
712	안근 묘	퇴촌면 도수리 산72	묘	조선		
713	안용 묘	퇴촌면 도수리 산72	묘	조선		
714	황유 묘	퇴촌면 도수리 산75	묘	조선		
715	숙안공주 묘	퇴촌면 도수리 산75	묘	조선		
716	도수리 사지	퇴촌면 도수리 70	사지	조선		
717	도수리 도요지 1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718	도수리 도요지 2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719	도수리 도요지 3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사적 314호	
720	도수리 도요지 4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사적 314호	
721	도수리 도요지 5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사적 314호	
722	도수리 도요지 6	퇴촌면 도수리 사기장골	도요지	조선		
723	도수리 도요지 7	퇴촌면 도수리 사기장골	도요지	조선		
724	도수리 도요지 8	퇴촌면 도수리 삼백골	도요지	조선		
725	도수리 도요지 9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727	오리 유물산포지1	퇴촌면 오리 235-1전 일대	유물산포지	고려-조선		신규
728	오리 유물산포지 2	퇴촌면 오리 40-2답	유물산포지	조선		신규
729	오리 유물산포지 3	퇴촌면 오리 73답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신규

번호	유적명	소재지	유적종류	시대	지정사항	비고
730	김익훈 묘와 신도비	퇴촌면 무수리 웃부술	묘	조선		
731	김만채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732	김성택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733	김상익 묘	퇴촌면 무수리 101-4전	묘	조선		
734	김진상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735	김만선 묘	퇴촌면 무수리 산21임	묘	조선		
736	김영택 묘	퇴촌면 무수리 산21임	묘	조선		
737	김진항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738	김상정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739	김상악 묘와 신도비	퇴촌면 무수리 4-3	묘	조선		
740	김경택 묘	퇴촌면 무수리 산5임	묘	조선		
757	우산리 도요지 15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758	우산리 도요지 16	퇴촌면 우산리	도요지	조선		
759	우산리 도요지 17	퇴촌면 우산리 도로지골	도요지	조선		
746	우산리 도요지 4	퇴촌면 우산리 땃골	도요지	조선	사적 314호	
747	우산리 도요지 5	퇴촌면 우산리 땃골	도요지	조선	사적 314호	
748	우산리 도요지 6	퇴촌면 우산리	도요지	조선		
749	우산리 도요지 7	퇴촌면 우산리	도요지	조선		
750	우산리 도요지 8	퇴촌면 우산리 가장골	도요지	조선		
751	우산리 도요지 9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사적 314호	
752	우산리 도요지 10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사적 314호	
753	우산리 도요지 11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754	우산리 도요지 12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755	우산리 도요지 13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756	우산리 도요지 14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사적 314호	
762	우산리 도요지 20	퇴촌면 우산리 고로지골	도요지	조선		
763	우산리 도요지 21	퇴촌면 우산리 고로지골	도요지	조선		
764	원당리 도요지	퇴촌면 원당리	도요지	조선		
765	정지리 도요지 1	퇴촌면 정지리 능골	도요지	조선		
766	정지리 도요지 2	퇴촌면 정지리 능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767	정지리 도요지 3	퇴촌면 정지리 정자동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768	정지리 도요지 4	퇴촌면 정지리 정자동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양 평

No. 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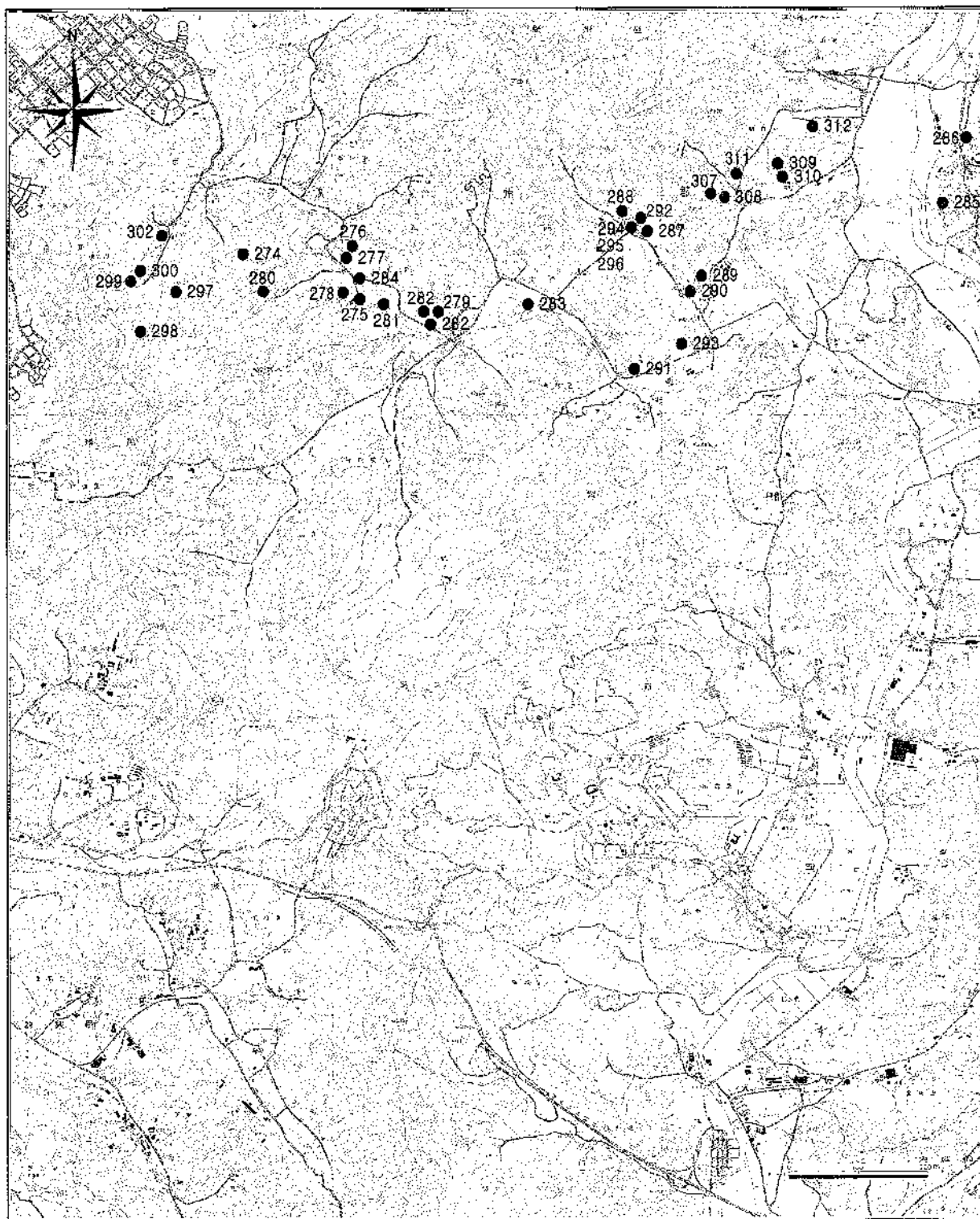


양 평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178	건업리 도요지 1	실촌면 건업리 소미골	도요지	조선		
179	건업리 도요지 2	실촌면 건업리 소미골	도요지	조선		
194	김약시 묘	실촌면 삼합리 산50-1	묘	조선		
270	장삼리 도요지	실촌면 장삼리	도요지	조선		
726	신희 묘와 신도비	퇴촌면 영동리 산12-1	묘	조선		
741	천진암 성현오위 묘	퇴촌면 우산리 500	묘	조선		
742	천진암지	퇴촌면 우산리	사지	미상		
743	우산리 도요지 1	퇴촌면 우산리 박석거리	도요지	조선		
744	우산리 도요지 2	퇴촌면 우산리 천진암	도요지	조선		
745	우산리 도요지 3	퇴촌면 우산리 천진암	도요지	조선		
760	우산리 도요지 18	퇴촌면 우산리 박석거리	도요지	조선		
761	우산리 도요지 19	퇴촌면 우산리 박석거리	도요지	조선		

이 평

No. 1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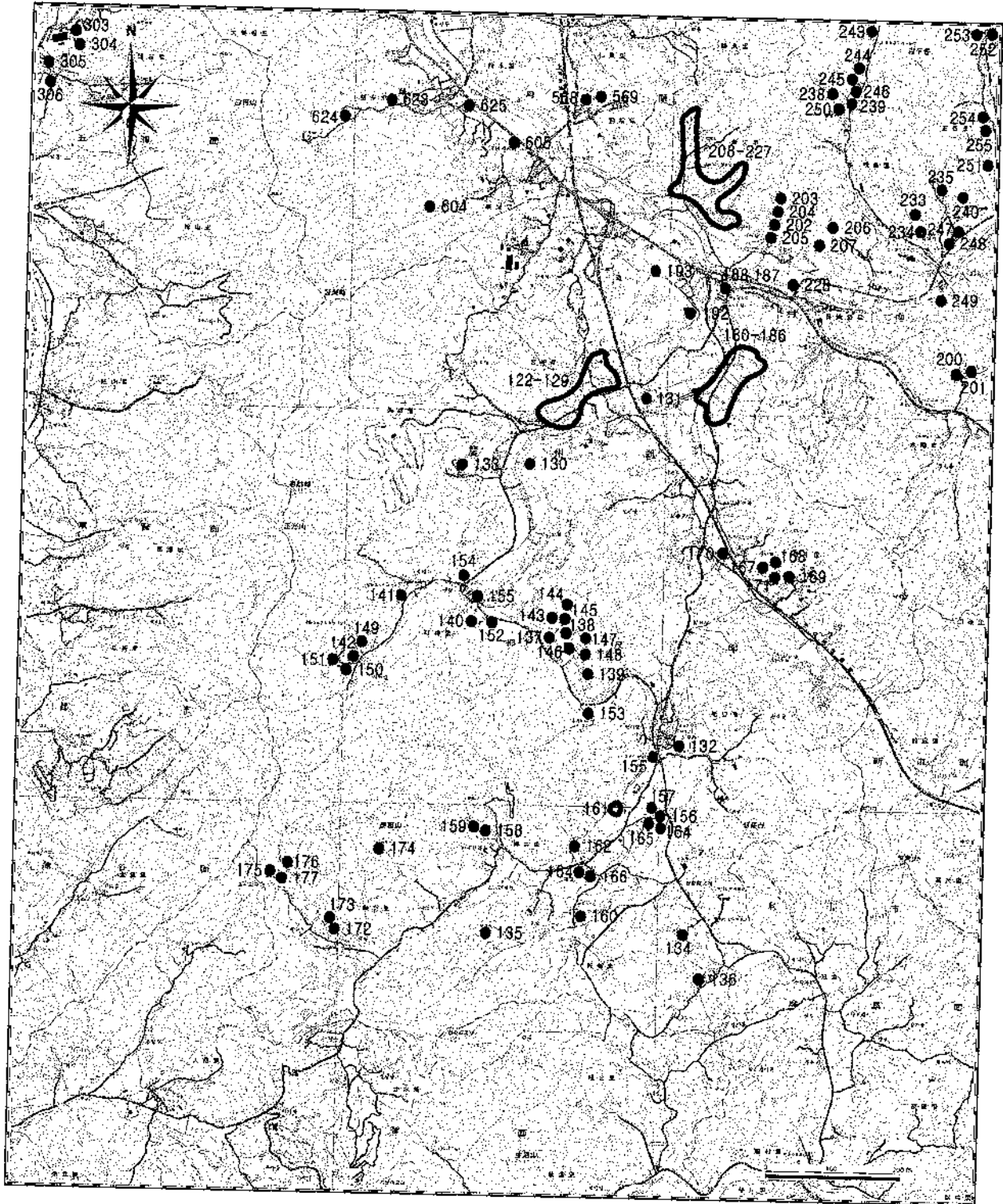
아 평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274	김균 묘와 신도비	오포면 능평리 산89-1	묘	조선	경기도기념물 제105호	
275	낙안군 이밀 묘	오포면 능평리 산129	묘	조선		
276	의령남씨묘원	오포면 능평리 산54-12	묘	조선		
277	남명선 신도비	오포면 능평리 340-4대	신도비	조선		
278	유기억 묘	오포면 능평리 산124-1	묘	조선		
279	이화조 묘	오포면 능평리 산32-1	묘	조선		
280	충사각	오포면 능평리 618	사묘	현대		
281	능평리 무분토기산포지	오포면 능평리 산132-2임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신규
282	능평리 유물산포지	오포면 능평리 산73-16임/산32-1임	유물산포지(추정전통지)	고려-조선		신규
283	능평리 기와산포지	오포면 능평리 산1-1임	유물산포지	조선		신규
284	능평리 느티나무	오포면 능평리 답268-13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47	
285	매산리 유물산포지	오포면 매산리 700	유물산포지	조선		신규
286	매산리 느티나무	오포면 매산리 전615-5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44	
287	박교륜송덕비	오포면 문형리 대66-1	송덕비	조선		
288	박창환 가옥	오포면 문형리(봉골)	고가	근대		
289	문형리 유물산포지 1	오포면 문형리 565-3답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신규
290	문형리 유물산포지 2	오포면 문형리 201-2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신규
291	문형리 유물산포지 3	오포면 문형리 261-4전지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신규
292	문형리 느티나무 1	오포면 문형리 63대	기타유적	조선 16c이후	경기광주 43	
293	문형리 느티나무 2	오포면 문형리 452대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48	
294	문형리 느티나무 3	오포면 문형리 63대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49	
295	문형리 느티나무 4	오포면 문형리 63대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50	
296	문형리 느티나무 5	오포면 문형리 63대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51	
297	김자수 묘와 신도비	오포면 신흥리 산120-1	묘	조선	경기도기념물 제96호	
298	김근 묘	오포면 신흥리 산120-1	묘	조선		
299	김영유 묘	오포면 신흥리 산119-1	묘	조선		
300	김훈 묘와 묘갈	오포면 신흥리 산119-1	묘	조선		
302	영모재	오포면 신흥리 810	사묘	현대		
303	양평묘	오포면 양벌리 520-1	사묘	현대		
307	정응규 묘와 묘갈	오포면 추자리 산30-1	묘	조선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308	정연 묘	오폐면 추자리 산30-1	묘	조선		
309	정보문 묘	오폐면 추자리 산20-1	묘	조선		
310	정유 묘와 묘갈	오폐면 추자리 산20-1	묘	조선		
311	추자리 유물산포지 1	오폐면 추자리 31-1답	유물산포지	조선		신규
312	추자리 유물산포지 2	오폐면 추자리 480-1 일대	유물산포지·선사유적	고려-조선 구석기		신규

노 곡

No. 191-1



노 곡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122	궁평리 도요지 1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123	궁평리 도요지 2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124	궁평리 도요지 3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125	궁평리 도요지 4	도척면 궁평리	도요지	조선		
126	궁평리 도요지 5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127	궁평리 도요지 6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128	궁평리 도요지 7	도척면 궁평리 새남터들	도요지	조선		
129	궁평리 도요지 8	도척면 궁평리	도요지	조선		
130	궁평리 도요지 9	도척면 궁평리	도요지	조선		
131	궁평리 궁궐유적	도척면 궁평리 262-2, 3일대	선사유적	구석기~백제		
132	노곡리 느티나무	도척면 노곡리 498-1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69	
133	도웅리 유물산포지	도척면 도웅리 111-2전	유물산포지	조선		신규
134	봉일사	도척면 방도리 147	사찰	조선		
135	수도사	도척면 방도리 633	사찰	조선		
136	방도리 느티나무	도척면 방도리 임54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71	
137	상림리 도요지 1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138	상림리 도요지 2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139	상림리 도요지 3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140	상림리 도요지 4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141	상림리 도요지 5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142	상림리 도요지 6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143	상림리 도요지 7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144	상림리 도요지 8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145	상림리 도요지 9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146	상림리 도요지 10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147	상림리 도요지 11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148	상림리 도요지 12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149	상림리 도요지 13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150	상림리 도요지 14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151	상림리 도요지 15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152	상림리 구석기유적	도척면 상림리 89-1전 일대	선사유적	구석기		
153	상림리 유물산포지 1	도척면 상림리 104-32전	유물산포지	조선		신규
154	상림리 유물산포지 2	도척면 상림리 23답	유물산포지	조선		신규
155	상림리 느티나무	도척면 상림리 하천 276-4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72	
156	유정리 석불좌상	도척면 유정리 222-7	불상	조선	경기도유형문화재 제88호	
157	이덕순 가옥	도척면 유정리(미륵동)	고가	근대		
158	유정리 도요지 1	도척면 유정리	도요지	조선		
159	유정리 도요지 2	도척면 유정리	도요지	조선		
160	유정리 건물지	도척면 유정리 까치골	건물지 선사유적	구석기~고려~조선		신규
161	유정리 유물산포지	도척면 유정리 285답	유물산포지	조선		
162	유정리 느티나무 1	도척면 유정리 417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68	
163	유정리 느티나무 2	도척면 유정리 잡종지 182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70	
164	유정리 느티나무 3	도척면 유정리 대 546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75	
165	유정리 느티나무 4	도척면 유정리 대 546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76	
166	유정리 피나무 1	도척면 유정리 417-1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73	
167	신경인 묘	도척면 진우리 산34-1	묘	조선		
168	신탕 묘	도척면 진우리 산34-1	묘	조선		
169	진우리 느티나무 1	도척면 진우리 전706-2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65	
170	진우리 느티나무 2	도척면 진우리 임707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66	
171	진우리 가시항나무	도척면 진우리 답740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67	
172	권세경 묘와 묘갈	도척면 추곡리 산 40	묘	조선		
173	권낙인 묘와 묘비	도척면 추곡리 산40	묘	조선		
174	백련암 부도	도척면 추곡리 산65	부도	조선		
175	추곡리 도요지 1	도척면 추곡리 419-2 일대	도요지	조선		
176	추곡리 도요지 2	도척면 추곡리 482 일대	도요지	조선		
177	추곡리 도요지 3	도척면 추곡리 418 일대	도요지	조선		
180	곤지암리 도요지 1	실촌면 곤지암리	도요지	조선		
181	곤지암리 도요지 2	실촌면 곤지암리 황새봉골	도요지	조선		
182	곤지암리 도요지 3	실촌면 곤지암리 황새봉골	도요지	조선		
183	곤지암리 도요지 4	실촌면 곤지암리	도요지	조선		
184	곤지암리 도요지 5	실촌면 곤지암리	도요지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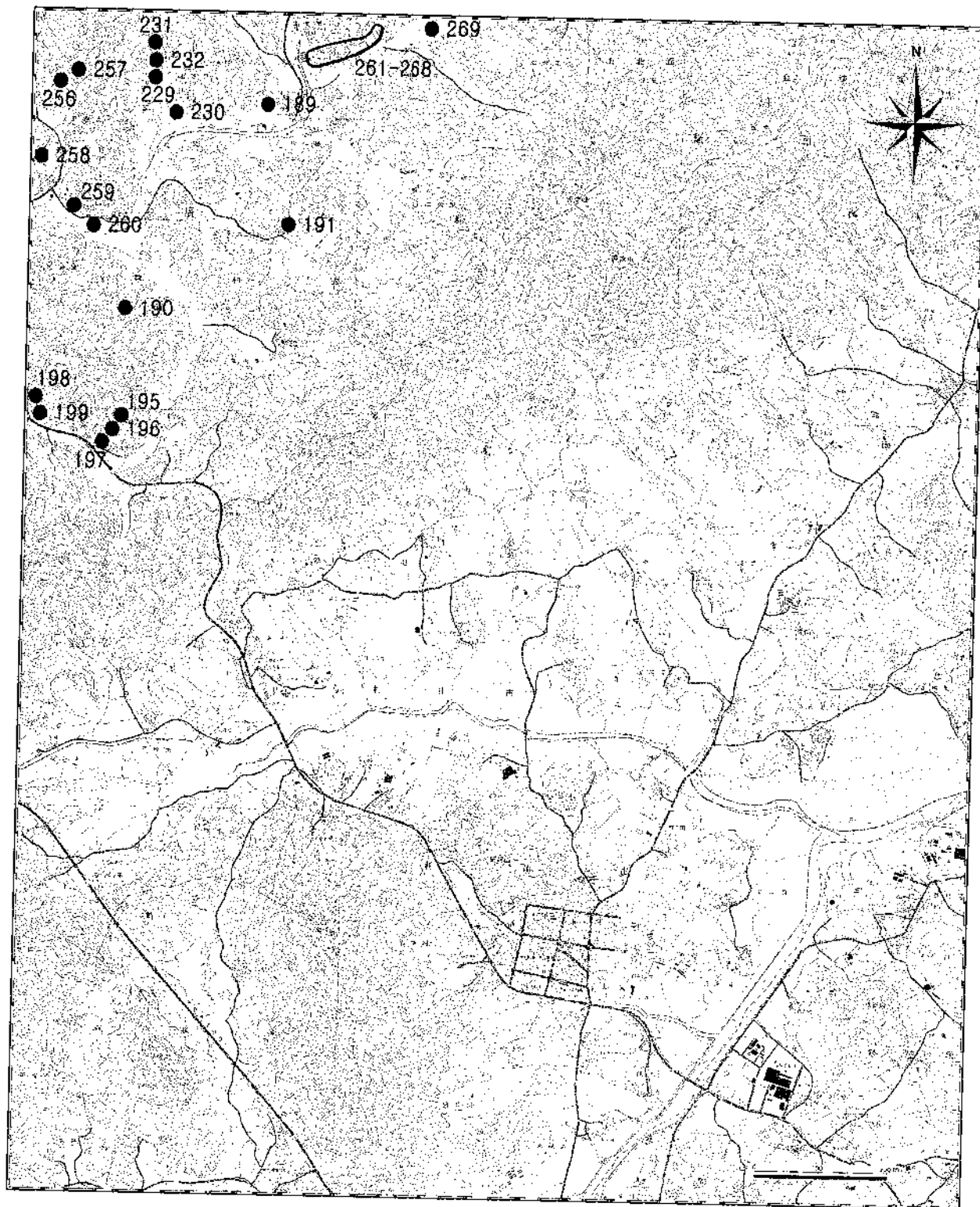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185	곤지암리 도요지 6	실촌면 곤지암리 곤지암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186	곤지암리 도요지 7	실촌면 곤지암리	도요지	조선		
187	곤지암리 향나무	실촌면 곤지암리 임453-4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58	
188	곤지암 바위	실촌면 곤지암리 453-20	명승지	조선	경기도문화재 683호	
192	구연영 묘	실촌면 삼리 26-33	묘	근대		
193	삼리 구석기유적	실촌면 삼리 산26-9임 일대	선사유적 와요지	구석기 고려		
200	수양리 노티나무 1	실촌면 수양리 전195-4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61	
201	수양리 노티나무 2	실촌면 수양리 전195-4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62	
202	신림 묘와 묘갈	실촌면 신대리 산1-1	묘	조선	경기도 기념물 제95호	
203	신준 묘와 묘갈	실촌면 신대리 산1-1	묘	조선		
204	신완 묘와 신도비	실촌면 신대리 산1-1	묘	조선		
205	신성하 묘와 묘갈	실촌면 신대리 산1-1	묘	조선		
206	신대리 도요지 1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207	신대리 도요지 2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208	신대리 도요지 3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209	신대리 도요지 4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210	신대리 도요지 5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211	신대리 도요지 6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212	신대리 도요지 7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213	신대리 도요지 8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214	신대리 도요지 9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215	신대리 도요지 10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216	신대리 도요지 11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217	신대리 도요지 12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218	신대리 도요지 13	실촌면 신대리 작은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219	신대리 도요지 14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220	신대리 도요지 15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221	신대리 도요지 16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222	신대리 도요지 17	실촌면 신대리 하오개들	도요지	조선		
223	신대리 도요지 18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224	신대리 도요지 19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번호	유적명	소재지	유적종류	시대	지정사항	비고
225	신대리 도요지 20	실촌면 신대리 새터밭	도요지	조선		
226	신대리 도요지 21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227	신대리 도요지 22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228	신대리 대석동유적	실촌면 신대리 대석동 555-44답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233	구치관 묘와 신도비	실촌면 하열미리 산3	묘	조선		
234	구적 묘	실촌면 하열미리 산3	묘	조선		
235	충렬묘	실촌면 하열미리 313	사묘	현대		
237	열미리 도요지 1	실촌면 상열미리	도요지	조선		
238	열미리 도요지 2	실촌면 하열미리 가장골	도요지	조선		
239	열미리 도요지 3	실촌면 중열미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240	열미리 도요지 4	실촌면 중열미리	도요지	조선		
242	열미리 도요지 6	실촌면 상열미리 뒷골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243	열미리 도요지 7	실촌면 상열미리 풀무골	도요지	조선		
244	열미리 도요지 8	실촌면 중열미리 우두머리골	도요지	조선		
245	열미리 도요지 9	실촌면 중열미리 우두머리골	도요지	조선		
246	열미리 도요지 10	실촌면 중열미리 못들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247	열미리 느티나무	실촌면 하열미리 486-1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57	
248	구덕회효자비	실촌면 하열미리 467-4	효자비	일제강점기		
249	백인대	실촌면 하열미리 산174	명승지	현대		
250	강석규 가옥	실촌면 하열미리 144	고가	근대 (해방이전)		
251	송일 묘	실촌면 상오향리 산46	묘	조선		
252	오향리 도요지 1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253	오향리 도요지 2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254	오향리 도요지 3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255	오향리 도요지 4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304	양벌리 유물산포지	오포면 양벌리 730번지 일대	유물산포지 선사유적	고려-조선 청동기		신규
305	양벌리 느티나무 1	오포면 양벌리 616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45	
306	양벌리 느티나무 2	오포면 양벌리 622-2답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52	
568	늑현리 유물산포지	초월면 늑현리 25-8	유물산포지	조선		신규
569	늑현리 은행나무	초월면 늑현리 산18-22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53	
605	산이리 지석묘	초월면 산이리 1번지	선사유적	청동기		신규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623	쌍동리 도요지 1	초월면 쌍동리 어두매골	도요지	조선		
624	쌍동리 도요지 2	초월면 쌍동리	도요지	조선		
625	쌍동리 지석묘	초월면 쌍동리 15	선사유적	청동기		
626	쌍동리 느티나무	초월면 쌍동리 전173-9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55	
627	용수리 유물산포지	초월면 용수리 23-1	유물산포지	조선		신규

이 천

No. 191-2



이 천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정사항	비 고
189	만선리 느티나무	실촌면 만선리 240-1답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60	
190	봉현리 느티나무	실촌면 봉현리 29답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64	
191	최봉항 효자정문	실촌면 부향리 산69	정려문	현대		
195	심종민 묘	실촌면 수양리 산51-1	묘	조선		
196	심혁 묘	실촌면 수양리 산51-1	묘	조선		
197	심지택 묘	실촌면 수양리 산51-1	묘	조선		
198	현덕창 묘	실촌면 수양리 산44-1	묘	조선		
199	현태형 묘	실촌면 수양리 산44-1	묘	조선		
229	연곡리 구석기유적	실촌면 연곡리 198-3전	선사유적	구석기		
230	연곡리 유물산포지	실촌면 연곡리 618-2 일대	유물산포지	통일신라말		
231	이당규 묘와 묘갈	실촌면 연곡리 산18	묘	조선		
232	이현석 묘와 신도비	실촌면 연곡리 산18	묘	조선		
256	오향리 도요지 5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257	오향리 도요지 6	실촌면 상오향리 학골	도요지	조선		
258	상오향리 유물산포지	실촌면 상오향리 309 일대	유물산포지	통일신라-조선		
259	하오향리 유물산포지	실촌면 하오향리 감촌말 54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260	하오향리 팽나무	실촌면 하오향리 36-1답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59	
261	유사리 도요지 1	실촌면 유사리 뒷골	도요지	조선		
262	유사리 도요지 2	실촌면 유사리 뒷골	도요지	조선		
263	유사리 도요지 3	실촌면 유사리 버드라리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264	유사리 도요지 4	실촌면 유사리 아랫말	기타유적	조선		
265	유사리 도요지 5	실촌면 유사리 아랫말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266	유사리 도요지 6	실촌면 유사리	도요지	조선		
267	유사리 도요지 7	실촌면 유사리	도요지	조선		
268	유사리 도요지 8	실촌면 유사리 웃말	도요지	조선	사적 134호	
269	유사리 느티나무	실촌면 유사리 전268-2	기타유적	조선	경기광주 63	

부 록

1. 통계표
2. 유적 목록

1. 통계표

1) 지역별 통계표

종 류 \ 지 역	광주읍	남종면	도척면	실촌면	오포면	중부면	초월면	퇴촌면	계
성						79	1		80
궁						4			4
관아·성곽건물						14			14
정·각						13			13
사지						7	1	2	10
사찰		1	2			3			6
불상			1						1
부도			1						1
신도비					1				1
묘비						1			1
선정비		1				6			7
충효비		1		1		2	1		5
기타비					1	10			11
정려문	1			1			1		3
기타목조물	1					1			2
사묘	2			1	3	5	3	2	16
묘	25	11	4	16	14	4	10	25	109
교가	1	8	1	2	1	4	1	1	19
도요지	22	27	29	57		28	57	76	296
선사분묘	1	1					2		4
선사유적	3	1	2	3	2		2		13
건물지			1						1
유물산포지	1	2	4	3	9		3	4	26
기타유적	4	7	11	10	11	74	5	3	125
계	61	60	56	94	42	255	87	113	768

2) 시대별 통계표

종 류 \ 지 역	선 사	삼 국	통일신라	고 려	조 선	근현대	미 상	계
성					79		1	80
궁					4			4
관아·성곽 건물					14			14
정·각					13			13
사지				1	8		1	10
사찰					6			6
불상					1			1
부도					1			1
신도비					1			1
묘비					1			1
선정비					7			7
충효비					3	2		5
기타비					10	1		11
정려문						3		3
기타목조물					1	1		2
사묘					5	11		16
묘					108	1		109
고가					2	17		19
도요지					296			296
선사분묘	4							4
선사유적	13							13
건물지				1				1
유물산포지			2	4	20			26
기타유적					99	2	24	125
계	17	0	2	6	679	38	26	768

2. 유적 목록

1) 지역별

(1) 광주읍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	서명원 묘와 묘갈	광주읍 목현리 산25-2	묘	조선	성남 190-4		
2	서매수 묘	광주읍 목현리 산25-임	묘	조선	성남 190-4		
3	신수경 묘	광주읍 목현리 산107	묘	조선	성남 190-4		
4	신의 묘	광주읍 목현리 산107	묘	조선	성남 190-4		
5	목현리 도요지 1	광주읍 목현리 새오개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6	목현리 도요지 2	광주읍 목현리 새오개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7	목현리 도요지 3	광주읍 목현리 새오개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	삼리 유물산포지	광주읍 삼리 154-4전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성남190-4		신규
9	송정리 도요지 1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10	송정리 도요지 2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11	송정리 도요지 3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12	송정리 도요지 4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13	송정리 도요지 5	광주읍 송정리 엄치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14	송정리 도요지 6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15	송정리 도요지 7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16	송정리 느티나무1	광주읍 송정리 302-11전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2	
17	송정리 느티나무2	광주읍 송정리 302-11전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4	
18	박문간 묘	광주읍 장지리 산54임	묘	조선	성남 190-4		
19	정광세 묘	광주읍 장지리 산64임	묘	조선	광주 191-3		
20	정충량 묘와 묘갈	광주읍 장지리 산64임	묘	조선	성남 190-4		
21	정뇌경 묘	광주읍 장지리 산61-2임 일대	묘	조선	광주 191-3		
22	장지리 지석묘	광주읍 장지리 산64-1임	선사분묘	청동기	성남 190-4		
23	장지리 도요지	광주읍 장지리	유물산포지	고려-조선	성남 190-4		
24	장지리 구석기 유적	광주읍 장지리 산1	선사유적	구석기	성남 190-4		신규
25	장지리 청동기유적	광주읍 장지리 산67-1임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성남 190-4		신규
26	안윤덕 묘와 신도비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27	이계통 묘	광주읍 중대리 산11-임	묘	조선	성남 190-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8	이세응 묘	광주읍 중대리 산11-1임	묘	조선	성남 190-4		
29	이진 묘와 묘갈	광주읍 중대리 산10-6임	묘	조선	성남 190-4		
30	안한준 묘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31	안한언 묘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32	안황 묘와 신도비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33	안응형 묘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34	안정복 묘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35	이석형 묘	광주읍 중대리 산11-6	묘	조선	성남 190-4		
36	이석 묘와 묘갈	광주읍 중대리 산48-1임	묘	조선	성남 190-4		
37	여택재	광주읍 중대리 197-2대	기타유적	현대	성남 190-4		
38	충양사	광주읍 중대리 산15-2	사묘	현대	성남 190-4		
39	함안이씨정려문	광주읍 중대리 107-1대	정려문	현대	성남 190-4		
40	직리 읍나무	광주읍 직리 28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	
41	남세전 묘와 신도비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성남 190-4		
42	남호 묘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성남 190-4		
43	남이신 묘와 신도비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성남 190-4		
44	남두침 묘와 신도비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성남 190-4		
45	남선 묘와 신도비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성남 190-4		
46	맹사성 묘	광주읍 직리 산27임	묘	조선	성남 190-4		
47	성재	광주읍 직리 168-3대	사묘	현대	성남 190-4		
48	남백수 가옥	광주읍 직리(곰은골)	고가	근대(1881)	성남 190-4		
49	탄벌리 도요지 1	광주읍 탄벌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0	탄벌리 도요지 2	광주읍 탄벌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1	탄벌리 도요지 3	광주읍 탄벌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2	탄벌리 도요지 4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3	탄벌리 도요지 5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4	탄벌리 도요지 6	광주읍 탄벌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5	탄벌리 도요지 7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6	탄벌리 도요지 8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7	탄벌리 도요지 9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8	탄벌리 도요지 10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59	탄벌리 도요지 11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60	태천리 무분토기산포지	광주읍 태천리 산13-3임 일대	유적	청동기	성남 190-4	신규	
61	탄벌리 참나무	광주읍 탄벌리 산 26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3	

(2) 남종면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62	심구령 묘	남종면 검천리 산92-1	묘	조선	양수 206-1		
63	여광주묘	남종면 검천리 산31-3	묘	조선	양수 206-1		
64	청주한씨 묘와 묘갈	남종면 검천리 산31-3	묘	조선	양수 206-1		
65	문창문 효자비	남종면 검천리 450-1전	효자비	조선	양수 206-1		
66	김용학 가옥	남종면 검천리 856 (농곡)	고가	근대(해방이전)	양수 206-1		
67	이운호 가옥	남종면 검천리 (농곡)	고가	근대(1899)	양수 206-1		
68	검천리 느티나무	남종면 검천리 865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경기광주 38	
69	검천리 은행나무	남종면 검천리 402-1답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경기광주 39	
70	김석주 묘와 신도비	남종면 귀여리 산75-1	묘	조선	양수 206-1		
71	명성암	남종면 귀여리 551	사찰	조선	양수 206-1		
72	최지숙 가옥	남종면 귀여리 551	고가	근대 (1944)	양수 206-1		
73	한경우 가옥	남종면 귀여리 54-3	고가	근대(해방이전)	양수 206-1		
74	귀여리 도요지 1	남종면 귀여리 수리울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75	귀여리 도요지 2	남종면 귀여리 수리울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76	귀여리 도요지 3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77	귀여리 도요지 4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78	귀여리 도요지 5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79	귀여리 도요지 6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0	귀여리 도요지 7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1	귀여리 도요지 8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2	귀여리 도요지 9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3	귀여리 도요지 10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4	귀여리 도요지 11	남종면 귀여리 다람네골	도요지	조선	양수 206-1		
85	금사리 도요지 1	남종면 금사리 구터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86	금사리 도요지 2	남종면 금사리 윗말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87	금사리 도요지 3	남종면 금사리 윗말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88	금사리 도요지 4	남종면 금사리 윗말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9	금사리 도요지 5	남종면 금사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90	금사리 도요지 6	남종면 금사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91	금사리 도요지 7	남종면 금사리 구터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92	금사리 도요지 8	남종면 금사리 윗말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93	금사리 도요지 9	남종면 금사리 구터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94	분원리선정비군	남종면 분원리 116	선정비	조선, 근대	광주 191-3		
95	분원리 도요지 1	남종면 분원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96	분원리 도요지 2	남종면 분원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97	분원리 도요지 3	남종면 분원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98	분원리 도요지 4	남종면 분원리 442 일대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99	분원리 도요지 5	남종면 분원리 255-19 일대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100	분원리 도요지 6	남종면 분원리 255 일대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101	분원리 유물산포지	남종면 분원리 442 일대	선사유적	선사시대	광주 191-3		
102	권진 묘	남종면 삼성리 산42	묘	조선	광주 191-3		
103	노물재 묘	남종면 삼성리 산60-10	묘	조선	광주 191-3		
104	안방지 묘	남종면 삼성리 산48-5	묘	조선	광주 191-3		
105	김종옥 가옥	남종면 삼성리 291(죽동)	고가	조선	광주 191-3		
106	이춘열 가옥	남종면 삼성리(삼정골)	고가	근대(1885)	광주 191-3		
107	삼성리 지석묘	남종면 삼성리 394-1일대	선사분묘	청동기	광주 191-3		
108	삼성리 도요지	남종면 삼성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109	삼성리 유물산포지 1	남종면 삼성리 산3-1임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110	삼성리 유물산포지 2	남종면 삼성리 산19-1임	유물산포지	조선(16C)	광주 191-3		신규
111	삼성리 측백나무 1	남종면 삼성리 291-7대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35	
112	삼성리 측백나무 2	남종면 삼성리 291-7대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36	
113	여성제 묘와 신도비	남종면 수청리 산101-10	묘	조선	양수 206-1		
114	여유길 묘와 묘갈	남종면 수청리 산101-1	묘	조선	국수 206-2		
115	여이징 묘와 신도비	남종면 수청리 산101-임	묘	조선	국수 206-2		
116	여성제선생 생가	남종면 수청리(큰청탄)	고가	조선	국수 206-2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17	이하악 묘갈	남종면 이석리 133-2전	묘	조선	광주 191-3		
118	이해창 가옥	남종면 이석리 9(석림동)	고가	근대 (1915)	광주 191-3		
119	이석리 은행나무 1	남종면 이석리 145답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37	
120	이석리 은행나무 2	남종면 이석리 46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40	
121	이석리 은행나무 3	남종면 이석리 46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41	

(3) 도척면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22	궁평리 도요지 1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23	궁평리 도요지 2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24	궁평리 도요지 3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25	궁평리 도요지 4	도척면 궁평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26	궁평리 도요지 5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27	궁평리 도요지 6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28	궁평리 도요지 7	도척면 궁평리 새남터들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29	궁평리 도요지 8	도척면 궁평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30	궁평리 도요지 9	도척면 궁평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31	궁평리 궁뎡유적	도척면 궁평리	선사유적	구석기~백제	노곡 191-1		
132	노곡리 느티나무	도척면 노곡리 498-1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9	
133	도옹리 유물산포지	도척면 도옹리 111-2전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134	봉일사	도척면 방도리 147	사찰	조선	노곡 191-1		
135	수도사	도척면 방도리 633	사찰	조선	노곡 191-1		
136	방도리 느티나무	도척면 방도리 임54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1	
137	상림리 도요지 1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38	상림리 도요지 2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39	상림리 도요지 3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40	상림리 도요지 4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41	상림리 도요지 5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42	상림리 도요지 6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43	상림리 도요지 7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44	상림리 도요지 8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45	상림리 도요지 9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46	상림리 도요지 10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134호	
147	상림리 도요지 11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48	상림리 도요지 12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49	상림리 도요지 13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50	상림리 도요지 14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51	상림리 도요지 15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52	상림리 구석기유적	도척면 상림리	선사유적	구석기	노곡 191-1		신규
153	상림리 유물산포지 1	도척면 상림리 104-32전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154	상림리 유물산포지 2	도척면 상림리 23답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155	상림리 느티나무	도척면 상림리 276-4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2	
156	유정리 석불좌상	도척면 유정리 222-7	불상	조선	노곡 191-1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8호	
157	이덕순 가옥	도척면 유정리(미륵동)	고가	근대	노곡 191-1		
158	유정리 도요지 1	도척면 유정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59	유정리 도요지 2	도척면 유정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60	유정리 건물지	도척면 유정리	건물지 선사유적	궐기과~조선	노곡191-1	신규	
161	유정리 유물산포지	도척면 유정리 285답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162	유정리 느티나무 1	도척면 유정리 417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8	
163	유정리 느티나무 2	도척면 유정리 잡종지 182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0	
164	유정리 느티나무 3	도척면 유정리 546대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5	
165	유정리 느티나무 4	도척면 유정리 546대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6	
166	유정리 파나무 1	도척면 유정리 417-1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3	
167	신경인 묘	도척면 진우리 산34-1	묘	조선	노곡 191-1		
168	신탕 묘	도척면 진우리 산34-1	묘	조선	노곡 191-1		
169	진우리 느티나무 1	도척면 진우리 706-2전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5	
170	진우리 느티나무 2	도척면 진우리 707임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6	
171	진우리 가시향나무	도척면 진우리 740임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7	
172	권세경 묘와 묘갈	도척면 추곡리 산 40	묘	조선	노곡 191-1		
173	권낙인 묘와 묘비	도척면 추곡리 산40	묘	조선	노곡 191-1		
174	백련암 부도	도척면 추곡리 산65	부도	조선	노곡 191-1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75	추곡리 도요지 1	도척면 추곡리 419-2 일대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176	추곡리 도요지 2	도척면 추곡리 482 일대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177	추곡리 도요지 3	도척면 추곡리 418 일대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4) 실촌면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78	건업리 도요지 1	실촌면 건업리 소미골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179	건업리 도요지 2	실촌면 건업리 소미골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180	곤지암리 도요지 1	실촌면 곤지암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81	곤지암리 도요지 2	실촌면 곤지암리 황새봉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82	곤지암리 도요지 3	실촌면 곤지암리 황새봉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83	곤지암리 도요지 4	실촌면 곤지암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84	곤지암리 도요지 5	실촌면 곤지암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85	곤지암리 도요지 6	실촌면 곤지암리 곤지암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86	곤지암리 도요지 7	실촌면 곤지암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87	곤지암리 향나무	실촌면 곤지암리 453-4임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58	
188	곤지암 바위	실촌면 곤지암리 453-20	명승지	조선	노곡 191-1	경기도문화재청 지정	
189	만선리 느티나무	실촌면 만선리 240-1답	기타유적	조선	이천 191-2	경기광주 60	
190	봉현리 느티나무	실촌면 봉현리 29답	기타유적	조선	이천 191-2	경기광주 64	
191	최봉향 효자정문	실촌면 부항리 산69	정려문	현대	이천 191-2		
192	구연영 묘	실촌면 삼리 26-33	묘	근대	노곡 191-1		
193	삼리 구석기 유적	실촌면 삼리 산26-9임 일대	선사유적 외오지 구석기 고려		노곡 191-1	신규	
194	김약시 묘	실촌면 삼합리 산50-1	묘	조선	양평 191-4		
195	심종만 묘	실촌면 수양리 산51-1	묘	조선	이천 191-2		
196	심혁 묘	실촌면 수양리 산51-1	묘	조선	이천 191-2		
197	심지택 묘	실촌면 수양리 산51-1	묘	조선	이천 191-2		
198	현덕창 묘	실촌면 수양리 산44-1	묘	조선	이천 191-2		
199	현대형 묘	실촌면 수양리 산44-1	묘	조선	이천 191-2		
200	수양리 느티나무 1	실촌면 수양리 전195-4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1	
201	수양리 느티나무 2	실촌면 수양리 전195-4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2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02	신림 묘와 묘갈	실촌면 신대리 산1-1	묘	조선	노곡 191-1	경기도기념물 제5호	
203	신준 묘와 묘갈	실촌면 신대리 산1-1	묘	조선	노곡 191-1		
204	신완 묘와 신도비	실촌면 신대리 산1-1	묘	조선	노곡 191-1		
205	신성하 묘와 묘갈	실촌면 신대리 산1-1	묘	조선	노곡 191-1		
206	신대리 도요지 1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07	신대리 도요지 2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08	신대리 도요지 3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09	신대리 도요지 4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10	신대리 도요지 5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11	신대리 도요지 6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2	신대리 도요지 7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13	신대리 도요지 8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4	신대리 도요지 9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5	신대리 도요지 10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16	신대리 도요지 11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17	신대리 도요지 12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8	신대리 도요지 13	실촌면 신대리 작은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9	신대리 도요지 14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0	신대리 도요지 15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1	신대리 도요지 16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2	신대리 도요지 17	실촌면 신대리 하오개들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3	신대리 도요지 18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4	신대리 도요지 19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25	신대리 도요지 20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6	신대리 도요지 21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7	신대리 도요지 22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8	신대리 대석동유적	실촌면 신대리 대석동 555-44답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노곡 191-1		신규
229	연곡리 구석기 유적	실촌면 연곡리 198-3전	선사유적	구석기	이천 191-2		신규
230	연곡리 유물산포지	실촌면 연곡리 618-2 일대	유물산포지	통일신라말	이천 191-2		신규
231	이방규 묘와 묘갈	실촌면 연곡리 산18	묘	조선	이천 191-2		
232	이현석 묘와 신도비	실촌면 연곡리 산18	묘	조선	이천 191-2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33	구치관 묘와 신도비	실촌면 하열미리 산3	묘	조선	노곡 191-1		
234	구척 묘	실촌면 하열미리 산3	묘	조선	노곡 191-1		
235	충렬묘	실촌면 하열미리 313	사묘	현대	노곡 191-1		
236	이순이 가옥	실촌면 상열미리 11	고가	근대	광주 191-3		
237	열미리 도요지 1	실촌면 상열미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38	열미리 도요지 2	실촌면 하열미리 가장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39	열미리 도요지 3	실촌면 중열미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40	열미리 도요지 4	실촌면 중열미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41	열미리 도요지 5	실촌면 상열미리 더덕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242	열미리 도요지 6	실촌면 상열미리 뒷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43	열미리 도요지 7	실촌면 상열미리 풀무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44	열미리 도요지 8	실촌면 중열미리 우두머리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45	열미리 도요지 9	실촌면 중열미리 우두머리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46	열미리 도요지 10	실촌면 중열미리 못들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47	열미리 느타나무	실촌면 하열미리 486-1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57	
248	구덕회화자비	실촌면 하열미리 467-4	효자비	일제강점기	노곡 191-1		
249	백인대	실촌면 하열미리 산174	기타유적	현대	노곡 191-1		
250	강석규 가옥	실촌면 하열미리 144	고가	근대	노곡 191-1		
251	송일 묘	실촌면 상오향리 산46	묘	조선	노곡 191-1		
252	오향리 도요지 1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53	오향리 도요지 2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54	오향리 도요지 3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55	오향리 도요지 4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56	오향리 도요지 5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57	오향리 도요지 6	실촌면 상오향리 학골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58	상오향리 유물산포지	실촌면 상오향리 309 일대	유물산포지	통일시대-조선	이천 191-2	신규	
259	하오향리 유물산포지	실촌면 하오향리 감촌말 54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이천 191-2		신규
260	하오향리 팽나무	실촌면 하오향리 답36-1	기타유적	조선	이천 191-2	경기광주 59	
261	유사리 도요지 1	실촌면 유사리 뒷골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62	유사리 도요지 2	실촌면 유사리 뒷골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63	유사리 도요지 3	실촌면 유사리 벼드라리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사적 134호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64	유사리 도요지 4	실촌면 유사리 아랫말	기타유적	조선	이천 191-2		
265	유사리 도요지 5	실촌면 유사리 아랫말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사적 134호	
266	유사리 도요지 6	실촌면 유사리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67	유사리 도요지 7	실촌면 유사리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68	유사리 도요지 8	실촌면 유사리 웃말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사적 134호	
269	유사리 느티나무	실촌면 유사리 268-2전	기타유적	조선	이천 191-2	경기광주 63	
270	장심리 도요지	실촌면 장심리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5) 오포면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71	고산리 무문토기산포지	오포면 고산리 산4-1임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성남 190-4		신규
272	고산리 느티나무1	오포면 고산리 22대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42	
273	고산리 느티나무2	오포면 고산리 22대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46	
274	김균 묘와 신도비	오포면 능평리 산89-1	묘	조선	능평 190-2	경기도기념물 제106호	
275	낙안군 이말 묘	오포면 능평리 산129	묘	조선	능평 190-2		
276	의령남씨묘원	오포면 능평리 산54-12	묘	조선	능평 190-2		
277	남평선 신도비	오포면 능평리 340-4대	신도비	조선	능평 190-2		
278	유기덕 묘	오포면 능평리 산124-1	묘	조선	능평 190-2		
279	이화조 묘	오포면 능평리 산32-1	묘	조선	능평 190-2		
280	충사각	오포면 능평리 618	사묘	현대	능평 190-2		
281	능평리 무문토기산포지	오포면 능평리 산132-2임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능평 190-2		신규
282	능평리 유물산포지	오포면 능평리 산73-16임/산32-1임	유물산포지	고려-조선	능평190-2		신규
283	능평리 기와산포지	오포면 능평리 산1-1임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190-2		신규
284	능평리 느티나무	오포면 능평리 268-13답	기타유적	조선	능평190-2	경기광주 47	
285	매산리 유물산포지	오포면 매산리 700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0-2		신규
286	매산리 느티나무	오포면 매산리 615-5전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44	
287	박교륜 송덕비	오포면 문형리 66-1대	송덕비	조선	능평 190-2		
288	박창환 가옥	오포면 문형리(봉골)	고가	고려(해방전)	능평 190-2		
289	문형리 유물산포지 1	오포면 문형리 565-3답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1-2		신규
290	문형리 유물산포지 2	오포면 문형리 201-2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0-2		신규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91	문형리 유물산포지 3	오포면 문형리 261-4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0-2		신규
292	문형리 느티나무 1	오포면 문형리 63대	기타유적	조선 16세기	능평 190-2	경기광주 43	
293	문형리 느티나무 2	오포면 문형리 452대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48	
294	문형리 느티나무 3	오포면 문형리 63대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49	
295	문형리 느티나무 4	오포면 문형리 63대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50	
296	문형리 느티나무 5	오포면 문형리 63대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51	
297	김자수 묘와 신도비	오포면 신현리 산120-1	묘	조선	능평 190-2	경기도 기념물 제98호	
298	김근 묘	오포면 신현리 산120-1	묘	조선	능평 190-2		
299	김영유 묘	오포면 신현리 산119-1	묘	조선	능평 190-2		
300	김훈 묘와 묘갈	오포면 신현리 산119-1	묘	조선	능평 190-2		
301	서명형 묘와 신도비	오포면 신현리 산97-1	묘	조선	성남 190-4		
302	영모재	오포면 신현리 810	사묘	현대	능평 190-2		
303	양평묘	오포면 양벌리 520-1	사묘	현대	능평 190-2		
304	양벌리 유물산포지	오포면 양벌리 730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305	양벌리 느티나무 1	오포면 양벌리 616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45	
306	양벌리 느티나무 2	오포면 양벌리 622-2답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52	
307	정용규 묘와 묘갈	오포면 추자리 산30-1	묘	조선	능평 190-2		
308	정연 묘	오포면 추자리 산30-1	묘	조선	능평 190-2		
309	정보문 묘	오포면 추자리 산20-1	묘	조선	능평 190-2		
310	정유 묘와 묘갈	오포면 추자리 산20-1	묘	조선	능평 190-2		
311	추자리 유물산포지 1	오포면 추자리 31-1답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0-2		신규
312	추자리 유물산포지 2	오포면 추자리 480-1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0-2		신규

(6) 중부면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313	원성	중부면 산성리 산 1사	성	조선	성남 190-4	사적 57호	남한산성
314	봉암성	중부면 산성리 산 5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15	한봉성	중부면 검복리 산 99-8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16	신남성동돈대	중부면 산성리 산성리 산99-8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17	신남성서돈대	중부면 검복리 산 99-6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점사항	비 고
318	남웅성1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19	남웅성2	중부면 산성리 산 137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0	남웅성3	중부면 산성리 산142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1	장경사신지용성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2	연주봉용성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3	동문	중부면 산성리 산 6-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4	북문	중부면 산성리 산 667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5	서문	중부면 산성리 산 1246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6	남문	중부면 산성리 산 1244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7	신남성동돈대성문	중부면 검북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8	신남성서돈대성문	중부면 검북리 산99-6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9	남웅성 홍예문	중부면 산성리 산137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0	암문 1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1	암문 2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2	암문 3	중부면 산성리 산1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3	암문 4	중부면 산성리 산13사	성	조선	성남190-4		남한산성
334	암문 5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5	암문 6	중부면 산성리 산30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6	암문 7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7	암문 8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8	암문 9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9	암문 10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0	암문 11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190-4		남한산성
341	암문 12	중부면 산성리 산5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2	암문 13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3	암문 14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4	암문 15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5	암문 16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6	원성치 1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7	원성치 2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8	원성치 3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349	원성치 4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0	봉암성치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1	수구분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2	수구 1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3	수구 2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4	수구 3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5	수구 4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6	수구 5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7	수구 6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8	수구 7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9	수구 8	중부면 산성리 산185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0	수구 9	중부면 산성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1	수구 10	중부면 산성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2	수구 11	중부면 산성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3	수구 12	중부면 산성리 산2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4	수구 13	중부면 산성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5	수구 14	중부면 산성리 산30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6	수구 15	중부면 산성리 산30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7	수구 16	중부면 산성리 산30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8	수구 17	중부면 산성리 산137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9	수구 18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0	수구 19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1	수구 20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2	수구 21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3	수구 22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4	수구 23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5	수구 24	중부면 산성리 산5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6	수구 25	중부면 산성리 산5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7	수구 26	중부면 검복리 산99-8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8	수구 27	중부면 검복리 산99-8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9	수구 28	중부면 검복리 산99-6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380	남용성 포루 1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1	남용성 포루 2	중부면 산성리 산37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2	남용성 포루 3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3	동성포루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4	장경사용성포루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5	연주봉용성포루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6	한봉성포루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7	동장대지	중부면 산성리 산15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8	북장대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9	수어장대	중부면 산성리 산85-1사	성	조선	성남 190-4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호	남한산성
390	남장대	중부면 산성리 산32-1임	성	조선	성남 190-4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호	남한산성
391	외동장대지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2	승렬전	중부면 산성리 산717사	사묘	조선	성남 190-4	경기도유형문화재 제4호	남한산성
393	현결사	중부면 산성리 산310-1사	사묘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4	사직단지	중부면 산성리 산94사	사묘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5	성황당, 여단	중부면 산성리 산651사	사묘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6	기우제단	중부면 산성리 715-1사	사묘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7	청량당	중부면 산성리 715-1사	기타목조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8	행궁상궐지	중부면 산성리 935-6전 일대	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9	행궁하궐지	중부면 산성리 935-3대	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0	좌전지	중부면 산성리 936-2전	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1	우실지	중부면 산성리 1070-1전	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2	재덕당지	중부면 산성리 935-1 전	관아, 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3	좌승당지	중부면 산성리 935-4전	관아, 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4	일장각지	중부면 산성리 935-4전	관아, 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5	한남루지	중부면 산성리 935-5대	관아, 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6	인화관지	중부면 산성리 550-14대	관아, 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7	연무관	중부면 산성리 400-1사	관아, 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8	이야지	중부면 산성리 388	관아, 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9	포도청지	중부면 산성리 526-1전	관아, 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0	군회청지	중부면 산성리 400-1사	관아, 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411	종각지	중부면 산성리 581-1대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2	수창지	중부면 산성리 867-4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3	영고지	중부면 산성리 373학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4	별창지	중부면 산성리 373학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5	구군기고지	중부면 산성리 400-사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6	무망루지	중부면 산성리 85-1사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7	침괘정	중부면 산성리 591-1사	정,각	조선	성남 190-4	경기도유형문화재 제5호	남한산성
418	지수당	중부면 산성리 124-1	정,각	조선	성남 190-4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4호	남한산성
419	구송정지	중부면 산성리 92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0	관어정	중부면 산성리 124-1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1	영일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2	영춘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9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3	옥천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4	완대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5	우회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6	유차산루지	중부면 산성리 935-4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7	이위정지	중부면 산성리 936-4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8	송암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9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9	개원사	중부면 산성리 198-6	사찰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0	남단사지	중부면 산성리 103전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1	한홍사지	중부면 산성리 산38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2	장경사	중부면 산성리 22-1	사찰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3	망월사	중부면 산성리 14	사찰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4	동림사지	중부면 산성리 1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5	옥정사지	중부면 산성리 265-1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6	국청사지	중부면 산성리 812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7	천주사지	중부면 산성리 831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8	영원사지	중부면 검복리 2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9	남웅성무인비	중부면 산성리 산137임	기념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0	병암 남성신수기비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념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1	봉암신성병인비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기념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442	행궁앞 석비군	중부면 산성리 1223도	선정비군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3	남문앞 석비군 1	중부면 산성리 1173-4	선정비군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4	남문앞 석비군 2	중부면 산성리 1243도	선정비군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5	이세화 선정비	중부면 산성리 124-1	선정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6	석세환 불망비	중부면 산성리 590-1대	선정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7	국청사 불망비	중부면 산성리 804임	선정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8	옥천정 암각문	중부면 산성리 산23임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9	반석암각문	중부면 산성리 935-6전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0	중은암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1	수어시대	중부면 산성리 815-1사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2	귀부	중부면 산성리 124-1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3	금림조합비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4	월성김씨효열비	중부면 산성리 975대	충효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5	정씨정열비	중부면 산성리 142-2도	충효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6	이대통령행차기념석수비	중부면 산성리 815-1사	기타비	근대	성남190-4		남한산성
457	서혼남묘비	중부면 산성리 124-1	묘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8	주필암	중부면 검복리 103-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9	동림사지 우물	중부면 산성리 1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60	효자우물	중부면 산성리 1220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61	국청사지 우물	중부면 산성리 813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62	남단사지 우물	중부면 산성리 103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3	옥정사지 우물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4	형제 우물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5	장군수 우물	중부면 산성리 804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6	박달재앞 우물	중부면 산성리 1223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7	개원사용왕당	중부면 산성리 198-6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8	감로수	중부면 산성리 산18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9	대궐할머니 우물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70	우묵골 우물	중부면 산성리 1057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1	붕어다리 우물터	중부면 산성리 948대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2	남문약수	중부면 산성리 1173-3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473	당지기 집터	중부면 산성리 815-3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4	송수탑지	중부면 산성리 산28임	기타유적	근대	성남 190-4		남한산성
475	대장간터	중부면 산성리 519-3대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6	도가터	중부면 산성리 581-3대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7	사형장	중부면 산성리 400-1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8	도살장	중부면 산성리 44-6답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9	장터	중부면 산성리 400-1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0	택지부 측량소삼각점	중부면 산성리 815-1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1	고마소	중부면 산성리 971전 일대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2	과녁터	중부면 산성리 459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3	매염처	중부면 산성리 595-2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4	매탄처	중부면 산성리 산17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5	감투바위	중부면 산성리 871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86	대부송	중부면 산성리 산9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7	매바위	중부면 산성리 815-1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8	물방아	중부면 산성리 산183-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9	벌바위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0	왕바위	중부면 산성리 산37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1	취성암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2	구멍바위	중부면 산성리 815-1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3	홍전분가옥	중부면 산성리 603	고가	근대	성남 190-4		남한산성
494	안동순가옥	중부면 산성리 947	고가	근대	성남 190-4		남한산성
495	김원려가옥	중부면 산성리 447	고가	근대	성남 190-4		남한산성
496	매바위	중부면 산성리 815	민간신앙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7	별봉 서낭당	중부면 산성리 산 2	민간신앙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8	현절사 서낭당	중부면 산성리 334전	민간신앙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9	검복리 장승	중부면 검복리 산43-1임	민간신앙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0	영원제터	중부면 산성리 527일대	민간신앙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1	터주가리	중부면 산성리 홍전분가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2	청량궁당	중부면 산성리 815-1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3	별봉궁당	중부면 산성리 815-1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504	큰골굿당	중부면 검복리 2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5	개심폭바위	중부면 산성리 산 27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6	산성리 느티나무 1	중부면 산성리 산 21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5	남한산성
507	산성리 느티나무 2	중부면 산성리 산 21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6	남한산성
508	산성리 느티나무 3	중부면 산성리 797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7	남한산성
509	산성리 느티나무 4	중부면 산성리 산 23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8	남한산성
510	산성리 느티나무 5	중부면 산성리 임 397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9	남한산성
511	산성리 느티나무 6	중부면 산성리 임 2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0	남한산성
512	산성리 느티나무 7	중부면 산성리 산 2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1	남한산성
513	산성리 느티나무 8	중부면 산성리 산 2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2	남한산성
514	산성리 느티나무 9	중부면 산성리 산 2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3	남한산성
515	산성리 느티나무 10	중부면 산성리 산 2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4	남한산성
516	산성리 향나무	중부면 산성리 815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5	남한산성
517	산성리 느티나무 11	중부면 산성리 400-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7	남한산성
518	산성리 느티나무 12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8	남한산성
519	산성리 느티나무 13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9	남한산성
520	산성리 느티나무 14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0	남한산성
521	산성리 느티나무 15	중부면 산성리 17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1	남한산성
522	산성리 느티나무 16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2	남한산성
523	산성리 느티나무 17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3	남한산성
524	산성리 느티나무 18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4	남한산성
525	산성리 느티나무 19	중부면 산성리 377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5	남한산성
526	산성리 소나무	중부면 산성리 산 15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8	남한산성
527	산성리 은행나무	중부면 산성리 산 17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9	남한산성
528	검복리 음나무 1	중부면 검복리 답4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30	
529	검복리 음나무 2	중부면 검복리 대99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34	
530	이제 묘	중부면 상변천리 산2-1임	묘	조선	광주 191-3		
531	이정기 묘와 신도비	중부면 상변천리 산2-1임	묘	조선	광주 191-3		
532	이항 묘	중부면 상변천리 산2-1임	묘	조선	광주 191-3		
533	변천리 도요지 1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34	변천리 도요지 2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535	번천리 도요지 3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36	번천리 도요지 4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37	번천리 도요지 5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38	번천리 도요지 6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39	번천리 도요지 7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40	번천리 도요지 8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41	번천리 도요지 9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42	번천리 도요지 10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3	번천리 도요지 11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4	번천리 도요지 12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5	번천리 도요지 13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6	번천리 도요지 14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7	번천리 도요지 15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8	번천리 도요지 16	중부면 상번천리 장작굴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9	번천리 도요지 17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50	번천리 도요지 18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51	번천리 도요지 19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52	번천리 도요지 20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53	번천리 도요지 21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54	상번천리 느티나무	중부면 상번천리 대 211-1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27	
555	불당리 향나무	중부면 불당리 대 199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31	
556	의안대군 묘	중부면 엄미리 산 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경기도기념물 제166호	
557	방병식 가옥	중부면 엄미리(벽수골)	고가	근대	성남 190-4		
558	엄미리 느티나무	중부면 엄미리 전 399-2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6	
559	엄미리 옴나무	중부면 엄미리 576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33	
560	오전리 도요지 1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61	오전리 도요지 2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62	오전리 도요지 3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63	오전리 도요지 4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64	오전리 도요지 5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65	오전리 도요지 6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566	오전리 도요지 7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67	오전리 잣나무	중부면 오전리 답 97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32	

(7) 초월면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568	늑현리 유불산포지	초월면 늑현리 25-8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569	늑현리 은행나무	초월면 늑현리 산18-22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2	경기광주 53	
570	정충묘	초월면 대쌍령리 87-1	사묘	현대	광주 191-3		
571	김대선 효자비	초월면 대쌍령리 87-1	효자비	근대	광주 191-3		
572	대쌍령리 도요지 1	초월면 대쌍령리 집터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73	대쌍령리 도요지 2	초월면 대쌍령리 옷말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74	대쌍령리 도요지 3	초월면 대쌍령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75	대쌍령리 도요지 4	초월면 대쌍령리 집터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76	대쌍령리 도요지 5	초월면 대쌍령리 옷말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77	대쌍령리 구석기유적	초월면 대쌍령리 154-16전 일대	선시유적	구석기	광주 191-3	신규	
578	낙화암	초월면 대쌍령리 123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579	도평리 참나무	초월면 도평리 산 184-1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56	
580	무갑리 도요지 1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1	무갑리 도요지 2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2	무갑리 도요지 3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3	무갑리 도요지 4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4	무갑리 도요지 5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5	무갑리 도요지 6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86	무갑리 도요지 7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7	무갑리 도요지 8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8	무갑리 도요지 9	초월면 무갑리 구용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89	무갑리 도요지 10	초월면 무갑리 삼박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90	무갑리 도요지 11	초월면 무갑리 삼박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91	무갑리 도요지 12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92	무갑리 도요지 13	초월면 무갑리 거명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593	무갑리 도요지 14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94	무갑리 도요지 15	초월면 무갑리 수약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95	무갑리 도요지 16	초월면 무갑리 수약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96	무갑리 도요지 17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97	무갑리 도요지 18	초월면 무갑리 구용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98	무갑리 도요지 19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99	무갑리 도요지 20	초월면 무갑리 종죽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00	무갑리 도요지 21	초월면 무갑리 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01	무갑리 도요지 22	초월면 무갑리 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02	무갑리 도요지 23	초월면 무갑리 당돌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03	무갑리 도요지 24	초월면 무갑리 삼배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04	산이리 도요지	초월면 산이리 쑤배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05	산이리 지석묘	초월면 산이리 1번지	선사유적	청동기	노곡 191-1		
606	신약회선생 생가	초월면 서하리 160-1	고가	조선	광주 191-3	경기도기념물 제134호	
607	선동리 도요지 1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08	선동리 도요지 2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09	선동리 도요지 3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10	선동리 도요지 4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11	선동리 도요지 5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12	장차주 묘와 묘갈	초월면 선동리 산3-1임	묘	조선	광주 191-3		
613	장사현 묘	초월면 선동리 산2-1	묘	조선	광주 191-3		
614	광주김씨 정려문	초월면 선동리 66	정려문	현대	광주 191-3		
615	이래 묘와 신도비	초월면 신월리 산11임	묘	조선	광주 191-3		
616	이순 묘와 신도비	초월면 신월리 산22-1임	묘	조선	광주 191-3		
617	이한 묘	초월면 신월리 산22-1임	묘	조선	광주 191-3		
618	이수언 묘와 묘갈	초월면 신월리 산22-1임	묘	조선	광주 191-3		
619	이소 묘와 묘갈	초월면 신월리 산2211임	묘	조선	광주 191-3		
620	고덕재	초월면 신월리 174	사묘	현대	광주 191-3		
621	옥산사	초월면 신월리 14전	사묘	현대	광주 191-3		
622	신월리 은행나무	초월면 신월리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54	
623	쌍동리 도요지 1	초월면 쌍동리 어두배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624	쌍동리 도요지 2	초월면 쌍동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625	쌍동리 지석묘	초월면 쌍동리 15번지	선사유적	청동기	노곡 191-1		
626	쌍동리 느티나무	초월면 쌍동리 전173-9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2	경기광주 55	
627	용수리 유물산포지	초월면 용수리 23-1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628	김감 묘와 신도비	초월면 지월리 산69-1임	묘	조선	광주 191-3		
629	정홍문 묘와 묘갈	초월면 지월리 산26-1임	묘	조선	광주 191-3		
630	허난설헌 묘	초월면 지월리 산29-5	묘	조선	광주 191-3	경기도기념물 제90호	
631	지월리사지	초월면 지월리 619-1	사지	고려-조선	광주 191-3	신규	
632	국수봉 산성	초월면 지월리 69-1임/광주읍 쌍령리 산 28임	성	미상	광주 191-3		신규
633	지월리 도요지 1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34	지월리 도요지 2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35	지월리 도요지 3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36	지월리 도요지 4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37	지월리 구석기유적	초월면 지월리 오송계 28-3답 일대	선사유적	구석기	광주 191-3	신규	
638	지월리 유물산포지	초월면 지월리 28-5임	유물산포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639	학동리 도요지 1	초월면 학동리 삼막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0	학동리 도요지 2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1	학동리 도요지 3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2	학동리 도요지 4	초월면 학동리 두두봉들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3	학동리 도요지 5	초월면 학동리 붓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4	학동리 도요지 6	초월면 학동리 붓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5	학동리 도요지 7	초월면 학동리 벌등막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6	학동리 도요지 8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7	학동리 도요지 9	초월면 학동리 벌등막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8	학동리 도요지 10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9	학동리 도요지 11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0	학동리 도요지 12	초월면 학동리 산막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1	학동리 도요지 13	초월면 학동리 붓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2	학동리 도요지 14	초월면 학동리 붓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3	학동리 도요지 15	초월면 학동리 두루봉들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4	학동리 도요지 16	초월면 학동리 셋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8) 퇴촌면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655	홍성현 가옥	퇴촌면 관음리 700-1(절골)	고가	근대	광주 191-3		
656	관음리 도요지 1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7	관음리 도요지 2	퇴촌면 관음리 도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8	관음리 도요지 3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9	관음리 도요지 4	퇴촌면 관음리 도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0	관음리 도요지 5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1	관음리 도요지 6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2	관음리 도요지 7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63	관음리 도요지 8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4	관음리 도요지 9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5	관음리 도요지 10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6	관음리 도요지 11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7	관음리 도요지 12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68	관음리 도요지 13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69	관음리 도요지 14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0	관음리 도요지 15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71	관음리 도요지 16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2	관음리 도요지 17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3	관음리 도요지 18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4	관음리 도요지 19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5	관음리 도요지 20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6	관음리 도요지 21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7	관음리 도요지 22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78	관음리 도요지 23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79	관음리 도요지 24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0	관음리 도요지 25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1	관음리 도요지 26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82	관음리 도요지 27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3	관음리 도요지 28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4	관음리 도요지 29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685	관음리 도요지 30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6	관음리 도요지 31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7	관음리 도요지 32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88	관음리 도요지 33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9	관음리 도요지 34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90	관음리 도요지 35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91	관음리 느티나무	퇴촌면 관음리 전326-1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80	
692	조영무 묘	퇴촌면 광동리 산16	묘	조선	광주 191-3		
693	광동리 느티나무	퇴촌면 광동리 346-1답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78	
694	안당 묘와 신도비	퇴촌면 도마리 산22임	묘	조선	광주 191-3		
695	여여길 묘	퇴촌면 도마리 산19-1임	묘	조선	광주 191-3		
696	여우길 묘	퇴촌면 도마리 산19-1임	묘	조선	광주 191-3		
697	최항 묘와 신도비	퇴촌면 도마리 산11	묘	조선	광주 191-3		
698	문정공최항지묘	퇴촌면 도마리 197-8	사묘	현대	광주 191-3		
699	문정공영모재	퇴촌면 도마리 195	사묘	현대	광주 191-3		
700	도마리 도요지 1	퇴촌면 도마리 윗도마치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01	도마리 도요지 2	퇴촌면 도마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02	도마리 도요지 3	퇴촌면 도마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03	도마리 도요지 4	퇴촌면 도마리 탄발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04	도마리 도요지 5	퇴촌면 도마리 도마치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05	도마리 도요지 6	퇴촌면 도마리 괴기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06	도마리 도요지 7	퇴촌면 도마리 윗도마치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07	도마리 유물산포지	퇴촌면 도마리 113선 일대	유물산포지	구석기·조선	광주 191-3		신규
708	도마리 느티나무	퇴촌면 도마리 221-1전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77	
709	심우승 묘와 신도비	퇴촌면 도수리 산70-3임	묘	조선	광주 191-3		
710	심액 묘와 신도비	퇴촌면 도수리 산70-3임	묘	조선	광주 191-3		
711	심광수 묘와 묘갈	퇴촌면 도수리 산70-3임	묘	조선	광주 191-3		
712	안근 묘	퇴촌면 도수리 산72	묘	조선	광주 191-3		
713	안용 묘	퇴촌면 도수리 산72	묘	조선	광주 191-3		
714	황유 묘	퇴촌면 도수리 산75	묘	조선	광주 191-3		
715	숙안공주 묘	퇴촌면 도수리 산75	묘	조선	광주 191-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716	도수리 사지	퇴촌면 도수리 70	사지	조선	광주 191-3		
717	도수리 도요지 1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18	도수리 도요지 2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19	도수리 도요지 3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20	도수리 도요지 4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21	도수리 도요지 5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22	도수리 도요지 6	퇴촌면 도수리 사기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23	도수리 도요지 7	퇴촌면 도수리 사기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24	도수리 도요지 8	퇴촌면 도수리 삼백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25	도수리 도요지 9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26	신희 묘와 신도비	퇴촌면 영동리 산12-1	묘	조선	양평 191-4		
727	오리 유물산포지1	퇴촌면 오리 235-1전 일대	유물산포지	고려-조선	광주 191-3		신규
728	오리 유물산포지 2	퇴촌면 오리 40-2답	유물산포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729	오리 유물산포지 3	퇴촌면 오리 73답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730	김익훈 묘와 신도비	퇴촌면 무수리 웃무솔	묘	조선	광주 191-3		
731	김만채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광주 191-3		
732	김성택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광주 191-3		
733	김상익 묘	퇴촌면 무수리 101-4전	묘	조선	광주 191-3		
734	김진상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광주 191-3		
735	김만선 묘	퇴촌면 무수리 산21임	묘	조선	광주 191-3		
736	김영택 묘	퇴촌면 무수리 산21임	묘	조선	광주 191-3		
737	김진항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광주 191-3		
738	김상정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광주 191-3		
739	김상약 묘와 신도비	퇴촌면 무수리 4-3	묘	조선	광주 191-3		
740	김경택 묘	퇴촌면 무수리 산5임	묘	조선	광주 191-3		
741	천진암 성현오위 묘	퇴촌면 우산리 500	묘	조선	양평 191-4		
742	천진암지	퇴촌면 우산리	사지		양평 191-4		
743	우산리 도요지 1	퇴촌면 우산리 박석거리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744	우산리 도요지 2	퇴촌면 우산리 천진암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745	우산리 도요지 3	퇴촌면 우산리 천진암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746	우산리 도요지 4	퇴촌면 우산리 뒷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747	우산리 도요지 5	퇴촌면 우산리 뒷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48	우산리 도요지 6	퇴촌면 우산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49	우산리 도요지 7	퇴촌면 우산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0	우산리 도요지 8	퇴촌면 우산리 가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1	우산리 도요지 9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52	우산리 도요지 10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53	우산리 도요지 11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4	우산리 도요지 12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5	우산리 도요지 13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6	우산리 도요지 14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57	우산리 도요지 15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8	우산리 도요지 16	퇴촌면 우산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9	우산리 도요지 17	퇴촌면 우산리 도로지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60	우산리 도요지 18	퇴촌면 우산리 박석거리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761	우산리 도요지 19	퇴촌면 우산리 박석거리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762	우산리 도요지 20	퇴촌면 우산리 고로지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763	우산리 도요지 21	퇴촌면 우산리 고로지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764	원당리 도요지	퇴촌면 원당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765	정지리 도요지 1	퇴촌면 정지리 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766	정지리 도요지 2	퇴촌면 정지리 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사적 134호	
767	정지리 도요지 3	퇴촌면 정지리 정자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사적 134호	
768	정지리 도요지 4	퇴촌면 정지리 정자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사적 134호	

2) 종류별

(1) 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313	원성	중부면 산성리 산 1사	성	조선	성남 190-4	사적 57호	남한산성
314	봉암성	중부면 산성리 산 5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15	한봉성	중부면 검복리 산 99-8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16	신남성동둔대	중부면 산성리 산성리 산99-8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317	신남성서돈대	중부면 검복리 산 99-6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18	남용성1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19	남용성2	중부면 산성리 산 137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0	남용성3	중부면 산성리 산142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1	장경사신지용성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2	연주봉용성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3	동문	중부면 산성리 산 6-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4	북문	중부면 산성리 산 667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5	서문	중부면 산성리 산 1246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6	남문	중부면 산성리 산 1244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7	신남성동돈대성문	중부면 검복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8	신남성서돈대성문	중부면 검복리 산99-6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9	남용성 홍예문	중부면 산성리 산137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0	암문 1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1	암문 2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2	암문 3	중부면 산성리 산1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3	암문 4	중부면 산성리 산1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4	암문 5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5	암문 6	중부면 산성리 산30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6	암문 7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7	암문 8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8	암문 9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9	암문 10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0	암문 11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1	암문 12	중부면 산성리 산5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2	암문 13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3	암문 14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4	암문 15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5	암문 16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6	원성치 1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7	원성치 2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348	원성치 3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9	원성치 4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0	봉암성치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1	수구문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2	수구 1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3	수구 2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4	수구 3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5	수구 4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6	수구 5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7	수구 6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8	수구 7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9	수구 8	중부면 산성리 산185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0	수구 9	중부면 산성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1	수구 10	중부면 산성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2	수구 11	중부면 산성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3	수구 12	중부면 산성리 산2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4	수구 13	중부면 산성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5	수구 14	중부면 산성리 산30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6	수구 15	중부면 산성리 산30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7	수구 16	중부면 산성리 산30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8	수구 17	중부면 산성리 산137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9	수구 18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0	수구 19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1	수구 20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2	수구 21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3	수구 22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4	수구 23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5	수구 24	중부면 산성리 산5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6	수구 25	중부면 산성리 산5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7	수구 26	중부면 검복리 산99-8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8	수구 27	중부면 검복리 산99-8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379	수구 28	중부면 검북리 산99-6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0	남용성 포루 1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1	남용성 포루 2	중부면 산성리 산37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2	남용성 포루 3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3	동성포루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4	장경사웅성포루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5	연주봉웅성포루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6	한봉성포루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7	동장대지	중부면 산성리 산15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8	북장대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9	수어장대	중부면 산성리 산85-1사	성	조선	성남 190-4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1호	남한산성
390	남장대	중부면 산성리 산32-1임	성	조선	성남 190-4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2호	남한산성
391	외동장대지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632	국수봉 산성	조월면 지월리 69-1임 / 황주읍 쌍평리 산26임	성	미상	광주 191-3		신규

(2) 궁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398	행궁상궐지	중부면 산성리 935-6전 일대	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9	행궁하궐지	중부면 산성리 935-3대	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0	좌전지	중부면 산성리 936-2전	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1	우설지	중부면 산성리 1070-1전	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 관아 · 성곽건물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402	재의당지	중부면 산성리 935-1 전	관아 · 성곽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3	좌승당지	중부면 산성리 935-4전	관아 · 성곽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4	일장각지	중부면 산성리 935-4전	관아 · 성곽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5	한남루지	중부면 산성리 935-5대	관아 · 성곽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6	인화관지	중부면 산성리 550-14대	관아 · 성곽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407	연무관	중부면 산성리 400-1사	관아·성곽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8	이아지	중부면 산성리 388	관아·성곽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9	포도청지	중부면 산성리 526-1전	관아·성곽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0	군회청지	중부면 산성리 400-1사	관아·성곽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1	종각지	중부면 산성리 581-1대	관아·성곽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2	수창지	중부면 산성리 867-4	관아·성곽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3	영교지	중부면 산성리 373학	관아·성곽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4	별창지	중부면 산성리 373학	관아·성곽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5	구군기고지	중부면 산성리 400-사	관아·성곽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 정 · 각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416	무망루지	중부면 산성리 85-1사	정 · 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7	침패정	중부면 산성리 591-1사	정 · 각	조선	성남 190-4	경기도문화재청 지정	남한산성
418	지수당	중부면 산성리 124-1	정 · 각	조선	성남 190-4	경기도문화재청 지정	남한산성
419	구송정지	중부면 산성리 92임	정 · 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0	관어정	중부면 산성리 124-1	정 · 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1	영일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정 · 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2	영춘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9임	정 · 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3	옥천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정 · 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4	완대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정 · 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5	우회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정 · 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6	유차산루지	중부면 산성리 935-4전	정 · 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7	이위정지	중부면 산성리 936-4전	정 · 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8	송암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9임	정 · 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5) 사지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430	남단사지	중부면 산성리 103전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1	한홍사지	중부면 산성리 산38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4	동림사지	중부면 산성리 1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5	옥정사지	중부면 산성리 265-1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6	국청사지	중부면 산성리 812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7	천주사지	중부면 산성리 831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8	영원사지	중부면 검복리 2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631	지월리사지	초월면 지월리 619-1	사지	고려-조선	광주 191-3		신규
716	도수리 사지	퇴촌면 도수리 70	사지	조선	광주 191-3		
742	천진암지	퇴촌면 우산리	사지	미상	양평 191-4		

(6) 사찰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71	명성암	남종면 귀여리 551	사찰	조선	양수 206-1		
134	봉일사	도척면 방도리 147	사찰	조선	노곡 191-1		
135	수도사	도척면 방도리 633	사찰	조선	노곡 191-1		
429	개원사	중부면 산성리 198-6	사찰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2	장경사	중부면 산성리 22-1	사찰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3	망월사	중부면 산성리 14	사찰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7) 불상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56	유정리 석불좌상	도척면 유정리 222-7	불상	조선	노곡 191-1	경기도유형문화재 제88호	

(8) 부도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74	백련암 부도	도척면 추곡리 산65	부도	조선	노곡 191-1		

(9) 신도비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77	남명선 신도비	오포면 능평리 대340-4	신도비	조선	능평 190-2		

(10) 묘비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457	서혼남묘비	중부면 산성리 124-1	묘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11) 선정비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94	분원리선정비군	남종면 분원리 116	선정비	선정비	조선, 근대	광주 191-3	
442	행궁앞 석비군	중부면 산성리 1223도	선정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3	남문앞 석비군 1	중부면 산성리 1173-4	선정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4	남문앞 석비군 2	중부면 산성리 1243도	선정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5	이세화 선정비	중부면 산성리 124-1	선정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6	석세환 불망비	중부면 산성리 590-1대	선정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7	국청사 불망비	중부면 산성리 804임	선정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12) 충효비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65	문창문 효자비	남종면 검천리 450-1전	효 비	조선	양수 206-1		
248	구덕회 효자비	실촌면 하열미리 467-4	효자비	근대	노곡 191-1		
454	월성김씨효열비	중부면 산성리 975대	충효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5	정씨정열비	중부면 산성리 142-2도	충효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571	김태선 효자비	초월면 대쌍령리 82-1	효자비	근대	광주 191-3		

(13) 기타비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87	박교륜 송덕비	오포면 문형리 대66-1	송덕비	조선	능평 190-2		
439	남웅성무인비	중부면 산성리 산137임	기념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0	병암 남성신수기비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념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1	봉암신성병인비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기념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8	옥천정 압각문	중부면 산성리 산23임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9	반석압각문	중부면 산성리 935-6전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0	중은암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1	수어서대	중부면 산성리 815-1사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2	귀부	중부면 산성리 124-1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3	급림조합비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6	이대통령행차기념식수비	중부면 산성리 815-1사	기타비	근대	성남 190-4		남한산성

(14) 정려문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39	함안이씨 정려문	광주읍 중대리 107-1대	정려문	현대	성남 190-4		
191	최봉항 효자정문	실촌면 부향리 산69	정려문	현대	이천 191-2		
614	광주김씨 정려문	초월면 선동리 66	정려문	현대	광주 191-3		

(15) 기타목조물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37	여택재	광주읍 중대리 197-2대	기타목조물	현대	성남 190-4		
397	청량당	중부면 산성리 715-1사	기타목조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16) 사묘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38	충양사	광주읍 중대리 산15-2	사묘	현대	성남 190-4		
47	성재	광주읍 직리 168-3대	사묘	현대	성남 190-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35	충렬묘	실촌면 하열마리 313	사묘	현대	노곡 191-1		
280	충사각	오포면 능평리 618번지	사묘	현대	능평 190-2		
302	영모재	오포면 신현리 810	사묘	현대	능평 190-2		
303	양평묘	오포면 양벌리 520-1	사묘	현대	능평 190-2		
392	송렬전	중부면 산성리 산717사	사묘	조선	성남 190-4	경기도유형문화재 제41호	남한산성
393	현절사	중부면 산성리 산310-1사	사묘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4	사직단지	중부면 산성리 산94사	사묘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5	성황당,여단	중부면 산성리 산651사	사묘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6	가우제단	중부면 산성리 715-1사	사묘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570	정충묘	초월면 대쌍령리 87-1	사묘	현대	광주 191-3		
620	고덕재	초월면 신월리 174	사묘	현대	광주 191-3		
621	옥산사	초월면 신월리 14전	사묘	현대	광주 191-3		
698	문정공회향지묘	퇴촌면 도마리 197-8	사묘	현대	광주 191-3		
699	문정공영모재	퇴촌면 도마리 195	사묘	현대	광주 191-3		

(17) 묘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	서명원 묘와 묘갈	광주읍 목현리 산 25-2	묘	조선	성남 190-4		
2	서매수 묘	광주읍 목현리 산 25-임	묘	조선	성남 190-4		
3	신수경 묘	광주읍 목현리 산 107	묘	조선	성남 190-4		
4	신의 묘	광주읍 목현리 산 107	묘	조선	성남 190-4		
18	박문간 묘	광주읍 장지리 산54임	묘	조선	성남 190-4		
19	정광세 묘	광주읍 장지리 산64임	묘	조선	광주 191-3		
20	정충량 묘와 묘갈	광주읍 장지리 산64임	묘	조선	성남 190-4		
21	정뇌경 묘	광주읍 장지리 산61-2임	묘	조선	광주 191-3		
26	안윤덕 묘와 신도비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27	이계통 묘	광주읍 중대리 산11-1임	묘	조선	성남 190-4		
28	이세웅 묘	광주읍 중대리 산11-1임	묘	조선	성남 190-4		
29	이진 묘와 묘갈	광주읍 중대리 산10-6임	묘	조선	성남 190-4		
30	안한준 묘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31	안한언 묘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32	안황 묘와 신도비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33	안응형 묘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34	안정복 묘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35	이석형 묘	광주읍 중대리 산11-6	묘	조선	성남 190-4		
36	이석 묘와 묘갈	광주읍 중대리 산48-1임	묘	조선	성남 190-4		
41	남세건 묘와 신도비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성남 190-4		
42	남호 묘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성남 190-4		
43	남이신 묘와 신도비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성남 190-4		
44	남두침 묘와 신도비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성남 190-4		
45	남선 묘와 신도비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성남 190-4		
46	맹사성 묘	광주읍 직리 산27임	묘	조선	성남 190-4		
62	심구령 묘	남종면 검천리 산92-1	묘	조선	양수 206-1		
63	여광주묘	남종면 검천리 산31-3	묘	조선	양수 206-1		
64	청주한씨 묘와 묘갈	남종면 검천리 산31-3	묘	조선	양수 206-1		
70	김석주 묘와 신도비	남종면 귀여리 산75-1	묘	조선	양수 206-1		
102	권진 묘	남종면 삼성리 산42	묘	조선	광주 191-3		
103	노물재 묘	남종면 삼성리 산60-10	묘	조선	광주 191-3		
104	안망지 묘	남종면 삼성리 산48-5	묘	조선	광주 191-3		
113	여성제 묘와 신도비	남종면 수청리 산101-10	묘	조선	양수 206-1		
114	여유길 묘와 묘갈	남종면 수청리 산101-1	묘	조선	국수 206-2		
115	여이징 묘와 신도비	남종면 수청리 산101-임	묘	조선	국수 206-2		
117	이하악 묘갈	남종면 이석리 전133-2	묘	조선	광주 191-3		
173	권낙인 묘와 묘비	도척면 추곡리 산 40	묘	조선	노곡 191-1		
167	신경인 묘	도척면 진우리 산34-1	묘	조선	노곡 191-1		
168	신탁 묘	도척면 진우리 산34-1	묘	조선	노곡 191-1		
172	권세경 묘와 묘갈	도척면 추곡리 산 40	묘	조선	노곡 191-1		
192	구연영 묘	실촌면 삼리 26-33	묘	대한제국	노곡 191-1		
194	김약시 묘	실촌면 삼합리 산50-1	묘	조선	양평 191-4		
195	심종민 묘	실촌면 수양리 산51-1	묘	조선	이천 191-2		
196	심혁 묘	실촌면 수양리 산51-1	묘	조선	이천 191-2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97	심지택 묘	실촌면 수양리 산51-1	묘	조선	이천 191-2		
198	현덕창 묘	실촌면 수양리 산44-1	묘	조선	이천 191-2		
199	현대형 묘	실촌면 수양리 산44-1	묘	조선	이천 191-2		
202	신립 묘와 묘갈	실촌면 신대리 산1-1	묘	조선	노곡 191-1	경기도 기념물 제95호	
203	신준 묘와 묘갈	실촌면 신대리 산1-1	묘	조선	노곡 191-1		
204	신완 묘와 신도비	실촌면 신대리 산1-1	묘	조선	노곡 191-1		
205	신성하 묘와 묘갈	실촌면 신대리 산1-1	묘	조선	노곡 191-1		
231	이남규 묘와 묘갈	실촌면 연곡리 산18	묘	조선	이천 191-2		
232	이현석 묘와 신도비	실촌면 연곡리 산18	묘	조선	이천 191-2		
233	구치관 묘와 신도비	실촌면 하열미리 산3	묘	조선	노곡 191-1		
234	구척 묘	실촌면 하열미리 산3	묘	조선	노곡 191-1		
251	송일 묘	실촌면 상오향리 산46	묘	조선	노곡 191-1		
274	김규 묘와 신도비	오포면 능평리 산89-1	묘	조선	능평 190-2	경기도 기념물 제103호	
275	낙안군 이발 묘	오포면 능평리 산129	묘	조선	능평 190-2		
276	의령남씨묘원	오포면 능평리 산54-12	묘	조선	능평 190-2		
278	유기덕 묘	오포면 능평리 산124-1	묘	조선	능평 190-2		
279	이화조 묘	오포면 능평리 산32-1	묘	조선	능평 190-2		
297	김자수 묘와 신도비	오포면 신현리 산120-1	묘	조선	능평 190-2	경기도 기념물 제98호	
298	김근 묘	오포면 신현리 산120-1	묘	조선	능평 190-2		
299	김영유 묘	오포면 신현리 산119-1	묘	조선	능평 190-2		
300	김훈 묘와 묘갈	오포면 신현리 산119-1	묘	조선	능평 190-2		
301	서명형 묘와 신도비	오포면 신현리 산97-1	묘	조선	성남 190-4		
307	정응규 묘와 묘갈	오포면 추자리 산30-1	묘	조선	능평 190-2		
308	정연 묘	오포면 추자리 산30-1	묘	조선	능평 190-2		
309	정보문 묘	오포면 추자리 산20-1	묘	조선	능평 190-2		
310	정유 묘와 묘갈	오포면 추자리 산20-1	묘	조선	능평 190-2		
530	이재 묘	중부면 상변천리 산2-1임	묘	조선	광주 191-3		
531	이정기 묘와 신도비	중부면 상변천리 산2-1임	묘	조선	광주 191-3		
532	이항 묘	중부면 상변천리 산2-1임	묘	조선	광주 191-3		
556	의안대군 묘	중부면 엄미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경기도 기념물 제166호	
612	장차주 묘와 묘갈	초월면 선동리 산3-1임	묘	조선	광주 191-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613	장시현 묘	초월면 선동리 산2-1	묘	조선	광주 191-3		
615	이래 묘와 신도비	초월면 신월리 산11임	묘	조선	광주 191-3		
616	이손 묘와 신도비	초월면 신월리	묘	조선	광주 191-3		
617	이한 묘	초월면 신월리 산22-1임	묘	조선	광주 191-3		
618	이수언 묘와 묘갈	초월면 신월리 산22-1임	묘	조선	광주 191-3		
619	이소 묘와 묘갈	초월면 신월리 산2211임	묘	조선	광주 191-3		
628	김감 묘와 신도비	초월면 지월리 산69-1임	묘	조선	광주 191-3		
629	정홍문 묘와 묘갈	초월면 지월리 산26-1임	묘	조선	광주 191-3		
630	허난설헌 묘	초월면 지월리 산29-5	묘	조선	광주 191-3	경기도기념물 제902호	
692	조영무 묘	퇴촌면 광동리 산16	묘	조선	광주 191-3		
694	안당 묘와 신도비	퇴촌면 도마리 산22임	묘	조선	광주 191-3		
695	여여길 묘	퇴촌면 도마리 산19-1임	묘	조선	광주 191-3		
696	여우길 묘	퇴촌면 도마리 산19-1임	묘	조선	광주 191-3		
697	최항 묘와 신도비	퇴촌면 도마리 산11	묘	조선	광주 191-3		
709	심우승 묘와 신도비	퇴촌면 도수리 산70-3임	묘	조선	광주 191-3		
710	심액 묘와 신도비	퇴촌면 도수리 산70-3임	묘	조선	광주 191-3		
711	심광수 묘와 묘갈	퇴촌면 도수리 산70-3임	묘	조선	광주 191-3		
712	안근 묘	퇴촌면 도수리 산72	묘	조선	광주 191-3		
713	안용 묘	퇴촌면 도수리 산72	묘	조선	광주 191-3		
714	황유 묘	퇴촌면 도수리 산75	묘	조선	광주 191-3		
715	숙안공주 묘	퇴촌면 도수리 산75	묘	조선	광주 191-3		
726	신흥 묘와 신도비	퇴촌면 영동리 산12-1	묘	조선	양평 191-4		
730	김익훈 묘와 신도비	퇴촌면 무수리 웃무술	묘	조선	광주 191-3		
731	김만채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광주 191-3		
732	김성택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광주 191-3		
733	김상익 묘	퇴촌면 무수리 101-4전	묘	조선	광주 191-3		
734	김진상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광주 191-3		
735	김만선 묘	퇴촌면 무수리 산21임	묘	조선	광주 191-3		
736	김영택 묘	퇴촌면 무수리 산21임	묘	조선	광주 191-3		
737	김진항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광주 191-3		
738	김상정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광주 191-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739	김상악 묘와 신도비	퇴촌면 무수리 4-3	묘	조선	광주 191-3		
740	김경택 묘	퇴촌면 무수리 산5임	묘	조선	광주 191-3		
741	천진암 성현오위 묘	퇴촌면 우산리 500	묘	조선	양평 191-4		

(18) 고가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48	남택수 가옥	광주읍 직리(곰은골)	고가	근대	성남 190-4		
66	김용학 가옥	남종면 검천리 856번지 (능곡)	고가	근대	양수 206-1		
67	이운호 가옥	남종면 검천리(능곡)	고가	근대	양수 206-1		
72	최지숙 가옥	남종면 귀여리 551	고가	근대	양수 206-1		
73	한경우 가옥	남종면 귀여리 54-3	고가	근대	양수 206-1		
105	김종옥 가옥	남종면 삼성리 291번지(족동)	고가	조선	광주 191-3		
106	이춘열 가옥	남종면 삼성리(삼정골)	고가	근대	광주 191-3		
116	여성제선생 생가	남종면 수청리(큰청탄)	고가	조선	국수 206-2		
118	이해창 가옥	남종면 이석리 9번지(석림동)	고가	근대	광주 191-3		
157	이덕순 가옥	도척면 유정리(미륵동0)	고가	근대	노곡 191-1		
236	이순이 가옥	실촌면 상열미리 11번지	고가	근대	광주 191-3		
250	강석규 가옥	실촌면 하열미리 144번지	고가	근대	노곡 191-1		
288	박창환 가옥	오포면 문형리(봉골)	고가	근대	능평 190-2		
493	홍전분 가옥	중부면 산성리 603	고가	근대	성남 190-4		남한산성
494	안동순 가옥	중부면 산성리 947	고가	근대	성남 190-4		남한산성
495	김원려 가옥	중부면 산성리 447	고가	근대	성남 190-4		남한산성
557	방병식 가옥	중부면 엄미리(벽수골)	고가	근대 (1942)	성남 190-4		
606	신익희선생 생가	초월면 서하리 160-1	고가	조선	광주 191-3	경기도기념물 제134호	
655	홍성현 가옥	퇴촌면 관음리 700-1(절골)	고가	근대 (1932)	광주 191-3		

(19) 도요지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5	목현리 도요지 1	광주읍 목현리 새오개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6	목현리 도요지 2	광주읍 목현리 새오개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7	목현리 도요지 3	광주읍 목현리 새오개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9	송정리 도요지 1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10	송정리 도요지 2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11	송정리 도요지 3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12	송정리 도요지 4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13	송정리 도요지 5	광주읍 송정리 엄치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14	송정리 도요지 6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15	송정리 도요지 7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23	장지리 도요지	광주읍 장지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신규
49	탄벌리 도요지 1	광주읍 탄벌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0	탄벌리 도요지 2	광주읍 탄벌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1	탄벌리 도요지 3	광주읍 탄벌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2	탄벌리 도요지 4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3	탄벌리 도요지 5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4	탄벌리 도요지 6	광주읍 탄벌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5	탄벌리 도요지 7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6	탄벌리 도요지 8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7	탄벌리 도요지 9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8	탄벌리 도요지 10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9	탄벌리 도요지 11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74	귀여리 도요지 1	남종면 귀여리 수리울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75	귀여리 도요지 2	남종면 귀여리 수리울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76	귀여리 도요지 3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77	귀여리 도요지 4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78	귀여리 도요지 5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79	귀여리 도요지 6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0	귀여리 도요지 7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1	귀여리 도요지 8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82	귀여리 도요지 9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3	귀여리 도요지 10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4	귀여리 도요지 11	남종면 귀여리 다람네골	도요지	조선	양수 206-1		
85	금사리 도요지 1	남종면 금사리 구터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6	금사리 도요지 2	남종면 금사리 윗말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87	금사리 도요지 3	남종면 금사리 윗말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88	금사리 도요지 4	남종면 금사리 윗말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9	금사리 도요지 5	남종면 금사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90	금사리 도요지 6	남종면 금사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91	금사리 도요지 7	남종면 금사리 구터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92	금사리 도요지 8	남종면 금사리 윗말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93	금사리 도요지 9	남종면 금사리 구터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95	분원리 도요지 1	남종면 분원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96	분원리 도요지 2	남종면 분원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97	분원리 도요지 3	남종면 분원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98	분원리 도요지 4	남종면 분원리 442 일대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99	분원리 도요지 5	남종면 분원리 255-19일대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100	분원리 도요지 6	남종면 분원리 255 일대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108	삼성리 도요지	남종면 삼성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122	궁평리 도요지 1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23	궁평리 도요지 2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24	궁평리 도요지 3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25	궁평리 도요지 4	도척면 궁평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26	궁평리 도요지 5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27	궁평리 도요지 6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28	궁평리 도요지 7	도척면 궁평리 새남터들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29	궁평리 도요지 8	도척면 궁평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30	궁평리 도요지 9	도척면 궁평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48	상림리 도요지 12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49	상림리 도요지 13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50	상림리 도요지 14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51	상림리 도요지 15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58	유정리 도요지 1	도척면 유정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59	유정리 도요지 2	도척면 유정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75	추곡리 도요지 1	도척면 추곡리 419-2 일대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176	추곡리 도요지 2	도척면 추곡리 482 일대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177	추곡리 도요지 3	도척면 추곡리 418 일대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178	건업리 도요지 1	실촌면 건업리 소비골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179	건업리 도요지 2	실촌면 건업리 소비골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180	곤지암리 도요지 1	실촌면 곤지암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81	곤지암리 도요지 2	실촌면 곤지암리 황새봉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82	곤지암리 도요지 3	실촌면 곤지암리 황새봉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83	곤지암리 도요지 4	실촌면 곤지암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84	곤지암리 도요지 5	실촌면 곤지암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85	곤지암리 도요지 6	실촌면 곤지암리 곤지암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86	곤지암리 도요지 7	실촌면 곤지암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06	신대리 도요지 1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07	신대리 도요지 2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08	신대리 도요지 3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09	신대리 도요지 4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10	신대리 도요지 5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11	신대리 도요지 6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2	신대리 도요지 7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13	신대리 도요지 8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4	신대리 도요지 9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5	신대리 도요지 10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16	신대리 도요지 11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17	신대리 도요지 12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8	신대리 도요지 13	실촌면 신대리 작은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9	신대리 도요지 14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0	신대리 도요지 15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1	신대리 도요지 16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22	신대리 도요지 17	실촌면 신대리 하오개들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3	신대리 도요지 18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4	신대리 도요지 19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25	신대리 도요지 20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6	신대리 도요지 21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7	신대리 도요지 22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37	열미리 도요지 1	실촌면 상열미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38	열미리 도요지 2	실촌면 하열미리 가장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39	열미리 도요지 3	실촌면 중열미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40	열미리 도요지 4	실촌면 중열미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41	열미리 도요지 5	실촌면 상열미리 더덕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242	열미리 도요지 6	실촌면 상열미리 뒷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43	열미리 도요지 7	실촌면 상열미리 풀무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44	열미리 도요지 8	실촌면 중열미리 우두머리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45	열미리 도요지 9	실촌면 중열미리 우두머리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46	열미리 도요지 10	실촌면 중열미리 못들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52	오향리 도요지 1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53	오향리 도요지 2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54	오향리 도요지 3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55	오향리 도요지 4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56	오향리 도요지 5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57	오향리 도요지 6	실촌면 상오향리 학골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61	유사리 도요지 1	실촌면 유사리 뒷골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62	유사리 도요지 2	실촌면 유사리 뒷골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63	유사리 도요지 3	실촌면 유사리 버드라리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사적 134호	
264	유사리 도요지 4	실촌면 유사리 아랫말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65	유사리 도요지 5	실촌면 유사리 아랫말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사적 134호	
266	유사리 도요지 6	실촌면 유사리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67	유사리 도요지 7	실촌면 유사리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68	유사리 도요지 8	실촌면 유사리 웃말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사적 134호	
270	장심리 도요지	실촌면 장심리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533	번천리 도요지 1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34	번천리 도요지 2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35	번천리 도요지 3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36	번천리 도요지 4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37	번천리 도요지 5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38	번천리 도요지 6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39	번천리 도요지 7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40	번천리 도요지 8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41	번천리 도요지 9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42	번천리 도요지 10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3	번천리 도요지 11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4	번천리 도요지 12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5	번천리 도요지 13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6	번천리 도요지 14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7	번천리 도요지 15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8	번천리 도요지 16	중부면 상번천리 장작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9	번천리 도요지 17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50	번천리 도요지 18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51	번천리 도요지 19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52	번천리 도요지 20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53	번천리 도요지 21	중부면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60	오전리 도요지 1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61	오전리 도요지 2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62	오전리 도요지 3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63	오전리 도요지 4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64	오전리 도요지 5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65	오전리 도요지 6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66	오전리 도요지 7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72	대쌍령리 도요지 1	초월면 대쌍령리 집터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73	대쌍령리 도요지 2	초월면 대쌍령리 웃말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74	대쌍령리 도요지 3	초월면 대쌍령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575	대쌍령리 도요지 4	초월면 대쌍령리 짐터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76	대쌍령리 도요지 5	초월면 대쌍령리 옷발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0	무갑리 도요지 1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1	무갑리 도요지 2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2	무갑리 도요지 3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3	무갑리 도요지 4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4	무갑리 도요지 5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5	무갑리 도요지 6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86	무갑리 도요지 7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7	무갑리 도요지 8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8	무갑리 도요지 9	초월면 무갑리 구용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89	무갑리 도요지 10	초월면 무갑리 삼박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90	무갑리 도요지 11	초월면 무갑리 삼박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91	무갑리 도요지 12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92	무갑리 도요지 13	초월면 무갑리 거명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93	무갑리 도요지 14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94	무갑리 도요지 15	초월면 무갑리 수악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95	무갑리 도요지 16	초월면 무갑리 수악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96	무갑리 도요지 17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97	무갑리 도요지 18	초월면 무갑리 구용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98	무갑리 도요지 19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99	무갑리 도요지 20	초월면 무갑리 종죽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00	무갑리 도요지 21	초월면 무갑리 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01	무갑리 도요지 22	초월면 무갑리 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02	무갑리 도요지 23	초월면 무갑리 당돌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03	무갑리 도요지 24	초월면 무갑리 삼박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04	산이리 도요지	초월면 산이리 쏜배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07	선동리 도요지 1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08	선동리 도요지 2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09	선동리 도요지 3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10	선동리 도요지 4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611	선동리 도요지 5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3	학동리 도요지 5	초월면 학동리 붓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4	학동리 도요지 6	초월면 학동리 붓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5	학동리 도요지 7	초월면 학동리 벌동막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6	학동리 도요지 8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7	학동리 도요지 9	초월면 학동리 벌동막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8	학동리 도요지 10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9	학동리 도요지 11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0	학동리 도요지 12	초월면 학동리 산막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1	학동리 도요지 13	초월면 학동리 붓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2	학동리 도요지 14	초월면 학동리 붓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3	학동리 도요지 15	초월면 학동리 두루봉들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4	학동리 도요지 16	초월면 학동리 샛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23	쌍동리 도요지 1	초월면 쌍동리 어두매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624	쌍동리 도요지 2	초월면 쌍동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633	지월리 도요지 1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34	지월리 도요지 2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35	지월리 도요지 3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36	지월리 도요지 4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39	학동리 도요지 1	초월면 학동리 삼박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0	학동리 도요지 2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1	학동리 도요지 3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2	학동리 도요지 4	초월면 학동리 두루봉들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6	관음리 도요지 1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7	관음리 도요지 2	퇴촌면 관음리 도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8	관음리 도요지 3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9	관음리 도요지 4	퇴촌면 관음리 도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0	관음리 도요지 5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1	관음리 도요지 6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2	관음리 도요지 7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63	관음리 도요지 8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664	관음리 도요지 9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5	관음리 도요지 10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6	관음리 도요지 11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7	관음리 도요지 12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68	관음리 도요지 13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69	관음리 도요지 14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0	관음리 도요지 15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71	관음리 도요지 16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2	관음리 도요지 17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3	관음리 도요지 18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4	관음리 도요지 19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5	관음리 도요지 20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6	관음리 도요지 21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7	관음리 도요지 22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78	관음리 도요지 23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79	관음리 도요지 24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0	관음리 도요지 25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1	관음리 도요지 26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82	관음리 도요지 27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3	관음리 도요지 28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4	관음리 도요지 29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5	관음리 도요지 30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6	관음리 도요지 31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7	관음리 도요지 32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88	관음리 도요지 33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9	관음리 도요지 34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90	관음리 도요지 35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00	도마리 도요지 1	퇴촌면 도마리 윗도마치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01	도마리 도요지 2	퇴촌면 도마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02	도마리 도요지 3	퇴촌면 도마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03	도마리 도요지 4	퇴촌면 도마리 탄발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704	도마리 도요지 5	퇴촌면 도마리 도마치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05	도마리 도요지 6	퇴촌면 도마리 퍼기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06	도마리 도요지 7	퇴촌면 도마리 윗도마치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17	도수리 도요지 1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18	도수리 도요지 2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19	도수리 도요지 3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20	도수리 도요지 4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21	도수리 도요지 5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22	도수리 도요지 6	퇴촌면 도수리 사기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23	도수리 도요지 7	퇴촌면 도수리 사기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24	도수리 도요지 8	퇴촌면 도수리 삼백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25	도수리 도요지 9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43	우산리 도요지 1	퇴촌면 우산리 박석거리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744	우산리 도요지 2	퇴촌면 우산리 천진암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745	우산리 도요지 3	퇴촌면 우산리 천진암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746	우산리 도요지 4	퇴촌면 우산리 뒷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47	우산리 도요지 5	퇴촌면 우산리 뒷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48	우산리 도요지 6	퇴촌면 우산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49	우산리 도요지 7	퇴촌면 우산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0	우산리 도요지 8	퇴촌면 우산리 가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1	우산리 도요지 9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52	우산리 도요지 10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53	우산리 도요지 11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4	우산리 도요지 12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5	우산리 도요지 13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6	우산리 도요지 14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57	우산리 도요지 15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8	우산리 도요지 16	퇴촌면 우산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9	우산리 도요지 17	퇴촌면 우산리 도로지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60	우산리 도요지 18	퇴촌면 우산리 박석거리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761	우산리 도요지 19	퇴촌면 우산리 박석거리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762	우산리 도요지 20	퇴촌면 우산리 고로지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763	우산리 도요지 21	퇴촌면 우산리 고로지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764	원당리 도요지	퇴촌면 원당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765	정지리 도요지 1	퇴촌면 정지리 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766	정지리 도요지 2	퇴촌면 정지리 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사적 134호	
767	정지리 도요지 3	퇴촌면 정지리 정자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사적 134호	
768	정지리 도요지 4	퇴촌면 정지리 정자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사적 134호	

(20) 선사분묘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2	장지리 지석묘	광주읍 장지리 산64-1임	선사분묘	청동기	성남 190-4		신규
107	삼성리 지석묘	남종면 삼성리 394-1일대	선사분묘	청동기	광주 191-3		
605	산이리 지석묘	초월면 산이리 1번지	선사분묘	청동기	노곡 191-1		
625	쌍동리 지석묘	초월면 쌍동리 15번지	선사분묘	청동기	노곡 191-1		

(21) 선사유적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4	장지리 구석기유적	광주읍 장지리 산1번지	선사유적	구석기	성남 190-4		신규
25	장지리 청동기유적	광주읍 장지리 산6701임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성남 190-4		신규
60	태전리 무문토기산포지	광주읍 태전리 산13-3임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성남 190-4		신규
101	분원리 유물산포지	남종면 분원리 442번지 일대	선사유적	선사시대	광주 191-3		신규
131	궁평리 궁뜰유적	도척면 궁평리	선사유적	구석기~백제	노곡 191-1		신규
152	상림리 구석기유적	도척면 상림리	선사유적	구석기	노곡 191-1		신규
193	삼리 구석기유적	실촌면 삼리 산26-9임 일대	선사유적외요지	구석기 고려	노곡 191-1		신규
228	신대리 대석동유적	실촌면 신대리 대석동 555-44답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노곡 191-1		신규
229	연곡리 구석기유적	실촌면 연곡리 198-3전	선사유적	구석기	이천 191-2		신규
271	고산리 무문토기산포지	오포면 고산리 산4-1임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성남 190-4		신규
281	능평리 무문토기산포지	오포면 능평리 산132-2임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능평 190-2		신규
577	대쌍령리 구석기유적	초월면 대쌍령리 154-16전 일대	선사유적	구석기	광주 191-3		신규
637	지월리 구석기유적	초월면 지월리 오송계 28-3답 일대	선사유적	구석기	광주 191-3		신규

(22) 건물지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60	유정리 건물지	도척면 유정리 까치골	건물지 선사유적	고구려~조선	노곡 191-		신규

(23) 유물산포지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8	삼리 유물산포지	광주읍 삼리 154-4전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성남 190-4		신규
109	삼성리 유물산포지 1	남종면 삼성리 산3-1임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110	삼성리 유물산포지 2	남종면 삼성리 산19-1임	유물산포지	조선(160)	광주 191-3		신규
133	도옹리 유물산포지	도척면 도옹리 111-2전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153	상림리 유물산포지 1	도척면 상림리 104-32전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154	상림리 유물산포지 2	도척면 상림리 23답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161	유정리 유물산포지	도척면 유정리 285답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230	연곡리 유물산포지	실촌면 연곡리 618-2번지 일대	유물산포지	통일신라말	이천 191-2		신규
258	상오향리 유물산포지	실촌면 상오향리 309번지 일대	유물산포지	통일신라~조선	이천 191-2		신규
259	하오향리 유물산포지	실촌면 하오향리 감촌말 54번지 일대	유물산 포지	조선	이천 191-2		신규
282	능평리 유물산포지	오포면 능평리 산73-16임/산32-1	유물산포지	고려~조선	능평 190-2		신규
283	능평리 기와산포지	오포면 능평리 산1-1임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0-2		신규
285	매산리 유물산포지	오포면 매산리 700번지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0-2		신규
289	문형리 유물산포지 1	오포면 문형리 565-3답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1-2		신규
290	문형리 유물산포지 2	오포면 문형리 201-2번지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0-2		신규
291	문형리 유물산포지 3	오포면 문형리 261-4전지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0-2		신규
304	양벌리 유물산포지	오포면 양벌리 730번지 일대	유물산포지	고려~조선	노곡 191-1		신규
311	추자리 유물산포지 1	오포면 추자리 31-1답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0-2		신규
312	추자리 유물산포지 2	오포면 추자리 480-1번지 일대	유물산포지				신규
568	늑현리 유물산포지	초월면 늑현리 25-8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627	용수리 유물산포지	초월면 용수리 23-1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638	지월리 유물산포지	초월면 지월리 28-5임	유물산포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707	도마리 유물산포지	퇴촌면 도마리 113전 일대	유물산포지	고구려~조선	광주 191-3		신규
727	오리 유물산포지 1	퇴촌면 오리 235-1전 일대	유물산포지	고려~조선	광주 191-3		신규
728	오리 유물산포지 2	퇴촌면 오리 40-2답	유물산포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729	오리 유물산포지 3	퇴촌면 오리 73답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24) 기타유적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6	송정리 느티나무1	광주읍 송정리 전302-11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2	
17	송정리 느티나무2	광주읍 송정리 전302-11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4	
40	직리 읍나무	광주읍 직리 28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	
61	탄벌리 참나무	광주읍 탄벌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3	
68	검천리 느티나무	남종면 검천리 865번지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경기광주 38	
69	검천리 은행나무	남종면 검천리 답402-1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경기광주 39	
111	삼성리 측백나무 1	남종면 삼성리 대291-7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35	
112	삼성리 측백나무 2	남종면 삼성리 대291-7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36	
119	이석리 은행나무 1	남종면 이석리 답145번지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37	
120	이석리 은행나무 2	남종면 이석리 46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40	
121	이석리 은행나무 3	남종면 이석리 46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41	
132	노곡리 느티나무	도척면 노곡리 498-1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9	
136	방도리 느티나무	도척면 방도리 임 54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1	
155	상림리 느티나무	도척면 상림리 하천 276-4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2	
162	유정리 느티나무 1	도척면 유정리 417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8	
163	유정리 느티나무 2	도척면 유정리 잡종지 182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0	
164	유정리 느티나무 3	도척면 유정리 대 546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5	
165	유정리 느티나무 4	도척면 유정리 대 546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6	
166	유정리 피나무 1	도척면 유정리 417-1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3	
169	진우리 느티나무 1	도척면 진우리 전706-2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5	
170	진우리 느티나무 2	도척면 진우리 임707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6	
171	진우리 가시향나무	도척면 진우리 답740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7	
187	곤지암리 향나무	실촌면 곤지암리 입453-4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58	
188	곤지암 바위	실촌면 곤지암리 453-20	명승지	조선	노곡 191-1	경기도문화재청지정	
189	만선리 느티나무	실촌면 만선리 답240-1	기타유적	조선	이천 191-2	경기광주 60	
190	봉현리 느티나무	실촌면 봉현리 답29	기타유적	조선	이천 191-2	경기광주 64	
200	수양리 느티나무 1	실촌면 수양리 전195-4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1	
201	수양리 느티나무 2	실촌면 수양리 전195-4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2	
247	열미리 느티나무	실촌면 하열미리 486-1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57	
249	백인대	실촌면 하열미리 산174	명승지	현대	노곡 191-1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60	하오향리 팽나무	실촌면 하오향리 답36-1	기타유적	조선	이천 191-2	경기광주 59	
269	유사리 느티나무	실촌면 유사리 전268-2	기타유적	조선	이천 191-2	경기광주 63	
272	고산리 느티나무1	오포면 고산리 대22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42	
273	고산리 느티나무2	오포면 고산리 대22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46	
284	능평리 느티나무	오포면 능평리 답268-13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47	
286	매산리 느티나무	오포면 매산리 전615-5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44	
292	문형리 느티나무 1	오포면 문형리 대63	기타유적	조선 16c 이후	능평 190-2	경기광주 43	
293	문형리 느티나무 2	오포면 문형리 대452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48	
294	문형리 느티나무 3	오포면 문형리 대63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49	
295	문형리 느티나무 4	오포면 문형리 대63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50	
296	문형리 느티나무 5	오포면 문형리 대63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51	
305	양벌리 느티나무 1	오포면 양벌리 답622-2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45	
306	양벌리 느티나무 2	오포면 양벌리 답622-2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52	
458	주필암	중부면 검복리 103-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9	동림사지 우물	중부면 산성리 1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60	효자우물	중부면 산성리 1220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61	국청사지 우물	중부면 산성리 813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62	남단사지 우물	중부면 산성리 103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3	옥정사지 우물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4	형제 우물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5	장군수 우물	중부면 산성리 804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6	박달재앞 우물	중부면 산성리 1223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7	개원사용왕당	중부면 산성리 198-6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8	감로수	중부면 산성리 산18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9	대궐할머니 우물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70	우목골 우물	중부면 산성리 1057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1	봉어다리 우물터	중부면 산성리 948대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2	남문약수	중부면 산성리 1173-3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73	당지기 집터	중부면 산성리 815-3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4	송수탑지	중부면 산성리 산28임	기타유적	근대	성남 190-4		남한산성
475	대장간터	중부면 산성리 519-3대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적명	소재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고
476	도가터	중부면 산성리 581-3대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7	사형장	중부면 산성리 400-1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8	도살장	중부면 산성리 44-6답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9	장터	중부면 산성리 400-1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0	탁지부 측량소삼각점	중부면 산성리 815-1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1	고마소	중부면 산성리 971전 일대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2	과녁터	중부면 산성리 459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3	배엽처	중부면 산성리 595-2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4	매탄처	중부면 산성리 산17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5	감투바위	중부면 산성리 871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86	대부송	중부면 산성리 산9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7	매바위	중부면 산성리 815-1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8	물방아	중부면 산성리 산183-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9	벌바위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0	왕바위	중부면 산성리 산37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1	취성암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2	구멍바위	중부면 산성리 815-1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6	매바위	중부면 산성리 815	민간신앙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7	벌봉 서낭당	중부면 산성리 산 2	민간신앙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8	현절사 서낭당	중부면 산성리 334전	민간신앙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9	검복리 장승	중부면 검복리 산43-1임	민간신앙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0	영월제터	중부면 산성리 527일대	민간신앙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1	터주가리	중부면 산성리 흥전분가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2	창량굿당	중부면 산성리 815-1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3	벌봉굿당	중부면 산성리 815-1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4	큰골굿당	중부면 검복리 2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5	개심폭바위	중부면 산성리 산 27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6	산성리 느티나무 1	중부면 산성리 산 21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5	남한산성
507	산성리 느티나무 2	중부면 산성리 산 21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6	남한산성
508	산성리 느티나무 3	중부면 산성리 797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7	남한산성
509	산성리 느티나무 4	중부면 산성리 산 23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8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510	산성리 느티나무 5	중부면 산성리 임 397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9	남한산성
511	산성리 느티나무 6	중부면 산성리 임 2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0	남한산성
512	산성리 느티나무 7	중부면 산성리 산 2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1	남한산성
513	산성리 느티나무 8	중부면 산성리 산 2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2	남한산성
514	산성리 느티나무 9	중부면 산성리 산 2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3	남한산성
515	산성리 느티나무 10	중부면 산성리 산 2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4	남한산성
516	산성리 향나무	중부면 산성리 815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5	남한산성
517	산성리 느티나무 11	중부면 산성리 400-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7	남한산성
518	산성리 느티나무 12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8	남한산성
519	산성리 느티나무 13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9	남한산성
520	산성리 느티나무 14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0	남한산성
521	산성리 느티나무 15	중부면 산성리 17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1	남한산성
522	산성리 느티나무 16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2	남한산성
523	산성리 느티나무 17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3	남한산성
524	산성리 느티나무 18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4	남한산성
525	산성리 느티나무 19	중부면 산성리 377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5	남한산성
526	산성리 소나무	중부면 산성리 산 15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8	남한산성
527	산성리 은행나무	중부면 산성리 산 17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9	남한산성
528	검복리 읍나무 1	중부면 검복리 답4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30	
529	검복리 읍나무 2	중부면 검복리 내99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34	
554	상변천리 느티나무	중부면 상변천리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27	
555	불당리 향나무	중부면 불당리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31	
558	엄미리 느티나무	중부면 엄미리 전399-2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6	
559	엄미리 읍나무	중부면 엄미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33	
567	오전리 잣나무	중부면 오전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32	
569	늑현리 은행나무	초월면 늑현리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2	경기광주 53	
578	낙화암	초월면 대쌍령리 123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579	도평리 참나무	초월면 도평리 산 184-1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56	
622	신월리 은행나무	초월면 신월리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54	
626	쌍동리 느티나무	초월면 쌍동리 전173-9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2	경기광주 55	
691	관음리 느티나무	퇴촌면 관음리 전326-1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80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693	광동리 느티나무	퇴촌면 광동리 답346-1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78	
708	도마리 느티나무	퇴촌면 도마리 전221-1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77	

3) 시대별

(1) 선사시대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2	장지리 지석묘	광주읍 장지리 산64-1임	선사분묘	청동기	성남 190-4		신규
24	장지리 구석기유적	광주읍 장지리 산1번지	선사유적	구석기	성남 190-4		신규
25	장지리 청동기유적	광주읍 장지리 산6701임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성남 190-4		
60	태전리 무문토기산포지	광주읍 태전리 산13-3임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성남 190-4		신규
101	분원리 유물산포지	남종면 분원리 442번지일대	선사유적	선사시대	광주 191-3		신규
107	삼성리 지석묘	남종면 삼성리 394-1일대	선사분묘	청동기	광주 191-3		
131	궁평리 궁뜰유적	도척면 궁평리	선사유적	구석기~백제	노곡 191-1		
152	상림리 구석기유적	도척면 상림리	선사유적	구석기	노곡 191-1		신규
193	삼리 구석기유적	실촌면 삼리 산26-9임 일대	선사유적외지	구석기고려	노곡 191-1		
228	신대리 대석동유적	실촌면 신대리 대석동 555-44답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노곡 191-1		
229	연곡리 구석기유적	실촌면 연곡리 198-3전	선사유적	구석기	이천 191-2		신규
271	고산리 무문토기산포지	오포면 고산리 산4-1임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성남 190-4		신규
281	능평리 무문토기산포지	오포면 능평리 산132-2임 일대	선사유적	청동기	능평 190-2		신규
605	산이리 지석묘	초월면 산이리 1번지	선사유적	청동기	노곡 191-1		신규
625	쌍동리 지석묘	초월면 쌍동리 15번지	선사유적	청동기	노곡 191-1		
637	지월리 구석기유적	초월면 지월리 오송계 28-3답 일대	선사유적	구석기	광주 191-3		신규
304	양벌리 유물산포지	오포면 양벌리 730번지 일대	유물산포지	고려~청기	노곡 191-1		신규
577	대쌍령리 구석기유적	초월면 대쌍령리 154-16전 일대	선사유적	구석기	광주 191-3		신규

(2) 통일신라시대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30	연곡리 유물산포지	실촌면 연곡리 618-2번지 일대	유물산포지	통일신라말	이천 191-2		신규
258	상오향리 유물산포지	실촌면 상오향리 309번지 일대	유물산포지	통일신라초전	이천 191-2		신규

(3) 고려시대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60	유정리 건물지	도척면 유정리	건물지 선사유적	고려-조선	노곡 191-1		신규
282	능평리 유물산포지	오포면 능평리 산73-16임/산32-1임	유물산포지 청동문물	고려-조선	능평 190-2		신규
312	추자리 유물산포지 2	오포면 추자리 480-1번지 일대	유물산포지 선사유적	고려-조선	능평 190-2		신규
631	지월리사지	초월면 지월리 619-1	사지	고려-조선	광주 191-3		신규
727	오리 유물산포지1	퇴촌면 오리 235-1전 일대	유물산포지	고려-조선	광주 191-3		신규

(4) 조선시대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	서명원 묘와 묘갈	광주읍 목현리 산 25-2	묘	조선	성남 190-4		
2	서매수 묘	광주읍 목현리 산 25-임	묘	조선	성남 190-4		
3	신수경 묘	광주읍 목현리 산 107	묘	조선	성남 190-4		
4	신의 묘	광주읍 목현리 산 107	묘	조선	성남 190-4		
5	목현리 도요지 1	광주읍 목현리 새오개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6	목현리 도요지 2	광주읍 목현리 새오개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7	목현리 도요지 3	광주읍 목현리 새오개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	삼리 유물산포지	광주읍 삼리 154-4전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성남 190-4		신규
9	송정리 도요지 1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10	송정리 도요지 2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11	송정리 도요지 3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12	송정리 도요지 4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13	송정리 도요지 5	광주읍 송정리 엄치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14	송정리 도요지 6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15	송정리 도요지 7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16	송정리 느티나무1	광주읍 송정리 전302-11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2	
17	송정리 느티나무2	광주읍 송정리 전302-11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4	
18	박문간 묘	광주읍 장지리 산54임	묘	조선	성남 190-4		
19	정광세 묘	광주읍 장지리 산64임	묘	조선	광주 191-3		
20	정충량 묘와 묘갈	광주읍 장지리 산64임	묘	조선	성남 190-4		
21	정여경 묘	광주읍 장지리 산61-2임 일대	묘	조선	광주 191-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3	장지리 도요지	광주읍 장지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신규
26	안운덕 묘와 신도비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27	이계봉 묘	광주읍 중대리 산11-1임	묘	조선	성남 190-4		
28	이세웅 묘	광주읍 중대리 산11-1임	묘	조선	성남 190-4		
29	이진 묘와 묘갈	광주읍 중대리 산10-6임	묘	조선	성남 190-4		
30	안한준 묘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31	안한언 묘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32	안황 묘와 신도비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33	안용형 묘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34	안정복 묘	광주읍 중대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35	이석형 묘	광주읍 중대리 산11-6	묘	조선	성남 190-4		
36	이석 묘와 묘갈	광주읍 중대리 산48-1임	묘	조선	성남 190-4		
40	직리 읍나무	광주읍 직리 2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	
41	남세건 묘와 신도비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성남 190-4		
42	남호 묘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성남 190-4		
43	남이신 묘와 신도비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성남 190-4		
44	남두철 묘와 신도비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성남 190-4		
45	남선 묘와 신도비	광주읍 직리 산20임	묘	조선	성남 190-4		
46	맹사성 묘	광주읍 직리 산27임	묘	조선	성남 190-4		
49	탄벌리 도요지 1	광주읍 탄벌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0	탄벌리 도요지 2	광주읍 탄벌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1	탄벌리 도요지 3	광주읍 탄벌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2	탄벌리 도요지 4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3	탄벌리 도요지 5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4	탄벌리 도요지 6	광주읍 탄벌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5	탄벌리 도요지 7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6	탄벌리 도요지 8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7	탄벌리 도요지 9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8	탄벌리 도요지 10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9	탄벌리 도요지 11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61	탄벌리 참나무	광주읍 탄벌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62	심구령 묘	남종면 검천리 산92-1	묘	조선	양수 206-1		
63	여광주묘	남종면 검천리 산31-3	묘	조선	양수 206-1		
64	청주한씨 묘와 묘갈	남종면 검천리 산31-3	묘	조선	양수 206-1		
65	문창문 효자비	남종면 검천리 450-1전	효자비	조선	양수 206-1		
68	검천리 느티나무	남종면 검천리 865번지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경기광주 38	
69	검천리 은행나무	남종면 검천리 답402-1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경기광주 39	
70	김석주 묘와 신도비	남종면 귀여리 산75-1	묘	조선	양수 206-1		
71	병성암	남종면 귀여리 551	사찰	조선	양수 206-1		
74	귀여리 도요지 1	남종면 귀여리 수리울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75	귀여리 도요지 2	남종면 귀여리 수리울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76	귀여리 도요지 3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77	귀여리 도요지 4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78	귀여리 도요지 5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79	귀여리 도요지 6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0	귀여리 도요지 7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1	귀여리 도요지 8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2	귀여리 도요지 9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3	귀여리 도요지 10	남종면 귀여리 당골네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4	귀여리 도요지 11	남종면 귀여리 다람내골	도요지	조선	양수 206-1		
85	금사리 도요지 1	남종면 금사리 구터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6	금사리 도요지 2	남종면 금사리 윗말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87	금사리 도요지 3	남종면 금사리 윗말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88	금사리 도요지 4	남종면 금사리 윗말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89	금사리 도요지 5	남종면 금사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90	금사리 도요지 6	남종면 금사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91	금사리 도요지 7	남종면 금사리 구터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92	금사리 도요지 8	남종면 금사리 윗말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93	금사리 도요지 9	남종면 금사리 구터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94	분원리선정비군	남종면 분원리 116	선정비	조선, 근대	광주 191-3		
95	분원리 도요지 1	남종면 분원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96	분원리 도요지 2	남종면 분원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97	분원리 도요지 3	남종면 분원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98	분원리 도요지 4	남종면 분원리 442 일대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99	분원리 도요지 5	남종면 분원리 255-19일대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100	분원리 도요지 6	남종면 분원리 255 일대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102	권진 묘	남종면 삼성리 산42	묘	조선	광주 191-3		
103	노물재 묘	남종면 삼성리 산60-10	묘	조선	광주 191-3		
104	안망지 묘	남종면 삼성리 산48-5	묘	조선	광주 191-3		
105	김종옥 가옥	남종면 삼성리 291번지(죽동)	고가	조선	광주 191-3		
108	삼성리 도요지	남종면 삼성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109	삼성리 유물산포지 1	남종면 삼성리 산3-1입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광주 191-3		
110	삼성리 유물산포지 2	남종면 삼성리 산19-1입 (온누리농장)	유물산포지	조선	광주191-3		
111	삼성리 측백나무 1	남종면 삼성리 대291-7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35	
112	삼성리 측백나무 2	남종면 삼성리 대291-7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36	
113	여성재 묘와 신도비	남종면 수청리 산101-10	묘	조선	양수 206-1		
114	여유길 묘와 묘갈	남종면 수청리 산101-1	묘	조선	국수 206-2		
115	여이징 묘와 신도비	남종면 수청리 산101-입	묘	조선	국수 206-2		
116	여성재선생 생가	남종면 수청리(큰청탄)	고가	조선	국수 206-2		
117	이하악 묘갈	남종면 이석리 전133-2	묘	조선	광주 191-3		
119	이석리 은행나무 1	남종면 이석리 답145번지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37	
120	이석리 은행나무 2	남종면 이석리 46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40	
121	이석리 은행나무 3	남종면 이석리 46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41	
122	궁평리 도요지 1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23	궁평리 도요지 2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24	궁평리 도요지 3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25	궁평리 도요지 4	도척면 궁평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26	궁평리 도요지 5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27	궁평리 도요지 6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28	궁평리 도요지 7	도척면 궁평리 새남터들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29	궁평리 도요지 8	도척면 궁평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30	궁평리 도요지 9	도척면 궁평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32	노곡리 느티나무	도척면 노곡리 498-1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69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33	도옹리 유물산포지	도척면 도옹리 111-2전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134	봉일사	도척면 방도리 147	사찰	조선	노곡 191-1		
135	수도사	도척면 방도리 633	사찰	조선	노곡 191-1		
136	방도리 느티나무	도척면 방도리 임54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1	
137	상림리 도요지 1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38	상림리 도요지 2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39	상림리 도요지 3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40	상림리 도요지 4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41	상림리 도요지 5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42	상림리 도요지 6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43	상림리 도요지 7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44	상림리 도요지 8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45	상림리 도요지 9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46	상림리 도요지 10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47	상림리 도요지 11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48	상림리 도요지 12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49	상림리 도요지 13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50	상림리 도요지 14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51	상림리 도요지 15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53	상림리 유물산포지 1	도척면 상림리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154	상림리 유물산포지 2	도척면 상림리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155	상림리 느티나무	도척면 상림리 하천276-4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2	
156	유정리 석불좌상	도척면 유정리 222-7	불상	조선	노곡 191-1	경기도유형문화재 제52호	
158	유정리 도요지 1	도척면 유정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59	유정리 도요지 2	도척면 유정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61	유정리 유물산포지	도척면 유정리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162	유정리 느티나무 1	도척면 유정리 417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8	
163	유정리 느티나무 2	도척면 유정리 잡종지 182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0	
164	유정리 느티나무 3	도척면 유정리 대 546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5	
165	유정리 느티나무 4	도척면 유정리 대 546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6	
166	유정리 피나무 1	도척면 유정리 417-1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7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67	신경인 묘	도척면 진우리 산34-1	묘	조선	노곡 191-1		
168	신탕 묘	도척면 진우리 산34-1	묘	조선	노곡 191-1		
169	진우리 느티나무 1	도척면 진우리 전706-2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5	
170	진우리 느티나무 2	도척면 진우리 임707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6	
171	진우리 가시향나무	도척면 진우리 답740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7	
172	권세경 묘와 묘갈	도척면 추곡리 산 40	묘	조선	노곡 191-1		
173	권낙인 묘와 묘비	도척면 추곡리 산 40	묘	조선	노곡 191-1		
174	백련암 부도	도척면 추곡리 산65	부도	조선	노곡 191-1		
175	추곡리 도요지 1	도척면 추곡리 419-2 일대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76	추곡리 도요지 2	도척면 추곡리 482 일대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77	추곡리 도요지 3	도척면 추곡리 418 일대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78	건업리 도요지 1	실촌면 건업리 소미골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179	건업리 도요지 2	실촌면 건업리 소미골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180	곤지암리 도요지 1	실촌면 곤지암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81	곤지암리 도요지 2	실촌면 곤지암리 황새봉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82	곤지암리 도요지 3	실촌면 곤지암리 황새봉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83	곤지암리 도요지 4	실촌면 곤지암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84	곤지암리 도요지 5	실촌면 곤지암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85	곤지암리 도요지 6	실촌면 곤지암리 곤지암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86	곤지암리 도요지 7	실촌면 곤지암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187	곤지암리 향나무	실촌면 곤지암리 임453-4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58	
188	곤지암 바위	실촌면 곤지암리 453-20	명승지	조선	노곡 191-1	경기문화재청 지정	
189	만선리 느티나무	실촌면 만선리 답240-1	기타유적	조선	이천 191-2	경기광주 60	
190	봉현리 느티나무	실촌면 봉현리 답29	기타유적	조선	이천 191-2	경기광주 64	
194	김약시 묘	실촌면 삼합리 산50-1	묘	조선	양평 191-4		
195	심종민 묘	실촌면 수양리 산51-1	묘	조선	이천 191-2		
196	심혁 묘	실촌면 수양리 산51-1	묘	조선	이천 191-2		
197	심지택 묘	실촌면 수양리 산51-1	묘	조선	이천 191-2		
198	현덕창 묘	실촌면 수양리 산44-1	묘	조선	이천 191-2		
199	현태형 묘	실촌면 수양리 산44-1	묘	조선	이천 191-2		
200	수양리 느티나무 1	실촌면 수양리 전195-4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1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01	수양리 느티나무 2	실촌면 수양리 전195-4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62	
202	신림 묘와 묘갈	실촌면 신대리 산1-1	묘	조선	노곡 191-1	경기도 기념물 제95호	
203	신준 묘와 묘갈	실촌면 신대리 산1-1	묘	조선	노곡 191-1		
204	신완 묘와 신도비	실촌면 신대리 산1-1	묘	조선	노곡 191-1		
205	신성하 묘와 묘갈	실촌면 신대리 산1-	묘	조선	노곡 191-1		
206	신대리 도요지 1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07	신대리 도요지 2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08	신대리 도요지 3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09	신대리 도요지 4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10	신대리 도요지 5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11	신대리 도요지 6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2	신대리 도요지 7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13	신대리 도요지 8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4	신대리 도요지 9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5	신대리 도요지 10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16	신대리 도요지 11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17	신대리 도요지 12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8	신대리 도요지 13	실촌면 신대리 작은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9	신대리 도요지 14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0	신대리 도요지 15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1	신대리 도요지 16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2	신대리 도요지 17	실촌면 신대리 하오개들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3	신대리 도요지 18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4	신대리 도요지 19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25	신대리 도요지 20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6	신대리 도요지 21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27	신대리 도요지 22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31	이당규 묘와 묘갈	실촌면 연곡리 산18	묘	조선	이천 191-2		
232	이현석 묘와 신도비	실촌면 연곡리 산18	묘	조선	이천 191-2		
233	구치판 묘와 신도비	실촌면 하열미리 산3	묘	조선	노곡 191-1		
234	구척 묘	실촌면 하열미리 산3	묘	조선	노곡 191-1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37	열미리 도요지 1	실촌면 상열미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38	열미리 도요지 2	실촌면 하열미리 가장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39	열미리 도요지 3	실촌면 중열미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40	열미리 도요지 4	실촌면 중열미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41	열미리 도요지 5	실촌면 상열미리 더덕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242	열미리 도요지 6	실촌면 상열미리 뒷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43	열미리 도요지 7	실촌면 상열미리 풀무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44	열미리 도요지 8	실촌면 중열미리 우두머리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45	열미리 도요지 9	실촌면 중열미리 우두머리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46	열미리 도요지 10	실촌면 중열미리 못들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47	열미리 느티나무	실촌면 하열미리 486-1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57	
251	송일 묘	실촌면 상오향리 산46	묘	조선	노곡 191-1		
252	오향리 도요지 1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53	오향리 도요지 2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54	오향리 도요지 3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255	오향리 도요지 4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56	오향리 도요지 5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57	오향리 도요지 6	실촌면 상오향리 학골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59	하오향리 유물산포지	실촌면 하오향리 감촌말 54번지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이천 191-2		
260	하오향리 팽나무	실촌면 하오향리 답36-1	기타유적	조선	이천 191-2	경기광주 59	
261	유사리 도요지 1	실촌면 유사리 뒷골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62	유사리 도요지 2	실촌면 유사리 뒷골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63	유사리 도요지 3	실촌면 유사리 버드라리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사적 134호	
264	유사리 도요지 4	실촌면 유사리 아랫말	기타유적	조선	이천 191-2		
265	유사리 도요지 5	실촌면 유사리 아랫말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사적 134호	
266	유사리 도요지 6	실촌면 유사리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67	유사리 도요지 7	실촌면 유사리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268	유사리 도요지 8	실촌면 유사리 웃말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사적 134호	
269	유사리 느티나무	실촌면 유사리 전268-2	기타유적	조선	이천 191-2	경기광주 63	
270	장심리 도요지	실촌면 장심리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272	고산리 느티나무1	오폐면 고산리 대22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42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73	고산리 느티나무2	오포면 고산리 대22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46	
274	김균 묘와 신도비	오포면 능평리 산89-1	묘	조선	능평 190-2	경기도 기념물 제10호	
275	낙안군 묘	오포면 능평리 산129	묘	조선	능평 190-2		
276	의령남씨묘원	오포면 능평리 산54-12	묘	조선	능평 190-2		
277	남명선 신도비	오포면 능평리 대340-4	신도비	조선	능평 190-2		
278	유기덕 묘	오포면 능평리 산124-1	묘	조선	능평 190-2		
279	이화조 묘	오포면 능평리 산32-1	묘	조선	능평 190-2		
283	능평리 기와산포지	오포면 능평리 산1-1임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0-2		신규
284	능평리 느티나무	오포면 능평리 답268-13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47	
285	매산리 유물산포지	오포면 매산리 700번지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0-2		신규
286	매산리 느티나무	오포면 매산리 전615-5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44	
287	박교룡 송덕비	오포면 문형리 대66-1	송덕비	조선	능평 190-2		
289	문형리 유물산포지 1	오포면 문형리 565-3답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1-2		신규
290	문형리 유물산포지 2	오포면 문형리 201-2번지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0-2		신규
291	문형리 유물산포지 3	오포면 문형리 261-4전지 뒤편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0-2		신규
292	문형리 느티나무 1	오포면 문형리 대63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43	
293	문형리 느티나무 2	오포면 문형리 대452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48	
294	문형리 느티나무 3	오포면 문형리 대63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49	
295	문형리 느티나무 4	오포면 문형리 대63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50	
296	문형리 느티나무 5	오포면 문형리 대63	기타유적	조선	능평 190-2	경기광주 51	
297	김자수 묘와 신도비	오포면 신현리 산120-1	묘	조선	능평 190-2	경기도 기념물 제98호	
298	김근 묘	오포면 신현리 산120-1	묘	조선	능평 190-2		
299	김영유 묘	오포면 신현리 산119-1	묘	조선	능평 190-2		
300	김훈 묘와 묘갈	오포면 신현리 산119-1	묘	조선	능평 190-2		
301	서명형 묘와 신도비	오포면 신현리 산97-1	묘	조선	성남 190-4		
305	양벌리 느티나무 1	오포면 양벌리 답622-2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45	
306	양벌리 느티나무 2	오포면 양벌리 답622-2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1	경기광주 52	
307	정응규 묘와 묘갈	오포면 추자리 산30-1	묘	조선	능평 190-2		
308	정연 묘	오포면 추자리 산30-1	묘	조선	능평 190-2		
309	정보문 묘	오포면 추자리 산20-1	묘	조선	능평 190-2		
310	정유 묘와 묘갈	오포면 추자리 산20-1	묘	조선	능평 190-2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311	추자리 유물산포지 1	오포면 추자리 31-1답	유물산포지	조선	능평 190-2		신규
313	원성	중부면 산성리 산 1사	성	조선	성남 190-4	사적 57호	남한산성
314	봉암성	중부면 산성리 산 5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15	한봉성	중부면 검복리 산 99-8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16	신남성동둔대	중부면 산성리 산성리 산99-8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17	신남성서둔대	중부면 검복리 산 99-6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18	남웅성1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19	남웅성2	중부면 산성리 산 137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0	남웅성3	중부면 산성리 산142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1	장경사신지웅성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2	연주봉웅성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3	동문	중부면 산성리 산 6-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4	북문	중부면 산성리 산 667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5	서문	중부면 산성리 산 1246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6	남문	중부면 산성리 산 1244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7	신남성동둔대성문	중부면 검복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8	신남성서둔대성문	중부면 검복리 산99-6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29	남웅성 홍예문	중부면 산성리 산137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0	암문 1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1	암문 2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2	암문 3	중부면 산성리 산1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3	암문 4	중부면 산성리 산1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4	암문 5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5	암문 6	중부면 산성리 산30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6	암문 7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7	암문 8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8	암문 9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39	암문 10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0	암문 11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1	암문 12	중부면 산성리 산5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2	암문 13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343	암문 14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4	암문 15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5	암문 16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6	원성치 1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7	원성치 2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8	원성치 3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49	원성치 4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0	봉암성치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1	수구문	중부면 산성리 산24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2	수구 1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3	수구 2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4	수구 3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5	수구 4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6	수구 5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7	수구 6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8	수구 7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59	수구 8	중부면 산성리 산185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0	수구 9	중부면 산성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1	수구 10	중부면 산성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2	수구 11	중부면 산성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3	수구 12	중부면 산성리 산2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4	수구 13	중부면 산성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5	수구 14	중부면 산성리 산30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6	수구 15	중부면 산성리 산30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7	수구 16	중부면 산성리 산30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8	수구 17	중부면 산성리 산137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69	수구 18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0	수구 19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1	수구 20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2	수구 21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3	수구 22	중부면 산성리 산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374	수구 23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5	수구 24	중부면 산성리 산5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6	수구 25	중부면 산성리 산5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7	수구 26	중부면 검복리 산99-8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8	수구 27	중부면 검복리 산99-8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79	수구 28	중부면 검복리 산99-6임	성남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0	남웅성 포루 1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1	남웅성 포루 2	중부면 산성리 산37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2	남웅성 포루 3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3	동성포루	중부면 산성리 산8-1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4	장경사웅성포루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5	연주봉웅성포루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6	한봉성포루	중부면 산성리 산3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7	동장대지	중부면 산성리 산15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8	북장대	중부면 산성리 산16사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89	수어장대	중부면 산성리 산85-1사	성	조선	성남 190-4	경기도형문화재 제1호	남한산성
390	남장대	중부면 산성리 산32-1임	성	조선	성남 190-4	경기도형문화재 제2호	남한산성
391	외동장대지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성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2	승렬전	중부면 산성리 산717사	사묘	조선	성남 190-4	경기도형문화재 제4호	남한산성
393	현결사	중부면 산성리 산310-1사	사묘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4	사직단지	중부면 산성리 산94사	사묘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5	성황당,여단	중부면 산성리 산651사	사묘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6	기우제단	중부면 산성리 715-1사	사묘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7	청량당	중부면 산성리 715-1사	기타목조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8	행궁상궐지	중부면 산성리 935-6전 일대	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399	행궁하궐지	중부면 산성리 935-3대	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0	좌전지	중부면 산성리 936-2전	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1	우설지	중부면 산성리 1070-1전	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2	재덕당지	중부면 산성리 935-1 전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3	좌승당지	중부면 산성리 935-4전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4	일장각지	중부면 산성리 935-4전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405	한남루지	중부면 산성리 935-5대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6	인화관지	중부면 산성리550-14대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7	연무관	중부면 산성리 400-1사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8	이야지	중부면 산성리 388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09	포도청지	중부면 산성리 526-1전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0	군회청지	중부면 산성리 400-1사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1	종각지	중부면 산성리 581-1대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2	수창지	중부면 산성리 867-4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3	영고지	중부면 산성리 373학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4	별창지	중부면 산성리 373학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5	구군기고지	중부면 산성리 400-사	관아,성곽건물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6	무망루지	중부면 산성리 85-1사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17	침괘정	중부면 산성리 591-1사	정,각	조선	성남 190-4	경기도유형문화재 제5호	남한산성
418	지수당	중부면 산성리 124-1	정,각	조선	성남 190-4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4호	남한산성
419	구송정지	중부면 산성리 92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0	관어정	중부면 산성리 124-1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1	영일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2	영춘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9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3	옥천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4	완대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5	우회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6	유차산루지	중부면 산성리 935-4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7	이위정지	중부면 산성리 936-4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8	송암정지	중부면 산성리 산9임	정,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29	개원사	중부면 산성리 198-6	사찰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0	남단사지	중부면 산성리 103전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1	한홍사지	중부면 산성리 산38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2	장경사	중부면 산성리 22-1	사찰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3	망월사	중부면 산성리 14	사찰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4	동림사지	중부면 산성리 1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5	옥정사지	중부면 산성리 265-1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436	국청사지	중부면 산성리 812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7	천주사지	중부면 산성리 831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8	영원사지	중부면 검복리 2	사지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39	남용성무인비	중부면 산성리 산137임	기념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0	병암 남성신수기비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념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1	봉암신성병인비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기념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2	행궁앞 석비군	중부면 산성리 1223도	선정비군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3	남문앞 석비군 1	중부면 산성리 1173-4	선정비군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4	남문앞 석비군 2	중부면 산성리 1243도	선정비군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5	이세화 선정비	중부면 산성리 124-1	선정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6	석세화 불망비	중부면 산성리 590-1대	선정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7	국청사 불망비	중부면 산성리 804임	선정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8	옥천정 압각문	중부면 산성리 산23임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49	반석압각문	중부면 산성리 935-6전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0	중은암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1	수어서대	중부면 산성리 815-1사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2	귀부	중부면 산성리 124-1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3	금림조합비	중부면 산성리 산24임	기타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4	월성김씨효열비	중부면 산성리 975대	충효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5	정씨정열비	중부면 산성리 142-2도	충효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6	이대통령행차기념식수비	중부면 산성리 815-1사	기타비	근대	성남 190-4		남한산성
457	서훈남묘비	중부면 산성리 124-1	묘비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8	주필암	중부면 검복리 103-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59	동림사지 우물	중부면 산성리 1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60	효자우물	중부면 산성리 1220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61	국청사지 우물	중부면 산성리 813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0	우묵골 우물	중부면 산성리 1057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1	붕어다리 우물터	중부면 산성리 948대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3	당지기 집터	중부면 산성리 815-3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5	대장간터	중부면 산성리 519-3대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6	도가터	중부면 산성리 581-3대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477	사형장	중부면 산성리 400-1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8	도살장	중부면 산성리 44-6답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79	장터	중부면 산성리 400-1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0	탁지부 측량소삼각점	중부면 산성리 815-1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1	고마소	중부면 산성리 971전 일대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2	과녁터	중부면 산성리 459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3	매염처	중부면 산성리 595-2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4	매탄처	중부면 산성리 산17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6	대부송	중부면 산성리 산9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7	매바위	중부면 산성리 815-1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488	불방아	중부면 산성리 산183-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남한산성
506	산성리 느티나무 1	중부면 산성리 산 21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5	남한산성
507	산성리 느티나무 2	중부면 산성리 산 21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6	남한산성
508	산성리 느티나무 3	중부면 산성리 797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7	남한산성
509	산성리 느티나무 4	중부면 산성리 산 23임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8	남한산성
510	산성리 느티나무 5	중부면 산성리 임 397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9	남한산성
511	산성리 느티나무 6	중부면 산성리 임 2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0	남한산성
512	산성리 느티나무 7	중부면 산성리 산 2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1	남한산성
513	산성리 느티나무 8	중부면 산성리 산 2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2	남한산성
514	산성리 느티나무 9	중부면 산성리 산 2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3	남한산성
515	산성리 느티나무 10	중부면 산성리 산 2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4	남한산성
516	산성리 향나무	중부면 산성리 815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5	남한산성
517	산성리 느티나무 11	중부면 산성리 400-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7	남한산성
518	산성리 느티나무 12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8	남한산성
519	산성리 느티나무 13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9	남한산성
520	산성리 느티나무 14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0	남한산성
521	산성리 느티나무 15	중부면 산성리 17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1	남한산성
522	산성리 느티나무 16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2	남한산성
523	산성리 느티나무 17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3	남한산성
524	산성리 느티나무 18	중부면 산성리 산 21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4	남한산성
525	산성리 느티나무 19	중부면 산성리 377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5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526	산성리 소나무	중부면 산성리 산 15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8	남한산성
527	산성리 은행나무	중부면 산성리 산 17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29	남한산성
528	검복리 음나무 1	중부면 검복리 답43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30	
529	검복리 음나무 2	중부면 검복리 대99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34	
530	이제 묘	중부면 상변천리 산2-1임	묘	조선	광주 191-3		
531	이정기 묘와 신도비	중부면 상변천리 산2-1임	묘	조선	광주 191-3		
532	이항 묘	중부면 상변천리 산2-1임	묘	조선	광주 191-3		
533	변천리 도요지 1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34	변천리 도요지 2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35	변천리 도요지 3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36	변천리 도요지 4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37	변천리 도요지 5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38	변천리 도요지 6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39	변천리 도요지 7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40	변천리 도요지 8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41	변천리 도요지 9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42	변천리 도요지 10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3	변천리 도요지 11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4	변천리 도요지 12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5	변천리 도요지 13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6	변천리 도요지 14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7	변천리 도요지 15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8	변천리 도요지 16	중부면 상변천리 장작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49	변천리 도요지 17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50	변천리 도요지 18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51	변천리 도요지 19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52	변천리 도요지 20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53	변천리 도요지 21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54	상변천리 느티나무	중부면 상변천리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27	
555	불당리 향나무	중부면 불당리 199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31	
556	의안대군 묘	중부면 엄미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경기도기념물 제166호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558	엄미리 느티나무	중부면 엄미리 전399-2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16	
559	엄미리 옻나무	중부면 엄미리 576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33	
560	오전리 도요지 1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61	오전리 도요지 2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62	오전리 도요지 3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63	오전리 도요지 4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64	오전리 도요지 5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65	오전리 도요지 6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566	오전리 도요지 7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67	오전리 잣나무	중부면 오전리	기타유적	조선	성남 190-4	경기광주 32	
568	늑현리 유물산포지	초월면 늑현리 25-8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569	늑현리 은행나무	초월면 늑현리 산18-22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2	경기광주 53	
572	대쌍령리 도요지 1	초월면 대쌍령리 집터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73	대쌍령리 도요지 2	초월면 대쌍령리 옷말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74	대쌍령리 도요지 3	초월면 대쌍령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75	대쌍령리 도요지 4	초월면 대쌍령리 집터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76	대쌍령리 도요지 5	초월면 대쌍령리 옷말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78	낙화암	초월면 대쌍령리 123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579	도평리 참나무	초월면 도평리 산 184-1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56	
580	무갑리 도요지 1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1	무갑리 도요지 2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2	무갑리 도요지 3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3	무갑리 도요지 4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4	무갑리 도요지 5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5	무갑리 도요지 6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86	무갑리 도요지 7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7	무갑리 도요지 8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88	무갑리 도요지 9	초월면 무갑리 구용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89	무갑리 도요지 10	초월면 무갑리 삼박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90	무갑리 도요지 11	초월면 무갑리 삼박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91	무갑리 도요지 12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592	무갑리 도요지 13	초월면 무갑리 거명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93	무갑리 도요지 14	초월면 무갑리 마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94	무갑리 도요지 15	초월면 무갑리 수악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95	무갑리 도요지 16	초월면 무갑리 수악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96	무갑리 도요지 17	초월면 무갑리 마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97	무갑리 도요지 18	초월면 무갑리 구용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98	무갑리 도요지 19	초월면 무갑리 마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599	무갑리 도요지 20	초월면 무갑리 종죽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00	무갑리 도요지 21	초월면 무갑리 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01	무갑리 도요지 22	초월면 무갑리 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02	무갑리 도요지 23	초월면 무갑리 당돌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03	무갑리 도요지 24	초월면 무갑리 삼박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04	산이리 도요지	초월면 산이리 쏜배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06	신익회선생 생가	초월면 서하리 160-1	고가	조선	광주 191-3	경기도기념물 제334호	
607	선동리 도요지 1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08	선동리 도요지 2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09	선동리 도요지 3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10	선동리 도요지 4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11	선동리 도요지 5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12	장차주 묘와 묘갈	초월면 선동리 산3-1임	묘	조선	광주 191-3		
613	장시현 묘	초월면 선동리 산2-1	묘	조선	광주 191-3		
615	이래 묘와 신도비	초월면 신월리 산11임	묘	조선	광주 191-3		
616	이순 묘와 신도비	초월면 신월리 산22-1임	묘	조선	광주 191-3		
617	이한 묘	초월면 신월리 산22-1임	묘	조선	광주 191-3		
618	이수언 묘와 묘갈	초월면 신월리 산22-1임	묘	조선	광주 191-3		
619	이소 묘와 묘갈	초월면 신월리 산221임	묘	조선	광주 191-3		
622	신월리 은행나무	초월면 신월리 121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54	
623	쌍동리 도요지 1	초월면 쌍동리 어두배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624	쌍동리 도요지 2	초월면 쌍동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626	쌍동리 노타나무	초월면 쌍동리 전173-9	기타유적	조선	노곡 191-2	경기광주 55	
627	용수리 유물산포지	초월면 용수리 23-1	유물산포지	조선	노곡 191-1		신규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628	김감 묘와 신도비	초월면 지월리 산69-1임	묘	조선	광주 191-3		
629	정홍문 묘와 묘갈	초월면 지월리 산26-1임	묘	조선	광주 191-3		
630	허난설현 묘	초월면 지월리 산29-5	묘	조선	광주 191-3	광도기념물 제4호	
633	지월리 도요지 1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34	지월리 도요지 2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35	지월리 도요지 3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36	지월리 도요지 4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38	지월리 유물산포지	초월면 지월리 28-5임	유물산포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639	학동리 도요지 1	초월면 학동리 산막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0	학동리 도요지 2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1	학동리 도요지 3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2	학동리 도요지 4	초월면 학동리 두두봉들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3	학동리 도요지 5	초월면 학동리 붓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4	학동리 도요지 6	초월면 학동리 붓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5	학동리 도요지 7	초월면 학동리 벌동막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6	학동리 도요지 8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7	학동리 도요지 9	초월면 학동리 벌동막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8	학동리 도요지 10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49	학동리 도요지 11	초월면 학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0	학동리 도요지 12	초월면 학동리 산막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1	학동리 도요지 13	초월면 학동리 붓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2	학동리 도요지 14	초월면 학동리 붓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3	학동리 도요지 15	초월면 학동리 두루봉들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4	학동리 도요지 16	초월면 학동리 샛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6	관음리 도요지 1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7	관음리 도요지 2	퇴촌면 관음리 도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8	관음리 도요지 3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59	관음리 도요지 4	퇴촌면 관음리 도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0	관음리 도요지 5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1	관음리 도요지 6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2	관음리 도요지 7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663	관음리 도요지 8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4	관음리 도요지 9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5	관음리 도요지 10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6	관음리 도요지 11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7	관음리 도요지 12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68	관음리 도요지 13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69	관음리 도요지 14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0	관음리 도요지 15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71	관음리 도요지 16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2	관음리 도요지 17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3	관음리 도요지 18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4	관음리 도요지 19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5	관음리 도요지 20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6	관음리 도요지 21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7	관음리 도요지 22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78	관음리 도요지 23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79	관음리 도요지 24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0	관음리 도요지 25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1	관음리 도요지 26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82	관음리 도요지 27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3	관음리 도요지 28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4	관음리 도요지 29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5	관음리 도요지 30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6	관음리 도요지 31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7	관음리 도요지 32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88	관음리 도요지 33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89	관음리 도요지 34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90	관음리 도요지 35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691	관음리 느티나무	퇴촌면 관음리 전326-1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80	
692	조영무 묘	퇴촌면 광동리 산16	묘	조선	광주 191-3		
693	광동리 느티나무	퇴촌면 광동리 답346-1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78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694	안당 묘와 신도비	퇴촌면 도마리 산22임	묘	조선	광주 191-3		
695	여여길 묘	퇴촌면 도마리 산19-1임	묘	조선	광주 191-3		
696	여우길 묘	퇴촌면 도마리 산19-1임	묘	조선	광주 191-3		
697	최항 묘와 신도비	퇴촌면 도마리 산11	묘	조선	광주 191-3		
700	도마리 도요지 1	퇴촌면 도마리 윗도마치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01	도마리 도요지 2	퇴촌면 도마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02	도마리 도요지 3	퇴촌면 도마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03	도마리 도요지 4	퇴촌면 도마리 탄발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04	도마리 도요지 5	퇴촌면 도마리 도마치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05	도마리 도요지 6	퇴촌면 도마리 괴기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06	도마리 도요지 7	퇴촌면 도마리 윗도마치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07	도마리 유물산포지	퇴촌면 도마리	유물산포지	구석기·조선	광주 191-3		
708	도마리 느티나무	퇴촌면 도마리 전221-1	기타유적	조선	광주 191-3	경기광주 77	
709	심우승 묘와 신도비	퇴촌면 도수리 산70-3임	묘	조선	광주 191-3		
710	심액 묘와 신도비	퇴촌면 도수리 산70-3임	묘	조선	광주 191-3		
711	심광수 묘와 묘갈	퇴촌면 도수리 산70-3임	묘	조선	광주 191-3		
712	안근 묘	퇴촌면 도수리 산72	묘	조선	광주 191-3		
713	안용 묘	퇴촌면 도수리 산72	묘	조선	광주 191-3		
714	황유 묘	퇴촌면 도수리 산75	묘	조선	광주 191-3		
715	숙안공주 묘	퇴촌면 도수리 산75	묘	조선	광주 191-3		
716	도수리 사지	퇴촌면 도수리 70	사지	조선	광주 191-3		
717	도수리 도요지 1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18	도수리 도요지 2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19	도수리 도요지 3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20	도수리 도요지 4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21	도수리 도요지 5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22	도수리 도요지 6	퇴촌면 도수리 사기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23	도수리 도요지 7	퇴촌면 도수리 사기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24	도수리 도요지 8	퇴촌면 도수리 삼백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25	도수리 도요지 9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26	신희 묘와 신도비	퇴촌면 영동리 산12-1	묘	조선	양평 191-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728	오리 유물산포지 2	퇴촌면 오리 40-2답	유물산포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729	오리 유물산포지 3	퇴촌면 오리 73답 일대	유물산포지	조선	광주 191-3		신규
730	김익훈 묘와 신도비	퇴촌면 무수리 웃무솔	묘	조선	광주 191-3		
731	김만채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광주 191-3		
732	김성택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광주 191-3		
733	김상익 묘	퇴촌면 무수리 101-4전	묘	조선	광주 191-3		
734	김진상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광주 191-3		
735	김만선 묘	퇴촌면 무수리 산21임	묘	조선	광주 191-3		
736	김영택 묘	퇴촌면 무수리 산21임	묘	조선	광주 191-3		
737	김진항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광주 191-3		
738	김상정 묘	퇴촌면 무수리 산4-3임	묘	조선	광주 191-3		
739	김상악 묘와 신도비	퇴촌면 무수리 4-3	묘	조선	광주 191-3		
740	김경택 묘	퇴촌면 무수리 산5임	묘	조선	광주 191-3		
741	천진암 성현오위 묘	퇴촌면 우산리 500	묘	조선	양평 191-4		
743	우산리 도요지 1	퇴촌면 우산리 박석거리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744	우산리 도요지 2	퇴촌면 우산리 천진암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745	우산리 도요지 3	퇴촌면 우산리 천진암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746	우산리 도요지 4	퇴촌면 우산리 뒷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47	우산리 도요지 5	퇴촌면 우산리 뒷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48	우산리 도요지 6	퇴촌면 우산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49	우산리 도요지 7	퇴촌면 우산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0	우산리 도요지 8	퇴촌면 우산리 가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1	우산리 도요지 9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52	우산리 도요지 10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53	우산리 도요지 11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4	우산리 도요지 12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5	우산리 도요지 13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6	우산리 도요지 14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57	우산리 도요지 15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8	우산리 도요지 16	퇴촌면 우산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759	우산리 도요지 17	퇴촌면 우산리 도로자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760	우산리 도요지 18	퇴촌면 우산리 박석거리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761	우산리 도요지 19	퇴촌면 우산리 박석거리	도요지	조선	양평 191-4		
762	우산리 도요지 20	퇴촌면 우산리 고로지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763	우산리 도요지 21	퇴촌면 우산리 고로지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764	원당리 도요지	퇴촌면 원당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765	정지리 도요지 1	퇴촌면 정지리 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766	정지리 도요지 2	퇴촌면 정지리 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사적 134호	
767	정지리 도요지 3	퇴촌면 정지리 정자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사적 134호	
768	정지리 도요지 4	퇴촌면 정지리 정자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사적 134호	

(5) 근·현대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37	여백재	광주읍 중대리 197-2대	기타유적	현대	성남 190-4		
38	충양사	광주읍 중대리 산15-2	사묘	현대	성남 190-4		
39	함안이씨 정려문	광주읍 중대리 107-1	정려문	현대	성남 190-4		
47	성재	광주읍 직리	사묘	현대	성남 190-4		
48	남택수 가옥	광주읍 직리(곧은골)	고가	근대	성남 190-4		
66	김용학 가옥	남종면 검천리 856번지 (농곡)	고가	근대	양수 206-1		
67	이윤호 가옥	남종면 검천리(농곡)	고가	근대	양수 206-1		
72	최지숙 가옥	남종면 귀여리 551	고가	근대	양수 206-1		
73	한경우 가옥	남종면 귀여리 54-3	고가	근대	양수 206-1		
106	이춘열 가옥	남종면 삼성리(삼정골)	고가	근대	광주 191-3		
118	이해창 가옥	남종면 이석리 9번지(석령동)	고가	근대	광주 191-3		
157	이덕순 가옥	도척면 유정리(미륵동)	고가	근대	노곡 191-1		
191	최봉항 효자정문	실촌면 부항리 산69	정려문	현대	이천 191-2		
192	구연영 묘	실촌면 삼리 26-33	묘	근대	노곡 191-1		
235	충렬묘	실촌면 하열미리 313	사묘	현대	노곡 191-1		
236	이순이 가옥	실촌면 상열미리 11번지	고가	근대	광주 191-3		
248	구덕회 효자비	실촌면 하열미리 467-4	효자비	근대	노곡 191-1		
249	백인대	실촌면 하열미리 산174	명승지	현대	노곡 191-1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50	강석규 가옥	실촌면 하열미리 144번지	고가	근대	노곡 191-1		
280	충사각	오포면 능평리 618번지	사묘	현대	능평 190-2		
288	박창환 가옥	오포면 문형리(봉골)	고가	근대	능평 190-2		
302	영모재	오포면 신흥리 810	사묘	현대	능평 190-2		
303	양평묘	오포면 양벌리 520-1	사묘	현대	능평 190-2		
474	송수탑지	중부면 산성리 산28임	기타유적	근대	성남 190-4		남한산성
493	홍진분가옥	중부면 산성리 603	고가	근대	성남 190-4		남한산성
494	안동순가옥	중부면 산성리 947	고가	근대	성남 190-4		남한산성
495	김원려가옥	중부면 산성리 447	고가	근대	성남 190-4		남한산성
557	방병식 가옥	중부면 엄미리(벽수골)	고가	근대	성남 190-4		
570	장충묘	초월면 대쌍령리 87-1	사묘	현대	광주 191-3		
571	김태선 효자비	초월면 대쌍령리	효자비	근대	광주 191-3		
614	광주김씨 정려문	초월면 선동리 66	정려문	현대	광주 191-3		
620	고덕재	초월면 신월리 174	사묘	현대	광주 191-3		
621	옥산사	초월면 신월리 14전	사묘	현대	광주 191-3		
655	홍성현 가옥	퇴촌면 관음리 700-1(절골)	고가	근대	광주 191-3		
698	문정공최항지묘	퇴촌면 도마리 197-8	사묘	현대	광주 191-3		
699	문정공영모재	퇴촌면 도마리 195	사묘	현대	광주 191-3		

(6) 미상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462	남단사지 우물	중부면 산성리 103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3	옥정사지 우물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4	형제 우물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5	장군수 우물	중부면 산성리 804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6	박달재앞 우물	중부면 산성리 1223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7	개원사용왕당	중부면 산성리 198-6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8	감로수	중부면 산성리 산18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69	대궐할머니 우물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72	남문약수	중부면 산성리 1173-3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485	감투바위	중부면 산성리 871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89	벌바위	중부면 산성리 산2-1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0	왕바위	중부면 산성리 산37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1	취성암	중부면 산성리 산19임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2	구멍바위	중부면 산성리 815-1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6	배바위	중부면 산성리 815	민간신앙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7	벌봉 서낭당	중부면 산성리 산 2	민간신앙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8	현절사 서낭당	중부면 산성리 334전	민간신앙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499	검복리 장승	중부면 검복리 산43-1임	민간신앙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0	영월제터	중부면 산성리 527일대	민간신앙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1	터주가리	중부면 산성리 홍전분가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2	청량당굿당	중부면 산성리 815-1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3	벌봉굿당	중부면 산성리 815-1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4	큰골굿당	중부면 검복리 2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505	개심폭바위	중부면 산성리 산 27	기타유적	미상	성남 190-4		남한산성
632	국수봉 산성	초월면 지월리 69-1임 / 광주읍 쌍령리 산26임	성	미상	광주 191-3		신규
742	천진암	퇴촌면 우산리	사지	미상	양평 191-4		

3. 지정문화재

1) 사적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5	목현리 도요지 1	광주읍 목현리 새오개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9	송정리 도요지 1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10	송정리 도요지 2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12	송정리 도요지 4	광주읍 송정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2	탄벌리 도요지 4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3	탄벌리 도요지 5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6	탄벌리 도요지 8	광주읍 탄벌리 사기막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74	귀여리 도요지 1	남종면 귀여리 수리울골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86	금사리 도요지 2	남종면 금사리 윗말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87	금사리 도요지 3	남종면 금사리 윗말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93	금사리 도요지 9	남종면 금사리 구터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95	분원리 도요지 1	남종면 분원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122	궁평리 도요지 1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23	궁평리 도요지 2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24	궁평리 도요지 3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26	궁평리 도요지 5	도척면 궁평리 간창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48	상림리 도요지 12	도척면 상림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185	곤지암리 도요지 6	실촌면 곤지암리 곤지암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1	신대리 도요지 6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3	신대리 도요지 8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4	신대리 도요지 9	실촌면 신대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7	신대리 도요지 12	실촌면 신대리 새터말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18	신대리 도요지 13	실촌면 신대리 작은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24	신대리 도요지 19	실촌면 신대리 절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39	열미리 도요지 3	실촌면 중열미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41	열미리 도요지 5	실촌면 상열미리 더덕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242	열미리 도요지 6	실촌면 상열미리 뒷골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46	열미리 도요지 10	실촌면 중열미리 못들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55	오향리 도요지 4	실촌면 상오향리	도요지	조선	노곡 191-1	사적 134호	
263	유사리 도요지 3	실촌면 유사리 벼드라리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사적 134호	
265	유사리 도요지 5	실촌면 유사리 아랫말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사적 134호	
268	유사리 도요지 8	실촌면 유사리 웃말	도요지	조선	이천 191-2	사적 134호	
313	원성	중부면 산성리 산 1사	성	조선	성남 190-4	사적 57호	남한산성
533	변천리 도요지 1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36	변천리 도요지 4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37	변천리 도요지 5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39	변천리 도요지 7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40	변천리 도요지 8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41	변천리 도요지 9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52	변천리 도요지 20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53	변천리 도요지 21	중부면 상변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61	오전리 도요지 2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62	오전리 도요지 3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64	오전리 도요지 5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66	오전리 도요지 7	중부면 오전리	도요지	조선	성남 190-4	사적 134호	
572	대쌍령리 도요지 1	초월면 대쌍령리 집터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85	무갑리 도요지 6	초월면 무갑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88	무갑리 도요지 9	초월면 무갑리 구용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90	무갑리 도요지 11	초월면 무갑리 삼박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93	무갑리 도요지 14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94	무갑리 도요지 15	초월면 무갑리 수악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596	무갑리 도요지 17	초월면 무갑리 미내미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00	무갑리 도요지 21	초월면 무갑리 당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03	무갑리 도요지 24	초월면 무갑리 삼박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08	선동리 도요지 2	초월면 선동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33	지월리 도요지 1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34	지월리 도요지 2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35	지월리 도요지 3	초월면 지월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59	관음리 도요지 4	퇴촌면 관음리 도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660	관음리 도요지 5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1	관음리 도요지 6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3	관음리 도요지 8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4	관음리 도요지 9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5	관음리 도요지 10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6	관음리 도요지 11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69	관음리 도요지 14	퇴촌면 관음리 관음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1	관음리 도요지 16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2	관음리 도요지 17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3	관음리 도요지 18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4	관음리 도요지 19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5	관음리 도요지 20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76	관음리 도요지 21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81	관음리 도요지 26	퇴촌면 관음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687	관음리 도요지 32	퇴촌면 관음리 사관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00	도마리 도요지 1	퇴촌면 도마리 윗도마치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01	도마리 도요지 2	퇴촌면 도마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03	도마리 도요지 4	퇴촌면 도마리 탄발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06	도마리 도요지 7	퇴촌면 도마리 윗도마치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19	도수리 도요지 3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20	도수리 도요지 4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21	도수리 도요지 5	퇴촌면 도수리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46	우산리 도요지 4	퇴촌면 우산리 뒷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47	우산리 도요지 5	퇴촌면 우산리 뒷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51	우산리 도요지 9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52	우산리 도요지 10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56	우산리 도요지 14	퇴촌면 우산리 매내미	도요지	조선	광주 191-3	사적 134호	
766	정지리 도요지 2	퇴촌면 정지리 능골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사적 134호	
767	정지리 도요지 3	퇴촌면 정지리 정자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사적 134호	
768	정지리 도요지 4	퇴촌면 정지리 정자동	도요지	조선	광주 191-4	사적 134호	

2) 경기도 유형문화재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56	유정리 석불좌상	도척면 유정리 222-7	불상	조선	노곡 191-1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8호	
389	수여장대	중부면 산성리 산85-1사	성	조선	성남 190-4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	남한산성
390	남장대	중부면 산성리 산32-1임	성	조선	성남 190-4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호	남한산성
392	송렬전	중부면 산성리 산717사	사묘	조선	성남 190-4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	남한산성
417	침패정	중부면 산성리 591-1사	정,각	조선	성남 190-4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호	남한산성
418	지수당	중부면 산성리 124-1	정,각	조선	성남 190-4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4호	남한산성

3) 경기도 기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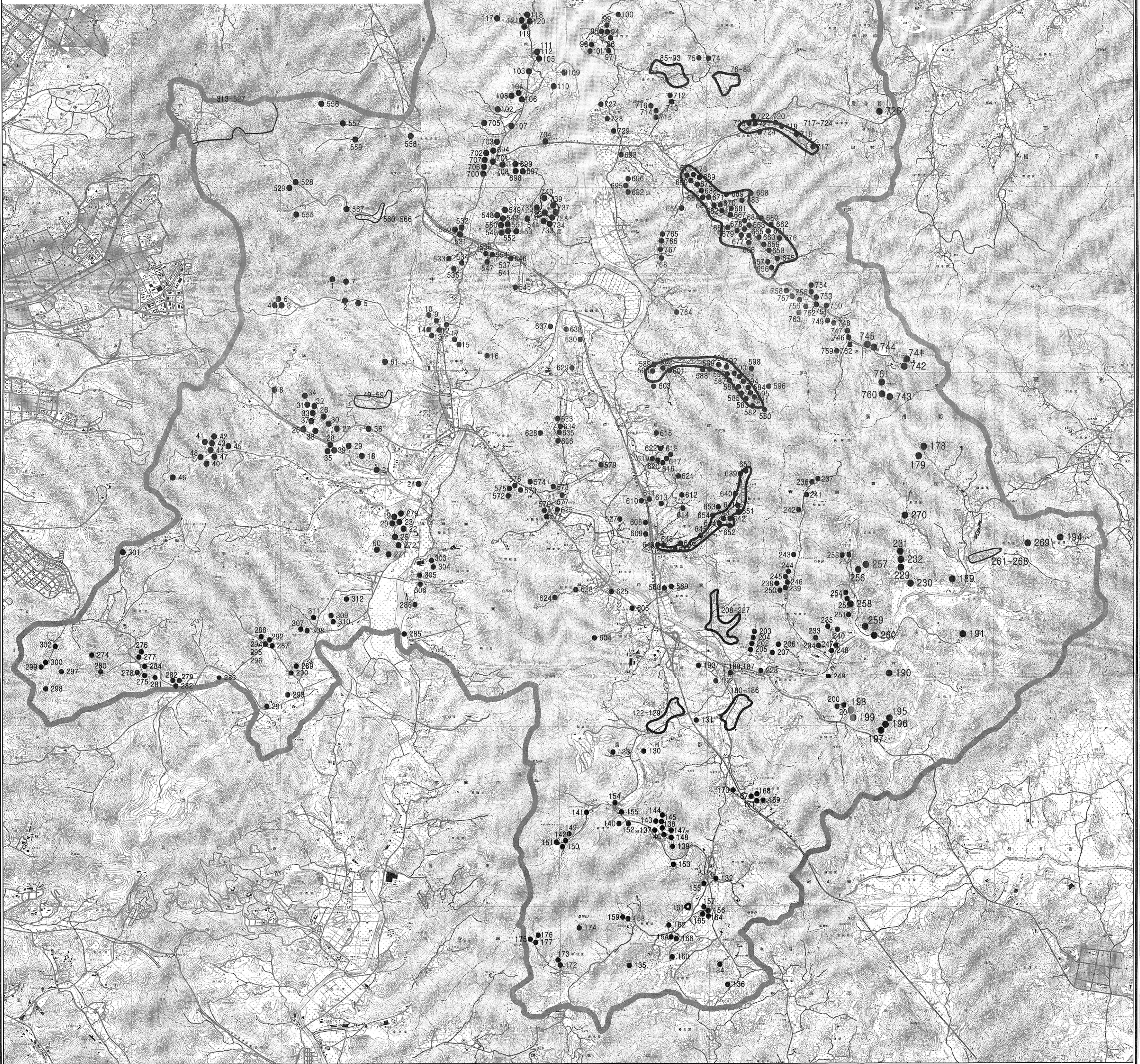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202	신탄 묘와 묘갈	실촌면 신탄리 산1-1	묘	조선	노곡 191-1	경기도기념물 제95호	
274	김균 묘와 신도비	오포면 능평리 산89-1	묘	조선	능평 190-2	경기도기념물 제106호	
297	김자수 묘와 신도비	오포면 신탄리 산120-1	묘	조선	능평 190-2	경기도기념물 제98호	
556	의안대군 묘	중부면 엄미리 산152임	묘	조선	성남 190-4	경기도기념물 제166호	
606	신익희선생 생가	초월면 서하리 160-1	고가	조선	광주 191-3	경기도기념물 제134호	
630	허난설헌 묘	초월면 지월리 산29-5	묘	조선	광주 191-3	경기도기념물 제90호	

4) 경기도 문화재 자료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비 고
188	곶지암 바위	실촌면 곶지암리 453-20	명승지	조선	노곡 191-1	경기도문화재자료 제63호	

광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 | | | | |
|----------------------|------------------------|------------------------|------------------------|
| 1. 서양원 묘와 묘갈 | 115. 어이정 묘와 선도비 | 250. 김석규 가옥 | 579. 도림리 참나무 |
| 2. 서계수 묘 | 116. 여성제선생 생가 | 251. 송일 묘 | 580~603. 무강리 도오지 1~24호 |
| 3. 산수경 묘 | 117. 아현정 묘갈 | 252~257. 오항리 도오지 1~6호 | 604. 산아리 도오지 |
| 4. 산비 묘 | 118. 이백정 가옥 | 258. 신의현리 유물산포지 | 605. 산아리 지석묘 |
| 5~7. 옥현리 도오지 1~3호 | 119. 이석리 은행나무1 | 259. 화오항리 유물산포지 | 606. 신의현선생 생가 |
| 8. 신의현유물산포지 | 120. 아서리 은행나무2 | 260. 화오항리 행나무 | 607~611. 선동리 도오지 1~5호 |
| 9~15. 송정리 도오지 1~7호 | 121. 아서리 은행나무3 | 261~269. 유서리 도오지1~6호 | 612. 장두리 묘와 묘갈 |
| 16. 송정리 느티나무 1 | 122~130. 공평리 도오지 1~9호 | 270. 장삼리 도오지 | 613. 장시현 묘 |
| 17. 송정리 느티나무 2 | 131. 공평리 공평유적 | 271. 고산리 부문토기산포지 | 614. 광주김씨 정려문 |
| 18. 박종기 묘 | 132. 노곡리 느티나무 | 272. 고산리 느티나무1 | 615. 아사 묘와 선도비 |
| 19. 장영사 묘 | 133. 도림리 유물산포지 | 273. 고산리 느티나무2 | 616. 아사 묘와 선도비 |
| 20. 정충왕 묘와 묘갈 | 134. 봉암사 | 274. 김곡 묘와 선도비 | 617. 이항 묘 |
| 21. 장석정 묘 | 135. 수도리 | 275. 낙산군 이암 묘 | 618. 이수원 묘와 묘갈 |
| 22. 장지리 지석묘 | 136. 빙도리 느티나무 | 276. 리향남씨 묘원 | 619. 이소 묘와 묘갈 |
| 23. 장지리 도오지 | 137~151. 상월리 도오지 1~15호 | 277. 남평신신묘비 | 620. 고덕재 |
| 24. 장지리 구석기유적 | 152. 상월리 유물산포지1 | 278. 유가덕 묘 | 621. 옥산사 |
| 25. 장지리 유물산포지 | 153. 상월리 유물산포지2 | 279. 이백조 묘 | 622. 신월리 은행나무 |
| 26. 상월리 묘와 선도비 | 154. 상월리 유물산포지 | 280. 송사각 | 623. 624. 상월리 도오지 1,2호 |
| 27. 이계동 묘 | 155. 상월리 느티나무 | 281. 남평리 무문토기산포지 | 625. 쌍동리 지석묘 |
| 28. 아세동 묘 | 156. 유정리 석불좌상 | 282. 남평리 유물산포지 | 626. 쌍동리 느티나무 |
| 29. 아진 묘와 묘갈 | 157. 이득동 가옥 | 283. 남평리 기와산포지 | 627. 유서리 유물산포지 |
| 30. 안원초 묘 | 158~159. 유정리 도오지 1,2호 | 284. 남평리 느티나무 | 628. 김길 묘와 선도비 |
| 31. 안원초 묘 | 160. 유정리 건물지 | 285. 매산리 유물산포지 | 629. 정충왕 묘와 묘갈 |
| 32. 안원초 묘와 선도비 | 161. 유정리 유물산포지 | 286. 매산리 유물산포지 | 630. 해남정현 묘 |
| 33. 양정리 묘 | 162. 유정리 느티나무1 | 287. 박교촌송덕비 | 631. 지월리 사지 |
| 34. 양정리 묘 | 163. 유정리 느티나무2 | 288. 박정현 가옥 | 632. 국수봉산성 |
| 35. 아서정 묘 | 164. 유정리 느티나무3 | 289. 박정현 유물산포지1 | 633~636. 지월리 도오지 1~4호 |
| 36. 아서 묘와 묘갈 | 165. 유정리 느티나무4 | 290. 관평리 유물산포지2 | 637. 지월리 구석기유적 |
| 37. 여백재 | 166. 유정리 파나무 | 291. 관평리 유물산포지3 | 638. 지월리 유물산포지 |
| 38. 송암사 | 167. 신강원 묘 | 292. 관평리 유물산포지1 | 639~654. 관평리 도오지 1~16호 |
| 39. 송암사비정려문 | 168. 신막 묘 | 293. 관평리 느티나무1 | 655. 송암현 가옥 |
| 40. 송암사 유물 | 169. 관평리 느티나무1 | 294. 관평리 느티나무2 | 656~690. 관평리 도오지 1~35호 |
| 41. 남새간 묘와 묘비 | 170. 진주리 느티나무2 | 295. 관평리 느티나무3 | 691. 관평리 느티나무 |
| 42. 남포 묘 | 171. 진주리 가시항나무 | 296. 관평리 느티나무4 | 692. 조영무 묘 |
| 43. 내사리 묘와 선도비 | 172. 관세리 묘와 묘갈 | 297. 관평리 느티나무5 | 693. 관평리 느티나무 |
| 44. 남부정 묘와 선도비 | 173. 관내리 묘와 묘비 | 298. 김곡 묘 | 694. 안동 묘와 선도비 |
| 45. 남산 묘와 선도비 | 174. 백련암 부도 | 299. 김곡 묘 | 695. 여이길 묘 |
| 46. 봉서산 묘 | 175~177. 추곡리 도오지 1~3호 | 300. 김곡 묘와 묘갈 | 696. 아사길 묘 |
| 47. 서양원 묘 | 178. 179. 전평리 도오지 1,2호 | 301. 서평정 묘와 선도비 | 697. 화암 묘와 선도비 |
| 48. 남해수 가옥 | 180~186. 곤지암리 도오지 1~7호 | 302. 양모재 | 698. 문정광회향묘지 |
| 49~59. 반평리도오지 1~11호 | 187. 곤지암리 행나무 | 303. 양모재 | 699. 문정광회향묘지 |
| 60. 반평리 유물토기산포지 | 188. 곤지암리 배루 | 304. 양평리 유물산포지 | 700~706. 도마리 도오지 1~7호 |
| 61. 탄발리 참나무 | 189. 민신리 느티나무 | 305. 양평리 느티나무1 | 707. 도마리 유물산포지 |
| 62. 삼구정 묘 | 190. 봉현리 느티나무 | 306. 양평리 느티나무2 | 708. 도마리 느티나무 |
| 63. 아사동 묘 | 191. 화평향토지정문 | 307. 양평리 묘와 묘갈 | 709. 삼부승 묘와 선도비 |
| 64. 화평향 묘와 묘갈 | 192. 구암정 묘 | 308. 정현 묘 | 710. 삼부 묘와 선도비 |
| 65. 문정현묘지비 | 193. 삼의 구석기유적 | 309. 양평분 묘 | 711. 삼부수 묘와 묘갈 |
| 66. 김봉학 가옥 | 194. 김석리 묘 | 310. 양유 묘와 묘갈 | 712. 안근 묘 |
| 67. 양정리 가옥 | 195. 삼정리 묘 | 311. 추지리 유물산포지1 | 713. 안근 묘 |
| 68. 김천리 느티나무 | 196. 삼척 묘 | 312. 추지리 유물산포지2 | 714. 봉유 묘 |
| 69. 관천리 은행나무 | 197. 삼척 묘 | 313~527. 남평신생와 주변유적 | 715. 죽안공주 묘 |
| 70. 관천리 묘와 선도비 | 198. 관천리 묘 | 528. 관평리 유물산포지 | 716. 도마리사지 |
| 71. 불상암 | 199. 관평리 묘 | 529. 관평리 유물산포지 | 717~725. 도수리 도오지 1~9호 |
| 72. 최지숙 가옥 | 200. 수양리 느티나무1 | 530. 이항 묘 | 726. 신촌 묘와 선도비 |
| 73. 완강리 가옥 | 201. 수양리 느티나무2 | 531. 이항기 묘와 선도비 | 727. 오리 유물산포지1 |
| 74~84. 가마리 도오지 1~11호 | 202. 신월리 묘와 묘갈 | 532. 이항 묘 | 728. 오리 유물산포지2 |
| 85~93. 금사리 도오지 1~9호 | 203. 신준 묘와 묘갈 | 533~553. 변천리 도오지 1~21호 | 729. 오리 유물산포지3 |
| 94. 분원리 선정비 | 204. 신안 묘와 선도비 | 554. 상변천리 느티나무 | 730. 김익준 묘와 선도비 |
| 95~100. 분원리 도오지 1~6호 | 205. 신성리 묘와 묘갈 | 555. 분원리 행나무 | 731. 김만재 묘 |
| 101. 분원리 유물산포지 | 206~227. 신성리 도오지 1~22호 | 556. 분원리 행나무 | 732. 김신재 묘 |
| 102. 관진 묘 | 228. 신대리 대석동유적 | 557. 방백정 가옥 | 733. 김삼익 묘 |
| 103. 노죽재 묘 | 229. 연곡리 구석기유적 | 558. 방백리 느티나무 | 734. 김진성 묘 |
| 104. 연곡지 묘 | 230. 연곡리 유물산포지 | 559. 방백리 느티나무 | 735. 김진성 묘 |
| 105. 김충현 가옥 | 231. 이암구 묘와 묘갈 | 560~566. 오정리 도오지 1~7호 | 736. 김진성 묘 |
| 106. 이운원 가옥 | 232. 이현서 묘와 선도비 | 567. 오정리 옛나무 | 737. 김진성 묘 |
| 107. 선상리 지석묘 | 233. 구지암 묘와 선도비 | 568. 낙평리 유물산포지 | 738. 김진성 묘 |
| 108. 선상리 도오지 | 234. 구지암 묘 | 569. 낙평리 은행나무 | 739. 김진성 묘와 선도비 |
| 109. 선상리 유물산포지1 | 235. 홍평묘 | 570. 정충묘 | 740. 김진성 묘 |
| 110. 선상리 유물산포지2 | 236. 아순이 가옥 | 571. 김대선묘지 | 741. 전진암 성면오리 묘 |
| 111. 선상리 축배나무1 | 237~246. 월평리 도오지 1~10호 | 572~576. 대평리리 도오지 1~5호 | 742. 전진암지 |
| 112. 선상리 축배나무2 | 247. 화평리 느티나무 | 577. 대평리리 유물산포지 | 743~763. 우산리 도오지 1~21호 |
| 113. 여선재 묘와 선도비 | 248. 구덕현묘지 | 578. 낙화암 | 764. 원당리 도오지 |
| 114. 여유정 묘와 묘비 | 249. 백언대 | | 765~768. 장지리 도오지 1~4호 |



기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제1집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발 행 일 : 2000년 5월 일

발 행 처 :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

편집·제작 : 경기출판사(0331-231-5520~7)